나는 지금 낯선이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 한번도 겪어본 적 없는 상황이다. 말하자면 절체절명인데 점점 절명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식은땀이 흐른다. “ 아저씨, 저한테 이러셔도 저희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거예요." 아… 너무 떨리고 무서운데도 내 입을 통한 목소리는 덤덤하게 잘도 나왔다. 이렇게나 울고 싶은 기분인데도 어째서 목소리하나 떨리지 않는거지? 얼굴도 분명 건방져 보일만큼 무표정할 것이다. 거울을 안 봐도 뻔하다. 나를 억세게 묶어 놓고 나서도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는 중년 남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했던 말이지만, 역시나 역효과였는지 그는 기다렸다는 듯 소리를 질러 댔다.“닥쳐! 잠깐 운이 안 좋아서… 상황이 잠깐 안 좋아진거라고 몇번을 말했는데! 어떻게 십 년이 넘게 거래한 상대를 그렇게 순식간에 내칠 수가 있어? 그게 사람인가? 어? 그게 사람새낀가? 딸년이라는 것도 그 새끼랑 똑같이 빌어먹게도 냉정한 얼굴이시군그래. 허 그래 너도 내가 우습냐? 그래서 그딴 표정이야?" ‘아아, 왜 하필 나일까…’ 그가 침을 튀기며 화를 내건 말건 초지일관 무표정한 내가 그를 더욱 화나게 했는지, 그는 본인 화를 못 이겨서 나를 가둔 캄캄한 창고안의 잡동사니들을 요란스레 발로 차댔다. 정황상 그는 아마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던 것 같다. 그리고… 뭐 뻔하지. 아버지는 그를 더 이상 사업 파트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 하신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게다가, 아마 아버지의 판단은 회사의 미래에 있어서도 옳은 판단 일 것이다. 항상 그랬듯이 말이다. 또 한번 오싹 하고 소름이 돋는 것이 느껴졌다. ‘무서워! 내가 왜 이 꼴이 되어야 해?, 정신 차려 박진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살아날 구멍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문 닫은 공장으로 끌려와 보복성 살해가 되기 직전이라도 말이야... 살아날 확률은 있겠지?…있으려나.'갑자기 코끝이 매워졌다. 평생 로봇이라고 불리며 살았지만 눈물을 내는 로직은 심어져 있었나보다. 나는 한 번 더 그의 인정에 호소해 보기로 했다. 별로 재미없는 인생이었지만 여기서 죽기는 싫다. 제일 먼저 하나밖에 없는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다음으로는 스물일곱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번을 못 해봤다는 것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있는 힘껏 불쌍한 표정을 짜내려고 노력하며 말했다."아저씨, 정말로 저를 여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 건, 저희 아버지한테 전혀 영향이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바깥에서 만들어 온 자식이라 집에서 같이 산 건 철들고 나서였다고요. 아버지는 제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실 거예요." 아… 나는 왜 나의 이 절절한 성장 과정을 이렇게 성의 없는 내레이션 정도로 밖에 말하지 못하는 걸까. 미치겠다. 이 감정이 배제된 나의 출력 장치. A/S 전화번호 따윈 잃어버린 지 오래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무미건조한 읊조림이 효과가 있었던 건지 분노에 차있던 아저씨는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다. 약간 놀란 눈을 하는 걸 보니 맘을 고쳐먹은 걸까? 그래요 아저씨. 아저씨가 복수의 타깃으로 잡은 나는, 전혀 가치가 없는 쭉정이였다고요. 나는 약간 희망을 가져보았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니 아가씨.. 부모란 걸 왜 이렇게 몰라?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사람은 자식을 낳는 순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부모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고!" 아저씨는 갑자기 감상적이 되어 눈물을 글썽였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정해져 있는 거야!’ 이 부분을 말할 때는 묶여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있는 내 어깨를 거칠게 흔들기까지 했다. 그런 걸까? 우리 아버지도?… 내가 죽으면 그 아버지라도 조금은 울어주실까? 조금은 더 같이 이야기라도 해볼걸… 하고 후회하실까? 내 장례식장에 망연히 서있을 그 얼음 같은 아버지를 상상하니,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다. 나 좋을 대로의 상상이긴 하지만 마음 한 켠이 뜨거워졌던 것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아저씨… 저희 아버지도 사실 아주 조금쯤은 저를 좋아하셨을까요?" 그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그럼! 물론이지! 그러니 맘 푹 놓고 저세상 가시게나. 이렇게 돼서 미안하네." 아 미친. 감동적 결말로 극적 타결되려는 줄 알았다. 그는 짜게 식어가는 내 이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훈훈한 표정까지 지어가며 주섬주섬 말했다. "아가씨 죽여서 그 새끼 가슴 찢어 놓는 걸 내 저승길 선물로 생각하기로 했어. 걱정 마 아가씨, 금방 따라갈 테니까." "아저씨가 내 저승길 쫓아 오는 게 도대체 저한테 무슨 위안이 된다는 거죠?" 흥분해서 외친 항의의 말마저 냉정한 딴지 정도로 들렸다. 남한테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 극도로 적었던 나는, 항상 감정 표현이라는 것이 어려웠다. ‘애교도 부려볼 수 없었고, 투정 부려봤자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뭘 어떡할 수 있었겠어.’ 나는 항상 조심스럽게 숨죽여 살아왔으니까. 그 행동의 결과가 이런 로봇 같은 말투와 표정이 아닐까… 하고 가정해 본다.나 말고는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자신을 좋게 포장해 보았다. 내 냉정한 비난의 말에 아저씨가 또다시 화를 못 이겨 벌떡 일어나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아저씨를 구슬려 보려고 떼었던 입술을 다시 다물었다. ‘불쌍하다. 어쩌면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었던 걸까 나는. 결국 이렇게 죽는 건가.’"내가 죽겠다는데 네가 뭘 잘났다는 듯이 지껄이고 지랄이야!" 화가 얼굴에 모여 벌겋게 달아오른 중년 남자는 나의 목덜미를 사정없이 두손으로 잡아챘다. 아마 살 수 없겠지. 나는. 내 생이 이렇게 부질 없이 끝나게 됐다는 사실에 통곡하는 내 마음과는 다르게, 냉철한 머리는 나에게 망설임 없이 사형선고를 내렸다. ‘안녕히, 박진아. 다음 생엔 부디 솔직한 아이가 되어보자.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되어보자, 아니, 이건 너무 과분한가. 그렇다면 적어도 잔뜩, 잔뜩 사랑해 보아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걸 잔뜩 만들어 보아야지. 사랑스러운 것들을 소중히 대해줘야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기도를 끝내자, 나는 목 졸려 죽어가는 그 순간. 괴로움에 발버둥 치는 그 순간에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 흘리기 어려웠던 눈물이 펑펑 쏟아냈다. ‘크윽...’ 머리에 침이 박히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음…설마 나 아직 살아있는건가?' 이상적인 생애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죽고 싶진 않았었다. 평화로운 다음 생을 기약하며 눈을 감았던 나는 놀랍게도 다시 한번 눈을 뜰 수 있었다. ‘운 좋게도 빨리 발견된 걸까?’ 나는 병원 천장이 보일 것을 기대하며 눈을 떴다. 하지만 그런 기대를 보기 좋게 배신하고 나를 맞은 것은… 왜인지 ‘또 다른 납치 현장’인 듯했고, 게다가 당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내 손은 앞으로 단단히 묶여있었는데, 장소는 웬 숲 속이었다. 우거진 나뭇잎들을 올려다보자 햇살이 드문드문 눈부셨다.머리가 띠잉한게 아직 제대로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다. 조금씩 어긋나는 초점을 맞추기 위해 눈을 끔벅거리고 있으려니까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어이구 꼬마 아가씨~ 거칠게 다뤄서 미안해? 쪼-금 시건방진 태도를 고쳐준다고 때린 게 정신까지 잃을 정도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젠 말 잘 들어야 해?" 그림으로 그린 듯한 양아치같은 덩치 큰 아저씨가 건들건들 기분 나쁘게 말을 걸어왔다. 동양인이 아닌 거 같은데 외국인인가? … 그건 둘째 치고,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무슨 영화 같은 옷차림이다. 서양 고전 영화의 엑스트라가 입을 법한 옷이다. ‘뭐지 이 사람은? 아까 그 아저씨는 어딜 간 거지? 설마 날 죽이려는 건 단념하고 욕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코스프레 술집 같은데 팔았나? 그리고 뭐야? 말을 들어보니 내 머리를 정신을 잃을 정도로 후려친 것 같은데?’ "저기.. 누구세요?" 나는 공포에 떨며 말을 했다. 아까와는 다르게 울먹이는 목소리가 잘도 나온다 싶었는데… 어라? 이건 완전 애기 목소리잖아. 목이 좀 쉬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 다른 사람의 목소리다. 으왓! 하고 놀라서 나도 모르게 움찔했더니 움직이는 손도 어린아이의 손이었다. 웬 조막만 한 손이 묶여있는 것이 참 어색해서, 나는 그게 내 손이라는 걸 깨닫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게 뭐야 이게 내꺼야?" 내 손을 보며 내가 그렇게 경악하자, 새로운 납치범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어리둥절하게 멍하게 있다가 머리를 쥐고 망했다는 듯이 외쳤다. "아~큰일 났다! 애를 완전 병신으로 만들어놨나 보네 크~귀찮게 됐어!! 이봐 꼬맹이 정신 차려! 정신 놓으면 안돼!" 남자는 내 뺨을 기분 나쁘게 툭툭 치며 말했다. "꼬마야. 일부터 십까지 세어봐" 나는 떨떠름하게 숫자를 셌다. 여전히 내 목소리가 아니다. 게다가 내가 아까부터 쓰고 있는 말은 한국말이 아닌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대화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정신이 없다. 그리고, 아까부터 내 시야에 팔랑거려서 너무나 신경 쓰이는 이건… 엥? 설마 내 머리카락인가? 숫자 세는 것을 끝 마치자 아저씨는 안심한 것처럼 말했다. "좋아 숫자는 잘 세는군. 근데 이번엔 또 뭐 하는 거냐, 너?" 내가 당황한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외쳤다. "뭐야? 이 태평한 머리색은?? 설마 이게 내 머리색이야?!?" 나는 여전히 어색한 내 손으로 시야에 하늘거리던 가닥을 잡으려 했다. 기분 탓인 걸까 손가락의 세세한 조작이 어렵다. 원래의 내 팔의 길이와도 확연히 달라, 거리를 가늠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아무리 봐도 어린아이의 것이 분명한 팔로 애써 잡은 머리카락은 영락없이 핑크색이다. 너무 현실성 없는 색이라 처음엔 머리에 두른 천 쪼가리인 줄 알았다. "아! 망할. 진짜 머리가 맛이 갔나 보네 자기 머리색도 기억이 안 나냐 꼬마야. 너 엄청 특이한 머리색으로 유명했잖아" ‘이 연분홍색 머리가 염색한 게 아닌가 봐! 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나는 거울을 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고개를 휙휙 돌려 살펴보니 개울이 눈에 띄었다."야 임마, 너 진짜 농담하는 건 아니지?" 남자가 기가막힌듯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시도했다. 개울가에 얼굴을 비춰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어색한 몸이지만 어찌 어찌 일으킬 순 있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걷는 것은 불가능했다. 어째서 이다지도 어색하고 생각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거지!? 내 몸인데! 물론 얼핏 보이는 나의 목 아래에 달린 몸도 내가 평소 익히 봐오던 몸이 아니었다. 짜리 몽땅한 것이 어디로 보나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여자아이의 신체였다. 군데군데 찢어지긴 했지만 하늘하늘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비틀거리며 선 다음 한걸음 내딛다가 다시 넘어진 나는 급한 마음에 그냥 그대로 엉금엉금 개울가로 기어갔다. 포복자세나 마찬가지라 너무 힘들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곱고 섬세한 드레스가 무릎과 함께 바닥에 짓이겨져 사정없이 망가져갔다.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이곳저곳이 상당히 아팠어도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더 화가 났기에 팔다리를 험하게 다뤘다. 그다지 나를 제지하는 일 없이 느긋하게 나의 처참한 몸부림을 관망하던 남자가 조롱을 섞어 말했다. "얼씨구 제대로 걷지도 못하네? 아~큰일 났네. 멀쩡히 넘겨주기로 한 거란 말이야!" 아저씨의 사정 따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지금 내가 너 걱정하게 생겼니?’ 난 미칠 듯이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개울에 얼굴을 살짝 비추었다, 조그만 냇가라 선명하게 비치진 않았지만… '난 정말 정신이 나간 걸까?' 어이없다는 표정의 어린 여자아이가 물에 비춰져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처음 뵙겠습니다.파문이 잔잔히 이는 물에 반사된 것은 분홍색의 긴 머리카락을 가진 귀여운 여자아이였다. 내가 아는 내 외관보다는 훨씬 어렸다, 내가 아는 내 외관이랑은 동떨어진 컬러이기도 했다. 이 모습이 나일 가능성은 자신 있게 말하건대 제로이다.하지만 내가 "누구야…?" 라고 조그맣게 말하자 개울에 반사된 여자아이도 조그맣게 입술을 달싹거렸다.‘나, 어떻게 된 거지?’ 라는 말에도 똑같이 반응했다.깜박 존재를 잊고 있었던 남자가 뒤에서 크게 한숨을 쉬었다. 아 깜짝이야, 너 아직도 거기 있었니? 그가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투덜거렸다."설마, 이름까지 기억이 안 난다고는 하지 말아주라"나는 나를 따라 혼란스러운 얼굴을 하는 수면 위의 여자아이를 쳐다보며 말했다."몰라….누구지?"나는 새삼스럽게도 이제야 화들짝 놀라며 입을 가렸다. 그 여자아이도 똑같이 행동했다. 뭐야 이거 무서워 이 모습이 나야. 내가 이런 모습이 됐어. 내가 정말 미쳤나 봐.이 여자아이가 여태까지 미쳐서 자신을 박지아라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박지아가 미쳐서 지금 자기가 핑크머리의 여자아이라고 생각하는 걸까.‘둘 다 아닐 수도 있는 걸까?’험상궂은 남자는 다시 한 번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프랑디아 라디올러스."내가 의아하게 뒤돌아보았다."네 이름 말이야. 그거라고."아무튼 난 지금 ‘프랑디아 라디올러스’인가보다.떨리는 마음으로 겨우겨우 그거 하나를 정의하고 나니 약간은 진정할 수 있었다.‘정의하고 정리하라’ 이게 안 되면 참 불안한 나는, 영락없이 공대 출신.‘이 상황은 아예 상식 밖인 거야’라고 생각하자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워진 그때, 방금까지 간간이 새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던 평화로운 숲이 거짓말처럼 소란스러워졌다. 방금까지 나와 있던 덩치보다 훨씬 작은 체구의 남자가 불쑥 튀어나와 다급하게 외쳤다."대장! 대장!! 공작가 놈들이 벌써 따라왔습니다! 벌써 이 근처에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로군. 여기서의 납치는 한명에 의해 이뤄진 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공작가라고? 여기엔 계급이 있는 건가? 이 근처에 있다는 공작가 사람들은 내 아군인 걸까?’남 일처럼 태평히 주저앉아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덩치가 내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챘다.으앗! 아파! 라고 외치는 말을 무시한 채 나를 말 등에 앉혔다. 오오 말이다. 아무래도 여기는 돌아가는 상황도 현대가 아닌가 보다. 역시 내가 있는 배경은 21세기 한국이 아닌 거야. 또다시 정리, 체크, 정리."꼬맹이 이번에야말로 달리는 말에서 확실히 떨어져서 침 질질 흘리는 반신불수 바보 되고 싶지 않으면 꽉 잡고 있어라."덩치가 낮게 말했다. 언뜻 들으면 날 걱정하는 말 같기도 하지만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 그저 ‘걸리적 거리지 마라. 그러다 병신 돼도 네 탓이거든’ 이 말이다.‘그럼 이 손이라도 먼저 풀어줘!’ 내가 항의하기도 전에 남자는 부산스럽게 다른 짐을 챙겼다.나는 손발이 묶이지 않았더라도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을 것이란 걸 떠올려 냈다. 아까 나는 걸음마조차 쉽지 않았었다. 이 부자유스러운 몸의 움직임은 정말 머리에 충격이 가해져서 온 후유증인 걸까 아니면 내가 급작스럽게 이 아이가 되면서 온 후유증인 걸까? 평생 이러면 어떡하지? 아, 그건 일단 살아남고 난 후에 해도 되는 걱정이구나 참."빨리 출발해!"덩치가 다른 이에게 그렇게 외치며 내 앞의 안장에 올라탔다. 그가 말의 옆구리에 발을 굴러, 거세게 출발하자 나는 아저씨의 냄새나는 등을 꼭 움켜잡을 수밖에 없었다,‘우선은 이 옷을 놓치지 말자.’나는 처음 타보는 말의 생각보다 훨씬 큰 들썩거림에 공포를 느끼며 아저씨의 옷을 생명줄인 것처럼 꼭 움켜잡았다. 여전히 손가락들은 잘 움직여지지 않았지만, 죽지 않으려니 어떻게든 부여잡을 수 있었다.‘숲 속에 좁게 난 흙길을 잘도 달리는구나. 진짜 이동을 말로 하나 봐.’나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덩치의 동료는 아까 긴박하게 정보를 전한 왜소한 남자 말고도 한명 더 있었던 것 같다. 덩치가 말을 출발시키자 그의 뒤를 이어 또 다른 사람이 열심히 말을 몰고 무리에 합류했던 것이다. 얼굴을 보진 못 했다. 나는 지금 목숨 걸고 덩치의 옷을 부여잡고 있는 터라, 고개를 돌려 따라오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여유 있는 짓 따윈 못했기 때문이다.‘그나마 이 상황을 설명하기 제일 쉬운 건 타임슬립 인가?’나는 영화나 소설에 자주 쓰이는 소재를 생각해냈다. 근데 그럼 내 머리색은 뭐라고 설명하면 좋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에도 이런 머리색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역사를 안 좋아했긴 하지만 그 정도는 확신할 수 있다.'음… 그럼 난 과거 유럽에 떨어진 핑크 돌연변이? '나는 멍하게 상황을 짜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가설은 마지막에 합류한 늦둥이가 외친 말에 금방 폐기 되었다."추적 마법이 걸려있었던 것 같습니다!"아무래도 내가 알고 있던 과거보다 더 흥미로운 곳인가 보다. 이곳은."젠장! 누가 공작님네 아가씨 아니랄까 봐! 오지게 까다로운 의뢰네! 빌어먹을 그 돈에 넘어가는 게 아니었는데!"온갖 상스러운 욕을 내뱉던 남자는 투덜거렸다. 명령을 듣지 않는 손가락들과 싸움하느라 기진맥진이던 나는 새로운 정보에 눈을 빛냈다. 오, 나는 공작가의 따님인가 보다.애초에 귀족 계급을 잘 알지 못했고, 이 이상한 세계에서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문맥으로 보아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대단한 귀족이 맞는 것 같다.약간 들뜬 나는 연이어 들려오는 정보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미움받는 양녀라고 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엥?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양녀? 미움받는 아이?’나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보니… 라디올러스 너 원래의 나와 닮았잖아?지금의 나를 원래의 나와 비교하다니 좀 이상한 상황이다. 아니, 많이 이상한가? 어쨌든 사랑받지 못하는 양녀. 이건 원래의 나, 즉 박지아가 늘 달고 다니던 타이틀이었다. 동시에 너무나 적절히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였기도 하고. 나는 이 어색하기만 했던 조그마한 몸이 갑자기 친밀하게 느껴졌다. 어머나. 너 나랑 전혀 안 닮은 줄 알았더니 사실 똑같았구나. 반갑다 너. 하지만 말이야 넌 아직 어리잖니.나는 박지아로서 죽어갈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사랑받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지 못한다면 사랑만 주어도 상관없다.라디올러스, 난 이제 그 ‘사랑 받지 못하는 양녀’ 타이틀은 질렸어 난 스물 하고도 다섯 해나 그 타이틀을 사용했잖아. 이젠 바뀔 때도 되었어. 이제는 솔직하고, 착한 아이가 될 거야.물론 여기서 살아 나갈 수 있을 때의 이야기지만...너무 힘을 줘서 하얗게 마디마디를 들어내는 손을 바라보았다. 응, 라디올러스, 힘내야지. 네 가족이 어떻게 생겼는지 꼭 보고 싶다.쿵하고 대지가 울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고함소리와 말이 높게 울부짖는 소리가 났다. 늦둥이씨가 타고 가던 말이 화살에 맞아 넘어간 것이다. 아마도 나를 구하러 온 사람들의 솜씨 같다."안돼! 벌써 따라잡히다니 젠장" 덩치가 말에게 박차를 가했지만 이미 최고속력인지 별로 빨라지는 것은 느낄 수 없었다,나는 희망에 차서 뒤를 살짝 돌아보았다. 꽤 사람이 많은 듯, 웅장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여기에요! 도와주세요!"나는 용기를 내서 외쳤다. 이렇게 큰소리를 질러본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맑고 크게 나오는 목소리에 오히려 내가 놀랐다."시끄러워! 닥쳐!" 덩치씨는 또 말의 속도를 높이려 했다. 말은 침을 흘리며 히잉 거리기만 했다,‘당신이 너무 무거워서 느린 거잖아!’ 말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말을 가여워하며 그를 비난했다.‘으악!’하고 뒤에서 외마디 소리가 나며 왜소한 남자가 말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또다시 힐끔 쳐다보니 어느새 나의 뒤에 가깝게 붙은 남자가 왜소한 남자를 쓰러트린 것이었다.나는 그 기사를 자세히 살펴볼 순 없었다. 왜냐면 무슨 상황인지 보기 위해 고개를 살짝 돌린 것뿐인데 말에서 떨어질 뻔했기 때문이다.‘으와 위험했다’라고 생각한 그때, 나를 구하러 온 기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야호, 역시 나는 운이 좋다니까? 이쪽 길로 갔을 줄 알았어! 야 라디올러스! 이쪽으로 말을 갈아타! 네가 있어서 막 싸우지 못하겠잖아!"첫 번째로 생각보다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너무 어려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로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의 난이도에 깜짝 놀랐다.‘뭘, 뭘 갈아타라는 거야? 말? 지금 내가 타고 있는 거?’버스 환승하는 것 마냥 쉽게 말하지 말라고!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이 녀석아."도련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이쪽 대열에 합류해 주십시오!"우리들의 뒤에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아 역시 저 소년 혼자 온 것이 아니구나. 다행이다. 아군의 쪽수가 더 많다는 걸 제대로 확인하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 역시 싸움은 쪽수지. 내가 저 소년의 옛날 몽골인들이 초원에서 하던 기행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사람이 이렇게나 많으니, 금방 일이 마무리 지어지겠지.그러나 소년의 생각은 나와 다른 것 같았다. 그는 마음이 급한 것처럼 외쳤다."아아 괜찮아 괜찮아. 이런 납치 사건쯤은 후딱후딱 해치우면 된다고! 라디올러스! 이 쪽 좀 봐봐!"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이번엔 바로 귓전에서 들리는듯해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 역시 목소리만 어린 게 아니었다. 구조원은 예상대로 어린 소년이었다. 나이는 십대 중반쯤? 찬란하고 색이 진한 금발과 초록색 에메랄드 같은 눈이 인상적인 미소년 이였다.다만 맘에 걸리는 점은 납치당한 나를 구하러 온 상황임에도 내 안전이나 내 현재 상태 따윈 전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는 정도일까?그것만 빼면, 응 전혀 문제없다. 태생을 숨길 수 없는 기품, 당당함. 아름다우면서도 신속한 승마자세. 아 내가 지금 이미 죽을락 말락 하는 상태라는 것만 알아주면 참 좋을 텐데.덩치는 그가 자신의 말에 가깝게 붙자 당황하며 단도를 꺼내 그에게 휘둘렀다. 그러자 그 금발 소년은 재밌다는 듯이 하하하 웃으며 요리조리 피한 다음, 정확히 덩치의 갈비뼈 쪽에 긴 검을 찔러 넣었다,"으아아악!"덩치는 큰 바위가 산꼭대기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말에서 떨어졌다. 나는 다행히 타이밍 좋게 그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서 그와 함께 떨어지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 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진 나도 곧 말에서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였다."뭐해 라디올러스! 떨어지겠어! 손 내밀어! 내 뒤에 타라고!"금발 소년이 내가 내민 두 손을 겨우 잡아 낚아챘다. 그리곤 자기 말 뒤에 태우려는 듯 자신 쪽으로 쭉 잡아 뺐다.뒤에서 따라오던 기사들이 뭐라 뭐라 외치는 소리가 순간 커지는 것을 느꼈다.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이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거 하나만은 알 수 있었다.'그게 될 리가 없잖아!'"으아아아! 도련님! 위험해요!"기사들이 한목소리로 소리치는 것이 아득하게 들렸다.나는 결론적으로 말의 등에 닿긴 했다. 그러나 그 자세는 일반적인 승마자세가 아니라 말 등에 내 배가 충돌한 형태로, 말하자면 말의 등으로 곤두박질한 것일 뿐이다. 달리는 말에서 다시 달리는 말로 갈아타는 멋진 짓 따윈 역시 무리였다."컥!!"나는 순간적으로 배에 가해진 큰 충격에 숨을 뱉지도, 그렇다고 마시지도 못하고 흉한 신음을 냈다. 공중을 슈웅 하고 날아 말 등에 배로 착지한 것이라 5미터 다이빙대에서 점프해 수영장에 배로 떨어지면 이런 고통일 것 같았다.고통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 예쁘장하기만 한 망할 소년은 내가 손이 묶인 상태인 걸 아는지 모르는지 말 등에 날 대충 얹었다고 생각하자, 가볍게 손을 놓아버렸다. 난 지금 몸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였기에 거리낌 없이 스무스하게 말 등에서 미끄러졌다. 뭐… 쉽게 이 상황을 표현하자면 말 등으로 단전에 보디슬램을 먹기 무섭게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반대편 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다.어린아이라 머리가 더 무겁기도 했을뿐더러 움직임에 장애가 있는 나는 머리로 자갈길에 착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아, 뒤에서 따라오는 기사들이 보기에 얼마나 웃길까. 나는 태평스레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 체면 걱정을 했다. 그리곤 날 향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허둥지둥 내 몸을 잡으려 하는 소년의 모습을 보았다. 뭔가 슬로비디오처럼 천천히 느껴졌다,쿵!나는 땅바닥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머리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느껴졌기 때문에 손으로 문지르려 했지만, 손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아 이런… 또 이렇게 쉽게 죽는 건 아니겠지?'허무해서 현실감 없이 저렇게 되뇐 것이 마지막 기억이다.깨어났을 땐 이번에야말로 정갈하게 꾸며진 예쁜 방 이었다.멍하게 몸을 일으켰다. 동시에 깨질 듯한 두통이 뒤통수에서 느껴졌다. 아 이제 인정 할 때가 되었다. 이건 현실이다. 꿈이 이렇게 아플리가 없어.혼자서 그렇게 머리를 싸안고 있자, 하녀 복장의 젊은 여자가 들어오는 듯 하더니, 황급히 다시 나갔다. ‘아가씨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게 저 멀리서 들렸다.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들어온 건 내게 있어 납치범보다 더 목숨에 위협이 되었던 금발소년이었다. 아마 이방 바로 근처에서 대기 중이였던 것 같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 문을 열어젖혔다."정신이 들어?" "네?네!""…아 그래..."소년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고개를 푹 수그리고 발로 깨작깨작 카펫 바닥을 휘적거리기 시작했다.‘뭐지? 이 녀석 그냥 정신 든 거 확인하러 들어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소년은 입을 떼었다."그… 너를 납치했던 놈한테 자백 받았어… 그 와중에 알아낸 건데… 네가 지금 약간 정신착란 증세가 있다고 하던데…음… 기억을 잘 못한다며? 내가 누군지 기억나?"그가 무척이나 꾸물거리며 물어보았다. 나는 산뜻하게 대답하기로 마음먹었다."네, 당연하죠!""어? 정말?"소년은 진한 금발을 휘날리게 하며 숙였던 머리를 휙 올렸다. 짧은 머리임에도 살짝 웨이브 진 그 머리는 굉장히 존재감 있게 빛났다."절 말에서 낚아채서 땅에 처박히게 하신 분이잖아요?"내가 짐짓 순진한척 대답했다. 소년은 잠깐 당혹스런 표정을 하더니 이내 울상이 되었다."아니 그게 아니고…아니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내 뜻은…""농담이에요? 방금 그건. 도와주러 오셔서 정말로 감사해요."내가 제대로 웃어지는 것일까 조금 걱정하면 씨익 웃자, 소년은 경악스러운 표정을 했다.왜 이러실까? 내가 용서해 준단 뜻이잖아? 혹시 내 웃는 얼굴이 이상한가? 이제 죄책감 묻어나는 그 표정 좀 펴봐.귀엽게 생긴 그 아이가 계속 울상인 게 불쌍해서 장난스럽게 말한 내 의도와는 다르게 소년은 계속 눈은 크게 뜨고 놀란 듯이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라디올러스가 농담을 했어...."겨우 나온 말이 이것이었다. 아마 원래의 나는 농담 따윈 모르는 아이였나 보다. 아니, 어린애가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칠 수도 있지… 왜 이런 거 하나에 저렇게 놀라고 그러지?난 뻘줌해 졌다. 내가 민망한 표정으로 사과했다."음… 농담을 해선 안될 타이밍이었나 보죠? 죄송해요 제가 기억이 좀 모호해서…""아, 아냐. 뭐랄까, 원래 내가 아는 너는 농담 같은 거 전혀 안했었어. 아무튼, 뭐 난 좋네 사람 같고."‘내가 사람이지 그럼 뭔데… 아냐,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건가? 이 세계에선?’난 큰 깨달음을 얻은 듯한 기분이 되었다. 어쩐지 머리색이 이상하더라니! 이 세상은 내가 아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마법이 있는 세계였다. 괴물이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내가 사실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조금 고민을 해보느라 대화가 비자 그 소년은 걱정스레 다시 내 얼굴을 살폈다.나는 확실히 물어보기로 했다."저… 전 사람이 아닌건가요?"순간, 그 소년은 얼빠진 표정을 하더니 크게 웃기 시작했다."뭐? 하하하하하 어,엄청 고민하길래 무슨 말을 하려나 했더니! 크큭 그럼, 니가 사람이 아니고 뭔데? 신이라고 하게? 하하! "소년은 처음엔 웃음을 참아보려는 듯 해보더니 나중엔 아예 배를 잡고 웃었다.나는 더욱 뻘줌해 져서 가만히 이불을 부여잡고 있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직도 손가락 움직임이 어색하다. ‘음…어쨌던 사람인거구나. 다행이네.’그때 문이 또 한 번 벌컥 열리더니 흑발의 남자가 들어왔다. 짧은 머리의 한쪽을 깔끔하게 넘긴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워 소리를 지를 뻔 했다. 나는 심지어 조금 눈물이 날 것도 같았다. 그는 나의 우상이었던 이복 오빠, 박진하랑 무척이나 닮은 모습이었다. 오빠보다는 훨씬 어려보이지만 풍기는 분위기가 완전 진하오빠였다. 그래 저 우아한 걸음걸이마저도.바쁜 걸음걸이로 들어온 남자는 다행이라는 듯이 말했다."정신이 들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라디올러스."아… 목소리는 아예 똑같다. 저 침착하고 잔잔한 목소리. 그 차갑고 어두운 집안에서 오빠만이 내게 다정하게 대해주었었다. 그 우월하고도 명석한 행보는 나의 동경 그 자체였다. 오빠와 닮은 듯 다른 그는 어찌 보면 조금 냉정하게 생겼지만 이목구비가 계산된 듯한 비율로 보기 좋은 미남이었다. 지금은 소년에서 남자로 넘어가는 시기인 듯 아직 풋풋한 느낌을 풍기는 그를 한국에서 만났다면 쉽게 대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그런데… 동생을 병석에 뉘인 장본인은 어찌나 크게 웃던지 밖에서도 네 웃음소리가 들리더구나."조금 나무라는 그 말에 금발의 소년이 쩔쩔맸다. 나는 흑발소년을 멍 하니 쳐다보았던 게 문제가 될까봐 표정을 가다듬었다. 닮긴 했지만 그는 결국 박진하가 아님을 알기에, 감정을 추스리는 것은 쉬웠다."아니 그게 아니고 형님... 글쎄 라디올러스가 농담을 하더라니까요?"그 말에 점잖기만 했던 흑발의 소년도 조금 놀라워하는 표정을 했다. 이 반응을 보니 내가 농담을 하는 게 흔치않은 일이긴 했던 모양이다. 흑발의 소년은 내 시선을 느끼고 다시 표정을 정돈했다. 그가 온화하게 말을 이었다."음.. 뭐 농담정도야 할수 있지… 흠… 라디올러스, 그건 그렇고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니?"흑발의 소년이 조심스런 손길로 내 앞머리를 정돈해 주며 말했다. 십대 후반정도로 밖에 안 보이는데 그의 손길이 닿자 왠지 안심이 되었다. 웃기는 일이다. 실제 내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을 텐데. 그가 진하오빠랑 닮아서 그런가?내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다."죄송해요 전혀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모두를 속이고 있는 사기꾼이 된 것만 같아서 심장이 두근거렸다.하지만 이제와서 나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나는 기억상실인 것으로 쭉 밀고 나갈 생각이다.원래의 라디올러스는 어디로 가 버린 것이지 깊게 생각하려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내 말에 두 소년 다 숨을 삼키는 것이 느껴졌다.금발소년은 초조한 듯이 말을 꺼냈다."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음.. 전혀요."내가 단호하게 도리질을 하자 금발소년이 울먹거리기 시작했다."여, 역시 내가 머리부터 떨어트려서...."역시 외관만큼 어린 나이였나 보다. 말위의 성인 남자들과 겨루던 늠름함은 찾아볼 수 없다."헬리오 , 라디올러스 앞에서 도리어 네가 울면 어쩌란 말이야. 라디올러스가 불안해 할거야."" 형님 흐흑, 하, 하지만 그 정도 높이에서 끅, 말위에서 머리부터 떨어지다니… 다 큰 남자도 십중팔구 바, 바보... 바보오! 바보가 되기 마련인데에! 라디올러스가… 으으윽"자신의 감정에 못 이겨 금발소년은 그 화사한 얼굴에 큼지막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사랑스럽게 울었다.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었지만 바보라는 말만 세 번이나 말한 것이 참 거슬렸다."저기… 그쪽한테 밀려 떨어지기 전 부터 이런 상태였어요. 그렇게 울지 마세요. 그리고 바보가 된것 같지는 않아요….아마도."‘아마도’는 약간 자신이 없어서 붙였다. 모르지 옛날 보다는 지능이 좀 내려갔을 수도.헬리오라고 불린 소년은 서럽게 울며 눈을 비비던 손을 내려놓고 또다시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그 에메랄드같이 깊은 초록 눈에선 눈물이 펑펑 솟아나고 있었다.‘아아 사랑스러워. 펫 샵에서 파는 토끼 같은 생물이다 이 아이는.’헬리오가 울다말고,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형님, 형님도 들으셨죠? 라디올러스가 이번엔 저를 위로했어요.""헬리오, 그런 표현은 라디올러스에게 좀 실례가 되지 않을까."그렇게 대답했지만 흑발 소년의 표정에서도 의외라는 느낌을 지워낼 수 없었다. 너도 실례에요 흑발군.나는 이 이상하고 적응 안 되는 분위기를 지우고자 소년들에게 질문을 했다."그런데… 크흠, 실례지만 두 분은 저와 어떤 관계이셨나요?"흑발 소년이 당황해 하며 다정하게 목소리를 냈다."아, 미안해. 네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설명이 늦었어. 나는 휴리안. 프랑디아 휴리안이라고 해. 난 18살이고, 이 애는 15살인 헬리오 우리 둘다 네 오빠란다."우와 이 진하오빠를 닮은 소년은 실제로도 나의 오빠인가보다."네? 오빠라고요?"내가 의아하다는 듯이 되묻자, 휴리안은 조금 부끄러운 얼굴을 했다. 방금까지는 굉장히 어른스러워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영락없는 소년이다."음… 그렇단다…오빠인게 마음에 안들 수도 있지만...""아니 아니, 그런뜻이 아니구요! 저…전 양녀라고 들어서 형제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아…그건 말이지. 그래 그 얘기를 들었구나…"휴리안과 헬리오가 서로 약간 머뭇거리는 눈빛교환을 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음 역시 무슨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휴리안이 내 침대 맡의 의자를 빼서 앉아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긴 이야기가 되려나보다. 그가 침착한 얼굴로 입을 떼었다."지금 혼란스러울 텐데 이런 말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하지만 그래…이런 건 늦춘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말해두는 게 낫겠다. 너의 친 아버지는 네가 다섯 살 때 돌아가셨단다. 네가 열 살인걸 감안하면 벌써 오 년 전 이야기지."휴리안은 말을 마치고선 내 안색을 살피는 듯 했다, 혹시 충격을 받진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다. 하나하나 자상한 모습이다.그러나 나는 충격이고 자시고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다. 슬플 리가? 솔직히 이 상황도 영화를 보는 듯 실감이 안 난다. 굳이 따져보자면 내가 정말 열 살이라는 게 훨씬 더 놀라운데 ."너의 아버지는 굉장한 마법사이셨단다. 우리 가문에서도 자랑스러운 인물이셨지 그러나 워낙 천재이셔서 그런지 조금 행동이 예측하기 힘들었다고나 할까… 아무튼 어느 날 또 연락이 두절되었다고만 생각하고 사람을 그의 거처에 보냈는데… "휴리안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너의 아버님은 돌아가신채로 발견되었어. 연구 동료이셨던 폰헬츠 백작님은 빈사상태로 근처 풀숲에서 발견되셨지만, 매우 위독한 상태이셨지. 그는 지금도 마법의 힘으로 생명 유지만 겨우 하고 계셔. 그때 이후로 한번도 의식을 찾으신 적이 없어.“휴린안은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마친 후에 나를 바라보고는 빙긋 상냥한 미소를 만들었다. 그가 참 다행이라는 목소리로 말했다.“그런 아비규환 속에서 너는 천만다행으로 구출 되었어. 대체 누가 그런 끔직한 일을 벌린 건진 아직도 밝혀지지 못했단다."그는 내가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자 단숨에 줄줄 설명해 나갔다. 나는 그 설명을 멍청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는데, 헬리오가 처음부터 내 얼굴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닫자 얼른 입을 닫고 조금 똑똑해 보이는 표정으로 바꾸었다.넋을 놓고 바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을 만큼 생각보다 나의 배경이 스펙터클했다. 내 아버지가 마법사였단다. 근데 의문의 살해를 당했고 그 와중에 나는 살아남았다. 오잉 뭐지…?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조심스레 질문을 했다."저기…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돌아가셨나요?""음…그게… 사실 너희 어머니가 누구신지는 아무도 모른단다."휴리안이 곤란하다는 듯이 대답했다.점입가경이다. 뭐하는 아버지냐. 얼굴도 모르지만 공작가 사람에다가 대단한 마법사라며? 아무도 모르게 애를 만들어 오다니… 그림으로 그린 듯한 망나니가 상상된다."너희 아버지가 어느날 갑자기 서한으로만 너의 존재를 알리고 딸로 호적에 올려달라고 부탁하셨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아무리 사람을 보내고 서한을 보내도 단 한 번도 실마리조차 언급하지 않으셨어."원래의 나보다 훨씬 더 엉망인 나의 출생 배경이었다. 복잡한 마음에 그를 바라보던 시선을 손으로 떨어트렸다. 이 기구한 팔자의 라디올러스가 나라는 것이 이상해서 미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결코 생각도 안나는 아버지나 엄마의 이야기가 슬퍼서가 아니었는데, 휴리안은 내가 이 상황이 힘들어서 풀이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살며시 머리를 쓰다듬었다."받아들이기 많이 힘드니?"내 침대 맡에 오빠가 앉아 풀이 죽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예상치 못한 접촉이었다. 누군가 내가 슬퍼하는 걸 바라지 않아서 위로해주고 있다. 그 애정은 기분 좋고, 놓치기 싫고, 왠지 슬펐다. 난 방금까지 분명 아무렇지 않았는데도 눈물이 불쑥 치밀어 올랐다. 새삼스레 파란만장했던 사건들이 떠올라버리는 것이다.그 커다란 손이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어 주고 있으니까, 사실 내가 방금까지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사실이 뭉게뭉게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 말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내가 지금 21세기 한국이 아닌 곳에 남겨졌다는 것보다…. 박진아로서 죽을 때, 그때가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다.그 극도의 공포. 목덜미에 그 억샌 열 개의 손가락이 파고들어오는 그 느낌. 오늘 처음 본 남자가 있는 힘을 다해 내 숨통을 조여 올 때의 그 두려움. 그가 진심으로 나를 죽이려 애를 쓰고 있음을 깨닫고, 나는 그 불합리함에 절망했다. 억울하고 억울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어두컴컴하고 추운 창고에서 나는 비명소리다운 비명한번 못 지르고 새는 듯 한 바람소리만 내었다. 그 절망의 장소에는 높이 조그맣게 난 창문이 있어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었다. 내 호흡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해 꺽꺽 넘어가는 소리만 났는데, 이상하게 벌어진 입에서 입김은 꼬박 꼬박 피어나는 게 너무나 이질적인 광경이었다. 마치 음소거를 한 장면 같다고 생각했다.아저씨는 분명 방금 까지는 서로 이야기도 나눈 사람이었는데, 점점 동물과 같은 형상으로 변해갔다. 손에 힘을 꽉꽉 주느라 얼굴은 벌개져있었고 흡 흡 하며 입술을 앙다물며 콧김을 뿜어냈다. 황소같이 변한 남자는 참 열심히도 날 죽였다. 나는 아저씨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뒤로 묶인 손을 빼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목을 뒤로빼보려 펄떡펄떡 뛰는 잉어 같은 모양새가 되었다.누가 좀! 누가 좀! 제발!나의 너무나 부질없는 반항은 거의 발작 같은 클라이맥스를 지나 종국에는 점점 시들해진다. 너무 괴로워서 침이 흐르는 거 같은 것 따윈 신경도 쓰이지 않았다. 손가락에 힘도 들어오지 않자 그제야 눈물이 왈칵 났다. 난 죽는구나. 이렇게 무서움에 떨었건만. 눈물이 나자 이제는 거의 느낌도 없는 목임에도 에이는 듯한 울 때 특유의 느낌이 났다.여기서 쓸쓸히 나 혼자 죽는다. 극도의 두려움의 등줄기로 확 하고 신경이 진동하는 게 느껴지고 나선. 기억이 없었다.그런데 지금 오빠가 나를 다독이고 있다. ‘괜찮아 괜찮아’ 다정히 말하며.원래 울지 말라고 옆에서 챙겨주면 더 눈물이 나는 법이다.당연히 오빠가 그때 그 상황을 위로하는 것이 아님을 알지만. 휴리안은 내가 그런 위기에 처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헬리오와 휴리안이 크게 당황하는게 느껴진다. 휴리안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것을 그림자로 알았다. 헬리오는 뒤로 두걸음 정도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았다.나는 아예 통곡을 해버리고 말았다. 세웠던 등을 숙이고,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서럽게도 울었다. 엉엉 하고 이렇게 가슴통을 울려가면서 짐승처럼 울부짖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무서웠어, 너무 무서워… 아무도 없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게 뭐야…뭐가 뭔지 모르겠어요!”두서없이 외치는 말에 휴리안의 어쩔줄 모르고 허공에서 머뭇거리던 손이 등을 쓰다듬는 게 느껴졌다.그가 잔잔한 목소리로 나를 달랬다."아아 그렇지… 내가 무심했어… 네가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한지 얼마나 됐다고… 괜찮니?"나는 이렇게 울어버린 것이 멋쩍어서 괜히 조금 퉁명스레 말했다."그,그렇게 대해주시면 더 눈물이 나요."거침없이 울어 부족한 산소때문에 숨을 고르게 하질 못하고 딸꾹거리며 공기를 겨우 넘겼다.내 투덜거림에 휴리안은 조심스럽게 날 어루던 손을 치우려했다."그치만 더 그러고 계셔주세요!"나는 그가 가버릴까봐 마음이 급해져서 거의 외치듯 소리쳐버리고 말았다. 이게 무슨 횡설수설인지… 말하고도 부끄러워졌다.그리고는 위로해달라며 구걸하는 내 처지가 서러워서 또 다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다.그러자 휴리안은 이번엔 나를 끌어당겨 자기 품에 꼬옥 안아주었다."미안, 위로하는 게 서툴러서…"그가 나를 토닥이며 말했다. 만난 지 하루도 안 된 그의 품은 왠지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었고, 울음도 잦아들었다. 내가 울음을 거의 그쳐가자, 이번엔 한걸음 물러서서 우물쭈물하고 있던 헬리오가 눈물을 또 펑펑 흘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그의 울음에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미안해 라디올러스 나는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그는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거칠게 닦아냈다. 섬세하게 생긴 그의 얼굴이 망가질까 걱정될 정도였다. 그는 또다시 내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 보다. 나는 그를 불편하게 만들 마음은 전혀 없었기에 이렇게 멋대로 울어댄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다. 그가 고해성사하듯이 고백했다."나는 그저 실전에 투입됐다는 거에만 신나서는…!""아니, 그건 정말 하나도 미안해할 것 없어요! 구해줘서 정말로 고마워요! 그 마음뿐이에요!""네가 이렇게 여린 아이인 줄도 모르고 난 소름끼치는 계집이라느니, 가면 요괴라느니 맘대로 말하고 다녔어! 그래서 네가 잡혀갔을 때도 사실 네 걱정은 전혀 안하고 운동하는 기분으로 나갔었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음? 방금까지 벅차올라 찡해졌던 기분이 싸악 식었다. 천사 같은 얼굴로 너무하잖아 너… 기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하고, 난 평소의 냉철함을 다시 얻었다. 신경안정에 매우 효과적이야 헬리오군.그나저나 원래의 라디올러스는 이 사랑스럽지만 쓸데없는 말이 한마디 많은 이 오빠와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다. 라디올러스는 성격이 안좋았던걸까? 주의 요망. 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내가 기운없이 웃으며 물어보았다."저는…원래 평소 행실이 안좋았던 모양이에요?"헬리오는 이제서야 자신이 너무 솔직했음을 깨달았나보다. 소년은 눈물을 거의 멈추고 훌쩍거리는 소리만 간간히 내며 내 눈치를 보았다."아니 아니! 방금 내 말은…"두서없이 말만 계속 더듬는 헬리오를 보다 못해 휴리안이 대신 대답해주었다."아니야 라디올러스 너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얌전한 아이였어. 다만, 너무 조용하고 감정기복이 없는 게 뭐랄까?… 조금 유별난 정도? 그 정도였어."휴리안의 말만 들어보면 나는 별로 나무랄 때 없는 아이였던 것 같은데… 그럼 헬리오와의 관계만 안좋았던걸까?"그럼 헬리오 오...빠 하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윽 나보다 한참어린 아이에게 오빠라고 하려니 너무 어색하다.헬리오는 더 당황해 했다."아니 우리사이에 특별히 뭔가 트러블이 있던 건 아니였지만… 넌 뭐랄까 대부분의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나 할까...형님 역시 방금 이 말도 안하는 게 나았을까요…"헬리오는 옆에서 작게 한숨을 쉬는 휴리안을 조심스레 쳐다보았다. 실언이 많은 나의 오빠다.그런데 뭐라고? 들리는 내용이 충격적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날 싫어했다니 왜? 이 아이는 제법 사랑스럽게 생긴 것 같았고 양녀긴 해도 공작 집안에다가 얌전하고 머리 좋은 아이였다며?? 내가 놀란 얼굴을 하자 휴리안이 또 설명에 나섰다."음… 사실,대부분까지는 아니고 제법 많은 사람이 라디올러스 널 꺼려하긴 했어. 하지만 넌 내가보기엔 정말 별다른 잘못 같은 건 하지 않았어. 다만 조금 무감각하고 약간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 같은 초연함이 있는 정도? 희노애락 표현이 극히 적은 정도인데 사람들이 보기엔 다가서기 어려웠나봐."설명이 끝나자 헬리오가 급히 덧붙였다."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냥 무턱대고 싫어했던 거 같기도 해… 네가 나한테 해코지를 한 적은 한번도 없는데… 그땐 왠지 너를 보면 혐오감 같은 게 들더라고… 내가 철이 없었어."헬리오의 말은 항상 너무 표현이 직설적이라 마음에 콕콕 박힌다. 하하… 혐오라니. 이 열 살짜리 어린것이 무슨 민달팽이나 바퀴벌레에게 붙곤 하는 수식어인 혐오라는 소릴 듣는 게 참 신경 쓰였다. 이 몸이 된 지 얼마 안됐지만 벌써 익숙해져서 이 모습이 나라는 것을 받아들였나 보다. 라디올러스가 욕먹는 게 이렇게 맘에 걸리는 걸 보면.휴리안도 입을 열었다."내 생각엔 라디올러스 네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큰일을 당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강하게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 증거로 지금 기억을 잃어버리자 이렇게 밝아졌잖아. 난 네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해."지금의 모습이 원래의 라디올러스일 확률은 전혀 없다. 나는 박진아이니까. 그래서 더욱 원래의 라디올러스가 가여워졌다.모두에게 미움 받는 고아 여자아이. 딱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모두가 싫어하는 아이. 사랑받는 방법을 잘 모르는 아이. 알면 알수록 라디올러스와 나는 닮아있다. 이런 연관성 때문에 내가 갑자기 라디올러스가 된 걸까? 서로가 너무 닮아있어서 순간 세상이 착각을 해 나와 라디올러스가 뒤바뀐 걸까?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로 했다. 만약 뒤바뀐 거라면 라디올러스가 더 힘들 것이다. 나는 징징거릴 수 없는 위치이다. 이것이 다시 한 번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내야지. 방금까지 엉엉 울던 주제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미움 받는 걸 벗어나기 위해 일보 전진하기로 했다.아직도 훌쩍거리는 헬리오에게 씨익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아무튼 오빠는 이제 지금까지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악랄한 생활을 벗어나기로 한 거네요?"나의 말에 헬리오는 당황하며 대답했다."나, 나는 악랄한 생활이랄 거 까지는…""천애고아의 몸으로 고단한 양녀생활을 하는 양 여동생을 속으로 그렇게 매도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악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내가 단호하게 그의 말을 반박하자, 헬리오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손을 만지작거렸다. 정말로 지금까지의 생활을 부끄럽게 여기는듯했다. 그는 사랑스럽다. 절대 지금까지처럼 미움 받고 싶지 않다. 나는 밉살맞은 말투로 덧붙였다."게다가 저를 말에서 떨어트리셨죠?"이제 헬리오는 죄책감 때문에 새빨개진 얼굴로 아랫입술을 꾹꾹 씹고 있다. 온화한 휴리안은 나와 헬리오 사이에 곤란하게 껴있었다.나는 앙칼지게 외쳤다."빚을 갚으셔야죠!"난 뻔뻔하게 연기를 잘했다."응. 뭐든지 할께."헬리오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나는 한 텀 쉰 다음, 태연히 말했다."그럼. 앞으로는 저의 오빠로서 잘 부탁드려요."헬리오는 놀란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게 다야? 라고 표정으로 물어왔다.나는 이제야 자연스럽게 웃어 보이며 설명했다."이건 하나도 쉽지 않아요. 평생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거기다. 편하게 어리광 부리고 싶으니까.... 반말도 쓸 거야."사실 난 처음 본 사람에게 말을 잘 놓지 못하지만.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면 계속 존대를 할 것 같아서 과감하게 말해봤다. 갑자기 원래의 나답지 않게 살갑게 대하려니 조금 어색했지만, 라디올러스란 가면을 써서 그런지 용기가 났다.씩씩한척 오른손을 그에게 내밀었다. 악수를 하자는 거였다.그는 잠깐 멍하니 내손을 보더니 얼른 다가와 두 손으로 잡았다. 음? 이러면 내가 너무 거만한 포즈가 되잖아. 나는 침대에 앉은 채였고 그는 침대가 에서 허리를 구부려 내가 옛다 하고 내민 손을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두 손으로 굽신굽신 맞잡고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귀여운 오라버니다. 나는 그 상황을 타파하고자 나머지 한손으로 그의 손을 덮었다.그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라디올러스, 앞으론 라디라고 부를께!"벌써 별명이 생겼다. 음 여기선 애칭인가? 아무튼 헬리오는 적응이 빠르구나.나는 그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응!""정말로 고마워. 이제부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야."우와 알고 보니 헬리오는 실언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대사도 거침없이 하는 소년이었다.그는 보고 있는 사람마저 웃게 하는 깨끗한 웃음을 짓는 사람이기도 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따라서 활짝 웃었다.휴리안은 온화하게 웃으며 가만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다."둘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심이야. 그럼 헬리오, 라디올러스가 건강하게 일어난 것도 봤으니 우린 오후수업을 들으러 가자.""아! 학교를 저 때문에 둘 다 늦으신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내가 시덥잖은 말로 그들을 괜히 붙잡고 있던 것 같아서 나는 사과했다. 그러자, 헬리오가 밝게 대답했다."아냐 귀찮은 오전 수업 빠질 핑계라 좋기만 하지 뭐. 우린 황실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물론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어야 하겠지만."휴리안과 헬리오는 그럼 몸조리 잘 하고 있으라며 작별인사를 짧게 한 후 방문을 열러 등을 돌렸다. 나는 침대에서 그렇게 둘을 배웅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다.푸덕.아 몸이 이렇게 심하게 내 의지를 무시할 줄은 몰랐다. 바닥을 짚은 발에 힘이 안 들어가서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그나마 얼굴이 다치는 것을 막으려 본능적으로 뻗은 손마저 힘이 들어가지 않아 얼굴은 그대로 바닥과 부딪히고 말았다. 대리석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다행이야 하마터면 정말 기억상실에 걸릴 뻔했어.’내가 고개를 들자 다시 나를 부축하러 달려오는 둘이 보였다. 아니, 저 둘은 빨리 학교에 가야하는데…"아니 아니, 다시 오실 필요까진 없고요… 안녕히 가시라고 말하고 싶어서.."당황해서 지금 바닥에 주저앉은 채 꾸벅 인사를 했다,"다녀오세요."넘어진 채로 고개 인사를 하니까, 마치 ‘통촉하여주시옵소서’하는 것처럼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부딪혀서 빨개진 이마만큼 볼도 새빨개 진채로 나는 계속 가시라고 말했건만 휴리안은 나를 번쩍 들어 침대에 눕힌 뒤 이부자리도 잘 정돈해 주었다."도와줄 다른 하녀를 불러주시래도…""아냐. 널 바닥에 팽개친 채로 어떻게 나가겠어. 듣던 대로 몸의 움직임도 좋지 않은 모양이구나. 하지만 의사의 말로는 몸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대. 재활치료를 계속하면 분명 원래대로 될 거야."휴리안은 ‘걱정할 필요 없어. 자, 그럼 정말로 다녀올게’ 라며 머리를 쓰다듬은 뒤 방을 나섰다."돌아오면 재활 도와줄게! 이따 보자!"헬리오도 다시 한 번 밝게 웃으며 아카데미로 갔다.그러나 그들이 떠난 후론 한참동안이나 아무도 이 방을 찾는 이가 없었다.납치범에게 잡혀갔다가, 낙마한 후 기절해 있었다가 겨우 깨어났다. 이건 꽤 큰 일이 아니던가? 아무리 내가 이 세계의 상식이 없더라도 이건 큰일정도가 아니라 대 사건같은데 라디올러스의 부모님은 얼굴한번 비추지 않는다. 역시 나는 모두에게 미운털 박혀있다는 것이 사실인 듯 하다.내가 조금 낙담하는 사이 문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오 드디어 부모님을 볼 수 있는 건가 했는데."메이드 베라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아 메이드구나. 부모님이 아니라 약간 맥이 풀리긴 했지만 뭐 메이드도 신기하니까 보고 싶었다. 세상에나 내가 메이드를 부리게 될 줄이야. 원래 집에도 도우미 아주머니는 있었지만, 메이드란다.메이드. 단아한 아가씨들이 하얀 에이프런을 두르고 날 모셔준다 이 말이다. 난 조금 기대에 찼다. 영화에서처럼 풋풋하고 순진한 젊은 처녀가 날 아가씨라고 불러줄 것이라 예상했다.조용히 문이 열리고 메이드는 공손히 고개를 내린채 들어왔다.베라는 생각보다 뭐랄까. 요염했다. 옷을 바꿔입으면 나보다 더 공작 아가씨에 어울릴 지도 모르겠다. 밝은 갈색머리는 단정히 뒤로 넘겨 망으로 감싸고 머리에는 메이드 특유의 레이스로 장식된 머리장식이 있었다. 막을 수 없는 퇴폐적 느낌. 내가 귀족 남식이였다면, 홀랑 넘어갔을 지도 모르겠다.자신을 베라라고 소개한 그녀는 오른쪽 눈가의 점이 인상적인 미인이였다. 분명 젊어 보이는 외관임에 불구하고 뚝뚝 흘러넘치는 그녀의 관능미 때문에 과거가 복잡한 여자처럼 보였다.베라는 문을 열고 들어온 다음에 침대에 앉아 있는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일감을 찾아 일을 했다. 내가 계속 베라쪽을 보며 말붙일 타이밍을 보고 있음에도 전혀 틈이 없었다. 그녀는 도도하게 내 방의 온도를 조절하고 커튼을 정리하는 등 나를 깨끗하게 무시했다. 마치 그녀가 나의 상관이고 나는 그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아 물론 눈치를 보고 있는건 사실이지만.라디올러스는 사용인들과도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다.“ 저기... 베라 라고 했지요?”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다만 반말을 해야 하는 걸까? 무척 고민된다.“네, 말씀하세요. 라디올러스님”베라는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내 쪽으로 몸을 돌린 채 공손히 말을 했지만 결코 내 얼굴을 쳐다보진 않았다. 고개를 푹 수그린 폼이 언뜻 보면 그저 자신의 어린 주인을 존중해 주는 듯도 해 보이나 절대 아닐 것이다. 나는 보았던 것이다.방문을 열 때도 그녀는 고개를 공손히 숙인 채 문을 열었지만 미간을 일순 강하게 찡그렸다. 그리고 고개를 다시 들었을 때에는 이미 예의 그 요염한 얼굴을 단정히 한 후였지만...정말 이 방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음...지금 제 상태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아 모르겠다. 존대가 편하다.“ 네 물론입니다. 기억에 혼란이 있으신 듯 하고 몸 움직임에도 불편이 있으시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대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라디올러스님.”아 역시 하대를 해야 하는 거였군.“아 음...그래. 저기... 내가 묻고 싶은 건 말야. 혹시 내가 일전에는 사용인들에게 좀 밉살맞게 굴었어?”휴리안 오빠는 내가 얌전한 아이라고 했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다.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는 못되게 굴었을지.조숙해봤자 열 살이니까, 라디올러스는.내 말을 듣자 베라는 놀란 듯 고개를 퍼뜩 들었다.그리곤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음...메이드가 주인 얼굴을 이렇게 빤히 보아도 되는 건가? 뭐, 안보고 얘기하는 것 보단 낫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하였다.조금 내 얼굴을 보던 베라는 여전히 놀란 눈을 한 표정으로 입만을 움직여 말했다.“그럴리가요...라디올러스님. 그런일은 결코 없었습니다.”근데 표정이 왜 저렇지...역시 내가 너무 달라져서인가보다.“근데, 왜 나를 싫어했어?”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말인데 베라는 너무나 크게 당황하며 급하게 몸을 굽혀서 황급한 목소리로 말했다.“라디올러스님을 싫어하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드시는 일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그녀의 당혹감에 오히려 내가 더 크게 놀라고 말았다. 메이드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듣는 다면 목이 달아날 만한 일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야 났다. 윽. 내가 너무 경솔했다.“아니,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저기, 진정해 베라! 너에게 화를 낼 생각은 전혀 없어!”베라는 연신 굽신거리던 고개를 그제야 들고는 또 오묘한 표정을 지었다.“....정말로...다른 분 같으시네요 라디올러스님.”“음...그렇게 말해도 나는 예전의 내가 어땠는지 전혀 기억이 안나니까 말이야.”나는 머쓱함에 볼을 긁었다.“예전에는 좀더...뭐랄까 살아있으신분 같지가 않았다고 할까요. 아 실례했습니다.”조금 불경할 수도 있는 발언에 그녀는 실례했습니다. 라는 사죄의 말을 붙이긴 했지만. 표정이나 행동은 전혀 당황스러워 보이지 않고 담담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어떻게 해코지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자. 솔직해 지기로 마음 먹은 것 같았다. 그녀가 왠지 맘에 들었다. 가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싫으니까. 역시 첫 느낌대로 당당하고 자존심 있어 보이는 메이드다.“음 베라도 역시 그 이유였어? 생기 없다는 이유만으로 베라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 사람 같이 안 보이는데...?”“ 물론입니다. 예전의 라디올러스님을 생기없다는 말로 표현하기엔 '생기없다'는 말은 너무 깊이가 없죠...라디올러스님은...오싹하셨어요. 이세상 것이 아니어 보였거든요. 어머나, 또 실례했습니다.”베라는 자신을 약간 비꼬는 듯한 말에 발끈해 말했다. 역시 자존심이 세다. 그건 그렇고 이 세상 것이 아니라니...정말 상상하기 힘들다. 휴리안의 말을 들으면 음침한 것도 아닌 것 같던데...흠...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는 관두기로 했다.베라는 아직도 나를 신기한 것을 보듯이 보고 있다.“어쨌든...이제는 그렇게 대하기 힘들지가 않다는 거지?”“네. 전혀 위화감이 없어요. 참 이상하네요.”“그럼 된거지 뭐.”아아 이제 더 복잡한건 생각하기가 싫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일단 목표는 이 집안에서 여태까지의 부정적 이미지 타파. 응. 이걸로 삼자.“ 베라, 내친김에 부탁하나만 해도 될까?”“제가 할 수 있는 것 이라면요.”역시 메이드답지 않은 쌈박함이 매력이다.“넌 우리 집안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지?”“그렇지요. 이래봬도 꽤 오래 일했답니다.”“그럼 나한테 대충 설명 좀 해주지 않을래? 바쁘지 않다면 말이야.”“네, 그 정도야 간단하지요. 궁금하신걸 물어보세요.”“오 정말 고마워. 솔직히 너무 궁금한게 많았거든. 근데 아무도 없잖아. 어떡해야 하나 했어.”내가 고마워하자 베라는 조금 얼굴을 붉혔다. 부끄러운 걸까. 성숙해 보이는 외관과 맞지 않는 그 갭이 또 귀엽다.“ 이정도로 뭘 그렇게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전 라디올러스님의 메이드인걸요. 그리고..”베라는 살짝 웃었다. 쑥스러운 듯이 살짝 입가만.“ 이렇게 편하게 라디올러스님과 이야기 할 수 있다니. 참 좋네요.”그 웃음은 미세한 것이었지만 참 예쁘고 우아했다. 아무래도 난 기품을 나의 메이드한테서 배워야 할 것 같다.“그럼.. 그럼 있잖아.. 아 막상 물어보려니 뭐부터 물어봐야하지.아! 우리 부모님들은 두분다 건강하셔?”음? 질문이 너무 촌스러운가? 마음이 급해서 그렇다.“네 건강하십니다. 공작님께서는 요즘 다음 달에 있을 주변국가와의 회의를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고 공작부인께서는 곧 있을 축제를 준비하시느라 바쁘셔서 쉬이 라디올러스님을 만나러 오시지 못하시는 듯 합니다.”오오 그래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는지도 궁금했었어. 내 질문의 본질까지 꿰뚫어 보는 베라는 똑똑하기까지 한가봐.“오 그렇구나...그리고 또 오빠들의 학교는 언제쯤 끝나?”“오빠분이시라면....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응? 헬리오 오빠랑 휴리안 오빠 말이야.”“두분 더 계십니다.”“응?”“라디올러스님의 양오라버니는 네분이십니다.”“엥? 그랬어? 아하하...”뭐야 형제가 더 있었구나...설마 여자형제도 있나? 그 나머지 두 명 이랑도 분명 사이가 안 좋았던 거겠지. 이렇게 문병도 안 오는 걸 보면...“내가 모르는 여자형제는 더 없고? 하하 생각보다 형제가 많았네... 음... 양부모님이 금실이 좋으셨나봐.”아차. 뻘쭘해서 마지막에 덧붙인 농담은 너무 아저씨스러웠다. 도저히 열 살 여자아이가 할 말이 아니였다. 실수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나온 나의 느끼한 농담에 스스로 경악했지만 베라는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갔다.“ 여자형제는 없으십니다...덧붙혀 제 주제를 모르고 하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라디올러스님이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엉? 어 고마워 베라. 베라는 오늘 처음 봤지만참 믿음직스럽네.”“ 메이드로써 당연한 것입니다. 일일이 칭찬하실 필요 없어요.”아. 또 빨개졌다. 참 귀여운 베라.“ 아, 아무튼.... ” 베라가 다시 목을 다듬었다. 꽤 중요한 얘기인가 보다.“ 큰 주인님들 께서는 사이가 안좋으십니다.”“응?”“ 아까 양부모님이 사이가 좋으셨나봐 라고 하셨잖아요.”음. 못들은척 해줄때가 좋았는데.“ 어,..했지.” 이번엔 내 볼이 조금 화끈해 졌다.“안 좋으세요.” 베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추측이 아니라 사실인가 보다.“어...하지만 슬하에 자녀분도 많으시고....”“공작부인께서는 친자녀분이 없으십니다.”음? 무슨소리지? 아까부터 바보가 된 기분이다. 아 그럼 네명 다 양자?내가 추측을 말하려 입을 열자마자 베라가 덧붙혔다.“라디올러스님의 오라버니 분들은 모두 공작님이 밖에서 거두어 주셨습니다.”음 언뜻 들으면 밖에서 불쌍한 아이들 주워서 키워준 것도 같은데 아니겠지. 지금 이 뉘앙스는.“양, 양아버지께서...밖에서…낳은 아들들..인건가.”당황한 내가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말을 더듬었다.베라는 말없이 치마단을 살작 잡아 올리고 무릎을 살짝 굽히는 우아한 동작으로 응수했다.“그럼 다른 두 오빠는 어떤 사람이야?”“ 우선 라디올러스 님이 아시는 두 분. 휴리안님이 18세로 첫째이시고요. 헬리오님은 15세로 셋째이십니다. 휴리안님은 비록 정통 후계는 아니나 그 출중하신 능력과 기품있는 행동으로 잘 알려져 계시기 때문에 모두들 차기 공작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헬리오님은 아직 어리시지만 검술에 재능이 많으시고, 또 검술에 대한 관심도 많으십니다. 아마 기사작위를 받으시겠지요.”나는 얌전히 경청했다.“둘째분은 제르다민님이시고 17세이십니다. 넷째이신 윌로우님은 올해 10세로 라디올러스님과 동갑이시지만 생일이 빠르시므로 오빠라고 부르시는게 맞습니다.”“...그렇구나...”조금 얼떨떨하지만, 원래 우리 집이랑 크게 다르지도 않다. 애초에 나도 아버지가 밖에서 만들어온 자식으로 중학생때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었으니까.베라는 설명을 계속했다.“제르다민님은 휴리안 님과 마찬가지로 나라 안에서 천재라고 소문이 자자하실 만큼 냉철한 두뇌를 갖고 계십니다. 다만 휴리안 님과 다르게 성격까지 냉정하기 그지없으십니다.”아무리 내가 부탁한 거지만 베라는 이래도 돼는 걸까? 싶을 정도로 자신의 고용주의 자녀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주었다.“윌로우님은 아마 형제분들 중 유일하게 같은 어머니배에서 나온 형제를 갖고 계십니다. 헬리오님과 윌로우님의 어머님은 같은 분이십니다.”“다른 오빠들은 어머님이 모두 다른거구나.”“네, 그리고 공작부인이신 프랑디아 에르디앙님이 낳으신 따님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큰 주인님들의 공식적인 직계 자손은 아쉽게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거구나.”“그렇습니다 라디올러스님.”“그럼...양부모님은 오빠들을 어떻게 생각하셔?”오빠들은...이 집에서 어떠했을까.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베라는 깊은 눈동자로 나를 조금 응시하더니 이내 또 무표정 하게 입을 떼었다.“글쎄요”“응?”베라의 이어질 말을 기다렸지만 별다른 말이 나오지 않아 나는 되묻고 말았다.“뭐라고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같이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아하!...어???”어안이 벙벙하다. 양어머니가 오빠들을 탐탁치 않게 생각할 거라고는 예상했지만..생각보다도 무참한 평가다. 화목한 가정과는 영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최악이네.“양아버지도 오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확인차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네, 관심이 없으세요.이런 문제는 두루뭉술하게 말하기 마련인데 베라는 단호하게 말해주었다. 파면 팔수록 원래 우리집과 닮은 집안이다. 이 공작가는.나는 아버지한테 어떡해서든 인정받고 싶어서 고군분투하던 옛날이 떠올라 쓴웃음 지었다. 처음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날 거실로 데려가 ‘ 사장님, 따님 오셨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뒤돌아 보지도 않으셨다. 그런 태도가 아주머니는 익숙한지, 아버지의 뒤통수에 대고 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외모도 예쁘고 성격도 착하대요. 아유 키도 큰게 아주 보기 좋네.’ 아주머니는 나를 가엽게 여기시고 꽤 귀여워 하셨다.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 갑자기 들어오게 된 내가 아버지에게 까지 무시를 당하자 관심을 끌어보고자 내 칭찬을 하기 시작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신문만 보셨다. 난 초조해 졌다. 이 첫만남이 통과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시험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들어보니 공부도 아주 잘한대요.’ 그말을 하자 아버지가 신문으로 향해있던 고개를 살짝 돌려 나를 보았다.아주 무심한 표정이였으나 나는 기뻤다.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처음으로 본 아버지의 얼굴은 부성과는 매우 거리가 있어보였으나, 그 위압감 만큼은, 무서우리만큼 으리으리해서 들어가기 주저되었던 그 집보다도 엄청났다. 나는 주저앉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줘야만 했다. 처음으로 생긴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러나 그 표정은 무시한채, 아버지는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다.어디 계속해보라는 것이였다. 아주머니가 ‘특히,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전국 올림피아드에서 은상도 탔대요! 학원도 한 번 못가본 것이 얼마나 기특한지.’ 라고 말씀하시자. 아버지는 보던 신문을 접으시고 그제야 일어나서 내쪽으로 오셨다. 나는 가까이서 본 아버지가 무서웠지만 ‘됐다!’라고 속으로 기뻐했다. 아버지는 ‘그렇군. 머리가 좋구나.’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보는 그 눈은 내 머릿속까지 샅샅이 보이는 듯 해서 정말이지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꽤 오랬동안 내 얼굴을 보다가 아버지는 슬쩍 웃으셨다. 다정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미소였지만, 나는 가슴에 차오르는 만족감을 느꼈다. 통과했다. 이 ‘감정’에서 나는 통과했어.‘공대에 가면 좋겠구나. 진하는 경영쪽을 맡으면 되니까 넌 연구동쪽을 맡으면 되겠어.’아버지가 하시는 회사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 1,2위를 다투는 회사였다.아버지가 내 머리위에 손을 한번 툭 올려놓고 지긋이 누른 후에 접은 신문을 가지고선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셨다. ‘다음번엔 금상을 타거라.’ 조용하지만 존재감 있는 그 특유의 목소리로 읊조리듯이 말씀하시고선.그리고 나는 그 해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나서는 기계공학과를 전공했다. 아버지는 흡족해 하셨고 나는 또 크게 안심했다. ‘아버지가 기뻐해 주셨다. 나 같은 애를 거둔 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야.’그래도 아버지가 내 머리위에 손을 얹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다.항상 온몸에 힘을 싣고, 여기좀 돌아봐 달라며 피를 토하듯 사랑을 구걸하던 그때를 생각하니 조금 어지러웠다.그 지옥과 현재 이 공작가는 별 다를게 없어보였다. 이곳의 오빠들도 내가 자라온 그 애정의 가뭄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니 슬프다.내가 아무 말이 없자, 베라가 물끄러미 나를 보다가 입을 열었다.“무슨일 있으세요?”“아니... 괜찮아.”“큰 주인님이 라디올러스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안궁금하세요?”“응? 아아...! 궁금하지! 알려줄 수 있어?”아차, 중요한 걸 잊을 뻔했다. 지금 내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닌걸 까먹고 있었다. 전국왕따가 전교왕따 걱정하는 격이다 이건.“지금까지는 그다지 관심없으셨어요.”“...응.”역시...베라는 쌈박해. 나는 예상은 했지만 너무나 간략하고도 확실한 대답에 조금 풀이 죽었다. 그걸 본 베라는 자신이 너무 심하게 대답했다고 생각했는지 반성을 하는 기색이였다.“괜, 괜찮을 거에요. 지금의 라디올러스님은 어딜 봐도 사랑스러우신 걸요.”베라입에서 이정도로 내 평가가 후하게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나는 놀란 눈을 했다. 베라는 또 쑥쓰러운 듯 눈을 피하며 입안에서 뱉듯이 말을 했다.“제가 너무 말을 버릇없이 하죠? 상처받으셨다면 죄송해요.”“아냐. 베라는 그정도가 딱 좋아. 버릇없지 않아 엄청 날 생각해서 얘기해주고 예의도 바른걸. 베라는 그냥 솔직한 것 뿐이야.”진심이었다. 베라가 진짜로 버릇없고 나쁜 아이였다면 기억을 잃은 귀찮은 아이 상대 같은건 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까딱해서 들키면 호되게 혼날 이야기까지 내가 모르면 곤란할까봐 해주고 있다. 그녀는 상냥하다.베라가 내 말을 듣고서 매우 당황해 했다. 그러나 꽤 기뻐보였다.“음...전 이제 또 해야할 일이 있어서... 가볼게요. 물어보실것이 또 생기시면 언제든 물어보셔도 좋아요.”그녀가 꾸벅 인사한 다음 서둘러 방을 나갔다. 아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한 뒤 침대에 풀썩 등을 대었다.몸이 약해진 것이 맞는지 기운이 딸리는 것이 느껴졌다.‘그냥 사람들이랑 앉아서 이야기 한 것 뿐인데.’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또 잠에 빠져들었다. 처음 깨어난 후로 이틀이 지나서야 양어머니가 찾아오셨다.“좋아보여서 다행이구나.”그 말만을 형식적으로 한 후 무표정하게 나를 쳐다보는 양 어머니는 생각보다 약해보이는 호리호리한 여성이었다. 세월의 흔적은 보였지만 그녀는 아직도 미인이였고, 밤색의 풍성한 머리를 우아하게 틀어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옅은 황토색 눈동자를 갖고 있었는데, 싸늘한 태도와는 달리 그 색은 참 따듯해 보였다.“저의 양어머니 이시죠? 죄송해요 기억이 안나서요.”나는 침대에 앉아서 공손히 말을 건넸다. 아직도 잘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침대맡 의자에 앉아서 내 말을 들었다.“괜찮단다 네 사정은 모두 들었으니. 그리고 그렇단다 네 양어머니란다.”교양있게, 하지만 여전히 무감정하게 대답이 흘러나왔다.“저 평소엔 저는 양어머니를 뭐라고 불렀나요?”호칭이란건 참 어렵다. 특히 예법같은게 끼면 말이다.“...”내 질문이 의외였는지 공작부인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원래는 그냥 양어머니라고 불렀단다.”에...엄청 딱딱하네 양어머니 양어머니, 부르기도 힘들겠다. 내가 속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공작부인이 다시 입을 떼었다.“달리 부르고 싶은게 있으면 네 맘대로 해도 된다, 얘야.”조금 의외라서 부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부인은 말과는 다르게 그냥 한번 예의상 말해본것 같았다. 여전히 무표정한, 왠지 지친 얼굴 그대로였다.사실 항상 불러보고픈 호칭이 있었다. 그래서 양부모가 오기를 계속 기다렸다. 한 번 쯤은 그걸 말해보고 싶어서...그래도 막상 말하려니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다. 공작부인은 내게 관심도 없어보였고, 사실 여기 오기도 꺼려했던 것 같다. 이런 사실을 떠올리니 더 떨렸다. 괜히 말했다가 공작부인의 화만 사는 게 아닐까? 못 배워 먹고 주제도 모르는 아이라고 미움만 사는 것이 아닐까?‘역시...그만 둘까...’마음이 약해졌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접으면 분명 후회할꺼다. 다음번에 공작부인을 볼 때마다. 그때 기회가 있을 때 말해 볼껄 생각을 할것이 분명하다.나는 공작부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가슴이 쿵쾅거렸다.“엄마도 되나요?”한 번도 가질 수 없었던 사람. 하지만 꼭 갖고 싶었다. 늘 그리웠다. 언제나 엄마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했다.공작부인이 크게 놀라는 것이 보였다. 평정을 유지하려 하는게 보였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진 않았다.“너 좋을 대로 부르라고 한건 나였잖니...물론이란다.”맙소사. 생각보다 훨씬 흔쾌히 대답을 해주셨다.“그렇군요...엄마...이제부터는 엄마라고 할래요.”그렇게 대답한 후 괜히 감상적인 기분이 되어서 눈물이 나오려고 했을 때였다.주르륵눈물을 먼저 흘린건 놀랍게도 공작부인이었다.“어머... 꼴사납게도 왜 눈물이 나는 걸까.”공작부인의 목소리가 눈물에 사정없이 떨렸다.“라디올러스 왠지 다른 사람같구나. 날 원망하지는 않니?”공작부인은 가여울 정도로 울상이 되어 나에게 물었다. 무심하게 대하던 방금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같았다. 사실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게 아닐까? 갑자기 생긴 무뚝뚝한 이 딸이. 대하는 게 너무나 서툴러서 이런 관계가 된것이 아닐까? 이 연약한 부인은.“너를 내버려 두었잖니 너에게 신경도 쓰지 않았잖니...”그렇게 나에게 자신을 원망을 하라며 우는 공작부인을 보니 참 약하고 작아보였다. 그녀도 이 집안에서 아파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나 보다. 이제 ‘엄마’인 공작부인이 그렇게 우는 것을 보니 나도 가슴이 아팠다.“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네가 엄마라고 부르니까 세상에 이 눈물은 창피하게도 멈추질 않는 구나.”부인은 자기 맘대로 되지 않는 눈물이 쑥스러운지 부채를 펴서 살랑살랑 얼굴을 식히고 고개는 하늘을 향해 올렸다.“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날 엄마라고 불러도 괜찮겠느냔 말이란다.”부인의 울음을 그치려는 노력에도 하늘을 향한 그 눈동자에선 쉴 새 없이 눈물이 떨어졌다.“괜찮아요. 엄마...”나는 울컥하고 눈물이 솟는 것이 느껴졌다. 나도 엄마가 생겼다. 계속 소원하고 상상하던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기쁜날 울고싶지는 않지만..“울지마 엄마.”나도 울음이 새는 목소리로 말이 나와 버렸다.공작부인은 바람을 만들던 부채는 던져버리고 나를 꼭 안았다.“나도, 항상 딸이 있었으면 했어. 아니, 사실은 엄마가 되었으면 했단다.”그녀에겐 낳자마자 죽은 딸이 있었다고 했다. 그 사실을 떠올리자 더욱 가슴아팠다. 그녀가 계속해서 눈물처럼 사과의 말을 연신 뚝뚝흘렸다." 네가 납치되었다고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혹시 이렇게 단한번 살갑게 못대해주고 끝나버리는 건가 싶어서... 그런데 그런데도 막상 돌아온 너를 보니 생각처럼 용기가 안났단다. 이 철없는 나를 용서해주렴. 부탁이야."우리 둘은 부둥켜안고 한참을 엉엉 울어버렸다.더 이상 힘이 없어서 못 울게 되었을 때, 공작부인은 날 보며 미소지었다. 부인의 눈은 눈물로 젖어있음에도 아까보다 훨씬 따듯한 색이었다.“그런데 아까 그것도 참 좋구나.”“네?”나는 영문을 몰라 되물었다.부인은 나쁜 장난을 모의하듯 내 귀가에 대고 속삭였다.“반말말이야.”그제야 내가 아까는 엉겹결에 반말을 했던 것이 생각났다. 우와 원래 그러면 안되는 것일텐데. 나는 너무 예의에 어긋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어 사과를 하려고 했다.부인은 내 말을 가로 막으며 말했다.“물론 공적인 자리에서는 좀 곤란하겠지만. 부디 사석에서는 그렇게 친근하게 대해주렴. 이 엄마의..”부인은 또 부드럽게 미소지었다. 그 부운 눈으로 짓는 미소에는 모성이 가득 서려있어서, 난 또 새어나오는 눈물을 막아야 했다.“ 부탁이란다. 라디올러스.”생각보다 공작부인은 막무가내였다.하지만 난 공작부인한테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나 저 미소에는… 몇 일간 재활치료 특훈에 매진했다.나는 눈앞의 휴리안 오빠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다.“오빠 미안. 엄청 힘들지?” 나는 어느새 휴리안 오빠에게도 반말을 쓰고 있었다.흑발에 단정한 외모를 가진 그 소년은 너 오빠를 너무 약하게 보는구나. 라고 다정히 말하고는 다시 맞잡은 손을 정리했다.나는 휴리안 오빠와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 나이에 걸음마라니, 기가 찼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의사선생님은 재활 치료를 해서 몸 쓰는 것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도 아 연습하면 되는 구나 라고 편하게 생각했지만...“으앗!”또 중심을 못잡고 옆으로 몸이 기울어지자 오빠가 힘을 주어 당겨서 넘어지지 않게 해 주었다. 그는 힘든 역할을 해 주고 있었다. 물론 내 재활 치료 담당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힘쓰는 일을 한 사람이 몇 시간 동안 할 수는 없는 일이다.“고마워 오빠.”“뭘, 그놈의 고마워 소리 매번 안 해도 된대도.”그래도 나는 맘이 편치 못해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못보고 부여잡은 그의 손 만을 보았다. 그는 키가 컸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큰 손을 갖고 있었다. 그 손은 벌써 마디 마디가 굵고 뼈와 도드라져 남성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내가 휘청거릴 때면 힘을 주느라 핏줄도 스곤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아직 어리게 보았던 휴리안의 손 같지가 않았다.‘왜 이렇게 내 맘대로 움직이기가 힘든거야...’나는 가쁜 숨을 내쉬었다. 의사 선생님의 ‘재활 운동만 잘 하면 됩니다.’는 학교 선생님의 ‘기초위주로 탄탄히 밟으며 공부하면 됩니다.’ 와 맞먹을 정도로 입으로만 쉬운 소리였다.“이제 쉬어야 겠다. 라디.” 그가 웃으며 말했다.“음 조금은 더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걸음도 제대로 못 떼어서야 완전히 폐다. 나는 마음이 바빴다.“오빠가 힘들어서 말이야.”거짓말이다. 오빠는 체력이 좋았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오빠 힘들지? 하면 전혀! 라고 대답이 바로 내려왔는데, 내가 힘든 내색을 내니까 바로 내가 쉬도록 한다. 게다가 거절은 못하도록 ‘오빠가 힘들구나.’카드를 낸다. 나는 휴리안에게도 이기지 못한다.이 집안에서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없는건가... 아. 헬리오 오빠가 있었지 참. 헬리오 오빠의 바보같이 웃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으려니까 몸이 붕 뜨는게 느껴졌다.“으챠, 쌀쌀해지기 전에 들어가자 라디.”휴리안 오빠가 날 껴안아 올린 것이다. 지금까지 운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의 몸은 매우 따뜻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나를 오빠들은 이렇게 들어 날랐다. 흑. 은유적으로 짐덩이가 아니라 하는 짓도 제대로 짐덩이인 나다. 다만 아직 키가 그렇게 크지 못하는 헬리오 오빠는 나를 주로 업어서 데려다 주지만 휴리안 오빠는 아빠가 딸을 안듯이 한 손은 내 오금에, 한손은 내 등을 받친 후 가볍게 날라준다. 내가 좀 작은 편이긴 한 것 같지만 아무리 그래도 열 살인데 참 힘이 좋다.“오빠는 왜 이렇게 다정한 걸까... 너무 좋아.” 내가 솔직한 심정을 뱉었다.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솔직해지기로 한 나는 되도록 내 생각을 정직하게 옮기려고 노력중이였다.“...”휴리안 오빠는 잠시 날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오빠가 안아 올렸으므로 눈높이가 비슷했다.“내가 다정해?”“응 너무 좋아.”“그렇구나...고마워 라디.”음? 휴리안 오빠는 가끔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 쑥스러워서 그런가 보다.그 때, 복도를 걷는 우리 앞에 웬 말끔한 중년 신사가 보였다. 손님인가? 미남이시네 속으로 그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아버지, 이제 오시는 거예요?”휴리안이 점잖은 목소리로 신사에게 인사했다.흠... 오빠의 아버지구나...멍하니 생각했다. 응????뭐라고??“아빠?!?”내가 깜짝 놀라 아빠냐고 묻고 말았다. 여태까지 나는 공작에게 '양아버지'라고 불렀을 것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라니! 아빠라니! 아빠라고 부르고 싶긴 했지만, 이런식으로 시작하려고는 생각도 안해봤다. 어머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빠 소리가 나가다니, 내가 진짜 아빠를 갖고 싶었나 보다.공작은 나만큼 놀라서“응!” 이라고 얼떨결에 대답하고 말았다.어라, 생각보다 귀여우신 난봉꾼이다.공작과 오빠는 둘 다 놀란 표정이었다. 나는 오빠에게 안긴 채로 공작을 쳐다보고 있었다가 내 실수에 부끄러워져서 고개를 오빠의 목덜미에 묻고 말았다. 이것도 꽤 부끄러운 일이였으나 경황이 없었다. 얼굴을 가리고 싶었으므로.무슨 말이든 해주면 좋을텐데, 공작님은 말솜씨로 여자들을 꾄 것이 아닌 듯 아무 말이 없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오빠의 목덜미에 고개를 묻은 채 살며시 말했다.“아빠라고 부르면 안될까요?”나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공작과 만날 것도, 내가 이렇게 쉽게 아빠라고 부를 지도, 그 자리에 휴리안 오빠가 껴있을 지도 예상하지 못해서 혼란의 도가니였다. 갑자기 심장이 미칠듯이 두근거렸다. 귓속에서 내 심장 소리가 쿵쿵 울렸다.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 휴리안 오빠가 내가 이렇게 떠는 걸 알아채면 부끄러워서 어쩌지?“된단다. 못 본 사이에 무척이나 귀여워 졌구나 라디올러스.”우와...다행이다. 허락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어이없는 꼬마 녀석이 누구보고 아빠라는 것이냐 이런류의 말을 들었으면 난 휴리안 오빠에게 차마 고개를 못들었겠지. 주제를 모르는 것이 창피해서.“일찍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하다.”아무리 봐도 지금 이 상황도 우연히 마주친 것 같은데 이 양아빠는 천역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아무래도 공작은 천역덕스러운 거짓말로 여자들을 낚은 듯 하다.“음...‘아빠’가 좀 바빠서 말이야.”공작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귀가 피가 나는 것처럼 빨개졌다. 저러다 아예 진짜 피가 흐를 것 같았다. 앞의 말은 취소다. 공작은 귀여움으로 여자들을 낚았다. 양아빠는 당신이 아빠라고 말해놓고 당신이 부끄러워서 숨이 넘어갈 듯이 보였다.“아빠!”“응?”나는 이 복잡한 공작가 가족 관계도를 만든 장본인인 공작을 좋아할 수 있을지 걱정 되었지만 실제로 만나본 공작은 왠지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아니, 사실 꽤 마음에 들었다.“앞으로는 라디라고 불러주세요.”나는 애칭을 허락했다.“그러마.”공작은 휴리안 오빠와 같은 흑발에 같은 색의 깊은 검은 눈동자를 갖은 훤칠한 미남이였다. 잘 정리된 턱수염이 인상적 이었는데, 어른 남자의 매력이 풀풀 풍기는 위험한 미중년이라는 것이 내 감상이다.“이제 복잡한 일도 대충 끝냈으니 자주 보자꾸나.” 이 말을 남기고 공작은 성큼 성큼 복도를 떠나갔다.복도에 다시 휴리안 오빠와 나만이 남아있었다.그런데 휴리안 오빠가 서있는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않았다. 음... 오빠 팔 안아픈가?“오빠, 안 힘들어? 우리 가자.”오빠는 내 얼굴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다.“라디올러스는...용감하네.”“응?”“그렇게 심장이 두근댔었는데..., 어떻게 아버지께 말을 그렇게 잘 걸었지?”“!!!!”역시 느껴진 모양이다 내 고동소리. 나는 클래스메이트가 기르던 치와와를 품에 안았을 때를 생각해 냈다. 미친 듯이 심장이 뛰던게 느껴졌더랬지... 그래, 아닌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치와와 꼴이라는 거다.부끄러움에 몸서리 치다가 아직도 걸음을 떼지 않는 오빠가 이상해서 다시 쳐다보니까 아직도 묘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다. 역시, 휴리안 오빠도 가끔 이해 못할 면이 있다니깐.“나한텐 오빠가 훨씬 대단해. 아까 그건 나도 그냥 되는 대로 말한 거야. 빨리 가자.”“그래.”오빠는 그제야 느리게 걸음을 옮겼다.나는 예상외로 양아버지가 상냥해서 기분이 참 좋았다. ‘생각보다 이 가족이랑 잘 해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다들 좋아 보이는 사람들뿐인걸. 둘째 오빠와 넷째 오빠도 분명 착한 사람들 일거야.’몸이 좋아진 후에, 부모님들의 바쁜 일도 일단락되어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저녁 만찬을 가졌다. 그때가 되어서야 나는 둘째, 넷째 오빠를 볼 수 있었다.둘째 오빠인 제르다민은 듣던 대로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었다. 그는 긴 은발을 뒤로 단정히 묶고는 안경을 쓰고 있었다. 분명히 미남이지만,...나라면 절대 말을 걸지 않을 것이다. 그의 분위기는 완전히 날이 서있었다. 가까이 가면 고기를 썰고 있던 나이프로 찔러 죽일 것 같았다.넷째 오빠인 윌로우는 나와 같은 나이라는데, 확실히 참 어려 보였다. 유일하게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는 형 헬리오와 똑같은 진한 금발 말고도 얼굴 이곳저곳이 참 닮아있었다. 실제로도 헬리오를 무척이나 좋아하는지 계속 헬리오와 눈을 마주치고 그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나도 진하오빠를 굉장히 따랐던 지라 그 마음이 이해되어서 그를 조용히 보고있었을 때였다. 윌로우와 눈이 마주쳤다. 내가 먼저 씨익 웃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나는 헉소리를 낼 뻔했다.‘뭐지?! 왜저러지?“형을 애정이 가득 담긴 눈으로 바라 볼 때와 너무 상반된 얼굴이라 충격이 더했다. 넷째는 동갑이라기에 쉽게 친해질 줄 알았는데, 힘들 것 같다.그리고 식사시간은 생각보다 견디기 힘들었다. 부모님의 바쁜일이 끝나고, 내가 무사히 집에 돌아온 뒤에 처음으로 맞는 가족 모두의 저녁식사시간이라기엔 너무나 무거운 분위기였다. 모두들 아무런 말이 없었다. 서로서로 마치 타인인 것처럼 자신 앞에 있는 음식을 품위있게 먹기만 했다.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내! 하며 그 식사에 참석했던 나라도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휴리안 오빠와 헬리오 오빠가 워낙에 상냥한 사람인걸 알았기에 식사시간엔 그들에게 말을 걸면 그런대로 있을만 할 것 같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잘못이였다. 윽, 진짜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겨우겨우 만찬을 끝냈다.‘윌로우에게는 왜인지 한껏 미움 받고있는 것 같으니까 제르다민 오빠에게 한번 가보자.’식사를 겨우 끝낸 뒤 둘 중 한명에게라도 말을 걸어봐야겠다 싶어서. 그 냉랭한 분위기가 맘에 걸렸지만 식당을 빠져나가는 제르다민을 겨우 불러 세웠다.“역겹게 달라붙으려 하지마. 차라리 예전에 그 인형 같았을 때가 조용해서 더 좋았었어.”조용히. 하지만 으르렁대는듯이 제르다민이 말했다...제르다민은 내가 '오빠, 요즘 많이 바쁘셨나요? 기억을 잃은 후에 한 번도 뵙지 못해서 꼭 만나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자마자 저 말을 매섭게 뿌리고는 인상을 찡그린 채 날 피해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다.잘 얘기해 보면 제르다민과도 친해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있었기에 그의 그런 노골적인 불쾌감의 표현은 솔직히 제법 충격이였다. 나는 한동안 그자리에 못박힌듯 서있다가 겨우 걸음을 옮겼다.암울할 대로 암울해진 나는 용기고 뭐고 방에 들어가서 드러누워 버렸다. 어후 다음에 다시 말걸기가 너무 무섭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잠에 들었다.복도에서 내가 가려던 쪽으로 걷고 있는 제르다민을 발견했다. 나는 메이드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그의 팔을 잡았다.“저기 오빠, 역시 다시한번 얘기를 나눠봐요. 우리 뭔가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제르다민 오빠가 팩 돌면서 예의 그 무서운 얼굴로 짜증스럽게 소리쳤다.“내가!!! 귀찮게 굴지 말랬잖아!!!”그리곤 안주머니에서 스테이크를 썰때 썼던 나이프를 꺼내 내 배를 푹 찔렀다.“으악! 역시 귀찮게 굴면 그걸로 찌르는 거였군요!!”나는 비통하게 외치며 바닥에 쓰러졌다.제르다민은 바닥에 엎드려 괴로워 하는 내 머리맡에서 나를 쓰레기 보듯이 내려다 보다 긴 은발 포니테일을 휙 휘날리며 자기 방으로 성큼 성큼 들어갔다...라는 꿈을 꿀 정도로 나는 제르다민에게 트라우마가 생겨버렸다.덧붙이자면 그 꿈은 너무 리얼해서 나는 잠에서 깨자마자 배를 확인할 정도였다.이제 누군가 앞에서 잡아주기만 한다면 걸음을 대충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휴 여기까지 오기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나는 내 아침 단장을 도와주던 베라에게 자랑을 했다.“베라! 나 이제 앞에서 손잡아주면 제법 걷는다?! 헤헷.”“음...일단 축하는 하는데요 좀 슬픈 건 사실이네요.”베라는 내 머리를 예쁘게 땋으며 말했다. 음...그래...다시 멋모르고 업 되었던 기분이 차분해 지는 것을 느꼈다. 아 그렇지. 열 살된 아이가 걷는다고 이렇게 기뻐하면 좀 슬프지 그래.. 베라는 나를 참 침착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나는 방방 뜨던걸 그만 두고 얌전히 앉았다.“그런데 베라, 밖이 좀 소란스럽네?” 나는 우아하게 말했다. 사실 나에게 있어 ‘우아’란, 베라를 따라하는 거지만.“그러게요? 잠시 무슨 소동인지 보고 돌아 올께요.”잠시후 베라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왜 이렇게 시끄럽대?”“짐을 싸는 중이래요. 아무래도 아가씨 거처를 잠시 옮겨야 하나봐요.” 베라가 초연하게 말했다.“엥? 어디로??” 왜 갑자기 방을 옮긴다고 그러지? 여기 개축하나?베라가 그 특유의 몽환적인 표정으로 나를 잠시 바라본뒤 말했다.“궁으로요.”“궁?”“걱정마세요 그래도 별궁이래요.”“궁?”“별일 아니래도요.”“임금님이 거처하시는 그 궁?”“별궁이라서 임금님이 거처하시진 않아요.”“아, 그럼 이 수도의,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저 궁은 아닌 거구나?”나는 내방에 나있는 널직한 창에서도 보이는, 왕국의 웅장한 페리퀴안 궁을 가르켰다.“아뇨 저기에 달려있는 건물은 맞아요.”나는 팔짝 뛰었다.“뭐야!! 왕이 거처하시는 그 궁 맞잖아!”“아 별궁에서 거처하시지는 않는다니까요.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님 만담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베라가 살짝 짜증을 냈다.“미안합니다. 조금 쇼크라 잠깐 오버 했습니다.”“알았어요 이제 옷 갈아입어야 하니까 잠깐 서있으세요.”“네.”난 똑 부러지고 나한테 유난히 무서운 베라가 참 좋다.“베라, 나 베라가 시집가서 못보게 되면 진짜 결혼식 때 베라네 엄마보다 많이 울 자신 있어.”아. 이것도 열 살이 말하기엔 너무 연륜이 느껴지지만...베라는 내가 이런 애늙은이 소리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괜찮다. 아마.베라는 또 빨개져 있었다. 그리고 내 갈아입을 옷을 옆에다 챙겨놓곤 옷을 거칠게 벗기기 시작했다.“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베라랑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다고 하는 소리야.”이제 베라는 거의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으와. 겨우 이정도에 눈물이 맺히다니 베라는 생각보다 감동을 훨씬 잘한다. 이렇게 겉으로만 애써 강한 척하는 베라는 참 사랑스러워. 이것도 말할까 하다가, 이 말까지 하면 베라가 놀리지 말라며 나가버릴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저도 아가씨가 참 좋아요”옷을 다 갈아입히고 등의 단추를 채워주면서 베라가 조그맣게 말했다. 한참이나 걸린 끝에 받은 대답이다. 뒤로 휘청휘청 돌자 베라가 내가 넘어질 것 같았는지 내 어깨를 꼭 잡았다. 나는 베라의 목에 손을 두르고 꼭 껴안았다.“....” 베라는 잠깐 멈칫 하더니 자신도 잠깐 날 껴안아 주었다.“아가씨 옷 빨리입고 가야돼요.”“음? 오늘 별일 없었잖아? 뭘 이렇게 서둘러?”“궁에 가는게...오늘인걸요.”“뭐?!?!아니, 무슨 궁이 옆집도 아니고. 무슨 오라는 소릴 당일날 하고 난리야? 나는 왕궁으로 가는 마차에서 속으로 매우 투덜댔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정말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베라, 원래 궁에서 다른 귀족집 자제들을 이렇게 쉽게 들여?”“아니죠,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그냥 들르기도 어려운게 당연하죠.”내가 ‘근데 왜 나만?’이라는 표정을 짓자 베라가 다시 대답해 주었다.“그렇지만 라디올러스님은 그 프랑디아 공작가분이시잖아요. 일반 귀족들과는 격이 다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왕국의 태양이신 휴거위드 주드페 임금님과 저희 큰 주인님이신프랑디아 클레마틴 공작님은 아카데미 같은 기수이시고 실제로도 절친한 친우사이 이십니다. 그러니 뭐 이런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알고보니 어제 나의 양아버지인 클레마틴 경은 외교 사신들과의 회의 준비를 대충 끝내 놓고, 오랜만에 시간이 남아 임금님을 만나러 간 듯 하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다쳐서 재활 치료중이란 이야기를 우연히 꺼냈고, 임금은 내가 그렇게 다쳤었냐며,‘이 무심한 친구! 나한테 그런 얘기도 못하나, 섭섭하네. 어서 자네의 여식을 내 별궁에서 치료시키도록 하세.’뭐 이런 흐름으로 간 것 같다.내가 폐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아니 애초에 폐병에 걸렸어도 도심의 중심인 별궁에 있는다 해도 별 평온함과 자연의 기운 같은 건 못 얻을 것 같은데.(화석연료는 잘 쓰지 않으니 어디에나 공기하나는 참 좋다.) 오히려 내가 엄청 신경 쓸 것 같다는 생각은 안드나?도대체 별궁에 가는 것이 내 물리치료에 무슨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기꺼이 왕의 별궁에 머무른다면, 왕과 공작의 서로의 친분이 아직도 굳건함을 만천하가 다시금 알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입다물기로 했다. 사실 둘째 오빠와 넷째 오빠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하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조금 맘이 놓이는 점도 있었다.그리하여 나는 드디어 별궁에 도착했다. ‘드디어’랄 것도 없이 별로 멀지도 않았지만.나는 도우미들의 부축을 받으며 별궁 정원의 티타임 장소로 갔다. 별궁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특히 정원은 정원이라 하기엔 너무 넓을 정도의 규모였고, 아름다운 꽃들이 잔뜩 있었다. 고급스러운 탁자와 의자, 그리고 차가 준비된 곳은 너른 잔디가 푹신하게 깔린 곳이었다.나를 맞이한 사람은 다행히 왕은 아니였고, 그의 아들과 딸이었다. 즉, 공주와 왕자가 나와 있었다는 말이다. 왕은 어제 공작과의 담소를 위해 시간을 내느라 오늘은 바쁜 것 같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임금님이라니,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걸까. 공주와 왕자도 대하기 부담스러운 것은 매한가지지만, 그나마 내 나이또래니까 좀 낫다. 베라가 알려준 바로는 왕자는 17세로 그 겁나 무서운 제르다민 오빠와 동갑이고, 공주는 11살로 나보다 한 살 위였다. 이름은....“먼 길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프랑디아 영애, 휴거위드 메디엘입니다.”“휴거위드 마리안입니다.”공주와 왕자는 내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받았는지 친절하게도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다. 우아하게 인사를 건네는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고상함 그 자체였다. 그 남매는 모두 금발이였다. 다만 헬리오처럼 진한 꿀 색으로 빛나는 금발이 아니라 여리여리한 레몬티처럼 은은한 금발이였다. 게다가 둘다 깊고 깊은 푸른 눈을 갖고 있었다. 왕자는 단정한 짧은 머리임에도 언뜻보면 여자아이라고 생각될 만큼 섬세한 얼굴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강인하고 프라이드 서린 눈빛 때문에 결코 약해보이지는 않았다. 공주는 정말이지 예쁘게 입혀놓은 인형같이 귀여웠다. 큰 눈과 작고 오똑한 코, 그리 크지 않은 입이지만 도톰하게 자리 잡은 입술이 자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는 듯했다.하지만. 그 성당의 천사로 그려질 듯한 외모의 두 사람도 내게 인사를 건넬 때 일순 혐오감을 들어냈다. 나는 항상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게 부정적인 기색은 족집게처럼 잘 집어낸다. 무척이나 슬픈 재능이다. 이런 혐오감같은거 모르고 사는편이 훨씬 행복한 것을.나는 일부러 크게 함박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냈다. 난 예전과 달라. 그걸 알아줘. 필사적인 구조요청이였다.“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잠시나마 머물수 있다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프랑디아 라디올러스입니다. 제국의 새벽님들에게 영광이 있기를.”나는 베라가 알려준 기품있는 인사말을 건냈다. 비록 시녀가 옆에서 부축해 줘야지 인사가 가능했지만.내 미소는 꽤 효과가 있었는지. 아직 어린 공주는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왕자는 천사같이 웃으며 날 위해 의자를 빼 주었지만, 나는 그의 눈썹 한쪽이 순간 움찔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어때? 놀랐어? 메디엘군?우리 주위의 시종들은 차만 따라놓고 사라졌다. 부디 친분 좀 다지렴. 제국의 미래를 위해말이야. 이런 뜻인가?나는 일단 앞에 있는 예쁜 잔에 담긴 홍차를 입가에 가져갔다. 향기로운 홍차향기가 퍼졌다. 한입 마시려고 조심스레 컵을 입술에 댄 순간.메디엘 왕자가 말을 걸었다.“납치를 당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 죽은 걸 숨기려고 사람을 바꿔치기 한건 아니지요?”푸흡! 콜록, 콜록!너무나 상상력 넘치지만 그냥 농담으로 치기엔 뭔가 예리한 맛도 있는 그의 기습공격에 나는 사래에 들려 그만 공주님의 예쁜 하얀 드레스에 홍차를 좀 흘리고 말았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냥 입에 있던 홍차를 그대로 그녀의 옷에 뱉었다.“꺅!” 공주는 가냘픈 산새처럼 작게 그렇게만 외치고 울상을 지었다.“죄송해요!! 안 뜨거우세요? 윽, 이 옷 어쩌죠? 정말 죄송해요!.”나는 미안해서 일어나려다 오히려 또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테이블을 잡았다.“으핫!”덕분에 휙! 하고 같이 잡아채진 테이블보는 그 위의 있던 케이크 같은 다과류를 총알처럼 날려보냈다. 아 이 높은 명중률. 나는 사실 명사수였던 것이다.이런 곳에서 내 숨겨진 재능따위를 찾고 싶은 맘은 결코 없었다.털썩.나는 공주님의 꼴을 보고 차마 사죄의 말도 나오지 않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그냥 앉아 멍하니 공주를 바라보았다.천사 같던 공주님의 모습은 간데없고, 케이크 지옥에서 강림하신 파괴의 여신 같았다. 그녀의 치마 밑단에는 내가 뿜은 홍차로 얼룩져있었고. 허벅지 쪽에는 생크림 케익이 하필이면 데코레이션 된 방향으로 날라와 기세좋게 턱하니 붙어있었다. 뭐니 뭐니해도 절정은 가슴팍의 딸기쨈이였다. 누가 심장이라도 빼먹은 것처럼 신랄하게 칠갑된 그 악마의 딸기쨈은 흉흉하게 뚝뚝 건더기를 이따금 떨어트렸다. 왕실에서 만든거라 과육이 참 잘 살아있었다.‘스콘!!! 누가 스콘을 딸기쨈이랑 먹는 거라고 정한거야!!!’ 나는 소리없이 의미없는 책임논란을 벌였다.“...”아까 홍차를 흘렸을 땐 꺅! 했던 공주님은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었다. 기절한 걸까...“공주님..”“...”“저한테 똑같이 해보실래요? 그걸로 용서가 되신다면 기꺼이 드레스를 내 드릴께요.”“...”흑! 하는 소리가 들려 드디어 공주가 울음을 터트리는 건가. 참담함 심정으로 고개를 들었는데 공주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고 우는 것은 왕자였다.그는 울고 있었다. 웃겨서.한손으론 배를 한손으로 자기 입을 콱 틀어막고 진짜 슬퍼서 우는 것처럼 울었다. 어이없을 정도로 웃겨 했다.누가 보면 내가 공주의 심장을 빼먹어서 왕자가 슬퍼서 우는 거 같았을 것이다.거기서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나인데 말이다.결국 공주는 겨우 정신을 차린 채로 더듬 더듬 ‘괜찮아요.’라고 연신 말했다. 그리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오늘은 왠지 기운이 없어서 오늘 티파티는 빠져도 될까요? 참 죄송하네요. 다음에 꼭 다시 불러주세요.” 라고 비실비실 말한 다음 종의 부축을 받아서 나갔다. 고이 자란 그녀에게 오늘 일은 그 정도로 타격이 컸었나 보다.엉망이 된 테이블은 순식간에 다시 예쁘게 차려졌다. 왜 인지 티파티는 우리 둘이서 계속 해야만 하나 보다. 나는 망연자실했다.“휴...”메디엘 왕자는 이제야 숨을 겨우 정리했다. 그리고 너무 웃어 힘이 빠졌는지 아직도 눈물이 그렁한 채로 기운 없이 의자에 앉아있었다.한참을 우리 둘이 말없이 앉아있는데 왕자가 침묵을 깼다.“영애 말입니다...”“...” 나는 기운없이 왕자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이없게도 나와 왕자는 말끔하다. 공주는 공주가 벗은 옷으로 그대로 티타임을 해도 될 정도로 달콤하게 절여놨는데 말이다.그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날 죽이려고 한거죠? 웃겨서.”“진짜 죽일수도 있을 거 같나요? 좀더 노력하면?”“...”아차. 너무 자포자기한 상태라 멋대로 말장난이 나가버렸다.왕자는 이번엔 이마를 테이블에 박고 쿡쿡...기운없이 들썩거리며 웃었다. 아까의 기품은 어디로 간 거지? 그냥 실성한 사람같았다.나는 그래도 말이 너무 심했나 싶어서 사과를 했다.“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제가 순간 정신이 나갔네요. 공주님일로 너무 걱정이 돼서 그만.”왕자는 내 말을 듣고 엎드린 채로 고개만 돌려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이건...정신 압박인가요?”내 정신은 그 말없는 시선을 견뎌내고 무슨 뜻인가 해석해 내기엔 너무 너덜너덜해 져있었기 때문에 침묵을 깨기로 했다.내 말에 또 씨익 입꼬리를 올렸다. 아까 미친 웃음보다는 훨씬 매력적인 웃음이었다. 그래요 국민들 앞에선 아까처럼 웃으면 안돼요. 알았죠, 왕자님?“...진짜 프랑디아 라디올러스양이십니까?”의외로 쉽게 의심을 지우지 않는 왕자님이시네. 얕볼 수 없을지도 몰라.“...아니요 왕자님을 웃겨 죽이려고 이웃나라에서 보낸 위장 자객이에요.”나는 이 조금 짜증나는 왕자님이 그럼에도 미워할 수가 없어서, 될 대로 되라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다.왕자는 그 말을 듣고 등을 곧게 폈다. 그리곤 흥미롭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아까 내가 싫은 걸 억지로 참으며 지은 우아한 웃음보다 훨씬 예뻤다.“어찌되었건 전 제 눈앞에 있는 라디올러스양이 훨씬 마음에 드네요. 별궁에 오신걸 환영해요 레이디.”“이제야 진짜 환영해 주시는 거라니, 왕궁 문턱이 높기는 높네요. 영광입니다.”그 말을 들은 메디엘 왕자는 공주가 자리를 떠 비워진 의자에 자신의 다리를 턱턱 올리고는 거만하게 자신의 의자로 등을 뉘였다. 그리고는 그 자세에서 천천히 기지개를 폈다. 질끈 눈을 감고 아...피곤하다라고 중얼거렸다가 뜬 눈엔 자존심과 거만함, 천성적인 위엄이 묻어있었다. 나를 조금 업신여기는 나른한 표정으로 제 나이답지 않은 요염함을 들어냈다.“그래요.영광일 것입니다.”‘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여겨.’ 이런 태도였다. 아까 날 맞아 준 천사같은 모습의 왕자와는 다른 사람같았다.그가 배부른 표범과 같은 여유만만하고 매혹적인 미소로 날 내려 보았다. 그는 등을 한껏 의자에 기대고 있었기에 날 보려면 그런 깔보는 표정이 나왔다. 분명 그것을 노리고 일부러 그런 포즈를 한 것일 테지만. 아마 저 자신만만하고 남들을 깔보는 듯한 여유가 있는 모습이 왕자 본연의 모습일 것이다. 레몬색 재규어. 그런 느낌이 들었다.“흠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네요?”“뭘요?”“내 태도가 예법에서 한창 벗어난 걸 알고 있잖아요?”“아. 차 마시는 도중에 레이디 앞에서 거의 드러눕는 거요?”나는 눈 앞의 아름다운 포식자를 바라보았다.“어울리는데요 뭘.”이 나라의 귀족들은 다 이렇게 개성적인가? 나는 귀족에 태도에 대해 왈가왈부할 만큼 기본지식이 많지 않다.그가 ‘역시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는 얼굴로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그리고는 팔을 머리 뒤로 넘겨 머리를 받친 후 눈을 감았다. 잠시 둘 사이엔 아무 말이 없었고, 아름다운 정원엔 바람만 산들산들 지나쳤다.“라디올러스 양은 열 살치고는 참 여유가 넘치네요.”속으로 약간 뜨끔했다. 첫 만남이 너무 정신없어서 긴장이 풀렸나보다. 그래도... 뭐 왕자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내겠는가.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모를 나의 비밀이다.“왕자님은 열일곱살치고 참...”맞받아치려고 일단 말을 꺼냈다. 메디엘을 보았다. 숨길 수 없는 위압감, 왕이 되기위해 태어난 사내라는 것이 내 눈에는 보였다. 분하지만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참 멋질 거야.그가 어서 말해보라는 눈짓을 했다.“왕자님은 열일곱살 치고 참 존재감 있네요. 부러워요.”나는 느낀 바를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굳건히 자신의 존재를 뽐내고 있다. 내가 일찍이 얻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감. 내가 여기에 있다고 소리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바라봐 주는 그런 능력.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나는 솔직히 왕자님이 존경스럽네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홍차 잔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백했다.왕자는 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더니 이내 입을 떼었다.“내 대단함을 아는 건 좋은데 말입니다.”조금 투덜거리는 투였다.“왜 그렇게 슬퍼하시는 지?”나는 조금 놀라서 그를 쳐다 보았다. 내가 슬퍼했어?“열 살 밖에 안 된 레이디주제에... 목표를 나로 삼고 전진하시지요.”흥. 그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불친절하게 말했지만. 요는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열 살 밖에 안 됐잖아? 노력하라고!’ 이것인 것 같다. 거만하고 투박한 왕자 나름의 격려다. 그는 좋은 왕도 될 수 있을 것 같다.“풋!”방금의 왕자는 17살다운 엉성함이 보여서 웃음이 새었다.“상냥하기도 하셔라. 별로 슬퍼하지 않았어요, 친절한 왕자님.”“제가 언제 친절했다는 거죠? 얼마전 머리를 다친 라디올러스양.”윽. 역시 별로 귀엽지 않다. 머리를 다쳤다는 걸 지금 왜 끄집어 내는 거지. 아, '너 정신 나갔니?'의 우아한 순화인가.이렇게 노닥거리니까 아까의 난장판은 꿈만같다.“...그나저나 왕자님, 공주님은 어쩌죠? 크게 실례를 범해서...걱정이네요.”“아...그 애? 괜찮아요, 라디올러스양. 그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니까요. 다만 저렇게 엄살이 심해서 좀 귀찮을 뿐 이에요.”‘겨우 드레스에 뭐 좀 묻은 것 가지고 말이지...’ 라고 중얼거리며 그는 찻잔에 남은 홍차를 다 마셨다.“자, 오늘 이동도 하고, 일들도 많아서 피곤하실 텐데 이제 슬슬 들어가죠.”그가 일어났다.그리고 내 쪽으로 다가와 내가 일어나는 것을 에스코트해주려 했다.“음... 고맙지만 제가 움직이는 것을 도와줄 시녀를 불러주실래요? 몸이 불편해서 걸으려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그가 거만하게 무표정으로 내려다보았다. 음? 뭐가 또 심기를 건드린 거지... 내가 잘 못 움직이는게 내 탓은 아니잖아.그는 업신여기는 말투로 내뱉었다.“내 호의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제외하곤 이 왕국에 없습니다.”그가 내 손을 잡아 억지로 일으키더니, 휴리안 오빠처럼 껴안아 올렸다. 휴리안 오빠보다는 조금 작은 키였지만 예상 외로 몸이 탄탄하고 어린 소년같지가 않아서 의외였다.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말은 엄청 재수없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친절하다.“...제국의 왕자님은 허락없이 레이디 몸을 만져도 되는 거군요.” 나도 밉살맞게 대응해 보았다.“...열 살짜리가 레이디 운운하지 마시죠? 그렇게 말하니 제가 마치 치한 같군요.”그가 날 내가 묵을 곳으로 옮겨주면서 불만스럽게 말했다. 자기가 먼저 나보고 레이디라고 했으면서!“그렇네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무심해 보이던 왕자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 무척 감동이에요. 당신은 분명 좋은 왕이 될 거에요.”나는 난폭하게 말하지만 다정한 차기 왕에게 속삭였다. 그는 아무말도 하지않고 앞만 보았다. 조금 쑥스러운 듯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입을 달싹거리다가 이내 씨익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그대는 내가 듣고 싶었던 말만 해주는 군. 열 살 밖에 안되면서 훌륭한 간신배의 기질이 있어.” 눈을 가늘게 뜨고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는다. 약간 폭군 느낌의 왕자님이다.“사실을 말하는 것뿐인데요.” 바로 눈앞의 레몬빛 머리카락이 사락 사락 흔들리는게 보기가 좋아서 살짝 만지며 말했다.“네가 신하면 위험하겠어.” 그는 또각 또각 발소리를 궁 복도에 울리며 말했다.“엑, 저 지금 벌써 예비 임금님께 찍힌 건가요?”“그러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달콤한 소리를 맘 편히 계속 들으려면...” 그는 여전히 앞만 무관심하다는 듯이 보고 있었다. 마지막 말도 전혀 관심 없다는 듯이 툭 내뱉었다.“...그대는 왕비가 돼야하나?”허! 나는 기가 찼다. 지금 이 어린 왕자는 칭찬이 고파서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다! 메디엘 왕자 곁에는 왕자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이다지도 없었던 걸까?“왕자님... 칭찬이 듣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건 안 될 말이에요.”가엾은 왕자 같으니라고. 왕자는 아무 말 없이 걷고만 있다. 약간 맥이 풀린 표정 같기도 하다.“듣기 좋은 말 같은 건 왕자정도 지위면 주위에서 많이 해주지 않나요?”그가 한숨을 작게 쉬더니 대답했다.“...그딴 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잖습니까. 아 뭘 대답까지 하고 있는 거지 난?”“저도 따지자면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건데요.”“영애는 진심으로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그가 걸음을 멈추고 품 안의 날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아름다운 푸른 색 눈동자는 나에게 마법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이 깊고 깊었다.“네. 나는 진심으로 왕자님이 존경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그는 또 고개를 앞으로 돌린 채 묵묵히 걷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어린 데도 풍기는 위압감이 좋고, 그 태생적인 거만함도 나쁘지 않아요.”그가 나를 전혀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또 손가락으로 그의 예쁜 머리카락을 슬쩍 슬쩍 만지며 계속 말했다. 왕자에 대한 내 솔직한 평가를.“당신은 머리도 좋아 보이고, 게다가 꽤 상냥하죠. 분명 멋지고 좋은 왕이 될 거예요.”머리카락이 사락사락 비단같이 스치는 것이 너무 기분 좋다.“오늘 왕자님을 만나게 돼서 참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감상을 말했다. 엉망인 사건이 많았지만, 이렇게 멋진 사람과 만났다. 그것 만으로도 괜찮은 날인 것 같다.그가 멈춰서기에, 나는 다 온 줄 알고 두리번거리며 그의 품에서 내려가려고 했다. 그러자 그가 자신의 품으로 다시 나를 꾹 눌렀다.“나는 나를 진심으로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그가 나를 너무 꽉 주고 있어서 나는 고개를 그의 어깨 너머에서 돌리지 못했기에 그 말을 하는 그의 표정을 살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무튼 그는 나를 좋게 평가해 주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모두들 왕자님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지는 왕자님도 오늘 저를 만나서 좋았다는 것이죠?”메디엘이 또 씨익, 건방진 웃음을 지으며 나를 내려놓았다.“정말이지 열 살이랑 대화하는 것은 쉽지 않네요.”난 사실 훨씬 연상인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저 열 일곱 살 왕자는 나를 또 하등한 생물같이 생각 하며 업신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잘 어울려서 나는 별로 화낼 기분이 안 드는 것이 문제이다.“그러게 왜 열일곱 살이나 되셔가지고요.” 그래도 일단 받아쳤다. 그가 아까는 다른 놀란듯한 표정으로 빤히 날 쳐다 보았다.“일곱살 차이는 싫습니까?”“왕자님이 열 일곱이라서 싫으냐고요? 별로 안싫은....” 이걸 갑자기 왜 물어보지? 나이차이는 결혼할 때나 보는 거 아닌가...아! 아직도 그 ‘달콤한 말하는 사람은 내 부인이 되어야 해!’ 타령인가.“안 싫긴 한데 말이죠. 왕자님, 역시 칭찬받고 싶어서 결혼하는 건 아니죠.”왕자는 내말을 듣고 또 불만 가득한 표정이 돼서 말했다.“나이차 신경 안 쓰이면 됐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그가 휙 돌아서 걸음을 떼려 했다.“칭찬 같은 건 결혼까지 갈 것없이 그냥 제가 곁에서 매일 해주면 되잖아요!”그가 역시 납득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의 등에 대고 말했다. 그가 걸음을 떼다가 그 말을 듣고는 고개만 살짝 돌렸다.“제가 무슨 칭찬에 목매는 어린애 같이 들려서 좀 걸리긴 하지만...”그는 또 위험한 요염함을 풍기며 웃었다.“좋네요 그 제안은.”그 말을 남기고 그는 또각또각 등을 쭉 피고 기품 있게 걸어서 사라졌다.내가 매일 그를 칭찬해 주겠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는 아카데미도 다녀야 하고, 왕자로써의 스케줄도 해내야 했기 때문에 그 후로 꽤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그동안 공주는 한번 따로 만났는데 다행히 공주는 별로 화가 난 것 같진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매우 친절했고 왕자의 말처럼 착한 소녀였다. 수줍게 웃는 얼굴. 꾸밈없는 태도. 예쁜 얼굴. 그녀는 정말이지 사랑스러움을 구현한듯한 완벽한 소녀였다.‘이렇게 완벽한 소녀라니!’ 오히려 나는 왠지 대하는게 껄끄러울 정도였다. 내가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종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무슨일을 하던 요령 있고, 어디에 가던 귀여움 받는 사람이란 것이 있다. 나로 말하자면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요령 없음의 최고봉이었기 때문에... 부러워서 싫은 것이다 그 공주가.‘으 그 어린 공주에게 시기하는 것인가 나는!’ 나는 작은 자기혐오에 빠져서 멍하니 예쁜 정원을 쳐다보았다.재활치료를 하고 쉬고있던 나는 정원의 푹신한 풀밭에 자리를 깔고 털썩 앉아있었다.“너무하시네요.”뒤에서 불쑥 들린 소리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 머릿속을 읽고 비난하는 것 처럼 들렸기 때문에 더욱 더.“매일 저를 만나기로 하시는 거 아니였나요.”목소리의 주인공은 메디엘 왕자였다. 우와 오랜만이네요. 근데 내가 언제 그런 소릴 했던가? 오랜만에 만난 그는 여전히 섬세한 작품같은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가 발 한쪽을 엇집고 삐딱하게 팔짱을 낀 상태로 불만스럽게 날 내려다보았다.“오랜만이에요 왕자님! 그런데 제가 언제요?”“매일 그...칭찬을 해주기로 했던걸로 아는데요.” 왕자는 칭찬이란 소리가 하기 창피한 눈치였다. 하긴, 다 큰 청년이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소리였다.“왕자님이 너무 바쁘셨던 거지요. 저는 시간 많았답니다. 이런 별궁에 오게 된 덕분에 오빠들도 잘 못보고, 부모님도 보기 힘들고 말이지요.”나는 우울했던 터라 왕자에게 불평했다. 재활치료도 하고, 몸이 많이 좋아진 후엔 왕실에서 가정교사를 대접해 주어서 이것저것 이 나라에 대한 상식을 배우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한가하기만 했던 것이다.왕자가 내 말에 찡그린채 노려봤다.“설마 별궁에 있는게 불만이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표정이나 태도만 보면 참 무서웠을 텐데 메디엘이 사실 착한 녀석이란 것을 알고 있으니까, 별로 겁내지는 않아도 된다.“별궁에 있어서 유일한 좋은 점이 왕자님이랑 만난 거였는데, 그 왕자님도 바빠서 못 보니까요...” 나는 덤덤하게 턱을 괴고 말했다.“정말 불만이네요.” 내가 말을 마치자 그가 내 옆에 털썩 앉았다.“나랑 못 만나서 기분이 상한 것이라면 용서해 주지요.” 기분이 풀렸는지 한층 상큼한 얼굴이었다. 햇빛에 부딪힌 그의 연한 금발이 산들산들 빛났다. 그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나를 무시하는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딱히 별 말은 없었고, ‘뭐해?’라는 표정을 지었을 뿐이다.슬쩍 한손을 들어 옆에 앉은 그의 머리끝을 만졌다. 손가락으로 그 아름다운 가닥을 희롱했다. 혼날 것 같아서 소극적으로 만졌는데 그는 별말 없이 내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기만 했다. 나는 이 감촉이 너무 좋았다. 그의 머리카락은 가늘었지만 매끈매끈했고 그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워져 있어서 중독될 것 같았다. 그가 화를 내지 않기에 좀 더 대담하게 그의 머리를 쓰윽 쓰윽 쓰다듬었다. 나는 사실 항상 강아지를 기르고 싶었다. 그래 이런 사나운 재규어 같은 거 말고 골든 리트리버 같이 순하고 큰 개.그는 내 쓰다듬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나를 업신여기는 오만한 표정을 했다. 정말로 건방진 골든 리트리버.“저요, 왕자님 머리카락에 중독된 것 같아요.”그는 내 말에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여전히 내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지루하다는 듯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계속 쓰다듬게 했다.“이 연한 레몬빛, 감촉, 광택 모두 완벽하네요.”“...”“이거 입에 넣으면 녹나요?”내 농담반 진담반인 진지한 어투의 질문에 그는 웃음기 하나 없는 오만한 대답을 했다.“정말로 입에 넣어서 내가 영애가 사고로 지능까지 낮아졌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말하시니 꼭 한번 입안에 넣어보는 영광을 저에게..”콩왕자가 노크하듯이 내 이마를 손등으로 살짝 때렸다. 왕자가 나한테 꿀밤을 먹였다! 화났나? 싶어서 눈치를 보니까 그저 비웃고 있었다.“왕실의 손님에게 손찌검을 하다니. 왕자님의 수준이 걱정되네요.”“공작가 레이디가 남성의 머리카락을 입에 넣으려 한것도 같이 걱정해 주십시오.”“어찌됐든, 나쁜 인상을 리뉴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리지요.”말을 끝마친 나는 그에게 우아하게 손을 내밀었다.“자아 손을.”“뭡니까?” 그는 묻긴 했지만 일단 내 손을 잡았다.“걷는 연습을 도와 달라는 거예요.”그는 못마땅한 얼굴을 했지만 여전히 손을 놓지는 않았다.“...이런건 원래 시녀가 잡아주지 않습니까?”“제가 이렇게 가녀려 보여도 벌써 열 살인지라... 훈련을 너무 오래하면 시녀들이 녹초가 되곤 하거든요. 신경이 쓰여서 오늘은 벌써 돌려보냈어요.”“왕자님한테 더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 맞지 않을런지?”“글쎄요...”그는 한 번 더 내 머리를 콩 찧었다. 이젠 아주 자연스럽다.“...가 아니라 이때가 아니면 언제 고귀하신 왕자님 손을 잡아보겠어요.” 나는 볼맨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내가 곱게 말해준다 줘.그러나 이번에도 왕자는 픽 비웃으며 말했다.“그대는 박색이라 사교계 데뷔는 안 할 생각인가 보지요? 데뷔만 한다면 춤은 질리도록 출 텐데 말입니다.”아 정말 훈련상대 한번 해주는데 거하게 틱틱댄다. 어차피 해 줄 생각이면서 말이다.“어머, 그 말씀은 제가 데뷔만 하면 꼭 댄스 신청을 해 주신다는 말씀같이 들리네요!”그는 또 노크하려는 손모양을 취했다.“...하지만 제가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는 정말로 사교계 데뷔도 못 할 수도 있겠어요.”나는 짐짓 슬픈척하며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이말도 농담 반 진담 반 이였다.그는 벌떡 일어나 잡은 내 팔을 위로 당겼다. 일어나라는 표시이다. 여전히 조금 화난 표정이다.“금방 멀쩡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는 조금 큰 소리를 냈다.후후 하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는 매우 서툴게 내 보조를 맞추어 주었다.“거 봐요 엄청 상냥하지.”“무슨 소리이신지?” 그가 내 두 손을 마주잡은 자세에서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쳐다보았다.“오늘 자 칭찬이라고 해두죠.”날씨는 화창하고 아름다운 정원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움직이니까 마치 소리 없는 무도회 같이 보였다.“그런데...”말없이 내 손을 잡아 재활 훈련을 해주던 그가 입을 떼었다.“공주랑 다시 만나봤다고 하던데 일은 잘 풀리셨습니까?”킥, 하고 비웃는 소리가 난 것은 착각이 아니겠지.“잘 풀렸답니다!” 나는 비웃지 말라고 일부러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나 곧 그 순진무구하고 사랑스러운 공주의 얼굴을 떠올리자 가슴이 약간 답답해졌다. 그녀를 무작정 좋아 할 수 없는게 왠지 죄책감이 들었다. 약간 어두운 얼굴이 나도 모르게 나왔나 보다.“...무슨일 있었던 것 같은데요.”예리하기도 하지... 금방 내 꺼림칙함을 알아챈 왕자가 물어보았다.“음...공주님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귀여운 동생이에요.”역시 왕자도 그녀를 귀여워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추한 마음을 말해도 되나? 나는 조금 고민 되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꺼리자, 그가 위협적으로 말했다.“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부디. 말해주셨으면. 하네요.”하나하나 예의바르게 말하는 것이 더 무섭다. 내 고민을 왜 그에게 꼭 털어놔야하는 지는 의문이지만.“있죠..왕자님. 난 그 공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완벽해 보여서 싫은가봐요.”“...”왕자는 ‘실례.’ 라고 우아하게 한쪽 손을 놓더니 그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고 큭큭 하며 나를 마음껏 비웃었다. 못된 골든 리트리버.“뭐, 이해는 해요. 마리안은 이상적인 공주님이니까요.”다 웃고 났는지 다시 내 손을 잡으며 메디엘이 말했다. 우리 둘은 다시 걸음을 걸었다.“완벽해 보이는 것이 싫어요?”“아뇨, 음...완벽해 보이는 것 보다. 천성적으로 사랑스러운 게 더 싫은 것 같아요.”메디엘 왕자는 또 킥킥 웃었다.“그렇지요... 마리안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스러웠죠...”“그 사랑스러운 마리안 공주님을 진심으로 좋아 할 수 없는 제가 징그러워요.”나는 내안의 작은 죄악감을 그에게 털어 놓았다. 내 대답이 왕자는 만족스러운 듯하다.“솔직하네요.”그는 그 짧은 말을 남긴 뒤 기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콧노래를 부르기 까지 했다. 그 감상이 다인가? 그녀의 오빠로서 조언이거나 제 삼자로서의 느낌 이런 건 없는 건가? 내가 불만스러워 하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생각 난 듯이 말했다.“아. 마리안은 싫은 데 나는 괜찮은 건가요?”...이 남자는 지금 자기가 마리안 만큼 완벽하고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싶은건가.“네 당연히 괜찮죠. 왕자님은 좋은걸요.”메디엘은 또 그 업신여기는 웃음을 씨익 지으며 되물었다.“왜요?”“성격이 나쁘잖아요.”그가 또 반사적으로 노크하는 손 모양을 만들며 내 한쪽 손을 놓았다. 운 나쁘게도 나는 지금 그 놓은 손 쪽으로 체중을 실을 때였고, 더 운 나쁘게도 오랜 훈련으로 그쪽 다리의 힘이 턱하고 풀려버렸다. 나는 그쪽으로 기우뚱 넘어져 버렸다.순간 세상이 휘청하듯이 넘어가는 게 보였는데, 다시 초점을 맞추어 보니 눈 바로 앞에 왕자가 누워 있었다. 그가 나를 보호 하느라 내게 깔린 자세가 된 것이였다. 다행이 잔디밭이라 아프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가 또 나른하고 흥미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아아. 이번에는 제 잘못이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초록색 싱그러운 풀밭에 그의 짧은 레몬색 머리카락이 살짝 퍼져있었다. 보기 좋다.나는 내가 그를 올라탄 자세였다는 것을 까먹고 누워 있는 그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곳 까지 조금 위로 기어갔다. 그러자 나는 그날 긴 연분홍색 머리를 풀고 있었던 지라 그의 머리카락 위로 내 곱슬 곱슬한 머리카락이 포개어 졌다. 왕자의 얼굴은 내가 만든 그림자에 가려 조금 어두워 졌다. 나는 그 얼굴을 응시했다.나는 풀밭에 놓인 메디엘의 머리카락을 좀더 자세히 보려고 무심코 취한 행동이지만, 왕자님의 머리카락에 내 머리카락을 놓으니 보기에 꽤 괜찮았다. 레몬색과 연분홍색, 자연계에서 보기힘든 조합이다. 아직까지도 왕자는 내 얼굴을 물끄러미 무표정하게 바라보기만 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어머나 왕자님. 그러고 보니 레몬색과 분홍색은 제가 좋아하는 색 조합 이였어요.”사실이였다. 나는 일부러 이 두 색으로 된 공책을 들고 다닌 적도 있었다.그 말을 듣자 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씨익 눈을 얇게하며 웃었다. 완전히 나른한 재규어.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자신의 얼굴에 닿을락 말락하는 내 머리카락을 살짝 꼬았다. 여유있게, 질린 듯이, 하지만 계속해서 내 머리카락을 만지작 거렸다.“응...나도 꽤 마음에 드네요.” 그가 졸린 듯 나긋하게 말했다.“그렇죠? 특히 제과 업체에서 좋아하는 컬러죠.”그 말에 그는 질린 듯이 손을 땅으로 툭 내려 놓았다.참 맛있어 보이는 색 조합이에요. 라는 내 말에 그는 아까 분위기와는 다르게 제발 그만 좀 입에 넣으려고 해주실래요? 라고 짜증스럽게 말했다.“후...그대가 내 장단에 안 넘어오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말해드리지요.”그가 져준다는 태도로 말했다.“저도 이렇게 누워서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영애의 분홍색 머리를 보니까...나쁘지 않네요. 마치 장미가 둔갑해서 날 놀리는 것 같군요.”그가 눈을 천천히 감으며 말했다.헉. 무슨 일이지. 그 왕자가 날 칭찬하다니. 나는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나쁘지 않아서 그를 향해 고마워요 라고 조그맣게 말하고 배시시 웃어버렸다.그가 내 얼굴을 보고 쓴웃음을 짓더니 이내 질린 듯 한 얼굴로 말했다.“이제 좀 내려가 주시오 영애.”그는 내가 영차 하며 옆으로 내려가자 일어나서 나를 일으켜 준 다음 내 머리며 옷에 붙은 풀잎을 털어주었다. 자신의 몸치장은 그 후에 하였다. 모두 무표정인 채로. 그 일이 있고나서 왕자는 또 매우 바쁜 것 같았다. 한 일주일 만에 또 보았는데, 이미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것을 마스터 하고 나서였다. 오랜만에 본 그와 이번에는 허브 티를 마셨다.“일주일 만에 이렇게 발전하다니. 계산 착오에요.” 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같은 집에 사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얼굴보기가 힘들다니 계산 착오에요.” 나도 맞받아쳤다. 별궁에 한 달 정도 있으려 했는데, 벌써 그 한 달의 반은 지나갔다. 근데 뭐가 계산 착오라는 거야... 자기가 의사도 아니면서.“...저도 많이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라디올러스 양” 그 말을 하는 메디엘은 답지 않게 정말로 유감스러워 보였다.“아. 그거 말인데요.”“ ? ”그가 뭐가? 라는 제스쳐를 취했다.“그 호칭말이에요. 라디올러스 양은 너무 길지 않나요? 그냥 라디라고 해도 되는데요.”“오랬만에 마음에 드는 제안이에요 라디양.” 그가 나른하게 웃으며 말했다.“라디양은 그래도 메디엘 왕자님이라고 부르도록 하세요.” 거만하게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오만방자 골든 리트리버.’ 속으로 말했다.“아참.” 그가 기분 나쁜듯이 말했다. 헉. 또 속마음을 들킨 줄 알았다. ‘타이밍의 귀재 골든 리트리버.’ 열 받아서 한번 더 말해줬다. 물론 속으로.“아카데미에서 라디양의 오빠이신 분이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가 투덜거리듯 말했다. 음? 휴리안 오빠랑 헬리오 오빠인가?“헬리오군 말입니다.” 그가 말을 뱉듯이 찡그리며 말했다. 누구한테 부탁받았다는 것이 싫은 모양이다.“오. 휴리안 오빠 말고요?” 솔직히 휴리안 오빠일 줄 알았는데. 헬리오 오빠는 단순파 이니까, 이런 섬세한 일은 안할 줄 알았다.“휴리안군을 기다리셨던 모양이지요?”그가 기분나쁜듯 말했다. 아니 그보다. 휴리안 오빠가 더 연상일텐데... 음... 왕자님이 누구를 하대 못하겠느냐만.“아뇨 둘 다 기다리긴 했지만요. 오빠들, 보고 싶으니까요.”“흠, 초대한 왕족 앞에서 너무 집을 그리워하시는 듯한 말을 하면 실례 아닐까요.”왜 이 왕자님은 굳이 오랜만에 찾아와서 이렇게 일일이 짜증을 내시는 것일까.“뭐, 그렇네요. 어차피 좀만 있으면 집에 갈거고...”“음? 집에요? 언제요?” 그가 조금 당황한 듯 물었다.“네? 오빠들 겨울방학 하기 전에 가려고 했는데요?” 오빠들과 시간을 잔뜩 보낼 수 있는 적기를 놓칠 수야 없지.왕자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이 말했다.“그럼 이제 곧 이잖아요?”벌써 가을과 겨울의 경계라 쌀쌀해지고 있었으므로, 조금만 있음 방학이 시작 되겠지. 그가 내가 가는 걸 꽤 서운하게 생각해 주고 있나보다. 그에게는 미안하지만 상당히 기쁘다.“네. 하지만 무작정 오래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실제로 움직임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내가 의자 옆에 세워둔 목발을 톡톡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무슨...목발 짚고 다니는 것을 어떻게 좋아졌다고 합니까.” 그가 크게 툴툴댔다.“그럼 이 별궁은 제가 뛰어다닐 수 있게 돼서야 나올 수 있는 곳입니까? 무슨 스파르타 학원입니까...” 내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자, 그는 짜증이 잔뜩 나서 말했다.“아. 그렇지요. 부디 오빠들과 좋은 방학 보내시길.”그리고 그는 벌떡자리를 박찼다.‘어? 화나서 나가려는 건가?’ 하고 걱정했는데, 그는 다시 나를 한번 노려보더니 자리에 털썩 앉았다.그가 매너에 완전 어긋나게도 내가 보기 싫다는 듯 테이블에 엎드려서 낮은 소리로 말했다.“라디올러스양 생각보다 치사하시군요.”나는 이 왕자가 참 좋다. 그러므로 메디엘의 미움을 사는 일은 피하고 싶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여기에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뭐가요?” 내가 또 손을 뻗어 그의 머리칼을 만지작 거렸다. 그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지금이라면 눈치안보고 맘대로 만져도 된다.“...아카데미 겨울 방학이라는 얘기는 저도 겨울방학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침묵하다가 치욕스럽다는 듯이 말을 했다.“그렇지요.” 내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탁. 하고 내가 그를 쓰다듬던 손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곤 얼굴을 들어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완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았다.“저기...겨울방학때 제가 왕궁을 방문하거나 왕자님이 방문하시는 것은 혹시 큰 결례인 건가요?”어차피 여기서 내가 살아도 보러올 시간도 없으면서.그가 자세를 고치며 거만하게 대답했다.“...저를 보고싶을 것 같아서요?”???당연한거 아닌가?“네 당연하죠?”“그럼 특별히 방문을 허락하죠.” 그가 ‘고마워 하십시오.’ 하는 얼굴로 말했다.“감사합니다.”... 아, 혹시 그는 내가 그를 별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것이라 생각 했던 걸까? 그래서 이 별궁에서 내가 나가면 그다지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걸까? 그런 생각을 내맘대로 해 보았다. 사실이 아니라면 좀 창피한 망상이지만. 이게 사실일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에게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기로 했다.“메디엘 왕자님.” 나는 앞에서 이제는 여유있게 차를 마시는 그를 아까 그가 요구한 호칭으로 불렀다. 그는 차를 내려놓고 턱짓으로만 ‘말해봐.’라는 제스쳐를 취했다.“아까, 나가려던 거 참고 다시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겨우 얼굴 볼 시간이 생겼는데 그대로 나가셨으면 무척 섭섭했을 거에요.”그는 내말을 듣고 어깨를 한번 으쓱 한 다음 시선을 피했다. 재규어께서 조금 부끄러우신가 보다.“그리고 제 의지로 이 궁에서 나가게 되겠지만 사실 평생 여기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인거잖아요...” 그는 내 말을 듣고 마음에 안 드는지 인상을 찌푸린 채 여전히 딴 곳을 바라보았다.“하지만 저는 왕자님이 무척 좋다는 사실은 알아 주셨으면 해요!” 그가 슬쩍 고개의 방향을 슬쩍 내쪽으로 고쳤다. 그는 미간은 살짝 구기고 있었지만 싫지는 않은 듯한 표정이였다.“메디엘 왕자님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왕자님 머리카락 만지는 것도 정말 좋아하니까요, 몇 번이나 찾아올 거예요. 조금 귀찮을지도 몰라요.” 나는 씨익 웃었다.“정말 좋아하니까.” 나는 그가 까먹었을까봐 한번 더 말했다.그는 얼굴이 꽤 빨개졌지만 눈을 뚫어져라 날 향하고 있었다.“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는 말을 평소와 같이 프라이드가 가득하게 말했다. 하지만 얼굴이 빨개서 인지 평소보 훨씬 앳돼 보였다. 평소엔 나이답지 않은 요염함을 보여주는 그라 그가 그의 나이다워 보이는 것이 오히려 신선했다.그는 그날 차를 세잔이나 마셨고 나와 시시콜콜한 잡담을 잔뜩 한 후에 돌아갔다. 그는 생각보다 단 것을 잘 먹었다. 알고보니 왕자는 나와 식성이 비슷했다.주말이라 시간이 난 헬리오 오빠가 내가 있는 별궁을 찾아왔다. 의외의 인물과 함께."말해두는 데, 난 절대 너 같은 게 보고싶다거나 걱정되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는 점 명심해 둬."넷째 윌로우가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런 전형적인 츤데레 대사라니, 귀여울 정도다.역시 저번 가족식사때 느꼈던 적의는 내 착각이 아니였던 모양이다. 그는 정말이지 내가 밉단 표정으로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다. 그래 봤자 열살인지라 별로 위협적이진 않았지만."왜 이러는 거야 윌로우. 네 동생이잖아? 그리고 라디는 완전 달라졌다고! ""달라지기는 뭘 달라져. 그냥 밝은 척 하는 거지. 기분나쁘게."읠로우는 아무래도 나에대한 뿌리깊은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그럼 왜 여기까지 찾아온거야... 언제 한번 윌로우와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해보고 있긴 했으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인가?"윌로우 오빠, 전 진짜 오빠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제가 전에 혹시 기분상하게 했던 적이 있으면 부디 용서해 주세요."나는 헬리오락 똑닮은 윌로우를 쳐다보며 말했다. 헬리오랑 다른점은 좀더 고집불통같은 눈썹정도일까. 눈썹산이 강하게 살아있었다. 그 밖에는 짙은 금발, 에메랄드같은 눈동자, 뚜렷 뚜렷한 이목구비까지 모두 헬리오와 닮았다.내 말을 듣고는 윌로우는 짜증을 벌컥 냈다,"누가 니 오빠라는 거야 동갑이면서! 여동생노릇 하려고 하지마!""그래? 그럼 윌로우, 친하게 지내자.""반말하지마!""뭐? 니가 먼저 오빠아니래매!"처음엔 어린애의 고집을 감안해서 살살 대했지만 말하면 말할수록 짜증난다. 열살이랑 말싸움이나 하고 있다니... 열살 몸이 되니까 내 정신연령도 하락하는 것 같다."둘 다 그만!" 헬리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있는 응접실엔 나와 윌로우가 내는 씩씩거림만이 들렸다." 윌로우! 너 왜 이렇게 평소답지 않게 못되게 구는거야!""왜 나만 혼내는 거야?!" 그가 매우 억울하다는 듯이 헬리오를 쳐다보았다."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넌 지금 억지만 부리고 있잖아." 헬리오는 침착하게 그를 타이르려 했다.화가난 듯 잔뜩 치켜든 눈썹과 찡그린 눈을 한 윌로우가 입을 열기에 나는 그가 헬리오에게도 화를 내려나 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저애가 내 동생일리가 없잖아!!" 그렇게 소리치는 윌로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흐르고 있었다. 여전히 잔뜩 화가 난 얼굴이였지만." 그 집에서 진짜 가족은 우리 둘 뿐인거 잊었어?"그 원망 섞인 고함을 헬리오는 입을 다문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심지어 저 기분나쁜 계집애는 어느순간 우리집에 끼어든 생판 남인데 왜 내가 친하게 지내야 하는 거야?!!"그 말 마저 모두 침착하게 들은 헬리오는 손바닥으로 윌로우의 볼을 찰싹 소리가 날정도로만 살짝 때렸다. 전혀 세게 때리지는 않았지만 윌로우는 충분히 충격인 얼굴이였다." ...라디도 우리집에 오고싶어서 온거 아냐."그렇게 진지하게 타이르는 헬리오는 내 의지할 곳 없는 입장을 무척이나 잘 이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윌로우는 헬리오가 자신을 때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하는 눈치였다.멍하니 자신의 볼을 만지는 윌로우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떨어졌다. 아까처럼 고함을 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슬퍼보였다. 이제는 헬리오도 화가나서 아무말 없이 차만 마셨다.'아하, 그런거였구나.'나는 윌로우가 왜 그토록 고집스럽게 나를 싫어하는지 깨달았다. 그는 헬리오를 뺏기는 듯한 기분이 들어 나를 도저히 좋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확실히 사랑받고싶어서 애쓰긴 했지만 윌로우의 하나밖에 없는 형을 뺏을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형제끼리 싸우게 할 요량은 더욱 없었다.나는 그 무거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확실히..."윌로우와 헬리오 모두 슬쩍 눈동자만을 움직여 나를 기운없이 쳐다 보았다."나는 윌로우랑 헬리오 오빠랑은 사실 따지고 보면 남이에요."내 적나라한 말에 헬리오가 무엇이라 하려했지만 나는 말을 가로막앗다."둘은 누구도 의심못할 친형제이고요."나는 웃으며 헬리오를 바라보았다." 그치만 정신차리고 보니 이렇게 멋진 오빠들이 잔뜩 있잖아요? 어떡해서든 친해지고 싶어서 노력했지만요..."이번에는 윌로우를 쳐다보았다. 그저 형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외로운 아이."윌로우 오빠, 당연히 당신과 헬리오 오빠 사이에 끼어들지는 못해요. 애석하지만, 진짜를 당할 순 없죠. 걱정마세요. 언감생심 바라지도 못했어요."'친 남매 같이 되고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말이야. 될 수 있을거라곤 생각하지 않아.' 슬프지만 이미 라디올러스는 열살이다. 윌로우를 뺀 오빠들 입장에서는 사춘기도 지난 후 생긴 여동생이다.나는 그 '진짜'들을 싸우게 한것이 조금 죄스러워 고개를 숙였다.그때 누군게 벌떡 일어서는것이 느껴졌다."그게 무슨말이야! 라디! 난 널 진짜 여동생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었다고!"헬리오가 버럭 소리질렀다."물론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그렇게 될거라고!"나는 놀라서 그냥 그의 외치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다."맞아, 정작 네가 안될 것 같다고 지레 포기하고 있으면 어떡해!"목소리까지 비슷해서 나는 순간 헬리오 오빠가 계속 말 하고 있는 것인줄 알았다.하지만 이번 목소리의 주인공은 윌로우였다."너...너 따위한테 헬리오 형을 뺏길리가 없잖아!!!그러니까 ...살짝 껴줄께."큰소리로 시작한 그의 말은 점점 기어들어갔다. 방금까지 내가 미워서 악을 써댔으면서 막상 내가 약한소리를 하니 위로해주고 만다. 그는 영락없는 10살 아이였다.하핫! 나는 웃음이 터졌다. 내가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의 본심에 미소를 참을 수 없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오고 말았다. 이 어린 몸에서는 한번 눈물이 나오면 끝장을 봐야하는지 웃음으로 시작한 것이 어느새 통곡이 되고 있었다."울지마 라디올러스." 헬리오와 윌로우는 내 울음을 그치기 위해 진땀을 흘렸다.헬리오는 내가 울음이 조금 잦아들자, 번쩍 안아들고 별궁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나갔다. 내 빨간 얼굴을 식혀주려 함인가 보다.“울어버리다니, 확실히 라디올러스, 옛날이랑은 완전 다르긴 하네...” 윌로우는 헬리오의 곁에서 따라 걸으며 마지막 자존심으로 못마땅한 듯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들은 헬리오는 윌로우를 쳐다보며 씨익 웃었다. 아까 싸움의 앙금따윈 없나보다. 역시 사이좋은 형제.정원에선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물 젖은 고개를 들어 노래를 하는 새를 보았다. 이 세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새였다. 주먹을 두 개 합친 것 정도의 크기 이었는데, 색도 알록 달록하고 귀여워서 나는 그 새를 꽤 좋아했다. 그 새는 특이하게도 통통한 몸에 비해 얇고 크게 휘어진 갈고리 모양의 부리를 갖고 있었다.내가 그 새를 계속 보자 헬리오가 물어보았다.“팔파새를 좋아해?”“아, 저 새 이름이 팔파야? 응. 귀엽잖아. 부리가 어쩜 저렇게 생겼을까?”“팔파새는 지금은 잡식이지만 예전에는 죽은 고기나 물고기 눈알 같은 걸 빼먹고 살았기 때문에 저런 모양의 부리를 가졌다고 읽은 적 있어.”“엑.”귀여운 부리의 하나도 안 귀여운 내력이었다.헬리오는 이참에 새한테 모이라도 줘 보라고 하인을 시켜서 모이를 받아왔다.‘음...이제 별로 안 귀여워 보이는데 말이지.’ 나는 가지에 가득히 앉아있는 팔파새를 보며 생각했지만, 애써 헬리오가 마음 써준 성의를 무시할 생각은 없었기에 그냥 받아들였다.“아, 여기 테이블도 있으니까 차나 마시면 좋겠는데, 하인을 또 부르기엔 좀 미안하네?”헬리오가 국어책 읽듯이 말했다.“직접 받아 와야겠다. 다녀올게.”어색하게 발길을 돌려 헬리오가 사라졌다. 이왕에 분위기가 풀어진 거,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지, 헬리오는 서툰 연기 후에 나와 윌로우 둘 만을 남겨놓은 것이다.‘확실히 새 모이를 주면서 있는다면, 별로 어색하지 않을 지도 모르겠네.’윌로우와 나는 자리를 깐 풀밭에 앉아서 어색하게 모이를 뿌리기 시작했다. 분명 한적하고 평화로운 정원이라고 생각했는데...“끼악! 끼악!”펄럭 펄럭, 우글우글. 나는 금세 무서울 정도로 모여든 팔파 새를 조금 아연실색해서 보고있었다. 윌로우는 내 기분 같은 건 하나도 모르고 점점 신나했다.“야. 모이 좀 더 내놔.” 윌로우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손바닥에 남은 부스러기를 팔파새 뭉치에게 툭툭 털면서.“음...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아니였어?”“껴주겠다고 했지, 친절하게 하겠다고 한 건 아니였는데?” 그가 내가 내민 모이를 거칠게 받아가며 말했다.“그리고 너 울고 나더니 은근 반말이다?”“응, 생각해 보니까 헬리오 오빠랑은 반말인데 오빠랑은 존대인게 웃겨서.”“아, 그렇긴 하네...”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다.“오빠라고 꼭 붙여, 그럼 용서하지 뭐.”아까 전엔 누가 네 오빠냐며 화를 내더니 이제는 오빠라고 꼬박꼬박 부르라는게 좀 귀여워서 나는 웃음이 났다.그가 모이를 더 주자 그 알록달록한 팔파 무리는 크게 요동쳤다. 나는 그 새로운 생명체 같은 덩어리가 좀 진지하게 무서워지기 시작했다.“음... 오빠, 이제 그만 주는 게 나을 거 같아.” 나는 조심스레 말했지만, 역효과였다.“헤, 라디올러스! 너 겁나냐?” 그는 입술 한쪽만 올리며 비웃었다.“응. 이제 징그러울 정도야.” 나는 솔직히 말했다.“나는 하나도 안무서운데?”그가 이 말을 내뱉자 나는 내 실수를 깨달았다. 이맘때 남자아이에겐, ‘난 안무서워’ 병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저쪽에 있는 팔파새를 더 불러와야겠어!” 그가 벌떡 일어나며 정원 끝의 나무를 가르켰다. 그 곳엔 이미 여기서 새로운 괴 생명체를 이룬 팔파새보다도 많아보이는 팔파 무리가 있었다. 나는 막아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안돼 오빠!” 나는 쉽게 일어나지 못하므로 앉아서 두 손으로 그의 바지춤을 잡았다. 그는 “안되긴 뭐가 안돼~.”그는 짖궂게 웃으며 내 손에 들려있는 큰 모이봉지를 뺏으려 했다. 내 머리는 순간 위기의 경종을 울렸다.‘헛. 이 거대한 양의 모이봉지가 한번에 뿌려지면 이 아름다운 정원(왕실의!)이 아작날지도 몰라.’필사적으로 그 봉지를 사수하려했고, 그는 더욱 신나서 내 봉투를 악착같이 뺏으려 했다.그 결과.촤악!모이 봉투가 내 머리 위에서 화려하게 찢어졌다.물론 앉아있는 나만이 완전히 그 모이를 뒤집어썼다. 그 오곡이 섞여있는 모이는 옥수수 알갱이부터, 조까지 다양한 크기를 구사했고, 내 곱슬머리 사이와, 내 드레스 레이스 사이에 샅샅이 스미기에 딱 좋았다.“꺄악!”알이 굵은 모래를 맞는 듯한 아픔에 작게 소리쳤고, 윌로우는 조금 당황해 하더니 이내, 얍삽하게 뒷걸음질 쳤다.지금의 나는 완전히 맛 좋은 팔파새 먹이에 불과했던 것이다.푸다닥! 하며 팔파새가 달라붙기 시작했다. 아니, 잘못 말했다. 팔파새 군집이 달려들기 시작했다. 얼른 수그렸고, 살짝 실눈을 떴더니, 얼기설기 새 다리와 예의 그 갈고리 부리가 보여서 나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파닥파닥, 끼약끼약 난리였다. 먹이에 미친 그 지옥의 새들은 내가 살아 숨쉬는 먹이통이겠거니 하고 콕콕 곡물을 떼어먹었다.‘죽은 고기를 뜯어 먹거나 물고기의 눈알을 빼먹으려고...’팔파새 부리의 기원이 머리를 스쳐지나갔다.“꺄아아아아악!”진심어린 비명이 나왔다. 나는 재빨리 눈을 가렸다. 빼먹힐까봐.나는 패닉을 오는 것을 느끼며 비틀 비틀 일어서려고 눈을 가린 채 다리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내 위의 올라탄 팔파새들이 너무 많을 뿐더러, 눈 뜨고도 잘 못 일어나는데 일어날 수 있을리 만무했다. 일어서려다 푸닥하고 넘어지고, 나는 혹시 내 엉덩이에 팔파새가 깔려 죽진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을 했다. 눈을 꼭 감은채로 한손을 빼서 엉덩이 밑을 확인했지만 다행이 그런 일은 안일어난것 같다. 이제는 팔파새가 깔려 죽을까봐 일어날 시도도 못하겠다. 귓가에는 쉴새없이 날개짓 소리와 팔파새 울음이 소란스러웠다.그 꼴을 보며 윌로우는 폭소를 터트렸다.“라디!! 눈을 가려야지!!! 빼먹힌다고!!” 윌로우가 멀찌감치에서 외치는 것이 들렸다.정상적인 사고라면 분명히 조롱하는 것임을 알았을 텐데.“으아아아악!”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나는 다시 두눈을 가렸다. 머리위와 등 위에선 아직도 퍼덕거리는 팔파새가 가득했다. 팔이라도 자유로웠으면 휘저어서 내쫒았을텐데... 두눈을 보호하느라 그럴 여력이 없었다.“끄하하하하!” 윌로우가 이제는 거의 숨넘어갈듯이 웃는 것은 귓를찢는 듯한 팔파새 울음소리와 여기저기 따끔대며 쪼아대는 (사실 내 옷에 붙은 먹이를 먹는 것 이였겠지만) 팔파새의 부리를 경계하느라 잘 들리지 않았다.순식간에 일어난 통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엄습해온 그 공포는 아까도 펑펑 흘렸던 눈물을 끄집어냈다. 내가 공포의 질려 울락 말락할 때가 되서야 근위병과 헬리오 오빠가 다급히 도착했다. 심지어 어떻게 알았는지 메디엘 왕자까지 어슬렁 걸어왔다.그들은 나를 바로 꺼내주지 않았고 내가 팔파새에 침몰하는 배처럼 있는 꼴을 잠시 말없이 보고 있었다.“흑.”결국 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내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들은 정신을 차렸는지 입을 떼었다.“으악. 라디올러스!” 헬리오가 외쳤다. 그는 머리를 싸맸다.왕자는 신속하게 근위병은 그냥 돌려보냈고 척척 걸어와서는 내 위로 수북한 팔파새를 손으로 휘휘 내쳤다. 그리고는 내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번쩍 들었다. 무슨 아빠가 아기랑 놀아줄 때처럼. 그가 나를 위아래로 살짝 흔들자 남아있던 곡물이 우수수 떨어졌다. 내 발밑으로 또 팔파새가 우르르 몰려들었다. 히익! 엉망이 된 나는 기겁해 다리를 움츠렸다. 나의 새 공포증이 탄생한 날이다.“음... 재밌어 보여서 보고 있긴 했는데 울기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울지마십시오, 영애.”그는 약간 난감하듯이 느릿느릿 말했다...너도같이 보고있었어?!!?!!!!!!“너무하시네요 다들!!”내가 소리쳤다. 나는 나름대로 생사의 기로에 서있었는데.. 윌로우도 그렇고 메디엘도 그렇고 모두 악질이다.나는 메디엘 왕자에게 대롱대롱 매달린 한심한 꼴이지만 그를 노려보았다.“어디서부터 봤어요?”“라디양 머리위로 모이가 쏟아질 때 부터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처음부터 보셨네요!”내가 발끈해서 발을 휘두르자 또 치맛자락에서 우수수 곡물이 떨어졌다.“...”우리는 둘다 잠시 말이 없었다.나는 이 상황을 잠시 차분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다.내가 윌로우랑 봉지다툼을 했다. 봉지가 찢어져 모이가 내게 쏟아졌다. 윌로우도 의도한 것은 아닐거다.팔파새가 내 눈을 파먹으려 하지 않고 얌전히 내 옷가지와 머리에 걸린 곡물을 먹었다.왕자가 지나가려다 그 광경을 보았고, 도와주었다.“생각해 보니까 별로 잘못하신건 없으시네요.” 내가 얌전히 말했다. 메디엘 왕자는 무표정하게 나를 보았다. 그는 아직도 나를 애처럼 들고 있다.“...인사가 늦었어요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뭘요 덕분에 웃었으니까 됐습니다.” 그가 비웃었다. 아까 미안한 듯한 표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다. 인사 좀 하고 가도 되는데 말이지.“아무튼 팔 빠질 것 같으니까 내려 놓아 주면 참 고맙겠어요.” 겨드랑이에 체중이 몰려서 아파 죽겠다.“음... 목발 있는데로 데려다 드리죠.” 그가 나를 품에 안으려하다 멈칫 했다.업신여기는 투로 이어서 그가 말했다.“아...지저분해서 안 되겠어요.” 그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나는 깃털과 모래 범벅이라고 해도 좋았다. 하지만 누가 안아달랬나!!!!!!“내려 놓아주시던가 안아주시던가 빨리 골라 주셨으면해요.” 내 겨드랑이는 한계를 맞이했다.“안아주셨으면 하십니까?” 그가 즐거운 듯이 눈을 얇게 하며 웃었다.“아뇨 내려주셨으면 하는데요.”“아...이대로 내려놓으면 영애는 잘 서계시지 못할텐데... ” 그가 과장되게 연기하는 투로 말했다.‘어서 안아달라고 말해! 네 겨드랑이가 찢어지기 전에!’ 그가 눈빛으로 위협했다. 이젠 하다하다 별 짓을 다하신다. 참 재밌는 왕자님이라니깐.내가 하는 수 없이 장단을 맞춰주려고 입을 열었을 때, 헬리오가 윌로우를 혼내는 것을 끝내고 다가왔다.“앗 왕자님께 인사가 늦었습니다. 프랑디아 헬리오입니다.” 헬리오는 다급하게 한 후에 왕자님을 향해 손을 벌렸다. 헬리오가 여동생은 자신이 맡겠다고 모션을 취한것이다.“...”왕자는 잠시 헬리오를 무표정하게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사람 좋게 씨익 웃으면서 말했다.“아닙니다. 부디 제게 라디올러스양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그런 다음 나를 품안에 꼭 안아버렸다. 작게 혀를 차는 것은 나에게만 들렸겠지.나는 겨드랑이의 얼얼한 아픔을 완화시키기 위해 팔짱을 꼈다. 이 사람은 항상 결국 베풀 친절을 왜 이렇게 밉살맞게 베푸는 것일까.헬리오는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에 윌로우에게 나에게 사과하도록 시켰다. 윌로우 매우 마뜩찮게 미안. 이라고 짧게 말했을 뿐이었다. 미운 열 살 윌로우. 그치만 나는 어른이므로 “괜찮아 다음에 또 이런 짓을 하면 그땐 꼭 오빠한테도 모이통을 뒤집어 씌울꺼니까.” 라고만 말해두었다.오빠들은 떠나고 메디엘은 결국 내 목발을 찾은 후에도 날 내려놓지 않고 방까지 데려다 주었다.“...내려놓는 것 보다 왕자님이 안아주시는 것이 더 좋아요.”잠시 말이 끊겼을 때 내가 말했다. 왕자가 ‘갑자기 뭐야?’라는 눈빛을 거만하게 보냈다.“아까 말 못 했잖아요. 결국.”“하.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군요.” 그가 웃었다.“꼭 듣고 싶으신 것 같길래요.” 내가 빈정댔다.“...아까 팔파새 밑에서 웅크리고 울고 있는게 더 귀엽군요.” 그가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다.“어머나, 제가 귀엽긴 한 건군요.”“...빨리 들어가서 잠이나 주무세요 라디양.”그가 심드렁하게 나를 방문앞에 내려다 주었다.“빨리 주무셔야 빨리 크죠.” 키가 큰 그가 자그마한 나를 내려다보며 업신여겼다.“하하 제 나이대 아이들은 빨리 자란답니다.”“...그래야 할 텐데요.”그가 나를 주의깊게 살피는 것 같았다.“?” 뭐지? 또 나의 어디를 비꼴 생각인 것일까. 나는 방어준비를 했다.“솔직히 저는 요즘 열 살짜리 당신을 상대할 때면 제가 이상한 놈이 된 것 같거든요.”그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했다. 내 정신연령은 왕자님보다 훨씬 높건만!“저는 열 살치고 제가 꽤 성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유치했던 모양이죠?” 내가 불만인 말투로 말했다.“평소에는 그다지 못느끼지만, 저의 언사의 깊은 뜻을 캐치하지 못하는 지금 같은 때가 참 아쉽네요.”??깊은 뜻? 내가 그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한다니 자존심이 상한다. 무슨 뜻이지...그는 골똘히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더니 머리를 조금 쓰다듬으며 말했다.“열다섯과 스물 둘 정도만 돼도 참 좋겠네요.”“...음? 또 그 왕비 이야기입니까?” 나는 비로소 왕자가 말하려는 바를 눈치 챘다.“왕비까지 가지 않더라도요.”“결혼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지,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내가 나무라듯이 말했다. 이 끈질기고 칭찬에 목마른 남자 같으니. 하긴 열일곱이면 아직 한창 미성숙 할 때이다.“그러니까 내가 맘껏 좋아하려면 라디양. 당신이 열다섯은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잖아. 이 바보 같은 분홍머리 꼬마야.” 그가 정말 아둔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게다가 묘하게 반말... 나는 얻어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헉, 이 왕자님이 지금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 나는 허둥지둥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그러니까 메디엘 왕자는 열다섯살 이하인 사람을 이성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열 살이다. 그러므로 메디엘 왕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좋아 여기까지는 정리했다. 음,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여기서 부터가 문제이다.‘ 메디엘 왕자는 열다섯살 이하를 이성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를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싶어졌다. 그럼으로 그는 내가 어서 열다섯이 되길 원한다.’ 이건가!!!! 이거냐고!!진심인가. 나는 내 논리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검토를 다시 하려 했다.“그게 맞아요.” 그가 지겹다는 듯이 말했다.내가 깜짝 놀랬다. 이건 무슨 독심술?“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라고요.”“하지만...음? 어째서요? 저 지금 겨우 열 살인데요?” 나는 당황했다.“지금의 너에게 진심으로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 아닙니다.”그가 코웃음 치며 웃었다. 무례한데다가 조금 상스럽고 원래보다 무시하는 투다.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데 천부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니.“아하...” 내가 조금 뺨을 붉혔다. 지금 내 방문 앞에서 이게 무슨 대화지?“지금의 당신에게도 분명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그가 내가 왜 이렇게 까지 설명해야하는거지? 하는 표정을 하며 설명했다. 그러게요 왕자님. 지금 이 얘기 왜하시는 건가요. 아 내가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다고 했지.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어린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은 정신적 교감뿐입니다.”“플라토닉이군요.”내가 눈에 띄게 안심하는 행동을 취하자 그가 매우 불쾌해 했다. ‘나를 뭘로 보는 것이냐.’ 라는 눈빛이다.“다만 당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내가 당신에게 이성적으로도 호감을 느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가 무덤덤하게 말했다.“그 때는 성적으로도요?” 내가 앞의 내용을 이해하며 무심코 물었다.그가 눈을 크게 떴다. 그답지 않게 꽤나 얼빠진 표정이였다. 나는 내가 한 질문이 뭐였는지 그제서야 이해하고 자신의 입을 막았다. 무턱대고 농담을 날리는 성희롱 아저씨가 된것 같다.그가 뒤돌아 서서 걸음을 떼었다. 내가 아 다행이다 도망친다. 생각하고 있으려니까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단언하건대.”...그 말이 끝이었다.왕자가 나를 차기 이상형 감으로 선언한 후 며칠이 지났다. 나는 별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공작가의 사용인들이 올 때와 마찬가지로 분주히 짐을 쌌다. 나는 방해 하지 않기 위해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왕가에는 한참 전에 떠나겠다고 연락을 넣어 놓았다. 결국 임금님은 얼굴 볼 새가 없었다. 이웃나라인 포제타 왕국과 우리나라는 전쟁과 휴전을 반복하는 시기였으므로 많이 바쁜 것 같았다. 그리고 떠나는 당일인 오늘까지 메디엘 왕자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저번에 나에게 이것저것 털어놓았기 때문에 얼굴 보기가 껄끄러운가?’왕자가 저번에 한 말을 요약해 보자면 이것이다. ‘내가 나이를 먹으면 분명 자신이 반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면 정말이지 어이없다. 이런 문제에서까지 자신만만한게 참 신기하다. 나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자 또 얼굴이 후끈해졌다. 그 사람이 나한테 대놓고 사랑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지금 사랑한다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는 자신이 이상하다.‘그냥 내가 크면 자기취향일 것 같다고 말하는 것 뿐인데...’그는 분명 그냥 한번 말해본 소리일 것이다. 평소와 같이 마이페이스로. 열일곱살 어린 왕자님은 성숙해짐에 따라 그 날 나에게 뱉은 달짝지근함을 후회할 날이 오겠지. 지금도 다 이해하고는 있지만, 정말 왕자가 웃으면서 ‘아~ 그때는 왜 그랬나 몰라.’ 하는 날이 오면 조금은 가슴이 아플 것 같다. 나는 지금 확연한 열 살, 잊으면 안된다.뒤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다.“집에 돌아가시려고요?” 왕자가 또 삐딱하게 서서 말을 걸었다.“네에 분명히 며칠전에 연락을 넣었을 텐데요.” 내가 그를 돌아보았다. 오늘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와주지 않았다니, 조금 서운하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작별인사를 하고 갈 수있어서 다행이야. 정말로 안심이다.“그래도 오늘은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얼굴도 못보고 가면 이 어린 저는 서운해서 마차 안에서 울 뻔했답니다.” 내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다시 못보는 것도 아닌데 오버가 심하시네요.” 무뚝뚝하게도 말한다.“그래도 아쉽잖아요.” 내가 뾰롱퉁 해서 말했다.“... 제가 전에 말했던 것은 잘 생각해 보셨나요.”화제전환이 난폭하기도 하지.그런데 그건 생각이고 자시고 그냥 메디엘 입장에서의 ‘통보’ 아니였나?“음 일단 제일 크게 드는 생각은요.” 내가 숨을 크게 내쉬며 웃었다. 그는 무관심하다는 눈빛으로 빤히 날 보기만 했다. 나는 그 예쁜 눈을 보며 계속 말했다.“지금 저를 마음에 들어해 주셔서 감사해요.”그는 내 다음말을 기다리는 듯 했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저게 다였다.그가 크게 불쾌하다는 듯이 찡그렸다.“그게 다 입니까?”“그렇습니다만. 왕자님이 원하는 대답은 뭔데요?”“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랑 나와 함께하는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듣고싶군요.”구체적인 질문이 술술 나왔다. 면접관인가? 저 사람. 처음부터 저렇게 물어보았으면 좋았을 것을.그의 눈빛이 나의 대답을 재촉했다.“왕자님은 매우 좋아요. 그치만 아마 왕자님이 지금의 저를 생각하는 그 플라토닉한 관계정도일 거예요.” 나는 조금 쑥스러워졌다.그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다음 대답을 재촉했다. 내가 좋아한다는 데 반응 좀 보여줬으면.“그치만 왕자님과의 미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래요.”그의 눈빛이 변했다. 짜증이 난게 아니라 정말 화가난 것이다.“왜요? 말해도 좋아요.”말투는 여전히 공손하지만...아니, 내가 말 안하겠다는 데 무슨 ‘말해도 좋아요야’ 용서해주는 것처럼..“지금 여기서 왕자님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굳이 여기서 왜 말을 해야하죠?”그는 여전히 험악하게 쳐다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는 그의 화를 산 것이 조금 무서워졌다. 하지만 왕자의 어린 소리만 듣고 여기서 허튼 소리를 해서 후에 그도, 나도 괜한 상처를 입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다.“왕자님이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를 한 것인지는 알아요?” 내가 지친듯이 말했다.“...지금 내 고백을 어이없다고 한 것입니까? 라디올러스 영애.”그가 조용히 낮게 말했다. 나는 그의 상태가 분노를 거쳐 격노로 넘어감을 느꼈다.고백?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그것? 무슨 소리인지...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의 제멋대로인 페이스에 그만큼이나 나도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가 아직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걸 이해하자고 항상 생각하지만 나도 미성숙하긴 마찬가지이다.“이봐요 왕자님! 무턱대고 화만 내지 마세요. 저번의 그 대화가 어딜 봐서 고백이었죠? 당신도 열 살짜리 유치한 나한테 반한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잖아요!”“미래의 너에게 고백한 거잖아요. 그게 왜 고백이 아니란 거죠?” 그가 으르렁대면서 말했다.무슨 논리인가 이것이...! 나는 그와는 말이 안통함을 느꼈다.“그런...! 당신이 그런 먼 미래를...!” 나는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부터 반박해야 할지 막막했다. 침착해라 박진아 그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딩이나 다름없어. 너는 고딩때 뭐했니? 기껏해야 야자 밖에 더 했니? 나는 어른의 자신감을 되찾았다.“왕자님은 그런 먼 미래를 기약할 자신이 있나요? 아니, 5년 정도가 아니라 내년의 자신이라도 확신할 수 있어요?” 그가 혹시 다른 할 말이 있을까 하여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말을 하지 않길래, 나는 계속해서 이어갔다.“왕자님 뿐만 아니라 저만해도 자신 없어요. 저는 제 마음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메디엘 왕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고작 열 살인걸요.” 나는 내 작은 발을 잠시 내려다 보았다. 아.. 이번말은 잘난듯 내뱉긴 했지만 나도 조금 상처받았다.“왕자님이 제가 분명 반할 만한 여자가 된다고 해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정말로요! 그런말은 처음으로 들어요. 분명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신 거겠죠.”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도 분을 삭히지 못하는 눈치이다.“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당신도, 이제 겨우 17세...”“그만둬!” 그가 사납게 외쳤다. 진절머리 나는 듯이 한 쪽 손으로는 이마를 짚었다.“주제넘게 어른인 척 하긴. 혼자선 걷지도 못하는 꼬마주제에.” 그가 거침없이 말했다. 나는 그가 어린 치기에, 화를 이기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조금 가슴이 아팠다.“그렇게 말하는 너는 도대체 뭔데 그렇게 속속들이 나를 다 아는 듯이 말하지?”그가 외쳤다. 평소의 여유있는 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저 나에 대한 미움만이 절절히 넘쳤다. 이쯤되니 나는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이유도 잘 생각나지 않았다. 그저 그랑은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온 것 같다.“건방지게 네까짓게 뭔데 내 마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나는 거칠게 위협하는 그 재규어 앞에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끝끝내 참아냈다. 생각보다 그는 내 말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틀린 게 아니다.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았어. 그가 너무 어린 것 뿐이야.평소에는 곧잘 웃고 곧잘 그의 화를 풀어주려고 하는 내가 무덤덤하게 그가 날뛰는 것을 보고 있자 그가 찡그린 표정을 풀고 조금 진정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나를 조금 슬픈듯이 바라보았다. 너무 흥분해서 조금 숨이 찼던지 조용히 숨을 다스렸다. 그의 표정은 내가 무엇이가를 말하기를 바라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침묵했다. 그저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게 됐더라?를 멍하니 생각했다. 나는 역시 이런 복잡한 감정에는 약하다. 그도 나를 마음에 들어하고 나도 좋아하는데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표정을 관찰하던 그는 끝내 그는 고개를 땅으로 돌렸다. 그리고는 단념한듯 말했다.“...잘가시오 영애. 확실히 내가 틀렸는지도 모르지. 화를 내서 죄송했습니다.”그가 정원을 빠져나갔다. 한번도 뒤돌아 보지 않았다. “그냥 사과하지 그러세요.”베라가 내 옷을 잠옷으로 갈아입히며 말했다.“아 글쎄, 내가 잘못한 거 없대도.” 내가 힘없이 말했다.“그치만 왕자님이랑 화해하고 싶은 거잖아요.”“아냐... 이제 별로 그러고 싶은 맘도 없어.”“...거짓말쟁이.” 베라가 톡 쏘듯이 말했다.내가 그녀의 눈을 회피했다.“그럼 왜 매일같이 편지가 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윽.”메디엘 왕자랑 싸운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나는 헤어지고 나서 삼십일을 거의 빼놓지 않고 그에게 일기 쓰듯이 근황을 써 보냈다. 그러나 답장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제는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맞는 새해였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새해 잘보내라는 편지를 썼다. 그러나 그것조차 답신을 받지 못했다. 나는 마침내 편지 쓰는 것을 포기했다.“...그래서 이제 편지 안쓰려고.” 내가 투덜대며 말했다. 베라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영영 화해 안하시게요?”“...그쪽에서 먼저 사과하면.”‘나는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잠옷자락을 움켜주었다.베라는 한숨을 쉬었다.“하아...그냥 대충 사과하면 될 것을 왜이렇게 둘다 고집불통이람.”“그치만 들어봐 베라! 너도 왕자님이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하게 될껄?”“어머나, 드디어 싸움의 진상을 듣게 되는 군요.”베라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싸움 내용이 남에게 말하기엔 워낙 남세스러운지라 나는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다.“자, 자세한 말은 왕자님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말하지 않겠지만...왕자님이 엄청 어이없는 말을 진지하게 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생각 하냐고 묻는 거야...”베라가 말없이 듣고 있다는 의미로 끄덕거렸다.“그래서 내가 그 말은 어이가 없으니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했다?”베라가 이번에는 끄덕거리지 않았다.“왕자님이 그래서 화를 나한테 벌컥냈어. 그게 왜 어이없냐고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나는 왕자님한테 그게 왜 어이없는 말인지를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했어.”“그랬더니...가버렸어.”베라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베라에게 다시한번 물었다.“베라. 내가 잘못했어?”“아가씨. 왕자님의 말이 정말 확실하게 대답할 가치도 없는 말이었나요?”“대답할 가치...까지는 모르겠지만 100% 황당한 말이었단 말이야.”나는 베라의 박력에 조금 기가 죽었다.“황당한 말이긴 해도 대답은 해줘야 했을지도 몰라요.”“대답하면 나중에 우리 둘 다 상처받을지도 모르는데도?”“...글쎄요... 왕자님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니까 확답은 못하겠지만요.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을 지도 모르죠.”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 나는 벌써 삼십일이나 자존심을 꾹 접고 먼저 편지를 보냈어...그정도면 자기가 사과할 법도 하지 않아? 사과는 아니더라도 답신이라도...나는 한없이 밟힌 내 자존심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둘 다 잘 못한 것이 아니라면, 메디엘 왕자님이 먼저 사과하고 끝내면 좋잖아.”“고집불통이네요. 자기도 화해하고 싶으면서.” 베라가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이럴때 보면 영락없이 열 살인데...”‘베라! 실제로는 너보다 나이가 많을껄?!’ 이제는 창피해서라도 내 실제 나이는 못 밝히겠다.집에 들어오고 나서 한달 남짓. 그동안 마음고생한 건 사실이지만 얻은 것도 많았다. 둘째오빠인 제르다민과의 발전은 전혀! 네버! 없었지만...그 외의 가족들과는 정말로 많이 친해진 것 같다. 나는 그것으로 위안을 삼기로 했다.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으므로 이제는 그 왕자님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노력하는 것은 모두 포기하려고 한다.‘어차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걸!’나는 주문처럼 그 말을 외웠다.‘나는 잘못없어! 나는 화해하려고 무진 애를 썼어! 나쁜것도! 억지를 쓰는 것도 모두 왕자 였잖아!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워 해야하는 거지? 잊어먹어야겠어. 신경쓰지 않는 거야. 아예없었던 일로 치부하면 되는거야.’억지로라도 잊어먹으려 하면 나는 시간이 지나면 꽤 괜찮아진다는 것을 알고있다. 이 헤어짐도 지금은 조금 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덤덤해 질 것이다. 안그러면 곤란하다. 나는 떳떳해. 하지만 그를 떠올리면 한 달이 지난 아직도 속이 메스꺼워 질 정도의 극도의 긴장감이 느껴진다.‘거봐... 뭐가 먼 미래의 너에게 고백이라는 거야. 다음달 바로 싸워서 마음이 변해 놓곤! 바보 같은!’베라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내“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말하고 불을 끄고 나갔다.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잠을 자보려고 눈을 계속 감고있었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심란하고 의미없는고민들만 머리속에 가득이였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갑갑하다.’나는 가슴이 꽉 막히 듯하고 숨이 잘 안쉬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이 느낌에 조금 익숙해 질 정도로 이 세계에 와선 자주자주 경험하고있는 불쾌감이다.질식의 공포를 느꼈던 사람이 폐소공포증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난 그정도까진 아니고...그냥 좀 많이 좁거나 너무 컴컴한게 싫은 정도일까?'절대, 절대 공포증 정도는 아니고...그러니까...이건 조금 답답한 정도? 오늘은 특히나 정신이 사나워서 말이지...그러니까 이건...‘...자신에게 변명을 더 하려다 그만 두었다. 스스로도 자신이 미약한 폐소공포증을 갖고있다는 것 정도는 깨닫고 있다. 아...나는 어찌나 한심해 졌는지...나는 이런 내 자신이 우스웠지만 이 갑갑함을 견딜 수 없었다. 결국 침대 맡의 목발을 하나 짚고서는 창문을 열러 어둠속을 더듬었다.‘이쯤에 창문이 있었을텐데...’나는 너무 넓은 방의 벽을 한손으로 의지해 가며 걸음을 옮겼다. 벽에 기대서 가다보니, 목발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서 한쪽에 던져놓고 온몸을 벽에 콩 하고 기대었을 때였다. 폭신한 감각에 ‘음 맞아 이건 내가 꽤 좋아하는 태피스트리가 있던 자리...’하는 순간, 나는 벽 쪽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벽이 휙 하고 회전했던 것이다.‘으아...설마 말로만 듣던 비밀 통로? 방의 주인한테까지 말 안해주면 어떡해!’어이가 없었다. 그게 아니면... 설마 아무도 몰랐던 걸까.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이곳은 엄청나게 좁은 통로였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곳이기도 했다. 즉, 나에겐 최악의 장소였다. 식은땀이 흘렀다. 평소에는 대게 이렇게 좁고 어두운 곳에 들어올 기회가 없어서 몰랐는데, 겪고 보니 꽤나 심장이 뛰었다. 오, 세상에 하나님, 지금이라도 제 폐소공포증을 인정하겠습니다.나는 내가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쪽을 있는 힘껏 밀어보았다.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한쪽 방향에서만 열리는 거냐?? 그런거냐고!’ 나는 의미없는 성질을 부렸다. 혹시 내 소리를 듣고 누군가 찾아올까 해서 소리를 질러 보았지만 내 목소리는 이 어두운 통로를 울릴 뿐이였다. 전혀 들리지 않나보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 어둠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전진하는 수 밖에는 없었다. 이 통로가 언제 끝날지, 어디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치 않은 몸으로 그 밑으로 향하는 통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내 정신에 큰 데미지로 다가왔다. 어둠속에서 아직도 누군가가 내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었다.나는 그 계단을 손으로 더듬어 가며 거의 기어가고 있었다. 돌계단이였으므로 너무 차갑고 손이나 무릎이 다치기 일쑤였지만, 남은 선택지가 없었기에 얼굴에 흐르는 것이 땀인지 눈물인지 분간 못하며 계속 전진했다. 끝내 손에 통로를 가로막는 문으로 여겨지는 물체가 느껴졌다. 어느 방향으로 내가 이동한 것인지, 얼마나 기어갔는지 나는 예측할 수 없었기에 이 문 넘어에 어떤 장소가 있을지 몰라 잠시 주춤했다. 헉헉. 하고 그 습하고 어두운 통로에는 내 신음소리만 가득 찼다. 이 바깥이 어디라도 이 통로보다는 나았다. 나는 살짝 문을 밀어보았다.‘오, 안돼.’문이 열리지 않았다. 나는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다.내가 온 길이 외길이 아니였던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잘못 온건가? 아니면 이 통로는 폐쇄된지 오래였던건가? 나는 이곳에 갇힌건가? 내가 이곳에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차려 줄까? 여기서 나갈 수 없는 건가? 이 어둠속에서 내가 얼마나 버텨야 하는 걸까?나는 끊이지 않는 절망적 질문들을 계속 생각해 내다가 오싹하는 기분으로 내가 지나왔다고 추정되는 어둠을 살짝 곁눈질 하였다. 온통 새까만 곳에 나혼자. 아니야...혼자가 아닐 수도 있을까? 이전에 보았던 괴기스런 귀신 영상과 괴담 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생각났다.‘안돼, 안돼!’솟구치는 울음과 공포를 느끼며 어깨로 아까 그 막혔던 문에 돌진했다.파악! 하고 그 문은 아까 안 열렸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활짝 열렸고, 나는 내가 돌진한 기세를 못 멈추고 데굴 데굴 앞구르기 했다.그곳에는 희미한 횃불이 켜져있었다. 나는 안도의 울음을 터트렸다. 그 울음은 나도 모르게 삐질 삐질 나오는 것이라 금방 멈출 수 있었다.그게 멈추고 나서 이제는 안심이 되니까 헛웃음이 나왔다. 이 상황이 정말이지 기가 막혔다.“아, 진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허무하게 말했다.“무슨 죄를 지었는데?”나는 갑자기 들려오는 말소리에 몸을 크게 튀겼다. 그리곤 얼른 그 목소리의 주인을 쳐다보았다.그는 소년이였다. 꽤 지저분하고 깡마른. 그리고 쇠창살 뒤에 있었다.그때서야 깨달았다. 여기는 성내 감옥이었던 것이다.“너같이 어린 애가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거야?” 그렇게 묻는 그 아이도 그다지 나이가 많아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무표정하게 물었다. 그는 붉은 갈색 머리를 가진 듯했는데 횃불이 워낙 은은한데다가 노르스름한 빛을 만들어 주고 있어서 잘 가늠이 안되었다. 오랫동안 해를 못 보았는지 눈밑은 쾡하고 바싹 말라 힘이 하나도 없어보였다. 그러나 그의 조금 연한 하늘 색 눈은 꽤 예사롭지 않게 빛났다. ‘메디엘 왕자의 눈이 바다색이라면, 이 아이는 하늘색...’이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왜 왕자 생각을 하고있는지 기분나빠졌다.아무튼 그 아이의 다듬은 지 한참 된 것 같은 긴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뻗쳐 있고, 바닥에 천을 하나 깔고 철퍼덕 앉아 있는 그 아이는 미세하게 움직이는 입술을 보지 않았으면 정말로 시체 같았다.“어떻게 그런 곳에서 나왔지?” 그 애가 내가 돌리고 나온 벽을한번 눈짓한 다음 다시한번 나에게 물었다.“왜 울고 있었어?”“넌 누구야?”그는 나지막히...느릿느릿하게 하지만 쉬지 않고 말했다. 묻고 싶은 게 잔뜩 있지만 정말 궁금한 것 같지는 않은... 이상한 아이였다.그냥 내버려 두면 하루종일 질문이라도 할 태세여서 나는 그의 말을 막고 말했다.“나는 라디올러스야. 그냥 방에 있는 통로를 통과했더니 여기였어. 어두운게 무서워서 울었어 .”내가 줄줄 대답하고 그를 쳐다보았다. 기껏 궁금한걸 풀어주었는데 그는 별 감흥 없는 얼굴이었다. 나도 그에게 질문을 하기로 했다.“여긴 어디야?”“프랑디아 공작가 지배하의 감옥.”헉 하고 숨을 삼켰다. 음...그는 우리 가문의 영토 내에서 잡힌 범죄자란 말이구나.“음...너는 여기 왜 있어?” 물어봐도 될까 살짝 고민했지만 그냥 하기로 했다.“잭 밑에서 일했거든.” 그가 무덤덤하게 말했다.“잭? 그게 뭔데?”무슨 말을 하던 무덤덤하던 그가 눈을 크게 떴다.“잭을 몰라?”“응...” 뭔가 유명한 것인가 보다.“응...하긴 그 후로 오랫동안 잠잠했으니까.” 그가 또 무덤덤해졌다.“잭이 뭔데 그러냐니까?”“아참.. 잭은 엄청 유명한 암살자였어. 그가 대표격으로 있는 길드의 규모도 엄청났지.”헉. 잭은 생각보다 흉흉한 사람이었다.“그럼... 너도 암살자였어?” 이왕 실례되는 질문을 한거, 끝까지 가봤다.“풉! 아니~ 그랬으면 못살아 있었지. 여기 들어왔을 때 나는 겨우 13살이었는걸..” 그가 말도 안된다는 듯이 웃었다.“ 근데 왜 여기에 있어?”“ 그 길드 밑에서 잡일을 했거든...” 그가 아득한 듯이 말했다.“뭐? 겨우 그런 이유로?” 나는 믿기지가 않았다. 그는 게다가 다른 죄수들과는 동떨어진 곳의 독방에 갇혀있었다. 음...아니, 일부러 봐준 거라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건가? 죄질이 약해서? 범죄의 세계는 심오해서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는 다른 죄수들과는 아예 다른 코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굴러떨어진 것은 아직 그밖에 몰랐다.“하하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구나? 그 잭의 길드를 해체할 땐 정말 대단했다고! 연관된 자라면 싹 다 죽었는걸? 너무 제멋대로 몸집을 키우고 너무 까불고 다녔거든... 그 길드.”그가 또 아득한 것을 생각하는 듯한 얼굴을 했다.“그럼 넌 어떻게 살아남은거야?”그가 너만 들으라는 듯 귀를 가까이 대보란 모션을 취했다. 나는 귀를 그가 있는 철창살에 가까이 댔다.“...동료들을 전부 배신했거든.”그가 우리 둘만의 즐거운 비밀을 만든 것처럼 장난스럽게 키득거렸다. 오직 그 순간만 그는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그도 병들어있다.’나는 직감했다. 나도 결핍된 인간인 만큼 잘 알아볼 수 있었다. 그도 병든 사람이다. 그의 장난기 어린 눈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다.“왜?” 그가 어린 아이처럼 웃었다. 그리곤 물었다.“내가 무서워?”“별로.” 내가 무던하게 말했다. 무서울 리가. 나랑 동류인걸. 그가 크게 웃는 소리가 내가 있는 감옥 복도를 울렸다. 다른 죄수들과는 어지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 그 웃음소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잘 들리지 않았다. 만약 들렸다면 분명 시끄럽다고 욕지거리를 했을 것이다.“정말? 전부 팔아넘기고 나만 살아남았는데?” 그가 놀리듯이 물었다.“그 사람들이랑 별로 안 친했나 보지...” 전혀 타인이라면 나라도 살아남기 위해 그들을 팔았을지 모른다. 교류가 잦았던 사람이라면 고민되겠지만...“글쎄...그런가?” 그가 약간 고민하는 기색이였다. 아 이런 암울한 주제에서 벗어나고 싶다.“그런것보다. 네 이름이 뭐야?” 나는 화제를 돌렸다.“그런것 보다라니...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겨우 목숨부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내 이름은 미카엘이야.”“와! 대단한 이름이네?” 나는 대천사의 이름인 미카엘을 듣고 나도 모르게 말해버렸다.“음? 대단해? 뭐가?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가 의아해 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어...그게 사실 여기에서는 잘 안 알려진 종교긴 한데,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미카엘은 대천사의 이름이거든.” 나는 대충 설명했다.“하하하 아이고 미안해라.” 그는 또 박장대소했다. 나는 그의 반응이 무안했다.“왜그래... 기껏 설명했더니...” 나는 좀 시무룩하다.그가 못된 고양이처럼 웃었다.“그 천사님한테 미안하잖아.”그 말은 조금 슬펐다.나는 철장 안에 손을 넣어 그의 이마에 딱밤을 때렸다. 가냘픈 그의 고개가 겨우 그걸 맞고는 뒤로 젖혀졌다. 때리고 나서 엄청 미안했다. 헉. 내가 이 마른가지같은 아이에게 무슨짓을!“왜이래! 아프잖아!” 다행히 그는 내 딱밤에 죽지않고 화를 냈다. 휴 다행다행.“대 천사님은 니가 미카엘이건 캬라멜이건 상관 안하거든?!” 나는 괜히 성질을 냈다.“그게 뭐.” 그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했다.“니가 감히 대천사한테 뭘 미안해 하고 자시고냐 뭐 이런 얘기다 바보야!”그 말은 들은 미카엘은 이마를 조금 비비며 중얼거렸다.“거...말 되게 어렵게 돌려하네.”“근데 미카엘! 너 몇 살이야?” 내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사실 그가 몇 년이나 여기에 있었나 알아보려는 것이였지만.“지금 몇 년인데?” 그가 또 심드렁하게 말했다.“어...얼마전에 새해여서 금성력 115년!”“아 그럼 이제 열 여섯이네.”“뭐?!?!?나이많아!!!”여기서 거의 삼년을 있었던 건가. 저 비쩍 곯은 아이가! 게다가 이 열악한 환경은 그를 전혀 열 여섯처럼 보이지 않게 하고 있었다. 너무 말라 앉아있는 그 몸집이 거의 나만해 보였다.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빠일 줄이야.“여기서 오래 있었구나.” 내가 안타까워 하며 말했다.“그렇지 뭐. 넌 몇 살이라고?”“이제 열한살이야.”“헤에...어리구나.” 그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역시 어찌되던 상관없다는 말투였다. 그런데도 말은 자꾸만 걸었다. 아마 말상대가 나타난 것이 매우 오랜만 이였겠지.“그런데 라디올러스. 여기서 어떻게 다시 성으로 돌아가게?”“어? 어떻게 성에서 온줄 알았어?”그가 잠시 물끄러미 보다가 야유했다.“성이랑 연결된 지하감옥에 비밀통로로 떨어진 잘 빼입은 여자아이가 그럼 마을에서 길잃고 온거겠어?”“어...미안...멍충해서...”열여섯살 소년에게 혼났다...나는 비틀 비틀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창살을 잡고 일어났다. 그리고는 벽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서 내가 열고 나온 벽이라 추정되는 자리를 열어보려 애썼지만 무리였다. 어차피 다시 들어갈 생각도 없었지만. 저걸 열어도 내 방문에서 막혀있을 테니까.“음 역시 이 문도 이쪽에서 안 열리네.” 나는 고민했다. 어떡하지. 여기에 그냥 있어도 미카엘에게 밥을 주러 온 간수를 만날 수 있긴 하겠지만...아...감옥에서 소란을 일으키기 싫은데... 무난하게 넘어갈 수 없나.“있잖아 라디올러스. 너 몸이 불편해?” 그가 또 질문해 왔다.“어. 얼마 전에 사고를 당해서 재활치료중이야.”“그렇구나. 그럼 이 복도를 빠져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길을 틀지 말고 쭉 가. 거기 사물함에서 지팡이같이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그거랑 간수복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다시 아까 갈림길로 나와.”그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표정은 여전히 무관심했지만.“다들 밤이라 자니까 조용히 나갈 수 있을꺼야. 이 죄수방을 통과한 후엔 계단이 나올텐데, 이층 더 올라가서 큰 통로를 지나면 하인들 방이야. 거기서부턴 알아서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발견돼도 그냥 심심해서 와봤다고 하지 뭐.”그가 계속해서 말했다.“아참. 거기까지 가는데 어두운 길은 거의 없어.”내가 아까 어두워서 울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다. 친절하기도 하지.“우와 정말 고마워 미카엘.” 나는 조금 감동해서 말했다.그는 어리둥절해서 말했다.“응? 내 감방 앞에서 발견되면 괜히 시끄러우니까 쫒아내는 건데?”“아...그래? 아무튼.”그는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귀찮아서 나를 내쫒는 듯 했다. 서럽다 서러워.나는 조용히 그의 독방을 등 뒤로 했다. 그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아! 인사를 안했구나.“어, 그냥 갈 뻔했다. 또 만나자! 미카엘.”나는 코너를 휙 돌았다. 그래서 그가 ‘뭐가 ’또 보자‘야 참내.’ 라면서 코웃음 치는 것은 듣지 못했다.나는 다행이 방으로 가는 먼 여정에서 큰 트러블이 없었다. 다만 내가 살고 있는 성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해야 했다. 미카엘이 말한... 예를 들면 ‘갈림길에서 길을 틀지 말고 쭉 가.’에서 '쭉 가'는 죄수 방 스무 개를 거쳐 가는 거리였다. 힘들어서 방까지 못갈 뻔 했다.방에 몰래 들어가서 눕자마자 베라가 날 깨우러 왔다. 내가 잠을 못자고 피곤한 상태라서“자게 해줘!” 라고 외치자“어제 늦잠자서 오늘은 제시간에 맞춰 일어나기로 했잖아요! 오늘 바쁘단 거 아시잖아요!” 라고 앙칼지게 베라는 날 깨웠다. 으이구 베라는 내가 밤새 울면서 바닥 기어다닌 것도 모르면서...밤을 샌 상태였지만 오늘은 꼭 만나야 하는 손님이 있기에 꽃단장을 해야했다. 알고보니 나는 천재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마법사였던 것이다. 하지만 기억을 잃어서 다음학기에 아카데미 마법사 반을 계속 같은 클래스로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마법사 가정교사를 붙여보기로 부모님들은 결정했다. 그리고 오늘 나를 가르쳐줄 마법사를 만나기로 했다.‘마법이라고? 마법이라니! 마법일수가?’ 나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으아 으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모두 실망시키면 어떡해...처음 마법사가 도착하자 엄마가 그를 맞았다. 엄마는 우아하게 그에게 나를 부탁했다.“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프랑디아 빅토르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허허 당연히 알고 말고요! 그분의 딸의 맡게 되어 참 영광입니다 허허.” 그는 맘씨좋은 할아버지처럼 웃으며 말했다. 내 친아빠는 저런 할아버지께 존칭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가 보다.“네,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아이도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황실 아카데미에서 천재소리도 들었었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한손을 가슴에 얹고 살짝 목례했다.“지도를 부탁드립니다.”그는 어이쿠 모두 다 잊어먹다니 속상하겠구나~ 이렇게 귀여운 아가씨가 말이야~ 라면서 친절하게 다가왔다.나를 지도할 마법사는 마법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대로의 흰수염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나를 귀여워하시는 눈치였다. 내가 그 분의 수염을 불사르기 전까지...나는 정말이지 내 넘치는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다행히도 할아버지가 요령을 가르쳐 주자 몸에 익혀있었는지 그럭저럭 따라할 수는 있었지만 내가 구사하는 마법은... 말하자면 멧돼지 같았다. 정신나간.무척 기초적이고 미약한 마법을 테스트했던지라 긴장을 풀고 있었던 마법사 할아버지는 이런 사단이 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요리로 예를 들면, ‘하하 요 귀여운 녀석 그래 그래 할아버지랑 요리연습 할까용?’ 하면서 어린이용 식칼을 주고 당근을 자르라고 했더니 나는 도마까지 썰은거다. ...그리고 빠각 하고 날아간 도만의 잔해는 할아버지의 머리를 강타했다고 할 수 있을까....나는 아비규환인 내 수련장을 보며, 이론부터 익히자고 굳게 마음먹었다. 다시 마법을 써 볼 마음이 들 때 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았다. 나는 휘황찬란한 저녁을 먹었다. 우리 가족은 아무도 내가 수련장을 죽인 것에 대해 화를 내지 않았다. 엄마와 아빠는 모두 저렇게 강력하다니 역시 천재라며 나를 위로하려고만 했다. 윤기가 도는 스테이크를 작게 잘라 입에 넣으며 이런 행복을 느끼는 것에 대해 왠지 죄책감이 들었다. 볼품없게 마르고 그 외로운 곳에 가둬진 미카엘이 생각났기 때문이다.나는 입을 닦는 척 하며 냅킨을 펴서 입가에 대었다가 허벅지에 널어놓았다. 그리고는 스테이크를 썰어서 아무도 안 볼 때에 하나씩 냅킨 위로 떨어트렸다. 오늘 스테이크를 평소보다 더 익혀달라고 하길 잘했다. 평소였으면 피가 많이 스며 나왔을 것이다. 냅킨을 돌돌 싸서 주머니에 깊이 쑤셔넣었다. 사랑스럽게 부풀린 드레스였으므로 별로 티나지 않을 것이다. 냄새가 베이기 전에 빨리 꺼내 놔야 겠다. 다음번엔 주머니라도 가져 와야지 이거 냅킨이 너무 부피가 커서 거슬린다.만찬이 끝나자, 서둘러 방에 돌아왔다. 그리고는 생각났다는 듯이 따라들어온 베라에게 떼를 썼다.“아! 베라! 나 아까 디저트 케이크 꼭 먹으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그거 하나만 갖다 주면 안돼?”“오늘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스테이크도 안남기셨던데.”상냥한 베라는 그런 것도 주의 깊게 보나봐. 알러뷰 베라.“음... 그래도...” 내가 어물쩍 댔다.“흠 알겠습니다. 한번도 이런 적 없으셨는데 굉장히 드시고 싶으셨나 보네요. 초콜릿 케이크면 됐습니까?” 베라가 나에게 져주었다. 알러뷰 베라.베라가 가지러 나간 사이에 냉큼 냅킨에 싸인 고기를 딴 곳에다 숨겨 놓았다. 잠시후 베라는 케잌 한 조각을 가지고 왔다. 책을 읽으며 먹는다고 베라를 내보낸 다음 그것도 잘 챙겨 놓았다. 휴 이제 기다렸다가 베라가 내 잠자리 준비를 해 주면 자는 척 하다가 빠져나가면 된다. 물론 양초도 잘 준비해 두었다. 미카엘로써는 굉장히 오랜만에 먹는 케이크와 고기일 것이다. 나는 그가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며 흐뭇해 졌다.이윽고 베라가 날 침대에 잘 뉘여 준 뒤에 잘자라며 나갔다. 나는 무서우니 양초하나는 끄지 말고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베라는 오늘따라 응석이 심하네요 왜이러실까 라고 중얼거리며 나갔다.나는 그에게 줄 음식보따리를 챙긴 후 침을 삼켰다. 아. 배고파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공포의 통로를 지나갈 생각을 하니 좀 후들 거리는 것이다. 물론 이번에는 양초가 있지만 그래도 좁은 것은 싫다. 방안에 켜진 양초로 불을 붙힌 초를 램프에다 넣었다.다시 먼 길을 돌고 돌아 새벽녘에 돌아 올 생각은 없었으므로 나는 돌벽을 힘껏 민 뒤에 두꺼운 책으로 벽이 완전히 닫히지 않게 끼여 놓았다. 생각대로, 통로 안쪽에서도 다시 열 수 있었다. 어제 공포특집을 혼자 찍었던 그 통로로 발을 내딛었다. 불을 든 채 천천히 벽을 짚으며 내려온 그 길은 어제처럼 하염없이 길지 않았다. 역시 어제는 공포에 미쳐있었나 보다. 감옥으로 통하는 문도 잊지않고 책을 끼워 놓았다. 한손은 벽을 짚어야 했기 때문에 책이며 음식이며 램프며 몽땅 한손에 몰아들어야 해서 정말이지 팔이 빠지는 줄 알았다.예의 그 축축하고 기분나쁜 감옥에 도착했다 조금 힘들어서 숨을 고른 뒤 나를 얼빠진 것처럼 쳐다보는 미카엘에게 인사를 했다.“안녕! 미카엘?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런 멍청한 표정이니.”“응 어제 내쫓은 이상한 여자애가 오늘 또 벽에서 나왔다고 수감자한테 말하면 날 미친놈으로 볼 것 같아서.” 그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이상한 여자애라니! 내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귀찮은 짓을 하고 왔는지도 모르면서.미카엘은 내가 들고 온 보따리를 앙상한 팔로 가리키며 물었다.“그건 뭐야?”“짜잔~ 선물이지롱.” 나는 마른 아이에게 밥 좀 먹이려는 후덕한 아주머니의 마음으로 말했다. 미카엘은 아까 내가 튀어 나왔을 때보다 더 놀라는 표정을 했다.“...선물?”“응! 뭐게?” 나는 신나서 말했다.“글쎄...” 생각 외로 미카엘은 별로 텐션 업 되지 않았다. 내가 오히려 선물을 받은 아이마냥 들떠있는 듯 했다.“놀랄껄? 놀랄 거다~ 짜잔! 고기! 짜잔~ 케이크!”“...오...” 그는 날뛰는 나를 보며 그저 신기하다는 듯이 박수를 두 번 정도 쳤다.나는 그에게 먹이려고 소중히 챙겨온 물건을 신나서 정리했다.그리고 그에게 넘겨주기 위해 먼저 고기를 그가 먹기 편하도록 종이에 옮겨 담아 철창 안으로 손을 넣었다. 그때였다.그가 거칠게 내손을 철장안으로 쑥 잡아 빼었다. 갑자기 일어난 그 일에 나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당연히 끌려들어가 어깨며 이마가 난폭하게 철장에 부딪혔다. 나는 철장 사이에 팔이 낀 모습으로, 그에게 잡히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는 철장을 밀어 그에게서 다시 팔을 잡아 빼려 했지만 무리였다. 그 마른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 지 모르겠다. 어께의 근육이 봉에 부딪혀 상한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나는 신음소리를 내었다. 그가 거칠게 잡아 뺄때 놓친 종이는 바닥에 떨어져 고기는 몇 개인가 바닥으로 튕겨져 나가 있었다.“아야, 아파 미카엘.” 나는 이 당황스런 전개에 그의 얼굴을 올려다 보며 호소했다. 그는 그 연한 눈동자를 짓궂게 빛내며 장난꾸러기 같은 미소를 해 보였다. 그 얼굴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가 꽃을 꺾고 난 뒤 하는 표정 같았다. 그는 자신 때문에 철장에 바짝 붙어있는 낸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리곤 이번에는 자신이 손을 뻗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소중한 것을 어루만지듯이. 그는 이내 내 귓가에 대고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다.“아아 공작가 아가씨가 이 미천한 천것에게 선물이라니! 너희 가문이 나한테 준 이 감옥보다 훨씬 좋아보이네.” 미카엘의 목소리는 목소리만 들으면 정말로 고마운 듯 고조되어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그 따위 감정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사실 고마운 감정이 없어다기 보다 어떠한 감정도 없었다. 그는 그냥 이 맛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 뿐이었다. 나는 그의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어떠한 말도 쉽사리 꺼낼 수 없었다. 그저 그가 무엇을 하려하는 지 지켜보기만 했다.“그치만 이깟 고기쪼가리 같은 거 말고 말야. 더 좋은 걸 줄 수도 있잖아?” 그가 키득거렸다.“어떤?”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얌전히 들어보기로 했다.“음...글쎄?” 그가 과장되게 고민하는 척을 했다. 하지만 분명히 이미 정해놓고 있는 거겠지.“아! 이건 어때?” 그가 굉장히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활짝 웃었다.“아가씨를 인질로 잡고 간수를 부른 다음 맞교환 하는 거야.”“근데 그럼 우리 가문에서 널 쫒을 텐데?” 나는 별로 좋지 못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오랜 세월 이곳에 갇혀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수많은 기사들에게 쫓겨 정신없이 도망을 다니다 결국에는 피투성이가 되어 죽는 미카엘을 상상하니 나는 걱정이 되었다.“그럼 이번에야 말로 죽을꺼야.” 나는 태평하게도 진짜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왔다.“네 걱정이나 해 멍청아.” 그가 비웃었다.“도망치는 것 따위 쉽거든. 너를 대충 찌르고 멀리 던져서 정신을 분산시키던가 하면 말이야.” 그는 잔혹한 말을 내뱉는 사람 답지 않게 역시 전혀 진지해 보이지 않았다.“네가 진짜 공작가 여식인지 확인하는 데만 해도 꽤 오래걸릴껄.”‘아니 그건, 내 머리색 때문에 십초도 안걸릴껄.’ 속으로만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어둠침침한 감옥에서 내 머리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어때? 공주님, 이 쓰레기 같은 것에게 자유 같이 좋은 것이나 적선하시지요.” 그가 위험하게, 달콤하게 속삭였다.“나 공주님 아냐.” 내가 불평했다.그가 한번 더 내 팔에 힘을 주어 내가 쿵하고 철장에 부딪히게 했다. 그 파열감 있는 고통에 내가 또 신음했다.“ 나 같은 것들한텐 어차피 너희들은 다 그렇게 보이는걸.”그가 끔찍하게 혐오스러운 것을 대하는 것처럼 말했다. 먹잇감을 본 야수같이 눈을 빛냈다.내가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음....근데 꼭 찔러야돼?”“...무슨말이야.”그가 짜증난다는 듯이 말했다.“날 찌르고 도망가겠다며. 나도 네가 여기서 나가는 것 까지는 찬성이거든.”그가 내 의중을 파악하려는 듯 내 눈동자를 주의깊게 쳐다 보았다. 덕분에 내 눈에도 정말로 예쁜 아이스 블루색이 보인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내가 칼에 찔린 연기를 신명나게 하면 어떨까?”“...”“아. 아예 붉은색 염료같은 것도 준비해서말야.”“...장난치지마...”그가 무표정하게 말했다.“장난치는 거 아냐.”나는 새삼 그가 지내고 있는 감방을 들여다 보았다. 저 넝마조각이 그의 잠자리일 테지.“나도 네가 여기서 나가는 것에는 대찬성이야. 너는 여기에 너무 오래있었어.”그가 무슨 대답을 할까봐서 조금 기다려 보았지만 그의 숨소리 밖에 들리지 않았다.“그치만 찔리는 건 싫으니까...그건 좀 봐주면 안돼? 나 안그래도 잘 걷지도 못한단 말야.”그렇다고 그가 나가는 시간을 벌기위해 죽는건 절대 사양이다. 애초에 그와는 이번이 겨우 두 번째 만남이다. 그는 여전히 아무말 없이 내 곤란해 하는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 그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의 진지한 얼굴을 물끄러미 볼 수 밖에 없었다. 그의 심정이 이해 안가는 것도 아니다. 매일 매일 미카엘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저, 흐르는 시간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이 외로운 곳에서 눈을 감고. 그로써는 무모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서 라도, 이 기회를 그냥 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미카엘, 그럼 하다못해 죽지 않을 만한 곳에 부탁해.”칼 침을. 흑흑 목적어는 너무 흉흉해서 뺐다. 단념한 나는 온몸에 힘을 뺐다. 그리고 미카엘은 왠지 내가 진짜 죽을만큼 치명타를 날릴 것 같진 않다. 소란을 일으키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아예 픽 죽는 것 보다 살아서 응급처치를 하던가 해야지 시간을 더 벌 수 있고, 굳이 죽여서 자기를 쫒는 사람을 늘리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바닥에 떨어진 스테이크가 보였다.“아참, 미카엘 일단 밥부터 먹어 치워.”“...뭐?”미카엘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반문했다.“얌전히 너한테 잡혀줄테니까 너에게도 전혀 해 될 거 없는 내 제안 하나정도는 들어줘라 야.”그가 조금 인상을 쓰며 내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니가 도망가고 나서 나는 여기에 남겨진 음식에 대해 해명해야할 거 아냐...음...살아나면 말이지. 아무튼 이왕 도망가는 거 서로 좋게 좋게 끝내자고. 귀찮게 굴지 말고.”내가 딱히 나쁜 짓을 한건 아니지만 굳이 오지랖 떨다 이 난리가 난걸 모두에게 알리고 싶진 않다. 면목 없지 않은가.나는 챙겨온 디저트용 포크를 건넸다. 스테이크용까지 따로 챙길 여력은 없었으므로 그냥 그걸로 고기도 먹으라고 할 셈이었다.미카엘은 한동안 미동도 없다가 느리게 내가 건네는 포크를 받았다. 아무래도 내 소박한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인가 보다. 나를 억세게 잡고 있던 오른손이 조금 느슨해 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결코 손을 풀지는 않았다.“손을 풀지는 않을거야. 도망가면 곤란하니까.” 그는 싱긋 웃었다. 아까의 야수같은 무서움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참 알 수 없는 남자아이이다.‘오히려 메디엘 왕자는 알기 쉬운 편이였을지도 모르겠어.’이렇게 생각한 나는 다시 메스꺼움을 느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미카엘은 오른손으로 내 왼손을 꼭 잡고 있는 실정이었음으로 왼손으로 포크를 받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발치의 고기를 찍어서 먹기 시작했다. 여전히 오른손으로는 나를 꼭 잡고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고기도 개의치 않고 모두 먹어치웠다. 굉장히 배고픈 상태였을텐데도 그는 천천히 그리고 꽤 우아하게 먹었다. 아무말 없이 묵묵히 오물오물 고기를 씹는 그는 상당히 이질적이였다.그가 아직 고기를 먹을 때 그가 먹는 모습을 하염없이 보기도 뭐한 나는 그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다.“오늘은 이거 전에 뭐먹었었어?”그는 나를 보더니 우물거리던 것을 삼키고 말을 했다. 상당히 예의 바르다.“빵.” 그가 짧게 말했다.“한개?”“응.” 그가 씨익 웃었다. 나쁜 일 따윈 전혀 못하는 소년 같은 미소다.“배고팠겠네.” 나는 남은 손으로 턱을 괴고 말했다.“별로...이제 익숙해져서...”“그럼 내가 가져온 거 필요없어?”“아니 좋아. 엄청 오랜만이야. 역시 먹으니까 또 내가 배가 고팠던 걸 새삼스럽게 알게된다니까?”키득하고 그가 웃었다. 그는 내가 더 할 말이 있는지 나를 싱긋 웃으며 쳐다보다가 이내 다시 포크질을 했다. 고기는 두툼하고 꽤 잘게 썰린지라 왼손으로 하는 서툰 포크질에 자꾸 굴러갔다. 그는 그것을 찝는데 꽤 열중했다.“있잖아...” 다시 들리는 내 목소리에 그는 배가 고팠을 텐데도 내색하지 않고 나를 쳐다보았다.“나가서 뭘 제일 하고 싶어?”그는 내 말에 꽤 골똘히 생각했다.“글쎄...”나는 그의 반응에 깜짝놀랐다. 나가서 뭘 할지 매일매일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는 냉큼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이다.“만나고 싶은 사람 없어?”“딱히...”“가보고 싶은데는?”“없어.”나는 기가 찼다. 나를 찌르면서 까지 나가고 싶어했으면서 말이야.“먹고싶었던것 정도는 있을거 아냐.”“음. 고기같은 거 먹고 싶었는데 니가 용케 또 준비해 줬네.”그가 하하 만족스럽게 웃었다.“그래도 여기는 아무래도 심심하니까 말야... 슬슬 나가고싶어.”그는 목을 젖혀 이곳의 습기찬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먹잇감에 불과하면서도 그가 조금 가여웠다.그는 고개를 바로해 나를 보며 ‘더 할말은?’이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음, 이젠 없어.’라는 표정으로 답했다. 미카엘은 다시 서툰 포크질을 시작했다.종이 위의 고기가 그의 세 번째 도전을 받고 결국엔 바닥에 떨어지자 나는 권유했다.“내가 먹여줄까?”그는 왼손이, 나는 오른손이 자유로웠으므로 내가 포크질을 해 그에게 먹여주면 좋을 것이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그는 멍하니 나를 보았다. 나는 싹싹하게 그의 손에서 포크를 잡아냈다. 그리고는 한번에 고기를 집어서 그의 입가에 갖다 대었다.“자아.”그는 나를 알수없는 표정으로 보더니 이내 얌전히 입을 벌렸다. 정말로 기괴한 광경이였다. 누군가 본다면 비련의 커플인줄 알 것이다. 철창살을 사이에 두고 한손을 꼭 잡은 한 쌍이 밥을 먹여주고 있다. 사실, 잡힌 쪽의 손은 멍이들 정도였지만.그는 얌전히 내가 주는 고기를 평정했다. 야수를 기르는 사육사의 심정으로 나는 그에게 고기를 넘겼다. 나는 이번엔 초콜릿 케이크를 꺼냈다.“이건 나도 꽤 좋아해. 우리 주방장의 자신작이거든.”“...케이크는 처음 먹어봐.”그말을 듣고 나는 “뭐어~ 인생 헛살았구나? 난 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떠들었지만 사실 그의 계급이 겪는 일상을 엿볼 수 있어서 씁쓸했다. 내가 동정하는 것을 그가 알아챘을까? 몰랐으면 좋겠다.케이크를 포크로 뜨는 것이야 말로 왼손인 그는 무척 불편한 일이였으므로 내가 살짝 떠서 그의 입에 넣었다. 눈을 감고 얌전히 받아먹는 그는 꽤 귀엽다.“달아. 이런건 처음 먹어봐.” 그는 미간을 좁히며 말했다. 음..미카엘의 입맛엔 별로인가?“이건 싫어?”“음...아니. 더 줘.” 그가 한결 차분해져서 말했다.그는 달아, 달아 연발하면서도 결국 내가 떠먹이는 케이크를 모두 받아먹었다.나는 마지막 케이크 조각을 그의 입안에 넣었다. 아 이제 난리법석의 시작인가. 조금 긴장된다.그가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중얼거렸다.“...배불러.”“너무 조금 가져와서 별로 배 안부를텐데.”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평소에 워낙 조금 먹었어야지.”나는 나도 모르게 포크를 놓은 오른손을 나를 잡고 있는 그의 왼손에 올려놓았다.그는 눈을 조금 가늘게 했다. 그리고는 조금 눈썹을 찡그렸다. 미카엘은 다시 활짝 웃으며 말했다.“진짜 오랜만에 배불러서 기분이 좋아.”그는 정말 기쁜 듯 했다. 방금의 스쳐 지나간 어색함은 내 눈의 착각이었나 싶을 정도다.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배가 부르니까 오늘은 그다지 쫓겨 다니고 싶지가 않네.”그는 간단히 내 손을 놓아버렸다.“잘가 라디올러스.” 그가 방긋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를 이용해 탈출하겠다며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앞으로는 이렇게 멍청한 짓 하면서 다니지 말고.” 그가 걱정스럽다는 말투로 말했다. 그러나 표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무관심함이 서려있었다.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픈 손목을 문질렀다. 미카엘은 심드렁하게 자신의 자리로 가서 누워 버렸다. 할말 다했으니 어서 나가라는 자세였다. 내 쪽은 내가 어정쩡하게 물건을 챙겨서 나갈 때까지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변덕이 심해서 도통 의중을 알 수 없는 고양이 같았다.‘재규어 다음에는 고양이냐.’방으로 올라가는 통로안에서 무심코 또 메디엘을 떠올린 다음 나는 다시 초조하게 머리를 털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성안을 빙 돌아서 왔을 때보다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었던 나는 조금이나마 잘 수 있었다.무거운 눈을 겨우 떠서 맞이한 다음 날은 지난 밤 죽느냐 사느냐의 고비를 거쳐 겨우 얻은 날 답게 무척이나 달콤했다.아침을 먹으러 내려가니 아빠가 이미 수저를 들고 계셨다.“아빠! 일찍 일어나셨네요!”“네가 늦게 일어난거란다 요녀석.”이제 아빠는 나를 꽤 진짜 딸처럼 대한다. 부모님을 대하는 것은 이제 나에겐 큰 즐거움이다.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아직도 엄마와 아빠는 서로 데면데면하다. 애초에 나이차가 꽤 나는 정략결혼 상대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아빠의 바람기 때문에 더 벌어진 사이일 것이다.아침 인사겸 내가 곁으로 가서 아빠의 목에 매달리듯이 껴안겼다.“음? 오늘은 바닐라 향이 나는 구나.”“네. 베라한테 향을 묻혀달라고 했어요.”“하하 나도 달콤해서 꽤 좋아한단다. 다만 내가 풍기기엔 너무 귀엽지만.”“정말요? 엄마도 좋아한다고 했는데.”나는 엄마얘기를 해도 될까 생각하다가 일부러 한번 말해보았다.아빠는 조금 멈칫하더니 그리운 듯이 말했다.“아아, 그 사람은 바닐라향이 좋아서 쿠키를 만들 정도였다고했어.”예상 밖의 반응이라 나는 그냥 그래요? 라고 하고 넘겨버리고 말았다. 그 말을 듣고 아빠에게 묻고픈 것은 더 늘어났는데 말이다.“그렇지, 오늘은 눈이 꽤 많이 왔더구나. 오빠들이랑 산책이라도 하지 그러니.”와. 눈이 왔었구나.아빠와의 식사시간을 끝마치고 나는 휴리안 오빠를 찾아갔다. 오빠는 아침부터 책을 읽고있었다. 나는 방해해도 되는 걸까 문가에서 살짝 주저했다.고풍스러운 안락의자에 기대어 책장을 넘기던 흑발의 지적으로 생긴 미소년은 책을 탁 하고 접었다. 이쪽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차린 건지 신기하다.“이런 이런. 여동생을 문가에서 기다리게 하다니.” 그가 조용히, 천천히, 연극적으로 나지막히 말했다.“어지간히 무서운 오빠인가봐, 나는.” 그가 상냥하게 웃으며 이쪽으로 일어섰다.“이리오렴 라디. 무슨일이니?” 그는 여전히 나에게 옛날의 이복형제를 떠올리게 한다. 그 때문인지 그를 보면 나는 항상 미묘한 심경이다. 그립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어리광 부리고 싶어진다. 나는 그가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조금 우스울 지도 모르지만 휴리안과 진하 오빠는 나에게 거의 신적인 존재일지 모르겠다. 나는 휴리안을 아주 아주 옛날부터 좋아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비록 만난지 얼마 안됐더라도.그는 나의 산책을 하자는 권유에 흔쾌히 응했다. 다만 내가 목발을 짚고 눈밭을 걷는 것을 그는 꺼려했다.“나에게 안겨서 가는 건 싫으니?” 휴리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그게 아니고...오빠... 나 이제 엄청 잘 걸어!”“응. 그건 알아. 참 기특해.” 그가 보기 좋게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아니, 지금 칭찬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 오빠.“그리고 이제 잘 먹어서 무거워 졌단 말이야.” 나는 투덜거렸다.“응, 그것도 참 기특해.” 그가 함박웃음을 지으며 내 머리를 다시금 쓰다듬었다...이 오빠한테는 이길 수 없다.나는 얌전히 안겨서 산책을 나갔다. 남이 대신 걸어주는 것도 산책일지는 모르겠지만.정원은 완전히 눈으로 뒤덮여 반짝반짝 빛났다. 부지런한 사용인들은 벌써 통행로는 말끔히 치워 놓았다.멋지게 일렬로 심어 놓은 꽃나무 길은 아직 눈이 쌓여 있었다. 꽃나무는 꽃은커녕 잎사귀 하나 없지만 눈이 가지마다 엉겨 붙어 매우 아름다웠다. 나는 무심코 그 길을 보며 탄성을 질렀다. 그저 오빠도 저 멋진 광경을 보길 바래서 였다.“와 오빠 저 나무들 봐 진짜 예쁘다!” 나는 오빠의 품에서 감탄하며 웃었다. 오빠는 내 얼굴을 빙그레 웃으며 바라보더니 곧장 통행로를 벗어나 눈밭에 발을 들이밀었다.휴리안의 신발이며 바지 밑단이 젖을 것이 당연했다. 나는 당황해 말렸다.“오빠!! 저기 가자는 말이 아니였어!”“응, 나도 멋지다고 생각해서. 가까이서 보고 싶잖아. 너는 괜히 나 때문에 덩달아 가는 거야. 미안하지만 참아주렴.” 그가 하하 웃으며 말했다. 너무 상큼하고 군더더기 없는 대응이라 어떻게 사양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오빠도 참...하고 말 할 수밖에 없었다.확실히 꽃나무 길은 가까이서 보니 더 멋졌다. 나는 고개를 수직으로 들고 그 아름다운 눈 공예를 바라보았다. 예쁘다. 그때 멀리 있던 나무 가지가 가까이 쑥 하고 다가왔다.휴리안이 나를 번쩍 들어 목마를 태워준 것이다. 내가 오빠! 너무 무리하지마! 라고 하자 또 휴리안은 자상하게 대꾸했다.“몇번을 말했지만, 너는 오빠를 너무 약하게 본다니까.”나는 또 그의 고집에 졌다. 결국 우리는 꽃나무 길의 끝까지 거닐었다. 이제 집에 갈까 해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는 휴리안의 귀가 빨개진 것을 보고 손으로 그의 귀를 감쌌다.“와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귀마개네.”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휴리안의 대답이 만족스러워서 그에게만 신경을 쓰느라 내 시야쪽은 확인을 하지 못했다. 잔가지가 바로 눈 앞에 있었던 것이다. 별로 두꺼운 것도 아니고 맞으면 가지가 휘어서 빗겨가겠지만 나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내 움직임에 괜히 오빠는 아 미안! 이라고 사과했다.그가 다시 걸음을 떼려 했을 때였다. 누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아까 그 가지에 내 머리카락이 엉킨 것이였다. 그 별것도 아닌 일에 나는 중심을 너무 뒤로 보내고 말았다.“어!!”내가 그의 어깨에서 미끄러져 버렸다.우리는 탑이 무너지 듯이 뒤로 넘어갔다. 다행이 눈이 꽤 많이 왔기 때문에 큰 상처는 없었다. 그러나 휴리안은 자신의 어깨에서부턴 떨어진 내가 크게 걱정됐는지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내 상태를 살폈다.“라디!!!! 괜찮아?!!! 내가 중심을 잃는 바람에!”명백히 나 때문에 그까지 넘어진 것이었는데 그는 자신 탓을 했다.“아니 아니 오빠 그건 나땜에 넘어진 거지...” 나는 머리의 눈을 털며 일어났다.“다친데는 없어?”그가 황급히 말했다.“응 없어. 오빠는? 넘어지게 해서 정말 미안해...”“아냐, 내가 괜히 목마를 태워서.. 어서 돌아가자 옷이 다 젖었어.”나나 오빠나 눈을 여기저기에 묻히고 저택에 돌아왔다. 나가려고 준비중이던 아빠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눈싸움 했니? 라고 물었다.잘 걷지도 못하는 나를 세워두고 신나게 눈을 맞추는 휴리안이 상상되서 웃겼다.오빠는 나를 신속하게 하녀에게 인계하고 자신도 옷을 갈아입었다. 확실히 몸이 식었는지 추웠다. 우리 둘은 하녀들에 의해 벽난로가 활활 타는 방으로 들여보내졌다. 하녀는 따뜻한 차를 가져온다며 다시 나갔다. 모포를 뒤집어 쓴 우리와 노르스름한 빛을 내뿜는 벽난로만이 남았다.“라디... 안 춥니?”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음 조금 발시려운 것 빼곤 괜찮아.” 나는 장난스럽게 푹신한 털 슬리퍼에서 발을 꺼내 발가락을 쥐었다 폈다 해 보였다.그는 그 꼴을 잠시 쳐다보더니 당혹스럽게도 자신의 맨 손으로 내 작은 발을 꼭 쥐었다.“정말 차네....”내 발치에서 웅크린 채 그렇게 중얼거렸다.나는 부끄러움에 몸둘바를 몰랐다. 내가 진짜 열 한살이라면 이렇게 창피해 하지 않았을 텐데... 면목 없게도 안에 든 것이 말만한 처녀라서 말이다.“으아아 오빠! 그렇게까지 발시렵지는 않아!”“음? 나도 괜찮으니까.” 라고 순수하게 웃으며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내 발을 문질러주고 있다. 아 정말이지 당혹스럽다. 내가 진짜 어린아이이고 진짜 그를 친오빠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어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슬퍼졌다.나는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의 어깨를 살며시 밀었다. 정말 괜찮아. 라는 의미였다.그는 내 손짓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어라? 보통 사람이 이런 자세를 하고 있으면 조금만 힘을 주어도 휘청하는데?“어? 오빠. 장난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꿈쩍도 안하지?”“오빠의 굉장함은 태산과 같단다.”그는 웬일로 말장난까지 치며 능청스레 웃었다.나는 그 상냥한 오빠의 웃는 얼굴을 보며 말했다. 아니,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내 가슴을 간질이는 이 기분 좋은 느낌.“ 오빠! 진짜 나는 오빠가 너무 좋아. 오빠가 내 오빠라니, 완전 영광이야.”내 말을 듣고 그의 활짝 웃던 미소가 조금 주춤했다. 그리고는 그렇구나...라고 하며 자세를 정돈해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가서 앉았다.‘왜 저러지? 쑥스러운건가?’가끔 느끼는 거지만 오빠는 나를 가끔 어색해 하는 것 같다. 물론, 갑자기 생긴 동생이 익숙할리 없겠지만...“오빠! 오늘도 같이 놀아줘서 진짜 고마워.” 내가 말없이 벽난로의 불을 바라보는 그를 향해 마저 말했다. 그는 내말을 듣고 고개를 내쪽으로 돌렸다. 그의 표정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 이었다.“...정말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나는 휴리안의 이 서먹함에 어찌 대해야 할지 조금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메이드의 목소리가 들렸다.“ 라디올러스님, 공작부인께서 차를 드실 거면 같이 드시자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할까요?”엄마는 내가 휴리안 오빠와 함께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공작부인에게 남같이 어색한 그 양아들과 차를 마신다는 것은 이제 아예 선택지에 조차 없는 것일까? 엄마가 나에게만 차를 권유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나는 멋쩍은 얼굴로 휴리안을 쳐다보았다.그는 원래 내가 알던 휴리안으로 돌아가 있었다. 봄과 같이 화사한 얼굴로 웃으며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다는 듯이 말했다.“잘 다녀와 라디! 다음에 또 놀자.”나는 아까 오빠가 보여주었던 그 어색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시간이 더 흐르면 괜찮아질 거야.’그래, 왕자의 일처럼. 이라고 무심코 또 그려져 버린 그 레몬 빛은 아예 생각나지 않은 척 나를 속였다.휴리안이 내가 마침 나갈 용무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건 분명히 내 지나친 생각일 것이다. 나는 엄마에게로 향했다.“라디! 나 원참 성한 몸도 아니면서 눈에 푹 젖어서 돌아왔다며? 정말이지 개구쟁이구나.”엄마가 나를 보자마자 껴안아 주며 말했다. 엄마의 품이 기분좋게 따뜻하다.“히히, 휴리안 오빠가 놀아줬어.”“어머나 그렇구나. 그 애는 옛날부터 참 착해.”엄마에게서는 그다지 휴리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없는 듯했다. 좀 더 가깝게 지내면 좋을 텐데... 그러나 여기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까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화제를 돌렸다.“응, 정원이 온통 눈에 덮여서 엄청 예뻤어. 엄마도 봤어?”“창으로 내려다 보기만 했어, 다음엔 엄마 랑도 가보자.”엄마는 상냥하게 웃으며 춥지 않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다. 향긋한 그 향을 맡으니 문득 아까 아침에 아빠랑 하던 이야기가 생각났다.“아, 엄마! 엄마는 바닐라 향이 좋아서 쿠키 굽는 법을 배울 정도로 그 향을 좋아했다는 게 정말이야?”엄마는 내 말을 듣고는 조금 놀라워하며 웃었다.“어머? 그 얘기는 또 어디서 들었니? 정말 옛날 이야기 인데.”그녀가 그리운 듯이 웃었다. 그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텐데? 라며 조금 중얼거렸다.“아빠가 얘기해 줬는데?” 나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처럼 말했다. 내 의중을 모두 알면 영악한 아이라고 엄마는 말할까나.“...그사람이?” 엄마는 정말로 놀란 듯 했다.“응. 아빠한테 말했었어?” 나는 이번에는 엄마의 반응을 눈치 못 챈척 차를 홀짝이고나서 쿠키를 집었다.엄마는 정말이지 알수없다는 표정으로 슬픈 듯 웃었다.“말했었단다... 아주 옛날에. 나참, 정말이지 쓸데없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구나, 너희 아빠는.”나는 더 이상 파고들지는 않았다.“엄마 다음에는 나한테 쿠키 만드는 거 알려줘. 같이 만들자!”“그래...그런데 크림파이는 어떠니?” 엄마는 곰곰이 생각하다 말했다. 좋은 생각이 난 듯 웃는 엄마는 꼭 소녀 같았다.음? 바닐라 쿠키를 만들자고 하려고 했는데... 뭐, 크림파이도 좋지! 아빠한테도 나눠줘야겠다.오늘은 참 많은 일이 있었지...잠자리에 누워 생각했다. 오늘은 맘이 편한지 어둠이 그다지 숨 막히지 않았다. 밤눈에 익숙해지자 미카엘의 감옥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 태피스트리가 자꾸 눈에 밟혔다.미카엘은 오늘 뭐했을까. 잠시 생각을 하다가 얼른 지웠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굳이 거기까지 기어가서 또 그 난리를 피울 수는 없다. 얼마 전에 수련장도 날려먹었는데 또 인질사건을 벌이면 나는 정말이지 민폐덩어리이다.그래도 그의 그 얇은 팔목과 그 예쁜 눈을 생각하면 역시 잠이 잘 오지 않았다.‘먹을 것만 살짝 건네면 어떨까?...’마음이 자꾸만 약해져 갔다. 결국 나는 내일 다시 그를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고 나서야 잠에 들 수 있었다.계획을 세운 다음날밤이 되었다.저번의 경험을 살려 이번에는 더욱 간략하고 들기 쉽게 음식을 챙길 수 있었다. 나는 미카엘과 일종의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모르는 나 혼자만의 도박이긴 하지만. 나는 약간의 긴장감에 침을 삼키고 그에게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안녕! 미카엘 나 왔어.”내 목소리에 미카엘은 놀란 눈을 하고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이렇게까지 바보일 줄이야!”“실례네.”나는 그의 솔직한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고 척척 짐을 풀면서 말했다.“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 하고.”그리고 나선 튀긴 고기를 썬 조각을 저번처럼 종이에 담아 그의 철장 안으로 넣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온 손을 한번 힐끔 보더니 씨익 웃으며 말했다.“무슨 뜻이야?”“어서 잡으란 뜻이야.”그는 사양하지 않고 다시 내 왼쪽 팔목을 오른손으로 잡았다. 하하 웃으며 와 오늘은 튀김이야. 라고 매일 보는 사람처럼 말했다. 천진난만한척 하던 그가 이내 다시 날카로운 안광을 내며 나를 바라보았다.“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잠옷 바람의 라디올러스.”“혹시 나를 찌를 것이 아니라 찌르는 연기가 하고싶어지면 언제든지 말해. 붉은 물감 챙겨왔으니까.”내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그는 어리석은 생물을 보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너는 혹시 마조히스트야?”“허??? 뭐라고?” 설마 이런 흉폭한 단어를 열한 살짜리한테 쓸 줄이야.“아니, 상처를 입으면서 쾌락을 얻는 종류의 사람이냐고.”“허어???????” 설마 이런 흉폭한 단어의 의미를 열한 살짜리한테 설명할 줄이야.‘하긴 내가 봐도 좀 변태같은 짓이지.’ 그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그에게 상처입고 버림당하러 돌아온 정신나간 아이이다. 하지만 알아둬 미카엘 이건 그냥 도박이야.그래도 나는 그의 험한 말버릇에 눈살을 찌부렸다. 그는 짐짓 정중하게 사과하는 체 했다.“죄송합니다 소인이 천박한 말로 귀한분께 결례를 범했습니다.”“됐어. 웃기는 소리 그만둬. 이거나 먹어.”나는 그 때와 같이 내 자유로운 오른손으로 튀긴 고기를 포크에 찍어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그는 얌전히 받아먹었다. 우물우물 씹던 그가 말했다.“그런데 라디올러스. 진짜 왜 다시 날 찾아온거야?”“그냥 네가 생각나길래. 배고플까 하고.”“그게 다야?” 미카엘은 또 내가 주는 고기를 받아먹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동안 얌전히 오물 오물 음식을 씹었다.“요즘 나는 행복에 겨워 있거든.” 나는 오늘 있었던 즐거운 일들을 잠깐 회상했다. 왠지 가끔 이상한 휴리안 오빠만 빼고..... 그건 곧 괜찮아 질거야. 응.미카엘이 음식을 삼키고 장난기 섞인 얼굴로 말했다.“그래서 귀족들은 모두 내 행복이 곧 너희들의 행복이라고 말하나봐.”나는 쓴 웃음 했다.“그렇게 못된 소리만 하지 마. 대천사 주제에.”그가 고기를 다 먹자 나는 디저트를 꺼내들었다.“짜잔! 오늘의 디저트는 뭘까요?” 나는 또 제법 흥분해 있었다. 내가 먹는 건 아니지만 단 게 좋기 때문이다. 디저트는 생긴 것도 왜이렇게 귀여울까.“디저트까지 챙겨오는거야? 상냥하기도 하지.”그가 느릿느릿 말했다.“빠라바밤! 체리파이입니다!”“와아~” 그가 거짓 환성을 질렀다. 그래도 웃긴했다.것은 바삭하게 구어진 파이의 안은 졸인 체리가 들어있었다. 노르스름한 파이 겉면과 새빨간 충전재의 조화가 예쁘다.내가 한숟갈 떠서 윤기가 도는 체리 잼이 흐르자 그가 나를 놀리며 말했다.“하하 곧 있으면 라디올러스도 저렇게 될텐데.”...지금 내가 피떡이 될 것을 체리파이에 비유한 거임?“제발 물감을 쓰겠다고 말해줘.” 나는 한숨을 쉬며 그에게 파이를 떠먹였다. 파이 겉면이 부서지기 때문에 난이도 높은 작업 이었다.그는 별다른 대답없이 파이를 냠 하고 받아먹었다.“달아.” 이내 파이를 삼킨 그가 말했다.“그치~ 안에 체리 졸인 거 달고 맛있더라고. 음? 별로라는 의미였어?”그는 말없이 눈을 감고 입을 아 하고 벌렸다. 맘에 들었던 걸까. 나는 조금 신나서 아까보다 크게 파이를 떴다.“앗 묻어버렸어. 미안.”체리 잼이 조금 그의 입가에 묻었다. 그가 닦으려고 더듬더듬 했지만 제대로 닦지 못해서 내가 포크를 내려놓고 엄지로 닦아냈다.그는 그냥 태연히 내 손길을 받더니 빼려던 내 오른 손을 잡았다.나는 이제 양손을 제압하려는 건가? 조금 당황했다. 그러나 그는 내 오른 손 엄지를 다시 그의 입가로 가졌다. 그리고는 엄지의 묻은 체리 잼을 핥았다. 입맛을 다시더니 중얼거렸다.“곤란해. 이거 나한테 주기로 한거잖아?”“음... 아직 많은데.”무척 당황했지만 그냥 체리파이가 무척 맘에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냥 내가 당황하는 걸 보고싶었던게 맞겠지. 그렇다면 더욱 당황하는 꼴을 보여줄 순 없다.“재미없는 반응이네 너무 어린걸까...” 그가 히죽 웃으며 내 오른손을 풀어주었다. 역시 날 놀리고 있군...“자아 네가 좋아하는 체리파이나 먹으렴.”나는 미카엘의 장난을 무시하고 다시 파이를 먹였다. 그는 달다고 말하며 중간 중간 인상을 찡그리는 듯 했지만 내가 주는 것은 마다않고 모두 먹었다. 파이를 담아왔던 그릇은 이내 텅 비었다. 자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그는 입매무새를 정리했다. 조금 거북해 보인다. 너무 많이 먹었나. 미카엘은 자기가 잡고있는 내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너 말이야... 오늘 일부러 이거 먹였어?”“?....무슨소리야?”미카엘은 나를 잡고 있는 손의 힘을 슬쩍 뺐다. 그리고는 그대로 고개를 돌렸다.“꿈에 체리나올 것 같아.”그가 중얼거리면서 넝마가 깔려있는 곳으로 갔다.그가 나를 또 그냥 풀어주었다!“...야! 미카엘!오늘 탈옥해야지~!그냥 보내주면 어떡해!” 나는 씨익 웃으면서 그의 등에다 대고 말했다.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흔들었다.“이제 이런 짓은 그만둬. 변덕도 이번이 마지막이야.”그가 냉담하게 말했다.됐다! 나는 마음 속으로 환호했다. 나는 도박에서 이겼다. 그가 이번에도 나를 풀어주면 나는 내 마음내키는 대로 그를 만나러 가겠다고 나와 내기를 한 것이다.“미카엘! 다음에 볼때는 라디라고 불러줘!” 나는 그의 감옥을 나서기 전에 그에게 말했다.문이 닫히기 전까지 계속 그를 보았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에 몇 번인가 미카엘을 더 만났지만 미카엘은 항상 내 손목을 잡고 위협을 하며 밥을 먹이게 했다. 그리고는 항상 끝내 나를 보내 주었다. 그런 평화로운 나날이었다. 그 티파티 초대장이 오기 전까지.우리 가족은 아침을 먹고있었다. 여전히 어색하긴 하지만. 특히 아직 둘째 제르다민과는 거의 원수에 가깝지만.“황궁에서 전언이 왔습니다 주인님.” 메이드중 하나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아빠에게 예쁜 편지봉투를 건냈다. 나는 황궁이라는 말에 약간 움찔 했다가 하하 설마. 하며 스프를 떠서 마저 먹었다.아빠는 인장을 뜯어내고 잠시 읽는 듯 하더니 나를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다.“하하 라디, 우리 딸이 이제 아가씨가 다 되었군.”나는 빛의 속도로 아빠를 쳐다 보았다. 뭐지? 뭐야. 무슨 일이야. 저거 혹시 왕자한테서 온 사과 편지인가? 근데 왜 아빠한테 보내고 난리야. 아? 신종 괴롭힘? 나는 온 힘을 들여 주의 깊게 아빠의 입을 쳐다보느라 입안에 든 스프를 흘릴 뻔 했다.“공주님이 너와 테젠 공작가의 파르펠양을 티파티에 부르셨단다.”아. 공주님이 부른 거였구나. 나는 미칠 듯이 뛰었던 가슴이 조금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가 약간 서운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왕자에 대해서는 잊기로 했는 데 말이지...왜이렇게 화해하는 것이 힘들 걸까? 서로 그냥 솔직하게 사과 하면 될 텐데. 애들은 싸우고 나서 금방 화해하고 다시 친해지던데 내 속알맹이는 고집불통이라 영 쉽지 않다. 게다가 나는 얕고 넓은 인간관계만 고수했던 터라 철들고 나서는 화해같은 건 해본 적이 없다. 어른들의 관계는 싸우면 끝이 아니던가. 서로에 대한 미움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어른들의 싸움이었다.‘게다가 이제는 사과한다고 원래대로 지낼 수 있을지...’메디엘 왕자를 다시 상상해 보았다.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강한 스트레스에 속이 메슥했다. 마지막에 헤어졌을 때의 싸움은 내 기억 속에서 더욱 안 좋은 추억이 되고 있었다. 그가 내 편지를 읽지도 않고 버리는 것이 상상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왕자 때문에 골치 썩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여자들 만의 티파티니까 왕자와 마주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밤이 돼자, 미카엘에게 갔다. 어제 그에게 가지 않은 터라 먹을 것을 평소보다 많이 챙겨갔다. 이제는 그가 내가 없을 때 먹을 수 있도록 빵같은 건 여분을 두고 그를 만나러 간다. 덕분에 나는 공작가 내에서 시도 때도 없이 간식을 먹는 먹보가 되었다.“미카엘~나왔어~” 나는 평소보다 조금 기운없이 말했다.“어 오늘은 좀 평소보다 더 못생겼네.” 그는 이제 또 왔냐며 타박하지 않는다.“무슨일이야?” 그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위험해 보이는 웃음이다.“...음...별일 아니야.” 나는 미카엘에게 말하는 걸 조금 주저했다. 그는 귀족이나 왕족한테 가끔 강한 반발심을 보이기 때문에 황궁에서의 티파티라는 주제는 조금 꺼려진다.“내가 물어봐 주길 바래서 그렇게 맥없이 인사를 날린 거잖아?” 그가 매섭게, 하지만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한다.“그래서 기껏 물어봐 줬으면 대답을 해야지.” 하하 웃으며 말하지만 무섭다. 미카엘은 상냥함을 무섭게 베푸는 경향이 있다. 매몰차다 매몰차.내가 한숨을 쉬며 왼손을 그의 철장에 넣자 그가 자연스럽게 내 손을 쥔다. 이제는 꽤 다정스레 잡는다. 이건 이제 우리들의 의식같이 되어 버린 느낌이다. 나는 오늘의 식사인 샌드위치를 내 오른손으로 잡고 그의 입으로 내밀었다. 먹으면서 들으라는 뜻이다.“사실 내가 황궁에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말이지...”미카엘은 우물거리던 입을 잠깐 멈춘 다음 다시 열심히 씹었다.“이번에 공주한테 티파티 요청을 받아서 황궁에 가게 되버렸어...”그가 입을 벌려서 내가 들고 있는 샌드위치를 한입 더 먹었다.“근데 생각해 보니까 샌드위치는 니가 들고 먹으면 되는 거였잖아.”그는 우물거리는 것을 얼른 삼키고 나를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는 내가 주는 디저트 폭탄 때문인지 꽤 살이 올라있었다. 물론 아직도 마른 편이라 선은 날카롭지만 그는 전보다 훨씬 보기좋아 보였다. 어딘가 위험해 보이는 미남이다. 아... 철창에 갇혀있어서 위험해 보이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게다가 그는 나를 만나기 전이면 자신이 마실 물로 몸단장을 하고 기다린다. 어차피 물도 충분히 안 줄 텐데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지 말고 마시라고 해도 공주님을 천한 것이 배알하는 것도 미안한테 어떻게 그러냐며 너스레만 떤다. 덕분에 나는 그가 목이 마를까봐 음료 챙기는 것도 급급하다.그는 입가를 올리며 말했다.“자잘한 건 신경 쓰지 마. 근데 그 황궁에 안 갈 수는 없는 거야?”“어... 공주님이 초대하는 데 어찌 안가겠어. 게다가 다들 방학인게 뻔한데.”나는 한숨을 푹 쉬었다.“게다가 아빠는 역시 같은 또래라서 금방 친해지는 것 같다며 신나셨어.”“헤에... 피곤해 보이네.”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는 전혀 내게 공감하지 못하는 듯 한 얼굴이었다.“근데 황궁에 그 보기 싫다는 사람은 누구야?”그의 눈동자가 빛나는 것 같았다. 그는 가볍게 말하는 말투였지만 또다시 거역못할만한 기운이 느껴졌다.“...음? 왜?” 나는 조금 초조해졌다.“너는 나조차도 미워하지 않잖아.” 그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눈은 전혀 웃고있지 않지만.“그야...너는....” 나는 이런 말해도 되는 걸까 조금 주저했다.“보고 있으면 눈을 떼지 못하겠는 걸.”그냥 솔직하게 말했다.“왜 미워하지 않냐고 해도 말이지... 별로 미워할 맘도 안들고.”그는 무슨말이냐는 듯이 조금 갸웃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너와 얘기하고 있으면 엄청 희귀한 보석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미카엘은 그 말을 듣고 폭소했다. 한참을 웃다가 겨우 말을 했다.“너는 길가의 쓰레기도 색이 예쁘다고 집에 가져갈 애야.” 그가 신랄하게 말했다.그는 내가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은 무시 한 채 다시 그 닿으면 베일듯한 눈빛으로 말했다.“그래서 더욱 네가 싫어한다는 그 사람이 신경 쓰여.”미카엘의 민감한 반응에 나는 조금 당황했다. 내가 어? 어? 하고 있으니까 미카엘은 다시 날카롭게 물어보았다.“누구야? 그 사람?”“음 메디엘 왕자님...”“호! 왕자님이라... 역시 공주님의 짝은 왕자님이지.”그가 약간 빈정대는 말투로 말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공주님은 나를 가리킨다. 내가 아무리 엄연히 공주님은 따로 계시다고 말해도, 그는 나를 곧잘 공주라고 부른다. 미카엘은 다시 나를 어르듯이 바라보았다. 자기가 잡고 있는 내 손을 엄지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꾀었다.“그래서?.. 왜 그가 싫어?”“나 별로 왕자님 안 싫어해.”솔직히 싫어하진 않는다. 아직도 따져보자면 좋아하는 편이다. 다만 그의 존재는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갖는데 하등 도움이 안된다. 그는 내 정신에 이롭지 못하달까...내 말을 듣고 미카엘은 장난스럽게 웃었다.“근데 만나기 싫다며?”“응... 이제 피곤해.”미카엘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말했다.“좋아하는데 왜 만나기 싫어? 싫어해야지 만나기 싫은 거 아냐?”“나도 모르겠어. 참 이상해.”그는 조금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아무렴 어때. 하는 얼굴로 돌아왔다.“내일 안 마주쳤으면 좋겠네.”미카엘은 그저 싱긋 웃으며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내 손에 든 음식을 받아먹었다. 샌드위치 정도는 그냥 자기가 들고 먹을 것이지...샌드위치는 그에게 먹이기 쉬웠으므로 나는 새삼스럽게 그의 감옥을 둘러보았다.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 그의 철창 중 하나의 맨 윗부분에 이상한 천조각이 매어져 있는 것이다.나는 냠냠 샌드위치를 먹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미카엘. 저기 저 위에 저 천은 왜 묶어놨어?”그는 내가 가르키는 쪽을 응? 하고 고개를 휙 돌려 보더니 이내 아무일도 아니라는 듯이 다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입안의 음식을 삼키고 나서 대답해 주었다. 그렇게 일일이 삼키고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데... 미카엘은 의외로 행동이 하나하나 예의바르다.“아~ 저거?” 그가 씨익 웃는다.“어, 저기 저 철창 위에.”“저기 조그만 틈이 있거든? 거기서 가끔씩 우수수 나오거든. 아무리 그래도 좀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막아놨어.”“...” 뭐가 나오는지 안물어봐야지.그가 하하하 상쾌하게 웃으며 왜 먹을 것도 없는 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 중얼거리는 것은 무시했다. 그렇게 계속 유도해도 뭐가 나오는지는 안 물어볼꺼야.내가 계속 그를 외면하고 샌드위치를 주자 그는 이쪽을 보라는 듯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다 먹었어. 이제 디저트 먹여줘.”내가 떠먹여 주는 데에 맛들린 것 같은 모습이다. 그러고 보니 처음 버릇을 내가 잘못 들인 거 같기도 하고... 나는 떨떠름 하게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눈이 마주치자 눈을 가늘게하고 씨익 웃으며 ‘오늘은 뭐야?’라고 말했다. 큰일이다. 이제 미카엘한테도 이길 수 없다. 요즘 나는 지기만 하는 것 같다.“오늘은 딸기 요거트야.”그가 와~ 하고 과장되게 신나했다. 그 모습을 보고있으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기분이 들어버린다. 미카엘은 무서운데 이상하게 귀여워. 티파티는 무척 금방 다가왔다. 애초에 그냥 나이가 비슷한 왕족과 공작가 여식들의 친목 모임정도이니까 질질 오래 끌 것도 없었겠지.‘진정해! 진정해라 라디.’나는 왕궁까지의 마차 안에서 고등학교 시절 많이 느끼던 극도의 긴장감을 맛보고 있었다. 시험 직전의 패닉 비슷한 감정을 여기서 느끼게 될 줄이야. 메디엘과 마주치는 일은 없겠지만. 그럴리 없겠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리 없겠지만...‘마주치면 어쩌지.’가슴이 두근두근하다. 그가 또 나를 보고 인상을 쓰고 화를 내는 것이 상상된다. 나는 그가 나를 싫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강한 스트레스가 몸 깊은 곳에서부터 점점 차오르는 것이 느껴진다. 나는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미움 받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신경 쓰면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참 서툴다.'멀미가 심한 낚시 오타쿠 정도랄까...’나에게 있어서 ‘관계 쌓기’란 그 정도로 한심하다는 이야기다.궁에 도착하자 시종이 마차문을 열어주고 공손히 나를 부축해서 티파티를 하는 곳으로 안내해 주었다.여자아이들만의 다과회답게 예쁘고 아담한 온실에서 티파티는 열렸다. 밖은 하얗게 눈이 내렸는데 따듯한 온실안은 화초가 싱그러웠다. 꽤 운치있었다. 다행히 공주가 혼자 환영해 주었다. 온실에 당도할 때까지 왕자를 만나는 일도 없었다. 나는 그제서야 굳은 표정을 조금 필 수 있었다.‘그렇지. 그렇지. 왕자가 눈치 없이 굳이 이런 자리에 나타날 리 없잖아.’‘이제는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나서 삼키는 침의 끝 맛이 조금 썼다.마리안 공주는 오늘도 천사같은 모습이었다. 그녀의 오빠와 같은 레몬빛 옅은 금발이 산들산들 했다. 뒷머리는 예쁘게 땋아서 꽃과 함께 장식해 놓았다. 생긋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와주셔서 감사해요 라디올러스양.”살짝 목을 기울이며 사랑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미움, 자괴감 같은 불쾌한 것들 따위는 전혀 모르는, 나와는 다른 차원의 존재같았다. 이렇게 삐뚤게 생각하는 내가 싫다. 그녀의 죄는 그냥 사랑스럽다는 것 뿐인데. 마리안은 볼을 발그레하게 붉히며 손의 한 면으로 자리에 이미 앉아있는 다른 한명을 우아하게 가리켰다.“파르펠양도 와 계시답니다.”의자에 앉아있던 짙은 갈색...음. 초코빛이라고 하는 것이 더 와닿는 그런 머리색의 여자아이가 살짝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이 하얗고 눈매가 조금 귀여울 정도로만 치켜 올라간 것이 매력인 예쁜 아이였다. 눈썹앞이 짙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짧은 편인데 지적으로 윤곽은 강했다. 눈동자는 그녀의 머리색과 같은 초코색으로 반짝반짝했다. 그녀는 꽤 똑똑해 보이는 인상이였다.“드디어 라디올러스 양을 뵙게 되다니! 너무 기대하고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아예 안오시는 게 아닐까 걱정될 정도였답니다!”그녀는 예쁘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말의 의미를 파악하자면, ‘너를 엄청 기다렸잖아 이 게으른 기집애야.’ 이거인 듯하다. 내 예상대로 그녀는 꽤 영악하다.“어머나...파르펠양은 아직 모르셨겠지만 부끄럽게도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요...이렇게 기다리시게 하다니 정말 송구스러워요.” 나는 조금 덧없는 표정을 하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하하! 놀랐겠지! 사실 나는 이런 의미 없고 상호 이득을 위한 재미없는 관계형성을 위한 사교모임에 매우 능하단다. 이래봬도 저쪽에서도 ‘아가씨’소리 듣는 여자였으니까. 그쪽에서도 나는 매우 맛좋고 요리하기 쉬운 먹잇감이라 나는 사교 파티만 나가면 공격당하기 일쑤였다. 그 콧대 높고 무서운 성목 자동차 부품회사 사장님 딸은 사실 밖에서 만들어온 자식이라니 얼마나 건들고 싶었을까. 다 커버린 지금은 충분히 이해간다. 처음 파티에 나갔다가 공격에 도망가자 아버지는 몸속에 도는 피가 어는 것 같이 조용히 화를 내셨다. “다시 한 번 그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면 내가 네 얼굴에 마시던 술을 부을 거다.” 싸움에 지는 자식들은 내 자식이 아냐. 라고도 말하셨다. 나는 우습게도, 그 소리를 듣고 조금 기쁜 나를 발견했다.그가 한 말은 바꿔 말하면, 싸움에서 이기면, 그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그 후로 나는 지지 않는다. 집에 가서 조금 울지는 몰라도. 그 사교장 안에서 만큼은 내가 주류이고 내가 승자이다. 아버지를 닮아 똑똑하고 냉정하고 완벽하다. 마침내 파티장에서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아버지는 대외용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역시 피는 못속인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만족감에 화장실에서 조금 울었다. 지금와서야 그리운 옛 이야기 일 뿐이지만.내 말을 들은 파르펠은 조금 당황하는 기색이였다. 파티에 가장 늦게 온 사람을 은글 슬쩍 질타해 보려다 오히려 자기가 몸 아픈사람 닦달하는 여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네가 머리좋아봤자 열...몇살이더라? 아. 동갑이라고 했었나?“아, 아니에요 어서 앉으시죠?”파르펠이 얌전하게 말했다.나는 자리에 앉았다. 하하 또 스콘과 딸기잼이네. 나는 전에 공주가 입었었던 드레스에 대한 애도를 새삼스럽게 했다.공주는 나를 보며 싱그럽게 말했다.“라디올러스양, 전에 별궁에 있을 땐 자주 자주 뵜었는데 이제는 자주 못봐서 서운해요.”정말로 서운해 보인다는 점이 내 양심을 찌른다. 사실 나는 공주 생각 별로 안했는데..“오빠도 자주 만나셨잖아요?”공주는 순진하게 말했다. 공주에게서 메디엘의 이야기가 나오자 다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네... 뭐...뵐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죠.”파르펠이 나를 조금 노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파르펠은 가식적인 미소로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어머나, 왕자님이 마음 씀씀이가 크시고 동정심도 많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시던가요?”‘왕자는 내가 불쌍해 보여서 자주 보러 들렀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건가? 파르펠은 왕자님을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왕자랑 친해 보이는 것이 맘에 안든 걸까? 어느 쪽이든 질투가 눈에 너무 보여서 귀여운 수준이다.“네에... 정말이지 다정하시고 어른스러우신 분 이었답니다.”나는 대충 받아 넘겼다. 나이차가 일곱 살이나 나는 여자아이를 질려하지 않고 놀아주러 온 것을 보면 분명 상냥한 사람이었다. 친동생도 귀여워하고... 어른스러운지는 잘 모르겠지만.나는 이야기의 진행을 위해서 강제로 왕자생각을 하게 돼는 이 상황이 무척 견디기 힘들다. 내 복잡한 심경과는 별개로, 공주는 내 말을 듣고 활짝 웃었다. 분명, 그녀도 자신의 오빠를 좋아한다.“역시 그렇지요! 오라버니는 정말로 멋지신 분이에요!”진심으로 오빠의 칭찬을 들어 기쁘다는 표정이다. 순수하고 예쁜 공주님.“그렇게 멋지신 분이라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던게 참 아쉽네요.” 파르펠이 점잖게 말했다.“저도 어딘가 부러지거나 하면 그런 기회가 생기려나요?”이 얘기까지 마친 그녀는 꽤 밉살맞게 나를 쳐다보았다. 11살에 이정도 비꼬는 재주라니, 그녀가 실제 내 나이 정도 되었을때는 어느정도일런지 무섭기까지 하다.나는 싱긋 웃으며 답했다.“꼭 그런 기회가 생기길 빌어요 파르펠 영애.”‘꼭 어딘가 부러져 보길 빌어요 파르펠 영애.’나도 지지않고 악랄하게 말했다.파르펠이 표정이 굳어져서 나를 보았다. 나는 순진하고 바보스러운 여자아이인양 덧붙였다.“어머나! 생각해 보니 그러면 파르펠 양이 심하게 앓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싫어요 파르펠양~!”그래 나도 오늘 처음본 사이인 네가 진심으로 아프길 바라지는 않는단다. 그러니 까불지 않았으면 해. 모난 돌이 정 맞는 단다.공주는 우리 둘 사이의 안좋은 기류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꽃처럼 웃으며 말했다.“파르펠양~ 아파서 별궁으로 올 것 없이 그냥 오라버니를 만나고 싶을 때 제게 서한을 주세요. 오라버니께서 방학일 때는 그나마 시간이 조금 남으시거든요.”마리안이 조금 생각하다가 박수를 짝 치며 말했다.“그럴게 아니라 그냥 지금 불러볼까요? 오라버니, 오늘은 큰일이 별로 없으신 거 같았거든요.”나는 너무 놀라서 거의 벌떡 일어날 뻔 했다. 아니!!! 됐어요!!!!그런 친절 필요 없어요!!!마리안은 내가 놀라는 반응을 보고 나를 향해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했다.“게다가....”그녀가 눈을 예쁘게 휘며 웃었다. 역시 그녀의 오빠를 연상시키는 미소다.“오늘 라디올러스양과 파르펠양이 온다고 하니까 오라버니가 꽤 꼬치꼬치 캐 물으시 더라고요.”나는 도대체 왕자가 지금 무슨 심정인지 가늠이 안돼서 사고가 마비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에게 화를 내고 싶은 것일까, 화해를 하고 싶은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와 싸우고 어떤 상태인지 보고싶을 뿐인 걸까. 나는 일단 이 급작스러운 전개를 막으려 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됐어요 공주.“고, 공주님 아무리그래도 왕자님도 본래의 스케쥴이 있으셨을 텐데 갑자기 부르는 건 너무 실례가 아닐까요?”내가 안 지어지는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말했다.공주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어머 괜찮을 거에요. 오늘은 별일 없다고 저에게 분명 그러셨는걸요.”파르펠은 얼른 대답했다.“그렇다면! 왕자님을 뵐 수 있게 해주신 공주님의 친절, 감사하게 받겠습니다.”공주는 뭘요~라고 귀엽게 말한다음 시종을 불러 왕자님이 시간이 되시면 부디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부탁하는 전언을 옮기도록 했다. 나는 이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생각되기 시작했다.허억. 숨이 제대로 안 쉬어 질 지경이다. 독대가 아닌 게 그나마 다행인 건가. 그래도 갑자기 늘어난 긴장감에 머리가 욱신욱신 아프다. 정녕 이렇게 왕자를 만나게 되는 건가. 말도 안돼 왜 티파티에 초대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그것도 왕자씩이나 되어서? 지금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고 하고 돌아간다고 할까? 지금? 이 타이밍에 하면 역시 이상하겠지? 아... 그래도, 그래도 하는 사이에 벌써 왕자는 위풍당당하게 온실에 도착해 버렸다.온실의 입구 쪽을 바라보는 위치에 내가 앉아있었기 때문에 나는 왕자가 유리문 바깥에 서서 시종이 왕자가 왔음을 알리는 말을 할 때 기다리는 것 까지 모두 바라보아야 했다. 그는 조용히 기다리면서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위압감, 상상하기 어려운 그의 분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공포 때문에 눈이 마주치자마자 눈길을 내가 들고 있는 찻잔으로 돌렸다. 분명 나는 지금 울상이겠지. 예쁜 찻잔에 담겨있는 차의 표면이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다. 꼴사납게도 말이야.시종이 유리문을 열어주자 그가 저벅 저벅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공주와 파르펠이 둘 다 일어나 그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도 힘없이 일어나려 했다.“아. 라디올러스양이 거동이 안 좋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제가 감히 영애를 일으키겠어요.” 말을 마친 그가 우아한 손동작으로 내 자리를 가르키며 부디 앉아계셔주세요 라고 말했다.마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가공된 것 같은 아름다움이다. 그도 나와 보낸 시간을 없었던 일로 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나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나도 그와의 일을 잊으려고 했었으면서... 정말이지 나도 아이처럼 제멋대로이다.나는 끝내 그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그에게 용서를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쓰며 도대체 언제 사과를 해야 하나 고민했다. 사과를 했는데도 그가 코웃음 치며 웃기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나, 어색하게 내 사과를 받고 겉으로만 웃어준 다음 끝나는 겉핥기식 사과가 되어버려서 우리의 관계는 영영 끝이나면 어떡하나 나는 계속 끝없이 고민했다. 나는 그와의 엉킨 관계가 주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이제는 벗어나 버리고 싶었다. 어떡해서든 거기서 도망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내 자존심같은 건 하찮게 느껴졌다.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어떻고 내가 삼십일 동안이나 그에게 편지를 쓰고 무시를 당했으면 어떻단 말인가. 그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으므로.나는 긴장에 긴장을 거듭하며 그의 눈치만 살폈으므로 그 티파티의 대화에는 별로 신경쓰지 못했다. 그래도 모임은 좋은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다. 대화의 주도권은 역시 메디엘으로, 반짝 반짝 빛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뛰어난 화술을 보여주고 있었다. 내가 별 말도 없고 그의 눈이 마주치면 피하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는 또 조금 화가 난 것 같아 보였다. 그럴려던 게 아니였는데... 내 약함을 그가 조금만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그는 싱긋 웃으며 나에게 말을 걸었다.“라디올러스양. 별궁에서 돌아간 다음에 뭐 특별한 일 같은 건 없었습니까?”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울 뻔했다.이미 모두 그에게 써서 보냈기 때문이다. 특별한 일 같은 것 뿐만 아니라 그 날 그 날 있었던 평범한 일, 그때의 내 기분같은 것을 모두 빼곡이 써서 그에게 보냈었다. 그의 화가 조금 누그러지길 바라며, 왕자가 나를 싫어하질 않길 바라며.내 마음은 그다지 그에게 닿지 않았나 보다.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보낸 편지 따위 읽지도 않고 신경질 적으로 버렸겠지. 그 장면을 나도 모르게 상상한 뒤 나는 또 미약한 어지러움을 느꼈다. 이런, 내가 대답은 않고 조금 멍하니 있어버려서 분위기가 어색해져 버렸다.“아! 그다지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요.” 내 목소리는 처음에 조금 울먹거려서 목이 잠긴척하고 콜록거린 다음에 말을 이어야 했다.“오빠들이 무척 잘 놀아주셨답니다. 제가 아프다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다들 어쩜 그렇게 상냥하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제법 괜찮게 말을 마무리 지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왕자는 내 말을 듣고 “그거 잘됐네요.” 라고 말한 다음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별궁에서 나간 것도 오빠 분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잖아요?”나는 그의 얼굴을 가까스로 바라보기는 했지만 불안감은 뭉게뭉게 커지고 있었다. 역시 나한테 화내고 있다.“정말이지, 빨리 집으로 돌아간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어요.”‘물론, 저는 서운했지만요.’를 한 타이밍 느리게 붙이긴 했지만 ‘빨리 돌아간 게 옳은 선택이었다.’ 라는 것이 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일 것이다. 어서 사과를 해야 한다. 빨리. 그에게 용서를 빌어야해. 그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바란다면 말이야.그렇지만 파르펠과 공주님이 있는 자리에서 대뜸 사과를 할 수도 없는 일 이었다.나는 안절부절만 하다가 결국 티파티는 해산되는 분위기가 되었다.공주와 파르펠이 먼저 일어나고 나도 일어나려 하자 나를 부축해 주러 시종이 다가왔다. 나는 기꺼이 그의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왕자가 입을 떼었다.“아, 라디올러스 양의 부축은 제가 하도록 하죠.”분명, 그도 나와 둘만의 시간을 번 것이다.머리가 긴장으로 핑핑 돌았다. 공주와 파르펠을 이미 꽤 앞에 있었다. 조금만 있음 온실을 나설 것 같다. 말하려면 지금 말해야해.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면서 얼굴을 얼 것 같은 무표정이었다. 그저 내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무서워서 눈물이 핑 돌았다.“용서해 주세요.” 나는 무작정 그에게 사과를 했다. 그가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인상을 찌푸렸다. 아. 역시 용서 안 해주는 건가?“제가 나빴어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의 선처를 받기 위해 비굴하게 굴어버렸다.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불쾌하다는 듯이 말했다.“라디양....제가 무섭습니까?”그 와중에 다시 라디양이라고 불러준 것이 좋을 정도로 나는 비굴하다. 언제나처럼 사랑을 구걸한다.그러나 용기를 조금 얻어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는 더없을 정도로 화가 나 있었다.‘왜지? 사과했는데... 왜 더 화가 난거야?’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는 소리를 질렀다.“나도 그 편지에 답장하고 싶었어! 헬리오랑 산책을 갔다고요? 라디양, 그런 몸이면 너무 힘들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윌로우는 아직도 팔파새만 보면 당신을 놀린다고요? 솔직히 나도 그 새만 보면 당신이 생각나. 아버지랑 이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서 좋다니 축하해요, 나도 기쁘군요. 이렇게 답하고 싶었어.”그는 놀랍게도 내 편지 내용을 줄줄이 꿰고 있었다. 봐 준거잖아...하는 안도감과 도무지 왜 화를 내는지 알 수 없는 당혹감이 복잡하다. 나는 아무말 없이 그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그는 이제 분노의 절정을 넘어 조금은 수그러든 것 같았다.“ 새해 인사에도 꼭 답하고 싶었어... 이제 오빠얘기는 그만 쓰라고도 말하고 싶었어.”“...그럼 왜?” 나는 정말이지 너무나 이해가 안돼서 공포에 떨면서도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그는 나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오랜만에 보는 재규어 같은 모습에 감탄할 여유는 이제 없다.“당신이 내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과 하지 않으면 편지 따위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이잖아.” 그가 낮게 으르렁 댔다.“네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고백의 의미를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아무것도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내 얼굴을 다시 한 번 살폈다. 나는 분명 울기 직전의 얼굴일 것이다.“ 계속 기다린 거야. 네가 사과하기를. 내 고백이 진심이었음을 깨닫기를.”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가 원하는 대로 못해줬으니까.그는 다시 한번 매우 불쾌하다는 듯이 읊조렸다.“당신을 공포로 떨게 만들어 얻은 사과 따위 필요 없다고.”단호한 거절이었다.“...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나는 진심으로 물었다.그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개의치 않았다.“...맞아요. 무서워서 그냥 사과해 버렸어요.”메디엘이 한층 진정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메디엘이 이렇게 화를 냄으로써 내가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면, 그도 나처럼 나를 아직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다.“그건 정말 실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반성해요.”나는 정말로 반성하며 말했다. 그래...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충 사과해버린다는 것은 확실히 정당치 못한 일이었다. 나는 왕자에게 꾸벅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말이 없다. 방금의 그 형편없는 사과가 그의 화를 샀으므로 이번에 나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로 마음먹었다.“왕자님이 좋은데, 왕자님은 저를 싫어하시게 될 까봐 마음이 조급하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미움받지 않으려고 사과한 거예요.”그가 그 깊은 눈동자로 나를 살폈다. 아까보다는 기분이 풀린 것같다.“그치만 왕자님도 너무하세요.”왕자는 한쪽 눈썹을 거만하게 치켜 올렸다. ‘내가 뭘?’이라는 태도이다.“제가 당신의 마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사실은 알고 계시죠?”그가 침묵으로 일관했다. 묵비권인가.“그래서 혼자 생각해볼 시간을 저에게 오랫동안 줘 보신 거잖아요.”정말이지 난폭하고 거만한 방식이긴 했지만.“...저는 그동안 무척 괴로워 했어요. 알고계신가요?”왕자는 진지한 표정을 했다. 하긴 왕자라고 맘이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생각외로.“그치만 정말로 모른 것 뿐이에요. 다리를 저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오는데 오래걸리냐고 하는 건 부당하잖아요. 저는 실제 몸 뿐만 아니라 감정쪽에서도 목발을 짚고있는 거나 다름없어요.”나는 왕자를 보며 씨익 웃었다. 그를 보며 웃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는 그냥 미간을 살짝 좁히고만 있다. 그가 이정도 표정이면 양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어찌되었던...저는 고작 열 한 살짜리 시건방진 계집애인걸요.”나는 얍삽하게도 내 나이를 방패로 삼았다. 사실은 왕자보다도 연상이건만... 나이값 못한다는건 이미 예전에 깨달았기에 부끄럽지도 않다.왕자가 드디어 입을 뗐다.“열 한 살 정도면 첫사랑도 하고 그럴 때 아닌가요?”다시 존대말로 대하다니 화가 많이 누그러졌나보다. 아직도 엄청 불만스러워 보이지만.그나저나 그렇게 공격하기냐... 열 한 살이 첫사랑? 그런가?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때부터 사귀네 마네 하는 것 같긴 하다만... 그게 진짜 첫사랑으로 봐도 되는 건가...“에이... 아직 많이 어리죠...” 나는 살짝 말했다.“누군가를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와 다르다는 것 정도는 눈치 챌 수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그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나는 라디양의 첫사랑부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그가 덤덤하게 말했다.나는 이 풋내나고 거만한 고백을 듣고 얼굴이 화끈해 지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 하는 거야!이런 엄청난 말을 쉽게 입에 올리는 것만 해도 그가 얼마나 어렸던가 새삼 깨닫는다.그가 내 반응을 주의깊게 보더니 말했다.“그러기 위해선 너무도 무감각한 당신에게 조금 일찍 일깨워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는 내 쪽을 향하지 않고 온실 문을 보면서 말했다. 음? 하고 나도 그쪽을 살짝 보았더니 공주가 왜 안나오고 거기에 계속 있냐는 몸짓을 했다. 우리는 걸음을 천천히 떼기 시작했다.“당신이 다른 선택지를 눈치 채기 전에. 오로지 나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나 외의 선택지는 생각도 할 수 없도록.”그가 자신의 오만하게 품었던 생각을 하나씩 나에게 풀어놓았다.“성장한 당신이 이보다도 더 나를 마음대로 휘젓기 전에...”기가 막히도록 자기 중심적 사고라고 생각되면서도, 이 거만한 왕자가 하는 말이기에 조금 귀엽다는 생각도 해버렸다. 나는 가만히 그에게 기대어 걸으며 듣고만 있었다.“확실히 너무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라디양.”그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내려다 보았다. 나는 그가 사과를 하려나? 하고 조금 의외라는 생각을 했다.“그렇다고 제가 잘못을 한 건 아니고, 분명 당신이 너무 느린 것 뿐이지만...”나를 보는 얼굴이 예전의 그 여유로움을 조금 되찾은 듯했다. 여전히 어이없을 정도로 거만한 말이지만 그가 옛 모습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오는 나는 역시 비굴한 것일지 모르겠다.“라디양이 힘들어 했을 것을 생각하면 저도 안타깝군요.”그가 또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덕분에 표정은 보지 못했다. 근데, 이게 그 나름의 사과인 건가? 허어... 뭐. 그와 어울린다.“그래요. 저는 아직 너무 어려요.”‘당신도 어리고 말이죠.’는 말하지 않았다.그는 나를 위해 우아하게 온실 문을 열며 말했다.“그러고 보니 당신 양어머님도 16세에 결혼하신 것을 알고계십니까?”.... 무슨말이 하고싶은 건지는 알겠는데...그래... 음... 인정해 내가 좀 이상한거 나도 알아요 왕자님. 그래도 진짜 잘 모르겠는 걸 어떡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걸.“곁에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려요. 아둔한 사람이니까요.”그저 문을 열어준 답례로 살짝 목례하며 겸사겸사 말했다. 그래.. 나도 언제까지나 복잡하고 힘든 감정들에게서 도망만 칠 수는 없을 것이다.그가 내 대답에 만족스러운 듯이 웃었다.“오늘 한 말 중에선 그나마 제일 맘에 드는 군요.”나는 역시 이 왕자에게 져 버린 거겠지? 조금 억울한 심정에 말했다.“그래도 왕자님도 충분히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그가 나른하고 관심없다는 듯이 말했다.“아 저요? 물론 이상하죠. 이상하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내가 ‘무슨 뜻?’ 이라는 얼굴로 쳐다보니 그가 업신여기며 말했다.“이상하다는 건 평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애. 모두들 평범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잖습니까?” 그가 씨익 웃었다.“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저는 당연히 이상할 수 밖에요.”가슴을 나른하게 쭉 뻗으며 그가 말했다. 참 자신에게 자신감있는 사람이다.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과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파르펠과 공주는 우리들을 꽤 기다린 것 같았다. 파르펠은 왕자와 내가 단 둘이 온실에 들어가 있었던게 마음에 안드는지 계속 투덜거렸다. 왕자는 싱긋 웃는 얼굴로 파르펠에게 “죄송합니다. 말하려고 했다가 잊은 게 있어서요.” 라고 그녀를 입 다물게 했다. 저런 쉬운 무기가 있어서 왕자가 참 부럽다.나를 마차까지 에스코트하고 나서 마지막이 되자, 그는 작별인사를 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진지한 얼굴로 소곤거렸다.“그렇지만, 라디양이 그런 울 것 같은 표정 짓게 해서.... 그것만은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얌전히 있겠습니다.”일일이 하나하나 공손한 듯 거만하지만, 진심인 것 같았다. 나는 그와 정말로 화해 한 것 같다는 생각에 활짝 웃었다.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조금 쓴웃음 지었다.“안녕히 가십시오. 이제 또 한동안은 뵐 수 없겠군요.”그렇게 말하고는 내 마차를 향해 우아하게 허리를 조금 숙였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왕자님의 자태였다. 엉망진창으로 스트레스만 가득했던 티파티가 좋게 좋게 마무리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왕자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럭저럭 화해한 것 같아서 기분이 무척 좋았다.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혀주는 베라에게 말했더니 베라는 말했다.“어머나, 그렇게 다시는 안 보실 것처럼 고집을 피우시더니.”“...그러게말야...” 나는 부끄러워졌다.베라는 그냥 다행이라는 듯이 내 옷 매무새를 정돈했다.“역시 어린 사람들은 화해를 쉽게 한다니까요? 부러워요.”하나도 안 쉬웠어 베라... 긴장감에 토할 뻔 했다고...! 이런 대인관계 고민보다 공학수학 같은 게 훨씬 쉬웠어....남는 시간엔 마법 이론 책을 조금 읽어보다가 밤이 되자, 얼른 미카엘에게 향했다. 이 기쁜 소식을 얼른 내 친구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미카엘!” 내가 그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밝게 불렀다.그도 밝게 웃어주었다.“아~ 어서와 공주. 오늘 티파티에서 왕자는 안 만났나 보네?”오 미카엘은 내가 오늘 티파티 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나보다.나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에게 줄 음식을 꺼내며 말했다.“아냐. 만났어~.”음. 오늘은 햄버그다. 야채도 들어가있어서 꽤 맛있었다.한 조각을 포크에 집어서 그의 입가에 대며 말했다.“있잖아, 무려 화해했어!”그가 잠시 멈칫 하더니 받아먹었다. 꽤 오랫동안 말없이 씹기만 했다. 미카엘이 묘한 표정으로 있기에 나도 그냥 그가 밥 먹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다. 축하 안해주네…“...그 사람 엄청 무서워하더니 금방 화해했네?”그가 이내 씨익 웃으며 말했다.“쉽게 화해하진 못했어. 내가 그냥 그 서먹함을 모면하려고 되는 대로 사과해 버렸거든.”내가 고기를 하나 더 건넸다.“그랬더니 엄청 무섭게 화냈어! 너무 무섭더라. 애라고 무시하지 않는 대신 애라고 봐주지도 않는다니까? 깐깐 왕자.” 그가 우물거리는 것을 보며 혼자 말했다.“근데 결국 어찌저찌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화해했어.”음... 왠지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아마 화해는 한 것 같아.”내가 자신없게 덧붙였다.그가 어느새 입 안에 있던 것을 모두 삼키고 소년같이 웃으며 말했다.“라디는 그 왕자님 진짜 좋아하는 구나.”나는 가볍게 즉답했다.“응. 좋아. 멋지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게 신기해.”그는 내 대답을 보며 그렇구나... 하고 웃었다.문뜩 내가 왕자님에 대해 '좋아'를 연발하고있는 사실이 쑥스러워져서 나는 말을 덧붙였다. 지금껏 말했던 '좋아'는 이성 간의 좋아 가 아니라는 의미로.“미카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생활할 수 있어서 요즘 엄청 행복해.”미카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뭐... 맨날 먹을 거 가져다주는데 싫어하진 않겠지.미카엘은 그 말을 듣고 ‘하하 누가 물어봤어?’ 이정도로만 반응했다. 뭐...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별로 서운하지도 않다.미카엘은 내가 한 조각 더 내미는 것을 살짝 밀어 낸 다음에 입을 열었다. 여전히 싱글벙글이다. 뭔가 말하고 싶은 걸까.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얌전히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있잖아 라디...”그가 진지한 눈빛을 보냈다.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긴 하다.“사실... 나 옛날에 여동생 같은 게 있었어.”미카엘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근데 ‘여동생 같은 거’ 라는건... 뭐지?“너무 옛날 일이라 그 아이가 내 친동생인지 뭔지도 잘 기억 안 나. 아무튼 그 잭의 길드에 보내졌을 때도 항상 내 주위에 있었어.”그가 그리운 듯이 웃었다. 잭의 길드라면... 그 암살자 길드를 말하는 건가? 그는 분명 예전에 그 곳에서 허드렛일을 했다고 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처음엔 나처럼 그 곳에서 일을 하라고 보내진 애들이 꽤 많았어. 왜 이렇게 많이 사들인 걸까? 하고 별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그 애들 중에서 쓸 만한 애들을 뽑으려고 그렇게 많이 모은 거였었나 봐.” 나는 침을 삼켰다. 불길해. 슬픈 이야기 일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조금 일을 시키더니 나랑 애들 몇 명을 어떤 방으로 부르더라고? 주위에는 인상 험악한 아저씨들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서있고 말이야.” 그는 남의 일을 이야기 하는 것 처럼 태연하게 말했다.“그 아저씨들은 우리한테 말했어. 이중에서 한 명한테만 이 길드에서 일하게 시켜준다고. 우리는 딱히 이 길드에서 일을 하고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멀뚱하게 서 있었어. 근데 그 말을 한 아저씨 말고 다른 아저씨들이 말을 끼어드는 거야. 어이, 곤란하잖아?하면서...”미카엘은 구연동화처럼 꽤 다른 목소리도 써가며 실감나게 말했다. 조금 키득거리면서.“명색이 암살자 길드인데 그럼 일할 애 말고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해?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몰랐는데, 아저씨들이 얼굴이 싹 변하면서 씨익 웃는거야. 이 길드의 위치를 아는 놈을 어떻게 살려둬? 라고 말하면서 말이지.”그는 정말이지 재밌는 농담을 한 것처럼 웃었다. ‘싸구려 연극까지 하고말이야~’ 라며 배를 잡고 키득댔다. 나는 너무 잔혹한 이야기의 진행에 혈액순환이 잘 안돼서 손이 차가워 지는 것을 느꼈다. 말이 없는 나를 한 번 쓱 본 다음에 미카엘은 말을 계속했다.“아저씨들은 ‘자~ 너희도 우리가 아무나 한명 잡아서 살리고 다 죽이는 것은 싫지? 무기를 줄 테니 서로 싸워보렴.’ 하고 말했어. 그 때에는 나도 좀 떨렸던 것 같아.”지금은 떨림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 미카엘은 말했다.“우리는 어떡해야 하나 서로 눈치를 보고있는데, 웬 덜떨어진 한명이 갑자기 그런 짓은 못해요~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 아저씨는 그래? 그럼 안 되지... 하면서 꽤 자상한 목소리를 냈지. 나는 봐주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 울음을 터트린 애는 꽤 어렸거든.”그런 말을 한 미카엘도 그때는 어렸을 것이다. “역시 봐주지는 않더라고~ ”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계속해 나갔다.“‘탈락!’ 이라고 밝게 말하더니 그 아이의 목을 으득 하고 꺾었어. 무기도 없이 정말이지 무슨 모기잡는 것처럼 간단히 죽이더라고. 아이는 금방 조용해 졌어. 주위에서 구경하던 아저씨들은 ‘아 넌 정말 저질이라니까?’ 라고 농담섞인 야유를 하긴 했지만 다들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어.” 나는 너무 잔혹한 그의 이야기에 나도모르게 입을 막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내 반응을 보고 “하하 너무 겁먹지는 마.” 라며 머리를 툭툭 두드렸다. 그리고는 말을 계속해 나갔다.“그 곳에 남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했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깨달았지. 그렇지만... 내가 그곳의 다른 누구보다도 빠르게 행동했어.”그는 내 얼굴을 살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고 싶었던 것 같았다. 나는 그래도 미카엘이 별로 싫어지지 않았다. 미카엘은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손을 뻗어서 그의 뺨을 조금 건드렸다. 그는 씨익 웃었다.“그 애들이 칼을 집을 수 없도록 내 것만 들고 다른 것은 발로 차서 멀리 떨어뜨렸어. 그리고는...한 네명? 그정도 죽였던 것 같아. 아저씨들은 제법이라고 휘파람을 불기까지 했어.” 나는 그의 이야기가 끝난 줄 알고 반응을 보이려 했다. 그러나 미카엘은 아직 이야기가 더 남았다는 몸짓을 했다.“더 중요한건 이다음이야 라디. 나는 물론 그 때 별로 기분이 좋지 못했어. 사람은 처음 죽인 거니까. 하지만 그 아저씨들이 문을 열어주고 ‘합격!’이라며 다시 내 숙소로 돌아가게 해 줬을 때 내 여동생을 다시 볼 수 있었다는 게 더 기뻤던 것 같아.” 그는 잘 생각이 안 난다는 듯이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뭘까. 그에게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불안해 하며 들었다.“숙소에 갔더니 그 애가 없는 거야. 뭐, 그 애 말고도 없는 애가 태반이였지.”나는 ‘설마!’ 하며 그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을 꾸욱 주었다. 그는 그 손을 바라보며 어쩔 수 없다는 말투로 말했다.“그래~. 내가 들어간 방 말고도 여러 방에서 테스트가 있었던 거지. 내 여동생 이었던 것 같은 그 아이는 ‘탈락’이었던 거고.”나는 결국 조금 울어버렸다. 나는 꽤 조용히 눈물을 억누르며 울었기 때문에 그는 말을 계속했다.“처음에는 너무 분해서 조금 날뛸까 생각도 했던 것 같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죽였던 거야. 내 여동생과 비슷한 나이 대의 아이를. 나는 화 낼 처지가 아니였던거지.”그는 숙이고 있는 내 머리를 조금 쓰다듬으며 ‘울지마 라디.’라고 속삭였다. 조금 나를 달래다 마저 이야기를 끝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는 걸 관뒀어.” 그는 밝게 말했다.“누구를 생각하고, 애정을 쏟느니 하는 건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사치라는 걸 알아차렸거든. 그 ‘테스트’가 감정하는 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고 말야.”내가 울다가 그의 의미심장한 말에 살짝 고개를 올리자 그는 씨익 웃으며 ‘궁금하지?’ 이런 얼굴로 말했다.“그 후에 몰래 복수심 같은걸 품고 있다가 길드한테 반항하는 아이들이 생기더라고. 아저씨들은 주저하지 않고 걔네들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더군. 이제 길드에는 명명백백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지.”그는 손가락으로 내 눈물을 닦았다.“라디, 나는 거기서 꽤 적응을 잘했던 것 같아. 살아남은 것도 나뿐이고 말이지. 내가 제일...‘자기밖에 몰라.’.”나는 그 말을 하는 미카엘이 가여워서 엉엉 울어버렸다. 혹시 소리가 크게 새나갈까봐 맘껏 울지는 못했지만 복받쳐오르는 슬픔을 막을 수가 없었다.미카엘은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숨죽여 우는 내 머리카락을 살짝 살짝 쓰다듬으며 그가 말했다.“라디.. 나를 동정하는 거야?”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아니, 차마 대답하지 못한 걸까.“좋아... 동정해도. 나를 가여워해도 좋아.”그가 달콤하게 말했다. 나는 오른손도 마저 그의 손을 잡았다. 아직 얼굴에서 눈물은 뚝뚝 떨어졌지만.“내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참혹한 이야기야… 너무 충격적이야 미카엘. 그치만 네가 속 마음을 말해줘서 난 너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니가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울음 때문에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왔다. 그래서 ‘진심이야.’이 말까지 마저 하지는 못했다. 그는 내 말을 듯고 기쁜듯이 대답했다.“응. 이 이야기를 남한테 한 건 네가 처음이야.” 그가 하하하 웃었다. 그리고선 별다른 말 없이 내가 우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기 때문에 한동안 감옥에는 내가 훌쩍 거리는 소리만 들렸다.미카엘은 돌연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왜 나는 이 이야기를 굳이 너에게 하려고 했던 걸까?”“?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에게 일일이 의미부여 해봐야 나중에 귀찮아질 뿐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살아가는 데 하등 도움도 안된다고 너에게 말까지 해놓고선 왜 정작 나는 너에게 이렇게 동정이라도 받고 싶어하는 걸까...”그는 조금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았다.나도 인간관계에 서툴지만 미카엘은 나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았다. 그는 아예 그딴거 필요없다고까지 말한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건넸다.“음... 조금은 좋지 않아? 친구 같은 것도?”그는 콧방귀를 끼며 내 말을 무시했다.“아아... 그딴 게 제일 필요 없어. 친구니, 연인이니 가족이니 하는 거 말이지.”나는 조금 시무룩해졌다. 그럼 나는 뭐야...그는 내 얼굴을 관찰하듯이 들여다 보았다. 그의 옅은 눈동자의 가슴까지 서늘해 지는 것 같다.“아직은... 아직은 괜찮을지도 몰라. 네가 잘해줘서 조금은 물들어 버렸는지 몰라도.”“뭐가?”그는 순진한 소년같이 웃으며 말했다.“아직은 내가 살기 위해 너를 버릴 수 있어.”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기보단 슬퍼졌다.“미카엘... 사람 사귈 때 그렇게 일일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 마.”그는 항상 최후의 순간 상대의 가슴에 칼을 꽂을 수 있는가를 재면서 살아온 것일까. 너무 슬픈 생활이다. 제발 미카엘이 행복해 질 수 있길...진심에 진심을 담아 기도해 본다.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와 역시 라디는 대인배야 화 안내네?”“뭐...솔직해서 좋네.”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확실히 미카엘이랑 너무 오래 같이 있다보니까 나도 좀 기준이 이상해 진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말을 계속했다.“미카엘이 나를 배신 안 해도 될 만큼 열심히 할게.”그는 아무말 없이 나를 물끄러미 보았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다.“네가 왜 열심히 해.” 어이가 없다는 말투였다.“그치만... 미카엘. 너는 여태까지 너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을 산 것 같아. 예전에 한 일들... 별로 후회도 안 하잖아? 그치?”“뭐... 그렇지. 그런 못된 짓거리들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거야.” 그가 사람좋게 하하 웃었다.미카엘은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겹게 살아왔을지 모르겠다.나는 신중하게 말을 했다.“그래. 이번에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네가 슬픈 선택을 하지 않도록. 네가 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일단 이 감옥에서 그를 꺼내주고 싶다.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그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렴 어때하는 말투로 말했다.“어쨌던 지금은, 네가 이 감옥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는 것으로 족해.”“무슨 소린지 모르겠네.”“너에게 받는 동정은 꽤 기분 좋다는 얘기야.”그는 그저 그렇게만 말하고는 밥을 다시 달라고 했다. 여전히 자신의 손은 쓰기 싫어한다. 아까 자기를 가여워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은근히 나에게 어리광을 부린다.‘엄마랑 어렸을 때 떨어져서 그런건가?’나는 곧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의 어리광은 물리치기 어렵다. 나는 너무 미카엘에게 무른걸지도 모르겠다.내가 조금 멍하니 생각하고 있으려니까 그가 말을 걸었다.“오늘 디저트는 뭐야?”“아. 슈크림이야.”뭐어... 별로 상관없나.나는 그에게 줄 슈크림을 꺼냈다. 어느 기분좋은 날. 나는 아카데미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 공부를 하고 난 다음 쇼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이 세계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역사 같은 것은 완전 쥐약 이였지만, 그 외에 것은 어려워 봤자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것이라 나는 곧잘 마법관련 서적만 보았다. 공부를 하는 것은 꽤 보람찬 일이라 나는 별로 공부를 싫어하지 않았다. 다만 밤에 미카엘을 만나러 가는 일이 잦아서, 나는 자주 이렇게 낮에 졸곤 했다.“아가씨 메디엘 왕자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베라의 목소리가 나를 깨웠다. 왕자는 화해한 후에 밀린 편지의 답장을 보내고 있다. 그의 글씨체는 단정한 듯 화려해서 왕자 본인과 꼭 닮았다. 별 시시껄렁한 이야기나, 나를 얕잡아 비꼬는 말이 거의 전부였지만, 일일이 정중하게 써 보내주고 있다. 아, 평화롭기도 하지.“어머나, 주무시고 계셨던 건가요? 죄송해요.”“아~ 아냐 아냐. 편지 전달해 줘서 고마워 베라.”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여 목례를 한 다음 문을 나서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다시 돌아와서 누군가 찾아왔음을 알렸다.“라디올러스님, 주인마님께서 오셨습니다.”“오, 엄마가?”엄마가 우아하게 미끄러지듯이 들어와서 나를 살짝 껴안았다.“라디~ 공부는 끝났니?”“응! 이제부터는 자유시간이야.”엄마는 그 말을 듯고 화사하게 웃었다.“어머나~ 그러면 이 엄마랑 파이를 굽지 않을래?”저번에 얘기했던 그 크림파이 이야기인듯 싶다. 와 엄마가 오늘은 시간이 났었나 보다.“와!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지?”엄마는 조금 쑥스러운 듯이 볼을 붉히며 말했다. 이럴때마다 엄마는 참 소녀같다. 아. 실제로도 꽤 젊은 나이기도 하시지만.“응 그렇단다. 하지만 오랜만에 하는 거라 실수해도 눈감아주렴.”“헤헤 모르겠어. 어느정도인지 보고.”나는 조금 짓궂게 말했다. 엄마는 요녀석 하고 살짝 볼에 키스해 주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지? 감격이다.부엌식구들은 우리가 베이킹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세팅을 끝내 놓은 상태였다. 엄마가 미리 말해 놓았나 보다.엄마는 실수할 것이라며 겸손하게 말했지만 거의 완벽에 가깝게 예쁜 크림 파이를 만들었다. 만들어진 파이에서 달콤한 향기가 기분좋게 퍼졌다.“와 엄마, 프로같아...”내가 감탄하는 것을 듣고. 엄마는 또 부끄럽다는 듯이 양손으로 얼굴을 살짝 가렸다.“얘도 참 아부에 능하구나, 주방의 체샤부인이 들으면 비웃을지 몰라.”정말 귀여우시다 우리 엄마는.“이거 다같이 나눠 먹어도 되지?” 내가 파이 각 각의 포장을 도우며 말했다.“응, 물론이지 많이 만들었으니 나눠 먹으렴, 오빠들이랑...그 사람, 너희 아빠에게도.”엄마는 조금 자신없다는 듯이 말했다.‘미카엘에게는 꼭 먹여야 겠고... 아...둘째 오빠는 어쩌지.’나는 일단 제일 중요한 아빠에게 크림파이를 날랐다.아빠는 오늘 조금 일찍 돌아오셔서 서재에서 업무를 마저 보는 듯 했다. 다행이다. 아니, 엄마가 그걸 알고 오늘 파이를 구운걸까?나는 아빠의 서재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아빠, 라디에요. 들어가도 돼요?”조금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럼 물론이지~하는 대답이 들려왔다.들어가자, 아빠는 당신의 책상 앞에 의자를 놓아주었다.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파이를 자랑했다.“아빠! 엄마랑 구운 파이에요! 엄청 잘구워져서 드릴려고요. 같이 드셔주실래요?”아빠는 조금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와...엄마랑? 그럼! 물론이지.”아빠는 시종을 불러 파이와 같이 마실 차를 부탁했다. 나는 포장을 풀어서 파이를 내놓았다. 그러자 아빠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는 것이 보였다. 뭐지? 무슨일이지?“혹시...크림 파이니?” 목소리가 매우 가라앉아계셨다.“음...네? 그런데요.. 별로 안좋아하세요?”아빠는 떨리는 듯이, 그러나 이상하게도 슬픈듯이 말을 뱉었다.“응...제일 싫어해.”뭐어?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가 아빠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 파이를 만들었단 말야? 이렇게 번거롭게? 나는 아까 엄마가 정성들여서 파이를 굽는 장면을 회상했다. 조금은 걱정스러운듯, 그러나 세심하게 정성을 들이던 엄마였다.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아빠한테 다급하게 말했다. 아빠는 당장이라도 파이를 물리고 일을 시작할 것만 같았다.“아, 아빠! 그치만 엄마가 무척 정성들여서 만드셨단말이에요.”아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그사람은 아직도 내게 화가 난거야.”“아닌데... 분명히 아빠가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잘만든다고 칭찬도하셨었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아빠가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생각지도 못했다는 반응이다.“웃으면서 말했다고?”“? 네.”“아니... 그럴 리가... 아... 정말 말도 안되는구나...내가 여태까지 뭔가 착각한걸까?”아빠는 한참을 말없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턱을 괴었다.아빠는 시종을 불렀다.“라디, 네 엄마를 만나봐야겠구나.”다급하게 아빠가 뛰쳐나갔다. 뭐지!? 안드시나? 어? 무슨일이야. 또 싸우시는 건 아니겠지.이번에 싸우시면 내가 오지랖을 떤 탓이다.나도 목발을 허둥지둥 챙긴 다음 서둘러 따라갔다.아빠는 얼마나 바쁘게 나가셨는지 내가 복도에 나왔을 땐 이미 보이지도 않았다.시종에게 물어보니 엄마는 엄마 서재에서 차를 마시고 계시다고 한다. 아빠도 아마 그쪽으로 가셨겠지. 나도 걸음을 옮겼다.빨리 엄마 서재로 가려고 급하게 걸으려니 발도 꼬이고 난리였다. 코너를 휙 하고 정신없이 돌다가 휴리안 오빠와 부딪혀서 넘어질 뻔 했다.“앗 라디!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거야?”휴리안 오빠는 화도 안내고 웃으면서 나를 부축해 주었다.나는 당황하며 말했다.“오빠? 미안해! 안 부딪혔어?”“어. 너무 멀쩡해.” 그가 싱긋 웃었다.“지금! 엄마 서재로 가는 중이야. 어떡하지 오빠? 나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싸울지도 몰라.”나는 걱정이 돼서 별 생각 없이 오빠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어서 자리를 뜨려했다.“무슨 일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네가 거기로 가다가 십중팔구 넘어질 것 같다는 건 알겠다.” 오빠는 나를 훌쩍 안아들었다.“으아... 오빠! 오빠 어디 다른데로 가려던 거 아녔어?”“아냐. 나야 늘 한가하지 뭐.”거짓말이다. 오빠는 후계자의 부담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항상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다. 오빠는 내 만류에도 나를 안고 빠른 걸음으로 엄마 서재에 나를 데려다 주었다.아빠는 벌써 옛날에 도착해서 방안의 엄마와 대화중인 것 같았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문이 조금 열려있었다. 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나는 들어가야하나 조금 고민을 했다. 문틈에서 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나와 휴리안 오빠는 방문 옆에 붙어서 엿듣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그 파이는 저를 나무라는 의미가 아니셨습니까?”파이라니 뭔가 귀여운 주제이지만 아빠는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듯 했다. 아빠는 나이차가 한참 나는 엄마이지만 꼭 존댓말을 했다. 음...그러고 보니 약간 왕자와 비슷한 말투인 것 같기도 하고...“....나무란다고요? 무슨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엄마는 미간을 찡그리며 말했다. 불쾌하고 이해안된다는 듯 되묻는 말에 아빠는 조금 주춤하시는 것 같았다.“그렇지만... 크림파이는...우리의 첫 아이를 위해 연습하던 것이었으니까...”“...무슨 소리죠?”아빠가 괴로운 기억을 떠울리는 듯 머뭇거리며 말했다.“크림파이는 ...곧 태어날 아기에게 생일마다 만들어줄 것이라고 비밀레시피로 열심히 연습하던 것이었잖아요.”“...그런데요?”“저는 우리의 첫 아이가 하늘로 간 이후에도 말없이 그 파이를 제 책상 위에 올려두시는 그 행위가 저를 나무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아빠는 꽤 큰소리로 고통을 토해내듯이 듯이 고백했다. 엄마는 노여움과 놀라움이 섞인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다.“제가 그래서 제가 당신을 비난하기위해 그 파이를 구워서 일부러 당신에게 주었다고 생각했던 거에요?” 엄마는 모멸감마저 느낀 듯 했다.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울먹거렸다.“그게 아니고...” 아빠가 당황해 했다.아빠는 안절부절 못하더니 이내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당신은 결혼할 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는데...”“하나하나 무슨소리인지 도통 모르겠네요!”결국 엄마도 소리를 높였다.아빠는 이제 될 대로 되라는 듯이 말했다.“내가! 역겹게도! 열 살이나 어린 당신을 권력으로 사들이듯이 결혼했으니까!”“...”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 표정도 보이지 않아 엄마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알 수 없었다.“당신이라면 누구와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냈을텐데. 원치않는 결혼후엔 아기도 불운하게 되고.. 저는 전쟁통에 업무가 많아 슬퍼하는 당신과 함께 슬픔을 나눠주지도 못했습니다...이런 나를 혐오하는 것도 당연하지요.”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둘 사이에는 조금 침묵이 흘렀다. 나는 여기에 계속 있어도 되는 것인가 이 말을 들어도 되는 거였을까 매우 고민되기 시작했다. 나 때문에 괜히 휴리안 오빠까지 엿듣는 동료로 만들어버렸다. 오빠가 무슨 표정일지 무서워서 못보겠다.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그래요. 당신은 확실히 저질이었어요.”“...” 이번에는 아빠가 아무말 않고 듣기만 했다.“갑자기 막무가내로 결혼을 하자고 하더니 결혼 후엔 내팽겨쳐놨죠.”“...에르디앙....” 아빠가 엄마 이름을 부르는 것은 처음 보았다.“나는 그때 하나 남은 자존심은 지키려고 꽤 모범적으로 공작부인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해요. 그 와중에 딸은 죽고 말았고... 몸도 많이 망가졌죠."그녀가 흥분과 슬픔을 참느라 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그래도 역시... 당신과는 다시 웃으며 지내고 싶었어요."아빠는 그말에 놀란눈이 되었다. 그러나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태어날 아이를 기대하며 부모가 될 준비를 하던 즐거운 순간이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조금 서먹했던 당신이 처음으로 아이처럼 좋아하며 제 파이를 칭찬했었죠. 그래서 몇번이고 파이를 구워서 당신의 서재에 놓았어요. 다음날 그걸 소재로 당신이 말을 걸어줬으면 해서. 슬픈일이 있었지만 다시 이겨내면 된다고 서로를 북돋고 싶었어요.”“ 에르디앙 오해였습니다...” 아빠가 정말 후회한다는 듯이 말했다.“다음날 당신은 인사도 없이 일을 하러 가시더군요. 서재로 가보니 제 파이는 입도 대지 않은 상태였고요. 매번. 매번” 엄마는 그저 술술 있었던 사실을 얘기해 나갔다.“...정말 뭐라고 할 말이...”“나는 당신을 미워하기 싫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더 비참해 질 것을 알기에. 하지만 저와 서먹한 날을 지내던 당신은 끝내 휴리안 군을 데려왔죠.”나는 깜짝 놀랐다. 휴리안 오빠를 살짝 쳐다보았다. 오빠는 상냥하게 웃으며 못된 장난을 치는 동료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어쩌지... 오빠가 이 이야기에 괜히 마음을 다칠 것 같다. 나는 오빠의 손을 꼭 잡았다. 오빠는 또 미묘하게 표정을 일그러 뜨렸다.엄마는 이제 평정을 조금 잃은 것 같았다.“당신은 정말...확실히 저질이에요! 못된 사람이였어요. 휴리안 군은 하나도 잘못한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엄마는 조금 울먹였다.“그 때는 나도 겨우 17살 이었단 말이에요! 나도 그 착한 아이를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좋아할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엄마는 이내 눈물을 쏟았다. 아빠는 계속 죄송합니다 에르디앙양.. 이라는 말만 중얼거렸다.나는 휴리안 오빠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나는 오빠가 좋아.” 발밑을 보며 그냥 그 말만을 나지막히 말했다. 오빠가 들었을 지는 모르겠다. 오빠는 내 손을 자신이 잡아주지는 않았다. 끝까지 그저 내가 잡고 있을 뿐 이었다.“나는 그냥 당신과 웃으며 지내고 싶었어요!어떻게든 털어내고 싶었어요!”엄마가 괴로운 것을 삼키듯이 말했다.풀썩하고 옷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아마 아빠가 엄마를 껴안은 것 같다. 엄마는 그걸 벗어나려고 꽤 발버둥 치는 듯 했지만 아빠는 놔주지 않았다.“그런데 당신은! 보란 듯이 제르다민군, 헬리오군, 윌로우군까지 무작정 데려와선 방치라니...! 도대체 얼마나 한심한 거에요!!”아빠는 엄마가 잠잠해 질 때까지 그저 묵묵히 말을 듣고만 있다가 입을 열었다."그 아이들은 사창가에서 떨고있는 아이들을보니 불쌍해서...휴리안과 잃어버린 첫 딸이 생각나서..."'뭐라고?!? 그럼 휴리안 오빠 말고는 피가 안이어진 양자인가? 그냥 불쌍해서 입양한거라고 들리는데??'나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낼뻔했는데 나말고 식구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는지 너무나 침착하게 넘어가고있었다. 휴리안은 살짝 입모양으로'다른사람에겐 비밀이야'라고 하고 말 뿐이었다.“나는 처음부터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수록 당신 말대로 이렇게 한심하고 멋대로여서...”“....” 엄마는 기가 찬 듯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그저 당신이 나를 계속 나무라고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의 자격지심때문에..."‘으아... 휴리안 오빠는 지금 심정이 어떨까...’ 남세스럽게도 오빠의 탄생비화를 오빠와 손잡고 문밖에서 엿듣고 말았다.“휴리안... 그 아이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데리고는 왔지만... 그 때 당신의 눈을 보고 이제는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당신에게 정말로 끔찍한 짓을 한 것 이었으니까.”“....그렇다면 당신이라도 그 아이를 잘 돌보았어야죠... 당신도 그 아이를 잘 만나주지 않으니까... 나는 걱정은 되지만... 그렇지만 내가 가면 그 아이 조금 긴장해 버리고... 그걸 보면 또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없는 내가 끔찍하고...” 엄마는 아빠를 원망했다.“...나도 ... 그 아이를 만나면 ...당신이 생각나버려서...죄송합니다...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휴리안에게도.”아... 휴리안 오빠 지금 무슨생각하고 있는 걸까... 중간부터는 내가 오빠의 손을 잡고 나서려고 해도 오빠가 그 자리를 계속 고수했다. 실수했다. 오빠를 이자리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지.. 어쩌지...“휴리안 오빠야 말로 세계 최고 오빠 상 감이야... 오빠가 제일 좋아...” 나는 한심하게도 오빠가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해서 말도 안되는 말만 계속 중얼거렸다. 오빠에게서 대답은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아빠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에르디앙 양...여기서 용서를 구하는게 얼마나 뻔뻔한 일인지 알지만...한번 더 기회를 주실 순 없나요?”그러고 보니 아빠는 아직도 엄마를 에르디앙 양이라고 부른다.“...! 당신이란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철이 없는지..!!! 이미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틀어져 있었어요. 웃기는 소리 말아요.”“...”엄마는 혼란스러워 했다.“정말이지..! 이제와서!... 이제와서..!!” 엄마는 눈물을 흘리는 듯 했다.“...정말로 죄송합니다. 에르디앙양.”“ 이렇게 간단히 용서를 구할 생각하지 말아요!”“...알고있습니다. 이 죄는 평생을 걸쳐 갚겠습니다. 부디...”엄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울음을 터트렸다.거기까지 듣고 나자 휴리안 오빠는 내 팔을 잡아 끌어서 안아들고 그 방문 앞을 나섰다.오빠는 내 시선을 알아채자 싱긋 웃기만 하고 아무소리도 하지 않았다. 휴리안 오빠는 분명 평소와 다름이 없는 것 같은 데 나는 왠지 모르게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조금 걸어서 엄마의 서재에서 벗어난 그는 말했다.“이야.. 라디. 우리 왠지 못된 짓 해버린 것 같네?”“응...저기 오빠, 미안해.”나는 사과해 버리고 말았다.그는 이상한 것을 보는 듯한 눈을 하고 말했다.“네가? 왜?”“...”오빠는 잠시 나를 보는 듯 하더니 내 머리를 두 번 토닥이고 가버렸다.“하하 라디, 이제 슬슬 가자. 너도 방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나는 복도에 오도카니 남겨졌다. 오빠가 여기까지 안아서 옮겨줬으므로 현재 나에겐 목발이 없었다. 그렇지만 오빠는 한 번도 뒤돌아보는 일 없이 성큼 성큼 가버렸다. 내가 목발없이 벽에 기대어 선채 오도카니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오빠의 뒷모습이 너무 서먹해서 감히 오빠를 멈춰 세우지 못했다.나는 그냥 벽을 잡고 휘청 휘청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그 후의 공작가는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다시 만난 휴리안은 여전히 친절하고 상냥한 이상적인 오빠였다. 다만, 아빠는 매일 같이 엄마의 서재를 찾아가 차를 한잔 마시고 왔다. 처음에 엄마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지만 아빠는 식은 차를 여러 번 다시 데워 오면서까지 끝끝내 그 문 앞을 지켰으므로 결국 문은 열어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아빠는 정말 거의 ‘차만’ 마시고 오는 것 같았다.내가 지켜본 바로는 아빠는 그냥 엄마가 일을 하는 책상 옆에 억지로 의자를 끌고와서는 엄마가 일하는 것을 보며 차를 마시고 계신다. 그냥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엄마가 듣던 말던 옆에서 계속 말씀하신다. 엄마가 계속 무시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라고 대답이라도 하는 날엔 하루종일 싱글벙글이시다.‘꽤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야 할 거예요 아빠.’엄마를 그렇게 슬프게 했으니 당연하다.그건 그렇고 나의 상황은 꽤나 평화롭다. 문제가 있다면 곧 신학기가 시작된다는 것 정도일까. 아카데미에서의 수업은 별로 겁나지 않지만 역시 학교에서의 생활은 좀 떨린다. 왕자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제쳐 놓고서라도 말이다.‘역시 마법 실습같은 것도 하겠지...?’나는 파괴된 수련장을 생각하면 아직도 등골이 서늘하다.‘마법 이론책은 꽤 많이 봤지만...’마법은 의외로 논리력과 계산력이 많이 필요했다. 공대출신인 내 적성과 딱 맞았다. 미카엘도 내가 공부하는 걸 꽤 흥미 있어 했다.그러나 미카엘은 정작 내가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자기도 가고 싶어서 인가? 내가 물었다.“역시 미카엘도 아카데미 다니고 싶었지?”그는 코웃음을 쳤다.“허, 생각해보지도 않았어.”그러나 그는 공부하는 것을 꽤 좋아했다. 그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 나는 매일 내가 그날 배웠던 공부 자료를 그에게 주었다. 아니면 몰래 책을 빼다가 그에게 준 다음, 이후에 올 때 회수해 가기도 했다.내가 의아해져서 되물었다.“왜?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별로 안 좋아해.” 그는 시큰둥하게 말했다.“뭐? 그럼 그냥 할 거 없어서 하는 거야?”“아니.”그는 씨익 웃으며 덧붙였다.“그거라도 안하면 맨날 감옥에 앉아서 너 언제 오나 네 생각만 해야 하거든.”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그가 내 반응을 보려고 놀린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그가 내가 놀라는 것을 보고는 폭소를 터트렸기 때문이다.“라디~ 라디는 항상 너무 진지하다니까? 꼬맹이 주제에.”그가 아직도 킥킥 웃고 있다.‘나 왕자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선 예민하니까 건들지 말아주라...’나는 창피해서 볼이 빨개졌다. 아직도 내가 열한 살이라는 것을 자꾸 까먹는다. 다 왕자 때문이다. 나는 민망해서 화제를 돌리기로 했다.“그럼 왜 내가 학교에 다니는 게 맘에 안드는 건데? 널 만나러는 평소처럼 올 생각이였는데..?” 나는 갸웃했다. 학업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면 뭘까...“나 모르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그가 또 나를 놀리려 들었다. 마치 애인이 질투할 때 쓰는 말 같다.나는 이번에는 안 걸려들 요량으로 말했다.“허, 그러셨어?”“응... 싫어.”깐죽거릴 줄 알았던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과연 이것도 연기일 것인가...!’ 그를 파악하기 너무나 힘든 나는 그의 입에 서둘러 초콜렛을 처넣었다. 그는 또 달아! 달아! 하면서 커다란 초콜릿 바를 다 삼켰다. 당장에 나는, 그가 초코렛을 좋아는 것인가 아닌가도 판단하지 못하겠다.그는 다 먹고나서 내가 가져온 책을 펴 보았다.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이 길고 예쁘다. 책을 내려다 보는 얼굴은 이제 누가 봐도 미남일 것이다. 그는 어려운 책도 금방 금방 읽었다. 나는 그의 옆모습을 보다가 말했다.“...미카엘은 꽤 왕자님 같은데?”그 소릴 들은 미카엘은 미간을 순식간에 팍 구겼다.“뭐? 니가 아는 그 메디엘 왕자?”“아니 아니...”미카엘은 메디엘을 왜 왜이렇게 싫어하는거지? 내가 이전에 싸웠었던 얘기를 해서 그런가…“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왕자님’ 있잖아. 이상적인 것.”그가 하하 참나, 하고 무시했다.“내가? 너는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어.”그가 히죽 웃으며 내 머리를 헝크러트렸다.“나같이 손도 못쓸 천한 놈도 없을걸?” 그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소리에 조금 화가 났다.“아냐! 너는 이미 내 보물이나 마찬가지야. 스스로를 욕하지 마.”내가 투덜거리며 그의 손을 치웠다. 그러자 그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그가 중얼거렸다.“그래? ‘미카엘’은 내 보물은 아니거든...”그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언제는 자기밖에 모른다며?”“목숨 연명하는 거랑 소중한 건 다르달까...” 그는 그도 잘 모르겠다는 듯이 갸웃했다.“그럼 너한테 제일 소중한 건 뭔데?” 아마 정상적인 대답은 못듣겠지.“음....없는 거같아 아직.” 그가 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이내 다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그리고 그런거 안 만들 거야. 귀찮아.”‘아~ 그래 그래 그럴줄 알았어.’ 나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답이었으므로 별로 미련 갖지 않고 잠을 자러 방으로 돌아갔다.신학기가 시작되었다.이쪽 학교는 딱히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은 듯했다. 대신 아카데미 내에서 초급 3학년, 중급 5학년, 고급 4학년과 연구반이 있는 것 같다. 연구반은 고급 클래스를 수료한 사람이 뭔가를 심화해서 더 공부하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것 같다.그 외에는 초급1학년, 고급2학년 이런 식으로 나누고, 각 학년에서 진급할 때나, 클래스를 올릴때 진급시험을 친다고 한다. 진급시험을 못 치면, 다음 학년으로 못 올라간다는 소리인데... 그건 사태는 보통 고급과정에서나 일어나고 중급 초급에는 그다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초급, 중급에서의 아이들은 아카데미를 다니기 시작한 나이가 달라서 한두 살 차이나는 정도인 듯.‘나는 이제 중급1학년인 건가...’천만다행으로 원래의 라디올러스는 납치사건이 있기 직전에 클래스를 옮기는 진급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한다. 우리 가족 내에서는 나랑 윌로우만 중급에 있고, 휴리안 오빠를 비롯한 나머지 오빠들은 모두 고급반에서 척척 잘 해내가고 있다.원래는 아카데미에 이 많은 형제들을 보내기 위해 학기 중에 매일 아침 공작가에서 마차가 4대나 출발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이 형제들의 서먹함을 실감했다. 휴리안 오빠 한 대, 제르다민 오빠 한 대, 헬리오 윌로우 형제 한 대, 원래의 라디올러스 한 대. 이렇게 4대이다.‘허어... 이 무슨 콩가루인가.’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는 나라도 다른 형제의 마차에 끼어 타야겠다.‘그래... 가끔은 제르다민 마차에도 억지로 타보고 말이야...’아 또 얼마나 타박을 해댈까... 하하.. 얼음장같은 그의 표정을 상상한다.그래도 처음으로 학교를 가기 위해 교복을 입으니 감회가 새로웠다. 정말 오랜만에 입어보는 단정하고 풋풋한 차림이다. 무릎을 살짝 덮는 듯한 길이의 감색스커트에 하얀 블라우스, 중급은 스커트 색상과 같은 감색 리본이다. 오빠들을 보니 고급반 남학생은 검붉은 타이인듯.첫 등굣길 마차는 헬리오, 윌로우 오빠들과 같이 타고 가기로 했다. 떠들썩한 그들이 내 긴장감을 풀어줄 것 같아서 였다. 예상대로 헬리오와 윌로우는 긴장한 것 같은 나를 향해 익살스럽게 장난을 쳐댔고, 나는 기분 좋게 교실로 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딱, 교실문 열기 전까지만 즐거웠다.내가 A반 교실문을 밝은 표정을 지으며 활짝 여니까, 그 안의 시끌벅적했던 활기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악 사그라들었다.‘아차, 보통사람이 원래 라디 싫어했던 것 까먹었다...’모두가 나랑 같은 반이 된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내가 어색하게 땀을 뻘뻘 흘리며 맨 뒷자리에 앉을 때까지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나는 그 눈길들에 대해 활짝 웃는 얼굴로 반응했다. 그들은 조금 변한 듯한 나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결정하려는 듯 했다.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특히 어릴수록!분위기는 알쏭달쏭했지만 그래도 별로 악의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듯 했다. 그때 또 문이 열리더니 알고있는 얼굴이 들어왔다. 초코색 머리에 똑똑해 보이는 여자아이, 파르펠이었다.‘파르펠! 같은 반이었나?’나는 그 파르펠이지만 아는 얼굴이 있다는 것이 반가워 인사를 건넸다. 밝아진 내 인간성도 어필할겸.“파르펠 영애~! 와~ 같은 반 인가 봐요!” 나는 상냥하고 밝게 말했다. 그러자 교실안의 아이들의 이목이 파르펠에게 갔다.이런! 혹시 내가 실수를 한 것일까?아이들은 파르펠을 모두 조용히 관찰했다. 이건, 이 또래집단의 정신적 지주는 파르펠이라는 행동이었다. 파르펠이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하느냐에 따라 이 어린 아이들은 자신도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정하려는 것이다!‘망했다.’ 나는 대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파르펠은 한쪽 입꼬리를 올려 씨익 웃으면서 앙칼지게 말했다.“어머나? 라디올러스양~? 이제는 웃는 척도... 할 수 있네요?”그러자 그 교실의 아이들은 일제히 하하하 웃으며 나를 비웃었다. 파르펠양이 라디올러스는 비웃어도 된다고 알려준 것이다. 아... 나는 아무래도 왕따인가 보다. 와 왕따가 남발되는, 그 버티기 어렵다는 대한민국 교육과정도 무사통과였었는데...역시 어린 애들은 무서워...나 일단은 공작가 식구인데 말이지 애들한테 계급장 같은건 별 소용없다그래봤자 어린애들이 괴롭히면 얼마나 괴롭히겠냐고...생각했던 나를 찰지게 때려주고싶다.“라디올러스양~ 화장실 가고 싶으면 꼭 손들고 말해야 해요~?”어느 밉살맞게 생긴 여자아이가 말했다. 허허...말세다 말세야 11살 짜리 아이들이 이렇게 비겁할 수 있다니.현재 내가 속한 A반의 아이들은 내가 사고를 당해 기억도 잃고 몸도 불편한 것을 알자 나를 마치 지능이 모자란 아이처럼 대했다. 특히 생리적 현상이라던가, 외관적인 것을 꼬집어 비꼬는 것을 좋아했다. 유치하고 졸속하며 제법 효과가 크다.‘크윽~~ 분하다...’멍충이 꼬마놈들이 까부는 거라고 머리 속은 인지하고 있는 데 말이지 역시 약이 오른다. 나도 유치한 것은 마찬가지이니까.‘아아... 차라리 윌로우랑이라도 같은 반이였으면 좀 나았을까...’ 윌로우는 애석하게도 C반이다. 잠깐, 나 지금 진짜 열 한 살짜리한테 심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건가?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밑으로 떨어지려는거야.점점 차오르는 짜증을 꾹 참고 있는 내게, 또 앳된 목소리가 들렸다.“케일 군 그거 알아요? 서쪽에 있는 알락트 숲있잖아요~”파르펠이다. 파르펠...얘는 진짜 사람의 탈을 어디서 훔쳤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이다.“아, 그 마물이 잔뜩 나온다는 그 숲이요?” 케일이라고 불린 남자아이가 신나서 맞장구친다.“역시 케일군! 아시는 군요. 하하 제가 재밌는 얘길 들었는데 말이죠... 그곳에는 추악하게 생긴 세이렌들도 꽤 있는 모양이에요.”“으아... 그 얼굴은 여자고 몸은 새인 괴물 말이에요? 막 남자를 꼬득여서 정기를 뺏는 다느니, 잡아 먹는다느니 하던데...” 케일은 호들갑을 떨었다...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내 바로 앞에서 저렇게 신나서 얘기하는 걸 보면 분명히 나를 놀리려고 하는 것일 텐데...파르펠은 아니나 다를까 나를 곁눈질 하며 재밌어하는 것 같았다.“그 세이렌들은 글쎄, 머리색이 흉측하게도 파란색, 초록색, 심지어 분홍색같은 것도 있나봐요!”둘은 재밌다는 듯이 낄낄 댔다. 아, 그거였나. 내 머리색 놀리려고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거야? 이번에는 좀 귀엽네 귀여워. 그둘은 과장되게 놀라는 연기를 했다.“아! 그런데 파르펠양! 분홍머리라면...우리반에도 있지 않아요?”“어머나! 그러고 보니~!” 파르펠은 나에게 다가와서 거짓 동정심을 연기했다.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라디올러스양! 슬프게도... 라디올러스양의 어머님... 누구신지 안 밝혀졌잖아요?”“네에~ 그렇답니다.”나는 될 대로 되라고 그냥 장단을 맞추어 줬다.“제 생각에는 분명히 알락트 산의 세이렌이에요! 조금 추하고, 더럽고... 역겹긴 하지만...그래도 어머니인거잖아요! 꼭 한번 찾아봬요.”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아 진짜 정이 안가는 꼬맹이이다. 이렇게 유치한 연극 정도야 참을만 하지만... 기분이 좋을리는 없지 않은가.“아~ 네에~ 어쩜~~~~ 파르펠양은 친절하기도 하시지...”나는 대충 그녀를 약올리면서 말했다. 이 영악한 꼬맹이는 내 친어머니의 출신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양녀라는 핑계로 내가 마치 공작가 가족이 아닌 것처럼 아이들을 선동하고 있었다.나는 그녀를 보며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어머님이 세이렌인 저는 이만 마법클라스 이동수업 때문에 나가봅니다~ 파르펠양은 일반수업 자알 들으세요~”노래로 남자를 꼬신다는 세이렌답게 마지막은 과장된 성악조로 악센트를 줘봤다. 최대한의 얄미움으로.파르펠은 분하다는 듯이 나를 노려보았다. 아..이러면 파르펠을 더 자극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왠지 매번 말싸움은 지기가 싫다.나는 대충 짐을 챙겨서 이동수업을 하러갔다. 오후의 수업은 마법클래스와 일반클래스가 나뉘져서 듣는다. 마법 클래스인 아이들은 이동을 해서 다른 교육을 받는 것이다. 마법사는 아무래도 희귀한 것 같으므로 꽤 대우를 잘 받았다. 그 사실은 일반학생 마법클래스 학생들을 매우 아니꼽게 보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있었다.중급 1학년의 마법클래스는 겨우 6명 밖에 되지 않았다. 1학년 전체 학생이 100명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할 때 굉장히 낮은 비율이다. 마법에 재능이 뛰어나게 있으면 귀족이나 부자가 아니라도 특별히 받아주는 것 같은데도 저 모양이다.‘하긴 그러니 그 괴짜였다는 내 친 아버지한테 가문이 그렇게 눈치를 봤겠지.’내가 마법클래스라는 사실도 파르펠은 굉장히 맘에 안 드는 듯 했다. 어쨌든 그럼 오후시간에는 이동수업을 통해 괴롭힘을 피할 수 있었느냐 하면...그래... 뭐 집단 따돌림에서는 피할 수는 있었지만... 이동수업은 이동수업대로 매우 마음이 편치 못하다...“하하하 그래요 라디올러스양 역시 참 기운이 좋네요...”어린 마법사들이 마법을 컨트롤 하는 것을 배울 때 쓴다는 마석은 지금 내 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아니, 이거... 마법이 미숙한 아이들이 쓰는 거라서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는다며? 나는 분명히 선생님의 지시에 따랐단 말이야!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중한 뒤 마석을 손에 올려두고 파이어라고 외치니까 돌에서 살짝 붉은 빛이 비치다 사라졌을 뿐이었다...이제 선생님도, 아이들도 내가 저지르는 만행에 말려드는 것은 싫어했으므로 나만 맨 마지막이 되어서야 실습을 했다.‘으윽 그냥 실습은 빼먹고 싶다...’아이들과 선생님은 모두 될 수 있는 한 수련장의 제일 끄트머리에 서고 싶어했다.안그래도 아이들이 6명 뿐이라 휑한 수련장의 정 가운데에는 나만 서 있었다.선생님이 저 끝에서 눈짓했다. ‘한 번 해 보세요.’ 젊은 남자 선생인데도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몰라서 긴장하는 눈치였다.나는 ‘알았어!’ 라는 눈짓을 보낸 후 긴장감에 눈을 꼭 감았다 떴다. 다른 아이들도 침을 삼켰다. 사실 내가 제일 무서운데! 다들 도망이라도 칠 수 있지.. 나는 이 무한한 공포의 가능성을 담은 마석을 직접 손에 들고 벌벌 떨면서도 말해야만 했다. 나는 혹시 작게 외치면 좀 얌전한 반응이 나올까 싶어서 두 손을 가능한 한 몸쪽에서 멀리 뻗고 속삭였다.“...파,.파이어.”쾅!!!! 하며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으에에엑 하며 손에 쥐고 있던 마석을 거의 던지다 시피 바닥에 내팽개쳤다.바닥이 돌바닥이라 다행이었다. 나무 바닥이었으면 모두들 강제로 캠프파이어를 신나게 했을 것이다. 마석은 아무것도 주위에 탈 것이 없음에도 거침없이 활활 탔다. 거의 선생님의 가슴팍까지 올만큼 큰 불꽃이었다.그것을 보고 선생님이 기가찬듯 한 말이었다.“하하하 그래요 라디올러스양...역시 참 기운이 좋네요...”처음의 이 말은.선생님의 간단한 물을 나오게 하는 마법에도 잘 꺼지지 않아서 결국 선생님은 주문을 외워야 했다.“어머님의 포용력을 닮으신 물의 아리마란트, 지금 그 힘을 빌리려 합니다.”그 거친 물보라를 맞고 나서야 마석의 불은 꺼졌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그제서야 휴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잠시 커다랗게 그을리고 물바다가 된 바닥을 보고 아무말이 없었다. 선생님은 한번 더 마법을 써서 그 바닥을 치워야 했다. 그렇다.. 이 반의 똥보다 도움이 안돼는 골칫거리는 바로 이 몸이다. 나는 아이들의 귀찮아 죽겠다는 눈빛을 눈치 못챈 척 해야했다.그렇지만 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자아이는 나 말고 한명 더 있었다. 그것도 나와 같은 마법 클래스에. 보통 마법클래스 아이들은 끼리끼리 잘 모여 다녔다. 어차피 일반 클래스는 그들을 싫어할뿐더러, 마법클래스 아이들에겐 자신은 선택받은 자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아이, 안나는 마법클래스 아이들도 자신의 패에 끼어 주지 않았다.안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구겨진 블라우스와 몇 번이나 고친 듯한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그녀는 찢어지게 가난한 평민의 아이였다. 검은 머리는 단정한 단발을 하고 있었고, 얼굴은 평범하게 귀여운 인상 이였지만 항상 바닥을 보고 다녔다. 그녀는 오전 수업은 B반에서 들었는데, 거기서도 따돌림을 당하는듯 했다. 그녀의 깡마른 몸과 슬픈 교복은 그들의 구미를 당겼을 것이다.‘아 가엽게도 친구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음? 나랑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 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지매 시스터... 슬프지만 우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나는 마침내 고단한 수업이 끝나자 슬쩍 그녀에게 다가갔다.“저기 안나?” 나는 최대한 순수한 미소를 지어내려 애썼다. 그런데도 그녀는 말 건 상대가 나라는 것을 알자 굉장히 깜짝 놀라며 몇 발 뒤로 물러났다. 마치 생체 병기를 보는 듯한 반응이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게 실례라는 걸 알고서는 다시 얼른 말을 걸었다.“네? 라디올러스양.” 희미하게 웃어보였다.내 직감이 말하건데, 이 아이는 착하고 순진한 아이이다. 나는 최대한 살갑게 다가갔다.“에이 우리 동갑이지? 그냥 반말하자!”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건냈다.“어...하지만... 라디올러스양... 그 프랑디아 가문의 따님이시잖아요?”“세상에! 제발 너마저 그런 말 하지 말아줘.”내 지긋지긋하단 반응에 그녀는 살짝 웃었다. 아.. 웃으니까 참 귀엽다. 그리고는 조그맣게 말했다.“응... 근데 나랑 친구하면 네가 귀찮을지 몰라.” 그녀가 조금 머뭇거렸다.아 착하기도 하지… 지금 내 걱정을 해 주는 건가? 이런!...나는 내가 지금 겪는 따돌림이 그녀에게 해를 가할 까봐 걱정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 못난 나는 11살짜리보다도 못하다. 나는 씨익 웃으며 말했다.“안나, 네 걱정을 더 해야 할 거야 하하 보나마나 내가 더 악질적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 내 곁에는 파르펠이라는 악마의 하수꾼이 있어. 비글같은 아이란다.안나는 그 말을 듣자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아... 그럼 곤란해.”딱부러지는 태도였다. 나는 당황해서 아... 저기....라고 의미없는 소리를 내었다. 생각보다 계산에 빠르구나 안나...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꼴을 보고는 안나가 풋 하고 웃었다.“농담이야.”다행이다. 안나는 그냥 생각보다 유머러스한 아이였다.집에 오면 나를 바라보는 악의에 대해 대처하려고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돼서 좋았다. 나는 항상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버렸다.그렇지만 왕따에 대해서는 가족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다. 내 자존심은 둘째치고서 라도, 공작가의 따님이 아카데미에서 왕따라니... 부모님은 분명히 망신스러우실 것이다. 오빠들 한테도... 신학기에 괜히 신경 쓰일 만한 일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그러니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이 한심한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 유일하게 미카엘에게 털어놓았다.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나는 고백했다.“미카엘... 나 왕따 당해...”“풉!”침울한 표정으로 한 고백이건만 그는 예상치 못했던 공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반응했다. 이내 격하게 웃었다.“크크크큭, 왕따? 그거? 뭐랄까? 자기네들 약한 거 탄로날까봐 자기보다 약한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신나게 괴롭히면서 우월함을 맛보는 거?”“꽤나 잘알고 있네.. 3년이나 갇혀 있었으면서...”나는 우울하게 철창에 머리를 기댔다. 그래... 미카엘이라도 웃겨서 다행이다.미카엘은 마음껏 웃은 뒤에 머리를 기댄 탓에 철창을 넘어간 내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왜? 왜 널 싫어해?”“글쎄....뭐라더라... 그냥 다 싫대 위선자 같고, 출생도 불분명하고... 아! 니가 지금 만지는 그 머리카락도 역겹대.”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로 이해가 안 간다는 얼굴이었다.“왜? 다른건 다 그렇다 쳐도... 난 이 머리카락 진짜 좋은데...”‘뭐라고? 다른건 다 그렇다 쳐도라고 했냐 너?’그는 손가락으로 내 머리칼은 조금 감은다음 입을 맞췄다. 으악 뭐하는 거야...“냄새도, 촉감도 모두 좋은데?” 그가 이상하다는 듯이 갸웃했다.나는 그의 손에서 내 머리카락을 뺏어든 다음 중대고백을 했다.“미카엘! 내 머리색 무슨 색으로 보여?”“응? 그냥 갈색 아녔어?”흑흑 아니란다. 나를 그렇게 오래 봤지만 역시 이 음침한 감옥이라 잘 모르는구나..“땡, 정답은 핑크색이랍니다.”그는 내 말을 듣고 정말? 이라며 되물었다. 응. 이라고 진지하게 답하자 또 깔깔 웃었다. 뭐랄까...넌 날 비웃을 때만큼은 진짜로 웃는 것 같구나. 기쁘다 미카엘.... 내 비루함이 너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니 말야...“와... 어떻게 핑크색이야?”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몰라...원래 그랬어.”“아... 밝은 데서 보고 싶다...” 그가 조금 멍하게 웃으며 말했다.“....언젠가 꼭 밝은데서 볼 기회가 있을거야.” 나 그를 똑바로 보고 말했다.“하하... 얼마나 바보 같을까.”그가 다시한번 내 머리칼을 슬쩍 만졌다. 그 눈은 꽤 진지했다.“얼마나 바보 같으면 그 고상한 척하는 애송이들이 떼로 달려들겠니.” 내가 푸념했다.“음... 뭐, 나랑 있는 것 보다 학교에 더 흥미를 보일 것 같지 않아서 난 별로 슬프진 않네.”그가 잔인한 소릴 하면서도 순진하게 웃었다. 진심이라는 것이 확확 느껴지지만 그가 별로 밉진 않다. 나라도 이런 감옥에 하루종일 있어야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다.그가 잡고 있던 내 손을 놓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다치진 마.안그래도 신경 쓸 거리는 산더미 같은데 요즘 걱정거리는 하나 더 늘었다. 미묘하게 휴리안 오빠가 날 밀어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생각되기도 하지만...휴리안 오빠와는 시간이 계속 흘러도 피상적 관계일 것이란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말도 트고 함께 잘 어울려 다녔지만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연락을 안하게 되는... 그정도의 거리감이 오빠와 나 사이엔 있다.‘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역시 그때 내가 오빠의 옛날 이야기를 엿 듣게 돼서 서먹한 걸까?’ 그런 고민들은 나도 휴리안 오빠를 조금 피하게 만들었다.문제는, 휴리안에게서 고개를 돌리자 둘째인 제르다민이 보인다는 것이다. 등굣길 마차만 봐도, 휴리안 오빠의 마차를 선택에서 제외하면 헬리오 형제와 제르다민 밖에 없다. 원래 나의 목표는 모두가 화목한 가족이었음을 상기해본다. 헬리오 형제와는 어느정도 친해졌으므로…오늘은 오랜만에 제르다민과 같이 등교해보기로 했다.‘아..역시 오랜만에 타 봐야할 때가 온 건가.’저번에 큰맘 먹고 탔다가 정신에 데미지가 너무 크게 온 나는 오전수업을 거의 혼수상태에서 들었다.‘어째서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 이제는 오기가 생길정도이다.내가 제르다민 오빠의 마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문을 열고 타자 제르다민은 아주 끔찍하다는 듯이 인상을 찡그렸다. 윤기가 흐르는 은발에 안경까지 쓴 지적인 모습의 그는 나랑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굉장히 싫어했다.“내려. 이게 또 무슨 짓이야.”그가 살벌하게 말했다. 겨우 막내 여동생한테 정말 너무하다. 그럼에도 최대한 살갑게 대답했다.“오빠, 어차피 나도 학교가는데 같이 타고 가자.”“아무나 네 짜증나는 어리광 받아줄거라 생각 마.” 그는 자비없이 말했지만 마차는 시간이 되자 출발해 버리고 말았다. 그는 젠장. 하고 혀를 찼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무시해 버리려는 듯 갖고 있던 책을 보기시작했다.“저기, 제르다민 오빠. 무시하는 게 더 귀찮지 않아? 그냥 서로 좋게 좋게 지내자는 건데 왜 그렇게 질색하는 거야?”나는 웃으며 물어보았다.“....”그러나 그는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내가 뭐가 맘에 안드는지 말해줘야지 고치지...”내가 다시한번 말을 걸었다.그는 책을 짜증스럽게 탁 닫고 말했다.“이렇게 쫒아 다니면서 말해 달라고 하니 할 수 없지.”그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날카롭게 내 눈을 쳐다보았다. 나는 먹잇감이 된 기분이었다.“그렇게 아무한테나 사랑받고 싶어서 비굴하게 구는 게 역겨워.” 무표정하게 말했다.“...뭐?”나는 생각보다 더 비수같은 그의 말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또, 이기적으로 자기생각만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자기가 착한 줄 아는 것도 짜증나.”그는 내가 충격받은 표정을 보고 만족스러운 듯이 웃었다. 아무리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던 나지만 그의 가시 돋친 말에 나는 결국 화가 나버렸다.“아주 상처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말하네 오빠?”나도 그를 노려보았다.“별로? 내가 그래서 말하지 않겠다는 데 네가 굳이 듣겠다고 나선 거잖아.”그가 나를 비웃었다.나는 참지못하고 큰 목소리로 씩씩댔다.“사랑받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비웃음 받아야 할 일이야?”“아니?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그냥 내가 싫을 뿐이야. 그 꼴이.”그는 태연했다.“하! 그러는 자기는!”나도 똑같이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성이 이 말은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귓가에 말하는 듯 했지만 나는 그도 나처럼 분노케 만들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다.“자기도 관심 받으려고 안달이 난 주제에!”제르다민은 살짝 인상을 구기며 나를 노려봤다. 효과가 있는 거 같군! 나는 기뻤다. 그의 화를 돋울 수 있어서. 이미 미약한 이성의 목소리 따위 들리지도 않았다.“무슨 소리지?”그가 위협하듯이 낮게 말했다.“오빠야 말로 어떻게든 부모님 관심 좀 끌어보려고 별 흥미도 없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유치하고 어이없는 소리 그만둬.” 그가 바로 빈정댔다.나는 스스로도 어른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못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무리 애써도 나에게 쌀쌀맞게 구는 그에게 사실은 화가 나 있었나보다.“거짓말. 하하, 그럼 부모님이 영지 시찰을 나가는 기간에는 왜 대회나 경시에 안 나가? 왜 성적을 낼 수 없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오빠랑 겨우 생긴 가족이랑 다같이 사이 좋으려고 노력하는 나랑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그가 내 말을 듣고 아무대답을 하지 않은채 그저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살기마저 실려 있는 듯 오싹했다. 한참만에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거봐... 겉으로는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느니 어쩌니 말을 지껄였지만 속으로는 그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였잖아?”“갖다붙히지 마. 다른 오빠들이랑은 다 잘 지내고 있는데 오빠만 처음부터 겉돌았잖아.”그가 내 말을 듣더니 크게 비웃었다.“너는 휴리안 형님이랑도 잘 지낸다고 생각해?”나는 조금 뜨끔했지만 태연히 말했다.“제르다민 오빠와의 사이보다야 훨씬.”그가 이번에는 진짜로 웃는 듯했다. 하하하 하고 어리석은 동물을 보는 듯이 비웃었다.“거봐 너는 정말 네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어. 휴리안형님은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오래 봐왔어.”그의 눈동자에 가득 박혀있는 조소를 보았다.“형님은 너에게 친절하셨겠지.”“당연하지. 휴리안 오빠는 오빠와 달리 상냥한 걸.”그가 또 콧방귀를 꼈다.“형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친절해.”“그게 뭐? 다정할 뿐이잖아?”나는 제르다민이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려고 하나 비웃어주려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제르다민이 이제는 너무 아둔해서 불쌍하다는 듯이 말했다.“아직도 모르겠니? 모든 사람을 똑같이 좋아한다는 것은 신이 아니고서야 불가능 해.”“...”무슨소릴 하는 거야... 불쾌하게...“인간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꿔말하자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다는 거야.” 그가 다시 나를 경멸하는 것 같은 표정을 했다.아무말도 않고 그를 쳐다보는 날 향해 제르다민은 단언했다.“휴리안 형님이 좋아하는 사람따위 이 세상엔 없어.”나는 제르다민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너무나 한심하고, 휴리안은 너무나 슬프다.나는 마차에서 내려 목발을 땅에 댔다. 왠지 좀 어질어질하다. 내가 이렇게 슬픈 것은 아마 양심에 켕기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수업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그냥 대충 때웠다. 아이들은 내 풀죽은 모습에 더욱 기세등등해진 것 같았다. 별로 어찌 되든 상관없었다.수업이 끝나고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던 때였다. 목발은 책상에 세워두고 나도 일어나서 두 손으로 가방에 물건을 넣고 있었는데, 케일이 다가왔다. 아 정말 기분도 꿀꿀한데...나는 그냥 또 밉살맞은 말이나 하겠지.. 하며 그를 무시했다. 케일은 내 예상과는 반대로 그냥 내 옆을 지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곧 아닌 척 하며 내 목발을 슬쩍 쳐냈다. 별일 아니었지만 나는 책상에서 미끄러져 쓰러지려는 목발을 잡으려 했다. 땅에 떨어진 걸 주우려면 왠지 기분 상하니까.그러나 괜히 그걸 잡으려다가 나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다. 책상을 쓰러트리며 넘어졌기 때문에 꽤나 화려한 소리가 나버렸다. 아카데미 교실의 바닥은 대리석이라 무릎에 고통이 직격으로 왔다.“아야...”평소엔 강한 척하는 나였지만 정말로 이건 꽤 아팠다.나에게 장난을 걸었던 케일 본인도 나의 부상에 놀란 것 같았다. 그에게 나를 이렇게 넘어뜨릴 의도는 없었던 것을 안다. 그래서 나도 그냥 일어나서 대충 옷을 털고 교실을 나섰다. 정말 우울하다. 집으로 가는 마차를 타기 위해 복도를 절뚝 절뚝 걷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부디 뒤에서 당신을 멈춰 세우는 이 무례를 용서해 주시길.”익숙한데다 고상한 목소리다.이런 타이밍이라니. 그는 괜히 왕자님이 아니다.“메디엘 왕자님, 라디올러스 프랑디아 인사드립니다.” 나는 뒤돌아서 그를 바라보았다.거만한 레몬색 재규어가 느긋하게 웃고 있었다. 으... 적군만이 가득한 곳에서 이 아름다운 친구를 보니 괜히 울컥하다. 안돼.. 어리광 부려버릴 것 같다. 그러지 말아야지.“이건 또... 오랜만입니다. 라디양” 그가 내 바로 곁으로 다가오며 말했다.“얼마 전에 차를 같이 마셨잖아요.” 내가 씨익 웃었다.그가 불만스럽다는 듯이 말했다.“아~ 공주와 함께한 그 티타임이요?”“네에 그 티타임이요.” 얼마 전에 내가 왕궁을 방문해 잠깐 그를 봤었다. 공주도 함께.“당신은 마리안과 있으면 왠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가 비웃듯이 웃었다.“...제가 창피하게도 아직도 공주님이 어색해서요...” 아. 나는 정말 왜 이다지도 비뚤어진 걸까. 기분이 또 다운된다. 오늘은 평소보다도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그가 내 얼굴을 뚫어질 듯 바라보았다.“라디양, 오늘 혹시 아프기라도 합니까? 좀 우울해 보이시는 군요.”그가 무표정하게 중얼거렸다. 윽. 너무 우울함을 들어내 버렸나보다. 넘어진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냥 넘어진 탓을 하기로 한다.“우와!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 방금 아주 화려하게 굴렀답니다.”나는 쑥쓰러운 연기를 하며 깨진 무릎을 살짝 보여줬다. 그가 의심하지 않게.응? 근데 내 무릎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았다. 피멍과 까진 상처가 고어스럽다. 상태를 확인하니까 왠지 아까보다 무릎이 아파온다.왕자는 더 놀란 것 같았다. 놀란 눈의 그는 내 상처를 더 가까이서 보고싶은 듯 했다. 나는 서서 스커트를 무릎께로 살짝 올리고 있다가, 그가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고 내 발치로 쑥 다가오자 놀라서 스커트를 다시 내렸다.그러자 그가 자신의 손으로 내 치맛자락을 조금 올려버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내가 당황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으와! 왕자님?!” 내가 뒷걸음질 치자 그가 내가 도망 못 가게 다른 한손으로는 팔을 잡았다. 여전히 시선은 내 무릎에 꽂혀있었다.“가만 있어봐요. 신기해서 그래요.”그는 꽤 진지한 표정으로 살짝 인상을 쓰며 내 무릎의 멍을 살폈다...그래 내가 슬쩍 봐도 신기하더라.문제는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다. 저 멀리에서 나를 죽이고 싶다는 듯이 노려보는 파르펠이 보였다. 파르펠은 메디엘을 꽤 좋아하는 눈치던데 나를 또 얼마나 들들 볶으려나... 저 꼬마도, 우리집 형제들도 바보 같은 나도 전부 귀찮다.게다가 어찌됐건 이 자세도 부끄러워서 나는 메디엘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저기 왕자님... 여기서 이러시면, 레이디로서 부끄럽습니다만...”그가 벌떡 일어서며 걸려들었다는 듯이 요염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말했다.“네. 저도 라디양의 생각에 동감합니다. 역시 이런 곳은 좀 곤란하지요...그러니 궁에서 치료를 받도록하지요.”그가 더할나위 없이 개운한 얼굴로 말했다. 이게 무슨 억지인가... 아카데미에서 우리집까지 가는 거리나 왕궁까지 가는 거리나 그게 그건데...그러나 그는 나를 안아 올리더니 자기 맘대로 마차로 걸어갔다.“아참, 몸에 손대도 되나요?”그가 이미 한참 걸어가는 도중에 새삼스레 동의를 구했다.“영원히 안 되는데요.” 나는 불만스럽게 말했다.“그렇지요.. 내쪽에서 손 뻗어주다니 영광이시겠지요.”왕자는 내 말이 안들리나보다. 그는 참 부러운 마인드를 가졌다.사실 내가 그냥 아파서 집에 가겠다고 말한다면 왕자도 굳이 잡을 수 없었겠지만,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섭다. 나는 내 방에 홀로 남겨지면, 잠들 때까지 내가 저지른 오류와 어리석음을 마주해야한다.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피처로 나는 메디엘의 곁을 결정했다.메디엘은 궁에 도착하자마자 의원을 불러 나를 치료를 하게 했다. 사실 치료라 해봤자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멍에다 살짝 까진 정도인데...그래도 붕대를 감으니 그 흉한 멍이 안보여서 조금 안심은 된다.치료가 끝난 뒤에 우리는 손님 응접실에서 차를 마셨다. 홍차와 끈적하게 초코가 묻어나오는 진한 쇼콜라케이크였다. 나는 그 달디 단 케이크를 한입 먹으며 오늘의 심란함을 잊으려 했다.“꺄아, 왕자님! 뇌까지 녹는 듯한 달콤함이네요.”내가 과장된 표정으로 말했다.“아, 정말요!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영애의 귓가에 뭔가 분홍색 물질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애의 부족한 뇌 같아요.” 왕자가 은근한 비꼼으로 내 호들갑을 받아줬다.“..제 머리카락이잖아요.”누구를 위한 만담인가..우리끼리 꽤 즐겁게 농담따먹기를 하고 있는데 돌연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예상치 못한 제 삼자의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즐거워 보이는 구나 메디엘.”왕자가 휙 돌아보고는 말했다.“와! 아버지.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신가봐요.” 그가 꽤 놀랍다는 듯이 말했다. 와...메디엘의 아버지 카리스마가 대단하시네...메디엘의 아버지?!?!나는 놀라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질 지경이다.“폐하?!?!”나는 휘청하고 거의 의자에서 발사된 것처럼 옆으로 빗겨나와 인사를 했다.“라디올러스 프랑디아. 왕국의 태양을 뵙사옵니다.”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폐하는 오! 그렇군. 반갑네 라디올러스양. 하더니 우리가 다과를 하던 테이블의 의자를 쑥 빼 털썩 앉았다.“나도 차를 마셔도 될까?” 피곤하다는 듯이 목을 살짝 살짝 돌리며 말했다. 시종이 재빠르게 차와 케이크를 한 세트 더 차렸다. 이 왕국의 폐하는 키가 훤칠하고 보기좋게 덩치도 꽤 있으셨다. 메디엘과 같은 레몬빛 금발과 진한 푸른 눈이었다. 다만 깊게 박힌 눈 덕분에 눈가가 그늘져 있어서 좀 더 박력있어보였다.이게 갑자기 무슨 상황이지...나와는 달리 메디엘은 별로 당황하지 않고 그저 불만스러운 듯이 말했다.“라디올러스양과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요...”“그래... 그래서 나도 마실까 하고...” 왕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냥 좀 지친듯해 보였다. 그리고 아직도 서있는 나에게 어서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소문의 아가씨를 드디어 보게 되는 군.” 임금님은 편한 자세로 케이크를 푹 떠 입에 넣었다. 너무 친근한 모습이라, 맥이 풀릴 정도였다. 나도 긴장을 좀 누그러트리기로 했다. 그러나 아마 왕으로서 일을 할 때는 지금처럼 친근하지 않을 사람 같았다. 그가 처음 이곳으로 걸어 들어올 때에는 이미 많이 힘을 뺀 것 같았지만 그래도 느껴지는 왕의 기운이 있었던 것이다.“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나는 정말로 그가 원래의 라디 소문을 알고 있다는 것이 유감스럽다.그가 찬찬히 나를 바라보았다.“음... 다 헛소문 같은데?” 그가 또 크게 케이크를 떠서 입에 털어 넣었다.“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단것 좋아하시나 봐요?”“그렇다네. 이거... 맛있지 않던가?” 임금이 포크로 케이크를 가리킨다.“네. 완전 질척한 것이...”“그렇지... 이 질척한 게 아주 매력적이군.”그가 케이크를 깨끗하게 비운 후 하나 더 가져오라고 시종을 시켰다. 폐하도 나와 식성이 비슷하다.메디엘은 여전히 유감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다.“아버지, 그 포로 일은 대충 정리가 되었나 보죠?”“그렇단다. 이제야 좀 쉴 수 있겠어.” 그가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말했다.국왕은 천천히 메디엘에게 한가지를 물어보았다.“근데 메디엘, 내가 여기 올 때 서류 들고왔었니?”“아뇨. 설마 또 중요한 건가요.” 그가 미간을 좁혔다.“응. 내가 사인한 건데. 아 일을 끝냈다고 생각해서 긴장을 놨더니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나네.”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메디엘이 신경질 적으로 벌떡 일어났다.“어딥니까.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아! 회의실이나, 서재나, 복도.”‘복도..란건 그냥 오다 흘렸을 수도 있다는 건가...그건 좀 위험하지 않아요? 폐하?’나는 하하하..웃으며 진땀을 흘렸다. 메디엘은 급하게 잠시 실례! 라고 하더니 나가버렸다.폐하는 그러건 말건 상관없다는 듯이 시종이 건네주는 케이크를 받았다.“신경쓸 것 없어요 라디올러스양. 저 녀석이 잘 챙겨서 올거야. 항상 그렇거든.”‘항상 그러면 안되지 않나요... ‘덩달아 당황스러운 기분이 된 가운데, 응접실에는 급작스럽게 나와 왕만이 남았다. 이건 굉장히 긴장이 되면서도 희귀한 경우이다.그럼에도 나는 왠지 알고 지내던 옆집 아저씨와 있는 것 같다. 책임을 어깨에서 내린 임금님은 대하는데 그다지 긴장감이 들지 않았다. 나는 대뜸 고민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도움이 될만한 대답을 해 주실 것 같았기 때문이다. 처음 본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친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 보다 더 쉽다는 이유도 있다.“폐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도 될까요?”“아아 그래 지금은 그냥 아빠 친구 아저씨 정도로 생각해도 된단다.”그가 졸린듯이 말했다. ‘지금은’ 이라는 것은 사적인 위치일 때만 이라는 것이겠지. 역시 국왕 on off가 확실한 분이셨다.나는 조금 망설이다 말했다.“폐하. 어떤 사람이 좋아서 친해지고 싶은데 그 사람은 제가 다가가는 것을 싫어하면 어떡해야 할까요.”“대뜸 어려운 걸 물어보는 구나.” 그는 한쪽 팔을 괴고 다른 손을 내 머리에 얹었다.왕은 조금 생각하다가 말했다.“음...그 사람이 내가 다가가는 걸 좋아하도록 만들어야겠지.”“어떻게요?” 나는 진지하게 물었다.“내가 옆에 있음으로써 얻는 메리트를 어필해.”나는 조금 생각해 보다가 우울해져서 말했다.“메리트가 없으면 어쩌죠...”“허허....문제네...라디올러스 양은 생각보다 자기에게 자신이 없구나.” 그가 내 머리위에 얹고 있던 손을 토닥였다.“그치만...그 사람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에게 이익이 되는 너만의 장점정도는 만들어야하지 않겠니. 그 사람과 정말로 함께있고 싶다면 그정도 노력은 해야지.”뭔가 크게 깨달은 기분이었다. 제르다민의 말이 맞았다.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생각은 안 해보고, 무작정 애정의 뒷그림자를 쫓기만 했다.여기에 내가 있음을 알아달라고 외치기만 했다.나는 내가 부끄러워졌다.“한 가지 더 조언하자면. 이건 좀 치사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폐하는 씨익 웃었다. 그 여유만만한 미소는 메디엘과 꼭 닮았다.“그냥 계속 그 사람의 옆에서 달라 붙어있으렴.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그럼 네가 갑자기 없어지면 그 사람은 허전할 거 아니겠어? 너의 존재의 이익을 만드는 건 시간이 꽤 걸릴 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너의 부재의 손실을 만드는 것이지.”그가 여유있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 미소는 포식자의 승리감이 차 있었다.“...라디올러스양한테는 아직 이를지도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도 꽤 쓰이는 방법이란다.”그가 가볍게 말하며 차를 홀짝였다.“...저, 굉장히 감동했어요! 역시 국왕 폐하! 라는 느낌이에요.” 나는 그의 진지한 답변이 너무 감사했다. 게다가 이렇게 녹초가 될 때까지 일하는 왕이라니, 분명 성군이다.내 말을 듣고 임금님은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웃었다.“이거 이거 꽤나 치켜올려주는 재주가 있구나 라디올러스양.”“부디 라디양이라고 불러주시지 않으실래요?”“영광이지요. 라디양.” 그가 기품있게 웃었다.그러다가 그가 아차. 하며 실수한 듯한 표정을 했다.“이런... 근데 라디양이 곁에 있고 싶어서 걱정하는 그 사람은 메디엘이 아닌 거지?”“?? 네.”“아이쿠... 메디엘에게 또 혼나겠어.”그가 한숨을 쉬더니 다시한번 차를 홀짝였다.한 나라의 임금과의 독대라는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는 그와 고민상담 이외에도 이런저런 잡담을 즐겁게 나눴다.조금 있으려니 메디엘은 황제의 말처럼 서류를 훌륭하게 구출해 왔다.메디엘은 다시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라디양, 아버지랑 무슨 이야길 하고 계셨습니까?” 그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비밀입니다~” 내가 가볍게 말했다.그러자 왕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국왕은 왕자와 눈이 마주치자 어림없다는 듯 말했다.“설마 내가 지금 라디양이 비밀로 해주길 원하는 대화내용을 너 같이 밉살스러운 놈에게 말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건가?”폐하는 생각보다도 듬직하다.“끈질긴 남자는 인기가 없단다 아들아.” 임금님은 무심하게 중얼거렸다.“서류하나 못 챙기는 왕도 인기가 없습니다. 아버지.”왕자는 본인의 아버지에게도 결코 말로 져주지 않았다.이미 학교가 끝난 후 꽤 오랫동안 노닥거리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보낼 수 없어, 집으로 가는 마차에 타야했다.아까 임금님을 뵈며 회복했던 기분이 급격히 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마차가 집에 가까워 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졌다. 정말인걸까. 정말 휴리안 오빠는 그렇게 고독하게 살고 있는 걸까. 그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은 채로.‘집에 도착하면…어떻게 해야하지? 아니, 생각해보면 제르다민이 나를 화나게 하려고 아무말이나 한 걸수도 있잖아!...제르다민이 그럴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지만….일단은 그냥 평소대로 생활하는 수밖에 없어보이네.’나는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께 먼저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고 일단은 휴리안의 얼굴이라도 봐야겠다 싶어서 찾아 다녔다.이층에 있을까 하고 힘들게 올라왔건만 없기에 다시 계단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1층에서 휴리안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목발을 짚어서 발을 움직였다.이제 막 계단의 반 정도를 내려온 참이었다. 1층 계단 앞을 지나던 아직 어린 견습 메이드 소녀는 내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부축해 주러 다가왔다. 나는 척보기에도 몸집이 나 만한 그 어린 소녀가 힘들게 내 부축을 하지 않았으면 해서 됐다고 말하고 혼자서 내려가려 했다.바로 그 순간이었다.오른쪽 목발을 먼저 아래계단에 놓을려고 목발을 움직였는데 오른발까지 휘청하고 따라 내려갔다. 목발의 나사와 무릎의 붕대가 엉킨 것이었다. 나는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계단을 굴렀다. 아 오늘 진짜 뭐가 쓰인 날인가 보다. 떨어지는 순간에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의 파란만장함에 욕지거리를 해줬다.나는 나와 가까이 있는 견습메이드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최대한 노력했다. 내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나를 받으려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이미 나는 한 층계참의 반을 굴러굴러 떨어진 후였지만 말이다. 계단에 융단이 깔려있긴 했지만 정말이지 온몸이 욱신 욱신 했다.융단을 고급인것을 써줘서 고마워요 엄마아빠. 융단이 덜 두꺼웠으면 아예 기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그 견습 메이드의 비명소리와 내가 와장창 넘어지는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특히 바로 근처에 있었던 휴리안은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신속하게 뛰어왔다.나는 어지러움과 아픔에 쉽사리 일어나지 못하고 신음했다. 크으...하고 앓고 있는데 옆에서 “괜찮니? 일어날 수 있겠어?”라는 휴리안의 목소리가 들려서 괜찮다고 말하려고 고개를 들었다.휴리안은 나에게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였다. 우선 그와 가까이 있던 메이드를 일으켜 세우고 나서 나에게 왔다.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다... 내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는 넘어져 있는 메이드를 지나쳐서 그냥 나에게 오기 무안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누가 봐도 내가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 나는 그녀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굴러 떨어졌다. 휴리안은 분명히 그걸 알았을 것이다. 게다가... 내가 그의 여동생 이였다. 그녀가 아니라.휴리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괜찮니? 라디! 어디 부러지지 않았나 한번 보자.”“괘...괜찮아. 오빠.”‘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상냥한 휴리안.’ 제르다민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는 평등하게도 그저 제일 발치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일으켰다. 부상의 강도와 인물과의 관계에 상관없이.나는 둘째 오빠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휴리안이 좋아하는 사람따위는 한명도 없어'눈물이 왈칵났다.아... 고독한 휴리안. 정말로 미안했어.“이런... 많이 놀랐니? 라디올러스.” 그는 내가 아파서 우는 줄 알고 달려주려 했다.나는 그의 목에 팔을 둘렀다. 그를 꼭 껴안고 계속해서 울었다.‘정말 미안했어 휴리안 오빠.’제르다민의 말이 모두 옳았다. 나의 다정한 큰오빠는 누구보다도 심하게 망가진 사람이었다.‘어째서 이 집에서 유일한 정상인이 휴리안 오빠라고 생각했을까. 논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건데...’가장 먼저 이 공작가에 맡겨져, 가장 오랫동안 외로웠을 사람인데, 혼자서 건강할 리가 없던 것이다. 남들이 다 고장 나도 혼자서 멀쩡할 리 없었던 것이다. 이 지당한 이치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휴리안 오빠는 그저 처음부터 상냥하고 믿음직한 오빠였기 때문에.내가 그런 오빠가 필요했기 때문에.그런 오빠가 망가지고 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다. 제르다민이 나한테 이기적이고 사랑받는데만 혈안이 된 유치한 인간이라고 질타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그럼, 진하오빠는 어쩌지...'번쩍하고 그가 생각났다.박진하. 전생에서 나의 하나뿐이었던 배다른 오빠.나의 자랑이자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진하오빠. 오빠도 사실은 안이 곪을 대로 곪아 아픔에 비명 지르고 싶었을까. 하지만 내가 철없이 매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있었을까? 공작가와 너무도 닮은 그 저택에서.바보 같게도 나는 항상 오빠는 어쩜 그리 대단하냐고 묻기만 했다. 그가 너무 자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다.‘아아 어쩌지...한번도 미안하다고 못했는데... 이제 만날 수도 없는데!’후회의 눈물이 흘렀다. 오빠는 항상 자신에게 기대기만 하던 그 여동생이 죽었다는 걸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그 상냥한 이복오빠는 그래도 분명 그 한심한 자신의 누이를 위해 펑펑 울어주었을 것이다.박진아는 끝내 오빠의 진심은 알지도 못하고 죽었다.나는 계단에서 구른 후 며칠간 고열을 내며 앓았다.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고열로 인해 비몽사몽 계속 비슷한 꿈을 꾸었다. 휴리안 오빠가 나오는 꿈이었다.꿈속에서 휴리안 오빠는 항상 초라한 집에 딸린, 어울리지 않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원에서 손님을 맞고 있었다. 그 정원은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처럼 예쁘고, 거기서 손님을 대접하는 휴리안의 솜씨는 완벽했기 때문에 손님은 항상 만족해서 돌아갔다. 아무도 그 아담한 집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휴리안 오빠조차도 그 집의 존재를 잊은 듯 했다.나도 오빠의 그 아름다운 정원을 즐기다가 우연히 작은 집을 발견하고 들어가고 싶다고 떼를 썼다. 오빠는 방금까지 상냥하게 웃으면서 나를 돌봐주었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심각하게 굳었다. 그 집의 열쇠 따위는 잃어버린 지 오래라고 무표정하게 말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초라한 집에 들어가려 하느냐고 매섭게 말했다. 나는 조금 기가 죽어서 그냥 끄덕거리고 말았다.그러나 깨달고 말았던 것이다. 오빠는 손님이 돌아간 후에도 그저 그 정원에 혼자 앉아 추운 밤을 세운다는 것을. 돌아간 손님은 따뜻한 자신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달콤한 잠을 잘 것이다. 오직 휴리안 오빠만이 아무도 없는 그 정원에서 그저 밤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다. 지나치게 아름다운 정원에서 아직 앳된 소년이 어둠속에서 무표정하게 식은 차를 마시고 있었다.나는 여태까지 그가 그렇게 밤을 보낸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의 예쁜 정원에 놀러가 까불기만 했다. 그는 어찌보면 연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는 적어도 주위사람은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다. 자신의 아픔은 숨기고, 상냥한 오빠역할을 해내고 있다. 자신은 지독하게 외로울 지라도, 내색하지 않는다. 그는 눈물이 날 만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가 아직도 너무나 좋다. 그가 언젠가 그의 집의 열쇠를 찾을 때까지 계속 같이 있어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를 귀찮게 할지라도, 밤에 외롭지 않게.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느새 밝아진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게.쭉 같이 있어야 겠다고 마음먹자,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거의 사흘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던 듯 하다. 고열 몸살이 같이 왔는지, 열 때문에 끙끙 앓으며 잠만잤다고 한다.내가 정신을 차리자 베라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말했다.“도대체 얼마나 말괄량이인 거에요!”날카롭게 외치는 말 이였지만, 베라는 눈물을 닦아냈다. 내가 생각할 때 계단에서 굴러서 고열을 낸 것 같진 않았지만, 그냥 미안, 조심할게 라고 말해 놨다. 하늘을 보니 벌써 저녁이었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와... 사흘이나 지났으면, 미카엘이 엄청 배고프겠다.’오늘까지 안가면 미카엘이 걱정할 것이다.나는 솔직히 입맛은 커녕 일어나기도 뻐근하고 몽롱했지만, 베라한테 간단히 먹을 것을 부탁했다.베라는 알겠다고 뛰쳐나가서 얼른 묽은 스프와 말랑한 빵 몇 개를 준비해 왔다. 묽은 스프는 챙기기 번거로워서 그냥 내가 몇 스푼 뜨는 척 했고 빵은 베라가 안볼 때 전부 챙겼다.베라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다시 들어 왔다. 스프를 천천히 먹는 내 침대 옆에 다소곳이 앉아서 볼멘 소리로 말했다.“정말 처음에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열이 엄청났단 말이에요.”“걱정시켜서 미안해...”“새벽이라서 대단한 마법사는 못 불러서 그랬는지 힐링마법도 잘 안먹더라고요...”“엥, 그렇게 난리였단 말야?”베라는 한숨을 푹 쉬었다.“하나도 모르셨군요. 주인마님은 엉엉 우셨단 말예요. 헬리오님이랑 윌로우님도.”“윽 진짜 죄송스럽다.”‘울보형제한테 미안한 맘도 그렇지만, 엄마는 아마 자신의 옛 아이가 생각났을지도 모르겠다. 너무 걱정을 끼쳤다.’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베라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공손히 절하고는 문을 열어 손님을 들이고 나갔다.그 후에 손님이 차례 차례 들어왔다가 나갔다.둘째 오빠를 뺀 나머지 식구들이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얼굴로 몸 상태를 묻고, 다행이라고 말을 건넸다. 아픈 사람의 사치스러운 특권인 관심을 받으며 죄책감과 함께 살짝 행복함이 고개를 들었다. 나한테 이런 가족이 생길 것이라고는 기대도 안했는데...‘좀 더 힘을 내야지. 나도 저 사람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야지.’나는 나의 어리석음과 마주함으로써 얻었던 우울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용기가 생겼다.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휴리안 오빠처럼, 진하오빠처럼 자신은 조금 슬플지라도 주변에는 의지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밤이 되자 미카엘에게로 갔다. 평소보다 훨씬 숨이 차서 계단을 내려가는데도 쉬엄쉬엄 가야만 했다.“미카엘~ 오랜만이야.” 내가 인사했다. 미카엘은 평소같이 빙긋 웃으며 답했다.“와! 또 왔네? 이제 질린 건 줄 알았어.”나는 놀랍고 서운한 기분이 들었다.“뭐?? 너한테? 내가? 내가 너한테 질린 건 줄 알았다는 거야?”“응.” 그가 산뜻하게 대답했다.“절대 그런 일 없어. 너 입관할 때 흙까지 풀 거야.” 조금 삐져서 살벌한 농담을 했다.그는 그 농담이 맘에 들었는지 키득거렸다. 그리고는 다시 진지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입가는 웃고있었지만, 눈은 굉장히 살벌했다.“그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매번 밤에 잠도 못자고 오늘을 오는 걸까 저 바보같은 벽만 쳐다보는 게 얼마나 비참한 기분인지 알아?” 그가 거침없이 말했다. 여전히 입은 빙그레 웃고있다. 눈은 죽일듯한 살기가 담겨있지만.“정말 미안해 미카엘. 배고프지? 일단 이거 먹으면서 들어줄래?” 나는 그를 좀 달래려고 해봤다.그는 내가 내민 빵을 보고 코웃음 쳤다.“...설마 내가 배가 고파서 너한테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나는 펄쩍 뛰었다.“아냐! 바보야! 설마 그렇게 눈치가 없겠냐!” 그렇게 화를 냈더니 또 머리가 깨질듯이 아팠다.아직 열도 조금 있다. 머리를 부여잡고 크윽...하고 있으니까 미카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큼하게 웃으며 답했다.“그래? 그럼 사양않고 먹을까나.”자리를 잡고 앉아선 내 왼손을 꼭 잡는다. 도통 화내기 애매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아 정말이지 넌...아무튼 나도 오늘은 맨 빵밖에 못 가져왔으니까 별로 할 말은 없지만.”미카엘은 빵밖에 없다는 말에 우~ 하며 야유했다. 원래는 말라비틀어진 빵밖에 못 먹었던 주제에 건방지다.나는 조그맣게 변명했다.“아팠단 말야.”“그런 것 같더라.” 그가 태연히 웃으며 말했다.“뭐?? 어떻게 알았어?”“마르고, 힘이 없고, 편두통이 있고, 잠옷의 주름이 오랫동안 누워있었던 것 같고.”나는 그의 관찰력에 우와 하고 박수를 치려다가 발끈해서 화를 냈다.“그럼 왜 오자마자 여태까지 뭐하다 이제 왔냐고 화를 냈어?!?”“너를 기다리면서 비참한 기분이 든건 사실이었으니까.” 그가 태연하게 말했다.그리고 덧붙였다.“정말이지... 짜증이 나더라고...네가 내 주인님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이야.”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오싹했다. 절대 그에게 그런 비참한 기분이 들지 않게 하려고 평소에 말할 때도 조심하고 있었지만, 역시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없을 것이다. 자기가 사육되고 있는 동물처럼 생각되는 것 말이다.내가 절대 아니라고 말하려는 순간 그는 내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뭐... 이젠 상관 없어. 어찌 됐던 네가 왔으니까.” 순진하게 환히 웃는다.맥이 풀린다.. 멍하니 그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가 근데 빵 안줘? 라면서 재촉했다.‘빵은 그냥 네가 잡고 먹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먹여주고 있다.근데, 이 상황은 미카엘 네가 내 주인님이면 주인님이지... 나한테 너무 가혹한 상황 아니니?나는 아프다가도 네가 굶고 있을까봐 먹을 것을 숨겨서 뛰어온단다...억울한 마음은 많았지만 나는 생각대로 말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었다. 빵을 씹으며 내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철창안의 아름다운 야수를 보았다. 나는 홀린 듯이 이야기를 시작했다.“미카엘. 나는 그동안 너무 바보 같았어.”“뭐, 그렇지.”그가 단숨에 동의한다. 못돼 먹었기는…“이제는 사랑 받기보다, 사랑 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 미카엘은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다.“너는 매번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변해가서 참 아쉬워.”그렇게 말하고는 정말이지 천사처럼 웃었다.나는 철창을 두 손으로 잡고 최대한 가깝게 무릎으로 섰다. 미카엘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미카엘! 내가 어떡해서든 너를 꺼내 줄 거야.”미카엘은 나의 그런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나는 내 계획을 말해보았다.“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서 말 안하려고 했지만, 일단 제일 유력한 방법은 여름축제때 너를 특사로 풀려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거야.”미카엘이 씨익 웃으며 대답했다.“그치만 그 제도는 한 오년? 그 전부터 시행되지 않고 있어.”나는 조금 조급해 하며 말했다.“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책을 찾아보고나서야 알게 된 거니까.”감옥 안으로 손을 넣어서 나를 멍하니 보는 미카엘의 얼굴을 쓰다듬었다.“떼를 써야겠어. 어차피 막내딸이 그렇지 뭐.” 내가 조용히 말하자 그가 픽 비웃었다.“언제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며.”“그치만.. 그 방법 다음으로 좋아보이는 게... 내가 너한테 가사 상태가 되는 마법을 건 뒤, 사람들이 네가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면 내가 다시 주워오는 거였다?”그는 얌전히 내 쓰다듬을 받고만 있다. 별 말 않길래 계속 말을 했다.“근데 이 방법을 쓰자니.. 일단 내가 그 마법을 익힐 수 있는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고, 게다가 익혀도 말이지 내가 마법이 좀,뭐랄까 컨트롤이 잘 안되거든... 그래서 맞으면 가사상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시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미카엘이 내가 쓰다듬는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 자신의 볼에 꾹 눌렀다. 애교있는 막내가 하는 짓 같다. 그러나 그 연한 색의 눈은 꿈에 나올 것 같이 선명하게 빛났다. 미카엘이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여기까지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끝내는 이 손에 죽는 건가?”“어..음... 그래서 나도 그 방법은 안 쓰겠다고 하는 거야... ” 나는 그의 눈을 피했다. 그러나 그는 조용하고 달콤하게 말했다.“모르겠어.. 죽기 싫어서 줄곧 발버둥 친 거였는데... 너한테 죽는다고 하니까... 썩 나쁘지는 않네.” 그렇게 말하고는 예쁘게 웃었다.“농담하지마. 죽으면 안돼.”나는 죽어도 좋다는 그의 말이 농담처럼 안 보이는 것이 무서워서 냉담하게 받아쳤다. 그는 하하하 하고 웃었다.“하하하 알았어, 알았어. 화내지 마. 근데 나를 빼내려고 무리하지는 마.”“이런 곳에 미카엘 혼자 있는 거 더 이상은 싫은걸.”그는 내 눈길을 슬쩍 피했다. 그가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은 처음이다.“이제 슬슬 익숙해지는 참이니까...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좀 무섭네.”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이라 나는 놀라고 말았다. 이게 그건가...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다보면 바깥세상에 적응을 못하게 된다는 그거!“약한 소리 마! 미카엘. 너는 바깥에서도 철저히 적응해서 잘 살 놈이야!”그가 무슨 소릴 하는 거냐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음? 이거 걱정하는 게 아닌가?“? 당연하지. 나는 남의 뒷통수 치면서 누구보다도 잘 살아가겠지.”“어...그렇지...” 나는 머쓱해졌다.“다만.. 네가 더 이상 나를 만나러 이 소름 끼치는 곳을 오지 않을 거잖아?”그가 이번에는 자신의 손을 들어 내 볼을 쓰다듬었다. 어두침침한 감옥속에서 그의 눈만이 야행성 동물처럼 빛나는 것 같았다. 물론 기분탓이겠지만.“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게 괴로워.”“나도 이해해. 그래서 네가 꼭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진심을 담아 말한다.“그치만...”그가 또 약간 미묘한 표정을 한다. 오늘의 미카엘은 좀 다르네. 그가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그 기다림 끝에, 어두운 것과 좁은 것을 둘 다 싫어하는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 저 좁은 통로를 지나 나를 만나러 온 것을 확인하면.... ”그가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황홀한 미소를 지었다. 그 때의 기억을 되살리는 듯 조금 뜸을 들이던 그는 이내 말을 끝맺었다.“기다리는 고통보다 훨씬 큰 만족감을 느껴.”그는 그 말을 하고는 수줍게 웃었다. 그리고는 미카엘은 자신도 무릎을 꿇고선 철창에 바싹 다가왔다. 이제 우리 둘은 철창을 사이에 두고 전에 없을 만큼 바싹 붙어있었다. 그는 내 볼을 쓰다듬던 손을 이제 내 목덜미 쪽으로 넣었다. 나는 당황스러워서 그를 쳐다보았다.그는 목덜미 쪽에서 내 뒷통수 쪽으로 손을 가져갔다가, 머리카락을 살짝 쥐었다. 나는 조금 목이 뒤로 꺾였다. 나는 내가 엄청나게 무방비 상태인 것을 느꼈다. 마치 늑대한테 잡힌 닭같은 기분이었다. 내가 조심스레 그의 이름을 불렀다.“...미카엘?”그는 내 목소리를 처음 들은 것 처럼 신기하다는 듯이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위험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재수 없게도 말야... 나를 길들인거야? 라디?”그는 내 머리카락을 잡지 않은 손으로는 다시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나는 그의 그 낯선 모습에서 약간의 공포를 느꼈지만, 왠지 모를 슬픔도 느꼈다. 그는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 그래서 말을 붙였다.“미카엘... 슬퍼?”그는 조금 인상을 찡그리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아니, 그렇진 않은데... 곤란해....정말이지 곤란해..”“뭐가?”그는 내 눈을 다시 바라보았다. 매우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나도 그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는 곤혹스러워 하는 듯 했다. 그가 다시 입을 뗐다.“곤란해. 이젠 너를 찌를 수 없어.”미카엘은 절망적으로 말했다. 너무 예상 밖의 말이었지만, 그가 정말로 당혹스러운 듯이 말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초조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그가 멍하니 띄엄띄엄 말했다.“어떠한 상황을 상상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나는...”그가 내 몸에서 손을 모두 떼었다. 그리고는 멀찌감치 앉았다. 눈을 가만히 감으며 말했다.“나는 절대 너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깨달았다는 듯한 말투였다. 그리곤 눈을 뜨고는 소년처럼 웃었다.“잘가 라디.”그는 내가 정말 가 줬으면 하는 눈치였다. 나는 개운치 않은 맘이였지만 이내 비틀 비틀 방으로 돌아왔다. 추운데 있어서 그런가, 열이 좀 높아진 기분이다.열 때문에 얕은 잠을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했다. 아침이 되자 베라는 오늘 학교는 가면 안 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내 생각도 그래. 그 악마의 소굴에 들어가면 나는 필시 열 받아서 또 쓰러질걸?어질어질한 몸을 일으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왔다. 출근하시기 전에 나를 보러 오신 것 같다. 나는 이게 미카엘에 대해서 말을 꺼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되었다.“라디! 오늘도 몸이 안 좋아 보이는 구나!” 아빠가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다.“아빠. 이제는 많이 괜찮아요.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뭐든지 물어보렴.” 아빠는 내 침대 옆에 살짝 앉았다.“이제 여름축제 때 특사 방면은 안하시는 거예요?”아빠는 내 뜬금없는 말에 잠시 놀란 듯 하시더니 대답을 해 주셨다.“음.. 안 한지 꽤 되었지.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나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었다. 윽 거짓말을 하려니 좀 떨렸다.“그게... 헬리오 오빠랑 동갑밖에 안되는 사람도 우리 성 감옥에 있다는 거에요...”“그래? 그랬던가..?” 아빠는 미카엘에 대해 쉽게 떠올리지 못하시는 듯 했다. 그러더니 아! 하며 그런 아이도 있었지.. 하며 생각났다는 제스처를 취했다.나는 또 시무룩한 표정을 하며 말했다.“지나가다가 들은 얘기긴 했지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헬리오 오빠를 좋아하게 될수록 그 감옥의 오빠도 겨우 헬리오 오빠 나이인데.... 벌써 3년이나 갇혀있다고 하니.. 저.. 왠지 슬퍼서...”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우는 연기는 안되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눈물을 닦아내는 척했다. 이런 여우짓은 처음이라 아빠한테 들킬까봐 가슴이 벌렁벌렁 했다.내 염려와는 반대로 아빠에게 내 연기는 제대로 먹힌 듯 했다. 아빠는 감격한 듯이 나를 품에 안았다.“걱정 마렴. 라디! 이번 여름엔 그 아이가 나갈 수 있게 힘써보마. 네가 슬퍼할 필요 없게끔 말이다.”아빠는 진짜 내가 슬프지 않았으면 하는 것 같았다. 그런 아빠의 마음이 전해져서 왠지 간지러운 느낌이 드는 듯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나 미카엘을 그 감옥에서 꺼낼 수 있다는 기쁨이 훨씬 더 컸다.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리는 느낌이다.나는 이제야 마음이 놓여서 활짝 웃었다. 아빠는 내가 웃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워 하시며 출근하셨다. 당장이라도 미카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아침이라 그에게 가는 것은 무리이다. 밤이 아닐 때는 간수들이 언제 들여다볼지 모르기 때문이다.나는 그냥 흥분을 가라앉히며 책장이나 넘기는 수밖에 없었다. 글이 통 읽히지 않았기 때문에 채 한 장을 다 못 읽었을 때였다. 휴리안 오빠가 내 방에 들어왔다. 오늘도 학교에 못간다는 소리를 듣고 아카데미에 가기 전에 인사를 하러 온 것이다. 정말이지 사려깊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챙겨준다는 것은 귀찮은 일인데. 나는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더 좋아졌다.나는 만면의 미소를 짓는다. 내 마음이 조금은 전해졌길 바라며. 내 미소를 보고 그도 예쁘게 웃는다. 아름다운 휴리안.“오늘도 상태가 안 좋다며? 큰일이군.”그가 걱정스러운 듯 내 이마에 손을 대 본다. 서늘한 그의 손이 기분 좋다. 나는 그 손을 내 작은 두 손으로 잡아 내려선 꼭 잡았다.“응 아마 감기로 가려나봐. 오빠한테 옮으면 어쩌지?” 내가 짐짓 걱정하는 체 하며 물었다. 그는 씨익 웃는다.“그러게, 지금 라디가 이렇게 만지작대서 큰오빠는 앓아눕겠다.”“그땐 내 옆에 누워. 내가 심심하지 않게.”내가 옆자리를 슬쩍 비워 둔다. 그가 소리 내어 웃는다. 항상 저렇게 웃으면 좋겠다.휴리안이 머리를 토닥여주었다.“라디가 약해서 참 큰일이네.. 오빠들은 이렇게 다 듬직한데 말이야.”나는 휴리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빠는 무슨 할 말 있냐는 듯이 눈을 맞춰준다.“나는 오빠가 참 좋아.”다시 한번 말로써 내 진심을 전한다. 그는 또 순간 미간을 살짝 접는다. 이제는 그 표정의 의미를 안다. 곤란한 것이다. 그 마음에 진심으로 답하지 못하는 것이.내가 정말로 그를 좋아한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그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냥 넘기면 되는데... 휴리안은 정말이지 쓸데없이 고지식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떼는 것을 내가 말로써 막는다.“오빠는 나한테 좋아한다고 말하면 안 돼.” 장난스럽게 웃어서 본심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다. 그가 무슨 말이냐는 얼굴로 쳐다본다.“오빠한테 그런 말 들어버리면 난 쑥스러워져 버리니까 말야. 오빠는 절대 나한테 좋아한다고 말하면 안 돼. 나만 할꺼야.” 욕심쟁이처럼 웃었다. 그는 이상하다는 눈빛을 보내면서도 따라서 웃어버린다. 조금 안심한 걸까?그렇게 그가 자신도 좋아한다고 말해야 하나 고민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한다. 그가 내가 진심을 건넬 때마다 부담감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렇게 해도 그는 내가 ‘좋아’라고 외칠 때마다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겠지만, 이왕 그가 외롭지 않게 옆에 있기로 한 것이니까. 그도 나의 존재에 익숙해져야한다. 적어도 휴리안이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항상 주위에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한다.“휴리안 오빠가 내 오빠여서 영광이라고 말 했었나?”그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한다.“도대체 그 낯간지러운 소리는 몇 번이나 할 셈이야.” 그가 부끄럽다는 듯 웃는다. 그리고 조금 힘 없이 내 머리위에 얹었던 손을 떨어트린다. 도망가려는 것 같다. 나는 웃으며 보내줘야지.“잘 다녀와 오빠.”“그래, 쉬고 있어 라디.”그가 안심한 듯이 웃으며 방을 나섰다. 나는 또 혼자 남았다. 내일은 학교에 갈 수 있을까. 나 없는 새 혼자 수업을 들어야 했을 안나 생각에 갑자기 긴장이 되었다. 내일은 꼭 학교에 가야지.머리가 어지러워서 다시 침대에 누웠다. 빨리 쉬어야 나을 텐데. 라디의 이 작은 몸은 정말 약하다.‘잠을 자야 빨리 낫겠지?’두 눈을 꼭 감았다.자야지 자야지 생각을 하는 데, 자꾸만 미카엘에게 특사 일을 말할 생각을 하니까 흥분이 되어서 잠이 달아났다.‘어떤 표정을 지을려나.’역시 환하게 웃어줄까. 미카엘이 태양같이 웃는 상상을 하는데, 어제의 그 심란한 표정의 미카엘이 자꾸만 끼어들었다. 이제 와서 나가기 무섭다니.. 정말 처음에 날 찔러서 버린 다음 탈출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미카엘이 아닌 것만 같다.‘재수없게도 나를 길들였구나 라디...라고 했었지...’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성격이다. 길들였다니! 그냥 친해진거지... 그건... 그는 나를 찌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에게 있어 나는 찌를 수 없는 첫 친구인 것 같다. 여태까지는 주위사람은 모두 여차하면 죽일 수 있을 정도로만 사귀었다는 것이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역시 마음이 찡해진다.‘그가 나가게 되어도 꼭 자주 만나러 가야지.’나는 ‘미카엘 찌를 수 없는 첫 친구’니까! 자랑스러워 해도 될 것 같다. 줄여서 ‘미찌친’! 이 세상에 미찌친은 나 밖에 없다! 그가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는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미카엘을 누구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는 다른 빛을 가지고 있는지 그 보석 같은 매력을 알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라 다른 사람도 미카엘의 매력을 모두 알아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아쉽지만... 미찌친으로서, 그 정도 케어는 할 수 있다. 나는 대인배 미찌친이니까. 미카엘의 행복을 위해 그 정도 양보는 가능하다.그렇게 이상한 줄임말을 만들기도 하고 미카엘의 행복을 생각해 보기도 하니까 잠이 슬슬 왔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고, 저녁도 살짝 먹고 하니까 내가 고대 하던 밤이 왔다. 그런데 밖은 비가 세차게 오는 것 같았다. 아직 우기가 아니라는데도 천둥 번개까지 치며 꽤나 요란하게 왔다.‘미카엘네 감옥은 괜찮으려나...’그런 생각을 하며 미카엘을 만나러 내려갔다. 비가 와서 더욱 습하다. 숨쉬는 게 꺼림칙할 정도였다.“미카엘! 방금 요란한 천둥 들었어?”내가 미카엘을 보자마자 대뜸 말을 걸었다. 어제의 어색한 헤어짐을 의식한 것이기도 했다.“아아.. 그렇네 꽤 좋은 밤이지.” 그는 순순히 내 말에 대답을 했다. 평소처럼 속을 모르게 웃는 표정이다.“뭐가 좋아.. 이게... 아무튼 성격이상하다니까.”내 말에 미카엘은 키득거리며 웃었다.“네가 더 이상해. 아직도 아픈 거 같은데 말이지... 이런 기분나쁜 곳에 왜 오고 그래. ”그가 철창 넘어로 손을 뻗어 내 이마를 짚는다. 아 역시 누군가 걱정해준다는 것은 꽤 기분이 좋다. 어서 미카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좋은 소식이 있어서지 미카엘!” 내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는 이마를 짚던 손을 치우고 ‘뭔데?’하는 표정을 심드렁 하게 지었다. 정말이지 애교없는 반응이다.“미카엘! 아빠가 여름 축제때 특사로 널 꺼내 주신대!!” 나는 기쁨에 겨워 거의 방방 뛰며 말했다. 미카엘은 내 말을 듣고 활짝 웃었다.“와! 날 위해 정말 말해 주었구나.” 그는 얌전히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엥. 그반응이 끝이야?“미카엘. 안 기뻐?” 내가 기세가 꺾여서 조심스레 물어보았다.“기뻐. 네가 나를 위해 애써준다는 게.” 그가 왜 그런 당연한 것을 물어보냐는 듯 즉답했다.“아니, 나가게 되는 게 더 기뻐야지.”“아. 그것도 기뻐.” 그는 이제야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 듯이 대답했다. 정말이지 이해하기 힘든 미카엘.나는 그의 손에 손을 뻗어 꼭 잡고서 이야기 했다.“미카엘 나 네가 여기서 나가게 되더라도 꼭 자주자주 찾아갈 꺼야.” 진지하게 말했다.“얼마나?” 그가 나를 빤히 보며 말했다.“시간 날 때마다.”“역시 여기서 만큼 자주는 못 보겠지?” 그가 조금 미간을 찡그리며 물었다.“아무래도 그렇겠지... 여기는 내 방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아쉽지만 지금처럼 자주는 못볼 것이다. 그래도 미카엘이 여기에 있는 것보단 나가는 것이 그에게 훨씬 좋다. 우리가 자주 못 보니까 그가 감옥에 계속 있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게다가 나는 왕자처럼 귀족, 왕족도 아니니까 라디가 다니는 아카데미도 못 다닐 테고.”그가 내 대답에 이어 바로 물었다.“...응...아마...” 나는 조금 슬프지만 사실을 말했다.“나는 돈도 없고, 더군다나 옥살이를 하다 나온 노예출신이니까.”그가 끊임없이 진지하게 말을 뱉었다. 나는 이제 조금 초조할 정도이다.“...미카엘...”“나를 만나러 오려면 아마 몰래 나와야 할 걸? 너희 가문이 나를 만나는 것을 달가워 할리 없지.” 미카엘이 여전히 진지한... 이제는 조금 미소를 띄며 말했다.“...그래도 너를 보러 갈꺼야. 맹세해.”하늘에 맹세컨데 내 이 말에 거짓은 없었다.그는 내 말이 진심인지 감정하는 것 처럼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그래 라디. 그래도 너를 기다릴게.”그가 이윽고 몰아세우는 듯한 말을 멈추고 환하게 웃었다.우리는 잠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미카엘이 평소보다 나를 빨리 돌려보냈다. 열이 나는데 여긴 너무 춥다며... 이런 말도 했었다.“오늘은 이쯤에서 돌아가 라디, 비가 멈추기 전에.”그는 이제 여기를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별 거북함이 없어 보였다. 나는 그가 드디어 나갈 생각을 먹고서는 기분이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도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군말없이 내 방으로 향했다.“...잘 가 라디.”등 뒤에서 또 배웅하는 말이 들려 살짝 뒤돌아보았다.그가 조금 주저 주저하며 자신없게 손을 살짝 흔들며 말했다. 왠지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굳어있었다. ...미카엘… 조울증인걸까. 장단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저 소년은.방에 도착한 나는 심한 천둥 번개 때문에 뒤척이다가 겨우 잠에 들었다. 일어나 있을 때 공작가 성은 한바탕 난리가 나 있었다.감옥에서 누군가 탈옥을 한 것이다. 탈주자는 16살 어린 소년으로, 평소에는 매우 얌전하고 항상 모포를 뒤집어쓴 채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간수는 그가 없어진지 한참이 지나서야 알아차렸다고 한다. 그는 놀랍게도 철창중 한 개가 조금 망가진 것을 확인하고 그 철창에 무려 삼년가까이 젖은 수건을 매어서 부식시켰다. 누군가 왜 거기다 그 천을 매어놓았냐고 물으면 얌전하게, 두려운 듯 자꾸만 거기서 바퀴벌레가 기어 나온다고 대답했다. 워낙에 겁이 많고 허약한 이미지라 아무도 더 캐물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간수의 변명이였다.그리고 그 천둥번개가 치는 밤 그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탈옥을 실행했다. 위의 부식된 철창을 무엇인가 딱딱한 것으로 찍어 내려 철창의 위를 끊어낸 다음, 쉽게 그 철창을 뽑아 냈다. 애초에 감옥은 접착물질 없이 돌과 철을 위아래로 끼워 맞춘 식이라 철창을 부순 순간부터 탈출은 누워서 떡먹기 이었을 것이다. 그는 성의 구조를 잘 알아놓은 상태였던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비바람에 녹아 이 감옥을 나섰다.‘그러고 보니 내가 처음 그의 감옥에 도착한 날 미카엘은 마치 이 성의 구조를 꿰뚫고 있는 것 마냥 설명해서 내가 방에 도착할 수 있게 해 주었지...’나는 멍하니 생각했다. 그가 도망쳤다. 굳이 내가 여름에 빼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쳤다. 나에게서. 도대체 왜? 이제는 못 보는 건가...미카엘은 그가 찌를 수 없는 나의 존재를 곤혹스러워 하는 것 같았다. 여기서 나가면 어차피 별로 볼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것도 이해하는 것 같았다.‘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하는 걸까...’이해 할 수 있다... 나도 꽤 자주 하던 일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나, 마음에 안드는 일이 생기면 그냥 없었던 일로 치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카엘이 이렇게 나를 내버리고 도망갈 줄이야... 그가 나의 소중한 친구였듯이 그도 나의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했었다.‘역시.. 다시 볼 수 없을까?’배신감 보다는 그저 그 사실이 슬퍼서 눈물이 났다.엄청나게 어수선한 아침이었지만, 그래도 아카데미에 가려고 마음먹었다. 아빠는 나를 배웅하며 그저“하하 그 아이는 내가 꺼내주지 않아도 될 아이였구나.”라고만 말씀하셨다.정말 미카엘은 내가 신경쓰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을지 모르겠다. 사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이보다도 훨씬 전에 도망갈 수 있었을 것이다. 우울한 기분을 언제까지고 갖고 있을 수만은 없다.‘나랑 만났기 때문에 조금 늦춰준 건가...’그 정도의 긍정적인 생각은 해 보기로 했다. 나랑 보내던 시간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이다. 비록 그가 잘라낸 시간이지만.오늘도 학교까지 누구와 마차를 타고가야할지 골라야한다. 나는 별 고민 없이 제르다민의 마차에 훌쩍 올라탔다. 제르다민은 인상을 쓰더니 이제는 아예 내리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내가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 했다. 마차가 이내 출발했다. 나는 조금 한숨을 쉰 다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우리는 지금 서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앉아있었다.“오늘은 사과하러 온 거야 오빠.”그가 보고있던 책에서 눈만을 돌려 나를 슬쩍 쳐다보았다. 다른 말은 없이 그냥 내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다.“오빠말이 전부 맞았어. 내가 이기적이고, 어리석었어.”나는 단어를 하나하나 골랐다. 저 섬세한 오빠가 화내지 않게끔.“오빠 말처럼 재수없게도 겉으로만 알랑대는 아이로 보였을 테지.” 나는 내 손을 잠시 쳐다 보았다. 제르다민의 시선이 꽂히는 것이 느껴진다. 다시 눈을 들어 그 예리한 시선을 맞춘다.“전에 오빠한테 심한 말해서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희미하게 웃는다. 이 미소가 오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길 바라며. 오빠는 잠시 나를 보다가 이내 시선을 창 밖으로 돌렸다. 내 사과를 받아 주는 걸까.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이제 나 좀 좋아해 달라고 귀찮게 달라붙는 일은 없을 거야.” 나는 가능한 크게 미소지어 웃었다. 제르다민은 창가에 턱을 괸채로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햇빛을 받은 그의 머리가 예쁘게 반짝인다. 무표정한 그의 얼굴과는 대비되어 신비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새삼 그를 처음보는 듯한 기분으로 말했다.“그치만 오빠를 좋아하는 일은 멈추지 않을거야.” 나는 장난꾸러기처럼 웃었다. 제르다민은 묘한 표정으로 살짝 미간을 꾸겼다. 그리고 마차에 오른 후 처음으로 말을 했다.“무슨 의미야.” 조금 낮은 목소리이다.“냉정한 오빠라서 좋다는 말이야. 내 버릇없는 행보를 막아주는 예의에 엄한 오빠정도로 생각할래.”나는 조금 맹한 목소리를 냈다. 뭔가 이제 해탈한 것 같기도 하다. 이곳 저곳에서 다들 내가 싫다고 난리이니까'뭐... 어쩔수 없지. '하는 기분이 든다. 그래도 나는 당신이 좋은걸. 나도 내 맘대로 짝사랑을 하련다.제르다민은 기가 막힌 것 같은 목소리를 냈다.“태평하긴. 자기 맘대로 좋게 생각하는 거냐.”“그치만 실제로 오빠가 그렇게 말해줘서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마음 먹을 수 있었어.”창밖을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게 사실을 말했다.“별로 너를 위해서 했던 소리는 아냐.”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나는 그의 일관된 뾰족함에 씨익 웃으며 말했다.“이게 그건가. 그... 뭐지? 그... 부끄럼쟁이의 매력? 차가운듯 따뜻한 남자? 뭐 그런 건가?”그가 나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다 그냥 무시했다. 차라리 바보냐? 라고 말해줬으면 안 창피했을 텐데... 나는 조금 부끄럽다.“오빠! 차라리 바보라고 말해줘! 응? 멍청이라고 매도해줘...이거 너무 쓸쓸하잖아. 이 타이밍에 무시는 너무하다고.”그가 나를 정말 벌레보는 듯 쳐다보더니 마차가 멈추자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원한다면 말해주도록 할까, 정말이지 상종 못할 정도로 수준 낮아서 차마 대꾸를 못하겠네. 학교나 기어가서 뭐라도 그 머리에 채워오렴.”나는 헤헤 웃으며 마차에서 내렸다. 근데 방금 그건 학교잘 다녀 오라는 인사 같지 않아?“어라? 오빠 우리 제법 그냥 남매같지 않았어? 방금?”그는 짜증스럽게 자신의 반으로 향하며 중얼거렸다.“귀찮게는 안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아참... 그런가... 제르다민은 벌써 귀찮은가 보다. 나는 그냥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인사했다.“오빠~ 잘다녀와~” 손을 흔들었다. 그는 살짝 뒤돌아본 다음 그냥 갈 길을 갔다. 언젠가는 인사를 해줄지도 모르지.나는 내 반으로 힘들게 걸어갔다. 계단에서 구른 여파인지, 감기의 여파인지는 잘 분간이 안가지만 온몸이 결린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파르펠의 귀엽지 않은 장난을 받아주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간 프랑디아 가문에 먹칠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안나한테도 좋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내가 굳건한 입지가 있어야 안나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A반 문을 기세 좋게 열어제꼈다. 나는 수업이 시작되기 까지는 시간이 꽤 있었지만, 예의 바른 귀족집 아이들 답게 학생들은 거의 다 도착해 있었다. 나는 일부러 보란 듯이 웃으며 인사했다.“좋은 아침이에요.” 생글 생글 웃으며 내 자리로 가려는 데 내 책상이 없다. 하하 고전적이긴.파르펠은 얄밉게 웃으며 응수했다.“라디양, 이제는 아파서 못나오는 줄 알았는데요? 사실 드디어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도망갔길 바랐었구요.”파르펠은 말을 마치고 자기 나이에 비해 조숙한 웃음 소리를 내며 호호호 웃었다. 나는 별 말없이 그 모습을 보다가 그녀에게 뚜벅뚜벅 걸어갔다.그녀는 내가 드디어 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내 예상외의 박력에 조금 뒷걸음질 쳤다. “무, 무슨 일이죠? 말을 나눌려면 그곳에서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데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요?”그녀가 주춤하자 케일이 내 앞을 막아섰다. 케일은 분명 파르펠네 가문에 충성을 맹세한 귀족가였던 것 같다. 하는 짓이 조금만 예뻤다면 무슨 로맨스 소설 같았을 텐데... 파르펠과 그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충성을 맹세한 케일이라니.나는 내 앞을 막아선 케일을 쳐다보았다. 그리곤 그를 비웃었다. 케일은 내가 겁먹지 않고 웃자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그가 무서운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면서 말했다.“저희들에게 무슨 볼일이라도?”나는 팔목에 맨 붕대를 그에게 쑥 내밀었다. 그는 조금 움찔하며 이게 뭐냐는 눈빛을 보냈다.“케일군. 저말이죠... 얼마전에 케일군 앞에서 심하게 넘어졌던 것 기억나요?”케일이 내 목발을 슬쩍 쳐내서 내가 그걸 잡으려다 이 교실 바닥에서 굴렀었다. 물론 케일이 나를 밀어낸 것도 아니고, 그가 내가 넘어졌으면 해서 그 목발을 쓰러트린 것도 아니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꼬투리를 잡기로 했다. 애들이라서 봐주려고 했지만, 그쪽이 너무 애들답지 않고 더티하니까 나도 어른의 성질 더러움을 보여주기로 한 것이다. 참고로, 나는 이런 질척한 싸움을 꽤 잘한다. 놀랍게도!케일은 내 말을 듣고 약간 움찔했다. 불쌍하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다. 그게 왜 자기탓이냐고 뻐기면 될텐데... 순진하긴. 역시 애긴 애다. 게다가 곱게 자란 귀족소년이지.“저, 분명 보았고 말이죠! 케일 군이 목발 쓰러트리는거 말이에요!” 나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비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케일은 안절부절 못했다.“그걸 잡으려다가.. 저.. 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다치고 말았죠... 발목도 삐끗해 버리고요.”뻥이다. 발목은 멀쩡했다.파르펠은 내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느끼고 얼른 내 이야기를 잘랐다. 역시 그녀는 제법 사교에 센스가 있다.“분명, 그때 당신이 우스꽝스럽게 넘어졌었죠, 그치만 당신이 말했듯이 꼴랑 무릎을 다친 것이잖아요?”‘맞아~’ 나는 마음속으로 여유있게 그녀에게 답했다. 실제로는 여유있게 듣고만 있었다.파르펠은 내 태도에 더욱 약이올라서 계속해서 말을 했다.“게다가! 당신 그 상처를 미끼로 왕자님께 알랑거려서 안겨가기까지 했잖아요? 염치없게도 말이죠!” 그녀가 씩씩댔다. 파르펠의 말을 듣고 모두가 술렁대기 시작했다.‘바보같은 파르펠, 실수했구나.’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제 파르펠 때문에 이 반에 나와 왕자 사이를 모르던 아이들도 알게 되었다.나는 고상한 말투로 말했다.“어머나~ 훔쳐보셨군요 파르펠. 그래요, 무릎의 상처가 심해보여서 상냥하신 왕자님이 궁에서 치료받는게 어떨까 제안해 주셨답니다.”궁이라는 소리에 주위의 아이들이 숨을 삼키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 너희들은 잊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 프랑디아 공작가야. 궁정도야 우숩게 들락날락한단 말이지. 나는 메디엘 왕자를 거리낌 없이 팔아먹기로 한다. 미안 메디엘왕자님 당신은 여기서 꽤 고가로 팔리네요.“그때는 오히려 케일군한테 고마울 정도였답니다. 타이밍 좋게 찬란하신 왕국의 태양, 폐하도 오랜만에 뵐 수 있었고요.” 나는 ‘폐하’ 를 말할 때 극적인 말투를 쓰기 위해 애썼다. 물론 오랜만에 뵙다는 것도 뻥이다. 처음뵈었지. 하하. 그래도 태어났을 때라던가... 양녀로 입양됬을 때라던가... 이렇게 중요했을 땐 뵙을 지도 몰라? 나는 기억 안나지만.반 아이들은, 심지어 파르펠조차 국왕 폐하라는 말에 눈에 보일 정도로 기가 꺾이는 듯 했다. 그래 이맘때 애들한텐 ‘우리 아빠 경찰이다?’ 같은 게 제법 먹히지. 그럼 그럼.이런 분위기에도 파르펠은 꽤 꿋꿋히 나한테 반론했다.“그거랑 팔의 상처랑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니까요?”재촉안해도 말할텐데, 조금만 진정해 줬으면 좋겠다.“그렇게 황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요...” 내가 사냥꾼의 눈을 했다. 위험한 분위기가 풍기도록, 메디엘 왕자나 미카엘의 포식자의 얼굴을 흉내내본다. 제법 먹히는 것 같았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제가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발목이니 무릎까지 다쳤더니 말이죠, 부축해 주는 사람이 손을 놓자마자 계단에서 굴러버렸지 뭐예요. ” 약간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억지를 써서 케일을 압박하기로 했다케일은 아무리 못됐다고 해봤자, 결국 어린 아이였다. 그는 죄책감이 드는 표정을 지었다.“이 공작가의. 막내 따님이. 지금. 당신 덕분에. 계단에서 굴렀다고. 말하는 거예요.”눈을 똑바로 보고 차근차근 말했다. 목을 부풀려 허세를 부리는 개구리처럼.“그.... 그건 사고 였잖아요? 라디올러스 양.” 케일이 당황해 하면서도 대드는 듯 한 말을 한다. 그러나 나는 그가 이미 꼬리를 말았음을 느꼈다. 나는 싸늘한 표정을 연기하며 말을 마무리지었다.“그럼요. 알고있어요. 다만, 우리는 별로 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당신의 위치나 저의 위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하고요. 이번엔 부디 그 격의 차이를 알아주었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랍니다? 다음번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하네요.”예쁘게 웃으며 길을 비켜달라고 고갯짓 했다. 그는 순순히 비켜주었다. 아까 왜 내 앞을 막았는지는 잊은 눈치이다.내가 파르펠의 코앞까지 걸어가니 파르펠은 처음에는 당황해 하다가 이내 싸우려고 마음 먹었는지 사나운 눈을 했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휙 돌려 그녀 책상의 의자를 빼고 태연히 앉았다. 교실에는 정적이 흘렀다.“지,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파르펠이 황당한지 말을 더듬으면서 말했다.“네? 수업준비 하는데요?” 나는 왜 그런걸 묻냐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거긴 제 자리에요! 라디올러스 양!” 파르펠이 신경질 적으로 소리를 높여서 말했다.“네에? 원래 자리 안정해져 있잖아요?”사실이다. 황실 아카데미에서는 촌스럽게 자리배정따위는 하지 않았다. 다들 자연스럽게 주류에 따라, 혹은 사교 관계를 잘해서 자리를 정하는 것이다. 나나 안나처럼 섞이지 못하면 맨 뒤의 구석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한번 정해지기 시작하면 계속 같은자리에 앉기 마련이라서 파르펠은 그 자리를 자신의 자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파르펠은 약이 올라서 말했다.“제가 쭉 앉아왔던 자리에요!”“아. 요즘 안 나와서 몰랐네요. 이거 실례.” 그렇게만 말하고는 그대로 앉아있었다.그녀는 뭐라고 더 소리치려 했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위해 들어오시고 말았다. 결국 그녀는 케일의 자리에 앉고 케일이 숨긴 내 책상을 요란하게 끌고 와 맨 뒷자리에서 수업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게 왜 이런 소모적인 장난을 치는 거지?수업은 그럭저럭 대충 들었다. 다만, 신경을 조금만 놓으면, 미카엘 생각이 나서 우울해 졌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집중을 해야 했다. 쉬는 시간 마다 파르펠이 와서 뭐라고 재잘거렸는데, 그냥 귀머거리인 척 죄다 무시했다.결국에는 파르펠이 분통이 터졌는지 내 팔을 잡아서 억지로 일으키려고 했다.나는 매섭게 파르펠의 팔을 쳐냈다.“감히 어디다가 손을 대는 겁니까!!!”나는 미친 것처럼 소리를 빽 질렀다. 모두가 우리를 보았다. 제법 아프게 쳐냈기 때문에 파르펠은 자신의 손을 감싼 채 넋을 잃고 내 모습을 보기만 했다.나는 전과는 다른, 사나운 태도를 취했다.“정말이지 매너라고는 볼 수가 없네요 파르펠양.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유치하고 추악한지 알고있습니까?”경멸하는 눈을 했다. 파르펠은 또 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대답했다.“지, 지금 매너 없는 게 누구인데요! 당신이잖아요 라디올러스양! 남의 자리를 빼앗고...”“빼앗고?” 재빠르게 말꼬리를 잡았다.“누가 빼앗았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시죠? 마치 제가, 이 라디올러스 프랑디아가 도둑질이라도 한 것 같은 말투네요? 파르펠 테젠양.”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르펠과 눈높이를 맞춘다. 앉아서 내려다보는 시선을 계속 받을 순 없으니까 말이다.“분명, 교실의 자리는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였죠? 그렇다면, 배짱있는 사람은 아무자리나 앉으면 되는 거잖아요. 안그래요? 파르펠양?”파르펠은 아무소리 안하고 그저 나를 노려보았다.“당신처럼 치사하게 책상 같은 거 치우지 말고 말이예요.” 나는 다시 자리에 아무일도 없던것 처럼 앉았다. 파르펠은 그 자리에 서서 조금 더 나를 내려다 보긴 했지만, 내가 대꾸를 안 해주자 그냥 제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나도 그러려니 한 다음 그냥 수업을 들었다.이동수업을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나는 오랜만에 안나를 만날 생각을 해서 조금 들떠있었다. 내가 마법클래스에 나타나자, 모두들 심지어 선생님까지 짧은 평화가 깨진 것을 아쉬워 하는 눈치였다. 안나만이 내가 와서 진심으로 반가운 듯했다. 그러나 나는 안나의 작은 몸을 보자 조금 안타까워졌다. 내가 학교를 쉰 그 짧은 새에 그녀의 치마는 또 고친 자국이 생겼고, 팔에는 멍이 들어있었다. 누군가 못된 장난이라도 친 것이겠지. 아이들이 나한테는 그나마 손을 섣불리 못 대지만, 빽이 없는 안나에게는 험한 장난이 쉽게도 나갔다. 고약한 것들 같으니라고.“라디! 이제 몸은 괜찮아?” 안나가 활짝 웃었다. 사실 그 말은 안나에게 내가 먼저 물을 뻔했다.“응! 이제 거의 다 나았어!”나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다행이 오늘은 실습이 없어서 그냥 일반 수업과 똑같이 수업을 들으면 됐다.“다행이다!”안나가 진심으로 다행이라는 듯 가슴에 손을 얹으며 자그마하게 안심하는 한숨을 쉬었다. 아 귀엽다. 나는 힐링되는 기분이다.“안나, 그런데 팔에 이 멍은 뭐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물음에 그녀는 조금 곤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음... 모르는 애들이 갑자기 시비를 걸더라고.”모르는 애들? 나는 순간 아찔한 기분이 들었다. 설마...“혹시 초코색 머리에 기가 세 보이지만 이쁘장한 여자애?” 나는 설마하며 물었다.안나는 눈을 똥그랗게 뜨고 물었다.“우와? 어떻게 알았어? 정확히는 걔랑 다니는 덩치가 꽤 있는 남자애가 문을 갑자기 벌컥열어서 문고리에 찧은 거야.”나는 기가 찼다. 파르펠 그 영악한 것이 내 약점을 정확히 찾아냈다. 어린 애들이라고 너무 우습게보았나 보다. 이런 치사한 짓을 하다니. 나는 나 때문에 안나가 피해를 입은 거 같아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윽... 미안해 안나. 그거 나 괴롭히는 애들인 것 같아. 설마 진짜로 널 괴롭힐 줄이야...”안나는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손을 내저었다.“아~ 아냐 아냐, 괜찮아. 이정도야 뭐. 네가 잘 못한게 아니잖아.”이정도쯤이야. 라고 넘어가는 안나가 안쓰럽다. 안나를 미안한 맘에 보고있으려니 그 아이가 말했다.“너랑 같이 있기 위한 값이 그 정도라니 너무 싼 편이야.”안나가 환하게 웃었다. 안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나는 조금 울컥할 정도였다.“안나! 너랑 만날 수 있었던 내가 더 행운으야.” 나도 마음을 전했다. 안나는 수줍게 말했다.“거봐, 이렇게 다정한 소리를 해주는 걸.”얼굴이 빨개져서 안나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나는 안나의 손을 꼭 잡고 쑥스러움에 조금 앞뒤로 흔들었다. 곧 선생님이 정신사나우니 그만 두라고 했다.마법 수업은 전의 기초적 마석에서 조금 진화해서 무슨 저장식으로 마법을 응축해서 엑기스처럼 만든 다음 돌로 만드는 것에 대한 수업이었다. 예를 들면 불에 대한 마법을 응축해 놓은 마석은 마법에 대한 소양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사용해서 쉽게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았다.‘고급 라이터냐.’ 속으로 따분하게 실례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마치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일어나서 방금 배운 부분을 읽으라고 했다. 진짜 읽히고 있는 건가? 내 마음?“표정에 너무 드러나는 거에요 라디올러스양.”예의 그 젊은 남자 선생님이 지긋지긋 하다는 듯이 말했다. 너무하다! 이런 낙제아 취급은 처음이다. 제일 소름끼치는 건 왠지 나만 예의주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어쨌든 나는 집에서 책을 성실하게 읽고있는 탓에 이론에는 빠삭했다. 선생님이 하는 질문에도 모두 훌륭히 답한 다음 수업을 마칠 수 있었다. 안나와는 잘가라는 인사로 살짝 껴안은 다음 헤어졌다. 안나를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까... 하고 집에 가는 데 또 익숙한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라디올러스양. 제게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어요.”...저번에 불러 세울 때보다 상당히 건방져져 있었다. 목소리에도 불만이 가득하다. 또 뭐가 문제인 걸까 이 거만한 재규어는.그치만 반가워서 금방 뒤돌아 선다. 밝은 얼굴로.“왕국의 빛나는 별 메디엘 왕자님을 뵙습니다!”나는 극도로 밝게 인사했다. 왕자님과 만남으로써 내 꿀꿀하고 찝찝한 기분이 모두 날아가버렸으면 좋겠다.그는 나의 정도를 넘은듯한 밝은 인사에도 별 반응 없이 한쪽 눈썹을 올리며 못마땅하게 반응했다.“아아 네에 그렇습니다. 왕국의 찬란한 별이 분홍색 인사를 받습니다.”? 왜 빈정대는거지? 그 와중에 목소리톤이나 몸짓이 완벽하게 고급스럽다는 것이 더 열 받는다.“...뭐가 또 그리 맘에 안 드시는 거죠?”나도 지쳐있는 상태라 대충 삐딱하게 물어본다.“글쎄요. 뭘까요.” 그는 불만스럽게 내려다본다.“음...저번에 황궁가서 마지막 케이크를 먹어치운게 나라서?”최대한 생각해 본 끝에 나온 답변이다. 진짜 짐작도 안가는데?“와 제 그릇을 너무 작게 보시네요 영애.”그는 이제 상냥하게 웃는다. 이게 더 위험한 징조이다. 나는 자세를 고치고 최대한 예의바르게 그의 눈치를 살핀다. 왜 내가 이런 꼴이여야만 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내 비굴한 근성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있다.“실례가 많았습니다. 소인, 아둔한지라 도통 왕자님의 넓으신 그 심중을 짐작도 못하겠나이다.”꾸벅 인사도 한다. 그제야 왕자는 말해줄 생각이 들었는지 내 옆으로 바싹 붙어서 나를 부축했다. 그리고는 걸으면서 들으라는 몸짓을 했다. 나는 얌전히 그렇게 했다. 손이 많이 가는 왕자다.그는 탐탁치 못하다는 말투로 말했다.“아프셨다고 들었습니다.”뭐지... 이게 뭘 찔러보려고 나온 말일까. 그의 의중을 짐작하며 대답했다.“네에...따지자면 지금도 쫌 열이 나는데요.” 나는 아프단다. 살살 괴롭혀주렴. 이런 의미를 담아 조그맣게 말해본다. 내 말을 들은 왕자는 꽤 빠른 몸놀림으로 장갑을 벗은다음 이마에 손을 댔다.그러나 그 몸짓과는 반대로 얼굴은 계속 무심함을 유지한 채로 말했다.“아참, 공녀의 몸에 손을 대어도 괜찮을까요?”“이미 대고있잖아요.”정말로 기가차구만.“그러게요 제가 신경쓰고있다는 게 눈에 훤히 보이네요.” 그가 또 뾰족한 말투로 말한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니 정말로 나를 보살핀다는 느낌인지라 나는 솔직하게 감사의 말을 표했다.“하하 그러고 보니 왕자님께 걱정을 다 받고 있네요. 감사합니다.”나는 산뜻하게 감사인사를 했다. 그런데 왕자는 더 기분이 나빠진 것 같았다. 사춘기 소녀만큼 디테일한 커버를 요하는 왕자님이시다. 나는 엄청 무딘편이라 좀 다루기 까다롭다. 미카엘도 참 알기어렵던데...아. 이 나이대 남자아이들이 다 어려운건가? 내가 상념에 빠져있는데 메디엘이 손을 떼며 말했다.“확실히 조금 미열이있는 것같네요...그리고 저는 라디양 걱정 따윈 안하는 사람같이 말하시는군요.”그가 다시 걸음을 옮기느라 정면을 보며 말했다.평소에도 나를 신경쓰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건가? 쑥스러운 기분이다.“....만약 평소에도 가끔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것이라면.” 그의 소매를 조금 당겨 그가 나를 보게 한다. 나는 활짝 웃어 내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소녀, 영광무지로소이다.”내 너무나도 복고풍의 말투에 왕자는 자기도 모르게 키득 웃어버렸다. 화가 풀렸으려나.왕자는 웃어버린게 조금 분한지 다시 뾰로퉁하게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기습공격이라니, 치사하네요.”“기습에 약하다니, 좋은 사령관은 아니시네요.”그가 또 내 이마에 약하게 손가락을 튕겨 꿀밤을 먹인다.입은 살아있는 내가 이마를 문지르며 또 반박했다.“병을 앓고 있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다니, 좋은 남편감도 아니에요.”그는 약간 발끈해서 손을 들었다가 한숨을 쉬면서 이마를 가렸다.“이렇게 어린 당신이 남편감 운운하지 마십시오. 정말이지 허무해집니다. 아직 내가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시지요?”“왕자님이 쓸데없이 너무 섬세한 거 아닐까요.” 나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왕자님의 감성은 내가 따라가기에 너무 정밀합니다. 내가 이상한게 아닐꺼에요. 아마...메디엘이 내 얼굴을 뚫어져라 보았다. 그가 잘 짓곤 하는 그 특유의 업신여기는 표정으로.“저는 당신이 아파서 쉰 것을 한참 후에나 알게 돼서 참 서운한 겁니다.”“...아하.”나는 이제야 이해했다. 그렇구나... 하긴 친한 친구가 아무말도 없이 결석한 다음에 나중에 이유를 알려주면 꽤 섭섭하지. 왕자가 나를 그렇게 여겨주다니, 기분이 나쁘지 않다. 음? 근데 여기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게다가 왕자님께 굳이 내 결석사유를 알려주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그래도 화를 돋우지 않으려고 굳이 언어로써 물어보진 않았다.“왜 라디양은 아직도 이렇게 일일이 심리상태를 말로써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시는 거죠?” 그가 진절머리 난다는 듯 말했다.나는 내가 가진 가장 효율성 좋은 방패로 내 몸을 가렸다.“어리니까?”더 어려보이게끔 헤헤 웃으며 머리를 긁적여본다.그는 나를 삐딱하게 바라보며 말했다.“당신은 또래들 보다도 이런 면에선 더 미성숙해 보여요.”“하하하...그럴리가요...”그럴리가! 나는 실제로는 메디엘 보다도 한참 연상이다. 그러나 찔리는 구석이 있어서인지 받아치질 못하겠다.그가 쯧 하고 혀를 차며 자연스럽게 나를 마차로 에스코트한다. 나도 별생각없이 마차로 발을 들이려다가 깨닫는다. 어라? 나 어째서 메디엘의 마차에 타고있어?그가 심술궂게 말한다.“저에게 사과의 의미로 시간 좀 내주시죠.”나는 작게 한숨을 쉬긴 하지만 그에게 저항할 생각은 없었다.“그냥 같이 가자고 해도 제가 얌전히 따라갈 텐데요.”그는 이미 우아하게 내 앞자리에 앉아서 말했다.“그러면 라디양이 당황하는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그리고는 재미있다는 듯이 살짝 웃었다. 뭐야 도대체... 하지만 그가 이렇게 가끔 보여주는 장난기있는 소년같은 모습을 나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웃는다.“근데 궁으로 가는 거 맞아요?”왠지 원래 다니던 길이랑 조금 달라보인다.“아뇨, 근처 풍경 좋은 호수로 피크닉이요.” 그가 심드렁하게 말했다.“네? 엄청나게 급작스럽고 난폭한 통보네요.”사전에 공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그는 내 말은 거의 안들리는 것처럼 무시하고 창밖을 보며 말했다.“첫 데이트랍니다.”그가 씨익 웃었다. 제법 기분이 좋아보인다.데이트? 데이트라... 꽤 로맨틱해 보이는 단어이다. 나는 그 단어에 약간 싱숭생숭 들뜨는 것을 느꼈다.“우리같이 애매한 사이는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나는 그를 올려다본다. 그는 그다지 나를 진지하게 연애상대로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작정 호수가로 가서 그가 무엇을 할지 궁금하다.그는 나를 진지하게 보다가 말했다.“뻔하지요. 남들같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평소에도 같이 있을 때 많잖아요?”그는 한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내 머리를 슬쩍 꼬며 말했다.“데이트라는 이름의 힘을 빌어 친숙하지 않은 장소에 가서 상대방이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말하길 비는 것이 보통이지요.”나는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래도 달리 뭔가 나에게 원하는 게 있는 것 같다.“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군요.”그는 나를 만지던 손을 내려놓고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뉘였다. 그리고는 힘빠진 목소리로 말했다.“아~아 그것까지 말하지는 않을 꺼에요. 그건 너무 재미없는 상황이거든요 라디양.”그렇게 말하고는 나를 또 그 거만한 눈으로 내려다 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에는 이제 꽤 익숙해 졌기에 그냥 그가 나를 쳐다보게 내버려 두고 잠시 생각을 했다. 때문에, 마차는 한동안은 조용히 길을 달렸다.우리는 곧 호수에 도착했다. 사용인들은 이미 호숫가 그늘에 우리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를 펴 놓았다. 우리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그는 사용인들이 자리를 뜨자마자 한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옆으로 누웠다. 거침없는 태도다. 일단은 나도 있는데... 그는 이제 사과를 대충 꺼내서 와작 씹으며 나를 쳐다보고있다. 뭐지...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나는 누워있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얌전히 그가 사과를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거의 반정도 먹을 때까지 그는 아무말도 안하고 나를 보기만 하고 있다. 어쩌라는 거지... 나도 그렇게 누워서 사과를 먹으라는 건가...나는 고민 끝에 일단 그가 먹던 사과를 뺏어보았다.이상한 상황이 되었다. 그는 이제 팔을 괴고 나를 쳐다보기만 하고 있었고, 나는 그가 먹던 사과를 뺏고는 멍하니 앉아있는 상황이다. 이걸 뺏으면 말할 줄 알았는데..... 나는 뺏어놓고 뻘줌해 져서 반정도 없어진 사과를 한입 베어 물었다.그는 꽤 놀란 표정을 하더니 말했다.“내가 먹고 있던 걸 먹는 거예요?”“더럽다고 욕하시게요?” 나는 태연히 계속 먹어나갔다. 그가 침묵을 깨줘서 좀 낫다.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아뇨, 보기 좋네요.”그리고는 자신은 새 사과를 꺼내서 다시 베어물었다.아 정말이지 너무하네 메디엘 자기가 먹던 걸 내가 그냥 먹게하고 자기는 새로운 사과를 꺼내 먹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건방짐이지....?나는 왕자의 어이없는 태도에 오히려 웃음이 나올 정도였다. 결국 그를 조르기 시작했다.“아 뭡니까~ 왕자님~ 원하는 게 뭐에요... 저는 단순해서 속시원히 말씀 해주셔야 한다고요...”왕자는 내 요청에도 별 미동없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사과를 우물우물 씹으며. 굉장히 프리한 자세다. 왕자님은 평소에도 이렇게 편하게 누워있는 것일까.나는 결국 그에게서 답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호수를 감상하기 시작했다. 메디엘이 반 정도 먹어치운 사과를 베어 물면서. 그렇게 잔잔한 호수의 표면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또 조금 슬퍼지기 시작했다. 미카엘이 나를 두고 가버렸다. 내가 구해주겠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내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나가버렸다. 여태까지 나와 미카엘사이에 천천히 쌓아왔다고 생각했던 우정은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걸까. 가슴이 답답해서 나는 이 고통을 메디엘 왕자에게 털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나는 계속 호수를 쳐다보면서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메디엘에게 말을 걸었다.“사실 제가 말이죠... 왕자님...”왕자가 갑자기 박수를 짝 치면서 일어나 말했다.“정답!”나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정답?메디엘은 이제 양반다리를 하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있었다. 내가 무슨뜻이냐는 멍청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그는 여유있게 웃으며 말했다.“방금 하려던 대로 지금 라디양의 속내를 말하시면 됩니다.”“네?”“내가 당신을 여기에 데려다 놓은 이유가 그거라고요. ‘데이트란 원래 서로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함’이라고까지 말했는데 모르시다니! 당신은 정작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한테 하나도 말해주지않아요.”“와, 그냥 왕궁에서 차 마시면서 말하라고 해도 했을텐데요.”내가 투덜거리자 그가 불만스럽게 말했다.“찔러서 얻는 대화에도 슬슬 지치더라고요. 당신이 스스로 나한테 깊은 이야기를 했으면 했네요.”뭐야.... 싱겁기는. 왕자는 이상한 곳에서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매번 생각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말이지 장단에 맞춰주기 힘들군. 뭐, 특이해서 재밌긴 하지만.나는 한숨을 쉬고 다시 말을 시작했다.“뭐, 여기 예쁘니까 봐드릴게요. 아 아무튼. 하려던 얘기 까먹겠네요. .”그가 계속 말하라는 손짓을 했다. 네에 네에.“왕자님, 저희 성내의 감옥에서 죄수 한명이 탈옥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내가 멍하니 말했다.“아, 네 그렇다고 하더군요. 근데 뭡니까? 깊은 속내 좀 말해달라니까요?” 그가 금방 짜증을 낸다. 참 참을성이 없다.“ 연관된 얘기니까 가만히좀 있어보세요.”“아 그렇습니까?”그가 다시 얌전해진다. 음... 근데 미카엘이 그 탈옥한 본인이라고 말할 순 없지.“그...자세하게 말할 순 없지만요. 그 사건에 연루돼서 사용인들한테도 영향이 갔을 것 아니에요?”“그렇지요.” 그가 지루하다는 듯 대답했다.“그 사람 중에 저랑 굉장히 친했던. 아니... 음...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그는 일순 표정을 바꾸어 내 이야기를 매우 집중해서 듣고 있다. 아까의 지루하다는 태도는 찾을 수 없다.“제가 그 친구한테 너는 별 영향 없이 여기서 지내게 해 주겠다. 나만 믿어.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 아이는 저한테 말도 없이 떠나버렸어요.”미카엘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말하느라 사실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뭐 대략 내가 슬픈 이유는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나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고개를 조금 숙였다. 아 씁쓸하다. 메디엘은 그런 나를 주의 깊게 보더니 내게 물었다.“라디양은 왜 슬픈거라고 생각해요? 호의를 무시당해서?”“아니지요! 나만 친구라고 생각했던건가... 해서 슬픈거에요. 그 사람이랑 보냈던 시간이 나한테만 소중했던건가... 내 진지한 마음은 그 사람한테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건가 해서....”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옛날에 메디엘 왕자와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아 그런거였을까.'나는 드디어 뭔가를 깨달았다.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미 내 눈에는 눈물이 흘러넘치기 직전이었다.“왕자님도, 저한테 저번에 그 고백 비슷한 것을 하셨을 때말이죠...”그가 조용히 나와 눈을 맞춘다. 나는 따뜻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낀다.“이런 기분이었던 걸까요...” 나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마쳤다.내 진심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것만 같아서 가슴이 아팠을까. 상대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은 나름대로 진심이었다. 내 곁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내 심정을 하나하나 이해시키고 싶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인지 억울하기까지 했다. 메디엘도 나에게 고백을 했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나는 이제 진짜로 왕자에게 사과를 할 수 있을 것 같다.“왕자님, 저번에 왕자님의 고백을 말도 안돼는 것이라고 무시해서 정말로 죄송해요. 저는 그때 도망치지 말고 제대로 대답을 해야했어요.”왕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씨익 웃었다. 완전히 포만감으로 행복한 재규어이다.“아무리 당황스러웠어도, 당신이 어떤 심정으로 말을 한 것이었는지, 잘 생각해 봤어야 했어요.” 나는 아직도 울먹거리는 목소리였다.그는 평소에 보기가 끔찍이도 힘든 자상한 얼굴로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장갑이 금방 젖었다.“제 생각보다는 당신이 제대로 자라주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네요.”그가 예쁘게 웃었다.“제 무례를 용서해 주시고... 게다가 매번 어리광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왕자님이 너무 좋아요.”나는 그가 상냥하게 굴자 더 눈물이 쏟아졌다. 미카엘도 깨달아 주면 좋은데. 내가 그를 정말로 좋아했다고 이해해 주면 좋을 텐데.나는 내 눈물을 닦아주던 그의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나도 그렇고 미카엘도 그렇고 정말이지 바보라니까...”내 말을 듣고 왕자는 두 손으로 내 어깨를 꽉 잡았다.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보니 왕자는 아까의 따스함은 어디로 갔는지 꽤 무서운 분위기였다. 나는 미카엘의 이름을 말한 것을 깨닫고 내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음을 알았다. 이름을 말해버리다니! 이제 왕자는 내가 죄인과 친하게 지냈다는 것을 알아버릴 것이다.메디엘은 씨익 웃었다. 분명 입꼬리는 올렸지만, 눈은 굉장히 사나웠다. 아 어쩌지? 내가 죄인을 풀어줬느냐고 의심받게 될까? 일단 죄인과 만나고 다녔다는 사실부터 추궁받게 될까? 나는 두려움에 조금 패닉이 되었다. 나를 한참을 쳐다보다 메디엘이 입을 떼었다.“친하게 지냈다는 사람이... 남성이었군요?” 꽤 상냥하게 내려고 노력한 목소리 같았다.나는 의외의 물음에 그냥 왕자를 보며 멍하니 있었다. ‘대답해!’라는 의미로 그가 내 어깨를 살짝 앞뒤로 흔들었다.“네. 그런데요?”뭐지? 미카엘이 탈옥범 본인이라는 건 모르는 것 같은데? 탈옥범의 이름까지는 못들은 건가?...아니, 잠깐 '미카엘'이 본명이 아니었던건가?!?!... 잠깐! 나한테 이름마저 가르쳐 주지 않은거야? 미카엘 이 못되먹은 녀석! 나는 눈 앞의 메디엘은 잠시 까먹고 마음속의 미카엘에게 화를 냈다.메디엘은 급 반말로 나를 대했다. 왕자는 가끔 열이 받거나, 극도로 흥분하면 반말을 쓴다. 이것도 나한테만 하는 행동인지는 모르겠다.“와! 방금 남자애가 너한테 말도 안하고 갔다고 운거였어?” 그가 화를 냈다.“음... 처음엔 그거였는데, 나중에는 왕자님한테 미안했던게 훨씬 컸어요.”나는 분석적으로 말해주었다.“그리고 나는 당신이 어떤 모르는 녀석을 그리워 하면서 우는 걸 달래준거고?”메디엘이 더욱 짜증을 냈다. 내 말을 듣기는 한 건가...“아니, 운거는 거의 왕자님 때문이라니까요.”내 눈물은 이 왕자의 돌변한 태도 때문에 쏙 들어갔다. 울고 났더니 이제는 좀 피곤하다.“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라디올러스양?”그는 조금 이성이 돌아왔는지 다시 존댓말로 나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왜 화를 내는 거지... 뜬금없기가 망둥어같다.“뭐가요.... 방금까지만 해도 굉장히 온화하게 제 사과를 받아줘놓고선...”나는 허탈하게 말했다. 이번에야 말로 해피엔딩일줄 알았는데...“그 미카엘인가 뭔가 하는 녀석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그가 언성을 높혔다.“아!!!!!눈물이 나온 결정적 이유는 왕자님때문이라니까요!!!” 진짜 답답한 친구다.“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왕자는 자기가 억지를 부리는 중이면서도 오히려 자기가 답답해 죽겠다는 표정을 했다. 뭐지.... 이 어이없는 왕국의 별같으니라고.“지금 누구 때문에 울었느냐. 그것 때문에 화내는 거 아니였어요?” 나만이라도 일단 진정해 본다.“아니라니까요!”그가 이마를 역동적으로 짚으며 말했다. 이윽고 나를 노려보며 다시 으르렁댔다.“문제는, 내가 아니라 그 미카엘이라는 놈 때문에 당신이 한층 성숙해 진 것입니다.” 그가 굉장히 불쾌하다는 듯이 말을 뱉었다. 나는 그 말을 조금 음미해 보았다.“....제 생각엔 왕자님이 없었다면 저는 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진심이었다. 바람에 왕자의 머리카락이 조금 흔들린다. 나는 오랜만에 그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다. 그와 바싹 붙어앉았다.살짝 그의 뒷 머리를 건드리며 말했다.“왕자님 덕분이에요. 화좀 그만 내요.”그에게 고마움을 담아 말했다."...."그는 얌전히 내 손길을 받았다. 메디엘은 내 말을 듣고 한층 안정된 모습이긴 했지만 여전히 불쾌한 듯 땅을 보기만 했다. 그리곤 낮게 중얼거렸다.“어찌됐던 그 남자가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것이 너무도 불쾌합니다.”그렇게 말하고는 메디엘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던 내 팔을 쭉 잡아당겨 내가 그의 품에 안기게 만들었다.“으앗.” 나는 갑작스런 그의 포옹에 깜짝 놀라 조금 볼을 붉혔다. 그는 내 등을 한동한 지긋이 누르더니 일어나며 말했다.“이제 슬슬 가도록 하죠.”음... 안아서 옮겨주는 거였나... 왕자는 꽤 스킨쉽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들쭉날쭉한 감정 변화라니. 고양이과 동물은 참 예측하기 힘들다.우리를 둘러싼 소리는 간간히 들리는 마차의 덜컹거리는 소리 뿐 이었다.나를 마차로 태워다 주는 도중에 왕자는 별 말이 없었다. 그냥 조금 불만스러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이제 그의 그런 모습이 예전처럼 긴장되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웃어줬음 좋겠다. 나는 그와 할 이야기 거리가 있나 생각해 보았다.“아참, 메디엘 왕자님. 그러고 보면 요즘 신상에 문제가 있었던 일이 하나 더 있네요.”내가 메디엘을 불렀다.“네. 말씀해 보세요.”그가 늘어지는 말투로 말했다.“저 요즘 왕따당하고 있어요.”나는 별일 아니라는 말투로 말했다.“....네?”왕자는 자세를 곧추세웠다. 꽤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음... 걱정해 주는 건가? 꽤 기분이 좋다.“아.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좀 신경을 건드리는 정도?”메디엘은 이제 인상을 쓰고 있다.“설마, 요즘 들어 잔 상처가 많은 거랑, 갑자기 학교에 안 나온 것도 그런 이유입니까?”나는 두손을 내저었다.“아이고, 저는 왕따 정도에 스트레스 받고 수업에 안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계단에 굴렀을 때 조금 삐어서 두르고 있던 팔의 붕대를 가르키며 말했다.“이것도 그냥 저 혼자 계단에서 구른 거고요.”그는 바보 취급하는 얼굴로 나를 비웃었다.“정말로 버라이어티 하시긴.”“그건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였다고요! 이 무릎의 붕대랑 목발이 걸려가지고선..!”나는 또 치마를 살짝 들추어 무릎의 붕대를 보여주었다. 아 그러고 보니 이건 왕자도 아는 상처지?“아! 그러고 보니 무릎 깨진 건 케일군이 장난쳐서였...”왕자의 얼굴이 심상치 않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를 위해 그렇게 화내 주는 걸까? 그가 화내는 것이 신경쓰이면서도 조금 기쁘다. 하지만 왕자가 자기 이미지 나빠질 만큼 내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설까봐 걱정이 된다. 나는 얼른 말을 고쳤다.“아니아니, 생각해 보니 이것도 제 실수였네요, 케일군이 의도한 건 아니였어요.”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의도하지 않았던 했던 그가 당신에게 꽤 짓궂은 장난을 치는 거 같긴 하군요.”유치하게도 나는 그가 자기일처럼 화를 내는 게 기뻐서 웃어버렸다.“뭘 웃고 있습니까. 공작가 영애주제에 칠칠맞게 괴롭힘이나 당하고 다니면서 말이지요.”“그치만, 왕자님이 제 대신 화내 주니까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 않네요.”나는 과장되게 격식 차린 몸짓으로 한손은 살짝 가슴에 얹고 한손은 치맛자락을 조금 들며 목례를 했다.“정말이지 황공무지하네요.”그는 한손을 가로저으며 등을 의자에 풀썩 눕혔다.“아아~ 그만두세요 그만둬. 도대체가 그 머리카락 색 만큼이나 머릿속도 태평하다니까.”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그는 조금 쑥스러워 하는 것 같았다. 웬일로 귀여운 반응이다.“그런 태평스런 제 머리색을 좋아한다고 했던 건 바로 왕자님이셨잖아요. 아무튼 생각해 보니 왕자님께 사과하고 싶은 일도 있네요.”“뭡니까 또.” 왕자는 아직도 축 늘어진 채다. 나른하다는 듯 말하고 있다.“제가 반 애들한테 센척하느라 왕자님이름을 많이 써먹었거든요.”“제 이름을요?”그가 의아하다는 눈치다.“네. 아시다시피 왕자님의 위광이 워낙 높잖아요. 왕자님이랑 친하다는 걸 어필하면 굉장히 잘 먹힌답니다. 그래서 왕자님 허락도 안 받고 친하다고 자랑해 버렸어요. 용서해주시겠어요?” 그를 마음껏 높이 말해준다.메디엘은 씨익 웃었다. 마음에 드는지 눈을 가늘게 뜨고 만족스럽다는 눈치다.“저와의 친분을 과시한건가요?"그는 또 그의 나이에 맞지 않는 요염한 분위기를 풍긴다. 낮은 목소리가 왠지 울리는 듯하다.“네. 음... 죄송해요 멋대로 행동해서.”나는 그가 이럴때면 조금 당황스럽다.그가 나를 가늠하는 듯이 내려다본다.“아뇨. 괜찮아요 저를 맘대로 이용해도요. 제 이름정도야 거리낌 없이 써도 됩니다. 당신이 필요하다면 말이죠. 다만...”그가 나와 마주앉아있던 자리를 옮겨 내 옆으로 앉는다. 그리고는 장갑낀 그 손으로 내 머리 끝을 살짝 살짝 건드린다.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본다. 그는 달콤한 머리색을 갖고있다. 나도 그도 단것에는 사족을 못쓴다. 나도 손을 올려 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정말로 예쁜 사람이다. 그가 나른하게 말한다. 조금 비난의 의미를 담아서.“친분이랄 것도 없이 행동하시면서. 비겁하시네요.”“무슨 말씀이시죠?”“항상 속마음이나 중요한 건 내가 졸라야 말해주시죠.”그가 머리끝을 만지던 손을 옮겨 내 귀의 바로 윗 머리를 만진다. 사실 귀끝을 만지는 건지 머리를 만지는 건지 잘 가늠이 안된다.“음... 굳이 말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안하는 거에요. 괜히 신경쓰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말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웅얼 웅얼 변명을 했다.“그렇게 신경 쓴다는 거 자체가 좀 거리가 있는 거 같진 않아요?”그가 느긋하게 말한다. 사실 아직도 나를 혼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나는 도망가기로 한다.“아시다시피 제가 아직 어리잖아요.”그가 질렸다는 듯이 손을 푹 떨구었다. 그러다 무릎께 근처의 있었던 내 자그마한 손과 자신의 손을 맞대어서 크기를 비교했다.“확실히 엄청 작네요...”그가 감흥 없다는 듯이 말한다. 나는 제대로 도망에 성공한 것 같아서 ‘역시 그렇지?’하고 잘난듯 말했다.“네에 왕자님 손에 비교하니 더 그렇네요.”어깨끼리 마주닿는 가까운 위치에서, 그는 내 얼굴을 들여다 보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평소에는 영 어린아이처럼 굴지 않으면서, 이럴 때는 항상 어리다고 둘러대는 게 참 짜증나네요.”정곡을 찔려 나는 메디엘의 눈을 피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했다.“그렇게 어린아이 취급을 받고 싶으면 어린애답게 제 페이스에 휘둘리면 될텐데.”메디엘은 아직도 뚫어져라 나를 바라보고있다. 그의 시선을 받는 곳에서 불이라도 나는 것같이 견디기가 힘들었다.갑자기 시작된 긴장감 속에서 마차가 서는 느낌이 들었다. 마부가 도착했다고 크게 외치고 나서야 왕자는 언제그랬냐는 듯 제자리로 돌아가 우아하게 나를 에스코트했다.“안녕히 가세요. 라디올러스양. 당신이 자라는 것을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어서 가끔은 이 나이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메디엘은 다시 완벽한 왕자님의 자세로 돌아갔다. 나는 공작가 성의 안에 발을 들여놓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가 재규어흉내를 낼땐 정말 내가 생쥐가 되는 기분이다. 미카엘이 없어져서 한동안 나는 우울했지만, 곧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나는 휴리안에게 꼭 달라붙어 생활했다. 휴리안 오빠가 언젠가는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고 살았으면 해서였다.나는 휴리안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다. 그에게 받는 사랑은 바라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사랑받지는 못할지라도 그가 행복해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조금은 성장한 걸까.겨우 휴리안이 나의 존재에 익숙해 질 무렵에는 이미 후덥지근한 여름이 오고있었다.늘 곁에 있겠다고 마음먹긴했지만, 무작정 오빠를 곤란하게 하고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느정도 규칙을 정해놓고 휴리안과 시간을 보냈다.그 규칙이란 학교 가는 마차 안, 휴리안이 성 안의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옆에서 같이 하는 것, 잠자기 전에 차 마시는 시간에만 들러붙어 지낸다는 것이다.그 밖에는 가끔 휴리안이 수련장에서 검쓰는 것을 구경하거나, 가끔 같이 외출을 하는 정도이다. 휴리안은 처음에는 내가 그를 너무 따라서 약간 어리둥절 하는 듯 했지만, 천성이 상냥한 그라, 내치지는 못했다. 이제는 내가 옆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이 참 기쁘다. 가끔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조금 불안하기는 하지만.“안나랑 싸우지는 않니?” 책을 뒤적거리던 그가 생각난 듯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각자 과제를 하던 중이었다. 책상을 두고 마주 앉은 채였다.“응, 항상 같이 붙어다니지만, 아직 싸운 적은 없어. 사실, 항상 싸우는 쪽은 따로 있으니까.”그가 내 단짝인 안나의 이름을 기억해 준 것이 소소하게 기뻐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응? 네가 학교에서 싸움도 한단 말이야?”그가 의외라는 듯이 내 머리를 쓰다듬는다. 나는 기꺼이 그의 스킨쉽을 허락한다. 한동안은 그가 먼저 나를 만진 적이 없었다.“오빠 나 싸움꾼인거 몰랐어? 맨날 윌로우오빠랑 싸우잖아.” 내가 키득거리며 웃는다.“아 그거야 윌로우가 자꾸 시비를 거니까 그렇지.” 그도 씨익 웃는다.“그렇지... 그것처럼 학교에서도 자꾸 시비를 거는 애가 있어.”나는 똑똑하게 생긴 영악한 여자아이를 떠올린다. 이제 나는 왕따라고 할 정도로 대다수의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지는 않지만 파르펠 패거리는 끝끝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곤 했다.특히 내가 만만치 않아보이니까 빽도 뭐도 없는 안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아주 정떨어지는 싸움방식이다.“누군데? 누가 감히 우리 아가씨를 건드리지?” 그가 짐짓 위엄있게 말했다.“파르펠이라고... 혹시 기억나?” 나는 그가 아마 모를 것 같아서 물어보았다.“아아, 그 테젠 공작가 아가씨? 같은 반이라고 했었지. 네가 맘에 안 든다고도 얘기했던게 기억나, 걔가 아직까지 그렇게 못되게 구는거야?”그는 의외로 내가 스쳐지나가듯 말했던 것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역시 수재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이야기한 것이라서 주의 깊게 생각해 줬던 걸까. 어느 쪽이든 자랑스런 오빠지만.“아 말도 마, 걔는 남 괴롭히려고 태어난 애 같아.” 나는 탄식했다.“... 내가 혼내줘?”그는 꽤 진지하게 말했다. 지금 8살 어린 여동생의 천적을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 혼내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팔불출같은 모습이다. 아빠가 할 법한 말을 항상 점잖은 휴리안이 하니까 웃음이 나왔다. 나는 하하하웃었다. 내가 웃는 것을 보고 오빠도 굳은 얼굴을 풀고 잠시 따라 웃었다. 역시 농담이었던 모양이다. 내가 웃음을 멈추고 오빠를 바라보자 오빠는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그래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뭐야, 농담 아녔어? 나는 바보같은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휴리안의 뜻밖의 진지함에 약간 당황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였기에 나는 그냥 화제를 돌리기로 했다.“음... 나는 그것보다도 오빠가 나랑 여름축제에 같이 놀러 가줬으면 하는데?”나는 내입으로 여름축제라는 말을 내뱉고는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에 놀랐다.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미카엘의 연한 눈동자가 생각나버린다. 아 생각하면 안돼.“여름축제?” 휴리안은 마치 그 말을 처음 들어본 것처럼 느릿하게 반추했다.“응, 엄마가 한동안 그것 때문에 바빴잖아? 우리도 거기서 뭔가 해야하냐고 물어봤는데, 그럴것 없이 그냥 우리끼리 놀아도 된다고 하셨어.”“그래? 헬리오들은 간다고 했겠지?”오빠는 씨익 웃으며 말했다. 그 혈기왕성한 형제는 보나마나 참가하겠다고 했겠지. 이런 의미인 것 같다.“응, 오빠들은 신났어. 그래서 엄마는 좀 못미더운 눈치셔.”내가 킬킬거리며 말했다.“널 제대로 보살펴 줄만한 신사로써 적임은 아닌 것 같긴 하네.”오빠가 나긋하게 말하며 내 머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마음먹은 듯 말했다.“그럼 나도 참가해 보도록 할까.”“와~ 오빠, 오빠도 축제 때 마을사람들이랑 섞여서 돌아다녀 본적 있어?”“아니, 별로... 분명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오빠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오빠를 또 억지로 끌어들인거 같아서 조금 뜨끔했다.“어...오빠 이런거에 별로 관심 없구나, 미안 맘대로 졸라버려서... 오빠는 싫으면 안 놀아줘도 돼. 헬리오 오빠는 할 땐 하니까 둘 이랑만 나가도 될 거야.”나는 당황해서 더듬더듬 말했다. 크으... 진심으로 나의 어린애 같음이 창피하다. 이런 몸으로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유치해져 버리는 것 같다. 방금까진 오빠랑 축제를 구경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기뻐서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신차려, 나이값좀 하렴.오빠는 그 검고 깊은 눈으로 나를 자상하게 보더니 말했다.“올해는 나도 가보고 싶으니까 괜찮아.”그렇게 말해도, 분명 나 때문이겠지. 나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조금 달아올랐다.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미안, 오빠 철이 없지?”오빠는 상쾌하게 하하 웃으며 말했다.“진짜 철없는 아이는 자기를 보며 철없다고 하지 않아. 그보다 미안할 거 정말 없어 나도 새삼 여태까지 우리 가문 영지에서 하는 축제를 한번도 제대로 안 본게 부끄러워서 가는 거니까 말이야.”“고마워 오빠. 정말로 상냥함의 표본이라니까.”나는 웃으며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했다.오빠는 내 진심어린 감사를 듣고는 약간 쓴웃음을 지었다. 휴리안의 왠지모를 미세한 자괴감같은 것은 언제쯤 지워질 수 있을까. 자기가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좋을 텐데. 휴리안은 항상 괴로워만 하고있다. 잠시 웃고만 있던 휴리안은 이내 답했다.“축제... 빨리 가보고 싶네, 그치?”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웃은 휴리안은 이내 다시 눈길을 책으로 돌렸다. 축제가 며칠 안남은 날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났지만 메디엘 왕자를 만나기 위해 아카데미에 더 머무르려 했다. 축제 때 뭘 하느냐고 묻고 싶어서였다. 왕자의 마부에게 혹시나 왕자가 먼저 도착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 옆에서 가방을 챙기던 안나가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라디, 오늘은 바로 집에 안가?”“응~ 왕자님께 할 말이 있어서.”“그래? 좀 기다려야겠네? 상급반이시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서서 정리를 하던 안나는 다시 풀썩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나를 보고 싱긋 웃었다.“안나?”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 살짝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그럼, 모처럼 라디의 시간을 독점할까나?” 까만 단발이 귀엽게 산들거리는 안나는 개구쟁이처럼 말했다. 즉, 같이 기다려주겠다는 친절이다. 이렇게 좋은 아이를 무시하는 안나의 반 아이들은 절대로 자기가 손해보는거다. 바보들.“안나, 너무 예뻐서 숨 막힐 거 같아.”나는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부끄럽게 오버하지마~.”안나는 볼이 조금 빨개져서 나를 나무랐다. 순진한 안나.나는 헤헤 웃으며 안나의 어깨를 안았다.“안나랑 있으려니까 좋아서 그러지. 그럼 남는 시간동안 뭐할까? 그냥 여기 앉아서 얘기나 할까?”내 말을 듣고는 안나는 갑자기 진지한 얼굴을 하며 말했다.“그보다는 더 유용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응?”나는 그녀의 말의 뜻을 몰라 바보같은 얼굴로 되물었다.“수련실로 가자. 라디.” 안나가 자신의 가방과 내 가방을 들어주며 앞장섰다. 오 착하디 착한 안나는 내 마법 실습을 연습시켜주려는 것 같다.맙소사 오늘 안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나는 당황해서 목발을 짚고 열심히 안나 뒤를 따르며 말했다.“아, 안나!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것 같아. 좀... 뭐랄까. 위험해! 위험하다고!”그렇다. 아직도 내 실전 연습은 지독히 컨트롤이 되지 않았다. 만취운전하는 1톤 트럭이랄까.안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으며 단호하게 말했다.“라디는 자기가 실전에서 제어를 잘 못한다는 걸 알고 너무 겁부터 먹고있어.”“그거에 겁먹지 않는 사람은 없어!”얼마전에는 수련실 천장을 날렸다. 산들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걸 보고 선생님은 화도 내지 않고 헝크러진 머리로 실성한 사람처럼 간간히 웃었다.안나는 수련실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길 기다리며 엄한 선생님처럼 말했다.“무섭다고 제어하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맨날 그 모양인거야!”나는 그 매우 타당한 논리에 말문이 막혔지만 바로 조그맣게 투덜거렸다.“...이론은 빠삭한데...”“인생은 실전이야. 라디.”내가 들어가자 문가에 가방을 내려 놓으며 안나가 말했다.우리는 그나마 파괴력이 적은 물 계열 마법연습을 하기로 했다. 완전 기본 마법으로, 손안에 물이 조금 고이게 하는 마법인데.... 내가 하면 사우나에 어깨 안마하는 수압정도로 나온다. 직격해서 맞으면 조금 아프다. 직접 맞은 선생님이 했던 말이니까 아마 사실일 것이다.“워터!”내가 겁에 질려 내 손바닥을 벽으로 향한 채 쭉 뻗고 외치니까 손바닥에 고압 수도꼭지가 달린 것처럼 물이 콸콸 나오며 벽을 때렸다. 내가 당황해서 어떻게 멈추는지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안나를 쳐다보았다. 안나는 전액 장학으로 학교에 다니는 만큼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다.“라디! 계속 그렇게 내버려두면 아무리 너라도 힘에 부쳐! 네 손바닥으로 향하고 있는 마력을 흩트려야지!”머릿속으로 팔이 주사맞기 전에 고무줄로 꽉 졸라매서 피가 안통하게 된 상황을 몇 번이고 상상한 끝에 물을 멈출 수 있었다. 몸이 나른하다. 기초마법으로 이렇게 기진맥진 될 수 있다니, 나는 정말 낙제생일지도 모르겠다.그렇게 피곤해서 주저앉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안나가 작은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뒤돌아보니 문가에 세워 놓은 가방주변에 누군가 있는 것이 보였다.평소에 안나를 괴롭히는 남학생 패거리였다. 쟤네는 집에도 안가고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진짜 할 일도 없네.그 아이들은 무례하게도 안나의 낡은 가방을 들어 제멋대로 뒤지고 있었다. 우리는 당장에 안나의 가방을 되찾기 위해 다가갔다. 나는 불쾌해져서 외쳤다.“뭐하는 거야? 제정신이야?”상대편이 기분나쁘게 웃으며 말했다.“어? 그 유명한 라디올러스 영애분 아니세요? 초면에 반말이라니 생각보다 예의가 없으시네요. 저희가 볼일 있는 쪽은 안나니까 신경쓰지 마세요.”그렇게 말하고는 저희끼리 키득거리며 웃는다. 지금 예의없는 쪽이 누군데. 어이가 없다. 애들이지만 진심으로 열이 받기 시작한다. 정말 확실히 나도 유치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하다.“그거 내놔. 안나 가방을 맘대로 만지다니!”내가 바로 앞에서 흔들고 있는 가방을 잡으려 손을 내미니까 뒤의 자기 친구에게 가방을 넘겨줘 버렸다. 하는 짓이 헐리웃 영화에 나오는 싸구려 양아치다.안나는 입술을 씹으며 가방을 잡기위해 그 무리의 뒤쪽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가방을 잡고있던 아이는 다시 다른 아이에게 그 가방을 넘겼다. 나는 움직임이 서툴러서 가방을 낚아채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제길 분하다. 우리가 약올라 하는 것이 재밌는지 남자아이들은 박장대소했다.안나가 겨우 자기의 가방을 낚아채니까 가방을 순순히 주는 척 하면서 내용물 하나를 꺼냈다. 안나의 낡은 필통이였다. 필통을 꺼낸 남자아이가 심술궂게 말했다.“아~ 나는 그저 저 낡은 지저분한 가방에 뭐가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라고~근데, 역시 뻔하네~ 쓰레기통에는 당연히 쓰레기가 들어있지.”안나를 모욕하며 무리는 신나서 웃어댔다.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서 손바닥을 그 무리에 얼굴에 대고 외쳤다.“워터!”안나는 안전하게 몸을 숙인 채였다. 남자아이들은 세차게 물따귀을 얻어맞았다. 두명 정도는 뒤로 넘어지기까지 했다. 순식간에 얼굴에 가해진 압력에 남학생들은 어떠한 저항을 할 수 없었다. 그저 으악 으악 시끄럽게 물을 먹을 뿐이다. 어떠냐 공격 마법이 아니지만 공격력 있는 나의 서투른 마법이."어머나~" 안나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 보았다.나는 아직도 완전히 물을 잠그지 못해 쫄쫄쫄 흐르는 손바닥을 숨기며 최대한 못된 표정으로 외쳤다.“아~하하하하 뇌가 너무 쪼그마해서 매너라는 게 안 들어가면 억지로라도 채워 넣어야지?”마법을 겨우 추스린 후, 나는 영화 속 악녀처럼 손등을 입에 대고 깔깔 웃었다. 안나도 씨익 웃으며 넘어진 남자아이에게서 필통을 잡아챘다. 나는 다시 널부러진 무리를 내려다보며 업신여겼다.“내가 친절하게도 물로 그 엉성한 머릿속을 씻어 줬으니까 말야, 한번쯤은 자신의 누추함과 비열함과 거지같음도 신경써보지 그래?”특별히 거지같음이란 단어에는 악센트를 강하게 줬다. 누가 누구보고 거지라는 거야. 안나보다 너희가 훨씬 더 격 떨어져.내가 넘어진 남학생의 다리를 타넘으려다 실수로 밟는 척하며 꽉 밟았다. 밟힌 아이가 윽 하고 신음소리를 냈다.“어머나 실례해요." 그렇게 말한 뒤 나는 우아하게 손을 한쪽 가슴에 얹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폈다."이 정도면 당신 성에 차게 예의 있어 보이나요?”아까 감히 나한테 예의 운운했겠다? 생각해보니 또 열이받아서 목발을 높게 들었다가 넘어져 있는 남학생의 주요부위 바로 아래에 쾅 소리가 나게 찍었다. 남학생은 사색이 돼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는 태연하게 그저 갈길을 가려고 목발질을 했다는 듯이 걸음을 옮겼다.비록 물리적 행사를 가하긴 했지만 만족스럽게 분이 풀려서 활짝 웃으며 문가를 바라보았다. 나는 도도하고 당당하게 쓰러진 그들을 남겨둔 채 수련장을 나서려 했지만 너무나 기괴한 모습이 눈에 들어와 잠시 못마땅하게 서있을 수 밖에 없었다...왕자가 또 문가에 기대서 울고 있었다. 웃겨서.나는 이게 뭔가 잠시 멍하니 그 꼴을 바라보았다. 아마 마부한테 내가 기다린다는 연락을 받고 날 찾아온거 같은데....메디엘은 한참을 경련하듯 웃다가 입을 막은 한손을 떼고 띄엄띄엄 말했다.“...이중에 누가 악당이신지?" 나는 글썽거리는 눈물을 우아하게 닦는 메디엘 왕자를 물끄러미 보다가 문득 내가 아직 인사를 안했다는 것을 깨달았다.일단은 인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고개를 숙이며 살짝 인사했다.“왕국의 찬란한 새벽을 라디올러스가 뵙니다.”내가 인사하는 것을 보고는 안나도 허둥지둥 메디엘에게 인사를 했다. 왕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이 처음인지 꽤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예법에는 완벽하게 고개를 숙였다.남학생 무리들도 메디엘의 등장에 놀란 건 매한가지 같았다. 벌떡 일어나 옷매무새를 정리할 틈도 없이 왕자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왕자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그는 안나의 인사는 상냥하게 받더니 나를 향해서는 히죽 웃으며 말했다.“라디양, 난 정말 찬란한 새벽이라고 생각하긴 하는 거에요?”“아 그럼요?”나는 단박에 대답했다. 많이 퉁명스러운 말투이긴 했지만.“근데 그렇게 불만스러운 표정입니까?”메디엘은 심술궂게 웃었다. 나는 지지않고 투덜댔다.“새벽님께서 조금만 따사로웠으면 좋을 텐데요. 어떻게 저를 보고 악당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내 뒤에 남학생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이 보지 않아도 느껴진다. 뭐, 얘네는 어찌되든 상관없지만 안나까지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게 느껴져서 나는 목발을 내딛어 왕자가 있는 문가로 다가갔다. 왕자와 함께 슬쩍 자리를 옮길 생각이었는데, 왕자는 문에서 비킬 생각이 없는 듯 그의 곁으로 다가온 나를 느긋하게 내려다보기만 했다. 그가 여유롭게 내 말을 받아쳤다.“원래 새벽은 쌀쌀한 것을 모르십니까? 어떻게 새벽이 따뜻할 수 있죠?”“아 죄송합니다 역시 왕자님. 부족한 제가 많~이 배우고 가네요.”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비꼬는 말투로 말했지만 그에게 타격은 없는 듯했다. 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다.“그럼요. 부족한 당신을 가르치는 것은 언제나 즐겁군요.”아 얄밉다. 하지만 메디엘은 이정도의 고고함이 어울리는 사람이다. 나는 포기한 듯이 말할 수 밖에 없었다.“아무렴요.”내가 한숨과 같이 말을 내뱉자 그의 바다같은 눈이 나를 자세히 살폈다. 또 무슨 공격을 하려고 이러지? 나는 몸에 조금 힘을 주며 그의 응시를 버텼다. 왜이러십니까.그가 다물고 있던 입을 열고 천천히 말했다.“... 혹시 제가 제때 도와주지 않아서 섭섭하십니까?”안절부절 못하던 남학생들이 일제히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음 왕자에게 미운털이 박힐까봐 걱정인가 보다. 그렇지만 그다지 메디엘 왕자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니, 오히려 이런 사사로운 일에 끼어들면 곤란하다. 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기도 하고 나와 안나의 일을 왕자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고 싶지도 않다.누가 뭐라고 하던 그는 이 나라의 새벽. 언젠가는 왕이 될 사람이다. 이다지도 어리고 철없는 풋내기를 상대하기엔 나의 메디엘은 너무 고귀하다. 이런 멋없는 상황에 그를 넣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내가 생각하느라 잠시 입을 다무니까 메디엘은 다시 말했다.“그렇지만, 제가 도착했을 땐 라디양이 이미 마법을 시전하려고 하고 있었어요.”그는 아주 침착하고 바른 말투로 나에게 말했다. 근데 지금 변명하고 있는건가? 저렇게 무표정하게?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대답했다.“어.... 그러니까....제 일에 상관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은데요?”그가 미간을 구겼다. 헛, 방금 내 말은 좀 어감이 좋지않다. 그가 불만스럽게 말했다.“...무슨 뜻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셨으면 하네요.”“아니 아니, 제 말은 왕자님께선 제 일에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요.”그가 일순간 상처받은 표정을 했다.“아니, 왕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왕자님이 굳이 이런 애들 싸움에 끼어들어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아무렴요.”내가 너스레를 떨며 해명하자, 그가 표정을 바꿨다. 그렇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진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무표정인 그가 나긋나긋 말했다.“네, 알겠어요. 그래도 그냥 냉큼 도와드릴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안 그래도 돼요 왕자님.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좀 쑥스러워서 괜히 바닥에 목발을 쿡쿡 치다가 고개를 들었다. 메디엘은 아직도 나를 보고 있었는지, 눈이 마주쳤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몰라 눈만 깜박거리니까 메디엘이 다시 나지막히 말했다.“그래도 항상 타이밍 맞게 도와주는 왕자도 좋지 않나요? 조금 정도는 의지해도 좋습니다.”웬일로 비꼬는 표현 없이 상냥한 그의 말에 나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활짝 웃음이 나버린다. 다시 한 번 그에게 사뿐히 치맛자락을 들어 감사를 표한다.“맨날 이렇게만 젠틀하시길.”몸을 다시 세우자 이제야 자기 나이에 맞게 쿡쿡 웃는 그의 얼굴이 보였다. 나에게 포만감을 주는 미소다.왕자는 포기했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흠 정말이지 호락호락 하지 않은 사람이네요.”“어리광을 너무 받아주려 하지 마세요.” 내가 느긋하게 치마를 탁탁 털며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가 내뱉은 말에 팔짝 뛰고 만다.“왕실의 신붓감으로는 당신 같은 사람이 적격일지 모르죠.”엥!?! 사람도 많은 데서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은 삼가달라고요!그가 까딱하다간 스캔들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댔다. 내가 놀라서 퍼뜩 올려다보니 왕자는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벌벌 떨고 있는 남학생들을 차가운 눈으로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무표정하게 한참을 응시하는 그 시선을 가엾게도 어린 남자아이들은 차마 마주칠 용기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견디고 있었다.메디엘은 나를 마치 신부 후보인 것처럼 추켜올려서 나를 건드린 그 남학생들을 겁주고 있나 보다. 음... 왕자에게 찍혀버렸다고 생각돼 버리면 귀족인 저 아이들 입장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약간 가엽다. 왕자는 이내 싱긋 웃으며 안나에게 고개를 돌린 뒤 말했다.“아,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뺏었네요. 죄송합니다. 안나양. 라디양을 데리고 나가도 괜찮을까요?”이 말을 들은 안나는 퍼뜩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네, 네! 물론입니다!”왕자는 우아하게 살짝 고개를 까딱해서 안나의 인사를 받은 다음 나를 에스코트해 수련장을 나섰다. 나는 그에게 의지해 마차를 향해 걸으며 말했다.“음... 도와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이러실 필요 없다니까요?”그는 정말 모르겠다는 말투로 말했다.“뭘 도와줘요?”“그 남학생들 겁준 거 말예요. 게다가 지위도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맘대로 신붓감을 운운하면 어떡해요!” 내가 걱정되어서 투덜거렸다.왕자는 씨익 웃으며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아~ 그거요?”그가 여유부리는 것이 못마땅해서 내가 그를 빤히 쳐다보니 왕자가 하하 웃으며 말했다.“말이라도 좋잖아요 ‘신붓감’.”“? 무슨 소리에요 또..”내가 그의 뜻 모를 소리에 힘이 빠져서 물었다.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만족스럽게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말이라도 좋아서 해보는 거래도요.”마차에 나를 들여보내는 순간까지 그 말 뿐이었다. 시간은 꽤나 빨리 흘러 금세 여름축제가 다가왔다. 그러나 그런 시간의 흐름과는 반대로 내 컨디션은 조금씩 나빠졌다. 특히 축제 바로 전날이 되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 지하 감옥과 연결되는 태피스트리가 자꾸만 눈에 밟혔다. 괜히 울화가 도저 그 벽을 등지고 누워도 마찬가지였다.자꾸만 도망간 미카엘이 생각났던 것이다.이제 겨우 좀 무감각해지나 했는데 내가 그를 꺼내주겠노라 약속한 그 여름축제날이 다가오자 다시금 사정없이 그와의 기억이 몰려왔다. 저항도 할 수 없을 만큼 미카엘과 보낸 시간이 떠올라 그냥 기억에 몸을 맡기면, 분명 사실이었는데도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모두 꿈만 같다.그래서 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나도 모르게 미카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염없이 슬퍼지다가 이윽고 화가 나 버린다.버려졌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그를 비난한다.‘얼마나 우스웠을까. 내가 너를 꺼내 줄 방법이 생겼다면서 방방 뛰었을 때.’사실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의 구원자가 된 것 마냥 그에게 신이 나서 떠들었다.속으로 내 그런 모습을 비웃고 있을 미카엘을 상상하니 얼굴이 화끈해졌다. 이불에 얼굴을 파묻는다. 미카엘이 야속하다. 미리 말해줬음 좋았을 텐데.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훌쩍 떠나버리다니!’미카엘은 천둥번개가 치는 날 홀연히 나가버렸다. 미카엘이 특유의 그 섬뜩하고 위험해 보이는 표정으로 비를 맞으며 거리를 걷는 모습을 상상한다.혼자서 어둡고 추운 그날 비를 맞으며 몸 숨길 곳을 찾았을 것이다. 골목 구석구석 그 캄캄한 밤중에도 유독 어두운곳만을 골라 이동했을 것이다. 이내 이용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 좋은 미소를 보이며 속으로 이 사람을 찌를 수 있을 것인가 가늠할 것이다. 또다시 지독히도 외롭게 살아갈 것이다.눈물이 나올 것 같다. 내 약한 심리는 이젠 미카엘을 비난하는 것에 지쳐 아예 그를 동정하기로 마음먹은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시 그런 고독한 미카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미카엘이 누군가 곁에 계속 있어줄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비록 나는 쓸모가 다해 버려졌지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을 만나 계속 이용해 먹다가 결국 정이 들어버렸으면 좋겠다. 미카엘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예쁜 눈을 가진 소년. 그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란 걸 다른 사람도 알아야 할 텐데. 비록 좀 샘이 나긴하지만. 그래도 미카엘이 행복해 졌으면... 한 치의 거짓도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빌고 나서야 아주 조금 잠들 수 있었다.아침이 되자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거리가 떠들썩함이 느껴졌다. 요 며칠간 수면부족으로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축제라는 것이 실감 돼서 나도 덩달아 조금 들뜨기 시작했다.여느 평범한 마을의 소녀가 입을 법한 평범한 디자인이지만 예쁜 노란색의 원피스를 입었다. 내 머리색은 너무나 튀므로 베라가 잘 땋아서 틀어 올려준 뒤 챙 넓은 모자를 씌워주었다. 겉에서 보면 머리카락이 노출된 부분이 별로 없을뿐더러 그늘이 져서 그냥 갈색머리같다. 음 이정도면 맘 놓고 돌아다닐 수 있겠어.헬리오, 윌로우 형제와 휴리안 오빠를 거실에서 만나 거리로 나왔다. 역시 헬리오 형제는 예상대로 극도의 흥분상태가 되었다. 거리는 사람들로 꽉 차있고, 여기저기서 폭죽을 터트리거나 꽃가루를 날렸다. 모두들 활기가 넘쳤다.“조금만 있으면, 서커스단에서 동물을 데리고 퍼레이드를 한대!”윌로우가 신이 나서 나에게 외쳤다. 헬리오 형제도 휴리안과 썩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내가 사이에 껴있기도 하고, 워낙 축제에 흥이 겨워있었기에 별로 어색해 하지는 않았다.“오. 동물? 어떤 종류?”나는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치이며 간신히 물었다. 옆에서 휴리안이 걱정스럽게 몸을 잡아주었다. 몸이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오라버니.앞장서던 헬리오는 윌로우보다는 진정하려고 노력하며 말을 했지만 역시 흥분은 숨겨지지 않는 것 같았다.“엄청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나봐! 코끼리도 있대!”우와 엄청 본격적이네. 나도 조금 기대되기 시작했다. 코끼리라... 본지가 얼마나 됐더라. 딱 한번 진하 오빠가 동물원에 같이 가 준적이 있었다.나는 무심코 휴리안 오빠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내가 물끄러미 바라보자 휴리안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다.“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니? 처음부터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오빠는 내 컨디션이 별로라는 것을 눈치채 주었다. 티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걱정을 받는 다는 것은 왜 이리 기분이 좋은 걸까. 나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오빠한테 걱정 받으려고 약한 척 했나봐.”“그걸 자기 입으로 말하면 어떡해.”휴리안이 씨익 웃으며 부축해 주었다.“히히 오빠는 진짜 사람이 너무 좋다니까.”“...”오빠는 말없이 웃으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화제를 돌렸다.“있지, 근데 오빠는 코끼리 본적 있어?”휴리안은 내 관심이 코끼리로 가는듯하자 눈에 띄게 편한 얼굴을 하며 답해주었다.“응, 근데 아주 멀리에서 본거라 자세히는 못 봤어. 크긴 한 것 같더라.”맨 앞의 헬리오는 용케 그 말을 들었는지 냉큼 뒤돌아서 말했다.“그럼 휴리안 형님, 이번에는 빨리 가서 가까이에서 구경해요!”그리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인파를 헤치며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마 퍼레이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휴리안은 곤란하다는 듯이 중얼거렸다.“이런, 너무 빨리 가면 라디가 힘들텐데 말이지.”그러나 헬리오가 워낙 신이 나 있는 것을 알기에 굳이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다. 그저 내 앞을 걸으며 내가 따라오기 쉽게 해 주었다.간단한 식사를 파는 노점상거리를 지날 때였다. 먹을 것을 파는 곳이라 사람들이 간의 의자에 앉아 거리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걷기가 좀 편해 보였는지, 우리 일행은 노점상에 가까이 붙어 이동을 하고 있었다. 내 바로 앞은 휴리안이 든든하게 가고 있었고, 워낙에 발밑에 목발에 걸리는 쓰레기가 많은지라 나는 바닥을 보며 걷고 있었다. 그게 문제였다.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던 한 손님이 밥을 다 먹고는, 내 바로 앞에서 나를 보지 못한 채 몸을 획 돌며 일어나 버린 것이다. 게다가 그 손님은 덩치도 있고 술도 꽤 거하게 마신 듯한 취객이였다. 나는 그 아저씨가 몸을 일으키며 돌린 팔꿈치에 얼굴을 강타당하고 뒤로 나동그라졌다.“으아....”나는 갑자기 가해진 충격에다가 현기증까지 겹쳐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취객은 취객대로 기분이 나빠진 것 같았다.“에이씨 뭐야. 어떤 새끼가 앞도 못보고 다녀. 너 장님이야?!”나에게 고함을 지르고는 비척비척 다가와서 내 어깨를 기분나쁘게 밀었다. 나는 어지러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느낌이라 경황이 없었다.“라디!” 휴리안이 주저앉은 나를 향해 달려왔고 그 소리를 들은 헬리오 형제도 황급히 다가왔다.“이 버르장 머리없는 상것들아 동생관리 제대로 못하냐? 저 계집애가 나한테 부딪혔잖아! 아 기분 잡쳤네.”취객은 오빠들을 향해서도 혀꼬부라진 소리를 내며 성질을 부렸다. 그러나 오빠들은 모두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나는 조금 비뚤어진 모자를 매만지며 눈앞의 휴리안에게 괜찮다고 말하려 했다. 씩 웃는데 뭔가 후두둑 떨어졌다.“괜찮아....어?”이게 뭐지... 나는 괜찮다는 말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휴리안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굳는 것을 보았다. 이어서 헬리오가 다급하게 외쳐다.“라디! 너 코피가...”윌로우가 손수건을 찾아 나에게 주었다.그제서야 비릿한 맛이 목구멍에서 느껴졌다. 코피는 꽤 많이 나서 드레스에 상당히 묻혀버렸을 정도였다.‘으아...노란 드레스에 코피를 흘리다니.’너무 선명하게 남은 자국을 보며 한탄을 할 때였다.“이 새끼가!”금발의 천사같이 생긴 헬리오가 새끼 소리도 할 수 있었다는 건 그날 처음 알았다.헬리오가 취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헬리오의 두배는 될 것 같은 몸집의 아저씨가 휘청했다. 그러나 이내 일어나서 다시 반격을 하려 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목소리가 안나올 정도였다. 공작가 도련님이 백주대낮, 그것도 축제날 길거리 싸움이라니!“오빠!!!”내가 당황해서 외치니까 무릎을 꿇은 채 내 얼굴을 살피던 휴리안이 일어났다. 아 다행이다 휴리안이 그나마 말려주려나 보다.“이런 이런, 신사가 이런 곳에서 싸움을 하면 어떡해.”휴리안이 나긋 나긋 예쁜 말씨로 말했다. 그리고는 미끄러지듯이 다가가서 취객의 팔을 잡았다. 헬리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한번 얼굴에 정통으로 주먹을 꽂았다. 교과서에 나올 법한 완벽한 자세였다.이제 취객은 나처럼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 취객을 분한 듯 외쳤다.“이 거지같은 새끼들이 적반하장으로 시비를 걸고 자빠졌네. 진짜 죽여 버릴꺼야! 개새끼들.”휴리안은 안색하나 바꾸지 않고 싱긋 웃으면서 말했다.“아하, 이분도 많이 취하셨네.”언뜻보면 말리는 것 같은데 휴리안은 취객이 움직이지 못하게 양팔을 뒤로 꽉 잡아매었다. 마치 헬리오가 때리기 쉽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았다.‘하하....착각이겠지...’나는 다시 현기증이 몰려오는 것 같았다. ‘하! 너희들이랑 축제를 보러 거리에 나간다고? 그딴 위험한 짓을 내가 할 리가 없잖아.’축제 권유가 끝나기 무섭게 거절했던 제르다민의 말이 생각났다.과연 제국에서 소문이 자자한 수재.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구나. 나는 그 냉랭한 눈빛을 떠올린다.‘하지만 이런 사단이 날 것이 뻔히 보였으면 말이지.... 그냥 같이 와서 정리 좀 해주지...’나는 괜한 원망을 했다. 솔직히 휴리안 오빠가 있는데 큰 트러블이 생길 줄은 몰랐다.약이 바짝 오른 취객이 헬리오에게 발길질을 하려 했지만 휴리안이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며 뒤로 잡아끌었기 때문에 헬리오에게는 발끝조차 닿지 못했다. 헬리오는 취객의 버둥거리는 발의 허점을 발로차서 그가 중심을 잃게 했다. 휴리안은 타이밍 좋게 아저씨의 무게를 못이겨 놓치는 척해서 아저씨가 바닥에 널브러지게 했다.“쟨 원래도 몸이 약하단 말야! 게다가 여자애 얼굴을 저렇게 만들어놓고 사과도 못할 판에 시비를 걸어?”헬리오가 분에 찬 듯 외쳤다.‘편들어 주는 건 참 고맙지만... 오빠들이 구설수에 안 오르는 게 더 고마울 것 같은데...’내가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 모습을 멍하니 보는 동안, 윌로우는 나를 일으켜 세워 준 뒤 내 코피가 멈췄나 다시 살펴보았다. 의외로 굉장히 섬세한 모습이다. 아직도 코피가 멈추지 않았다. 코가 얼얼했고 입술이 따끔한게 입술도 터진 것 같았다. 코뼈가 부러진 건 아니겠지... 살짝 만져보았는데 주저앉은 것 같진 않았다. 음... 괜찮겠지.취객은 처참한 몰골임에도 지지않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해댔다. 헬리오가 다시 가볍게 주먹을 날려 그 입을 저지했다. 분명 맞을만 하긴 했지만 너무나 일방적인 공격이었다.‘으아아아아아아 이건 아무리 봐도...’건장한 두명이 취한 한명을 몰매 때리는 모습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싸움구경을 하고 있었다. 여기저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큰일이다. 우리가 귀족이란 걸 알아차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싸우고 있는 나의 오빠들은 아무리 평범한 옷을 입고 있어도 움직임에서 보통사람과 다른 귀족적인 몸짓이 나온다.이쯤 되면 취객이 얌전해 졌으면 하는데 술에 취해 아픔도 느껴지지 않는지 또다시 입을 나불댔다. 오빠들이 내 얘기를 꺼내면 열받아한다는 것을 깨달은 취객은 내 목발을 보고는 ‘저 몸도 못가누는 병신이 커서 할 수 있는 일은 남자 받는 일 밖에 없는데 얼굴 망가트려서 화나냐?’ 뭐 이딴 필살기를 날렸다. 전혀 상대가 안된다는 걸 알고 좀 봐주며 싸우던 헬리오는 진심으로 열이 받은 것 같았다. 휴리안도 얼굴에서 미소를 감췄다.휴리안이 험악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격식있는 말투는 그대로였다.“다시 한번 지껄여봐 오늘밤 다시 없을 악몽을 직접 보여주지. 제발 죽여달라고 엎드려 빌게 될거야. 우리 가문의...”NG!‘이름을 걸고.’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NG! NG다! 베리 낫 굿! 그런 귀족적 말투에다가 가문이야기까지 꺼내는 건 제발 우리가 누군지 알아봐 주세요. 라는 것이라고! 나는 휴리안의 말이 묻히게 하기 위해 대뜸 비명을 질렀다.“꺄악!”휴리안과 헬리오는 취객을 위협하는 것을 멈추고 무슨일이 생긴건가 내 쪽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귀족이라는 것을 눈치챈 듯 했다. 하하 사실 모르는게 바보인 상황이지 이건...‘어쩌지.’나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이렇게 된 이상 숨기기 보다 우리가 그냥 가는 사람 붙잡고 때린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피해자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즉시 어리고 연약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로 한다.코를 막고 있던 손수건을 치운다. 즉시 코에서 가느다란 핏줄기가 생겨 턱을 타고 핏방울이 떨어졌다. 윽 거울을 보진 않았지만 필시 처참하겠지. 코피라니! 아 창피하다.“오라버니들! 아무리 저를 이렇게 때려눕혔다고 해도, 대낮부터 술에 떡이 돼서 시비나 걸어댄다고 해도 더 이상 그 분을 험하게 다루지 말아주세요!”연극조로 소리를 높여 말한다. 거기 구경꾼분들 모두 들리시나요.오빠들에게 다가가려고 한 걸음 가려다 목발을 헛짚어 비틀거리는 연기를 했다.윌로우가 재빨리 어깨를 잡아준다. 굿 잡! 안잡아주면 어쩌나 했다.조금 울먹거리며 눈을 내리깔고 처량한 연기를 했다.“확실히 저... 다리도 이 모양이라 분명 보기에 짜증이 나실 만도 하셨을 거에요... 저분도...”구경꾼들이 숨을 죽이는게 느껴졌다. 먹힌건가? 다시한번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엉망진창인 취객을 향해 말한다.“죄, 죄송해요. 제가 나빴어요. 부디 용서하세요.”윌로우의 부축을 받으며 살짝 고개를 숙인다. 인사를 하느라 목발을 놓치자 휴리안오빠가 얼른 다가와서 나를 가뿐히 안아올려주었다. 취객을 다시한번 뒤돌아보는 일 없이 성큼성큼 자리를 빠져나왔다. 헬리오 형제도 목발을 챙겨준 채 그 뒤를 따라나섰다.사람들은 얼른 우리들이 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주었고 사람들은 널브러진 취객을 둘러싸고 수근 거리기 시작했다. 안겨 나가면서 여러 소리가 들렸다.“어머, 너무한다 몸도 불편한애 얼굴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거야?”후덕한 아줌마가 내가 안쓰럽다는 듯이 말하는 것을 들으며 속으로 외쳤다.‘좋아! 괜찮아 여론은 내가 불쌍하다는 쪽이야!’계속해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아! 나 저 아저씨 알아. 평소에도 술먹고 난동부리더니 결국 오늘 깨졌구만.”“오빠들이 도와주다니 다행이다 저애. 혼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원래 행실도 안 좋은 사람인가 보다. 다행이다. 우리의 정체에 대해 크게 궁금해 하지는 않는 듯하다. 설령 우리가 누군지 안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 선에서 정리되는 것 같다.오빠는 나를 안고 있던 두 손 중 한 손을 떼더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나에게 다시 주었다. 열한살이나 됐는데 아기를 안은 것 같이 다룬다. 오빠답지 않게 무표정한 채로 정면만을 응시한 채였다. 하얗고 오빠 냄새가 나던 깨끗한 수건을 코에 가져다 대자 금방 붉게 물들었다. 그래도 이제 아까처럼 피가 멈추지 않고 조르르 흐르진 않는 것 같다. 내 얼굴보다도, 굳어진 휴리안의 얼굴이 더 신경쓰인다. 역시 괜히 나랑 같이 나왔다가 싸움까지 나서 화가 난 걸까. 평소에 화내는 법이 없는 휴리안이라 더 안절부절 못해진다.더 이상 오빠의 화난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목덜미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말했다.“오빠... 미안해. 괜히 사고나 쳐서. 그래도 도와줘서 고마워.”휴리안은 잠시 숨을 삼키더니 말했다.“넌 잘못한 거 없어.”“그래도 오빠 기분을 상하게 했어. 절대 그러고 싶진 않은데.”내가 그의 목에 손을 둘러 꼭 껴안았다. 작년 어느 때처럼 심장 고동소리조차 전해질 만큼.오빠도 내 등을 받치고 있던 손에 조금 힘을 준다. 말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듯 조금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다만 네가 그 쓰레기한테 사과를 하게 한 게 너무 화가나. 나답지 않게 길거리에서 너무 설쳤어. 마무리를 네가 짓게 하다니. 오빠로서 실격이야.”휴리안이 입 안의 기분나쁜 것을 뱉는 것처럼 말을 내뱉었다. 나는 깜짝놀라 그의 몸에서 조금 떨어져 휴리안과 눈을 마주하고는 말했다. 이 상황에서도 자책을 하고 있다니 얼마나 손해보는 성격인거야.“전혀 전혀 그렇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오빠가 화내줘서 조금 심란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반반이야.”휴리안은 내 정색하는 표정을 보고나서야 너털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다시 아까처럼 내가 자신에게 완전히 안기도록 자세를 고쳤다.“알았어. 그럼 일단 위로해주는 셈 치고 지금은 꼭 안겨줘.”역시 아까 싸운게 상냥한 휴리안은 마음에 걸리는 걸까. 나는 그가 안정이 됐으면 해서 다시 그의 목에 팔을 둘러 몸을 완전히 껴안았다. 우리 둘 사이에 틈 따위는 생기지 않도록.코피는 멈춘 것 같았다. 시덥잖은 농담을 했다.“나 얼굴 못생겨져서 얼굴 시야에 안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안기게 하는 거지?”그의 어께에 턱을 올린 채 장난스럽게 말했다. 휴리안도 키득거린다.“그럴리가. 라디가 얼마나 귀여운데.”우리둘은 조금 킬킬거리다가 둘다 조용해졌다.날이 더운데도 이렇게 안기는 것이 꽤 만족스럽고 좋은 기분이다. 오빠는 힘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인파가 많은 상황에서는 내가 뒤에서 절룩거리며 쫒아오는 것 보다 이게 덜 신경쓰일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니까 오빠의 심장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있지 오빠.”“응?”오빠가 부드럽게 대답한다.“지금도 내가 그때 오빠한테 안겨서 아빠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내 심장소리 들려?”그가 소년처럼 웃는다.“그때부터 너를 안으면 무심코 네 심장소리를 들으려고 하게 돼.”비밀을 말하듯이 내 귀에 속삭여준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한산한 곳으로 나오고 나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아무래도 원래 헬리오 오빠가 마음먹은 장소에서 퍼레이드를 구경하는 건 무리겠지. 아 미안해라. 나는 휴리안 에게 안긴 채로 헬리오에게 물었다.“헬리오 오빠, 퍼레이드가 지나가는 루트가 어떻게 돼? 원래 가려던 곳은 아마 못 가겠지? 미안해.”내말을 들은 헬리오는 펄쩍 뛰며 말했다.“너 지금 아직도 퍼레이드를 볼 생각이야? 얼굴을 의사한테 보여야 할 거 아니야!”헬리오나 윌로우나 서커스를 그렇게 기대했으면서도 나를 위해 포기할 생각인가 보다. 착한 오빠들 같으니라고.“아냐, 난 괜찮은데? 멀쩡해. 코도 안 부러진 것 같고.”“뭐가 멀쩡하다는 거야. 네 코를 니가 안 봐서 그래. 띵띵하게 부어서 완전 웃겨.”윌로우가 틱틱대며 말했다. 걱정해 주는 거겠지 저래봬도. 나는 다들 나를 걱정해 주는 것이 행복해서 웃음이 비어져 나왔다.“못생겨가지고 뭘 실실 웃고 난리야.” 윌로우가 투덜대며 말했다.“싫어, 퍼레이드 볼 거야.” 내가 웃으며 고집을 부렸다. 웃으니까 입술이 좀 따끔하긴 했다. 하지만 의사한테 보인다고 해도 별로 나을 것이 없을 법한 상처라고 생각한다 코피정도는. 입술 찢어진 것도 별로 심하지 않고.휴리안이 내 얼굴을 자신의 눈앞에 바로 오게 한 후 코를 살짝 만져본다. 그의 시선이 내 눈과 마주치는 것이 아닌데도 왠지 좀 떨린다. 너무 진지한 얼굴이라 그런가.“정말 괜찮겠어 라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괜찮아 오빠. 건드려도 안 아픈걸 보면 멀쩡한 거야.”“흠...”그는 조금 생각하는 얼굴을 하며 나를 안은 팔을 추슬러 다시 안정감 있게 안는다.“그보다 오빠, 나 이제 내려줘도 되지 않아? 무겁잖아.”“싫어, 안내려 놓을 거야.”아까 내 말투를 따라하며 휴리안 오빠가 말했다. 그리고는 킥킥 웃었다. 분명 힘들 것 같은데...“나 괜찮은데? 이제 사고 안치고 제대로 걷겠습니다.” 나는 짐짓 군인처럼 용맹하게 말했다.휴리안은 내 볼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지며 말했다.“라디, 너 지금 얼마나 불쌍한 얼굴인지 알아? 오빠로서 이렇게라도 해주게 내버려 둬 주렴. 부탁입니다.”휴리안은 마지막 ‘부탁입니다’ 라는 말은 매우 정중하게 말했다. 그리고서는 내 대답은 듣지도 않고 씨익 웃으며 걸음을 옮겼다. 갑작스런 이동에 재빨리 따라붙는 헬리오에게 휴리안이 말을 걸었다.“헬리오, 이쪽으로 가도 꽤 좋은 자리가 나오지 않니?”헬리오는 조금 당황해 하며 대답했다.“그, 그렇긴 하지만 형님. 라디를 집에 데려가지 않아도 괜찮을까요?”휴리안은 내 얼굴을 살짝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려 헬리오를 바라보았다.“음... 확실히 뼈는 상한 거 같지 않아. 게다가..”휴리안은 윌로우의 머리위에 손을 살짝 내려놓은 다음 말했다.“너희도 내 귀여운 동생들이니까.”휴리안이 상냥하게 웃었다. 윌로우는 조금 쑥쓰러운듯 했지만 이내 밝게 웃었다.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나는 휴리안 오빠의 키 덕에 윌로우를 내려다 보며 놀렸다.“우와 좋겠다 윌로우 오빠 휴리안 오빠한테 쓰다듬 받았네~! 볼 빨개졌대요.”“시, 시끄러워! 자기야말로 브라더 콤플렉스 주제에!”음?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배워 온 거야. 휴리안과 나는 동시에 꽤 놀란 얼굴을 했다. 나는 다시 능청스레 대답했다“맞아, 나 브라콤이야.”그렇게 말하면서 휴리안 오빠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곤 보란 듯이 그를 꼭 껴안았다. 날 받치고 있는 휴리안의 손에 조금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장단 맞춰주느라 좀 힘들지도 모르겠다. 나는 씨익 웃으며 윌로우에게 말했다.“근데 오빠도 브라콤이잖아.”눈짓으로 헬리오를 가리켰다. 윌로우는 내 뜻을 알아채곤 얼굴이 빨개져서 외쳤다.“휴리안 형님 걔좀 내려주세요. 오늘 나한테 목발을 넘긴 걸 후회하게 만들어 주고싶어요.”윌로우는 들어주고 있던 내 목발을 위협적으로 흔들었다.휴리안은 하하 웃으며 윌로우에게서 나를 지키듯이 등을 돌리고 가던 길을 다시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말했다.“미안, 그렇게는 안돼겠어. 나도 시스콤이라.”휴리안의 어깨 넘어로 예쁜 형제가 쫒아오는 것이 보인다. 강한 햇빛에 눈이 부실정도로 반짝거린다.나는 규칙적으로 흔들리는 걸음을 느끼며 휴리안에게 물었다.“근데 오빠, 시스콤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휴리안은 조그맣게 킥킥대며 말했다.“그럼~ 물론이지요. 시리어스 스토리 콤플렉스의 줄임말로, 진지한 이야기는 지루해서 못 읽는 콤플렉스.”“에이~”나는 오빠의 머리카락 끝을 조금 당겼다. 그가 작게 ‘아야 아야.’ 하며 항복의 표시를 했다.“너같이 귀여운 여동생에게 정신이 팔려서 간이고 쓸개고 다 주고 싶게 되는 병이지. 시스터 콤플렉스는.”그가 내가 납득할 만한 답을 말해주고 나서야 나는 다시 만족스럽게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정말로 네가 달라고 하면 다 줄 수도 있을 것 같네.”잠깐 말없이 걷던 그가 낮고 천천히 말했다. 그의 얼굴을 보고있지 않았으므로 어떤 표정인지는 볼 수 없었다.우리는 금방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싸움으로 시간을 버렸기 때문에 제일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퍼레이드는 잘 볼 수 있었다. 꿈만 같이 화려한 무리가 지나갔다. 아름다운 무희와, 익살스런 삐에로가 춤을 추듯 지나갔고, 근육질의 남자는 사나운 맹수를 조련해서 순한 양처럼 만들어놓았다. 헬리오의 말대로 코끼리도 있었다. 코끼리는 퍼레이드의 피날레를 장식하며 위엄있게 거리를 걸었다. 주름진 그 눈은 내가 예전 진하오빠와 손을 잡고 보았던 그 코끼리와 너무 흡사해서 그때 본 그 코끼리와 똑같은 아이가 아닐까 멍하니 생각할 정도였다.지금은 휴리안 오빠와 손을 잡고 보고 있지만. 괜한 그리움이 난다. 코끼리 따위 예전에 딱 한번 본 것에 불과한 것인데.“라디?” 내 그렁그렁한 눈을 눈치채고 휴리안이 말을 걸어주었다.“오빠. 코끼리 정말 굉장히 크네?”나는 말을 어물거렸다.“하하 눈물이 날 정도야?”휴리안은 나를 다시 안아서 퍼레이드를 보고 흩어지는 인파에게서 나를 꺼냈다.그 후 우리는 포장마차같은 곳에서 군것질도 해보고 신기한 것들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즐거운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 금방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조금 아쉬운 마음에 느릿느릿 집으로 걸었다.헬리오는 재밌게 놀았다는 듯이 기지개를 펴다가 휴리안에게 말을 걸었다.“와 휴리안 형님, 생각해 보면 오늘 진짜 별일이 다 있었네요. 평소의 형님과 완전 다른 모습을 많이 봤어요.”그 말을 들은 휴리안은 쑥스러운듯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하하...그런가?”헬리오는 조금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네! 정말 레어한 모습이었다고요! 아. 코우젠타양 정도는 알고 계시려나.”휴리안은 조용히 웃으며 ‘글쎄..?’ 라고 넘길 뿐이었다. 코우젠타?.. 누구지?나는 헬리오 오빠를 향해 물었다.“오빠! 코우젠타양이 누구셔?”헬리오는 ‘아! 너는 이제 기억 못하겠구나!’ 라고 깨달은 듯이 말하더니 활짝 웃으며 답했다.“휴리안 형님의 약혼녀분 말이야!”.“뭐?! 약혼녀? 휴리안 오빠! 약혼했었어?”나는 생각보다 강한 충격을 받아서 스스로 당황할 정도였다.‘아니... 귀족 가문의 나이 찬 장자가 약혼도 할 수 있지 뭘 그렇게 놀라고 하는 거야 나...’스스로를 타일러봤지만 왠지 모를 서운함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나는 놀란 얼굴을 가릴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휴리안 오빠를 바라보았다. 휴리안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응. 했어. 약혼.”“언제?”“작년 초였지 아마?”남일 얘기하듯 산뜻하고도 별 감정없이 답해준다. 큰일이야 오빠는 역시 좀 문제가 있다고. 나는 오빠가 이런 상태로 결혼까지 가게 된다면 공작가의 엄마 아빠 커플만큼이나 엉성하고도 서로가 상처를 주는 가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음 내가 설마 그냥 휴리안 오빠를 모르는 여자한테 뺏기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이성적 사고를 못할 정도로 휴리안 오빠의 약혼 소식은 섭섭해서 나는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한다. 아냐. 내 방금 생각은 충분히 논리적이었어. 정신차려봐 라디. 근데 나나 제르다민 오빠만 몰랐다 뿐이지 휴리안 오빠는 그... 코우젠타라는 분에게 예외적으로 사랑의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방금 오빠의 반응을 보면 그닥 그런 것 같진 않아보이지만... 그래도....‘모르는 거야. 남녀 사이라는 것은... 확실히 나는 허투루 개입할 수 없어. 그럴 권리까진 없으니까.’나는 조금 진정하기로 했다.“코우젠타라는 분이랑은 어쩌다 약혼을 하게 된 거야? 원래 아는 분이셨어?”일단 궁금한 것부터 물어본다.휴리안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해 주었다.“아니? 집안에서 정해주셨어. 코우젠타양은 아르테 백작가 분이시거든. 꽤 좋은 집안이고 게다가 나이도 딱 맞으니까.”역시나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이다.“음... 그래도 본인은 만나본거지? 오빠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해?”“굉장히 좋은 분이시지. 친절하시고 매너도 완벽하고 교양도 있으셔. 아마 좋은 배우자가 되어 주실 거야.”빙긋 웃으며 답해준다. 코우젠타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자신의 감정은 배제하고 답해준다. 완전히 사적인 판단은 제외한 보고서를 읽는듯한 반응이다.‘그건 그렇고 좋은 사람인 거구나 코우젠타양...’“하아...”내가 너무 어려운 사람사이의 관계에 지쳐 한숨을 쉬었다. 휴리안은 내 안색을 살피며 물었다.“왜 그러니 라디? 오늘 너무 돌아다녀서 힘드니? 이제 곧 집이야.”“아냐 아냐 그런게 아니라...”나는 일단 어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너스레를 떨었다.“너무해! 방금은 자기는 시스터 콤플렉스라고 해놓고 이제는 약혼자 칭찬이야?”오빠가 하하 웃었다.“글쎄...? 그래도 시스터 콤플렉스인건 사실인데.”“서운해. 너무해. 오빠 이제 결혼해? 그럼 이렇게 안겨있는 것도 이제 못하겠네.”나는 내가 말해 놓고선 ‘아. 그렇구나 이제 휴리안 오빠한테 어리광 부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겠네.’라고 깨달았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 상냥하고 안정되는 품이 너무나 아쉬워서 다시 파고들게 된다.“왜?”휴리안이 뜬금없이 정말로 모르겠다는 얼굴로 진지하게 물었다.“뭐가?”뭐가 ‘왜?’야... 무슨 맥락인지 몰라서 나는 되묻고 말았다.“왜 이제 나한테 안길 수 없어?”휴리안이 진지하고 당혹스럽다는 듯이 물었다.“음? 오빠 이제 결혼하니까?”“결혼을 바로 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 아무튼 결혼을 하면 너랑 이렇게 지낼 수 없는 건가?”“아 결혼하려면 아직 멀었어?”내가 조금 안심하면서 되물었다.“왜 내가 결혼하면 라디랑은 이렇게 못 지내게 되는 거야?”휴리안은 내 질문에는 답할 생각도 하지 않고 집요하게, 뭔가 당황스러운 듯 그 말을 반복했다. 덩달아 나도 초조한 기분이 되었다.“아무래도 그렇지? 아내분도 있는데, 내가 막 어린 나이도 아닐텐데 이렇게 안기거나 지금처럼 내가 졸졸 따라다니는 건... 보기가 안 좋지.”“음....그렇지. 그런 거구나. 당연한 거지 참.”휴리안은 그제서야 잊었던 것을 깨달은듯 중얼거렸다. 평소 그는 완벽하고 상식적이었다. 갑자기 왜 이런 미카엘이나 할 법한 질문을 하는 걸까? 윽. 미카엘 생각좀 그만 둬.내가 기습적으로 파고드는 미카엘 생각을 뿌리치기위해 고개를 살짝 도리질 하니까 휴리안 오빠는 나를 다시 꼭 껴안았다.“결혼은 한참 뒤에나 할거야.”한참 전의 내 질문의 답을 이제야 해주었다.중요한 말을 하는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나는 그저 얌전히 안길뿐이었다.오빠도 나랑 떨어지는 것이 아쉬운걸까.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좀 기쁜데. 속으로 좀 키득거리다가 휴리안의 평소와 다른 반응을 생각해 보았다.지금까지 휴리안은 다른사람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주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내 집요한 애정공세에 혹시나 나에게 정이 들었다면...그리고 다시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불안할 수도 있겠다. 많이 슬플 수도 있고.’나는 결국 이전에 임금님이 말했던 '부재의 상실'전략에 성공한 걸까? 이렇게 그를 어지럽게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왠지 죄책감이 든다.그가 결혼을 한다면 좀 의젓해 져야하겠지만 내가 휴리안에 대해서 갖는 감정에는 변화가 없는데. 게다가 코우젠타양이 평생을 함께해 줄 좋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분명 휴리안 오빠를 외롭게 하지 않을 사람으로는 나보다 더 적격일 것이다. 나는 겨우 여동생이고 그녀는 아내가 될 거니까.나는 오빠에게 이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작지만 분명하게 속삭인다.“오빠! 오빠가 결혼해 버려도 나는 오빠를 계속 계속 질리지도 않고 좋아할꺼야. 나는 뼛속까지 브라콤이니까.”내가 키득거리며 말하자 오빠도 작게 웃는다. 불안해하지 말아 오빠. 한 가지 더 희망을 전한다.“게다가 오빠도 코우젠타양은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분명 평생 오빠 곁을 지켜주겠지.”“....”그 말을 들은 오빠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나는 재촉하지 않고 익살을 떨어 대충 이 이야기를 정리하려 했다. 크게 기지개를 펴며 불평하듯이 말했다.“아~ 질투나. 오빠는 좀만 있음 나는 잊어버리고 코우젠타양이랑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가겠네. 아무튼 나만 늦게 안거지만 약혼 축하해 오빠.”마지막에는 싱긋 웃으며 말했지만 오빠는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공작가 성에 도착해 문에 들어서며 그가 조그맣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그럴리는 없어 라디.”뭐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건지. 아니 그전에 내가 제대로 듣기는 한건지 의심스러웠고 무엇보다 오빠가 다시 묻기를 원하지 않는 눈치라 잠자코 있었다.집에 들어서서 맨 처음 비명을 지른 것은 베라였다.“라디올러스님 들어오셨다. 아가씨!!!!! 얼굴!!!!”“어 미안...”사실 난 다쳤었다는 것도 살짝 잊고있었다.아마 오빠들은 항상 기품있는 베라만 보았던지 베라의 그런 인간적인 반응에 굉장히 놀라는 눈치였다.베라의 비명소리를 듣고 우리를 맞으러 걸어나오시던 엄마랑 아빠도 급히 뛰어오셨다. 윽 별일 아닌데.엄마도 내 퉁퉁 부은 코를 보더니 작게 비명지르셨다. 그리고는 베라에게 다급히 지시를 내렸다.“베라양 어서 파호크씨좀 불러와 주세요.”파호크씨는 이 공작가 가문의 가장 높은 주치의다. 아 정말 파호크씨까지는 안불러도 되는데... 민망스러울 정도이다.엄마가 내 얼굴을 살피는 동안 아빠는 펄펄 뛰며 오빠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대체 어쩌다가 라디 얼굴이 저모양이 된거야?”휴리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붐비는 거리에서 어떤 취객이 일어나다가 팔꿈치로 쳐서 라디가 다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돌봤어야 하는건데요.”휴리안이 정말 죄송스럽다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자 헬리오 형제들도 뒤에서 조그맣게 고개를 숙였다. 오빠들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서 내 얼굴이 달아올랐다.“아빠! 오빠들이 잘못한게 아니에요, 아시죠?”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아, 그거야 당연한거지. 휴리안, 얘들아 고개는 숙이지 않아도 좋단다.”아빠도 내 쪽으로 와서 머리를 살짝 만지며 물었다.“가엽게도 그래서 그 취객이 사과는 했었니?”왠지 복잡한 말까지 해야할 것 같은 눈치인데... 나는 일단 사실대로 말했다.“음... 사실 그다지 친절하지 않으신 분이였어요.”엄마가 흥분한 듯 물었다.“어머! 설마 시비를 걸든?”“아..네. 조금..”이번에는 아빠가 물었다. 이럴때 보면 엄마랑 아빠는 손발이 착착 잘 맞는데..“그래서 어떻게 했어. 오빠들이 혼내줬어?”아... 오빠들이 길거리 싸움을 했다는 걸 정녕 내입으로 말해야 하는 건가...짧게 고민해 봤지만 거짓말을 해봤자 통하지도 않을 것 같았다.“...네...”타이밍 좋게 엄마가 다시 묻는다.“오빠들이 취객이랑 싸웠다는 거니?”“윽....음.....네.”아빠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지금 그 취객과 몸싸움을 했다는 거지?”“휴...음... 사실 그분은 떡이 됐어요.”나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 마자 아빠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인채 반성하는 듯한 오빠들의 등을 팡팡 두드리며 말했다.“잘했어! 그래야 내 아들들 답지!”난생처음 ‘내 아들들’이라는 말을 들어본 것일 오빠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뭐하는거지 아빠.... 지금 취객을 흠씬 패서 다행이라는 건가. 게다가 진작좀 저렇게 살갑게 대하지... 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하고 있자엄마는 수줍게 호호 웃으며 내 볼을 쓰다듬었다.“좋은 오빠들이 많아서 좋겠구나 라디.”이 상황이 이정도로 칭찬받을 일인가 얼떨떨 했지만, 나는 일단 ‘정말로 그렇네요.’라는 뜻을 담아 함박웃음을 지었다.“네. 아! 그리고 길거리에서 싸운 그건 별로 오해살 일 없이 좋게 좋게 마무리 된 느낌이었으니까 별로 걱정 안하셔도 되요.”혹시나 해서 변명을 했다.아빠는 씨익 웃으며 내 머리에 손을 얹었다.“쓸데 없이 어린애가 잔걱정이 많구나 라디. 나쁜 짓을 한게 아니라면 항상 어깨를 펴고 다녀도 된단다.”오빠들을 한 번 둘러본 뒤 매력적이고 장난스러운 웃음으로 말하셨다.“게다가 너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프랑디아 공작가 직계 아이들이다. 조금쯤 설쳐도 돼.”축제에 다녀온 뒤에 나는 따로 제르다민 오빠를 만났다.“오빠, 오빠는 코우젠타양이 누군지 알고 있어?”제르다민은 읽던 책에서 살짝 눈을 떼서 나를 바라보았다.“휴리안 형님 약혼녀?”“응.”“그 사람은 또 왜.”제르다민은 귀찮다는 듯이 다시 책장을 넘겼다. 나는 좀 어물쩍 대며 말했다.“음... 저... 오빠도 휴리안 오빠가 뭐랄까...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있는 듯 없다는 거 잘 알잖아?”제르다민은 코웃음을 쳤다.“형님은 그냥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라니까.”“아, 아무튼! 근데 그러면 휴리안 오빠는 코우젠타양도 별로 안좋아해?”제르다민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다.“넌 ‘아무도’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아. 이거 죄송합니다요.”나는 과장되게 고개를 숙였다. 신경질적인 오라버니를 모시느라 힘들다.나는 작게 한숨 쉬며 다시 물었다.“음 그렇다면 휴리안 오빠가 그분과 이 상태로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내 말을 듣자 제르다민이 이번에는 킬킬 웃어대며 말했다.“하하 그치만 내가 볼땐 코우젠타양 만큼 형님에게 어울리는 상대도 없어.”“오.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이야?”제르다민은 한쪽 입꼬리만 씨익 올렸다.“아니. 그 사람도 내가 볼 땐 좀 미쳐있거든.”내가 어이가 없어서 대들었다.“무슨 소리야! 지금 휴리안 오빠의 짝으로 미친 여자가 어울린다는 거야?”제르다민은 나를 업신여기는 투로 물었다.“너도 그 두사람의 약혼이 그냥 집안끼리 정한 문제라고 생각해?”“응. 그렇다고 하던데?”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하하 이 약혼은 아르테 가문쪽에서 엄청나게 어필한 끝에 이루어 진거라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막 우리 의사도 안 묻고 약혼부터 시키실 분들은 아니잖아?”“아... 그러고 보니.”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긴 했는데 듣고 보니 좀 이상하다.“그래도 명색의 백작간데 게다가 레이디쪽에서 자존심도 내팽겨치고 부탁 부탁하니까 우리쪽도 체면상 내치기가 어려워 진거지. 결혼도 아니고 일단 약혼정도만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쪽도 그럼 그럽시다. 이렇게 됐어.”제르다민은 재밌다는 듯이 말을 이어나갔다.“처음에는 자기 딸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연줄을 맺고 싶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를 보고서는 알게 됐지.”“코우젠타양?”그는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작게 끄덕인 후 말을 계속 했다.“그녀는 형님의 광신도야.”광신도라는 실례될 수도 있는 말에 나는 조금 당황해서 말했다.“그치만 휴리안 오빠는 약혼하기 전에는 본적이 없다고 했는데...”제르다민은 키득거리며 웃었다.“불쌍하게도 어디선가 멀리서 보고있었나 보지. 휴리안 형님은 기억력이 좋긴 한데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두진 않거든.”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듣자하니 코우젠타양은 여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없었던 것 같다. 아주 가끔씩 만날 일이 있어도 신사인 오빠가 직접 만나러 가니까 나랑 마주칠 일은 없었던 것이다.‘역시 휴리안 오빠의 연애사까지 개입하는 건 안 될 말인 거겠지...’...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역시 생각의 정리가 쉽지 않아 어느날인가 메디엘에게 상담을 했다. 휴리안 오빠에 대해서 상세히 말할 순 없으므로 대충 오빠의 약혼이 신경쓰인다 정도로만 이야기했더니 메디엘 왕자는 매우 짜증나는 듯이 말했다.“라디양 약혼이나 신경쓰지 그래요?”생각해보면 메디엘은 항상 오빠 얘기 좀 그만하라고 노래를 하곤 했다. 나는 얌전히 입을 다물고 그날의 디저트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영원히 타오를 것만 같았던 여름의 태양도 이제 슬슬 끝물이라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고 사교시즌이기도 했다. 아카데미에서는 특별 강습으로 댄스 수업을 시작했다. 대부분의 귀족과 사교계 진입을 원하는 부자들은 듣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나도 참가하게 되었다.나는 많은 연습 끝에 목발에서 지팡이로 갈아탈 수 있었지만 아직 댄스는 좀 무리가 있었다. 그런데도 왜 이딴 수업을 들어야 하냐.. 하면 이 수업은 마냥 댄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도회 매너를 배우는 것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학년에 상관없이 중급 학급은 중급학급끼리 고급은 고급 학급끼리 모두 모여서 수업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즉 귀족 자제분들에게는 같은 학년이 아닌 사람들도 사귈 수 있는 모의 사교장이었다.하지만 나는 아직도 이 아카데미에서 조금 겉도는 존재이다. 게다가 몸이 불편한 내가 여기서 뭘 어쩌겠는가. 상대방도 선뜻 춤신청을 하기 꺼려지는 댄스파트너이다. 나 같아도 분홍머리 절름발이는 춤상대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중급 클래스 귀족들을 모두 모아 모의 무도회를 하는 통에 화려한 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예쁘고 멋진 옷을 입고 빙글 빙글 춤을 배우고 있다.그러나 학년을 통틀어 모은다고 해도 현재 내가 다니는 1학년 A반 이외의 반에서 아는 사람은 윌로우밖에 없다. 그 윌로우는 하늘 하늘 추는 춤에는 영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 멀리서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남자 학우들과 시시덕 대며 잡담을 하고 있다. 뭐, 이 모의 무도회의 큰 목적은 사교이기 때문에 저렇게 시간을 보내도 윌로우에게 남는 것은 많을 것이라 본다.‘사실은 나좀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도 조~금 정도는 있지만 말이야. 윌로우 오빠.’나는 혼자서 벽에 기대 무도회를 구경하고있다. 안나도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혼자이다. 현재 나는 몸이 불편하므로 공식적으로는 ‘눈으로 춤을 익혀보기라도 하는 중’이다. 학생들의 사이 사이를 돌아다니며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내린 명령이다. 아이고 이렇게 처량맞을 때가. 얼른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간간히 나를 쏘아보는 파르펠이 예쁜 분홍색 드레스 자락을 흔들며 춤을 추는 것을 멍하니 보고있을 때였다.누군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나는 그 기척 없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너무 놀라 작게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는 그 무례한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군지 바라보았다.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을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거칠게 잡아 끈 손을 정리하고 다른 한 손은 여유있게 내 허리에다 두른 그 소년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너무나 산뜻한 말투였다.“안녕? 라디. 정말로 분홍색 머리구나.”나는 이게 현실같지가 않고 믿기지 않아서 주저 앉을 것만 같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휘청거리는 나를 그는 어렵지 않게 바로 잡았다. 그리고는 내 귓가에 달콤한 목소리로 요청했다.“내 이름좀 말해주지 않을래?”나는 목이 메여서 더듬 더듬 그 소년의 이름을 말했다.“....미... 미카엘.”그는 눈을 얇게 뜨고 대단히 만족한 것처럼 웃었다.“아주 잘했어 라디.”이나는 힘겹게 목을 다듬고는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불렀다.“미카엘.”눈 앞의 소년은 즐거운 듯이 답했다.“맞아 라디.”뭐지. 무슨 일이지. 나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까. 나를 살짝 안고 있는 소년의 얼굴을 떨리는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처음으로 밝은 빛 아래에서 그를 바라본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붉은 빛이 강한 머리색을 갖고 있었다. 마치 한창 때의 단풍잎 같은 색이다. 아무렇게나 길게 흐트러져있던 머리는 이제 산뜻하게 쳐내어 짧아져 있었다.밝은 하늘색이라고 생각했던 눈동자는 회색빛이 감도는 옅은 하늘색이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남성복을 입고있었고 혈색도 매우 좋아보여서 여느집 귀족 자제같아보였다. 항상 주저앉아 있거나 구부정한 자세의 미카엘만 보다가 이렇게 허리를 쭉 펴고 바른 자세로 서 있는 미카엘을 보니 내 생각보다는 키가 큰 소년이었음을 깨달았다.나는 정신없을 정도로 놀랐다. 그리고 반가웠다.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환희했고, 마지막으로는 화가 났다.그가 그 폭풍우가 치던 밤 예고도 없이 나를 내버린 채 사라졌던 것이 떠올랐다. 나는 보기 흉하게 섞여 밀어 닥치는 감정의 파도에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을 떨어트렸다. 목이 멘 소리로 그를 비난했다.“이 멍청이가!”내 말을 들은 미카엘이 다시 없을정도로 경쾌하게 웃으며 내 눈물을 닦았다.“울지마 라디. 보고싶었어.”‘너무’라고 덧붙이는 그의 손을 떼어놓았다.“웃기지마 바보야! 이 저질! 내 몸에 손대지마!”나는 씩씩댔다. 눈물이 자꾸 비어져 나와서 더 화가 났다. 나참 자존심도 없이 왜 이리 울게 되는 거야.미카엘 이 멍청이 이제 와서 친한척하지마. 나는 잊어버렸어. 이제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미카엘은 이제 웃음기 따위는 없애고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그러지 마 라디.”“뭘 ‘그러지 마’야 이 최악아! 훌쩍 도망가 버린 주제에!”숨을 고르며 조금 진정했다고 생각했는데 도망가 버린 것을 비난하자 다시 코맹맹이 소리가 났다. 진정좀 하자 나. 여기는 학교라고.“부디 용서를.”내가 저항하자 내몸에서 한 발자국 물러난 뒤 그는 살짝 절을 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다시 나를 마주하는 그의 눈빛은 예전에 자주 보았던 야수의 형형함이 담겨있었다. 무슨 사과를 저 따위 눈빛으로 하는 거야. 그는 희미한 미소를 담았다. 오랜만에 그의 눈 앞에서 초조함을 느낀다.“용서 따위 절대 안해.”내가 두려움을 감추고 딱딱하게 말했다. 그러자 그가 다시 성큼 걸어서 나에게 매우 가깝게 달라붙었다.“말해줘 라디. 내가 보고 싶었어?”낮은 목소리로 유혹하듯이, 하지만 위협하는 듯한 눈동자로 그가 나에게 대답을 졸랐다.“....”나는 그 물음에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미카엘은 내 턱을 손으로 살짝 끌어 다시 자신의 얼굴을 보게 했다. 참을성이 없다는 듯 재촉하는 그 얼굴을 보자 또 눈물이 핑 돈다. 젠장 왜 이렇게 반가운 거야.“네가 정말 미워. 미카엘 너 같은 거 잊어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나를 진지하게 내려다 보는 그 얼굴을 피하고 싶은데 미카엘이 손으로 잡고있어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눈을 꼭 감고 토해내듯 말을 해댔다. 눈꺼풀을 강하게 감으니 안에 맺혀있던 눈물이 줄줄 흘렀다. 귓가에 그가 흥미롭다는 듯이 말하는 목소리만이 들렸다.“그래서 나를 잊어버렸어? 라디?”그가 장갑낀 손으로 다시 내 볼을 훑는다. 아마 눈물을 닦는 것일 테지. 나는 결국 그에게 굴복하고 말해버리고 말았다.“...보고싶었어.”힘겹게 다시 눈을 뜨며 말하자 미카엘이 천사같이 웃으며 끄덕거렸다.“라디. 오랜만이야.”그가 다시 나를 살짝 안고 댄스 자세를 잡았다. 아까부터 생각한 건데 정말 춤을 추려고 이러는 건가?“미카엘. 춤을 추려는 거야?”물어볼 것이 산더미 같은데 우습게도 이런 것부터 묻게된다.“응.”그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잡고 있는 걸음 보정용 스틱을 발로 살짝 쳐내 내가 놓치게 한다. 이제 겉보기에는 완벽히 댄스 자세이다.“와 라디, 이제 목발은 안 짚네?”미카엘이 살짝 걸음을 옮긴다.“미카엘... 그래도 춤은 무리라고 봐.”그는 씨익 웃으며 답했다.“바짝 달라붙어서 나한테 기대보면 어떨까.”그렇게 말한 후 그는 나를 자신의 몸에 밀어 붙였다. 음악은 경쾌한 곡인데 나는 완전히 그에게 몸을 맡긴 블루스 포즈다. 어찌 됐던 그럭저럭 걸음은 옮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웃긴 꼴 일 것 같긴 하지만.“그래도 모의 사교 무도회에서 이건 너무 끈적한 것 같은데.”내가 담담한 말투로 딴지를 거니까 미카엘은 장난꾸러기처럼 웃었다.“열 한살이랑 놀아봤자 뭘 얼마나 화끈해 보이겠어.”“.....그렇군.”분하지만 맞는 말이라 가만히 그의 움직임에 몸을 맡겼다.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미카엘. 여기엔 어떻게 들어온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인거야.”그가 위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반가워요 라디올러스양. 전학생 미카엘이랍니다.”나는 이 학교에 나타난 것이니까 역시 학생이 된 것일까 무의식중에 생각하긴 했었지만 실제 말로 들으니 새삼 또 놀라워서 비명이 나올 정도였다.“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어떻게 된거야?”미카엘은 키득대며 말했다.“난 이제 미카엘 하르콘트야.”“뭐? 하르콘트? 하르콘트라면....”음... 들어본 가문인데... 아직 귀족들에 대해서 빠삭하지 않은 나는 기억을 더듬어봤다. 미카엘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백작가의 양자로 들어갔어.”“백작!!”나는 깜짝 놀라 소리를 크게 내어 버려서 주위에 누가 들은 사람이 있나 주위를 살폈다. 다행이 이 구석진 곳을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파르펠이 간간히 나를 째려보는 것 같긴 하지만. 나는 다시 미카엘에게 물었다.“어떻게? 갑자기 백작이라니! 대단하다... 미카엘은 뭔가를 초월한 느낌인데...?”내가 멍하니 그를 쳐다보니까 그가 못된 장난을 친 것처럼 웃으며 비밀스레 말했다.“별거 아냐. 그냥 돈 주고 산거랄까. 공작가는 너무 가드가 세고, 기왕이면 후작정도였으면 좋겠다 하고 찾아봤는데 아직 후작가에서는 파고들 틈이 그렇게 엉성하지 않더라고.”아... 그렇구나... 그래 미카엘이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멍하니 생각하다가 퍼뜩 스치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물었다.“근데 미카엘. 너 감옥에서 막 나간 터라 돈도 없었을 텐데?”“라디는 바보구나.”그가 나를 바보취급했다. 음... 뭐지 내가 또 세상물정모르는 질문을 한거니?“지금 서류상으로 내 아버지는 케르센 하르콘트 백작인데. 이 사람은 원래 슬하에 자식이 한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의 성에 잠입했지. 직접 담판을 짓고 싶었거든.”그가 목소리를 낮추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듯 이야기 해주었다. ‘잠입’라는 말이 조금 걸렸지만 그러려니 하고 들었다.“응, 응 그런데?”“원래 성에도 별로 호위 병사나 사용인을 안두는 성격이라서 엄청 편했어. 일단 병사는 다 못쓰게 만들고 일부러 눈앞에서 사용인도 피를 냈어.”“...어...”‘못쓰게 만들고’랑 ‘피를 냈다’라는 건 자세히 묻지 않았다.“성에 케르센 하르콘트만 남자 부들부들 떨면서 말하는 건 다 들어줄 눈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의 목숨을 팔았지.”미카엘이 흥미진진하지 않냐는 말투로 말했다. 그래... 흥미진진하긴 하다.“음... 팔았다고?”미카엘이 킥킥 대며 대답했다.“ 원래 귀족들 죽이는 데 만골드 정도 받는데 안 죽여줄 테니까 그 만골드로 네 양자자리를 내놓으라고 한거지.”“아...그래서 미카엘은 지금 만골드로 양자자리를 샀다?”나는 초현실적인 미카엘의 사고에 그냥 억지로 내 상식을 끼워 맞출 뿐이었다. 그다지 미카엘의 도덕관념이나 금전관념에 터치를 하고싶은 생각은 없다. 그래 행복하렴 미카엘.미카엘은 ‘그래 그래’하고 대답해 주다가 잊은 것이 있다는 듯 아참. 하고 말을 꺼냈다.“아. 근데 라디 딴 데서 내가 돈으로 양자로 들어갔다는 말은 하지마 비밀이니까.”음 그렇구나. 미묘하게 현실적인 데에서는 쉬쉬하는 구나 미카엘“어~ 알았어 다른 곳에서 너의 그런 가슴이 웅장해지는 스토리를 어떻게 말하겠어...”미카엘은 소년처럼 웃으며 말했다.“아니, 그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내가 도적의 습격을 받아 사용인과 병사를 잃은 케르센 백작을 구했기 때문에 백작이 나를 양자로 삼은 거거든.”나는 좀 얼이 빠져서 그에게 되물었다.“사실은 케르센 백작의 사용인과 병사를 죽이고 목숨을 위협한 도적이 너인데?”미카엘은 그건 좀 아니라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에이, 백작을 구한 것도 나인 건 맞잖아.”미카엘은 정말 이상한 사고를 가졌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케르센 백작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한다.미카엘이 빙글 빙글 웃으며 나를 시험하는 듯한 말을 한다.“라디. 아무리 그 잭의 길드라고 해도 어떻게 일개 암살자 길드의 심부름꾼이 백작의 병사들을 다 해치울 수 있었을까.”나는 미카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본다. 뭘 원하고 있는거지?나는 그의 의중을 생각해보며 대답했다.“미카엘이 일개 심부름꾼이 아니기 때문이지.”미카엘이 순한 양처럼 웃으며 등을 숙여 내 목덜미에 고개를 묻는다.“그럼 난 누구게?”나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아 이말을 말하게 하고싶었어?“......잭”그가 내 귓전에 키득거리며 웃는다.“맞았어.”우리는 잠시 말 없이 그 자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미카엘은 곧 등을 다시 곧추펴서 나를 재밌다는 듯이 응시한다.“라디. 내가 잭이야.”씨익 웃는다. 눈빛은 나를 곧 사냥할 듯 위협적으로 빛났다.“그랬구나. 뭐, 어느 순간부터는 너도 암살자이지 않았을까... 생각했어. 근데 어떻게 네가 잭이지? 너는 그때 어렸잖아?”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음 그야 내가 그를 죽이고 그 이름을 물려받았으니까. 그건 그렇고 나 안 무서워?”내가 한숨을 토했다.“언제는 미카엘이 안무서운 적이 있었나.”미카엘이 박장대소했다. 그는 정말로 즐거운 듯이 크게 웃다가 숨이 차서 숨을 고르는 심호흡을 해야할 정도였다. 그는 겨우 진정한듯 미소를 띠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그래. 어쨌든 우리는 지금 햇빛아래서 춤을 추고 있네.”나는 그 조용하고도 감격스러운 말을 듣고서 거대하고 아름다운 창문으로 부딪히는 햇살을 살짝 쳐다보았다. 다시 내 눈 앞에 미카엘을 바라보았다. 그는 예쁜 천사상처럼 빛을 받고 있다.“그러네. 어쨌든 우리는 지금 햇빛아래서 춤을 추고 있구나.”왠지 가슴이 미어져서 바보처럼 그의 말을 따라 할 수 밖에 없었다.수업은 금방 끝이 났다. 모두가 슬슬 나가는 분위기였다.“근데 미카엘. 너 이 수업을 나랑 같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중급클래스 라는 이야기야?”나는 몸을 떼어놓으며 그에게 물었다.“응. 5학년 B반이야.”그가 나의 스틱을 가져다 주면서 대답했다.내가 알기로는 미카엘은 헬리오 오빠랑 동갑이니까 고급 클래스 1학년이 되야 할텐데?“공부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중급으로 들어온 거야?”“아니? 나야 역사만 빼고는 다 여유있지.”미카엘이 잘난체를 아무렇지 않은 듯이 해댔다. 그러고 보니 나랑 자신 없는 과목이 같구나 미카엘. 미카엘이나 나나 일반 상식속에서 생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나 사회가 좀 약했다.“어이구 그럼 왜 굳이 중급으로 들어오셨습니까요? 미카엘님.”“그야 너 때문인게 당연하지 않아? 고로 나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15살이야.”“뭐?!”그는 나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바꿔 버린다. 아 생각해 보면 나에게 가르쳐 준 이 미카엘이라는 이름도 가명이었지? 나는 생각난 김에 화를 내기로 했다.“아 기억났어! 너 이 미카엘이라는 이름도 가짜였지?!”내가 심통난 목소리로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없이 진지하게 대꾸했다. “아냐. 미카엘이 맞아.”이렇게 진심인듯 말하는 걸 보니 흥분해서 말한 이쪽이 오히려 머쓱해진다.“아. 이게 본명이야? 내가 잘못안건가...”미카엘이 활짝 웃으며 답했다.“네가 미카엘로 알고있다면 그게 내 진짜 이름인거야.”이 무슨 궤변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헛웃음이 나와 버린다.“나참... 못이기겠다 진짜.”슬슬 문을 나서고 있는데 윌로우가 말을 걸었다.“라디! 같은 수업 끝난 김에 같이 가자.”이렇게 일단 나에게 말을 걸어놓고선 미카엘에게 인사를 했다.“아! 처음 뵙겠습니다. 실례지만 아까 보니 제 동생 라디와 아는 사이 같으시더군요?”미카엘이 한참 연상이지만 ‘넌 누구?’라는 표정으로 윌로우는 그를 쳐다 보았다.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는 모습이 역시 공작가의 아들답다.그런 윌로우를 보고 미카엘도 담담히 자신을 소개했다. 입꼬리를 살짝 올려 정중하게 이야기 했지만 눈에는 전혀 온기를 담지 않은 채였다. 관심이 없다는 것이 눈에 보일정도로 형식적인 태도였다.“네 처음뵙겠습니다. 미카엘 하르콘트 입니다. 아마도 윌로우 공 이시겠군요.”나와 무슨 관계인지는 대답하지 않았다.나는 이쯤에서 끼어들기로 했다.“아 내가 설명했어야 했는데. 좀 늦었네. 서로 알아서 소개해 버리게 해서 미안합니다.”대충 사과한 다음에 윌로우를 향해 말했다.“오빠. 어떻게 또 내가 미카엘이랑 있는 건 깨알같이 봤나보지? 계속 내팽겨쳐 놓고선.”윌로우는 심드렁하게 말했다.“어? 저 분께 반말을 쓰네? 엄청 친한가 보지? 게다가 내가 오빠인지도 알고 계시는 눈치이고...못 보던 분이신데...”윌로우는 미카엘이 뭔가 수상한 눈치이다. 나는 왠지 귀찮아져서 말했다.“아.... 됐어 오빠. 신경쓰지마.”윌로우는 내 대답이 불만스러운 듯 했다.“허어? 대답이 엄청 성의 없네.”“친구야 친구.”친구라고 대답하자 윌로우는 본인 앞에서 뭐라고 캐묻기는 실례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잠자코 있었다.강당의 문을 나서며 미카엘을 쳐다보았다. 이게 얼마만의 재회인데 그냥 헤어지기는 아쉽다.“미카엘. 차나 같이 마실까?”“나야 좋지.”미카엘은 간단히 승낙했다. 그런데 어디서 마시지? 우리집은 아무래도 좀 찜찜 하려나... 도망쳐 나온 성에 다시 제발로 들어가는 셈이니...고급 클래스의 모의 무도회도 방금 끝난 모양이라 정문으로 향하는 복도는 사람이 북적였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미카엘에게 의견을 물었다.“우리집은 역시 좀 그런가?”“뭐가 ‘좀 그렇다’는 겁니까? 라디양.”불쑥 미카엘이 아닌 다른 소년의 목소리가 치고 들어왔다. 익히 들어본 목소리다. 정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귀몰하시군요 왕자님. 뒤를 돌아보았더니 연한 금발에 눈에 띄는 소년이 비딱하게 서서 나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왕국의 별을 뵙습니다.”약식으로 간단하면서도 공손하게 고개를 숙인다. 윌로우와 미카엘도 왕자에게 예법에 맞춰 고개를 숙였다.“아 이분이 왕자님 이시구나.”미카엘이 음험하게 중얼거리는 건 나만 들었을까? 왜 이런 별 의미 없는 말이 무섭게 들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안 그래도 사람들로 가득한 복도에서 정말이지 정신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잊지 않고 왕자에게 핀잔을 주었다.“왕자님. 왕자님이나 되시는 분이 레이디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 중인데 갑자기 끼어드시다니, 이 나라 미래가 걱정됩니다만.”할 수 있는 한 시건방지게 말해보았다.“이런 사소한 일 하나에도 나라의 미래를 걱정할 수 있는 레이디가 이 왕국에 있다니 저는 정말 감격스럽네요.”왕자는 무표정하고 기계적이면서도 완벽하게 내 말을 빈정거려 주었다. 그러고나선 미카엘과 나를 번갈아보며 무언으로 뭔가를 재촉했다. 대외용 미소를 띄운 채였지만 ‘빨리 나서서 저 소년을 소개해라.’라는 말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피로감이 몰려왔다. 왜 이 복잡한 길 한복판에서 내가 일단 입을 열었다.“왕자님 이쪽은...”말을 시작하자마자 멀리서 익숙한 장신의 소년이 손을 들고 밝게 웃었다.“아. 라디!”“어 정말이네요 형님.”휴리안의 근처에서 헬리오도 나타났다. 나는 일단 웃으며 인사를 건냈다. 그리고 손짓으로 왕자가 있음을 알렸다. 지금 여기서 내가 아는 사람은 다 모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워....반갑긴 한데.’나는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건 별로 좋아 하지 않는 조용한 공학도다...왕자를 발견한 오빠들은 모두 재빨리 인사를 했다.“저, 휴리안 프랑디아. 왕국의 황태자님을 뵙습니다.”“헬리오 프랑디아. 황태자님을 뵙습니다.”막 입을 열자 새로운 인원들이 연이어 추가되었다. 나의 완벽한 휴리안 오빠와 반짝이는 헬리오 오빠가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가 세운다.이제 우리는 정문으로 향하는 전교생들은 한번씩 흘끔거리고 지나갈 정도로 눈에 띄는 거대한 무리가 되었다. 나는 이 번거로운 상황에 이 사람들을 모르는 척 돌아서 도망치고 싶을 지경이 되었다.오빠들과 메디안, 미카엘은 나를 둘러싸고 빤히 보고있다. 그래. 내가 나서서 서로 소개해야 하는 거겠지.“음...여러분. 이쪽은 저의 친구 미카엘 하르콘트에요. 전학생이랍니다. 미카엘, 너는 대충 알지? 우리 오빠들이랑 왕자님이셔.”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짧게 소개를 끝냈다. 말을 끝내자마자 왕자가 나에게 날카롭게 말을 걸었다. 사람들이 많아서 상냥한 척 웃으며 말했지만 내가 볼 땐 무서운 얼굴이었다.“라디양. 미카엘...공이라고 하셨나요? 하르콘트 백작가 자제분이시겠군요. 근데 우연인지 잘 모르겠으나 라디양이 저번에 말해준 평민 친구랑 이름이 같네요?”‘아 맞다!!!그딴 말도 했었구나!’나는 놀라서 어깨를 들썩였다. 메디엘은 아마 나의 이런 모션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메디엘은 웃는 낯으로 나를 계속 몰아세웠다. 오빠들은 멀뚱히 이 상황을 구경하고있다. 헬프 미! 다급한 얼굴로 미카엘을 쳐다보았다. 미카엘은 뭔가 신나는 일이 있는 사람처럼 하하 웃으며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재밌냐? 이게?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못하면 미카엘의 정체에 대해 석연찮은 점이 잔뜩 나와 버리겠어!“노, 놀랍게도~! 그 친구가 케르센 하르콘트 백작님의 목숨을 구해줘서 양자가 되었답니다! 맞지 미카엘?”“하하하하하”내가 버벅거리며 설명하고 나서 동의를 구하며 미카엘을 보자 그는 낄낄 웃기만 했다.“대답이나 해 멍청아.”초조한 나는 나도 모르게 무지 편한 말투로 딴지가 나가버렸다. 오빠들과 왕자의 눈치를 살피자 척보기에도 한참 연상인 미카엘에게 막 대하는 나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분위기였다. 왕자가 이제 대외용 미소도 지우고 매우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다.“그럼 그때 라디양을 두고 가버렸다면서 원망하던 그 사람 본인이라는 겁니까?”“음? 내 얘기를 왕자님께 한거야? 라디?”미카엘도 자기 얘기가 나오자 민감하게 반응했다.음험한 왕자와 미카엘의 카리스마에 등골이 시원한 것을 느꼈다. 그래 엄청 말도 안되는 상황인거 나도 이해하는데, 왜들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진정해!“하하 참 세상 좁지요?” 뻘쭘하게 일단 왕자에게 맞장구 쳐 보았다.가만히 서 있던 휴리안까지 갑자기 서운한 듯 말을 걸었다.“이런, 무슨 이야긴지 잘 모르겠네 라디. 나만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니... 라디...”휴리안이 눈썹을 살짝 기울이며 쓸쓸하다는 표정을 했다.윽! 갑자기 가슴속에서 죄책감이 일었다. 나는 오빠의 저 표정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아니 근데 잠깐. 내가 왜 이렇게 중간에서 안절 부절 못해야 하는 거지...?이 와중에 윌로우는 자기 혼자서 납득을 하고있었다.“아. 정말 원래 아는 사이였던 거야? 어쩐지 사교춤 배울 때 저 분이랑만 춤을 추더라고.”“그래? 진짜 친한가 보네.. 나이 차이도 있어보이는데 라디가 반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헬리오가 윌로우에게 대꾸해 주었다. 나는 힐끔 왕자를 보았다. 이제 왕자는 사정없이 미간을 구기고 있었다. 그가 흥미롭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호오? 좋았겠네요. 친구분이랑 하루종일 춤을 출 수 있어서.”뭐가 하루종일이냐. 교습시간에만 춘거지. 내가 지쳐서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다.“아 그야 미카엘 말고는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 별로 친구 없으니까.”마음껏 비참한 소리를 냈다. 내가 왜 이렇게 들볶임 당해야하는지?나의 ‘친구없음’ 선언에 오빠들과 왕자는 아무말 못하고 숨을 삼켰다. 분위기가 역전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지금 드는 생각을 여과없이 말했다.“제가 뭐 잘못한게 있는것도 아닌데요... 길거리에 세워놓고... 정신없어 죽겠어요.”내가 피곤한 듯 말하니까 미카엘이 또 키득거렸다.“...웃지마 바보야. 넌 내가 곤란한 게 재밌지?”미카엘은 좀 생각해 보는 듯 하더니 말했다.“음... 네가 곤란한 모습이 재미있다기 보다 그냥 네가 재밌지. 엄청 좋아.”갑자기 솔직하게 대답하는 바람에 나는 조금 당황해 하고 말았다.“어 그래? 고마워. 나도 좋아해.”얼빠진 목소리로 말했다.“라디.갑자기 뭐하는 거야?”휴리안 오빠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하지만 팔짱을 낀채 오빠답지 않게 약간 삐딱한 자세였다.메디엘이 동조했다.“그러게요. 뭘 의도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라디양.”굉장히 무표정하게 말했다.도저히 정신 없어서 안되겠다.“아... 이제 그냥 집에 가고싶어요.”진심을 담아 말했다.그렇게 고개를 가로젓는 가운데, 분명히 보였다. 이렇게 모두가 집결하여 혼란한 와중 제르다민 만은 타인인 양 유유히 우리의 곁을 스쳐 집에 가버리는 것을.내가 피곤한 기색을 비추며 집에 가고 싶다고 중얼거리자 휴리안 오빠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그래? 그럼 집에 가자 라디.”집에 가고 싶다면 가면되지 않냐는 듯한 표정을 하며 내 머리를 쓱쓱 쓰다듬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아주 불편해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미카엘이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 그냥 내일봐 하고 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차를 마시자고 했잖아.”미카엘이 씨익 웃으며 말했다. 옅은 눈동자가 나의 대답을 재촉한다.“맞아. 차를 마시자.”나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만다. 피곤하면 집에 돌아가자고 말해 주었던 휴리안 오빠를 올려다 보며 말했다.“오빠, 미카엘이 나를 만나러 이곳까지 와 주었대. 아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쌓였을 거야."상냥한 오빠의 눈을 보며 웃었다. 온통 친절하고 다정히 대해주는 사람뿐이다. 이런 상황이 친숙하지 않다고 투덜대는 것은 예전의 나를 생각하면 배부른 소리일지 모르겠다.휴리안 오빠는 엷게 웃으며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다.“...그러니?”짧게 그렇게만 말하고서는 내 머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쓸고 손을 내려놓았다. 요즘 오빠가 조금 약해진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기분탓일까?오빠를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메디엘이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그거 잘 됐네요.”“뭐가요?”내가 멍청히 물었다.왕자가 미간을 찌푸린 채 입꼬리를 당겨 웃었다.“저도 차를 마시고 싶었거든요.”메디엘이 미카엘을 도전적으로 바라보며 말했다.“....네에?..”내가 기가 찬듯한 소리를 내자 메디엘이 다시 나를 노려보며 대답했다.“궁에 초대하겠어요. 다들 차를 드시러 와 주시겠습니까?”“네에? 이렇게 뜬금없이요? 왕자님! 평소 왕자님 답지 않게 왜 이렇게 여유가 없으세요.”내가 살짝 그를 나무랐다.메디엘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그다지 여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 미카엘 공은 앞으로 계속 자주 뵐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어서요.”그는 말을 한 박자 쉰 뒤에 이번에는 씨익 웃었다. 그리고는 미카엘을 보며 말했다.“서로 대화를 통해 알아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 것뿐이에요.”미카엘은 왕자의 시선을 받자 재밌다는 듯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그 위험한 눈동자를 천천히 움직여 왕자에게 눈을 맞추고는 말했다.“역시 왕국의 왕자님은 감도 좋으시군요. 게다가 궁이라니, 천한 출신인 저는 감히 꿈도 못 꿀 곳인데 초대를 해주신다니 감개무량입니다.”미카엘이 과장되게 기쁜 척을 했다. 잠깐,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 다 같이 차를 마시자는 거? 이 둘은 왜 처음 본 사람끼리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나는 위가 따끔한 걸 느꼈다.헬리오와 윌로우는 궁으로의 초대 이야기를 듣고 싫은 기색을 냈다. 그들은 확실히 궁을 귀찮아 했었다. 헬리오가 살짝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왕자님 저희는 아마 끼지 않아도 될 자리 같아 보이네요. 휴리안 형님이시라면 분명 왕자님의 차 상대로 부족함이 없으실 거에요. 저희는 그럼 이만.”인사만은 완벽한 예법에 맞추어 공손히 한 뒤에 헬리오 형제는 재빨리 자리를 빠져나갔다.그 모습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는 휴리안에게서는 아까 내가 어렴풋 느꼈던 위태위태함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다시 무결점의 오빠로 돌아온 휴리안은 왕자를 향하여 인상 좋게 웃으며 말했다.“와, 궁은 오랜만이네요.”정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궁에서의 티타임을 이렇게 막 정해도 되는 건가? 아. 나는 평소에도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했었지 참. 나는 미카엘을 쳐다보았다.“미카엘.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다 같이 시간을 보내도 괜찮겠어?”미카엘은 조금 생각해 보는 얼굴을 하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괜찮아. 앞으로는 쭉 붙어 있을거니까. 게다가 언제 왕자님이랑 차를 다 마셔보겠어?”그 말을 들은 메디엘이 신경이 곤두선 듯한 목소리로 빈정댔다.“쭉 붙어 있다니요? 마치 약혼자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 섣부른 말씀은 아직 어린 레이디의 평판에 누가 되니 삼가주시죠.”얼마전에 왕가의 신부 어쩌구 하며 나를 들먹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 같지 않은 말이다.둘 사이에 또 위험한 기류가 흐르는 듯 해서 나는 불안해 졌다. 아 신경쓰기 귀찮다.“둘이 싸울 자리를 옮기기 위해 궁으로 차를 마시러 가시는 것이라면 전 빼주세요.”맥이 빠져서 둘을 향해 투덜거렸다.메디엘이 무표정하면서도 툴툴거리는 말투로 대답했다.“싸우다니요. 친목도모죠. 친목도모.”“하하 그럼요.”미카엘도 성의 없게 맞장구쳤다.나는 옆에서 계속 빙그레 웃기만 하며 서있는 휴리안 오빠가 걱정되기 시작했다.“오빠. 엄청 귀찮고 재미없는 티타임이 될 게 뻔해 보이는데 같이 가도 되겠어? 오빠는 그냥 가서 쉬어도 되는데.”휴리안 오빠는 아주 예쁘게 웃으며 답해줬다.“엄청 귀찮고 재미없는 차 모임에 라디, 너만 보낼 수는 없지.”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확실히 얼굴을 보자마자 으르렁대는 저 둘 사이에 혼자 있는 것 보다야 휴리안 오빠가 같이 있어주는게 훨씬 마음이 놓인다. 나는 조그맣게 중얼거렸다.“그럼... 어리광 부려볼까.”휴리안 오빠가 키득거리며 말했다.“별거에 다 어리광이래.”우리 남매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고 메디엘이 마음에 안드는 듯이 말했다.“확실히 오빠에게 어리광부리기엔 너무 크지 않았나요.”내가 단호하게 대답했다.“저는 자타공인 브라콤이니까요.”휴리안도 나긋나긋하게 장단을 맞추어주었다.“저는 자타공인 시스콤이고요.”미카엘이 우리 둘에게 영혼없이 환호했다.“와~ 정말 좋으시겠어요.”왕자와 공작가 후계자에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심한 태도다. 미카엘이 차 마시다가 욱해서 칼이나 안 빼들었으면 좋겠다.결국 우리는 궁으로 향하게 되었다. 심지어 오붓하게 한 마차에 네 명이 모두 탔다. 이제야 이 어이없는 상황이 모두 실감이 났는지 마차에 탄 뒤에는 모두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래 이제 속이 시원하냐. 어색해서 토할 것 같다.다과가 준비된 정원에 당도하자 메디엘이 나를 향해 투덜거렸다.“무슨 말 좀 해 보시죠. 자요.”입으로는 한껏 불만을 말하면서도 몸으로는 우아하게 내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빼주었다.“초대한 호스트가 이야기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맙습니다.”내가 무덤덤하게 대답하면서 자리에 앉았다.서먹함에 못이겨서 덩치 큰 소년 세 명과 나는 눈 앞에 다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궁까지 와서 다들 과자나 쿠키만 우물거리고 있었다. 서로 눈도 잘 마주 치지 않았다. 허어...기가 막힌다. 나는 좀 딱딱한 쿠키를 깨물고 나서 메디엘에게 빈정댔다.“왕자님. 여기까지 굳이 부르신 이유가 뭘까 했는데, 요 맛난 과자 때문이었구만요.”메디엘이 짜증을 부렸다.“역시 라디양은 참 말을 우아하게 하신다니까요.”휴리안이 차를 홀짝거리다가 상냥하게 웃으며 메디엘에게 말했다.“라디의 칭찬 감사합니다. 제가 가르쳤거든요.”오. 휴리안 오빠가 남한테 빈정거리는 건 처음 듣는다. 메디엘과 나의 빈정거림 병이 옮은 듯했다. 모두들 빈정빈정 마치 빈정거림 궐기대회에 나온 것 같았다.내가 휴리안의 옹호에 조금 텐션이 높아져서 메디엘에게 자랑하는 말투로 말했다. 오빠 쪽으로 머리를 까딱여서 우리 휴리안 오빠를 좀 보라는 듯한 모션을 취했다.“왕자님. 방금 봤어요? 우리 오빠에요.”메디엘은 질렸다는 표정을 했다.“봤습니다. 휴리안 공은 신사의 표본으로 유명했었는데 시스콤이 고질병이긴 하네요.”나는 좀 웃은 뒤에 메디엘에게 본론을 말했다.“근데 메디엘 왕자님. 왜 이렇게 미카엘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에요? 오늘 처음 본 사이잖아요? 평소엔 누구한테나 친절하면서...”미카엘이 키득거리며 말했다.“그것도 몰라? 그야 너랑 내가 ‘사이가 좋아 보이니까’잖아. 실제로도 좋지만 말야.”말을 끝낸 미카엘이 내가 한입 베어 물은 쿠키를 내 손에서 빼내 자신의 입으로 넣었다.“우와 달아.”입에 넣자마자 인상을 썼다. 뭐야. 뺏어 먹질 말던가.메디엘이 냉랭한 눈빛을 미카엘에게 보냈다. 정말 맘에 안든다는 목소리로 말했다.“저런 행동도 참 거슬리네요.”뭐야. 저런 행동‘도’라는 말은... 정말 내가 미카엘이랑 사이가 좋아보여서 싫은거야?! 메디엘이 나한테 다소 심하게 신경쓰는 면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설마 정말 겨우 그런 이유로? 연인도 아닌데?나는 믿을 수가 없어서 말했다.“엥? 진짜로?! 왕자님. 나한테 연애감정 없잖아요?!”휴리안이 차를 마시다 사레에 걸려서 콜록거렸다. 그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을 막고 연신 기침을 해대는 희귀한 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다 . 아. 방금 내 말은 너무 노골적이었나. 그러나 미카엘은 웃는 법 없이 조용히 왕자를 관찰하는 눈빛을 보냈다.메디엘이 황당을 넘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짜증을 부렸다.“네! 아직 없어요!”왕자가 당당하게 ‘아직’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나는 무척 쑥스러워졌다. 아. 남들 앞에서 낯부끄럽다.왕자도 덩달아 귀를 새빨갛게 하고 화를 냈다.“도대체 당신은! 진짜 이상하게 남들의 사고를 못 따라가는 면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나는 혼나는 것처럼 기가 죽어 조그맣게 대답했다.“네... 말했잖아요. 그쪽으로는 불구자라고.”왕자가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다.“아.. 진짜 제가 이렇게 당신 오빠나 친구까지 세워놓고 설명을 해야 하나요. 수치스럽기까지 하네요.”“면목없습니다.” 뭔지 몰라도 내가 죄인인것 같다.“굳이 연애감정이 아니더라도 나는 당신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당신이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까지 보였던 당사자인 미카엘 공이 다시 짠하고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하하 호호 하고있는걸 발견했는데 기쁘겠냐고요!”미카엘이 왕자가 화내고 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활짝 웃으며 나에게 물었다.“와, 라디. 내 얘기 하면서 울었어? 내가 없어져서 울정도 였어?”정말로 기쁘다는 눈치였다. 고개를 내쪽으로 빼고는 대답하라는 몸짓으로 보챘다. 이제는 휴리안이 말없이 가늠하는 눈빛으로 미카엘을 보고있었다.나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날 바라보는 미카엘의 눈을 가려버리고는 메디엘에게 사과했다.“아.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제가 참 이해가 늦어서 말이죠...”나는 왕자의 붉어진 귀 끝을 바라보았다. ‘치욕스럽다.’, ‘어이가 없다.’ 화를 내면서도 끝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설명해준다. 나는 입 꼬리를 제어하지 못하고 베시시 웃고 말았다.왕자가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웃깁니까?”나는 왕자의 곁에 갑자기 옛 친구라며 왕자를 독차지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을 상상해 본다.“확실히 저도 왕자님이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온 신경이 다 가버리면 서운할 것 같네요.”왕자는 미간을 조금 피긴 했지만 여전히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아. 이해는 했나 보군요. 이 대인관계 열등생.”“네. 그렇게 된다면 왕자님의 시선을 끌어보려고 학교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할지도 모르겠네요.”진지하게 상상해 본다. '여기좀 보세요 왕자님 저 지금 물구나무서기합니다?' 이렇게 외치면 메디엘은 무표정하게 '그런건 비추합니다만.' 이라고 말할 것 같다.생전에 친구하나 없던 내가 왕자님과 베프라니! 행복에 겨워 활짝 웃었다.“서로 질투라니, 베프같아 보여서 좋아요.”왕자가 그제서야 픽 하고 웃으며 대답했다.“아 정말. 어련하실까.”미카엘이 탁하고 다 마신 찻잔을 요란하게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의 심기가 사나운게 무섭다. 갑자기 또 홱 돌아버리는 건 아니겠지? 여긴 궁인데.나는 미카엘이 화를 내지 않았으면 해서 내 앞에 있던 케이크를 조금 떠서 그의 입에 넣었다. 미카엘은 그립다는 말투로 말했다."어? 이건 또 오랫만이네."그제서야 미카엘도 키득댔다. 미카엘이 끝내 별로 화를 내지 않아서 다행이다. 사실 내가 보기엔 미카엘이나 메디엘이 딴데서 만났으면 꽤 죽이 잘 맞을 것 같은데.휴리안은 조용히 내가 웃는 모습을 보다가 자신도 희미하게 웃으며 나에게 말을 걸었다.“행복해 보이는구나 라디.”나는 끄덕이고나서 잠깐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가을 하늘이 선명해서 참 아름다운 풍경이었다.내가 담담히 말했다.“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차를 마실 수 있다니. 꿈일까봐 무서워. 이거 천국 아닐까?.”정말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내 상상력에 박수를 보낸다.휴리안은 눈을 내리 깔며 낮게 중얼거렸다. 평소 오빠의 행동 같이 나긋나긋한 목소리였다.“정말이지 소박하기도 하지. 겨우 이런 거에 천국이라니 좀 더 잘해줘야겠어.”“오빠, 꿈에서 깨면 어떡하지? 아쉬워서 울어버릴지도 모르겠어.”내가 작게 웃으며 진담반 농담반 말했다.“그땐 내가 찾아갈게.”휴리안이 부드럽게 나를 눈동자에 담으며 달랬다.모두들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음미했다. 학교에서 처음 모두 모였을 땐 금방이라도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인 것이 좀 우스울 정도이다.미카엘이 나를 빤히 보다가 입을 떼었다.“옛날에도 오빠 오빠 짜증날 정도로 얘기하더니, 진짜 사이 좋아 보이네.”자기도 한때는 여동생을 무지 예뻐했었던 오빠였으면서.“너도 여동생이랑 사이좋았었잖아. 나이차가 많이 나면 대부분 사이가 좋은 거 같아.”내가 미카엘에게 답했다.“몰라. 여동생은. 이제 잘 기억도 안 난대도.”미카엘이 무심하게 말하며 찻잔에 찻잎을 더 넣었다. 미카엘은 씁쓸한 걸 잘 먹는다.메디엘이 등받이에 편하게 기댄 뒤 이해 못하겠다는 말투로 미카엘을 거들었다. 나를 느긋하게 내려다보았다.“아무튼 나이차를 감안하더라도 당신 남매는 사이가 너무 좋다니까요. 사고 전에는 같이 다니지도 않더니...이제는 친남매보다도 더 한 것 같아요.”메디엘이 그렇게 말하자 미카엘은 그게 무슨소리냐는 듯이 메디엘을 쳐다보았다.“아니 그럼... 저 둘은 친남매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메디엘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미카엘을 돌아보았다.“네. 라디양은 저 집안에 5살 정도에 입양된 양녀이니까요. 먼 친적이긴 한데 거의 남이죠 뭐. 설마 그런 것도 모르셨나요?”메디엘은 말을 끝내고선 그것도 몰랐냐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미소를 띄웠다.아! 생각해 보니 미카엘한테 그 얘기는 안했던 것 같다. 오.. 시시콜콜한 얘기는 엄청 해댔는데... 정작 내가 양녀라는 중대하다면 중대한 사실을 말하는 걸 깜박했네. 나한테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니까 남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버렸다.내가 ‘아차, 잊어버렸네.’ 라고 중얼거리자 미카엘이 조용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메디엘의 비아냥을 받은 미카엘은 입꼬리를 살짝 올려 꽤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눈이 너무 무섭다. 눈빛이 나에게 신랄하게 외쳤다. ‘장난해? 날 바보로 만들었겠다?!’나는 헛기침을 했다.‘내가 정신머리가 없어서 까먹은 거야. 화 좀 내지마..’나는 그의 눈길을 피하려고 다과가 차려진 테이블 위를 바라보았다. 빨간 체리 저림이 얹어진 파이가 보였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미카엘이 감옥에서 날 인질로 삼아 탈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무렵에는 파이안에 체리 졸임이 들어있는 걸 보고 ‘ 곧 너도 저렇게 만들어 주겠다.’ 뭐 이따위로 말을 했었지...나는 내 앞에 있는 빵 칼을 자연스럽게 미카엘에게서 멀리 치우려고 노력하며 미카엘에게 얌전히 사과했다.“...음...미카엘. 미안해. 너도 벌써 알고 있는 줄 알았지 뭐야.”미카엘이 여전히 인자한 듯 웃으며 물었다.“뭘? 깜박 잊고 말 안해줬을 수도 있지.”그 미소를 본 내 본능이 냉큼 혼신을 다해 사과를 하라고 명령했다. 저렇게 예쁜 미소인데 어떻게 오랜 문명생활로 퇴화 중이었던 나의 생존 본능을 일깨워 주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지?“미안! 결코 너한테만 숨기려던 게 아니었어.”미카엘은 내가 진땀을 흘리며 사과를 하자 가늠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무서운 미소는 다행이도 조금 옅어져 있었다.“...흥 ”그가 퉁명스럽게 내 포크에 찔러져 있던 케이크 조각을 받아먹었다. 어쨌든 넘어가려나 보다.내가 그에게 쩔쩔 매며 사과를 하자 조용히 보고 있던 휴리안 오빠가 내편을 살짝 들어줬다.“그렇게 필사적으로 사과할 정도는 아니지 않아? 미카엘 공도 그렇게 생각하시죠?”휴리안이 쓴웃음을 살짝 지으며 미카엘의 동의를 구했다. 이제 적당히 용서하라는 뜻일 것이다.미카엘은 ‘네에... 뭐 그렇지요. 왜 저러신담. 내가 무서운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대충 대답하며 이제 관심 없다는 듯 찻잔을 들었다. 이 녀석! 성의 있게 좀 대해줘라. 오히려 미카엘 본인이 걱정될 정도의 일관된 성의 없음이다. 밖에서 계속 이러면 금방 트러블이 생길 텐데....내가 그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자 미카엘은 차를 한 모금 삼킨 뒤 나를 바라보며 시큰둥하게 말했다. 역시 아직은 삐져있나보군.“근데 그럼 남인데도 휴리안 공이랑 그렇게 달라붙어서 다녔다는 거네? 지금까지는 오빠라서 그러려니 했는데 말야... 역시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내가 순간 당황해서 말문이 막혀있으려니까 휴리안 오빠가 대신 미카엘에게 대답했다. 늘 그렇듯 보기 좋은 미소였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은 느낌이었다.“남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짧게 그렇게만 말했다.이번에는 그 말에 메디엘이 입을 열었다. 미카엘보다야 훨씬 신사답고 형식적으로나마 예의를 잘 지키고 있었지만 그는 휴리안의 말을 바로 부정했다.“그래도 휴리안 공이 약혼녀가 있음에도 라디양과 유별나게 붙어다니는 것은 사실이죠. 특히나 라디양 같은 경우는 양녀인 입장이라는 것이 꽤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요....”나는 당황해서 메디엘에게 물었다.“어, 혹시 양녀인 제가 오빠에게 너무 붙어 다니거나 스스럼없게 만지거나 하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였나요?”큰일 났다. 저 완벽한 오빠에게 흠이 있을까 했는데 내가 바로 흠이었다! 이런!그가 ‘아참, 라디 양은 모르시겠군요’하고 자세히 설명해줬다.“양녀로 일단 어렸을 때 집안에 들여서 예법이나 가문 돌아가는 사정을 일찍 교육시킨 다음 집안의 남성과 결혼시키는 것이 유행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프랑디아 가문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좀 이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미카엘은 그 틈에 타이밍 좋고 천진난만한 얼굴로 외쳤다.“와 약혼 하셨었군요 축하합니다! 영원히 라디 곁을 행복하게 떠나가시길.”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것에 신경 쓸 상태가 아니었다. 맙소사! 이곳에서 양녀는 내가 아는 개념과는 꽤 다른 거였구나. 양녀는 그저 친부모 대신 맡아서 키워준다는 정도의 의미인가보다. 나는 나도 모르게 벤다이어그램을 상상해 버리고 만다. ‘양녀’집합은 ‘가족’집합에 완벽하게 포함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삐져나와있다.나는 조금 울적해 졌다.‘나는 사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자연스러운 가족의 일원은 아니었을 수도 있구나 ...’게다가 지금까지 멋대로 쫓아다녔기 때문에 상냥한 휴리안 오빠는 몸이 불편한 나를 밖에서도 자주 안아주고는 했었다. 큰일이다. 사실은 꽤 곤란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큰오빠는.이날 티파티는 급작스러웠던 것 치고 꽤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조금 친해진 것 같아서 기뻤다.그러나 내가 여지껏 휴리안 오빠에게 조금씩 누를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과, 내가 몰랐던 이 세계의 양녀에 대한 개념이 새삼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티파티가 끝날 때쯤 왕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대에게 상처를 주고자 함이 아니었다고 조그맣게 사과했다.왕자님 답지 않게 귀 끝까지 새빨갛게 물들인 채 미안함에서 오는 초조함을 숨기지 못하고‘라디 양은 명실상부한 프랑디아 가문의 일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섬세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놀랄 줄은 몰랐습니다.’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건넸다.내가 생각보다 감정을 잘 숨기지 못했나 보다. 나는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나는 모른 척 그의 상냥한 사과를 받았다.오히려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더욱 씩씩하게 알아서 잘 크는 라디올러스가 되리라.그렇게 마음먹었다이제 미카엘도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다. 미카엘이 학교를 다니게 됐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에는 그저 감격스러울 뿐이었는데, 이주정도 지난 지금은 슬슬 걱정스러워지고 있다.“미카엘.. 5학년은 수업 더 있을 텐데?”내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이동수업을 마치고 교실에서 나오자 미카엘이 자연스럽게 내 옆에서 보폭을 맞추며 걸었다. 누군가 내가 수업이 끝나는 것을 기다려 주다니! 처음 있는 일이고, 즐거운 기분이야 물론 있지만 그가 걱정된다. 여기는 나름 명문 학교다.미카엘이 당연한 걸 뭘 물어보냐는 듯이 말했다.“어. 있지?”나는 그를 뚫어져라 보다가 물었다.“넌 5학년 맞고?”“물론.”그가 끄덕 거렸다.말세다 말세야. 학교에 도대체가 기강이 없구나. 내가 기가차서 그를 나무랐다.“그럼 수업 들어가야지. 미카엘. 너 어제도 학교 안 왔었잖아.”사실이다. 미카엘은 기껏 힘들에 학교에 전학을 와 놓고선 결석을 밥 먹듯이 했다. 물어보니 바쁜 일이 있다고 한다. 궁금한 건 많았지만 미카엘이 말하기 귀찮아 하는 눈치라 묻지 않았다. 그는 실질적으로 백작의 돈을 쓰는 것 같진 않아보이므로 아마 학교다니는데 쓰는 돈도 자기가 벌어야 했을 것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바쁜 것이리라 대충 짐작했고, 결석하는 데는 별 말 하지 않았었다.근로와 학업이 병행되는 것은 예로부터 고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매일 같은 무단 조퇴는 그것과 다른 이야기다.미카엘이 눈을 가늘게 뜨고서는 못된 장난을 치는 것처럼 웃으며 말했다. 아니, 실제로도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구나. 땡땡이라니, 나이 값 좀 하세요 미카엘 오빠.“어제 못 봤으니까 오늘 더 많이 놀아야지.”“얼마 전에도 하루 종일같이 호숫가에서 빈둥댔던 거 기억 안나?”“그때는 왕자도 같이 있었잖아.”미카엘이 생각만 해도 짜증난다는 듯이 말했다. 왕자나 미카엘이나 바쁜 몸이기 때문에 겨우 시간을 쪼개 나랑 놀아주는데, 둘이 한가한 시간이 겹치면 끝내 둘 다 약속을 미루지 않다가 결국 셋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둘은 얼굴만 보면 티격태격하긴 하는데, 내가 보기엔 역시 죽이 잘 맞는다. 이거 이러다가는 나중엔 절친이 되는 건 아닐까.미카엘이 싱긋 웃었다. 꽤나 순진해 보이는 미소라, 더 어린 소년 같아 보인다. 아 이런 얼굴을 하면 나는 그를 혼내기 힘들어진다. 놀 궁리를 하며 즐거운 듯 말했다.“오늘은 저쪽에 있는 얕은 산에 가볼까?”“음...미카엘... 그래도 말이지 수업에 빠지는 건 안 좋아. 그냥 내가 학교에서 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내 말을 들은 미카엘이 눈썹을 찡그리며 불만스럽게 말했다.“뭐야, 라디. 오늘 나랑 놀러가는 거 별로야?”내가 그건 전혀 아니라는 뜻으로 한 손을 크게 내저었다.“아니, 그건 아니야. 나야 미카엘이 힘들게 시간 내줘서 만나러 와 주는게 고맙지만....”미카엘이 말을 거기까지만 듣고서는 내가 휘젓던 손을 덥석 붙잡았다.“그렇게 고마우면 잔말 말고 가자.”씨익 위험한 동물처럼 웃었다. 그리고는 막무가내로 자신에게 팔짱을 끼우고선 앞장섰다. 내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내 스틱을 빼앗아버렸다. 사실 처음부터 이길 거란 생각도 안했다. 얌전히 따라가기로 한다.그의 마차가 우리가 가려는 산 바로 밑까지 데려다 주었다. 매우 가까운 곳이라 금방 도착했다. 내가 마차에서 내려서 미카엘에게 투덜댔다.“근데 미카엘, 이제와서 고백하는 말이지만. 나 사실 잘 못 걸어. 몰랐지?”빈정거리는 소리를 듣고 미카엘이 키득거리며 말했다.“걱정마 공주님. 산이라기 보다는 동산? 언덕? 그정도니까. 피크닉 가는 분위기로 가자고.”흐음.. 괜찮을까. 또 굴러서 내려오는 건 아니겠지. 내가 가늠하는 것처럼 눈앞의 숲과 내 스틱을 번갈아 보자, 미카엘이 내 어깨에 불쑥 손을 얹으며 말했다.“아니면 공주님답게 공주님 안기로 가줄까?”내가 기겁해서 거절했다.“어이고, 괜찮습니다. 생각만 해도 창피하네요.”누가 우연히 보기라도 하면 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까? 숲에 공주님 안기로 걸어 들어가서 뭐하게? 음... 죽기전에 한번만 숲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애원한 몸이 불편한 아이와 그 소원을 들어준 오빠인가.내가 진짜 미카엘이 안아들까봐 앞장서서 씩씩하게 걸어 들어갔다. 날씨가 좋아서 확실히 걷기엔 기분 좋은 날이긴 하다.내가 옆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미카엘에게 물었다.“근데 왜 갑자기 산? 원래 산 좋아해?”미카엘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아니, 그냥 여기는 별로 사람이 없거든.”......사람 없는 데서 뭐하게? 아니, 그보다 왜 이렇게 걷기 좋고 풍경도 예쁜 산에 사람이 없지? 혹시 무지 위험한 데 아냐? 내가 불안감을 숨기고 어색하게 하하 웃으며 다시 물었다.“음... 여기에서 무슨 일 있었어? 왜 사람이 없지?... 예쁜데.”미카엘이 웃긴 얘기를 하는 것처럼 킬킬 웃으며 말했다.“여기에서 옛날에 잭 길드 놈들이 사람들을 끌고가서 죽였다느니, 죽인 사람들을 묻는 자리로 썼다느니 하는 소문이 돌았거든. 거기에 이야기가 더 붙어서 잭이 잡힌 후에는 겨우 살아남은 일당이 여기서 숨어서 살고 있다는 소문이 된 거 같아.”그가 진짜 재밌는 농담을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웃음을 겨우 참아가며 얘기를 하기에 나도 같이 웃어가면서 들었는데 ...마지막까지 어디가 웃긴 건지 감도 못 잡겠다. 그래서 여기서 죽인 건 맞는 거냐 잭. 말해봐라 본인.나는 웃음포인트가 나올 때를 기다리며 장착했던 미소를 어색하게 회수하며 물었다“그래서? 여기 진짜 일당이 있어?”미카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아. 다 죽었대도. 전에 말했잖아? 내가 모두 배신했다고. 게다가 진짜 일당이 있는 데면 내가 널 이리로 데려왔겠냐.”“그래도 꽤 큰 길드였던 것 같은데, 몇 명은 도망쳤을지도 모르잖아.”내가 조심스레 의문을 표했다.미카엘이 어림없는 소리라는 듯이 위험하게 웃으며 말했다.“그럴리없어.”“어떻게 그렇게 단언해?”미카엘이 그 옅은색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비밀을 속삭이는 것처럼 말했다.“이 길드는 꽤 위험해졌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군대한테 알려서 갖다 바친 거거든.”“음... 군대는 아직 감도 못 잡고 있을 때였어?”그가 키득댔다.“뭐, 거의. 잡아야 해! 라는 위기감만 있었을 거야. 우린 꽤 잘 숨어있었으니까.”“그럼 계속 잘 숨어 있어도 됐던 거 아니었을까?”미카엘이 고개를 저으며 나를 여유롭게 바라보았다.“누군가가 배신하면 끝나는 상황이었어. 그런 관계라면, 내가 제일 먼저 배신해 버리는 게 마음 편하고 좋아.”“과연.”내가 납득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생사, 성공여부가 남한테 달린 상황이라니 나도 질색이다.미카엘이 재밌다는 듯이 나를 보고 웃었다. 뭐지?하고 얼굴에 뭐가 묻었나 손으로 더듬어 보는데 그가 입을 열었다.“내가 비열하다고 생각 안 해?”미카엘은 항상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항상 나쁜쪽으로만 묻는다. 그런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별로. 그냥 타이밍의 귀재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문제는 항상 질질 끌다가 망하게 되더라고.”그래 처음에 그렇게 날려 먹은 주식이 꽤 되었다. 아버님께는 비밀이었지만.미카엘이 내 말을 듣고 또 하하 웃었다. ‘타이밍의 귀재는 또 뭐야.’라면서 킬킬댄다.그래 여기까지 놀러왔는데 많이 웃자 미카엘. 동물원의 야수가 아닌 자연의 야수를 보는 것처럼 밖에서의 미카엘은 참 보기가 좋다.“아, 그럼 여기서 사람을 묻었다거나, 죽였다거나 하는 것도 다 루머야?”내가 생각이 나서 다시 물었다.그가 잠깐 생각해보는 것처럼 잠시 위를 보며 숫자를 세는 듯한 모션을 했다. 하나, 둘...같이 세다가 다섯이 넘어가면서 부터는 그냥 시선을 돌렸다. 뭘 세고 있는 건지 오싹하다. 그는 생각이 잘 안나는 것처럼 살짝 인상을 쓰더니 나에게 산뜻하게 말했다.“잘은 생각 안나는 데 확실히 루머야. 몇 번 안 묻었어. 내가 알기론.”야. 결국 묻은 거잖아. 뭐가 확실히 루머라는 거야 이 녀석.하고싶은 말은 많지만나는 그냥 ‘아 그래?...’라고 이야기를 넘겼다. 묻었느니, 안묻었느니 하는 주제는 별로 자세히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다.다리가 슬슬 아플 때쯤 되니까 정상에 다 온 것 같았다. 정말로 야트막한 동산이구나. 정상은 나무가 거의 없고 잔디와 들꽃들로 무성했다. 동화같이 예쁜 풍경이었다.‘이런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던가...?’내가 감탄하며 풍경을 둘러보고 있으려니까 미카엘이 우쭐대며 말을 걸었다.“어때? 제법 보기 좋지?”나는 솔직하게 감사를 표했다.“응 완전 평화로운 풍경이다. 정화되는 기분이야. 데려와 줘서 고마워 미카엘!”마냥 즐겁다가 순간 ‘이렇게 예쁜 곳에 파묻었던 건가?’라는 언뜻 생각이 들지만 무시하려고 노력해 본다. 지금 미카엘은 그냥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한 것뿐이야. 좋게만 생각하자.미카엘이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앉기 좋은 바위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는 손짓으로 자기의 옆자리를 권했다.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런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에 우리 둘밖에 없다니 참 신기하다.내가 곁에 앉은 그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계절도 가을인데다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붉은 그의 머리가 미세한 바람에 살랑이는 것을 보니 정말로 단풍같았다. 이렇게 붉은데 감옥에 있었을 땐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정도로 어두침침하고 습하고 추운 곳이었다.“이토록 선명한 붉은 색이라니, 미카엘.”내가 새삼 감탄하며 말했다.그가 나를 지긋이 보며 말했다.“네가 더 믿기지 않는 색인 건 알고 있지?”내가 키득거렸다.“우리들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말이야... 머리색조차 제대로 알고있지 못했어.”그는 내 말을 듣고 잠깐 침묵하더니 갑자기 그의 바로 옆에 있던 내 손을 한손으로 잡았다. 그리고 다른 쪽 손으로는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뭐하는 거지? 내가 궁금해서 뭘 찾는 건지 기웃거리니까 곧 그는 주머니에서 포장지로 낱개씩 정중하게 포장된 쿠키를 꺼냈다. 한손으로 그 포장지를 풀어보려고 해보다가 쉽지 않은지 포장지 끝을 입으로 살짝 물고 뜯어냈다. 나랑 잡고 있는 손을 잠깐 놓은 다음에 두손으로 풀면 될 것을.갑자기 무슨 일일까 하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내게 그는 쿠키를 내밀었다. 천사같은 얼굴로 웃고있었다. 나는 그제야 그가 뭘 하고 싶은 건지 깨달았다. 내가 덥썩 그 쿠키를 베어 물었다. 향도, 맛도 모두 만족스러운 고급 쿠키였다. 그러나 나는 그 맛보다도, 미카엘의 표정이 너무 인상적이였다. 우물우물 입을 움직이면서도 평생 잊지 않고 싶어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진지하고, 감격스러운 얼굴로 내가 먹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내가 크게 베어 문 쿠키를 삼키고는 헤죽 웃으며 그에게 말했다.“우리 이번엔 반대네. 그치?”미카엘이 끄덕거리고서는 말없이 손의 쿠키를 마저 내밀었다. 나도 군말 없이 받아먹었다. 그는 내가 먹는 것을 자세히 지켜보다가 입을 떼었다. 아득한 것을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다.“내가 네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서 철장에 부딪히게 한 적이 있었잖아?”아아. 그런 적도 있었지. 나를 억세게 붙잡고는 너를 찔러서 내버린 다음 그 틈에 도망가 버릴 거라고 매몰차게 이야기 하던 미카엘이 지금 내게 쿠키를 먹여주고 있다. 나는 짧게 맞장구를 쳤다.“그랬지.”그 때의 일에 죄책감을 갖고있는 걸까? 사과하려고 하는 건가? 그럴필요 없는데.미카엘은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혹시 그것 때문에 심하게 다쳤었거나, 흉터같은 거... 생겼어?”나는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고는 가볍게 말했다.“아냐~ 전혀 그런 일 없어. 살짝 멍은 들었었는데 금방 없어졌어.”“그렇구나.”그는 전혀 안심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다. 그가 미안해 하는건가 생각했던 설레발이 민망하다.내가 기가 막혀서 그에게 물었다.“아주 앓아누웠었으면~ 했어?”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아니, 네가 아픈 건 별로인데. 조그만 흉터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해.”이건 또 무슨 흉흉한 소리야. 쉽게 안돌아가는 머리로 힘들게 그의 말에 내제된 다른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정말 그냥 내 몸에 흉터가 있었으면 한다는 건가? 결국 그에게 그 의미를 물었다.“무슨 소리야? '흉이라도 남게 칼로 찌를걸...' 하는 거야 지금? 본인을 앞에 두고 말이지...”그가 의미심장하게 쿡쿡 웃었다. 그리고는 약간 몽롱한 듯이 말했다.“내가 너와 그 감옥에서 만났다는 사실 말야. 너무 꿈같지 않아?”아. 이 생각은 나도 꽤 많이 했던 것이다. 특히 미카엘이 갑자기 사라졌었을 때 많이 했었지. 그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내가 계속해서 상기해 내지 않으면 그냥 없던 일이 될 것 같아. 약하게 들었다가 결국 멀쩡해 졌다고 했던 그 멍처럼 말이야.”그가 내 쪽으로 조금 돌아앉아서 비어있는 손으로 그 때 철창에 부딪혔던 내 어깨를 조금 쓸었다. 옛날을 떠올리고 있는 시선이다. 조금 무섭다. 그치만 그의 마음을 알 것도 같은 기분이라서 달래는 말투를 해 보았다.“하지만 나도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와 만나고, 지냈던 시간들은.”미카엘은 내 어깨에 정신이 팔려있다가 시선을 조금 고쳐 내 눈을 지긋이 쳐다보았다. 오랜만에 그가 진지하게 사냥하려고 마음먹은 것 같은 눈을 본다. 필시 그는 먹이사슬에서 포식자의 위치겠지. 미카엘이 아쉽다는 듯이 어깨에서 손을 살짝 떼며 중얼거렸다.“그래도 아깝다는 기분이야. 매일 매일 기억이 옅어져 가는 느낌이라서.”나도 그의 얼굴을 응시하며 진지하게 대답했다.“그럼 아쉽지 않게 매일 매일 다른 추억들을 비집어 넣어.”미카엘이 순진한 웃음소리를 내며 웃었다. 그리고는 작게 말했다.“역시 그때 깨물기라도 할 걸 그랬어. 조그만 흉터라도 남게.”진심으로 나에게 흉터를 못 남긴 것을 아쉬워 하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그 어두운 감옥에서 철창으로 손을 집어넣는 바람에 미카엘에게 물리는 상상을 했다. 정말 짐승인가... 게다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물어서 상처를 남기면 말이지...“옷 갈아 입혀주는 메이드한텐 뭐라고 해야되냐 바보.”베라는 똑똑하고 눈썰미가 좋다. 게다가 나를 끔찍이도 생각해 주므로 내가 어떤 미친 사람한테 물렸다는 걸 알면 바로 아빠나 엄마한테 보고를 할 것이다. 생각해 볼 수록 식은 땀이 난다. 와 사람한테 물린 걸 어떻게 둘러대나. 안 물어줘서 정말 고맙다 미카엘.미카엘은 웃음을 터트렸다.“그렇네. 너무 심한가? 정말 물었으면 난 금방 잡혀서 참수 당했겠어. 감히 공작가의 소녀를 피가 나도록 물다니.”낄낄 거리며 웃는다. 내용은 참 심란한 소재인데.나는 그저 ‘그래 그래 참 웃기기도 하다.’라고 대충 장단을 맞춰주었다.그러다 문뜩 요즘 들어 자주하는 생각을 말했다.“그래도 미카엘이 있어서 참 즐거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 참 충족되는 느낌이야.”거기서 그냥 죽어버리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난 요즘 내가 죽기직전 진심으로 소망했던 바가 이루어진것 같다. 그야말로 마음껏 사랑하고 있다.미카엘은 내 말을 듣고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씨익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내 말이 맞다는 듯 즐겁게 말했다.“맞아. ‘너를 좋아한다’고 인정함으로써 요즘 난 지루하지 않아. 지루하지 않다는 건 참 좋은 거야.”미카엘이 또 무덤덤하게 나를 좋아한다고 말해 주었다. 좋아한다는 말은 왜 이렇게 몇 번을 들어도 감동적인 걸까. 나는 어쩔줄 몰라하며 바보같이 ‘나도 네가 참 좋아 미카엘.’ 이라고 더듬더듬 말했다.미카엘은 내 그런 어설픈 답례에도 만족스러운 듯 활짝 웃어주었다.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도착해야했으므로 우리는 산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고 내려와야했다. 내려가는 길에 미카엘은 또 나에게 공주님처럼 안기기를 요구했고 나는 거절했다. 그러자 미카엘은 실수를 가장해서 내 스틱을 발로 차 산길에다가 굴려버렸고, 결국 나는 그 부끄러운 자세로 안겨서 내려가야 했다.집에 들어오는 길, 마당에서 휴리안 오빠와 마주쳤다. 휴리안 오빠도 오늘은 약속이 있었나보다. 내가 반가워서 팔짱을 끼면서 말했다.“야호! 이 멋진 뒤태는 우리 휴리안 오빠이신가?”오빠는 씨익 웃으며 돌아보았다.“이 깜찍한 목소리는 우리집 아가씨겠네.”오빠는 내가 잡은 쪽 팔을 꼬옥 여며서 단단히 했다. 마치 결혼을 한 신랑신부처럼 팔짱을 끼고 위풍당당하게 집으로 들어섰다. 내가 실실 웃으며 물었다.“근데 오늘은 오빠도 좀 늦었네?”휴리안이 옅게 웃으며 말했다.“응, 코우젠타양과 약속이 있었거든.”아차! 나는 오빠의 약혼녀인 코우젠타양의 이름을 듣자,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었다. 이젠 이렇게 맘대로 만지지 않기로 했었지 참.나는 어색하게 팔짱을 꼈던 팔을 슬쩍 뺐다. 휴리안에게 폐가 되지 않기로 마음먹어놓고서도 얼굴만 보면 이 모양이다. 정신차리자 라디.휴리안 오빠가 눈썹을 찡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어색하게 그의 눈을 피하며 우리를 마중 나오는 엄마에게 인사를 했다. 오빠가 슬픈 듯이 말했다.“그러지 좀 마. 라디.”내가 모르는 척 딴청을 부리며 말했다.“응? 뭐가?”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내 손을 잡아 다시 팔짱을 끼게 했다. 내가 곤란해져서 손을 뺐다.“나처럼 다 큰 레이디가 아무데서나 오빠한테 치근덕대서야 되겠어 오빠?”휴리안은 지긋이 나를 내려다 보며 말했다.“갑자기 이렇게 서먹하게 구는 게 어딨어?”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온 엄마는 신기하다는 듯이 우리를 지켜보다가 말했다.“어머, 별일이네. 지금 둘이 싸우는 거니?”나는 오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서 최대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웃으며 엄마한테 말했다.“내가 좀 정숙하게 레이디로서의 기량 좀 키우겠다는데 오빠가 자꾸 방해를 하네?”휴리안은 진지하게 날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다.“거짓말.”엄마는 놀라는 얼굴을 했다.“라디. 너 오빠를 화나게 만들었구나! 와 우리 오빠는 좀처럼 화내는 법이 없는데 말야.”엄마가 휴리안 오빠를 살피는 눈으로 올려다 보자, 오빠는 이내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에게 말을 건넸다.“어머니, 라디가 요즘에 ‘양녀’라는 위치에 대해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들었거든요.”엄마가 순식간에 얼굴이 심각해져서 나를 휙 쳐다보았다. 아... 오빠.... 이러기야? 엄마가 걱정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는데.휴리안은 과장되게 걱정스러워 죽겠다는 말투로 고개를 기울이며 말을 이어나갔다.“양녀가 진짜 피가 이어진 가족처럼 너무 친근하게 지내면 남들 보기에 안 좋다고...뭐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요즘따라 부쩍 신경쓰는 것 같아서 정말이지 가슴이 아파요.”나는 진지하게 염려스러운 표정을 짓는 엄마를 보고는 당황해서 변명했다.“아냐~! 아냐! 엄마!! 그냥 좀 얌전해지자고 마음먹었을 뿐이야!”엄마는 얼굴이 빨개지고 조금 흥분한 것 같은 말투로 빠르게 말했다.“넌 우리 가족이야 라디! 누가 뭐라고 해도! 한 치의 거짓 없이 넌 내 딸이야!”그리고는 나를 풀썩 안았다.이게 갑자기 무슨 전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하게도 그녀의 품이 무척 안심되었다. 정말은 누군가 확실히 이렇게 말해줬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주책맞게도 또 날 것만 같은 눈물을 겨우 참으며 부끄럽다는 듯이 말했다.“아이참. 엄마는 오버도...”엄마의 어깨 너머로 오빠가 보였다. 오빠가 내 반응을 분석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이건 이길 수가 없잖아.’라는 표정을 하자. 오빠가 한쪽 눈썹을 살짝 올렸다. ‘그만 얌전히 내 말을 듣지 그러니?’라는 얼굴을 했다.엄마가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더 힘주어 껴안은 다음 풀어줬다. 엄마가 아직도 불그스름한 얼굴로 말했다.“라디. 넌 안 그래도 너무 어른스러운 구석이 있어. 그냥 편하게 어리광 부리고 살아도 돼.”내가 헤헤 웃으며 말했다. 가슴한 구석에 뜨거운 난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무슨소리야 엄마. 내가 얼마나 어리광쟁이인데. 아주 휴리안 오빠한테 업혀 살았었던 거 기억안나?”휴리안 오빠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아직도 좀 뭔가 못마땅한 것 같은 모습이다.“그럼 계속 나한테 업혀서 살아도 문제 없잖아. 라디.”내가 ‘에이~’하고 살짝 핀잔을 주며 말했다.“오빠. 이젠 스틱만 있음 잘 걷기도 하고 말이야. 너무 큰 애가 어리광 피우는 건 보기 안 좋아.”내 말을 듣곤 엄마가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으면서 말했다.“아~ 너무 빨리 어른이 되진 말아주렴 라디.”휴리안은 싱긋 웃긴 했지만 그건 아니라는 듯 엄마에게 나긋 나긋하게 말했다.“어머님, 라디는 아직 어려요. 어른이라니요.”엄마는 휴리안의 얼굴을 돌아보며 말했다.“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오빠님. 지금 오빠 가리는 것만 봐도 모르겠니? 여자애들은 둔탱이 같은 사내들과는 다르게 금방 어른이 된단다.”음.... 내가 이제와 사춘기라서 오빠를 멀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가만히 웃으면서 듣고만 있었다. 오빠는 답지 않게 조금 당황해하는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어머니.. 그래도 라디는 이제 겨우 열한살인데요?”엄마는 우아하게 호호 웃으며 말했다.“나는 열 여섯에 너희들 아버지와 결혼 했잖니. 라디가 5년만 지나면 내가 결혼한 나이란다.”휴리안은 안도하는 듯한 모습으로 말했다.“그건 5년 후의 일이고요.”엄마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5년이 긴 세월같지?”미묘한 표정으로 엄마의 말을 듣고있는 휴리안에게 그녀는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목소리 내며 말했다.“게다가... 괜찮은 여자아이라면 똑똑한 남자들은 가만두지 않거든.”휴리안에게 속닥거리고 엄마의 등뒤에서 갑자기 아빠가 나와서 말을 끼어들었다.“그 똑똑한 남자가 나지.”엄마가 매우 질린다는 얼굴로 싹 바꾼 다음에 냉랭하게 아빠를 쳐다보며 말했다.“물론 똑똑한 남자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찔러보는 귀찮은 남자도 있단다.”아빠는 눈에 보이게 기가 죽은 표정을 했다. 매번 저렇게 크리티컬 히트를 받는 데도 끈질기게 엄마의 곁을 쫓아다닌다. 체력이 좋은가 보다. 그래요 힘내요 아빠.내가 우울해 보이는 아빠에게 키득거리며 인사를 건냈다.“아빠 오셨어요?”휴리안도 곁에서 깍듯하게 인사를 했다. 아빠는 다정하게 우리들의 인사를 받아줬다.“그래. 다녀왔단다. 그런데 확실히 너희들 엄마말대로 우리 귀여운 라디에게 마음이 있는 되바라진 남자아이가 있는 모양이지?”내가 뜬금없는 말에 놀라서 입을 벌리고 물었다.“네에?!?”엄마랑 휴리안 오빠도 그게 무슨 소리냐는 표정을 했다.아빠는 어깨를 으쓱하고선 말했다.“미카엘군하고 메디엘 왕자님 말야.”아. 난 또 뭐라고. 나는 맥이 빠져서 아빠한테 전혀 아니라는 말투로 말했다.“에이 아빠. 우리들은 그냥 친구에요.”그러나 엄마는 새삼 깊게 생각해 보는 말투로 말했다.“이런 말은 꽤 불경스럽지만 말이죠... 궁으로의 시집은 별로 라디에게 권하고 싶지 않은데...”너무 현실적이고 진지한 대답이라 나는 깜짝 놀랐다.“네?! 엄마? 설마 저랑 메디엘 왕자님의 결혼을 점쳐보고 계신거에요? 너무 김칫국 마시는 거 아녜요? 남들이 들으면 웃어요!”내가 당황해서 속사포처럼 내뱉었다.휴리안은 못마땅한 듯 다리를 엇짚고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너무 당황하는구나 라디.”내가 빨개져서 ‘그렇지만! 그렇지만....!’하며 뭐라고 해야할 지 몰라 말을 더듬고 있으려니까 이번엔 아빠가 신중하게 엄마에게 말을 했다.“그렇지만 당신. 저는 그 미카엘군도 마냥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엄마는 의아하다는 눈빛으로 아빠에게 물었다.“어머? 왜요? 라디를 엄청 좋아하는 눈치던데요. 게다가 요즘 같을 때 남을 목숨걸고 지켜주는 아이라니요. 저는 평민 출신인 걸 감안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나는 엄마의 말 중에서 맞는 사실은 반도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은 기분이 된다. 아니, 사실은 나를 좋아한다고 말해준 것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지만. 그나마 좋다고 말한 것도 절대 이성적인 감정은 아니다.나는 갑자기 내 신랑감을 점쳐보는 자리가 된 것이 민망하고 불편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되었다. 게다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 데 맘대로 말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본인들이 들을까봐 무섭다.아빠는 엄마의 말을 듣고 반론했다.“음... 물론 그건 맞는 얘기지만요. 남편감으로는 너무 석연찮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메디엘 왕자가 맘에 들어요. 왕궁이 힘든 구석이 있긴 하지만 메디엘 왕자는 제가보기에 아주 괜찮은 청년 같거든요. 뭐든 자신만만하고 기품있는 모습이 라디와 잘 어울릴 것 같아요.”‘끄악!!!!!’정말 창피해서 죽고 싶다. 하느님 부디 지금 이 이야기가 메디엘과 미카엘의 귀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게다가 어찌 저렇게 미카엘이나 메디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거지? 내가 참다가 결국 한마디 하고 만다.“아빠! 제가 왕자님 짝으로 가당키나 한가요? 지금 우리집은 전원 불경죄로 잡혀가게 생겼어요.”얼굴에 불이난 것처럼 벌게져서 외쳤더니, 아빠 엄마 휴리안 오빠까지 동시에 대흥분해서 대답했다.“아니, 네가 뭐가 빠져서?!”헛웃음이 나왔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건가 다들? 이게 콩깍지라는 건가 보다. 와 이런 오감을 왜곡할 정도의 초월적인 사랑을 받아보다니. 무척 기분좋긴 한데, 역시 나의 이성적 부분은 죄책감이 든다.내가 한손을 볼에 대고 볼을 식히며 조용히 킬킬 웃고있으려니 오빠가 부모님들께 말을 걸었다.“저는 두 사람 다 라디에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게다가 라디는 아직 어린데 너무 성급하게 생각해 보시는 거 아닌가요.”싱긋 웃으며 우아하게 디스를 걸었다.엄마는 우울하게 말했다.“아직도 라디가 어린걸 운운하니... 아아.. 하지만 그렇구나.. 라디가 좀만 있음 시집가 버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슬프구나.”그렇게 말하곤 엄마는 내 어깨를 뒤에서 살짝 감싸 안았다. 등에 엄마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다.아빠도 내 머리에 손을 얹고는 말했다.“음... 차라리 데릴사위가 나을지도 모르겠어요.”엄마가 그 말을 듣고는 처음에는 좋은생각이라고 좋아하시더니 이내 뾰로퉁하게 말했다.“하지만 데릴사위로는 괜찮은 사람 구하기 정말 힘들걸요?”아빠가 오빠를 돌아보면서 말했다.“아 우리 휴리안정도 되는 사람 없나.”그러자 엄마는 생각났다는 듯이 나에게 신이나서 권유했다.“라디! 그러지 말고 진짜 오빠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어떠니?”그렇게 말하곤 엄마랑 아빠는 하하하 웃었다. 그래서 당연히 농담인 줄 알고 따라서 하하 웃었더니 엄마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말했다.“물론 강요는 하지 않는단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지.”...앞에 말은 농담이 아니었나 보다.휴리안 오빠가 나를 미묘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이런 분위기는 버티기 힘들다. 부모님과 오빠는 내가 계속 서 있는 것이 힘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지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나는 스틱을 둘 자리를 찾는 다는 핑계로 오빠의 시선은 계속 못 알아챈 것처럼 연기할 수 있었다.이렇게 이야기가 한번 끊겼을 때, 얼른 주제를 바꿔야겠다고 재빨리 생각했다. 결혼 이야기라니! 나이를 생각할 때, 나보다야 휴리안 오빠가 훨씬 잘 어울리는 주제 아닌가?내가 나에게 맞춰진 초점을 바꾸기 위해 휴리안 오빠에게 말을 걸었다.“오, 오빠! 그런 얘기보다도 말야. 오늘도 코우젠타양을 만나고 온 거라고 했지? 어땠어?”엄마와 아빠는 다행히 내 말을 듣고 바로 휴리안 오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눈치였다.부모님은 오빠에게서 코우젠타양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어 하는 듯 한 얼굴을 했다. 엄마가 조심스런 얼굴로, 그러나 궁금하다는 말투로 물었다.“그래... 나도 휴리안이 오늘 코우젠타양과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듣고싶네...말해줄 수 있겠니? 물론, 말하기 싫다면 안 해도 되지만.”휴리안 오빠의 약혼은 코우젠타양 쪽에서 간청을 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제르다민은 말했었다.부모님은 아마 이 점을 신경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체면상 거절하기 힘든 요청이었다고 해도, 휴리안 오빠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내키지 않았던 일이었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휴리안은 약혼이야기가 때도 자신이 원하는 바는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상냥하게 웃음을 띠며 ‘그럼, 그렇게 하죠.’라고 말했을 테지.그래, 바로 지금 같은 표정을 지으며.“즐거운 티타임을 보냈어요. 어머니.”휴리안이 그저 그렇게만 담백하게 말했다. 등을 똑바로 세우고 자신의 어머니를 쳐다보며 온화하게 웃고 있지만, 나는 그 모습이 왠지 서먹하다.너무 막연한 그의 대답에 아빠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는지, 오빠에게 다시 물었다.“그래... 저번에 보니 코우젠타양은 참 아름답고 교양있어보이는 아가씨이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말이지 휴리안. ... 괜찮니?”아빠는 말끝을 흐렸다. 오빠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며 말을 잇는 모습이었다.오빠는 여전히 한치의 오차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싱긋 웃으며 반문했다.“괜찮다니요?”아빠는 진지한 얼굴로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기회에 제대로 이야기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코우젠타양과의 약혼은 언제든지 없던 일로 만들어도 좋다. 약혼이 없던일로 돌아가는 거야 빈번한 일이니, 네가 그쪽 집안 생각해준다고 참을 필요는 전혀 없어.”옆에서 엄마가 끄덕거리며 동의했다.“그래, 애초에 그런 약속이었는걸.”나는 오빠의 얼굴을 신중하게 관찰했다. 오빠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옅은 미소를 보낼 뿐이었다. 오빠는 찬찬히 입을 열었다.“하지만, 괜찮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코우젠타양은 흠잡을 데 없는 여성이니까요. 약혼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걸요.”나는 이 말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약혼을 하겠다는 말로 들었다. 아무리 인간관계에 서툰 나라도 이게 이상한 판단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사랑하는 나의 오빠는 아직도 병들어있다.내가 오빠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오빠, 그럼 코우젠타양 좋아해?”부모님도 신중히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오빠는 내 말을 듣고 아주 짧은 순간 나를 바라보며 슬픈 듯이 눈썹을 뉘였다. 그러나 바로 그 표정을 지우고 내가 해석 할 수 없는 예쁜 미소를 만들었다. 애매한 대답만을 했다.“글쎄?...”오빠는 조금 요령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데서 고집을 부린다. 어차피 흥미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다면, 그냥 약혼정도야 무르면 될 것을. 왜 그냥 해치워버리려고 하는 걸까. 왠지 분하다. 오빠는 꼭 행복해져야하는데. 그건 나에게 있어 사명과 같은 일인데...나는 이런 내 맘을 숨긴 채 오빠에게 말했다.“에이 그게 뭐야... 코우젠타양이 누군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오빠가 생각해보는 표정을 하며 말했다.“아. 그러고 보니 우리집에 언제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코우젠타양이?”오빠는 내 뜻밖이라는 소리를 듣고선 짧게 말했다.“응. 너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나를 향해 싱긋 웃으며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왠지 쓸쓸했다. 속에 있는 마음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준다.엄마는 흔쾌히 그녀의 방문요청을 허락했다.“언제든지 오셔도 된다고 전하렴.”휴리안은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부모님은 더 이상 휴리안에게 코우젠타양에 관한일을 묻지 않았다. 휴리안은 여태까지 무슨 일이던 싫은 일이 없었고, 원하는 일도 없었던 것이다. 그 사실은 나보다도 오빠와 훨씬 오래산 부모님이 더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 후 잡담을 좀 나누다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오빠에게서 코우젠타양이 우리 집을 방문하고 싶어한다는 소리를 듣고선, 금방 내일이라도 그녀를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며칠 째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나는 평소와 다름 없이 행복한 일상을 즐길 뿐이었다. 물론 소소한 트러블들은 끊이지 않았지만.오늘은 왕자님도 미카엘도 다른 스케줄이 있다기에 나는 안나와 마법 실습 연습을 하기로 약속을 해 놓았었다. 나는 아직도 실습 부분에서 나아진 점이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았고, 그에 따라 여전히 실습은 죽을 만큼 싫다.그러나 안나가 연습을 도와준다고 한다면야 그 정도는 꾹 참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안나는 나의 일을 자신의 일인 것처럼 걱정해주고, 도와주려고 했다. 정말이지 천사같은 여자아이이다.나는 수업이 끝나고, 약속했던 연습을 위해 수련장으로 안나와 걸어가며 우정의 만복감에 히죽댔다. 안나는 나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지만 나에게 익숙해져서 피식 웃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서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 책으로만 접했었던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친구라니! 나는 감격스러워서 당장이라도 안나를 껴안고 싶은 기분이 된다. 사실 이미 여러번 참지 못하고 껴안아 봤었지만.수련장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불쑥 옆에서 누군가 튀어나와 내 앞을 막았다. 붉은색 머리카락이 눈에 선명히 박히는 소년이다.내가 반갑기도 하고 조금 놀랍기도 해서 인사했다.“안녕 미카엘? 오늘은 다른 일 있어서 바쁜거 아녔어?”그가 눈을 예쁘게 접으며 기쁜듯이 웃었다.“어 원래는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시간이 나게 됐어. 나랑 나가자 라디.”으익 이렇게 갑자기 나가자고 하면 어떡해. 물론 권유해 준건 고맙지만 말야.내가 안나의 팔짱을 끼고선 미카엘에게 말했다.“미카엘, 오늘은 벌써 이 이쁜 아가씨랑 선약이 있어.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해준 건 정말 고마워. 그치만 같이는 못가”안나는 미카엘을 보며 머쓱하게 하하 웃었다. ‘안나가 미카엘을 어려워 할 필요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안나를 보다가 미카엘의 얼굴을 보았다. 그제서야 안나가 미카엘을 어색하게 대하는 이유를 알았다.내가 기가 막혀서 그에게 말했다.“미카엘. 왜 그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보고 난리야.”그가 무슨 소리냐는 듯이 반문했다.“내가?”입꼬리를 사악 올렸지만, 여전히 먹이를 노리는 듯한 야수의 눈이다. 미카엘을 한 두 번 본것도 아니고... 저건 분명히 악의적인 눈이다. 내가 그에게 무덤덤하게 말했다.“안나한테 못된 짓하면 절대 용서 못해.”미카엘이 그제서야 미간을 찡그리며 정말로 모르겠다는 듯이 물었다.“어? ‘절대 용서 못할 정도’야?”진심으로 무슨 짓을 하려고 했나 보지? 안나도 움찔했다. 이 녀석 이 사랑스러운 여자아이한테 무슨생각이야.내가 타이르는 말투로 말했다.“미카엘....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안 되지. 애초에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렇게 대뜸 ‘나가자!’하면 어떡해. 나도 내 약속이 있잖아.”미카엘은 사고 방식이 미묘하게 남들과 다른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야지 알아듣는 것 뿐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의 기이한 행동과 발언에 그다지 화는 나지 않는다. 좀 당황스러운 경우는 많지만.미카엘은 더욱 억울하다는 듯이 투덜댔다.“그치만 라디. 그럼 지금 너는 나랑 보내는 시간보다 저 안나랑 보내는 시간이 더 가치있다는 거야?”...내 방금 설명은 안 들렸니.나는 다시 끈기있게 설명했다.“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방금 나에게도 다른 약속이 있을 수 있으니 마냥 너 내키는 대로 시간을 낼 수는 없다고 했잖아.”미카엘은 다시 불만스럽게 말했다.“그게 그거잖아? 만약 네가 나와 보내는 시간을 다른 사람과 보내는 시간보다 더 값어치 있게 느낀다면 아무리 사전에 다른 약속이 있었어도 나를 따라 나섰겠지.”이런 난폭하고도 일차원 적이 발상이라니.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니 당장 뭐라고 설명해야할까 고민이 돼서 나는 잠시 말문이 닫혔다. 내 모습을 보고 미카엘은 자신의 말에 대한 긍정이라고 생각했는지 더 흥분해서 말했다.“네가 나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히 여겼다면, 언제든지 나와 만나주었을 거잖아.”나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침착하게 말했다.“물론 나는 너를 소중히 여겨.”그 말을 듣고 미카엘은 내 말을 들을 맘이 생겼는지 잠자코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이어 말했다.“그렇지만 안나도 무척 소중하니까 안나와의 약속을 하찮게 여길 수는 없는 거야. 게다가 안나 뿐만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가볍게 여겨선 안 돼 미카엘.”미카엘은 아까처럼 흥분하진 않았지만 슬픈 듯이 말했다.“하지만 남들과 비슷한 정도의 ‘소중함’은 그다지 소중하지 않다는 말로 들려.”나는 갑자기 약해진 듯한 그의 모습을 보니 나도 덩달아 맘이 약해질 것만 같았다.‘윽 안돼. 미카엘을 위해서도, 마냥 그의 페이스에 끌려가면 안 돼는 거야.’미카엘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찬찬히 입을 뗐다.“내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과 네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가 다른 것 같다는 건 꽤나 쓸쓸한 기분이 들게 만드는구나.”그가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담담하게 말했다.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야!나는 당황해서 미카엘에게 외쳤다.“바보야!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를 네가 어떻게 알아!”미카엘은 나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사실은 모르지. 마음의 크기 따위. 아무튼간 그저 나는 지금 그렇게 느꼈다는 것 뿐이야.”안나가 우리 둘의 분위기가 심각하게 갈 것 같으니까 내 팔짱을 살짝 풀어내며 말했다.“라디, 오늘은 내가 그냥 양보해도 돼.”살짝 웃으며 나와 미카엘을 번갈아 보는 모습에서 나를 얼마나 신경써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미카엘은 그 소리를 듣고 씨익 웃었지만, 내가 당황해서 다시 안나를 꼭 잡으며 외쳤다.“안나! 그럴 필요 없어!”미카엘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듯 나에게 물었다.“아니, 자기가 알아서 가겠다는 데 왜 굳이 막아?”“지금 안나가 알아서 가겠다는 거냐. 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거지.”내가 질린 듯이 말하자 미카엘은 뾰로퉁하게 투덜댔다.“내가 그 양보 감사하게 받겠다는데 왜 네가 막고 난리야.”크윽 이 고집쟁이! 나는 한손으로 눈을 가리고 고개를 하늘로 향하며 나의 비탄을 온몸으로 표출했다. 내 모습이 웃겼는지 미카엘은 속편하게 옆에서 키득댔다. 나는 안나의 손을 잡고 미카엘을 지나쳐 수련장으로 들어가며 미카엘에게 말했다.“ 바보야! 네가 그렇게 억지를 쓰는 걸 일일이 받아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오랫동안 볼 수 있겠어! 나도 너랑 평생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가슴 아프지만 이정도의 맺고 끊기는 지켜야 하는 거야.”나는 미카엘이 또 고집을 부릴 걸 예상하고 있었지만 의외로 미카엘은 간단하게 납득하는 것 같았다. 뭐지? 여태까지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처럼 굴더니?미카엘이 티끌없는 순진한 웃음을 지었다. 그가 끄덕거리면서 말했다.“아아~그렇군. 하긴 잠깐 보고 말 사이가 아닌 거구나. 그렇지? 평생을 함께하려면.... 규칙정도는 지켜야 하는거야.”평생을 함께한다는 건 보통 결혼할 때 쓰는 말이라 조금 어색한 어감이긴 했지만 나는 그가 드디어 이해해 준 것이 기뻐서 활짝 웃을 수 있었다.“그래! 바로 그거야! 드디어 알아준 거구나 미카엘.”미카엘은 내가 기뻐하자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응! 그러니까 오늘은 너를 데려가는 건 단념하고 그냥 얌전히 너네 둘이 연습하는 걸 구경할게.”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구나 미카엘.나는 조금 맥이 풀렸다. 아니... 나와 안나의 약속에 끼어들면 어쩌자는 이야기?조금 꺼림칙한 면이 있었지만 여기서 더 미카엘을 구슬릴 자신이 없어서 나는 미안하다는 얼굴로 안나를 바라보았다. 안나는 키득 웃으며 말해주었다.“난 완전히 괜찮아 라디.”아! 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이라니!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안나를 꼬옥 안아 버렸다. 조그맣고 마른 안나는 작은 편인 나에게도 쏙 안겼다. 내가 격렬하게 외쳤다.“안나! 넌 진짜 내 분에 넘치는 것 같아!”내 말을 듣고선 안나는 또 발그레하게 뺨을 붉히곤 ‘아이참, 또 이렇게 이해못할 말을...’이라고 중얼거렸지만 얌전히 내 포옹을 받았다. 미카엘은 그런 우리 둘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더니 무미건조하게 말했다.“방금 이해 했던거 다시 모르게 될 것만 같아. 일단 너희들을 떼어놓고만 싶어.”나는 그 말을 못들은 척 수련장으로 들어섰다. 미카엘도 조용히 들어와 문 바로 옆에 털썩 앉았다. 내가 ‘거기에 그냥 그렇게 있게?’라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응 얌전히 있어줄게.’라는 의미로 눈썹을 올리며 입을 양쪽으로 살짝 올려 웃었다. 이렇게 보면 그냥 순한 양인 것 같다.그는 정말 우리가 연습할 동안엔 전혀 끼어들 생각이 없는 모양인지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기만 했다. 나는 연습 초반엔 미카엘에게 내 엉망인 실습을 보여주는 게 처음이라 긴장되어서 어색하게 굴었다. 하지만 그가 워낙 기척이 없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미카엘을 까먹고 평소대로 연습에 집중할 수 있었다. 여기서 ‘평소대로 연습’이란 말은 평소대로 깽판을 칠 수 있었다는 말이다.손바닥에 물방울을 모으는 연습을 하는 거였는데 내가 하면 분화하는 화산처럼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곤 했다. 내가 막 세 번째로 내가 만든 수압에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을 때 수련장의 문이 열렸다. 나는 미카엘이 기다리다 지루해서 나가려고 한 줄 알았다. 하지만 문은 바깥에서 열어젖힌 것 이었고, 문을 연 인물은 징글맞게도 파르펠과 케일이었다.분명 문 옆에는 미카엘이 방금까지 앉아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나가있나? 아무튼 나는 미카엘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파르펠에게 마지못해 인사를 건넸다.“어머나 이렇게 오붓하게 얼굴을 맞대는 것은 또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파르펠양 그리고 케일군.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파르펠은 아둔한 것을 보는 것처럼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어머, 수련장엔 당연히 수련을 하러 오는 거지요. 아님, 마법 클래스가 아닌 사람은 수련장을 쓰지 마라, 뭐 이런 소린가요?”아 다른 수련장도 많은데 왜 굳이 여기로 오고 난리야. 이건 분명히 시비를 걸으려는 수작이다. 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아뇨? 그럴리가요. 편하게 쓰시지요.”자리를 옮길까?하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내가 이들에게 양보를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싫었다. 안나와 나는 그들을 무시하려고 등을 돌린 채 다시 마법에 집중했다.케일과 파르펠은 정말 검술이라도 연습하려는 것처럼 목검을 꺼내 몸을 푸는 듯 했다.안나가 솟구치는 물방울을 주체못하고 손을 버둥거리는 나에게 어드바이스 할 때였다.“라디, 두 손을 뗀다고 물이 안 나오는 게 아냐, 꺅!!!”등 뒤로 케일이 거칠게 부딪혀 왔다. 나와 안나는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찧으며 넘어졌다. 사실 나는 넘어졌다는 표현은 너무 점잖을 정도로 나동그라졌다. 중심을 잘 못잡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물로 연습을 하고 있던 와중이므로 바닥은 젖은 상태여서 매우 기분이 나빴다. 교복이 젖어 엉망이 되었다. 케일은 우리를 보며 미안한척 하며 사과했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파르펠양의 검술 실력이 상당해서 피하다가 그만.”말은 그럴 듯 했지만 실실 웃으며 내려다보는 그 표정이 매우 가증스러웠다.내가 화가 나서 항의를 하려고 입을 떼는데, 순간 케일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옆으로 넘어졌다. 언제 왔는지 미카엘이 케일의 옆구리를 발로 차 밀어 넘어트려버린 것이다. 파르펠이 요란하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놀라서 입만 뻐끔 거릴 수 밖에 없었다.미카엘이 얼마나 힘껏 차버렸는지 케일은 체면도 불구하고 헛구역질 까지 했다. 그러나 미카엘은 별일 아닌 실수를 했다는 듯이 예쁘게 웃으며 사과했다.“이런, 죄송합니다. 기분이 나빠져서 말이에요.”아마 케일의 말을 흉내내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럴꺼면 그럴싸하게 이유라도 붙이던가. ‘기분이 나빠져서’는 뭐야...나는 또 조금 현실도피를 하고 싶어져서 멍하니 속으로 미카엘의 말투를 트집 잡았다.그는 마치 케일이 만지기 싫은 구더기라도 되는 양,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였다. 허리를 바르게 피고 상냥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어서 껄렁해 보이지는 않고 가볍게 산책이라도 하는 것 같은 자세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예의바르게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었지만.나는 여전히 말이 잘 안나오는 상태여서, 어물 어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주저앉은 채로 손을 뻗어 미카엘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미카엘은 나에게는 시선을 주지 않고 넘어져 있는 케일에게로 뚜벅 뚜벅 여유 있게 가버렸다.미카엘은 여전히 입꼬리를 보기 좋게 올린 상태였다. 누가봐도 남에게 친절한 착한 소년같아 보이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케일의 곁으로 다가가서 찬찬히 다리를 들어 구둣발로 그의 어깨를 밀어 다시 뒤로 넘어트리고는 그 발을 떼어서 이번에는 케일의 목을 지근지근 밟기 시작하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형상으로 보였다. 케일이 밉살맞긴 하지만 자신보다 한참 어린 소년을 용서 없이 벌하는 것이 그답다면 그 다웠다. 미카엘은 그 모든 행동을 마치 느긋한 아침을 먹는 것처럼 태평하게 해치웠는데도, 가엾은 케일은 제대로 된 저항하나 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구두를 치워보려고 꺽꺽거리며 발버둥 칠뿐이었다.미카엘은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뻐끔거리는 케일을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여전히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였다. 그가 중얼거렸다.“이 하등 쓰레기같은 벌레가.”다시 한번 발에 힘을 주는 것 같았다. 케일이 고통스러운지 신음소리를 냈다.‘이러다 정말 죽겠어!’나는 비틀 비틀 일어나 미카엘을 말리러 다가갔다. 스틱을 주울 여유가 없었기에 다리를 심하게 저는 상황이라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는 틈에 파르펠이 하얗게 질려 미카엘을 케일 위에서 밀어내려고 그의 팔에 손을 댔다. 눈물이 고인 얼굴로 바들바들 떨면서 말했다.“그, 그만두세요! 이게 무슨 야, 야만적인!!”미카엘이 웃음을 지우고 파르펠을 역겹다는 듯이 흘끗 보고는 낮게 읊조렸다.“함부로 손대지마.”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한 손을 빼 그녀를 매섭게 밀쳐버렸다. 봐주면서 밀쳐낸게 아니라서 파르펠은 마치 종이를 꾸긴 뭉치처럼 바닥에 내팽겨쳐졌다. 그녀의 가냘픈 비명이 이 방에 찼다.나는 그제서야 놀라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그, 그만둬! 미쳤어? 미카엘?”미카엘은 내 외침에 나를 슬쩍 돌아보더니 불만스럽게 ‘또 뭐가?’라는 표정을 했다.나는 그를 떼어 놓으려고 다리를 절으며 한 발짝 다가섰다. 물에 젖은 스커트 자락이 불쾌하게 다리에 엉겨붙었다. 그 모습을 보고나서야 미카엘은 케일에게서 떨어져 나에게 다가왔다. 나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말했다.“가여운 몰골이구나 라디.”그렇게 중얼거리며 주머니를 잠깐 뒤척거리다가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다.“미안, 천한 출신이라 손수건 같이 우아한 건 챙길 생각을 못했어.”그러면서 자신의 와이셔츠 소매로 내 얼굴을 살짝 닦아주곤 앞머리를 정돈해 주었다. 방금까지 나와 동갑인 어린 아이의 목을 구둣발로 사정없이 밟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나의 사고가 눈앞의 사건을 따라잡지 못해서 그의 그 묘한 색의 눈동자를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다.‘아 어쩌지. 어쩌면 좋아.’치밀어 오르는 초조함에 패닉을 일으킬 것만 같다. 너무 위험한 일을 저지른거 아냐? 미카엘...“미,미카엘. 파르펠은 공작가 아가씨라고...공작가의 아가씨에게 손찌검을 하다니...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랬어.”나는 떨리는 양손을 올려 내 머리 정돈을 해 주던 그의 손을 꼭 붙잡았다. 파르펠네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분명 엄청나게 화를 낼텐데... 큰일이다. 평민출신에다가 귀족 쪽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카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파르펠네 부모 정도면 미카엘을 감옥에 넣겠다고 맘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지 않은가.나는 다시 감옥에 끌려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상상하고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버려 조금 현기증마저 났다. 미카엘의 얼굴을 다급하게 눈으로 쫓으며 말했다.“네가 끌려가기라도 한다면... 나는... 나는...”눈물이 날것만 같다. 미카엘이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와 주었는데, 이런 시시한 싸움 때문에 그가 난처해지다니.미카엘은 내가 두려움에 차서 말을 하자 진지한 얼굴로 내 얘기를 듣는 듯 했는데, 내 말을 다 듣자 만족감에 푹 젖은 듯한 행복한 미소를 보였다. 나는 미카엘이 아직도 상황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급한 맘에 그에게 큰소리를 내었다.“뭐가 좋아서 실실 웃는거야 미카엘! 아... 어떡하지.. 무마 하려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사과라도 해야하나....”초조한 것이 더욱 심해져서 나는 나도 모르게 잡고 있던 그의 손에 꾹 힘을 주었다.미카엘은 내가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걸 빤히 보면서도 태평하게 방긋 웃고만 있었다. 기가 막혀서 미간을 좁힌 채 그를 뚫어져라 보았다. 제정신인가?내 못마땅한 시선을 만끽하던 그가 입을 열었다.“나 걱정하는 거야?”어이가 없어서 울 것만 같다. 겨우 하는 소리가 그거냐!“그래!!!”내가 빽하고 소리쳤다. 만족하냐. 그럼 이제 네 앞날에 대해 같이 걱정하자.미카엘은 내 원망 섞인 대답을 듣고서는 행복하다는 듯 활짝 웃었다.“난 또, 저 여자애랑 남자애를 걱정해서 말리는 줄 알았지.”느긋하게 중얼거리며 내가 잡고 있지 않은 손을 들어 내 볼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다.마치 다른 세상을 사는 듯하다. 그 여유로움에 드디어 난 걱정이고 뭐고 화가 치밀어서 잡고있던 그의 손을 내치며 말했다.“그래! 참 좋으시겠어! 이번 기회에 감옥이라도 들어가시면 내가 해 주는 ‘걱정’ 평생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치?”왜 본인조차 내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매정하게 외치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울먹거리는 소리가 나와 버렸다. 미카엘은 하하하 청량하게 웃어댔다. 진심으로 이 상황이 웃긴가 보다.“네가 해주는 동정은 꽤 기분이 좋다고 내가 그랬었지? 네가 해주는 걱정도 상당히 나를 기분 좋게 해 주네.”이제 대꾸할 가치도 못 느끼겠다. 나는 인상을 찡그린 채 그를 묵묵히 바라보만 있었다.그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한동안 응시하더니 나를 달래줄 마음이 생겼는지 달콤한 목소리를 내었다.“걱정 마 라디. 나한테 별 피해는 없을 거야.”“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내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중얼거리자 그가 손가락으로 내 턱을 살짝 밀어 올려 자신을 바라보게 했다.장난기 가득하게 웃어보인 다음, 내 귓가로 입을 가져다 대고 살짝 말했다.“생각해 봐 라디... 나는 최정상 암살자로 있던 몸이잖아? 대단한 귀족님들은 대부분 나랑 더러운 거래를 했었지.”그렇게 말하고선 뒤로 쑥 물러나 과시하는 듯하게 허리를 쭉 펴고 씨익 웃었다. 나는 이해가 갈듯 가지 않을 듯 조금 모호한 기분이라 그에게 되물었다.“네 말은... 그분들은 그 거래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을 거다?”미카엘은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까딱했다. 나는 뒤에서 케일을 챙기고 있는 파르펠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표정으로 말했다. ‘쟤네 아빠도 너와?’ 미카엘은 키득 웃으며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대답했다. ‘물론.’나는 안도감에 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내뱉었다. 그는 손으로 내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으며 말했다.“뭐 나와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높으신 분들이어도, 그분들이 세상에 알리기 싫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지 나는.”기분이 좋은 지 말을 끝내고 나서는 짧게 휘파람도 불었다. 나는 괜히 혼자서 끙끙앓은 것 같아서 분하기도 했지만, 사실 여전히 그가 걱정스러웠다.“그래도 너무 까부는 건 좋지 않아 미카엘. 눈에 띄게 거슬리게 되면 너를 없애야 겠다고 마음먹을 수도 있잖아.”그는 조금 뜸을 들이며 나를 바라보더니 대답은 바로 않고 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젖힌 다음 황홀한 것처럼 작게 말했다.“역시 네가 날 걱정하는 건 참 마음에 들어. 맨날 내 생각만 해줬으면 좋겠다.”순도 높은 그의 속마음에 왠지 모르게 나는 살짝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버렸다. 여태까지 애정이란 것에 노출이 없었던 탓일까 별거 아닌 일에 과하게 감격스러워 하는 그는 역시 조금 가엽다.한동안 그렇게 천장만 바라보던 미카엘은 그 상태로 고개를 기울여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걱정마 라디. 내가 일을 화려하게 해치울 때는 별로 없으니까.”“그래 조심해.”‘정말로 평소에는 눈에 안 띄게 있는 걸까.’내가 겪어본 그를 생각하면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일단 그렇게 일단락 짓기로 했다. 조금 안심이 되니까 옆에 서 있던 안나의 치마 뒷자락 먼지가 눈에 띄었다. 안나는 나랑 미카엘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다.‘에휴 오늘도 안나한테 안 좋은 꼴만 보였네.’그렇게 생각하며 그녀의 치마를 털어주었다. 안나는 그냥 싱긋 웃으며 고맙다고 할 뿐이다. 아 유일한 마음의 안정제 안나. 나도 마주보고 웃어보였다.모처럼 내가 다시 안정을 찾았건만 다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아 깜박 잊고 있었네. 맞아 애초에 쟤 때문이었지.“라디양, 미카엘 공은 라디양 친구 답게 난폭하고 폭력적이기 짝이 없네요!”소리난 쪽을 쳐다보니 파르펠이 케일을 추스렸는지 둘 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 서 있었다. 보아하니 정신을 차린 파르펠이 이대로 물러나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그래봤자 위풍당당하고 사납게 톡 쏘아 놓고서는 미카엘이 스윽 뒤돌아보자 둘 다 움찔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특히 케일은 눈에 공포가 가득 서려있었다.파르펠은 그러나 지지 않고 날카롭게 외쳤다.“어서 케일과 저에게 사과하세요!”그 용기가 존경스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머릿속으로 지금 여기서 사과를 했을 때의 이득을 재빨리 계산해 보았다.‘아무리 미카엘은 괜찮다고 했어도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을 것이다. 저 자존심상 여기서 그냥 사과하면 나중에 딴말은 안 할테지... 그냥 적당히 굽히고 들어가면 미카엘 문제는 다시 들먹거리기 어려워 질 테니까 좀 얕보여도 그냥 사과하는 게 낫겠다...그래 자존심 따위, 저 11살난 애한테 애써 지키려고 하는 게 더 우습지.’나는 작게 한숨을 내 쉰 뒤 내가 먼저 사과를 한 후에 미카엘한테도 시킬 생각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나 미카엘이 먼저 끼어들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설마 지금 진짜 사과하게?”“응.”나는 거리낌 없이 말했다. 지금 자존심 따질 때냐. 쉽게 풀 수 있으면 네가 트러블이 안 생기는 게 중요하지.그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너나 나나 뭘 잘못했는데 네가 사과를 해?”여태까지 잠자코 있던 안나가 얌전하게 맞장구 쳤다.“사실 나도 라디, 네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 물론 미카엘 공은 조금 뭐랄까 지나치신 면이 있으셨지만.”미카엘의 행동에 대해서 말할 땐 미카엘을 힐끔 쳐다보며 말끝을 흐렸다. 오늘 그의 살벌한 모습을 봐서 더욱 무서워 진 것 같다.‘물론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건 당연히 나도 알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제가 진짜 사과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구요...’게으른 어른은 그냥 싸게 먹히는 쪽으로 대충 이 일을 정리하고 싶다.내가 파르펠에게 들리게끔 크고 느릿하게 말했다.“뭐, 그래도 여자아이를 때리거나 너보다 훨씬 어린 아이를 때린 건 맞으니까 말이야... 친구니까 같이 사과해 줄게 미카엘.”그리고선 미카엘에게만 들리게끔 작게 속삭였다. ‘대충 사과하고 넘어가자고.’그러나 미카엘이 정말 모르겠다는 눈치로 물었다.“음? 그게 뭐?”“아? 뭐가? 설마 지금 여자를 때리거나 어린애를 때리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묻는거야?”“아니... 나도 그게 세간의 윤리적 상식으로 보기 안 좋다는 건 알고있지만...”“어. 잘 알고 있네.”그래 그 정도는 알고 있구나 미카엘. 이 누나는 한시름 놓았다.미카엘이 케일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다시 입을 열었다.“쟤가 먼저 여자인 너네를 바닥에 내팽겨쳤잖아?”“허어... 그래서 너도 때려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16이 아니라 15살 먹으신 미카엘군은 그래서 쬐끄만 케일군을 구둣발로 잘근 잘근 밟으셨어요?”내 말이 들렸는지 케일이 발끈하는게 눈에 보였지만 무시했다.“그야. 너도 내가 보기엔 쬐끄맣고 벌레처럼 약해보이는데 그렇게 세게 밀어 넘어트렸잖아. 그러다 죽기라도 하면 어떡해.”나를 벌레취급한건 그렇다 치고 넘어가더라도 그는 정말로 내가 죽을까봐 염려스럽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의 진심이 느껴져서 나는 차마 나를 그렇게 기가막히게 약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빈정거리지 못했다.“음 네가 생각하는 것 처럼 나는 그렇게 쉽게 죽진 않아. 게다가 여자를 때리거나 애를 때리는 건 말이지 딱히 세간 상식때문이 아니더라도 네 가치가 떨어져 보이니까 이렇게 뻥 뚫린데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주 싸구려 양아치처럼 보이기 십상이거든.”미카엘은 고개를 끄덕거렸다.“과연... 저 케일이라는 애가 믿는 구석이 저 파르펠이랑 힘밖에 없는 멍청이로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나 봐.”“그래 그래 거봐. 여자 때리는 남자는 엄청 없어보이지?”“응”저 멀리서 케일이 또 발끈하는게 보였다.우리가 신나서 케일을 비꼬고 있는데, 여태까지 잠자코 얌전히 듣기만 하던 안나가 조심스럽게 우리의 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저기.. 라디. 뻥 뚫린데건 아닌데건 진짜 신사분은 여성이나 아이를 때리면 안되지 않을까?”아차. 안나 앞에서 너무 솔직하게 미카엘에게 세상사는 법을 가르쳤나 보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미안 안나. 얘를 사람 안보는 데서까지 컨트롤할 수 있을 자신감이 없어.파르펠은 사과를 기다리다 지쳐 다시 짜증을 버럭 냈다.“뭐에요! 사과하는 기색이어서 기다려 줬더니! 지금 장난해요?”미카엘은 싫다는 듯 한숨을 쉬고는 안나말이 안 들리는 것처럼 나한테 말했다.“아 나도 귀찮은 건 싫어서 대충 정리하는 타입이긴 한데... 쟤한테 사과하느니 그냥 쟤네 아빠랑 깊은 대화를 나눌래. 너한테 일일이 시비거는게 처음부터 맘에 안 들었거든.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저 주제도 모르고 까부는 계집애한테 사과를 할 수는 없어.”“흠.. 네가 그렇게 까지 말한다면야... 벌이라던가 괴롭힘 안 당할 수 있는 거 확실해? 안 위험해?”“물론.”미카엘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답했다.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나는 빠른 태세전환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파르펠을 향해서 외쳤다.“아~ 파르펠양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테요. 그냥 사과안하기로 했어요. 이제 가셔도 돼요.”파르펠의 얼굴이 분에 받쳐 새빨갛게 물들었다.“뭐라고요!!”내가 무덤덤히 말했다.“가셔도 된다고요.”"사과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파르펠이 발을 쾅하고 내리치며 말했다. 그녀는 사납기가 혼자 키워진 치와와 같다."음.. 그쪽도 우리한테 부딪힌거 제대로 사과 안했잖아요?"파르펠이 미카엘한테 손댈 수 없다는 걸 안 이상 나는 될수 있는한 그녀를 약올리기로한다."우리는 실수로 부딪힌 거고요! 그쪽의 미카엘공은 아예 작정을 하고 때렸잖아요!""어? 미카엘도 실수로 그런건데? 그치?"내가 어깨를 으쓱하며 미카엘을 바라보니까 미카엘도 나를 바라보며 시침 떼는 표정으로 대답했다."어. 실수로 열받아서.""이것 봐요. 얘도 실수로 발로 차고 실수로 넘어트려서 실수로 목숨을 위협했다잖아요."내가 키득대면서 놀렸다.파르펠은 이제 얼굴이 거의 파래지다시피했다."미카엘공... 저희 가문이 무섭지도 않은가 보죠?"미카엘이 무표정하게 관심없다는 듯이 말했다."뭐.. 별로?"파르펠은 조금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약이 올라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비웃으며 말했다."아. 그리고 맨날 우리가문 우리가문. 가문타령좀 하지마요. 남들이 파르펠양만 공작가인줄 알겠네. 잊으셨나본데 저도 프랑디아 공작가거든요?"미카엘이 씨익 웃으면서 나한테 하이파이브를 요청해 왔다. 우리는 짝! 하고 좋은 소리를 내며 손뼉을 마주 쳤다. 미카엘이 장난기 가득하게 말했다."아싸 이분 공녀님이셨네. 공녀님 제 뒤좀 봐 주세요."이번에 안나도 나에게 손벽을 갖다대며 말했다."어머! 저도요."안나와도 딱 맞게 손벽을 마주 쳤다. 내가 이 상황이 너무 웃겨서 키득거리면서 말했다."당연하죠! 운도 좋으시지 사실 프랑디아라는 이름이 꽤 잘먹히거든요. 안그래도 아버지가 어디서 꿀리지 말고 까불고 다니랬는데 잘됐다."‘쾅’ 하고 또한번 파르펠이 치미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발을 구른 소리가 수련관을 울렸다. 미카엘이 나를 훌쩍 안아들고 내 스틱을 주운 다음 안나와 함께 수련장을 빠져 나왔다. 나는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파르펠 속을 뒤집어 놓는 걸 잊지 않았다."다음번엔 미카엘에게 실수로 맞지 마세요~ 두분.”미카엘과 안나가 키득거렸다. 문이 닫히는 사이로 파르펠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보였다. 케일은 옆에서 그녀를 진정시켜보려고 허둥대고 있었다.안나가 즐거운 듯이 중얼거렸다.“아... 이러면 안 되는데 파르펠이 남을 왜 괴롭히는 지 알 것 같은 기분이야.”“하하 그러게.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다지 걔한테 해코지 한건 없어.”내가 안나의 말에 대꾸한 후, 미카엘을 지긋이 바라보며 다시 입을 뗐다.“얘만 신나게 난동을 부렸지.”미카엘이 자기는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로 순진한 척을 했다.“어? 내가? 언제? 설마~”너스레떠는게 제법 늘었는데? 어디서 배워온거지... 나는 그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말했다.“근데 왜 갑자기 안아줬어? 내려줘도 돼. 나 이제 제법 잘 걷잖아.”“음... 멋지게 퇴장해야하는데 지팡이 짚고 걷는 건 폼이 안나잖아?”“하긴. 생각해 보니 그런거 같기도 하네. 고마워. 어쨌든 이제 내려줘.”수련장을 나왔을 뿐 아직 학교 안인데, 이렇게 안겨있으면서 시선을 끌기는 싫다.미카엘은 잠깐 생각해 보는 듯 하더니 고개를 살짝 가로저으며 말했다.“싫어.”엥? 이건 또 무슨 고집이야.“왜 그래 왜 갑자기 심술이래.”내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토닥거리며 무심히 물었다. 내려달라. 안그래도 교복이 젖어 창피하다. 안나는 이제 그의 이상한 변덕에는 익숙해 졌다는 듯이 하하 하고 조그맣게 웃었다.내려달라는 요청을 끈질기게 하고 발버둥도 쳐 보았지만 미카엘은 내려줄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아서 나는 결국 안긴채로 안나에게 작별인사를 했다.“이런 별거 아닌 일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안나... 내일 또 보자!”안나는 키득 거리며 말했다.“아냐 아냐. 미카엘 공... 조금 무섭긴 했지만 덕분에 재밌는 걸 구경했으니까.”안나는 미카엘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인 후에 나에게 손을 흔들곤 ‘내일 또 봐.’라고 짧게 말하고 멀어져 갔다.안나가 가버렸는데도 날 내려주지않고 미카엘은 멀뚱이 서서 나를 꼭 껴안아 들고 있다. 마치 곰인형을 선물받은 소녀같은 포즈로.내가 '도대체 뭔데?' 표정으로 빤히 바라보니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사실, 네가 아직 잘 못 걸을 때 그 왕자님이나 너희 오빠가 너 안아서 옮겨줬던 거 있잖아. 그거 부러웠었어...생각보다도 너는 조그맣고 껴안으면 기분이 좋구나.”그가 베시시 웃었다. 나는 생각지도 못한 그의 대답에 웃음이 나 버렸다. 그는 가끔 기습적으로 모성애를 자극한다. 나도 모르게 나는 자발적으로 그를 꼬옥 안아줬다.그러자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라디. 집에 안가고 여기서 뭐해?”휴리안 오빠가 산뜻하게 웃으며 이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미카엘이 ‘흐음...’ 하고 못마땅한 소리를 냈다. 나는 그 불경함을 못들은 척하고 오빠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와 오빠! 항상 잘도 찾아낸단 말야? 여기는 그다지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닌데.”“그야 네 분홍머리가 불쑥 튀어나와 있으니까. 오랜만이네요 미카엘 공”오빠는 적당한 거리로 가까워지자 미카엘에게 우아하게 인사를 건냈다. 미카엘은 나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목례로 대꾸했다.“네. 오랜만입니다.”...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항상 아슬아슬할 정도까지 성의 없게 상대하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말이다.휴리안은 미카엘의 무성의함은 신경쓰이지 않는지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아준 다음에 나에게 시선을 돌려 말했다.“그런데 이렇게 미카엘 공에게 계속 안겨있다니, 폐가 되잖...라디. 너 옷이 왜 다 젖었어? 무릎도 멍들었는데?”내 상태를 알아챈 오빠가 순식간에 표정을 굳히면서 물었다. 별일 아닌데 너무 심하게 걱정시키는 것 같아서 난 당황해 얼른 대답했다.“아아, 별일 아니었어 오빠. 그냥 물로 하는 마법 연습하다가 넘어졌어. 그렇지 미카엘?”나는 빨리 미카엘에게 거들어 달라고 그를 쿡쿡 찔렀다.미카엘이 무심하게 재미없다는 듯이 대꾸했다.“응. 그렇지 뭐... 케일이 밀어서 넘어진거긴 하지만.”휴리안 오빠의 가지런한 눈썹이 크게 움찔하는게 보였다. 와 미카엘. 너 오늘 이상하게 말 안 듣는다?오빠가 얼굴에 최저한의 미소의 형태만 남겼다. 화난 것 같다. 뭐지? 숨기려고 해서 화난건가? 아님 케일한테 화난 거? 내가 나때문에 화났나 눈치를 보자 오빠가 다시 나에게 반문했다.“케일공? 그 시메르가의?”오 케일을 알고 있어? 역시 발군의 기억력...아니 그보다, 역시 케일이 때린거에 화가 난건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오빠가 다시 말을 이었다.“케일공이 밀친걸 숨겼어?”? 숨겨서 화난건가?... 어렵다.. 나는 그냥 이 온화한 큰오빠가 화가났다는 거에 기가 죽기 시작했다. 고개를 떨구고 조그맣게 대답했다.“어...오빠가 아는 시메르 케일 맞고...음.. 숨기려고 한건 아니고 오빠... 그냥 별로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서.”미카엘이 내가 쩔쩔 매는 모습을 보자 킬킬 비웃는게 들렸다. 따지자면 다 미카엘 때문인데! 나는 그만 하라는 의미로 팔꿈치로 그의 가슴을 탁 쳤다.그 모습을 보던 휴리안이 잊고있었다는 듯 불쑥 미카엘에게 말을 걸어왔다.“아.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박했네요. 미카엘 공이 번거로우시게도 계속 제 여동생을 안고 계시게 했군요.”휴리안이 다시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서는 나를 넘겨받으려는 듯 팔을 벌리며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애초에 누구에게 안겨 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더욱이 요즘엔 휴리안 오빠와의 과한 스킨쉽은 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빠와 미카엘을 번갈아 보며 손을 내젖으며 말했다.“아~ 나 진짜 이제 그만 내려줘도 돼. 애초에 별로 넘어져서 다리가 아팠거나 한 게 아니니까 말이야.”이번에는 미카엘이 고집부리지 않고 선뜻 웃으며 대답했다.“그래, 이제 슬슬 집에 갈 시간이지.”내가 땅을 제대로 짚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내려준 뒤 스틱까지 쥐어 주었다. 오빠는 말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내가 미카엘에게 감사의 인사와 작별의 말을 고했다. 카엘은 대뜸 내가 흔들던 손을 한번 꼭 잡은 뒤에 씨익 웃으며 ‘...응, 내일도 또 봐.’ 라고 행복하게 웃고선 휙 뒤돌아서 가버렸다.“...정말로 친해 보이는 구나.”아직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평소보다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뒤에서 말을 걸어 왔다. 나는 역시 아직도 오빠가 화가 나 있음을 확신하며 오빠와 얼굴을 마주했다.“응. 그보다 오빠. 역시 아직 나한테 화났어?”내 말을 들은 오빠는 조금 놀라는 눈을 해 보였다.“내가? 너한테?”마치 생각도 못해봤다는 반응이었다. 뭐지?.. 분명히 화난 거 같은데...“?응. 그럼 화 안났어?”“너한테 화낼 이유가 없는데?...가만? 화난건가? 어째서?”오빠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가 잘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하물며 하필 잘 모르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웃긴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그럼 화 안 난 거 같아?”그는 내 말을 듣고선 나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뭔가를 찾는 것처럼 신중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 내 꼴이 얼마나 꾀죄죄하고 볼품없을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꿰뚫는 듯한 시선은 조금 창피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은 것처럼 입을 뗐다.“아니, 화가 난 것 같아. 너에게.”“으아... 역시?”“아무리 봐도 너는 이렇게 가엽고 피해자일 뿐인데. 난 왜 너에게 불합리하게도 화가 나는 걸까.”그가 자신의 사고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해 보며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다는 듯이 물었다. 여전히 이상한데서 쓸데없이 성실하다. 그냥 화가 날 수도 있지... 나도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해 보았다.“음... 내가 케일군과의 일을 오빠한테 숨기려고 해서?”그는 혼란스러운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정말 그것 때문인가? 근데 그건 네가 내가 걱정할까봐 숨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내가 화를 내야 될 대상은 네가 아니라 케일공이어야 하는 건데....”그가 평소답지 않은 속마음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다.“왜 너에게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혼란스럽다 못해 조금 무서워하는 듯한 인상을 줄 정도였다.명쾌하게 대답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나도 감정치라 같이 고민을 해 보았다. 그나저나 오빠는 항상 이런 면에서도 능숙하게 대처를 해 왔는데? 누구한테 화가 난 적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당황스러워 하는 건가? 내가 나 나름대로의 가설을 말해보았다.“오빠한테는 거짓말이라고는 한마디도 못할 줄 알았기 때문에 쇼크라서?”“딱히 거짓말한 것도 아니잖아.”“음... 그럼 그냥 그거 맞네. 내가 오빠한테 뭘 숨겼다는게 쇼크.”“이상하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안들지?”그가 정말로 이상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보기엔 오빠가 더 이상하다만.“오빠도 참...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화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그래?”“응! 당연하지! 예를 들면 이런 시험제도는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정말이지 열받네. 뭐 이런거. 아니면, 저 아줌마는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억척스럽게 강매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정말이지 짜증나네. 이런 경우도 있고.”오빠는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 다는 듯이 생경하게 나를 바라보고있다. 이렇게 허점투성이인 오빠는 처음 본다. 오빠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하지만 난 그런 적 없었는데.”“응? 뭐?”“머리로 이해가 가면 당연히 화가나는 법도 없었어.”“뭐어?....뭔가... 뭔가....대단하네.”나는 이제야 오빠의 혼란이 이해가 갈듯해서 조금 슬퍼졌다. 아.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휴리안. 아무것에도 흥미가 없는 휴리안.오빠는 순수한 소년처럼 볼까지 조금 물들이며 해맑게 웃었다. 비밀을 고백하는 것처럼 쑥스러운 듯이 말했다.“그야... 이성적으로 이해된다면... 아무래도 상관없었으니까.”물론 아주 살짝이었지만 오빠 쪽에서 이정도로 속내를 들어내 보이는 것은 처음이라 나는 멍하니 그 예쁜 웃음을 바라보았다. 이 슬픈 이야기를 어째서 저렇게 행복한 것처럼 해 주는 걸까. 나도 오빠에게 살짝 미소로 답했다.오빠는 마차로 향하는 걸음을 떼며 말했다.“복잡한 표정 지을 것 없어 라디. 아까 내 말을 다시 말하자면, 난 너를 ‘어찌 되든 상관없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그가 내 걸음을 잠깐 기다리며 뜸을 들였다. 내가 그의 곁으로 다가오자 다시 상냥하게 웃음 지으며 말을 이었다.“지금 이렇게 불합리하게 너에게 화가 나 있다는 거니까.”‘너에게 화가나 있어.’라는 말을 마치 사랑고백처럼 달콤하게 해댔다. 나는 오빠가 나에게 화가 나 있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소중히 생각한다는 말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하는 건지 조금 헷갈렸다.‘아니, 당연히 좋아해야지! 저 휴리안 오빠가 나를 생각해 주고 있다는 거잖아?!’퍼뜩 정신을 차렸다.나는 열심히 걸음을 옮기며 그에게 사과를 했다.“오빠. 케일군과의 일을 숨긴건. 정말로 내가 나빴어.”오빠가 곁에서 내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으면서 나를 온화하게 내려다 보았다.“그렇지만 정말 오빠가 괜한 걱정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그런거야.”“....알고있어.”오빠는 눈썹을 조금 서로 맞대게 하며 씁쓸한 듯이 대답해 주었다. 나는 내 생각을 마저 전했다.“그래, 오빠를 정말 좋아하고 있으니까 말야... 물론 이것도 알고 있겠지만.”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올려다보았다. 오빠는 아직도 나의 ‘좋아’에는 힘든 반응을 보였다. 아 괜찮아 괜찮아 오빠. 여기까진 바라지도 않았어.오빠는 미간을 좁히고 시선을 바닥으로 향하며 말했다.“...나는... 나는...”“하하. 나한테 좋아한다고 말하는 건 됐대도.”그가 곤혹스러워 하는 건 몇 번을 봐도 괴로워서 다시 도망갈 구석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그래. 라디.”나는 그 짧은 대답에 충분히 만족해서 헤헤 하고 바보같이 웃어버렸다. 우리 둘은 말없이 남은 길을 걸어 마차를 탔다.마차에 탄 오빠는 창가에 턱을 괴고 '흐음...'하고 나에게 들리게 고민하는 신음을 냈다.이건... 물어봐 달라는 신호겠지?"...거기 잘생긴 신사분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지요?"내가 사교계의 숙녀가 된 것처럼 과장되게 휴리안 오빠에게 말을 걸었다."네 아름다운 레이디. 케일공 이야기는 이제 그렇다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라디양과 미카엘군이 껴안고 있던게 너무 맘에 걸려요."그것도 보셨구나...상당히 민망하네. 나는 마치 내가 라디올러스가 아닌 양 시선을 회피하며 연기했다."...어머 미카엘 군이라는 분은 제가 잘 몰라서 딱히 좋은 이야기 상대가 못 되어드리겠네요. 그럼 마저 창가에서 분위기 있게 고민하시길. 방해해서 죄송해요."" 거기 변죽 좋은 예쁜 아가씨. 정말 미카엘이 누군지 모르세요?"내가 그를 불안하게 힐끔 쳐다보자 오빠가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다."그럼 앞으로 미카엘공과 말하거나 같이 놀러나가거나 하는 일은 일절 없겠네요? 아 정말이지 오빠로서 안심이에요. 모르는 사람과 놀러나갈일은 없으니까요."정말 마음 푹 놓았다는 듯이 과장되게 한손을 가슴에 얹고 휴...하고 숨을 내 쉬었다. 그리고선 '자. 얼른 아까 일을 해명해봐.' 라는 듯이 상냥하게, 위협적으로, 아름답게 웃었다. 그 후의 오빠.“어, 박차장님 오늘은 회사 나오셨네?”“와... 살 진짜 많이 빠지셨어. 한 일주일? 그 정도 쉰 건데...”“그러게 완전 볼살이 다 없어지셨네. 하긴. 얼마나 쇼크겠어.”성목 그룹의 기획 사무실이 조금 소란스러워 졌다. 이십대 후반에서 삼십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이 문을 열고 난 뒤부터의 일이다. 그는 장신에 언뜻 보기에도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지 머리 모양이나, 의복의 스타일은 모두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단정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몹시 피곤한지 겨우 표정은 유지하고 있지만 안색은 형편없었고, 기력도 없어보였다.“근데, 회장님은 이틀 만에 다시 복귀하신 거 알아?”“뭐? 진짜? 설마~”“아냐, 진짜야. 내 친구가 비서과거든? 평소보다 일찍 들어가시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이틀 만에 다시 업무 보셨어.”“와 대박. 딸이 죽었는데? 역시 수양딸이라 가족취급 안한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나.”직원들이 소리를 죽여 가며 소곤소곤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지금 들어온 남자의 귀에 들리면 안 되는 이야기 인지, 한 문장 말하는 데에도, 수십 번씩 남자의 눈치를 보아가며 말했다.“근데, 그런 거 치고 우리 박차장님이랑 동생분이랑은 엄청 친했나봐?”“야~ 엄청 친했잖아~ 너 몰라? 둘이 진짜 죽고 못 살았어.”“헐... 저 냉정한 박차장님이? 잘 상상 안간다. 그래도....하긴 그러니 저렇게 초췌해 지셨지... 아 어떡해 진짜 눈물날것 같다. 우리 박차장님 불쌍해.”같이 이야기를 듣던 직원 중 젊은 남자 직원이 방금 입을 연 여직원의 등을 서류로 살짝 때리며 끼어들었다.“야. 박차장님이 불쌍한 거냐? 그 돌아가신 동생분이 훨씬 불쌍하지. 하여튼 박차장님이라면 껌벅 죽어가지고.”“아 뭘 갖다 붙이고 난리야. 일주일 만에 사람 얼굴이 반쪽이 됐으니까 그러지. 하긴 그렇다. 그 동생분 몇 살이라고?”다른 쇼트머리의 여직원이 짤막하게 대답해 주었다."스물 여덟이래”그 말을 들은 두세명이 동시에 웅성거렸다.“와... 진짜 불쌍하다.”“대박. 완전 어리네.”“그 분도 완전 수재였대.”“기술부서쪽이라고 했지? 회장님이나 박차장님 닮았으면 얼굴도 이뻤을 거 같은데.”남자 직원이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아쉽다는 듯이 말했다.“아 미친 진짜 아깝다.””뭐가요?”칸막이 너머로부터 낮은 미성이 들리자, 모두들 불에 데인것 처럼 팔짝 뛰더니 순식간에 자신의 데스크로 돌아갔다. 질문을 받은 남직원만이 어정쩡하게 칸막이 너머의 남자를 올려다 보았다.남자가 대수롭지 않은 질문을 하는 듯이 입꼬리는 살짝 올려 보기 좋게 만들며 다시 질문을 했다.“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김태진씨.”그러나 미소짓는 입과는 정반대로 눈과 목소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싸늘했다.김태진이라고 불린 직원은 진땀을 뻘뻘흘리며 어쩔줄을 몰라했다.“박차장님...”다른 때였으면 대충 다른 변명이라도 붙일텐데. 얼마전에 죽은 사람을 너무 쉽게 이야기 했다는 죄책감이 일어서 그는 차마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남자는 별다른 말 없이 그를 내려다 본후 이내 관심없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업무 보십시오.”그렇게만 말하고 원래 가던 길을 천천히 걸어갔다.겨우 화를 면한 남직원은 자신의 의자에 힘없이 털썩 주저 앉았다.“우와...나보다 연하인데도 엄청 무서워. 진짜 회장님이랑 비슷한 분위기라니까....자신의 데스크로 쏙 들어갔던 동료중 하나가 고개를 빼서 그를 쳐다보며 깐죽거렸다.“태진씨, 아까워 할 필요 없어. 박진하 차장님 여동생도 회장님 닮아서 엄청 무뚝뚝했대.”그 말을 들은 태진은 짜증을 벌컥 내며 오늘 해치워야 할 서류를 손에 들었다.“아! 이제 그 주제는 됐어. 어우 진짜 한 대 맞는 줄 알았네.”일주일 전 죽은 여동생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부하 직원에게 순간 화가 나서 뭐라고 해줄까 하던 남자는 막상 그를 불러 세우고 나니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아서 그냥 그를 놓아주었다.그 후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천천히 뚜벅 뚜벅 걷던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왜 사무실을 나와 걷고 있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다.‘아...왜 나왔더라?’맥빠지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다.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런 멍청한 일을 전에는 해본 적이 없다.“...뭐였지?”이번에는 입으로 내 보았다. 그래도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어 보았다. 하얗고 말끔하게 마감된 복도 벽과 푸른빛을 띠는 회색 바닥이 보였다. 마치 그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처럼 한동안 생각없이 넋을 읽고 바라보았다. 그러던 그는 조금 그리운 듯한 인상을 얻었다.조금만 더 집중한다면 저 복도 코너를 돌아 자신의 여동생이 걸어오는 상상을 리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그런 생각이 들자, 그는 아예 왜 복도를 걷고 있었는지 생각해 내는 것을 포기하고 복도 벽에 기대 팔짱을 끼고 멍하니 복도 코너 쪽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는 자신의 입을 틀어 막고, 화장실로 다급한 발걸음을 옮기는 수밖에 없었다.또다시 토기가 올라온 것이다.한창 바쁜 근무 시간대였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덕분에 그는 마음껏 추하게 토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먹은 것이 없었기에 괴롭기만 했다.토악질이라니, 이딴 흉한 짓도 해본 적이 없는 그는 이런 요즘의 자신이 당혹스러웠다. 헛구역질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고개를 숙이고 토해내려고 손가락을 밀어넣으면, 투명한 위액만 나왔다. 그가 왜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이런 토기가 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뭘 토하고 싶은 거야.’조금 진정되자 세면대로 가서 입을 헹구었다. 남자는 위액의 신맛이 역겨워서 얼른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 종이 타올을 한 장 힘없이 뜯어 입가를 닦으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토할때의 내압 때문에 눈이 붉게 물들어있었다. 사실 그것 말고도 여기저기 단정치 못한 부분이 눈에 띈다.기계적으로 넥타이를 정돈하는데 또 속이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몸에 대해 분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도대체 뭘 더 토해내려고 하는 건데!’의미없이 속으로 고성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자 또 그 장면이 상상 된다. 남자는 그 현장을 목격한 일이 없지만 마치 직접 장소에 있었던 것처럼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상상할 수가 있다.나의 사랑스러운 여동생. 그 더러운 손을 피해보고자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어 보지만 결국 너무도 간단하게 잡혔을 것이다. 양손은 뒤로 피멍이 들 정도로 단단히 묶여있었으니까. 그 짐승 만도 못한 새끼가 진아의 몸에 올라타 양손에 체중을 실어 그 아이의 목을 힘껏 쥐어짠다. 죽이려고. 그 아이를. 감히 주제도 모르고. 진아를 죽이려고.남자는 격한 분노와 스트레스가 몸 안에 퍼지는 것을 느낀다.‘무서웠겠지... 진아는 비명도 제대로 못 지르고 발버둥을 치다 죽었을 테지.’거기 까지 생각하자. 또다시 울컥하고 울음이 치고 올라와 목 언저리에 앉는다. 이 뜨끈한 덩어리 같은 것은 내뱉으려고 해도 안돼고 삼키려고 해도 잘 넘어가지 않아서 언제나 불쾌한 느낌을 준다.‘어째서 그 역겨운 짐승이 여동생을 죽일 수 있던걸까? 아니, 어째서 그 더러운 것이 그 아이를 만질 수가 있는거지?’그는 그것부터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이 잘못된 거였다. 나조차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제대로 닿을 수 없었던 존재였다. 그런데 여느 날처럼 야근 후 회사에서 돌아와 보니 그녀가 그딴 벌레 같은 놈에게 죽어있었다. 그는 이런 부조리함이 이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보았던 그 아이의 육체를 생각한다.‘어디로 갔어?’이미 그녀는 그곳에 없었다. 여리고 망가진 신체에 불과했다. 그 모습은 그저 남자에게 통곡을 불러내는 도구에 불과 했다.‘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는지 나에게는 알려줘야지.’마음으로 그녀를 부르면 여지없이 눈물이 난다. 여기가 회사라는 것도 잊고 남자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어버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볼품없게도 세면대 앞에서 쭈그리고 앉았다. 목 언저리의 이 괴로운 덩어리를 뱉어낼 기세로 그가 통곡을 하니, 또 토기가 올라왔다.세면대를 부여잡고 힘없이 일어나서 다시 칸막이로 향했다. 원하지 않는 토악질을 하며 그가 답을 얻어냈다.‘뭘 토하고 싶냐고? 당연하잖아. 전부 다. 다 토해내고 싶어.’한참을 울다가 토해내다가를 질릴 때까지 반복한 그는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다듬고선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거울에 반사된 모습이 합격점을 얻자 그는 다시 뚜벅 뚜벅 걸어서 사무실로 향했다. 이미 그에게 의미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진 세계였다.나는 휴리안의 시선을 피하며 중얼댔다.“어...별일 없었어. 그냥 미카엘이 사실은 오빠나, 왕자님이 나 잘 못 걸을 때 안고 다녔던 게 부러웠다면서 어찌 저찌 안고 수련실에서 빠져나온거 뿐이야.”내가 민망해서 손부채질을 하며 마주 앉은 휴리안에게 상황설명을 했다. 사실 왜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분명 공작가 아가씨로써 그렇게 길 한복판에서 외간 남자와 부둥켜 안고 있는 건 좀 별로지... 내가 어린걸 감안해도 말이야.오빠는 구김살 없이 웃으며 대꾸했다.“내가 지적하는 게 그냥 널 안고 나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둘이 꼭 껴안고 있었던 걸 말하는 건 알지?”슬쩍 넘어가보려고 했는데 역시 오빠는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아 그거? 그것도 그냥 어쩌다가...”땀을 삐질 삐질 흘리며 어물거렸다.오빠가 이내 웃음기를 지우고선 쓸쓸하게 중얼거렸다.“나한텐 이제 팔짱도 끼려고 하지 않으면서 말이야.”우와 난 오빠의 이 표정에 무척 약하다. 그리고 내가 약하다는 걸 아마 오빠도 알고 있다.나는 더듬거리며 변명했다.“말했잖아 오빠. 레이디...아 이런.”나는 말하다가 내 말이 앞뒤가 안맞는 다는 걸 깨달았다. 젠장 궁지에 몰렸다.오빠는 처음부터 이걸 노렸다는 듯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뭐라고 하려고 했어? 라디?”“...윽.”“레이디로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나한테 접촉하지 않는다고?”나는 열심히 빠져나갈 궁리를 해보았다. 그러나 나갈 수 있는 길이 안보인다.내가 우물쭈물 대는 모습을 머리를 삐딱하게 기울인 채 바라보던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확실히 나한테는 전에도 그리 말했었지.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몸가짐에 신경 쓰던거 치고 꽤나 대담하던데요? 정숙한 한걸음을 꿈꾸던 나의 레이디.”예쁘고 우아한 말씨로 무표정하게 나를 질책한다. 우와 이 중압감.“...차라리 묶어두고 때려줘 오빠. 그게 덜 무섭겠다.”아차, 나도 모르게 속으로 생각하던 말을 너무 솔직하게 내뱉었다.오빠는 내 거침없는 말에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말했다.“그래..때리는 건 모르겠지만, 진짜 묶어놓고 싶긴 하다.”“...그런 취향의 오빠라도 사랑해.”“...뭐가 그런 취향이라는 거야...아니 그보다, 라디 너 이걸로 말 돌릴려고 하는 거지?”우와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아! 미카엘이라면 적어도 5분정도는 넘어가 줬을 텐데. 왕자님은 한 3분? 다들 결국엔 내 잔꾀에 안 넘어 갔을 거 같긴 하다. 아무도 나한테 안 져주는 건가?내가 시선을 돌리며 헤헤 웃자 오빠는 입가에 희미하게 미소를 걸고 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금 주저하는 것 같은 눈빛으로 살며시 말했다.“...왜 나만 만지려 하지 않아?”오빠는 가볍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 생각보다도 비통한 목소리라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직설적이고 남매끼리 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장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나는 허를 찔린 거같은 표정이 되었다. 오빠가 슬퍼한다.오빠는 예쁜 웃음을 유지 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평소처럼 보기좋은 미소로 보이기엔 눈이 너무 서글펐다. 그가 다시 정말로 모르겠다는 말투로 물었다.“왜 나만?”아아 못 견디겠다. 큰오빠가 이렇게 나온다면 나는 심장이라도 빼주고 싶어진다. 게다가 이 완벽한 오빠가 겨우 나와의 팔짱이나 포옹정도를 이다지도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니, 또 마음이 약해져 버리는 것이다. 나는 최후의 방어로 더듬더듬 오빠의 약혼자이야기를 꺼내 놓았다.“하지만 있지 오빠 코우젠타양이랑 약혼도 했는데, 내가 그렇게 허물없이 구는 건... 이상하다잖아. 나의 자랑인 오빠가 나 때문에 손가락질이라도 당하면 난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오빠는 미간을 조금 찡그리더니 말했다.“아직 결혼 안했는데?... 아무도 없을 때도 안 돼?”그렇게 말하고선 살짝 내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이 위로 향한 모습이라, 어떻게 보면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 모션이었다. 무엇을 원하고 있어? 휴리안. 전부 다 주고 싶은데. 당신이 원하는 건 전부 해주고 싶은데 말이야.나는 결국 못 당하겠다는 웃음을 배시시 지어보이며 내 손을 살짝 올려 놓았다.‘전부 다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하는 건 겨우 이 손인가?’오빠는 그제서야 눈을 가늘게 뜨고 소년처럼 웃는다. 자신의 손 위에 올려진 내 손을 천천히 힘을 주어 잡았다. 나는 일어서서 그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우리 둘은 사이좋게 손을 잡고 있다.“진짜 어리광쟁이는 오빠였구나.”“이제서야 알아주다니!”오빠는 이제 만족감을 만면에 표현하며 생글 생글 말장난을 쳤다.나는 기분좋게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오빠의 어깨에 고개를 툭 하고 기댔다. 오랜만에 스며 오는 오빠의 향기가 기분 좋다.조그맣게 고해성사를 했다.“사실 나도 쭉 오빠랑 붙어다니고 싶었어.”오빠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네가 하고 싶은 대로 참지 말고 행동하면 좋다고, 항상 그랬잖아.”“....그렇게 내 멋대로 해서 좋은 꼴을 본적이 없는걸.”이렇게 어깨에 기대서 진하오빠와 닮은 그의 음성을 듣고 있자니 스멀스멀 지난날의 과오가 생각나 가슴이 조금 욱신댄다. 휴리안의 손을 단단히 붙잡는다.“나는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됐어.”오빠는 조금 한숨을 내쉬었다.“우리집 아가씨는 너무 씩씩하단말야...”마부가 집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렸다. 오빠는 매너좋게 먼저 문을 열고 나가 나를 가뿐하게 내려 주었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선 후 나는 어딘가 모르게 데자뷰같은 느낌을 받는다.낮은 계급의 사용인이 우리가 왔음을 알리자 먼저 베라가 나를 맞아준다.“라디올러스님 오셨는데... 아가씨!!! 교복이 또 왜이래요?!?! 또 무릎!!”와 이제 많이 말라서 별로 티도 안나는 데 베라는 눈도 좋지. 전에 축제에서 코피가 났을 때처럼 베라의 큰소리를 듣고 엄마랑 아빠가 뛰어 나오신다. 어 아버지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오랜만에 다같이 저녁을 먹겠군.“아아 별일 아냐 베라. 엄마 아빠! 다녀 왔어요! 그냥 넘어진 거니까 뛰어오지 마세요.”휴리안 오빠가 옆에서 부모님께 예의바르게 고개를 숙였다가 일어나서 무덤덤하게 말했다.“거짓말이에요 시메르 케일이 내팽겨쳤다는데요.”...진짜 나한테 장단 맞춰 주는 사람은 진정 아무도 없는건가.엄마가 숨을 들이켰다.“뭐? 그 테젠가 밑의 시메르가 말이니?”아빠도 숨을 들이켰다.“뭐? 그. 얼빠진 회색머리 가문 사람들?”베라도 숨을 들이켰다.“뭐라고요?....일단 옷부터 갈아입도록 하시지요. 휴리안님도 갈아 입으시는게 어떠실런지요. 저녁식사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 큰 주인님들도 일단 진정하시고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는 것을 주제넘게 추천해 봅니다. 아가씨 무릎의 상처도 혹시 모르니까 의사에게 보이고 싶어서요.”...역시 우리집에서 제일 빠릿한 사람은 베라같다. 너무 멋져 베라.우리들은 엄한 셰프의 주문을 받은 초보 종업원처럼 ‘아? 응...’ 이라며 비실비실 흩어졌다. 나는 또 베라의 극한의 과보호를 받으며 옷을 갈아입고 의사를 만나고 나서야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내가 식당으로 들어서자 엄마 아빠와 오빠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박혔다.내가 그 시선을 애써 피하며 어색하게 자리에 앉자 아빠가 꽤나 무게를 잡으시며 첫마디를 하셨다.“음 그래, 식사를 하자꾸나. 먹으면서 들으렴.”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저렇게 진지하시지. 나는 눈앞의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먹기좋게 자르려고 하며 귀를 기울였다.“오늘 저녁에서 온 가족이 나눠보고픈 이야기가 있는데.”아 잠깐 왠지 안좋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겠지. 설마? 저렇게 진지하게?“우리 라디가 오늘 케일..”끼잉! 하고 내가 나이프로 접시에 스크레치를 내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식사 매너는 소리가 안나면 안 날수록 좋은 것이라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접시를 깨부술듯하게 큰소리가 나는 법은 거의 없다. 그러나 나는 예법에서 완전 벗어난 나의 식사 예절보다 이 대화 주제가 더 부끄러웠다.“아빠! 진짜 그걸 이렇게 진지하게 의논하려고요?”“그럼.”아빠가 더할나위 없이 호쾌하게 끄덕였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휴리안 오빠를 향해 화를 냈다.“오빠가 부추겼지!”오빠는 산뜻하게 웃어댔다.“하하하 부추겼다니 라디... 뭐, 그렇지.”아닌것처럼 변명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하던가! 그럴 가치도 못 느낀거야?휴리안 옆의 제르다민이 우아하게 와인을 한모금 마신 후에 입을 뗐다.“시끄러워.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유치한 토의를 해야 하는지 알기나해?”“아.. 미안... 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딴 주제로 온가족이 회의하지 말자는 거잖아!”제르다민은 업신여기는 눈을 안녕너머로 보내며 말했다.“어쨌든 맞고 온 건 사실이잖아?”“윽...맞았다고 할 것 까진... 아니, 잠깐, 근데 오빠 지금 나 걱정해?”행동만 두고 보면 자상함으로 무장한 오빠같다.제르다민은 나를 보다가 슬쩍 자기눈앞에 높인 많은 나이프들 중에 가장 큰 스테이크용 나이프를 의미심장하게 꼭 쥐어 보이며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어디가서 프랑디아 공작가가 맞고 다닌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겠니, 분홍색 귀염둥이야. ”마지막 말은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부모님께 안 들리도록. 아니 그래도…이건 너무창피하잖아. 내가 지금 실제로 몇 살인지 알기나 해? 이 나이 먹고 가족회의 때 학급 폭력 희생자로 도마에 올라야겠냐.내가 제르다민을 향해 대놓고 오만상을 쓰며 똥씹은 거 같은 표정을 하니까, 제르다민이 휴리안 오빠에게 몸을 기울이며 저거 좀 보라는 듯한 포즈를 취했다.“와 형님 저것 좀 봐요 저 못 생긴 거.”“응 귀여워.”휴리안이 하하 웃으면서 대답했다. 못생겼지만 귀엽다는 건지 그냥 귀엽다는 건지 애매한 대답이었지만 어쨌건 귀엽다는 거겠지. 나는 제르다민을 흘끔 쏘아본 다음 휴리안에게 씨익 웃어보였다. 아빠나 엄마도 소리를 내며 웃으시곤 ‘암 당연히 귀엽지.’라고 끄덕거리셨다.‘어? 잠깐.’여태까지 이렇게 저녁시간이 화기애애 했던적이 있었던가? 제르다민 오빠가 휴리안 오빠에게 말을 걸다니? 엄마랑 아빠가 함께 보기좋게 웃고 계시다니?지금까지의 저녁시간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다 같이 모이기만 하면 그 어색함 때문에 모두들 묵묵히 음식을 먹고는 꾸벅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상황의 연속이었다.‘과연 나라안에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나라 밖에 적을 만드는 게 제일 잘 먹히는 거군.’나는 우리 가족의 화목을 위해 나의 창피정도는 기꺼이 감수하기로 마음을 바꿔먹는다.헬리오가 우물 우물 씹던 고기를 꿀꺽 삼키고서는 나에게 물었다.“근데 케일이 너한테 어떻게 못되게 굴었어?”“음... 막 대놓고 때린 건 아니고, 그냥 수련장에서 안나랑 연습하고 있는데, 뒤에서 달려들어서 부딪혀서 넘어졌어. 자기말로는 실수래.”이제 숨기려는 마음은 버리고 얌전히 사실대로 대답했다.아빠가 박력있는 목소리로 말했다.“건방지게도!”마치 요즘 전쟁 중인 포제타 왕국에서 쳐들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 표정이셨다.헬리오 오빠는 인상을 조금 쓰곤 ‘음..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다.“시메르 케일이면 테젠가의 그... 누구라고 했지? 파르펠? 걔가 시켜서 그런건가?”“엉. 걔 맞아.”“와 걔도 어지간히 네가 맘에 안드나봐? 계속 난리네.”헬리오 오빠는 전에 내가 파르펠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해 보는 듯이 갸웃거리며 먼 곳을 보는 듯한 눈을 했다. 그리고는 다시 날 보며 말을 이었다.“그러고 보면 걔네 언니가 우리 옆반이거든? 걔도 장난 아니야. 같은 반인적은 없었지만.”“어? 파르펠한테 언니가 있었어?”이건 또 처음 듣는 소리네.윌로우는 빵을 조금 떼어먹다 말고 질린다는 듯이 말했다.“어~걔네도 형제 많을걸? 가끔 행사 있을 때 두어번 밖에 못봤지만... 뭐랄까.. 왠지 짜증스러워.”엄마가 ‘아~그 집 형제가 어떻게 되더라...’라며 와인을 입에 대자 아빠가 냉큼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엄마를 향해 대답했다.“아들 하나에 딸 둘이에요 에르디앙 양.”“당신에게 물어본 거 아니랍니다.”엄마가 부드럽게 아빠의 가슴을 후벼팠다. 아빠가 또 눈에 띄게 풀이 죽었다.나는 크고 작고, 성별이 다른 파르펠을 잠깐 생각해 보았다. 와... 소화가 안될 것 같다. 내가 아빠를 향해 물었다.“아빠, 테젠가 다른 형제들도 다 지금 왕실 아카데미에 재학중이에요?”“아니, 라디는 기억이 안나서 모르겠지만, 테젠 핏줄의 장남이 왕실 아카데미 말고 프라마에 재학중이라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만큼 유명하지.”프라마? 그것도 학교인가? 그리고 그게 왜 유명하지? 아빠의 말이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아서 되물었다.“프라마요?...그게 뭐에요?”윌로우가 나를 픽 비웃었다.“야! 넌 마법 클래스라는 애가 프라마도 모르냐.”옆에 있던 헬리오가 윌로우의 머리를 아프지 않게 콩 때리며 나무랐다.“라디가 기억 못하는 걸로 놀리면 안 되지 윌로우.”“칫.”윌로우는 입을 삐죽였지만 별다른 반발을 하진 않았다. 역시 헬리오 형이라면 꿈뻑 죽는 모습이다.휴리안 오빠가 자상한 목소리로 내 물음에 답해 주었다.“프라마는 현존하는 최고의 마법 아카데미야. 전원 기숙사제인 그곳은 국경과 계급을 초월해서 매년 극소수의 학생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에서는 한 해에 한명도 못 보낼 때도 많아.”마법사는 국력이나 마찬가지라서 나라에선 우수한 마법사를 키우려고 굉장히 많은 힘을 들인다. 때문에 가문에 유명한 마법사가 있다는 것은 그 가문의 위상을 높이고, 자랑거리가 돼 주기에 충분하다고 알고 있다.파르펠의 오빠중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었단 말야? 내가 놀라워하며 반추했다.“카네리안 이라는 파르펠의 오빠가 그 대단한 아카데미에 재학 중이라고?”엄마가 그 때를 회상하는 듯한 얼굴을 하며 답해주셨다.“그래, 그애가 프라마에 입학할 때 얼마나 난리였는지 몰라. 네 친아버지 빅토르 경을 잇는 천재가 나왔다고 말이야. 테젠가는 은근히 자격지심이 있었거든.”“오... 그래요?”“아. 물론 빅토르경도 프라마 출신 이셨단다. 그는 놀랍게도 5살에 프라마가 접촉을 해왔지. 카네리안군은 그 기록은 깨지 못하고 8살에 그곳으로 가긴 했지만 아무튼 8살도 대단하긴 하지.”“네? 8살이요?”8살에 유학을 갔다고? 천재인거에 놀라야 하나, 고작 8살에게 혼자 유학을 가라고 하는 것에 놀라야 하나... 아니, 그리고 라디의 친아빠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5살?! 너무 초월적이라서 이젠 별로 체감도 안된다.나는 멍하게 다시 카네리안에 대해 질문을 했다.“그럼 카네리안 군은 지금 뭐해요?”엄마가 입안의 음식물을 씹는 중이라 아빠가 대신 대답해 주셨다.“아직도 프라마에 있어.”“엥? 아직도요? 몇 살인데요?”“휴리안이랑 동갑이니까 19살이네. 프라마는 딱히 졸업나이, 입학나이 이런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가 더 남아있거나 하면 몇 년이고 남아있는 사람도 많단다. 카네리안군은 군사쪽 마법에 능한 것 같던데... 요즘 정세가 안 좋아서 곧 들어올지도 모르겠구나.”“와 8살에 들어갔는데 지금 19살이면 벌써 11년째 유학생활인거네요 파르펠네가 방학때 큰오빠 오기라도 하면 엄청 애지중지 해 주겠다.”내가 오빠에게 사근사근 대하는 파르펠을 상상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말하자 아빠랑 오빠들이 애매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왜요?”내가 무슨 말 실수라도?제르다민이 자로 잰 듯이 스테이크를 잘라내며 말했다.“방학은 무슨 방학이야.”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스테이크만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렇게 재미없다는 듯 자기 접시를 쳐다볼꺼면 얘기를 할 때 쯤은 남을 보면서 말해라 이 녀석아. 근데 이건 또 무슨 소리래? 방학이 없다는 거야? 말도 안 돼.“으악! 설마 방학이 없어?”방학이 없는 학교라니 소름이 돋는다.말을 꺼내기만 해놓고 도통 대답할 생각이 없는 제르다민 대신 휴리안 오빠는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가를 살짝 정리한 다음 내 궁금증을 풀어주었다.“아니, 방학은 있는 것 같지만...”휴리안은 살짝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프라마를 완전히 수료하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헉. 왜?”“글쎄? 원래부터 그게 전통이라서 그거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원체 없긴 한데, 아마 프라마 학생들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간에 해를 당하는 걸 막길 위해서라는 추측도 있고, 중간에 학생들을 꾀서 비밀에 싸여있는 프라마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고, 아예 학생들이 바깥과 섞이는 걸 싫어한다는 추측도 있고.. 뭐 갖다 붙이자면 이유는 많아.”나는 다시 카네리안에 생각이 미쳤다.“헉 그럼 카네리안은 벌써 11년째 집에 돌아온 적이 없다는 거야?”“그렇지. 아무리 프라마라도 보통 5년 전후로 수료 하고 질려서 라도 돌아오는데, 카네리안은 수료를 하고서도 집에 들르는 일 없이 쭉 거기서 생활 하고 있어.”그럼 파르펠은 오빠를 본 적도 없겠네. 세상에나.“너무 빨리 유학을 보낸 게 아닐까....”나는 가족의 따뜻함을 모를 그를 상상하며 조금 슬퍼져서 말했다.아빠는 머쓱해 하며 대답했다.“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한단다. 보통은 12살쯤에 프라마에 가니까... 그러나 우리 가문은 냉큼 빅토르 경을 5살에 보내버렸던 지라 나도 할 말은 없구나. 음... 프라마를 그렇게 어린나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충분히 과시할 거리가 되니까 말이다.”윌로우는 잠자코 모든 말을 듣고 있다가 질색하는 표정을 하며 말했다.“아~ 어찌 됐건 왠지 그 카네리안이라는 사람도 성격 별로일 것 같아.”엄마가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윌로우를 나무랐지만 그의 말에는 어느정도 동의하는 것 같았다.“윌로우,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면 못 써... 음... 내 생각에도 썩 좋진 않을 것 같긴 하다만.”그래도 식사시간에 제르다민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다니 대단히 긍정적인 발전이다.나는 제르다민의 딱딱한 표정을 흉내내보며 제르다민에게 질문을 던졌다.“어쨌든 우리 부끄럼쟁이 둘째오빠가 나한테 관심이 있긴 했나봐?”“...지금 나 따라하는 거냐 분홍 아.”제르다민 오빠는 일순 발끈하는 듯 보였지만, 곧 흥미를 잃은 듯 눈을 감고 포도주를 한모금 삼키고 덧붙였다.“그만둬. 빠른 상황파악이 네 유일하다 싶은 장점이니까."“그럴까?”나는 빠르게 수긍했다.엄마가 나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입을 여셨다.“정말이지 안쓰럽구나 라디. 얘기가 너무 멀리 흘러갔지만 어쨌든, 그 못된 아이들을 어쩌면 좋지?”음? 아아 맞다 지금 화제는 케일과 파르펠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었지? 테젠가 신상을 털어보느라 까먹고 있었네.휴리안도 내 얼굴을 지긋이 쳐다보며 엄마에게 맞장구를 쳐 주었다.“정말 문제에요 어머니. 라디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 한두번이 아닌 것 같더군요. 그 테젠가의 어린 소녀가 우리 가문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같단 기분도 들어요.”‘으악! 오빠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를 몰고 가지 마.’나는 당황해서 오빠에게 절레 절레 고개를 흔들어 보였지만 이미 아빠마저 근엄하게 오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여셨다.“내 생각도 그렇단다. 아무래도 그쪽 집안에 따끔하게 말을 해두어야 할 것 같기도 하군. 못된 짓을 하는 꼬맹이들을 벌을 받아야지.”‘벌? 아차! 벌이라면 미카엘이 잘근 잘근 받은 걸로 충분한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구나!’애들 싸움이 집안 싸움까지 가는 건 정말 아닌 거 같아서 나는 일단 만류를 해 보았다.“아, 아빠! 깜박 잊고 말씀 안 드렸는데, 케일이나 파르펠은 이미 충분히 된통 당했다고요! 가문끼리 싸움이라도 나면 저는 걱정돼서 밤에 잠도 못 잘거예요!”엄마랑 아빠가 내 말을 듣고 동시에 눈이 동그래져서 되물으셨다.“된통 당했다고?”아빠가 싱긋 웃으며 입을 여셨다.“너도 본때를 보여줬니?”“아, 아뇨 제가 나서기 전에 미카엘이...”아 이거 또 애매한데... 남들 보기에 한낱 백성출신 양자인 미카엘이 공작가 사람들을 짓이겨 줬다고 말하면 너무 눈에 띄지 않아?휴리안 오빠가 미카엘의 이름에 반응해서 나를 주시하며 말했다.“아. 그러고 보니 미카엘군이 같이 있었지.”엄마도 기대에 찬 것 같이 미카엘의 이름에 반응하셨다.“어머, 미카엘군이 혼내줬구나? 그렇지? 역시 난 미카엘 군에게 왠지 호감이 가.”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대충 둘러서 말했다.“네. 미카엘군이 아주 따끔하게 말해줬거든요.”아빠는 약간 실망해서 말씀하셨다.“아이고, 라디. 겨우 그 정도로 된통 당했다고 하다니 맘이 여리구나.”“그런가요? 하하..”‘아빠. 사실은 발로 걷어찬 다음에 목을 구둣발로 짓밟았어요. 파르펠도 더러운 손 치우라며 바닥에 내팽겨치고요...’나는 미카엘의 신상을 위해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어댔다.그나마 헬리오 오빠가 내 편을 들어주어서 살았다.“아버지, 저도 파르펠양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라디 말대로 가문 싸움까지 번지는 건 너무 과잉대응이라고 봐요.”아빠는 팔짱을 끼고 생각해 보는 것처럼 숨을 내쉬셨다.“흐음.... 그럼 이번은 넘어가 줘야하나....”나는 냉큼 대답했다.“네! 네! 아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제 쪽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요.”엄마는 어쩔 수 없다는 미소를 지으셨다.“ 이 엄마는 어째 맘이 편하진 않구나 라디. 그렇게 여려서 어쩌려고 그러니.”휴리안 오빠도 탐탁치 않은 쓴웃음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눈이 마주치자 찡긋 웃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좀 봐주라.’그렇게 속으로 말했다.그러자 오빠는 ‘이번만 넘어가 주마’라는 의미로 피식 웃었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부모님을 향해 말했다.“아참. 어머니, 아버지. 코우젠타양이 왕자님 생일 축하연이 끝난 다음에 방문해도 되겠느냐고 물으시던데요.”오. 드디어 오시는 건가. 그런데 왕자님 생일이면... 아직 꽤 남았는데? 엄청 신중하게 약속을 정하시네. 되게 조심스러운 성격이신가 봐.엄마가 의아하다는 듯 대답하셨다.“어머나. 물론 된다고 전해주겠니. 더 빨리 오셔도 되는데 말이야.”휴리안은 후식으로 나온 차를 천천히 내려놓은 다음 산뜻하게 말했다.“어머니 아버지께서 제일 편하실 때 오고 싶으셨나봐요.”아빠는 살짝 감탄하셨다.“사려깊으시구나.”휴리안은 싱긋 웃으며 대응했다.“제 생각도 그래요.”역시 코우젠타양은 상당히 좋은 사람같다.우리 가족의 저녁식사는 처음의 걱정에 비해 좋은 방향으로 끝나갔고, 모두들 전에 없을 정도로 화목한 분위기로 후식을 먹었다. 이제는 정말, 평범한 다른 집 식사시간과도 달라 보이지 않았다. 내가 괴롭힘을 당하던 말건 그것이 가장 기뻤다.오랜만에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게 된 왕자에게 우리집이 얼마나 화목한지 자랑을 해 보았다.“...그래서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던지 저, 시간을 좀더 즐겨보려고 케이크 두 개나 먹고 말았답니다.”메디엘은 피식 웃으며 내 머리를 토닥였다.“그냥 차를 두잔 마셨어도 됐을 텐데요. 사실 그냥 그 케이크도 맛있었던거죠?”“그렇네요. 그냥 자신에게의 변명인것도 같네요.”그렇군. 그냥 단 것에 대한 식탐을 스스로에게 변명한 건가. 머리 속 필터란 꽤 무섭단 말야.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며 끄덕 거리자 왕자는 한층 더 웃으며 나를 놀렸다.“나 참. 농담이에요. 그대를 놀려본거라고요. 하나 하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마세요.”오늘 메디엘 왕자는 기분이 좋으시구나. 소년같이 웃으시는 것을 보니. 하긴 이런 구름한점 없는 맑은 날이라니, 나도 별거 아닌 것에 웃음이 나와 버린다. 우리는 지금 궁궐의 넓은 정원을 느릿 느릿 걷고 있다. 자연스러운 풀밭에다 예쁜 돌을 박아 넣어 산책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곳이었다.그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띠며 하늘을 살짝 바라보다가 나를 내려다 보며 말했다.“음. 근데 정말 괜찮으십니까? 걷기 힘들면 바로 말씀해주세요.”“하나도 안 힘들다니까요. 아. 혹시 이 스틱 짚는 소리가 거슬려서 그러세요?”내가 지팡이를 살짝 들어 ‘이 소리 짜증났어?’라는 표정을 짓자 왕자가 순식간에 미간을 팍 꾸기며 대답했다.“라디양... 진심으로 제가 당신 스틱짚는 소리에 짜증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음... 근데 스틱 짚는 소리 짜증나냐고 묻는 말 정도에 짜증내시는 건 확실하네요.”내가 화내지 말라고 그의 팔을 격려하듯이 툭툭 치면서 천연덕스럽게 말하니까 왕자는 ‘제법이야?’라는 표정을 하며 금방 표정을 풀었다.“방금 그 말은 비꼼이 제법 재치 있게 들어가 있네요. 감탄의 의미로 그냥 넘어가지요.”“그렇지요. 그렇지요. 사람이 그 정도 여유는 있어야지요.”내가 빙글 빙글 웃으며 깐죽댔다. 그러자 왕자는 ‘아 어떡하면 고상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심하게 빈정댈 수 있을지 고민좀 해봐야 겠어요.’라며 사색하는 척을 했다. 그러다 우리는 동시에 웃음이 터져서 키득댔다. 평화롭다.우리가 걷던 산책로는 멋지게 다듬어진 나무가 줄지어 심어진 곳으로 접어들었다. 왕자도 이쪽으론 잘 와보지 않아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고 했다. 오 흥미진진하다. 황궁은 엄청 넓구나. 우리는 탐험하는 기분으로 걸음을 옮겼다.“집이 이렇게 넓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다.“음.. 산속에 오두막 짓고 사는 거랑 비슷할 걸요? 산에 산다고 산이 다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처럼요. 어차피 저도 지내는 곳은 그다지 넓지 않고요.”“...뼛속부터 거만함이 베어서 어디가 건방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기분나쁜 말이라니요. 역시 왕자님의 깐죽은 못 따라가겠네요... 진짜 오두막에서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기로 저랑 약속해요.”왕자는 미묘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 보았다.“...거의 진심으로 말한 거였는데요. 그보다 라디양 지금 저보고 건방지다고 은근히 말씀하신 건가요? 건방지게도요.”“왕자님도 형식상이나마 저를 공녀취급좀 해주시면 안돼요? 저는 예의상 말속에 녹여서 건방지다고 하잖아요.”“그대도 방금은 거의 대놓고 건방지다고 한 거 같은데요.”“아차.”왕자가 버릇처럼 나에게 장난스러운 꿀밤을 먹이려고 할 때 순간 바람이 불어 나무들이 잎사귀를 흔들었다. 우스스 하고 나뭇잎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듣기 좋았다. 왕자는 ‘앗!’하고 꿀밤을 먹이려 했던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뭐지? 눈에 뭐가 들어갔나?내가 살짝 걱정이 돼서 왕자를 바라보았다.“왜그래요? 눈에 뭐 들어갔어요?”메디엘은 한 쪽 눈을 감고선 조금 짜증스럽다는듯이, 하지만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다.“아뇨. 거미줄이... 걸린 거 같은 느낌인데... 윽, 잘 안 떨어지네요.”헹, 저 우아한 왕자님 얼굴에 거미줄이 걸렸다니, 스타일 구기는구만. 나는 이 놀리기 좋은 찬스를 잘 이용해 먹기로 마음 먹었다.“저처럼 연약한 레이디를 때리려고 마음먹으니까... 거봐요. 아이 꼬셔라.”그는 무심하게 나를 내려다 보더니 말했다.“라디양 머리엔 거미 붙어있는데요.”하하 왕자님 치고 너무 고전적인 대응입니다요.“제가 속을 거 같아요? 너무 뻔한 장난이라...”라고 말을 끝마치려고 했는데 이마가 가려운 느낌이 들더니 시야에 검은 무언가가 아른 거렸다.“끄악!!!!!”내가 진저리 치면서 그 검은 무언가를 쳐냈다. 바닥에 떨어진 그것은 꽤 통통한 진짜 거미였다. 집에서 가끔 보이는 실거미가 아녔다. 쳐내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컸다! 나는 뒤늦게 소름이 돋았다. 나를 보며 낄낄대는 왕자에게 화를 냈다.“끄아아아앙! 거미 붙어있다고 말 해줬어야죠!!!”“말 해줬는데요.”그는 아직도 웃음기가 어린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에이. 토라지셨습니까? 라디올러스양.”“네에~ 속좁고 삐져서 먼저 갈려고요.”그는 하하 웃더니 내가 스틱을 잡고 있는 손으로 팔을 밀어넣어 내가 그의 팔짱을 끼도록 했다. 스틱은 내 손에서 뺏어들더니 자기가 팔짱끼지 않은 손에 들었다. 나는 그에게 의지해 걸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를 뾰롱퉁하게 올려다보자 그는 우아하게 목례로 답했다.“라디양. 용서하시지요. 그 대신 제가 에스코트하겠습니다.”그의 내리깐 긴 속눈썹이 햇빛에 부딪혀 빛났다.“무례를 급히 처방한 신사도로 무마시키려고 하시다니요! 정말이지... 용서해 드리지요.”내가 화내는 척하다가 대뜸 용서해 주었다.“너그러우시기도 하셔라.”그는 키득 웃으면서 나를 이끌었다. 나는 중얼거렸다.“음.. 얼마 안 있으면 생일이기도 하시니까요.”“어이쿠 생일 까지 꽤 남았는데요. 후하기까지 하시네요.”“변변찮은 생일 선물 밖에 못 준비할거 같아서 퉁칠려고 밑밥까는 건데요.”“세상에나 말씀하나하나가 교양이 넘치시네요. 고상하기까지?”그는 과장되게 놀라며 마지막은 성대한 비꼼으로 마무리 지었다.내가 툴툴댔다.“제가 안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기뻐하실만한걸 못고를까봐 그러는거에요. 남자 선물은 줄때마다 고민되니까요.”나는 나도 모르게 진하오빠에게 주었던 선물을 떠올렸다. 내가 고민 끝에 골랐던 선물들은 언제나 시시한 것들뿐이었다.특히 내가 아직 학생일 때는 기껏해야 손수건이거나, 열쇠고리정도였다.그러나 그는 그것들이 낡고 낡아서 도저히 못 봐줄 때까지 써 주곤 했다. 말끔하고 고급스러운 그가 어딘지 안 어울리게 싸구려에 낡은 물건을 쓰고 있다면 그건 모두 내가 그에게 준 선물이었다. 너무 많이 빨아서 원래 색이 분간이 안가는 손수건이나, 칠이 벗겨진 커프스, 가죽이 너덜해진 열쇠고리...모두 완벽한 그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잡동사니였다.내가 보다 못해 새것을 사주며 그것 좀 그만 쓰라고 하면, 그는 씨익 웃으며 ‘에이... 이게 좋은데.’라고 중얼거렸었다. 그리고 원래 쓰던 것은 정중하게 정리해서 책상의 첫째 서랍에다 넣어놓았다. 나는 우연히 그가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아니, 첫째서랍에는 잘 쓰는 물건을 넣어놓아야지... 나는 내심 차오르는 만족감을 애써 속이며 그 사실을 모르는 척 넘어갔다.오빠가 나를 빨리 잊어주었으면 좋겠다. 상냥한 오빠는 내 죽음을 애도하고 애도하며 슬퍼할지도 모르겠다. 오빠가 나를 가능한 한 빨리 잊어주었으면 좋겠다. 슬프지 않게. 원래 여동생 같은건 없었던 것처럼. 첫째서랍의 잡동사니들은 모두 치워버리고.나는 나도 모르게 잠깐 먼 곳을 바라보았다.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상념에 갇혀서 울컥하는 기분이 되어버린다. 진하오빠가 손수건을 예쁘게 접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메디엘은 도통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라디양. 울어요?”나는 흠칫 놀라 태연한 웃음을 지으려 노력하며 대답했다.“그럴리가요.”메디엘은 눈썹을 찡그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말을 고르는지, 생각하는 표정으로 머리를 살짝 털어내며정면을 보고 걸음을 다시 옮겼다. 팔짱을 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도 그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가 한동안 아무말도 하지 않더니 중얼거렸다.“분명 우는 것 같았는데요.”“갑자기 그럴 이유가 어디있다고요.”“...”그는 또 입을 다물었다. 아아 이번엔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 사리 분별도 못하고 하필이면 그의 생일선물 이야기를 하다가 진하오빠 생각을 하다니, 그는 기분이 상했겠지.그는 알수없다는 눈빛으로 나를 살짝 내려다 보았다. 나는 걱정이 되어 그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는데, 다행히 화가 나 보이진 않았다. 메디엘이 입을 열었다.“분명히 제 생일 선물 이야기에서 라디양에게 그렇게 슬픔을 자아낼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생각을 했다는 소리인데요.”“음...아까부터 무슨 소리에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안 슬펐는데요?”내가 잡아뗐다. 날 살펴보는 그에게 죄책감이 생겼지만, 그렇다고 왕자에게 진하오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지 않은가. 나도 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말하고 싶다. 내가 사랑해 마지않던 자랑스런 오빠에 대해.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 지금도 얼마나 그리운지에 대해.분명 말하다가 울고 말겠지만.메디엘은 짜증을 낼 것이라는 내 예상과 달리 무표정으로 담담히 말을 이었다.“평소같으면 더 캐 물어봤겠지만, 왠지 말해 줄 것 같지도 않게 심각해 보여서 묻지도 못하겠네요. 11살 주제에 그 심오한 표정이라니.”“하하 잘못 보신 것이래도요.”나는 한참 가벼운 표정으로 익살을 부리며 말했다. 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 주길 바랬기 때문이다.그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저 정면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신중하게 입을 뗐다.“당신이 나와 있으면서 딴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나에게 그 이유를 끝내 숨기는 것 보다, 나에게 거짓으로 웃어보이는 것보다요...”왕자님이 나를 훤히 내다보는 것 같아서 나는 그가 말하는 표정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차마 대꾸도 하지 못한채.내 시선을 느낀 그는 쓰게 웃으며 나를 내려다 보았다.“당신이 이렇게 괴로워 한다는 것이... 그냥 그 사실이 제일 슬프네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나는 진심이 묻어나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나도 거짓말 하고 싶지 않다. 이 깨끗하고 예쁜 왕자님께 원하는 대답만을 해주고 싶다. 그러나 변명도 할 수 없는 나는 뻔뻔하게도 그와 끼고 있는 팔짱에 꾸욱 힘을 줄 뿐이었다.‘상냥하시네요. 눈물이 날 것만 같아요.’ 이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낯짝도 두껍지.조금 길을 걷던 우리는 아담하고 귀여운 연못을 발견했다. 나는 분위기 전환을 꿈꾸며 그 근처 바위에 잠깐 앉자고 권유했고 왕자는 받아들였다. 그김에 화제를 돌려보았다.“아...그러고 보면 원래는 메디엘 왕자님 생일선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뭐. 그렇죠.”그가 싱숭생숭한 표정을 지으며 연못을 바라보았다. 윽 아까 내가 주책 맞게도 안좋은 표정을 보여버려서 이야기가 흐지부지 되어버렸었구나. 정말로 미안한 마음입니다.나는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그가 기뻐할 만한 선물을 알아내 보려고 밝게 웃으며 왕자에게 말을 걸었다.“왕자님은 어떤 종류의 선물이 가장 기뻐요?”왕자는 내말을 듣더니 턱을 손으로 괴고 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음...”“어떤 타입?”꽤 오래 기다렸는데도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아서 나는 재촉하는 질문을 해댔다. 그런데도 그는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했다.“솔직히 말하면요. 그다지 확 이거다! 싶은걸 받아본 적은 없는데요?”“에이... 그게 뭐에요.”너무 맥빠지는 답변에 실망했다.왕자는 머쓱하게 말했다.“그야... 선물은 기분좋긴 하지만. 다들 비슷비슷하게 주시고... 그렇다고 필요했던 게 있던 것도 아니고요.”하긴. 왕자님에게 부족했던 게 뭐가 있었을까. 나는 ‘그것도 그렇네요.’ 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럼 나는 뭘 줘야 하나? 어차피 선물을 줄 때도 내가 번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서 마냥 개운하지도 않다.나는 자포자기해서 다리를 쭉피고 손을 뒤로 해서 몸을 바치게 한 다음 장난스러운 눈길을 그에게 보냈다.“에이 재미없어요.”“...제가 당신 재미있자고 생일 파티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말이지요.”그가 평소의 메디엘 답게 톡쏘는 대답으로 답했다.그는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는 듯이 미간을 손가락으로 눌렀다.“제 생일파티에 진짜 저를 축하하러 오시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들 그냥 얼굴 비추러 오시는 거지 , 당사자는 무척 피곤하다고요. 솔직히 축하받는 거 같지도 않고.”나는 편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멍하니 연못을 보며 말했다.“음? 저는 진심으로 축하하는데요. 왕자님이 태어나셔서 너무 좋네요.”“정말이요?”“네. 요즘 전 행복에 겨워서 말이지요... 매일 꿈 같네요. 지금 이 순간도요.”천천히 고개를 돌려 내 옆의 아름다운 왕자를 바라보았다. 인생 최악 중 최악의 순간으로 삶을 끝낸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비현실적인 행복이라니. 아직도 잘 실감할 수 없다. 전부 신기루 아닐까?나는 연못에 파문이 잔잔히 퍼지는 것을 보며 느긋하게 중얼거렸다.“아 이런. 저는 결국 왕자님이 기뻐할 만한 선물은 고르지 못하는 걸까요.”“저는 뭐든 좋을 거 같은 데요.”“그정도 임팩트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답니다. 일단 남들 보다 한발 앞서, 이 라디올러스, 노래라도 불러드리지요.”기분이 좋아진 나는 ‘생일 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 합니다~ .’ 하며 앳된 소리를 높여 노래를 불렀다. 라디 목소리는 높은 음도 아무런 문제없이 올라갔고, 그 소리도 예뻐서 내가 듣기에도 썩 괜찮았다.왕자는 어찌보면 술주정 같기도 한 급작스러운 내 노래를 얼떨떨한 표정으로 들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까지 쳐 주었다. 그는 그답지 않게 멍한 표정으로 답례의 말을 했다.“우와 방금 뭐에요? 저 소름 돋았잖아요.”“어떤의미로요? 좋다는 거죠?”“당연하죠! 엄청난 특기가 있으셨네요.”에잉 겨우 생일 축하노래에 거하게 반응 해 주시긴. 나는 기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말했다.“겨우 생일 축하노래에 이렇게 기뻐해주시다니 왕자님이야 말로 서민적이시고 좋네요.”“진짜 잘 부른다고 생각해서 말한 건데요. 아예 이쪽으로 나가도 될 정도라고 생각해요. 공작가 영애라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입니다.”우와 진심으로 내가 노래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나보다. 죽기전의 나는 노래 잘부른다는 소리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역시 노래는 재능이 있어야 하는 건가 보다.아무리 생각해도 메디엘이 과장하는 것 같지만 이런 추켜세워줌이 썩 나쁘지 않아서 나는 헤실헤실 웃었다. 그러자 왕자는 손을 들어 내 머리 위에 얹고는 토닥였다. 만족스럽게 웃으며 눈을 마주쳤다.“생각 보다 맘에 드는 생일 축하곡이었어요. 라디양. 알면 알수록 귀여운 구석이 있군요.”“왕자님 말은 항상 마냥 좋아하며 듣기엔 어딘가 찜찜하다니까요.”“음 그냥 좋게 받아들이면 되지, 뭘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세요.”“허어... 왕자님은 딱 좋은 가을에 태어나신 거치고 베베 꼬였어요.”“마찬가지로 베베 꼬이신 라디양도 날씨좋은 봄에 태어나신건 마찬가지 잖아요.”어라? 왕자님 내 생일 기억 하고 계시네? 좋아라.내가 그 사소한 사실이 주는 즐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웃자, 왕자는 내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중얼거렸다.“... 봄에 태어나서 그렇게 봄꽃처럼 예쁜 색인가봐요.”“네?”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묻자, 방금의 말은 그의 의도로 나온 말이 아닌지, 입을 황급히 가렸다. 얼굴도 살짝 붉어진 것 같다.이건 생각지 못했던 반응이라 나는 혹시 그가 내 머리색을 빈정거리려던 게 아닌가 하던 가정은 지워 버려야 했다. 아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었나 보다.나는 그가 부끄러워 하는 모습이 좋아서 키득 거리며 답례의 말을 했다.“우와 굉장히 로맨틱한 표현이었어요 왕자님. 감사해요. 아니, 좋았다는데 뭘 그렇게 부끄러워 하시는 거예요.”그는 부끄러움을 감추려 인상을 쓰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아 방금 건 실수였어요. 평소 저는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그러고 보면, 고급반에 진급하면 시같은 걸 짓는 과목도 있잖아요? 왕가의 초대장은 레이디들한테 짧은 시 같은 것도 곁들여서 보내는 것 같던데. 방금도 그런 건가요?”메디엘은 내 끈질긴 깐죽에 고개를 돌리고 투덜대며 말했다.“아 방금 건 진짜 실수였다고요. 안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유난히 유치한 표현만 나와서...앗!”거기까지만 말하고 왕자는 이번에 두손을 모두 들어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였다.방금 뭐라고? 나를 위해 시를 써보려고 했었다고? 나는 이제 거의 바위 위에 올라가서 왕자의 표정을 보기위해 안간힘을 썼다. 얼굴을 가린 그 손을 치워 보려고. 나는 즐거움에 새어 나오는 웃음소리를 멈출 수 없어서 겨우 겨우 말을 이었다.“왕자님! 시라고요? 저를 위해서 쓴 시? 안 놀릴 테니까 여기 좀 봐 보세요!”“시끄러워요! 저리가요!”메디엘은 끝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무릎이 머리에 닿을 듯이 등을 굽혀서 방어했다. 나는 그의 새빨개진 귀를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힘으로 그를 상대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여서 나는 도로 바위에 걸터앉아 숨을 몰아쉬어야 했다.“아아 항복이에요 항복. 시에 대해 물어본다거나 놀리거나 하지 않을께요. 고개좀 들어봐요.”왕자는 내 말을 듣고서도 한동안 돌같이 얼굴을 가린 채 굳어있었다. 원래대로 얼굴 색이 돌아왔다고 생각한 후에야 얼굴을 보여주었다.그가 뾰로퉁하게 나를 내려다보았다. 불만이 있다는 얼굴이었지만 나는 방금전의 수줍어 하던 모습만이 겹쳐 보일 뿐이었다.“...풋!”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메디엘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다.“안 놀린다면서요.”“아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제 안 웃을게요. 정말로요!”내가 웃음을 삼키며 그를 달랬다. 그는 볼이 퉁퉁 부어서 연못만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내가 눈치를 보며 말을걸었다.“나랑 안 놀아주게요?”“...”내 말에도 시선을 맞춰주지 않았다. 그리고선 부스스 일어나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이제 갈 시간이라는 뜻이다. 확실히 시간이 그렇게 된 거 같긴 하다.우리가 걸어왔던 산책로를 되짚어 걷기 시작했는데도 메디엘은 여전히 삐친 듯한 모습이다.“에이 왕자님 계속 이렇게 말씀 안하시게요?”“...”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란듯이 불만스럽게 볼을 부풀렸다.“...그러면 저도 저 하고 싶은 말이나 해야겠어요.”“...”나는 메디엘을 빤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뗐다.“...휴리안 오빠 약혼녀분 말이에요.”“윽! 오빠 얘기만은.”무언으로 항의하던 그가 결국 끔찍하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별로 오빠 얘기도 아니에요. 오빠 약혼녀분 말이니까. 코우젠타양 말이죠.”“하아... 당신은 한번 오빠 얘기를 하면 끝내질 않는데...”불평 불평하면서도 결국 들어줄 것 같은 태도이다.“아르젠 코우젠타 양을 혹시 아세요?”“음... 아르젠 백작가 말씀하시는 거죠? 잘은 모르는데요.”“에이 그래요? 왕자님은 아실 줄 알았는데.”왕자는 조금 자존심 상한 것 같은 얼굴로 대꾸했다.“저라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왠지 저에게 있어 왕자님은 모르는게 없는 사람 같아 보인단 말이죠~”나는 무심코 산책로의 박혀진 돌들의 경계를 밟지 않는 것에 열중하며 그의 투덜거림에 답했다. 마치 신호등을 건널 때 흰 선만 밟는 것 같은 자신만의 룰이었다.왕자는 내가 그렇게 의미없는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팔짱대신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치켜세워 놓고선 정작 자기는 어린애 같은 장난이나 치고 있습니까.”“그야~ 어린애 인걸요. 이크!”먼 거리에 발을 내딛느라 조금 휘정해 버렸다.“으악 조심 좀 하세요. 몸이 편한 것도 아니면서.”잡은 손으로 내 중심을 잡아 주느라 그가 더 호들갑 이였다.“하하하 왕자님은 걱정쟁이 엄마같아요.”“지금 저보고 엄마같다고 했습니까.”그가 일부러 잡은 손을 뒤로 빼 나를 휘청이게 만들었다.“으악. 넘어질 뻔 했잖아요 엄마! 아니, 왕자님.”“대단하시다. 그 틈에 또 깐죽대시다니.”왕자는 언제 삐져있었냐는 듯이 키득 대고 웃었다. 연한 금발이 살랑 살랑 웃음에 맞추어 흔들렸다.“...왕자님, 저 말이죠. 역시 말로는 오빠가 결혼하는 게 걱정 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가 쓸쓸한 거뿐일까요.”왕자는 키득 대던 소년같은 웃음을 지우고 옅은 미소만을 남긴 채 대답했다.“글쎄요...”“내 사욕과 그에 대한 걱정을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흠 미묘하긴 한데. 이유야 별 상관없지 않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라디양은 이 약혼을 말리고 싶다고요?”“그렇게 직선적으로 물으신다면... 잘 모르겠네요. 오빠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약혼이고 결혼이고 하면 좋은데.”왕자는 어른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가볍게 말했다.“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결혼같은 게 과연 있기나 할까요.”“엑 왕자님조차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왕자님이시라면, ‘내가 결혼한다면 당연히 행복한 결혼일게 뻔하지 않겠어?’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왕자는 나를 빤히 보며 입꼬리만을 요염하게 올렸다.“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쉽게 말해 주실래요?”“저라면, 항상 결혼이 쉽게 불행에 빠질 수 있음을 인지하며 살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자면 당신이 나의 신부가 되었다면 말입니다...”그가 나와의 결혼 생활을 예로 들기 위해 잠깐 말을 쉬었다.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당신이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의주시 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당신과의 행복이 그저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말입니다.”“멋지네요. 그런 상냥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나는 그의 의외로 사려 깊은 결혼관에 대해 순수하게 감탄했다.그는 느긋하게 나를 내려다 보며 말했다.“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얼른 커서 제게 시집오시면 되잖아요.”“자꾸 성급하게 이야기를 끌고 가시지만 않으면 더 멋질 텐데.”내가 담담하게 받아쳤다.‘얼른 커서 시집 간다’라...“흠... 저는 커버리는 게 싫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 ‘지금’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 싫어요.”“이렇게 작으면서 크는 게 싫다고요?”그가 웃기다는 표정을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네. 이 만족스러운 상황이 변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약혼하고 있는 것도 불안한 거고요. 약혼을 했다는 것은 언젠가 오빠가 결혼해 버린다는 것을 자꾸 상기시키거든요.”“하지만 라디양. 결국 모두 변할 겁니다. 휴리안 공은 물론이고, 나도 당신도요.”변화라는 것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고 가능성이라는 것은 곧 불확실성과 같다. 나는 불확실한 것이 싫다. 나는 약한 사람이라서 항상 현실에 적응해 가는 것이 힘들었다.“저도 물론 알고는 있지만... 싫어요. 모두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빠랑 가족들이랑 계속 안 변하고 같이 살고싶네요.”메디엘은 내 말을 듣고서 한참동안 나와 눈을 마주치고 서 있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라디양, 라디양은 정말로 현실에 만족해하고 있군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저는 당신이 어떻게 자라나서 어떤 레이디가 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는데 말이죠.”“...제가 현재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나는 정곡을 찔린 것 같아서 볼을 붉혔다."..글쎄요.. 저는 다만... 모두를 안 변하게 잡고 있을 수는 없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나는 입안이 조금 씁쓸해져서 시선을 바닥으로 하고 가만히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메디엘은 자신을 보라는 것처럼 내 양 볼을 손으로 살짝 잡았다.“모두가 변한다는 그 증거로. 저만 해도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또, 한 살 더 나이를 먹겠죠.”“...그렇군요.”그는 그만 포기하라는 듯이 달콤하게 읊조렸다.“당신, 허무함에 집착하는 것은 그만 포기하고 제 쪽을 봐 주세요. 어차피 변할 것이라면 어떻게 더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을지나 같이 고민해 봐요.”그가 하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건전하고 올바른 생각인데도 메디엘은 나쁜 짓을 하게 꼬시는 것처럼 위험하게 유혹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고, 궁의 입구까지 얌전히 에스코트 받았다...그래도 내심 여전히 ‘변화’는 무서웠다.집으로 가는 마차안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겁쟁이라고 변명하면서, 그렇게 곱씹었다. 메디엘 왕자님과 헤어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나를 비웃듯이 내 몸은 자꾸만 어른에 가까워졌다.초경을 한 것이다.‘으으 어쩐지 꿈자리가 사납더라니. 미치겠네, 이 몸은 생리통도 엄청 심한가봐.’새벽에 복부에 심한 고통을 느껴서 눈이 떠지자마자 나는 직감했다. 아 올 것이 와 버렸군.‘만 11살에 초경이면 살짝 빠른 정도인가?.’그렇게 생각했지만 역시 좀 안타까운 느낌이었다. 내 몸이 ‘너는 이제 어른이야’라고 선고해 버렸다. 뭔가를 놓쳐버린 기분이다.그런 싱숭생숭한 심리와는 별개로 육체적인 괴로움이 대단했다. 아랫배가 찢어지는 거 같았다. 예전에도 생리통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나는 비실 비실 침대에서 일어나 이불을 들췄다.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처리해야지.’하는 생각에서였지만 꽤나 놀라고 말았다.‘뭐야 이 양은?’초경이라기엔 너무 많은 양의 피가 묻어있었다. 피를 보니 기분탓인지 현기증도 핑 도는 것 같았다.나는 혼자서 어떻게 뒷수습을 할지 고민도 해 보았지만 지금 내 몸상태와 너무 성대하게 벌어진 잔치에 결국 베라를 부르는 종을 울릴 수밖에 없었다.우수한 메이드인 베라는 내가 종을 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내 방을 찾았다.“이시간에 무슨일이라도 있으...”베라가 나에게 벌어진 일을 눈치챘다. 베라는 굉장히 흥분하며, 그러나 목소리를 낮추려고 애쓰며 말을 이었다.“아, 아가씨! 당황하지 마세요. 이건 어른이 된 성숙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이 방에서 당황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베라밖에 없는데 베라는 내가 충격 받았을까봐 달래려고 했다.“응. 베라. 나 별로 안 놀랬어. 다만 너무 아파...”베라는 내 안색이 심상치 않자 재빨리 옷을 갈아입혀주고, 월경용품을 준비해 준 뒤 깨끗한 시트를 준비 해 주었다. 덕분에 훨씬 편안한 상태로 다시 누울 수 있었다. 그러나 생리통은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약간 속도 좋지 못했다.베라는 내가 끙끙 앓는 것을 보고 안절 부절 못해하더니 결국 의사를 데려 왔다. 주치의인 파호크씨는 아니나 다를까 생리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좋지 못한 징후라고 판단했고, 일단은 쉬어야 한다고 판정을 내렸다. 그가 준 진통제를 마시니 배를 끊어내는 것 같은 고통은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았다. 나는 몽롱하게 몸을 에워싼 불쾌감과 싸우다 잠에 들었다. 거의 기절하듯이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문병을 왔던 것 같기도 했다.괴로워하다가 잠에 들기를 반복하다가 조금 괜찮아 진 것 같아서 일어나 보니 다시 낮이었다.‘아... 하루를 통째로 날려버렸잖아? 대낮인가봐...’해가 중천에 떠있었다. 월경 때문에 학교를 못 갔다. 아... 앞으로가 걱정된다. 제발 초경이라서 유독 아픈거였길... 매달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싹하다.엄마가 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와 주셨다.“라디! 이제 좀 괜찮니? 이런... 축하해야한다고 하는 게 맞지만 상태가 이래서야 그렇게 말하기도 뭐하구나...”“으..그러게요. 기분이 끔찍해요.”내가 엄마 품에서 어리광을 피우자 엄마는 내 머리를 부드럽게 손으로 빗어주며 중얼거리셨다.“...어른이 되었구나 라디. 이 엄마는 뭔가 기분이 이상해... 아직 너는 이렇게 조그마한데.”나는 아직도 엄마의 어린 딸이고 싶어서 조그맣게 부정했다.“월경하나 했다고 바로 어른인가요 뭐...”엄마는 상냥하게 웃으며 내 고개를 당신과 마주보게 했다.“그렇지만 지금부터 급속도로 어른으로 변하게 되겠지. 이거 하나는 분명하단다. 너는 분명 예쁘고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레이디가 될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따뜻한 말을 해주신 뒤 내 이마에 살짝 키스해 주셨다. 일을 하다가 나오셨다고 조금 씁쓸하신 것처럼 중얼거린 어머니는 아쉬운 듯이 ‘될 수 있으면 뭘 좀 먹으렴’이라고 말하신 뒤 다시 서재로 돌아가셨다.아직도 묵직하게 아픈 배였지만 이제는 그럭저럭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현기증을 참아가며 겨우 씻고난 뒤 편한 일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아찔 아찔한 걸음을 옮겨 식당에서 묽은 스프를 입안에 떠 넣었다. 배 속이 텅텅 비어있을 텐데도 하나도 먹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았다. 그냥 몸에서 필요할껄? 이라는 생각에 의무적으로 삼키고 있으려니까 손님이 오셨다는 소리가 들렸다.‘오빠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나?’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나와 본 나는 눈앞의 이질적인 조합에 당황했다.“아니, 이렇게 셋이서 같이 오신거에요?”나는 인사도 까먹고 대뜸 물었다.현관에는 휴리안 오빠뿐만 아니라 메디엘 왕자와 미카엘이 있었다.휴리안 오빠가 내가 온 것을 보자 바로 다가와서 나의 옆머리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물었다.“이제 몸은 좀 괜찮은 거 같니? 안색은 아직도 별로인데...”“음. 이제 움직일 수는 있어.”내 대답을 듣고 휴리안은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하다가 금방 미안해 하는 표정으로 바꾸었다. 오빠가 나를 하나하나 신경쓰는 듯한 말투로 천천히 말을 해나갔다.“음.. 어쩌다가 학교에서 모두들 마주치게 되었는데... 네가 심하게 아프다고 하니까 다들 오고 싶어하셔서 말이지... 네가 불편해 할 거 같긴 했는데 차마 말리지 못했어. 미안해.”“아냐 아냐 괜찮아 오빠. 어서오세요 여러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꾀병이 아니란 걸 증명하느라 이렇게 꾀죄죄하네요.”내가 오빠 뒤의 미카엘과 메디엘에게 웃으며 인사를 했다.메디엘이 내 격식없는 인사를 받고서도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반면 미카엘은 마치 내 인사는 거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미간을 살짝 구기고 내 얼굴을 빤히 보며 중얼거렸다.“진짜 아파보이는데 라디. 괜찮아?”“응. 하하 친구한테 병문안 받는 거 처음이다. 어서와.”메디엘도 인상을 살짝 썼다.“정말 아파 보이네요.... 저도 그냥 조용히 상태만 듣고 가려고 했는데... 신경쓰게 해서 죄송합니다.”“괜찮다니까요. 어제였으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거에요. 근데 저 밥먹고 있었는데 다들 간단하게라도 뭐 좀 드실래요?”저녁먹기엔 이른 시간이었지만, 나만 먹고 있고 다들 그걸 구경만 하는 것도 웃기는 것 같아서 다같이 간식을 먹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미카엘이 스프를 한 숟갈 먹더니 물었다.“근데 라디, 왜 아픈거야? 감기 같아 보이진 않는데?”미카엘의 말에 휴리안 오빠도 관심을 보였다.“아참 나도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이유를 못 들었네.”‘아... 뭐라고 말해야 하지?’초경인 것이 부끄럽지는 않지만 역시 이런 분위기에서 대뜸 말하기는 껄끄러웠다. 내가 우물쭈물하니까 다들 더 궁금해 하는 것 같은 눈길을 보냈다.메디엘은 추리하는 것처럼 나를 찬찬히 살피며 말했다.“지금 먹는 걸 가리지 않는 걸로 보아서 먹을 걸로 탈이 난 것 같진 않아 보이고요.”식중독이라고 둘러댈까 생각했던 나는 속으로 뜨끔했다.미카엘이 하하 웃으면서 메디엘의 말에 반응했다.“에이 설마 라디가 이상한걸 주워먹었겠어요.”메디엘은 마음에 안든다는 기색이 역력한 미소를 지으며 미카엘에게 다시 물었다.“그럼 미카엘 공은 병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미카엘은 그의 말에 성의 없게 대답했다.“글쎄요 잘모르겠네요. 콜레라인가?”메디엘이 못 참겠다는 듯이 예의상의 미소도 내던지고 짜증을 냈다.“콜레라는 오염된 물로 옮는 거잖습니까. 방금은 라디가 이상한거 주워먹었겠느냐고 핀잔을 걸더니, 이상한 물은 마셨겠어요? 게다가 콜레라는 전염성도 높은데 이렇게 우리를 들였겠습니까? 치사율 높은 병가지고 재수없게 운운하지 말아주십시오.”미카엘은 메디엘이 열내는 것을 보고 무덤덤하게 사과했다.“아. 그래요? 죄송해요 몰랐네요.”메디엘은 약이 더 올랐는지, 뭐라고 소리치려고 하다가 급,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고 ‘하아. 나 지금 뭐하는 거지....’라고 중얼거리며 어깨에서 힘을 뺐다. 미카엘은 왕자가 그러거나 말거나 내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다.휴리안은 메디엘을 달래보려고 했는지 선량하게 웃으며 말을 건냈다.“왕자님, 애초에 미카엘 공이 라디가 왜 아픈지 알리가 없으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음...게다가 지금은 라디가 말하기 부끄러운 병이라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괜히 라디를 신경쓰이게 하지 맙시다.”휴리안은 자신이 말을 꺼내 놓고도 잠시 침묵했다. 눈앞의 세명은 모두 내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메디엘도 방금까지 열 올리던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글라스를 입에 살짝 대고 내 얼굴만 살폈다.분명, 이 아닌척 무례한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병이 무엇일까 마음대로 상상하고 있었다.나는 짜증이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안그래도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될대로 대라는 마음으로 속시원히 말했다. 예민한 나는 인내 따위 할 마음이 없었다.“....초경이었어요.”휴리안이 못 자기가 잘못들은 것 같다는 얼굴로 상냥하게 웃으며 되물었다.“응?”“초경. 처음으로 월경하는 그거.”“....아 초경..초경?..”휴리안이 바보라도 된 것처럼 단어를 되풀이했다.쨍! 데구르르르...메디엘이 놓친 컵이 놓여있던 나이프에 맞아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다행히 깨지지는 않고 유유히 굴러갔다.메디엘은 자기가 컵을 놓쳤다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 자세 그대로 얼굴이 점차 시뻘게졌다. 시선은 나에게 고정한 채였다.미카엘도 눈만 동그랗게 뜨고 나를 아무말 없이 쳐다 볼 뿐이었다. 이 이후의 일은 너무 급작스럽게 전개되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미카엘이 갑자기 하하하 하고 웃어서 정적을 깨트렸다.“뭐가 웃겨....”내가 그들의 예상외의 격한 반응에 너무 솔직히 말한 것이 아닌가 후회하고 있다가 그를 나무랐다.미카엘은 위험하게 미소지으며 식탁 위에 놓여있던 내 손을 살짝 잡았다. 그리고는 만족스럽게 속삭였다.“그럼 넌 이제 생물학적으로 나의 신부가 될 수 있는거네?”“!!!!”내가 너무 노골적인 그의 말에 놀라 펄쩍 뛰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틀린게 하나도 없는 말이었지만 왠지 그가 말하니까 너무 야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닳고 닳은 어른이라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인지 미카엘은 멀뚱하게 나를 바라보며 ‘왜? 틀려?’라고 순진하게 물었을 뿐이었다.나와 미카엘이 손을 잡고있는 것을 멍하게 보고 있던 휴리안은 정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더듬 거리는 말로 메디엘과 미카엘을 내쫒았다.“실례...아니, 죄송하지만 제 여동생은 그냥 혼자서 쉬는게 훨씬 나을 거 같네요. 모두들 돌아가 주시겠습니까?”미카엘은 조금 투덜댔지만 내 상태가 염려됐는지 얌전히 돌아갔고, 메디엘은 아직도 사고가 되돌아 오지 않았는지, 빨간 얼굴 그대로 끄덕 끄덕 하며 수긍하고는 가버렸다.오빠는 그들을 배웅하고 나서 얼이 빠진 것처럼 입을 손으로 막고선 한동안 그자리에 못박힌 것 처럼 서 있었다.“저기 오빠. 너무 그렇게 과민반응 하면 오히려 내가 좀 창피한데...? 모든 레이디들이 겪는 일이니까 스무스하게 받아들여주겠어?”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살짝 바라볼 뿐 여전히 그 포즈, 그상태 그대로였다.결국 나는 그를 진정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스프를 마저 해치웠다.물로 입가심을 하고 있을 때가 돼서야 오빠는 천천히 걸어와 내 옆자리에 털썩 앉았다.이미 다 커버린 어른 같았던 그는 마치 어린 소년처럼 볼을 빨갛게 물들이고 쑥스러운 듯이 말을 건냈다.“라디... 축하해.”그리고는 수줍게 씨익 웃어보였다.“다들 하는 거래도.”나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기뻐서 마주 보고 미소로 답했다.다음날이 되자, 아침부터 집에는 장미며, 장신구며 하는 선물들이 배달왔다. 누가 보냈는지는 써있지 않아서 모두 당황해 했는데, 마지막으로 배달된 조그만 상자를 열어보니 내가 전에 예쁘다고 칭찬했던 메디엘의 손수건과 색만 다른 손수건이 들어있었다.거기엔 아무 무늬도 없는 작은 카드도 함께 들어있었는데 정중한 글씨로‘당신이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 기뻐요.’라고만 짧게 쓰여 있었다.겨우겨우 생리통의 참을 수 없는 불쾌감에서 벗어난 나는 이제 좀 행복해질 법도 할 텐데 아직도 고난의 한 가운데이다.오늘은 미카엘과 메디엘이 동시에 시간이 나는, 한 달에 꼭 며칠은 있는 그런 날이었다. 말하고 보니 그 지긋지긋한 월경일과 닮았군. 마법 같은 소년들 같으니.둘은 어김없이 아무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또 셋이서 사이좋게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나는 오늘과 같은 날을 개와 고양이가 만나 생난리를 치는 날, 줄여서 개고생날이라 부르곤 한다.개고생날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전의 경험으로 나는 완전히 숙지했다. 피할 수 없다. 결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마 이 나라에서 왕자와 미카엘을 동시에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때문에 불필요한 노력을 싫어하는 나는 얌전히 학교에서 고등부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는 한다. 평소에는 그들을 동시에 만나기 위해 조용히 에너지를 재충전하는데 쓰이곤 하는 귀중한 이 시간을 오늘은 허무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허비하고 있다.‘어째서 이깟 단순하기 그지없는 일을 난 못하는 거지?’나는 아무도 없는 수련장 벽에 기대 주저앉아 소리없이 한탄하고 있었다. 손에는 꼬깃해진 손수건이 들린 채 이다. 나름 고급이었던 그 손수건은 이제 꼬질꼬질해져서 볼품없다 못해 슬퍼 보이기까지 했다.메디엘의 생일 선물로 뭘 줘야할지 고민했던 나는, 결국 뻔하게도 또 손수건을 골랐다. 나도 이건 아닌데.. 성의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싶긴 했지만 이 세계에서는 그나마 전생에서 오빠를 상대로 익힌 남자 선물 센스마저 소용이 없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다.아니, 남들은 메디엘에게 도대체 선물로 뭘 주는 걸까? 전기 면도기도, 남성용 스킨도 없는 이 세상은 내가 센스를 발휘하기엔 너무 척박한 환경이다...변명은 해댔지만 아무리 그래도 생일 선물로 그냥 손수건은 너무 진부하다. 고민끝에 나는 손수건에 손수 이름을 새겨 넣어 주기로 결정했다.‘아 이건 좀 괜찮은 생각 같아. 여성스럽고, 적당히 신경 쓴 거 같아 보이고 말야. 게다가 이름정도야 뭐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 라고 생각했던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또, 주제에 오지랖은 얼마나 넓은지 나는 미카엘만 빼놓은 게 맘에 걸려서 미카엘 몫의 손수건도 준비해 버렸다. 미카엘이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그랬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메디엘의 생일엔 온 나라가 그의 탄생을 축하해 주는데, 미카엘은 본인도 생일을 모른다니! 그건 너무 쓸쓸해 보여서 나라도 축하해 주려고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 이딴 걸 받으면 더 마음이 씁쓸해 질 것 같다.나는 먼저 미카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을 시도해 보았었다. 그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혼자서. 결과는 참담했다. 나는 다시 괴롭게 손에 쥐었던 손수건을 펴 보았다.나는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수 밖에 없었다. 헉헉, 자신이 저지른 짓을 보는 데 이렇게 정신력이 깎여나가다니. 상당히 파괴력있는 작품이다. 처음에 예쁜 손수건을 만들어 주셨던 손수건 장인님 죄송해요. 제가 갈갈이 찢어버리는 것만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당신의 손수건을 정신 공격용 무기로 만들었다고요.나름 심각하고 진지하게 놓았던 수였다. 그나마도 메디엘의 철자보다 미카엘의 철자가 더 쉬워보여서 미카엘을 먼저 도전해 본건데... 이 거침없이 구겨진 손수건은 내가 얼마나 부여잡고 정성들여 한땀 한땀 놓았는가의 증거이다. 비록 작품의 꼬질함에 한 몫 톡톡히 해내고 있지만.‘아니, 어떻게 ’카‘가 ’귀‘자가 되었지?’정말로 미스테리하다. 내가 글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눈으로 보면서 본인이 놓은 건데...‘왜 엘의 'ㄹ'은 또 이렇게 도망나왔어...’‘ㄹ’이 은근슬쩍 ‘에’의 수하에서 한 발짝 엉덩이를 빼고 있다. 굉장히 자립심 강한 ‘ㄹ’이다. 그래, 미카엘의 ‘ㄹ’답다. 아주 강한 아이구나.나는 이제 허탈함에 웃음이 나올 정도이다. 하하하 어쩌지....하하하 어쩌지....‘역시 메디엘 손수건엔 수를 안놓는게 낫겠어. 그렇게 마음 먹고 수를 놓던 용품을 챙기는데 불쑥 정수리에 쏟아진 낯익은 목소리에 나는 심장이 떨어질 뻔했다.“미귀에에에르.”“꺄악! 깜짝이야!!!! 안돼!!! 벌써 봤어? 소리내서 읽지마!! 멍청아!”놀라서 지른 비명이 창피함에 터져나오는 비명으로 이어졌다. 미카엘이 언제 왔는지 내 바로 옆에서 서서 내 번민의 몸부림을 지켜보고 있던 것이다.그가 맑고 투명하게 하하하 웃어댔다. 언제부터 본거야? 내가 분해서 벌떡 일어나 그를 잡고 흔들어 댔다.“너 언제부터 와 있었던거야! 언제부터 봤어!”“안녕 라디? 네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손수건을 펼쳐본 다음 눈에 식초라도 튄 것처럼 진저리 칠 때부터 봤어.”“아주 하이라이트부터 봤네! 운도 좋으셔 진짜 웃기는 건 놓치질 않는다니까!”내가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화를 냈다. 저 노골적이면서도 사실감 넘치는 표현이라니! 아카데미에서 문학과목을 참 잘 가르치나 보다.“그게 뭐야 라디? 혹시 내 이름이야? 미귀에에에르 말야.”“끄아아아아아! 소리내서 말하지 말라고!!!”내가 치욕을 참지 못하고 그의 배에 주먹을 찔러넣었지만 오히려 이쪽의 주먹이 찡했다. '큭..' 신음을 참는 나에게 다가와, 그가 대견스럽다는 듯이 내 머리를 토닥거렸다.“어이쿠 라디, 제법이네. 그래 스피드는 좋았어. 근데 좀 더 체중을 실어서 때려야지. 그리고 방향은 좀더 위로, 그래 명치에 가깝게 때려주면 효과가 좋아. 라디가 좀더 강해진다면야 나도 걱정을 덜을 수 있을텐데.”나는 얼얼한 손을 털며 분을 감추지 못했다.“이렇게 체면이고 뭐고 난폭한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것마저 나만 데미지를 입다니...”미카엘이 내 머리를 토닥거리던 손으로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더니 씨익 웃었다.“라디. 그래서... 방금 내 이름을 새겨넣어준 거냐고 물었어.”“...그래. 비록 네 이름이 아니라 미귀에ㄹ이 되었지만.”내가 뚱해져서 손수건에 새긴 부분이 안보이게 접으며 말했다.미카엘은 단번에 활짝 웃으며 답했다.“대단하다! 진짜 내 이름을 새긴거야? 직접? 나 주려고? 나 말이지, 이름을 미귀에르로 바꿔도 상관없다는 기분이 들 정도야.”이 정도로 솔직하게 기뻐해 주면 이 보잘것 없는 선물을 준비한 쪽은 엄청 마음이 찡해지는 동시에 굉장한 자괴감이 들어버린다.“...미귀에르씨는 이쪽에서 정중하게 거절할게... 미카엘. 음...기뻐해 줘서 정말 고맙지만 일단 사과를 해야할 기분이야. 이 보잘것 없는 수는 정말 미안하게 되었어.”“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엄청 좋은데. 하하 근데 갑자기 선물은 왜 줘?”“네 생일 선물이야.”“뭐?...생일?”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그렇겠지, 내 맘대로 정한 거니까.나는 주저 주저하다가 불쑥 그의 손에 접힌 손수건을 올려놓고는 말했다.“생일 축하해 미카엘. 내 다소 난폭한 천사. 네가 태어나 준 것이 나에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해주고 싶었어.”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묵묵히 쳐다보았다. 나는 쑥스러움에 주절 주절 혼자서 말을 해나갔다.“생일을 모른다고 했었잖아? 너도 이맘때로 해. 네 머리빛깔같은 단풍이 드는 날로. 내가 축하해 줄 수 있게.”“...내 머리색은 그 정도로 밝고 예쁘진 않은데....”그가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손 위의 내가 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싸며 한 이야기였다. 확실히 그의 머리색은 붉은 빛이 강하게 들긴 해도 단풍잎의 새빨간 빨강보다 조금 어둡긴 하다. 하지만...“내 눈에는 햇빛아래 네 머리색이 어떤 붉은 빛보다도 예뻐. 그저 밖에서 햇볕을 받는 네 모습 자체가 나에겐 꿈만 같거든.”그가 마치 선물이란 것을 처음 받아 보는 꼬마처럼 손 위의 볼품없는 손수건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말했다.“...라디. 고마워. 너는 또 내가 세상을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네.”찬찬히 고개를 들어 마주친 시선은 너무 형형하게 빛나서 그의 원래 눈동자 색이 회색에 가까운 옅은 파랑이라는 것을 잊을 정도였다. 그가 또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나는 이제 한여름을 지나 얼굴에 쌀쌀한 바람이 닿기만 해도, 이전 보다 들뜬 기분으로 가을을 기대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준 ‘생일’ 때문에 말이야…꽤나 멋진 마법이구나 라디.”“...과, 과장해서 말해주기는... 겨우 그 조잡한 손수건 정도 가지고 말이야.”내가 부끄러워서 그가 보물처럼 감싸고 있는 손수건을 가르키며 말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자신의 손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키득거리며 말했다.“그래. 미귀에르라고 써있긴 하지.”“으아... 그 정신 공격은 몇 번을 받아도 자학하고 싶게 만든다고. 몇 번이고 부탁하는 거지만 제발 소리내서 읽지 말아줘.”내가 주먹으로 내 이마를 콩콩 치며 말했다.그러자 그는 천사처럼 환히 웃으며 대답했다.“그렇지만, 정말이지 사랑스러운 조잡함이야.” 내가 ‘에휴 그래 본인 좋다면야’라는 마음으로 다시 수련장의 벽에 기대 풀썩 앉았다. 너무 갑자기 흥분해 전력으로 미카엘을 대했더니 힘이 쭉 빠져버렸기 때문이다.미카엘은 내가 준 손수건을 꼭 부여잡은 채로 나를 따라 내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그런데 라디. 이제 아프지 않아?”“어. 하나도 안아프지 이젠. 끝났거든.”“그렇구나. 여자아이란 참 신기하네. ‘이제부터 어른입니다’ 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다니 말야.”미카엘은 정말 신기한 걸 보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내가 어딜 봐서 어른이야. 딱히 월경을 했다고 ‘어른’도장이 찍히는 건 아니라고.”내가 사실과 마주하기 싫어서 투덜대며 말했다. 그는 살며시 미소를 띠고선 나를 물끄러미 보다가 말했다.“그렇지만 이제부터 어른을 향해 달리는 거잖아?”“...달리기 싫어하는데 말이지... 어차피 다리도 절고.”내가 말꼬리를 잡고 딴소리를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그가 싱긋 웃었다.“어쩐지 달콤한 거 같아.”“응?”“네가 이제부터 빠르게 어른이 된다니까 말야.”그가 몸을 내쪽으로 천천히 숙여 얼굴을 내 어깨에 댔다. 나는 오늘 머리를 풀고 왔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내 머리 타래가 조금 닿았다. 그는 고개를 조금 돌려 나의 목덜미 쪽에 얼굴을 묻고 숨을 들이마셨다.“어쩐지 달콤한 향이 나는 것 같아.”그가 정말로 향기에 취한 것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이런 급작스러운 행동이 전처럼 당황스럽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아니었다.그는 내가 ‘역시 야수’라고 생각하게 할 만큼 솔직했고, 거침없고, 육감이 좋으며, 오감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물론 나에게서 정말 달콤한 향이 날리는 만무했다. 그저 그의 행동은 항상 이런 식이라는 것이다.나는 그가 내 몸 냄새를 맡으려 한다는 것이 부끄러워 그의 고개를 밀어내며 말했다.“미카엘! 기대는 거 까지는 어찌저찌 봐줄 수 있는데 무슨 냄새를 맡고 그래!”“음.. 그럼 기대서 아닌 척 하면서 냄새 맡아도 돼?”“그게 뭔 헛소리야...”내가 안된다고 외칠 기력이 다 떨어져서 그를 기가 막히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가 하하하 웃는데, 수련장 문이 열렸다.인상을 잔뜩 찡그린 레몬빛 왕자님이 들어오셨다.내가 아직도 내게 몸을 기대고 전혀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미카엘을 힘겹게 밀어낸 다음 일어서서 메디엘에게 인사를 했다.“왕국의 별을 뵙습니다.”“...뵙습니다.”나를 따라서 일어난 미카엘은 조그맣게 말하는 척 인사를 내 목소리에 립싱크 한 뒤 뒷말만 겨우 말했다. 미카엘... 이게 뭐라고 이렇게 대충하니....메디엘은 투덜투덜 대며 인사에 응했다.“네에. 제가 뵈었군요.”메디엘도 갈수록 인사에 대답을 성의없게 해 주는 것 같다는 건 착각인가?...메디엘은 곧장 미카엘을 쳐다보며 짜증스럽게 말했다.“미카엘 공. 또 이렇게 수업을 빼먹고 먼저 만나러 오신겁니까?”미카엘은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어? 잊으셨나 본데 저 아직 중급반 5학년이라서 왕자님보다 일찍 끝나요.”“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랑 똑같이 끝난다는거 이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아 그래요? 이런, 착각해서 일찍 나와버렸네.”“...혼자서 그렇게 당당히 가방 싸서 나와 놓고 무슨 착각이라는 겁니까.”메디엘이 방금 내가 미카엘에게 보냈던 기가 막히다는 표정과 아주 흡사한 표정을 했다. 미카엘은 기가 막힌 표정 수집가인가보다.메디엘이 진짜 본론은 이거라는 듯이 목소리 톤을 바꾸며 성질을 냈다.“게다가... 무슨 냄새를 맡니 어쩌니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요.”으익 역시 남이 들었다고 하니 부끄럽다. 내가 얼굴이 화끈해 져서 두 손으로 볼을 가리자 왕자는 더 화난 것처럼 미카엘에게 쏘아댔다.“설마 진짜 냄새를 맡았다고요? 냄새요? 어디요? 상식적으로 엄청 이상하게 들리는 거 아십니까?”“그냥 향기를 맡은 거에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가끔 맡아보고 싶지 않아요?”“음... 이 아니라! 맡아보고 싶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맡고 싶다고 정말로 맡는 게 말이 됩니까?" 메디엘이 잠깐 말문이 막히는 듯 하더니 다시 짜증스럽게 대꾸했다.내가 영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있어서 끼어들었다.“그러니까... 맡고는 싶다고요?”두 사람에게서 슬쩍 뒷걸음질 쳐 보았다. 진짜 쓸데없이 솔직하고 쓸데없이 이상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다.메디엘이 조금 붉어지며 멀어진 것 보다 더 가깝게 다가왔다.“사람을 대놓고 변질자처럼 보지 마십시오! 당신도 가만보면 엄청 무례한 구석이 있습니다?”미카엘이 재밌다는 듯이 웃어댔다.“하하하, 변질자라니...”내가 그를 지적했다."웃지마 미카엘. 왕자님이 변질자면 너는 변질왕자니까.""와아 나도 왕자다."미카엘은 장난꾸러기처럼 웃다가. 아직도 꼭 쥐고 있는 손수건을 내려다 보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사실 내가 왜 변태라는 건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가지만 어쨌든 변태들의 세계에서 왕으로 군림할땐 꼭 미귀에르라는 가명을 써야지.”그의 훌륭한 기습공격에 나는 또 작게 비명을 질렀다.“꺄아아! 그만 놀려먹으라고!”“이렇게 살짝 까먹을락 말락할 때 창피함을 되살려주면, 처음 놀렸을 때만큼 충격적이야. 그렇지 않아?”그가 변태 왕초답지 않게 순수하게 웃었다.메디엘은 더더욱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팔짱을 끼고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뭡니까. 또 무슨 나만 모르는 주제로 즐겁다는 듯이 대화를 해대고 있는 거예요 라디양.”어떤 동물을 먹어치울까 상공에서 맴도는 매같은 눈이었다. 무섭기 그지없다. 내가 분위기를 누그러 뜨리고 싶어서 얼른 대답했다.“엄...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방금 제가 진심으로 즐거워 보였어요?”“네. 뭡니까. 저 이상한 손수건이랑 관련된 겁니까.”아차! 생각해 보니까 생일 선물은 생일날, 본인이 예상못한 선물을 주는게 정석인데? 내가 왕자에게 둘러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순간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미카엘이 자랑스럽게 손수건을 왕자에게 펴보였다.또다시 휘날리는‘미 귀 에ㄹ’내가 황급히 미카엘의 앞을 막아서며 그 치욕을 부르는 저주의 손수건을 가렸다. 크악! 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니까 색다른 부끄러움이 샘솟는다.“안돼! 보지 마세요!! 보여주지 마! 자랑하지 마! 멍청아!!”내가 새빨개진 얼굴로 도리질을 했지만 왕자는 미간을 깊게 주름잡으며 내 전용 자살권유 단어를 읊었다.“...미귀에르?”“으헉!”결국 못버티고 얼굴을 가린 채 주저앉았다. 등 뒤에서 미카엘이 신나서 자랑하는 소리가 들렸다.“제 이름을 직접 새겨 주었어요! 생일선물로 말이죠.”“호오...”가린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수련장 바닥에 왕자의 구두가 보이는 듯 싶더니 불쑥 왕자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자기도 내 앞에서 쭈구리고 앉은 채 고개를 들이밀어 억지로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그가 씨익 웃으며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물론 제 것도 있겠죠?”오랜만에 느껴지는 온몸을 감싸는 위압감에 나는 약간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무, 물론이지요.”왕자는 인상을 단번에 풀며 예쁘게 웃었다. 그리고는 손바닥을 위로향한 손을 당당히 내밀었다.나는 비척 비척 일어나서 잘 접어 놓았던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미 ‘생일선물은 생일날 받으셔야죠’라는 말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기세였기 때문이다.그는 내가 손수건을 올려 놓자 마자 정말 기쁘다는 듯이 생긋 웃으며 답례의 말을 했다.“감사합니다. 라디양. 영광이네요.”그리고는 기대하는 듯한 표정으로 손수건을 펼쳤다. 손수건은 내가 봐도 참 그와 어울렸다. 그의 짙은 푸른 눈과 어울리는 예쁜 파랑색을 고심 끝에 고른 자신작이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손수건을 펴본 그는 순식간에 인상을 꾸겼다. 아 정말 그 분위기만으로 나를 죽이려는 줄 알았다.“...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라디양.”미카엘이 태평하게 웃어댔다.“하하하 수가 안 놓여있네?”미카엘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는 침묵했다.그러던 메디엘은 이내 자존심 상한다는 듯이 조용히 아랫입술을 물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본 나는 크게 당황했다. 그를 달래려고 허둥지둥 말했다. 메디엘 왕자님. 그, 그, 이름을 수놓는 건 미카엘을 써본 다음에 일부러 포기 한 건데요.”내 필사의 변명에 그는 말없이 자기 손에 놓인 손수건을 노려보았다. 정말로 분해 보여서 나는 죄책감이 들 정도였다. 아니, 정말 저 거지같이 놓인 수를 받고 싶은 거야?나는 정말로 그가 속상해 하지 않았으면 해서 한걸음 다가가 그의 손수건을 받치고 있는 두 손을 손수건과 함께 잡은 채 물었다.“와, 왕자님 정말 엉망인 수를 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건 거의 손수건을 못 쓰게 망치는 수준이라... 원래는 당연히 왕자님 이름도 새기려 했죠! 당연하죠 그건!”왕자가 내말에 고개를 든 다음 시선을 마주치며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그렇다면 엉망이라도 수를 놓은 것으로 다시 주세요.”손수건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내가 망연자실해서 말했다. 또 제 손으로 자살 유도장치를 만들라는 분부이십니까! 저에게 자비를. 손수건에게 자비를.“... 으흑 제가 왕자님께 어울리는 손수건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손수건을 제 손으로 망치라고 하시다니요...”“수 놓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어떻게 제 것만 그냥 주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수놓는 것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 처참한 결과 못보셨어요? 미귀에르라고요! 미귀에르!”내가 절망적으로 말하자 미카엘은 여전히 홀린 듯한 눈으로 자신의 손수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왜? 이게 어때서? 난 엄청 좋은데...”...아니 쟤는 내가 저걸 준지가 언젠데 아직도 손에 쥐고 있어...메디엘은 미카엘의 모습을 보더니 다시 휙하고 나에게 고개를 돌리곤 으르렁 대며 말했다.“수를 놓는다는 것은 정성과 꼼꼼함만 있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모르시는 말씀! 해보지도 않으시고선! 말로만이라면 저도 벌써 왕실 식탁보를 수놓고 있겠네요.”내 말에 메디엘은 자기 품에서 자신의 손수건을 꺼낸 뒤 자신만만하게 말했다.“하! 그럼 저도 놓아보지요. 바늘 한 개정도는 더 있으시겠지요?”아?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미카엘은 이번에는 자기만 빼고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다고 느꼈는지 자신도 참가 의사를 밝혔다.“뭐야. 나도 할래. 수놓는 정도야... 원래 바늘은 자주 쓰고 말이지.”...바늘을 어따 쓰는지는 물어보지 말아야지. 안돼 상상하지마 라디. 상상하지마.무척 기묘한 상황이 벌어져 버렸다.수련장 바닥에 주저앉아 양 옆의 커다란 청년 두 명이 수놓는데 열을 내기 시작했다. 한 명은 이 나라의 왕자였고, 한명은 전직 암살자길드 두목이었다.질 수 없어. 질 수 없어!아니, 져선 안 돼!나는 가슴속을 채우는 압박감을 느꼈다.‘말이 돼? 이 멤버에게 자수로 지다니. 이건 프라이드 문제라고!’나는 이제 한 발자국 뒤로 빼는 건 포기했다. 냉큼 메디엘의 손수건을 집어 들었다. 한 때는 학식과 교양으로 이름났던 박지아였다. 왕자님과 전직 암살자한테 자수로 지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내가 진지한 맘을 먹고 바늘에 실을 넣고 있는데, 왕자와 미카엘은 이미 묵묵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뭐지? 어떻게 이렇게 능숙한 거야? 난 당연히 한참 헤매다가 나한테 물어볼 줄 알았는데? 나는 천을 어느 손으로 잡고 바늘을 어떤 손으로 잡아야 쳔한지 자세 잡는데만도 한참 걸렸단 말야!흠... 아냐, 분명 초보자의 배짱으로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을 게 뻔해.나는 평정심을 되찾고 메디엘 왕자의 손수건의 진행상황을 훔쳐보았다.‘허? 이게뭐야?’나는 키득거리며 메디엘에게 깐죽댔다.“어머나 왕자님. 왕초보 주제에 너무 꿈만 원대한 거 아니신가요?”메디엘은 손수건에 큼지막하고 화려한 꽃을 초크로 그려놓았던 것이다. 분명 밑그림만큼은 매우 훌륭했다. 음, 왕자님 그림 실력은 뭐, 나름? 있으시네요. 그건 인정하죠. 하지만 그림과 자수는 달라요. 나는 확신했다. 이건 망함의 징조가 보인다.왕자는 나에게서 멀리 몸을 피하며 손수건을 숨겼다.“아 뭘 훔쳐보고 그러십니까.”까칠하게 투덜댔다. 메디엘 행동사전으로 풀이해 봤을 때, 이정도의 가벼운 까칠함이면 부끄럽다는 뜻이다.“초보자는 초보자 답게 이름정도나 도전하라고요! 예술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제 사례를 봐 놓고서도 그렇게 욕심이세요?”내가 선생님 말투로 그에게 조잘대자 그가 담담히 말했다.“당신의 사례가 특수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잠시 손을 멈추고 우리가 싸우던 모습을 보던 미카엘도 끼어들었다.“특수한 귀여움이죠! 미귀...”“넌 입 다물고 있어.”내가 신속히 악마의 단어를 저지했다. 내 얼마 남지 않은 자존감을 갉아먹는 단어였다.내가 킬킬대며 장난스럽게 웃는 미카엘쪽으로 고개를 밀어넣었다. 미카엘은 어떻게 하고 있으려나.“그러는 넌 시작이나 제대로 하고 있어?”“아. 나름 재밌는데?”그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손수건을 보여주었다. 밑그림 따윈 아예 그려져 있지도 않았고, 뭘 의도한 건지 짐작이 안가는 놓다만 수만이 있었다. 내가 황당해서 물었다.“음... 뭘 하려고 한 건데? 밑그림 안 그려?”나는 미카엘이 초크의 존재나, 밑그림의 단계도 아예 모르는 거 같아서 초크를 들어 그에게 건넸다. 그러나 그는 사양한다는 도리질을 할 뿐이었다.“필요 없을거 같아서.”“이건 또 무슨 자신감이실까.”내가 씨익 비웃었다. 하하 이 사람들 보게? 그래, 그럼 그렇지 괜히 이 수예를 우습게 보는 어리석은 남자들한테 스트레스 받았네. 꼭, 뭣도 모르는 것들이 더 입만 살았다니까?나는 미카엘에게 주려던 초크로 손수건에 조심스럽게 이름을 썼다.예쁜 글씨를 쓰기위해 바닥에 엎드려 무아지경에 있는데 뒤에서 미카엘의 목소리가 방해했다.“근데, 라디. 너 내꺼 해 줄때도 이렇게 먼저 분필로 쓰고 한 거야?”“당연하지.”“...음그렇다면 그 밑그림 작업은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내가 메디엘의 이름을 쓰는 동작을 멈추었다. 역시 내 착각이 아냐, 미카엘 녀석 역시 딴죽거는 게 많이 늘었어.그의 산뜻한 한마디가 나에게 말 못할 심란함을 주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미카엘은 싱글벙글 하며 다시 미귀에ㄹ 손수건을 펴보았다. 아 그것 좀 이제 그만 꺼냈으면...“아니다. 밑그림이 있어서 이정도 일지 몰라~ 밑그림이 없었다면 어떤 글씨였을... 아니지. 어떤 모습이었을까?”중간에 잠깐 말실수를 한 듯 단어를 바꾸는 것 하며,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저 표정하며 나무랄 데 없는 그의 정신 공격에 메디엘 마저 감탄하는 표정으로 말했다.“...미카엘 공 제법이시네요.”뭘 인정하고 있습니까 왕자님. 역시 저 두 사람은 은근 죽이 잘 맞는다.내가 뚱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왕자는 씨익 웃으며 나를 따라 옆에 엎드렸다.“라디양, 글씨는 잘 쓰시는군요.”상냥한 목소리를 내며 내 손수건을 살펴보았다. 그러다 말을 덧붙였다.“별로 의미 없겠지만 말이에요.”“쓸데없는 말은 안 붙여도 되는데요. 왕자님.”내가 투덜댔다.왕자는 내 빈정을 느긋한 웃음으로 넘기더니 초크를 들어 내가 쓴 글씨를 조금 두껍게 칠했다.“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수를 놓는 두께로 칠한 다음에 이 글씨 안을 채워넣는 다는 느낌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인정하기는 싫지만 확실히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제안이다. 아 왜 이걸 생각못했지? 엄청 당연한건데?’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이게 대답하려 했다.“무, 물론 저도 지금부터 그러려고 했어요! 기, 기초, 아니, 기본 이죠 그건?”자연스러운 대답에 실패했다.“예에 예에 물론 그러셨겠죠.”메디엘이 한손으로 턱을 괴고 내 머리를 난폭하게 토닥거렸다. 마치 삼촌이 조카에게 져준다는 태도다.역시 가깝게 붙어 앉아 내 손수건 상황을 확인하던 미카엘도 밝고 상냥하게 말했다.“오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좋겠네~ 라디? 왕자님이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야지.”이건 또 뭐야. 엄마냐? 예절 가르쳐주는 엄마냐고.내가 다시 몸을 일으켜서 앉았다.“아 됐어요. 뭐야 이 무시는. 본인 자수나 제대로 놓은 다음에 바보취급 해 보이시죠?”메디엘이 아직도 한쪽 손으로 턱을 괸 채로 나를 무심하게 쳐다보며 말했다.“아하, 제대로 놓으면 마음껏 바보취급해도 되는 거군요?”아이쿠, 이 둘 앞에서 이런 말실수를 하다니.미카엘도 나를 보며 순진하게 웃으며 말했다.“너를 위해서라면, 자수정도야 열심히 놓을 수 있지.”뭐가 나를 위해서라면이야....나를 '바보 취급하기' 위해서라고 제대로 말하란 말야. 둘은 말을 마친 후 짠 것처럼 자수에 집중했다.‘근데 이거 좀 웃기지 않아? 왜 기껏 시간내서 만난 다음에 각자 손수건만 쳐다보고 있지?’라는 지적은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하지 않았다. 모두 그딴 이성적인 말을 할 정신상태가 아녔기 때문이다.한참동안을 수에만 몰입하느라 우리 사이에는 말도 별로 오가지 않았다. 제일 먼저 정적을 깬 것은 나였다.“크핫, 다 했다.”나는 크게 외쳤다. 그 만큼 뿌듯한 결과로 보였기 때문이다.“오, 다 하셨습니까? 마침 저도 끝났습니다.”“나도 방금 다 했지.”메디엘과 미카엘이 흥미를 보이며 다가왔다. 음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제일 간단한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은 시간에 끝난 거지? 뭐, 뻔하지, 이 남정네들이야 얼마나 날림으로 했겠어?나는 자신있게 내 손수건을 펼쳐보였다.‘오오’라며 두 사람이 손뼉을 쳐 주었다.‘메 디 엘’이라고 남색에 가까운 손수건에 하얀 자수가 선명했다. 왕자가 기쁜 듯이 칭찬해 주었다.“와. 거보세요. 좀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예쁘게 잘 놓으셨네요.”“그냥 제 발전하는 속도가 빠른거죠 뭐.”내가 맘껏 우쭐댔다.그러나 곧 미카엘이 ‘어라?’ 하며 불길한 소리를 냈다.“근데 라디.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초크가루좀 털어내 볼래?”뭔데 뭔데. 왜 이래? 갑자기 스산한 기분이 든다.나는 “응? 그래...”라며 순순히 미카엘이 시키는 대로 했다. 팡!팡!하고 손수건을 털어낼수록 내가 수를 놓은 자수만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스스로의 행동을 성찰하게 된다.아차....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걸 몰라서 묻는 건 아니겠지. 물론 하얀 초크로 밑그림을 그리고 하얀 실로 자수를 놓을 때부터 잘못 된 거지 멍청아.분필의 화장을 벗고 민낯을 드러낸 나의 자수는 가까이서, 매우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아준다면 아직도 ‘메디엘’이긴 했다. 그러나 글씨의 굵기가 너무 제멋대로라, 가느다란 부분은 너무 가늘어서 필기체를 휘갈겨 쓸 때 연결된 부분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게다가 ‘메’의 ‘ㅁ’는 각이 너무 둥그스름해서 ‘ㅇ’처럼 보여버렸다.따라서 그 자수를 본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읽고 싶어지는 것이었다.‘어 디 엔’분필가루를 털어내는 도중에 이미 미카엘은 폭소하기 시작했다. 참 눈도 좋지....내가 깔끔하게 된 손수건을 부여잡고 잠시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데, 메디엘이 애써 나오는 웃음을 참으려고 하며 고급스러운 비꼼을 시전했다.“뭔가 여운있어보이고 좋네요. 어디엔... 이라... ‘어디엔가’를 말하려다 차마 끝말을 잇지 못한듯도 하네요.”어른스러운 말투로 끝마치고서는 결국 크게 하하하 웃어댔다.내가 참지 못하고 왕자에게 화를 냈다.“으아아아! 다 왕자님 탓이에요! 그놈의 굵은 초크 선 때문에 제가 어떻게 놓고 있는지 헷갈렸잖아요!!!”“하하하하!”내 외침에도 왕자는 호탕하게 웃을 뿐이었다.“듣고는 있어요?”“하하하하! 하, 하아... 흑...”그가 숨이 웃음을 따라가기 힘든지 입을 막더니 조금 흐느끼는 소리를 냈다.왕자는 결국 또 울어버리려는 모양이다. 젠장. 웃지마!! 나는 소심하게도 속으로 악담을 해댔다.한참 웃던 미카엘은 정신을 차리고 멍한 얼굴로 시같은 짧은 구절을 읊었다.“어디엔이 말했다. 어디에 놓았더라? 어디엔이라고 쓰인 내 손수건이 어디엔가 있을텐데? 어딘지 못봤니? 어디엔가...”“아악! 그만해!”‘어디’가 도대체 몇 번 들어간 구절인거야!“하흑..하하... 윽!”메디엘은 이제 언뜻보기엔 정말 슬퍼서 통곡하는 사람같았다.“당신도 그만해요!”내가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변명을 해댔다.“그, 그래! 맞아 생각해 보니. 나 몸이 불편했잖아?! 이런 섬세한 활동은 무리였던 거에요!”“하하..그래, 라디 그럴지도 몰라. 하하!”, “하하, 네에...하윽!....”내 필사의 변명을 듣고서도 둘은 시큰둥한 반응 반, 웃음 반으로만 대꾸했다.“그림도 그리는데 바느질은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차라리 딴지를 걸어!”견디지 못한 나는 끝내 스스로 내 말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약이 올라서 왕자의 손수건을 낚아챘다. 그를 향해 내 최대한의 비뚤어진 웃음을 보내주었다.“하하~ 언제까지 그렇게 웃을 수 있으실까요? 왕자님은 얼마나 잘하셨...잘하... 잘하셨네요....”나는 두 눈을 의심했다. 내 손에 들린 그의 손수건에는 고풍스러운 멋이 있는 꽃이 화려하게 수놓아 져 있었다.왕자가 방금까지 흐트러진 모습으로 격하게 웃던 자신의 몸가짐을 정리했다. 눈물을 닦으며 내 칭찬에 답했다.“감사합니다. 라디양. 수는 처음 놓아보았지만, 확실히 꽤 까다로운 작업이군요.”점잖게 말했지만 얼굴에 써 있었다. ‘빨리, 더 크게, 호들갑스럽게 놀라줘.’나는 이 현실의 부조리함에 말을 잃었다. 내 한 손에는 내가 놓은 ‘어디엔’ 손수건이, 한 손에는 왕자의 탐스런 함박꽃 손수건이 들려있었다.“하하하하.”끝내는 나도 호탕한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다.내 웃음을 보고 왕자도 마주보고 느긋하게 웃어보였다. ‘그래 나도 이 상황이 웃겨’라는 표정이다. 말도 안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자꾸 새어나온다.“왕자님.. 이게 말이 돼요?”“그러게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놓았네요.”미카엘도 다가와서 왕자의 솜씨를 구경했다.“우와. 솔직히 이건 좀 대단해 보이네요.”그답지 않게 남에게 후한 칭찬을 할 정도인 작품이었다.나는 다시 찬찬히 그가 놓은 수를 살폈다. 분명히 나와 같은 실을 썼는데 그는 오묘한 그라데이션까지 넣어서 완벽하게 꽃을 표현했다.다시 내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수를 놓기 전보다 훨씬 후줄근해 진데다, 이 볼품없는 글씨라니! 기껏 이름을 새겨주었지만 왕자님이 만약 이 수건을 잃어버린다 해도 주운사람이 결코 주인을 찾아줄 수 없을 것이다. 어딘가의 어디엔씨에게 가면 모를까, 메디엘의 품으로 돌아오진 않겠지. 이거 고칠 순 없을까? 그래, 잘하면 평범하게는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내가 쪽가위를 가지고선 흥분해서 말했다.“글씨가 얇은 쪽을 좀 고치면 괜찮아 질지도 모르겠어요!”너무 가늘게 수놓아져진 쪽을 제거한 후 다시 작업할 생각으로 내가 손을 덜덜 떨며 쪽가위를 갖다 대려하자 왕자가 다급하게 저지했다.“거짓말 마요! 실수인 척 찢어서 인멸해 버리려는 거죠!?!”으잉? 어떻게 그런 난폭한 생각을? 하지만 꽤 좋은 생각처럼 들리네.“음,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 방법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나는 가볍게 대꾸하고 다시 떨리는 마음으로 손수건을 수선하려 했다.그러자 왕자는 내 손의 ‘어디엔’ 수건을 날렵하게 빼갔다. 내가 그와 너무 비교가 되는 그 손수건에 얼굴을 조금 붉히자 그가 요염하게 웃으며 말했다.“이건 이미 제 것이잖아요? 감사히 받겠어요 라디양. 답례로 그 손수건은 드릴께요.”“어? 제게 주신다고요?”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손수건을 고쳐보려던 생각은 잊고 다시 왕자님이 수놓은 손수건을 들여다 보았다.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존재감이 왕자님과 꼭 닮았다. 옆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수를 놓았던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기쁘다. 새삼스러운 감동에 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어.. 엄청 기뻐요! 저기, 정말 감사해요.”“이거 받았으니까 드리는 건데요 뭘.”메디엘은 싱긋 웃으며 자신이 받은 손수건을 짠 하고 펼쳐 보였다. 으악. 아무리 봐도 어디엔이라고 밖에 안 읽힌다. 음? 게다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냥 얼떨떨하게 넘어가긴 했지만 말야. 생일 선물의 답례? 생일이니까 선물을 준건데 거기에 또 답례?“왕자님! 근데...”내가 역시 이건 좀 이상한 거 같다고 말하려는데 미카엘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말을 똑바로 할 수 없었다.“아!! 나도 라디한테 주려고 한건데! 아... 선수 뺏겨버렸네...”미카엘이 자신의 손수건을 살짝 내 손 위에 올려놓았다.“우왓 미카엘도? 고마워! 정말로!”미카엘은 어떻게 수를 놓았을까? 두근거려하며 손수건을 펼쳤다. 방금하려던 말은 또 잠시 잊고 말았다.“헉, 장난아니다.... 이거 뭐야?”나는 그가 놓은 수가 혹시 프린팅 된 것이 아닌가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는 손수건에 크기와 색이 다른 동그라미를 보기 좋게 뿌려놓은 것처럼 수를 놓았던 것이다. 밑그림도 안 그리고 한 것인데도 너무 완벽한 동그라미라 마치 컴퓨터 작업을 한 것 같았다. 메디엘의 작품이 클래식한 멋이 있다면 미카엘의 것은 귀여우면서도 심플한 세련미가 있었다. 무늬의 색감이나 배치도 완벽해서 나도모르게 계속 보게 된다.미카엘은 살짝 수줍어하며 말했다.“음.... 저기, 얼마전까지만 해도 손수건 같은 건 갖고 다니지 않았지만 말이지... 없으니까 불편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즘 챙겨다니긴 하는데, 왕자님 것에 비교하면 아무래도 별로겠지만....”미카엘은 뭔가 뉘앙스를 잘못 캐치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아니, 아니! 이 손수건 뭐냐고 묻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이렇게 자수를 예쁘게 놓았느냐고 감탄한 거잖아. ...대단하다 미카엘.”그제서야 미카엘은 만면에 포만감이 엿보이는 예쁜 미소를 지었다.메디엘이 내 뒤로 다가 와서 같이 미카엘의 손수건을 감상했다.“허, 정말 사람이 한 거 같지 않네요.”“그쵸, 그린 건줄 알았어요.”“이렇게 완벽한 원은 그리기도 힘들 것 같은데...”왕자님까지 순순히 미카엘을 칭찬해 준다.미카엘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동그라미를 수놓는 거, 꽤 재미있었어. 조금은 나도 모르게 푹 빠질 정도로.”무아지경으로 원을 만들어 가는 남자라니, 약간 무섭잖아 미카엘...나는 양손의 화려한 손수건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다.“모두들 엄청나다.... 나만 빼고.”이정도의 실력차이라니, 분해하기도 뭐하다. 하지만 한가지 변명거리가 있지. 내가 수예의 세계를 모르긴 몰라도, 얘네가 좀 유별나게 잘 하는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겠다.나는 콧김을 세차게 내뿜으며 끄덕거렸다.“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거야. 분명 나는 평범한 정도라고요.”미카엘이 내 머리를 상냥하게 쓰다듬었다.“오 가여운 라디. 그래 그래. 넌 보통이지 보통이야.”메디엘도 ‘그럼요.’라고 맞장구 친 다음에 ‘어디엔’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는 척 했다.미카엘도 그 모습을 보고 ‘미귀에ㄹ’ 손수건을 꺼내서 든 다음 엄숙하게 말했다.“그대의 손재주에 애도를 표합니다.”“안 죽었어!!! 아무것도 안죽었어!”다들 뭐하나 했네, 너무 급박하고 무례한 상황극이잖아? 내 손재주 장례식장이었어? 여기? 언제부터?내가 성을 내자 두 소년은 키득거리며 웃었다. 모두 한 손에는 구질구질한 손수건이 들린 채다. 아참, 말하는 거 잊을 뻔했네.“아! 근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생일 선물을 드린 건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답례를 하면 어떡해요.”미카엘은 내 말을 듣고 다시 소중한 것을 보는 듯이 손수건을 두 손으로 공손히 펴서 살피며 대답했다.“괜찮지 않을까.”메디엘도 느긋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동의했다.“네, 당신 선물의 사랑스러움이 너무 대단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거스름돈이라고 생각하세요.”그 말을 듣고선 나는 다시 ‘거스름 돈’을 내려다 보았다.화려하기 그지없는 꽃과 알록달록 사랑스러운 물방울무늬. ‘어디엔’과 ‘미귀에ㄹ'를 주고 받아온 거스름 돈이었다.“이런식으로 장사를 하다가는 이나라 제일의 부자가 되겠어요.”나는 손수건에서 그들의 상냥함이 흘러 넘칠까봐 꼭 부여잡으며 겨우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 “뭐? 코우젠타 양도 왕자님 생일 파티에 오시는 거였어?”황궁으로 가는 마차안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사실에 놀라 외쳤다. 우리 가족은 지금 왕자님의 생일 파티에 가는 중이다. 간간히 덜컹거리는 마차에 우리 형제가 모두 타고 있었다. 휴리안, 제르다민, 헬리오, 윌로우까지. 나의 남자형제들은 모두 맵시있는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멋을 냈다. 부모님은 앞선 마차로 여유있게 두분이서 움직이고 계셨다.완벽한 휴리안 오빠는 오늘 유난히 더 빛이 나는 것 같은 미소를 띠고서 대답해 주었다.“응, 코우젠타양이 굳이 안 오실 이유가 없잖아.”“그거야 그렇지만...그러게? 왜 난 코우젠타양을 처음 만날 때는 그 분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라고만 생각했을까?”허어.. 드디어 오늘 보게 되겠구나 코우젠타양. 소문의 약혼자. 어떤 사람일까?제르다민이 피식 비웃으며 빈정댔다.“그녀를 보기 싫은 맘에 애써 사실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엥 나 별로 코우젠타양이 싫다거나 그렇지 않은데?”나는 그의 말이 뜬금없다고 느껴져서 바로 반박했다.제르다민은 평소에는 느슨하게 묶어 어께에 대충 걸쳐놓았던 그의 은발을 단정하게 바짝 묶었다. 덕분에 더 날카로운 무사의 느낌이다. 실제로는 무에는 전혀 관심 없는 뼛속까지 학자체질이면서 말이다. 그가 무시하는 눈빛을 돌려 관심없다는 듯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글쎄다... 그렇다면 좋아한다고는 할 수 있을까.”“안 좋아한다고 다 싫어한다고는 할 수 없어. 이 막힌 영감아.”제르다민이 창가에 턱을 괸채로 기분 나쁘다는 듯이 나를 내려다보았다.“지금 나한테 영감이라고 했냐, 이 덜떨어진 분홍종자야.”“머리도 하얗고 마인드도 완전 구식인데 뭐.”“....”그가 말없이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히죽 웃으며 한번 더 깐죽댔다."왜, 노안이 와서 잘 안보여? 영감?"내가 과장되게 이죽이죽 우스며 '이건 보여?' 하고 손을 흔들자, 윌로우가 조심스럽게 나를 막았다.“그만해. 부모님께 감사해야해 라디.”“부모님?”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묻자 헬리오가 멋쩍게 웃으며 대신 대답했다.“부모님 이랑 같이 가는 거 아니었으면 니 시체랑 무도회에 갈뻔 했다고.”아, 지금 제르다민이 부모님 때문에 날 안죽이고 있다는거야? 친절한 오빠들? 알았어 얌전히 있을게.나는 맞은편에서 나를 보며 싱긋 웃는 휴리안에게 답으로 히죽 웃어보인 다음에 마차의 푹신한 의자에 엉덩이를 깊게 밀어놓고 앉았다. 그렇게 하니까 안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닿던 다리가 아예 닿지를 않는다. 주기적으로 덜컹거리는 마차에 맞춰 다리가 흔들거린다. 이전에는 못 느끼던 묘한 느낌이라, 왠지 어색하다. 오늘은 메디엘 왕자님의 생일파티이긴 해도 아마 왕자랑은 그다지 시간을 못 보낼 것이다. 그는 무지 바쁠테니까.미카엘은 오늘 파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메디엘은 무심하게 미카엘에게 ‘미카엘공도 시간되면 오시죠?’라고 지나가는 말로 권유를 했었다. 메디엘은 ‘무심하게’를 한껏 강조해서 말해보려고 노력한 것 같았지만 내가 볼 땐 무척 고민하고, 쑥스러워 하다가 슬쩍 타이밍 맞추어서 말한 것이었다.그러나 미카엘은 그런 메디엘의 남모르는 수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매우 가볍게 ‘아뇨 괜찮습니다.’라고 거절했다. 미카엘... 그래도 이나라 왕자님이 생일파티에 직접 초대해 준거라고?! 속으로 내가 살짝 지적했지만 미카엘은 전혀 거리낌 없는 태도였다. 메디엘은 ‘흥’이라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아? 그럼 그러시던가.’하며 없던 일로 쳤다.나중에 미카엘에게 따로 그냥 파티에 참석하지 그랬느냐고 묻자 미카엘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대답했다.“그런데 나가면 일하기 엄청 귀찮아지잖아?”“어? 음? 아~ 왕자님 생일날 일 들어왔어?”내가 대충 짐작해서 그의 말을 해석해 보자 미카엘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내 말을 부정했다.“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나서서 얼굴 알리고 다니면 혹시 일할 때 불편할 수도 있잖아. 되도록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 난.”“음.... 그 말은... 너 요즘에도 사람 죽이라니....아니, 처리...아니 아니.. 암살...아 모르겠다. 아무튼 그 일 하는 거야?”이제 그 일은 접은 줄 알았는데? 뜻밖의 사실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티끌없는 미소로 답했다.“아, 암살 길드는 이제 운영안하지만... 뭐, 그냥 따로 해볼까~ 하는 일이 있어서.”“그래... 부디 몸 좀 사리면서 지내.”그가 자세히 말하는 것은 꺼려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만 말하고 그를 보내주었다. 아무튼간 미카엘은 아직도 얼굴을 알리고 사람을 사귀는 일은 꺼려지나 보다.“황궁에 도착하셨습니다.”마부의 알리는 소리를 듣고 몸을 쭉 폈다. 사실상 내가 이곳에 와서는 처음으로 겪는 사교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조금 떨리는 것도 같다. 그래봤자 정식으론 성인식도 안 치른 채라서 그저 공작가 타이틀 덕분에 초대된 곁다리지만.저녁이라 어스름하게 깔린 어둠 가운데 황궁이 금으로 지어진 성처럼 노르스름하게 빛났다. 여기저기 입장객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등불이 켜져서 반짝거렸다. 호박으로 만든 보석으로 착각할 것만 같았다.시종이 마차의 문을 예의바르게 열어주었다. 휴리안 오빠가 먼저 내려서 내가 내리기 쉽도록 손을 잡아주었다.“레이디, 깜박 잊고 말 안했는데요. 오늘 참 사랑스러우시네요.”휴리안이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칭찬한다.“미모로 오빠한테 졌어. 참으로 원통합니다. 신사분, 레이디들을 위해 조금만 못생겨질 마음은 없으신가요?”파티가 열리는 홀로 팔짱을 낀 채 걸음을 옮기는 우리는 시시한 농담 따먹기를 해댔다. 휴리안은 하하하 웃으며 비밀스럽게 말했다.“이 영광의 자리는 아가씨가 조금만 크면 분명 아가씨에게 뺏기고 말거에요. 라디는 엄청난 미인이 될 테니까.”그의 치켜세워 올려주는 말에 부끄러움 반 기분좋음 반으로 웃으며 올려다 보니까 오빠는 따라 웃으며 내 볼을 살짝 쓰다듬었다. 문지기가 지키는 홀의 입구 앞이었다.먼저 온 엄마와 아빠가 우리를 뒤돌아 보셨다. 두 분 다 멋진 모습이셨다. 화려한 옷에도 지지 않는 뛰어난 미모의 엄마는 장난스럽게 속삭이셨다.“자 아가들아, 지금부터 우리집에 얼마나 대단한 미남 미녀들만 있는지 자랑할 거란다. 고개를 쭉 펴고 건방진 표정을 지어주렴.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 할 수밖에 없을 거야.”후후후 하고 소녀같이 웃은 엄마는 다시 우아한 자태로 아빠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정면을 응시했다.시종이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우리가 도착한 것을 모두에게 알렸다.부모님이 먼저 앞장서서 입장하시고 연이어 휴리안 오빠와 내가 팔짱을 낀채 들어섰다. 제르다민과 헬리오 윌로우도 허리를 쭉 피고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느껴진다. 휴리안 오빠를 흘끔 올려다보았다. 그래, 나라도 나의 형제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을 것이다. 이 고고한 자태, 섬세한 아름다움. 뺨을 물들인 숙녀들이 소곤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나이가 찬 딸들을 가진 귀족들에게도 너무나 달콤한 유혹일 것이다. 나의 형제들은.왠지 나까지 으쓱한 마음에 걸음을 옮기다가 바닥을 짚는 스틱이 마음에 걸린다. 조금 조용히 짚어보려고 고개를 숙이니까 하늘 하늘 내 머리카락이 시야에 들어온다. 여전히 이상한 분홍빛이다. 나도 모르게 손을 올려 뒷머리를 다듬는 척을 한다. 다듬는다고 할 만큼 머리장식을 할 만한 게 없는데도. 아 가려버리고 싶다. 이 바보같은 분홍색. 이 시끄러운 지팡이.“머리 제대로 귀엽게 되어 있어.”대뜸 휴리안이 내 손을 치우며 속삭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서 조금 웅얼거리며 대답했다.“으응, 왠지 신경쓰여서.”그가 허리를 굽혀서 나와 시선을 맞추고는 장난스럽게 웃는다.“봐봐 라디가 너무 귀여워서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아니,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명 오빠들한테 정신 못차리고 있는거야.그렇게 생각하지만 히죽 웃음이 나와 버린다. 적어도 휴리안 만큼은 내가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 주고 있는 거겠지. 머리를 만지던 손을 내려서 오빠 손을 꼭 잡고 말했다.“분명히 내가 치근덕 거려도 상관없다고 한 건 오빠였다?”“아~ 이 조그마한 꼬맹이랑 오해받고 싶어서 죽겠다.”그가 그답지 않게 어린 소년같이 웃으며 키득 거렸다. 우리는 엄마 아빠를 따라 여러 사람에게 인사를 다녀야 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쁜 웃음을 유지하며 의미 없는 말을 해대는 것은 역시 힘들다. 익숙한 일이긴 해도 말이다.헬리오 형제가 이런 파티나 황궁에 오는 것을 질색해 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이 진한 블론드의 반짝 반짝 빛나는 형제는 평소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못 견뎌 했다. 하지만 믿음직 스럽게도 막상 사교계에 나오자 싫은 기색 하나 없이 방긋 방긋 잘 웃고 있다. 윌로우도 다시 보인다. 어머나 너희들 어른이었구나네 번째 무리들과의 안부를 인사를 끝냈을 때였다. 마침내 나의 흥미를 끄는 가문과 만날 수 있었다. 아르테 백작가였다. 그렇다. 코우젠타양과 만난 것이다.“프랑디아 공작님, 그리고 레이디 프랑디아. 면목없게도 이런 자리를 빌어 인사드립니다.”코우젠타의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이 공손하게 절했다. 우리 가족도 답례로 각자 인사를 했다. 인사를 하는 백작 부처의 뒤로 말없이 살짝 미소를 띤 채 서있는 저 아가씨가 아마 코우젠타겠지. 아르테 백작가문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겠지만, 분위기상 분명하다. 나는 확신을 갖고 유심히 관찰했다.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밝은 빛의 황갈색 머리를 웨이브를 넣어 길게 늘어트린 그녀는 언뜻 보아도 기품 있는 자태였다. 공손히 인사를 하느라 내리깐 시선 아래로 은은한 미소가 보였다. 인사를 마치고 고개를 살풋 든 그녀는 누군가와 시선을 마주친 뒤 마치 장미처럼 활짝 웃었다. 방금까지는 절제된 표정과 얌전한 몸가짐 때문에 어른스럽다는 인상이었는데, 이렇게 웃으니 그냥 그 나이대의 소녀 같았다. 사랑에 빠진 귀여운 소녀 말이다. 누구와 눈이 마주치고 저렇게 웃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 휴리안 이다.지금 휴리안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뒤돌아서 보고 싶은 호기심이 강하게 들었지만 애써 참았다.어른들끼리 말씀을 나누느라 옆으로 비껴 서자, 우리 형제에게 코우젠타양이 천천히 걸어왔다.“부끄럽게도 저 코우젠타 아르테, 이제야 인사드립니다.”다시한번 그 은은한 목소리를 울려 인사를 했다. 잔잔한 미소가 가냘펐다.휴리안이 무결점의 인사로 답한 뒤 코우젠타의 곁으로 다가갔다. 뒤에서 느껴지던 존재감이 없어지자 조금 추운듯한 기분이 들었다.“제가 무신경해서 먼저 인사를 하시게 만들었군요. 죄송합니다. 코우젠타 양. 제 실례를 용서하시길.”오빠가 그녀와 시선을 마주치며 살짝 목례했다. 코우젠타는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살짝 고개를 가로 지으며 웃었다. 그 황홀한 미소는 보는 이마저 볼을 물들이게 만들만큼 사랑이 묻어나고 있었다. 오빠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그녀에게 소개했다.코우젠타는 한명 한명 눈을 마주치며 눈인사를 보냈다. 레이디의 교본같은 몸동작 이었다.“그리고 이쪽이 바로 라디올러스. 제 여동생이에요 코우젠타 양.”오빠가 나를 소개하는 말을 하자, 그녀와 눈이 마주 쳤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색과 잘 어울리는 녹색 눈동자를 가졌다. 예쁜 색이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녀가 입을 열었다.“어머나, 정말 듣던 대로 사랑스러운 핑크색이네요.”그렇게 감탄하는 그녀는 분명 방금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몸동작 이었는데 이상하게 호감이 가진 않았다. 나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려 애쓰며 답했다.“코우젠타 양이야 말로 이런 미모라니! 휴리안 오빠는 복도 많네요.”휴리안은 하하 웃으며 답했다.“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라디, 항상 느끼는 건데 너 그 미묘한 애늙은이 말투는 정말 어디서 배운거야.”“그냥 내 말투야. 애늙은이라고 하지마. 오빠가 훨씬 늙었으면서.”내가 담담히 핀잔을 주자 오빠는 ‘알았다 알았어.’라며 손가락을 튕기듯이 내 볼을 쿡쿡 찔렀다.그 모습을 코우젠타는 옅은 미소로 계속 바라보고만 있었다.오빠도 역시 신경쓰이는 걸까? 저 애타는 눈길이? 그래서 일부러 등 돌리고 나한테 시시한 장난치고 있는걸까? 거짓으로 그녀의 호의에 답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는 늘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거리를 둔다.혼자 멀뚱히 서있는 코우젠타한테 나라도 뭔가 말을 붙여야 하나 고민했다. 다행이도 코우젠타의 부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려는 기색을 보였다. 백작이 코우젠타를 불렀다.“음... 어떠니 코우젠타. 우리는 이제 테젠 공작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생각인데... 넌 휴리안 공과 더 할 이야기가 남았을려나?”휴리안을 힐끔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묻자 코우젠타는 우아하게 그렇지 않다는 모션을 취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어 공손히 인사했다.“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부족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즐거운 파티보내시길.”말을 끝낸 그녀는 우리의 인사를 받은 다음 발을 움직이는 기척이 안느껴질 정도로 천천히 미끄러지듯이 백작 부처를 따라 떠나갔다.제르다민이 짧게 웃은 다음 나에게 들릴 정도로만 말했다.“하! 거봐. 휴리안 형님한테 꽤 잘 어울리지? 무엇보다도 광신도답지 않게 자기 주제를 잘 알고있어.”나는 너무 적나라한 그녀에 대한 평가에 조금 미간을 찌푸렸다.“어우 오빠. 못되게 말하는 건 나정도로만 해.”“뭐가 못되게 말했다는 거야. 객관적인 사실만 말하고 있잖아. 그리고 너도 주제 좀 알고 내가 말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아주 남 욕할 때만 입이 트이시죠? 평소에도 이렇게 살갑게 말좀 붙여주시지."“...분홍아 지금 아무도 우리를 안 보고 있네. 바로 지금인건가?”제르다민이 무표정하게 새를 사냥하는 고양이처럼 한발 다가서자, 위기를 느낀 나는 한발 물러나며 다급하게 화제를 돌렸다.“음, 음, 근데 오빠는 코우젠타 양이 꽤나 맘에 들었나봐? 저번부터 긍정적인 평가네?”오빠는 이제 이 화제에는 좀 질렸는지 흥미가 없다는 말투로 느릿하게 대답했다.“뭐... 가문도 괜찮고, 평판도 좋고... 너도 봐서 알겠지만 품행이며 외모며 나무랄데 없잖아? 코우젠타 양이 허들이 높다보니까 다른 집 영애들이 어설프게 안 달라붙어서 형님도 꽤 편해하는 눈치야. 게다가 오늘처럼 빠질 타이밍을 잘 알거든. 산뜻하지.”산뜻한건가. 이게... 그렇게 달콤하고 불타는 듯한 눈빛을 숨기지 못할 정도인데,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훌쩍 떠나준다. 사실은 옆에 있고 싶을텐데. 그런 행동은 산뜻하다기 보다 조금 슬프다.오빠를 뺏겼다는 생각과 코우젠타에 대한 미묘한 동정심이 나도 분간 못할 만큼 섞인다. 어쩌고 싶은 걸까 나는. 내가 감히 코우젠타양을 안쓰럽다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 복잡한 심경을 곱씹고 있는데 웅장한 관현악기의 소리가 홀에 퍼졌다.오늘 파티의 주인공과 가족들이 등장한 것이다. 홀의 한쪽벽면의 높은 단에 왕족들이 위엄을 떨치며 오른다. 화려한 휘장과 너무나 섬세해서 덧없는 샹드리에에 지지않는 짙은 존재감으로 그들은 그곳에 서 있었다.홀 내는 일순 경건한 정적이 흐르고 모두들 허리를 굽혀 그들에게 존경을 표했다. 국왕폐하가 자신의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오늘의 폐하는 내가 평소에 보던 피곤에 지친 아저씨가 아니었다. 이 그레펠 국의 황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한사람이었다. 그가 담담히, 하지만 귀가 아니라 심장에 들리는 것처럼 묵직하게 축사를 시작했다.“신이시여, 부디 나의 아들이 지혜를 거듭하게 하소서. 모든 이가 사랑으로써 그 이름을 입에 담게 하소서.”짧은 기도였다.그러나 모두 홀린 것처럼 박수를 쳤다. 모두 저 임금의 위엄이 마치 자신의 프라이드인 것처럼 벅찬 마음이었다.생일을 맞은 메디엘은 저 높은 단 위에서 이상적인 왕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여유있게 살짝 쳐진 눈이었지만 짙은 푸름이 날카롭게 빛났다. 고고한 차기 국왕은 자신의 아버지의 애정어린 축사를 만족스럽게 받는 눈치였다.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었다는 것이 기쁘다. 소박하게도 그런 기분이었다.임금님의 옆에 당연스레 서있는 여성이 왕비일 것이다. 메디엘의 어머니는 처음 본다. 몸이 약하시다더니 정말인 것 같았다. 그녀도 직계 왕가 출신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때문에 메디엘과 같은 옅은 금발이었는데, 매우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파리했다. 결국 국왕과 그녀는 우리 부모님과 몇몇 높은 위치의 사람들의 인사만 받고는 돌아갔다.우리 형제들은 국왕 폐하와 대화를 나누시는 부모님 때문에 왕가 사람들 근처까지 다가갔다. 혹시 메디엘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어서 기회를 노렸지만, 나같은 애송이에게까지 순서가 돌아오기엔 높으신 양반들이 너무 많았다. 살짝 까치발을 들어 메디엘을 살펴보는 나에게는 대신, 공주님이 다가왔다.사랑스런 미소의 마리안. 메디엘의 여동생이자 천사같은 소녀. 오랜만이다. 마리안은 오늘 그녀의 투명하리만치 깨끗한 금발에 어울리는 연한 핑크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섬세하고 풍성한 프릴이 많은 드레스여서 공주는 마치 동화책 삽화의 공주, 그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한 것 같았다. 내가 그녀를 눈치채고 재빨리 인사를 건넸다.“그레펠의 꽃을 프랑디아 라디올러스가 뵙습니다.”“오랜만이에요 라디양. 왕국의 꽃은 저보다 라디양이 더 어울리는 호칭같네요. 이 귀여운 색이라니.”인형같은 외모의 그녀는 자그마하게 웃으며 답했다. 여전히 이 천진난만함이 화사하면서도 부러웠다. 허나 예전만큼 마리안이 거북하지는 않았다. 사랑받고 싶어서 아등바등 노력할 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녀에게 감탄하면서도 나도모르게 가슴속에서 불쾌한 감정이 생겨서 자괴감 때문에 공주를 대하기가 힘들었었다. 그 집착을 조금 내려놓은 지금은 그녀가 그저 예뻐 보이고 그녀를 닮고 싶은 마음뿐이다.그녀에게 순수한 동경의 마음으로 웃어보였다.“제가 공주님을 제치고 왕국의 꽃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남들이 비웃어요.”나도 공주처럼 누구에게나 순진한 웃음을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마리안은 그 큰 눈을 조금 동그랗게 만들더니 활짝 웃으며 나에게 바짝 다가왔다. 그녀의 뜻밖의 행동에 나는 뒷걸음 질을 치려 했으나 공주는 마치 나를 껴안듯이 어깨를 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그녀가 다가오자 달콤한 향기가 났다. 라벤더인가? 마리안은 내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살짝 말했다.“라디양, 이제 나 별로 안 싫어하네요?”기쁜 듯이 후후후 웃으며 다시 얼굴을 마주했다. 내 어깨에 손은 여전히 올린 채였다.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녀의 돌발적 행동에 한 번 놀라고 그녀의 비밀스런 귓속말에 뛸 듯이 한 번 더 놀랐다. 내가 그녀를 어려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눈치 못 챈 줄 알았는데? 항상 빙긋 빙긋 웃으며 티타임에 초대하곤 하는 공주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게 표정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주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할 지 순간 고민되었다.“싫, 싫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조금 대하기 힘들었다고 해야할까...죄송해요.”그냥 솔직히 대답해 버렸다. 지금와서 거짓말로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 같았다. 메디엘의 여동생 마리안 공주는.공주는 내 어깨의 손을 살짝 내리고는 상냥하게 웃었다.“라디양은 솔직하시네요. 라디양이 절 싫어하시는 걸 알았지만, 전 라디양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오히려 저를 용서해 주셔야 해요.”“싫어 한적 없다니까요? 저는 그냥 공주님이 너무 완벽해 보여서, 좀 부러워서... 음...뭐랄까 공주님을 보면 자신이 좀 싫어지더라고요. 아, 그렇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공주님의 사랑스러움에 순수하게 감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내가 더듬더듬 지금 내 심경에 대해 고백하자 공주는 천사처럼 방긋 웃었다.“라디양은 조금 이상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저를 완벽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거네요. 남에 대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니, 후후, 저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라디양과 있으면 기분 좋아요. 저를 싫어하지 않는다니, 안심이에요.”“안 싫어해요, 전혀요. 오히려 뭐랄까... 동경의 대상이에요.”그녀는 다시 다가와 나를 살짝 안아주었다.“저도 라디양이 전부터 참 좋았어요. 아아 나중에 우리 오빠랑 결혼해 주면 좋을텐데.”“네에?!”너무 빠른 이야기의 전개에 나는 또 화들짝 놀라서 얼굴을 붉혔다.“바보같은 오라버니는 지금 바쁘셔서 라디양을 이렇게 혼자 내버려두고 있군요. 이렇게 여유부릴 때가 아닐텐데요.”그녀가 뚱한 표정을 한 채, 자신의 오빠를 까치발로 내다보았다.“고,공주님 사람도 많은데 그런 말씀을 막 하시면 안돼요!”내가 작게, 하지만 다급하게 속삭이니까 공주는 장난스럽게 웃었다.“그런가요? 하하. 사실 다른사람이 조금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답니다.”공주는 나와 두 손을 마주잡고 살짝 흔들며 마무리하는 말을 했다.“나를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매번 나와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항상 나를 사랑스럽다고 생각해 주는 상냥한 당신이 좋았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는 저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니 굉장히 기뻐요.”“공주님이야 말로 제 무례한 생각을 모른 척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늘 생각해요.”공주는 고개를 살짝 까닥하며 수줍게 웃었다. 하늘 하늘 얇은 금발이 살짝 흔들렸다.“당신의 오빠들이 라디양을 기다려서 더 시간을 뺏을 순 없겠네요. 라디양 정말로 당신이 나중에 우리 가족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오라버니와 결혼해서 말이죠.”마지막 말을 재빨리 덧붙힌 그녀는 내 대답은 듣지 않고 드레스자락을 들어 인사를 한 후 다른 무리로 가 버렸다. 나는 어중간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닮았어! 그 왕자님과는 다르게 그냥 천진난만한 공주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묘하게 닮았어! 그 메디엘과!’메디엘에게서 시커먼 속을 빼면 마리안이 될 것 같다. 저 마리안 공주님이 그런 계산적인 면도 있으시다면 분명 제국의 모든 남자의 애를 태우는 슈퍼 소악마 아가씨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염하게 웃는 마리안을 상상해 보는데 헬리오 오빠가 내 어깨를 툭툭 쳤다.“음? 또 인사하러 가야돼는 거야?”그렇게 묻자 오빠는 한 숨을 푹 쉬며 피곤하다는 듯이 말했다.“그래. 게다가 드디어 그거야.”“응?”“테젠가 초코머리들을 봐야할 시간이라고...”오빠가 손을 자신의 가슴께로 올린다음 남들에게 안보이게 살짝 손가락질을 했다.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옮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뚱하게 바라보고 있는 소녀들이 보였다. 그중 한명은 내가 아는 얼국이다. 파르펠이었다. 이지적인 그 초코빛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올려 목덜미를 내놓은 그 아이는 날카로운 눈매로 나를 빤히 보고 있었다. 아 그러고 보니 수련장에서 미카엘에게 밀쳐진 걸 본 이후에 처음으로 보는 거다.나랑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 안날 정도의 키인 그녀는 작은 체구였는데, 그녀 뒤로 길쭉 길쭉한 장신의 소녀가 서 있었다. 아마 전에 얘기 들었던 파르펠의 형제 인 것 같았다. 테젠가는 모두 초콜릿 빛깔의 머리였고 도전적인 눈썹이 똑 닮아있어서, 누가 봐도 같은 가문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알록달록 머리색도 천차만별 생긴 것도 천차만별인 우리 형제들과는 분위기부터 정반대이다.‘장남인 카네리안이 지금 프라마에 있는거고... 저 소녀가 헬리오 오빠와 동갑이라는 코멜라인가 보군.’왕과 왕비가 다시 궁으로 들어가시자, 아빠가 중얼거렸다.“아... 테젠가에게도 인사를 해야겠지. 라디 얘기는 약속대로 어른들끼리는 안할테니까...너희는 너희끼리 얘기해서 해결해 보렴.”그렇게 말하며 아버지는 휴리안 오빠를 쳐다 보았다. 묘한 눈짓을 캐치했다. 오빠는 살짝 끄덕거렸다. 아빠... 뭘 부추기는 거 같은데? 아니, 설마... 에이... 왕자님 생일 파티에서 싸우지는 않겠지 설마...우리 가족은 도전적으로 발을 내딛었고, 파르펠 가족도 천천히 다가왔다.파르펠의 아버지는 배가볼록한 뚱뚱한 남자였다. 어머니 쪽은 정당한 몸매에 키가 큰 늘씬한 미인이었지만 왠지 대하기 어려운 날카로운 인상이었다.간단한 인사가 오고 갔다.엄마는 예쁜 컵에 담겨있는 음료를 살짝 집으며 말하셨다.“슬슬 배고프지 않니? 뭐라도 먹으면서 또래들 끼리 말 좀 나눠보렴.”이 말을 시작으로 자연스레 어른들은 어른들의 무리를 지어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셨다.우리 형제들과 파르펠네 자매들만 말없이 한동안 서로 쳐다보는 상황이 된 것이다.파르펠네 언니가 나를 말없이 내려다 보았다. 파르펠과 똑 닮은 그녀의 언니는 파르펠과 마찬가지로 예쁜 얼굴이었지만 무척 기가 세 보였다.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마치 ‘내 여동생 건드리지마!’라고 하고 싶은 얼굴인데 말이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너네 여동생이 과연 나에게 당할 아이인지.휴리안이 만능의 웃음을 지으며 먼저 입을 뗐다. 한발짝 걸어나와 눈이 내려앉듯이 고개를 숙인다.“오랜만입니다 레이디들, 프랑디아 휴리안입니다. 이쪽은 저희 형제들입니다. 아마 아시고 계시겠지요.”휴리안이 이렇게 예의바르게 대할줄은 몰랐는지 멀뚱히 보고만 있던 코멜라가 급하게 드레스 자락을 들어 인사를 했다.휴리안은 상냥한 미소로 그녀의 인사를 받았다. 그리고는 나긋나긋하게 말을 시작했다.“저희들 형제와 레이디는 그동안 교류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동갑인 여동생끼리는 같은 반이라 교류가 잦은 것 같은데 이번기회에 저희도 좀 더 친해지면 좋겠네요.”“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휴리안은 나와 파르펠의 관계를 ‘교류가 잦다’라고 우아하게 표현했다. 코멜라는 야무지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거렸다.휴리안 오빠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다는 듯이 빙긋 웃고서는 요기거리가 차려진 테이블을 손끝으로 가볍게 가리키며 제안했다.“그럼 무언가라도 드시면서?”뒤에서 말없이 휴리안과 코멜라의 인사를 바라보기만 했던 제르다민이 제일 먼저 뚜벅 뚜벅 걸어나갔다. 애초에 양 가의 교류고 뭐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뒷모습이다. 그래요 지루하셨겠지. 어련하셨을까.파르펠의 언니 코멜라 양도 일단은 그 의견에 찬성하는지 성큼성큼 당당한 보폭으로 걸어갔다.나와 파르펠이 가장 뒤에서 따라갔다. 나는 그저 걸음이 느려서 그렇게 된 것이었지만 아마 파르펠은 나에게 조용히 말 붙일 타이밍을 노린 것이었을 것이다. 그 애가 조그맣게 인사했다.“오랜만이네요 라디올러스양.”“네~ 아까도 인사했잖아요.”내가 새삼스럽다는 듯이 대꾸했더니, 파르펠은 금방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했다. 그러나 금방 용건을 말했다.“도대체 미카엘공은 정체가 뭐죠? 어째서... 어째서...”아하, 묻고싶은게 이거였구나. 왜 너희 아빠가 미카엘을 못 건드리냐고? 그게 궁금했던 거구나.아마 파르펠은 그 굴욕의 수련장을 벗어나자 마자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을 것이다. 미카엘은 미리 그녀의 아버지에게 접촉을 했을거고.파르펠의 아버지는 결국 그녀에게 고개를 가로지을 수 밖에 없다. ‘얘야. 그 사람은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떠니.’하고 말이다.파르펠은 그것이 충격이었나보다. 그리고는 깨달은 것이다. 미카엘은 한낱 평민 출신에 얻어걸린 귀족이 아니라는 것을그녀는 미카엘의 정체가 궁금한듯 하지만 내가 그걸 그녀에게 알려줄 리 만무하다. 사실, 나도 미카엘이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는지는 자세히 모른다. 나는 그냥 그녀에게 깐죽거림을 시전하기로 마음먹었다.“네에? 미카엘이요? 아직 모르셨어요?”“뭐, 뭔가요.”그녀는 진지하게 궁금하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흠 이렇게 보면 그냥 참 귀여운 여자아이인데. 나는 비밀을 알려준다는 듯이 소근거렸다.“미카엘은 하르콘트 케르센 백작님이 도적떼를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용감하게도 목숨을 구해 줘서..”“그건 저도 알아요!”뻔한 얘기를 비밀처럼 말하자 기대하면서 듣던 파르펠은 속았다는 걸 깨닫고 작게 화를 냈다. 그리고서도 분에 안풀리는지 내 스틱을 걷어차려고 했다. 이미 내가 스틱에 그다지 의존해서 걷는 게 아니라는 것은 파르펠도 알고 있다. 기껏해야 스틱을 내 손에서 놓치게 하고 싶어서 하는 작고도 짖굳은 장난이었다. 그러나 휴리안은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퍽하는 꽤나 큰 소리가 났다.“아야.”오빠가 파르펠을 싱긋 웃으며 내려다 보곤 살짝 말했다.휴리안이 순간 내 스틱과 그녀 사이에 발을 밀어 넣었던 것이다. 파르펠은 휴리안의 정강이를 걷어찬 꼴이 되었다. 파르펠은 순식간에 얼굴이 파래져서 당황해 했다. 휴리안이 친절함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로 읊조렸다.“이런, 작은 레이디. 실수로 발이 헛나가셨군요. 조금만 조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 여동생은 아직 몸이 불편해서 스틱을 짚어야 하거든요.”그는 몸이 불편한 여동생을 보호한 기사도 넘치는 신사의 입장을 이용해 철없는 어린 아이를 혼내는 자리를 손에 넣었다. 파르펠은 장난을 치다 현장 검거된 신분으로 무안함에 안절부절 못해했다.오빠의 검은 정장에 하얀 발이 스친 자국이 남았다. 정확히 정강이 자리라 상당히 아팠을 것 같다. 당황한 것은 파르펠 뿐만이 아니었다. 나도 적잖이 놀랐다.“오빠... 괜찮아?”당황한 내가 오빠의 바지자락을 털어주었다. 오빠는 얼른 나를 일으키며 나를 말렸다.“이런! 라디, 레이디는 이렇게 사려깊은 행동 하면 안돼. 오버라고 라디.”그렇게 말하며 키득거리며 웃는 모습은 방금 파르펠을 나무랄 때보다 훨씬 소년같이 어려보인다. 누가 오버라는 거야... 오빠가 훨씬 오버였다고... 애들 장난에 뭘 끼어들어서 걷어차이고 그래...내가 복잡한 심경을 담아 눈짓을 보내자 오빠는 ‘내버려 둬’ 표정으로 답했다. 그리고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괜찮아.”파르펠은 한박자 늦은 감 있지만 충분히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오빠에게 사과했다.“죄, 죄송합니다. 휴리안 공. 시, 실수로...”“아, 파르펠양 괜찮아요. 물론 실수였겠죠. 설마 이런 귀여운 아가씨가 일부러 몸이 불편한 사람의 스틱을 발로 차려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휴리안은 넉살 좋게 사과를 받아주는 척 했지만 마치 내가 스틱이 없으면 쓰러지는 사람 마냥 스틱을 발로 차는 행동을 악랄한 짓으로 몰아세웠다.파르펠이 얼굴이 빨개져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파르펠이 휴리안에게 큰 몸짓으로 사과를 하자, 들었던 마실거리를 다시 내려놓고는 파르펠의 언니가 예의 그 위풍당당한 걸음 걸이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 집 식구들은 모두 직모인지, 코멜라의 사락사락 예쁜 머리카락 펄럭거렸다. 그녀는 윗머리만 살짝 잡아 뒤에서 노란색 리본으로 묶은 모습이었다.“어머, 무슨일이니 파르펠?”코멜라는 높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동생의 좋지 못한 안색을 보고는 재빨리 무슨일이냐고 묻는 모습으로 보아, 형제끼리는 사이가 좋은가 보다.휴리안은 예쁘게 웃으며 코멜라를 안심시키려 했다.“아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저, 파르펠양이 아주 작은 실수를 해서요.”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을 마친 그는 나를 에스코트 하며 음식쪽으로 향했다.“자, 라디도 뭐 좀 먹지 그래?”테이블로 다가서는 우리를 코멜라는 파르펠의 손을 잡고 성큼성큼 다가와서 불러세웠다.“어머나! 실수요? 우리 파르펠이요? 죄송해라, 무슨 실수를 했나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또박 또박 말하는 말씨며, 태도가 왠지 화난 고양이 같다는 생각을 살짝 해 보았다. 코멜라에게 고양이 귀가 달려있다면 조금은 사랑스럽게 보였을까? 파르펠의 언니는 뭔가 박력이 있다.손에 붙들려 온 파르펠이 귀를 빨갛게 만들며 조심스럽게 고백했다.“저기.. 언니. 내, 내가 휴리안 공의 다리를 실수로 찼어.”말을 듣자마자 코멜라는 시선을 휙하고 오빠의 다리께로 향했다. 과연 아직도 희미하게 하얀 자국이 남아있었다. 나는 당연히 코멜라가 파르펠의 실수에 머리를 숙일 줄 알았다. 하지만, 코멜라는 당당했다.“어머? 저런 위치에? 실수로 발을 밟은 것도 아니고, 정강이를 찼다고? 파르펠?”...어라? 지금 자기무덤을 파고 있는 건가? 파르펠의 악행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만들 셈인건가 이 언니? 나는 순간 코멜라가 우리 편인건가? 하고 헷갈려했다.파르펠은 언니의 다그침에 조금 울쌍인 얼굴로 볼을 더 빨갛게 태웠다. 그리고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며 한껏 기죽은 모습으로 웅얼거렸다.“사실 언니 라디올러스 양에게 장난을, 심하게 치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살짝만 장난을 걸려고 했는데...”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변명을 섞어 가며 말했다. 이렇게 풀죽은 파르펠은 처음본다. 뭔가 모성애를 간질일 만큼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나한테도 좀 저래 줬으면 좋겠는데.‘코멜라는 엄한 엄마 역할인건가? 무조건 파르펠 편만 들 줄 알았는데 의외네!’속으로 감탄하며 오빠의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혼낼 차례인가? 호오 왕자님 생일파티에 와서 별 재미난 꼴을 다보네. 파르펠이 혼나는 모습이라니. 그런 태평한 생각을 할 때였다. 코멜라는 파르펠의 이야기를 거기까지만 듣고 고개를 휙 들어서 휴리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어머! 그럼 휴리안 공은 애들이 서로 친해서 치는 장난에 굳이 끼어드신 건가요?!”도전적인 눈빛. 화난 고양이였다. 아...코멜라는 엄한 엄마역할이 아니었다. 팔불출 치마바람 엄마에 더 어울렸다.휴리안은 여전히 보기 좋게 웃으며 나긋나긋 대답했다.“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코멜라양. 스틱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는 일은 오빠입장으로선 하지 말아줬으면 해서요.”휴리안의 점잖은 반론에 코멜라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하’하고 웃으며 어깨치의 머리를 ‘탁’하고 쳐내서 뒤로 넘겼다. 윤기좋은 머리카락이 공기중에 펄럭였다가 다시 차분히 뒤로 가라앉았다.“애들은 좀 짓궂은 장난도 쳐가면서 서로 친해지는 거에요. 그렇게 자꾸 오빠들이 싸고 돌아서 라디올러스 양이 친구가 별로 없던 거였군요?”코멜라가 날카롭게 말하며 나를 내려다 보았다. 음? 아냐. 내가 친구가 없는 건 언니네 동생 덕이 더 커요.사납게 말대답하는 것과 부드럽게 비꼬아서 대답하는 것, 묵묵히 듣는 것 중에서 반응을 어떤것으로 해야할 지 생각했다.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왕자님 생일 파티에서 싸움질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멍청한 짓이었다. 특히 나의 완벽한 오빠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않다. 나는 어른의 여유로 생긋 웃어주기로 했다.“어머나, 그런 걱정을 해 주셨나요.”라고 어른의 여유를 철철 풍기며 대답해 주는 데, 휴리안이 천천히 끼어들었다.“파르펠양의 그 좀 짓궂은 장난 덕분에 라디가 앓아 눕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말이지요. 게다가 라디는 친구가 없지 않습니다. 잘못 아셨어요.”그는 상냥하게 태도를 바꾸지 않고 봄바람처럼 한들한들 말했다. 하지만 시선은 코멜라의 얼굴이 뚫릴듯 고정하고 있었다.‘아...이거 분위기가 험악해 지는데?’나는 불안한 마음에 다른 오빠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까 싶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고개를 살짝 돌리자 마자 헬리오의 가슴께가 바로 보여서 깜짝 놀랐다. 언제 이렇게 바로 옆에 와 있었어? 헬리오가 코멜라양에게 한발 다가서면서 말했다.“코멜라 양.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파르펠 양이 하는 행동은 확실히 장난이라기에 너무 짓궂습니다. 그만 둬 주었으면 좋겠어요.”그가 찌푸린 얼굴로 딱딱하게 말했다. 분위기를 평온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아예 싸움모드로 가고 있다. 헬리오가 평소에는 온화하기 그지없지만, 한번 흥분하면 꽤나 앞뒤 가리지 않는 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 세계에 떨어지자마자, 말에서 한 번 더 떨어트린 사람이 헬리오였다는 것을 잊을 수 있을리 없으니까.헬리오의 옆에 윌로우도 위세 좋게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를 차지 했다. 아직 키가 코멜라 보다 한참 작은 그는 팔짱을 끼고 매우 불만이라는 듯이 코멜라를 올려다 보았다. 제법 깜찍하고 든든하긴 했으나, 여기서 이러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나는 마지막 희망으로 제르다민을 찾았다. 그는 이 난리통에서 테이블에 나른하게 기댄 채로 천천히 카나페를 입안에 넣고 있었다. 그저 이 싸움이 흥미롭다는 듯이...제르다민은 그다지 좋은 구원자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재빨리 단념했다.코멜라는 한층 더 톤을 높여 헬리오에게 쏘아댔다.“아니, 마치 파르펠이 아주 못된 아이인 것처럼 몰아세우시는 군요!”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컸다.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한 두명씩 돌아 볼 만큼. 나는 주위사람들에게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눈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싱긋 미소를 보내야 했다. 아 진짜 미치겠네.코멜라는 나를 손가락질 하며 제대로 깎아내리기 시작했다.“솔직히말이죠, 애초에 어린아이들끼리 모이면 조금 모자란 아이들은 놀림도 받고, 장난질도 당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어른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일도 겪어 가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거라고요!”이 아가씨도 한 번 흥분하면 끝장을 보는 다혈질인 것 같았다. 거북한 말만 골라하는 것이 나도 기분이 좋지는 않다.그녀의 말에 똑같이 다혈질인 헬리오도 흥분해서 대꾸했다.“지금 뭐라고 하셨는지 이해는 가십니까? 제 동생에게 모자란 아이라고 하신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군요!”“라디올러스 양이 딱 보기에도 차고 넘치는 품새는 아니죠. 라디올러스양을 모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에요.”그녀가 내 스틱을 곁눈질 하며 코웃음쳤다.아아... 두사람은 이제 서로 멱살이라도 잡을 것 같다. 바로 옆의 휴리안이 가까이 있던 테이블에서 음료 잔을 가볍게 들고는 한모금 마셨다. 아 다행이다 적어도 휴리안 오빠는아직 평삼심을 유지하는 것 같다.그러나 고삐 풀린 코멜라는 목소리를 낮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다시 외쳤다. 너무 분해서 말을 잘 못하는 헬리오를 보며 의기양양하게 말을 시작했다.“우리 파르펠을 탓할 것이 아니라! ...”휴리안이 한 발 걸어나와서 내 앞을 가렸다. 코멜라는 앞으로 나선 휴리안에게 의아하다는 시선을 주면서도 지지 않겠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라디올러스 양의 부족함을..”휴리안은 그녀의 시선을 슬쩍 느긋한 미소로 답하며 잔이 들고 있던 손을 찬찬히 내밀었다. 코멜라는 이제 정말 이상하다는 눈초리로 목소리를 조금 줄이며 말을 끝맺으려 했다.“탓하...꺅!”쨍그랑!!!휴리안이 들고 있던 잔을 태연하게 놓아서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 냈다. 코멜라가 깜짝놀라 몇걸음인가 뒷걸음질 쳤다.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눈치였다.휴리안은 여전히 입매는 웃음을 유지한채, 하지만 눈동자에는 경멸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며 조그맣게중얼거렸다.“아. 입을 다무니까 훨씬 보기 좋군요 레이디....”빙긋 빙긋 언제나 온화한 그가 한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여전히 아슬아슬한 미소의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아..."코멜라의 벌어진 입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그의 거침없는 행동에 겁에 질려 덜덜 떨며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물론 나도 그의 싸늘한 자태에 심장이 튀어나올 것 처럼 놀랐다. 놀람의 정석으로 딸꾹질을 시작했다. 추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했다.문제는 이제 코멜라가 아니었다. 살짝 뒤를 돌아 보니,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홀에 있던 모든 인원이 우리들을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어찌 할거야 이 상황을!!!!’놀라서 사고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어설프게 미소를 지었보였지만 분명 나의 웃음으로 커버될 상황이 아니겠지. 놀란 눈의 엄마 아빠와도 시선이 마주쳤다.‘엄마 아빠 미안...’속으로 미리 사죄하고 있었는데휴리안이 우아한 몸짓으로 뒤돌아 서서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왔다. 여느 때처럼 품격있는 걸음, 품격있는 미소로.“이런, 죄송합니다. 왕자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건배제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숙한 지라 힘을 너무 줘버렸습니다.”그는 잔을 들고 나이프로 컵을 살짝 두드리는 모션을 해 보이며 설명했다. 사랑스럽게도 실수 때문에 조금 수줍어하는 미소까지 완벽했다.그러자 홀의 모든 귀족들은 이해한다는 미소와 함께 다시 한번 휴리안에게 경애의 눈빛을 보냈다. ‘아, 나도 자주 하던 실수지.’, ‘축하의 건배제의라니 사랑스럽네요.’. 여기저기서 휴리안에 대한 호감이 담긴 잡담이 퍼졌다.휴리안은 다시 녹아내릴 듯한 무결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실수했습니다만, 너그럽게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재도전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움이 담긴 잔을 들어주세요.”미소를 띤 사람들이 순순히 근처에 있던 잔을 들었다. 나는 여전히 딸꾹질을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음료가 담긴 잔을 쥐었다.오빠는 다른 새로운 잔을 쥐고 살짝 들어올리며 우아하게 외쳤다.“우리의 찬란한 별의 탄생을 축하하며!”그 고풍스러운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은 얼어붙어서 휴리안을 귀신을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는 테젠가 식구들과 헬리오 형제 뿐이었다.건배 제의를 하려고 하다 컵을 깼다고 했으면서 어째서 휴리안의 손에는 나이프는 남아있지 않은지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신사이기 때문이다. 화가나서 싸우다가 유리잔을 집어던질 리가 없다. 이 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사실을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휴리안이 와인이 담긴 잔을 입에 가져다 대며 코멜라를 냉랭히 노려보았다. 사람좋게 웃던 미소는 어느새 사그라들었다.오빠는 컵을 깨부순다는 대담한 행동으로 위협을 하는 것 말고도, '이 세계에서 나를 화나게 하지 않는게 좋아'라는 말을 하고싶었던 것이 분명했다.사교계에서 휴리안의 브랜드 가치는 ‘신뢰’ 그 자체였다.나는 급하게 얄살한 글라스에 담긴 음료를 쭉 들이켰다. 첫 번째로는 딸꾹질을 멈추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진정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마셔야 했기 때문이다.연한 노란빛의 음료는 약간의 꽃향기가 났고 매우 달콤했다. 진한 풍미가 입안에 감도는 고급음료였다. 왕자님의 생일파티에 어울리는 완벽한 맛이었다. 다 삼키고 나자 입안에 알싸하게 남는 알콜향만 빼고는.‘뭐야! 이거 디저트 와인이잖아?!?!’깨끗하게 한잔을 모두 들이키고 나서야 알아차렸다. 딸꾹질을 멈추기위해 벌컥벌컥 마셨기 때문이다. 너무 달콤한 첫 맛에 속은 실수다.당황해서 입을 가리고 잠시 서 있었다. 방금까지 나는 거의 빈속이었다. 게다가 몸집이 작은 어린 여자아이였고, 이 곳은 왕궁의 파티 홀.훅 하고 술기운이 얼굴을 데우는 것이 느껴졌다. 순하게 즐기는 도수의 와인 같은게 아닌 것 같았다. 큰일이다 빈속에 와인 원샷은 원래의 나도 순식간에 알딸딸해졌을것이다.‘정신차려. 괜찮아. 괜찮을지도 몰라. 모름지기 술이라는건 정신력 싸움이야.’그렇게 다잡아 보려 했지만 벌써 머리가 띵했다. 볼이 확확 달아오른다. 위에도 알콜향이 가득 차있을 것 같다.내가 얼어붙은 것처럼 한 손은 빈 글라스를 들고 한손으로는 입을 가린 채 서 있으니까. 건배제의 후 레드와인을 한 모금 마시던 휴리안이 나를 돌아보았다.“라디?”“....”손을 찬찬히 내리고선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이려고 했는데 천장이 핑 도는 것 같다. 그래도 일단 씨익 웃었다. 아 망했다. 분명 지금 내 얼굴은 새빨갛다. 더워지기 시작한다.오빠는 내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손에 들었던 와인잔을 테이블에 올려둔 뒤 무릎을 굽혀 나와 얼굴을 마주했다.“라디. 왜 그래?”“으음? 글쎄...?"휴리안에게 사실을 말해야하는지 판단이 잘 되지 않는다. 사고가 멍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뇌 주름 사이사이에 마취물질을 흘려넣은 것 같다. 아... 말을 해야하는 건가? 아니면 그에게도 숨겨야 하는 걸까? 응? 왜 숨기지? 말하고 도와달라고 해야지. 근데? 오빠가 어떻게 도와줘?....으음?내가 멍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휴리안이 다급하게 내가 쥐고 있던 글라스를 뺏어서 향을 맡았다. 그리고는 깜짝 놀란 얼굴로 물었다.“라디! 너 이걸 다 마셨어?”‘오빠가 다그친다. 화가 났나? 내가 또 사고를 쳐서... 아아.. 화 내지 말아줫으면 좋겠는데... 휴리안 오빠.’오빠가 화가 나 보여서 어물 어물 변명을 시도했다.“음....그게 말이지... 그게 나더라고....그거 뭐라고 하지. 딸꾹질이 나서....”오빠는 놀란 눈을 하고 내 횡설수설 같은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이 뒷목을 쓰다듬으며 시선을 천천히 이리저리 옮겼다.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서는 벌떡 일어났다.“아, 라디. 바람을 좀 쐬고 싶다고? 그래 정원좀 구경하고 오자.”싱긋 웃으며 조금은 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옆 사람에게 들릴만큼.멍한 머리로도 알았다. 아마 내가 창피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해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착한 오빠같으니라고, 순순히 따라야지. 걸어나가기 위해 테이블에 세워놓았던 내 스틱을 집으려 발을 내딛었는데 순간 휘청 했다. 내가 혼자였으면 분명 넘어졌을 정도로 몸 컨트롤도 잘 안되기 시작했다. 아아 맙소사 단단히 취했구만, 무슨 취하고 안취하고는 정신력이야.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휴리안이 휘청하는 나를 단단히 받쳐주었다. 그가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하하 이 큰오빠가 있는데 무슨 스틱이야 라디. 제 에스코트를 받으시지요.”자기가 알아서 데려갈 테니 그냥 스틱은 포기하라는 소리 같다. 나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다가 끄덕 댔다.휴리안은 새빨갛게 달아오른 뺨으로 천천히 끄덕거리는 자신의 여동생을 바라보았다.‘큰일이다.’그는 초조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자그맣고 약한 여자아이가 빈속에 와인 한잔을 모두 마셔버리다니. 분명 몸에 좋지 않을 것이다.라디는 순순히 휴리안에게 의존해서 홀을 걸어 나왔다. 휴리안은 나가는 길에 쟁반으로 음료를 나눠주는 사용인에게서 여유있게 한 잔을 나눠받았다. 마치 정원을 구경하며 홀짝이려는 것처럼“아. 고마워요.”평소처럼 사용인에게도 예의바른 미소를 짓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와 팔짱을 끼고 있는 분홍머리의 여동생은 이제 흐릿한 시선으로 멍하니 정면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얼굴의 홍조가 그녀의 머리빛깔과 구분이 안갈 정도였다.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 크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다. 휴리안이 몸이 약한 여동생과 정원에서 바람을 쐬겠다면 그런 거다. 그저 사람들은 휴리안의 사려깊음에 ‘역시 다정하네’하는 생각을 할 뿐이었다.그러나 여유있는 걸음을 옮기던 휴리안은 홀을 빠져나와 조금 어둑한 정원에 도착하자,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를 다급하게 살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라디올러스를 재빨리 안아들고는 정원 깊숙한 곳으로 달렸다. 한손에는 유리잔이 여전히 들려있는 채였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에 맞추어 음료가 이리저리 출렁거리며 그의 장갑을 적셨지만 그는 개의치 않아했다. 마침내 잎이 무성한 관목으로 둘러쌓인 으슥한 곳을 찾아내자 그는 땅바닥에 컵을 세우고, 라디올러스를 조심스럽게 내렸다.그녀가 닿았던 자리가 후끈후끈 했다. 술에 취해 열이 오르고 있나 보다.그가 멀뚱히 서있는 그녀를 쭈구려 앉힌 후에 자신도 옆에 앉아 초조하게 말했다.“라디! 빨리 토해내!”그러나 라디올러스는 그런 그의 초조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베시시 웃어보일 뿐이었다.그는 다급함이 묻어나는 손놀림으로 자신의 장갑을 벗어서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던졌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컵의 액체를 흘려서 한쪽 손을 씻었다.그녀는 여전히 그런 그의 모습을 멍하니 구경하며 웃어보일 뿐이었다. 휴리안은 한손을 라디의 뒤로 돌려 턱을 잡고 씻은 손을 그녀의 입에 넣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재촉했다.“라디... 토해내. 빨리.”라디는 ‘으엉?’이라는 소리를 내며 갑작스럽게 자신의 입으로 들어온 무엇인가에 놀라는 눈치였다. 그리고는 그것이 조금 달콤한 맛이 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휴리안이 손을 씻은 음료도 디저트 와인이었던 것이다.“으왓!! 핥으라는 게 아냐!”그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다. 라디가 그의 손가락이 단맛을 낸다는 것을 알고 살짝 핥았던 것이다. 휴리안은 난감한 그녀의 술주정에 볼을 붉혔다. 그러나 다시 단호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아까보다는 조금 떨리긴 했다.“라디, 너 이러다 탈 나. 어쩔 수 없어. 토해내.”그는 여동생의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준뒤, 손가락을 다시 입속으로 집어넣어서 그녀가 먹었던 와인을 토해내게했다.다행히 먹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와인만을 쉽게 토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라디는 가쁜 숨을 내쉬고는 조금 괴로운 신음 소리를 내었다. 지친 그녀를 정원의 의자에 앉히고 그도 옆에 앉았다. 휴리안은 죄책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라디의 옷매무새나 얼굴을 정돈했다.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아주며 말했다.“아까는 많이 놀랐나보구나. 딸꾹질이라니... 미안. 이제 무섭게 안할게.”라디는 방금 전 행동의 여파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살짝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의 뒤로 보름달이 떠 있었다.“...오빠가 뭐가 무서워...”그렇게 그녀가 중얼거리며 헤실 웃었다. 아직도 열로 상기된 얼굴이다.“안 무서워? 놀라서 딸꾹질이 났을 정도인데...”그녀는 매우 그리운 것을 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커다란 보름달 빛을 뒤로 받고 있는 그는 눈물을 자아내는 사람과 닮았다.“아. 오빠... 오빠가 무서울 리가 없지. 오빠는 항상 다정하니까.”지금 그녀는 조금 헷갈리고 있었다.휴리안은 슬픈 미소를 옅게 지으며 조용하게 말했다.“...너는 참 오빠한테 평가가 후하다니까.”라디는 그가 슬퍼하는 것 같아서 달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분명,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이번에야 말로,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말해야 한다.그녀는 이제 완전히 헷갈리고 있다.예전에 집 앞에서 만난 오빠와 왠지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놀이터에서 달구경을 하며 밍기적 거렸던 적이 있다. 자신은 아직 중학생, 오빠는 고등학생 때, 그때와 같다. 그때처럼 오빠가 슬프게 웃는다.‘아. 이번에는 말해야지. 놓치지 말고.’그녀는 그의 손을 다급하게 꼭 잡았다. 마치 지금 손으로 잡아 두지 않으면 없어질 환상처럼. 무척이나 보고 싶었던 사람의 얼굴을 올려다본다. 커다란 보름달이 그의 얼굴 뒤에 있어서 초점 잡는 것을 방해했다.“오빠아...”가만히 불러봤을 뿐인데 웃음과 눈물이 한꺼번에 비어져 나올 것 같다. 왜 이렇더라? 왜 이렇게 가슴이 아팠더라? 항상 같이 있는 오빠를 부른 것뿐인데. 그녀는 안개가 낀 것 같은 머리로 이유를 찾아보았지만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휴리안은 그녀의 부름에, 그녀의 간절한 손길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살포시 웃으며 대답했다.“응?”그 목소리에 그녀는 확신했다.‘아, 잊어버린 것은 분명 별거 아닌 것일 거야. 분명히 그야. 어서 말해야해. 늦기전에 말해야해. 근데 뭐가 이렇게 초조한 걸까? 뭐에 늦지 말아야 한다는 걸까?’아직도 뭔가 석연치 않긴 했지만 그녀는 결심한 듯 입을 떼었다.“...오빠. 그 곳에서 항상 외로웠어? 그런데 내가 어리광 부리니까... 의젓하게 태연한 척 했던거야?”그녀가 아직도 어눌한 발음으로, 하지만 한 마디 한 마디 진심을 담아 말을 했다. 휴리안은 라디가 그런 말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 놀라 대답도 못하고 그녀를 응시했다.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로 달빛이 벚꽃 잎처럼 내려앉았다. 그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과 함께 왠지 모르게 구원받은 느낌을 받았다.그녀는 죄책감이 묻어나는 얼굴로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계속해 나갔다.“나말이야.... 바보같이 그런 것도 몰랐지만... 정말로 한심하기만 하지만... 그래도 용서해줄래?”용서해 줄수 있느냐는 목소리에는 결국 감정이 스며 나와 울음이 묻어났다.그런 그녀의 표정에, 행동에, 따뜻한 말에, 따뜻한 감정에, 따뜻한 온기에...휴리안은 어쩐지 자신도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내 깨닫고 만다.라디는 지금 누군가와 헷갈리고 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을 통과해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운 듯이, 슬픈듯이.그녀는 마침내 격한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방울방울 쏟아냈다. 한손으로는 그를 부여잡고 한손으로는 자신의 가슴팍을 쥐고서는 지난날의 악행을 고해성사하고 마는 범인처럼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용서해줘 오빠. 오빠는 나의 자랑이었어... 그 집에서 유일한 빛이었어. 오빠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결정하라고 해도 그 집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로 사랑해 오빠....미안해, 늘 의지만 해서... 아... 이 말을 항상 하고 싶었어.....”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겨우 겨우 말을 마쳤다. 고개를 푹 숙인 그녀는 울음으로 에너지를 다 썼는지, 조금 가쁘고 약한 숨을 점점이 뱉었다.휴리안은 그녀를 괴로운 얼굴로 바라보았다.“누구한테 말하고 있어 라디?”그의 목소리는 어쩐지 덧없었다. 가냘파보이기 까지 했다.라디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힘들어서 잠이 오는지 매우 작은 띄엄 띄엄 이어지는 소리였다.“....응?... 그야.. 오빠지...”그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눈으로 부정했다.“거짓말....내가 아니잖아... 그렇지? 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그녀는 이미 그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애절하게 요청하는 듯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다.“응? 라디?.... 나에게도 말해줘.... 그렇게....”결국 그에게서도 눈물이 가늘게 뚝하고 떨어졌다.서러움과 외로움이 짙게 배어나오는 울음소리로 그가 중얼거렸다.“나에게도 그렇게 말해준다면... 단번에 용서한다고 말해줄텐데... 울지 말라고 눈물을 닦아줄텐데...한 동안 차가운 달빛으로 볼을 적시던 그는 힘없이 일어나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장갑을 주웠다.장갑에 묻은 흙을 툭툭 털고는 다시 끼기 전에 눈물을 닦았다. 눈이 충혈 되어 보이지 않았으면 해서 잠깐 지그시 두 눈을 눌렀다. 울다니, 그는 자신이 믿기지 않는 눈치다. 비록 아직도 마음이 미어지는 통증으로 당장이라도 다시 눈물이 날것만 같지만.‘아 말도 안돼 어째서 이렇게 슬픈 걸까.’휴리안은 이런 슬픔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복잡한 심경이다. 길을 잃은 것 같다. 살며시 다시 졸고 있는 여동생을 뒤돌아보았다. 그는 또다시 울컥 서러운 기분이 들어버린다.어두운 정원 안에서 푸른 달빛을 받으며 졸고 있는 라디. 아직도 속눈썹에는 눈물이 맺혀있고 볼을 불그스름하다. 어디로 보나 사랑스러운 모양새이지만, 지금은 왠지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다. 물론 그것도 불가능 하지만.잠시 멍하니 라디를 쳐다보던 그는 갑자기 매우 춥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디를 안으로 옮기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겠어.’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치는 대신에 품에 안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깨지 않게 조심스레 안아올렸다. 아직도 술에 익어서 따끈 따끈하다.느릿느릿하게 성으로 걸음을 옮기며 휴리안은 방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라디의 말에 대해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 라디는 도대체 누구를 생각하며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 방금의 라디는 자신이 알던 여동생과는 너무 달랐다. 게다가 떠올려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었다.‘마치 우리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살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았어.’무의식중에 아주 예전에 자신의 친아버지와 살았을때의 기억이라도 생각난걸까. 누굴까 라디가 그토록 그리워 하는 이 사람은.그는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라디의 울음이라던가 말은 기껏해야 어린아이의 술주정일 것이라고 치부하기로했다. 깊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다. 라디가 왠지 멀리 딴 사람처럼 떠나버릴 것 같다.깊게 묻어나는 슬픔같은 것도 분명 자신이 착각한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버렸다. 더 생각하는 것이 무섭다.그보다도 당황스러운 것은 자신의 반응이다. 정신을 못 차리고 우는 자신의 어린 여동생에게, 그 얼굴도 모르는 사람보다 자신을 동정해 달라고 빌었다.‘나를 이해해줘, 내가 더 외로웠어.’라며 이 작은 소녀에게 구걸했다.그는 자신의 추함에 소름이 돋아 잠시 멈칫했다.‘무슨 짓을 한 걸까.’라디를 안은 손에 힘을 주며 잠깐 입을 가린다. 신음이 나올 것만 같다. 그는 주위를 다시 천천히 둘러보았다. 다행이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녀가 오늘의 일을 기억할까?‘외롭다고? 19살이나 돼서 외롭다고 라디에게 울어댔어?’실소가 나올것 같다. 심지어 그는 여태껏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그런데 그렇게 추하게 눈물을 흘렸다.라디가 잠든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내일 혹시라도 라디가 기억해내도 자신이 이일을 아예 모른척하면 라디도 잠결에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않을까? 혹시나 말을 꺼내도 절대로 모른척 하리라 다짐하며 파티가 계속 되는 홀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휴게실로 라디를 눕히러 가는데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자신에게 축 처진채 안긴 라디를 보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매우 놀란 얼굴로 휴리안에게 물었다.“휴, 휴리안? 라디가 어디 아프기라도 하니?”그는 잔걱정이 많은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살짝 고민하다가 이내 털어놓았다. 큰일은 아니니 아마 괜찮을 것이다.“아뇨, 어머니. 사실 라디가 잘못해서 와인을 마셔서요.”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져서 다급하게 거기까지만 듣고 말을 끊었다.“어머! 와인을? 얼마나? 큰일이네!”그는 괜찮다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꽤 많이 마시긴 했는데, 괜찮을 겁니다. 바로 토해내게 시켰거든요. 지금은 지쳤는지 잠들어버려서요, 휴게실에 뉘일까 하고요.”그의 나긋나긋한 대답을 듣고나서야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한 어머니는 다행이라는 듯이 중얼거렸다.“아아 그렇구나, 고생했어 휴리안. 정말이지 엄마로서, 면목이 없네...정말 믿음직 하구나.”그리고선 둘은 한동안 말없이 어색하게 휴게실로 발을 옮겼다.아직도, 라디가 없으면 가족끼리 대화조차 잘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휴리안은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라디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이렇게 작고 어린 나의 여동생.’ 그는 자신의 품에서 피곤한지 쌕쌕 소리를 내는 라디를 살짝 바라보았다.‘그런데도 손해 보는 일은 모두 이 아이가 하고 있다. 자신마저 왜 자신을 불쌍히 보지 않느냐며 달라붙으려 했다.’그는 다시 가슴속 깊이 차오르는 자기혐오에 짓눌려야 했다. 그 비굴함이 역겹다. 여태까지 자신은 꽤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스스로를 가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어리석고 추하구나 휴리안.’그는 새로 깨달은 자신의 모습이 끔찍이도 괴롭다.꼭 죄인 코르셋 때문에 종종 쓰러지곤 하는 레이디들을 위한 휴게실에 라디를 조심스레 눕혔다. 그녀가 일어날 때까지 앉아있을까 해보았지만, 역시 무리인 것 같았다. 왕자님과 인사를 끝낸 무리가 이번에는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라디의 안색을 조심스레 살피던 어머니는 그녀가 아무 이상 없이 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쓴웃음 지으며 말했다.“휴리안 라디는 확실히 괜찮은 거 같구나. 빨리 다녀오자.”그는 갑자기 느껴지는 피로감을 모르는 척 하며 끄덕이고서는 어머니를 에스코트 하기위해 팔을 내밀었다.어머니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다정하기도 하지.”그렇게 말하며 팔짱을 꼈다.휴리안은 이 약하고 소녀같은 어머니보다는 어쩐지 라디가 더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해버린 뒤에, 어머니께 너무 실례되는 생각을 한 것에 대해 반성했다. 대신 다시 상냥하게 웃어 보이며, 휴게실을 나섰다.“빨리 다녀와요 어머니.” 조금 뒤척이던 라디올러스는 번쩍 눈을 떴다.‘아 또 오빠 꿈을 꾸었다.’멍하니 꿈을 되새겨 보았다. 연하게 웃는 자신의 오빠. 이번에는 출근하기 싫다고 중얼거리면, 그가 아침을 먹으려고 마주앉아있다가 부끄러운 듯이 ‘...나도...’라고 고백했던 모습이 꿈에 나왔다. 그와 떨어지고 난 후 그에 대한 꿈은 몇 번이고 꾸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꿈을 꾸고 나서의 대처법은 한가지 밖에 없다는 것은 몸소 체득한 상태였다.그저 울어버리는 것이다. 머릿속에 더 이상 그가 있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눈물로 채우면, 힘들어서 잘 수 있었다. 이런 행복했던 꿈을 꿀 때마다, 더 이상은 만날 수 없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져서 정말이지 버티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한편은, 아직은 오빠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어쩐지 기쁘기도 했다.울음이 시작되려는 것을 알리는 듯이 목 안쪽에 둔한 아픔이 메어져왔다.‘아.. 십년 쯤 지나면, 오빠 생각을 해도 슬프지 않을까?’그럴 리 없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다. 눈물은 말라서 안 나올지 몰라도, 여전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것이다. 그녀는 아직 남아있는 술기운 때문에 자신이 누워 있는 이 침대가 자신의 침대가 아니라는 것은 눈치 채지 못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 쓰려고 했다.누군가 거칠게 이불을 빼앗았다. 라디는 깜짝 놀라서 이런 난폭한 짓을 한 사람이 누군지 쳐다 보았다. 술에 취해 더더욱 제어가 안 되는 눈물은 아직도 줄줄 새고 있었다.“라디양! 울어요?”그녀의 눈물 때문에 빛이 번지는 시야로, 예쁜 레몬색이 들어왔다. 라디올러스는 눈을 한번 꼭 감았다 떠서 맺혀있던 눈물을 떨어트리고 나서야 잔뜩 찡그린 얼굴의 왕자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아~ 뭐야... 왕자님이시네...놀랐잖아요.”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말도 눈물에 울먹울먹 젖어있었다. 그녀는 왕자님을 보고 몸을 일으켰지만 아직도 울음이 멈추지 않아서 ‘으윽...’하는 소리를 간간히 내었다. 샘물이 솟는 자리를 막으려는 것처럼 두 손으로 눈을 눌러보았지만 소용이 없는 모습이다.라디올러스는 빨개진 얼굴로, 자신도 민망하다는 듯이 슬쩍 웃어보았다.“잠깐만요....”힘없이 왕자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두 손으로 눈은 가린 채라서 왕자가 어떤 표정으로 그녀를 보고 있는지는 볼 수 없었다.그는 그녀의 말대로 잠시 기다려 주는 듯 했으나, 소녀는 울음을 제대로 멈출 수 없는 모양이었다. 휴게실 안에 그녀가 훌쩍거리는 소리만 가득 찼다.라디올러스가 멋쩍은 듯이 어눌한 말로 변명했다.“음... 죄송해요.. 제가...”훌쩍거리는 통에 말이 잠시 끊기자 메디엘이 풀썩하고 침대 옆에 앉은 후, 그녀를 끌어안았다.“네에 네에 들었습니다. 와인을 마셔버렸다죠? 왜 울고 그러십니까. 보기 싫게.”질린다는 말투와 달리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이나 품이 너무 다정해서 라디올러스는 자제력을 잃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어버렸다.왕자의 등을 부여잡고, 덧없는 슬픔을 지우고 싶어서 애를 썼다. 메디엘은 한숨을 쉬고는 중얼거렸다.“어이구, 어린애 주제에 술주정이 우는 거라니. 나참... 이런 곳에서만 조숙하시다니까.”머리를 토닥거리며 울음이 그치길 기다려 주었다.그녀는 겨우겨우 울음을 줄일 수 있었다. 숨이 가빠서 간간히 크게 들이 마쉬면서도 아직도 얌전히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있었다. 그가 자신을 가만히 내려다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그녀는 대뜸 중얼거렸다.“생일 축하해요 왕자님.”그는 너무 어리둥절해서 그녀가 말한 말이 무슨 뜻인지 가만히 되짚어 봐야 할 정도였다.“...감사합니다.”한참 후에야 기가막히다는 듯이 답례를 표할 수 있었다.라디올러스는 그 말 이후에도 여전히 얼굴을 왕자에게 보이지 않고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메디엘의 가슴팍에 얼굴을 조금 부비적 댔다.“으왁!”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그는 부끄러워했다. 그리고는 그것이 단순이 눈물을 닦아낸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메디엘은 짜증스럽게 그 행동을 지적했다.“제 옷을 얼굴 닦는데 쓰지 말아주실래요? 이 모습을 보면 이날을 위해 며칠동안이나 밤을 샌 제 의상담당이 쓰러질거예요.”그녀는 멈칫 하더니 휙 하고 고개를 들어 자신을 내려다 보는 왕자와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는 씨익 웃으며 한참 울어 부은 눈으로 말했다.“아. 그러고 보니... 생일 축하해요 왕자님.”“방금 말했잖아요! 진짜 술주정뱅이잖아?”그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외쳤다. 라디는 멍하게 ‘그랬었나요...’라고 담담히 말할 뿐이었다. 그녀는 힘차게 울어낸 지금, 아까보다 머리가 더 띵한 것을 느꼈다. 어쩐지 침대 위가 바다 위의 매트처럼 둥실둥실한 것도 같다.라디올러스는 축하한다고 해줬을 뿐인데 짜증을 내는 왕자에게 투덜거렸다.“아까부터 엄청 말하고 싶었는데, 왕자님 계속 바쁘시고 말이죠...허참, 기가 막혀서...”“...누구한테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아십니까? 바쁜게 제 탓도 아니고 말이에요. 시간 겨우 내서 찾아봤더니, 술을 왕창 마시고 누워 있다질 않나, 술주정으로 대성통곡을 하질 않나...”할 말이 많았는지 메디엘은 주절주절 자신의 황당함을 풀어냈다. 다만 라디올러스는 듣는 지 마는지 멍하게 딴 곳을 응시하다가 생각났다는 듯이 그의 품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의 얼굴을 마주보았다.“아! 그러고 보면, 당신의 여동생을 만났어...”“...묘하게 반말이십니다.”그가 일단은 지적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으로 싱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당신과 결혼해 달라더군요.”메디엘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유쾌하다는 듯이 하하하 웃어댔다.“하하하 역시 제가 귀여워하는 여동생답네요. 마음에 드는 짓만 한다니까?”그녀는 그가 웃자 따라서 하하 웃은 다음 그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은 듯이 말했다.“하하 엄청 웃기죠...”“뭐가 웃기다는 거에요! 진짜 짜증나네!”그가 기분좋게 웃다가 빽 화를냈다.라디올러스가 몸을 휘청거리며 느릿느릿하게 말했다.“이렇게 어린 당신과 결혼?하하하”그는 업신여기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당신이 나보다 7살이나 어리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아... 그대가 취해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화가 나는 걸 보면 분명 저도 어리긴 한데 말이죠...”라디올러스는 눈앞에 살랑거리는 금발이 보이자, 자신이 이 머리카락은 매우 좋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맥락없이 요구했다.“저기요, 왕자님. 머리 좀 쓰다듬게 해줘요.”“허어??? 뭐라고요? 지금 만지게 해줄 거 같습니까?”그녀는 지지 않고 다시 한번 손을 길게 왕자 쪽으로 빼며 말했다.“머리카락좀 만지게 해줘요.”“싫어요. 오늘 당신은 별로 귀엽지 않다고요.”그가 몸을 뒤로 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평소같으면 금방 ‘에이..’하고 단념했을 라디올러스는 지금 술에 취해 묘한 아집이 붙어 애처롭게 다시 한번 부탁했다.“머리.....왕자는 결국 눈물까지 보일거 같은 그 태도에 져서 재빨리 머리를 그녀쪽으로 내밀었다.“자요, 자! 만져요! 마음껏! 울지만 마요.”생일인건 본인인데 어쩐지 있는대로 휘둘리고 있다.손에 그 예쁜 머리카락이 닿고 나서야 그녀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헤실 지었다. 보드라운 감촉이 기분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하아... 오늘 왕자님은 그야말로 작은 국왕. 단점 따윈 찾아볼 수 없는 이상적인 왕자님 이었어요.”“오랜만에 칭찬을 해 주시는 군요. 아... 빨리 좀 커 주세요 당신... 당신이 15살이라면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키스했을 텐데.”그가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이제는 얌전히 쓰다듬을 받고만 있었다.그녀는 계속해서 회상했다.“나에게 당신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랑거리에요.”“오늘은 많이 띄워주시네요.”그가 작게 키득거렸다.“그런 당신과의 결혼이라니 역시 잘 상상이 안돼요.”그녀가 오늘의 그를 평하는 말을 그렇게 마무리 짓자 메디엘은 고개를 홱 들어 그녀에게 불만이라는 듯이 거만하게 말했다.“포부 좀 크게 가져보시죠, 그냥 넘보시는 건 어때요?”라디올러스는 그런 그의 얼굴을 작게 뜬 눈으로 빤히 보다가 키득거리며 옆으로 누웠다. 왕자는 그 태평한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뭐, 당신도 조금만 더 크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그리고는 자신만만하게 씨익 웃었다.낮은 위치에서 그 얼굴을 진지하게 올려다 보던 소녀는 또 방긋 웃으며 확연히 어눌해진 말투로 작게 말했다.“하하하 레몬빛 재규어.”그 말을 처음 듣는 그는 무심하게 물었다.“뭡니까 그건....”그러나 다음으로 이어진 말에 다시 한번 평정심을 잃고 만다.“....건방진 골든 리트리버.”“뭐라고요!!?!?! 지금 나보고 한 말 맞죠? 저보고 골든 리트리버라고 했습니까! 지금?”라디는 히죽 웃으며 감은 눈을 뜰 생각을 하지 않았다.왕자는 더욱 약이 올라서 외쳤다.“그래놓고 자요? 뭐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만 행동하는 사람이 다 있어?”“...”여전히 그녀는 반응이 없었다.그는 머쓱하게 뒷머리를 만졌다.“라디양. 정말 자는 거에요?”메디엘은 한숨을 요란하게 쉬었다.“아무튼 정말 술 깨고 다시 봅시다. 쉽게 용서하지 않겠어요. 평소에는 저를 건방진 골든리트리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돌연 그는 요염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가깝게 기어갔다.“아뇨, 뺨의 키스정도로 용서해 드릴까요?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손해보는 장사이지만..."말은 대담한척 쏟아냈지만 막상 라디올러스의 위에서 그녀를 마주하자 심장이 뛰어댔다. '뺨에 키스 정도는 인사아닌가요?' 라고 변명하면서 얼굴을 가져다 댔다.그러나 자세히 살펴본 그녀의 얼굴은 아직도 눈 주위가 붉었다. 아까 서럽게 울던 모습을 생각하면 이유도 모르고, 그저 술주정일지도 모르지만 역시 맘이 편치않다. 메디엘은 그녀에게 키스하기 직전의 자세에서 한참을 바라보다 이내 포기하고 몸을 일으켰다.키스대신 호의와 애정을 담아 머리칼을 정리하고 눈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그는 그녀가 깨지 않도록 조그많게 인사했다.“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디 양. 다음에 일어나셨을때는 부디 혼자서 울지 않으시길.” 휴리안이 라디를 데리고 정원으로 황급히 나갔을 당시, 남겨진 코멜라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신사적인 태도로만 일관하던 휴리안이 자신의 도발하는 말에 유리잔을 깨트리며 ‘닥쳐’라는 말을 우아하게 돌려말했다. 그제서야 냉정한 머리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이 흥분해서 내뱉은 말들을 후회했다.“... 어떡해...또 밖에서 트러블을 만들어 버렸어...”자책감이 가득한 그 목소리에 파르펠은 걱정스럽게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언니...”자신 때문에 이런 싸움이 났다는 것이 맘에 걸리는 눈치였다.코멜라는 힘없이 손을 들어 자신의 여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괜찮아 파르펠. 너한테 화가 난게 아냐...”코멜라는 양손으로 자신의 긴 머리 타래를 살짝 쥐며 작게 외쳤다.“아아! 난 왜 이렇게 금방 흥분해 버리는 거야!”사실 왜 라디올러스에게 화가 났는지는 알고있다.'저 라디올러스는 오빠가 우루루 몰려와서 편을 들어주는데 우리 파르펠은 아무도 없는더 같으니까 가여워서 무심코...!'하지만 사실은 파르펠이 라디올러스에게 못되게 굴어왔던 걸 그녀도 알고있었다.“아... 어쩌지. 확실히 내가 너무 말이 심했어. 라디올러스양이 딱히 잘못한 건 없는데 말이지... 음. 모두에게 사랑받는게 너무 요령좋아보여서 얄밉긴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못되게 말하다니. 상처받았을거야...”턱을 괴고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당사자인 라디와 휴리안은 둘이서 어디론가 나가버려서 보이지 않았다. 샛노란 금발이 인상적인 헬리오와 윌로우는 형의 화내는 모습을 보고서는 잠시 멍해있다가 오히려 둘이서 신난 것 같았다.“여, 역시 휴리안 형님은 멋져! 그 기품, 위압감! 뭐하나 빠지는 게 없다니까?”“그치 형! 방금은 진짜 장난 아녔어!”애들처럼 신나서 방방 뛰는 모습이 그다지 좋은 의논 상대가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코멜라는 다른 사람을 다시 찾아보았다. 조용히 테이블 구석에서 와인을 마시는 은발의 남자가 눈에 띄었다. 저 사람의 이름은 물론 알고 있다. 프랑디아 제르다민 , 냉정하고 머리좋기로 유명한 소년이었다. 그녀는 아까 싸울때도 그가 나서는 일 없이 조용했다는 것을 기억해 냈다.코멜라는 제르다민에게 말을 걸기로 결심했다.‘파르펠 여기서 간식이라도 먹고있으렴!’ 그렇게 동생에게 일러두고 그녀는 성큼 성큼 제르다민에게 다가갔다.이정도 가까이왔으면 보통 남성쪽에서 아는 척을 해 주는 것이 매너건만 그는 마치 그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파티 홀쪽만을 응시했다.어쩔수 없이 자신이 먼저 말을 붙이기로 했다.‘역시 소문대로 엄청 까칠해 보이네.’라디올러스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하고 싶어서 다가온 것이지만 제르다민의 태도에 벌써부터 울컥하는 것을 느꼈다. 안 돼, 제발 좀 침착해져봐 코멜라.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새겼다. 그녀가 자신이 지을 수 있는 최대한 상냥한 얼굴로 그를 불렀다.“제르다민 공. 잠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제르다민은 명백하게 흥미없다는 얼굴로 중얼거렸다.“아까 저희 형제들과 충분히 말씀 나누시는 것 같던데요.”‘참자! 애초에 내가 사과하러 온 입장이니까!’코멜라는 태생적으로 부족한 참을성을 긁어모으며 다시 웃어보였다.“네에... 방금의 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픈 게 있어서요.”그는 자신의 와인잔에 향해있던 시선을 이제야 코멜라에게로 옮겼다. 얼어붙을것만 같은 시선으로 천천히 입을 뗐다.“뭐, 들어보죠. 코멜라 양은 꽤나 진귀한 볼거리를 제공하셨으니까요.”코멜라는 순간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그가 자신에게 시선을 안줄때는 그 무례함에 화가 났지만 막상 시선을 마주하고 보니, 그 눈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러나 자존심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또박또박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방금 전엔 분명히 제가 말이 너무 심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요.”분명 저자세의 대화내용임에도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말하는 코멜라를 제르다민은 업신여기는 눈으로 내려다 보았다.“과연... 휴리안 형님이 대단하긴 하시다니까요. 사과안하고는 못 배길 정도로 무섭죠. 네.”그가 코웃음 치며 그녀를 무시했다. 그녀는 마침내 짜증이 배어나오는 말투가 되었다.“저는 지금 겁에 질려 마지못해 하는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방금까지는 아주 당당하게 라디올러스가 또래 아이들보다 뒤떨어져서 따돌림 당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 걸로 아는데요?”‘아닌 척하면서 엄청 자세하게 듣고 있었잖아? 이사람.’ 그녀는 자신의 거침없었던 표현에 가슴이 매우 따끔해 졌지만 질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받아쳤다.“그, 그래서 지금 사과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방금까지 잘난듯이 그렇게 뱉어놓고, 이제와서 사과할 맘이 들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그가 냉정함이 뚝뚝 떨어지는 말을 혐오스럽다는 듯이 뱉고서는 코멜라에게 한걸음 다가왔다. 타인과 타인의 거리치고는 너무 가까운 듯한 기분이 들어서 코멜라는 한걸음 뒷걸음질 치고 만다.하지만 제르다민의 이런 깎아내림은 용납할 수 없었기에 말을 흐리지 않고 반박했다.“사과할 맘이 든 걸 어쩌겠어요! 아까 전의 말은 너무 흥분해서 심한 말을 하고 말았다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단 말이에요!”“후회하고 있는 태도는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영애... 제 눈엔...”그가 또 냉랭한 비웃음을 지으며 한발 더 다가왔다. 그녀가 또 한발 물러섰음에도 제르다민은 말을 계속해서 이으며 한발 더 다가섰다.“...아주 입만 산 것처럼 보여요.”사냥하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그의 태도에 억울함과 모멸감을 참지 못하고 코멜라는 이번에는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그렇게 말하시는 제르다민 공은 입만 산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하시는데요?”‘네가 뭔데 잘난 듯이 다그치는거야?’코멜라는 억울해서 그를 노려보면서 쏘아붙여준 다음 지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긴장감 속에서 자신도 그에게 한발자국 다가 서려 발을 내딛었다.그러나 그녀가 크게 뻗은 걸음은 높은 굽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중심을 잃고 휘청해버렸다.‘하필이면 창피하게도 이럴 때!’성격이 급한 그녀는 똑부러지는 외관과는 다르게 자잘한 실수가 많았다. 아 절대 얕보이고 싶지 않은 이 남자 앞에서 꼴사납게도 넘어지고 말겠구나. 그녀는 속으로 통탄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그러나 그녀가 넘어지는 일은 생기지 않았고, 누군가 단단하게 잡아주었음을 느꼈다. 제르다민 이었다. 그는 그녀가 휘청거리는 것을 보고 빠르게 다가와서 그녀를 안아주었다. 코멜라가 당황해서 얼른 그의 품에서 뒷걸음질 쳐 빠져나왔다.코멜라는 그가 자신이 다치지 않게 잡아줄 만큼 상냥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런 행동이 매우 놀라웠다. 때문에 평소의 그녀답지 않게 얼빠진 얼굴로 감사 인사를 하고 말았다.“가, 감사합니다.”그러나 속으로 그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한 것이 무색하게도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쏘아붙였다.“라디올러스가 제대로 못 걷는 것을 지적하더니, 본인도 마찬가지네요.”“...”코멜라는 기가 막혀서 이제는 대꾸할 생각도 들지 않았다. 잠깐이나마 그에게 큰 호감을 가졌다는 것이 혼자서 부끄러워질 정도였다.제르다민은 기분 나쁜일을 한 것처럼 자신의 옷을 슥슥 털더니 ‘이제 너 같은 거에겐 흥미가 없어’라는 생각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표정으로 무심히 말을 건넸다.“...게다가 입만 산것이 아니라고 하고 싶다면, 저에게 전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직접 사과하십시오 영애.”그리고는 대화를 마무리하는 인사조차 없이 자신의 와인잔을 가지고 자리를 걸어나가 버렸다.혼자 멍하니 그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던 그녀는 혼란스러워 했다.‘내가 미친 게 틀림없어. 저딴 소리가 다정하게 들리다니. 저게 진심어린 충고일리 없잖아!’그녀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수없이 부정했지만 왠지 부산스런 심장소리 때문에 더 진정하기 힘들었다.누군가 내 방의 커튼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감은 눈이지만 방안이 밝아졌다는 것을 알아챈다.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로인해 창문을 닦던 베라가 움찔하며 놀랐다.“아이 깜짝이야 아가씨, 오늘은 왠일로 금방 일어나셨네요. 어제 실수로 술을 드셨다고 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말이에요.”“베라, 안녕? 난 죽으려고.”내가 침대에 주저 앉은 채로 담담히 말했다.내 거친 말에도 베라는 한쪽 눈썹을 살짝 들어 올리며 가볍게 대꾸할 뿐이었다.“어머, 그래요?”그리고서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마른 걸레로 창틀이며 화병을 꼼꼼히 닦아내려갔다.“으앙 베라 제발 왜냐고 물어봐 줘! 관심 좀 가져줘.”“네에 아가씨~ 닦으면서 들을 테니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대충 예상이 가지만요.”우아한 몸가짐으로 그녀가 무심히 대답했다.“대충 예상이 간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내가 너한테도 주정 부렸어?”그녀는 살짝 나를 돌아보더니 다시 시선을 화병으로 향하고선 작은목소리로 말했다. 말투는 여전히 또박또박 정갈했다.“아뇨... 그다지.”베라가 이럴 땐 뭔가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뭘까. 내가 또 무슨 일을 벌인 걸까. 내가 비틀비틀 침대를 내려와 그녀를 뒤에서 껴안으며(거의 매달렸다) 우는 소리를 했다.“엉엉 뭐야 내가 또 무슨 짓을 했는데?”그녀는 매달린 나를 뒤돌아보지도 않고 아주 약간 난처하다는 말투로 말했다.“정말 별거 아녔어요. 저한테는.”“‘저한테는’??? ‘저한테는’ 이라고?”허허 점입가경이네. 다른 사람한테도 주정을 부렸나 보지? 진짜 죽어야겠다. 안녕 꿈 같았던 세상아.내가 이제는 ‘꼭 듣고 말겠다는’ 태도로 사뭇 진지하게 베라에게 물었다.“베라아... 내가 너한테는 어떤 주정을 부렸는지 죽기 전에 꼭 듣고 싶어...”그제서야 베라는 조금 쑥스럽다는 얼굴을 살짝 기울이며 내 쪽을 돌아보았다.“아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제 몸매가 부럽다면서...”나는 나도 모르게 침을 조금 삼켰다. 내가 뭐라고 했을까. 이 베라의 육감적 몸매가 부럽다면서 무슨 행패를 부렸을까.베라는 내 시선을 살짝 피하면서 말을 이었다.“그게...휴리안 도련님이 아가씨를 침대에 눕혀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곁에서 아가씨 머리가 편안하도록 베게를 정돈하는데 갑자기 제 목덜미를 껴안으시고는 ‘언제 한번 보여주면 안 돼?’라고 하셨어요.”완전 성희롱! 내가 베라를 성희롱 했다! 베라 입장에서는 직장내 상사의 성희롱!내가 얼굴이 시뻘게 져서 다시 한번 물었다.“미, 미안해 베라!! 휴리안 오빠 앞에서 그랬어? 엄청 민망했겠다...”베라는 담담히 괜찮다는 뜻으로 손을 살짝 흔든 다음 대답했다.“휴리안 도련님 앞에서 라고 할까... 도련님은 가장 가까이 서있으셨던 분이고, 침대 주위에는 가족 분들이 모두 서 있으셨는걸요...”내가!!!! 베라를 공개 성희롱 했다! 베라를 공개 능욕!내가 처참히 외쳤다.“죽여줘 베라... 정말 미안해...”“아뇨 전 괜찮아요. 그치만 뭐랄까... 아가씨... 음...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요...”“...뭐, 뭔데?”나는 다시 한번 긴장했다. 또, 뭐가 남아있는 걸까. 거의 포커페이스인 저 베라가 볼까지 발그레 하게 물들이고 우물쭈물하고 있다.“아가씨. 솔직히 조금 설렐 정도였어요.”“으잉? 뭐가?”나는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아 되물었다.“그... 취하신 모습이... 어린나이 답지 않게...뭐랄까 요염하셨달까.”‘베라...그런 쪽이 취향이야? 대담한 성희롱 해주는 정도?’내가 미묘한 뜻이 실린 눈빛을 그녀에게 보내자 그녀는 금방 뜻을 알아차리고 발끈해 했다.“제가 이상한 게 아녔어요! 그...”베라는 말하는 도중 다시 한번 쑥스러워 하며 말을 이었다.“제 목덜미에 매달려서 촉촉하게 눈물어린 얼굴로 ‘언제 한번 보여주면 안 돼?’라니요! 그건 도저히 어린아이가 낼 수 있는 요염함이 아녔다고요!”그래... 능글맞은 변태 직장상사가 할 법한 말이지... 그녀는 나를 너무 귀엽게만 봐주려고 한다. 내가 낙담해서 이마를 짚었는데, 베라는 그 모습이 아직도 자신을 이상한 취미의 여자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그 모습은 자신 만이 설렌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정말이라니까요? 휴리안 도련님조차 ‘라디는 밖에서 술을 먹이면 안 되겠어...’라고 하셨어요.”“그건 아마 내가 밖에서 부린 추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거야... 베라는 나를 좋게 봐주는 건 좋은데, 너무 편애 필터로 바라봐 준다니까? 하여튼간.... ”“에휴... 뭐,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그래, 사랑해 베라. 그리고, 사실 너의 그 몸매를 흠모하긴 했어.”내가 내 안의 응큼함을 살짝 토로하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화병을 닦는 것을 시작했다. 부끄럽다는 뜻이다.나는 참담한 심정으로 옷을 갈아 입었다. 속으로는 생각나는 어제의 만행들을 띄엄 띄엄 나열해 보았다. 우선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메디엘에게 골든리트리버라고 한 것... 와 벌써 대단하네. 이걸 본인한테 말해버리다니. 그 자존심으로 무장된 왕자님이 얼마나 길길이 날뛸까...그리고, 메디엘이 있는데 드러 누워 자버린 것도 문제고...허. 반말도 했던 거 같은데. 또...이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휴리안 오빠인가.휴리안 오빠한테 무슨 폐를 끼쳤더라...일단 손가락을 핥았던 것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아아아아아악 ...왜 그랬지...진짜. 못 먹고 산 애처럼... 그 민망한 기억 다음으로 떠오른 나의 행동에 나는 미칠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다.‘맙소사 나 설마 휴리안 오빠한테 진하 오빠 얘기를 한 건가?’정원에서 휴리안 오빠와 있었을 때가 가장 취기가 심하게 돌 때라 기억이 애매모호했다. 게다가 잠들었을 때 꾼 꿈이 진하 오빠 꿈이라서 더욱 헷갈렸다. 꿈속에서 진하 오빠와 한 대화인 것인가, 아니면 휴리안 오빠에게 진하 오빠 얘기를 해 버린 것인가. 긴장감에 진땀이 났다.‘들켰으면 어떡하지... 아냐 진정해, 침대까지 옮겨 준 것도 휴리안 오빠였다며, 게다가 눈치 빠른 베라의 분위기로 봐선, 가족들도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였던 거 같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휴리안 오빠에게 심각하게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진 않다. 하지만 아직도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나는 겁을 내고 있었다.‘사실 난 당신들과 전혀 관계없는 타인이랍니다. 원래의 라디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유감이네요.’ 라는 말을 할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다. 이미 나는 이 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줘 버린 것이다. 사실을 밝혔을 때 그들이 보낼 곤혹스러운 눈빛 같은 건 정말이지 참기 힘들 것이다.‘빨리 휴리안 오빠를 봐야겠어.’옷을 대충 정리한 후 빠른 걸음으로 식당으로 내려갔다. 별일 없다면 가족들은 모두 아침을 먹으러 내려 올 것이다. 나는 항상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주의였다. 어서 오빠가 내 비밀을 눈치 채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싶었다.식당으로 들어서니, 언제나 부지런한 휴리안 오빠가 먼저 앉아있다가 나에게 밝게 인사했다.“아가씨, 몸은 좀 어떠십니까?”“괘, 괜찮아! 멀쩡해!”아무렇지 않게 말을 붙여주는 건 분명 좋은 증거겠지! 나는 희망적인 기분이다. 얼른 그와 마주보는 자리의 의자를 빼서 앉았다.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물었다.“오빠! 내, 내가 어제 혹시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았어?”그는 내 말을 듣고서는 살짝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맙소사! 정말 말해 버린 건가? 나는 표정관리고 뭐고, 단숨에 울상이 되어버렸다. 초조하고 초조하다.그가 살짝 쑥스러워 하더니 입을 열었다.“음... 글쎄? 말해주길 원해?”“응! 내가... 뭐라고 했어?”내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휴리안은 곤란함이 섞인 한숨을 내쉬며 조그맣게 말했다.“나한테는... 흑발 흑안 미남은 역시 묘하게 섹시하다고...비밀을 고백하듯이...”“으악!!!!”그런 술주정을 물어본 것이 아니었건만 나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동시에 묘하게 안심이 되었다. ‘다행이다! 진하 오빠 이야기는 안 한건가? 아니, 이게 다행인건가 지금?’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저, 정말? 내가 그랬어? 아니,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하지만...”내 말을 듣고선 휴리안 오빠는 아주 조금 볼을 붉히며 대답했다.“음...그렇게 생각해 줘서 고마워 라디... 아버지도 매우 좋아하셨어.”똑같이 흑발 흑안인 아빠도 좋아하셨단다....허허.. 아빠 앞에서 한말이구나 이거...그러나 나는 내가 진하 오빠 말을 안했다고 확신하고 싶은 마음에 좀 더 내 무덤을 파기로 했다.“그, 그리고 또? 더 이상한 이야기는 안했어?”오빠는 살짝 미간을 좁히며 난처한 듯한 표정을 순간 지었으나 금방 다시 평소와 같은 얼굴로 돌아왔다.“음... 그리고... 어머니께는 어머니에 대한 찬사로 이상한 노래를 지어 계속해서 흥얼거리기도 했지.”“뭐라고?! 노래를? 어떤 식이었는데?”오빠는 부끄럽다는 듯이 볼을 살짝 긁적였지만 상냥한 그답게 어제의 기억을 살려 비슷하게 불러주었다.“‘정말 예쁜 우리 엄마~ 완전 미인~ 여신급 기품~ 우리 엄마입니다~’...뭐 이런식.”“아하하하...이건 뭐... 엄청 웃기네...”이건 술주정 치고 좀 귀엽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지만 그나마 내가 저지른 일 중에서는 나은 것 같다.오빠는 씨익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응, 어머니도 좋아하시더라고.”나는 이제야 진정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휴리안 오빠는 이런 괴상망측한 행동들 말고 진하 오빠에 관한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다.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끝낼 수 있었다. 제르다민이 간간히 ‘술주정뱅이’라고 나를 부르는 것만 빼면 어제의 실수담도 가족끼리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소재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 다행이다. 앞으로는 더 비밀을 들키지 않도록 긴장해야겠다. 어쩐지 매우 오랜만에 학교수업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같은 반의 파르펠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은듯한 모습으로 나와는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귀찮지 않아서 좋긴 한데 어딘가 석연치 않기도 했다. 파르펠과는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서로 안보이는 척하면서 지내게 되는 걸까?이동수업이 끝나고 나는 안나에게 어제 있었던 나의 창피한 술주정에 대해 한탄을 하며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누군가 내 어깨를 뒤에서 조심스럽게 톡톡 쳤다.“저기... 라디올러스양 따로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예의바르게 불러세운 그 사람은 파르펠의 언니였다. 코멜라말이다. 나는 코멜라가 나를 따로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꽤 놀라고 말았다.“네? 아...예... ”순간 ‘해코지를 하려는 건가?’싶기도 했지만 그 태도가 굉장히 얌전했기 때문에 일단은 따라나서기로 했다. 안나에게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먼저가라고 작별인사를 했다. 그러나 안나는 이렇게 헤어지는 것을 주저하는 눈치였다. 코멜라는 척 보기에도 파르펠과 무척 닮았기에 내 걱정을 해주는 것이다. 괜찮다는 미소로 몇 번이고 안심시키고 나서야 안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다.‘정말 별일 아니긴 한 거겠지?’코멜라가 조용히 이야기를 하자며 학교 건물 뒤 공간으로 부르자 내가 너무 쉽게 따라온 것이 아닌가 약간 후회스러운 맘이 들기 시작했다. 모름지기 학교 뒤, 인적 드문 곳은 폭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아니던가. 여차하면 도망 갈 퇴로를 곁눈질로 보고 있는데, 앞장 서서 걷던 코멜라가 휙 돌아섰다. 나는 ‘진짜 때리는 거야?!’라고 속으로 외치며 나도 모르게 두 손으로 방어태세를 취하고 말았다. 하지만 내 겁먹은 포즈가 무색하게도 코멜라는 고개를 깊게 푹 숙인 채였다. 한참 연상인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한 것이다.“어제는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제 무례한 말을 용서해 주세요.”생일 파티자리에서 자신의 여동생을 사납게 옹호하던 그녀가 아닌 것 같았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진지한 어조로 진심이 느껴지게 말했다.“제가 미숙한지라 흥분해서 경우없는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부디 제 철없었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나는 그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져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코, 코멜라 양 이러실 거 없어요. 이제 고개를 드세요. 이렇게 사과를 하시는데 물론 용서하고말고요.”고개를 든 그녀의 얼굴은 아까보다 훨씬 안심한 얼굴이었다. 그녀가 긴장이 조금 풀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아아...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흥분만 하면... 못된 소리가 나가버려서...”“어쩐지 제 쪽이 더 감사하네요. 솔직히... 이렇게 정중한 사과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내 나사빠진 듯한 소리를 듣고 코멜라는 다시 한번 붉어진 얼굴로 ‘죄송했습니다!’하고 고개를 숙였다. 파르펠 보다는 이쪽이 더 대하기 편하다는 생각이 마구 든다.내가 이제 더는 고개를 숙이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자 그녀는 죄책감 어린 얼굴로 덧붙였다.“그러면... 그... 제르다민 공에게도 사과하고 싶다고 전해주실래요? 집에서 생각해 보니... 확실히 제르다민 공의 말이 맞더라고요.”제르다민? 제르다민 오빠와도 얘기를 했었나? 나는 궁금증에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제르다민 오빠요?”“네... 사실은 그... 휴, 휴리안 공이 화를 내시고 나서 바로 머리가 차가워져서 사과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라디올러스양이 안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염, 염치없게도 제르다민 공에게 라디올러스양에게 죄송하다고 좀 전해달라고 했더니...”‘크악, 제르다민 오빠한테 그런 부탁을 하셨단 말입니까...’나는 코멜라 양이 멱살이라도 잡혔을까봐서 그녀의 뒷말에 집중했다.“‘입만 산 것 처럼 보이기 싫다면 직접 사과하시지요...’라고... 확실히 그말이 맞습니다. 제르다민 공에게도 정말이지 실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이 사과는 직접 하면 귀찮아하실 것 같더라고요.”그녀가 머쓱해 하며 말을 이었다. 거칠지만 본성이 나쁜 것 같진 않아보였다. 의외다.게다가 제르다민 오빠가 그런 경우 있어보이는 조언을 했단 말인가? 믿기지가 않는다. 물론 엄청 무례한 단어선정이었지만... ‘입만 산 것’이라니... 오빠... 이분은 그래도 공작가 영애란 말야...“저, 저기... 제르다민 오빠는 원래 말하는 태도나, 자세나, 표정이나, 손짓이나 모두 냉랭하기 짝이 없으니까 코멜라 양이야 말로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칼만 쥐어주면 누구라도 찌를 것 같은 태도에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오히려 코멜라 양쪽이 걱정이 되어서 격려했다. 아니나 다를까 코멜라는 다행이라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그렇군요... 그래도, 영애의 다른 오라버니들과 다름없이 라디올러스양을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허허... 아무래도 오빠도 대외용 이미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나 보네요. 절 생각해 주는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내심 굉장히 의외였다. 요 부끄럼쟁이가 나 안볼 때 챙겨주셨어요?코멜라는 다시 한번 미안했다는 표정을 짓더니 인사를 꾸벅하고 가려다 말고 멈칫 했다. 그리고는 살짝 머뭇거려하면서 다시 나를 마주 보았다.“저기...그리고 말이죠. 사실 저도 파르펠이 라디올러스 양에게 조금... 뭐랄까 까탈스럽게 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제는 저도 한소리 하긴 했습니다만...”“음...조금만 더 까탈스러웠다간 목을 조르시겠어요.”나는 그 ‘까탈스러웠다’라는 표현이 웃겨서 나도모르게 빈정거렸다. 말해놓고도 ‘아차 이사람이 파르펠 언니지?’하는 생각에 입을 가렸지만, 코멜라는 크게 개의치 않아보였다.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네에...맞아요. 아주 길길이 날뛰었겠죠. 정도를 모르는 아이라...”“흠흠...생각보다 잘 알고 계시네요.”“그 애가 아무에게나 그렇게 나쁘게 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그애에게 있어서, 라디올러스양은 너무 꿈꾸던 모습 그 자체라서...”꿈꾸던 모습? 내가? 파르펠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 항상 내 머리색이며 내 집에서의 위치에 대해서 깎아내리려고 안간힘을 쓰던건 그 애였는데...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코멜라를 쳐다보자 코멜라는 재빨리 덧붙였다.“아, 물론 그게 라디올러스양을 괴롭히는 걸 정당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기회에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놨으니가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에요.”“아니, 그게 아니라요.. 파르펠 양이 저를 부러워 하고 있다는 건가요?”코멜라는 맞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그애는 부러워서 견딜수가 없는 거에요. 라디올러스양은 파르펠이 원하던 것을 다 갖추셨거든요.”“...뭐가 부럽다는 거죠? 파르펠양도 똑같이 공작가 영애이시고, 더구나 몸도 건강하시고 영리하신데요.”코멜라는 장난스레 씨익 웃었다.“라디올러스양은 마법 클래스이시잖아요.”“네? 겨우 그거요?”코멜라는 펄쩍 뛰었다.“겨우 그거라뇨! 마법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게다가 파르펠은 어렸을 때 꿈이 프라마에 입학하는 거였거든요.”“엇, 제가 프라마에 갈 수 있을 리가 없는데요...”코멜라는 한숨을 쉬었다.“음... 뭐라고 할까 그애는 자기 오빠한테 환상이 있어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프라마에 입학한 카네리안 오빠에게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자기가 프라마에 가서 오빠와 함께 지내겠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었죠. 주위에서 그건 네가 마법에 소질이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어쩐지 어린마음에 당연히 자기가 마법에 재능이 있을 줄 알았나봐요.”“음... 어쩐지 귀여운 이유네요.”코멜라는 어깨를 으쓱했다.“게다가 오빠들에게 귀여움 받는 모습이라던가, 왕자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하나하나 부러우니까 그렇게 심통 맞게 군거에요. 아.. 말하고 보니 더욱 죄송스럽네요. 제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그렇습니다. 반성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되지...’싶다가도 어린 여동생이 귀여워서 무심코 편을 들고 말아서요.”“...이제 와서 친하게 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내가 머뭇거리며 그렇게 말하자 코멜라는 자신의 본래 성격대로 화끈하게 끼어들었다.“어휴! 그렇게 된다면 저야 기쁘지만 라디올러스 양께서 신경 쓰실 건 없어요! 분명 그애가 잘못한 거니까요. 그애가 노력해야 할 문제에요. 다시 한 번, 저번의 결례는 사과드리겠습니다.”내가 됐다고 말했지만 끝내 머리를 숙이고 나서야 코멜라는 그곳을 빠져나갔다.나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조금 멍하게 있다가 ‘아, 나도 집에 갈까...’하고 뒤돌아 섰다가 깜짝 놀라 주저앉고 말았다.“끄악!”“하하... 라디, 요즘 맨날 놀라네?”초 근접한 거리에서 미카엘이 서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잘 놀라는 게 아냐! 네가 잘 놀래키는 거야! 놀란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면서 물었다.“어, 언제부터 있던 거야? 그만 좀 놀래켜!”그는 티없이 웃으며 대답했다.“라디가 저 여자한테 불려나가길래, 아 라디가 드디어 ‘선배한테 학교 뒷마당으로 호출’까지 당하는 구나. 하고 조용히 따라와 봤지.”뭐가 ‘드디어’야... 기대하고 있던 사람처럼 말하지 말라고. 찜찜한 구석은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 걱정해 준 걸까.“걱정되서 따라와 준거야?”“응, ‘건방지게 나대지마!’하고 따귀라도 맞는 걸까 하고.”어쩐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잘 꿰고 있구나 미카엘. “그런데 미카엘, 너 내가 코멜라 양과 대화한 내용도 다 들었어?”그렇게 묻자 미카엘은 딴청을 부리며 시선을 피했다.“흐음...여기 꽤 좋네, 햇볕이 잘 드는 잔디밭이라니, 좀 앉을래?”자신의 재킷를 벗어 바닥에 깔아주기까지 했다. 그리고는 자신은 그 옆에 털썩 앉았다.“대화를 엿들었다고 탓하는 게 아닌데?”내가 그를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말하자 그는 바로 활짝 웃으면서 내 손을 잡아끌었다.“응, 들었어. 여기 앉아.”그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마자 매우 솔직하게 대답했다. 약은 것인가, 순진한 것인가.내가 그의 재킷에 풀물이 드는 것이 염려되어 머뭇거리자, 그가 강하게 당겨서, 거의 넘어지다시피 그의 재킷을 깔아뭉게고 말았다.“음. 고마워 미카엘. 이 자켓 괜찮겠어?”“뭐, 새로 사면되지.”“그러다 거지된다. 너...”얼마 전까지 땡전 한 푼 없었던 주제에 그는 항상 금전에 대해 쿨하다.그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그럼 내 무릎에 앉을래?”“네 재킷을 깔아준 호의는 얌전히 받을게.”내가 능청스레 말하자 그가 키득대며 개구쟁이처럼 웃었다. 그렇게 웃는 미카엘은 참 보기가 좋다. 나는 다시 묻고 싶었던 말을 했다.“어쨌든, 미카엘. 우리의 대화 내용을 들었으면 말이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뭘?”“음... 그냥 코멜라 양이 했던 말들 말야. 파르펠이 여태까지 내가 부러워서 괴롭혔다는 거.”그는 싱긋 입꼬리를 올렸다. 그러나 눈은 그다지 유쾌해 보이지 않았다.“글쎄? 네가 부럽다고 그렇게 맘대로 행동하는 게 정당화될 리는 없다고 보는데.”“네 말이 맞긴 하지만... 그 애는 겨우 11살이잖아.”“너도 마찬가지잖아.”“그리고... 그 애는 말은 함부로 하긴 했지만... 뭐 생각해 보면 장난은 귀여운 수준이었어. 음... 난 그렇게 작은 여자애들한텐 맘이 약해져버리더라.”그가 너무 딱부러지게 말했기 때문에 어쩐지 파르펠 편을 들어주고 싶어서 우물쭈물하며 말했더니 그가 미묘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나한테는 네가 더 어리고 가냘파보여. 그런 너를 건드리는 행동을 한다면 상대가 누구던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아.”그가 내 눈을 뚫어지게 보며 천천히 말했다.나는 그가 파르펠의 짓궂은 장난 정도에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조금 당황했지만, 나를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이 기뻐서 대답했다.“그렇게 생각해 줘서 고마워 미카엘. 하지만 사람에겐 언제나 관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미카엘은 내 말을 듣고선 피식 웃으며 다시 정면을 응시하였다. 부질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하지만 여태까지 나에겐 너 말고 아무도 그 ‘관용’을 베푼 사람 따윈 없었어.”“내가 너에게 언제 관용을 베풀었다고 그래?”그는 내 호의를 너무 부풀려 말했다. 나는 ‘관용’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일은 한 기억이 없다.미카엘이 무표정하게 말했다.“모르겠어. 그런 기분이 드는 걸 어쩌겠어.”나는 탄식을 섞어 그의 이름을 불렀다.“미카에엘~ 나를 너무 특별한 케이스로 생각해 줄 것 없어. 지금까지 네가 운이 없어서 만나지 못했을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그는 내 이야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듯 가벼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가 대꾸가 없었기에 내가 계속 말했다.“너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상냥하잖아?”어서 인정하라고 그의 팔뚝을 쿡 찔렀더니 그가 위험하게 미소지으며 나를 돌아보았다.“라디는 정말 태평하구나.”그가 나를 비웃는 듯한 목소리를 내었다. 나는 얌전히 그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바깥세상 같은 건 제대로 보려고도 하지 않고, 예쁘게만 생각하려고 해.”“그런가...”분명 내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긴 하다.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그의 말에 나는 시무룩하게 중얼거렸다. 그는 잠깐 침묵하고 나를 빤히 내려다 보다가 다시 입을 뗐다.“하지만 네 그런 생각은 나에게 위안이 되어주기도 해.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꽤 달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얼굴은 무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거리자 그는 마치 딴사람처럼 밝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왕자 생일 파티는 어땠어?”그가 이제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그다지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깃거리였다.“음...뭐... 괜찮...”술주정에 대해서는 숨기고 싶어서 어물거리자 그가 날카롭게 내 말을 낚아챘다.“거짓말. 술에 취해서 아주 엉망이었다며, 나한테만 얘기해주지 않으려고 하지마. 기분 나쁘니까.”그는 여전히 싱글싱글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매서웠다. 사냥하려고 몸을 낮추는 야수같았다.그러나 나는 미카엘의 이런 표정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있다. 이제와서 위협적이라거나 하는 감흥은 없었기에 무난하게 패스했다.따지자면, 미카엘이 그 사실을 벌써 알고 있다는게 더 놀라웠다. 게다가 벌써 알고 있으면서 왜 굳이 나에게 또 물어보는걸까.“으악! 솔직히 그건 별로 자랑할만한 건 아니잖아? 아니, 어떻게 벌써 알았대? 왕자님이 말씀하시든?”그가 코웃음을 쳤다.“왕자님이랑 네 뒷담화를 조곤조곤 할만큼 친한 사이는 아닌데 말이지... 내가 왕자님 생일파티에 사람을 안 넣어 놓을 정도로 허술하진 않지.”“뭐어? 그게 뭐야? 나를 감시하고 있어?”내가 섣불리 짐작해서 비명을 지르니까 그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내가 너 뭐하나 일일이 사람을 붙일 정도로 한가하진 않아. 그저, 그런 파티에서는 오가는 정보가 많으니까. 뭐, 무슨 일 생길까봐 네가 걱정되긴 해서 널 최우선으로 신경 쓰라고 말해 놓긴 했지. 왕자 생일 파티정도면 꽤나 요란스러운 자리니까.”그가 덤덤히 말했다. 너무 천연덕스럽게 말해서 ‘아하? 내가 너무 자의식 과잉이었니?’하고 하마터면 속아 넘어갈 뻔했다.“어쨌든 유심히 지켜본거네! 날! 술 취해서 엉망이었다는 걸 알정도로!”“뭘 그렇게 빡빡하게 그래.”그가 정곡을 찔리자 순진한 듯이 '하하하'하고 웃어댔다. 영악하게도 내가 이 웃음에 약하다는 것을 아는 거야!내가 속지 않는 다는 듯이 외쳤다.“가짜로 웃지마! 사기꾼아!”그는 연기가 간파당하자 키득키득 몇번인가 웃더니, 이번에는 진심인것처럼 부드럽게 미소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네가 걱정 돼서 견딜 수 없어서 그랬어. 용서해 줘 라디.”내가 그의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다정함에 약하다는는 것도 아는 걸까? 이 행동조차 계산된 것이라면, 내가 그를 당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나는 이내 그를 따라서 웃어버리고 말았다.근데 이렇게 하하 웃는다고 넘어가도 되는 건가? 왕실 파티에 스파이를 넣어두는게?미카엘은 상상 그 이상이구나.“미카엘, 너 역시나 심복같은게 있는거야? 대단하다.... 감옥에서 나온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고 보면 돈은 어디서 벌어오는거야?”여태까지의 그는 이런 쪽 이야기는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굳이 묻지 않았지만, 오늘은 얘기가 나온김에 물어보았다. 미카엘은 그다지 싫은 기색 없이 싱긋 웃으며 답했다. 기분이 좋은것 같구나 미카엘.“아아 돈은 말야.... 들어봐 라디. 길드가 해체되었을 때, 길드가 갖고 있던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겠어? 나쁜 놈들은 기회가 오면 말이지, 이때다 하고 빼돌려간단 말이야.”미카엘은 또 쉽게 들을 수 없는 뒷세계 이야기를 해준다. 흥미롭기 때문에 열심히 들었다.“응, 응. 너희 길드랑 왕래가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돈을 슬쩍 해버리는 거야?”“역시 라디~ 이해가 빠르구나. 그래, 나라에서 뺏기 전에 대부분은 걔네가 슬쩍해서 달아나. 나는 일부러 그들에게 틈을 만들어 두었어. 가져가기 쉽게 말야.”그가 짓궂게 웃었다.“왜?”그가 바로 이야기를 이어서 할 것임을 알지만 추임새를 넣었다. 재밌는 이야기인것 같다.“나중에 나와서 나랏돈을 빼돌리는 것보다야 걔네들 돈을 다시 뺏는 게 더 편하니까. 그 욕심쟁이들이 돈도 알아서 불려놓을 거고 말이지.”무슨 투자를 한 것처럼 말하는 구나 미카엘... 결국엔 ‘뺏었다’ 이거지?내가 기대를 충족시키는 기괴한 그의 사고에 허허 웃으며 물었다. 난 여전히 그의 비현실적인 논리에 터치할 마음은 없다.“...그래서 회수는 잘 됐니? 미카엘.”“꼭 주제를 모르고 덤비는 것들이 있어서 귀찮은 일도 있었지만... 뭐 괜찮았어. 돌아다니면서 다시 사람도 모으고.”“앗! 나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정말로 이제 암살 길드는 안 만드는거야? 사람을 모았다니... 너 말이야...위험한 일은 안하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내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그는 뺨을 물들이며 행복한 듯이 웃었다.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응, 라디. 암살 길드가 아냐. 그렇지만 걱정은 계속 해줘.”이건 무슨 묘한 애교일까? 걱정끼치고 싶지 않은거야 아니면 걱정 끼치고 싶은거야.“미카엘... 그렇지 않아도 널 걱정하지 않고선 못 배기니까 염려마.”내가 못 이기겠다는 듯이 웃으며 말하자 그가 만족스럽게 비밀을 말했다.“암살 길드가 아냐. 이번엔 용병단을 만들었어.”“뭐? 용병단? 뭔가 굉장하다...미카엘... 아직 이렇게 어린데 말야.”내가 진심으로 감탄했다. 용병단? 16살이 용병단을 만들 수 있다고? 내가 16살 땐 뭘 했더라... 창피하네.그는 내 감탄이 듣기 좋았는지. 눈을 가늘게 뜨고 자랑스러운 듯이 웃었다. 베시시 웃으며 말했다.“나쁜 놈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엥? 나쁜 놈들로 용병단을 만들었어? 좋은 사람들로 만들면 안되니...”“생각해 봐 라디. 착하고, 생각이 바른 녀석이면 당연히 군대나 자경단같은데 들어가려고 하지. 이제와서 용병단에 들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그가 당연하다는 말투로 오목조목 따지며 말하자 나는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아니, 뭐랄까. 용병단이라는 건 말만 그럴듯 하게 들리고 사실 암살 길드랑 똑같이 위험한 일 아냐?“미카엘... 저기 말야. 암살길드랑 용병단이랑 차이점이 뭐야?”“대낮에 일한다는 거?”“음... 또?”“어... 대놓고 유명한 사람을 죽여주진 않는다는거.”“...”'대놓고'는 안죽이는 걸로 들리네. 어쨌든 의뢰는 받나보다그는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생각났다는 듯이 덧붙였다.“아, 돈도 암살길드보단 좀 덜 받지?”맥이 빠진 내가 옆으로 풀썩 하고 그에게 기댔다. 힘없는 목소리로 그에게 부질없는 딴지를 걸었다.“미카에엘!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 걱정돼... 걱정돼 죽겠다고...”미카엘은 내 한탄을 듣고서는 청량감 있는 웃음을 크게 터트렸다. 진심으로 내가 걱정하는 게 맘에 드나보다. 이 청개구리 같은 아이.그는 자신의 어깨에 실린 내 머리를 만지작댔다. 그리고는 다정한 목소리를 냈다.“괜찮아 라디. 이번에는 내가 공식적으로 그 용병단에서 얼굴을 내미는 일은 없을 거야.”“그래? 그러면 좀 덜 위험하려나?”내가 고개를 떼서 다시 자세를 바로 잡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미카엘은 내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보는 아이처럼 시선을 고정한 채,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에 의미 없는 희롱을 했다.“음... 그렇겠지... 나는 군대에 들어갈 거야.”“왁! 뭐라고? 군인? 미카엘이? 대단해! 정말? 아... 하지만 군인도 그다지 마음에 평온을 가져오는 직업은 아닌데...”미카엘이 전투에라도 나간다면 나는 걱정에 매일 뜬눈으로 밤을 새워야 할 것이다. 내가 단번에 울상을 짓자 그가 달콤한 목소리로 나를 진정시켰다.“라디, 그런 표정 지을 필요 없어. 나는 웬만하면 죽지 않아.”그다지 효과 좋은 위로는 아니었다.“죽지 않는다고 내가 와~하고 안심하겠어? 바보야. 네가 조금만 다쳐도 엄청 슬플거야...”전장에서 피투성이인채 구조를 요청하는 미카엘을 나도 모르게 상상해 버렸다.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다. 게다가 지금 그레펠은 실제로 전쟁중이라서 더욱 무섭다.그는 누구보다도 위에 군림하는 야수처럼 위험하게 웃었다.“그럼, 약속할게 라디. 나는 다치지 않아. 물론, 죽지도 않아. 네가 슬퍼하는건 싫으니까... 근데, 슬퍼해줄꺼지?”그가 마지막 말은 자신 없게 덧붙였다. 나는 어이가 없는 것을 넘어 조금 화가 날 정도이다.“슬퍼하다마다! 바보냐!?! 그걸 말이라고 해? 장난하냐고!!”그제서야 그는 수줍은 듯이 빙긋 웃었다.“기뻐. 라디.”‘바보 같은 미카엘.’아직도 그가 나를 뭘로 보고 있는지 황당하기까지 해서 화가 다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 순진한, 조금은 슬픈 미소를 보자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다.나는 할 수 없이 인상을 펴고 천천히 앞을 쳐다보았다. 그는 아직도 싱글벙글이다. 화는 낼 수가 없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다.“뭐... 확실히 미카엘은 엄청 빨리 높은 자리로 올라갈 거야. 재능이 있으니까. 포제타 왕국이랑 언제 다시 본격적으로 전투가 일어날 지 몰라서 여전히 걱정스럽기 짝이 없긴 하지만... 미카엘이라면. 응, 게다가 네가 하고 싶다고 하니, 나는 응원해 줘야겠지.”내가 체념해서 중얼거리니까, 미카엘은 느긋하게 맞장구를 쳤다.“그래. 응원해줘.”“그럼 굳이 용병단을 몰래 만든 이유는 뭐야?”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그야 전쟁중엔 용병단으로 돈벌기가 엄청 유리한 것도 있지만... 전쟁에서 이용해 먹으면 내가 더 눈에 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말이지 라디. 애초에 군인이 되려는 것도 전쟁 때문인걸.”“뭐? 처음부터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일을 벌이고 있던거야? 왜에? 왜 그렇게 몸소 위험한 일을 찾아다니는 거야아... 넌 원래 네 몸을 제일 챙기는 애였잖아. 진짜 내 걱정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면 역시 그만둬 응? 평소에도 걱정 엄청 해줄테니까...”나는 그의 위험을 쫒는 듯한 모습에 거의 애걸했다. 그러나 그는 씨익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난 전쟁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야. 나 정도면 단숨에 높은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전투가 일어났다 하면은 실력으로만 평가받기 쉬워지니까.”“명예? 지금 명예와 지위가 갖고 싶다는 거야 미카엘? 이상해. 너 원래 그런거에 연연하는 타입 아니었잖아...”그의 지금 이런 말들은 평소의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미카엘은 편히 먹고 살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좋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었다. 역시 이 소년은 너무 어렵다.미카엘은 말없이 하늘을 조금 바라보았다. 강한 햇빛에 눈이 부신지 눈을 가늘게 뜨고 조금 인상을 찡그렸다. 나는 그의 말을 기다리며 그 행동을 바라보았다.한참을 뜸들이던 그가 입을 뗐다. 느릿느릿하게 하지만 또렷이 말했다.“네가 너무 양지바른 곳에 있으니까 말이야 라디.”그가 고개를 다시 나에게 향한 후 해맑게 웃었다.“너와 함께 있으려면 나도 그쪽으로 걸어 나가야 하는 게 당연하겠지.”나는 말문이 막혔다. 지금 나랑 같이 있고 싶어서 군인이 되겠다는 거야? 나와 함께하려면 백작의 양자정도 되는 위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충격적이기 까지 했다.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그를 절박하게 말리려 했다. 그런 이상하게 맹목적인 결정은 그만두라고 말하려 했다.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안다는 것처럼 손짓으로 내 말을 가로 막았다. 그리고는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다.“또 상냥한 말을 하려는 거면 그만둬 라디. 어차피 다른 하고 싶은 일도 없으니까 괜찮아. 나는 지금 꽤 즐거워.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겨서 말이지.”그렇게 말하는 미카엘은 정말로 신나 보였다. 생기있게 빛나는 보석이었다. 그래서 차마 만류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대신에 그의 손을 꼭 잡았다.하고 싶은 말은 겨우 겨우 삼켜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그래 미카엘. 같이 따뜻하게 있자. 같이 양지에서 햇볕을 쬐자.”그는 나른하게 눈을 감으며 끄덕였다. 예쁘게 활짝 미소 띤 얼굴로 한참동안이나 내 손을 잡고 그렇게 앉아만 있었다.햇볕이 기분 좋게 내려앉는 한적한 교사 뒤였다.왕자님의 생일 파티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코우젠타 양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우아한 성에 초대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코우젠타는 곱게 절을 하며 우아한 목소리를 울렸다. 제르다민, 헬리오, 윌로우 오빠까지 모두 나와서 그 어여쁜 손님을 맞이했다. 마지막으로 휴리안 오빠가 공손하게 그녀에게 인사를 해 보였다. 그녀는 꽃처럼 미소 지었다.이어서 그가 자연스럽게 그녀를 식당으로 에스코트했다. 당연히 휴리안 오빠의 옆자리는 그녀를 위한 자리였다.코우젠타양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오빠가 은은하게 웃음 띤 얼굴로 말없이 의자를 살짝 빼주었다. 휴리안은 그녀와 시간을 보낼 때 항상 이런식으로 흠잡을 데 없는 매너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는 예의바른 신사이니까. 그럼에도 이런 자잘한 그의 친절에 그녀는 한없이 행복하다는 미소로 볼을 물들였다.코우젠타 양은 사랑스럽게도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무릎을 까딱 구부렸다 펴서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선 의자에 앉았다. 휴리안 오빠도 가볍게 목례로 답하고선 그녀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다시 밀어 넣어주었다.나는 평소와 같이 휴리안 오빠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서 그 광경을 보았다. 서로 그다지 말을 나누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백조 같은 한 쌍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오빠와 마주보는 자리에 앉은 것을 후회해 버렸다. 그리고는 그 불편한 감정에 당황했다.‘어째서?’나는 당혹스러웠다. 정말로 이 우아한 커플이 보기 싫다고 생각해 버린 걸까? 진정 오빠의 미래만을 생각했다면 앞으로 잘 해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이 다정한 모습에 나는 기뻐했어야 했다.‘어떻게 이렇게 심통 맞을 수가 있어? 나 정말 못됐다.’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방금 분명 오빠의 행복은 뒷전으로 미룬 것이다.‘오빠가 가버리면 내가 외로워 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리 없어.’그들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기쁘지 않은 내 심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생각해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내안의 예쁘지 않은 구석과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괴로웠다. 진심으로 이 누구에나 사랑받아 마땅할 큰오빠의 행복만을 빌어주고 싶었다. 나의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미뤄두고 싶었다. 그러나 내 이기심은 예상보다도 훨씬 크고 끈적했던 것이다.부끄러움에 오빠의 시선을 마주할 수가 없었다. 코우젠타양은 식사예절도 완벽했고, 대화도 교양 있게 잘 운용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식사에 몰두하는 척했다. 할 수 있다면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가족들이 내 역겨운 이기심을 눈치 채지 못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꽤 천연덕스럽게 간간히 미소로 끄덕거리며 이야기를 듣는 척 했다. 이런 행동까지 하나도 귀엽지 않은 나였다. 귀여운 구석은 찾아볼 수 없다. 웃음이 나올 지경이다.“그런데 라디올러스 양은 정말로 귀여워서 여동생으로 삼고 싶을 정도에요.”속으로는 나의 귀엽지 않은 모습에 대해 신랄하게 조소를 날리고 있었건만, 코우젠타 양은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을 걸어왔다. 울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역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끔 고맙다는 의미로 빙긋 웃었다.“코우젠타 양이야 말로 너무 아름다우셔서 꼭 언니로 삼고 싶은 걸요.”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고개를 돌리고 싶을 정도이다. 보고 싶지 않다. 그녀는 내가 내안의 더러운 부분과 마주보게한다. 코우젠타 양은 잘못이 없는데.내 연기는 잘 먹힌 모양인지 코우젠타 양은 살며시 한손으로 볼을 가리고서는 ‘어머...고마우신 말씀...’이라며 휴리안 오빠를 쳐다보았다.“휴리안 공의 여동생 분은 상냥하기까지 하시네요.”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오빠는 나에게 다정한 웃음을 보내며 대답했다.“이상적인 여동생이죠.”심장에 바늘이 꽂히는 기분이었다만 다시금 미소로 대꾸했다.코우젠타는 잊은 것이 생각났다는 듯 ‘아참’하고 중얼거리며 두 손을 아주 가볍게 마주쳤다. 그녀의 부드럽게 웨이브진 황갈색 머리가 그 움직임에 살짝 흔들렸다. 그녀가 나를 보며 수줍게 말했다.“잊으면 안되니까... 카렌, 라디올러스 양에게 드릴 책을 지금 미리 전달해 두시겠어요?”그녀가 그녀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카렌’이라고 불린 시녀에게 지시했다. 내게 줄 책? 우울한 와중에도 나는 그녀의 뜬금없는 말에 되물었다.“네? 코우젠타 양, 책이요?”“네에. 휴리안 공께 라디올러스 양이 책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추천하는 책을 가져와 보았답니다.”“저를 위해서요? 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녀의 친절이 계속 괴로웠다.카렌이 우리 집 시종에게 책을 넘겼다.나는 마음을 다잡고 그녀의 친절에 예를 표했다.“상냥하기도 하시지. 감사합니다.”코우젠타는 손을 가볍게 흔들며 별거 아니라는 동작을 취했다. 쑥스럽다는 듯이 웃으며 자신의 친절이 가벼워 보이도록 말했다.“아니에요, 레이디. 그저 평범한 책인걸요.”그녀는 나에게 시선을 돌려 말을 이었다.“라디올러스 양이 보시기에 너무 유치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우화 모음집이라서요... 그렇지만 삽화가 화려해서 저는 꽤 좋아한답니다... 라디올러스 양께도 재밌으면 좋을 텐데요...”그렇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웃는 그녀는 정말로 사랑스러웠다.이날 만찬은 끝날 때 까지 좋은 분위기였고, 가족들은 코우젠타 양이 마음에 드는 눈치였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식사였다. 나만 빼고 말이다.코우젠타 양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좋았던 만찬이었다며 마지막까지 기품 있게 작별인사를 했다.나는 그녀와 헤어지자마자 모두에게 들릴만큼 밝게 말했다.“와! 빨리 방으로 가서 선물로 받은 책 구경할래!”더 이상 즐거운 듯이 연기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메이드에게 책을 건네받고선 서둘러 방으로 도망쳤다.방문을 닫자마자 마음껏 무표정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피곤하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나는 느릿느릿 침대로 걸어가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누웠다. 피로감에 온몸이 뻐근했지만 잠이 올 것 같지도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서 천장만을 바라보았다. 역시 잠은 오지 않는다.할 수 없이 코우젠타양이 준 책을 천천히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그녀가 말한 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었다. 섬세하게 그려진 삽화가 매우 보기좋았다. 짤막한 이야기의 중간 중간에 이야기의 주인공인 동물이 사람처럼 옷을 입고선 중요한 대목을 연기하고 있었다. 채색까지 공들여 했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 고급스러운 책이었다.가벼운 교훈을 담고 있는 우화들은 어려울 것도 없고 대부분 짤막했으므로 생각 없이 읽어나가기 편했다. 순식간에 마지막우화의 순서가 되었다. 마지막 우화는 귀여운 고양이가 주인공이었다. 우화의 첫 페이지에 한눈에 보기에도 새침때기인 고양이가 귀족 아가씨처럼 화려한 모자까지 쓰고 레이스로 치장된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우화의 내용은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아는 고양이가 주인님의 애정이 영원할 줄로만 믿고 농장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에 쫓겨나는 이야기였다. 글을 모두 읽었을 때만해도 조금 찜찜한 구석은 있었지만 별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겨 마지막 삽화를 보고나니, 나는 또다시 괴로운 밤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그림에는 주인에게 발로 차여 농장에서 내쫓기는 고양이가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었다. 고양이의 몰골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얼마나 세게 차였는지 자신의 자랑이었던 모자도 훌렁 벗겨진 모양새였다.삐죽 나온 고양이의 머리카락은 선명한 분홍색으로 덧칠해져 있었다. 다음날이 되었는데도 고민은 사라지지 않았다.내가 코우젠타에 대한 질투심때문에 괜한 억측을 하는걸까 몇번이고 고심했다.‘설마 코우젠타양 정도 되는 사람이 나를 고양이에 빗대기 위해서 일부러 이 책을 준걸까? 아니 왜?도대체 이런 짓을 해서 그녀가 얻는게 뭐라고.’하지만 그냥 잠자코 있자니 억울해서,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다.내가 하는 생각이 너무 멀리간 생각인지 타당한 고민인지 같이 생각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휴리안 오빠한테 털어놔야겠다. 오빠가 그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게다가 이게 진짜 선전 포고라면 앞으로의 일도 그가 선택해야한다.그렇게 굳게 마음먹고 휴리안과 만나기로했다.그러나 막상 그를 마주하면, 앞으로 내가 하려는 말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코우젠타 양이 준 책 삽화에서 못된 고양이의 머리색이 나랑 똑같이 분홍색이야. 이거 나 비꼬는거 맞지?' 라고 말하려고 하면 자꾸 내가 너무 꼬였나 싶었던 것이다.그렇게 오빠한테 말하는 것을 머뭇댄 끝에 나는 결국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멍하니 오빠의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오빠의 마지막 수업은 검술 수련이었다.나는 약속대로 오빠를 기다리기 위해 운동장 쪽으로 향했다. 날씨는 맑아서, 하늘은 투명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구름 한 점 없었다.복잡하고 힘든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버거웠다. 이제는 아무래도 좋은 느낌이다.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하기도 했고, 수면부족 덕분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아 몰라 몰라... 그냥 오빠한테 말하지 뭐. 이게 뭐라고. 조금 유치해 보이더라도 괜찮아. 실제로 여기서 나는 어리기도 하잖아?’그런 생각을 하며 느릿느릿 도착해 보니 오빠가 속한 수업은 벌써 시작하고 있었다. 운동장은 경사가 있는 스탠드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느긋하게 수업을 구경했다.오늘 수업은 남학생들만 듣는 것 같았다. 검술을 수련하는 여학생이 매우 적은 것을 알고있다.둘씩 짝지어 검술 대련을 해보는 것이라, 호전적인 남학생들은 얼굴이 상기되어 보였다. 평소의 정장 같은 교복보다 움직이기 편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소년들은 싱그럽게 웃고 있었다.그 젊고 생기있는 어린 귀족들 사이에서도 휴리안 오빠는 금방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진주가 내는 듯한 은은한 빛을 낸다. 어쩐지 눈을 뗄 수 가 없다. 살짝 미소를 머금고 다른 학우들이 신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간간히 맞장구 쳐주고 있었다. 같은 반이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을 텐데도 남학생들은 휴리안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다는 듯한 표정이다.나는 어째서 휴리안 오빠만 저런 빛을 낼 수 있는 것일까 궁금하다. 어떻게 그는 남들과는 다른 광택을 낼 수 있는 거지? 고독함을 대가로 얻은 것일까. 그래서 저렇게 손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깊은 느낌을 내는 걸까.선생님이 대련을 시작하라는 소리를 내자 끼리끼리 모여 장난도 치고, 잡담도 하던 학생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짝을 맞추어 예의바르게 서로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훈련용 목검을 실전처럼 진지하게 빼들고 대련을 시작하였다.나는 무릎위에 팔꿈치를 대고 턱을 괸 상태로 그가 싸우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싸우는 모습은 여름철 산속에서 가끔 보이는 검은제비나비 같았다. 흔하게 보이지 않아서 어쩌다 보면 득을 본 기분이 드는 그 나비는 윤택이 신비롭게 돌고 크기도 꽤 커서 나풀나풀 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는 그 나비가 나는 모습과 같게 검을 휘두른다.대련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휴리안의 대전상대인 소년은 금방 검을 떨어트렸다. 그러나 소년은 별로 분해 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역시..’하는 얼굴로 머쓱해 하기만 했다.머릿속을 비우고 그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아려오며 애틋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내가 사랑해 마지않던 오빠를 닮은 사랑해 마지않는 오빠이다. 그 사실이 묘한 서글픔과 애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사랑하고 사랑하는 이 감정은 표면이 날카로워서 가슴에 품고 있으면 여기저기 베여서 피가 줄줄 나버리지만, 그럼에도 황홀해서 놓을 수가 없다. 소중하게 껴안아버리고 만다. 그를 보고 있으면 그가 보고 싶다. 그래도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깨달으면, 어느 샌가 무아지경으로 그를 멍하니 보고 있다.아름답고 깨끗한 휴리안. 소중히 여겨주고 싶다는 것은 한 치의 거짓 없는 진심이지만, 나부터 그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제르다민 오빠는 코우젠타를 보고 휴리안의 광신도라고 불렀다.하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내가 그녀보다 이전부터 오빠의 광신도였다. 나에게 있어 진하 오빠는 신과 같이 생각되어진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휴리안 오빠도 나에게는 종교였던 것과 다름없다.어느새 수업을 듣던 소년들은 땀투성이가 돼서, 타월로 목덜미를 닦으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훈련이 끝난 모양이다. 생각보다도 내가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나 보다.물통을 받아든 휴리안이 마찬가지로 타월을 목에 두른 채 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다. 그는 다른 소년들 보다 훨씬 멀쩡한 모습이었다. 이마에 살짝 땀이 맺힌 정도로 보였다. 그가 찬찬히 웃음 지었다.“라디, 아예 수업을 처음부터 구경한 거야? 심심했겠다. 적당히 시간 맞춰서 오지 그랬어.”“별로 안 심심했어. 오빠를 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시간이 금방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끝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넋을 잃고 멍하니 있었지만. 내 말을 들은 휴리안은 입꼬리를 더욱 예쁘게 올리며 비밀스럽게 말했다.“사실, 네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 별로 티 안 났지?”“그런 거 치고 너무 쉽게 쉽게 이겨버리던걸. 멋져 오빠. 장난 아니었어.”내가 키득거리며 말하자 오빠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물을 조금 마셨다.“아 그렇게 보이려고 정말 힘들었어. 네 앞에서 꼴사납게 질 순 없지. 라디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겠니? 옷 금방 갈아입고 갈게.”“천천히 와도 돼.”나는 뒤돌아 뛰어가는 그에게 재빨리 덧붙였지만 그는 뛰는 것을 그만두지 않고 순식간에 탈의실로 들어갔다. 그 후에 너무 금방 나왔기 때문에 나는 그가 흐트러진 곳이 있으면 고쳐주려고 살펴보았지만, 그런 곳 따윈 없었다.그는 나를 마차로 에스코트 해주며 다정하게 물었다.“라디, 에프터눈 티를 마시러 가려고 하는 데 어때?”“와~ 나 케이크 먹어도 돼?”내가 들떠서 말하자 오빠는 작게 키득거렸다.“당연하지 라디. 네가 기뻤으면 해서 같은 반 여학생에게 맛있는 곳을 알아본거란 말야. 에프터눈 세트가 괜찮은 곳으로.”“벌써 그 사실만으로 엄청 기쁘다.”내가 정말로 우울한 맘이 사라져서 그렇게 중얼거리자 오빠는 또 내 머리를 쓰다듬고서 말했다.“라디는 정말 소박해서 큰일이라니까.”그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웃으며 마차 문을 열어주었다.내가 마차 계단에 올라 오빠와 눈이 마주보이는 위치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그의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했다.“오빠가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왜 소박한 일이란 거야. 엄청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내말을 들은 그는 눈을 얇게 뜨고 빙긋 웃으며 중얼거렸다.“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에프터눈이 유명하다는 카페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잘 정돈된 정원에서 차양을 치고 여유있게 차를 마셨다. 귀족들이 드나드는 곳답게 여유있게 테이블이 놓여있어서 오빠와 조용히 이야기하기 좋았다.이번에도 처음에는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오빠는 내가 학교생활은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인지. 파르펠은 요즘에 어떻게 내게 대하는지 같은 것들에 대해 물었다. 나는 대답을 오빠가 원하는 만큼 자세히 했고, 그는 대답이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다.나는 오빠의 약혼에 대해서 드는 생각도 오빠와 툭 터놓고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하고 좋았다.“오빠, 오빠가 결혼해서 떠나면, 나는 분명 굉장히 굉장히 쓸쓸할 거야.”오빠와 시선을 마주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니까 오빠도 덩달아 말없이 나를 지긋이 바라보았다.그러고 보면 나는 철들고 나서 진하오빠와 쭉 계속 지냈었다. 마음의 위안처로 오직 그만을 두고서는 항상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른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곳으로 떨어지고 나서는, 휴리안 오빠가 진하 오빠의 역할을 맡아 해 주었다. 그덕분에 이곳 생활에 빨리 적응 할 수 있었다. 오빠가 결혼해서 나와 계속 함께 있을 수 없게 되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 잘 상상되지 않는다.여태까지 쭉 함께였는데.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불안하다. 하지만 익숙해 져야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어리광은 적당히 졸업할 때이다.나는 후련하게 웃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오빠를 아주 좋아하니까! 오빠와 언젠가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슬퍼. 하지만 오빠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분명 웃으며 손을 흔들 수 있어. 그 정도로 오빠가 소중해.”또 나에게 ‘좋아’라고 쉽게 대답해 줄 수 없어서 그가 어색해 할까봐 긴장하고 있는데, 그는 이번에는 눈이 부실만큼 빛나는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찬찬히 나와 눈을 마주치며 짧게 말했다.“응, 라디. 고마워.”조금 상기된 얼굴로 소년같이 이런 대답을 해 주다니! 분명 그가 예전보다는 다른 사람의 애정에 익숙해졌다는 것이겠지. 나는 기쁘게 받아들였다.나는 이 기세로 어제 밤부터 끙끙 앓았던 문제를 털어내기로 했다. 마음이 가벼우니까 말투도 자연스럽게 나왔다.“오빠, 이 얘기 듣고 웃으면 안 돼.”“응.”오빠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라는 표정으로 내 얘기에 집중하려고 몸을 내쪽으로 기울였다.“사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방과 후에 보자고했던 거 말이야. 내가 코우젠타 양에게 받은 책 때문이었어.”“뭐? 책? 그 우화집?”오빠는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 나에게 확인하는 질문을 했다."내가 오빠랑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코우젠타 양에 대한 질투인지 오빠에게 검사받고 싶어서..."그가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자 안심이 되어서 말을 쉽게 꺼낼 수 있었다.“응. 거기에 맨 마지막 이야기가 건방진 고양이가, 자기에 대한 주인의 사랑만 믿고 설치다가 결국엔 주인한테 쫓겨난다는 이야기거든?”“응.”“근데 마지막 삽화에서 고양이가 모자가 벗겨진 모습을 보니 분홍색 머리카락이더라고...”“...”오빠는 미간을 찡그리고 고민하는 얼굴로 나를 지긋이 바라보았다. 그의 이 표정이 무슨 의미인지 잘 구분이 가질 않았다.나는 민망해서 얼른 말을 덧붙혔다.“알아! 나도 웃긴거... 근데, 어쩐지 신경이 엄청 쓰이는거야... '나를 고양이에 빗댄건가...'해서... 내 자격지심인거 같긴 한데...”내 우물거리는 변명을 듣고 나서 오빠는 평소보다 조금 낮은 듯한 목소리로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내가 주인이고, 네가 고양이라면.”조금 느린 거 같은, 그러나 무척 귀 기울이게 되는 목소리였다. 그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너를 너무 안고 다녀서 네가 내 뺨을 할퀴고 도망가는 일은 있어도, 내가 너를 내쫓는 일은 없을 거야.”그는 시선을 자신의 앞에 놓인 찻잔으로 천천히 내리며 덧붙였다.“맹세할 수 있어...”그리고는 아직 따뜻한 차를 한 모금 삼켰다. “내가 고양이라면 정말 계속 안고 있어 줄 거야?”“라디가 고양이가 아니라도 계속 안고 있을 수 있는데... 네가 원한다면.”휴리안이 찻잔을 내려놓고 싱긋 웃으면서 대답했다.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거려질 정도로 상냥한 말이였다.“기쁘다 오빠”가슴에 맺혀있던 뜨거운 것이 눈물을 밀어냈다. 웃는 것과 우는 것 두가지 모두 멈출수가 없어서 참지 않았다.오빠는 내가 우는 것 같자, 또 당황해서 벌떡 일어나려고했다. 그러다 무릎으로 테이블을 쳐서 찻잔에서 차가 크게 흘러 넘쳤다. 오빠가 끼고있던 하얀 장갑에 홍차가 물들어 버렸지만 오빠는 상관치 않고 내 곁으로 와서 허둥지둥 눈물을 닦아주었다. 오늘 오빠는 꽤나 덜렁이이다.“왜 또 울고 그래!? 응? 울지마? 왜 그래?”그는 땅에 무릎을 대고 의자에 앉아있는 나와 시선을 맞추고는 내 울음을 멈춰 주려했다. 오빠가 장갑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려고 했지만, 홍차가 식은 물이 축축했다. 오빠는 내 뺨이 홍차 물로 축축해 진 것을 깨달고 더 당황해 했다.“앗? 이거 뭐야? 미안! 라디! 언제 묻었지?”다급하게 장갑을 벗어내고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소중한 것을 닦듯이 눈물을 닦아주었다. 손수건에서는 여지없이 오빠 향기가 났다. 청량하면서도 어딘가 그리운 향기.나는 활짝 웃으며 오빠를 안정시켰다. 그러나 눈물은 아직도 조금 났다.“호들갑이야 오빠 하하. 그냥 기뻐서 그래...”“라디...”오빠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며 눈썹을 서로 대었다. 그리고는 나를 품에 꼭 안고는 등을 토닥였다. 내가 그와 처음 만났을 때도, 그가 이렇게 해 주었다는 게 생각났다. 그때 그는 ‘달래는 게 서툴러서 미안하구나’ 라면서 대성통곡하는 나를 보듬었었다.그가 나를 품에 넣자, 그의 어께부근에서 손수건에서 나던 향기를 더욱 강하게 맡을 수 있었다. 따뜻하고 안정되는 기분이 됨과 동시에 더욱 눈물이 나와 버린다. 그때와 똑같이, 달래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울고 싶어지는 것이다.“오빠...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마워... 그치만 이렇게 달래려고 하진 않아도 돼. 내가 말했지? 위로해 주려고 하면 더 눈물이 나는 법이라고...”내가 훌쩍거리며 그를 밀어내려고 하자 그는 내 뒷머리와 등을 지그시 눌러 더욱 강하게 자신의 품에 가두었다. 그리고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그래, 그리고는 ‘그치만 더 그러고 계셔주세요’라고 울먹이는 얼굴로 부탁도 했었지.”나는 하하 하고 크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가 나의 그 꼴사나운 모습을 기억 못할 리가 없지...나는 겨우 눈물을 그치고 얌전히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은 채 중얼거렸다.“ 오빠, 역시 나는 코우젠타 양과 따로 얘기를 나눠봐야겠어.”오빠는 내 말을 듣고 조금 뜸을 들이다 입을 떼었다.“하지만 라디... 괜찮겠어?”“응.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녀가 정말 나를 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히 해야겠어. 그녀는 내가 사랑하는 오빠의 약혼녀이니까.”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나를 안은 팔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다시 안았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댄 채였고, 나는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였기 때문에 그가 나를 꼭 안으려 하자, 어쩐지 내가 그를 위로하는 포즈가 되었다. 나는 손을 그의 등으로 둘렀다. 그리고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도 위로받고 싶어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가 조그맣게 중얼거렸다.“하지만, 라디. 네가 울것 같다면 그냥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하고 싶은 말이나, 듣고 싶은 말은 내가 전달해 주면 되잖아.”“그렇지만 오빠도 헷갈리지 않아? 그녀의 본심이 무엇인지... 이런 민감한 감정이야기는 당사자들이 해야 할 것 같아.”내가 오빠를 설득시키자 오빠는 다시 말이 없어졌다. 그냥 그 나를 껴안은 모습으로 천천히 숨을 쉬며 그의 손가락에 닿는 내 머리카락을 살짝 살짝 건드렸다. 고민 중인 것 같았다.“근데 오빠, 이 카페 추천한 사람 누구야? 진짜 케이크가 맛있네...”내가 그의 어깨 너머로 문뜩 내가 먹던 케이크가 보여서 뜬금없이 말하자, 오빠가 키득거리며 나를 품에서 놓아주었다.“아차, 케이크 먹던 거 방해해서 미안해.”“엥?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다시 마저 먹어보도록 할까.”내가 훨씬 진정된 마음으로 포크를 들자 오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피식 웃었다.“어쨌든... 네가 정 그렇다면 다시 한번 코우젠타 양을 우리 집으로 초대 해 볼게. 네가 그녀의 집이나 다른 곳에서 그녀와 단 둘이 말하는 것은 불안하니까.”내가 긴장할까봐 코우젠타를 우리집에 불러준다는 것인지, 그녀가 해코지 할까봐 불안하다는 것인지, 내가 사고를 칠까봐 불안하다는 것인지...도대체 뭐가 불안하다는 건지는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나는 일단 끄덕거렸다. 사실 그는 내가 말한 삽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도 잘 모르겠다. 일단은 나를 바보 같은 여자아이라고 무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만족한다.아... 조만간에 코우젠타 양이랑 독대할 일이 생기겠구나. 멍하니 생각하며 눈앞의 생크림 케잌을 조금 떠서 입안에 넣었다. 오빠의 말씨같이 포근했다. 명문 여학교에 다니는 코우젠타 양이 갑자기 시간을 내려면 역시 휴일 밖에 없었던 모양인지, 그녀는 학교를 가지 않는 휴일인 오늘 낮에 우리집에 오기로 했다. 보통때처럼 집에 부모님도 계실 줄 알았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어? 나가세요 아빠?”아빠와 엄마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가려는 채비를 하시고 계시기에 내가 물었다. 아빠는 피곤하다는 얼굴로 대답하셨다.“포제타 왕국이 또 국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것 같구나 얘야. 정말 조만간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걱정이야... 너희가 이렇게 어린데 말이다.”엄마도 지긋지긋 하다는 얼굴로 불평하셨다.“세상에, 이번에는 민간인까지 공격했다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할 일이 늘어날것 같아. 라디, 오늘 우리는 코우젠타양을 못 볼 것 같아. 그래도 괜찮겠지?”“응, 물론이야 엄마.”“그래, 착한 라디. 오빠들 말 잘 듣고 있으렴. 아, 코우젠타 양에게 초대까지 했는데, 얼굴 못 비춰서 죄송하다는 말도 전해주겠니.”“네, 두 분 모두 조심히 다녀오세요.”내 배웅을 받고 부모님은 휴일에 일하는 피곤함을 얼굴에 역력히 내보이시며 집을 나서셨다. 정말 전쟁이 코 앞이라는 느낌이다. 불안한데... 우리집 오빠들은 윌로우만 빼고 모두 전쟁이 일어나면 징집될 나이대이다.나는 잠시 전쟁이 일어났을 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다가 머리를 좌우로 털어냈다. 불길한 생각을 하기 싫어서 차라리 코우젠타에 대한 생각을 하기로 했다.그녀가 오면 뭐부터 말해야 할까. 점차 차오르는 긴장 속에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짜보며 손님을 맞이할 단장을 끝마치자 그녀가 도착했다는 말이 들렸다.서둘러 내려갔지만 이미 휴리안 오빠가 코우젠타 양을 맞이하고 있었다. 내가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인사를 하니까 코우젠타는 예의 그 선량한 미소를 지으며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라디올러스 양! 저를 보고싶다고 해주셨다고요? 초대해 주셔서 기뻐요.”아, 이런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니 내 의심에 대해 자신감이 마구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진짜 이 상냥한 아가씨가 나한테 악의를 전달하려고 이딴 유치한 짓을 했을까?내가 심란해 하면서 어색하게 미소짓고 있으려니까 헬리오 형제가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인사를 하러 다가왔다. 자신의 서재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제르다민도 매우 귀찮다는 얼굴로 내려와 다들 형식상 코우젠타에게 인사를 하고 빠르게 흩어졌다. 헬리오 형제도 수련장에서 검술 연습을 하고 있던 모양이다.이제 나와 코우젠타가 단둘이 이야기를 할 차례이다. 휴리안 오빠가 우리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응접실의 문을 열어주었다. 코우젠타가 먼저 들어가고 내가 들어갈 차례가 되자, 오빠와 눈이 마주쳤다. 오빠는 표정으로 ‘정말 괜찮겠니?’하고 물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오빠. 나는 ‘괜찮아’라는 의미로 웃어보이곤 응접실로 들어섰다.오빠는 문가에서 ‘레이디 분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시길.’이라고 우아하게 웃어 보인 다음에 문을 소리가 나지 않게 닫아주었다. 정말로 그녀와 단둘이 남아버렸다.생각했던 것보다도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어색했다. 한동안은 하인이 미리 준비해 놓은 차에 정신이 팔린 척을 해야 했다.그녀도 말없이 차를 홀짝였다. 결국 내가 먼저 입을 뗐다.“저기 코우젠타 양. 제가 오늘 코우젠타 양과 둘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금....코우젠타 양과 깊은 대화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그녀는 내 말을 듣고선 살짝 웃으며 물었다.“어떤 종류의 깊은 대화를 원하시나요?”나는 단번에 우화에 대한 말을 할 용기가 나질 않아서 두 번째로 궁금했던 것에 대해 먼저 물었다.“휴리안 오빠를 좋아하시죠?”그녀가 내 맥락 없는 질문을 듣고선 이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냐는 듯이 웃었다.“물론이죠.”“오빠의 어떤 점이 좋으세요?”내가 좀 더 말을 듣고 싶어서 또다시 질문했다.코우젠타는 어린 나의 질문에도 무시하는 기색이 없었다.나는 코우젠타가 오빠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는지가 궁금했던다. 오빠가 사실은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는 것일까?코우젠타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러나 순순히 대답해 주었다.“그야... 휴리안 공은 완벽하시잖아요?”“음...그 말씀은, 오빠의 모든 점이 좋다는 말이신가요?”그녀가 싱긋 웃었다.“휴리안 공께 단점이란 것도 있던가요.”그녀가 단언하듯이 말했다. 나는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되었다. 나는 말을 조금 더듬었다.“아, 하지만 그 오빠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뭐랄까...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두는 듯한?”내 딱부러지지 못하는 말을 듣자마자 코우젠타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아. 그녀도 알고 있구나. 오빠가 사실은 혼자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코우젠타가 묘한 미소를 입에 띄우며 물었다.“으흠? 휴리안 공이 사람과 거리를 두신다고요? 휴리안 공은 항상 누구에게나 다정하신걸요.”그녀가 모르는 척하고 있다. 입으로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에게 묻고 있지만 눈동자는 ‘그의 그런 점이 뭐?’라고 도전적으로 말하고 있었다.나는 포기하지 않고 캐물었다.“알고 계시잖아요. 오빠의 그런 면 말이에요, 사실은 속마음을 잘 내보이지 않는다는 거요.”코우젠타가 살짝 소리내서 웃었다. 살포시 입을 가리고 웃는 모양새는 평소와 같이 우아한 태도였지만, 그녀가 자주 짓곤하는 가냘픈 듯한 은은한 웃음이 아니었다. 정말로 재밌다는 듯이 입꼬리를 크게 올리고선 나와 똑바로 시선을 맞추었다. 막, 우리 집에 도착했을 무렵 보다 더 생기있는 목소리로 나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네, 맞아요. 역시 라디양도 알고 계셨군요. 휴리안 님은 고고하신 분이에요. 예상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들으니 또 놀랍네요.”나는 그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말하기 쉬워지겠다고 속으로 내심 기뻐했다. 지금 그녀의 모습은 평소 보다 조금 더 당돌한 느낌이라 약간은 당황스러웠지만, 뭐 누구나 시댁에서 이정도 내숭정도는 피울 것이다. 생각보다 약하고 하늘하늘한 아가씨는 아닌 것 같긴하지만 말이다.그녀가 휴리안을 생각보다 자세하게 안다는 것이 확실해 졌으므로 거리낌 없이 물었다.“코우젠타 양, 오빠가 코우젠타 양에게는 마음을 여는 것 같던가요?”그녀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바로 대답했다.“아뇨?”너무 간단하고 무덤덤한 대답이라 오히려 내 쪽이 당황하고 말았기 때문에 주절주절 말했다.“네? 아...그게 참 뭐랄까 유감이네요... 오빠도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빠가 상냥한 건 분명하잖아요? 오빠는 분명 나중에는...”아직 무엇이라고 더 말하려 했지만 그녀가 끼어들어서 내 말을 잘랐다.“그게 왜 유감이죠?”정말로 모르겠다는 듯이 나에게 대뜸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코우젠타 양은 그러니까 지금... 오빠가 코우젠타 양에게 마음을 열지 않은 게 왜 유감이냐고 물으신거 맞죠?”“네.”“그럼 이 상태로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두 번이나 되묻고 말았다. 휴리안이 본인에게 다가서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녀는 자랑스러운 듯한 얼굴로 내게 당당히 말했다.“괜찮다고 하고 말 것도 없어요. 저는 그 분의 모든 것을, 그 자체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아니다. 나는 휴리안의 지금 상태를 사랑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다. 그가 외롭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코우젠타의 대답은 핀트가 어긋나있다.나는 다시 내 본래의 의도가 전해질 수 있게끔 말했다.“그게 아니에요 코우젠타 양, 휴리안 오빠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다가가지 않아도 괜찮냐고 묻고싶었어요.”내 말을 들은 그녀는 오히려 나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왜 완벽한 것을 굳이 깨트리려고 하죠? 저는 예전부터 라디양의 그런 점이 참 이해되지 않았어요.”“네?”나야 말로 지금 코우젠타가 하는 말의 2할 정도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조사 빼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지.그녀는 이제 내가 눈앞에 없는 것처럼 황홀한 미소를 띄우며 중얼거렸다.“저는 그 분을 처음 봤을 때 감히 말하건대, 정말 신과 마주한 줄 알았어요...그 완벽함. 그 아무것에도 좌우되지 않는 초연함...”“진심으로 휴리안 오빠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혼자 초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내가 기가 막혀서 묻자, 코우젠타가 싸늘하게 나를 내려다 보았다.“그러는 라디양이야 말로 너무하시는군요. 왜 휴리안 공의 지금의 상태를 온전히 사랑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시는 거죠? 너무 이기적이신거 아닌가요?”“저는 지금의 오빠도 사랑해요!”내가 발끈해서 외쳤다. 그러자 그녀가 코웃음 치면서 비웃었다.“하! 그럼 왜 그의 이 아름다운 상태에 대해 찬미를 보낼 생각은 못하시고 그의 균형을 무너트리는 어리석은 행동들만 하시는지...”기가 막힌다. 이 여자와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 아 오히려 기쁘기까지 하다. 자신에게 가슴을 쭉 펴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이 여자는 휴리안 오빠에게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 코우젠타와의 결혼만은 필사적으로 막고 싶다.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녀가 하는 말을 물끄러미 보고만 있는데, 그녀가 흉측한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천천히 질린다는 말투로 입을 열었다.“그래요...그 분의 완벽함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 아둔함이라니요... 부탁인데 휴리안 님의 있는 그대로를 좀 사랑해주세요...” 나는 코우젠타의 태도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다. 휴리안에게 완벽함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외로움을 강요하고 있다.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가 행복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내가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당신은 오빠의 옆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나는 흥분해서 얼굴에 피가 확 몰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코우젠타는 여전히 안색하나 바뀌지 않고 대꾸했다.“라디올러스 양, 설마 진심으로 휴리안 공이 고칠 점이 있다거나, 누군가에게 동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그런 뜻이 아닌게 당연하잖아요? 제 말은! 휴리안 오빠도 행복해 질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내 외침에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그렇게 자신만이 그 분을 생각하고,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줄래요? 휴리안 공이 행복해 질 필요가 있다는 당신의 말은, 결국 지금 그 분은 불행하다는 거잖아요.”“적어도 행복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나는 그녀에 기세에 지지 않도록 코우젠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는 거 보라는 듯이 호호호 웃었다. 분하게도, 그녀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모양새였다. 코우젠타가 입을 열었다.“지금 누구 맘대로 휴리안 님이 불행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에요?”“고립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말해보세요. 당신과 제가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죠? 확실히 저는 제 맘대로 휴리안 공은 현재에서 바뀔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게 왜 나쁘다는 거에요? 당신도 똑같잖아요?”“제가 당신과 어떻게 똑같다는 겁니까! 당신의 이기심과 비교하지 마세요!”“그러니까, 뭐가 다르다는 건지 계속 묻고 있잖아요?”그녀가 의자를 끌어당겨 나에게 바짝 붙어 앉았다. 어서 대답해 보라는 듯이 그 큰 눈으로 나를 재촉했다. 내가 냉정해지려고 노력하면서 또박또박 말해나갔다.“당신이 오빠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모두 자기만족이에요.”“정말 지치네요.”그녀가 질린다는 듯한 표정을 하며 얼굴에 나른하게 손부채질을 했다.“귀여운 라디올러스 양. 당신이 하는 행동은 그럼 자기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그녀가 입술을 보기 좋은 곡선을 그리며 손을 뻗어 내 머리카락을 건드렸다.그녀의 가느다랗고 하얀 손가락이 내 목덜미에 간간히 닿는 것이 매우 거북했다. 나는 목에 무엇인가를 두르는 것조차 꺼려한다. 그것이 질식의 공포를 크게 느꼈었던 지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차갑게 말했다.“제 몸에 함부로 접촉하지 말아주십시오 영애.”그러나 그녀는 내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저히 내 목 근처의 머리카락을 만지작 거리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댔다.“마치 당신은 오로지 휴리안 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것처럼 말하시다니요. 후후... 어찌보면 귀엽기 까지 하네요. 사람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어요.”그녀의 손은 조금 차서 더욱 소름 끼쳤다. 나는 참다 못해 그녀의 손을 밀어냈지만, 그녀는 히죽 웃으며 이번엔 양손을 모두 내 어깨에 올리고는 내 목을 손가락으로 마치 피아노 건반을 치는 것처럼 톡톡 건드렸다. 내가 목을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다.내가 약점을 잡힌 듯 한 기분이 들어, 최대한 표정에 내 기분이 들어나지 않게 하며 그녀에게 쏘아붙였다.“이제 말하기도 지겹지만, 애써서 나를 코우젠타 양과 동류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주세요.”“이 위선자.”“밑도 끝도 없네요 유치해서 더는 대화를 나눌 가치가 없어보입니다요.”“당신도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휴리안 공을 불행한 것처럼 만들려는 거잖아요?”“무슨 말입니까 이건 또.”나를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쳐다보는 그녀의 눈은 광기가 그대로 묻어나와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입가에 조금 남아있던 미소를 천천히 지우며 말했다.“자신이 휴리안 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위해서, 휴리안 님에게는 당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달라붙고 싶은 명분이 필요해서! 휴리안 님을 가엾고 외로운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그녀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나에 대한 분노를 내보였다. 사납게 화를 냈다. 그러나, 그녀의 그런 표정보다도, 고양된 말투보다도, 그 말이 나를 상처 입혔다.내가? 내가 휴리안을 가엾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건 무슨 심한 농담이지...“그렇지 않아요!”내가 소리 높혀 그 말을 부정하자 그녀는 내 어깨부근을 꽉 죄었다.“거짓말 마세요! 그는 지금까지 혼자서 잘 해왔어요. 그가 자신을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는데 왜 당신이 멋대로 그를 동정하고, 흔드는 겁니까!”그녀가 화난 표정으로 이어서 말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이집안 사람 그 누구도 당신에게 관심없었던거 다 알아. 휴리안 님이 잠깐 상대해 줬다고 당신이 뭐라도 된것 같아요?"아,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건가? 그녀는 휴리안에 대한 비뚤어진 사랑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안되는것 같다. 요즘엔 11살 파르펠 조차 날 괴롭히지 않는데.“아야! 이거 놔요!”내가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그녀는 나에게 손을 더욱 억세게 뻗어왔다. 내가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무서워서 일어나려고 하자 그녀가 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거칠게 일어나다가, 탁자를 쳤다.요란한 소리를 내며 유려한 곡선을 자랑하던 고급 티세트가 산산조각 났다. 그 큰 소리에 코우젠타는 조금은 제정신으로 돌아왔는지, 아까처럼 덤비지는 않았다.“정말이지 이 바보 같은 분홍색도 거슬려 죽겠어요... 당신이 휴리안 공에게 무슨 짓을 했는 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휴리안 공이 분홍색 꽃만 사오신단 말야...”그녀가 먼 곳을 보는 듯한 눈으로 멍하니 중얼거렸다.나는 그녀의 그 말에 그녀가 우화를 일부러 나를 비꼬기 위해 보낸 것임을 확신했다."역시 당신 그 분홍머리 고양이 삽화 때문에 저에게 책을 선물한거죠?"그녀는 멍하니 있다가 내 말을 듣고선 살짝 웃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내 쇄골 근처에서 살랑 거리던 머리카락을 건드렸다.“꺄아!”나는 순간적으로 비명을 질렀다.솔직히 말하자면 그녀는 나에게 육체적으로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방금전 그녀의 그 광기어린 표정과 행동에 겁에 질려있었다. 때문에 그녀의 별거 아닌 행동에 깜짝놀라 나는 더욱 과민 반응을 보이고 말았다.내가 그녀를 힘차게 밀어 넘어트린 것이다.나는 목덜미에 순간 와 닿는 그녀의 찬 손을 느끼고는, 이번에야 말로 목이 졸린다고 생각해 버렸다. 그리고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밀쳐냈다. 가냘픈 코우젠타를. 티세트가 산산 조각나서 널려져있는 응접실 바닥에.그녀가 작게 ‘꺄악.’하고 넘어지는 순간은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틀어놓은 것 같았다. 그녀의 예쁘고 가느다란 황갈색 머리칼이 공중에 탄력 있게 흩어졌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나의 공격에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힘없이 뒤로 넘어갔다.‘오, 안돼...’속으로 그 짧은 순간에 몇 번이나 이 현실을 부정했는지 모르겠다.털썩, 하고 그녀의 몸이 떨어지는 소리 뒤에는 그녀가 아픔에 쏟아내는 신음소리만이 들렸다. 그녀는 손을 많이 다친 것 같았다.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기 때문이다. 다른곳은 괜찮아보였지만 손은 사기 조각에 깊게 베인 듯 붉은 피가 샘솟고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죄... 죄송합니다...코우젠타양? 괜....”내가 그녀에게 한발자국 다가서자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무슨 일이신가요?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나던데요?! 실례지만 들어가겠습니다.”휴리안 오빠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벌컥 열었다.그는 놀란 눈으로 우리들을 번갈아 보았다.우리들은 다들 한동안 침묵했다.제일 먼저 입을 뗀것은 코우젠타였다. 가련하게 넘어져 있는 그녀가 오빠를 향해 애처로운 얼굴로 말했다.“휴리안 공...아마 제가 잘못한 탓이에요. 제가 라디올러스 양을 겁줄 만한 말을 했나 봐요... ”오빠가 굳은 것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녀가 하는 말을 묵묵히 들었다. 코우젠타는 굵은 눈물을 방울 방울 흘리며 계속해서 말했다.“제가 철없이 말싸움까지 하고 말아선...라디올러스 양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저 어린 맘에 저를 밀친 것이겠죠... 너무 혼내지 말아주세요.”나는 당황해서 휴리안 오빠를 보며 외쳤다.“아, 아냐! 오빠! 나는!.... 나는!...코우젠타 양이 목을 조르려는 줄...”아...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가...초대받은 약혼녀가 별안간 목을 조른다니. 게다가 나의 과민 반응이 맞았다. 나는 변명을 해보려 했지만, 이미 나의 이성조차 담담하게 말이 안된다고 선언했다.사실 코우젠타의 말은 묘하게 모두 사실이라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생각은 잘 나지 않고 어린 애처럼 서운한 마음이 먼저 치고 올라왔다.코우젠타가 서글픈 목소리로 나를 보며 말했다.“어머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줄이야...슬퍼요... 저는 그저 목덜미의 머리카락을 떼어드리려고...”불쾌하고 절망적인 심정이었지만 필사적으로 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를 생각했다.‘뭐라고 말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해? 아... 넘어트린 건 사실이니까 일단 사과는 해야 하는 건가...’혼란스러운 와중에 일단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죄송합니다. 코우젠타양. 정말로 다치게 할 맘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하지만...”뭐가 억울한지도 모르게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얼굴을 문지르며 설명했다.“넘어, 넘어트린건 정말 죄송한데...”놀란 마음에 숨을 잘 못 쉬면서 말을 이으려고 하니까 더 바보 같아 보였다. 우선 그녀가 내 어깨를 쥐어틀었다는 걸 말하는 게 좋겠어. 라고 퍼뜩 생각이 들어서 말하려고 하는 데 오빠가 당황해 하면서 더듬거렸다.“라, 라디! 울지마!”휴리안이 허둥지둥 내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걸음을 옮기다 의자에 다리가 걸려 넘어질 뻔 했다. 오빠는 내가 울려고 하면 덜렁이가 되어버리는 것 같다.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이 내 바로 앞에서 나와 눈을 마주치고는 물었다.“왜 그래? 응? 왜 울어? 너도 어디 다쳤니?”“아냐 안울어...그저, 이, 일부러 그런 거 아냐 정말로...”“그거야 그렇겠지. 네가 정말로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했을리 없잖아.”그 말을 듣자 방금까진 정말로 울지 않았건만 눈물이 불쑥 나와버렸다. 다행이다 내 말을 믿어 주는구나.그가 볼을 타고 흐르는 내 눈물을 닦더니 훌쩍 안아 올렸다그는 위태로운 사람이다. 그럼에도 그런 그에게서 깊은 안정감을 얻는다. 그가 나를 믿어주었다. 내가 일부러 그녀를 밀었을 리 없다고 단언해 주었다. 눈물이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다.그의 서재까지 소란스러운 것이 들렸는지, 응접실로 제르다민 오빠가 투덜대며 들어오려다가 멈칫했다. 그 난장판인 모습에 놀란 것 같다. 아직도 코우젠타는 바닥에서 가련하게 피를 흘리는 채였다. 제르다민이 종을 울리고선 무뚝뚝하게 말했다.“여기 파호크씨좀 데려와줘. 손님이 손을 베었다고 전해.”그러나 그녀는 제르다민 쪽은 볼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나를 달래는 휴리안의 뒷모습만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가냘프게 울었다.“휴리안 공...”그 소리에 휴리안이 깜빡 했다는 듯이 휙 돌아서서 물었다.“아! 코우젠타 양. 좀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라디를 혼내지는 않을 거니까요.”그가 상냥하게 말했다.“말씀대로, 라디가 일부러 코우젠타 양을 밀었을 리 없잖아요? 다만, 정말로 말싸움 끝에 목을 조르려고 하신 건 아니죠?”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에게 깊숙이 안겨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오빠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쩐지 코멜라에게 화를 냈을 때의 목소리와 비슷했다.코우젠타는 재빨리 부인했다.“절대 그건 아녜요! 정말로 그건.. 아니에요... 휴리안 공.”울음 섞인 그 목소리가 서글펐다. 그녀를 동정하는 마음은 1할도 없었지만, 애처롭게 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확실히 휴리안을 좋아하긴 했으니까.“아 그렇습니까...”휴리안은 그녀의 절박한 부인을 듣고 가볍게 대꾸했다. 다시 평소대로 부드러운 목소리였다.제르다민이 문가에 기대서 그 난장판을 물끄러미 보다가 툭하고 말을 던졌다.“이런... 코우젠타 양은 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멍청했을 줄이야. 역시 그래봤자 17살인건가요.”코우젠타는 눈물 젖은 얼굴로 힘없이 제르다민을 살짝 바라보다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제르다민이 쯧 하고 혀를 찼다.“어리석게도, 정말로 당신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제르다민이 냉혹하게 말했다.하지만 나만 해도 그가 단호하게 내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계단에서 굴렀을때만 해도 메이드를 먼저 일으켜 주었던 그였다.제르다민이 깨진 컵조각을 하나 주어 들며 무심히 중얼거렸다.“쟤가 아무리 우리랑 피도 안 섞이고, 좀 밉상이긴 해도 우리 집 막내거든?”제르다민이 저렇게 대놓고 내편을 들어주다니 그의 말에 나는 놀라서 제르다민을 보려고 얌전히 휴리안에게 안겨 있던 몸을 돌렸다. 내가 그의 뜻밖의 다정함에 울음도 완전히 그치자 휴리안이 씁쓸한 말투로 중얼거렸다." 제르다민 만한 약이 없네.”“아니 그게 아니라... 제르다민 오빠가 저렇게 오빠같은 말을 해주다니... 조금 감격...”내가 멍하니 말하자 제르다민이 인상을 팍 쓰면서 말했다.“뭘 봐.”곧바로 우리 성의 주치의인 파호크씨가 다급하게 와서 코우젠타의 손에 붕대를 감았다. 코우젠타는 이젠 울지도 않고, 별다른 말도 하지 않은 채 얌전히 치료를 받다가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했다.“그게...휴리안 공은 여태까지 무조건 공평했으니까요...”휴리안이 여전히 나를 안아든 채 선량한 목소리로 말했다.“공평이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떤가요 파호크 씨, 그녀의 상태는 괜찮나요?”중년의 주치의는 끄덕 거린 다음 굵은 목소리로 대답했다.“네, 다행히 파고든 조각도 없는 것 같고, 곪지만 않게 조심한다면 금방 괜찮아 지실겁니다.”그 말을 들은 휴리안은 코우젠타에게 싱긋 웃어 보인 다음 말했다.“다행이네요 코우젠타 양.”그리고선 내 머리를 툭툭 쓰다듬었다.“라디, 다행이야. 코우젠타 양이 크게 다친 건 아니래. 이제 그만 속상해 해.”그는 내가 끝내 왜 울었는지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코우젠타를 다치게 해 버려서 풀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기로 했나보다.그 웃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던 코우젠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다.“아... 이제는 못 견디겠네요. 휴리안 공이 벌써 이렇게나 균형을 잃었을 줄이야.”제르다민이 그 소리를 듣고 그녀에게만 들리게끔 작게 픽 비웃었다.“이건 또 무슨 웃긴 소립니까 영애. 형님은 이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중인데요.”휴리안은 코우젠타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는 듯이 자상하게 웃으며 그녀를 돌아보았다.“코우젠타 양?”그녀는 힘없이 도리질을 한 다음 다치지 않은 손으로 머리를 정돈했다. 파호크씨가 붕대를 깔끔하게 마무리 해 주자, 일어나서는 오빠와 마주섰다.한참을 말없이 오빠를 바라보던 그녀는 평소 보였던 예쁘고 순진해 보이는 미소를 활짝 지어보였다. 그러나 두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우아하게 기품 있는 자태로 작별의 뜻이 담긴 인사를 했다.“실례가 많았습니다. 저의 신이었던 분. 이제는 안녕히.”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고선 꽤 오랜 시간동안 오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오빠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나를 바닥에 내려주고선 평소와 같이 자상한 목소리로 예의바르게 답해주었다.“신이라니..모자란 저에게 너무 과분한 말씀...안녕히 가십시오, 부디 당신의 앞날에 이제는 제대로 된 신의 가호가 있길.”그의 공손한 인사를 받고 나서야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고개를 들었다. 사랑스럽게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이고는 쓴 웃음으로 답했다.“아아...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제는 정말로 안녕이네요.” 코우젠타는 너무나도 시원스럽게 그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비록 큼지막한 눈물을 계속해서 떨어트리긴 했지만 마차에 오를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선 떠나갔다. 나는 그녀가 아쉬움이 절절 묻어나는 얼굴을 하면서도 담담히 그와의 이별을 말하는 그 모습에 놀랐다. 나에게 위선자라고 흥분해서 외치던 사람과 동일인물이라고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그녀가 떠나고 난 뒤 맥이 풀려서 제르다민에게 물었다."코우젠타 양이 휴리안 오빠와의 약혼을 포기하려는걸까?"제르다민은 무심한 눈으로 그녀가 떠나간 곳을 잠시 바라보더니 한숨을 같이 섞어 대답했다."그녀는 휴리안 형님에게 미움받느니 차라리 죽을껄?""엥? 지금 설마 휴리안 오빠가 그녀를 미워 할까봐 스스로 약혼자리를 찼다는 거야?"제르다민이 벌써 관심없다는듯 대답했다"뭐어...형님이 너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자신이 여태 맛있다고 생각했던 주변인 자리가 맛없게 느껴진 것 같기도 하고.""뭐? 주변인 자리? 코우젠타양이 과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을까?"제르다민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도 하지 않고 자신의 서재로 돌아가려는 듯 몸을 돌렸다. 내가 끈질기게 물었다."대답해 주시지요? 나를 귀여운 막내라고 생각하시는 자상한 둘째오...""귀여운 막내라고 한적 없어 밉상에 뇌가 없는 거 같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우리집 막내라고 했어."그가 짜증스럽다는 표시로 미간에 깊은 주름을 잡은채 덤덤하게 내 말을 바로잡았다."너무하네... 그렇다고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도 않았잖아 오빠?""넌 틈만 주면 기어오르려고 해서 문제야.""어쨌든 가만 보면 오빠는 아무한테도 관심없는 척 하면서 이런 감정문제나 사람 심리에 대해 엄청 자세히 살펴본단 말야? 오빠가 바로 그건가? 무심한척 사실은 다정한... 비오는 날에 버려진 강아지를 지나치지 못하는?""넌 틈만 주면 기어오르려고 해서 문제야."오빠는 이제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듯이 성의없게도 아까 했던 빈정거림을 그대로 시전했다. 빈정거릴 때 정도는 재치나 노력을 보여도 되잖아? 나는 그에게 대답을 얻는 것은 반쯤 포기하고 중얼거렸다."내 편들어줘서 고맙다는 얘기야."그가 나를 말없이 내려다 보더니 말을 툭 뱉었다."나같이 비뚤어진 사람들 생각이야 뻔하지 뭐.""뭐?"더이상 말할 생각이 없는지 나를 남겨두고 성큼성큼 자신의 서재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지금 코우젠타 양이랑 자기가 비슷하다고 말한거야? 저 높은 긍지의 오빠가 지금 자기를 비뚤어진 사람이라고 비하했어? 나는 뜻하지 않게 그의 약한 면을 본 것 같아서 그의 뒷모습에 대고 다급하게 외쳤다."제르다민 오빠! 오빠를 코우젠타 양에 비교하다니 어불성설이야! 오빠는 사실은 다정한 세심 배려 남이잖아?!?"제르다민은 나름 혼자서 진지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또다시 냉담하게 말하며 계단을 올라가 버렸다."...넌 틈만 주면 기어오르려고 해서 문제야."마지막까지 그 소리였다.내가 조금 심란한 마음에 계단쪽을 보며 쫒아가 보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휴리안 오빠가 내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려놓았다. 조금 놀라서 휙 올려다 보니까 그가 상냥하게 웃는 얼굴로 나를 나무라는 말투를 했다."너무하는구나 라디.""응? 나? 응?"내가 당황해서 혹시 사과할 만한 일이 있었나 기억을 되돌리는데 사과할 일이 너무 많아서 민망했다. 머쓱하게 뒷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사과했다."어...저기 오빠 음...미안해. 손님을 밀쳐서 다치게 하질 않나, 울어버리기도 했고... 또... 뭐 따지자면 내가 직접적인 원흉은 아니지만 티세트도 박살냈네... 또..."또 뭐가 있더라, 아주 거하게 해치웠네. 더 사과할 것을 생각해 보는데 그가 내 말을 가로막았다."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라디.."그가 못말리겠다는 듯이 조금 소리내어 웃었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지금 신경 쓸 사람은 아무래도 제르다민 보다는 나 아니겠니.""어?"무슨 말이지?내가 그의 말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어물거리고 있으려니까 오빠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였다."나 차인거잖아 라디.""워! 뭐? 응? 아! 진짜네!"그의 급작스러운 말에 갑작스럽게 상황파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으로는 차인건가? 내가 호들갑스럽게 놀라자 그는 쑥스러운 듯이 볼을 붉게 만들었다. 그가 조그맣게 말했다."그렇게 확인사살하면 역시 좀.... 면목없네.""아냐!! 헉...그렇구나... 오빠같은 사람도 차일수가 있구나...""음...일부러 놀리는 거야?"그가 민망하다는 듯 목덜미를 문질렀다. 나는 크게 손을 가로저었다."아니! 그게 아니라... 와... 진짜 코우젠타양이 이렇게 간단히 오빠의 손을 놓은거야? 역시 잘 믿겨지지가 않아."오빠는 조금 걷자는 듯이 내 팔짱을 끼고선 정원의 산책로로 걸음을 옮겼다. 그가 진지한 얼굴로 천천히 말했다."제르다민은 그녀가 나의 미움을 받기 두려워서 나와의 이별을 택했다고 하지만...."내가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자 그는 말을 하다말고 내 시선에 답하며 살짝 웃었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사실, 나는 처음부터 이 약혼이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았어.""어? 오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야?"그의 말은 조금 의외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한쌍이었기 때문이다.그는 민망하다는 표정으로 내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너도 들었겠지만... 그녀가 나를 보고 신이라고 한거 말이야.""아아, '나의 신이었던 분' 이라고 한거 말야?"그는 내가 기억을 회상하며 정확히 말하자 고개를 푹 떨구며 쑥스럽다는 듯이 끄덕거렸다."그래... 나같은 것에게 정말이지 엄청나지?"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죄책감이 느껴지는 얼굴로 중얼거렸다."그렇지만 말야... 그녀는 나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았어 라디. 나라도 그녀에게 제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그가 나를 살짝 바라본 다음 눈이 마주치자 다시 얼른 시선을 피했다."부끄럽게도, 나는 그런 기대를 받으면 왠지 부응하고 싶다고 생각해버리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될 수 있도록 행동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야..."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쓴웃음을 깊게 지었다. 그의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묻어나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마음을 토해냈다."그래놓고선 말야...라디. 그렇게 행동해 놓고선... "그가 나와 손을 잡지 않은 손으로 한쪽 눈을 지긋이 누르며 힘없이 한탄했다."...나도 그녀를 신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그게 정답인 건데 말야..."그가 슬퍼하며 뱉은 그 말은 오싹할 정도로 나에게 위험한 신호로 느껴졌다. 다급하게 그의 생각을 부정했다."그렇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는 잘못한게 없어!"그는 내가 흥분해서 외치는 말을 듣고선 싱긋 웃었다."상냥한 라디. 하지만 너도 들었지? 제르다민이나 코우젠타 양이 나에 대해 말할 때 '균형'이라더가...하고 이상하게 말하던 거 말이야."휴리안 오빠 사실은 모두 눈치채고 있었구나...그들이 오빠의 어떤점에 균형이라는 말을 빗댄 것인지. 나는 머뭇거리다가 끄덕거렸다. 휴리안은 담담하게 말했다."역시 제르다민이나 코우젠타 양같이 섬세한 사람은 모두 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까?"나는 정색을 하다못해 조금 화까지 내며 말했다. 그가 괴로워 하는 모습을 차마 바로 쳐다보지 못해서 정면을 응시하는 수 밖에 없었다."오빠가 이상하다니, 전혀 그렇지 않아. 내 모든 것을 걸고 내기도 할 수 있어. 굳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을 찾자면, 다른 사람들 보다 훨씬 다정하다는 것 정도지. 코우젠타 양을 코우젠타 양이 오빠를 좋아하는 만큼 좋아해 주지 못해서 가슴아파할 만큼.""정말 그렇게 생각해?"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다.내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당연하지!"내가 단언하자, 그는 잠시 말없이 걸음을 옮기다 이내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속삭였다."상냥한 라디. 아... 나는 또 후회할 만한 일을 하는 건 아닐까.""무슨 말이야 오빠?""코우젠타 양 때 처럼... 무심코 네가 원하는 오빠의 모습으로만 행동하고 싶어져."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고는 슬며시 웃으며 괴롭게 중얼거렸다."그게 또 너를 울리면 어쩌지... 이젠 견딜 수 없어..."그에게서 처음으로 듣는 속 마음에 어쩐지 기쁘기도 하고 말할 수 없이 서글퍼 지기도 해서, 나는 바보같은 말로 그를 위로하려고 하고 말았다."괜, 괜찮아 오빠! 원래 애들은 좀 울면서 크는 거야."내 어이없는 말에 그는 키득거렸다. 그가 아직도 슬퍼하는 것 같아서 나는 자신 없게 덧붙였다."...울리고 나서, 오늘 처럼 달래주면 되지... 그럼 몇번이고 용서해 줄게."오빠는 멍하니 아름다운 정원을 응시하며 다시한번 내게 말했다."라디. 상냥하기도 하지..."내 별볼일 없는 말주변으론 그의 깊은 고통을 달랠 길이 없어 보여서 나는 그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하고 대답했다.얼마 안가 코우젠타의 집안에서 약혼을 없었던 일로 하자는 정중한 편지가 배달 되었고, 휴리안 오빠는 공식적으로도 파혼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평화로운 수업이 얼마 만이었던가! 오늘은 마법 실습 수업도 없었고, 요즘엔 파르펠이 시비를 거는 일도 없었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쿨 라이프. 나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교실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가는 마차를 타기 위해선 정원과 건물을 구분 짓는 기둥이 멋스럽게 줄지어 있는 이 복도를 지나야 한다.‘역시 명문은 고급스럽다니까!’해를 받아 기둥의 그림자가 복도에 예술작품처럼 쏟아진다. 나는 이 장면을 꽤 좋아했다. 콧노래를 작게 흥얼거리며 걸음을 옮기는 데 복도 끄트머리에서 눈에 익숙한 레몬빛이 보였다. 멀리서 보아도 아름다운 남매였다. 내가 인사를 하려고 밝은 표정을 지으며 다가서는데 마리안 공주가 나를 발견하고서는 빠른 걸음으로 내게 다가왔다. 공주님은 복도에서 경박하게 뛰면 안 되기 때문에 애써 자제하는 것 같은 기색이 역력했다. 얼굴은 평소처럼 기품있는 옅은 미소를 띄고 있었지만, 발놀림은 마치 경보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무서웠다. 나도 모르게 뒤돌아서서 도망 가야할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다. 나는 당황해서 인사를 하려던 것도 까먹고 더듬거렸다.“공주님?!”마리안도 인사따위는 생략하고 대뜸 본론을 꺼냈다.“휴리안 공이 파혼하셨다는 게 정말인가요?”엄청난 기세였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안걸까? 공식적으로 편지를 받은 것은 오늘 아침이었는데. 게다가 그녀의 태도는 겨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셨냐고 도저히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지했다. 공주를 뒤따라 메디엘도 슬슬 걸어서 내 쪽으로 왔다. 그녀는 내 손을 양손으로 덥석 잡고는 빨리 대답하라는 듯이 지그시 눌렀다.“네, 네에. 파혼하셨어요.”내가 대답하자 공주는 그녀 치고는 꽤나 격렬하게 비탄의 몸짓을 해댔다. 응? 휴리안 오빠가 파혼한게 그렇게 충격적이란 말야? 물론 내가 생각해도 그것은 의외의 사건이긴 하지만 어째서 마리안이 저렇게 심각하게 반응하는 거지?내가 '마리안 공주님이 왜 이러는 걸까?' 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그녀가 자신의 오빠를 휙 돌아보며 외쳤다.“오라버니!! 대 위기에요! 전례 없는 대 위기라고요!”메디엘은 뒤에서 무표정하게 대답했다.“난 별로...이게 그렇게 까지 격하게 반응해야 할 일이야? 마리안.”그는 그녀의 이런 반응이 떨떠름한 것 같았다. 마리안은 단호하게 반박했다.“당연하죠! 여자의 감이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 정도로 휴리안 공은 엄청나니까요!”음.. 그녀의 말은 너무 두루뭉술했다. 물론 휴리안 오빠가 엄청난 건 맞는데 왜 이렇게 흥분해 있는 것일까. 아, 코우젠타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여자들의 대격돌을 말하는 거구나!나는 감을 잡고선 마리안에게 말했다.“오빠의 빈 약혼자자리를 얻기 위한 다툼이 그렇게 격렬했나요?”내 말을 듣고선 로얄 남매는 잠시 말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음? 이 얘기 아니었어?마리안이 미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아! 물론 그것도 엄청 문제기는 하죠. 굉장한 신경전이 될 거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있던 건 그게 아니라... 음... 라디양에게 직접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아 이 얘기가 아니었구나. 그럼 무슨 말이지... 다시 그녀의 말을 유추해 보고 있는데 마리안이 다시 자신의 오빠를 휙 돌아 보면서 말했다.“이것 보세요! 오라버니, 긴장 단단히 하시란 말이에요! 쉬운 상대가 아니라니까요? 큰일이에요 큰일....”메디엘은 뾰롱퉁한 표정으로 말했다.“마치 내가 상대도 안된다는 말투구나 마리안.”그 말을 들은 마리안은 잠시 멈칫 하더니 계면쩍은 표정으로 말했다.“사실 아무래도 어른의 매력은 오라버니보다는 그 분이 한 수 위...”메디엘은 마리안의 말을 듣고선 믿기지 않는 다는 듯이 입을 벌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마리안이 왜인지 메디엘과 휴리안의 매력을 비교해보고있다.왕국 내 인기 순위를 가늠하는 듯 하다. '휴리안이 완전한 싱글로 돌아와서 그런가?' 나는 잠자코 있기로 했다.마리안은 호호 웃으며 미안한 표정으로 메디엘을 달랬다.“오라버니! 괜찮아요 어른의 매력은 오라버니도 휴리안 공 정도 나이가 되면 생기실 거에요.”“나랑 휴리안 공은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마리안.”메디엘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마리안은 다시 한번 시선을 피하며 호호호 웃었다. 그러다가 생각난 듯이 말했다.“오라버니에겐 오라버니만의 매력이 있는 걸요!”“어디 한번 제대로 말해 줘 보렴.”그가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며 마리안을 내려다보자 마리안은 당황해 하며 대답하려 했다.“음...다정한건 휴리안 공도 만만치 않고. 얼굴...음...만만치 않네요. 성품...은 말할 것도 없고...”“마리안.”그가 매우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다그쳤다. 그녀는 다급해진 목소리가 되었다.“아, 아니에요! 잠깐만 있어봐요 오라버니! 신분! 신분이 있잖아요! 오라버니는 무려 이 나라의 왕자!”“...”메디엘은 그녀를 말없이 내려다 보았다. 복잡한 눈빛이었다. 마리안이 시선을 회피하며 덧붙였다.“내, 내세울게 그거 밖에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결코...”내가 키득키득 웃으며 끼어들었다.“메디엘 왕자님이랑 휴리안 오빠랑 뭘 비교를 하고 그러세요. 완전 의미 없잖아요.”메디엘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그러게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네요.”“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급의 의미미없는 질문이에요 두분다 가족에 꼭 필요 한 존재라고요.”그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메디엘이 나른하게 웃고선 중얼거렸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마를 더 좋아하는데 아빠가 상처받을까봐 말 못하는 것 뿐이에요.”내가 애매하게 대답했다."...제가 예시를 잘못 드렸네요."우리의 만담을 바라보던 마리안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서는 외쳤다.“더더욱 뺏길 수 없어요! 멍하니 있으면 뺏기는 것이 기회와 성공이라고요!”뭔가 오늘의 공주님은 팔팔하구나. 어쨌든 그 말은 동감하지만. 내가 맞장구 쳤다.“아아 그 말은 완전 동의해요.”“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디올러스 양! 우리 같이 피크닉 가요!”“네?!”이 난폭한 화제전환과 거부할 수 없는 위압적 권유는 정말이지 메디엘과 꼭 닮았다. 그녀는 다시 기품있게 호호 웃으며 봄바람처럼 살랑 살랑 말했다.“저희 가족이 자주가는 사냥터에서 사냥을 한 다음 바로 바비큐 파티를 하는 거에요! 재밌겠죠? 저희 오라버니 사냥 솜씨는 분명 훌륭하니까요.”메디엘이 무표정하게 그녀의 말에 딴죽을 걸었다.“마지막 말은 왠지 사족으로 들리는 구나 마리안.”마리안은 그가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온유하게 말을 이었다.“음음~ 바비큐 파티니까, 게다가 사냥이니까요. 사람은 꽤 많아도 재밌겠네요. 파르펠 양 형제분들이랑 라디양 형제분들도 다 부르자고요. 그곳에서 오라버니는 말 그대로 백마탄 왕자!”그녀는 어깨로 메디엘의 가슴팍을 살짝 툭 쳤다. 역시 이 남매는 엄청 사이가 좋다. 게다가 나는 그녀의 제안이 꽤 재미있어 보였다. 사냥이라... 동물을 의미 없이 죽이는 것은 물론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자랑하려고 죽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보이니까. 게다가 나는 지금껏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는 것 같은 프렌들리한 이벤트는 전혀 해본 일이 없다.내가 말없이 생각하고 있으려니까 공주는 내가 거절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는지 계속해서 말을 덧붙혔다.“사냥이라고 해서 저희는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거긴 호숫가 근처기도 해서 저희는 낚시를 할 수도 있고.. 여유있게 다과회를 해도 된답니다? 분명 재미있을 거에요.”“네. 정말 재미있어 보여요 공주님.”그녀는 만족스럽게 끄덕거리면서 ‘네에. 같이 피크닉 해요’라고 사랑스럽게 웃었다. 정말 즐거울 것 같은데... 미카엘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 미카엘도 가도 되냐고 묻는 건 역시 실례일까? 그녀는 미카엘을 제대로 본적도 없을 텐데.. 그래도 미카엘만 빼놓는 건 신경이 쓰여서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그런데 공주님. 혹시 제 친구도 한명 초대해도 되나요?”“네? 네 물론이죠.”그녀는 전혀 신경쓰이지 않는 다는 듯이 끄덕거렸다.“그런데 그 친구분은 누구시죠? 혹시 저도 아시는 분인가요?”“음... 유명하긴 한데 혹시 미카엘이라고 아세요?”“아! 미카엘 공... 알긴 알지만...”그녀는 이름을 듣자 얼굴이 살짝 어두워 졌다. 아.. 역시 미카엘은 안되는 건가? 조금 실망이다.마리안은 메디엘을 돌아보며 결연히 말했다.“오라버니. 미카엘 공보다 사냥에서 너무 뒤떨어지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메디엘은 또 눈을 가늘게 뜨고 자신의 여동생을 쏘아보았다. 다행이다 미카엘도 불러도 되는 것 같다.공주님께 미카엘을 피크닉에 초대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자마자 미카엘을 찾았다. 이번 주말에 급하게 결정된 약속이니까 그에게도 되도록이면 빨리 말하고 싶다. 다른 약속이 생기기 전에.'아 아직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는데.'그런 생각으로 로열 남매와 헤어지고 나서 복도를 빠져나오니까 마치 내 생각을 알고 있었다는 듯 미카엘이 나를 향해 히죽 웃으면서 인사했다."야~ 라디! 너네 오빠 파혼했다면서?""아니! 다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고 있는 거야?"첫 인사가 휴리안의 파혼이라니, 휴리안 오빠가 유명인사긴 한가 보다.미카엘은 천연덕스럽게 웃어댔다."그야 나만 너에 대한 정보가 느리면 분하잖아?"'음...역시 미카엘은 주식을 잘했을 것 같은 성격...이 아니라 방금 그 말은 뭔가...""너 우리 집에도 누군가를 심어놨어?"내가 미묘하게 맘에 걸리는 그의 말투를 깨닫고선, 설마하는 마음으로 물었다. 그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모르겠다는 뻔뻔한 얼굴로 말했다."응?""심었구나아!!! 누구지? 누구야! 너 이 녀석 우리집을 뭘로 아는 거야!"내가 그의 만행을 확신하고 누가 과연 이 야수의 심복인지를 추리하고 있으려니까 그는 더이상 시치미 떼는 것을 포기했는지 깔끔하게 하하하하고 웃어댔다."너네집을 뭘로아냐니... 보안이 너무 느슨해서 기가 막힐 정도였어. 괜히 3년이나 있었다 싶을 정도...아 아니다. 내가 여유있게 3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너를 만날 수 있던거지? 그렇다면 별로 아까울 것도 없네."그는 호쾌하게 3년이니 너네집 보안이니를 떠들어 댔기 때문에 나는 당황해서 그의 팔을 뻗어 그의 입을 막아야 했다.'학교에서 너무 프리하게 아무말이나 하는 거 아냐? 누가 들으면 어떡해!'내가 급박하게 속삭이니까 미카엘은 자신의 얼굴에 닿아 있는 내 손을 살짝 쓰다듬고서는 씨익 웃었다. 입은 내가 가리고 있었지만 예쁘게 가늘어 지는 그의 눈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즐거운 거구나 미카엘. 내 반응이 재밌다 이거지?내가 한숨을 쉬며 손을 내려놓자 미카엘이 장난스럽게 말했다."아무튼 라디. 나한테 할 말 있지 않았어?""오오 그래! 맞아. 너한테 이번 휴일에 시간 있냐고 물으려고 했었어...라고 하려고는 했으나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던건 어떻게 안거래?"'내가 또 엿들었니?'라는 의미로 의심이 가득한 눈길을 보냈지만, 그는 끄떡도 안하는 미소로 달콤하게 말했다."오늘은 일이 좀 귀찮을 것 같아서, 가기전에 네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살짝 들여다 봤거든. 그런데 왕자님이랑 네가 꽤 즐거운 듯이 말하고 있더라.""사실 공주님이랑 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내 지적은 안들리는 것 처럼 그가 과장되게 쓸쓸한 말투로 말했다."왕자님은 왕자님이라 좋겠다.""윽..."그가 내 동정을 사기 위해, 나를 놀리기 위해 일부러 이런 말을 해대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생각을 평소에 조금쯤은 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농담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약해지고 만다."미카엘 그런 소리 마."내가 뾰롱퉁하게 시선을 떨어트리며 말하자, 그는 소년처럼 웃었다. 농담이라도 슬픈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예쁘게만 웃으면 좋을 텐데.미카엘은 내 심란한 반응이 만족스러웠는지 본론으로 돌아갔다."자, 어쨌든 나는 이번 주 휴일에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고싶던 말은?""아아. 그래. 잘됐다 미카엘. 공주님이 피크닉 가자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내 말을 듣고 그는 바로 뚱한 표정을 했다. 음.. 어느정도 예상하긴 했다. 그가 투덜댔다."나는 사람 많고, 개방된 행사에는 가지 않는대도.""물론 나도 알지! 이번 피크닉에는 우리 형제들이랑 공주님, 왕자님이랑 테젠가 형제들 밖에 오지 않는 다고 해서 권유한거야."" 아 그래?"내 말을 듣고 그는 바로 인상을 펴긴 했으나 여전히 고민스러운 것 같았다."음...하지만... 아 역시 좀 내키지 않는데.""왜에? 넌 너무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는 법이 없어서 일부러 너랑 가도 되냐고 허락도 받은거란 말야. 같이 가자.""하하 그랬어? 음..."그는 내가 애썼다는 소릴 듣고 활짝 웃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정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뭔데, 뭐가 문제야 미카엘."내가 답답한 마음에 그 이유를 묻자 그는 고민하던 눈을 나에게 맞추고 조용하게 말했다."예법에 자신이 없어서.""응?"내가 그의 말이 너무 뜻밖이라 되묻자, 그는 진지하게 턱을 괴고 다시 고민에 들어갔다.나는 하하 하고 너털 웃음을 터트리며 그의 팔을 툭툭 쳤다."야아~ 미카엘 뭘 그런 걱정을 해? 게다가 이건 바비큐 파티라 격식같은건 크게 차리지 않아도 돼!""음..."그는 내가 텐션 업되서 떠드는 모습을 그 옅은 색의 눈동자로 가만히 쳐다 보면서도 여전히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항상 자신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거침없이 행동하면서도 그는 이상한 구석에서 약해지곤 한다. 바로 지금도 그는 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나보다. 내가 그와 눈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물었다."그렇게 자신 없어?""응. 그런 일류 귀족, 왕족들과는 식사하고 싶지 않아.""내가 봤을 때 네 매너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였는데.""... 하지만 따로 배운 적이 없어.""뭐?!"배운적이 없다고? 근데 그런 복잡한 예법을 어떻게 다 소화해 내고 있지? 식사만 해도, 식사에 맞는 칼이니, 글라스니, 포크 잡는 법이니 골치아픈게 얼마나 많은데."미카엘!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 알아? 장난아닌데? 너야 말로 매너의 신 아냐?"내 호들갑에 그는 키득키득 웃었다. 미카엘이 수줍게 중얼거렸다."왜냐면.. 귀족네 집에 암살하러 잠입하면 몇시간이고 숨어서 그들을 지켜봐야할 때가 허다하니까.""아. 말 그대로 어깨너머로 배운거야? 대단하다. 그런데도 이렇게 완벽하다니."나는 가끔씩 그가 내보였던 기품있는 모습의 근원을 깨닫고, 무릎을 탁 쳤다. 그러나 그는 내 칭찬에도 묘한 표정이었다. 여전히 살짝 창피하다는 듯이 소년처럼 웃으며 입을 열었다."이렇게 추잡하게 배운 매너를 그런 뼛속까지 귀족인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채버릴 것 같아."나는 그가 볼을 발그레하게 붉히고 순수하게 고백한 그 말이 생각보다 슬퍼서 말문이 막혔다. 그는 내가 말없이 그를 올려다 보자, 머쓱한지 뒷머리를 만졌다. 내 시선을 슬그머니 피하는 그 모습을 보고선 나는 손을 크게 엑스자로 만들고 외쳤다."삐!!"그는 내 우스꽝스러운 외침에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만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확신에 차서 외쳤다."그들이 네 매너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 못챈다는데 내 스틱을 걸지!""네 스틱따위... 어따 써먹으라고..."미카엘은 키득거리면서도 촌철살인하는 말은 빼놓지 않았다."미카엘의 예법은 완벽해!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너는 삐쩍 마르고, 넝마를 뒤집어 썼을때도 왕자님 같았다고!""그런 말을 해대니까 네가 이상한 애라고 소문이 나는 거야."그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씨익 지으며 말했다."아? 소문이 났다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랬어 안그랬어?"내가 마치 무서운 선생님처럼 그에게 답을 요구하자 그는 순순히 얌전하게 웃으며 대답했다."그랬지.""그래! 그리고 네가 처음 이 학교에 나타났을 때 말야. 그 모의 무도회때. 그 때 보니까 너 댄스도 엄청 능숙하더만!"그는 무덤덤하게 손을 가로 저으며 말했다."아아 그건 연습했으니까.""응?""너를 만나러 가려고 댄스를 연습했어.""어? 그래? 그럼 너 모의 무도회에 나타나려고 원래부터 계획 한거였어?""당연하지. 나름 너를 만나러 가려고 긴장했었으니까. 준비도 많이 하고."갑자기 파고드는 감동적인 비화에 가슴이 먹먹해서 솔직하게 감사를 표했다."고, 고마워 미카엘. 내 생각 해줬구나.""뭐, 그렇지."그는 티없이 히죽 웃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고, 그가 더더욱 필요없이 자신없어 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힘차게 말했다."어쨌든 너의 예법은 더할나위 없이 퍼펙트! 너는 평소대로 속으로 '아 귀찮아서 안죽인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그야말로 완벽하게 위엄있다고!""하하하 내가 평소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알지! 난 '미찌친'이니까."그는 다시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미찌친? 그게 뭐야?""미카엘이 찌를 수 없는 친구."아 그러고 보니 미카엘에게 말한 적 없구나. 하고 덤덤히 뜻을 설명하니까 그는 박장 대소했다."크학! 그게 뭐야!""맞잖아?""하하 맞긴 한데..."그는 배가 땡기는지 한손을 배에 얹고 겨우겨우 숨을 골랐다. 나는 결연히 말했다."지금은 비록 나 한사람 뿐인 미찌친이지만 언젠가 동료를 만들어서 네가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제 1호 미찌친으로서의 원대한 야망이지."그는 머리를 살짝 털고서는 순진한 미소로 말했다."제 2호는 필요 없어. 1호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벅차서 감당이 안 되는걸." 미카엘은 결국 내 적극적 권유에 못 이겨 피크닉에 나오겠다고 약속했다. 호숫가로 곧장 오겠다고 했는데, 어쩐지 안 올거 같기도 하고... 조금 못 미덥다. 제대로 올려나.오늘은 가을 답지 않게 후덥지근 하긴 했지만, 그만큼 쾌청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날씨였다. 처음엔 호기심 반 흥미 반 이었던 이 피크닉에 나는 꽤나 신이 나 있었다. 소풍에 이렇게 즐거워하다니, 나는 역시 내 생각보다도 어린애 같은 면이 있구나.모두 함께라서 더 신나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집 형제들은 이 갑작스런 행사에 전원참가 했다. 활동적인 헬리오 형제나, 잔걱정이 많은 휴리안 오빠는 그렇다 치고, 무려 제르다민 까지! 왕자, 공주의 초대를 거절하기에 적당한 변명이 없기도 했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잘됐구나! 재미있어 보이네. 잘 다녀오렴.’ 이 한마디에 고분고분히 호숫가로 향하는 마차에 탑승했다.그래놓고선 마차 안에서 가는 내내 이렇게나 뚱한 얼굴이다.“제르다민 오빠.”“...”“오빠.”“...”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니까, 무표정하게 턱을 괴고 창 밖을 바라보다가, 인상을 팍 구기곤 못 들은 척 했다. 제르다민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휴리안이 보다못해 그를 부드럽게 불렀다.“제르다민, 라디가 부르는데?”“아, 그래요? 못 들었네요 형님.”휴리안의 말에 못 이겨서 턱을 받치고 있던 손을 내리며 나와 눈을 맞추었다. 정말이지 휴리안과 부모님 말은 참 잘 듣는단 말이야...“왜?”“이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비겁한 우등생.”“너 지금 시비 걸려고 그렇게 애타게 불러댔냐. 형님, 정말로 이 같잖은 분홍색이 귀엽습니까?”내가 발끈해서 휴리안이 대답하기 전에 끼어들었다.“역시 내가 부르는 거 듣고 있던 거잖아! 대답해 주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누가 백발 노인 아니랄까봐 엄청 기력 없네.”휴리안 오빠는 싱긋 웃으며 한 발 늦게 대답했다.“응. 엄청 귀엽지.”제르다민은 질린다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웃는 휴리안을 안경너머로 바라보더니 내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냉정함이 뚝뚝 흐르는 말투로 말했다.“분홍아 적당히 까불어라. 오늘 간만에 외출이라 머릿속까지 핑크로 가득 찼는지, 평소보다 주제파악이 느리구나.”“.그렇군.”나는 그의 눈의 범상치 않게 날카로워진 것을 보고 얌전히 내가 너무 들떠있었음은 시인했다. 그렇지만 들뜬 기분을 가라앉힐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나서 떠들었다. 그러다가 내말을 잘 받아주고 있는 헬리오에게 장난치고 싶은 맘이 들어서 나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에게 거칠게 몸을 기울여서 체중을 실었다. 우리가 앉은 의자에는 나, 헬리오, 윌로우까지 세명이 앉아있었기 때문에 내가 헬리오를 밀어내자 윌로우가 짜증을 냈다.“야! 뭐하는 거야! 헬리오 형 밀지마! 좁잖아!”“애정표현이지! 애정표현~”내가 헤헤 웃으며 계속 밀어대자 헬리오는 장난스럽게 ‘으악’하는 비명을 지르더니 내 양 팔뚝을 잡아서 꼼짝 못하게 했다. 역시 헬리오는 생각보다 엄청 세다니까? 저렇게 화사하게 생겼는데 그가 손에 조금만 힘을 주니까 나는 간단하게 제압됐다. 내가 감탄해서 말했다.“오오! 굉장하다. 전혀 못 움직이겠어!”“하하 이 말괄량이. 윌로우가 좁다고 투덜대잖아.”금을 진하게 녹인 거 같은 금발의 소년이 키득대더니 나를 가볍게 끌어와서 자신의 무릎위에 앉혔다. 너무 쉽게 일어난 일이라 나는 순간 이게 무슨일인가 멍해 있었다.“으잉?”“자, 됐다. 윌로우. 이제 안 좁지?”“쟤가 밀지만 않으면 원래 안 좁았었어.”윌로우는 내가 그의 사랑해서 죽고 못사는 형의 무릎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여전히 불만스럽다는 듯이 투덜댔다. 뭐지? 나 지금 남의 다리 위에 앉아있어? 어? 음... 뭔가 되게 이상한 기분이다.이렇게 귀여움 받는 듯한 자세는 뭐랄까... 내가 진짜로 어렸을 때도 한 번도 못해 본 터라 남의 위에 앉는 건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진짜 묘한 기분이네. 엄청 쑥스럽기도 하고. 헬리오의 허벅지는 그다지 말랑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편하지는 않았다. 문뜩 맞은편을 바라보니 휴리안과 제르다민이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헉. 갑자기 엄청 창피해졌다. 제르다민은 나를 업신여기는 눈빛을 보내며 헬리오에게 말했다.“얌전해져서 좋네. 헬리오 그렇게 한 김에 걔 입도 틀어막고 있어. 시끄러워서 미치겠어.”“혀, 형님...”순한 헬리오는 난감하다는 듯이 하하 웃었다. 휴리안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입가에 미소를 띤 채로 계속해서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헬리오에게 당황해서 말했다.“음! 이제 얌전히 있을게 오빠. 오빠도 불편하잖아.”“별로 안 불편한데? 어차피 거의 다 왔어 라디. 그냥 이러고 있어도 돼.”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가볍게 대꾸하며 내 양 어깨를 끌어당겨서 자신에게 기대도록 했다.“불편해서 그러는 거면 편하게 기대도 돼.”헬리오는 예쁘게 웃으며 나를 내려다 보았다. 그와의 스킨쉽은 별로 긴장되거나 하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남의 무릎위에 앉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쑥스럽다. 결국 내가 억지로 빠져나오려 하자. 헬리오는 막는 기색 없이 ‘에이 라디. 역시 불편했니?’라며 나를 놓아주었다. 나는 다시 내 자리에 앉아, 윌로우의 팔을 잡아당겨서 헬리오의 무릎위에 쓰러지게 했다. 갑작스러운 나의 행동에 윌로우가 또다시 짜증을 냈다.“아 도대체 뭐냐고!”나는 태연하게 말했다.“헬리오 오빠! 오빠의 무릎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윌로우 오빠의 시선이 마음에 걸려서 안되겠어. 윌로우 오빠도 오빠 무릎위에 앉고 싶대.”헬리오는 맑게 하하 웃은 뒤에 자신과 꼭 닮은 그의 남동생을 그 무시무시한 완력으로 제압한 뒤 나의 경우와 똑같이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윌로우가 뒤늦게 나에게 ‘내가 언제 그랬어! 으악 형!’이라며 항의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윌로우는 나보다 키가 더 컸기 때문에 16살 소년이 11살 남자아이를 무릎위에 앉히고 부둥켜 앉은 모습은 꽤 어색해 보였다. 아니다, 둘 다 외모가 중성적으로 예뻤기 때문에 어쩐지 어울리는 거 같기도 하고.윌로우가 순식간에 얼굴이 새빨개졌다.“윽 형... 내려줘...”그가 양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휴리안도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상쾌하게 웃음을 터트렸다.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이런 이런, 윌로우. 이제 보니 어리광쟁이구나.”“아니에요! 라디올러스! 너!”윌로우가 분한 듯이 내 이름을 불렀지만, 마냥 싫어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다. 역시 윌로우는 은근한게 귀엽단 말이지. 내가 엄마같은 목소리로 그를 놀렸다.“잘됐다 오빠~ 헬리오 오빠한테 귀여움 받아서 좋겠어.”“윽!”그는 붉은 얼굴로 별 반박도 하지 못하고 나를 노려보았다. 마차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느껴졌다. 아까 왕족의 사냥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문 마부가 확인을 받는 것을 보았으니 다 온 것일 것이다.마부가 문을 열어주자 언제나 그렇듯 휴리안이 내려서 나를 에스코트 해 주었다. 오빠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풍경을 둘러보러 고개를 드니까 예쁘게 반짝이는 호수를 배경으로 미카엘이 서 있었다. 미카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니까 씨익 웃었다. 그가 우리 형제들 쪽으로 걸어 오며 나에게 인사했다.“안녕 라디.”“와! 미카엘! 제대로 왔구나!”“응 나 길 잘 찾으니까.”“아니... 그게 아니라. 뭐. 어쨌든 휴일에도 보니까 좋네.”“나도 그 생각 중이었어.”미카엘은 적당한 거리가 되자 나의 형제들에게도 인사했다.“안녕하셨습니까. 미카엘 하르콘트입니다. 전에도 뵀었죠.”인사를 받은 휴리안이 걸어 나와 그와 악수했다.“네, 미카엘 공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결점을 찾아볼 수 없는 미소로 미카엘을 맞이했다. 미카엘은 간단하게 예의상 웃어 보일 뿐이었다. 인사를 끝내고 나서 미카엘이 나를 향해 휙 몸을 돌렸다. 더 이상 나의 형제들에겐 볼일이 없다는 태도였다."라디, 근데 여기 사냥터라는데? 사냥도 해?““아차! 내가 말 안했나? 응 남성분들은 아마 사냥을 할 껄?”내 말을 듣자 미카엘은 조금 떨떠름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으잉!? 사냥 싫어해?”“뭐... 좋아 하진 않아. 그리고 지금 네 말은 너는 사냥에 안 나간다는 말이잖아?”“음... 왜냐면, 따라 갈 순 있긴 하지만 나는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말이야.”“아? 그럼 방해라고 생각 안할 테니까 그냥 나랑 같이 가.”“승마복을 메이드가 챙겨 준 것 같긴 한데...음.. 잘 모르겠다. 그건 일단 생각해 보고. 그런데 미카엘 사냥 안 좋아하는구나. 좋아할 줄 알았는데.”미카엘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같은 노력으로 사람을 죽이...”내가 또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 그의 입을 막았다. 지금 얘가 뭐라는 거야! 우리 오빠들이 10m도 안 되는 곳에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가 표정으로 그를 나무라며 살짝 입을 떼자 그가 재밌다는 듯이 실실 웃으며 끝끝내 말을 끝 마쳤다.“...면 돈을 훨씬 더 벌 수 있으니까.”“아. 그러십니까.”내가 불만스럽게 대꾸하자 그는 키득거렸다. 분명히 일부러 저렇게 틈을 보이며 말을 꺼내고 있는 거야. 대놓고 즐기고 있다고.좀 더 화를 내야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초콜릿 빛깔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내렸다. 오, 테젠 형제들도 오랜만인데. 어색하게 우리집 형제들과 테젠 가문 사람들이 마주보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화려한 마차가 한 대 더 들어서는 바람에 인사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시종이 크게 외쳤다.“제국의 왕자님과 공주님 납시셨습니다!”우리는 모두 마차의 양편으로 서서 고개를 숙였다. 마차에서 메디엘이 먼저 내리고, 휴리안이 내게 해주는 것처럼 마리안을 에스코트 해 주어서 계단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 주었다.메디엘이 왕자님다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모두들 이렇게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루한 인사따윈 생략하죠.”그가 우리를 향해 공손히 목례하자, 뒤에서 마리안도 드레스 자락을 들고 살포시 고개를 숙였다.우리들도 그 아름다운 남매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제국의 별들을 뵙습니다.”메디엘은 곧장 시종을 불러 사냥에 쓰일 말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다.“오늘 날씨가 유난스럽게 덥네요.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사냥을 시작합시다.”모두에게 그렇게 말하고선 나에게 다가 왔다.“라디양 오늘 몸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어? 요즘에 아픈 적 없었는데요?”“저도 압니다. 그냥 친절한 척 물어 봤어요.”“어쩜, 센스도 넘치셔.”내가 피식 웃으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자, 그도 공식적인 예쁜 웃음을 풀고 평소대로 여유가 넘치는 얼굴을 했다. 미카엘이 내 뒤에서 다시 대뜸 물었다.“라디, 그래서 너 사냥에 따라 갈 거야 말거야? 갈거면 지금 옷 갈아입고, 말도 챙겨야지.”미카엘의 말에 메디엘이 눈을 조금 크게 만들며 되물었다.“여어 미카엘 공. 라디 양이 사냥에도 가신대요?”미카엘이 담담한 미소로 그의 물음에 답은 않고 딴 말을 해댔다.“왕자님, 우리는 너무 쓸데없이 자주 보는 거 같지 않나요.”“아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분하네요.”메디엘은 지지 않고 재규어같은 얼굴로 심술궂게 웃으며 답했다. 어이쿠 빨리도 서로 투닥거리는 구만. 생각해 보니 오늘도 넓은 의미론 개고생 날이었구나.나는 그들의 싸움을 끊기 위해 메디엘에게 답했다.“사냥은 살짝 궁금해서요, 따라가 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음... 방해만 될 거 같기도 하고.”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메디엘은 미카엘에게 뭐라고 더 말하려 하다가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아, 그러십니까. 확실히 사냥터는 관리가 되고 있어서 위험한 마물은 없습니다만...흠... 위험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이 사냥터에도 마물이 있다고요?!”내가 놀라서 외쳤다. 마법수업은 너무 내 생활에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려서 자각하고 못하고 있긴 했지만 확실히 이곳은 신비가 넘치는 세상이었다. 와, 그러니까 괴물같은게 있단 말야?미카엘이 뭘 그렇게 놀라냐는 듯이 뒤에서 내 양 어깨를 장난스럽게 꾸욱 누르며 말했다.“뭐, 이 정도로 넓은 숲이면 당연히 조잡한 몬스터 정도는 있지.”“우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어떻게 생겼어? 어떤 게 살아? 커?”내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메디엘은 나른하게 씨익 웃었다.“아무래도 사냥에 따라 가셔서 마물을 한번 보셔야겠네요 라디양. 제 말에 같이 타시죠?”미카엘이 불만스럽게 외쳤다.“아아! 또 이렇게 선수를 뺏기다니! 왕자님 항상 너무 약으신 거 아닙니까!”“뭘 약았다는 겁니까? 저는 그저 몸에 베어있는 다정함으로 레이디를 보좌한 것 뿐인데요.”메디엘이 미카엘의 불평을 여유 있게 받아치자 그의 뒤에서 불쑥 여린 목소리가 들렸다.“나이스 오라버니! 바로 그 긴장감이에요!”가느다란 레몬빛 머리카락이 보기좋게 웨이브져서 오늘도 공주님은 인형같았다. 그녀가 다른사람들과의 인사를 마치고 나에게 와서 싱긋 웃어보였다.메디엘은 이마를 문지르며 힘빠진다는 듯이 중얼거렸다.“산통 다 깨는 구나 마리안.”“라디양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참 즐거울 것 같아요.”마리안은 오빠의 말은 들은 체 만 체 하며 내게 들뜬 모습으로 말했다.“게다가 오라버니와 함께 말을 타신다니, 분명히 안전할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뜬금없이 옆에 서있던 미카엘이 마리안에게 인사를 건넸다. 마리안은 신나서 생긋 생긋 웃으며 말하다말고 미카엘의 인사에 그를 휙 쳐다보았다. 예쁜 웃음을 지으며 그의 인사에 답했다. 가녀린 새처럼 하늘하늘한 모양새였다.“아참, 미카엘 공. 확실히 저희는 얼굴만 언뜻 보고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네요. 처음 뵙겠습니다.”둘 다 살짝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어서 시선을 교환했는데, 묘하게 위험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뭐지... 이상하네, 마리안은 남에게 싫은 기색 내는 법이 없는데?미카엘이 씨익 위험하게 웃으며 말했다.“...잘 부탁 드립니다.”“호호 저야 말로.” 어쩐지 메디엘과 미카엘이 있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 이다. 역시 메디엘의 여동생이라 똑같이 미카엘과 투닥 거리는 건가? 마리안은 지나치게 메디엘과 닮았단 말야...‘별일 없겠지...’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면 미안하니까 서둘러 옷을 갈아 입으러 그 자리를 떴다. 다시 돌아 왔을 땐 멋지게 근육이 잡힌 준마들이 푸릉 거리며 일렬로 기다리고 있었다.휴리안 오빠가 옷을 갈아입은 나를 보며 싱긋 웃었다.“어? 라디. 역시 따라와 보게?”“응, 다른 레이디들 중에는 사냥에 따라가시는 분 없어?”“응, 그런 것 같아.”“아참, 오빠 코멜라 양이 아까 오빠한테 뭐라 뭐라 엄청 말하는 것 같던데 뭐였어?”오빠는 ‘아 그거 말야?’라고 민망한 듯 한손으로 목덜미를 조금 매만지더니 말했다.“나한테도 왕자님 생일 파티때의 일로 사과를 하시더라고. 내가 라디에게 사과했다는 걸 들었다고 이제 괜찮다고 아무리 말해도 말이지...”“막무가내시지.”내가 어딘가 상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녀를 생각하며 맞장구 치자 오빠는 기운 없이 ‘응..’이라고 대답했다. '제르다민은 어떻게 그런 절박한 사과에도 태연할 수 있는지 신기해' 그가 제르다민을 떠올리는 표정을 하며 덧붙였다. 나는 그자리에 없었지만 제르다민이 어땠을 지 머릿속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릴 수 있었다. 제르다민, 이 대단한 오빠.“게다가 어쩐지 이제 그 집 형제들은 모두 나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오빠가 곤란한 듯이 웃었다.“음... 근데 왠지 코멜라 양은 또 금방 까먹고 자연스럽게 대해주실 것 같아. 걱정 마 오빠. 그리고 나 때문에 화내 주었던 거잖아? 나는 좀 기뻤어.”그날의 기억은 내 화려했던 술주정 때문에 되살리기 창피했지만, 조심스레 회상해 보았다. 음... 맞아 그 때의 오빠가 화내는 모습은 꽤나 인상 깊었지.휴리안은 쓴웃음을 거두고 평소처럼 자상하게 웃으며 끄덕거렸다.“그래? 라디가 기뻤으면 됐어.”내가 그의 약간 간지러운 말에 헤헤 하고 웃으니까 오빠가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생각났다는 듯이 물었다.“아, 그런데 라디. 그럼 말은 나랑 같이 탈 거야?”“아~ 말은 왕자님이랑 타기로 했어. 왕자님은 사냥에 능숙하신가 봐.”“벌써 정해 놨어? 왕자님이랑? 아...그래?”오빠는 약간 놀랍다는 듯이 중얼거리다가 말들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미묘한 표정이었다.분주하게 사냥 준비를 하던 하인들의 모습이 거의 사라졌다. 이제 슬슬 출발할 때인가 보다. 나는 약간 흥분되는 마음에 주위를 둘러 보았는데, 제르다민 오빠만 혼자서 여유롭게 티파티를 하기 위해 준비된 차양 밑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어? 제르다민 오빠! 오빠는 안 가?”나의 외침에 그는 책에 향해 있던 시선을 살짝 움직여 나를 바라보았지만 별 대답 없이 다시 책장을 넘겼다. 으아 정말 이 오빠한테선 대답하나 받기도 일일이 힘들다.내가 그의 코앞까지 다가가서 친절하게도 다시 웃는 낯으로 물었다.“오빠는 안가?”“어.”그는 시선을 여전히 책에 고정한 채 성의없이 대답했다. 아 진짜 사춘기 남고생이냐고...아. 따지자면 사춘기 남고생 맞구나. 에휴. 내가 참아야지.“왜 안가? 사냥 안 좋아해?”물론 귀찮아서겠지. 나는 뻔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물어 보았다. 그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나를 안경 너머로 올려다 보며 말했다.“그딴 활기 넘치는 이벤트는 저기 저 운동에 특화된 헬리오 형제들과 즐겨. 난 여기서 레이디들을 지켜주도록 하지. 한 명정도는 남아있어야 하지 않겠어?”“헹 퍽이나 지키겠다.”제르다민이 책등으로 내 이마를 콩 때렸다. ‘도저히 모른 척 못할 정도가 되면 겨우겨우 움직이긴 하겠지.’라고 중얼거렸다. 아니, 자기도 자신의 불성실함을 말하고 있으면서 굳이 나는 왜 때리는 거지? 살살 때린 척 했지만 이거 꽤 아프잖아...?분했기 때문에 나는 이마를 문질거리며 다시 깐죽댔다.“얼마나 운동치길래 그렇게 남들 앞에선 꼼짝도 안하려는 거야?”“운동치는 너인 거고. 나는 그냥 운동을 즐기지 않는 것뿐이야.”그가 무표정하게 말했다.“내가 운동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빠의 말이 운동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변명이란 건 알지.”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빠가 다시 한번 책등으로 내 이마를 찰싹 때렸다.“아야!!”“거 봐. 꽤 순발력 있지? 네가 굳이 내 운동신경을 보고 싶다기에 노력해 봤어. 자, 이제 저 바보 같은 말이나 타러가지 그래.”오빠가 책표지 면으로 내 볼을 꾸욱 눌러 내 고개가 말을 향하게 했다. 어서 자신의 시야에서 꺼지란 소리 같다. 어쩜 이다지도 사람을 무시하는 데에 능한 거지?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곳이 따로 있나? 있다면 나도 3개월 정도 끊고 싶다.내가 자존감에 데미지만 얻은 채 다시 말이 있는 곳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니까 메디엘이 밝게 불렀다.“라디 양! 이제 출발 해 볼까요?”그는 조금 들떠있는 모습이다. 그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상기 되는 것이 느껴졌다.“와, 이제 저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네, 그렇죠. 일단 말 위에 올라타고요.”“제가 앞에 타는 건가요?”“제 뒤에 앉으면 라디 양이 휘청거릴 때 잡아주기 더 힘들 것 같은데요.”과연! 앞이 더 안전해 보이는 군.메디엘이 먼저 훌쩍 말 위에 올라 탄 다음 나에게 손을 뻗어 주었다. 그는 가뿐하게 끌어당겨 주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그의 앞에 앉을 수 있었다.남아있기로 한 사람들이 다가와서 배웅을 해 주었다. 마리안, 파르펠, 코멜라가 ‘잘 다녀오세요.’라며 사랑스럽게 손을 흔들었다. 제르다민은 분명 왕자님과 휴리안 오빠 때문에 어거지로 걸어 나온 것일 테지. 그들이 없었다면 저 차양 밑에서 우리가 가거나 말거나 꿈쩍도 안했을 것이다. 그는 뚱한 표정으로 잠시 서 있다가 돌아갔다.메디엘이 능숙하게 고삐를 쥐고 말을 다루자 말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바퀴가 있는 탈 것이 아닌 생물의 등 위에 앉아 있다는 실감이 말이 발을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진동을 통해 전해졌다. 아, 잠깐. 이거 느낌이 좋지 않은데.아 세상에. 지금껏 몰랐는데 말이지. 나는 말을 타는 것이 극도로 무서운가 보다. 이 흔들림이 내가 달리던 말 등에서 손이 묶인 채 머리부터 떨어졌던 아련한 추억을 상기시킨다. 그 때의 아찔함이 너무나 생생하게 재생돼서 털이 삐쭉 선다.축. 새로운 트라우마 발견. 승마 공포증 탄생.나는 사냥하러 숲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메디엘을 불렀다.“저, 저기 왕자님...”“네?”그가 그답지 않게 깨끗한 웃음을 대 방출 하고 있다. 오늘 어지간히 기분이 좋은가 보다. 나는 그의 기분좋은 미소에 기세가 꺾였다.‘손에 제대로 잡을 만한게 없어서 더 무서운 것 같아. 왕자님을 잡고 있으면 버틸 만 할지도 모르겠어. 좀만 참아보자.’메디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어...왕자님 몸을 좀 잡아도 될까요.”“네? 아. 말이 움직이는 게 무서우십니까? 하하, 이건 제법 귀엽지 않습니까.”그가 눈을 가늘게 만들며 웃었다. 보기 좋은 미소였지만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기엔 내가 너무 다급했다.‘윽, 잡아도 된다는 말이겠지!’그러나 내가 앞에 앉은 이상 잡을 만한 건 내 귓가에서 말의 고삐를 다루는 그의 팔정도 밖에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왼팔을 부여잡았다. 나는 꽤 절실하게 양 손으로 그의 팔을 부여잡은 것인데, 팔은 그다지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는 기분이 전혀 안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말은 이제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덩달아 나의 공포심도 절정으로 올라갔다.메디엘은 초 레어한, 다정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이런, 정말로 무서웠던 모양이네요.”그러나 나는 팔정도로는 내게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의 패닉이었다. 이제 사냥이고 뭐고 모르겠다. 나는 최대한 몸을 돌려 그의 옷을 부여잡은 다음 다리를 그를 껴안기 편하도록 한쪽으로 넘겼다. 그가 나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 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제는 그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라디 양? ..컥!”나는 폭풍에 뒤집어지기 일보직전인 배에서 기둥을 부여잡고 떠내려가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안간힘을 다해 그에게 달라붙었다. 적어도 나의 정신상태 만은 난파 직전 배의 승객에 견주어 부족함이 없었다. 다행이 그의 허리를 껴안고 있는 것이 팔보다는 훨씬 안정감을 주었다.뒤에서 따라오던 미카엘이 우리쪽의 이상함을 알아차리고 말을 몰아 옆으로 다가왔다. 미카엘이 황당하다는 듯이 물었다.“라디, 뭐해?... 왕자님을 질식사 시키려고?...”대답없는 나 대신 메디엘이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멀쩡한 척 하며 미카엘에게 대답했다.“음...아뇨, 전 괜찮은데요?”그에게 이렇게 안간힘을 다해 달라붙어 있으려니까 그의 말 때문에 그의 몸이 울리는 것 까지 모두 느껴졌다. 그렇다고 그걸 여유롭게 느끼고 있을 상황이었던 건 전혀 아니었지만.말이 숲의 나무를 피해가기 위해 몸을 조금 틀자 몸이 쏠리는 기분이들었기 때문에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큭!’ 그가 내 압박에 맞추어 신음소리를 냈다. 왕자가 아주 조그맣게 ‘갈비뼈 근처를 뼈로 누르시면...’이라고 내 자비를 호소했다. 나는 끝내 손목 뼈로 갈비뼈를 누르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그 작은 요청을 들어주지 못했다. 미카엘이 불만스럽게 왕자에게 말했다.“얼굴 시뻘게졌는데요. 지금 숨쉬기 힘드시잖아요.”“아...아뇨 전혀 문제 없는데요?”메디엘이 완전 문제 많은 것 같은 목소리로 반박할 때 좁은 길 때문에 우리와 나란히 서지 못했던 휴리안 오빠도 다가와서 물었다.“무슨 일이에요?”미카엘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대답했다.“라디가 갑자기 왕자님한테 찰싹 붙어서 저러네요.”휴리안 오빠가 걱정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다.“라디?”“으음?”나는 겨우겨우 대답은 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식은땀이 줄줄 날 정도였다. 우와 위험해 이 남자들 어떻게 이토록 태연하게 말을 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불안정한데?내가 너무 심하게 무서워 하는 것 같으니까 메디엘이 말을 세워 주었다. 규칙적으로 흔들리던 진동이 없어지니까 훨씬 나아서 손에 계속 주고 있던 힘은 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메디엘에게 매달려 있었다. 메디엘이 한숨을 섞어 말하며 내 뒷머리를 툭툭 만졌다.“라디 양, 진짜 말 타는 게 무서워서 이러는 거에요?”“으으...네.”“근데 왜 사냥에 따라나서겠다고 한 거예요?”나는 살짝 고개를 들어서 나를 내려다보는 그와 눈을 맞추었다. 이제 이정도 여유는 생긴 것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네요.”왕자의 뒤편으로 헬리오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다.“라디... 말 위에서 떨어졌었으니까요...”“네에?!”지금껏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좋을 정도로 조용히 따라오던 파르펠의 오빠 사할이 놀란 소리를 냈다. 헬리오는 죄책감 가득한 목소리로 덧붙였다.“....두 손이 묶인채로...”“네에?! 뭐라고요?!”“머리부터...”“으아?!?”이제보니 사할은 은근히 맞장구를 잘 쳐주는 스타일인거 같다. 반응이 하나하나 크구나. 휴리안이 말에서 재빠르게 내려서 왕자님의 말 근처로 다가왔다.말의 밑에서 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내려주겠다는 제스쳐를 했다.“라디, 안타깝지만 사냥은 무리인 것 같구나. 숲에 들어온지 얼마 안됐으니까 조금만 걸으면 바로 호수야. 데려다 줄게.”이런 민폐가 있나. 나는 무척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메디엘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는 무표정하게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뗐다.“설마 지금 내 눈치 보는 건가요 라디 양?”“음... 눈치랄까... 조금 죄송하긴 해서요.”그가 피식 웃었다.“뭐가요? 당신 손목뼈를 제 갈비뼈 사이에 박아놓으려고 했던 거요?”“아?! 죄송해요!”나는 아직도 내가 필요이상으로 그에게 찰딱 붙어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몸을 떼어놓았다. 그는 내가 당황해서 몸을 뒤로 확 빼니까 내 등을 손으로 잡아 다시 자신의 몸으로 밀착시켰다. 그가 키득거리며 말했다.“그러다 또 떨어지시겠네. 이제 와서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으... 떨어진다고 소리내서 말하지 마세요 끔찍하다 말이에요.“그는 나를 바라보며 나른하게 씨익 웃었다. 그리고선 나를 내려주기 위해 몸을 숙이는 척 하며 내 귓가에 대고 살짝 속삭였다.“먼저 돌아가셔도 좋아요. 당신이 필사적으로 나에게 안긴 걸로 비긴 것으로 치죠.”휴리안이 나를 조심스레 안아들고선 메디엘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 웃었다.“...감사합니다.”메디엘도 말 위에서 항상 짓곤 하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답했다.“... 뭘 이정도 가지고...그런데 안고 가시게요?”휴리안은 나를 받아든 그대로 서있었다. 안 그래도 나도 말하려고 했다. 왜 안내려줘 오빠? 오빠는 생긋 웃으며 당연하잖냐는 목소리를 냈다.“그야 지금 라디, 스틱이 없는걸요. 여러분 먼저 천천히 이동하고 계세요. 라디를 데려다 주고 금방 따라잡겠습니다.”미카엘이 꼿꼿이 세우고 있던 등에서 힘을 빼고 축 늘어지며 외쳤다.“아아~ 라디가 가지 않는다니, ...재미없어.”그렇게 크게 투덜대면 어떡해!? 다른 분들에게 실례라고 미카엘...! 그렇지만 확실히 미카엘 입장에선 메디엘 밖에 아는 사람 없고... 사냥도 별로 즐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역시 재미없는게 당연하겠지.. 나는 미안해 져서 그에게 사과했다.“미안 미카엘... 나도 내가 말을 탈 수 없을지 몰랐어.”그는 힘빠진 것처럼 고개를 옆으로 숙인 채 나를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보다가 이내 말했다.“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무서워 하니까 어쩔 수 없지.”“응... 너무 무서워.”내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듯이 끄덕거리니까, 미카엘은 할수 없다는 듯이 왕자쪽을 물끄러미 보며 다시한번 중얼댔다.“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허리를 마지못해 부여잡을 정도로 무서워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메디엘은 단번에 짜증을 확 냈다.“하고싶은 말이 뭡니까!”“...해도 돼요? 목 안자를 거예요?”“지금 참수당할 정도로 무례한 생각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까...”메디엘이 미카엘을 질린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미카엘은 끄덕도 안하고 중얼거렸다.“글쎄요...참수 정도의 내용인지 아닌지 들어봐 주실래요?”“...당신, 사냥 내내 제가 실수로 화살을 헛날리지 않길 빌어야 할 겁니다.”“하하, 왕자님 생각보다 자신만만하시네요. 절 사냥하시려면 평소에 활연습만 하셨어야죠.”미카엘이 대놓고 피식 웃자 메디엘이 더욱 흥분해서 말햇다.“지금 자신만만한 사람이 누군데?! 뭘 믿고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시는 겁니까? 어이가 없네요.”미카엘은 ‘너한테 얘기해 줄거 같냐?’ 라는 표정으로 하하 웃었다. 쟤는 황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예법에 자신이 없다느니 어쩌니 해놓고 말은 참 자기 맘대로 한단 말야? 매너를 신경쓰는 건지 아닌지 애매하다 정말.휴리안은 저 둘이 투닥 거리는 것을 잠시 지켜보더니 다시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저 두 분이 뭐 중요한 말을 하려는 거 같진 않아 보이지? 우리는 가도 될까?”“당연하지. 저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어찌된 게 평소보다 훨씬 어린애 같아진다니까? 말하는 내용의 8할은 쓸모없다고 봐도 되니까 대충 무시해도 돼.”휴리안은 싱긋 웃더니 입구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정말 나를 안고 가려나 보다. 역시 신경쓰인다. 아... 민폐 민폐 이런 민폐가 없네...“오빠 미안. 귀찮게 해서.”“하나도 안 귀찮아.”오빠는 키득 웃었다.“웃기는 말이지만, 내가 말을 못 탈 줄은 몰랐어. 나 말 자체는 좋아하거든. 멋지잖아? 똑똑하고...”내가 중얼중얼 푸념을 늘어놓았다.“그래 그래. 가여운 라디. 이마가 온통 식은땀 투성이었어.”오빠가 동정의 눈길로 내 앞머리를 정돈해 주었다. 내가 ‘하하 무지 부끄럽다...’하고 얼굴을 붉히자 그는 낮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정말이지 떨어져 있을 때도 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 항상 붙어있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사고뭉치인데다 띨띨해서 미안....”오빠는 손을 내저으며 ‘아니 아니, 너를 나무라는 게 아냐~’라고 변명했다. 어느새 우리는 말을 타고 출발했던 호수가에 도착해서, 시원한 숲 밖의 후덥지근한 바람을 맞았다. 오빠는 나를 상냥한 눈빛으로 내려다 보며 말을 끝맺었다.“너를 보살피고 싶다고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나 좋을 대로 행동하고 싶은걸지도 모르겠어.”“응?”“...내 말은... 나도 미카엘 공처럼, 네가 사냥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재미없어 졌다는 거야.”“어, 어차피 내가 따라가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그는 사람들 곁에 나를 내려주면서 빙긋 웃었다.“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너에게 볼품없는 모습을 안보여주기 위해 기합 넣게 되잖아.”사냥에 따라간다던 내가 다시 휴리안에게 안겨서 돌아오자 마리안이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어머!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라디양 다치셨어요?”나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바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오빠는 공주님께 목례하고 나에겐 살랑 손을 흔들고는 ‘모두를 기다리게 할 순 없으니까...’라고 하고는 돌아갔다.제르다민이 느릿느릿 걸어와서 비웃었다.“말도 못 타냐.”“...”“제대로 할 줄 아는게 없네.”“...하나 자신있는 건 있어.”“뭔데.”“오빠 속 뒤집어 놓는 거.”제르다민은 다시 들고있던 책의 넓은 면으로 내 머리를 콩 때렸다. 나는 마치 격투가 처럼 막아내려 했지만 보기 슬플 만큼 크게 엇나간 헛손질 이었다.‘아야!’하는 내 소리에 오빠는 무뚝뚝하게 말했다.“못된 아이에겐 매가 약이지.”곱게 자란 공주님은 옆에서 어색하게 ‘하하...’웃다가 화제를 돌렸다.“아, 아무튼 라디양, 제 입장에선 라디 양과 시간을 보내게 돼서 더 잘됐네요. 저희는 이제 낚시를 해볼까 했거든요. 같이 해요.”그녀가 우아하게 손짓한 곳을 쳐다보니 깨끗한 호수에 낚시하기 좋도록 나무판을 덧놓아 부두처럼 만든 곳이 있었다. 해를 피할 수 있도록 예쁜 차양도 쳐 있었다. 나는 그러자는 뜻으로 끄덕거리고 낚시 그룹에 합류했다.하인들은 일부러 곁에 두지 않았으므로 우리들은 익숙하지 않은 낚시라는 것에 낚싯대며 밑밥이며 허둥지둥 헀다. 오직 제르다민 혼자서 유유자적이었다. ‘혼자 끝냈으면 우리좀 도와줄 것이지!’하고 그가 하는 행동을 살펴보니 정말 가관이었다.낚시 줄에 미끼는 커녕 바늘도 달지 않고 대충 물에 던져 넣은 다음 의자로 걸어가 거의 눕다시피 앉아서 책을 펼쳤다. 말 그대로 낚시하는 흉내를 내고 있다.‘안되지 라디, 저사람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은 최후의 최후의 최후로 밀어두라고.’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는 스스로 낚싯대를 설치하기 위해 애를 썼다.우리들은 미숙한 솜씨이지만 그럭저럭 그럴듯한 모양새를 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끼를 끼워야 할 순간이 다가왔다. 코멜라가 큼지막한 상자를 멀리 있는 사용인에게서 건네받아서 돌아왔다.“자 여러분! 이제 이것만 끼우면 되나 봐요.”그녀가 ‘읏차’하고 바닥에 내려 놓자 우리는 그 상자를 삥 둘러 쪼그리고 앉아 기대에 차서 바라보았다.코멜라가 상자를 열어 젖히자 공주님이 벌떡 일어났다.다급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저, 저, 저는 낚시랑 좀 안맞는 거 같네요. 호호... 저쪽에서 차를 마시고 있겠어요.”아 그렇지. 그녀는 이런 정신공격에 매우 취약했었다. 하지만, 딱히 그녀 뿐만 아니라도 모두가 아연실색해 질만한 미끼통이었다.‘미끼가 지렁이인건 분명히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건...’보통 이정도 크기의 상자면 흙 비슷한 거에 지렁이가 적당히 섞여서 나오지 않아? 내가 낚시가 처음이라 모르는 건가? 이렇게 여자 어깨정도 되는 너비의 상자에 지렁이만 꽉꽉 채워서 나온단 말야?상자 안은 지렁이들의 지옥이었다. 오오... 나름 곤충이나 지렁이 쪽에 담대하다고 생각했던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만한 모습이었다. 귀족들이 낚시한다고 해서 낚시물품 제공업자가 아주 마음 먹고 미끼를 담았나...얼굴이 흙빛이 된 코멜라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하, 하하 우리 오늘 하루종일 미끼 펑펑 써가며 낚시 해도 되겠어요...”어린 우리들 앞에서 무서운 기색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지 꽤 의젓하게 말했다. 믿음직한 언니구나 코멜라.그렇지만 가여운 코멜라에게 먼저 지렁이를 만지라고 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먼저 나서보았다. 낚시 바늘을 들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손을 지렁이 소굴로 갖다 대보려 하는데 역시 쉽지 않았다.“끄아...징그러워라...”내가 중얼거리며 손을 움츠러트리자, 바로 옆의 파르펠이 나를 흘끔 쳐다보며 도도한 말투로 새침하게 말했다.“어머, 무서우신가요 라디올러스 양?”어쩐지 파르펠과 얘기를 나눈 것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다. 나는 순순히 인정했다.“네에 막상 만지려고 하니 용기가 필요하네요.”내 말을 들은 파르펠은 태연한 척 어른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다.“저, 저는 미끼정도에 겁먹을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내 또래 애들한텐 ‘난 무섭지 않아’ 병이 있다는 건 예전에 윌로우에게서도 확인 했었지. 아 기분이 묘한데... 나쁜 예감이 들어.파르펠은 용감하게도 정말 지렁이 하나를 집어 올렸다. 그러나 순식간에 표정은 어두워졌다. 사색이 된 채로 낚싯바늘에 지렁이를 끼우려 하는데 그만 잡힌 지렁이가 크게 꿈틀대고 말았다.“꺄악!”파르펠이 두 눈을 질끈감고 팔을 내저었다. 그녀의 뒤에서 쭈그려 앉아서 그녀가 작업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나와 코멜라는 그대로 봉변을 당하고 말았다. 파르펠이 휘두른 팔에 코멜라가 맞아서 휘청거리며 나를 쳤다.중심을 잃은 나와 코멜라는 호수에 빠지고만것이다.다행히 나는 수영을 잘했다. 그러나 코멜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두려운 표정으로 허우적 댔다. 파르펠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크게 비명지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보았다.제르다민이 일어서서 우리를 보며 지겹다는 듯이 중얼대는 것을.“아...역시 이런 경우엔 내가 구해야 하는 건가?” 제르다민이라면 정말아예 못본 척 하고 도망갈 수도 있겠다는 강한 불안감이 들었다. 나는 내 옆에서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듯 허우적 대는 코멜라를 보았다. 하얗게 질려서 가엽기 짝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 때 마다 가냘프게 ‘꺄악’ 신음 소리를 냈다.물론 제르다민이 구해주지 않아도 조금만 있으면 하인이 올테지만....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건 너무 불쌍하잖아.나는 나라도 그녀를 저 부둣가의 뭔가 잡을 만한 것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줘야겠다고 마음먹고 코멜라의 곁으로 헤엄치려했다. 그러자 제르다민이 무덤덤하게 내게 말했다.“야, 행여나 네가 구하려는 생각은 하지도 마라.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구하려는 사람한테 엉겨붙어서 둘다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쬐끄매가지고 어디 자기보다 큰사람을 구하려고 들어. 건방지게.”내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니까 제르다민은 어느새 안경도 벗고 재킷을 벗어서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 걸치고 있었다. 그리곤 방금 자기가 나에게 경고했던 일이 조금 부끄러운지 중얼거렸다.“뭐...죽고싶으면 구하던가.”‘오! 옷을 벗고 있다는 건... 정말 구해줄 생각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찬찬히 구두를 벗었다. ...너무 느긋하잖아 너? 세상에, 기다리다가 코멜라 죽겠어!나는 조바심이 일어서 그에게 외쳤다.“오빠! 코멜라 양, 이제 힘 다빠진 거 같단 말야! 구해줄 거면 좀 빨리 좀 도와줘!”물에 떠있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 승마를 하기 위해 신은 가죽 장화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멜라는 간편한 드레스 차림이긴 했는데, 역시 치마가 휘감겨서 그녀도 힘들겠지.내 말을 들은 제르다민은 나를 깔보는 듯한 눈으로 천천히 말했다.“바보야 일부러 힘 좀 빠질 때 까지 기다린 거야.”그리고서는 꽤 멋진 자세로 호수로 뛰어들었다. 방금까지 느릿느릿하게 준비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날렵한 모습이었다.코멜라에게 다가가서 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고 안아올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니까 숨을 쉬지 못해 거의 패닉 상태가 되어있던 그녀는 순식간에 그를 꽈악 부둥켜 안고는 조금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냈다. 상당히 강한 힘으로 제르다민에게 매달렸는지 제르다민은 조금 힘들다는 표정을 했다.그 와중에도 옆에 떠 있는데 나를 흘겨 보며 빈정거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거봐, 나도 버겁구만 자기가 어떻게 구하겠다고.”“휴리안 오빠나 헬리오 오빠도 버거웠을까. 운동 좀 해.”“...너 진짜 한 마디도 안 지려고 하냐. 지금 나한테 남는 손이랑 책이 없다는 걸 고마워 해.”그러나 그는 버겁다는 말과는 다르게 꽤 유유히 한 팔로 물살을 헤치고 부두가 가까이에 가서 훌쩍 그녀를 올려 주었다. 눈물 범벅이 된 파르펠이 사색이 된 자신의 언니를 있는 힘껏 끌어 올렸다. 그녀가 부두에 다리를 올리기 쉽게 받쳐주고 나서야 오빠는 자신도 부두 위로 올라섰다.그녀가 무사히 구조되는 것을 보고나서야 안심이 된 나도 오빠가 있는 곳으로 헤엄쳐갔다. 이런, 나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부두 위로 올라갈 수 없잖아? 저 못된 오라비가 순순히 도와줄 리가 없는데.나는 불안해 하며 제르다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오빠, 나도 올려줘...”그러나 예상 외로 오빠는 순순히 나를 가볍게 끌어올려 주었다. 어리벙벙해서 얌전히 고맙다는 말을 했다.“오? 고마워 오빠.”“넌 예상외로 손이 안 갔으니까. 이상하단 말야. 네가 원래 수영을 할 수 있었던가?”엄청나게 뜨끔했다. 그러나 태연을 가장하며 어색하게 둘러댔다.“...도대체가 신경을 써 준적이 있어야지!”“흠... 뭐 그렇지.”다행이 별로 캐묻지 않고 제르다민은 물을 뚝뚝 떨어트리며 걸어가서 자신의 안경을 썼다. 그의 은발이 물기를 먹어 더욱 햇빛을 화려하게 반사시켰다.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있는 코멜라 곁의 파르펠이 아직도 울먹거려하면서 제르다민에게 감사를 표했다.“제, 제르다민 공! 정말 감사해요! 저희 언니를 구해주셔서...라디올러스 양...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그녀는 말하면서 더 감정이 복받치는 지 말끝을 흐렸다. 나는 그녀가 자책감 때문에 괴로워 하는 것이 보기 힘들어서 괜찮다고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 말은 제르다민이 뜬금없이 한 말 때문에 지워지고 말았다.그가 주저앉아있는 코멜라에게 다가가자 코멜라도 덜덜 떠는 손을 무릎위에 공손하게 모으고 그를 올려다 보며 힘없이 말했다.“정말 감사해요...”그러나 그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코멜라 양. 힘없어서 그러고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속에 입은 게 다보여요.”순식간에 코멜라는 놀란 얼굴로 양팔로 자신의 어깨를 감싸쥐고 앞으로 팍 수그렸다. 공작가의 금지옥엽 딸이니, 제르다민의 노골적인 말이 얼마나 충격일지 알만하다.나조차 그의 말이 충격적이라 입을 빠끔거렸다.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모르겠다.‘그걸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어떡해!!!!’이 무심하고 철없는 어린애 같으니!! 속으로 민망함에 안절부절 하고 있는데 그가 자신이 벗어놓았던 재킷을 수그리고 있는 코멜라에게 풀썩 던져서 등에 덮어주며 마저 말을 끝맺었다.“그러니까 잔말 말고 받으세요.”코멜라는 그의 재킷을 받고선 꽤나 놀란 표정이었다. 믿기지 않는다는 것처럼 몸을 천천히 일으키고선 그의 재킷을 여몄다. 눈을 똥그랗게 만들고 그를 쳐다보는 그녀의 얼굴은 상당히 사랑스러워서 나는 사진으로 찍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정작 오빠는 뒤돌아서 뒤늦게 사태를 확인하고 소란스러운 하인들에게로 가고 있어서 그녀의 표정은 보지 못했다.제르다민은 하인들에게서 수건을 받아와서 하나는 나에게 툭 던졌다.“야, 너도 비치긴 하는데 별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참아.”‘혹시 물에 뛰어들기 전에 미리 이렇게 될 걸 예상하고 재킷을 젖지 않게 벗어 둔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봐주는 내가 너무 앞서나간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기왕 이렇게 매너있는 짓을 할꺼면, 좀더 부드럽게 하면 좀 좋냐고.’나는 그에게 투덜댔다.“오빠, 코멜양에게 말없이 재킷을 줫으면 더 멋져보였을 텐데 말이지.”“이렇게 말로 자세하게 콕콕 집어서 말하지 않으면 알아먹질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예의 차린답시고 ‘아니에요, 괜찮아요.’이러면서.”“오빠가 처음에 너무 불친절하게 생략해서 말해서 못알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겠지. 아무튼 역시 오빠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슴이 따뜻한 남자 맞네. 잘됐다 오빠. 그 컨셉 좋다고 생각해.”내가 키득거리며 깐죽대자 오빠는 놀랍게도 싱긋 웃었다.처음보는 나에게로 향한 미소였는데,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다. 오빠는 꽤나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그렇네. 내가 가슴이 따뜻해 지긴 했나봐. 오늘이 가을치고 더운날이라 다행이라고 먼저 생각해 주는 걸 보면.”“뭐?”내가 두려움에 떨며 그를 올려다 보니까 제르다민이 내 허리를 잡고 가볍게 들었다.“분홍아. 물놀이 재밌었던 모양이구나.”‘설마!!!’나는 무어라 변명을 하려 했지만 그는 그 여지조차 남기지 않고 가볍게 나를 호수로 던져 넣었다. 뒤에서 마리안이나 코멜라, 파르펠이 경악의 소리를 내는 것이 언뜻 들렸다.‘역시 못된 제르다민 놈.’또다시 내 뺨을 때리는 호수의 맑은 물을 느끼면서 생각했다. 제르다민이 힘껏 던진 기세에 내 몸은 호수로 깊게 박혔다. 기껏 수건으로 물기를 덜어내었던 머리가 다시 홀랑 젖었다. 물론 베라가 애써서 땋아줬던 머리모양은 사라진지 오래겠지.“푸하!”숨을 쉬기 위해 재빨리 머리를 물 밖으로 내 놓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볼이며 목에 찰싹 달라 붙는 것이 느껴진다. 우웩 너무 급작스럽게 던져져서 물을 조금 먹었다.내가 손으로 얼굴을 문질러서 겨우 눈을 뜰 수 있게 만드니까, 제르다민이 건방진 얼굴로 나를 내려다 보고 있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씨익 비뚤어지게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이야... 재밌어 보인다 분홍아. 그래, 네 나이때는 물놀이가 참 좋아. 그렇지?”“물먹었잖아, 으... 메스꺼워.”내가 기분이 안좋은 것같은 표정을 하자 제르다민은 머쓱한지 시선을 돌리며 중얼거렸다.“그러게 내가 적당히 까불랬잖아.”물에 빠져 법석을 떠는 통에 다시 부두로 올라온 마리안이 제르다민의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괘, 괜찮으신가요? 라디양? 제르다민 공! 빨리 올려주세요~! 이건 너무하잖아요.”내가 그들이 서있는 근처로 헤엄쳐 오자, 오빠가 순순히 팔을 내밀었다. 자기도 ‘이건 좀 심했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하지만 이렇게 순순히 내가 당할 순 없지. 사실 메스꺼운 표정을 지은 것도 일부러 그런거다 이 못된 백발아.나는 그가 내 손을 잡자마자 그에게 온 체중을 실어 엉겨 붙었다. 그리곤 발로 부두를 찼다. 그래, 마치 배영 선수들이 스타트하는 것처럼.수재로 소문난 나의 오라비는 내가 씨익 웃으며 손을 맞잡자마자 눈치 채고 나를 노려보았다.“너 이자식...”“헹.”그리곤 다시 우리 둘 다 너른 호수의 품에 안겼다. ‘첨벙!’하는 이인용 입수소리가 명쾌했다.오빠는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졌으므로 나보다 타격이 컸을 것이다. 물 많이 먹었을려나? 배부를 때까지 먹었으면 좋겠는데.오빠보다 먼저 정신을 차리기 위해 얼른 고개를 내밀고 얼굴의 물기를 털어냈다. 조금 있으려니까 제르다민도 물 밖으로 나왔다.그는 이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냉정한 얼굴로 중얼거렸다.“안경...”“으악 안경 없어졌어?”그러고 보니 그가 끼고 있던 안경이 없어졌다. 와 이거 사고쳤네. 안경을 생각 못했어. 어쩌지?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나는 당황해서 우물쭈물 하면서 그의 가까이 까지 헤엄쳐갔다. 그는 바로 부둣가를 바라보며 외쳤다.“좀 맡아주시죠, 영애.”그렇게 말하는 제르다민이 물 속에서 꺼낸 손에는 안경이 쥐어져 있었다.한손으로 내 어깨를 턱 잡고, 반대 손으로는 쥐고 있던 안경을 코멜라에게 던졌다. 코멜라는 ‘네? 네!’라고 깜짝 놀라하며 안경을 받아냈다.‘헉. 방금 내가 써먹은 미끼작전에 다시 내가 걸리다니.’나는 내 어깨를 움켜쥔 그의 손을 떨쳐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제르다민이 코 끝이며, 턱선에 물방울을 톡 톡 떨어뜨리며 천천히 이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호수의 물이 얼음물로 바뀐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어색하게 웃어보였다.그는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각오는 하고 이런 짓을 벌였겠지.”“아하하하...솔직히 말하면...그닥?”그가 말없이 또 그 소름끼치도록 다정한 미소를 빙긋 지은 다음 비어있던 내 나머지 어깨에도 손을 올려놓았다. 나는 생명의 위기를 느끼며 그의 양 팔목을 쥐어, 떼어내 보려 했지만 역시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기가 막힐 정도로 가볍게 내 양 어깨를 눌렀다.그러나 그의 행동은 나에게 전혀 가볍지 않게 다가왔다. 정수리까지 깔끔하게 입수했다.그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나의 양 어깨를 지긋이 눌러주었기 때문에 나는 살기 위해 발로 있는 힘껏 그의 배를 차 주었지만 별 타격이 없는 것 같았다. 딱 ‘더는 못견디겠다!’할 정도가 되니까 그가 손에서 힘을 뺐다.“푸헉!”내가 달콤한 공기에게 감사하며 고개를 밖으로 빼자 제르다민이 여전히 그 미친것 같은 파괴력의 미소로 물었다.“반성했니.”“이게 뭐야! 악질 건달이냐! 악덕 사채업자냐고! 물고문이잖아!”“잘가.”그는 어쩔 수 없다는 미소로 고개를 살짝 갸웃 하더니 또 나를 물속에 밀어 넣었다. 그러나 이번엔 금방 나를 다시 꺼내 주었다.육지 근처에서 또 다른 비명소리가 났기 때문이다.“으악 라디!!”“어푸푸!”오빠의 손에서 풀려난 나는 아직 물 때문에 눈을 뜨지 못했지만 그 비명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목소리로 바로 알 수 있었다. 헬리오 오빠였다. 벌써 돌아온 건가?겨우 눈을 뜨니까 사냥을 갔던 사람들이 모두 말 위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헬리오 오빠는 양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경악스럽다는 표정으로 나와 눈을 마주 쳤다. 어? 오빠의 저런 모습 전에도 본적 있는데? 아. 그때다. 내가 팔파새한테 정복당했을 때. 그때와 똑같은 모습이다.헬리오 오빠는 다급하게 물었다.“라디! 괜찮아? 왜 그런데 들어가 있어? 제르다민 형님은 또 왜?”왕자며 미카엘이며 휴리안 오빠며 심지어 사할까지 믿기지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오직 윌로우만이 ‘너 또 무슨 짓을 한거야’하는 얼굴이었다.나는 이때다 싶어서 헬리오에게 제르다민의 악행을 일렀다.“오빠! 제르다민오빠가 날 호수로 던졌어!”헬리오 오빠는 헉 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전혀 ‘설마~’라고 의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들 제르다민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같았다.휴리안 오빠가 휙 제르다민을 바라보며 다그치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제르다민! 너!.... 어떻게...!”항상 반듯한 오빠가 너무 어이가 없는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제르다민은 휴리안을 향해 담담하게 변명했다.“형님. 저도 같이 호수에 들어와 있는 걸 보면 모르시겠어요? 이 녀석이 저도 빠트렸다고요.”그리고선 그는 내쪽으로 고개를 향하고는 뚱한 표정으로 불평했다.“너 이녀석, 그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말을 끝마치기 전에 내가 무표정한 얼굴로 두 손을 모아 물총을 만들어서 그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헉!”헬리오와 윌로우가 그게 무슨 자살행위냐는 듯이 신음소리를 냈다. 알게뭐냐 이미 이 녀석이랑은 볼장 다 봤는걸.“....”제르다민은 말없이 눈가를 문지르며 인자하게 웃었다. 와 이렇게 제르다민이 많이 웃는 날이 있다니.그는 이번엔 내 머리통을 한손으로 움켜쥐고는 물속으로 쳐 넣었다.물속에서 아득하게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다.“제, 제르다민 공!!”아마 메디엘의 목소리 인 것같았다.“제르다민 이녀석! 그만 두지 못하겠니!”휴리안 오빠겠지.“와...라디 오빠랑 사이좋네. 근데 이제 호수로 들어가기엔 좀 추울텐데.”이 현실감 없이 태평한 사람은 분명 미카엘이다. 장난하냐. 이게 사이좋은 남매의 모습으로 보여?말 발굽 소리가 바로 근처에서 나는 걸 보니 그들도 부둣가로 왔나 보다. 제르다민은 주위의 만류에 결국 나를 다시 놓아주었다.제르다민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유유히 부두로 헤엄쳐 가서 훌쩍 부두 위로 올라섰다. 역시 내 예상대로 방금까지 멀찍이 있던 사냥그룹은 부두 근처에서 하나둘씩 말에서 내려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헬리오가 나에게 다가오려다가 코멜라의 머리가 젖어있는 것을 보고 기겁해서 외쳤다.“서, 설마! 제르다민 형님! 화가 난다고 코멜라 양까지 호수로 던지신 거에요?”제르다민은 저벅저벅 코멜라에게로 가서 안경을 받아낀 다음 싸늘하게 헬리오를 보며 대답했다.“너도 호수에서 물장난 치고 싶었어? 그럼 그렇다고 제대로 말해. 둘러 말하지 말고.”“지금 둘러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형님인거 같은데요... 아무튼 아니라니 다행이네요.”코멜라는 헬리오에게 한발 늦게 상황을 설명했다.“오, 오히려 물에 빠진 저를 구해 주신 걸요.”“네에?!”헬리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크게 소리를 내자 제르다민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헬리오를 쳐다보았다.“너무 대놓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그러는 거 아니냐.”“아, 죄송합니다 형님. 그러니까, 코멜라 양은 구해주시고 라디는 던져 넣었다... 이건가요.”“뭐...말하려면 할 말은 많지만 귀찮으니까...그래.”제르다민은 이제 다 귀찮다는 듯이 털썩 의자에 앉아서 수건으로 대충 머리를 털기 시작했다.내가 부둣가로 헤엄쳐 가자 미카엘이 끌어당겨 주었다. 옆에서 메디엘이 잔소리를 했다.“감기 걸리시면 어쩌려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음... 처음에는 분명히 예상치 못할 사고로 물에 빠진 거였어요.”미카엘이 수건으로 내 머리를 문지르며 키득댔다.“그 다음에는 사고가 아니었고?”“사고...랄까, 예상 가능한 사건이었지. 설마 깐죽 된다고 정말로 물에 집어 넣겠어? 했던 내 안일함이 잘못이다.”휴리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볼에 장갑을 벗은 맨 손을 살짝 갖다 댔다.“라디. 얼마나 물에 있던거야?”“별로 오래 안 있었어.”“열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 어지럽지도 않아?”“응.”휴리안은 안심했다는 듯이 끄덕거리더니 이번에는 제르다민을 향해 물었다.“제르다민, 너도 몸 컨디션은 좀 괜찮아?”“네.”휴리안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서 빙긋 웃으며 지시했다.“그래? 그럼 둘 다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 혼나게.” 옷을 갈아입는 도중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과연 오빠가 정말 진지하게 화가 났을까?’ 하는 것이었다. 정말 화가 난걸까 아니면 그냥 놀려먹으려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한 걸까. 옷을 갈아입고 천막에서 나오자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오빠가 우리를 진지하게 혼낼 맘이라는 것을.휴리안은 무표정하게 팔짱을 낀 채로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 앞에는 먼저 옷을 갈아입은 제르다민이 군기가 빡 잡힌 열중쉬어 자세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에나 내가 아는 제르다민 맞아? 어떻게 사람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어? 물론 지금 휴리안 오빠의 위압감은 누구나 기가 죽을 법 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다른 사람들은 하인들이 잡은 고기를 다듬을 동안 차를 마시고 있는 것 같았다. 멀리서 그들이 앉아 힐끔힐끔 이쪽을 쳐다보는 것이 보였다. 윽, 제발 못 본 척 해줘. 언제 어디서든 혼나는 모습이 공개되는 것은 창피하다.나도 서둘러 휴리안의 앞으로 달려갔다. 오빠 앞에 서니까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졌다. 몸에 배어있는 듯이 저절로 나오는 최대한의 죄스런 포즈였다. 이렇게 혼나는 건 고등학생 때 단체로 혼났을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네.휴리안 오빠가 우리들을 말없이 쳐다보다가 입을 뗐다.“라디.”윽, 내가 먼저 혼나는가보다.“응?”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을 맞추었다. 그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차분하게 말했다.“설마 네가 몸이 약하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는 하지 않겠지?”“응...”어쩐지 너무나 ‘네’라고 존댓말을 쓰고 싶다. ‘여기서 갑자기 존댓말로 바꾸면 웃기겠지...’ 이런 바보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휴리안은 작은 한숨을 섞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그럼, 물에 빠졌을 때 지체하지 않고 나와서 몸을 따뜻하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니?”그가 나보다도 내 몸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잘 느껴져서 나는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 어리석은 짓을 했다. 나는 풀이 죽어서 대답했다.“응... 잘못했어 오빠.”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산뜻하게 대답했다.“이해 했다면 됐단다, 라디. 그럼 제르다민.”그가 시선을 돌려 제르다민을 바라보았다. 으잉? 나는 겨우 이걸로 끝인가? 내 옆의 제르다민이 아주 작게 ‘윽.’이라고 신음소릴 냈다.휴리안이 낮고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제르다민에게 물었다.“제르다민, 네가 라디랑 몇 살 차이이더라?”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제르다민은 자신의 입으로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만 했다.“7살이요.”그가 치욕스럽다는 듯이 몸을 조금 움츠렸다.휴리안은 대답을 듣고 담담하게 말했다.“음... 나이차이가 굉장하구나 그렇지? 그럼... 너는 7살 차이나는...그러니까, 11살에다가 몸도 불편한 여동생을 호수에 빠트린거네?”“윽... 네... 하지만, 형님!”제르다민은 조금 억울하다는 듯이 반론을 하려했다. 휴리안은 언뜻 보면 제르다민이 변명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처럼 잠시 침묵했지만, 전혀 웃음기 없는 눈으로 형식적인 미소를 짓는 그의 표정은 ‘누가 너에게 쓸데없는 말을 해도 좋다고 허락했지?’라고 말하고 있었다. 혼나고 있지 않은 나조차 위축돼서 눈치를 보게 될 정도였다. 제르다민은 ‘아닙니다.’라고 빠르게 꼬리를 내렸다. 역시 제르다민은 머리가 좋아.휴리안은 우리 둘이 심각하게 풀이 죽은 것 같으니까 깊은 한숨을 푹 쉬더니 인상을 조금 풀고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제르다민에게 추궁했다.“제르다민... 내 기억으로는 내가 예전에 적어도 여성들에게만은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맞니?”이제 휴리안이 혼내는 스타일에 대해 감이 잡힌다. 오빠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직접 말하게끔 만드는 것 같다.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말이다.제르다민은 평소보다 풀이 죽은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맞습니다.”“나는 지금까지 네가 내 충고를 꽤 잘 듣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야. 방금 네가 보여준 그 라디의 머리를 물속에...처음...집어넣는 모습은 꽤 놀라웠단다. 제르다민. 앞으론 그렇게 심한 장난은 치지 않았으면 하는구나.”“...”제르다민은 차마 할 말이 없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였다. 힐끔 훔쳐본 그의 표정은 ‘곤란해’라는 심정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었다. 항상 무뚝뚝한 그의 이런 표정은 처음이라 나는 조금 놀랐다. 동시에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았다.‘아항, 제르다민 오빠가 왜 휴리안 오빠에게 꼼짝도 못하는 지 이제 좀 알겠네.’제르다민은 휴리안을 정말로 좋아하는 거구나. 그는 단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약한 거였어. 그래서 부모님이나 휴리안 오빠에게는 고분고분한 거야. 미움 받고 싶지 않아서.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렵고 어른스러운 그 둘째 오빠가 이다지도 단순하게 애정을 갈구하는 모습이라니. 너무 아이 같은 행동방식이라 오히려 깨닫기 어려웠다.게다가 그는 휴리안이 나무라는 것에 대해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애처롭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나는 우물쭈물 거리다 제르다민의 편을 들기 위해 입을 떼었는데, 공교롭게도 휴리안이 바로 혼내는 것을 마무리 해버렸다.“뭐, 둘 다 충분히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이정도로 하고... 우리도 식사를 하러 갈까. 다들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구나.”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돌아와 가볍게 훈육을 끝냈다. ‘자 다들 돌아가자.’라고 자상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며 뒤돌아서서 식사자리로 걸음을 옮겼다.휴리안도 아마 대충은 제르다민이 자신의 훈계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전에 제르다민이 말했듯이 누가 뭐라 해도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둘이니까.제르다민이 이제야 긴장을 조금 푼 듯이 작게 숨을 내쉬자 내가 그의 옆으로 바짝 다가서서 중얼거렸다.“오빠는 휴리안 오빠를 참 좋아하는구나?”제르다민은 순식간에 미간을 팍 꾸기며 그게 무슨 뜻이냐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마치 제르다민의 비밀을 알아낸 것처럼 놀리는 말투로 살짝 말했다.“난 이제 알겠다구~ 오빠. 부모님이랑 휴리안 오빠한테만 고분고분한 이유가 그거지? ‘너무 좋아하니까.’”‘생각해보면 이렇게 단순할 수가 없는데 말이지. ‘좋아하니까 잘해준다’ 그뿐인걸.’제르다민은 내 말을 듣고 의외로 순순히 대답했다.“아. 그건 맞는 얘기같군.”‘오, 왠일이지?’나는 제르다민의 성격상 분명히 ‘그게 무슨소리야 멍청아.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긴 누굴 좋아해?’라며 부정할 줄 알았는데. 그래, 평소처럼 고독한 늑대 코스프레를 할 줄 알았단 말이지.내가 ‘오호~?’라는 소리를 내며 키득거리자 제르다민은 걸음을 옮기며 무뚝뚝하게 말을 이었다.“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약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반대로 너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이유도 잘 이해가 되겠구나. 분홍아.”나는 싱글벙글 웃으며 그를 뒤따라 가다가 그 말을 듣고 움찔했다. 아 그렇네. 정리해보자면. 내 가정에 대한 명제는 ‘그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부드럽게 대해준다.’이군. 이 명제가 참이라면, 그의 대우인 ‘그가 거칠게 대한다면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도 참이 되는군. 음음...못된 제르다민 녀석. ‘나는 네가 싫어’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 말란 말이야!나는 계속해서 그의 뒤를 걸어가며 툴툴 댔지만 제르다민은 마치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깔끔하게 무시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에 다 와서 휴리안 오빠의 옆자리에 앉게 돼서야 다정하게 내 불평에 ‘우리 분홍이가 평소에 이 오빠에게 불만이 많았구나. 근데 이제 식사도 해야하니 조금만 참아보지 않으련.’하고 ‘이제 남들 눈도 있으니 좀 닥쳐.’라는 말을 돌려 말했다.휴리안은 이 대놓고 꾸며내는 억지 친절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쓴웃음을 씨익 짓고는 말았다. 역시 휴리안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르다민 오빠에게는 좀 약한 거 같다.식사는 아주 평화로웠고, 적당하게 구워진 고기는 꿀맛 같았다. 처음에는 내 몫의 고기에만 정신이 팔려 묵묵히 먹어치우다가 어느정도 배가 채워진 후에야 묻고싶었던 것이 기억났다. 향긋한 사슴고기를 꿀꺽 삼키고선 메디엘에게 물었다.“그런데 왕자님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오셨어요?”메디엘은 내 질문을 받고선 말하기 민망하다는 듯한 표정을 살짝 짓더니 조그맣게 말했다.“그게... 순식간에 더 이상 잡으면 가져가기 무거워서 힘들 정도의 양을 잡았거든요.”“우와! 굉장하다. 그렇게 빨리요? ...음? 대단한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껄끄러운 듯이 말하세요? 설마 왕자님은 하나도 못 잡으셨어요?”내가 마지막에는 살짝 깐죽거리는 말투로 키득거리며 묻자 왕자는 뾰롱퉁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아닙니다. 저도 사슴 두 마리정도는 잡았어요.”“으엉? 그 짧은 순간에 사슴 두 마리라는 건 엄청 좋은 솜씨 아니에요?..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내가 어리둥절해서 묻자. 옆에 앉아있던 미카엘이 작게 ‘풋.’하고 웃었다. 왕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분한 듯이 ‘크으...’라고 목을 울렸다.내가 황당해서 미카엘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다.“미카엘? 사슴 두 마리라니... 대단한 거 아냐?”미카엘은 산뜻하게, 그러나 매우 인공적인 미소로 상냥하게 대답했다.“그러엄~ 정말 대단한 솜씨지. 역시 왕자님이시라니까?”미카엘의 칭찬을 들은 메디엘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미카엘을 홱 돌아보며 성질을 냈다.“당신만은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시죠? 짜증나니까!”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나는 궁금해서 끼어들었다.“뭔데요! 저한테도 설명 좀 해주세요! 설마 미카엘은 왕자님 보다 훨씬 많이 잡았나요?”미카엘은 어깨를 으쓱하며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아니? 그럴 리가. 나같은 것의 솜씨를 어떻게 이 찬란한 제국의 왕자님께 빗대겠어? 나는 한 마리 밖에 못잡았어.”“음? 근데 왕자님이 왜 저러시지?..”메디엘은 자존심 상한다는 표정으로 시선을 자신의 앞접시로 돌리고선 고기를 거칠게 썰며 나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중얼거렸다.“...분명히 일부러 저희 들을 사슴 무리 쪽으로 유인한 후 일부러 자신은 잡지 않았어요.”“네?”왕자는 난폭한 칼질이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갈하게 잘린 고기를 포크로 푹 찍고 지금 자신이 창피해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붉어진 얼굴을 나에게 향했다. 평소에는 어른스럽지만 유독 지기 싫어하는 그는 순간, 마치 달리기에서 2등을 해서 분해하는 소년 같은 표정으로 눈썹을 찡그리고는 말했다.“미카엘공은 우리가 만족스럽게 사냥에 성공해야만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일부러 그딴 짓을 했다고요.”“네에?”메디엘이 분해하는 것과 내가 놀라는 것을 본 미카엘은 재밌다는 듯이 깨끗한 웃음소리를 낸 뒤 왕자의 말을 부정했다.“아이참... 라디, 왕자님께서 생각이 너무 앞서나가시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라니까?”그렇게 말한 그는 예의바른 미소를 띄고 있었지만 바로 왕자를 향해 도전적인 눈빛을 보내고서는 조금 위험할 정도로 씨익 웃고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분명 사냥을 할 때만 해도 신나셔서 사냥감을 말에 실어놓으시곤 오는 길에 갑자기 ‘깨.달.으.신’ 것처럼 저렇게 분해하셔.”내가 잘못들은게 아니라면 분명히 ‘깨달으신’에 엄청나게 힘을 주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카엘... 나는 어색하게 ‘하하...’ 웃으며 왕자 쪽으로 돌아보았다.왕자는 이제 밥 먹다 말고 매너고 뭐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자기가 나를 위해 시를 썼다는 걸 들켰을 때도 꼭 이런 모양새이었지. 프라이드가 높은 만큼, 의외의 사건엔 이렇게 온몸으로 부끄러워하는 나의 왕자님이시다.어쨌든 잘됐구나 미카엘, 왕자님마저 매너에 이리 프리한 모습이신데... 너도 앞으로 이 멤버에서 예법 걱정할 일은 없겠어.나의 다독거림은 왕자님께 별 소용이 없어서 왕자님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잠깐의 시간동안은 식사자리에 미카엘이 소년처럼 킬킬대는 소리만 났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식사를 끝마치고 나서는 배가 너무 불러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물에 들어가서 한바탕 난동을 부린 후에 허기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 과식을 한 거 같기도 하다.소화도 시킬 겸 호숫가 근처를 조금 걷다가 남자들이 사냥에 타고 나갔던 말이 눈에 들어왔다.‘정말 이상하지. 그냥 말은 하나도 안무서운데.’나는 손을 살짝 말의 콧잔등에 갖다 대었다. 영리하게 생긴 그 말은 얌전히 내 손길을 받았다. 가끔 푸릉 소리를 내며 콧김을 내뿜는 정도였다. 나는 동물을 좋아했다. 말의 짧은 털의 감촉과 따뜻한 온기도 마음에 들었다.‘브러쉬가 있었다면 빗질을 해주었을 텐데.’손바닥으로 말의 목 근처를 쓰다듬다가 안장에 매달려 있던 주머니가 조금 움직인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엥? 이거 뭐지? 잡은 동물을 까먹고 하인에게 건네지 않은 건가?’나는 그 주머니를 살짝 들어보았다. 묵직하기도 하고 과연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났다. 산채로 잡은 거야? 뭐지... 애완용으로 팔리는 건가?주머리의 아래쪽을 들어올려 보이며 멀리 있는 휴리안 오빠에게 물었다.“오빠! 이건 뭐야? 왜 얘만 따로 매달아 놨어?”내 목소리에 웃는 낯으로 내 쪽을 돌아본 오빠는 내 손에 들린 주머니를 보고 바로 안색이 바뀌어서 다급하게 외쳤다.“라디! 그거 그냥 내버려 둬! 그렇게 들면 입구부분이 느슨해 질 수가 있어서...”나는 오빠의 태도가 심상치 않음을 보고 얼른 다시 시선을 주머니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다. 주머니의 입구로 빼꼼이 나와 있는 그 얼굴은 그것이었다. 그거. 내가 진짜 싫어하는 그거.멀리서 휴리안이 당황해 하며 말을 마무리하는 소리가 들렸다.“안에 있는 새가 나오려고 할지도 몰라...네가 새를 무서워 해서 일부러 따로 둔건데...”뾰족한 부리와 새카맣고 뭘 할 생각인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 눈. 그 빽빽한 깃털. 푸드덕 거리는 날갯짓. 전부다 자동적으로 나에게 소름이 돋게 만드는 것들이었다. 이 안에 들어있는게 새였을 줄이야!“크헤에엑!”나는 너무 놀라서 칠칠치 못한 비명소리를 냈다. 손에 들고 있던 주머니를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사람처럼 떼어놓고선 뒤돌아 도망가려고 했다. 아, 내가 걸음이 부자연스럽다는 것도 까먹은 것이다. 뒤돌아서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스텝이 꼬여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다. 으악 이번엔 자갈밭에 넘어지는 건가! 했는데 누군가 순식간에 촤르륵 소리를 내며 나와 자갈밭 사이에 끼어들어 완충재 역할을 자원 해 주었다.나를 꼭 안아주었으나, 역시 넘어지지 않는 것 까지는 무리라 우리 둘다 바닥에 쾅하고 꽤나 요란스럽게 넘어졌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 전혀 판단이 안 되게 머리가 핑핑돌았는데, 넘어질 때의 충격으로 입을 부딪쳤는지 이가 아팠다. 다행인 것은 나도 모르게 고개를 조금 틀고 있어서 찡한 부분이 앞니가 아니라 송곳니 부근이었다. 음. 앞니와의 직접적 충돌은 위험하지. 그럼 그럼. 여기엔 의치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을 텐데 잘못하다간 아주 맹구 같아지는 수가 있다고.눈도 아직 뜨지 못했는데 이런 미용적인 걱정을 하는 나는, 역시 여자이긴 한가보다. 속으로 조금 자조하면서 살짝 눈을 뜨니까 미카엘이 나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위에 올라타고 있는 형상의 나를 양팔로 꼭 안은 채로.“우와 미카엘, 내가 넘어질 거 같으니까 받아준거야? 진짜 빠르다. 고마워.”내가 감탄하면서 감사의 말을 건넸건만, 미카엘은 미간을 미세하게 구긴 채 말없이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가 어리둥절해서 마주 보고 있으려니까 그가 입을 뗐다.“라디, 입술에서 피나.”“어? 정말이네. 괜찮아. 원래 입술은 잘 찢어지잖아. 아! 미안! 네 옷에도 피 묻혔다.”그의 쇄골 근처에도 피가 묻어있었다. 아, 내가 넘어지면서 미카엘의 쇄골 뼈에 입을 부딪쳤구나. 으아 미카엘 아팠겠다. 나는 미안해져서 다시 사과했다.“미카엘! 너 진짜 아팠겠다! 내가 뼈에다 박아서! 윽 미안해...”“괜찮아.”그는 히죽 웃고 말았지만, 나는 걱정이 되어서 그의 셔츠 칼라부근을 조금 벗겨내서 상처가 나지 않았나 보았다.“으악! 이거 내가 묻힌 피가 아니었잖아? 미카엘! 괜찮아? 어떡해! 미안해!”그의 쇄골부근에 찢어진 듯한 상처가 짧지만 꽤 깊게 나서 피가 베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진땀을 흘리며 미카엘을 바라보았다. 미카엘은 어이없게도 눈을 반짝 반짝 빛내고 있었다. 뭐, 뭐지? 이녀석.미카엘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다.“와! 진짜? 상처가 났어? 아~ 이런 나한텐 잘 안 보이는 위치야.”“어?응?안 아파? 미카엘? 피 많이 나는데...”미카엘은 상기된 얼굴로 신나하며 말했다.“그래! 라디! 내가 너한테 흉터를 낼 순 없으니까! 네가 나한테 내면 되는 거였어! 뭐야, 엄청 간단하네!”“음...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근데 그게 흉터가 남을지 어떻게 알아.”“하하하하.”“일부러 헤집지는 마.”“하하하”“일부러 곪게 하지도 말라고.”“하하하하”내가 어쩐지 맥이 빠져서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쿵 내려놓자 미카엘은 약간 콧노래를 부르며 내 뒷통수를 쓰다듬었다. 그러나 곧 메디엘이 나를 붕 들어서 미카엘에게서 떨어지게 했다. 나를 두발로 서게 한 후 스틱을 쥐어주고선 미카엘을 업신여기는 눈으로 내려보며 하인을 불렀다.“여기 미카엘 공이 다치셨다. 바로 치료해 드리도록.”미카엘도 야수같은 눈으로 그 옅은 눈동자를 위험하게 빛내며 답했다.“...아아 친절하기도 하시지.”휴리안은 한쪽 무릎을 땅에 대어 나와 시선을 맞춘 후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세상에...라디... 정말 눈을 못 떼겠어. 이렇게 금세 다치다니. 괜찮니? 입술에서 피가나는데.”“응. 미카엘이 받아줘서 괜찮아. 그냥 입술만 조금 찢어진 것 같아.”내 말을 들은 휴리안은 미카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정중하게 한 후 가까이 있던 하인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손수건으로 입술 닦아준 후에 장갑을 벗고는 자신의 손을 닦았다. 뭐하려는 거지?내가 손수건을 입에 대며 그가 하는 행동을 멀뚱히 바라보았다. 아, 그나저나 오빠의 손수건에선 오빠 향기가 나서 정말 좋단 말야?오빠는 손을 다 씻고나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라디, 이가 괜찮은지 잠깐만 보자.”“으엉? 괘, 괜찮은 거 같은데...”으악 손가락으로 확인해 보려는 거야? 오빠는 정말 꼼꼼하다니까.나는 조금 쑥스러워서 머뭇거려하면서도 입을 살짝 벌렸다. 오빠는 상냥하게 웃으며 한손으로는 내 턱을 살짝 잡고 자세를 잡았다. 그런데 입 안에 손가락을 넣기 직전, 휴리안은 볼을 살짝 물들이며 넣으려던 손을 움츠러트리곤 다시 나와 시선을 맞추었다.“라디, 이번엔 핥으면 안 돼.”“아, 아, 안 핥아!”너무 급작스러운 공격이었다. 나는 지난 날의 추태가 생각나 얼굴이 달아올랐다. 오빠도 덩달아 조금 부끄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 갑자기 그가 마냥 순진한 소년같이 보인다. 나는 새빨간 얼굴로 입을 벌렸다.오빠는 순식간에 멀쩡하게 돌아와서 신중하게 피가 난 쪽의 이들을 건드려 보았다. 송곳니까지는 별 문제 없었는데.“아야.”송곳니 뒤쪽의 이를 오빠가 만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심하게 들어서 바보같이 오빠의 손가락이 입안에 있는데도 소리를 내고 말았다. 민망해서 오빠의 얼굴쪽으로 시선을 돌리니까 오빠가 새파래진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윽...왜, 왜그래 불안하게... 설마 내가 오빠 손가락을 씹었어? 별로 그런 느낌 안 났는데?그가 답지 않게 조금 손을 떨면서 내 입 안에서 손가락을 뺐다. 그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 휴리안이 더듬거리며 말했다.“라, 라디... 이가 빠졌는데?”“헐.”헐... 이런 가벼워 보이는 감탄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나. 헐. 내 어금니...어금니...작은 어금니가 빠졌어.나는 가볍게 현기증이 났다. 그러나 휴리안의 정신상태가 더 심각한것 같았다. 그가 내 이를 부여잡고 당황해 하며 외쳤다.“나, 나 때문인건가?! 내가 무심결에 힘을 너무 준건가?!!”기싸움을 하던 미카엘과 메디엘이 내가 이가 빠졌다는 소리에 둘다 얼굴색이 변해서 다가왔다. 둘다 허둥지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메디엘이 내 양 볼을 잡아 자신의 얼굴로 바짝 붙이며 물었다.“이, 이, 이, 이가 빠졌다고요?! 아프지는 않나요? 세상에! 그렇게 세게 부딪혔을 줄이야!”“병롱 앙아풍데요.”그가 내 양볼을 너무 세게 잡아 누르는 것이 더 아팠다.그는 난데없이 미카엘을 휙 돌아보며 화를 냈다.“당신 때문이잖아요! 무슨 쇄골뼈에 어금니가 나가고 난리에요!”미카엘은 치료를 받다가 뛰쳐나온 지라 풀어진 옷자락 사이로 여전히 피가 베어나오고 있었다. 미카엘은 메디엘의 그 뭐가 뭔지 모를 지적에 얼굴이 새빨개져선 나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다.“미안! 라디! 내 쇄골이 나갔어야 했는데...!”이건 무슨 말이야...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들의 정신 나간 퍼포먼스에 오히려 머리가 냉정해지는 것을 느꼈다.“진정해 미카엘. 일단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네 쇄골 뼈가 무사해서 다행이야.”미카엘은 미간을 잔뜩 찡그리고 미안해서 어쩔줄 모르겠다는 듯이 들썩거리며 대답했다.“아냐! 네가 몰라서 그래. 각목 같은 걸로 맞을 때 소리는 더 요란해도 때린 각목이 부러져 버리면 오히려 덜 아프다고!”“그러니까 네 쇄골을 요란하게 부수면서까지 내 이를 보전하고 싶진 않다니까... 진정 좀... 응? 너 각목이 부러질 때까지 맞아봤어? 어떤 자식이야.”“이가 나간 와중에 내 지난날에 분개 하다니...되게 늠름하다 너.”미카엘이 나에게 새삼 눈을 반짝거리니까 메디엘이 우리 둘에게 정신차리라며 일깨웠다.“둘 다 지금 무슨 헛소리들입니까!”“아차.”나도 모르게 이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파서 현실 도피해버렸다. 휴리안 오빠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내 쪽을 향해 물었다.“라, 라디. 이거 유치인 걸까.”아직도 엄청 패닉이구나 오빠.“글쎄... 근데 유치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원래 내 나이 쯤에 어금니를 갈껄?"왕자님은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며 기가 막히다는 듯이 중얼거렸다.“엄청 침착하시네요, 라디양.”“여러분들이 제 대신 호들갑 떨어주시니까 저는 오히려 여유있어지네요. 그나마 좀 뒤쪽에 있는 이라 다행이에요.”왕자는 내 말에 무표정하게 얼굴을 어둡게하고는 엄지로 조심스럽게 피가 굳어 딱딱해진 입술을 만졌다. 언뜻보면 평소와 같이 관심없다는 표정같기도 하지만 분명 나에 대한 걱정으로 안색이 안좋아진 것이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핀잔을 주었다.“뒤쪽에 있는 이라 다행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에요. 충분히 불쌍해 보이는 걸요.”“윽, 그렇게 궁상맞습니까.”“평소처럼 말하면 안 보이는 듯도 싶지만...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나는 곧장 그가 시키는 데로 이가 보이게 히죽 웃어보였다. 그는 내가 바보같이 웃자 진지한 표정으로 소감을 말했다.“어라, 좀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미카엘이 옆에서 보고있다가 맞장구쳤다.“저도...”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노려봐 주었다. 이게 지금 열 한 살이라 귀여운 거지, 서른살이라고 생각해보라고.“제가 서른살이 되도 그렇게 말해 주실 건가요.”메디엘은 망설임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거렸다.“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허어....남의 이라고...하긴 말끔하게 생긴 신사가 어금니가 없으면 좀 순박해 보이긴 하겠네요. 왕자님도 빼드릴까요.”“제가 서른 살이 되었을 때도 당신이 제 입안에 손을 넣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면 저는 환영이네요. 그깟 어금니 정도야.”그가 오랜만에 사람을 갖고 노는 재규어로 변해서 재밌다는 듯이 나를 내려다 보았다.계속해서 내 이를 손에 쥐고 우왕좌왕 하던 휴리안이 메디엘의 말을 들었는지, 우리 사이에 성큼 걸어와서 왕자를 향해 정중하게 말했다.“걱정마세요. 라디가 제게 부탁하면, 제가 빼드릴겁니다. 아프지 않게 한번에.”왕자가 한 쪽 눈썹을 못마땅한 듯이 올리고선 불평했다.“어쩐지 저, 이 멤버 사이에선 무척이나 신분의 벽이 낮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이 지체 없는 빈정거림이라니.”휴리안은 메디엘을 향해서 빙긋 웃었던 어른스러운 얼굴을 내쪽으로 돌리자 마자 사정없이 무너트리고선 조금 울상으로 재차 물었다.“그래서... 라디. 이거 유치라고?”“오빠... 나 예전일 기억 못하는데.”“아 맞다!”오빠는 굉장히 난감하다는 듯이 이마를 짚었다. 이제 내 주위에는 모든 사람이 몰려들어 각자 소란스러웠다.제르다민이 느긋하게 휴리안을 향해서 말했다.“형님, 진정하세요. 원래 열 살 무렵에 빠지는 거예요.”코멜라가 끄덕거리며 휴리안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다.“맞아요. 파르펠은 올해 초에 뒤쪽 어금니를 갈았어요. 이쯤에 앞쪽 어금니가 빠지는 아이도 그다지 느린 게 아닌걸요. 게다가 유치는 모양도 좀 다르니까 빠진 이를 살펴보면 될 거에요.”휴리안은 식은땀이 잔뜩 맺힌 이마를 닦으며 중얼거렸다.“아, 아... 그렇지요...”그는 이 충격적인 상황에 머리가 전혀 돌아가지 않는지, 순순히 코멜라에게 빠진 치아를 건네주었다.코멜라는 진지한 얼굴로 살펴보더니 싱긋 웃고선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다행이다! 라디올러스 양, 이건 아무래도 유치같아요. 뿌리도 제대로 붙어있으니까 부러진 채로 뽑힌 거 같지도 않고요!”‘오! 살았다! 맹구는 면했어!’나는 우습게도 크게 안심이 됨과 동시에 그제서야 등골이 오싹했다. 으악, 저게 정말 영구치였으면 어쩔 뻔했어.헬리오가 커다랗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가슴에 손을 얹었다. 다른 사람들도 눈에 띄게 다행이라는 얼굴을 했다. 코멜라는 치아를 다시 휴리안에게 넘기며 나의 형제들을 둘러보았다. 볼을 살짝 부풀리며 핀잔을 주었다.“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빠들이 많은데 한명도 라디올러스 양이 이를 갈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나는 ‘하하..’하고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얼마나 사이들이 안좋았던 겁니까 여러분. 아니, 근데 뭐... 유치 가는 건 솔직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음...우리집 같은 경우는 헷갈린다기 보다, 분명이 관심 없었던 거겠지.휴리안은 손수건 위로 내 치아를 받은 후에 고개를 떨구고선 작게 말했다.“면목 없습니다.”그가 진심으로 창피해 하고 있는 거 같아서 나는 오히려 자리가 불편해 졌다.“아 뭘~ 또 면목없다고 그렇게 반성하는 자세야 오빠. 코멜라 양 불편하게. 유치 가는 순서를 줄줄 꿰고 있는게 더 이상하지 뭐.”코멜라도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없다고 손을 내저었다. 오빠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들긴 했으나 여전히 쓴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하지만... 정말 기억해 두었으면 좋았을 걸.”“나도 오빠가 몇 살 때 이 다 갈았는지 몰라.”내가 키득대며 너스래를 떨자, 오빠는 손수건으로 내 이를 소중한 듯이 감싸며 안타깝다는 눈으로 그것을 내려다 보았다.“네가 처음 앞니가 빠졌을 때부터 전부 기억해 주고, 우는 걸 달래주고, 이 자그마한 유치도 모두 소중하게 보관해 주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오빠를 향해 나의 빠진 이를 보여 달라는 듯이 손바닥을 내밀자, 오빠는 손수건에 감싼 채로 그것을 건네 주었다. 나는 새삼 나의 빠진 이가 신기해서 손가락으로 건드려 보이며 오빠에게 말했다.“아 글쎄, 오빠는 응석을 너무 받아주는 구석이 있대도? 게다가~ 이런 이 같은 건 보관하고 있으면 부정 탄다고들 안하나?”“그래?”오빠는 내가 이 어금니 치고는 너무나 조그마한 것을 이리 저리 굴려보는 것을 바라보며 말했다.음 서양에서는 이빨요정인척하고 부모님이 빠진 유치를 가져가서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에서는 처마 위로 던지잖아? 새 이 잘나게 해달라고... 뭐, 이런 이유들을 제쳐놓고서라도 이런 건 괜히 아까워 보여서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흐른 후엔 처치곤란하게 되기 일쑤라고. 버리긴 애매하고 갖고 있자니 애물단지. 오빠가 내 어금니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싶진 않다.미카엘은 내 옆에 바짝 다가와서는 나와 같이 빠진 이를 구경하며 중얼거렸다.“우와 엄청 조그맣다. 이거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난 부정 타도 상관없는데... 그냥 나 줘.”나는 피식 웃으며 만류했다.“에이 무슨 소리야. 왜 너는 부정 타도 상관이 없어.”점잖게 바라보고만 있던 메디엘은 미카엘의 말을 듣고서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한마디 했다.“게다가 갑자기 왜 당신이 라디 양의 이를 갖게 되는 겁니까? 휴리안 공은 오빠니까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이지요.”미카엘까지 또 심기가 불편해 졌는지 한쪽 입꼬리를 씨익 올리고 위협적으로 대답했다.“그렇게 말하시는 왕자님께서는 라디와 무슨 관계이시기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아아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지겹다. 그만 싸우자 얘들아. 나는 그들의 말다툼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냈다.“빠진 이는 대충 새가 물어가게 내버려둬야 새 이가 잘나는 거야. 뭐... 이번엔 그냥 물고기한테 줘 볼까. 더 매끈하게 예쁜 이가 나올 거 같기도 하고?”나는 별 생각 없이 ‘훠이~’하고 호수에 이를 던져 넣었다. 가벼운 내 예전 어금니는 퐁당 소리도 내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아아아아?!?”이를 던져버리자 마자 등 뒤에서 세 남자가 너무 과장되게 소리를 내서 나는 깜짝 놀라 몸을 튀게 했다. 뭐, 뭐야. 왜 그래.휴리안 오빠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내게 물었다.“라디. 지금 진짜 이 던진 거야?”“어?...응.”미카엘이 내가 원망스럽다는 표정으로 투정을 했다.“그냥 나 주지~!”메디엘도 마찬가지로 얼떨떨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가끔 라디 양은 생각지도 못하게 쿨해서 따라가질 못하겠네요.”“아니, 애초에 누구한테 줄 생각 없었대도요? 부끄럽게 뭘 그런 걸 가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누구나 빠진 이 정도는 평범하게 기념으로 갖고 싶다고 생각할 거 같은데요.”“에엥? 그런가요? 만약 제가 17살이고 왕자님이 저보다 7살 정도 어려서, 어쩌다 제 눈 앞에서 이가 빠졌다면...”나는 눈앞의 이 거만한 재규어가 열 살 남짓 했을 때를 상상해 보았다. 분명 어렸을 적엔 지금보다도 훨씬 깜찍했겠지. 아 이 예쁜 왕자가 어렸을 때라니. 메디엘은 생각지도 못하게 유치가 빠져버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아니었을까.나는 뾰롱퉁한 표정으로 자신의 빠진 이를 들여다 보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그려보았다. 그 손에 들려있는 방금까지 분명 자신의 일부였던 작고 하얀 이. 세상에! 너무 귀엽잖아! 나는 상상해 보다가 그와 휙 눈을 맞추고 말을 마저 이었다.“어머나.... 엄청 갖고 싶겠네요. 혹시 보관하고 있는 어렸을 적 빠진 이 없어요?”왕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며 핀잔을 주었다.“방금 당신은 제 눈앞에서 빠진 이를 호수에 던져 넣은 주제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휴리안 오빠도 그 말에는 맞장구를 쳤다.“맞아. 너무해 라디.”“뭐, 이미 던져 버린 걸 어쩌겠어요. 다음에 빠진 이는 드릴게요.”나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나는 사실 이 말도 반쯤은 농담이었는데, 미카엘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뭐? 누구한테 줄 건데? 라디.”“하하하 나눠가지면 되잖아. 아직 갈아 치울 어금니가 위아래로 적어도 세 개는 돼. 근데 이거 말하고 나니까 되게 묘하다. 내가 상아 파는 코끼리가 된 느낌...”묵묵히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던 휴리안 오빠는 나를 지긋이 바라보다가 말했다.“오빠로서 외간 남자들이 여동생 이를 예약하는 게 썩 기쁘지 않구나.”“나도 중간부터 이야기가 좀 이상해 진 거 같긴 해.”나는 씨익 웃으며 오빠의 팔에 매달렸다. 오빠는 내가 체중을 실어 그의 팔을 밑으로 내리 끌자 부드럽게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눈을 조금만 돌리자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알리기라도 하는 듯이 차양이며, 식기들을 모두 치우느라 하인들이 바삐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내가 히죽 웃으며 미카엘에게 말을 걸었다."미카엘 오늘 재밌었지! 조금 난리 법석을 부린 것 같은 기분도 들지만..."내가 바보처럼 웃는 모습에 미카엘도 나를 따라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대답했다."응, 즐거웠어. 너랑 시간을 더 보내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뭐, 사람이 많아서 떠들석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야."미카엘에게 이번 피크닉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기쁘다.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좋겠어, 미카엘.내가 미카엘을 데려오기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키득키득 웃고 있으려니까 마리안 공주가 나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미카엘을 향해 도전적인 말투로 말을 했다."네에! 끝내는게 아쉬울 정도로 다이나믹한 피크닉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제부터 라디양은 궁으로 가서 저희와 파자마 파티를 해야하니까요~"미카엘은 나의 등에 꼭 붙어있는 마리안을 지긋이 바라보며 싸늘한 웃음을 지었다."아아 공주님은 마지막까지 사랑스럽네요. 너무 귀여워서 누가 해코지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왕자님께 말해두는게 좋지않을까...하고 걱정될 정도에요."말의 내용과는 다르게 목소리가 너무나 의미심장해서 왠지 진땀이 났다.'아무리 봐도 네가 해코지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왕자님께 말해둬야 할것 같아! 아, 그냥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건가?.... 이상하게 사이 나쁘네 이 둘...'미카엘의 오싹한 눈빛에 마리안은 나를 안은 채로 몇걸음 뒷걸음 치면서 분하다는 듯이 살짝 '으...'라는 소리를 냈다.그러나 이내 나를 놓아 주면서 평소처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미카엘은 그냥 무시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듯 했다."라디 양, 아쉽지만 이제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해요. 이제 슬슬 궁으로 가야할 것 같으니까요~"'아, 그럴까요."공주의 말을 듣자 곁에 있던 휴리안이 나를 걱정스럽다는 듯이 내려다 보았다."궁에서 자고 오는 것을 딱히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걱정스럽네요... 오늘 사고에 여러번 휘말리는 것을 보니 더욱."그러자 메디엘이 걸어나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른하고 여유있는 웃음을 지으며 휴리안을 바라보았다."걱정 마시지요 휴리안 공. 마치 황궁이 안전하지 않은 곳 처럼 들리네요."휴리안은 다소 공격적인 왕자의 말에도 평소와 같이 나긋 나긋하게 대답했다."아아,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아시다시피... 이처럼 믿음직한 왕자님 곁에서도 여전히 사건에 휘말릴 정도로 저희 라디가 사고뭉치라서..."숨은 뜻은 없다는 듯이 상냥하게 웃어보이며 오빠는 말을 끝마쳤지만, 분명 이렇게 나무라고 싶었던 것이다. '네가 옆에 붙어있어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잖아? 왕자.''...그냥 내가 주의력이 없어서 잘 다치는 거지, 다른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보이는데 오빠...'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민망할 따름이다.왕자가 휴리안의 속뜻을 몰랐을 리는 없다. 메디엘은 그 말을 듯고 잠시 입을 다물고 오빠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내 어깨를 감싸서 자신의 몸에 바짝 붙이며 씨익 웃었다."아, 그렇긴 하군요. 그렇다면 오빠분이 걱정하지 않게 더욱 바짝 붙어있겠습니다.""하하...글쎄요... 왕자님께 그렇게 폐를 끼쳐서야... 더욱 황궁에 가는 것이 걱정스러워 지네요."오빠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꾸했다.미카엘도 시큰둥하게 팔짱을 끼며 한마디 했다."나도 굳이 궁에서 잘 필요 있나.. 생각하는데. 너 옛날에 방학땐 거의 한달넘게 별궁에서 요양했다며? 그렇게 오래 있던곳을 굳이 왜 또 가?"마리안이 미카엘의 말에 '호호호' 웃으며 부드럽게 반박했다."이번엔 별궁이 아니라 제 방에서 같이 잘거랍니다. 그리고 이미 라디양이 가겠다고 약속했던건데 왜 이제와서 미카엘 공이 반대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미카엘이 이젠 형식적인 웃음도 짓지않고 마리안을 빤히 바라보았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는 뜻인것 같다. 마리안이 그의 그런 포식자적인 면모에 '윽'하며 또 내 뒤로 숨었다. 위험해 위험해. 미카엘이 진짜 몰래 해코지하면 어쩌지.나는 미카엘을 달래려고 그에게 한발 다가섰다."공주님 말이 맞아~! 벌써 가기로 한거란 말이야! 재밌어 보이는 걸 뭐."미카엘이 여전히 뾰롱퉁한 얼굴로 중얼거렸다."난 재미없어 보여.""음... 파자마 파티라 어차피 넌 안끼워 줄꺼니까 네가 재미없어보이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말이지..."내말에 미카엘은 한층 더 무표정하게 투덜거렸다."뭐야... 공주님이랑 테젠가 사람들만 껴주다니 치사하네. 언젠가 나랑도 해."그의 투덜거림에 휴리안 오빠와 왕자가 펄쩍 뛰며 나를 미카엘에게서 떼어놓았다."다, 당신과 라디 양 둘 만 밤을 보내게 만들거 같습니까!!""외간 남자랑 파자마 파티라고요? 당신 우리가문을 뭘로 보는 겁니까?"미카엘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며 중얼댔다."왜 안되지?""... 이런 말 하기 민망하지만 네가 날 건드릴까봐?"미카엘은 내 말을 듣고 나서 잠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폭소를 터트렸다."아하하하하하! 너를?! 키가 내 반토막정도인 널? 하하하하하 아...이거 열받네... 나를 뭘로 보시는 거지 다들... 나도 취향이란게 있어...아, 어린애를 좋아하는 별 이상한 취향도 있는 거 같다만 하하하하"미카엘은 배를 잡고 낄낄댔다.나도 알아! 나도 내가 꼬맹이인데다가, 오빠랑 왕자가 과보호라는거 안다고! 근데 그렇게 대놓고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 말이지...아...왜 내가 이렇게 열이 받는거지...휴리안 오빠는 마지막까지 내가 궁에서 자고오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지만, 결국 보내주었다.성에 도착하자 마자 혹시 뵐 수 있으려나? 했던 국왕 폐하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집무 모드가 아니라, 편하게 말을 걸 수 있는 아저씨 모드였다. 심드렁한 포즈로 응접실의 폭신한 의자에 몸을 맡긴 채 쿠키를 집으려다가, 메디엘이 문을 열자 부스스 일어나셨다. 평소 보다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음?'하고 이대로 아저씨 모드로 있어도 되나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러다 나와 눈이 마주치고선 그냥 편하게 대하기로 마음 먹으신듯 말을 거셨다."오~ 라디 양도 왔구나. 그래 어서들 오렴... 테젠가 아가씨들까지... 오늘 자고 간다고 했었나?"코멜라와 파르펠은 예상치 못하게 임금님을 뵙게 되자 당황스러워 하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나도 따라서 인사를 했다. 마리안은 인사는 가볍게 한 뒤, 애교많은 막내 딸 답게 쪼르르 국왕에게 다가가 재잘댔다."아바마마! 맞아요~ 오늘 파자마 파티를 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메디엘도 아버지쪽으로 다가가긴 했지만 골치가 아프다는 듯이 이마를 짚으며 탁자 위의 서류를 정리했다. 종이를 모아 탁자에 탁탁 부딪혀 추리며 국왕에게 불평했다."아버지... 서류 위에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시면 어떡합니까."임금은 메디엘따위 보이지도 않는 다는듯이 마리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네가 치우면 되잖아."메디엘은 결국 발끈했다."이렇게 기름 많은 쿠키를 흘려놔서! 보세요! 얼룩졌잖아요!""괜찮아~ 가장자리에 무늬가 있는 고급 종이로 보여. 넌 쓸데없이 꼼꼼한게 탈이야.""이 무슨!! 말도 안되는! 이게 어딜봐서 무늬라는..! 아...됐습니다..."공식석상의 위엄있는 모습이 아닌 소탈하기 그지없는 그 모습에 코멜라와 파르펠은 많이 당황해 하는 것 같았다. 다가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뒤에서 우물쭈물 서 있기만 했다. 나는 이렇게 어린 사람들 앞에서 아들에게 잔소리 듣는 국왕님이 어쩐지 가여워 져서 그의 편을 들며 응접실 소파에 앉았다."맞아요. 왕자님은 왕자답지 않게 대범하지 못한 면이 있다니까요?"임금은 말한번 잘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린 다음 한손으로 입을 가린채 내게 쑥덕댔다."그렇지? 그렇지? 라디 양도 그렇게 생각하지? 저녀석이 참.. 사내답지 못해서 걱정이 커... 라디 양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아휴~ 물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요, 성격이 워낙 까탈스러우셔야 말이죠... 저번에는 글쎄 저보고 난쟁이같아서 남들에게 안 밟히려면 눈에 확 띄는 그 머리색이 딱이라고 그러더라니까요?""어이쿠 정말? 속도 좁은게 유치하기까지 하네?"메디엘은 어이가 없다는 눈으로 우리 둘을 노려보면서 낮게 말했다."지금 누가 더 유치한지 아십니까..."나와 임금님은 서로를 빤히 바라보다가 키득대고 웃었다. 메디엘을 놀리는 것은 꽤나 유쾌하다. 폐하랑 같이 있으면 좀 더 수위를 높혀서 말해도 난폭하게 나에게 반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더욱 즐겁다.폐하는 내 머리도 토닥거려 주면서 마리안에게 다정하게 말했다."아~ 라디 양이랑 장난치면 재밌는데... 나도 파자마 입고 가면 끼워 주는 거니? 마리안."마리안은 짓궂게, 그러나 달콤하게 웃어보였다."아바마마가 들어오시면 수줍어서 제대로 놀수 없답니다."폐하는 '에이...'라고 나른하게 투덜거린다음 메디엘을 향해 말했다."메디엘, 우린 안 된대....""제가 언제 끼워달라고 했습니까?"왕자가 또다시 국왕의 뜬금없는 말에 기가막힌듯이 대답하자, 임금님은 의아하다는 듯이 되물었다."응? 끼워준다고 하면 낄거잖아?""음...그건...아, 안될말이죠!""고민했으면서... 우리 아들은 참 솔직해. 라디 양, 메디엘은 좋은 아이란다."임금님이 이번엔 뜬금없이 내게 메디엘을 가르키며 말했다. 나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대답했다."네에, 그럼요. 왕자님은 훌륭하고 말고요..."대답을 하고나서 국왕과 눈이 마주쳤다. 우리 둘은 또다시 씨익 웃고나서 동시에 대답했다."" 속이 좁기는 하지만.""우리는 죽이 척척 맞은 기념으로 손벽을 마주쳤다. 마리안은 우리끼리 신나 하니까 약이 오른다는 듯이 아버지에게 말했다."너무해요! 저도 껴주세요!"메디엘은 이제 질렸다는 듯이 '하아...'하고 한숨을 토해냈다.임금님이 아직도 멀뚱히 서있는 테젠 자매에게 너희도 쿠키를 좀 먹으라는 손짓을 했다. 그녀들도 쭈볏쭈볏 다가왔다. 폐하는 초코쿠키를 하나 들어 내게 주며 마리안에게 말했다."마리안, 너만 이 귀여운 아가씨들을 독점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이 아버지는 껴주지도 않고..."나는 그가 내게 준 달콤한 초코쿠키를 한입 먹은 다음 국왕에게 말했다."걱정 마세요 폐하. 궁에 이 멋진 초코쿠키가 있는한, 저는 불러주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올테니까요."폐하는 나를 지긋이 쳐다보다가 다시 쿠키가 그득히 쌓여있는 대접을 바라보았다. 그리곤 중얼거렸다."하하....초코 쿠키로 부를 수 있는 아가씨라니, 달콤하기도 하지."그가 쿠키하나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폐하가 일어서자 모두들 일어났다. 임금님은 저벅저벅 걸어서 여전히 뾰롱통한 표정을 짓고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다가간 다음 메디엘의 입에 쿠키를 물렸다."귀여운 아들아, 라디 양이 좋아한다는 쿠키 줄테니까 그만 심통 내고... 냄새나는 남자들은 빠져주자꾸나."메디엘은 억지로 입으로 받게된 쿠키를 겨우 삼킨 다음 폐하를 향해 끝끝내 톡하고 쏘아 붙였다."냄새나는 남자는 아버지 혼자라는 점을 인정하시지요. 어쨌든, 저도 나가긴 합니다만..."폐하는 느긋하게 씨익 웃어보인 다음 자신의 항상 당당한 아들의 머리를 한번 헝크러트렸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시 귀여워 하는 모습이다. 나는 이 가정적인 모습의 폐하가 참 좋다. 이상적인 아버지란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항상 엄했던 나의 아버지를 나도 모르게 잠깐 생각해 보았다.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고 어쩐지 눈물이 핑 도는 추억만 가득하지만, 이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역시 조금 그립다.걸어 나가는 부자를 살짝 멍하니 보고 있으려니까 마리안이 내 손을 꼭 잡으면서 활짝 웃었다."자, 이제 목욕하고, 잠옷으로 갈아 입은 다음 제 방으로 가요. 간식도 준비되어 있을 거고, 푹신한 베개도 잔뜩 준비해 놓으라고 해놨어요. 오늘은 늦게까지 저랑 수다를 떨어주셔야 해요 여러분."모두들 호화로운 목욕을 해서 몸에서 향긋한 향기가 났다. 젖은 머리는 궁의 시녀들이 말끔하게 말려주어서 뽀송뽀송했고, 메이드가 미리 준비해 준 사랑스러운 잠옷도 완벽했다.파르펠의 잠옷은 원피스 형이었는데, 하얀 치마단 끝에 연분홍색으로 꽃이 오밀조밀 수놓아져 있어서 굉장히 귀여웠다. 초코 빛깔로 결이 좋은 그녀의 머리는 편하게 자기 쉽도록 머리 꼭대기에 동그랗게 말아서 묶여있었는데, 이 머리모양 때문인지 평소보다도 어려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살짝 말을 걸었다. 내쪽에서 먼저 말을 건적은 거의 처음 같다."파르펠 양, 잠옷이 참 잘어울려요. 오늘 귀엽네요."내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는 건 그녀도 알고 있는 것 같다. 의외라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볼을 붉힌채 치마 단을 잡고 꼼지락거렸다. 생각보다 순진한 반응이라 나는 내가 너무 파르펠을 못되고 영악한 여자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던게 아닐까 새삼 반성했다.옆에서 내가 파르펠에게 말을 거는 것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던 코멜라는 파르펠이 내 칭찬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자, 그 급한 성미를 이기지 못하고 여동생을 재촉했다."얘, 파르펠! 라디올러스 양이 칭찬하시잖아! 제대로 고맙다고 해야지!"'음.... 이렇게 생각하는게 실례라는 건 잘 알지만...역시 치맛바람 센 엄마같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네...'내가 어색하게 '하하..'웃자, 파르펠은 내가 아는 그 도도한 여자아이로 돌아와서 고개를 똑바로 세우고 말했다."고, 고마워요 라디올러스양!"뭘요... 아, 코멜라 양, 파르펠 양. 두 분다. 그냥 저를 '라디'라고 부르셔도 되는 데요. 너무 길지 않나요, 라디올러스는..."내가 애칭으로 불러달라고 말하자 코멜라는 단번에 눈을 반짝거리며 호들갑스럽게 대답했다."어머나! 사실 저도 그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라디 양! 아이, 이 애칭은 참 깜찍하네요!"파르펠은 또 나를 빤히 쳐다보며 우물쭈물 하는 눈치라, 코멜라가 그녀를 휙 돌아보며 또다시 재촉했다. 파르펠은 '지금 부르라고?'라는 얼굴로 코멜라를 쳐다봤고, 코멜라는 '당연하지.'라는 얼굴로 응대 했다. 싫으면 안불러줘도 되는데... 내 애칭... 벌칙이냐...파르펠은 지기 싫다는 듯이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라디 양."헹, 안됐지만 말을 더듬어서 귀엽기만 하네요. 나는 씨익 웃으며서 대답했다."네에? 파르펠 양."소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쓰윽 돌리며 작게 말했다 ."아까는 저 때문에 호수에 빠져서 미안했어요."기습 사과에 내가 얼떨떨하게 '아, 아니에요 전 수영 잘해서... 보셨겠지만...' 하고 대답한 후, 덩달아 부끄러워했다.마리안은 생글생글 웃으며 우리들을 바라보고있다가, 말이 끊기자 베개를 끌어안고 은밀하게 말했다."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뭘??'나는 그녀를 따라 똑같이 폭신한 베개를 끌어안았지만, 무슨 말이지 몰라 되물었다."뭘요? 공주님."공주는 비밀얘기를 하는 것처럼 모여보라는 손짓을 했기 때문에, 파르펠과 코멜라도 우리쪽으로 옹기종기 모여앉았다.마리안은 천진난만하게, 그러나 우아함을 잃지 않으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그야... 여자아이들만 모였을 땐 당연히 사랑이야기죠.""...""...""..."말을 꺼낸 공주가 무안해 질 만큼 우리들은 묵묵히 침묵을 지켰다. 다들 어색하게 서로와 눈빛을 교환할 뿐이었다. 결국 참다 못한 마리안이 다시 입을 뗐다."뭐에요~ 여러분~ 설마 좋아하는 사람, 없나요?""음... 딱히... 저, 그런 이야기를 하기엔 조금 어린 것 같네요."내가 안면 몰수하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비록 속알맹이는 어른이지만.코멜라도 어색하게 웃으며 '저도... 별로 연애에 관심이 없어서...'라고 대답했다. 파르펠은 그런 언니를 묘한 표정으로 빤히 바라보았다.공주는 이런 반응이 자신의 기대 이하인듯 안고 있던 베개를 바닥에 꾸욱 문지르며 외쳤다."에이! 생각보다 다들 수줍음이 많으시군요! 그래요... 이런 건 처음 말문을 트는 사람이 힘든 거니까요..."그렇게 말하는 공주의 얼굴도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본인도 수줍음쟁이인 것이다. 그러나, 이내 결심한 듯 마리안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선 용기있게 입을 열었다."저는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네에에?"내가 그 뜻밖의 고백에 놀라서 바보같은 소릴 냈다. 마리안 공주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전혀 생각도 못했다. 저렇게 어린데... 참 어른스럽구나.그러나, 나처럼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데에 놀란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코멜라와 파르펠은 그저 '우와..'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바짝 고쳐앉을 뿐이었다. 으엉? 다들 안놀라워? 저 어린 공주가 사랑을 하고 있다는게?코멜라가 상기된 얼굴로 공주에게 물었다."저기, 누구? 누구에요? 공주님?"마리안은 양 볼이 화끈거리는지 두 손으로 감싸고 있다가, 시선을 이불로 내리깔고선 중얼거렸다."저, 정말 처음 말하는 거니까요... 아... 이게 뭐라고 떨리네요."코멜라는 생글생글 웃으며 재촉했다."아이, 공주님이 뜸들이시니까, 저희 더 궁금하잖아요. 말해주세요~"공주는 나를 힐끔쳐다보았다. 어? 뭐지? 나도 아는 사람?그녀가 살짝 우물댔다."선생님..."뭐? 잘못 들은거 아니지? 선생님?! 내가 나도 모르게 큰소리를 낼 것 같아서 손으로 입을 막으며 되물었다."선생님이요? 누구지?"확실히 왕실 아카데미는 귀족을 가르치는 만큼 선생님들도 말쑥하고 어린 소녀들이라면 한번쯤 두근거릴만한 젊은 선생님 들도 많았다. 나는 사교성 좋고 잘생겨서 여자아이들에게 인기 좋기로 유명한 남자 선생님들을 속으로 꼽아보고 있었다. 누구지?중급 지리를 가르치는 헤이킨 선생님? 아님... 나는 잘 모르지만 초급 대수를 가르키는 호남형.. 그 선생님?내가 혼란스러워 하는 눈치로 다시 마리안을 바라보자, 마리안은 쑥스럽다는 듯 내 시선을 피하며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크레하퍼...크레하퍼 베이안 교수 말이에요...""...누구?"의외인데? 유명한 선생님이 아니네...누구지? 내가 처음 듣는 이름에 고개를 갸웃하며 되묻자 마리안은 어이없다는 듯이 발끈하며 외쳤다."라디 양의 마법 담당 교수님이시잖아요!""네에에에? 그 무기력 남?!"나는 나도 모르게 본심이 나가서 마리안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하지만, 하지만! 언제나 내게 골치아프다는 듯이 '라디올러스 양...오늘도 힘이 넘치네요...'라며 에눌러서 빈정거리는 그 사람이잖아? 이름도 처음 들었네... 그 사람이 좋다고?내가 너무 놀라서 혀를 씹을 뻔하면서 되 물었다."그 짧은 암적색 머리에다 항상 구부정한 자세이고 안경을 쓴.. 뭔가 대충 대충인 그 교수님을 말하는 거 맞아요? 제가 잘못 안거죠?"마리안은 정말 사랑에 푹 빠진 소녀처럼, 내가 설명하는 그의 묘사에도 뺨을 붉히며 생긋 웃었다."그 사람이 맞아요. 전 그분을 사모해요."나는 그녀의 진지한 얼굴에, 혼잣말을 했다." 우와, 신분과 나이를 뛰어넘는 사랑...."내가 그렇게 말하자, 마리안은 물론이고 코멜라와 파르펠까지 멀뚱히 나를 쳐다보았다. 으잉? 뭐지... 나 또 무슨 말 실수 했나?"왜, 왜요?"마리안은 푸웃 하고 작게 웃음을 터트렸다. 음... 뭐 어쨌든 공주를 웃겨서 다행이네. 그녀가 손을 팔랑 팔랑 내저으며 설명해 주었다."에이~ 라디 양 저와 크레하퍼 공 사이에 신분의 벽같은 건 없는 걸요. 그는 애초에 제 약혼자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이에요.""와! 그래요?"완전 의외인데... 전혀 몰랐다. 크레하퍼 교수님.. 당신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맨날 속으로 의욕없는 낙하산이냐고 생각해서 미안...코멜라가 보충해서 설명해 주었다."베이안 백작가는 애초에 상당히 명문이기도 하고... 경제흐름을 잘 읽어서 무역으로 굉장히 부유하죠. 무엇보다... 크레하퍼 교수님은 마법사이시잖아요?""마법사인게 정말로 제 생각보다 잘 먹히나 보군요?"내가 놀라서 쳐다보자, 코멜라는 '물론이죠~그렇다니까요~'라고 내 어깨를 팡팡 두드렸다.나는 아직도 익숙해 지지 못한 이쪽 세계의 상식을 얼른 머리에 넣으면서 다시 중얼거렸다."음 그렇다면 넘어야하는 벽은 나이 뿐이네요."공주는 또다시 빙긋 웃으며 내게 되물었다."라디 양... 크레하퍼 공을 몇살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음... 젊게 잡아도 스물 다섯?"내 말에 코멜라와 파르펠이 동시에 '쿡!'하고 웃음을 터트렸다. 나는 당황해서 공주의 눈치를 보며 다시 말했다."어...스물 넷...스물 셋?"마리안은 한숨을 푹 쉬면서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다."...크레하퍼 공은 휴리안 공과 동갑이시랍니다.""왁! 말도 안돼!!"또다시 내가 과도하게 가식없이 놀라고 말았다. 아차...공주가 뾰루퉁 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다. 미안합니다 공주. 제가 요즘 좀 솔직해 져서...파르펠이 아직도 키득키득 웃으며 내게 핀잔을 주었다."크레하퍼 교수님이 괜히 공주님 약혼자 후보에 오르내리시는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유능하시니까 말이죠."그러게... 엄청 대단하네.. 나는 진심으로 감탄했다."우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군요. 제가.. 아시다시피 예전 기억이 없어서 상식이 좀 부족하잖아요.. 부끄럽네요. 그냥 학교 선생님이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백작이시고, 그렇게 젊으셨다니!"마리안은 무거운 말투로 중얼거렸다."라디양...그 분이 젊은 걸 몰랐던 건 기본 상식이랑 관계없는 거였잖아요.. 저도 알아요 크레하퍼 공이 좀 겉늙으셨죠..."'음. 많이 겉늙으셨어요.'나는 얌전히 속으로만 끄덕끄덕 거렸다. 코멜라는 대화 주제를 크레하퍼의 외견 나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내게 호들갑 스럽게 말을 걸었다."마법사란 항상 부족하니깐요~! 젊은 마법사들은 원래 연구를 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곤 하기 마련이에요!"음...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나 의욕없는 사람이 어째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풀었다. 역시 본의가 아니었구나. 내가 사고를 칠 때마다, '아오 진절머리나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해?'라는 표정을 짓고 하는 건 내 착각이 아니었어.마리안이 헛기침으로 '흠흠' 하고 모두를 주목시켰다." 자, 제가 용기있게 먼저 고백했으니 다음은 누구시죠?"‘그렇지만... 그렇게 말해도 말이지...’아직 딱히 누군가를 좋아해 본적이 없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우리가 여전히 우물쭈물하니까 마리안은 거의 분개하다시피 했다.“아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면 좋아하는 스타일 정도는 있으시겠죠! 이상형 말이에요!”마리안은 혼자 속내를 털어놓은 반동으로 우리들의 마음도 알아내야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진 것 같았다. 코멜라가 그런 마리안을 달래기 위해 언니답게 나섰다.“저, 저는 말이죠.. 음... 역시 다정하고 의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요.”나는 코멜라가 먼저 나서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맞장구를 쳤다.“어른스러운 분을 좋아하시는 군요?”코멜라는 쑥스럽다는 듯이 볼을 붉히며 작게 끄덕거렸다.“그,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상냥한 사람이 좋죠...”“음...상냥하고 의지가 되는 타입의 대표주자라면... 휴리안 오빠 아닌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르다민 오빠는 절대 아니겠네요.”내가 오늘 나를 호수에 던져 넣은 둘째 오빠를 떠올리며 진저리를 치자 코멜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해 하며 말했다.“제, 제르다민 공도 사실은 꽤 다정하고 의지가 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그리고 찾아온 일순간의 정적. 우리 모두 코멜라의 그 미묘한 제르다민을 감싸는 모습에 깨달은 바가 있었다. 파르펠이 떨떠름 하게 그녀의 언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언니...”“꺄악! 왜, 왜 다들 그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오해를 하시는 거냐고요!” “우와... 제르다민 오빠... 진짜 재주도 좋지 언제 꼬신거야....”나는 매사에 냉정하고 관심 없으면서도 남들 하는 만큼은 다 하는 둘째 오빠에게 새삼 존경심이 생길지경이다. 아니, 그냥... 코멜라 양의 취향이 좋지 못한 것 뿐인가? 어째서 이런 고생이 훤히 보이는 길을 가려하는가, 가련한 그대여.코멜라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부정의 부정을 거듭했다.“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든, 누구를 생각하든 그게 아니에요!!!”마리안은 안타까운 미소를 지으며 코멜라를 바라보았다.“하하.... 제, 제르다민 공이 자세히 보면 사, 상냥...하시...아, 이건 정말 사랑이 없다면 도저히 감싸지 못할 정도네요. 역시 사랑이란 위대한가봐요.”공주는 공주다운 온유함으로 제르다민을 포장해서 말해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온실 속 화초같은 그녀에게 그 모습은 아무리 봐도 상냥과는 거리가 멀었겠지, 무표정하게 내 머리통을 잡고 물속에 쳐 넣는 그 오빠는.코멜라는 흥분한 몸짓과 표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려 했다.“제, 제르다민 공이라니! 달라요! 분명 상냥하고, 의지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우억... 진심이십니까...”코멜라는 내가 옆에서 중얼거리는 말을 깨끗하게 무시하며 계속 말해나갔다.“연애, 연애 감정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저희 가문 여성들은 보통 시메르 가 남성과 결혼하기도 하고요...”아, 시메르 가? 그.. 파르펠과 함께 다니는 회색머리 남자아이.. 시메르 케일네 집안을 말하는 거겠지...흠.. 그렇구나. 아직 어린데 그런거 까지 신경써야 하는구나.. 어쩐지 슬프네.나는 약간 침울해 져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때 그런 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파르펠이 아무렇지도 않게 언니를 향해 말했다.“아, 언니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내가 결혼하면 되니까.”“뭐?”코멜라가 그게 무슨말이냐는 듯이 파르펠을 바라보았다.파르펠은 덤덤하게 설명했다.“내가 케일 군이랑 결혼하면 되잖아. 난 케일 군이랑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지.”엥! 이건 또 엄청나네.. 이 시대의 아이들은 내가 아는 아이들보다도 이런 면에서 훨씬 조숙하구나... 결혼이라거나 아이를 갖는다거나 하는 게 가문 사이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그런 거겠지? ..이러니 왕자가 나보고 어리다느니 감정 수준이 신생아라느니 빈정댈 수밖에.코멜라가 파르펠의 의연한 말에 당황해 하며 ‘파르펠.. 네가 그렇게 생각해 줄 것 없어... 게다가 네가 크면 또 어찌될지 모르는 일이고...’ 라고 말하자 파르펠은 정말로 괜찮다는 뜻으로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케일 군은 분명 좋은 신사가 될 거야. 난 지금부터 몇 년 지나도 분명 케일과 결혼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파르펠이 자신이 너무나 좋아하는 언니를 향해 싱긋 웃었다. 항상 고집 불통에 내게 못되게만 굴곤 했던 그녀가 이렇게 순진하게 웃는 것은 처음 보았다. 파르펠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언니는 마음껏 제르다민 공을 좋아하도록 해.”코멜라는 어린 여동생의 생각지도 못한 속 깊은 말에 감동했는지 눈가가 붉어져선 중얼거렸다.“..파르펠... 너...”파르펠은 언니의 그런 반응이 흡족스러운지 눈을 가늘게 뜨곤 씨익 웃어보이다가 이내 나를 돌아보며 새침하게 입을 열었다.“...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르다민 공이 마음에 든다는 건 아냐.”나는 파르펠의 시선을 피하며 뻘쭘하게 대답했다.“분하지만 오빠가 연애상대로서는 빈말로도 좋다고 할 수 없는 내가 밉다.”코멜라는 어느새 제르다민을 좋아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걸 잊고 있었다. 그러다 그 사실을 깨달았는지 ‘꺅’하고 양손을 볼에 대며 외쳤다.“그,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제르다민 공을 좋아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건가요?”마리안은 어색하게 하하 웃으며 대답했다.“뭐.... 아무리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모’인걸요.”코멜라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중얼거렸다.“아... 좋아하는 건가요... 저조차 지금 깨달은 건데요...음... 역시 좋아하는 걸까요... 제르다민 공...”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혼란의 도가니인 자신의 내면을 여과없이 투과하던 그녀는 이내 주먹을 꽉 쥐고 다시 고개를 꼿꼿하게 들었다. 그리곤 아직은 상기된 붉은 얼굴로, 그러나 확신에 찬 얼굴로 또박또박 말했다.“네! 좋아하는 것 같네요. 사실, 엄청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아뇨, 좋아서 견딜 수 없어요!”‘오오!’하고 다들 그 박력 있는 고백에 다들 박수를 쳤다. 나는 얼빠진 얼굴로 축하의 박수를 치면서도 바보같이 물었다.“우와... 그.. ‘좋아한다’는 건 확실히 감이 딱 오나요? 이성으로서 좋아한다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자기도 모르게 구별할 수 있나요?”마리안은 ‘아이참~’이라며 내게 체중을 실어 옆에서부터 안겨왔다. 그리곤 달콤한 목소리로 설명했다.“물론이죠! 다른 사람과 있을 때완 확연히 다른걸요. 심장이 알려준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훨씬 두근두근하고...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해버려요. 라디 양에겐 그런 사람 아직 없나요? 라디 양의 이상형은 어떤사람인가요?”나는 턱을 괴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이상형이라... 이상형... 어떤 사람에게 제일 호감이 가느냐... 이거죠?"마리안이 눈을 반짝 반짝 빛내며 끄덕거렸다.어떤 남자가 가장 호감이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남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느껴지느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당연히 진하오빠이다. 이제 와서 변명할 것도 없이 나는 뼛속부터 브라더 콤플렉스인 것이다.항상 정돈된 몸가짐, 다정한 미소, 상냥한 말씨,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그 유능함까지. 내가 이상형에 대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이곳에 없다는 이유가 크다. 그래...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그가 없는 이 세상에선.나는 머릿속으로 진하오빠의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그를 묘사해 나갔다."음...평소에는 차분하게 정돈된 분위기라서 언뜻보면 냉정해 보이는데, 사실은 다정한 성격이고... 웃는 얼굴이 온유한 어른스러운 사람이 좋아요. 제 안에서 이상형이란 그런 사람이에요."묵묵히 듣고 있던 파르펠이 김빠진 다는 듯이 숨을 뱉으며 말했다."뭐야... 그냥 휴리안 공이라고 해도 모두 알아 듣는다고요.""엥? 휴리안 오빠요?"음? 진하오빠를 설명한건데... 그렇지. 휴리안은 진하 오빠를 무섭도록 닮았어. 휴리안 쪽이 좀 더 갈피가 안잡히게 속내를 안 보여준다는 것만 빼고. 아, 그건 모르는 건가? 그저 진하 오빠가 훨씬 나이가 많으니까 좀 더 능숙하게 속내를 감추고 있는 거였는 지도 모르지. 이제 영영 물어볼 수 없다는 게 참 슬프다.어찌됐든, 말로 진하오빠를 설명한 건데도, 모두들 휴리안을 설명한 거라고 생각하는 구나... 어쩐지 묘하네. 진하오빠는 정말 여기 없는 건가. 내가 이토록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건만.마리안은 펄쩍 뛰면서 내게 외쳤다."으앙! 이 고착화된 이상형은 뭔가요! 그냥 휴리안 공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그런 타입이 좋다는 거죠?!?""네? 네... 애초에 휴리안 오빠를 생각하면서 말한 건 아닌데... 말하고 보니 휴리안 오빠네요."공주는 내 두손을 덥썩 잡았다."그, 그렇다면 아직은! 아직은 괜찮을지도 몰라요! 몸가짐이 우아하고, 품격있으면서도 세세하게 챙겨주는 타입은 어떤가요? 네? 아, 게다가 언뜻보면 고집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순진하다는 예상치 못한 매력도 있답니다! 좋지 않나요?""좋죠, 뭐... 애초에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까요? 근데 지금 왕자님 설명하시는 거예요?"마리안은 '좋죠'까지만 듣고는 마치 내 뒷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좋다고요?!" 라고 외치며 방긋 웃었다."맞아요! 그런 타입의 남자가 남편감으로는 적격이에요! 순진하고 솔직하고 잘해주면 다 된거 아닌가요?""와... 그렇게 말하면 정말 완벽남이네요. 근데 혹시나 왕자님을 설명하는 거면은 단점을 너무 숨기는 거 아닌..."마리안은 내 말을 싹둑 잘라먹으며 계속해서 말을 이엇다."거기다가 능력있고, 잘생기기까지 했으면 정말 놓치기 아깝네요 그쵸?!""물론 다 동의하고말고요. 근데 왕자님은 잘 삐지...""그럼요! 오라버니는...아차, 그런 타입의 남자야 말로 이상적이고 말고요!"마리안은 아무말 말라는 듯이 호호호 웃으며 박력있게 날 몰아붙였다. 하하하 뭘 원하는 걸까 공주... 여기서 내가 '메디엘 왕자님과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말하길 원하는 건가. 나는 씨익 웃으며 마리안의 손을 마주 잡았다."저도 메디엘 왕자님이 더할 나위 없이 근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요."내가 천천히 입을 열자, 마리안이 침착함을 되찾고 얌전히 나를 바라보았다.나는 가만히 좀더 어른이 된 메디엘을 상상해 보았다. 그 태생적인 위엄을 좀더 짙게 만든 그는 분명 머리가 어질 어질할 정도로 기분좋은 향기를 풍기겠지. 내가 좋아하던 레몬색을 품은 채로, 거만한 바다색으로 세상을 내려 볼 것이다. 나의 왕자님이라고 말했던 그는 조금만 있으면 완벽한 나의 국왕 폐하가 될 것이다.자랑하고픈, 뚜렷한 존재감의 메디엘. 정말로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이성의 사랑이냐고 묻는다면 잘 대답할 수가 없다. 그는 겨우 18세 이다.내가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지금 제게 왕자님은 분명 소중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공주님이 말하신 것처럼 심장이 알려주는 사람이냐 하면은, 아직 그런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저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긴 한 걸까요..."공주는 내 말을 끝까지 듣고선 고개를 끄덕 끄덕했다."음, 아직 라디양은 어리니까요! 괜찮아요~ 저희 오라버니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신다니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만족이에요. 라디 양도 언젠가 퍼뜩 눈치채는 날이 올거라고 확신해요. 그때까지 오라버니가 갈고 닦으실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나는 그녀가 너무 진지하게 다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웃겨서 키득거렸다."마리안 공주님, 정말로 제가 메디엘 왕자님과 결혼했으면 하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하하하 너무 고맙네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마리안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다."그럼요~ 여태까지 그럼 농담인줄 아셨어요? 너무나 좋아하는 오라버니도, 라디 양도 제일 행복해 지는 길은 두 분이 결혼하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한답니다."메이드가 와서 그만 주무셔야 한다며 불을 껐다. 우리들은 커다랗고 푹신한 마리안의 침대에 모두 누웠다. 내 옆에 누운 마리안은 내 손을 꼭 쥐며 마지막으로 말했다."그렇지만, 만약 라디 양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셔도 불평하지는 않을께요. 그냥 오늘처럼, 모두 모여서 자신의 사랑이야기를 하는 날이 또 오면... 그것으로 족하니까요."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순진하게 웃었다. 코멜라는 불이 꺼져서 어두워지자, 한층 더 똑똑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목소리로 소곤댔다."약속이예요, 또 이렇게 파자마만 입고 밤늦게 까지 비밀얘기를 해요."우리는 누운채로 바짝 붙어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나서야 잠에 들었다. 다같이 한침대를 쓴 것이라 평소보다 좁았는데도, 폐소 공포따위는 느끼지 않고 편하게 꿈을 꿀 수 있었다. 참 이상도 하지, 게다가 낯선 이부자리였는데 말이다. 파자마 파티에서 모두 함께 한 침대에서 잠을 잔 것은 내게 상당히 깊은 인상을 주었던 모양이다. 한동안은 큰 침대에 덜렁 혼자 잠을 자는 것이 상당히 쓸쓸했다. 그래도 금새 적응해서 잘...'잘 잤을 터였는데...!'달빛이 없는 삭이라서 그런가? 평소보다도 어둡고, 평소보다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한참을 뒤척여 겨우 선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버려서 짜증이 치솟고 있었다.그 어설픈 선잠도 잔거랍시고 머리가 맑아져 버렸다. 게다가 여전히 숨은 막힌다. 나는 곧바로 잠이 드는 것은 포기하고 스틱을 찾아 벽쪽을 더듬거렸다. 그리곤 다른 사람은 깨지 않도록 내 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따뜻한 우유라도 먹으면 잠이 잘 올까 싶어서 식당으로 내려가 보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다른 방에서 이 야심한 시각에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제르다민의 방과 휴리안의 방, 두 방의 주인들은 모두 아직까지 깨어 있는 모양이었다.'세상에! 이 늦은 시각까지 뭘 하고 있는거야!'나는 휴리안 오빠의 방을 아주 살짝 열었다. 오빠가 자신의 책상앞에 잠옷차림으로 앉아있다가 놀란 듯이 나를 돌아보았다."어? 라디! 이 시간에 무슨일이야? 몸이 안좋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쪽으로 오려고 했다. 나는 다른 사람이 깰까봐 얼른 문을 닫고 들어와서 소리를 죽여 외쳤다."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 시간에 뭐하고 있는 거야 오빠!"뭘 하고 있던 건지 그의 책상을 넘겨 보았다. 역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천재라는 소문은 괜히 난 것이 아니다. 밤새서 공부할 정도로 노력파이기도 한 오빠들이었던 것이다.'그래도 이렇게 까지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건 절대 권하고 싶지 않다고!'나는 분개하며 말했다."그만! 공부! 해!!!"내가 진지하게 나무라니까 오빠는 사람좋게 '하하하'하고 웃었다. 농담같이 들리나 보지? 나는 더욱 소리높여 탄원했다."잠은 중요하단 말야! 몸 버린다고! 키도 안커!"오빠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라디, 내가 어디까지 컸으면 좋겠어?"그가 내게 바짝 다가오자 나는 거의 90도로 그를 올려다 봐야했다."...""하하하"오빠는 은근슬쩍 할말 없게 만드는 재주가 뛰어났다. 나는 그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게 정신을 차리며 다시 외쳤다."아차,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어쨌든 지금도 충분해! 괜히 잠을 줄이는 건 오히려 낮의 능률을 낮출 뿐이야! 밤에 잠 안자면 사람이 우울해 질 수도 있고 말야!""와, 오빠 걱정해 주는 거야? 상냥하기도 하지."오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앗, 또 이 천연덕스러운 칭찬에 넘어갈뻔했네. 내가 단호하게 외쳤다."무리하지 말자!"그제서야 휴리안은 쑥쓰럽다는 듯이 책상 위의 책장을 한장 팔랑 넘기며 중얼거렸다."하지만...이 과목은...""응?"그가 너무 작게 말을 어물거려서 잘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나를 힐끔 쳐다보고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이 과목은 어쩌면 톱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헛, 큰오빠의 귀여움에 다시 마음이 흔들린다. 하지만...이렇게 1등에 집착하는 것도 그의 어떠한 결핍과 상관이 있는 것 같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더욱 물러설 수 없었다."난 오빠가 1등 아니어도 좋아. 공부 못해도 상관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오빠는 키득거리며 '그게 뭐야..'라고 핀잔을 주었다."뭘~ 전과목을 다 1등 해먹으려고 하냐는 거야 오빠... 피곤하게 말이지...괜히 밤이나 새서 이 잘생긴 얼굴에 다크서클이 생기는게 더 손해 보는 장사네요."내가 이렇게 까지 말하자 오빠는 졌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그래 그래..'라고 말하며 내가 이끄는대로 침대가까지 따라 왔다.그러다 제르다민에 생각이 미치자 이렇게 휴리안 오빠 먼저 재워선 안된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앗 오빠, 미안하지만 먼저 제르다민 오빠를 재우는 걸 도와주고 침대에 누워줄래? 보나마나 제르다민 오빠는 내가 혼자가면 말을 안들어 줄거 같아.""응, 그래."오빠는 산뜻하게 부탁을 받아들이곤, 제르다민의 방문을 앞장서서 열었다. 역시 그는 휴리안 오빠가 먼저 보이니까 격한 반응 없이 의아하다는 듯이 물을 뿐이었다."무슨 일이십니까?"내가 휴리안 오빠의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사악하게 말했다."재우러 왔다!"내 얼굴을 보자마자 사정없이 인상을 쓰며 입을 열었다."이제 하다 하다 이 야밤에도 쫒아와서 깐죽거리는 거냐 분홍아."휴리안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상한 말투로 내 대신 설명했다."라디는 우리가 밤새서 공부해서 몸 상할까봐 걱정된다고 하는구나 제르다민. 참 상냥하지?"제르다민은 휴리안의 말을 잠자코 듣다가, 나를 냉정이 흘러 넘치는 눈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렸다."깐죽거림을 위해 휴리안 형님까지 동원하다니... 죄송한 줄 알아라..""실례네! 정말 걱정되서 온거라고!"제르다민은 나의 호의를 순수하게 못 받아들이는 병을 앓고 있다. 이 가여운 녀석. 내가 이해해야지.내가 다시 한번 잠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제르다민은 귀찮다는 듯이 중얼거렸다."아... 이건 다 읽어보고 자려고 했는데..."그가 잡고 있는 책은 끝나려면 한눈에 보기에도 아직 한참남아있었다. 결국 휴리안이 '하하하'하고 약간은 무섭게 웃으며 그를 완력으로 책상에서 끌어냈다."으아아? 형님, 잠깐만요!"제르다민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조금은 불쌍...하지는 않고 나는 낄낄 웃으며 뒤를 쫒아갔다."아유, 둘째 오빠가 이리 버들가지처럼 약해서 쓰겠누, 나도 좀만 더 열심히 운동하면 오빠를 이리 쉽게 다룰 수 있을 거 같네."비아냥은 물론 잊지 않았다.제르다민은 분하다는 듯이나를 노려 보았지만,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참는 듯 했다.휴리안은 힘이들어간 팔과는 다르게 나긋나긋한 말투를 흐트러 뜨리는 법 없이 말했다."라디가 걱정된다잖아. 오빠가 되서 그런 귀여운 부탁 하나 못 들어 주면 되겠니.""자겠습니다 형님, 잠깐만요."제르다민은 적어도 제발로 침대로 기어들어가려고 하는 태도였으나, 이미 침대까지 다 온 상태여서 휴리안은 그냥 밀어붙이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다. 그를 풀썩 눕히고 한손으로는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르다민의 한 손을 제압한 채 이불까지 덮었다.나는 이때다 싶어서 정신 없어하는 제르다민에게 말을 걸었다."아이, 우리 오빠는 어리광이 심하기도 하지, 이렇게 직접 눕혀주지 않으면 잠도 못자는 거야?""...분홍아.."그가 싸늘하게 나를 올려다 보았지만 별로 무섭지 않았기에 나는 끝까지 마음먹었던 깐죽거림을 시전했다."그래, 그래 알았어. 뽀뽀해주지 않으면 잠도 못자겠쪄여?""뭐야…? 아니, 싫어. 그것만은!"과연 나의 마지막 필살기에 제르다민은 대놓고 진절머리를 내었다. 한손은 어차피 휴리안이 잡고 있었기에 나는 제르다민이 내 얼굴을 막기 위해 휘젓는 다른 한손만을 내리 누르면 되었다. 그것도, 나는 선채였고, 제르다민은 누운 자세였기에 체중을 실어서 그 손을 제압 할 수 있었다.제르다민은 정말 싫은 듯이 필사적으로 나를 막아보려 했지만 나는 끝끝내 그의 이마에 굿나잇 키스를 할 수 있었다.생각보다 열량 소모가 많은 작업이었다. 나는 보란듯이 손등으로 입술을 닦으며 그를 비웃었다."귀여운 동생의 굿나잇 키스야! 감사히 여겨. 아, 거스름돈은 필요 없어."제르다민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리고선 치욕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이번에야 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잃은 기분이야."나는 승리감에 취해 낄낄거리며 휴리안의 손을 잡고 그의 방을 나왔다. 룰루랄라 휴리안의 방에 들어서서 이번엔 휴리안을 침대에 눕히곤 이불을 덮어주었다.휴리안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그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비슷한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를 돌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즐겁다. 항상 반대의 입장이었는데."잘자, 좋은 꿈 꾸고."그렇게 말한 후 이마를 살짝 쓸어본다음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데 휴리안이 작게 소리를 냈다."아.""응?"무슨 할말이 더 있는 걸까? 내가 다시 그의 얼굴을 들여다 보니까 그가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했다."나는 굿나잇 키스 없는 거야?""응? 오빠도?"'아, 아... 뭐 원한다면야.'나는 새삼스럽게 샘솟는 쑥쓰러움을 억누르며 '물론 기꺼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제르다민에게 했던 것처럼 몸을 숙여 그의 얼굴에 나의 얼굴을 가깝게 했다. 다만, 이상하리만치 그에게 가까워 지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몸을 지지하기 위해 그의 침대를 짚은 손에 그 짦은 시간동안 땀이 배이는 것 같았다.그의 이마에 내 입술이 닿기 직전에는 심장이 튀어나올듯이 뛰었다.'뭐? 왜이래? 왜 이렇게 쑥스럽지? 왜 이렇게 떨리는 거야?'내가 입술을 떼고 몸을 일으키자 오빠는 마음에 들었다는 듯이 소년처럼 웃으며 말했다."굉장하다, 누가 이렇게 밤인사 해주는거 처음이야."나는 내 이상한 얼굴을 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한 손으로 볼을 문지르며 급하게 인사를 했다."자, 잘자. 오빠. 앞으론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면 안 돼.""하하 알았어. 너도 잘 자. 라디. 좋은 꿈 꿔."그의 인사를 받자 마자 튀어 나갈 기세로 내 방으로 돌아왔다.'뭐, 뭐야. 뭐지? 똑같은 굿나잇 키스인데!'나는 아직도 멈출기미를 보이지 않는 격한 고동을 느끼며 침대에 절뚝 절뚝 뛰어들었다. 마치 100미터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의 심장같았다.'아, 설마 이건가? 이게 심장이 알려준다는 건가?'당혹감에 아직도 후끈후끈 하다.몸을 뒤집어서 천장을 바라보게 누웠다. 어쩐지 현실감이 너무나 없었다. 달빛조차 없는 어두운 방안에서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세상에... 내가 휴리안 오빠를 좋아하나봐...!'왜인지 모를 혼란감과 동시에 동시에 비어져 나오는 웃음도 멈출수가 없었다.나는 진하 오빠와 닮은 그 소년을 좋아한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처음 만난 순간 부터 예정된 일이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는데도,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아침을 먹으러 가야지. 오빠를 보러가야지.나는 첫사랑을 하고 있다. 게다가 아침에 눈뜨자 마자, 좋아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운이 좋다.’평소와 같은 아침인데, 학교에 가기 전 몸단장을 하는 것이 전혀 귀찮지 않았다. 말끔하게 머리를 빗는 과정이 즐거웠다. 오빠가 귀엽다고 했던 리본으로 묶어달라고 해야지. 오늘도 귀엽다고 해 줄까?누군가를 사랑한다는데 이렇게 즐거운 것이었다니. 앞으로도 매일 매일이 이렇게 소풍가기 전날처럼 들뜬 기분이 드는 걸까?조금 긴장되는 심정으로 식당을 살짝 엿보았다. 아, 역시 오빠가 제일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의 뒷모습에 또다시 빨라지는 심장 박동을 느꼈다. 저 단정하게 쭉 펴고있는 어깨. 칼라에 살짝 가려있는 목덜미.분명해. 난 틀림없이 오빠를 좋아하고 있어.이런 감정의 고조가 즐겁다.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즐겁게 해 주었다.내가 식당에 들어서면서 내는 스틱 짚는 소리를 듣고, 오빠는 바로 뒤돌아 보며 싱긋 웃었다.“아, 라디. 좋은 아침.”“응, 좋은 아침!”그의 잔잔한 목소리에 너무 빨개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인사에 대답했다. 괜찮았지? 방금 나 이상하지 않았지?오빠는 눈을 가늘게 뜨고 큰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네가 챙겨줘서 그런지, 정말 푹 잤어. 혹시 내게 잠 잘오는 마법을 걸어준 거 아냐?”다정하게 건네주는 달콤한 말. 평소와 다름이 없는데도, 한 번 나의 감정을 자각하고 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하나하나 설레고 말아버린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 했다.“오빠, 내가 잠이 잘 오는 마법을 걸면, 오빠는 지금 일어나지도 못했어. 한 3년 후에 극강의 개운함을 느끼며 일어날 걸?”내 천연덕스러운 너스레는 잘 먹혔는지, 오빠는 키득거렸다. 가끔씩 보여주는 이 어려보이는 웃음이 좋다.오빠에게 온 신경이 팔려 있어서, 밥을 잘 먹지 못했다. 그래도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았다. 오히려 ‘입맛이 없니?’하고 신경써주는 그의 말에 뛸 듯이 기쁘기만 했다. 어쩐지 지금의 나는 조금 바보가 된 것 같기도 하다.학교로 가기 위해서 오빠와 같이 마차를 탔다. 오빠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온유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나는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웠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그러다 보니, 한없이 즐겁기도 했지만, 학교에 도착해서 오빠와 작별인사를 하고 난 후에는 조금 피곤하기도 했다. 그리고, 교실로 향하는 길에는 한가지 고민이 생겼다.‘내가 휴리안을 좋아한다는 것을 메디엘이나 미카엘에게 해야하는 걸까?’메디엘은 정작 본인은 지금 내게 연애감정이 없다고 말하곤 하지만, 이상하게 나의 이성에 관한 관심이나, 감정은 집착하는 면이 있었다. 미카엘도, 자신에게 나 말고 별다른 친구가 없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했다.‘내가 그들에게 숨길 만큼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솔직하자니, 내 맘 편하자고,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것도 따지자면 이기심 아냐?’고민된다. 내가 마냥 왕자나, 미카엘이었으면, 나는 그들이 어쩌길 바랄까? 음...수업은 무난히 지나갔지만, 어쩐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연애관련 고민은 배부르고 태평한 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묘하게 골치가 아프네.수업이 끝날 쯤에 내린 결론은, ‘굳이 무작정 내 감정 상태에 대해 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였다. 어쩐지 석연찮은 면이 있긴 하지만... 내가 혼자서 좋아하는 것 뿐이다. 게다가 묻지도 않았는데 불러 세워서 ‘사실...’ 이라며 말하는 것도 괜히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행동 같았다.그렇기에, 가능한 한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그렇게 혼자서 조용히 사랑을 음미하는 것만 해도 내겐 벅찰 정도였기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꽤나 잘 해나갔다.평소와 같이 휴리안과 서재에서 공부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티타임을 즐긴다. 다만, 이전 보다 훨씬 주의 깊게 그를 살피며, 이전 보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뿐이다. 그의 손짓 하나에도 깊이 깊이 사랑스러움이 차 올라서 꼭꼭 눌러 담았다.새어나오지 않도록. 이건 마치 방음이 잘된 록커의 작업실 같았다. 가슴은 소란스럽고, 가끔 기괴하기도 해서 이러다 고장나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지만, 그럭저럭 잘 참을 수 있었다. 조금 음울해 보이기도 하다만, 자기 전에 살짝 반추하며 다시한번 곱씹기만 해도 포만감에 잠이 잘 안올 정도로 나는 소박했다.행복한 나날이었다. 가끔 오빠와 데이트라도 하는 날엔 긴장감에 평소보다도 발을자주 헛딛기 일쑤였다.이런 와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오빠도 남들을 대할 때와 나를 대할 때가 묘하게 다르다는 것이다.‘사춘기 특유의 망상벽이 아니라고!’분명해! 내 착각이 아냐! 확실히 내게 지어주는 웃음이 더 솔직하고 어려 보여. 휴리안 오빠가 나에게 조금은 마음을 열어준 게 아닐까? 정말로 그런거였으면 좋겠다. 오빠에게 나만이 특별하다니...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겠지.오빠와 오페라를 보러간 적이 있었다. 오는 길에 주인공의 노래에 대해서 논하다가 내가 고백하듯이 ‘근데, 오빠 사실은 살짝 졸아서 그 클라이맥스 이후의 노래는 잘 기억이 안나.’라고 말하자 그는 키득거리며 맞장구를 쳐 주었다.“맞아, 라디...너 졸더라.”“윽, 봤어? 깨워주지...”내가 부끄러움에 몸서리 치며 대답하자 오빠는 비밀을 말해주듯이 속삭였다.“사실 그래서 나도 후반부 노래는 잘 못들었어.”“응? 뭐야? 오빠도 졸았다는 말이야?”내가 오빠의 말의 인과가 잘 이해되지 않아서 되묻자 오빠는 고개를 살짝 기우뚱하며 빙긋 웃었다. 그 웃는 얼굴이라니. 나는 어두운 마차안에서 흔들리는 조명이 묻은 그 얼굴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가 보기 좋은 입술을 열어 설명했다.“아니, 네가 졸고 있으니까... 네 얼굴을 자꾸 보게되어서. 집중이 잘 안되더라고.”오빠도 나를 조금쯤은 특별히 생각해 주는 거겠지? 아무에게나 이런 달콤한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지? 나는 복잡 미묘하게 섞여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감정을 나 좋을 대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다. 방금 들은 가슴을 옥죄는 오케스트라 선율보다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감동이 있었다.아, 그래. 나는 굉장히 들떠 있다.마약 같은걸 하는 사람들은 분명 사랑을 못해본 사람들이야. 이것 보다 감미로운게 있을 리 없는데 말이지. 제대로 사랑을 해봤다면, 마약 같은 걸로 만족할 수 있을 리가 없어.바보같이 혼자서 그렇게 들떠있었다. 그날 나는 평범하게 수업을 듣고 있었다. 마법 클래스, 그것도 실습시간이라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잔뜩 겁을 먹고 있었지만 나에게 있어선 그게 '평범'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평범한 날이었던 것이 맞다.나는 항상 맨 마지막에 실습에 나섰으므로, 기다리면서 나와 같이 있어주는 안나는 자연히 마지막에서 두 번째 차례였다."라디이~ 긴장 풀어. 네가 그렇게 겁을 집어먹고 있으니까 더 컨트롤이 안되는 거래도?""긴장을 안 할 수가 없지."오늘은 내가 질색하는 불을 다루는 수업인데다가, 한층 더 강도가 세진 마법이라 아직 내 순서는 한참 남았건만 긴장감에 토할 것 같다.생각해 보라고! 손 바닥 위에 자그마한 불을 띄우는 마법을 실습해 보는 거였는데도 지붕이 그을렸었다고?! 근데 불을 쏘아 보내보라고? 정말 누구하나 죽어나가게 될 거 같다....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확실했다. 크레하퍼 선생님이 마치 장례식 사회를 보는 듯한 엄숙한 표정으로 '이번 실습은 불을 원하는 곳에 쏘아 보내는 것으로서, 전보다 화력도 커질 것입니다...따라서, 여러분들은 마력의 위치 조절 뿐만아니라, 농도를 짙게 유지하는데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반의 모든 아이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던 것이다. 심지어 안나조차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다.안나가 쓴웃음을 지으며 나를 달래려고 할 때였다."물론 라디가 긴장하는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그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통신에 간섭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이질적인 소리가 들렸다.짜르르르 하고 어찌 생각하면 여름벌레가 우는 소리같기도 하고 어찌 생각하면 작은 종이 진동하며 울리는 소리같기도 했다.작은 소리임에도 머리속을 할퀴는 것처럼 선명한 그 소리에 나는 퍼뜩 고개를 들어 소리의 출처를 확인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소리가 안들리는 것 같았다.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그 소리는 마치 내 머릿속에서 부터 울리는 것 같기도 했다. 투명한 소리라서 예쁘게 생각되기도 하련만, 끔찍한 기분이 들게 했다."라디?"안나가 내 묘한 낌새를 눈치채고 무슨일이냐는 듯한 표정을 보냈다.'위험하다. 이건 위험해.'위 속에 직접 끈적한 독약을 천천히 채우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순간 오싹한 생각이 들어 내 옆의 안나를 감싸 안았다. 어쩐지 지켜내야한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꺅?!"안나가 내 돌발 행동에 작게 놀라는 소리를 내자 앞에 서있던 크레하퍼 교수가 우리쪽을 바라보았다."거기~ 또 라디올러스 양입니까... 무슨..."그때 수련장의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창문들로 부터 눈이 멀것만 같은 섬광이 쏟아졌다.크레하퍼는 위험한 낌새를 눈치 채고 다급하게 보호 마법을 걸었다."지켜보는 그대여! 지금 우리를...크윽."그러나 살짝 늦은 감이 있어서 사방에서 유리창이 깨지며 수련장안으로 돌풍이 밀어닥쳤다. 나무조각인지 유리조각인지 모를 것이 안나를 감싸안느라 노출된 내 머리쪽을 강타했다. 버티지 못하고 안나와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더욱 강하게 안나를 껴안았다.선생님은 고개를 숙이고 돌풍사이로 겨우 숨을 내쉬며 재빨리 구절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가엾게 여기소서."간발의 차로 우리는 폭발의 강한 열기와 충격을 막을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굉음에 크레하퍼 교수가 뭐라고 하는 말이 지워져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먼지가 뿌옇게 시야를 가리고, 눈을 뜨고 있으면 따끔 따끔해서 눈물이 나왔다. 그저 안나와 나는 두 눈을 꼭 감은 채 서로를 부여잡고 모든 것이 지나가길 기다렸다.'이게 무슨일이지? 어떻게 된거지? 다친 사람은 없나? 모두 무사할까? '폭발은 짧게 끝났지만, 두려움으로 괴로운 순간이었다.주위가 잠잠해진것인지 귀가 멍멍해서 잘 구분이 안됐기 때문에 폭발이 끝난 뒤에도 나는 안나의 등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부딪힌 이마가 점점 욱신거려 왔다. 찢어졌는지, 얼굴에 뭔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심장이 머리로 옮겨온 것처럼 주기적으로 둥둥 울리는 소리가 났다.누군가가 나를 거칠게 흔들었다. 뭐라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는데 아직 귀가 아파서 잘 들리지 않았다.누구인지 확인 하려고 눈을 떴는데 뜬 것같지가 않게 캄캄했다. 한참 지난 후에야 서서히 중앙부터 윤곽이 흐리게 잡혔다."으음?""라디올러스 양! 괜찮으신 겁니까? 정신이 들어요?!"아직 시야는 제대로 잡히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선생님이었다."라디!!! 괜찮아? 어떡해... 피가..."분명 방금까지 내가 잘 안고 있었던거 같은데 안나가 선생님과 함께 나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이런, 내가 안나를 잘 감쌌던게 맞나? 중간에 놓친건가?"안나... 괜찮아? 선생님도 괜찮으세요?"내가 몸을 일으키려고 손을 뒤로 짚는데, 순간 힘이 빠져 팔이 턱 꺽였다. 아 이런, 민망 민망."꺄아!"안나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나를 부축했다. 크레하퍼 교수는 안경은 어디로 날라가 버렸는지, 안경이 없는 모습으로 긴박하게 외쳤다."괜찮으십니까?! 제가 누군지 알아 보겠고요?""안경도 없고, 느긋해 보이지도 않으니까 적어도 크레하퍼선생님은 아니겠네요."내가 씨익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크레하퍼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와... 이런 때에 정말... 아무튼 라디 양에게 간단한 지혈 마법을 써봤는데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네요. 큰일이에요."크레하퍼가 손수건을 꺼내 내 머리쪽에 대 주었다. 나는 내 손으로 그것을 받아 얌전히 대고 있었다. 크레하퍼는 약간 말이 빨라져서 불안한 듯이 중얼댔다."아, 이거 대고있기만 해도 되는 건가.. 왠지 그냥 피만 쪽쪽 빨아먹는 기분인데... 압박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건가..."안나는 내가 피가 많이 나자 충격을 받았는지 내 옆 같이 주저앉아서 엉엉 울며 내 몸 이곳저곳의 상처를 봐 주고 있었다."안나, 뭘 울고 그래. 난 괜찮아."정말로 이제 나는 눈도 제대로 보이고, 귀도 제대로 들렸다. 머리가 좀 아프긴 한데, 그냥 찢어진 것 같았다. 뼈에 금이가거나 할정도로 세게 부딪힌 느낌은 아니었다."하지만... 나를 감싸다가 이렇게..."안나가 내 무릎에 유리조각이 붙어있었는지, 그것을 조심스럽게 떼며 울먹거렸다.허어... 그러고 보니 무릎에도 피가 나는 구나.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쪽은 다친지도 몰랐네.나는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라고 말하며 선생님을 돌아보았다."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수련관 쪽에만 폭발이 일어난 걸까요?"나는 등에서 땀이 나는 것을 느끼며 제일 묻고 싶었던, 그러나 제일 묻기에 겁이 나는 질문을 했다."저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사 할까요?"크레하퍼는 고개를 끄덕였다."일단... 제가 느끼기로는 폭발은 이쪽, 마법 클래스 수련관에서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애초에 마법 클래스 쪽에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나는 안심해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손에 힘을 쥐고 있었는지 깨달았다.크레하퍼는 어두운 얼굴로 중얼거렸다."전쟁이 시작되겠군요."'아...역시...'나는 울컥하고 치미는 불안감을 애써 삼키고 물었다."역시 포제타 왕국에서 일으킨 걸까요?""원격 폭발 마법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 아카데미에 쏘려고 마음먹었던 게 맞는지 조차 아직은 모르겠으나, 아마 겁을 주려고 했거나, 아예 맘먹고 마법사들을 죽이려고 했겠죠."그가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축해 주었다."일단 치료를 위해 부상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네요. 안나양, 안나양은 인원체크를 해야 하니까 부상없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대피소로 피해주세요. 다시 폭발이 시작될 지도 모르니까요."그는 제법 선생님 느낌이 나는 말투로 아이들을 지도했다. 나 말고도 상처가 있는 학생을 임시로 만들어진 치료소에 데려다 주었다. 그곳엔 벌써 여기저기 다친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긴장하면서 찾아보았지만, 다행히 아는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크레하퍼가 나를 벤치에 앉혀주었다. 앉는데 머리가 쿵하고 울리는 것 같았다."크으....""큰일이네요 사람이 많아서. 제가 보기엔 그냥 빨리 라디올러스 양의 집으로 가서 공작성의 치료를 받는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음... 그런가요. 근데, 마리안 공주님께도 한번 가보지 그래요? 걱정안돼요?"나는 메디엘이나, 미카엘이나, 우리 형제들이 괜찮은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쓴웃음을 지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저는 이런 경우에 대피소에 모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막을 치는 역할입니다. 이제 가 봐야합니다.""아... 마법사 엄청 바쁘네요. 저 왠지 손해 보는 느낌..."내가 가보라며 손을 팔랑 팔랑 흔들자 크레하퍼도 동감이라는 표정으로 끄덕거린 다음 바쁘게 이곳을 떠났다. 나는 순식간에 홀로 벤치에 앉아있는 신세가 되었다.'얼굴이 피떡이 되어서 말이지.'선생님이 주었던 손수건은 이제 피에 너무 젖어서 피를 흡수하는 역할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윽, 설마 위험한 곳이 다친 건 아니겠지? 에이 어지럽지 않으니까 괜찮을거야. '머리쪽은 조금만 찢어져도 피가 많이나서 괜히 사람을 겁먹게 만드는 것 같다.나는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심하게 아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라고 하기에 괜찮다는 뜻으로 끄덕거렸다.'아~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져서 큰일이라니까... 왠지 슬프잖아 이거.'너덜너덜해진 교복이며 엉망인 얼굴에다가 이곳저곳 쑤시는데 외톨이이기까지한 내 모습이 갑자기 처연하게 느껴져서 다리를 앞뒤로 교차해 흔들어 보았다. 가만히 있기 민망해서 였다.그때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얼른 들었다."라디 양!!"메디엘이 분주한 사람들을 다급하게 헤치며 내게 다가왔다. 내가 피 범벅이 된 모습을 보고 그가 놀랄줄 알았는데 예상 외로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만 깜짝 놀라는 모습이고 가까이 와서 내 상처를 보면서는 침착한 모습이었다."이렇게 다치셨을 줄이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꽤 담담한 목소리로 나를 안심시키길래 메디엘이 의외로 담력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눈치챘다. 품에서 새로운 손수건을 꺼내는 그의 손이 얼마나 떨리는 지를.그런데도 미간을 살짝 찡그렸을 뿐 느긋한 얼굴로 '괜찮아요.'를 연발하며 내 얼굴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다. 그가 풍기는 제국의 별다운 면모에 나는 감탄했다.이렇게 어린데, 이토록 왕답다.그는 물을 얻어서, 일부는 내가 마시게 하고 일부는 손수건을 적셔 무릎의 상처도 봐주었다. 상당히 침착하다. 자기도 놀랐을 텐데."....혼자 있게 해서 죄송합니다.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서요."그가 상처에 열중하다가 갑자기 중얼거렸다."전 괜찮아요, 인원 파악 해야 해서 다들 모여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왕자님은 어떻게 나오셨어요?"내가 그의 반짝이는 머리카락을 슬쩍 건드리며 묻자 그는 나와 시선을 맞추며 천천히 대답했다."...인원체크에서 제일 먼저 체크하는 대상은 저 아니겠습니까."머리 쪽 상처의 피가 쉽게 멈추지 않아서 자꾸만 흘러내렸다. 메디엘은 신중한 표정으로 손수건을 대 주다가, 그의 손수건 마저 흥건해 져서 피가 줄줄흐르게 되자 결국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여기! 어째서 이쪽은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까!"그가 붕대를 들고 바쁘게 지나가던 치료원을 거칠게 불러세웠다.불러세워진 사람은 메디엘이 왕자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고 깜짝놀란 얼굴을 했다."죄, 죄송합니다. 부상자가 많아서... 지금 봐드리겠습니다."이 사람은 지금 분명 다른 사람을 치료하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만류하면서 말했다."저, 거즈 같은 것만 하나 주실 수 있을 까요? 그리고 먼저 가보려고 했던 분께 가주세요."메디엘이 옆에서 '하지만!'하고 발끈해 하는 것을 말리면서 끝내 치료원을 보냈다."제가 볼 땐 당신도 얕은 상처는 아니라고요!"그가 나를 바라보면서 다급한 듯이 말했다. 어느새 그는 조금씩 침착함을 잃고 있었다.그는 말로는 나를 계속 나무라면서도 손은 바쁘게 치료원에게서 받은 거즈의 포장을 뜯고 있었다. 마음이 급했던 모양인지 잘 까지지가 않았다."읏, 이게 왜 이렇게 안 열려!"나는 그에게서 거즈를 뺏어서 쉽게 연 다음 다시 왕자에게 주었다. 아, 솔직히 나도 머리의 상처가 견디기 힘들다, 주기적으로 망치로 쾅쾅 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얼굴에 가까이 난 상처라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방금의 치료원에게 치료를 부탁할 수는 없다. 내가 중얼거렸다."그치만, 방금 치료원을 불러세워서 말이죠. 왕자님... 솔직히 가슴아팠잖아요?"그가 거즈로 내 상처를 살짝 누르며 무표정하게 말했다."무슨 말씀이십니까.""다른 사람에게 급하게 가고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솔직히 왕자님도 중간에서 가로채고 싶지 않으셨을 거에요.""....그대가 이렇게 다친상태로 방치되고 있는게 더 가슴아픈데요."내가 씨익 웃으며 대답했다."그래도 ....음 상상하기 싫긴 하지만, 왕자님이 제 입장이었다면... 분명 꾹 참고 얌전히 기다리셨을 거에요. 왕자님이 왕자님이라서 먼저 챙겨주는 손길도 양보하셨겠죠."메디엘은 이제 미간을 찡그린 채로 나를 바라보았다. 화가 난건지, 슬픈 건지 잘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나는 말을 계속해 나갔다."그런 왕자님의 프라이드를 제가 망칠 순 없죠. 제가 자랑해 마지않던 제국의 빛이었는 걸요."그가 한 손으로는 여전히 내 왼쪽 이마에 거즈를 대준 채로 다른 손으론 너저분 하게 겨우 머리 끝에 매달려 있던 머리장식을 풀어주었다. 그리곤 기운 없이 중얼거렸다."... 다친 사람이면 다친 사람답게. 어린애면 어린애 답게 어리광이나 피우면 좋을 것을.""음... 사실, 그냥 중간에서 가로채면 집에 가서 제 마음이 안 좋을 거 같아서 그런것도 있어요. 재수가 없어서 우리가 불러 세운 치료원이 제 때 안와서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어요?"내가 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익살을 떨었지만, 메디엘은 여전히 진지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심각한 표정과는 다르게 다정한 목소리를 내었다."가엾게도. 가엾게도... 이렇게 다쳐서는...""방금전까진 별 상처아니라고 걱정 말라고 했으면서..."왕자는 내 눈을 바라보면서 살짝 끄덕였다."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분명.""왕자님 마음대로인 거네요."내가 그의 제멋대로인 논리에 씩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그가 다시 한번 끄덕이면서 중얼거렸다."그래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메디엘은 아무말 없이 서있기만 해도 굉장한 존재감이있는 터라, 그 정신없이 바쁜 치료원에게 간단한 약을 받을 수 있었다.메디엘은 맥이 빠진다는 듯이 투덜거렸다."상처 연고라... 이건 아무리 봐도 라디 양의 머리쪽 상처에 쓰기엔 좀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머리는 꼬매야 할 것 같은데..""엑! 저 제 상태 못봤는데 이거 꼬매야 될 정도에요?""이렇게 피가 줄줄 새고 있는데 그럼 그냥 내버려 둬도 될 줄 알았어요?"그는 내게 핀잔을 준 다음 연고의 뚜껑을 열고 내 무릎을 들여다 보았다."...이거 유리조각같은게 박혀있지는 않은 걸까요... 걱정이네.."그가 자잘한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무릎쪽의 큰 상처를 보며 가늠을 해보고 있었다.나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갑자기 든 의문을 그에게 말했다."근데 왕자님... 이런 비상사태에 왕자님 정도 되시는 분이 이런 곳에 있어도 되는 거에요?"아니나 다를까 그가 뜨끔한 듯이 어깨를 조금 움찔했다. 그러나 순식간에 천연덕스럽게 상처를 봐주는 손길을 움직이며 말했다."제가 나서서 할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나 비상사태이니 만큼 말이에요."그러나 계속해서 내 눈을 못마주치는 모습이었다. 거짓말에 능한 건가, 아닌 것인가.내가 사정없이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몰아세웠다."...제가 황실 사람이라면... 왕자님을 이런 곳에 그냥 두지 않을 텐데요...얼른 궁으로 대피시키거나 할 것 같은데...""...."메디엘은 내 얼굴을 보지 않고 묵묵히 손만 움직였다."왕자님, 마리안 공주님은 괜찮으신가요?""네. 제 다음으로 확인 되는 것이 마리안의 안전이니까요. 멀쩡하더군요."내가 그의 손을 천천히 밀어내며 말했다."그럼, 공주님과 어서 가야할 곳으로 가세요."메디엘이 나를 찡그린 얼굴로 바라보았다. 별다른 말은 없었으나 하고싶은 말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전해지는 표정이었다. 누군가에게 이런 관심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복받았다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제 만족한다."왕자님도 확인하셨으니까 알잖아요.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목숨에 위협이 되는 상처는 아니랍니다. 치료원들이 괜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그렇다고 해서 혼자 내버려 둘 정도로 마음이 놓이는 상처도 아닙니다."나는 슬픈듯이 말하는 메디엘을 단호하게 밀어냈다."왕자님은 왕자답게. 저는 저답게. 괜찮아요. 곧 다른 사람도 저를 봐 주러 오지 않을까요."내 말에도 왕자는 말없이 그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왕자님 때문에 혹시 마리안 공주님도 대피하고 계시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설마요.""에이, 기다리고 있을 거 같은데요.""먼저 가라고 말하고 왔는데요.""공주님 성격에... 걱정스러워서 기다리고 있을 거 같아요."이 말은 효과가 있었는지 메디엘은 순간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그 때, 내 시야에 들어오는 익숙한 사람이 있어서 나는 더욱 밝게 메디엘에게 말할 수가 있었다. 미카엘이 우리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아! 미카엘이다. 자요, 미카엘이 와줬으니까 왕자님은 어서 정해진대로 가세요.""윽, 그 말은 어쩐지 필요없어 진거 같아서 슬픈데요...."나는 하하웃으며 '설마요..'라고 중얼거렸다.그의 따스함에 감사하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달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자상한 왕자님. 충분히 걱정받아서 만족스럽답니다."왕자는 조금 슬픈 얼굴을 짓고선 단념한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그답지 않게 시선을 떨구곤 작게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말은 해야겠어요. 당신이... 아직 어려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네?"맥락에 안 맞는 듯한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멍청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진심이 묻어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말해나갔다."오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떨어지지 않고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말은... 좀 더 노력해 보겠다는 거에요. 포기하지 않고요."그는 자신의 뜬금없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처럼 말해주었지만, 여전히 알듯 말듯 모호했다. 나는 그냥 웃으며 끄덕거리기로 했다."조심히 가세요. 왕자님.""...라디 양도요. 오빠분들이 빨리 와야 할텐데요."왕자는 미카엘을 돌아보며 무표정하게, 그에게 부탁하게 됐다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했다."미카엘 공.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한번 더 목례를 한 다음 메디엘은 바쁜 걸음으로 뛰어갔다. 그래, 왕자님이 위험하게 아직까지 폭발사고현장에서 뭐하는 거야. 날 보러오라고 인원체크 순위가 1번인게 아니라고... 물론, 고마웠지만...메디엘이 뛰어간 곳을 잠깐 돌아보다가 이상하게 미카엘이 아직도 멀찍이에서 못박힌 듯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시선은 이쪽을 향한 채였건만. 뭐지? 날 보고있긴 한 거 같은데."미카엘?"내가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몇 발자국정도 다가오긴 했지만 여전히 근처에서 머물 뿐, 내 근처까지는 오지 않았다.그가 조금 더 가까이 오자, 그때서야 나는 미카엘의 표정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그는 겁에 질려있었다.내가 놀라서 그에게 다가서려고 벤치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미카엘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가 몇 걸음 더 다가 와서 그나마 이제 이야기를 하기엔 별 무리가 없는 거리가 되었다."아, 앉아있어 라디!""미카엘? 왜그래! 어디 아파? 다쳤어?"나는 그가 너무 다급하게 다시 앉으라고 해서 앉기는 했으나 오히려 미카엘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미카엘은 내 머리쪽에 시선을 고정하고선 떨리는 손으로 더듬더듬 자신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는 긴장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네가 죽은 줄 알았어.""뭐? 괜찮아 미카엘."피를 보고 놀랐나 보다. 나는 씨익 웃으며 그를 진정시켰다."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죽었다니.. 너무한데."그러나 내 안심시키는 언사는 전혀 그에게 소용이 없는지 그는 여전히 충격받은 얼굴로 중얼거렸다."피가...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죽은 줄 알았잖아.""그렇게 쉽게 안죽어. 아, 네가 더 잘 알잖아? 머리가 살짝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거야.""...너는 너무 모르고 있어. 사람은 엄청 쉽게 죽어.""음... 일단... 난 지금 괜찮아."그가 생각보다도 불안한것 같아서 나는 괜찮다는 의미로 활짝 웃어보였다. 얼굴 근육을 많이 쓰니까 상처가 욱신하고 당겼지만, 나름대로 티 안나게 잘 웃은 거 같았다.그러나 미카엘은 내 미소를 보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외쳤다."네가 죽은 줄 알았잖아!"난 미카엘이 울고있다는 것이 쇼크였다. 미카엘이 울고 있어... 항상 뭔가 초연한 듯이 굴었던 그가. 그 정도로 겁에 질려있어?나는 내 생각보다도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고 다시 일어나서 그의 곁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가 또 발작적으로 앉아있으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그가 숨이 찬듯이 호흡하며 나를 나무랐다."거봐! 내가, 나 같이 천한 것들한테 친구라느니 아끼는 맘이라느니 하는 건 사치라고 말했었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그가 고통스러운 듯이 한 손은 입을 막고 한손으론 가슴팍을 움켜쥐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안절부절 못하고, 다가서지도 못한 채로 그를 달래려 애를 썼다."미,미카엘! 여기 좀 봐봐 응? 나 멀쩡해. 이것봐. 여기로 좀 와봐."그는 거의 패닉상태인 것 같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자 나를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질타했다."내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거봐... 지금 이렇게 괴롭잖아....!"그가 엄마를 잃어 버린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그 모습에 나는 아이를 잃어 버린 엄마처럼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내가 미카엘을 따라 울것 같은 표정을 지으니까 그가 비척 비척 몇걸음 더 다가왔다.나는 이토록 슬퍼하는 그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저 그의 이름을 중얼거릴 뿐이었다."미카엘..."그는 내가 부르는 그의 이름을 듣고는 애원하듯이 말했다."라디... 죽지말아줘.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죽지마아..."그는 또다시 감정이 북받치는지 말끝을 흐리며 큼지막한 눈물을 몇방울 더 흘렸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안 죽을게! 이것 봐! 제대로 내 곁에 와서 봐봐. 피만 많이 났지 멀쩡해."내가 좀 더 다가와보라는 손짓을 했지만 그는 나에게서 몇 발자국 떨어진 그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눈물을 닦을 뿐이었다."어째서 그렇게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거야 미카엘? 좀 더 가까이에서 말하면 좋잖아?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는 묵묵부답으로 고개를 바닥으로 향한채 간간히 훌쩍일 뿐이었다. 나는 다시한번 재촉했다."미카엘. 이리 오래도."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붉어진 눈시울로 나를 바라보며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다."...싫어.""싫다고?"나는 그의 분명한 거절에 당황했다."어째서 싫어?"그는 내 물음에 조금 망설이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입을 살짝 떼서 설명했다."...내가 다가가서... 병이라도 옮으면 어떡해."처음엔 그의 작은 목소리때문에 내가 잘못들은 줄 알았다."뭐? 병? 너 지금 아파? 뭐 옮는 병걸려있어?"이건 처음 듣는 소리인데? 미카엘이 지금 아프다고? 나는 당황해서 몸을 그에게로 기울이며 다급하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설레 설레 저으며 조금 뒷걸음질쳤다.그가 여전히 자신 없는 얼굴로 중얼거렸다."그런건 아니지만...""어휴! 깜짝 놀랐잖아! 근데 무슨 병이 옮아."물론 더러운 손으로 상처를 만지거나 하면 안되겠지만... 왠지 그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그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부정타. 라디."나는 그의 설명에, 그리고 그 확고한 말투에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이 부정하다고, 다친 사람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재수가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더러움이었다.정말이지, 미카엘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눈물이 나올 것 같다. 나는 애써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며 그를 불렀다."에이~ 또 그런다. 네가 무슨 갖고있으면 죽는 저주의 보석같은거야? 부정탄다고 하게? 빨리 이리와서 손이라도 잡아줘. 다치니까 불안해서 그래."내가 그를 향해 손을 뻗었음에도 그는 전혀 움직일 마음이 없는 듯 미동도 없었다. 나는 다시 그를 회유했다."아, 나 머리 쪽에 피가 안 멈춰서 거즈좀 갈아야겠는데....네가 잡아줘야 할 것 같아. 나는 안보이니까.""라디, 차라리 다른 사람을 불러올게."그가 다른 사람을 불러 세우려고 했다. 나는 그를 막으려 재빨리 말했다." 안돼, 일부러 다른 치료원들 방해 안하려고 가만히 차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런걸로 불러내면 어떡해 미카엘."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그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매우 자신없는 얼굴을 하며 천천히 내게 다가섰다.내가 씨익 웃으면서 말했다."아, 정말 덕분에 살았어. 도와줘서 고마워 미카엘."미카엘은 우울하게 끄덕이고 나서 조심스러운 손길로 새로운 거즈를 상처에 대어주었다."아프겠다 라디.""괜찮아."나는 거즈를 새로 붙여주고 바로 거두는 그의 손을 덥썩 잡았다."미카엘, 나는 전혀 네가 부정하다거나,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그는 곤란하다는 듯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이거 놔 라디. 지금은 너에게 닿고 싶지가 않아.""나는 네가 내 손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어. 그럼 안심이 될 것 같아. 보시다 시피... 다쳐서 불안한 마음이거든."내가 두손으로 그의 손을 꽉 움켜 잡으며 말했다. 그러자 미카엘은 나를 내치지도 못하고 또 눈가를 붉게 만들며 울먹거렸다."싫어... 정말 재수가 없어져서, 네가 더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맹세코, 그런 일은 일어날리 없어. 난 멀쩡하게 건강해 질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내 상처는 잘 아물겠지?"내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답을 요구했다. 절대 '아니, 네 상처는 아물지 않을 거야.'라고는 대답하지 못할 것임을 알기에. 그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응... 넌 금방 건강해 질거야."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손에서 자신의 손을 빼냈다."미카엘!"내가 그러지좀 말라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고개를 설레 설레 저으며 내 시선을 피했다."라디, 봐. 너희 오빠가 오는 거 같아. 불안하다면 휴리안 공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해...그게 훨씬 나아 보여."그는 울고난 후라 평소보다도 훨씬 기운 없어보이는 얼굴로 씨익 웃었다. 나는 정말이지, 그의 그런 약한 모습이 가슴 아파서 중얼거렸다."미카엘... 그런 소리좀 하지 마..."미카엘은 내 말이 안들리는 것처럼 다시 내게 물었다."라디, 정말 괜찮은거지?""응... 하지만, 미카엘.."그가 내 말을 자르며 입을 열었다."넌 앉아있어서 잘 안보이겠지만, 휴리안 공이 뛰어오고 있어. 이제 안심이야. 얼른 집으로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해."그가 얼른 나에게서 멀어져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처럼 몸을 휙 돌리기에 나는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미카엘! 넌 전혀 더럽지 않아!"다시 한번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미카엘은 쓴웃음을 지으며 '그래, 라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과는 다르게 자신의 옷가지를 잡아빼서 내 손이 닿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는 저벅 저벅 걸어서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미카엘의 말대로, 잠시 후에 휴리안이 급하게 뛰어서 내 곁으로 왔다.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채로 나를 보자마자 안심했다는 듯이 '다행이다... 다행이야...'를 연발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내 이마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그는 아직 숨이 안정되지 않는지 짧은 주기로 숨을 내쉬면서도 사이 사이마다 내게 말했다."어서...어서, 집으로 가자, 라디... 세상에...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선... 늦어서.. 늦어서 미안하구나..."그가 침착해 보이지 않는 표정으로 나를 안아올렸다.나는 불안한 모습으로 헤어진 미카엘이 마음에 걸려서 오빠에게 중얼거렸다."오빠 난 괜찮아. 그보다 큰일이야. 미카엘이 내가 다친 걸 보고 엄청 놀랐나봐... 또 울 것 같던데..."오빠가 나를 안아올린 덕분에 시야가 넓어지자, 나는 혹시 미카엘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가 사라진 쪽을 살피며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오빠는 나를 힘주어 꼬옥 껴안으며 어딘가 넋이 나간 거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지금은 이 오빠도 좀 울 것 같아..라디..." 나는 오빠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좀 놀라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과연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가 창피한 듯이 겨우 겨우 웃어보이며 입을 열었다."...중급 마법클래스 여학생 중에 사망자가 나왔다는 거야...""어머!...세상에..."'가엽게도.. 아직 어린데...'나는 묘하게 비현실적인 느낌을 받았지만, 소름은 돋았다. 머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몸이 말하는 것이다. '너도 운이 없었다면 죽을 뻔했어. 남 얘기가 아냐.' 라고.휴리안은 입안이 건조한지,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리곤 내 시선을 살짝 피해, 나를 잡은 자신의 손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말을 이었다."네가 있는 이 곳으로 바로 오려고 했는데... 오는 도중에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말이야..."그가 작게 '하하...'하고 웃었지만, 전혀 유쾌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잠자코 그가 하려는 말을 들었다."그럴리가 없다는 걸 알지만... 정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이제와선 불쾌하기까지 하지만... 사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는...견딜 수가 없더라고...."나를 잡고 있는 그의 손에 살짝 힘이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나를 쓴웃음 지으며 바라보았다. 그리곤 조용하게 말했다."....미안 라디... 당연히 그럴리가 없는 건데. 기분 나쁘지?""걱정끼쳐서 미안..."그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심란한 마음이었는지가 상상되었다. 그는 '네가 왜 사과를 하는건지 모르겠네.'라며 나를 다시 단단히 안았다. 그리고는 걸음에 속도를 붙였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다급하게 뛰어왔는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그의 체온은 높았고, 옷 매무새도 평소같지 않게 흐트러져있었기에 나는 다시 한번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입을 열었다."근데 오빠, 진짜 오빠 생각만큼 큰 상처는 아니니까 걱정마.""... 그래."그가 내 쪽을 보지 않고 묘하게 텀을 둔 다음 대답을 하기에, 나는 한번 더 말했다."출혈양도 아까보다 훨씬 적어졌고 말이야, 응, 거의 멈췄어. 정말 걱정할 거 없어.""...지금 내 걱정을 할 때가 아냐 라디! 네 모습을 좀 보라고!..."그가 들어주기 힘들다는 듯이 큰소리를 냈다. 평소 휴리안을 생각하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모습이라, 나는 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휴리안은 내 얼굴을 보고선, 흥분한 듯한 얼굴을 천천히 슬픈 표정으로 바꾸며 말했다."...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서... 오빠 걱정이나 하고 있다니... 라디... 소리를 질러서 미안해.""아냐..."나는 그럼 이제 그에게 어떤 말을 해야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얌전히 입을 다물었다. 가만히 있으려니까 이마 위쪽의 상처가 더욱 화끈거리는 거 같았다. 찢어진 상처도 불에 데인 것 같이 화끈화끈한 느낌을 주는 구나... 아프다.오빠는 내가 풀이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나와 시선을 마주치려 하며 다시한번 사과의 말을 건넸다."라디, 정말 미안해. 놀랐어? 미안... 내가 너무 한심한 거 같아서 더 화가 났어. 아픈 네게 화풀이를 하다니... 정말 저질이었어."오빠는 내가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후회하는 얼굴로 계속해서 사과를 해 나갔다. 나 때문에 저렇게 곤란해 하는 것이 몸둘바 모르겠을 정도로 신경쓰이면서도, 어쩐지 행복하다.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의.나는 아픈줄 모르고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내가 그만하라고 손을 들어 보이며 입을 열었다."괜찮아 오빠. 그냥 그럼 무슨말을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내 말을 듣고 나서야 오빠는 걱정스럽게 찡그리고 있던 미간을 살짝 폈다.나는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넘치는 애정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에게 조금 건넸다."정말로 다정한 오빠를 둬서 행복하네. 너무 좋아해... 정말 좋아."나의 '좋아'는 오빠에게 힘든 말임을 알면서도 굳이 입으로 꺼내버리고 만다. 역시 오빠는 나를 빤히 바라보며 무슨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는지, 입을 달싹거렸다.나는 그에게 도망갈 길을 알려주며 그의 어깨에 고개를 뉘였다."히히 창피하니까 오빠는 대답할 필요 없대도...""아니."그가 또박또박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휴리안이 곧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있었다. 그러나 한참동안은 말이 없었다. 그가 마침내 조금은 주저하는 듯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이제는...그래, 이제는 말을 해야겠어.""응?"오빠는 참혹했던 방금의 기분을 떠올리는 지, 조금 어두운 얼굴이 되어서 말했다."아까는 말야...라디...어이 없지만... 그래, 혹시 너를 다시 못보는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을 때 말이야."나는 오빠가 왜 또 그런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어서 나도모르게 오빠처럼 눈썹을 여덟 팔자 모양으로 찡그렸다. 그러자 오빠는 조금 웃으며 손가락으로 내 미간을 꾸욱 누르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계속해서 후회가 되는게 있더라고.""뭐였는데?"내가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져서 물었다. 그러자 그가 조금은 작아진 목소리로, 약간 울음을 참는 눈이 되어서 힘들게 말했다."나도 좋아해.""....어?"그가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조금 기울이고 다시한번 말했다."나도 네가 정말 좋아 라디... 네가 나를 좋다고 해 줄때 마다, 항상 바보같이 자신이 없어서 망설였었어.""오빠..."나는 바보처럼 오빠를 멍하니 바라보았다.휴리안은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행복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이해가 느린 자신의 여동생을 위해 다시한번 말해주었다."정말로 좋아하고 있단다, 나의 귀여운 여동생. 끝내 이 말을 너에게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었을 땐..."그는 조금 훌쩍거리며 나를 다시한번 강하게 껴안았다. 그바람에 나는 그의 표정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와 나 사이에 남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단단히 붙어있었으므로 그가 담담하게 말하는 마지막 말은 공기를 통해 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통해 진동으로 내게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네가 여기에 없다면, 쫒아가서라도 말해주려고 했어. '나도 좋아해'라고."그가 너털웃음을 터트리며 중얼거렸다."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던 걸까. 이렇게 좋아하는데."나는 조금 꿈속에 있는 기분이라,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오빠.'겨우 눈물을 참으며 그렇게 마음으로만 대답했다. 오빠들이 미리 준비해 놓았는지, 귀족의 자제들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한 마차로 혼란한 정문이었건만 제일 좋은 위치에 우리 가문의 마차가 서 있었다. 그곳까지 오빠에게 안겨서 가는 동안 나는 상처의 아픔이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음을 느꼈다. 뭐, 기분탓이겠지만. 사실 이제 상처따위 신경도 안쓰인다.우리가 보이자 마자 초조한 몸짓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오빠들이 뛰어왔다. 놀랍게도, 제르다민까지 말이다.나는 그 모습에 휘파람을 불었다."우와 이 고급 대우라니, 어쩌다 한번은 다칠만 하네."농담 반 진담 반을 섞어, 내가 괜찮다는 어필을 하기 위해 눈이 마주치자 마자 농담을 했다.그러나 헬리오 형제에겐 전혀 먹히지가 않아서 헬리오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진 채 입만 뻐끔거릴뿐이었다. 제르다민은 인상을 잔뜩 쓰면서 '재미없는 농담 하지 마라.'라고 핀잔을 주었지만, 내가 마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재빨리 마차 문을 열어 주었다.마차가 집을 향해 출발하자, 헬리오가 눈물이 가득찬 눈으로 내게 더듬더듬 물었다."라디... 괜찮니?"다들 나를 걱정해 주는 것은 기분이 썩 나쁘지 않았지만, 하나같이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문제였다. 나는 그냥 '난 괜찮아'라고 말하는 레퍼토리를 바꿔야 겠다고 마음먹고 씨익 웃으며 말했다."아니, 아파서 잠깐 기절할테니까 집에 다 오면 깨워줘."나는 '농담을 할 정도로 괜찮다'라고 말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거였지만, 나의 형제들은 모두 흠칫 해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민망해서 농담에 대한 해명을 해야만 했다."어.. 휴리안 오빠까지 그렇게 보면 어떡해. 아깐 괜찮다는 말좀 그만 하라며."내 뻘쭘한 말에 오빠는 깊은 한숨을 푹 쉬며 내가 머리를 바칠 수 있게 작은 쿠션을 머리 뒤에 대 주었다.제르다민은 짜증을 팩 냈다."재미 없는 농담 하지 말랬지.""하하 반은 진심이었으면 용서해 줄래? 아픈건 참을 만한데 좀 졸리네..."머리를 푹신하게 대니까 이제야 긴장이 좀 풀리는 듯 해서 힘이 쭉 빠졌다. 몸을 이완시키며 완전히 의자에 기대자, 윌로우가 매우 긴장되는 표정으로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중얼거렸다."형, 쟤가 지금 졸리다는건... 어쩐지 좀 위험한 신호같이 들리지 않아? 그... 추운데서 조난 당했을 때 자면 안된다는 것처럼.."헬리오는 그 말을 듣자, '무슨 그런 재수 없는 소릴... 경, 경우가 아예 다르잖아.'라고 동생에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매우 자신없게 들렸다.나는 이제 매우 나른해져서, 눈이 반쯤 감겨있는 상태였다. 제르다민이 인상을 쓰고 무표정으로 나에게 툭하고 말을 걸었다."...야 분홍아, 일단 자지 말아봐.""응? 아...왜... 졸린데..."나는 오늘 블록버스터를 직접 찍고온 몸이기에 매우 고단했다. 그리고 머리가 아파서 자는게 훨씬 나을 것 같았다.마차 안은 불안병이 성횡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씩 어설픈 상식이 섞여서, 내가 살짝만 움찔해도 모두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눈빛으로 날 지켜보았다. 휴리안이 제르다민을 바라보며 자신의 새로운 가설을 말했다."제르다민, 근데 아픈사람은 원래 자야지 낫는 거잖아? 자라고 내버려 둬도 괜찮지 않을까?""음...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마차 안에서 믿을만한 것 하나 없는데 ...그냥 자게 내버려 뒀다가 그게 정신을 잃은거고, 뭐...그런식으로 위험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요?""으윽... 정신 안 잃을게... 안 위험하게 할테니까 좀 자자..."나는 지금 못자는 스트레스에 더 수명이 깎일것 같은 느낌이다. 졸릴 때 못 자는 건만큼 기분 나쁜게 없다고... 피곤해서 돌아가시겠네.헬리오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나를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내 손을 만지고선 깜짝 놀라며 외쳤다."형님! 라디 손이 완전 얼음장 같은데요?""뭐?"이제 마차안에서 앉아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모두 머리를 살짝 숙여 구부정한 채로 내 주위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아...정신 사나워 미치겠네. 여기저기 다가오는 손길도 차마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기운이 쭉쭉 빨리는 것 같았다. 아, 이제 알겠어. 왜 학교앞에서 산 병아리는 일찍 죽는 건지.늬들처럼 잠 안재우고 주물럭 대서 일찍 죽은거야.나는 몽롱한 상태에서 잠을 구걸했다."어헝... 집에 이제 거의 다 왔을 텐데... 그냥 잠깐만 자자.. 집에 가면 또 베라랑 부모님이 엄청 걱정해서 괜찮다고 말해야 한다고... 손발이 찬건,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거겠지...."내 말은 씨알도 안 먹힌채, 이들의 불안병을 부채질했다. 제국의 수재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나의 남자형제들은 새로운 가설들을 잇달아 발표했다.제르다민은 겉보기 보다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았다. 그답지 않게 언뜻보면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냉정하지 않은 주장을 했다."피가 많이 빠져서 손발이 차가워 질 정도라면... 지금 손발...즉, 몸의 말단부엔 피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건가? 그렇다면 동상이랑 어쩐지 증상이 비슷하지 않아요? 거기다 손발이 차갑기도 하고말이죠... 그렇다면, 동상이 걸릴 환경. 즉, 추운곳에 있을 때 위험했던 건 똑같이 피해야 하니까, 라디는 재우면 안되겠네요."어질어질 몽롱한 가운데서도 알겠다. 이게 왕 개소리라는 것을. 제르다민은 당황하면 겉모습만 멀쩡하고 소프트웨어는 완전 훅 가는 구나.그러나, 이딴 헛소리를 똑같이 패닉상태인 다른 오빠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끄덕 끄덕거리며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원래부터 눈물이 많은 헬리오가 울먹거리며 나를 살짝살짝 흔들어 깨웠다."라디~... 일어나.. 지금 자면 죽을지도 모른대..."뭔소리야... 난 지금 속터져서 죽을지도 몰라...나는 결국 잠투정을 부리는 아이처럼 짜증이 뻗쳐서 외쳤다."자도 돼! 겨울산에서 조난당했을 때의 경우를 왜 여기서 대입...""도착했습니다!"마부가 바깥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에 내 말이 끊겼다. 아...도착해버렸구나.... 괜히 큰소리를 쳐서 머리만 욱씬거렸다. 어차피 오빠들 중 내 말을 듣고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디, 빨리 가자!"휴리안이 거의 뛰어 나가다시피 마차에 내린 다음 나를 안아들었다.오빠들이 호들갑스럽게 우르르 내려서 공작성으로 들어섰다.연락을 먼저 받았는지, 부모님과 베라와 주치의인 파호크씨까지 모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오! 세상에!! 라디! 신이시여... 라디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엄마가 부들부들 떨며 중얼거렸다.아빠도 '세상에 이런일이...'같은 말을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나는 엄마와 아빠를 한번씩 안아주며 또박또박 말했다."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저 외관보다는 괜찮은 상태에요."나는 그리곤 파호크 씨를 휙 바라보며 전투적으로 물었다."파호크씨! 출혈이 많은 환자가 자려고 하면 막아야해요?!"정말 별거 아닌건데, 화가 난다. 파호크 씨는 조금 당황해 하며 대답했다."그거야 상황에 따라 다르지요... 그 보다 라디올러스 아가씨가 괜찮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어서 치료에 들어갑시다."제르다민이 깔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지금 그런거 궁금해 할때냐?"'자기들은 여기 오는 내내 그걸로 토론에 토론을 거듭해 놓고?!'나는 집착을 놓지 못하고, 다시 한번 파호크 씨에게 물었다."학교에서 여기까지 오는 짧은 그 순간에 말이죠! 오빠들이 못자게 해서 피곤해 죽는 줄 알았다고요!"파호크 씨가 치료실로 가자는 몸짓을 하기에 한걸음 나서며 말했다. 그러나, 나는 쌩쌩해 보이는 말과는 다르게 한발자국 딛자마자 휘청하고 다리에 힘이 풀렀다."라디!"곁에 있던 휴리안이 바로 나를 잡아주었다. 아, 그러고 보니 난리통에 내 스틱이 없어졌잖아? 어휴 정신없어서 이제 알았네.내가 머쓱하게 중얼거렸다."스틱...잃어버렸다..."베라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울것같은 얼굴로 말했다."아가씨! 아까부터 정말 사소해서 미칠 거 같은 것에만 신경쓰시는데! 그깟 스틱정도는 제가 사 드릴테니까 어서 빨리 치료실에나 가세요!"옆에서 아빠가 똑같이 당황해 하며 나를 바라보다가, 베라의 말을 듣고 초조하게 끼어들었다."아, 아니 베라. 말은 고맙긴 하지만 스틱은 내가 사줘야지....정말이지 믿음직스럽구만."휴리안 오빠가 나를 안아들고 빠른 걸음으로 치료실을 향했다. 휴리안을 따라잡기 위해 파호크씨는 거의 뛰어야 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 후부터는 잘 기억이 안난다. 오빠에게 안긴채로 우리를 허겁지겁 따라오는 파호크씨의 모습을 멍하게 바라보다가 의식을 잃은 것 같다. 생각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던 모양이다.어쩐지 긴 꿈을 꾼것같다는 생각을 하며 천천히 눈을 뜨니까 침대 곁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두사람분의 실루엣이 보였다. 한 사람은 방 밖으로 도도도 뛰어가서 크게 외쳤다."라디 아가씨가 눈을 뜨셨어요!"목소리를 들으니 베라인가 보다.내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엄마였다. 얼굴이 빨개져서 울듯 말듯해 보였는데, 이내 활짝 웃으며 내 손을 잡아주셨다."라디! 이제 다 괜찮단다, 괜찮아. 아프진 않니?""네.. 네 괜찮아요."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마쪽이 욱신하고 당겼다. 만져보니 붕대가 감겨있었다.엄마가 설명해 주었다."응, 제대로 꼬맸단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잠깐 정신을 잃은 모양이야.""어우 그래요? 다들 엄청 걱정했겠네... 얼마나 잤어요?""하루동안.""엑! 그럼 지금 다음날인거에요? 어...학교 못갔네."엄마가 '학교는 휴교했어 라디... 폭발 사건 다음날 등교는 너무 가혹하잖니...'라고 대답해 주는데, 다른 식구들이 한꺼번에 모두 들이닥쳤다. 순식간에 내방은 시끌벅적해졌다. 저마다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걱정해주었기 때문이다. 우리집은 너무 개인플레이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인지, 뭔가 모이면 산만한 경향이 있다.벌써 저녁 때라서, 다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다. 옷을 갈아입으려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후덜거려서 베라가 무척 슬픈 눈으로 날 부축해 주었다. 하고싶은 말은 많은데 참는 것 같은 표정이다. 다정도 병인양 하구나 베라, 너의 숨은 팬인 나는 오늘도 두근거려.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니까, 비로소 내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파호크씨와 그 조수들은 생채기같은 자잘한 상처에도 일일히 반창고를 붙이고, 붕대를 감아놓았는지, 나는 거의 기워놓은 낡은 인형같았다. 물론 화룡점정은 머리의 화려한 붕대였지만.'병원을 배경으로 한 괴기 영화에 나올법한 비주얼인데?'전신거울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지만, 베라또한 참담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있었기에 굳이 말로 하진 않았다.베라와 팔짱을 끼고 드레스 룸을 나오자 문 바로 옆에서 휴리안이 서 있었다. 나는 예상치 못한 곳에 사람이 서있어서 깜짝 놀랐다."어우 깜짝이야! 오빠 왜 이런데 서있어.""너랑 같이 내려가려고 그랬지. 에스코트를 핑계로 안아나 볼까 해서 말이야."그가 나를 가볍게 안아올렸다. 베라는 나를 잘 부탁한다는 뜻으로 그를 향해 꾸벅 목례를 하고 멀어져갔다.나는 새삼스럽게 부끄러운 심정을 감추기 위해 그를 향해 능청스럽게 말했다."오빠, 레이디가 옷갈아 입을 때 바깥에서 그렇게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건, 어떻게 보면 참 묘한 상황인데 말이지."그가 내 말에 '하하'하고 깨끗하게 웃으며 '도대체 그런 건 어디서 배워온 거야...'라고 중얼거렸다.나는 미카엘이나 메디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오빠에게 물었다."오빠 미카엘이나, 왕자님께 무슨 연락 없었어? 둘은 괜찮대?""여전히 남 걱정만 하는구나."그는 조금 쓴웃음을 지었지만, 상냥하게 대답했다."왕자님은 멀쩡한 것 같았고, 병문안을 하러가도 되냐고 편지를 보내오셨어."어제 궁에 가자 마자 병문안 허락을 받기위해 편지를 쓴거야? 와...왕자님은 진짜 행동이 빠르네.휴리안이 나를 묘한 얼굴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음....병문안 오라고 전해드려?""어? 응! 당연하지.""그래."오빠는 덤덤히 그러마 하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음? 미카엘은?"오빠, 미카엘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몰라?""응. 미카엘공께는 별 연락 없었어."나는 미카엘이 또 혼자서 무슨생각을 하고 있을지 걱정이 되서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뭐하고 있을까. 괜찮으려나. 내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릴 마음이 없나?그러자 오빠는 또 손가락으로 내 미간을 꾹 누르며 조용하게 말했다."라디.... 내가 말했지. 네 걱정 부터 하라고.""어...음... 내 걱정 하고 있었는데?"오빠는 못말리겠다는 듯이 싱긋 웃고 나서 말했다."이렇게 불쌍하게 여기저기 붕대를 감고 말이지...""솔직히 이건 좀 오버야. 과대 포장 이라고."좀 더운 느낌이 들 정도라서 팔의 붕대를 콕 건드리며 그렇게 말했는데, 오빠는 내 이마쪽 붕대를 살짝 쓰다듬었다. 진지한 눈으로 내 상처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어제 네가 정신을 잃어서 얼마나 놀랐던지..."그가 나와 시선을 마주하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의 표정을 나도모르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다. 오빠는 나와 다시 눈을 마주친 다음 생긋 웃었다."귀여운 동생이니까 봐 줄게. 이렇게 한없이 걱정끼치는 말썽꾸러기지만 말야."그가 나를 한번 단단히 고쳐 안고 조금 부끄러운 듯이 한번 더 중얼거렸다."그래... 좋아하는 너니까."나는 그 달콤한 말에 가슴이 콱 옥죄는 것 같았다. 큰일이다. 오빠가 자꾸 이렇게 견디지 못할 말들을 해 주니까, 어쩐지 내 마음을 가만히 가두고 있질 못하겠다. 가슴에 흉폭한 나비들을 키우는 것 같다. 번식하고 번식해서 지금은 포화상태이다. 다들 나가고 싶어서 파닥파닥 날개짓이 소란스럽다. 아, 바깥으로 꺼내고 싶다. 꺼내면, 분명 편해질 수 있겠지?나는 날뛰는 나비들을 움켜잡고, 겨우겨우 웃으며 끄덕거릴 수 있었다. 사랑하는 휴리안. 정말로 내가 좋아? 오빠도 나를 좋아해? 내가 고백해도 그렇게 예쁘게 웃어줄래?그 때에도 그런 사랑스런 얼굴로 '나도 좋아해.'라고 대답해 줄래?나는 그렇게 대답해 주는 오빠를 상상해 보자, 거의 숨을 못쉴 것만 같았다. 오빠는 이런 내 상태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식당의자에 나를 조심스럽게 내려 주었다.닿아있던 휴리안의 체온이 사라지자, 어쩐지 추웠다. 저녁식사가 시작되었다. 요리사가 나를 위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따로 준비 해 주었다. 질기지 않거나, 탄수화물이 중심이 되는 종류였다. 당연히 나로서는 고마운 친절이다.아빠가 나를 지긋이 바라보고 계시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싱긋 웃으셨다."네가 안나라는 친구를 보호하려다가 그렇게 다친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단다."내가? 아, 그러고 보면 나도모르게 안나를 꼭 껴안긴 했지...근데 매번 생각하는 거지만, 저런 소식은 어디서 얻으시는 거지?내가 뭐라고 대답해야할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르다민도 그 소리는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말했다."허? 하여튼 제 주제를 모른다니까. 약해빠졌으면서 보호는 무슨 보호."아빠는 제르다민의 말에 '하하'웃으며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다."과연....나의 딸이다. 아주 용감하구나 라디."용감했다거나, 희생정신이 있어서 마음먹고 안나를 감싼게 아니었기에 조금 창피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기분 좋은 울림이었다. '과연 나의 딸'라는 말은. 예전에 그렇게 아버지의 인정에 목말라하며, 여길 좀 보라고 애쓰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뭉클한 것 같다.아빠는 미소를 살짝 씁슬한 표정으로 바꾸며 중얼거렸다."그러나,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마냥 칭찬하고싶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역시 공작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미숙한 마음일까..."아빠의 옆자리에서 엄마가 와인을 한모금 삼킨다음 무심한듯 대답했다."아빠라면, 아이가 다치는게 달가울리 없죠. 당연한 거예요."아빠는 엄마가 당신의 마음을 옹호한 것이 놀라우셨는지, 한참동안을 지그시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끝내 엄마는 아빠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묵묵히 나이프질만을 했는데, 내가 보기엔 쑥스러우신 것 같다.'그나저나 이제 정말 전쟁인건가? 전혀 실감이 나질 않는데...'나는 가슴이 답답해 지는 것을 느끼면서 아빠를 향해 물었다."아빠, 그런데... 정말 전쟁인건가요?"아빠는 내 말에 '하아~ 그게 말이다...'하며 조금 기가 막힌듯한 표정을 하셨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 엄마나 오빠들도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인지 모두들 아빠와 비슷한 태도였다. 뭐지?나는 어리둥절해서 다시 물었다."엥? 무슨 일이에요? 포제타 국이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나는 이제 바로 포제타가 쳐들어오고 전쟁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아빠는 질린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아니, 포제타가 일을 만든 건 맞는데 아주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시치미를 떼더라고.""자기네가 한 짓이 아니라고 했다고요?""아니. '저희가 훈련중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중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라고..."나는 기가 막혀서 입을 벌리고 말을 반복했다."'실수'라고요?...뭘 원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우리 나라가 우습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자기네 공격력의 과시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귀족들에게 겁을 준 것...?"내가 멍하니 일단 떠오르는 이유를 나열하니까 엄마가 호들갑스럽게 칭찬을 해댔다."어머나~ 우리 라디는 어쩜! 정치적 감도 좋구나~ 이렇게 어린데!"'윽! 너무 생각나는대로 말해버렸어.'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아닌 변명을 했다."와, 왕자님께서 전쟁관련일로 많이 말씀해주시다 보니.. 하하."아빠도 호쾌하게 웃으며 나를 치켜 올렸다."하하!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볼 때 라디는 분명 머리가 좋아. 아무튼간...뭐, 복합적인 이유로 보인단다. 아무튼 확실한건, 아직 바로 전쟁을 시작할 마음은 없다는 거지.""아직 그 쪽도 준비가 안된건가요?""'우리는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돼 있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같긴 하다만... 아직 아니겠지. 지금 우리 쪽에 숨어 있는 스파이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한데...내 생각엔 자기네 쪽에 붙을 만한 배신자를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하구나. 아, 아프고 어린 딸에게 너무 심란한 이야기를 한것 같군."아빠는 민망한듯이 뒷머리를 잠깐 만지고선 내게 빙긋 웃으며 다시 입을 여셨다."아무튼 너는 걱정할 것 없단다. 평소처럼 생활하면 돼.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진 않으니까 말이야."말이 끝나자 마자 휴리안이 온화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혹시 전쟁이 일어나도, 너는 아무일 없는 것처럼 생활하게 할거야. 오빠로서 그 정도는 해야 폼잡을 수 있겠지?"아빠는 장난스럽게 이마를 탁 치면서 '아이쿠! 휴리안 처럼 말해야 멋있어 보이는 거였는데 말이지!'라고 말했다.'그렇구나... 찜찜하긴 하지만 아무튼 전쟁이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란 거구나. 다행이다.'나는 평화로운 그 분위기에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칠 수 있었고, 방으로 올라가자 마자 미카엘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 보냈다. 내가 멀쩡히 상처가 낫는 중이라는 것, 너는 좀 놀란게 나아졌나는 것, 학교가 휴교중이라는 데 네가 우리집에 놀러올거냐는 것 등등. 정말 묻고 싶었던 것부터 자잘한 것까지 쓰니까 양이 제법 되었다. 사용인에게 다음날 아침에 바로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다.신경 쓰이던 것을 모두 해결하고 나니 이제야 편하게 침대에 누울 수 있었다. 비록 가만히 누워서 잠을 청하려니까 상처가 쿡쿡 쑤셔오기 시작했지만, 곧 잠 들 수 있었다.다음날은 약속했던 대로, 왕자님과 마리안이 병문안을 왔다. 마리안과 메디엘은 내 누덕누덕한 모습을 보자 둘 다 약속이라도 한 것 처럼 잠시 굳었다. 그리곤 마리안은 섬세한 내면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굵은 눈물을 방울 방울 쏟아내며 내 손을 잡았다."아아~ 라디 양... 이 애처로운 모습이라니요..!""아뇨, 이 모습은 우리집 의사선생님이 이김에 동정좀 마음껏 받아보라고 특별히 상처의 세배로 감아준 붕대 덕분이에요.""남들이 걱정할까봐 상처를 숨기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까지 마치 아침 제비꽃처럼 눈물을 자아내시네요!" 무슨 말이야.... 이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시적인데? 나는 나를 부여잡고 펑펑 눈물을 쏟는 공주님을 말릴 재간이 없어서 눈짓으로 메디엘에게 도움을 청했다.'도와줘요!'턱짓으로 마리안을 가르키며 메이데이를 전송했지만 왕자는 여전히 한손으로 턱을 괸채로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약간 찡그린 표정이었기에, 나는 이 건방진 골든리트리버가 또 무엇이 마음에 안드시는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이제 거의 내게 매달리다시피 하며 꺼이꺼이 우는 마리안을 질질 끌고 메디엘 앞까지 와서 힘겹게 물었다."왜 그러십니까 또.""...역시... 그때 치료원을 붙잡아야 했어요."메디엘이 시선을 내 머리쪽 상처에 고정하며 낮게 말했다. 나는 뜬금없는 그의 말에, 공주님의 눈물을 닦다가 멍청히 되물었다."네?""...마음이 아프네요."그가 짙은 푸른색의 눈을 살짝 내리깔며 그렇게 조용히 말했다. 아니, 다들 왜 이렇게 진지한거야?! 나는 그가 진심으로 그 때 치료원을 가로채서라도 내가 치료를 받게 해야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다시 말해주었다."저는! 정말 괜찮대도요?""과다출혈로 중간엔 정신을 잃었다고 들었어요.""음...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중간에 혈압이 올라서 쓰러진 것 같기도..."내가 그의 시선을 피하며 에둘러 말하자 그가 곧은 눈빛으로 내려다 보며 말했다."나는 그대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싫습니다.""하, 하지만 괜찮은 걸 괜찮다고 하죠...그럼.."그가 그게 아니라는 듯이 눈을 꾹 감고 고개를 가로저었다."괜찮지 않을 때에도. 괜찮을 때에도. 항상 저를 의지해 주었으면 합니다.""아... 저는..."그가 나를 안쓰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내 머리의 상처를 조심스레 쓸었다."물론, 당신이 그렇게 나를 신경쓰고, 달래려고 하는 행동의 원인은 저에게 있겠죠... 제가 약하니까.""아니에요! 왕자님이 뭐가 약하다고 그래요?!"내가 당황해서 그렇게 외치니까 메디엘은 쓴웃음을 지었다."지금도.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고 계시잖아요.""이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왕자님이 틀린 소리를 하시니까 그런거죠."왕자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희미한 웃음을 잠시 짓고나서 중얼거렸다."...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당신은 꽤 사랑스러워."그는 조금 고민하는 말투로 다시 입을 열었다."당신은 점점 내가 정신차리지 못할 정도로 멋진 레이디로 자라가겠죠.""과, 과찬이십니다만."자꾸만 휙휙 변하는 대화 주제에 내가 겨우 대답했다. 그는 정중하게 등을 굽혀 내 손등에 입맞춤 하고 나서 중얼거렸다."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드리죠. 앞으로 당신이 반할 만한 남자가 되겠다고."나는 갑작스러운 그의 접촉에 바보처럼 엉거주춤한 채로 서있었을 뿐이었다. 그가 그렇게 성대하게 말해주는 것이 어쩐지 과분하고, 쑥스럽고 솔직히 조금 떨렸다. 어떻게 대답해야지 옳은 것인지 잘 분간이 안돼서 더듬거리며 말했다."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과분하신 말씀...."그가 사양은 듣고싶지 않다는 얼굴로 내 말을 잘라먹었다."당신이 어리광 부리고 약한소리를 하고싶어질 만한 남자가 될겁니다. 과분하다고 도리질을 하는 것은 그때가서 하시죠."그는 어느새 거만한 재규어가 되어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당신 상태를 보니까, 저희가 병문안을 너무 빨리 왔네요. 그대는 좀더 얌전히 쉬는 게 좋겠어. 마리안, 우린 이만 집에 가자꾸나."그가 마리안을 슬쩍 쳐다보며 말했다. 벌써 가는거야? 정말 한바탕 토네이도같네.마리안은 한발짝 물러나서 숨죽이고 바라보고있다. 발그레해진 얼굴로 크게 끄덕이며 내게 말했다."거봐요,라디 양! 우리 오빠는 꽤 멋지다니까요?!"오빠인 메디엘 본인 앞에서 대놓고 내게 그렇게 말하자, 메디엘이 '그건 또 무슨 소리야?!'라며 창피한 듯이 마리안의 입을 막았다.방금 온 로얄 남매가 또 금방 간다는 소식에 우리 가족이 배웅에 나섰다. 휴리안이 우아하게 절하자, 메디엘이 그 앞을 무뚝뚝한 표정으로 지나가다가 중얼거렸다."이렇게 둔한 사람에게 선수를 뺏겼다니, 자존심이 상하네요."휴리안이 다시 등을 곧추세운다음 빙긋 웃으며 되물었다."...네?"메디엘은 알려줄 마음이 없다는 듯 한숨을 쉬고선 대답했다."...지지않겠다는 말입니다."그리고 나서 그는 오래 대화할 마음이 없는지 휙 마차에 올라타 버렸다.반짝거리는 두 레몬빛 금발이 떠나자, 어쩐지 집안이 어두워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엄청난 존재감이라니까, 샹드리에 같은 느낌이야.그들이 떠나고 난 뒤엔, 나는 모처럼 생긴 이 휴일을 어떻게 보낼까 살짝 고민했지만,집에서도 다들 내 얼굴을 보면 '안정, 안정.' 마치 내 이름이 안정인것처럼 난리였기에 나는 뒹굴뒹굴 하며 책이나 보았다.저녁까지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 '근데 왜 미카엘에게서 답장은 안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인이 다가와 내게 편지를 건네주었다.'오! 다행이다. 답장은 쓸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지?'화려한 편지봉투를 약간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열었다. 큰 편지지에 꾹꾹 눌러썼다는 인상이 강한 글씨체로 이렇게 써있었다.’응. 라디, 글씨 잘쓰는구나?’ 허허벌판 넓은 편지지에 달랑 저 한줄이었다. 나는 당황해서 혹시 뒷면에 써있나 뒷면도 보았다. 당연히 아무것도 써있지 않았다.....장난하냐? 뭐가 ‘응’이라는 거야! 뭐에 대한 ‘응’인데!! 괜찮냐는 거에 대한 대답이야? 병문안 오겠냐는 것에 대답이야? 아님 그냥 '그건 그렇고.'란 의미에 ‘응’이야? 진짜 죽고싶냐...이게 뭐야 내가 얼마나 길게 써 보내줬는데. 권태기에 들어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장문에 보내는 답문입니까 미카엘 씨? 내 온갖 걱정에 대한 대답이 진정 글씨 잘쓴다는 겁니까?'어휴...'나는 진정하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미카엘이 나를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편지를 보내기 전보다 더 불안한 마음이다. 아무래도 내일 미카엘이 사는 하르콘트 백작의 성으로 가봐야 겠다. 아침이 되자마자 나는 미카엘의 집에 가기 위해 밑밥을 깔기 시작했다. 그냥 외출을 한다고 하면, 모두들 반대할 것임이 분명했으므로.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시국에 정신없이 바쁘신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아~ 하루 동안은 꼬박 침대에서 기절해 있던 데다가, 어제도 하루종일 집에만 있었더니 어쩐지 갑갑해요.”아침을 먹으며 시무룩하게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는 쓴웃음을 지으며 나를 달래는 말을 했다.“어쩔 수 없잖니... 몸이 안 좋은 것을....”엄마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나를 조금은 딱하게 보시는 듯 했다. 나는 조그만 목소리로 엄마를 졸랐다.“잠깐 마을로 산책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나의 말에 예상대로 휴리안 오빠가 부드럽게, 그러나 더 이상 조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반대를 표했다.“지금 네 상태로 산책은 무리란다.”나는 단념하겠다는 한숨을 쉰 다음 대안을 제시했다. 사실 처음부터 이걸 말하려 했었다.“그럼 마차를 타고 마을 주위만 한 바퀴 도는 건 어떨까?”오빠는 다행히 이 제안에 대해선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았다. ‘흠...그 정도야?’ 라는 얼굴로 잠깐 위를 보다가 중얼거렸다.“잠깐 바람 쐬는 거야 괜찮아 보이기는 하다만... 오늘 내 일정이...”아빠의 대리를 맡느라 오빠는 갑자기 내려진 휴교령에도 바쁜 스케쥴이었다. 아마 내 드라이브에 동행하려고 시간을 낼 방법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과한 친절일뿐더러 오히려 내 계획상 곤란하다. 물론 고맙긴 하지만 말이다.“아냐~ 무슨 가만히 마차에 앉아 있는 건데도 보호자 노릇을 자처하려고 그러시나. 황공하게 시리.”오빠는 내 말에 살짝 쓰게 웃었다. 나는 너무 강하게 거절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조심스레 살폈다. 그는 그저 ‘음.... 그래. 기특하기도 하지. 씩씩하구나.’라며 물을 한모금 마실 뿐이었다. 나 지금 허락 받은 거지? 계획대로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나를 걱정해주는 가족들을 속이는 것은 역시 마음이 편치 않다. 바보 미카엘, 너 때문이잖아. 뭐하고 있는 거야.나는 죄책감이 일어 가족과 눈을 잘 맞추지 못한 채로 아침을 끝냈다. 식사가 끝난 이후에 오빠는 마부인 폴 아저씨께 나를 데려다 주며 마중을 해 주었다. 폴 아저씨는 우리 가문의 마부 중에선 가장 친한 아저씨이다. 요즘엔 주로 휴리안 오빠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그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집에서 일해 왔다고 하는데, 40대 초반정도로 보이는 그는 다정하고 한눈에 보기에도 프랑디아 가문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다. 나를 꽤 귀여워 하셔서 가끔 사탕을 준다.마차가 출발할 때까지 오빠는 계속 보고 있을 셈인지 자리를 뜨지 않았으므로 나는 아저씨에게 목적지를 말할 여유가 없었다. 결국 출발할 때는 오빠에게 손을 흔들며 별말 없이 마차에 타야 했다.‘으엉 아저씨한테 미카엘네 집에 데려다 달라고 졸라야 하는데...’마차가 그냥 출발하자 조금 초조한 기분이 들었다. 다행히 우리 성의 정문이 열리는 것을 기다리느라 마차가 잠깐 멈춰 섰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마차의 창문으로 몸을 거의 반 정도 꺼내서 아저씨를 불렀다.“아저씨! 폴 아저씨! 저기요, 잠깐만 하르콘트 백작님 성에 들르면 안 될까요?”“네?”나는 그냥 마부석에 있는 그와 대화를 나눌 셈으로 몸을 그렇게 길게 빼내고 소리친 것이었는데, 아저씨는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마부석에서 훌쩍 내려와 나와 얼굴을 마주해 주었다. 음... 죄송스럽기도 하지.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게 되물었다.“아가씨, 하르콘트 백작님의 성이요? 몸도 안 좋으신 분이 갑자기 왜...저는 그냥 마을 한 바퀴만 돌려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폴 아저씨는 마음이 약한 편이었으므로 대놓고 조르기로 마음먹었다.“아저씨, 제 친구 미카엘 아시죠?”“아, 그 분을 만나러 가시는 거군요. 하지만.... 좀더 건강해지신 다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아저씨의 시선이 내 이마 위의 붕대로 향했다. 나는 울상을 지으며 아저씨의 마음을 흔들으려 애썼다.“아저씨~ 저 정말 멀쩡한데 파호크 씨가 괜히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감아놓은 거예요~”“하지만 그래도 파호크 씨는 대단히 솜씨좋은 의사선생님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감아주신 거겠죠...”아저씨는 조금 곤란하다는 얼굴이 되긴했지만, 여전히 내가 미카엘네 가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는 것 같았다. 생각 보다 쉽게 내 부탁을 들어주진 않는 구나 폴 아저씨...나는 할 수 없이 거대한 뻥을 치기로 했다.“아저씨, 미카엘이 원래는 고아인거 아시죠?”“..아, 네...뭐.”내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뜸 그렇게 말하자 아저씨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하는 표정으로 머뭇머뭇 대답했다. 나는 비참한 목소리를 내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속삭였다.“사실... 미카엘네 부모님도 폭파사건으로 돌아가셨다나 봐요. 근데 그의 친구인 제가 또 폭파로 다치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제대로 밥도 못 먹는 것 같아서...저는 정말.. 걱정이 되어서...”물론 왕 뻥이었다. 그야...그가 고아인거 부터가 잘못된 정보이지 않은가. 미카엘의 부모는 먹고 살려고 그를 노예로 팔았다. 폭파사건은 무슨, 아마 지금도 가난하긴 하지만 멀쩡히 살아있을걸?음... 후에 미카엘이 생각해보니까 열받아서 그들을 죽이지만 않았다면 말이다.아마도 살아있겠지. 미카엘은 열받고 자시고 할 정도로 그의 부모가 그를 버렸다는 사실에 크게 연연해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아무튼 내가 그를 진심으로 걱정해 하는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폴 아저씨를 상대로 거짓 연기는 잘 할 수 있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100% 믿고서 크게 동정의 빛을 보냈다.“저런....세상에...”“제가 멀쩡히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면 미카엘도 조금은 안심할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부모님이나 오빠들은 걱정이 심해서 안 보내 줄 것 같더라고요. 아저씨... 거짓말이 나쁘다는 건 알지만... 부탁드릴게요.”폴 아저씨는 내가 고개를 꾸벅 숙이며 부탁을 드리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고 내게 똑같이 고개를 숙였다.“아가씨, 마음이 여리기도 하셔라. 본인도 힘드실 텐데요... 어쩔 수 없죠. 대신 잠깐만 있다 나오셔야 합니다.”그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듯이 눈썹을 서로 기대게 만들며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 아 다행이다. 나는 그제야 만면의 웃음을 띨 수 있었다. “와! 정말 고마워요 폴 아저씨!”아저씨는 알았다는 표시로 모자를 살짝 들었다 놔 보인다음 다시 마부석에 올라탔다. 정말로 다행이다. 미카엘을 만날 수 있게 됐어.‘.....근데 집에 있으려나? 이 빨간 망아지.“신나게 달리는 마차 안에서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으... 아예 문도 안열어 주는 건 아니겠지? 미카엘네 집은 또 처음이네. 어떻게 하고 살고 있으려나.’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 금방 폴 아저씨가 도착했다는 기척을 냈다. 창밖으로 내다보니, 하르콘트 백작의 성은 우리 집만큼 크진 않았으나, 충분히 위엄 있었고, 충분히 가문의 역사를 들어내 보이는 듯 했다.우리가 정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 위해 잠깐 정차하자 안색이 좋지 않은 문지기가 당황하면서 헐레벌떡 우리 마차로 달려왔다.“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올 사람이 없는 데? 이거 참...”폴 아저씨는 프랑디아 가문의 마부이니 만큼 프라이드가 높았다. 그가 어이없다는 한숨을 쉬었다. 보통은 약속 없이 찾아오더라도 문부터 열어주고 볼 만큼 프랑디아의 마차는 무적의 프리패스를 자랑하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여기는 미카엘의 집이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가기 때문에 폴 아저씨가 가문의 문장이 보이지 않느냐며 문지기에게 따지기 전에 창문을 열고 말했다.“저기, 미카엘의 친구인 라디올러스 프랑디아 라고 하는데요.”안색이 파리한 문지기는 내 분홍머리를 보자 군말 없이 바로 달려가서 문을 열어주었다. 어쩐지 조금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 같았다. 뭐지? 분홍색 머리는 처음 봐서 깜짝 놀랐나...아직 닫지 않은 창문으로 바람과 함께 폴 아저씨의 ‘뭐지? 저녀석?’ 하는 중얼거림이 흘러 들어왔다. 역시 문지기의 행동이 이상해 보이는 건 나뿐만이 아닌가 보다.마차가 정원을 가로 질러 성의 문 앞에 당도했다. 그러나 아무도 마차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뭐야? 어떻게 손님을 맞는 하인 하나가 없지? 뭐, 보나 마나 미카엘 녀석때문이겠지.나보다는 폴아저씨가 더 당황한 것 같았다. 보통은 자신이 마차를 세우면 성의 하인들이 달려나와 손님을 맞고 마차의 문을 열어주고 성으로 안내하기마련인데, 아무도 그런사람이 없으니 자신이 직접 내려와 마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가 당황해서 나를 마차에서 내려주며 말했다.“이,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여기 사람 사는 곳 맞나요? 미카엘 공은 이사하신 거 아녜요?”나는 또다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거짓 웃음으로 둘러댈 수 밖에 없었다.“하하~ 미카엘네가 요즘 금전상황이 안좋아서 하인을 많이 줄였다더니 정말인가 보네요. 가여운 녀석.”이 거짓말은 잘 먹히지 않은 것 같지만 폴 아저씨는 그러려니하고 떨떠름 하게 웃어보였다. 하긴 명색의 백작가인데 이런 으리으리한 성은 유지하면서 손님맞는 하인하나가 없는 게 말이 되냐. 위신이 있지.나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손을 흔들며 안절부절 못해하는 폴 아저씨를 떠밀어 보냈다. 아저씨는 마부석에 올라 내게 말했다.“아가씨, 딱 한 시간 뿐이에요. 그 후에 다시 모시러 올 거예요.”마부는 약속이 끝날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릴 때도 많지만, 하인이 한명도 보이지 않는 이 성에선 있을 곳도 마땅치 않은지, 폴 아저씨는 잠시 딴 곳에 있을 생각인가 보다. 나도 그편이 더 마음 편하다. 활짝 웃어 보이며 그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보였다.‘자, 이제 이 성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데 말이지.’나는 새로 얻은 스틱으로 현관바닥을 탁탁 짚으며 거대한 문을 마주했다. 어이없게도, 원래는 나무였던 문에 격자무늬 철창을 새로 덧댄 기색이 역력했다. 이것도 미카엘이 성을 차지한 다음 한 짓이겠지. 어이없는 녀석, 요새를 만들려고 했냐.문고리에 살짝 손을 대 보았다. 역시 굳게 닫혀있었다.‘안에 있긴 한 건가?’이번엔 현관에서 멀찍이 물러나서 성의 창을 바라보았다. 엇, 이층 창문하나가 열려서 커텐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다. 집에 있는 거 같은데?나는 확신하고 다시 격자무늬 철창에 다가갔다.“야~ 미카엘~ 문 열어~”우선 크게 소리치고 나서 잠깐 기다려 보았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소란스럽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을 해 냈다.스틱을 철창사이에 넣고 두들겨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격자무늬의 네모난 한칸안에 스틱을 넣어 사방팔방으로 스틱을 부딪치면, 키잉킹킹킹 하고 마음이 흡족해 지는 소리가 났다. 어쩐지 스트레스까지도 풀리는 느낌인데?나는 조금 신이 나기 시작했다. 여유롭게 스틱으로 철창을 쳐대며 소리쳐 그를 불렀다.“야아~ 미카엘, 놀자~”그가 얌전히 집에 있는 거 같으니까, 긴장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서 키득대며 장난스럽게 외쳤다.그러나 아직도 그는 묵묵부답이라서 한번 더 외쳐보기로 했다.“미카엘~!! 노~올...”순간 문이 벌컥 열려서 하마터면 문에 코를 맞을 뻔했다.문을 연 사람은 예상대로 미카엘이었다. 급하게 뛰어 내려왔는지 조금 숨이 빨랐다. 나는 반가워서 그에게 다가가려다가 잠시 멈칫하는 수밖에 없었다.그는 맨발에다가 가운 차림으로, 분명 안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듯했다. 짙은 남색의 고급스러운 광택으로 빛나는 그 가운은 미카엘이 뛰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이 앞섶이 느슨해져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그 짙은 남색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붉은 빛을 띠는 그의 머리도, 약간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삼킨 다음 굉장히 놀란 얼굴로 나를 보며 중얼댔다.“라디?....응? 라디라고?” 미카엘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우지 못하며 멍하게 얼굴을 문질렀다. 이 그답지 않게 맹한 표정과 흐트러진 머리, 무엇보다도 칠칠치 못한 옷차림으로 유추하자면.'쳐주무시다 나오셨어요? 아주 꿀잠을 주무셨나봐요?'그가 멀쩡해 보여서 안심이 되는 동시에 지난날의 고민이 억울해 지기 시작했다. 태평하다 못해 깊은 울화를 불러일으키는 그의 꼬라지였다. 그는 나를 집안으로 들여보낼 생각도 안하고 문가에 한쪽 팔을 짚고 기대어 여전히 피곤이 가시지 않는 것처럼 눈을 꾸욱 꾸욱 누르고 있었다. 결국 그의 안내를 포기한 나는 투덜투덜 대며 그가 문을 짚고 있는 팔 밑으로 입성을 결정 했다."어유~ 푹 주무셨나보네요 도련님. 야, 지금이 몇 신줄 알아? "그냥 고개를 안숙이고 들어가도 왠지 그의 팔에 내 머리가 안 걸릴 것 같았지만, 자존심상 살짝 고개를 숙이고 그를 통과했다.드디어 볼 수 있었던 그의 집 풍경은 묘했다. 생각보다 고전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하르콘트 백작 가는 오랜 역사를 자랑했으므로 그 점을 부각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꾸몄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은한 광택을 자랑하는 마호가니 가구들, 채도가 낮은 중후한 느낌을 주는 벽지, 화려하지 않지만 웅장한 회화. 그러나 이런 것이 묘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다. 백작가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성이 미카엘에게 너무 잘 어울려서 기분이 이상한 것이다. 마치 미카엘에게 넘기기 위해서, 미카엘에게 성씨를 뺏기기 위해 하르콘트 가문은 400여 년 전부터 피를 이어온 것만 같았다.하르콘트 가문 사람들이 듣는 다면 분명 노발대발 할 만한 무례한 생각이지만 말이다.내가 성 내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동안에도 그는 한마디도 입을 떼지 않고 그 포즈 그대로 문가에 기대고 있다가 이윽고 문을 천천히 닫았다. 그 소리에 나는 집을 구경하는 것을 멈추고 빙글 돌아 그를 바라보았다.그는 닫은 문에 등을 기댄 채로 나를 지긋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단정치 못한 가운 사이로 보이는 쇄골의 선명한 흉터. 내가 새긴 것이다. 나의 어린 치아로 깊고 강하게.내가 그 상처에 살짝 드는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 이 성에 왜 왔는지를 상기해 냈다.’응. 라디, 글씨 잘 쓰는 구나?’...무슨 생각이었어 너. 그렇게 우는 얼굴로 내게서 도망가 놓고. 장문의 편지에 이런 답변이라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고. 그래놓고서 이렇게 늦잠자다가 기어나와?나는 한쪽 눈썹을 찡그리고 그에게 도전적으로 물었다."미카엘. 너 답장을 그렇게 보내는 게 어디 있어. '응'이 뭐야 '응'이!"그는 마치 '답을 해야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정수리를 문에 대고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렸다. 잠시 말없이 고개를 꺾은채 천장을 바라보던 미카엘은 이윽고 내게로 시선을 맞추고 표정 없이 중얼거렸다."네가 쓸데없이 몸은 괜찮냐느니, 잠은 잘 잤느냐느니, 식사는 제대로 했느냐느니 너무 당연한 것만 물어서 그냥 통틀어서 '응'이라고 한 건데."허어? 뭐라고요 미카엘씨? 미카엘씨, 저 지금 당신 페르마인줄 알았잖아요. 네? 페르마시냐고요. 너무 지당한 결과이므로 지면관계상 적지 않았냐고요. 저는 당신 사후 3백50년동안 속 터짐에 앓겠네요.내가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해야 할지 선뜻 말을 못 꺼내고 입을 달싹거리는 모습을 그가 가늠하는 것 같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음. 역시 오늘 미카엘은 조금 이상한데. 나는 따지려던 것을 그만두고 침착해지기로 했다. '저 아이는 오늘도 위태로워' 그런 기분이 들었다."...미카엘. 정말 괜찮은 거 맞아?"내가 조심스레 묻자 그가 잠깐 멈칫하더니 웃음을 터트렸다. 가끔 짓곤하는 소년같이 맑은, 그런 내가 좋아하는 미소가 아니었다. 위험하고 나이답지 않게 속으로 무엇을 품고 있는지 예상할 수 없는 웃음이었다. 별 이상한 소린 다 듣겠다는 듯이 웃어젖히던 그는 한쪽 입 꼬리를 올리며 낮은 목소리를 퍼트렸다."나는 항상 괜찮아."오늘 이상하게 그의 모습이 유난히 불안해 보인다고 생각하며 작게 중얼거렸다."여전히 거짓말은 참 능숙해.""..."그는 그 말까지 부정하진 않았지만, 어이없는 소리 말라는 뜻으로 피식 웃으며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정돈했다. 그러나 나에겐 그 행동조차 뭔가 초조해 보였다.미카엘은 이제서야 문가를 떠날 생각이 들었는지 가볍게 등을 문에서 뗐다. 그리곤 일부러 보란 듯이 문을 '찰칵'소리가 나게 잠갔다. 빙긋 웃음을 지어 보이며 나를 천천히 돌아본 그는 유혹하는 것처럼 나른하게 말했다."근데...우리 집엔 왜 온 거야 라디?"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야수처럼 눈을 빛내며 내게 바짝 다가왔다. 먹이를 노리는 표범과 같이 느릿느릿하게 하지만 위협적으로 내 볼을 쓸어내렸다. 그가 달콤하게 나를 유혹하는 소리를 냈다.“초대하지도 않았는데.”그가 싱긋 웃으며 볼을 쓰다듬던 손을 내 목덜미로 내렸다. 나는 볼멘소리로 말했다.“걱정 돼서 왔지 그럼.”그는 내 말에 아랑곳 하지 않고 내 쇄골을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말을 이어나갔다.“이렇게 붕대 투성이로... 약해 빠져서 말이지. 잘도 벌거벗고 있는 남자와 단둘이구나.”‘갑자기 미카엘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시답잖은 양아치 흉내을 내잖아? 어울리지 않게...’나는 멀뚱히 서서 ‘그가 나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하고 생각하느라 미카엘이 하는 행동은 내버려 두었다.미카엘은 내가 그의 말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천천히 고개를 숙여 내 볼에 살짝 키스했다. 응? 갑자기 뽀뽀라고? 정말 왜 이러지....내가 그의 평소 같지 않은 행동에 조금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자 그가 히죽 웃었다. 하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입 꼬리가 조금 떨리는 것을. 지금 미카엘은 신사도와 정반대의 길로 질주하는 행동을 거듭하고 있지만 어쩐지 안쓰럽기까지 하다.미카엘은 느긋해 보이는 목소리를 냈다.“라디. 너무 어려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넌 지금 큰일 난 거야.”“...”나는 미카엘을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그는 내가 말이 없자, 농락하는 말을 이었다.“아니면, 다리의 힘이 풀려서 도망을 못 치겠어?”나는 그의 이 말에 드디어 그가 내게 정말로 원하는 것을 깨달았다. 가여운 미카엘. 난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미카엘. 너, 나를 위협하고 있네.”그는 표정으로 심경을 들어내 보이진 않았지만 반걸음 정도 내게서 떨어졌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아까와 다르지 않은 요염한 미소로 되물었다.“위협? 농락이겠지.”이번엔 내가 반걸음 그에게 다가서며 물었다.“내가 도망쳤으면 좋겠어?”미카엘은 잠시 입을 다물었으나 곧 내 말을 받아칠 질 낮은 농담을 찾아냈다.“뭐, 도망치는 사냥감을 쫓는 걸 좋아하긴 하지. 남자든 여자든.”‘도통 속내를 들러내려고 하질 않는구나.’내가 짧게 한숨을 쉰 다음 손가락으로 1을 만들며 말했다.“첫째로, 넌 소아성애자가 아니야.”그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뭐, 즐기진 않지만 그렇다고 절대 싫은가 하면... 글쎄? 알다시피 남자란 원래 그렇잖아?”‘우웩 무슨 헛소리니.’내가 인상을 찡그리자 그가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었다. 역시 일부러 저질흉내를 내고 있어.“둘째로, 네가 음... 뭐랄까... 아, 아무튼 뭔가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단숨에 해치우지, 이런 틈을 줄 리가 없어.”“...”그가 미간을 살짝 구긴 채로 나를 바라보았다. 입은 꾹 다물고 있다. 겨우 열한 살, 그것도 친하게 지내던 여자아이에게 잔혹한 짓을 하려는 저질 양아치를 흉내 내면서 겨우 한 짓이 볼에 키스이다. 이건 어설프다기 보다 슬프다.“셋째로.”내가 다시 입을 떼자 그가 나를 매달리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그만 말했으면 좋겠니? 미카엘. 정말 이런곳에서 묘하게 서투르구나. 나는 말을 이었다.“음...그냥, 내 느낌이 그렇거든. 너는 내가 도망가 줬으면 하는 눈을 하고 있어.”미카엘이 이젠 변명하려는 것을 포기했는지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나는 고개를 숙인 그의 표정을 살피기 위해 그에게 바짝 붙었다. 미카엘은 내가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 싫은지 조금 고개를 돌렸다.“미카엘, 나는 그런 기분이 들어. 넌 지금 내가 도망가길 원하지만.... 그치만 지금 여기서 도망가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약한 눈을 하고 있는 걸 본적이 없거든.”내가 오른손으로 그의 소맷부리를 잡았다. 그는 그것마저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다른 쪽 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렸다. 내 얼굴을 보기 싫은 건지, 내가 그의 눈이 약해보인다고 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그가 괴로운 것 같은 목소리로 겨우겨우 말했다.“그냥... 그냥...가주면 안 돼?”“싫어. 나도 하나쯤은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둬.”그가 눈을 가린 손을 천천히 내린 후에 한참동안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다.“...괴로워서 이제 너랑은 그만 만나는 게 내 신상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그가 이제야 말할 기분이 들었는지 고백하듯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조의 웃음을 띠며 회상했다.“아, 그래 사실은 말이지 네가 내게 위협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은 아주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 그래서 한번은 도망쳤었어. 그래, 그 비오는 날. 그 감옥에서.”“그때 역시 나를 아예 안 보려고 했던 거 맞구나.”예전일인데도 조금 서운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네가 나의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게 위험신호라고 여겼어. 그래서 더 얽매이기 전에 도망가려고 너희 성에서 빠져나갔지...”그가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힘든 것처럼 인상을 찌푸렸다.“몇 년 만에 바깥으로 나와서 거센 비를 온 몸으로 맞으며 거리를 걷는데 말야.... 진짜 웃긴게 몇 년만에 거리로 나와 걸어보는 거였는데... 방금 헤어진 네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나는 그의 소매를 잡고 있던 손을 내려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조금 차가웠다.“그 조그마하던 여자아이는 점차 나이를 먹고 커가면서 나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났어. 자기가 자기발로 나온 거면서. 그래서...그래. 조금쯤은 더 시간을 같이 보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너를 찾아갔어.”그가 멍청한 생각이었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었다.“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그 때 그냥 도망치는 게 정답이었는데...”나는 그가 나와의 만남을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아서 슬퍼졌다.“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랑 만나서 뭐가 얼마나 끔찍해 졌기에 그런 서운한 말을 하는 거야....”나는 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일단 도망가진 않겠다는 뜻으로.그가 힘없이 바람 빠지는 것처럼 피식피식 웃으며 대답했다.“라디. 나는 원래 잠이 별로 없어.”미카엘의 뜬금없는 말에 설명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이 생각해도 본인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너 어제는 그나마 깨지 않고 잘 자는 것 같더라.”그가 슬픈 얼굴로 나를 잠시 바라본 다음 고개를 푹 숙였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잠깐 입을 다물어야 했다. 응, 그렇지 난 그저께는 별로 아파하지 않고 잘 잤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는거야! 뭐야. 뭐지? 너 설마....내가 믿기지가 않아서 입을 뻐끔거리며 더듬더듬 말을 시작했다."뭐, 뭐야. 너 설마 내가 자는 사이에 내 방에 들어왔어?"그는 슬픈듯이 미간을 찌푸리며 끄덕거렸다. 미카엘이 낮은 목소리를 냈다."그래.. 정말 어이가 없지 않아? 라디... 난 이런 짓까지 하고 싶지 않아.... 괴로워. 멈추고 싶어..."이상한 상황이었다. 분명 스토커틱한 짓을 한 것도 미카엘이고, 피해자는 나인데 미카엘이 울것만 같았다. 마약환자가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처럼 그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라디, 네가 다치고 나서 난 정말 이대로는 안될 것 같았어. 내가 말 했었지? 나의 생사 여부가 남에게 달린 건 질색이라고. 그래서 자진해서 길드도 내다 팔기까지 했다고 말했었잖아. 그때와 똑같았어. 나의 생사여부를 네가 틀어쥐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그가 그의 목줄을 내가 잡고 있다고 말했다. 미카엘은 그 사실이 조금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했다. 회색빛이 도는 옅은 하늘색 눈동자로 나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카엘이 사람과 사귀는 것에 서툴러서라고 생각한다. 그의 생사여부를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닐까.'좋아하는 사람이 조금 다친 것 정도로 이렇게 괴로워하다니...사실 미카엘 만큼 마음이 여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더욱 그런걸지도 모르지. 좀더 다른사람도 사귀어보면 좋을 텐데 미카엘... 외롭지 않니?'나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입을 열었다."미카엘, 진정해. 너의 목숨을 내가 쥐고 있다니, 그건 네가 너무 상냥해서 그런 기분이 드는거야.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다치면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그가 여전히 인상을 풀지 않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어찌됐던 난 이런거 싫어. 네가 나에게 이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고 집에 가자마자 고민했어. 어떡하면 네가 쥐고 있는 내 목줄을 끊을 수 있을지. 그런데 밤이 되면 네가 아무도 보살펴 주지 않는 가운데 자다가 죽기라도 할까봐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아니 글쎄, 그렇게 자다가 픽 죽을정도로 심한 상처가 아니었대도."그가 내 생각을 비웃었다."그런건 모르는 거랬지. 게다가 그렇게 침착하게 생각할 수있었다면 네가 자는 모습을 날이 샐때까지 멍하지 지키고 서있지도 않아.""밤새 있었다고? 미카엘....."그가 거의 분개 하며 소리쳤다."젠장! 이딴 짓은 그만 두고 싶어! 힘들다고! 낮에는 어떡하면 멀리 도망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밤에는 잠든 네 곁을 몇시간이고 지키고 있지않으면 성에 안차! 미친거 같다고! ....정말 힘이 들어....."나와의 관계 때문에 미카엘이 이렇게나 힘들어 하는 것이 슬펐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해서 지금 그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미카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어린 아이가 친구랑 놀다가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한다고 해서 아예 친구를 못만나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듯이.내가 담담하게 소리를 내려 애쓰면서 입을 열었다."미카엘.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항상 괴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잖아?"내 말에 그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우리, 같이 피크닉 간 것도 즐거웠고... 너랑 여기저기 놀러다닌 것도 참 즐거웠어. 네가 수를 놓아준 손수건은 내 보물이야... 너는 괴로웠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네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내게 큰 위안이었어."그는 이제 살짝 미간을 찡그리면서 내 말을 듣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런 대꾸가 없었기에 나는 그에게 물었다."미카엘. 너는 별로 즐겁지 않았어?"내 물음에 그는 대답을 고민하는 것처럼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우는 것처럼 대답했다."...즐거웠어. 굉장히."그렇게 대답해 줘서 다행이다. 만약 여기서까지 아니라고 답했으면 큰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무척 슬펐을테지. 나는 그에게 천천히 말을 걸었다."미카엘. 세상엔 조건 없이 상황이 좋아지는 법은 없어. 항상 trade-off일 뿐이야."그가 힘없이 그게 무슨 말이냐는 표정을 했다. 나는 뜻을 설명했다."생각해 봐 미카엘.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훨씬 전부터 세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잖아? 이미 평형은 몇십억년 전부터 이루어 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상태를 바꾸기 위해선 그것과 연관된 다른 무언가를 희생할 필요성이 있는거지."나는 그의 손을 꼬옥 쥐었다. 그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다."트레이드 오프는 어디서나 통용돼. 지금도 마찬가지야 마냥 좋은 건 있을 수가 없어. 나와 즐거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나때문에 슬픈것도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야. 지당한 결과잖아.""내가 괴로웠던것이 너와 행복했던 것에 대한 대가라는 거야?""뭐,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이걸 이해하고 있어. 키우던 개가 죽으면 무척 슬플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키워.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개와 보내는 시간이 개가 죽었을 때의 슬픔에 비해 값어치 있는 것이니까."이번엔 미카엘이 내가 잡고 있던 손에 조금 힘을 주어 맞잡았다. 나와 시선을 맞추며 조용하게 물었다."...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디?"나는 부드럽게 웃으려고 노력하면서 대답했다."무작정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도망가려고만 하지 말고, 거기서 얻었던 좋았던 점도 조금은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네가 너무 힘들어 하는 거 같으니까 선택권을 줄께. 트레이드 오프는 생각해 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냐. 그냥 네가 더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키워주고 하찮게 생각하는 것을 희생하면 돼."그가 '그 말은?'라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신중하게 말을 이었다."간단해. 네가 냉정히 생각해 보아서 나와 시간을 보내며 느끼는 즐거움 보다 괴로움이 더 크다면...도망쳐 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그는 내 말을 듣고 조금 초조해 진것 같았다. 답을 재촉받은 열등생처럼 더듬 더듬 말했다." 그렇구나.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그리고는 이내 입을 다물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정말로 즐거움과 괴로움을 가늠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내쪽이 초조해 져서 미카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바닥만 뚫어져라 쳐다 보았다.한참이나 지난 후에 그가 조그맣게 소리를 냈다."...싫어, 라디."무슨 뜻이지? 나는 그의 애매한 답변에 퍼뜩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만 같은 얼굴로 내게 호소했다."도망가지 말아줘 라디. 나는 분명, 너에게 도망가라고 해놓고 몇번이나 널 다시 찾아가겠지... 바보같게도. 너와 있을 때의 따뜻함을 잊지 못해서. 응... 몇번이나 상처받아도, 그걸 잊을 순 없을 것 같아."그가 나를 다급하게 껴안았다."그럴바엔 그냥 곁에 있어줘...그래, 어째서 몰랐을까...한참을 힘들어도 네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나를 만나러 와준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그는 나를 부여 잡은 손을 다잡으며 '응,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을 계속해서 중얼댔다. 약간은 울먹거리면서.나도 그의 선택에 안심이 되어서 눈물이 조금 비어져 나왔다. 그를 탓하며 울음섞인 불만을 터트렸다."으이구! 정말이지 위태위태해서 못 살겠어! 그냥 내가 너의 엄마였으면 좋았을 텐데..."그렇게 말하고 나니, 정말 내가 미카엘의 엄마였으면 좋았을 걸...하는 기분이 들었다."내가 너의 엄마라면... 널 그딴 곳에다 팔지도 않고, 예뻐해 주고....네가 잘 모르는 것도 하나하나 전부 알려줬을 텐데... 지금처럼 네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지 않게... 슬프지 않게..."그러자 그는 나를 한번 힘주어 껴안은 다음 눈을 마주치고 히죽 웃었다. 코가 조금 빨간 모습이었다."라디, 네가 내 엄마였으면 난 아마 꽤 대단한 학자가 되었을 거야.""응? 왜?"그가 이제서야 내가 좋아하는 수줍은 섞인 소년 다운 웃음을 지어보이며 대답했다."엄마가 좋아서 매일 집에서 공부만 했을 테니까."그의 그런 순진한 대답을 예상못했던 나는 순간 울컥하고 다시 눈물이 넘어왔다. 내가 꽤 크게 울자 미카엘은 당황해 하며 어쩔줄 몰라하다가 이내 다시 나를 자신의 품에 넣었다.그가 나를 달래기 위해 말을 걸었다."라디... 울지 마. 여태까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다시 감이 와. 그래, 트레이드 오프인거야. 내가 원하는 하나를 강화시킨다... 이걸 위해 다소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 이해가 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그가 그렇게 중얼 중얼 거리며 내 등을 토닥 토닥 거렸다. 그때, 문 밖에서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주인님, 프랑디아가의 아가씨를 모시러 사람이 오셔서 이 문 열겠습니다."그러자 미카엘이 나를 토닥거리다 말고 '쯧'하고 혀를 찾다. 그리곤 낮게 으르렁댔다."누구맘대로 문을 열고 말고 하지? 아직 교육이 덜 됐군."미카엘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문이 묵직하게 열렸다.미카엘은 천천히 내게서 몸을 떼었다. 사실 재빨리 몸을 피할 여유가 없었다. 당연히 폴아저씨는 우리 둘의 상태를 여과 없이 보게 됐다.알몸에 가운만 걸친 미카엘과 울고있던 나를.아저씨는 손에 들고있던 모자를 놓쳤다. 턱관절과 함께. 아저씨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나를 미카엘에게서 멀찍이 끌어냈다. 흥분해서 말이 잘 안나오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띄엄 띄엄 말을 했다.“아가씨!...걱정 하지 마십시오! 별일 아닌 겁니다! 아가씨에겐 아무일도 없었던 거예요!”미카엘을 사납게 노려보며 그렇게 나에게 말해주는 폴 아저씨의 다정함은 감동적이었다. 내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만 빼면 말이다.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지 훤히 보였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나무랄데 없는 상태이기도 했다.나는 그에게 이 상황을 무마시킬 만한 거짓말을 시도 했다.“아저씨!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뭐라고 기가막히게 설명해야 아저씨가 얌전히 입을 다물어줄까 머리를 가쁘게 돌려보는데 아저씨가 펄쩍 뛰면서 내게 말했다.“아이고 아가씨. 이런 일은 숨기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가 나쁜 게 전혀 아니니까. 아가씨의 명예나 아가씨의 고결함은 영원합니다.”“아저씨...”나는 아저씨가 단호하게 말하는 그 모습에 너무 크게 찡해서 순간 하려던 말을 잊고 그를 쳐다보았다. 아차!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어떡해.그 와중에 문을 열어준 집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미카엘의 좋은 때를 방해한 것이라고 오해한 집사는 덜덜 떨며 몇 번이고 미카엘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사죄했다.“죄송합니다! 주제넘게 제가 방해를! 부디 목숨만은... 목숨만은...!”그러나 미카엘은 머리가 희끗한 그가 그렇게 사과를 하건 말건 나와 폴 아저씨만을 불만족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아저씨가 그에게 사납게 외쳤다.“어서 저희 아가씨께 사과하십시오! 이게, 이게 무슨!”미카엘은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듯이 으르렁 대며 말했다.“너나 함부로 라디를 만지지 마. 네가 뭔데 내게서 라디를 떼어놓지?”...지금 그게 문제야? 나는 가까스로 폴 아저씨에게 할만한 변명거리를 생각해 냈다.“폴 아저씨~ 많이 놀라셨죠? 아마 미카엘의 가운 차림과 제 눈물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였냐면 미카엘이 아파서 몸져 누워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운 차림이었던 거고! 저는 이 야윈 모습에 그만 눈물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에요!”아저씨는 내 말에 떨떠름하게 되물었다.“...정말이십니까?”그리고 내게서 시선을 돌려 내가 야위었다고 했던 미카엘을 바라보았다. 확실히 미카엘은 요 몇 일간 마음고생을 하긴 했기 때문에 조금 말라있었지만 눈물을 자아낼 정도는 아니었다. 훤칠하고 건강하게 날렵해 보이는 몸을 자랑하는 소년이 여전히 불만족 스럽게 양 손을 허리에 짚고 삐딱하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폴 아저씨가 탐탐치 않은 목소리로 중얼댔다.“...별로 안 아파 보이시는데....”미카엘은 흥 하고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아, 벌써 트레이드 오프의 제물로 한명...아니, 두명이 목숨을 잃겠군.”한명을 말하다가 두명으로 고쳐 말하자, 미카엘이 보건 말건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집사가 크게 움찔하며 사색이 된 표정으로 미카엘을 올려다 보았다.내가 미카엘의 그 건방진 소리에 한쪽 구두를 벗어 그에게 던졌다.“불난데 기름뿌리지 마라 멍청아! 아무튼 다 너 때문이야! 아주 폴 아저씨 건드리기만 해봐!”내가 던진 구두는 곧장 미카엘의 머리로 향했지만, 미카엘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 구두를 잡아냈다. 그리곤 조금 기세가 꺾인 목소리로 말했다.“너무하네, 그럼 이대로 오해된 채로 내버려...둘 꺼...아, 그냥 이 오해는 내버려 두고 내가 책임지는 걸로 갈까? 나는 졸지에 11살을 건드린 별 거지같은 놈이 되겠지만, 뭐... 괜찮아, 그 정도야. 널 위해서라면.”그가 선심 쓰는 것처럼 작은 한숨과 어깨 짓을 했다. 나는 곧장 다른 쪽 구두를 벗어 던지며 말했다.“이번엔 잡지 마라 이 빨간 바보야.”미카엘은 정말 내 말대로 내 구두를 막지 않았다. 내 구두가 그의 이마를 듣기 좋게 ‘찰싹’ 때렸다. 그는 그를 맞고 떨어지는 구두를 보지도 않고 솜씨 좋게 잡아냈다. 그가 투덜댔다.“막지 말라고 할 거면 가슴팍 정도에 던져 주면 좋잖아? 보기에도, 아픈 정도도.”“어, 미안 정말 안 막을 줄은 몰랐어.”정말로 꽤 아팠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사과했다. 그러자 그가 씨익 웃으면서 ‘괜찮아. 오늘은 내가 더 사고뭉치였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집어던진 구두를 챙겨들고 다가와서 공손히 무릎 꿇은 채로 다시 내게 신겨 주었다.나는 방금까지 그에게 화를 내고 있었기에 매우 뻘쭘해 졌다. 중심잡기가 어려워서 그의 등에 손을 짚고선 얌전히 그가 구두를 신겨주는 그 호의를 받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내 옆의 폴 아저씨가 중얼댔다.“음...? 정말 둘 사이에 별일 없었나요?”내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네! 정말이라니까요? 미카엘은 착한아이에요! 그렇지 미카엘?”내가 폴아저씨를 바라보며 대답하라는 뜻으로 미카엘의 등을 꾹 꾹 눌렀는데, 그의 가운이 뒤로 조금 넘어가서 등이 보여 버렸다.칼에 베인 듯한 자잘한 흉터가 잔뜩 있는 등이었다.“...”“...”아저씨와 나는 둘다 잠깐 입을 다물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에게 마저 둘러댔다.“아이참, 미카엘 요녀석. 어릴 때 장난꾸러기였구나?”아저씨를 향해 ‘하하하’ 웃으며 다급하게 그의 가운을 원래대로 올려 주었다. 아저씨가 ‘...요즘 장난꾸러기들은 등으로 칼 받기 놀이라도 합니까?’라고 하는 말은 가뿐히 못 들은척 하면서 내가 그에게 간곡한 얼굴로 부탁했다.“아저씨! 그냥 미카엘이 몸이 좀 안 좋아서 가운 차림이었던 거니까! 부모님이나 오빠들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부탁이에요!”아저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곤란하다는 듯이 말했다.“그렇지만 아가씨, 정말 별일 없었다면 그런 사실정도는 가족분들도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미카엘이 일부러 저를 욕보이려거나, 매너가 형편없어서 이런 차림인게 아닌걸요. 괜한 오해를 사고싶지도 않고... 부모님이 괜히 걱정하시는 것도 싫어서요...”내가 그렇게 거듭 부탁하자 아저씨는 마지못해 끄덕거렸다. 나는 호들갑스럽게 ‘우와! 정말로 감사해요 아저씨!’를 연발했다. 그리고 아저씨가 딴 말을 하지 못하게 아저씨를 이끌고 서둘러 미카엘의 성을 나왔다.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미카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잘 있어 미카엘! 더 이상 쓸데없는 고민 좀 하지 말고! 제발 이제는 좀 행복해져!”미카엘은 볼을 물들이고선 순진하게 웃으며 대답했다.“네가 원한다면.”모든 일이 착착 잘 풀렸다고 생각한 나는 집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휴리안 오빠나 제르다민 오빠, 부모님은 바빠서 저녁도 같이 못 먹은 것은 아쉬웠으나, 헬리오 형제와 오랜만에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방에서 책을 읽고 있으려니까 휴리안 오빠가 돌아왔다는 연락이 왔다. 메이드는 공손히 오빠가 오늘 하루 종일 보지 못했으니까 둘이서 차라도 마시자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 운치 있게 달이 크게 뜬 밤이라 정원에서 간단한 다과를 하자고 한다. 당연히 거절한 이유가 없었다.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옷을 입을지 망설였다. 붕대가 여기저기 감겨있어서, 도통 옷을 예쁘게 입을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티타임 이건만 휴리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쩐지 잔뜩 긴장해 버려서 정원으로 향하는 길이 길게 느껴졌다.잘 다듬어진 작은 관목으로 둘러싸인 테이블에 막 따른 듯 김이 나는 찻잔이 두 개 놓여있었다. 휴리안이 어스름한 달빛을 받으며 멍하니 정원을 응시하고 있다가 내가 오는 소리를 듣고 우아하게 일어나 내게로 왔다.“라디, 우리 너무 오랜만에 만난 거 같지 않아?”그가, 내가 의자에 앉는 것을 도와주며 그렇게 물었다. 희미하게 웃는 그 얼굴은 더없이 투명한 것 같으면서도 강렬하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았다.나는 두근거리는 맘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대답했다.“오늘 아침에 같이 밥 먹었었잖아. 오빠도 참.”오빠는 ‘그랬었나?’라고 천연덕 스럽게 중얼거리며 차를 한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말없이 찻잔을 조용히 내려 놓은 다음 나를 지긋이 바라보았다. 미묘한 표정이었다. 말을 망설이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슬픈 것 같기도 했다.나는 ‘오빠가 왜 이럴까?’ 생각은 했지만 일단 그가 말을 할때까지 기다려 보았다. 그는 곧 입을 열었다.“...오늘 마차를 타고 둘러본 건 어땠니?”‘아, 이건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데?’ 오빠가 오늘 있었던 일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러나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나는 우물쭈물 그의 시선을 피했다.“아~...뭐, 좋았지.”대충 그렇게 대답하자,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잔잔하게 말했다.“아, 그렇구나.”그리고선 내가 다른 말을 하길 기다리는 듯이 잠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나는 시선을 손에 들고 있는 찻잔에만 고정한 채, 딴청만 부렸다. 오빠는 결국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를 냈다.“어째서 내게 사실을 말해주지 않지?”“응?”역시 오빠는 폴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다. 젠장... 아저씨! 말 안하신다면서요! ...하지만 나도 결국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다. 우리집 하인들은 모두 정신적으로 부모님이나 휴리안 오빠의 충실한 노예이기 때문이다. 폴 아저씨가 휴리안을 거스를리 없지. 오빠가 ‘별일 없었나요?’하고 묻자 마자 술술 사실을 말했을 것이다. 안봐도 뻔하다.나는 당황해서 변명을 더듬더듬 했다.“아, 사실? 무슨 사실? 아~ 미카엘네 갔던 거? 그거 묻는 건지 몰랐지~ 당연히 말하려고 했어!”오빠는 미간을 살짝 접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곤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중얼거렸다.“앞으로 폴에게 네 시중을 들게 시키면 안 되겠어. 그는 너무 너에게 물러.”나는 혹시 나 때문에 폴 아저씨가 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까봐 그를 옹호했다.“아, 아저씨는 아무 잘못 없으셔! 오히려 오늘은 정말이지 감동이었다고!”“감동? 무슨?”“아무리 더러운 일을 당했더라도 그게 내 잘못이 아닌 이상 나의 고결함은 영원하다고 굉장히 필사적으로 감싸주시더라고.”내 말에 휴리안 오빠가 갑자기 자리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나 다급하게 외쳤다.“뭐?! 그래서! 네가 그런 식의 더러운 일을 당했다고?!?”나는 그의 격한 반응에 덩달아 놀라 소리 높여 부인했다.“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오빠!”방금까지 우아하고 정제된 움직임만 보이던 오빠는 딴사람처럼 멍하게 한숨을 쉬었다.“아... 깜짝 놀랐잖아 라디.”그가 한손으로 심장 쪽 가슴팍을 쥐고 의자에 힘없이 털썩 앉았다. 내가 조금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다.“오빠 때문에 내가 더 놀랐어. 폴 아저씨한테 다 들을 거 아니었어?”“...폴이 내게 얘기 안한 게 있을까봐.”그가 방금의 급작스러운 움직임 때문에 흐트러진 매무새가 있을까 옷을 살짝 정돈했다. 그리곤 다시 화제를 나에게로 돌렸다.“라디. 이런 몸으로 백작의 성에 방문하다니... 부모님을... 나를 속이고선.”오빠가 ‘나를 속이고선’을 말하며 슬픈 눈빛을 냈다. 나는 죄책감에 가슴이 따끔따끔해지기 시작했다. 또 다시 변명을 할까 하다가 그냥 용서을 빌기로 마음먹었다.“미안해 오빠... 미카엘이 너무 걱정되는데 식구들이 안보내줄것 같아서...괜한 걱정이나 하게 할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오빠.”오빠는 고개를 숙인 나를 바라보다가 어쩔 수 없다는 한숨을 내쉬었다.“...폴이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았어. 네가 정말 걱정하는 것 같더라면서 나만 알고 있으라고 하더군.”‘정말? 그나마 다행이네... 오빠만으로도 충분히 큰 산이긴 하지만.’멍하니 생각하면서 내 찻잔을 바라보았다. 커다란 보름달이 잔잔한 동심원을 그리며 부서지고 있었다.오빠는 머리가 아픈것처럼 이마를 살짝 짚으며 말했다.“그나저나 또 미카엘 공이구나...”“미카엘이 원래 좀 손이 많이 가는 애거든.”휴리안이 표정은 여전히 온유했지만 한층 온기 없는 목소리를 냈다.“그는 네가 걱정할 정도의 나이가 아냐. 너보다 훨씬 연상이시잖아.”“그렇긴 하지만... 신경쓰이는 건 어쩔 수 없는걸....”내가 그의 지당한 말에 고개를 숙인 채 어물어물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휴리안이 자신을 보라는 듯 손가락으로 살짝 내 턱을 들었다. 그가 평소답지 않게 베일 것 처럼 날카로운 시선을 내게 보냈다.“...라디, 오늘 그가 알몸인 채로 너와 붙어있었다며?”나는 펄쩍 뛰며 그의 말을 정정했다.“알몸이라니? 아냐! 가운 입고 있었어! 안에는 뭘 얼마나 입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반듯하게 몸을 쭉 펴고 앉아있던 오빠가 생각만 해도 싫다는 듯이 고개를 조금 돌렸다. 그리고선 중얼거렸다.“너에게 그딴 매너로 대하다니, 네가 그를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구나.”“아냐 오빠, 미카엘은 평소엔 굉장히 매너 있는 편이야. 오늘은 내가 밖에서 기다릴까봐 자다가 가운만 입고 뛰쳐나와서 그래.”‘아마도?’제대로 물어보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내 생각을 말했다. 그러자 오빠가 무척이나 불만족스러운 것처럼 미간을 찡그린 채 자신의 컵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이렇게나 옹호하다니... 정말인가..?”“응? 뭐가?.. 뭘 정말이냐고 물었어?”나는 오빠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서 다시 물었다. 그러자 오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와 시선을 맞추고 망설이는 얼굴로 말했다.“라디... 혹시 정말로 미카엘 공이 첫사랑이니?”‘뭐?!!!!!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이라고!’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오빠가 살짝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기쁘기도 한 것 같은 표정으로 되물었다.“어? 아냐?”“아냐~!!!!”어쩐지 분하기까지 한 기분이다. 내가 감정을 품고 있는 본인이 이렇게 오해를 하다니, 울컥해서 가슴의 가득 들어찬 나비가 요란스럽게 펄럭거리기 시작했다. ‘차라리 지금 말해버려. 지금이야, 지금에야 말로 기회야! 어서 말해버려!’하고 울어댔다.오빠는 나의 이런 혼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까보다 한결 편해진 얼굴로 생긋 웃으며 혼잣말을 하고 있다.“아~ 전에 어머니께서 하도 여자아이는 심적으로 조숙하다고 강조하시고, 이번에도 폴이 네가 미카엘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하니까... 혹시? 해서 말이지... 그렇구나... 역시 오해였지?”오빠는 정말로 기분이 좋아졌는지 새로운 차를 따라서 조금 흥얼거리며 한 모금 마셨다. 너무하잖아 오빠. 전혀 모르고 있구나, 하나도 모르고 있어. 여기서 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조금쯤은 상황이 바뀔까?나는 이젠 뭐가 뭔지 잘 분간도 되지 않고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해서 오빠의 눈을 똑바로 보고 대뜸 입을 열었다.“난 휴리안 오빠를 사랑하고 있어.”전혀 계획 없이 하게 된 고백이지만, 계속 마음속에 품은 채로 소소하게 이어가려고 한 연정이었지만 입으로 꺼내게 된 만큼 한자 한자에 진심을 담아 그렇게 전했다. 오빠는 갑작스러운 고백에 나를 놀란 얼굴로 잠시 바라보았다.그리고는 조금 상기된 얼굴로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고마워. 나도 널 사랑하고 있어 라디.”내가 보기에도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나라도 이게 내가 원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나의 ‘사랑하고 있어’와 오빠의 ‘사랑하고 있어’는 발음도, 철자도 모두 같았지만 색이 달랐다.나는 크게 당황했다. 나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을 느꼈다.“아, 아냐! 오빠, 그게 아니라!”어째서 이렇게 터질 것 같이 선명한 마음을 꺼냈는데도 전해지지 않는 건지 의아해 하면서, 내 절박함을 전하기 위해 탁자위에 올려져 있는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 그리고 깨달았다. 뭐부터 잘못이었는지.나는 그의 손에 올려진 내 손의 자그마함에 놀라 얼른 다시 손을 떼었다.오빠가 나의 돌발 행동에 의아하다는 듯이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왜 그러니 라디?”나는 아주 잠시 동안은 두려움과 서러움으로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이내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해 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연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오빠가 곤란해 지는 상황 만은 피해야한다. 애초에 내가 잘못한 일이었다.나는 웃는 얼굴을 만들어 보였다.“아니, 아무것도 아냐. 졸려서 이제 들어가자고.”“아, 그러니? 미안, 너무 오랫동안 잡아두었구나.”오빠는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내가 팔짱을 끼도록 했다. 나는 그에게 팔짱을 낄 용기가 잘 나지 않았다. 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방으로 올라가는 동안에는 울지 않도록 노력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난 충분히 행복했는데.오빠가 나를 방에 데려다 주고 상냥하게 웃었다.“좋은 꿈꾸렴.”그리곤 발을 돌려 가려다 말고 다시 내게 몸을 향한 다음 조금 부끄러워하며 몸을 굽혔다.“굿나잇 키스를 받아줄래?”내 이마에 살짝 키스를 한 다음 예쁘게 웃었다. 나도 그를 따라 웃었다. 분명 행복했다.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슬픔이 벅차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나도 그에게 인사를 했다.“잘자 오빠. 좋은 꿈꾸고.”손을 흔들며 문을 닫았다. 내가 어색하게 잘 웃었는지 걱정이 돼서 그 미소를 계속 유지한 채 전신 거울을 바라보았다.꼴사나운 계집아이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멍청하게도 칭칭 감은 붕대 때문에 어울리지도 않건만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던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자신의 오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다. 주저앉아서 우는 거울의 소녀는 더욱 어려 보였다. 실제로도 어린 건지 모르겠다. 휴리안을 행복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으면서 내 사랑에만 취해 고백을 해버렸다. 그에게 내 이런 추잡한 마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그에게 안식을 주는 여동생이라는 존재마저 뺏을 뻔했다.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역시 눈물을 멈출 순 없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곤란해서 입을 틀어막았지만 몸을 울리는 신음은 등을 통해 공기를 울리는 것 같았다.전혀 전해지지 않았다. 전혀. 다행이지만, 정말 다행이지만. 나의 행복을 생각하는 이기심은 통곡을 하라고 지시했다.눈물을 겨우 겨우 닦아서 시야를 정돈했더니 엉망인 여자아이가 작게 웅크린채 이쪽을 보고 있었다. 통곡을 했더니 이마가 당겼다.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서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침대로 가기위해 무릎을 짚고 일어서려 했다.무릎위의 손이 어이 없을 정도로 작아서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게 했다.나는 겨우 열 한살이었다.울다가 잠이 들었는지 일어나 보니 아침이었다. 나의 첫사랑이 끝났다. 기가 막히게 짧은 기간이었다. 그럼에도 가슴이 짓이겨지는 듯한 고통이 있었다.‘아....너무 들떠있었어.’멍하니 잘 떠지지 않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의도하지 않았건만 휴리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또 눈물이 삐져나온다. 내가 잘못한 게 확실해. 게다가 휴리안은 어른스러워 보여도 겨우 열아홉이라고. 어휴...정말이지 나는 나이 값도 못하고...우스운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기 위해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내가 처량맞아져서 눈물을 막기 위해 손으로 두 눈을 꾸욱 눌러야 했다. 괴로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일어나면 또 나의 자그마한 몸과 마주해야한다. 나의 사랑하는 휴리안과 마주해야한다. 그를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사랑하는 휴리안. 내가 지켜줘야지. 그가 안심할 수 있게, 상냥한 여동생이 되어야지.’가까스로 눈물을 멈추고 다짐했다.‘어찌됐던 출세했구나, 사랑에 밤새 울어보기도 하고.’그렇게 생각하고 나서야,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럭저럭 웃어 보일 수 있었다.아침을 먹으러 나갔더니 역시나 휴리안 오빠가 먼저 앉아있었다. 예상하고 있었건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오빠가 몸을 천천히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아, 라디. 좋은 아침.”그와 시선을 마주하는 것이 생각보다도 괴로워서 당혹스러웠다. 나는 겨우겨우 베시시 웃어서 그 아침인사에 응답했다. 한 가지 더 고민이 생겨서 걸음을 살짝 머뭇거렸다. 나는 평소에 휴리안과 마주보는 자리에 앉는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식사시간 내내 휴리안과 시선이 마주칠 것이다. 괴롭다.때문에 나는 어물쩍거리며 그의 옆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오빠가 의아한 듯이 물었다.“어? 오늘은 거기에 앉게?”나는 눈앞의 식기를 괜히 정돈하는 척 하며 천연덕스럽게 말했다.“어. 오늘은 오빠 옆에 바짝 붙어서 먹어볼까 하고.”“하하, 그래? 근데 라디. 눈이 좀 부은 거 같은데.... 혹시 울었니?”자상하게도, 살짝 부은 눈을 걱정해 주며 그렇게 말해주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 그의 검은 눈동자에 심장이 쿡쿡 붕괴되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웃어야 한다.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다.“에이~ 오빠 때문이잖아.”“응? 나 때문에 울었다고?”그가 조금 당황하며 되물었다. 그와 시선을 계속 마주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 심장이 붕괴되는 속도는 점점 가속되어 이제는 와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지고 있다. 나는 짓궂게 웃는 연기를 했다.“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때문에 밤에 차를 마셨더니 아침에 이렇게 팅팅 부어버렸잖아.”“아, 그랬어? 미안...”“근데 치사하게 오빠만 아무렇지도 않고 말야...”휴리안은 내 투덜거림에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하하’하고 조용히 웃었다. 나는 겨우 그와 눈을 마주치는 형벌에서 벗어나 포크를 만지작거렸다. 가슴이 아파서 숨고르기가 힘들 정도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야하나? 게다가 필사적으로 끝마친 나의 연기이었건만, 섬세한 오빠의 눈을 완전히 속일 수 없었는지 그가 물끄러미 내 옆얼굴을 쳐다보고 있다.그러나 더 이상은 한계였다. 그의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모르는 척 손장난을 치며 시선을 피했다. 휴리안이 천천히 입을 떼었다.“...라디? 너, 어쩐지 지금 계속 시선을 피하지..”정말 다행이도 그의 마지막 말은 눈을 비비며 식당으로 들어오는 윌로우의 말에 지워졌다.“아, 졸려~... 야 라디, 오늘 아침은 뭐래?”“오빠에게 부족한 매너 아닐까?”나는 타이밍 좋게 나타난 윌로우에게 속으로 무한한 감사를 표하며 냉큼 장난을 쳤다. 포기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문채 나를 응시하고 있는 휴리안을 끝끝내 못 본 척 하면서 말이다. 윌로우는 내 빈정거림을 솜씨 좋게 받아서 우리 둘은 투닥거림을 시작했다. 그제야 휴리안은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무표정으로 내게서 고개를 돌렸다.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을 한 모금 마셨다.아, 역시 이대로는 안되겠지.... 내가 생각해도 휴리안을 대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간다. 그가 보기에 어색한 구석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다시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을까...식사 시간 내내 그 생각뿐이었다. 휴리안의 시선을 모두 피할 수는 없어서 가까스로 눈을 마주하면 나는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대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영락없이 슬픈 얼굴을 했다. 이래서는 곤란했다. 휴리안이 슬프면 곤란하다. 절대 그것만은 안 돼.다행히 내일 부터는 다시 학교에 등교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루종일 오빠와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큰 위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슬프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자업자득이니까.아침을 서둘러 해치우고 나서는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방안에 틀어박혔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실연 후 칩거라니, 유치하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오빠는 슬픈 얼굴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어쩌지? 어쩌면 좋아.다음날 학교에는 헬리오 형제의 마차를 타고 갔다. 휴리안이 마차를 타기 직전에 무엇인가 말을 걸려 했지만, 그를 보지 못한 척 마차에 올랐다. 그는 가만히 서서 내가 탄 마차를 바라보았다.오랜만에 와본 학교는 폭파의 잔재 따윈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마법 클래스의 수련관이 있던 자리가 휑하니 공터로 바뀐 것만 제외하고는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나무 조각이라던가 돌 부스럼 하나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 난리 통이 꿈이었던 것만 같다. 정말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어리석게 고백을 했던 것까지 모두 없던 일이면 좋을 텐데.마차에서 내리니까, 미카엘과 메디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웬일로 싸우지도 않고 나란히 서서 나를 보고 상냥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다. 그 얼굴들을 보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놓여서 어쩐지 또 울고 싶어졌다. 어제 하루 종일 힘이들어갔던 몸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이 소년들의 시선은 아프지 않다. 나도 진심으로 웃으며 대답할 수 있어서 기쁘다. 메디엘이 씨익 웃으며 인사했다.“오랜만이네요 라디 양.”“네, 정말로.”내가 활짝 웃으며 다가서자, 미카엘이 다가와 아직도 내 머리에 붙어있는 반창고를 살짝 건드렸다.“라디, 학교와도 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기쁘기는 하지만...”“몇 번이고 몇 번이고 질리지도 않는구나 미카엘. 나는 멀쩡해.”내가 장난으로 질린다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미카엘이 키득거리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자 뒤에서 가슴을 후비는 듯한 낮은 미성이 들렸다.“미카엘 공은, 이제 보니 원체 레이디 대하는 매너가 난폭하시군요.”휴리안이 평소답지 않게 공격적으로 말을 내뱉었다. 그가 남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노골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본다. 아마 전에 나와 가운차림으로 있었던 것을 탓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나는 뒤돌아서 그의 얼굴과 마주하기가 살짝 겁나서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을 다잡은 후 뒤돌아서니, 휴리안이 무표정하게 미카엘을 노려보고 있었다.미카엘은 내 머리에 손을 올린 그대로 잠시 가늠하듯이 오빠를 바라보았다. 청명한 날씨의 햇빛을 받아 그의 옅은 눈동자는 꽤나 위험한 색을 냈다. 나는 미카엘이 화를 낼까 싶어서 미카엘을 진정시킬 준비를 했다.그러나, 예상 외로 미카엘은 얌전히 내 머리에서 손을 떼고는 나에게서 몇 발자국 떨어졌다. 그리고는 깍듯하게 휴리안에게 고개를 숙였다. 미카엘은 정중하게 또박또박 사과의 말을 전했다.“휴리안 공이 보시기에 제가 라디올러스 양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정말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용서하시기 힘드실 것을 알지만, 전에 제가 단정치 못한 차림으로 동생 분을 뵈었다는 것도 사과드리겠습니다.”휴리안 조차, 미카엘이 이렇게 제대로 사과를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다. 오빠는 그의 평소같지 않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미간을 좁힌채 미카엘의 고개숙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이렇게 까지 사과하신다면야.... 미카엘 공의 실수는 없던일로 생각하겠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십시오.”그제야 미카엘은 고개를 들고 품위있는 목소리로 말했다.“아... 역시 명성대로 아량이 넓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추태를 보이지 않겠습니다.”나와 왕자도 모두 이런 미카엘의 태도가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내가 얼떨떨하게 말했다.“미카엘... 어디 아파?”메디엘도 핀잔을 주는 말투로 말했다.“기묘함의 정도를 넘어...기분이 나빠질 것 같네요.”미카엘은 나를 힐끔 바라보며 씨익 웃었다. 그리고는 나에게만 살짝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중얼거렸다.“이정도 trade-off는 아무것도 아냐.”나는 그의 넉살에 피식 웃고 말았다. 그러자 휴리안 오빠가 슬픈 목소리로 중얼거렸다.“라디...”나는 이제 오빠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만다. 어색한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얼굴에 신경을 쓰며 오빠를 돌아보았다.“응?”아...틀렸다. 오빠가 또 울 것 같은 표정을 한다. 정말이지 나도 울고 싶다. 나는 도무지 어떤 말을 오빠에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아서 우물거렸다. 제대로 하고 싶은데 노력하면 할수록 휴리안을 슬프게 만드는 것 같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휴리안은 나쁘지 않아, 슬프게 하면 안돼. 내가 제대로 해야 해.자꾸만 진땀이 나 버린다. 어떡하면 지금 상황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지? 내 뒤에 서있는 미카엘과 메디엘도 분명 이런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섬세한 소년들이니까.잠시 말을 찾느라 우리들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적당한 말을 생각해 낼 수 없었던 나는 바보같은 소리만을 냈다.“어...저기... 응?...”휴리안은 별다른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지만, 어쩐지 그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상처가 괴로워서 치료제를 급히 찾는 사람같은 표정이었다. 나에게서 절실하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 그를 안심시켜야 하는데...'아... 이제 나도 슬슬 한계야 오빠. 시험시간에 적을 수 있는 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야.'자괴감에 눈물이 비어져 나올 것만 같다.내가 울컥해서 크게 숨을 들이마시자, 메디엘이 불쑥 걸어 나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곤 평소와 같이 느긋한 목소리로 오빠를 향해 말했다.“아, 이런. 방금 전에 미카엘 공이 그렇게 호되게 혼나는 것을 봤으면서도 잊을 뻔 했네요.”휴리안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은 상태로 입만을 열어 조그맣게 대답했다.“...무슨?”메디엘은 나른하게 웃었다.“아직 수업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잖습니까? 라디올러스 양께 할 말이 있어서 잠깐 뵈려고 했었거든요. 휴리안 공께 먼저 말해 두겠습니다. 보아하니, 여동생을 끔찍이 생각해주시는 분 같으니까요. 이 정도면, 혼날 정도의 예법은 아니겠지요.”그제서야 휴리안은 고개를 돌려 메디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엷게 미소를 만들고서는 조용하게 말했다.“제가 왕자님을 혼내다니요, 제가 평소에 처신을 잘못했나 보군요. 메디엘 왕자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시게 하다니.”메디엘은 셔츠의 깃을 매만지며 고개를 조금 뒤로 넘겨 오빠를 내려다보았다. 오빠의 반응을 평가해 보는 것처럼 중얼거렸다.“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거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잠시 라디 양 좀 귀찮게 하겠습니다.”왕자는 그렇게 말한 뒤, 휴리안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내 어깨를 감싸 휴리안에게서 등을 돌려 걸어 나갔다. 발소리로 추측하건데, 왕자가 그렇게 주저 없이 나를 에스코트해서 휙 빠져나가자 오빠는 몇 걸음인가 우리를 쫓았다. 그러나 이내, 쫓는 것을 포기했는지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추어 섰다. 그런 휴리안을 뒤돌아 보고 싶은 기분과, 절대 보고 싶지 않은 기분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는 멍하니 앞만을 바라보고 걸었다.코너를 돌아 오빠가 우리를 볼 수 없게 되자마자, 언제 따라왔는지 미카엘이 내 옆에 붙어 섰다. 메디엘은 그런 미카엘에게 조금 핀잔을 줬다.“아... 소리좀 내고 다니지 그래요? 그리고 방금은 ‘오빠분이 보시기에 마음에 안드는 행동’따위는 절대 안할 것처럼 구시더니? 맘대로 쫓아오면 어떡합니까. 가서 허락 맡고 오지 그러세요.”미카엘은 성의 없게 ‘아... 그럴 걸 그랬나요?’라고 중얼거린 다음 바로 허리를 굽혀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라디, 어째서 그렇게 울 것 같은 표정이야?”미카엘이 메디엘 따위 안중에도 없다는 자세를 취하자 메디엘은 조금 발끈한 것 같은 표정을 지었지만, 미카엘이 나에게 한 말을 듣자, 그도 바로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나는 속을 다 들켜버린 기분이 들어서 딴청을 피우며 말했다.“내가 울 것 같아? 아닌데...”민망하게도, 내 변명에 두 소년은 ‘거짓말’이라고 다그치지도 않고 다시 말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우리들은 가끔 모여서 놀곤 했던 교사 뒤 한적한 잔디밭에 도착했다. 메디엘은 자신의 재킷을 잔디위에 깔아서 내가 앉게 했다. 나의 양 옆으로 메디엘과 미카엘이 털썩 앉았다.우리는 햇볕이 내리쬐는 예쁜 광경을 조금 멍하니 바라보았다. 정적을 깬 것은 메디엘이었다. 그가 담담하게 중얼거렸다.“아, 바보 같게도 휴리안 공. 라디 양의 첫사랑을 빨리도 죽였군요.”깜짝이야. 뭐라고? 메디엘... 그걸 어떻게 안거야? 나는 너무 놀라서 그를 휙 바라보았다. 메디엘은 천천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조금은 슬픈 얼굴로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의 그 뭐든지 꿰뚫어 보는 듯한 모습에 더듬더듬 말을 이었다.“어? 어떻게?... 어떻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그정도야, 라디 양의 태도나 얼굴만 봐도 알수 있지요..."메디엘은 힘없이 대답했다. 별로 슬프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왈칵 치밀었다. 힘들이지 않아도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새어나왔다. 아... 이 두 사람 앞에서 이런 추태는 부리고 싶지 않았는데.부끄러워서 얼굴이 뜨끈뜨끈하게 데워지는 것 같았다. 주제도 모르고 자신의 완벽한 오라비를 사모하는 철없는 11살로 보이겠지. 그 달콤한 사랑에 취해 주변은 보지도 않고 해롱대던 내 모습까지 모두 간파 당했을까?서러워서,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어버렸다. 그러자 내 오른편에 앉아있던 미카엘이 조금 내게 기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살짝 고개를 들어보니, 내게 기댄 것이 아니었다. 팔을 뻗어 내 왼쪽에 앉아있던 메디엘의 목덜미에 손을 갖다 대느라 내게 조금 닿은 것이었다.나는 깜짝 놀라 눈물범벅이 되어 엉망인 얼굴을 정돈할 생각도 못하고 눈앞에 바짝 붙어있는 미카엘의 팔을 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해야했다. 미카엘은 분명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마치 나이프를 쥐고 있는 손모양을 하고 있었다. 내 눈에만 보이지 않는 칼을 메디엘의 경동맥에 대고 있는 듯한 기묘한 모습이었다.미카엘이 메디엘을 사납게 노려보며 낮게 경고했다.“울리지마.”왕자는 별로 당황한 기색도 없이 업신여기는 눈으로 미카엘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어디까지 나쁜 머리인가요. 제가 울린 게 아닌 것도 모르십니까.”미카엘은 살짝 비웃으며 대답했다.“아, 나이프 드는 걸 잊어서 아직도 이렇게 주제도 모르고 떠드나?”미카엘이 그렇게 말하자 순간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아무것도 쥐지않은 채로 목덜미에 위협을 가하던 손에 아주 작은 손칼같은 것이 들려있었다. 평소에는 소매부리같은 곳에 숨기고 있는 걸까? 아차, 또 현실도피로 태평한 생각을 하고 말았다. 지금 미카엘은 참수를 서른 여덟 번 정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행동과 말버릇을 취하고 있었다.‘메디엘의 목에 칼을 댔다고?’안그래도 감정이 격해져 있던 나는 거의 통곡을 하며 미카엘의 팔을 온몸으로 저지했다.“야아~!!!! 뭐하는 거야!!!”왜 이런 무모한 짓을 사서 하는 거냐고... 나는 엉엉 울며 미카엘의 팔에 매달렸다. 그러자 미카엘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칼을 다시 어디론가 넣고는 팔에 매달린 나를 다른 쪽 손으로 토닥거렸다. 내가 그렇게 우는 것이 당황스러운지 쩔쩔 매는 모습이었다.메디엘은 코웃음을 치며 미카엘에게 차갑게 말했다.“진짜 울리는 게 누군지 모르겠네. 울리다니? 죽지 그러십니까.”미카엘은 풀이 죽어서 자조적으로 말했다.“나이프 빌려드릴테니까, 제 목에 좀 대주실래요?”“지금 그걸로 방금 그 무례한 행동을 무마시키려고 하시는겁니까. 머리도 나쁜 주제에 뻔뻔하기까지 하군.”메디엘이 그렇게 말했다. 아, 어쩌지 정말 미카엘에게 벌을 내릴 생각인가? 나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어서, 미카엘의 팔에 안간힘을 다해 매달려있다가 고개를 들어 메디엘의 안색을 살폈다. 아직도 울음이 멈추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분명 꼬질꼬질한 얼굴이었을 것이다.왕자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눈썹을 가엽다는 듯이 기울이곤 손으로 내 얼굴을 문질렀다. 눈물을 닦아준 것 같았다. 메디엘은 담담한 목소리로 나를 달랬다.“걱정마요. 그대가 슬퍼할 만한 일은 하지 않으니까.”오늘 메디엘은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내 얼굴만 보고도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전부 알아차려버리지?‘온 마음을 실었던 말은 한 톨도 전해지지 않았건만.’자기도 모르게 자학적이고 비참한 생각을 해 버린다. 마조히스트인가 나? 마치 울기위해 괴로운 생각을 일부러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다섯 살 아이가 넘어져서 우는 것처럼 잉잉 울어버렸다. 지금 내 곁의 소년들의 걱정스런 눈빛과 손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미카엘은 더듬 더듬 ‘울지마 라디.’라고 중얼거리며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메디엘은 말없이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정신 없는 와중에도 어렴풋이 나는 장미향이 느껴졌다. 언제나 그렇듯 누군가 달래려고 해주면 더 눈물이 나와 버린다. 얍삽하기도 하지.어찌 어찌 안정을 찾아, 내 울음은 겨우 잦아들었다. 간간히 훌쩍거리는 내 소리를 배경으로, 메디엘은 조금 멍하게 중얼거렸다.“전에는 멍청하게도 첫사랑으로 나를 고르라고 말했었죠 라디 양.”“...멍청한지는 모르겠지만...네, 뭐... 그랬엉죠..”나는 조금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겨우 대답했다. 말을 마치자 마자 끅하고, 울음 뒤 특유의 숨넘어가는 소리가 나와서 조금 창피했다. 아니, 사실 이미 여기서 대성통곡했던 것부터가 창피해서 죽고 싶어지기 시작했다.미카엘은 메디엘이 내게 말을 걸거나 말거나 여전히 내 얼굴을 내려다 보며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아, 아직도 내가 미카엘의 팔을 부여잡고 있었구나. 나는 뻘쭘하게 슬쩍 그의 팔을 놓았다. 그의 재킷 팔 부분에 내가 꾸욱 잡고 있었던 주름이 선명했다. 자국을 안 남기려고 쓰윽 쓰윽 문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미카엘은 여전히 말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메디엘은 다시 말을 이었다.“당신의 첫사랑이 내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야.”뜬금없는 그의 말에 내가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을 마주쳤다. 메디엘은 진지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짙은 푸른빛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천천히 신중한 목소리를 내었다.“11살의 당신이 만약 첫사랑 상대로 휴리안 공이 아니라 나를 선택했다고 해도... 과연 나는 당신이 원하는 종류의 사랑으로 답할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그는 그다지 대답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잠자코 메디엘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창피하다는 듯이 조금 눈살을 찡그리며 말했다.“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당신을 울리는 종류의 사랑이라면, 나도 필요 없어.”“...너무나도 과분하신 말씀.”“바보같게도, 당신의 첫사랑부터 모든 사랑을 그저,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 제게 내놓으라고 했었습니다. 정말이지 부끄럽네요.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어렸습니다.”눈 앞의 이 아름다운 재규어는 진심으로 내가 행복하길 바래주고 있다. 그 사실이 뱃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기분이 들었다. 고마운 소년이다. 메디엘은 다정하게 웃었다. 그러면서 고개를 살짝 기울여 무언가 부탁하는 것 같은 자세를 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단 한번, 한번이면 되는 거였습니다. 당신이 슬프지 않아도 될 때에, 부디 나를 선택해. 제가 당신의 발아래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사랑을 구걸할 때. 그 때, 못이기는 척 나를 골라 주세요. 결코 당신을 울리지 않을 테니까.”그 달콤한 말이 고마워서 나는 또다시 울컥해버렸다. 안 되지, 또 우는 건 안 돼. 겨우 눈물을 삼키고 웃었다. 메디엘은 내 미소에 훨씬 찬란한 미소로 답하며 중얼거렸다.“정말로 소중하게 다루어, 지킬 테니까... 그대는 어서 자라주세요. 나는 당신의 사랑에 복종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메디엘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미카엘은 내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그만두고 나를 자신의 품속에 끌어들였다. 메디엘은 불쾌하다는 듯이 말했다.“뭡니까, 미카엘 공. 그런 무례한 행동은 그만 둬 주십시오.”메디엘의 화난 말투에도 미카엘은 시선을 나에게만 고정하곤 중얼거렸다.“...지금의 나로선, 여기서 끼어들 수 없겠지... 아니, 끼어들면 안 되겠지.”“응? 뭐라고? 미카엘?”나는 미카엘의 말을 잘 이해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물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미카엘은 뚫어져라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깐 입을 닫았다가 다시 낮게 말했다.“라디, 나의 Trade-off의 목적은 당연 나의 행복이야.”“응... 좋다고 생각해.”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다니, 장족의 발전이다. 그래, 행복하렴 미카엘. 미카엘은 곧바로 대화를 이어나갔다.“그리고 내가 행복하려면, 네가 행복해야해.”“뭐? 그렇게 말해주다니... 미찌친으로선,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야 미카엘.”너무 단호하고, 단순한 것 같은 논리의 전개였지만, 나는 일단 솔직하게 드는 생각을 표현했다. 메디엘은 옆에서 ‘미찌친은 또 뭡니까.’라고 작게 투덜거렸지만, 굳이 미카엘의 말을 막으려고는 하지 않았다.미카엘은 조금 인상을 쓰며 다시 입을 열었다.“물론, 내가 너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음과 동시에 네가 가장 이상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선택지는 없겠지.”“...응?”미카엘은 1+1=2와 같이 간단한 수식의 답을 말하는 것처럼 줄줄 말을 이어나갔다. 다만 말하면 말할수록 점점 인상을 썼다.“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봐도 메디엘 왕자님의 제안이 제일 네가 쉽고 안정적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기회로 생각 돼.”미카엘은 입안에 벌레라도 들어간 것처럼 불쾌하게 마지막 말을 뱉었다. 그리곤 강하게 구기고 있던 인상을 단번에 풀어 힘없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그래서, 지금은 왕자님을 방해할 수 없어. 방해하면 안 돼... 방해하지 않아.”나는 미카엘이 이렇게 매사에 일일이 심각하게 생각을 거듭하고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해서 말했다.“미카엘! 넌 정말 언사 하나하나가 내 걱정을 폭발시켜! 네 행복과 나의 행복을 그렇게 완벽하게 동일시하는 건 너무 위험한 짓이야. 물론 고맙다고는 생각하지만 말이야!”내 진심어린 외침에 미카엘은 씨익 웃었다.“이미 어쩔 수 없는 걸. 알잖아? 난 원래 천한 출신이라 단순하게밖에 생각 못해.”미카엘이 단순하다고? 이것 만큼 웃기는 소리는 못 들어 봤다. 너처럼 복잡한 하고 어려운 아이도 없을걸? 나는 일단 제일 맘에 걸리는 것부터 딴죽을 걸었다.“내가 자기 자신에게 ‘천박하다, 천하다’ 라는 말 좀 하지 말라니까.”미카엘은 내 불평에 싱긋 웃은 후 바로 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내뱉었다.“걱정 마, 꼭 방해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될 거야.”미카엘은 그렇게 말하곤 만족스러운것처럼 싱글싱글 순진하게 웃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미카엘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조금 꺼려졌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미카엘의 현재 상태는 불안정해 보였기 때문에 작게 입을 열었다.“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어. 네가 나를 생각해 주는 건 정말로 행복하지만, 너의 생활의 중심을 나로 맞춰서 안 돼. 너의 중심엔 네가 있어야지! 넌 도대체가 제일 강한듯 싶으면서도 묘하게 위태롭다니깐?”내가 그의 품을 조금 빠져나와 눈을 맞추며 그렇게 타일르자, 미카엘은 조심스러운 얼굴로 내게 물었다.“내가 위태로워 보여서 같이 있기 힘들어? 그럼 그렇게 안 보이면 네가 맘 편히 내 곁에 있을 수 있을까?”금방이라도 내가 위태로워 보인다고한 태도를 고치기 위해 특별 수련이라도 할 것 같은 기세였다.“바로 방금 너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말한 거였는데...”내가 맥 빠진 얼굴로 대답하자, 미카엘은 전혀 안 미안한 얼굴로 ‘아, 그런 건가? 미안.’이라고 사과했다. 그가 ‘뭐가 잘못된 건지 하나도 모르겠고, 고칠 마음도 없을뿐더러, 이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왕자님에게도 내 생각이 이렇게 그대로 보이는 걸까. 그렇다면 나야말로 반성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어차피 내가 미카엘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는 생각도 해본 적 없기 때문에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뭐,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지만, 무리해서 멀쩡하게 보이려고 하거나...사실, 네가 어떻게 안 위태로워 보이려고 하는지 전혀 감도 안 잡히지만...아무튼 억지로 연기하고 그러지 마.”“음... 근데 네가 싫다며.”“싫다기 보다는 걱정스러운 거야. 근데 네가 그것 땜에 억지로 연기를 하면 더욱 더 걱정스럽겠지. 고로, 진정해 미카엘.”나는 알겠다는 대답을 기대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미카엘은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방긋 방긋 웃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 말도 없이, 굉장히 신나는 일이 있었던 사람처럼 그저 나를 바라보며 활짝 웃고있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미카엘?”미카엘은 내 부름에도 한동안은 나와 가만히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순진한 목소리로 말했다.“미안, 진정할 수 없는걸. 너를 보고 있으면 말이야.”“뭐어? 하하, 하긴 나도 메디엘 왕자님이나, 너랑 있으면 이상하게 침착할 수가 없긴 하더라.”내가 킬킬대며 대답하자, 미카엘은 활짝 웃고 있던 입가를 조금 가라앉히며 상냥한 목소리를 냈다.“나는 라디, 네가 참 좋아.”갑자기 눈물이 핑 돌만큼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었다. 이 소년들은 왜 이다지도 상냥한 걸까. 얼마 전까지 침대에서 못 일어날 만큼 우울해 하던 날들이 부끄러워 질 정도였다. 염치없게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 나오질 못했었다. 이렇게 옆에서 달래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행운인지 벌써 다 잊어버렸던 것이다. 박지아로 살아갔을 때라면 금방 알아차렸을 텐데. 정말 복에 겨웠다.내가 이 위태위태한 소년의 다정함에 차마 뭐라고 대답해야할지 모르고 우물쭈물 눈만을 마주치자, 그는 다시 한 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네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나는 목이 메어서 고개를 겨우 끄덕이고선 작게 ‘응’이라고 대답했다. 말없이 앉아있던 메디엘이 느릿느릿한 말투로 끼어들었다.“아, 무척이나 오랜만에 미카엘 공과 마음이 맞는 기분이네요. 울지 좀 마요 라디 양.”나는 결연하게 대답하게 위해 목소리를 가다듬고선 대답했다.“네! 안 울겠습니다! 상냥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저, 라디올러스! 그 정도야 문제없죠!”‘맞아, 그러고 보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울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즘 너무 약해진 기분이다. 11살인 몸이 슬프다고 한탄하면서도 잘 살펴보면, 정신도 어린애와 별 다를 것이 없는 기분이다. 다시 다잡아야지, 어른스럽게.나는 꽤 믿음직스럽게 내 각오를 외치며 씩씩하게 웃었다고 생각했는데, 메디엘과 미카엘은 떨떠름한 표정이라 맥이 풀렸다. 왜 그래? 나 방금 완전 힘차보이지 않았어?내가 왜 그러냐는 표정으로 메디엘을 쳐다보자 그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저기...라디 양. 제가 울지 말라고 한 뜻이 씩씩한 척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건 알죠?”“저 지금 씩씩한 척 한 거 아닌데요. 여러분의 위로에 정말 씩씩해 진 건데요.”“방금 굉장히 무리하게 마음을 다잡으신 느낌인데... 그럼 앞으로 휴리안 공은 어떻게 대할 작정이십니까?”왕자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내게 물었다. 나는 질문을 받자 바로 버벅거리며 대답했다.“평정심을유지해서...”메디엘은 무척이나 얕보는 눈을 하며 나를 무시했다.“휴리안 공 이야기만 나와도 이렇게 당황하는데 말입니까?”미카엘은 키득거리며 티 없이 내 편을 들어주는 척했다.“라디가 하겠다는 데 왜 그래요 왕자님. 게다가 뭐... 라디는 평정심을 유지할 때도 차도 잘 엎고, 말도 잘 더듬고 그랬으니까 괜찮을지도 몰라요.”“평소에도 띨띨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미카엘. 정말 큰 힘이 된다.”내가 무표정하게 대답하자, 미카엘은 즐거운지 하하 소리를 내며 웃었다. 어쩜... 대형견 처럼 천진난만 하구나 미카엘. 그 순진무구함에 나도 모르게 따라서 웃어버린다.메디엘은 내가 웃자, 옅게 미소를 띄며 내 머리위에 손을 살짝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왕자님같은 목소리로 조언했다.“휴리안 공을 전에는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면서 행동하는 건 어때요? 지금은 한눈에 봐도 그의 앞에만 서면 당황해서 어색하게 움직이는 것 같던데요.”“음.... 그렇군요...아. 저는 왜 이렇게 야무지지가 못해서, 괜히 오빠만 힘들게 하는 걸까요.”내가 오빠 앞에서 긴장할 것을 상상만 해도 힘이 빠져서 한숨을 내쉬자 미카엘은 옅은 색의 눈동자를 날카롭게 빛내며 씨익 웃었다. 입매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안광은 한밤중에 빛나는 맹수의 눈처럼 심장을 서늘하게 했다. 그는 평소에 잡답을 말할 때와 같은 목소리로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라디, 언제나 중요한건 너희 오빠가 아니라 너라는 것을 잊지 마. 나는 휴리안 공이 힘들거나 말거나 관심 없으니까 말야. 휴리안 공 때문에 네가 너무 힘들어지면, 내가 억지로라도 그가 예전처럼 너와 웃게 만들겠어. 그의 목덜미에 나이프를 갖다 대서라도 말야.” 폭파 사건이 있고나서 처음으로 있던 수업이라 오늘은 일찍 끝마쳤다. 고급 클래스도 이시간에 끝났으려나? 집에 가면 역시 휴리안 오빠랑 얘기하게 되겠지... 메디엘 왕자는 오빠와 이전에 어떻게 대화했었는지 기억해보라고 했지만...“도통 기억이 나질 않는단 말야...”내가 집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한숨을 섞어 작게 중얼거렸다. 사실이었다. 도무지 예전에는 휴리안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했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았다. 누가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면서 말하냐고. 진짜 미치겠네.집에 도착하자 나는 마지막으로 한숨을 크게 쉰 다음 마부 아저씨가 나를 부축하러 오기 전에 훌쩍 뛰어내렸다. 이제는 스틱만 쥐고 있다면 이런 움직임에도 큰 무리가 없었다. 마부는 항상 그렇듯이 내가 그렇게 말괄량이처럼 굴자 조금 난처하게 웃으며 ‘아가씨... 그러다 또 다치시려고.’라고 나무랐다. 나는 키득거리며 몸을 폈다. 시선을 정면으로 하자, 예쁘게 정돈된 현관으로의 길에 누군가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마치 정원을 장식하기 위해 누군가 가져다 놓은 조각처럼 흐트럼 없는 자세로 서있던 그 소년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슬며시 웃으며 입을 열었다.“...그래, 그러다 또 다치겠어 라디.”휴리안은 일순 자신의 목소리를 제외한 모든 소리를 사라져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았다. 마부가 마차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말을 모는 소리, 나무 위에서 주기적으로 들리는 새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같은 자잘한 소음들이 음소거 된 것처럼 순식간에 지워졌다. 그가 일정한 보폭으로 걸어오는 그 작은 소리만이 머릿속을 울렸다.‘진정해, 진정해! 워, 원래는 어떤 식으로 다녀왔다는 인사를 했더라?’초조하게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 내가 휴리안과 함께했던 많은 추억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지만, 누가 악의적으로 파일을 훼손한 것처럼 사운드만이 사라져 있었다. 일치하는 코덱이 없니? 새로 설치해야해?나는 진땀을 삐질 삐질 흘리며 헛웃음을 지었다. 휴리안은 희미하게 짓고 있던 웃음을 잠깐 없앴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전과 같은 속도로 뚜벅 뚜벅 걸어왔다. 사라진 웃음 대신 더욱 아름다운 미소를 얼굴에 썼다. 오빠는 내가 도망갈 길을 만들어 주지 않으려는 것이 분명했다. 또한, 굉장히 상처받았다는 사실도 명확했다.‘이제 더 이상 어리광 부려선 안 돼.’나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헤집었다. 그러다가 나는 굉장한 탈출구를 찾아냈다. 진하오빠와 함께했던 기억은 조금의 손상도 없이 완벽하게 살아있었던 것이다.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진하오빠와 생활했던 나날이 프랑디아 성에서의 기간보다 훨씬 길었으니까. 고개를 힘차게 들어 휴리안과 눈을 맞추었다. 게다가 휴리안은 진하오빠를 너무나 닮아서, 진하오빠를 힘들이지 않고 떠올릴 수 있었다.“응~ 다녀왔어.”나는 씨익 웃으며 휴리안에게 인사를 건넸다. 됐다! 됐어. 굉장해! 엄청 쉽잖아?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고! 완전 평범하게 대화할 수 있어. 진하오빠랑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숨쉬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 아, 물론. 진짜 진하 오빠와 말할 수 있는 날은 이제 영영 오지 않겠지만....자로 잰 듯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던 휴리안은 잠시 멈칫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과연, 둘만 있을 때 보여주곤 했던 무방비한 표정이었다. 역시! 이게 정답이었어.휴리안은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라는 듯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아, 응... 그래. 어서와.”나는 싱글싱글 웃으며 그에게로 바싹 붙어 재잘댔다. 해답을 찾았다는 것이 기뻐서 미소정도는 힘들이지 않아도 잔뜩 지을 수 있었다.“왜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 서있었어? 혹시 나랑 같이 들어가려고 기다렸어?”아침의 어색했던 반응과는 180도 다른 친근한 나의 태도가 믿기지 않는지 그는 눈을 내 얼굴에서 떼지 못했다. 다시 심장이 덜컹 거릴 정도로 곧은 시선이었다.‘아냐! 진정해! 진정해라 내 심장. 당황하지 마. 진하오빠라고 생각해. 진하오빠.’그렇게 마음먹으니까 정말 진하오빠가 빤히 보고 있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었다. 아, 맞아 내가 웬일로 덜렁거리지 않고 서류정리를 하거나. 특별한 날이 아닌데 오빠에게 선물을 주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나를 쳐다보곤 했다. 이 무례하고 상냥하고 아무도 모르게 사랑스러웠던 사람.나는 픽 하고 웃음을 터트릴 수 있었다. 별 이상한 표정을 다 보겠다는 듯이 그를 향해 말했다.“왜에? 왜 그런 표정이십니까. 마을의 아가씨들을 잠 못 들게 하는... 휴리안 씨.”여전히 아저씨스러운 내 농담에 오빠는 비로소 웃음을 피식 터트렸다. 와, 오빠를 웃게 했다. 그가 내 앞에서 편하게 웃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다.휴리안은 발그레하게 상기된 얼굴로 밝게 웃으며 농담에 대한 감상을 남겼다.“라디, 진짜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워 오는 건지 항상 궁금해.”“그런 말? 무슨 말?”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대꾸하는 것까지 완벽했다. 오, 제법이야 나. 대단해 완전히 극복한 것 같지 않아?휴리안은 살며시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내 옆으로 다가와서 팔꿈치를 조금 내밀었다. 팔짱을 끼라는 표시이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이상한 반응을 보일까봐 염려스러운지 내 얼굴을 잘 바라보지 못했다. 이렇게 매사에 조심스러운 휴리안에게 자꾸만 죄책감이 든다. 분명 굉장한 스트레스였겠지. 그렇게나 잘 따르던 여동생이 하루아침에 눈도 잘 못 맞추고 자신을 피해 다닌다는 것은. 휴리안이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면 자꾸만 손에 땀이 찬다. 제대로 해 라디올러스. 한참 연상이니만큼, 어른스럽게 행동하란 말야. 휴리안을 괴롭히지 말라고.나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말을 걸면서 팔짱을 꼈다. 내가 스스럼 없이 팔짱을 끼자 그의 어깨가 살짝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긴장해서 경직해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에게 닿는 것을 주저하지 않자, 안심해서 어깨에 힘을 뺀 거고. 그의 이런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휴리안과 이렇게 서로의 온기가 느껴질 정도로 가깝게 서자, 역시 조금은 괴로웠다.‘힘내서 다시 여동생이 돼야지.’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스틱으로 한걸음 정도 앞의 땅을 짚으며 그렇게 생각했다. 아직도 미묘하게 두근거리는 마음과 염치도 없이 슬쩍 밀려오는 서러움에 뚜껑을 닫는 상상을 했다. 이대로 못 본척 뚜껑을 닫은 채 까먹어 버리면 밑바닥에 고인 이 찌꺼기 감정들은 오갈 데 없이 썩어 나중엔 색조차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때가 되면 다시 뚜껑을 열어도 되겠지. 다시 마주해도 뭐가 뭔지 알 수 없을 테니까.다행이도 나는 덜렁거리는 편이라, 자주 물건을 까먹고 쳐박아 두곤 한다. 다행이다. 다행이야.오빠는 몇 걸음인가는 말없이 걷다가 잔잔한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걸었다.“다행이야 라디. 화는 풀려 보이는구나.”“화? 화라고?”내가 그를 피했던 걸 그에게 화가 났었던 것이라고 생각한 걸까. 나는 따끔거리는 심장을 가리고선 전혀 아니라는 듯이 과장되게 손을 흔들며 부인했다.“뭐어? 내가 오빠한테 화를 왜 내겠어! 전혀 아냐. 전혀!”그가 나의 말을 듣고 안심해줬으면 하는 내 소망과는 다르게 휴리안은 더욱 알 수 없다는 듯이 눈썹을 찡그리고는 물었다.“그럼... 어째서?”무엇을 묻고 있는 건지 뻔히 알면서도 얌체같게도 말을 더듬어 가며 ‘뭐가?’라고 물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다시 그 일을 끄집어내기 꺼려지는 건지 잠시 입을 다물었다.그동안 현관의 계단에 도착해서, 오빠는 내가 계단을 오르기 쉽게 에스코트하기 위해 팔짱을 천천히 풀었다. 나보다 한 계단 위에서 내게 손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나를 피하고, 나와 있을 때...”나는 내게 S.O.S 신호를 보내며 아프다고 아우성치는 심장을 외면하고 조심스럽게 오빠와 시선을 맞추며 그의 손위에 내 손을 올려놓았다. 오빠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네가 슬퍼했잖아.”그렇게 마지막 말을 힘주어 끝낸 휴리안은 내손을 꽉 잡았다.사실 나는 또다시 빈틈없이 죄이는 심장때문에 숨을 못 쉴 지경이었다. 머릿속으로 쉼 없이 진하오빠와 집 앞에 잠깐 맥주를 마시러 갔다가 알딸딸해져서 손을 잡고 돌아오던 날을 떠올려야 했다. 기분 좋게 취해서 약간 비틀거렸기 때문에 오빠는 ‘취해서 비틀거리는 게 귀여워 보이는 건 네 나이로는 이제 슬슬 한계야... 밖에선 이러면 안 돼.’라고 투덜 투덜대면서도 내 손을 잡아주었었다.그 때의 밤하늘까지 생생하게 떠올리고 나서야 나는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진하 오빠와 걸었던 그 밤과 같이 여동생의 마음으로 휴리안의 손을 맞잡았다. 한없이 미안한 마음을 섞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미안, 요맘때 여자아이는 원래 좀 복잡한 법이야.”이 사과도 다행히 어색하지 않았는지 그는 상냥하게 웃으며 나를 자신이 있는 층계로 나를 에스코트했다. 다정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유혹했다.“알기 힘든 라디, 이 무딘 오빠와 오늘도 티타임을 가져주겠니. 그거면 뭐든지 용서할 수 있어.”분명 그 티타임은 달콤한 만큼 괴로울 것이 뻔했다. 그러나 멍청하고 유혹에 약한 나는 그의 그 한밤중 디저트 같은 얼굴에 굴복해 홀린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리고 말았다. 또 다시 어스름한 밤의 티타임이다. 오늘은 만월은 아니었지만, 어느정도 일그러진 그 모양이 그런대로 운치 있었다. 가을 밤 공기는 적당히 차가우면서도 맑아서 매일 보는 정원이지만 평소보다 차분해 보였다. 나무나 화초의 잎이 밤 공기에 물들어 가장자리부터 보라빛으로 물들고 있는 것 같다.그러나 그 예쁜 공간에서 찻잔을 잡으면 조금 슬퍼졌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만 그날의 일이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 날. 내가 나의 첫사랑의 우스꽝스러움을 눈치챈 날. 내가 휴리안에게 고백한 날."라디?"잠깐 달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홍차의 표면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으니까 휴리안이 나를 불렀다. 아차, 정신차려야지. 나는 퍼뜩 고개를 들고선 마주앉아있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아아 보름달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야.'그다지 환하지 않은 달빛에, 오빠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 정도의 실루엣이면 정말 누가 휴리안인지 진하오빠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눈을 살짝 감고선 홍차를 한모금 들이마셨다. 오늘 밤은 그리운 사람과 차를 마시겠구나.나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진하 오빠는 내가 테이블 매너의 마무리가 부족한 것을 놀리곤 했기 때문이다.나는 웃으며 그에게 대답했다."아니, 그냥 오늘은 찻잔이 참 예쁘네 싶어서."오빠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잔잔하게 말했다."아, 그렇게 말해주다니 뿌듯한데.""응? 아, 이 티세트 오빠가 골랐어?"내가 의아하게 묻자 휴리안은 작게 웃고선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레이디들의 취미를 뺏는 짓이라고 나무랄 거니?""아니, 좋다고 생각하는데... 장인이 만든 티세트들은 식기보단 예술에 가깝다고 생각하니까."내 말을 듣고선 그는 그게 아니라는 것처럼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무슨 뜻이지? 내가 멍청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휴리안은 사랑스러운 것을 만지는 것처럼 그 긴 손가락으로 살짝 살짝 찻잔의 무늬를 덧만지면서 답해주었다."원래는 네가 나를 피하는 것이 슬퍼서 얘기를 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만든 자리였거든 이 티타임은.""아, 아...신경쓰이게 해서 미안해 오빠."내가 시선을 그의 손동작으로 내리며 사과했다. 진하오빠도 내게는 무르기만 해서 내게 화를 내는 법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 싸우거나 화를 낸다기 보다, 내가 오빠를 슬프게 하는 일이 대부분 이었다. 이번에도, 결국 내가 사과해야할 일을 만들었다.힐끔 그의 얼굴을 올려다 보자 푸른 공기 너머로 다정한 사람이 보였다. 오빠는 싱긋 웃으며 사과를 바란게 아니라는 얼굴을 했다. 그는 다시 찻잔의 무늬를 엄지로 쓸었다. 귀여워 하는 것을 바라보는 목소리로 달콤하게 말했다."어떡해서든 네 미움을 사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신경썼거든. 그래서 티세트도 고른거고.""아아... 생각해줘서 고마워 오빠 어쨌든 오빠는 안목이 있는 거 같은데?"오빠는 부끄러운지 볼을 조금 붉혔다. 그리곤 작게 말했다."아니 글쎄...안목이고 뭐고...있을리가 없잖아. 애초에 나는 예술 쪽에는 영 감각이 없어."오빠가 미적 감각이 없다고? 그런 소린 들어본적이 없는데?... 미술 쪽에도 안목이 있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걸 들은적이 있단말야. 나는 오빠가 겸손하게 말하는 건가 싶어서 그의 얼굴을 보았는데, 별로 그런것 같진 않아보였다. 나는 내가 들었던 칭찬을 오빠에게 전했다."오빠, 사람들이 오빠는 예술에도 센스가 있다고 하던데?""아냐. 전혀야. 그냥 배운걸 기초해서 이 화가는 성장하겠네 정도나 이 때 어울리는 음악은 이런거겠네. 하고 생각하긴 하지만 솔직히 미술작품을 보고 감동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오빠는 부끄러운 비밀을 고백하듯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화가의 성장 가능성이나 때에 맞는 클래식을 선곡하는 것만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난 오빠가 고른 이 티세트는 참 예쁘다고 생각하는데."찻잔을 눈 앞에 들어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모양을 충분히 즐긴후에 입으로 가져가서 한모금 마셨다. 예쁜 식기는 보고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다.오빠는 나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미소지으며 말했다."이 티세트를 고른 데에는 안목이나 센스같은건 전혀 관계하지않았어.""그럼?"내 물음에 그는 다시 시선을 자신이 쥐고있던 찻잔으로 향하며 애정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리곤 깨끗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이 옅은 분홍색 무늬가 너를 닮았잖아."그는 엄지로 찻잔을 둘러서 섬세하게 새겨진 분홍색 무늬를 쓰다듬다가 키득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라는 얼굴로 신난 것처럼 설명했다."자잘하고 귀여운 이 꽃무늬가 꼭 너같아서 마음에 들어. 칠해진 색도 완전히 네 머리색이고 말야."그는 순진하게 웃으며 계속해서 나와 이 티세트와의 닮은점을 설명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겨우 내 머리색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찻잔을 그렇게나 마음에 들어해 주는 것이 기쁘면서도 사랑스럽다고 생각되었고...그로인해 또다시 조금은 가슴이 아팠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루종일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그의 그 예쁜 미소에서 눈을 떼야 했다. 대신 진하오빠와 똑같다고 해도 될 정도로 닮은 그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대답했다."하하 무슨 소리야 이걸 만든 장인 한테 미안할 정도다 오빠. 이 예쁜 접시들에게 그게 무슨 막말이야."휴리안은 환하게 짓고 있던 미소를 조금 누그러트리며 약간은 맥이 빠진 것처럼 말했다."음... 뭐... 나는 장인이 내 말을 들었다면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일단 그건 그렇다고 하고. 라디, 너 이젠 정말 멀쩡한 거 맞아?"'아, 또 어색하게 대해 버렸나?!'나는 당황해서 얼른 오빠와 눈을 맞추며 웃어보였다."아, 응! 당연하지! 멀쩡하고 자시고 내가 언제는 이상했나?""...이상했잖아 분명. 오늘 등교할 때만해도..."그는 말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조금 고민하는 것 같았다. 기껏 내가 멀쩡하게 돌아왔는데 굳이 예전일을 헤집고 싶지 않아서 머뭇거리는 것으로 보였다. 하긴, 내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색하게 굴었는데 오빠가 너무 쉽게 넘어간다 생각하긴 했다.오빠는 약간은 긴장되는 표정으로 내게 조용히 물었다."라디... 정말은 왜 그런거야? 왜 갑자기 날 그렇게 피했었어?""아...음... 내, 내가 그랬었나? 그럴 의도는 전혀 아니었는데."내가 더듬더듬 대답하자 휴리안은 다급하게 말을 덧붙였다."내가 너를 화나게 하는 행동을 했다면 솔직하게 말해줘. 다시는 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진심으로 고치고 싶다고 생각하니까말이야. 라디...""아냐! 정말 오빠가 잘못한건 하나도 없어!"나는 당황해서 몸이 먼저 움직였다. 또다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오빠의 손을 꼭 잡아 버린 것이다. 그 모양을 또 봐버리자 소름이 돋았다. 아 정말이지 마주하고 싶지 않아 이런 노골적인 크기차이같은거.나는 베시시 웃으며 손에 힘을 풀어 떼어냈다. 나는 평정을 가장하며 변명했다."진짜 그냥 사춘기 특유의 감정 변덕이었어. 그냥...뭐랄까. 아. 그거지 그거. 다 큰 오빠가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근데 정말 이젠 다 괜찮아."나는 쉽사리 다시 그와 시선을 마주칠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고개를 숙인채 머리를 정돈하는 척을 했다. 아, 나도 안다. 이대로 계속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오빠가 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것이다. 나는 다른 화재를 중얼거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아...근데 뭐랄까... 오빠 오늘 되게 저번이랑 비슷하다..."마주보는 휴리안에게서 필사적으로 오빠를 찾았다. 목덜미에서, 눈가에서, 말하는 입모양에서. 휴리안의 그림자에 살짝 숨어있는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도와줘 오빠. 언제나 그렇듯이.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 나는 이런 곳까지 와서도 오빠가 없으면 제대로 하질 못해.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진하오빠와 차를 마실때의 느긋한 미소를 떠올려 똑같이 지었다. 비록 예전처럼 '지아야'하고 불러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저럭 '라디'에도 익숙해 졌다.휴리안은 방금의 내 어설픈 변명에 봐주기로 했는지 순순히 내가 돌리는 화제에 답해주었다. 그가 조용하게 되물었다.”...지난번이랑 비슷하다고?""응. 전에도 이랬잖아. 어두운 정원에서 달빛을 받으며 우리 둘만 있었지."따끔거리는 마음을 달래며 휴리안의 그림자에 녹아있는 오빠에게 그렇게 말했다.'아 마음이 급해서 되는대로 말하긴 했는데 이것도 참 슬픈 화재네 하필이면 그 티파티 얘기를 꺼내다니...'내가 속으로 주제선정을 후회하고 있을때였다.쨍깡!하고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났다. 오빠가 방금전만해도 소중하게 쥐고 있던 컵을 놓친 것이다.그러나 오빠는 별로 놀란 기색도 없이 산산조각난 컵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나를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아, 아..그렇지. 그때도 네가 이렇게 달빛을 받으며 말했었지...내가 아니라... 다른 ...아. 그때와 똑같았던 거구나." 난 당황해서 탁자에 잔뜩 흩어진 컵의 잔해 중 한 조각을 들어 옮기며 오빠가 괜찮은지를 물었다.“오, 오빠 괜찮아? 베이지 않았어?”휴리안은 내가 조각을 옮기던 손을 잡고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다.“...라디, 그냥 둬 다치겠어.”“오빠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다 있네... 손이 미끄러졌어?”그는 나를 빤히 바라보다가 힘없이 웃었다. 그리고는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아니...그냥...음... 조금 무서워.”“뭐? 뭐가?”휴리안은 대답은 않고 고개를 떨구었다. 오빠가 갑자기 왜 이럴까. 역시 아까 내 변명이 시원찮아서? 그럼 뭐라고 말했어야 하지? 휴리안. 제발 슬퍼하지 말아줘.내가 말이 없는 그의 앞에서 불안해 하며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오빠는 천천히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다행히 다시 예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상냥하게 대답했다.“생각해 봤는데, 역시 난 네가 날 피하는 게 제일 무서워.”“어? 어. 이젠 안 그래! 절대 안 피해. 나도 오빠가 제일 좋으니까.”오빠가 제일 좋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었어. 당신이 알면 깜짝 놀랄 정도였을 거야. 걱정마, 제대로 줄여나갈게. 불필요하게 거추장스러운 부분은. 나는 순식간에 꽈악 조이는 심장을 달래며 태연하게 대답했다.오빠는 잠깐 내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가 금방 활짝 웃었다. 여느 때와 같은 산뜻한 목소리였다.“응...나도야...그렇지만 여기서 또 울거나 할 순 없지. 그러다가 네가 내게 질리면 어떡해.”“오빠... 역시 지금 울고 싶을 정도라는 거야? 미안해... 진짜 다신 안 그럴게!”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반복해서 사과하자 오빠는 그만하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조금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아냐, 라디. 농담이었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말야... 그래. 지금은 네가 도망가지 않는 걸로 족하다는 거야.”“절대, 절대 안 도망간대도?!”내가 얼굴이 빨개져서 단언하자,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아까보다도 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나를 제대로 봐주었으면 해. 노력 할 테니까.”너무 작은 소리라 잘 들리지 않아서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뭐? 뭐라고 했어 오빠?”그러나 그는 다시 말해주는 일 없이 빙긋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일어나기 쉽게 손을 내밀며 자상하게 말했다.“이제 슬슬 들어갈 때인가 해서 말이야. 바보 같게도 내가 찻잔을 깨부숴서 어차피 더 이상 티타임은 무리이기도 하고.”잔뜩 긴장했었던 티타임은 그렇게 끝이 났다. 나는 오빠의 이상했었던 태도가 신경쓰여서 그 후로도 계속 오빠를 주시했지만 그가 특별한 태도를 보이는 일은 그 이후엔 한 번도 없었다. 때문에 나는 오빠가 어색한 태도로 찻잔을 깨부쉈던 일 같은 건 서서히 잊고 말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휴일의 저녁. 한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부모님이 모처럼 시간이 나서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요리사도 신경을 썼는지 평소보다도 화려한 식탁이었다.아빠가 스테이크를 썰면서 내게 말을 거셨다.“라디, 폐하께서 네 몸은 좀 어떠냐고 물으시더구나.”“네? 폐하께서요? 몸 둘 바 모르겠네요.”사실 ‘메디엘이랑 그렇게 자주 보는데 폐하가 새삼스럽게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아빠는 탐탁지 않은 얼굴로 다시 말을 이으셨다.“이번 수확제에서 네가 국민들에게 얼굴을 비춰줬으면 하는 눈치셔.”“엥? 제가요? 어? 수확제? 아니, 수확제는 예정대로 열리는 거였어요?”아카데미 폭파사건 이후로 마을 분위기가 뒤숭숭해서 그다지 축제이야기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놀랐다. 응? 내가 왜 국민들 앞에 서지? 난데없네? 게다가 수확제가 예정대로 열리는 거였다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놀란 건 나뿐만이 아닌지 우리 형제들 모두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이 아빠를 쳐다보고 있었다.아빠는 곤란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뭐, 위신이 있지 그깟 공격 이후에 수확제 같은 큰 행사를 미룰 순 없지... 게다가 그, 왜... 폭파사건 이후에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구나.”“무슨 소문이요?”“사실은 포제타 왕국의 공격을 받아 황실 아카데미의 마법 클래스 학생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민심이 흉흉해 질까봐 황실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랑...”“와... 어? 또 있어요?”“대마법사 빅토르의 딸 프랑디아 라디올러스는 폭파 직전에 이미 마법을 감지했었다는 소문.”가족들은 잠시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길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당황해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더듬거렸다.“엥? 저, 저요? 아 맞다. 제 친아빠가 빅토르 경이라고 했었죠?”제르다민은 어이가 없는지 꼿꼿이 세우고 있던 허리에 힘을 빼서 자세를 무너트린다음, 내 바보같은 말에 매우 질린다는 듯이 핀잔을 주었다.“이런 지능 낮아 보이는 녀석이 ‘천재의 재림’ 같은 소리를 듣다니 진짜 공부의욕 떨어트리네.”“으잉? 오빠도 저 소문 알고 있었어?”“안 알고 싶어도 귀에 들릴 정도로 꽤 유명하다고 이 소문.”제르다민은 진심으로 귀찮다는 듯이 혀를 찼다. 그리고는 물컵을 잡으며 내게 예의상 물어준다는 듯이 질문했다.“근데 그게 정말이야?”“폭파전에 마법을 감지했다고? 내가? 내가 그런 대단한 일을 어떻게...”“역시 그렇지? 그런 일이 가능했던 마법사는 여태까지 한명도 없었어.”그는 헛소문일줄 알았다는 얼굴로 무심하게 고기를 포크로 찍었다. 아, 근데 폭파 전에 좀 이상한 기분이 들긴 했었는데...“아, 근데 폭파 전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했어. 그게 감지라거나 하는 대단한 일은 아니었겠지?”나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말로 말하며 물을 마셨다. 그러나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리 가족들은 거의 식탁을 박차고 일어날 기세로 흥분해서 말을 걸었다. 엄마는 얼굴이 빨개져서 물었다.“뭐? 라, 라디! 그럼 정말로 폭파가 일어나기 전부터 일어나서 안나를 껴안았다는 게 사실이었단 말이니?”“네? 네에... 맞긴한데, 근데 그건 감지라기보다 그냥 불안해서...”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헬리오가 외쳤다.“뭐! 그게 사실이었단 말야?! 난 당연히 헛소문인줄 알았는데? 왜 말 안 해줬어 라디?”“엉? 아냐! ‘마법 감지’처럼 대단한 게 아닐 거래도? 그냥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서 불안해서...”이번에도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윌로우가 흥분해서 감탄했다.“우와! 공격이 있기 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대박이다!!”“아니 저기... 흥분하지 말고... 그냥 운이었을..”나는 우리 가족들이 이상하게 내 능력을 부풀리는 것이 민망해서 모두를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무리였다. 한참동안이나 모두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나서야 식탁은 조금씩 잠잠해 졌다. 그러자 가족이 모두 흥분했을 때에도 조용히 ‘대단하다...’라고 중얼거리며 내 얼굴을 보던 휴리안이 아빠에게 신중하게 말을 걸었다.“아버지, 그럼 폐하께서 라디를 공식석상에 올릴려는 이유는 황실아카데미의 마법클래스가 괴멸됐다는 소문은 없애고, 라디의 마법능력이 대단하다는 소문은 은근히 증폭시키려고 하시는 걸까요.”아빠는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서 휴리안을 바라보며 끄덕거리며 대답하셨다.“적어도 나는 그렇게 예상한단다. 표면적으로는 우리 식구 모두가 황가의 옆, 가장 좋은자리에서 추수제 마지막의 퍼레이드를 감상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말이지...”아빠는 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라디를 우리가족 중에서 가장 폐하와 가까운 곳에 앉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거의 인정하신 것이지. 라디를 나라의 불안을 잠재우는데 이용하고 싶다고.”‘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상관없는데... 약간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뻥치는 거 같아서 민망하긴 하지만.’그렇게 생각한 내가 ‘저는 괜찮아요.’라고 말하려고 입을 연 순간 휴리안은 온화한 표정을 지우고 미간을 사정없이 구긴 채 단호하게 말했다.“그런 이유로 라디를 그렇게 사람 눈을 타는 곳에 세울 수 없습니다.”그리고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입을 다물고 접시 위의 스테이크를 썰었다. 아빠는 휴리안의 말을 듣고 고민하는 것처럼 턱을 문지르며 중얼거렸다.“아...역시 그렇겠지? 안 그래도 라디는 여러모로 주목받고 있으니까 말야... 괜히 더 소문을 키우고 싶진 않은데...”제르다민 별 관심 없는 것처럼 샐러드를 입에 넣고 우물거리다가 삼키고는 말했다.“확실히 분홍이는 자기 머리색만으로도 이미 제 분수에 차고 넘치게 눈에 띄긴 하지요.”그는 퉁명스럽게 말하긴 했어도, 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걱정해 주고 있었다.나는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 가족의 마음에 괜시리 찡하면서도, 지금 드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다.“그렇지만 겨우 제가 과도하게 시선을 모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폐하의 제안을 거절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아빠와 엄마가 뒷맛이 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윌로우는 내 말이 맞다고 편을 들었다.“맞아요. 게다가, 뭐... 연설을 한다거나, 대놓고 눈길을 끄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있을 뿐인데요. 부모님께서 너무 심하게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번에 조금 눈에 띄어도 또 잠깐 조용히 지내면 사람들 관심이야 금방 잠잠해 질걸요?”엄마는 한숨을 푹 쉬면서 힘없이 중얼거렸다.“뭐~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구나. 어차피 거절할 구실을 찾기 어려워 보이니까 말이지... 아~ 정말 싫네...”아빠도 꺼림칙한 표정으로 물 컵을 내려놓았다. 휴리안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믿기지 않는 다는 듯이 물었다.“정말 그냥 라디를 그 자리에 앉치실 생각이세요?”나는 왠지 흥분한 듯한 휴리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입을 열었다. 오빠는 좀 과보호라니까?“에이~ 오빠, 괜찮을 거야. 별로 힘든 일도 아닌데, 주목받기 싫다고 폐하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말이 돼?”휴리안은 입을 꾹 다물고 슬픈 눈으로 나를 한번 슥 쳐다본 다음 자신의 앞에 놓인 접시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 슬픈 것 같았다.나는 그런 그가 너무 기운 없어보여서 과장되게 밝게 ‘괜찮아, 괜찮아~ 폐하의 근처자리라니 분명 퍼레이드는 잘 보이겠지.’하고 까불어 보였다. 그럼에도 그 이후의 저녁 식사는 모두 조금 텐션 다운된 상태에서 끝나고 말았다.“휴리안 공은 오늘 기분이 굉장히 별로이신 것 같으시네요.”단상으로 오를 순서를 기다리는 도중에 메디엘이 그렇게 말을 걸었다.순조롭게 치러진 수확제는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어 수확제의 하이라이트인 퍼레이드만이 남아있었다. 중요한 행사가 이루어지곤 하는 이 큰 광장에 오늘은 황족과 초청받은 공작가들, 즉 우리 가문과 테젠 가문을 위한 높고 화려한 단상이 세워졌다. 퍼레이드의 마지막 도착지는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네...휴리안 오빠는 여전히 완벽하게 웃고 있긴 한데... 왕자님은 참 잘 아신단 말이에요?”“뭐, 제가 좀 섬세한 편이죠.”“사실 오빠는 오늘 내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나는 내 조금 뒤에서 조각 같은 미소를 띠고 있는 휴리안을 흘끔 뒤돌아 보았다. 그러자 오빠는 눈썹을 살짝 찡긋해서 내게 아는 척을 해 주었다. 그래도 역시 오늘은 기분 나빠보였다. 아무래도 내가 이 단상의 가운데 서는 것이 못 배길 정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 나는 '에휴...'하고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다.오늘 나의 복장은 하얀색으로 무늬가 자잘하게 수놓아진 하늘색 드레스였다. 베라는 아침에 굳은 표정으로 그 하늘색 드레스와 세트인 챙이 넓은 모자를 주의 깊게 씌워 주었다. 그 모자는 화려한 하얀 레이스 리본이 묶여있어서 모자로 시선이 많이 갔고, 챙이 넓어 얼굴로 그늘이 졌기 때문에 내 머리 색이나, 얼굴은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았다. 베라는 아마 이번에 옷을 고를 때에도 내 생각을 많이 해 준 것 같았다. 상냥한 베라. 정말로 좋아하는 베라.내 옆의 왕자님은 행사가 있을 때 입곤 하는 하얀색 예복을 입고 있었다. 하얀색 천에 금실로 화려하게 장식된 그 옷에 뒤지지 않는 레몬빛 금발과 진한 벽안이 반짝 반짝 빛나는 것 같았다. 실로 제국의 샛별. 아름다워서 계속 보고 싶은 모습이건만, 메디엘도 나를 돌아보며 살짝 인상을 찡그렸다. 그가 나를 빤히 바라보다가 슬픈 기색으로 중얼거렸다.“저도 오늘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왕자님께서도요? 왜요?”내 물음에 메디엘은 고개를 옆으로 까딱하고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담담한 말투로 대답했다.“빨리 좀 더 대단해지고 싶어요.”내가 나머지 대답을 기다리며 '무슨 소리?'하는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자, 그는 팔을 내밀어 내가 팔짱을 끼게 하곤 우물쭈물거리다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리고는 아주 조그맣게 중얼거렸다.“...오늘 그대를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서... 죄송해요.”“제일 좋은 자리에서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게 왜 사과할 일인지 모르겠네요.”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너스레를 떨며 히죽 웃었다. 왕자는 내 얼굴을 보고는 조금 붉어진 얼굴로 피식 거린 다음 팔짱을 끼지 않은 손으로 내 모자를 살짝 눌렀다. 그리고는 ‘모자, 잘 어울리네요.’라고 딴청을 부렸다.그런 메디엘을 보고있으려니 자연히 미카엘 생각이 났다.‘미카엘도 이 퍼레이드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을까?’미카엘은 항상 사람 많은 곳은 싫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녔기 때문에 광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있는 그는 잘 상상이 되지 않았다.‘그럼 다른 건물의 지붕 위 같은 곳에서라도 느긋하게 쳐다보려나? 아님 아예 퍼레이드 따위 아예 관심도 없을까?’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까 이윽고 웅장한 금관악기 소리가 들렸다. 제국의 공작가와 황가의 등장을 알리는 찬미가 같은 것이 읊어졌다. 나는 제국의 국민 앞에 서는 것이 갑자기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메디엘이 팔짱에 힘을 주어서 내 손을 꽉 쥐어주었다. 그 작은 행동으로도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되는 것 같기도 했다.먼저 파르펠과 코멜라를 포함한 테젠가문이 올라 단상의 제일 왼쪽 자리에 앉았다. 그 다음은 나를 제외한 우리 가족들이 올라섰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두 한명 씩 올라가면서 나와 눈을 맞추어주었다. 모두 나를 걱정해 주는 걸까. 달콤한 것을 먹은 기분이 되었다.마지막으로 황가와 내가 단상 위를 올랐다. 표면상으로는 다리가 불편한 나를 자상한 왕자님이 에스코트 해주는 그림으로 보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면 나는 확실히 눈에 띌 것이고, 황가와 가까운 가운데 자리에 앉는 것이 그다지 어색해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 사실 별거 아니라면 굉장히 별거 아닌 일인데 메디엘은 이 일을 매우 미안해했다. 그 마음이 오히려 고마울 정도이다.단상으로 한걸음 내딛을 때마다 군중이 내는 특유의 소음소리가 곱절은 커지는 것 같았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 앉고 나서야 광장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퍼레이드가 도착할 가운데 부분만 빼놓고 삥 둘러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 있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뭐가 보이기나 할까 궁금할 정도였다. 반면 퍼레이드를 하는 서커스 단원이나 무용가들은 우리가 있는 단상 바로 앞에서까지 묘기를 부리는지, 단상 앞은 퍼레이드를 위해 남겨놓은 부분과 바로 맞닿아 있었다. 역시 권력이 좋긴 하구나. 다른 사람들은 맨 앞줄을 차지하기 위해 거의 어제 점심부터 나와 있었을 텐데.화려한 음악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국민들은 좀처럼 볼 수 없는 황제폐하의 모습에 흥분하는 눈치였다. 게다가 나에 대해 여러 소문이 많았다는 것은 정말인 것 같았다. 기분탓이라고 치기엔 너무 열렬한 눈빛들이 잔뜩 있었다. 뭐....도움이 되긴 한 것 같아서 다행이네.잠시 기다리니까, 저 멀리서 퍼레이드의 머리 부분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화려하게 치장한 무희들이 마치 열대어같이 자유로운듯, 일사불란한 춤을 추었다. 거대하게 만든 구조물이나, 꽃으로 치장한 마차,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인들을 하나같이 넋을 잃고 보았다. 퍼레이드의 끝부분으로 가자 점점 ‘아,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런 구경을 할 수 있다니...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몰라. 그저 폐하에게 감사해야 할 일 아냐 이거?’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이윽고 슬슬 이게 퍼레이드의 마지막인가? 하는 분위기가 되자, 퍼레이드의 주변을 돌며 사람들에게 익살을 떨던 가면을 쓴 어릿광대들이 현란하게 텀블링을 하기 시작했다. 등을 잘 살펴보면 날개가 있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몸놀림이었다. 세 명이 한 조가 되어 공중제비를 돌기도 하고, 백텀블링을 하기도 하며 우리가 있는 단상쪽으로 다가왔다. 그 모습은 현란하고,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올 정도였지만... 나는 어딘가 께름칙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다.‘여태까지 별 재주도 없는 것처럼 익살만 부리던 삐에로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고?’어찌보면, 단지 파격적이고 눈길을 끄는 연출로 보이기도 하지만...역시 지금 분위기로 보자면, 일부러 그랬다기엔 그런 진행은 너무 세련된 것 같은데...나는 묘하게 어색한 기분이 들어 우리 단상 쪽으로 다가오는 어릿광대 분장의 사람들을 긴장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두 명이 발판이 되어주고 여자로 보이는 광대가 힘차게 제비를 돌며 공중으로 날아올랐을 때였다.머릿속에 ‘찌르르르르’하고 방울벌레가 우는 것 같은... 투명하고 예쁜소리인 것 같으면서도 소름이 끼치는 소리가 울렸다. ‘위험해.’누군가가 나의 뇌에 직접대고 말하는 것 같았다.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바람에 내 하늘색 모자는 힘없이 옆으로 툭 떨어졌지만, 나는 모자가 벗겨진 줄도 몰랐다. 옆에 앉아있던 메디엘이나 폐하, 오빠들이 나를 의아하게 보는 것이 느껴졌다. 내 분홍빛 머리카락이 햇빛을 받아 조금 반짝였다.크게 공중으로 날아올랐던 여자는 최고점을 지나 우리가 있는 단상 정도의 위치로 떨어지고 있었다.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잘 가늠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낙하하고 있는 그녀는 순간 손짓으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 같았다.나는 불안감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 머릿속의 작은 종소리인지 벌레소리인지 모를 ‘찌르르’한 소리는 점점 커져 나의 사고를 가득가득 메우고 있었고, 불쾌감으로 변해가는 불안감은 등을 기어올라 소름이 돋게 했다.제대로 생각을 할 수도 없이 나는 다짜고짜 그 여자 광대를 향해 얼마 전 배웠던 마법을 써먹었다. 사실 선택의 여지 없이 그것 밖에 생각나지 않았다.“파이어 볼!”이 기초마법의 원래 기능은 작은 불을 원하는 곳에 쏘아 올리는 정도였으나 내가 써먹으면 거대한 불덩이가 쏘아나가 조준한 곳에 붙어 내가 겨우겨우 마력을 추스를 때 까지 하염없이 탔다. 아, 그래 이런 끔찍한 마법을 내가 그 여자에게 썼다. 그저 불안하다는 이유로 말이다. 내 본능은 저 여자 광대가 끝내기 전에 먼저 저지하라고 시켰다. 하지만 뭘 끝내?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주문을 외치자마자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아름답고 완벽한 공중제비를 돌던 그녀는 제대로 낙하해서 단상과 가장 가까운 위치가 되자마자 내가 만든 거대한 불덩이에 휩싸였다.“꺄아아아아아악!”귀를 찢을 듯한 높은 음의 비명이 광장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은 보았다. 내 마법을 맞고 비틀 거려 휘청거리는 그녀의 손끝에서 검은 액체 같은 것이 물총으로 쏜 것처럼 가늘고 길게 쏟아져 나온 것을.원래는 우리를 향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한 그녀의 손은 갑작스러운 뜨거움에 하늘로 잘못 조준되었고, 때문에 한번 높게 치솟았던 그 액체는 하늘에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물방울져 투둑투둑 떨어졌다. 황가와 내가 앉아있던 자리의 바로 앞, 그러니까 우리의 발치쯤에 떨어진 그 검은 물방울은 피시식 소리를 내며 두꺼운 단상 바닥을 빠르게 녹였다. 그 부식 속도에 놀라면서, 나는 다시 한 번 오싹했다. 이걸 직접 맞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영애!”일어나서 혼자 남들보다 조금 앞에 나와 있었던 나를 메디엘이 급히 안아 올려 뒤로 오게 했다.우리가 서있는 단상은 광장을 아주 잘 내려다보이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내 마법을 제대로 받은 여자 어릿광대가 불구덩이 속에서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아마 그렇게 높게 뛰어올랐음에도 제대로 된 착지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불이 붙은 한쪽 다리는 기괴한 각도로 꺾여, 보기만 해도 아파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광장은 마치 그녀 말고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처럼 그녀의 괴로움에 찬 비명소리만이 울리고, 또 울렸다. 아, 내가 화형 시켰다. 저 여자를. 끔찍한 것이 불에 탄 매캐한 냄새를 인식하자, 얼른 마법을 멈추고 싶었다. 재빨리 시도해 보았다.“으... 멈춰라 제발...”내가 안간힘을 써도 이 거지같은 제어능력은 제대로 듣질 않아서 진땀만 났다. 그동안에도 저 고막을 찢을 듯한 비명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할퀴었다.여자 광대의 디딤돌이 되어주었던 남자 광대 두명은 그녀가 불덩이가 되어 추락하자 순간 당황한 것 같았다. 약간 우왕좌왕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품속에서 칼을 꺼내들었다. 광장의 시민들은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 다 같이 소란스럽게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단상을 지키던 근위병들이 그들을 저지하려 똑같이 칼을 빼들었을 때였다.건장한 체구의 광대 둘은 거의 동시에 자신의 다리를 부여잡고는 주저앉았다. 작은 단도가 하나씩 박혀있었다. 군중 속에서 후드를 깊게 눌러 쓴 사람이 한명 뚜벅 뚜벅 걸어나왔다. 괴로워하던 광대 하나가 그 사람을 눈치 채고 일어서려고 했다. 광대가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려 하자 후드를 쓴 사람은 광대의 손에 칼을 하나 박아 넣었다. 광대가 도망칠 수 없게 마치 말뚝을 박듯이 아무렇지 않게 칼을 발로 밟아 단단히 고정까지 하는 여유까지 보였다. 손을 관통당한 남자는 곤충채집돼서 핀으로 고정당한 매미처럼 심하게 발버둥 쳤지만 후드를 쓴 사람을 그런 그를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머지 한명에게 다가갔다.동료가 그런 꼴이 된 것을 보자 나머지 광대는 절뚝거리면서도 벌떡 일어나 후드를 쓴 남자를 경계하는 포즈를 취했다. 하지만, 이미 승산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뒤를 빠르게 힐끔 거리며 퇴로를 찾는 모습을 보였다. 이윽고 광대가 재빨리 뒤돌아서서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한발자국을 내딛기도 전에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종아리에도 단도가 하나 더 박힌 것이었다. 그 후는 마치 사자가 다친 사슴을 먹어치우는 것과 같은 현상이었다. 불에 타고 있는 여자는 끈질기게도 아직도 살아서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에 광장은 순식간에 지옥이 된 것만 같았다.후드를 쓴 사람이 거의 분풀이를 하듯 광대를 넝마로 만들자, 근위병중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 한명이 당황해 그에게 외쳤다.“용, 용기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지만, 죽이시면 안 됩니다! 증언을 받을 사람이 필요합니다!”후드를 쓴 사람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이제는 미동도 하지 않는 삐에로의 머리를 한번 더 밟은 다음 숨이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그래서 하나는 남겨 놓았잖아.”칼로 손을 고정해 놓은 광대를 말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하는 잔뜩 화가 난 듯, 불만스러운 목소리는 익숙했다.‘미카엘!’너무 놀라서 말도 안나올 지경이다.나를 안고 있던 메디엘도 후드를 쓴 남자가 미카엘 인것을 눈치챘는지 ‘이런 이런...’하고 중얼댔다.미카엘은 근위병이 광장으로 내려오자 마지막으로 너덜너덜해진 삐에로를 한번 더 발로 찬 다음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내가 화형 시킨 여자의 비명소리가 이제야 조금씩 작아졌다. 저렇게 온몸이 불타고 있는데도... 방금까지는 살아있었다. 나는 이제 온몸이 덜덜 떨렸다. 심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불이 꺼지질 않아서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어쩌지... 꺼지질 않아...”여자 광대는 거의 숯이 되어 이제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인데도 불은 거대하게 활활 타고 있었다. 휴리안은 내가 그 끔찍한 것을 바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다급하게 다가와서 내 눈을 가리고는 말했다.“괜찮아 라디. 진정해.”“오빠...”“고마워 라디. 우리 모두 네 덕분에 살았어. 네 덕분이야. 진정하고 숨 좀 크게 들이 마셔봐.”오빠의 낮은 목소리를 듣자 안심이 되었다. 오빠가 하라는 대로 크게 심호흡을 하자, 떨리는 것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세 번정도 심호흡 하자, 메디엘이 나를 한번 세게 껴안으며 말했다.“아, 꺼졌습니다. 라디 양.”그때서야 휴리안은 눈을 가린 손을 내려주며 상냥하게 웃어보였다.“다 괜찮아 라디. 정말 괜찮아.”이제 광장에 남아 있는 것은 불안에 떨며 왁자지껄 해진 군중들뿐이었다. 황제가 나를 안고 있는 메디엘 가까이로 와서 내게 귓속말로 말했다.‘있는 힘껏 자랑스럽게 웃어보여다오.’황제가 그렇게 짧게 말한 후 메디엘에게 눈짓하고 앞으로 나가자, 메디엘은 내게 쓴웃음 지어보인 다음 나를 조심스럽게 내려 놓았다.황제폐하는 앞으로 나서서 서있기만 했을 뿐인데도, 광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다들 귀를 기울였다.“보았는가? 제국의 작은 소녀만으로도 이 정도 위협은 막을 수 있음을?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미약한 방금의 추잡함을 보았는가?”황제가 거만하게 웃으며 그렇게 외치자 갈피를 못 잡고 웅성거리던 광장의 사람들은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황제는 나를 흘끔 곁눈질했다.나는 무서울 것이 없다는 태도로 활짝 웃으며 한걸음 나왔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한층 더 커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서야 나는 내 모자가 벗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머리색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보였다.내가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올려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인사하자 사람들중 한명히 크게 외쳤다.“그레펠 제국 만세!”그것을 신호로 군중은 일제히 그레펠 제국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황제는 위엄있게 잠시 그 광경을 내려본 다음 내 어깨를 감싸고 뒤로 돌았다. 나를 내려다 보며 작게 속삭였다.“수고했다 라디...소문이 사실이었군. 대단하구나. 너의 아버지보다 더 할지도 모르겠어.”말을 끝마치고 나서, 황제는 메디엘의 것과 꼭 닮은 쓴웃음을 지었다.우리들은 모두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펴고 평온을 가장한 채 단상에서 내려 왔다. 그러나 내려오자 마자 다리가 후들거려서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넘어지기 전에 휴리안이 덥썩 나를 안아올렸다.내가 자신없는 얼굴로 그를 올려다 보자, 그는 다시 한번 그 상냥한 미소를 지어보이며 말했다.“괜찮아. 괜찮아 라디. 전부 괜찮아.”그리고는 내 머리를 지긋이 눌러 내가 그에게 완전히 기대도록 만들었다.오빠가 그렇게 한 것은 아마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머리를 뉘어 귀를 오빠의 몸에 갖다 대자, 쉼 없이 쿵쾅대는 그의 심장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오빠도 무리해서 웃고 있음을 깨닫자, 눈물이 날 것 같았다.나는 그다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얌전히 그의 품에 안겨서 마차를 타기위해 이동했다. 원래 행사를 끝내려던 시간보다 이른 시간이었기에, 마부들은 아직 와 있지 않았고, 하인이 급하게 마부를 부르러 뛰어갔다. 우리 가족은 다들 매우 지친사람들처럼 한동안 말없이 멍하니 서있었다. 그때, 우리의 뒤편으로 조금 소란스러움이 느껴졌다. 테젠 공작 부처의 목소리였다.공작 부인이 날카롭게 외쳤다.“아니, 지금 그걸 왜 하필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지?”나는 힘없이 고개를 들어, 오빠의 어깨 뒤편으로 소리의 근원을 쳐다 보았다. 무언가를 옮기던 계급이 낮아 보이는 군인들은 당황해서 대답했다.“아! 죄송합니다. 당연히 벌써 가셨을 줄 알고...”테젠 공작은 화를 벌컥 내며 화를 냈다.“이제 우리가 있는 걸 알았으면, 냉큼 꺼져야 할꺼 아냐! 우리 집 딸들이 놀란 거 안보여?!”그는 육중한 팔을 그 군인들의 눈 앞에 대고 흔들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뒷걸음질 치느라 들것으로 옮기고 있던 무언가를 조금 위태롭게 했다. 그제서야 나는 그들이 무엇을 옮기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까맣게 태운 여자 광대의 시체를 옮기고 있던 것이었다. 사실, 그건 시체라고 부르기엔 이미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다. 몸 안의 수분이라고는 전혀 남아 있지 않은 듯 바짝 바짝 마른 그 몸은 그것이 원래는 여자였는지, 남자였는지 조차 구분 할 수 없었다.군인들이 중심을 잃어 그것을 떨어트릴 듯 휘청하자, 코멜라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작게 ‘꺅’하고 비명을 질렀다. 저것을 바닥에 떨어트리면 어떻게 될까, 분명 까만 가루를 날리며 산산조각 나겠지. 그래, 커다란 숯을 떨어트린 것처럼.군인들은 다행히 시체를 놓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심을 잡기 위해 비틀거리자 시체에서 무엇인가 후드득 떨어져서 주변에 있던 테젠가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흩어졌다. 오직 파르펠만이 너무 놀라 쥐고 있던 부채를 떨어트렸는지, 그것의 가까이로 천천히 걸어가 부채를 주웠다.‘응? 부채랑, 또 뭘 줍는 거지? 잘못본건가?’부채만을 줍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꼼지락 대며 딴 짓을 한 거 같기도 한데... 사실 나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테젠가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굴어서 조금 짜증스러웠을 뿐이다. 다만, 파르펠이 부채를 주워들고 겁을 먹었는지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던 것은 눈길이 갔다. 가엽게도, 저런 끔찍한 시체를 눈앞에서 보기엔 파르펠은 너무 어린나이이다.파르펠이 그 시체 앞에서 우두커니 서있자, 코멜라가 냉큼 다가와서 파르펠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뒤돌려 껴안았다. 역시 파르펠의 엄마 역할은 공작 부인보다는 코멜라가 해내고 있었구나. 착한 아가씨 같으니라고.내가 멍하니 군인과 테젠 공작부처가 옥신각신 하는 모습을 모고 있으려니까, 엄마가 작게 말했다.“이런, 라디. 저런 흉한 것 보지마. 가여운 것. 휴리안, 좀 더 이쪽으로 와. 라디가 계속 저걸 보고 있어.”엄마가 나를 안고 있던 휴리안에게 좀 더 이쪽으로 가까이 오라는 듯 손짓을 하자, 휴리안은 퍼뜩 깨달은 것처럼 내게 사과를 하며 부모님 쪽으로 몇 걸음 더 걸어갔다.“아, 네. 갈게요. 미안, 라디. 몰랐어.”“아냐 난 괜찮아.”휴리안이 가족들이 서있는 중심으로 오자 여기저기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흠... 나는 조금 피곤하긴 해도 괜찮다. 물론 사람을 죽인 것이 기분 좋을 리 없겠지만, 백번 같은 상황이 와도 나는 백번 그녀를 저렇게 만들겠지. 그만큼이나 후회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한 건지는 몰라도 나는 그녀가 마법을 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지했다. 그런 능력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막지 못했으면 황가 사람이나 우리 식구들이 크게 다쳤거나... 운이 없었으면 죽었을 것이다 분명. 그렇기에, 그녀를 죽인 것에 후회는 없다. 그녀를 막을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고 까지 생각한다.하지만, 좀 더 마법에 능숙했으면, 죽이지 않고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들어버리고 만다. 그녀에게도 가족이 있었을까?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하는 쓸데없이 나를 슬프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버리는 것이다.‘뭐, 이제 와서 어쩌겠어.’그렇게 생각하려 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녀는 죽어도 마땅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도 조금 우울하긴 하다. 아니, 사실 많이 우울하다. 이런 내 자신에게 화가 날 만큼. 그래서 금방 괜찮아지려고 한다.나는 그녀가 다시 살아나서 또 한 번 우리 가족을 죽이려 한다고해도 다시금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불을 쏘아 올릴 테니까. 그 정도로 지당한 행동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나는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께 웃어 보이며 말했다.“안 믿으실 거 알지만 말할게요. 전 괜찮아요.”아빠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내 머리를 큰 손바닥으로 툭툭 누르며 말했다.“...씩씩하고 착한 녀석.”나는 작게 키득거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조금 피곤하긴하다...부끄럽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조절을 잘 못하거든요... 죽이지 않았다면 좋았겠다고는 생각해요.”휴리안이 내 말이 끝나자마자 단호하게 말했다.“넌 잘못한 게 없어.”나는 힘없이 오빠의 어깨에 턱을 대며 대답했다.“나도 알아 오빠. 그냥... 유감일 뿐이야. 나도 후회는 없어.”내가 말을 끝마치자 우리 가족은 내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고민하는 눈치였다. 다들 선뜻 내게 말을 건네지 못하고 우물쭈물 거렸다.그런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제르다민이었다. 제르다민은 멀리서 우리를 태우기 위해 오는 마차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일단 집에 가서...살아난 것에 대해 축배라도 드는 게 어떨까요.”헬리오는 그거 좋은 생각이라는 듯 재빨리 맞장구를 쳤다.“오! 그거 좋네요 형님! 더불어 라디의 엄청난 능력에 대한 찬양도!”천사같이 생긴 나의 어린 오빠는 이 무거운 분위기를 풀으려는 듯 활짝 웃으며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라디, 이렇게 대단한 네가 내 여동생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나도 이렇게 상냥한 오빠들을 둬서 감개무량하네.”그의 사려깊은 배려에 감사하며 그렇게 키득댔다.헬리오의 노력은 제대로 효과가 있어서 우리들은 점차 웃음을 찾기 시작했다. 제르다민까지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는 내게 장난스럽게 말했다.“아, 우리집 분홍이한테 내가 목숨을 빚질 줄이야.”“제발 그걸 죽을 때까지 기억해줘.”그는 피식 웃으며 내 머리를 톡 때렸다. 내가 ‘뭐야...’하며 불만스럽게 쳐다보자 제르다민은 작게 말했다.“모르지, 다음주 정도까지는 잘해줄지.”‘겨우 다음주냐. 진짜 쩨쩨하네.’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일단은 웃어보였다. 제르다민한테 이정도 소리라도 들은게 어디냐.윌로우는 휴리안에게 안겨 그보다 한참 위에 있는 나를 빤히 올려다 보다가 중얼거렸다.“우와...라디. 너 마법 클래스 실습점수는 거의 낙제점 아니었어? 네가 이렇게 대단한 마법사였을 줄이야...”얘가 산통 깨는 소리하네. 나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뭐, 살고 싶은데 뭔들 못하겠어.”윌로우는 내 대답을 듣고는 끄덕거리며 대답했다.“맞아... 살려면 뭔들 못하겠어. 그치? 나는 아무튼 지금 살아있을 수 있어서 엄청 기뻐. 그것 정도는...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항상 틱틱대던 윌로우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신기해서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그 아이는 금방 얼굴이 빨개져서 딴 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그냥 너무 우울해 하지 말라는 소리야.”이 작은 소년까지 나를 위해서 이토록 따뜻한 소리를 해주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나는 그런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대답했다.“고마워 오빠. 이젠 별로 안 우울해. 내가 오늘 우리 식구들을 지켜냈다는 것은 분명 내 평생의 자랑이 되겠지.”가족들은 이제 모두 씨익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는 한 걸음 나와서 내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눈을 맞추시곤 천천히 입을 여셨다.“그리고 우리들에게 너, 프랑디아 라디올러스가 평생의 자랑이 될 것이란다.”나는 오늘 울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그 말이 너무 감격스러워 조금 울어버리고 말았다. 부모님은 ‘울지마렴 라디, 이제부터 집에 가서 맛있는 걸 잔뜩 차려놓고 만찬을 하자꾸나.’하고 마차에 올라타셨다.휴리안은 나를 꼭 안고서는 쉽게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날 달래려 했지만, 나머지 형제들을 끝끝내 짓궂게 나를 울보라고 놀려대며 마차에 올라탔다. 집으로 가는 마차안에서 나는 정말로 내가 괜찮아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죽었다고요?"헬리오가 에메랄드 빛이 반짝이는 눈을 동그랗게 만들며 물었다.아빠는 힘빠진다는 듯이 한숨을 푹 쉬고는 끄덕거리셨다."그래... 그렇다는 구나. 정말이지 귀찮게 됐어. 짜증스럽기 짝이 없다니까? 포제타 왕국녀석들."윌로우는 빵을 한입크기로 잘라 입안에 던져 넣으며 덤덤하게 말했다."그럼, 제대로 된 증언은 하나도 못 얻은 거에요?"엄마는 아빠랑 비슷하게 피곤한 표정을 지으시곤 대답해 주셨다."그렇지 뭐... 증언대로 가는 도중에 혀를 깨물어 버리다니. 잠깐 재갈을 벗긴것이 화근이었어. 그 사실을 알자마자 포제타 녀석들 신이 나가지고는 자기네를 의심하냐는 거냐는 둥, 불쾌하다는 둥 오히려 펄펄 뛰고 있다니까?"미카엘이 살려두었던 남자 광대 한명은 결국 자결해 버린 것 같다. 덕분에 축제 때의 갑작스러운 습격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다. 남자 광대들은 외모적인 정보를 토대로 저적을 뒤져보아도 별 다를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사실 그들의 신상을 알아내기엔 너무 광범위 하고, 애초에 별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그럭저럭 싸울 줄 아는 남자정도야 왕국에서도 맘먹고 비밀리에 키우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다.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남자쪽이 아니라 여자쪽이었다. 여자 광대는 마법사이니 만큼 이름이나 얼굴만 알 수 있다면 대충 어느나라에서 뭘 하던 사람인지알 수 있었을 테지만...내가 워낙에 바짝 구워놓는 바람에 출신지는 커녕 머리 색조차도 제대로 알아낼 수 없었다.나는 어색하게 머리를 긁적인 다음 포크로 고기를 쿡 찔렀다. 지금 우리는 아침 일찍 나가서 소득 없이 퇴근하신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쇠고기를 천천히 입안에 넣었다. 사실 구운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지만 내가 이걸 꺼려하면 다들 괜히 내게 마음을 써 주겠지. 음... 그냥 입맛이 돌지 않는 것 뿐인데 말이지... 뭐 오븐에 넣어놓고 까먹어버린 칠면조처럼 탄 그녀가 자꾸 떠올라서 그러는 것도 조금은 이유가 되겠지만. 괜찮아 괜찮아 조금 께름칙 할 뿐이야. 맛있긴 해 이 스테이크.나는 멀뚱히 앞접시의 고기를 바라보며 입안에 든 고기를 질겅질겅 씹었다. 항상 좋은 고기를 사용하시는군요 요리사님. 매번 복에 겹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멍청히 의미 없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턱을 움직였다. 질겅 질겅. 그러다 누군가 쳐다 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서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다. 여전히 나는 고기를 한쪽 어금니로 씹고 있었다. 우물우물. 앞을 향한 내 눈앞에는 빙긋 웃으며 나를 빤히 바라보는 휴리안이 있었다. 나는 잠시 그 미소를 멍하니 보며 고기를 천천히 씹었다. 아차. 나는 고기를 겨우 꿀꺽 삼켰다. 너무 오래 씹은 그 고기는 육즙도 별로 남아있지 않아 삼키기 뻑뻑할 정도였다.나는 아무렇지 않은척 물을 한모금 마셨다. 으... 얼마나 씹고 있었던 거지? 나는 태연을 가장하며 다시 나이프와 포크를 들어 고기를 한점 더 썰려고 했다. 그런데 나이프와 포크를 접시에 다시 대기도 전에 내 앞접시가 스르륵 내 반대편으로 미끌어 졌다."어?"나는 놀라서 접시를 움직인 인물을 바라보았다. 맞은편에 있던 휴리안이 일어나서 내 접시를 가져간 것이었다. 그는 엷게 웃으며 잔잔하게 말했다."나랑 바꿀래?"그리고는 메쉬 포테이토와 야채 샐러드가 조금 담긴 접시를 내 앞에 놓아주었다. 그는 쑥스러운 듯한 목소리를 내었다."테이블 매너에 어긋난다고 혼내지 말아줘 라디. 성장기 남자는 고기를 좋아하니까."나는 그의 그 산들 산들한 바람같은 다정함이 놀라워서 그의 얼굴을 바보같은 표정으로 바라보며 겨우겨우 '응'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엄마는 휴리안을 다정한 얼굴로 바라보며 작게 '착하기도 하지.'라고 중얼거렸다.휴리안은 무슨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척을 천연덕스럽게 하고는 두 번째 스테이크를 썰기 시작했다. 정말로 계속해서 그의 여동생인척을 하다보면 나의 불필요한 감정은 조금씩 사라질까? 굳건했던 믿음에 조금씩 의심이 들어서 불안해졌다.'계속 없애려고 노력하는 수 외에 딱히 별다른 수도 없잖아?'나는 한번 크게 미소를 지어보이곤 휴리안이 내게 준 감자 샐러드를 한입 먹었다. 훨씬 삼키기 수월했다.축제 때 내가 황가 사람들을 구했다는 것은 부풀려지고 부풀려진 것이 분명하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지금도 나는 가끔씩 학교에 오는 아이돌만큼이나 교내에서 뜨거운 시선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아~ 겨우 끝났다."내가 공포의 마법실습을 끝내고 수련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와 안나를 제외한 다른 학생은 이미 자신의 물건을 정리해 다들 문을 나가고 있었다. 크레하퍼 교수는 서류를 챙겨 내 옆을 지나다가 무심하게 중얼거렸다."나라를 구한 용감한 천재께서 이 정도에 지치셔서야..."아 진짜 성질 긁는 선생님이시다 이분은. 나는 그를 팩 돌아보고는 심술궂게 웃으며 받아쳤다."그렇습니다. 이 몸이 바로 마리안 공주님을 지켜낸 라디올러스랍니다."크레하퍼는 엉거주춤 나를 돌아보고는 무표정하게 반응했다."마리안 공주님 얘기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포커페이스이긴 했으나 말하는 것은 영 어설펐다. 당신도 역시 아직 어리다니까. 나는 덤덤하게 대답했다."선생님이 축제 때 제 무용담 얘길 굳이 하고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그는 나를 빤히 바라보다가 다시 원래의 그로 돌아가서 심드렁하게 말했다."아...뭐...역시 라디올러스 양은 애답지가 않다니까요...일부러 학교같은 곤란한 자리에서 마리안 공주님 얘기를 꺼내는 것도 그렇고...그렇지만..."그는 바닥에 편하게 앉아있는 나를 향해 거의 구십도로 고개를 숙이고는 정중하게 말했다."공주님을 구해주신것에 대해서는 제 진심의 감사를 받아주십시오."나는 당황해서 바닥에서 비틀비틀 일어났다. 내 옆에서 가방을 추리며 서있던 안나도 당황하긴 마찬가지 인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내저으며 그를 말렸다."아, 안어울리게 왜이러세요 선생님!"그는 잠시동안 꿈쩍않고 내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예의 그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무심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그냥... 그게 제 진심이니까요."그리고는 무슨일이 있었냐는 듯이 평소처럼 구부정한 자세로 등을 돌려서는 수련장 문을 열었다. 그 자세로 고개만을 돌려서 내게 말했다."안녕히가세요 라디올러스 양, 안나 양."나는 그런 그가 어쩐지 안타까워 져서 마지막으로 외쳤다."아직도 마리안 공주님이랑 화해 안하셨어요?"그는 안경너머로 조금 슬픈눈을 했다. 그리고는 말없이 쓰게 웃어보인다음 수련장을 나섰다. 다들 엉터리같이 서투르네. 나도 마찬가지지만.나는 조금 한숨을 쉰 다음 안나의 손을 잡고는 말했다."우리도 갈까 안나?"상냥한 안나는 나에 대해 어떤 소문이 돌던 상관 없이 항상 같은 태도로 대해 주었다. 분명 신경 써 주는 거겠지. 아직 어리지만 이토록 사려깊은 안나가 너무 좋아서 나는 수다쟁이처럼 조잘 조잘 대며 그녀와 마차타는 곳까지 걸어가고 있었다.밝게 내 맞장구를 쳐주던 안나는 '어? 라디.'하며 나를 보고 뒤돌아 보라는 손짓을 했다.그녀가 시키는 대로 뒤를 돌아보았더니 자주 얼굴을 봤던 왕자님의 시종이 있었다. 그는 정중하게 내게 잠깐 시간을 내줄 것을 부탁했다.'어? 왕자님이 할 얘기가 있으신가?'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나는 거기서 안나와 헤어졌다.그리고는 앞장서서 걷는 시종의 뒤를 쫄래쫄래 걸었다. 그런데 그가 나를 평소와는 다른 곳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어쩐지 주변은 점점 인적이 뜸해지고, 메디엘과는 한번도 와보지 않은 장소로 가고 있었다. 뭐야 이거? 설마 날 유괴하려는 속셈같은 건가?나는 경계심이 일어서 시종에게 물었다."정말 메디엘 왕자님이 부르시는 거 맞아요?"내가 그의 뒤에서 따라오기를 멈추고 긴장가득히 그렇게 묻자 그는 당황해서 뒤돌아 선 다음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한눈에도 엄청나게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나는 몇걸음 뒷걸음질 쳤다. 다행이 아직 내가 소리만 지른다면 이쪽을 돌아볼 사람들이 저 멀리에 간간히 있었다.시종은 오해 말라는 듯 손을 내저으며 목소리를 낮추고는 말했다."오늘 라디올러스 님을 부르신건 메디엘 왕자님이 아니십니다."뭐? 메디엘이 아니면 누가 날 불러? 나는 아직도 의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종은 불안한듯 한번 더 주변을 살펴본 다음 한층 더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이었다."황제폐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응???? 황제폐하? 폐하가 날 기다려? 학교까지 비밀스럽게 오셔서?나는 더욱 더 '전혀 안믿기는데?'표정을 지으며 도망갈 테세를 취했다. 그러자 시종은 당황한 듯 외쳤다."저, 정말입니다!""죄송한데,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네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와도 돼요?"내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 퇴로를 살펴보며 그렇게 말하자, 시종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아, 안됩니다 혼자 모셔오라고 폐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신 이걸 보여드리라고..."음? 뭔가 폐하의 증표같은게 있나? 근데 난 아직 황가 상징이라던가 전해내려오는 유물...심지어 폐하의 글씨체도 잘 모르는데?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내겐 의미가 없을 텐데...그래도 일단 뭘 꺼내는 지는 지켜보자는 마음에 시종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내 시선을 보더니 머뭇머뭇거리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에 감싸인 무엇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그리고 조금 붉어진 얼굴로 하얀 손수건을 폈다. 왠지 굉장히 자신없는 태도였다. 뭐야, 왜 이래?이윽고 펼쳐진 손수건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어이없게도 끄트머리가 조금 부서진 초코쿠키였다.나는 그가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싶어서 한 마디 하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순간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아, 맞아. 내가 분명히 말했었다. 파자마 파티날 폐하에게 ‘걱정마세요 폐하, 궁에 이 멋진 초코쿠키가 있는한, 저는 불러주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올테니까요.’ 그러자 그 때 황제는 자신의 손에 들린 쿠키를 바라보며 대답했었다.’초코쿠키로 부를 수 있는 아가씨라니...달콤하기도 하지.’ "아, 이런.... 어째서?"나는 멍청히 시종이 내게 건네는 쿠키를 건네 받았다. 설마...설마...정말? 하는 반쯤 속는 기분으로 시종을 따라 갔다. 인적이 뜸한 골목에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마차가 하나 서 있었다. 역시 저 마차에 가까이 가면 어흥!하고 냅다 태운 다음 끌고가는 거아냐? 나는 그 근처까지 따라간 주제에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자 마차 창문에 드려져 있던 커튼이 조금 걷혀졌다. 커튼을 걷어내 내게 얼굴을 보인 사람은 정말 황제였다. 나는 당황해서 얼른 고개를 숙였다.시종은 재빨리 마차의 문을 열어주었고, 덩달아 나도 왠지 긴박한 마음이 되어 얼른 마차에 올라 탔다. 내가 뻘쭘하게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자 , 황제는 자신의 맞은 편 자리에 어서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왠지 변명을 시작했다."어... 죄, 죄송해요 미적거리면서 와서... 저기... 정말 폐하께서 오셨을 줄은 몰라서요."그러자 황제는 느긋하게 웃으며 대답했다."아, 괜찮네. 경계심이 있다는 건 좋은 거지. 초코 쿠키는 잘 받았나? 한 개 더 먹으련?"나는 어리둥절하게 황제가 주는 초코 쿠키를 하나 더 받았다. 시종에게서 받은 쿠키도 아직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양손에 쿠키를 하나씩 쥐고 있는 현상이 되었다. 엄청 욕심꾸러기 같아졌다.나는 어쩔 수 없이 방금 받은 쿠키를 입에 가져다 대며 그에게 물었다."그런데 폐하. 여기까진 무슨일이세요?"말을 마치고 입안에 쿠키를 넣자 진한 풍미가 퍼졌다. 이와중에 맛있기도 하네.황제는 질문을 받자 잠시 입을 다물고 의자로 머리를 뉘이고선 나를 바라보았다. 뭐지... 갑자기? 긴장되게...그는 메디엘과 꼭닮은 진한 푸른빛 눈으로 나를 물끄러미 보다가 천천히 말했다."라디 양. 프라마에 대해서는 들어본적 있나?""네? 네... 잘은 모르지만 대단한 마법 아카데미죠?"그는 끄덕거린 다음 몸을 다시 앞으로 기울였다. 자신의 팔꿈치를 무릎께에 얹은 자세로 내게 신중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는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라디 양은 본인이 프라마에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나는 마지막 쿠키조각을 삼키다가 사레에 걸려서 켁켁댔다. 황제는 잠깐 두리번 거리다가 느릿하게 '미안...원래 내 마차가 아니라서 물이 없어...'라고 중얼댔다.겨우 겨우 진정한 내가 그에게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에이~ 전 지금 엄청 기초적인 마법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요."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계속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게다가 그 프라마라는 곳은 한번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관례라면서요? 그래서 그...누구더라. 아. 테젠 가의 카네리안 이라는 분은 십년이나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전혀 생각없는데요."카네리안은 연구때문이라던가? 그냥 수련때문이라고 했나. 아무튼 졸업후에도 돌아오지 않은 것 같지만 아무튼 보통으로 졸업을 하려고 해도 거의 5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다. 5년이나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도 안돼 어떻게 해서 친해진 우리 가족들인데. 전혀 전혀 가고 싶지 않다. 얼마나 대단한 아카데미인지 내가 알게 뭐야.나는 말도 안된다는 듯이 웃다가 다시 황제와 눈을 마주쳤다. 여전히 느긋한 표정을 짓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는 예상외로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그는 어쩐지 방금까지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다시 입을 열었다."음... 그렇군.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하긴 했어. 하지만 말야...포제타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건 자네도 알고 있겠지?"나는 괜히 주눅이 들기 시작해서 작게 '네...'하고 대답했다. 그는 바로 다시 말을 시작했다."지금 당장 전쟁을 할 거 같진 않지만...몇년후에라도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분명 좋은 마법사가 잔뜩 필요하게 되겠지. 젠장맞게도 포제타는 이상하리 만큼 마법사가 태어나는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으니까 말야.""아, 아...그렇군요. 그건 몰랐네요."나는 듣고 있다는 표시로 작게 맞장구를 쳤다. 황제는 어느새 인가 군중 앞에 서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아빠 친구인 아저씨로 생각해.'라고 말하던 느긋한 남자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 위압감이 점차 무서워져 갔다. 황제는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는 덤덤하게 말했다."라디올러스 양. 자네가 지금당장 프라마에 들어가 준다면. 어쩌면 우리나라에 다시없을 전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네."나는 없는 용기를 쥐어짜서 반론했다."하, 하지만 굳이 프라마가 아니더라도... 화, 황실 아카데미에서라도 열심히 공부한다면 좋은 마법사가 될 수 있지 않을...""프라마 출신은 보통 학교 출신들과 확연히 달라."그는 내 말을 잘라먹고는 말했다. 확고한 표정으로 우물쭈물 곤란해 하는 나를 잠시 바라보던 그는 잊고 있었다는 듯이 미소를 만들며 부드럽게 말했다."아, 아. 그렇군. 이건 어떤가 라디올러스 양. 자네가 프라마에 입학하고 무사히 졸업해서 군력이 되어준다면."나는 황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입에 집중했다. 거의 진땀이 다 날 정도였다.그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자네의 형제들은 절대 최전방 같이 위험한 곳에 보내지 않겠네. 분명 자네에겐 남자형제가 4명이나 있었지 아마? 한 명은 남겨둔다고 해도 적어도 3명은 징집될테니까 말야."나는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다. 황제는 마치 나와 거래를 하는 것처럼... 달콤한 제안을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이건 바꾸어 생각하면 이것이었다.'네가 프라마로 가지 않는 다면 네 형제들은 가엾게도 제일 위험한 지역으로 파견될 수 있겠어.'황제는 내게 보기 좋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렇게 좋게 말할 필요도 없이 '프라마에 입학해.'라고 대놓고 명령했어도 됐을 것이다. 이건 그 나름의 배려겠지.그도 그의 절친의 딸에게 이런 싫은 요구따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나는 슬픈 기분이 되지 않기 위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려 애썼다. 그는 항상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위치이다. 황제를 너무 탓하지 말자.그렇게 몇 번을 곱씹어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야 나는 덤덤히 그에게 대답할 수 있었다."제가 어려서 짧은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폐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프라마에 입학하겠습니다."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가 일어나자, 황제는 곤란한 것처럼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한참을 내 눈을 바라보다가 이내 입을 막은 손을 내리고는 쓰게 웃으며 중얼거렸다."라디 양은 알면 알수록 대단하군...이거 참...면목없네... 자네에게도. 메디엘에게도. 자네 가족에게도."그리고는 기운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나도 작게 말했다."괜찮아요. 저희 오빠들이 안전할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아요..."그는 천천히 고개를 더욱 숙이며 차마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겠다는 자세를 취했다.그리고는 다시 아빠 친구 아저씨로 돌아가서는 계속해서 중얼댔다."정말로 미안하게 되었네.... 미안하게 됐어..." 황제와 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차 안에서 서로 눈을 잘 못 마주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대충 어색하게 인사를 한 다음 마차에서 내렸다. 스틱을 짚은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비틀 비틀 걸어갔다. 황제가 마차를 세우고 있던 곳은 내가 잘 와보지 않은 곳이라 조금 헷갈렸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버렸다. 분명 학교 내이긴 한데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막다른 길이었다.나는 나도 모르게 ‘아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잘못 들어와서 다행이야.’라고 생각했다. 그리곤 다리에 힘이 풀려 풀이 듬성듬성 난 흙바닥에 주저앉았다.‘빌어먹을.’멍하니 생각하며 눈앞의 애꿎은 잔디를 쥐어뜯었다. ‘빌어먹을 황제. 오빠들을 들먹이다니.’ 라고 줄줄이 생각하다가 아차, 하곤 정신을 차렸다.‘왜 그래 너? 어린애 같이. 황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나라에서 마법사는 엄청 귀하대잖아.’엉망으로 화내고 싶지가 않아서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냉정하게 생각하려 했다.‘그리고, 뭐... 이걸로 오빠들은 확실히 안전해 질 수 있는 거니까... 게다가 프라마는 마법사라면 모두들 가고 싶어 하는 최고의 학교라잖아? 남는 장사 아닌가?’억지로 하하 웃어보며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지만 결국 눈물이 뚝 떨어지고 말았다.“미치겠네! 젠장!”짜증이 솟구쳐서 뽑아낸 풀을 내던지며 소리쳤다. 그리고는 혹시 미카엘이 뒤에서 이 꼴을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다. 다행이 아무도 없었고, 이런 내가 어이가 없어서 또 눈물이 났다.‘괜찮아. 괜찮아. 황제를 너무 탓하지 말라고. 나만 속상할 뿐이야. 모두들 어쩔 수 없어.’쿵쾅 쿵쾅 뛰는 심장을 느끼며 진정하려 했지만 눈물도, 격한 심장 박동도 잘 멈출 수 없었다.“어쩔 수 없긴 뭐가 없어.... 아 다 알겠는데 화가 치민다고...”나는 결국 반쯤 미친 것처럼 ‘열 받아..’를 중얼거리며 통곡했다. 무릎에 얼굴을 묻고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한참을 울고나서야 나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표정을 지을 수 있었다.‘모두들 많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집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그렇게 멍하니 생각했다.집에 도착해서는 프라마 얘기를 꺼내기 전 까지만 이라도 다들 웃고 있었으면 해서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다.“다녀왔습니다~.”그러나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모두들 어색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덩달아 나도 어색하게 웃으며 가족들을 둘러보며 물었다.“어...어? 무슨 일이에요?”오늘 따라 빨리 집에 들어오신 아빠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라, 라디. 이것 좀 보렴. 프라마에서 내일 사람을 보내 네 입학 테스트를 하겠다는구나.”그때서야 나는 아빠의 손에 들린 고급스러운 재질의 편지를 보았다. 와 진짜 빠르기도 하네. 방금 대답한건데. 아, 아니면 내 대답과는 관계없이 미리 편지를 보내 놓은 건가?나는 자꾸 고개를 드는 억울한 마음을 무시하려고 노력하다가 한 가지 희망을 보았다.‘어? 근데 입학 테스트? 입학 테스트라고? 맞아! 프라마는 들어가기 엄청 어려운 곳이라며? 내가 입학 테스트에서 떨어진다면 그거야 말로 황제도 나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나는 놀랍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와 프라마에서요? 편지를 보냈어요?”엄마는 세차게 끄덕거리며 내게 다급하게 물었다.“우리 딸 라디. 정말이지 대단하구나...하지만 어떡하지? 바로 올 필요 없다고 편지를 보낼까?”나는 순간 욱신거리는 심장을 느끼며 태연을 가장해 대답했다.“아...아니요 제가 테스트를 통과할 리 없잖아요. 그냥 테스트 정도야 받아보죠 뭐.”‘기초 마법도 컨트롤 하지 못하는 내가 그 대단한 프라마의 입학시험을 통과할 리 없어.’내 말을 듣고선 휴리안은 당황한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라디! 테스트에 붙으면 프라마에 입학할 생각이야? 너, 너도 알지 않니?”그는 내 시선을 피하면서 침착하지 못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프라마는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집에 오지 못하는데...”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억지로 대답했다.“나도 그건 유감이지만...유감이지만...”가족 모두가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있는 힘을 다해 웃어보였다. 마치 얼굴을 딱딱한 무엇인가로 코팅한 기분이 들 정도로 얼굴 근육을 움직이기 힘들었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프라마는 굉장한 곳이라면서요! 그곳에 들어가면 가문에서 큰 자랑이 될 정도로요!”부모님과 오빠들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나는 당황해서 더욱 과장되게 밝게 재잘댔다.“거기서 공부를 하면 저같이 구제불능의 마법치도 제법 대단한 마법사가 될지도 모르지요.”말을 끝마치고 하하하 웃었지만. 나를 따라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들 내 대답에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나는 방금 그렇게 울었음에도 또 조금 울고 싶은 기분이 되었다.아빠는 슬픈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는 회유하듯이 웃으며 말했다.“음... 라디. 네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곳에 가고 싶다면야 우리는 말릴 수 없겠지만...네가 가버리면 참...뭐랄까... 쓸쓸해 지겠구나.”제르다민은 별 표정변화 없이 묵묵히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가 툭 중얼거렸다.“근데 지금 프라마에 입학하면 졸업할 때쯤 되면 분명 전쟁에 투입될 텐데.”그러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다들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더듬 더듬 변명했다.“어... 근데. 그건 그냥 여기에서 학교를 나와도 마찬가지 일거 같은데. 아, 그리고 다들 벌써 부터 너무 오버에요. 프라마 입학 테스트는 무척 어렵다면서요?”헬리오는 밀려오는 걱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이 우물쭈물대며 대답했다.“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라디...”휴리안은 내 쪽으로 한걸음 걸어 나오며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왠지 너는 입학 시험을 통과 할 것 같아...네가 그렇게 마음먹고 있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너와 떨어지는 게 더 슬프다고 생각되면 내가 아직 너무 어린 걸까?”“오빠...”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그의 눈을 힐끔 힐끔 쳐다보았다. 도저히 제대로 눈을 마주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혼자 떠나게 된다면 네가 분명 더 외로울테지. 도울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게 참... 뭐랄까...”그는 작게 ‘서글퍼.’라고 중얼거리며 내 머리에서 손을 내려놓았다.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그는 분명 손을 조금 떨고있었다.그날 밤 나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프라마 입학 시험을 내가 통과할리 없어.’라고 되내었다. 결국 한 숨도 자지 못한 채로 다음날 프라마에서 나온 사람을 맞이했다.젊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는 흑발을 단정하게 틀어올린 채로 구두를 또각 또각 울리며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과연 무슨 시험을 치루는 것일까 나는 잔뜩 긴장한 채로 그녀와 함께 수련관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나를 멈춰세우곤 흥미롭다는 듯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그녀가 조그맣게 웃으며 그 예쁜 입술을 열었다.“어머나, 머리색이 참 귀엽네요. 그리고... 정말 특이하군요.”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또랑또랑 분명했다. 나는 그녀가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리색을 말하는 건지 뭔가 그녀 눈에만 보이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가서 그저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 볼 뿐이었다.내 눈을 잠시 마주 보던 그녀는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합격.”그리고는 기분 좋게 뒤돌아서 그대로 나가버렸다.나는 어이가 없음과 동시에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다. 뭐야 정말... 프라마. 생각보다도 짜증스러워.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처럼 주저앉아서 발버둥을 치고 싶은 기분이다. 프라마에서 사람이 나와 너무도 간단하게 내 입학을 허가한 날, 일단 우리 가족을 나의 프라마 입학을 축하하며 화려한 저녁식사를 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서운함을 잘 감추지 못하셨다. 엄마는 ‘응,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지? 라디. 하긴... 이건 굉장한 기회이니까...’라고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물어보셨다.처음에는 여태까지 마법에 대해 별 관심도 보이지 않던 내가, 굳이 그 멀고 먼 프라마에 입학하겠다고 하면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예상 외로 다들 차마 내 결정을 말리지 못하는 눈치였다. 프라마를 못가게 하는 것이 내 앞길을 막는 게 아닌가 하고 고민하는 것 같았다.‘프라마가 그 정도로 마법사에겐 꿈의 장소인 건가?’그 맥 빠지는 입학시험을 생각하면 잘 상상이 되지 않았지만, 내 입장에선 어쨌거나 다행이었다. 모두 왜 굳이 프라마까지 가려고 하냐고 캐물으면 뭐라고 변명해야 했을까.절대. 절대 오빠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싶지 않아서 라고는 할 수 없다. 입이 찢어져도. 내가 만의 하나. 정말 만의 하나라도 휴리안에게 그렇게 대답하면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가족들은 그냥 나를 ‘알고 보니 공부욕심이 있었던 아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편이 좋다. 응, 그게 나에게도, 가족에게도 좋다.너무나 갑작스럽게 약속되어버린 이별에 우리는 모두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 띄엄 띄엄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나누며 저녁식사를 마쳤다. 그저 밥을 먹은 것뿐인데도 굉장히 피곤해져서 바로 내 방으로 올라가기로 했다.나는 불도 키지 않고 달빛에만 의존한 채 터벅터벅 걸어가서 침대에 풀썩 앉았다. ‘어휴...’하고 한숨을 푹 내쉬는데 갑자기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정말 프라마에 입학할거야?”나는 당연히 내 방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침대에서 쏘아올려듯이 펄쩍 뛰며 비명을 지르려 하자, 내게 말을 건 그 사람이 내 입을 순식간에 틀어막았다.그 바람에 그의 체중에 조금 떠밀린 나는 그에게 입이 막힌 채 덮쳐지는 형태로 침대로 눕혀졌다.그의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는 무표정하게 내 눈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옅은 색의 눈은 어슴프레한 내 방에서 야광석이라도 된 것 마냥 홀로 빛났다. 그는 내가 진정한 것 같으니까 입에서 손을 치워 주었다. 나는 너무나 당황해서 속삭이듯이 외쳤다.“미카엘!”그는 내가 내 방에 언제 어떻게 누구 허락을 받고 들어와 있었냐고 화내기도 전에 씨익 웃으며 물었다.“가지 않을 거지?”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자 나는 쉽사리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입을 다물고 그를 올려다보고만 있자 미카엘은 더욱 활짝 웃으며 말했다.“네가 나를 여기에 두고 그딴 곳에 가버릴리 없어.”“미카엘.”그가 슬퍼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의 이름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었다. 미카엘이 다시 한 번 내 대답을 요구했다.“라디, 빨리 가지 않는 다고 대답해 줘.”나는 그의 시선이 아프다고 느끼며 천천히 대답했다.“미카엘. 나는 프라마에 입학할거야.”미카엘은 순식간에 깜짝 놀란 눈이 되어서 입을 꾹 다문채 나를 내려다보았다. 정말 내가 그런 대답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얼굴이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마침내 내 위에서 비켜서 침대에 털썩 앉았다.나도 말없이 일어나서 그의 옆에 앉았다. 한참동안 말이 없던 미카엘은 내 얼굴을 쳐다 보지 못하고 바닥을 내려다 보며 물었다.“...어째서? 왜 여기를 떠나?”“...너도 알잖아 미카엘. 프라마는 내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내 대답을 듣자 미카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잔뜩 인상을 쓰고는 으르릉 대며 말했다.“거짓말 마. 내가 바보로 보여? 네가 그딴 이유로 몇 년이나 프라마에 갇혀 있을 거라고 내가 믿을 거 같아?”나는 미카엘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보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슬퍼졌다. 이 말을 하면 그가 분명 상처받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대답했다.“...정말이야.”미카엘은 성이 난 표정에서 순식간에 믿을 수 없다는 듯 슬픈 표정을 지었다. 내가 왜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괴롭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내게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땅을 바라보고는 힘없이 중얼댔다.“라디...정말 갈거야? 이번에 가면 언제 돌아와? 이건 네가 생각해도 너무 못된 거 같지 않아?”‘응, 몇 번을 생각해도 내가 너무하지.’나도 고개를 숙인채 그렇게 마음으로 대답했다.우리는 또다시 침묵하며 멍하니 있었다. 그러다가 미카엘은 무엇인가를 결심한 것처럼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라디. 나도 갈래.”“뭐? 어디를?”내가 ‘설마 프라마를 가겠다는 거야?’라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자 미카엘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갈래. 네가 귀찮다고 생각해도 소용없어.”“전혀 귀찮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안 돼 미카엘. 프라마는 일반 사람에겐 위치가 어딘지 조차 알려져 있지 않댔어. 그 안에는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단 말야.”미카엘은 화가 난 것처럼 대답했다.“콧대 높으신 마법사님들께서 허드렛일까지 모두 할 리가 없잖아. 분명 프라마에도 잡일을 할 사람이 필요할 거야.”“미카엘. 그러지 마. 정말로 일반인 중에선 그곳에 들어가봤던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 게다가 설사 된다고 해도 네가 왜 거기서 잡일을 해.”그가 너무 단호해 보여서 나는 진심으로 불안함을 느끼며 그렇게 대답했다. 미카엘은 위험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 보며 정말로 궁금한 것처럼 물었다.“왜? 왜 안 돼?”“거기서 그런 허드렛일을 하는 게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나는 그를 달래려고 애쓰며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미카엘은 억지로 짓고 있던 미소를 집어던지고는 나를 위협하듯이 낮은 목소리를 냈다.“그럼 너를 기다리며 억지로 시간을 보내는 건 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지?”여전히 그는 순진할 정도로 그의 삶을 내게 너무 많이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서 나는 결국 울어버렸다. 너도, 메디엘도 우리 가족도 모두 소중히 여기고 싶다.그렇다고 해서 나라고 아예 후련한 것은 아니야. 망설임이 조금도 없는 것은 아니야.미카엘의 손을 잡고 ‘그러지마. 미안해.’라고 중얼대며 추하게 질질 짰다. 미카엘은 내가 ‘그러지마.’ 라고 할 때마다. ‘싫어. 갈 거야.’라고 일일이 고집을 부리다가 마침내 그도 울어버렸다.미카엘은 드디어 프라마에 간다는 억지를 그만둘 마음이 들었는지 중간 중간 목소리를 흐리며 중얼거렸다.“너 진짜 못된거 알아? 내가 그렇게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했는데도...”내가 폭파사고로 조금 다쳤을 때처럼 엉엉 울지는 않았지만, 나와 잡고있지 않은 손으로 흐르는 눈물을 조금씩 닦는 그 모습은 애처로웠다. 우리 둘은 청승맞게도 한동안 그렇게 손을 맞잡고 훌쩍 거렸다.겨우 진정을 하고 나서는 그는 힘없이 내게 물었다.“라디. 너는 결국 나한테 프라마로 가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에게 나는 꽤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너를 기다리고 있어도 될까.”그 말에 겨우 울음을 그쳐가고 있던 나는 또다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다. 미카엘이 웅크린 채 우는 나를 달래려고 다가와서 나를 조금 토닥이자 나는 그를 힘껏 껴안았다.엉엉 울어제끼느라 부족한 숨을 끌어 모아 겨우 그에게 대답했다.“물론이지. 네가 소중해 미카엘. 너무 소중해. 아직도 몰랐어?”그러자 그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줄까? 생각이 변하지는 않을까?”“절대! 절대 그렇지 않아! 맹세할 수도 있어.”내 자랑인 보석같은 그 소년은 나를 자신의 품으로 넣어 꼭 껴안으며 다시금 확인을 받았다.“이 말은 거짓이 아닌 거겠지?”“목숨을 걸 수도 있어. 넌 내게 평생 동안 소중해.”내가 단박에 그렇게 대답하자 미카엘은 키득 웃고는 조금 떨어져서 내 얼굴 바라보았다.“그럼 난 떨어져 있는 동안 네가 마음이 바뀌면 네 목숨을 얻고, 네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네게 평생동안 소중한 존재인거네?”장난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음. 이익보는 내기를 했어...’하고 중얼거리던 그의 얼굴에 맺혀있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그렇다면 보내 줘 볼까...”하고 서글프게 웃었다. 그 모습이 애달파서 나는 자꾸만 사과하고 싶은 마음 들었다.그날 밤은 미카엘과 해가 뜰 때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대부분은 내가 떠나버리는 봄이 될 때까지 어떻게 기가 막히게 놀까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고 싶은 건 잔뜩인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서 또 슬펐다. 라디가 떠난 이후에 휴리안은 가끔 떠올리곤 했다.‘그 애가 가겠다고 했을 때 내가 울며 불며 매달려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그는 멍하니 원하던 미래를 생각해 보았다.‘내가 추한 것도, 그 애의 미래 같은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지금 바라는 대로, 내가 지금 갈망하는 것만을 생각해, 라디에게 가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면.... 마음 약한 그 아이는 차마 내 곁을 떠나지 못했을 지도 모르지.’그는 방금 받은 라디의 편지를 집중해서 읽기 위해 방으로 올라왔다. 그리고는 책상에 앉아 왠지 편지봉투를 찢기 아깝다는 생각을 하며 이런저런 상념에 빠져 있는 것이다.라디가 집을 떠난 지 벌써 반년 정도가 흘렀다. 아직도 길을 걸을 땐 무심코 옆을 내려다보게 된다. 키가 작은 그녀의 발을 밟지 않기 위해.그는 미색의 봉투의 모서리를 손 끝으로 훑었다. 봉투는 두툼했지만...‘이걸 열게 되면 다음 편지를 받는 건 또 한달 후 인가.’기가 막히게도 프라마는 편지조차 매일 보낼 수가 없었다. 보내는 것도 받는 것도 한달에 고작 한번이었다. 라디에게만 보내는 자신과 달리 그녀는 여러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지만 항상 굉장히 두꺼운 편지를 그에게 써주곤 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도 너무나 짧다고 생각했다.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레터 나이프를 들었다. 안에 들어있는 편지지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찢어서 편지를 꺼냈다.친애하는 휴리안 오빠에게.항상 그렇게 시작한다. 휴리안은 단정한 그녀의 글씨가 마음을 꽉 조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편지의 내용은 항상 밝다. 신기한 수업 내용, 새로 사귄 친구의 이야기. 조금 이상한 교수. 밝고 즐거운 이야기로 이 두툼한 편지를 가득 채운다. 그것이 휴리안은 가끔. 아주 가끔은 조금 서운할 때도 있었다. 물론 사려깊은 라디가 애써 슬픈 이야기는 쓰지 않는 것이라는 걸 예상하긴 하지만 말이다.거기는 이제 굉장히 덥지? 어이없게도 프라마는 항상 봄 날씨다? 난 이제 돌아가면 적응을 어떻게 할까 싶어.“...우와.”휴리안은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에 별 감흥은 없다. 이런 것 보다는 좀 더 라디 자신의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한다.그는 열 페이지 가까이 되는 편지를 금세 다 읽어버렸다. 라디는 항상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편지를 채우는데 말이다.‘근데 오늘은 마지막 장에 인사를 하고 나서가 조금 비네.’그는 아쉽다고 생각하면서 그 빈 공간을 조금 만져보았다. 원래 라디는 편지를 마치고 나서 빈칸이 남으면 추신을 덧붙여서라도 편지지를 꽉곽 채워서 보내곤 했다. 그녀도 한 달에 한번 밖에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 굳이 그런 슬픈 이야기를 글로 써 보내지는 않지만 말이다.‘어?’바로 답장을 쓰기 위해 장갑을 벗은 휴리안은 그 빈 공간의 촉감이 이상한 것을 느꼈다. 보기에는 말끔하지만 손 끝으로 훑어보면 뭔가 쓰여져 있는 것 같았다. 편지는 항상 잉크로 쓰여지는 데... 뭔가 썼다가 마법으로 지우기라도 한 건가?그는 너무 말끔하게 수정된 그 편지지가 신기해서 별 생각 없이 촛불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보고싶다.아주 흐릿하게 그렇게 비춰졌다.휴리안은 잠시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입을 가린 채 가만히 얼어붙어있었다. 항상 즐거운 일만 써주는 그 애를 야속하다고 생각했다. 보고 싶다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몇번이고 망설이며 덧붙였을 그 말조차 결국 지워버리는 그녀를.'나는 도대체 얼마나 유치한 걸까.’겨우 입에서 손을 내리면서 휴리안은 생각했다. 눈물이 날 것 같다.“나도 보고 싶어.”그는 사랑스러운 사람의 편지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제 겨우 6개월이다. ‘이 서글픈 마음도 몇 년이 지나면 결국 흐릿해 지는 걸까?’그렇다면 차라리 영원히 선명하게 아픈 것이 좋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네가 프라마에 가버려서 그곳만 계속해서 봄인 거야.라디의 배려를 잊지 않으려 하며 자신도 밝은 내용만을 잔뜩 써 내려갔다. 그 애가 가슴아프지 않도록. 라디가 그레펠 제국을 떠난지 2년이 조금 넘었을 때 결국 그레펠과 포제타는 전쟁을 시작했다. 아직 수도는 그다지 전쟁의 기운을 느낄 수도 없었지만 먼 국경지역이나 그레펠의 속국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싸움은 시작되고 있었다.그리고 이쯤에서 조기졸업 때문에 바빠서 안그래도 뜸해지던 라디의 편지는 아예 끊겨버리고 말았다.미카엘은 지체할 것 없이 군인으로 지원했지만 워낙 그레펠은 땅이나 인원이 많았으므로 그는 싸움터로 아직 보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미카엘은 황실 아카데미 출신이기도 하고, 그 출중한 실력과 축제 때 자객을 처리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미 특진을 거듭해 나가고 있었다.예상대로 프랑디아 가문의 남자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훌륭한 표본으로서, 아직 어린 윌로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인으로 징집이 되었다. 하지만 미카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그들이 싸움터에 보내지는 일은 없었다.가장 먼저 전쟁으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의외로 테젠 공작가의 장남 카네리안 이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난 후 얼마간은 전혀 낌새도 보이지 않고, 국가의 부름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어느 날엔가 변덕스럽게 출전했다.그리고는 연일 파죽지세였다. 그는 프라마에 남아있던 그레펠 출신의 졸업생들을 모아 공격적으로 적을 처리해 나갔다. 여태까지 마법사는 마법을 쓰는 도중엔 거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 없었으므로 군인들의 뒤에서 백업하거나 아군에게 마법을 걸어 아군의 전투력을 높이는 형태로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 많았다.하지만 카네리안 무리는 달랐다. 마법사들이라고 믿기 힘들만큼 공격적이었다. 그 소수의 인원이 몇 백명을 죽여나가는 일도 수두룩 하다는 소문이 멀고 먼 그레펠의 수도까지 널리 퍼졌다.결국 카네리안 무리가 전쟁에 투입된지 5개월 정도 만에 지루하게 오래 끌게 될 것이라 예상했던 국경에서의 싸움은 그레펠의 대승으로 끝났고, 포제타는 다른 수를 생각해 보는 것 같았다.황제는 흡족해 하며 카네리안 무리와 국경에서 힘쓰던 군인들을 수도로 불러들였다. 그들을 맞이할 행사를 화려하게 준비시켰다. 라디가 프라마로 간지 3년을 조금 지나는 시기였다.축제 때와 마찬가지로 광장에 높다란 단이 설치되었다. 그곳에서 황제와 테젠 공작가, 프랑디아 공작가 식구들이 역전의 전사들을 기다렸다. 자랑스러움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테젠 가문과 달리 프랑디아 가문은 심드렁하게 지겨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이제 20살이 된 헬리오는 깨달은 것처럼 공작 부인에게 말했다. 그는 군대에 들어가고 나서 머리를 짧게 잘랐지만 아직도 화려한 생김새를 자랑했다.“아! 어머니! 그렇지만 카네리안 공에게 라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 까요?”여전히 아름다운 공작부인과 공작이 활짝 웃으며 헬리오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볼을 물들이며 대답했다.“그렇구나! 그래. 알 수도 있겠어! 한 번 물어보자꾸나.”22살의 제르다민이 중얼거렸다.“라디가 입학했을 때 이미 그는 졸업생으로서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접점이 없었을 거 같긴 한데...”막 23살이 된 휴리안은 아련하게 다른 사람의 이목을 사로잡던 분위기가 더욱 강해진 것 같았다. 공작의 후계자인 그는 더욱 진중한 이미지를 위해 한쪽으로 내리고 있던 앞머리를 모두 넘긴 모습이었다. 휴리안은 한 살 어린 자신의 남동생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그래도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지.”라디와 동갑이라 이제 15살인 윌로우는 그의 그 미소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라디 이 녀석은 도대체 왜 편지를 안하고 난리야... 그렇게 조기졸업이 힘든가...”저 멀리서 싸움을 승리로 만든 군인들이 환호를 받으며 나타났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일반 병사들 뿐이고 마법사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황제가 ‘음... 카네리안 공들이 먼저 나타날 걸로 알고 있었는데...?’하고 중얼거리자 군인들을 인솔하고 온 신하들 중 한명이 허겁지겁 단상으로 올라와 황제에게 알렸다.“카네리안 공 외 5명으로 구성된 마법사 분들은 이동중에 포제타 군의 게릴라 군을 만나...”신하는 말을 마무리 하기를 주저하며 끝을 흐렸다. 13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것에 들떠있던 테젠 공작 부처는 초조하게 신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황제가 얼굴을 심상치 않게 만들며 신하에게 되물었다. “부상을 당했나? 아님... 게릴라 군을 피해 오느라 조금 늦나?”말을 하던 신하는 송구스러워하며 대답했다.“아뇨! 그게... 저... 게릴라 군의 근거지를 아예 뽑아 없애야겠다면서 카네리안 공께서 다른 마법사 분들을 끌고 부대를 이탈해 버리셨습니다.”황제는 황당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단상위의 모든 사람이 말없이 신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신하는 당황해 하며 거듭 ‘저희는 분명하게 말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시면 행사에 늦을 거라고..!’라고 말했다. 그래도 황제가 별 말 없자 신하는 거의 울먹거려하며 말했다.“그래도 카네리안 공은 늦지 않게 도착하겠다고 말씀 하시면서...”그 때 한 번 더 악주단원들이 힘차게 영웅의 입장을 알렸다. 광장에 끝에서 잠시 공간이 찢겨져 나간 것 같은 모습이 생기더니 후드를 푹 뒤집어 쓴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다.신하는 ‘어, 어... 어떻게 행사가 끝나기 전에 도착하시긴 하셨네요...’라고 중얼거렸다.일반 군사들은 제복이 남색이었지만 마법사들은 흰색 제복에 후드가 달린 로브가 추가된 형태였다. 로브가 추가된 이유는 마법사들은 이것저것 가지고 다니는 것이 많기 때문이고, 눈에 띄는 흰색인 이유는 어차피 마법사들은 최전방에 설 일이 없기 때문이었다.그러나 카네리안 무리는 최전방에 서면서도 굳이 흰색 제복을 고집했다. 그들이 쓰는 마법은 눈길을 끌면 끌수록 좋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 정도로 호전적이었다.그러나 승리의 주역이 등장했음에도 광장은 환호성은커녕 잠깐 동안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그들의 흰색 로브는 그것이 원래 흰색이었는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피로 엉망이 되어있었기 때문이다.그들이 흔들 흔들 걸어서 황제가 있는 단의 바로 앞까지 올 때까지도 모두들 숨죽여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눈앞에 도착해서야, 신하는 깨달은 것처럼 제일 앞에 서있던 키가 큰 사람에게 말했다.“카네리안 공! 괜찮으십니까?”그 소리를 듣자 테젠 공작 부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사람이 바로 ‘카네리안’ 그 아이인건가?카네리안이라고 불린 사람은 후드를 넘겨 벗어 보이며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아아~ 별로 안 괜찮아.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다고....”“다, 다치신 곳은!”“우리는 모두 멀쩡해. 이게 우리 피 일리 없지.”그는 신하를 비웃으며 피에 쩔은 로브의 끝단을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처럼 집게손으로 들어 올렸다가 놓았다. 카네리안은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진한 초코색 머리에 이지적인 인상이 강한 미남이었다. 치켜올라간 눈매로 단상위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아, 저분이 황제폐하이신건가?”그가 단상 가운데에 시선을 멈추고는 중얼거렸다.신하는 잠깐 할 말을 잃었다가 다시 외쳤다.“다, 다치신 분이 없다면 모두들 후드를 벗으시고 황제 폐하께 예우를!”그 말에 카네리안의 뒤에 있던 사람들도 지친 것처럼 손을 들어 올려 천천히 후드를 벗었다. 카네리안의 바로 오른쪽 뒤에 있던 키가 작은 사람이 제일 마지막으로 후드를 벗자 물끄러미 단상아래를 바라보고 있던 휴리안과 메디엘은 믿기지 않는 다는 듯이 벌떡 일어났다. 그들의 동료를 맞이하기 위해 광장에 열을 이뤄 서있던 미카엘도 멍한 표정으로 줄을 이탈해 한 걸음 광장 쪽으로 다가섰다.그녀의 머리카락은 햇빛을 받아 진하게 분홍색으로 빛났던 것이다. 연분홍빛 머리카락. 저런 말도 안 되는 머리빛깔을 가진 사람은 그들이 아는 한, 한 사람밖에 없었다.황제조차 당황해서 그녀를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 의자에서 멈칫 멈칫 일어났다. 단 위의 모든 사람이 무엇에 홀린 것처럼 천천히 멍한 표정으로 일어났다.황제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카네리안에게 말을 걸었다.“...이게 어떻게 된 건가. 카네리안 공.”카네리안은 황제에게도 주눅드는 기색 없이 무덤덤하게 대답했다.“제 보좌인 프랑디아 라디올러스인데요?”“세상에나 라디!”프랑디아 공작 부인은 그 이름을 듣자 거의 주저앉을 것처럼 비틀 거리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다행이 옆에서 공작이 그녀가 쓰러지지 않게 잘 잡아주었다. 그러나 그 자신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다.황제는 인상을 조금 구기며 카네리안에게 다시 물었다.“그녀가 자네의 조직에 들어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었는데. 자네는 자네를 제외하고 졸업생 5명이라고 말했었지 않나. 하지만 라디올러스 양은 자네들이 참전할 때 분명 아직 학부생이었네....보고를 거짓으로 올린 것인가?”황제는 조금 언짢은 기색이었다. 그러나 카네리안은 그런 것은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 같았다. 오히려 조금 짜증스럽다는 듯이 성의없게 대답을 했다.“거짓으로 보고를 올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그렇다면 이 상황은 뭔가.”“폐하, 제가 졸업생 5명이라고 설명한 것이 가장 최근의 보고입니다.”황제는 어디 계속 설명하라는 듯이 잠자코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카네리안은 라디올러스를 툭 치면서 설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그 작은 건드림에도 크게 휘청거려했다.“라디올러스 양은 그 보고를 올릴 즈음에 공식적으로 졸업생이 되었지요.”카네리안은 쓰러질 것 같은 라디올러스의 팔을 잡아끌어 세우며 황제를 향해 씨익 웃었다. 그리고는 조금 심술궂은 목소리로 이어서 말했다.“전쟁 참여로 부족했던 졸업 필수 실습점수를 훨씬 채우고도 남았거든요.”‘전쟁 참여’라는 말에 메디엘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는 다급하게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했다.카네리안에게 팔뚝을 붙잡혀 있는 그녀는 어지러운지 반대편 손을 볼에 가져다 대고는 조금 멍한 표정이었다. 무척이나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고, 마른 핏자국이나 먼지로 더럽혀져 있는 얼굴이었지만 상당히 사랑스러운 이목구비였다. 살짝 긴 듯한 앞머리가 눈을 조금 가리는 것이 아쉬울 정도였다.카네리안은 정신을 못차리는 라디올러스를 거칠게 흔들며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라디올러스 양~ 라디올러스 양~ 이제 슬슬 정신 차리셔야죠.”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라디올러스는 천천히 자신의 팔을 아프게 잡고 있는 사람을 올려다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멍한 표정이었다. 라디올러스의 뒤에서 그녀와 카네리안을 바라보고있던 금발의 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카네리안을 나무라는 말투를 했다.“그, 그만 흔드세요 선배님! 선배님께서 라디에게 무리하게 공간이동 마법까지 시키니까 그런 거잖아요!”카네리안은 자신을 말리는 그녀를 바라보며 무표정하게 대답했다.“그렇지만. 애초에 빨리 가자고 들들 볶던 건 얘였잖아.”그는 이내 말투를 바꾸어서 키득거리며 다시 라디올러스에게 말을 걸었다.“야, 라디. 뭐하는 거야.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우리집~ 우리집 노래를 부르더니. 저 사람들이 너네 가족 아냐? 왕자님도 여기 계시네. 그리고 또 뭐더라...그 미 어쩌고 하는 이상한 이름...걔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결국 살아서 돌아왔네. 기뻐해라 라디.”라디올러스는 그 말을 듣고도 잠깐 동안은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겨우 이해한 것처럼 중얼거렸다.“...돌아왔다고?”카네리안은 ‘어. 무슨 헛소리야. 도착한지 한참 됐어.’라고 그녀를 비웃었다.라디올러스는 서서히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손으로 천천히 정리했다. 옆에서 ‘근데 너 어따 대고 반말이야...’라고 중얼거리는 카네리안의 목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어...’하고 몽롱한 목소리를 냈다.그리고는 ‘앗!’하고 작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행동을 주목하던 모든 사람들은 라디올러스가 어디 또 아프기라도 한 건가 싶어서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그러나 라디올러스는 두 손으로 자신의 볼을 가리며 구슬프게 중얼거릴 뿐이었다.“아아..! 결국 이 꼴로 도착했어..! 몇 년만에 만나는 건데!”그녀는 아직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눈을 깜박였다.카네리안이 옆에서 ‘아니, 이미 만났다니까? 저 단상 위 좀 보래도?’라고 말하는 것도 잘 들리지 않는 듯 했다. 라디올러스는 주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얼굴에 묻은 것을 지워보려는지 두 손으로 얼굴을 조금 비벼보는 행동을 했다.라디올러스는 원망 섞인 비난을 카네리안에게 빠르게 내뱉었다.“이게 다 선배 때문에!...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선배 때문이잖아요! 이게 무슨 꼴이야 정말...어휴 웬일로 얌전히 내 소원 한번 들어주나 했다 진짜.”그렇게 계속해서 줄줄 말해나가던 그녀는 순간 고개를 숙인 그대로 조용히 자신의 입을 가렸다.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다.카네리안은 끔찍하다는 표정으로 그녀에게서 몇 걸음 물러나며 말했다.“야....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토는 하지 말아주라.”“...”라디올러스는 그의 말에 대답도 하지 못하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한참동안을 격하게 기침하던 그녀는 결국 피를 조금 토해냈다.금발의 여자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라디올러스에게 재빨리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카네리안은 아직도 몇 걸음 떨어진 채로 그 모습을 보며 중얼댔다.“어후. 다행이다 먹은 걸 토하진 않아서.”라디올러스도 피를 토한 건 별일 아니라는 듯이 입을 닦으며 중얼댔다.“아...무리했다. 무리했어.”카네리안은 잠깐 라디를 들여다 보더니 혀를 쯧 차며 말했다.“야. 너 마력 거의 안 남았잖아.”“...”“...넌 좀 자야겠는데.”카네리안은 한 손을 탁 튕겼다. 그러자 라디올러스는 순간 고개를 휘청하고는 천천히 쓰러졌다. 그는 그녀가 바닥에 닿기 전에 ‘아 귀찮아 죽겠네.’라며 그녀를 들어올렸다.단상위의 사람들은 라디가 피를 토할 때부터 이미 패닉이었다. 그러다 라디가 쓰러지자 공작부인도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휴리안이 걱정스럽게 ‘라디!’라고 외치며 단상을 뛰어 내려가려 하자, 카네리안은 오지 말라고 손짓하며 설명했다. 무척이나 귀찮다는 모습이었다.“아 그냥 라디올러스 양 마력이 간당간당해서 재웠어요. 체내의 마력 완전히 다 쓰면 죽는 것 정도는 아시죠? 피를 토했다고 하면 다들 놀래시는데... 이것도 그냥 마력 부족해서 탈 난거에요. 좀... 아니, 많이 자고 일어나면 멀쩡해 질 겁니다.”제르다민은 카네리안의 성의없는 답에 조금 인상을 찡그리며 말했다.“그럼 기왕이면 힐링 마법을 써주시면 안될 일이었습니까?”카네리안은 이게 무슨 말이냐는 듯이 한쪽 눈썹을 올리며 되물었다.“어? 라디올러스 양은 보통 힐링 마법은 잘 안 듣는 거 모르세요? 이 아가씨는 뭐 한번 치료하려면 엄청난 대 마법을 써야하는데 지금 그러기엔 우리 중에 아무도 마력 여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럴 땐 그냥 재우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요. 재우면 그나마 조금씩은 마력이 회복되니까.”그런 정보를 알 리가 없었던 가족들은 그저 카네리안에게 안겨있는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휴리안은 자신이 라디올러스를 향해 다가가는 것을 막는 카네리안에게 불합리하게 화가 났다. 지금은 행사의 도중이고, 따지고 보면 지금 카네리안은 오히려 라디를 도와준 입장인데도.카네리안은 따분하고 힘들다는 듯이 황제를 바라보며 말했다.“그럼 이제 저희는 슬슬 돌아가도 좋을까요? 단상을 올려다보며 말하기엔 점점 목이 아픈데요...”확실히 이미 광장에 군중이 잔뜩 몰려있는 상태임에 불구하고 너무나 긴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황제는 생각했다.황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카네리안은 프랑디아 공작을 향해서 ‘라디올러스 양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고 있었다.이런 카네리안을 향해 황제는 마지막으로 물었다.“...라디올러스 양도... 전투에 완전히 참가한 건가?”황제의 이 말엔 카네리안의 뒤에서 점잖게 서있던 다른 마법사들마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카네리안은 불경하게도 킬킬 웃으며 대답했다.“지금 라디올러스 양이 전투에 참가...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전쟁에서 싸웠냐고 물으신 거예요?”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이 다시 웃음을 터트린 다음 말을 마저 했다.“따지고 보면 이 애가 거의 다 죽인 건데요?”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이 검붉은 로브를 입은 사람들이 키득 키득 광장의 모든 사람들을 비웃었다.라디올러스는 죽은 듯이 자다가 무엇엔가 화들짝 놀란 것처럼 일어났다. 그녀가 벌떡 몸을 일으키자, 푹신한 침대가 크게 출렁거렸다. 깨긴 했지만 아직 방은 어둑했다. 새벽인건가 저녁인건가 분간이 잘 되지 않았다.‘이런 좋은 침대에서 잔지가 얼마나 됐더라...’그녀는 너무 오래자서 띵한 머리로 생각했다. 그리고 점점 시야의 중앙부터 선명해 지자, 덩달아 점점 가슴이 두근거렸다.‘뭐지? 뭐지 뭐지 뭐지?’그녀는 자신이 여태까지 어디에서 자고 있었는지를 깨달고는 조금씩 흥분했다. 돌아왔다. 공작가로! 하나도 바뀌지 않은 자신의 방을 눈치 채고는 점점 그것이 실감이 되었다.논리적인 인과관계는 잘 찾기 힘들었다. 빌어먹을 카네리안 때문에 수도로 가던 중에 또다시 싸움을 벌이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해서 이동 마법을 쓴 것 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째서 이곳에 누워있었던 것이지? 그녀는 기쁨으로 떨려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그녀는 이제 스틱을 짚지 않고도 걸을 수 있는 모양이었다.‘어?'그녀는 잠깐 창가로 가서 커튼을 들춰보았다.‘무슨 소리가 난 것 같았는데...’이상한 소리가 난 것 같아서 창문을 들여다 본것 이었지만,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 한 뒤에도 그녀는 쉽게 창가를 떠나지 못했다. 변함없이 아름다운 정원의 풍경이 감동적이었기 때문이다.‘와... 별로 변하지 않았네.’눈시울이 촉촉해져서는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까보다 살짝 하늘이 파래진 것을 보면 지금은 밤이 아니라 새벽인 것 같았다.‘가족들은 모두 아직 자는 걸까?’가족들 생각을 하니 갑자기 라디올러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거의 뛰어가다시피해서 거울 앞에서 얼굴을 확인했다.‘음. 엄청 부었네. 머리도 엉망이고.’그러나 그녀는 ‘뭐 어때.’라고 중얼거리며 대충 손으로 길고 조금은 곱슬곱슬한 그 머리를 빗었다. 그리고는 준비되어 있는 물로 대충 세수를 하고 그녀의 방에 연결된 옷방으로 달려들어갔다. 발이 엉켜서 넘어질 뻔 했다. 지금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준비 되어 있을까 잠깐 머뭇거렸다. 지금 자신은 누가 갈아입혀줬는지 모를 하얀 잠옷을 입고 있었다.‘누가 갈아입혔겠어. 베라겠지 뭐.’그녀는 잠깐 베라의 얼굴을 떠올렸다. ‘베라... 아직도 있겠지? 설마 다른 곳으로 가거나 하진 않았겠지?’하는 생각을 하며 마음이 아파서 발을 동동 굴렀다.‘빨리 빨리.’라디올러스는 옷장문을 벌컥 열었다. 거의 휑하니 비어있긴 했지만 그래도 15살의 라디올러스가 입을 만한 옷이 다섯 벌 정도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의 현재 체형과 별 상관 없이 입을 수 있도록 그다지 타이트하지 않은 귀여운 디자인의 드레스였다.‘이 용의주도함과 센스는 분명 베라야!’그녀는 속으로 ‘베라’의 이름을 연호하며 혼자서 옷을 후딱 갈아입었다. 하얀색 바탕에 그녀의 머리색과 비슷한 분홍색으로 밑단이 예쁘게 수놓아진 간편한 옷이었다. 집에서 입는 용도인지 치마길이도 종아리 근처로 짧았다. 움직이기 쉬운 느낌이라 라디는 기분이 점점 좋아졌다.‘아직 일어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나가 있자! 식당에라도 앉아있을까? 어쩌지? 아니,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며 성을 둘러봐야하나?’마음이 급해서 허둥지둥 하며 방문을 벌컥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 놀라서 어깨를 튕기며 반걸음 정도 뒷걸음질 쳤다. 누군가 문 바로 옆 벽에 기대어 있었던 것이다.놀란 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 인 것 같았다. 약하고 푸른 새벽 빛을 받으며 그 사람은 놀란 눈으로 라디의 모습을 빤히 바라보았다.라디올러스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는 몇 걸음 더 자신의 방으로 뒷걸음질 쳤다. 믿기지 않는 듯이 중얼거리는 말이 그녀가 틀어막고 있는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다.“...설마 휴리안 오빠?”휴리안은 그녀가 자꾸 뒷걸음질을 치자, 그녀를 따라서 그녀의 방으로 한 걸음 한걸음 들어왔다. 그는 19살이었을 때보다도 체격은 더 다부져진것 같은데 이상하게 윤곽은 더 흐려지고 섬세해진 것 같았다. 그 특유의 분위기는 여전히 진주처럼 은은하게 빛났다.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우아함으로 그가 살풋 웃었다. 아무도 그의 어머니가 창녀 출신인 것을 기억해 내지 못했다. 그의 고상함에 상처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휴리안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조용하게 그녀를 불렀다.“라디....”애정을 담은 애칭 그대로.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그녀를 마음으로 불렀다. 라디올러스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바뀌지 않았다.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똑같다.’그녀는 조금 안심하며 그렇게 생각했다. 휴리안은 곤란한 듯이 눈썹을 기울이고는 씨익 웃었다. 조금은 장난스럽게 말했다.“‘설마’ 휴리안 오빠 냐니. 상처받아.”라디올러스는 그를 따라서 활짝 웃었다. 그렇지만 눈물은 조금 새어나왔다. 눈물은 나는 지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눈을 가늘게 만들자 툭툭 떨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프라마로 가기 전에 그 어리석은 연정 때문에 그가 어려웠던 것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저 자신은 그가 그리웠고, 그리웠고, 그리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휴리안을 만날 수 있어서 마냥 행복했다.라디올러스는 다시 한번 입으로 직접 그의 이름을 내어보았다.“휴리안 오빠!”“라디. 미안한데. 좀 안아도 돼?”그는 그렇게 말했으면서 그녀의 대답도 듣지 않곤 성큼 성큼 다가가서 그녀를 껴안았다. 라디올러스는 그에게 풀썩 안기자 휴리안의 온기와 그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정말로 오빠잖아?’그녀는 어쩐지 감격스러워서 훌쩍 훌쩍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휴리안은 그런 그녀의 머리나 등을 쓰다듬으면서 말했다.“울지마 라디.”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도 눈물로 울먹거렸다. 둘은 한참을 그저 훌쩍거리며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눈물이 그치자 라디는 그의 품에서 조금 떨어지며 물었다.“오빠! 근데 문 밖에서 뭐하고 있었어? 잠도 안자고... 놀라서 주저앉을 뻔 했잖아.”그 질문에 그는 뭘 그렇게 당연한 걸 물어보냐는 듯 대답했다.“그야.... 이렇게 네가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렸지?”라디올러스는 그가 농담을 하는 줄 알고 키득거렸다.“어후 오빠. 그 너스레는 아무튼...”휴리안은 그녀의 손을 빼서 자신에게 팔짱을 끼게 만들면서 말했다.“농담 아닌데...”“뭐? 진심이었다고? 언제부터 기다린 건데? 아니...나 근데 여기 언제 왔어? 나 얼마나 잤어?”라디올러스는 당황스러워서 되묻다가 그 김에 궁금했던 것 까지 끊임없이 뱉어냈다.휴리안은 그녀를 에스코트해 방에서 빠져나오면서 빙긋 웃었다.“네가 잠에 든 채로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네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렸지.”“그,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됐는데?”“걱정마 행사때로부터 하루밖에 안 지났어.”라디올러스는 ‘어...그러니까 나 행사에는 제대로 간건가? 그리고 오빠는 하루종일 잠도 안자고 있던거야?’라고 생각하느라 그의 산뜻한 대답과는 반대로 심경이 복잡했다.그녀는 자신이 팔짱을 끼고 있는 그의 얼굴을 힐끔 올려다보았다. 굉장히 어른같다. 아니, 이제 그냥 어른인건가? 라디올러스는 계속해서 자신이 놓쳐버린 시간의 흔적을 휴리안에게서 찾았다.그러나 그는 그녀의 시선을 느끼자, 방금까지 ‘오빠가 어른이되었다.’라는 라디올러스의 생각이 무색할 정도로 휴리안은 소년처럼 웃으며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발그래한 볼과, 반짝이는 눈으로 정말로 기쁜 듯이 말했다.“아아. 여태까지 3년이 넘게 기다렸는데 겨우 하루를 더 못 기다리겠어?”방금을 회상하는 것처럼 잠깐 말을 쉰 다음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네가 깨어나길 문 밖에서 기다렸을 때가, 지금껏 기다린 시간 중에서 제일 행복했어.” 라디올러스와 휴리안이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조금 얘기하고 있으려니, 가족들이 하나둘씩 내려왔다. 모두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다. 라디가 깨어났는지 궁금해서 다들 빨리 일어난 것 같았다.“라디!”공작부인이 울음을 터트리며 그녀를 껴안았다. ‘엄마’ 라고 라디올러스는 몇 번이고 중얼거리며 부인의 등을 더듬었다. 부인이 너무나 심하게 대성통곡을 했기 때문에 라디는 조금 글썽이다가 이내 웃어버리고 말았다.“엄마. 너무 운다 정말.”“그렇지만... 그렇지만... 라디...”라디올러스는 공작부인을 토닥여 보다가 그녀의 어깨 너머로 다른 가족들이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남자형제들이 다들 훌쩍 커버린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히 묘하고 어쩐지 가슴이 찡했다.공작이 그녀를 향해 인자하게 웃으며 다가오자, 부인은 남편도 라디를 안아볼 수 있도록 눈물을 닦아내며 자리를 비켜 주었다.라디올러스는 말없이 그를 힘껏 안았다. 무거우면서도 따뜻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차례대로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그녀를 한번씩 안아볼 생각인지, 바로 헬리오가 팔을 벌리며 다가왔다. 그녀는 헬리오에게서 앳된 티가 아예 없어진것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면서도 활짝 웃었다. 라디가 늠름하게 자라버린 금발 소년을 와락 안았다. 헬리오도 감정이 벅차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녀의 등을 조금 문질러서 껴안다가 떼어내 주었다.라디올러스는 활짝 웃으면서 다음 포옹상대를 맞이하기 위해 팔을 조금 벌린 채로 몸을 틀었다. 제르다민은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쑥스러운지 머뭇머뭇 자신도 팔을 벌렸다.그러나 라디올러스는 다음 상대가 제르다민이라는 것을 눈치 채자, 그 활짝 지은 미소 그대로 그를 지나쳐, 윌로우를 껴안았다.제르다민은 어색하게 팔을 벌린 상태 그대로 잠시 굳었다. 그녀는 동갑내기 오빠를 비비적 거리며 포옹하고는 보란듯이 말했다.“어우 윌로우 오빠. 엄청 커버렸네. 이제는 아주 상남자야 상남자.”윌로우는 ‘누나인것처럼 말하지마 이 여전히 뻔뻔한 녀석아.’라며 투덜댔지만 자신도 그녀를 꼭 껴안았다.제르다민이 뻣뻣하게 벌리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리고 라디를 향해 돌아섰다. 냉정한 말투로 그녀를 향해 말했다.“... 설마 몇 년만에 집에 돌아와서 처음 보는 자리에서까지 이렇게 깐죽거릴 줄은 몰랐어 분홍아. 인정하지. 내가 널 너무 우습게 봤군.”라디올러스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과장되게 놀란 척 하며 대답했다.“꺅! 설마 제르다민 오빠였어? 어머어머! 그 뺀질이 같은 말총머리가 없어져서 못알아봤지! 그냥 나 없는 사이 새로 들어온 노인네인가보다... 했다니까?”정말로 제르다민의 하나로 묶어 어깨에 늘어트리던 긴 머리카락은 흔적도 없이 잘려나가있었다. 그도 현재는 군인인 만큼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였다. 또한 여전히 심플한 안경을 걸치고 있었다. 그가 ‘호오...’하고 고개를 옆으로 조금 뉘이자 안경이 빛에 반사되어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그는 무덤덤하게 말했다.“제법이다, 제법이야 라디올러스. 과연 그동안 담력은 엄청 쎄졌나 보군.”라디올러스는 ‘오오... 여전히 참 ...무섭긴 하네.’라고 하며 어색하게 ‘하하’웃었다.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제르다민은 ‘아니면, 맷집이 엄청 세졌거나...’하고 중얼거렸다.잠깐 킬킬 거리며 웃던 라디올러스는 이내 자신쪽에서 제르다민에게 달려들어 안았다. 제르다민은 ‘건방져 건방져.’라며 혀를 찼지만 손으로는 그녀를 다독였다. 그녀는 만족할 만큼 그를 안은 다음 한걸음 물러서서 가족 모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음미하는 것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다.“....다녀왔습니다.”그 말에 그녀의 가족은 제각각 말하는 타이밍이나 목소리 크기는 달랐지만 모두들 똑같이 대답했다.“어서와. 라디.”프랑디아 공작가 식구들은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스러웠던 것이나 마음에 걸리는 것을 잊고 그저 그녀와의 재회의 기쁨에 웃었다. 아침을 먹으며 대화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위해 다들 식탁에 앉았을 때였다.하인한명이 조금 당황스러운 것처럼 그들의 시간에 끼어들었다.“주, 주인님. 죄송하지만...저기... 손님이 오셨습니다.”아침식사가 막 옮겨지고 있을 때였다. 공작은 황당하다는 듯이 되물었다.“아니...이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지... 누구신데 그래?”하인은 라디올러스를 바라보며 땀을 뻘뻘 쏟았다. 머뭇 머뭇거려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저... 아가씨께 ‘선배들 납셨다.’라고 하면 알 것이라고...”라디올러스는 자리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섰다. 정말이지 질린다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문으로 가려는 생각이었는지 식당의 입구 쪽으로 성큼 성큼 걸어갔는데, 어이없게도 문가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손님이 이미 식당바로 근처까지 멋대로 걸어들어오고 있었다.카네리안이 넉살좋게 씨익 웃으며 ‘어이!’하고 라디를 향해 손을 들어보이자, 그의 뒤에서 까무잡잡한 피부의 청년이 민망한 표정으로 ‘미안...’이라는 입모양을 하며 따라 들어왔다.“카네리안 선배! 제드선배!”그녀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카네리안은 적반하장으로 인상을 찡그리며 투덜거렸다.“야. 왜 이렇게 안 들여보내줘.”“하인이 방금 선배들이 왔다고 알려준 참인데요... 어차피 맘대로 들어올 생각이었던 거죠?...”라디올러스가 짜증난다는 듯이 그렇게 물었지만 카네리안은 신경도 안 쓰인다는 듯이 공작가의 아침 식사상을 바라보며 말했다.“라디, 우리 아침 좀 먹을게.”이 황당무계함에 식구들은 모두 식탁에 앉아 멍하니 이 상황을 바라볼 뿐이었다.라디는 그의 뻔뻔함에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외쳤다.“지, 지금 몇신 줄 알아요? 남의 집에 연락도 없이 쳐들어와서는! 이게 무슨 행패에요! 제드 선배! 카네리안 선배 좀 막아주시지 그러셨어요!”제드라고 불린 남자는 짙은 색의 피부와 더불어 보랏빛이 도는 그 눈동자 때문에 굉장히 이국적인 인상이었다. 덩치가 좋고 짧게 친 황토색 머리로 남자다운 외모였지만, 그는 굉장히 주눅들어하면서 라디에게 사과했다.“미안...”그는 진심으로 카네리안을 막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는지 연신 라디에게 굽신굽신 사과했다. 라디올러스는 그의 그런 모습에 미간을 짚으며 사과를 말렸다.“아니에요 제드 선배... 분명 또 카네리안 선배가 막무가내로 끌고오셨겠죠...”카네리안은 라디가 싫은 티를 잔뜩 내자 발끈하며 외쳤다.“아~ 거. 그냥 공작가문 아침식사한번 먹어보자 좀.”“아니. 아침식사가 어디라고 별 다를 게 있나...선배네 집도 공작가잖아요!! 테젠! 테젠 카네리안 선배!! 도대체 우리집 식구 불편하게 왜이래요! 선배네 집에가서 먹어요!”카네리안은 그 외침에 진심으로 기분 나쁜 소릴 들은 것처럼 인상을 잔뜩 꾸기며 말했다.“야. 수도에 온지 며칠이나 됐다고. 내가 그딴 델 왜 꾸역꾸역 들어가야 되냐.”“뭐야 선배. 그럼 어제는요? 어제도 집에 안 갔어요? 13년만에 왔으면서 너무하네! 어디서 잤어요 그럼?!”그는 제드를 엄지로 가리키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말했다.“제드네서.”“네에?! 진짜 제드 선배한테 폐라는 생각은 안해요?”“괜찮아 괜찮아. 얘 천애고아잖아.”카네리안이 키득거리며 그렇게 대답하자 라디올러스는 당황해서 제드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 그러고보니...’하고 생각했다. 제드는 라디올러스에게 괜찮다는 듯이 손을 살짝 휘저으며 중얼거렸다.“아냐 라디. 내가 고아건 말건 그건 확실히 폐 맞으니까.” 공작은 결국 보다 못해 카네리안과 제드에게 아침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다.카네리안은 씨익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곤 냉큼 라디에게 물었다.“야 네 자리는 어디야.”“왜요.”“나 낯가려서 딴사람 사이에선 먹기 싫어.”그녀는 어이 없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지으며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라디올러스는 ‘네가 무슨 낯을 가린다고 그래.’라는 말을 눈으로 말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라디의 오른쪽 자리를 차지했다.라디는 자리에 풀썩 앉은 후에 가족들에게 선배들을 대충 소개했다.“아침부터 인상 찡그리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이쪽이 카네리안 선배, 이쪽은 제드 선배에요.”그녀는 옆에서 바로 ‘인상 찡그리게 만들었다니...’라고 투덜투덜대는 카네리안을 가볍게 무시했다. 카네리안과 제드는 그제서야 정식으로 프랑디아 가문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다.이윽고 식사를 시작하자 라디는 기분이 좀 풀린 것 같았다. ‘아... 우리집 밥 맛있다...’를 연발하며 간단한 아침 식사 음식임에도 집중해서 입안에 옮겼다.그런 라디를 부인은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카네리안에게 눈을 돌렸다.‘괴짜 같아보이지만... 그건 뭐. 프라마 출신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라디는 선배들이랑 허물없이 잘 지내는 것 같네. 다행이야.’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카네리안에게 말을 걸었다.“카네리안 공, 그동안 우리 라디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라디는 고개를 숙이고 베이컨을 자르는데 열중하다가 ‘풋’하고 웃었다. ‘엄마 그게 무슨 농담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가로막으며 카네리안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아하. 뭘요. 별 도움이 안 됐지만서도... 제가 라디의 지도 교수긴 했죠.”부인은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워했다.“어머! 그러셨나요? 몰라뵈서 죄송해요.”라디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카네리안을 바라보며 중얼댔다.“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됐잖아요...”부인은 라디에게 ‘어머 얘. 그게 무슨 말이야..’라며 살짝 나무란 다음 카네리안에게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었다.“저희 라디는 프라마에서 어땠나요?”카네리안은 그 질문에 잠깐 무표정하게 ‘흐음...’하고 부인을 관찰하는 눈을 했지만 워낙 찰나의 순간이라 아무도 깨달지 못했다. 그는 바로 인상좋아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라디는 엄청 성실했죠 뭐~!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어요.”그는 계속해서 라디에 관한 칭찬을 쏟아냈다. 라디올러스는 듣다 못해 ‘자기가 날 언제 그렇게 신경썼다고? 오늘 따라 왜 저렇게 칭찬이야...’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접시로 시선을 돌렸다.‘저 카네리안이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이상하게 착하게 구네.’이어지는 칭찬에 그녀는 쑥스러워 하며 다시 베이컨을 자르는 것을 시작했다. 바싹 구워진 것이라 잘 잘려지지 않았다.가족들은 모두 카네리안의 말에 집중하는 것 같았다. 그는 순해 보이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또, 가족은 어찌나 생각하는 지, 조기 졸업에 필사적이었지요...”벌써 몇 번째나 비슷한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라디올러스는 완전히 그에게서 신경을 놓고 있었다. 부끄러운 표정을 숨기려고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자신의 앞 접시의 애꿎은 베이컨만 작게 잘라내고 있었다.카네리안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끝냈다.“....이런 꼴이 되어가면서까지 말입니다.”그가 말이 끝남과 동시에 쥐고 있던 나이프를 순식간에 라디의 오른쪽 눈을 거의 찌를 듯이 가져다 대었다.식탁에 앉아 카네리안을 바라보고 있던 그녀의 식구들은 그 갑작스러운 행동에 너무 놀라 다들 몸을 크게 튕겼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다들 제대로 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이게 무슨..!’하는 외마디 신음만을 흘렸다.그런데 가족들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라디올러스는 카네리안이 오른쪽 눈 바로 직전까지 가져다대고 있는 나이프를 눈치 채지 못하고 태연하게 베이컨을 썰어내다가, 주변의 낌새가 이상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올렸다. 분명히 두 눈의 시력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칼을 알아차리고도 남았을 거리였다. 그러나 그것을 그녀는 보지 못하는 듯했다.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깨달고 라디올러스는 어색하게 ‘왜, 왜그래?....’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머뭇거리며 등을 의자 등받이에 뉘이다가겨우 나이프가 자신을 향해 있었음을 알아차리고 놀라며 말했다.“어이쿠! 깜짝이야!...카네리안 선배.”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족들 앞에서 못된 짓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인상을 쓰며 카네리안을 바라보았다.카네리안은 심술궂게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타깝다는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꾸며내고는 말했다.“아...가여운 라디올러스. 명색의 공작가 영애인데. 애꾸라니.”그녀는 쥐고있던 포크와 나이프를 거의 내던지듯이 거칠게 내려놓으며 그에게 으르렁대며 말했다.“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카네리안은 정말로 즐거운 일이 있었던 사람처럼 ‘하하하’ 웃어댔다. 그리고는 경멸스러운 것을 보는 듯이 공작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낮게 읊조렸다.“바보 같게도 이 따위 것들을 위해서.”라디올러스는 더 이상 못참겠다는 듯이 박차고 일어났다. 밀쳐진 의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갔다. 그녀가 그를 노려보며 외쳤다.“그만 말하라고요! 애초에 선배 때문이었잖아요!”카네리안은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이 너스레를 떨며 물었다.“나? 나 때문이라고? 내가 뭘?”라디올러스는 조금 진정한 것처럼 힐끔 가족을 돌아보았다. ‘여기서 흥분하고, 맞서 싸우는게 바로 카네리안이 원하는 바야. 이제는 익숙하잖아! 진정좀 해.’ 그녀는 치솟는 화를 참아보려 애쓰며 짧게 말했다.“이제 나가주시죠. 선배.”그러나 그는 생각이 안 나던 것이 떠오른 것 처럼 ‘아!’하고는 말했다.“아~ 너 그거 말하는 거야? 그 재현 과목?”라디올러스는 다시 한번 그에게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재미하나도 없으니까 나가 달라고요.”그러나 그는 라디올러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신난 목소리로 제드에게 말했다.“야! 제드! 너도 봤냐? 그때? 맨날 어른인 척하고 돌아다니던 라디녀석이 재현 과목 낙제해서 조기졸업 못하게 되니까 대성통곡하던 거? 아주 엉엉 곡을 하더만.”제드는 이런 카네리안의 모습을 보며 ‘어휴... 또 시작이네.’라고 중얼 거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그만해!!”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 놓여있던 나이프를 쥔 채 카네리안에게 달려들었다.카네리안은 의자에서 일어나며 여유있게 그 공격을 피했다. 제드가 재빨리 라디와 카네리안의 주위에 보호막 같은 것을 쳤다. 라디올러스가 한번 더 나이프를 치켜 올려 내리찍으려 하자 카네리안이 그녀의 손목을 덥썩 잡아 저지했다.휴리안과 공작이 벌떡 일어나 그들을 말리러 다가서려 했지만 보호막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공작 부인이 갑자기 뒤집어진 분위기에 ‘세, 세상에...’라며 작게 비명을 질렀다. 휴리안이 제드를 바라보며 사납게 외쳤다.“이건 뭐야? 당장 없애지 못해?!”제드는 어깨를 으쓱 하며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건데요.”카네리안이 붙잡은 라디의 손목을 세게 쥐어잡아서 그녀가 나이프를 놓치게 만들며 말했다.“운이 참 없었지 라디... 사실 재현 과목 따위 너한테 식은 죽 먹기였는데 그렇지?”라디올러스는 손목의 아픔 때문인지 화가나서인지 인상을 쓰며 외쳤다.“웃기지 말라고! 망할자식! 전부 전부 너 때문이었잖아!! 원래 기말 시험은 분명 고양이를 만드는 거였어!”카네리안은 여유있게 예전을 회상해 보는 것 같은 표정을 하더니 말했다.“어? 그랬었나? 내가 담당교수에게 이번에는 새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고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그녀는 악에 받친 것처럼 외쳤다.“원래는 고양이였다고! 고양이였단 말야!!! 너....내가 새를 무서워 한다는 걸 알고서 일부러 그랬지?”너무 분했는지 그녀의 눈은 눈물로 그렁그렁해졌다. 그녀가 잡히지 않은 손으로 그의 배를 가리키자 거대한 불덩어리가 그의 배로 쏘아졌다. 그러나 카네리안이 살짝 찡그리자 불덩어리는 배에 닿기 직전에 사라져 버렸다. 그래도 그 공격으로 라디올러스는 그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있었다.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그녀가 씩씩 대며 그를 바라보았다.카네리안은 능청스럽게 말했다.“그렇지만 벌써 몇 년 동안 고양이만 만들어서 말이지... 약은 녀석들은 애초에 고양이만 연습한다고. 선배로서 안타까운 일이라 그만 담당교수에게 조언한 것 뿐이야. 결국 제대로 만들지 못한 건 너잖아.”그는 그때 라디올러스가 만들었던 것을 회상해 보더니 킬킬 웃었다.“너 아무리 그래도 부리랑 눈이 없는 백로는 너무 징그럽잖아! 하하하하하. 그게 뭐야. 정말 징그러워서 토하는 줄 알았네.”“시끄러워! 카네리안!!”라디올러스는 그의 얼굴을 향해 몇발이나 불꽃을 쏘아올렸지만 그는 눈하나 깜짝 하지 않고 전부 없앴다. 그는 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아... 근데 너 전부 알고 있었구나? 난 네가 너무 기색을 안 보이길래 혹시 진짜 모르는 건가? 했어.”라디올러스에게로 몇 발자국 걸어가며 그가 마저 말을 이었다.“생각해 봐 라디올러스 전부 결론적으로 네가 초래한 결과였잖아. 기말에 실패해서 실기점수를 채우지 못한 것도 너. 그 후에 전쟁 참가로 실기 점수를 채우지 않겠냐는 내 제안에 결국 승낙한 것도 너였잖아.”“처음부터 다 노린 거였으면서. 카네리안. 전부 네가 짜놓았던 거잖아!”그 말에 카네리안은 얼굴을 굳히고 위협하듯이 말했다.“네가 한쪽 눈의 시력이 거의 없는 것도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것도. 몇 천명이나 사람을 죽인것도 다 나 때문이라고 하고 싶은가 보지?”라디올러스는 분한 듯이 그렇게 말하는 카네리안을 올려다 보았다. 무표정하게 그 시선과 조금 마주하던 카네리안은 이내 달콤하게 씨익 웃으며 다시 물었다.“그렇다면 한쪽 시력정도만 잃을 수 있었던 것도.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난 것도. 몇 천명이나 죽일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누가 목숨 걸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지 말해봐.”그 말을 들은 그녀는 서서히 슬픈 표정을 지었다. 아무 말 없이 눈물이 맺힌 눈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카네리안은 그녀를 경멸하듯이 내려다 보며 말했다.“자, 라디올러스 말해봐. 누가 널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었는지 빨리 말해.”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치욕적이라는 듯이 이름을 내뱉었다.“...카네리안.” 카네리안은 라디올러스를 잠시 날카로운 시선으로 내려보다가 픽 비웃었다.“음. 기억하고 있긴 하네.”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별 말없이 서있기만 했다. 카네리안은 보호막쪽으로 걸어가 주먹으로 그 경계를 살짝 내리쳤다. 그러자 라디와 카네리안을 빙 둘러싸고 있던 얇은 막 같은것이 마치 유리가 산산조각 난 것처럼 깨져서 후드득 떨어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닥에는 아무런 조각이 남아있지 않았다.카네리안이 예고없이 자신의 주술을 깨자 제드는 투덜댔다.“아, 선배. 그렇게 난폭하게 깨 부수지 마세요... 저한테 반작용 온단말이에요. 이거 따끔하니 기분 나쁘단거 다 아시면서...”“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야 다 먹었지? 이제 가자.”제드는 그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어이구. 이제 다 싸우셨습니까? 아무튼 라디 속을 못 긁어서 안달이셔. 아무리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지만. 그러다 진짜 이혼당하신다고요.”그 말에 라디올러스와 카네리안이 동시에 제드를 향해 외쳤다.“누가 부부야!”제드는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천천히 일어나면서 말했다.“이렇게 죽이 척척 맞는데 뭘....근데 둘 다 밖에서 이렇게 싸우지 좀 마요 남들 보기 창피해 죽겠네.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매번 살벌하게 칼이니 공격마법이니. 아니, 창피한건 둘째 치고 주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요.”라디올러스는 확실히 자신이 잘한 짓은 아니었으므로 발을 꼼지락 대며 중얼댔다.“...음 뭐. 잠자리 뒤숭숭해질거 같아서 확실히 저도 카네리안 선배를 죽이고 싶다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찌르고는 싶어요.”카네리안은 히죽 웃으며 맞대응 하듯이 말했다.“난 진심으로 죽이고 싶은 건데.”라디올러스가 ‘어련하실까.’라고 인상을 쓰며 말하자 제드는 그들 사이를 막아서며 중재했다.“카네리안 선배. 뭘 또 다시 시비를 거세요. 그리고 라디. 선배를 찌르고 싶어하는 건 네가 이상한 게 아니니까 걱정마.”카네리안은 하인에게서 자신의 코트를 받으며 제드를 향해 ‘건방지다. 태닝 보이.’라고 핀잔을 주다가 생각났다는 듯이 라디올러스를 향해 물었다. 라디올러스는 슬슬 진정이 되자 가족들에게 부끄러워져서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다.“야, 라디. 너 내일 그 황궁에서 한다는 우리 환영회 파티 갈꺼야?”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카네리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당연히 가죠. 저기요... ‘우리’를 환영해서 여는 파티라니까요? ‘우리’라는 뜻 알아요?”“아 귀찮아...아무튼. 그럼 너 내일 드레스 입겠네.”“그렇겠죠 뭐.”라디올러스는 그가 왜 이렇게 당연한 걸 묻는 건지 몰라서 대충 말하고 그의 시선을 피했다. 아직도 카네리안의 얼굴을 바라보면 뺨이라도 힘껏 때려주고 싶은 기분이었기 때문이다.카네리안은 아둔한 것을 보는 것처럼 ‘어휴’하고 한숨을 쉰 다음 그녀에게 말했다.“야. 아직도 내 뜻을 모르겠냐.”“뭐요. 뭐요 또.”그녀가 툴툴 대며 그를 쏘아보자 그가 덤덤하게 말했다.“드레스 입으면. 아무래도 보이는 데가 많지 않을까. 등이나. 어깨나. 가슴팍이나.”“아.”라디는 이제야 그의 말뜻을 깨달았는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카네리안을 바라보았다. 카네리안은 놀리듯이 말했다.“잘 가릴 수 있겠어? 라디.”“어...음...할 수는 있겠지만...음...”그녀는 우물쭈물하며 바닥을 바라보다가 풀이 죽은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선배.”그 얼굴은 본 카네리안은 킬킬대며 웃었다. 손으로 그녀에게 다가오라는 모션을 취하며 말했다.“알았어. 이리 와.”그리고는 키가 작은 그녀의 귓가에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 그녀의 어깨를 잡고 몸을 조금 숙여 속삭였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았다. 다만, 그가 말을 끝낸 것으로 보였을 때 라디의 늘어져 있던 머리카락이 잠깐 바람이라도 맞은 것처럼 일시에 풀썩 거렸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다.그럼에도 그녀는 이런 부탁을 하게된 것이 자존심 상한 것처럼, 하지만 분명하게 고맙기는 한 것처럼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고맙습니다.”그는 피식 웃으며 ‘뭘. 이정도야.’ 라고 말한 뒤 코트를 걸쳤다. 그리고 카네리안은 라디의 가족들에게 ‘소란피워서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사과하고 있는 제드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을 했다.“라디, 예쁘게 입고 와라.”문을 나서기 직전, 그 말만을 남기고 카네리안은 아무일 없던 것처럼 공작가를 떠나버렸다.대단한 소란이었기 때문에 라디는 피곤한 듯 ‘에휴...’라고 한 숨을 쉬며 다시 의자에 털썩 앉았다. 가족들도 멍한 표정으로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제르다민이 제일 먼저 물었다.“야. 방금 카네리안이 너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한거야?”라디는 퍼뜩 제르다민과 눈을 맞추고는 대답했다.“아, 아~ 그거? 뭐라고 한게 아니라 마법을 걸어준거야. 별거 아냐.”“마법? 무슨 마법.”“어~그냥...”그녀가 시선을 피하며 대충 얼버무리려했지만 제르다민은 끝까지 말하라는 것처럼 그녀를 노려보았다. 결국 라디올러스는 사실대로 실토했다.“등이나 어깨의 상처가 보이지 않게 해주는 마법을 걸어줬어. 선배가.”그 말에 가족들은 모두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로 라디올러스는 전쟁에서 싸움을 하다온거구나'라는 것이 체감된 것이다. 가족들은 지금까지 애써 피해왔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휴리안이 믿기지 않는 다는 얼굴로 그녀에게 물었다. 슬픔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였다.“라디.... 정말 한쪽 눈이 보이지 않니?”라디올러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듯이 두 손을 내저으며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너무 걱정 말라는 듯이 웃어보이며 말했다.“아아니? 눈이 안 보인다는 건 너무 오버야. 그냥 시력이 많이 나빠졌다 뿐이지 보이긴 보인단 말야.”헬리오는 침울해 하며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하지만 라디... 아까 전엔 나이프도 제대로 보지 못했잖아...”“그건... 보이긴 하는데 시야각이 많이 좁아져서... 그래서...”가족들이 그녀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그녀는 시선을 식탁으로 조금 내리며 어색하게 ‘하하’웃었다. 그러다 ‘괜찮다’고 우기는 것에서 전술을 바꾸기로 한 듯이 다시 밝게 말했다.“아, 근데 이것도 내가 귀찮고 서툴러서 안한다 뿐이지 맘먹고 마법을 걸어놓으면 다시 멀쩡하게 잘 보여.”그 말에 윌로우는 작게 중얼거렸다.“...평소에는 잘 안보이긴 하는 거구나.”공작이 갑자기 화가 난 것처럼 카네리안이 빠져나간 문을 가르키며 라디에게 물었다.“라디! 근데 저 녀석은 도대체 뭐냐? 뭔데 건방지게 너한테 그렇게 밉살맞게 굴어?”이어서 휴리안이 진지한 얼굴로 덧붙여 물었다. 평소에는 좀처럼 듣기 힘든 그의 낮고 험악한 목소리였다.“그가 널 전쟁에 나가도록 유도했다는 게 정말이야?”라디올러스는 ‘아 그게....’하고 난처한 듯이 모두를 둘러보다가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리고는 설명을 시작했다.“아~ 뭔가 복잡한데 말야... 확실히 카네리안이 재현 과목에서 좀 수를 쓴건 맞긴 한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카네리안이 한 짓이 규칙에 어긋난 건 아니거든. 물론 화는 나지만 말야....”그녀는 생각만 해도 짜증난다는 듯이 인상을 꾸기며 말을 이었다.“그냥 기말이 그 사람 때문에 난데 없이 새를 재현해 보는 걸로 바뀐건데 솔직히 고양이로 낸다고 정해져 있던 게 아니니까...”그러자 공작부인이 거의 울것 같은 얼굴로 말했다.“근데 그가 너에게 전쟁에 참가하자고 권유했다며... 오, 라디... 우리에게 말도 없이 그런 위험한 일을 하다니...전쟁이라니!”라디올러스는 죄책감드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작게 ‘죄송해요.’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근데 그것도 정말 진정 진정하고 생각을 해 보면 카네리안은 정말 ‘권유’였거든요. 무지 재수 없긴 했지만. 정말 나가기 싫었다면 그냥 참고 한학기를 더 다녔으면 될 일이었어요.”휴리안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괴로운 목소리를 내었다.“왜 그 제안을 받아들인거야... 네가 왜 전쟁같은 걸 나가.”“음...일단은 진심으로 우리 가족들을 빨리 보고 싶었고...”그 말에 가족들은 슬픈듯이 고개를 조금 숙였다. 라디올러스는 계속해서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어차피 졸업하면 징집될 대상이었거든 프라마 학생들은. 그렇다면 아예 이번기회에 카네리안과 조를 짜는 것이 나아보이기도 했어. 그 사람은 진심으로 재수없긴 하지만, 정말 강하니까.”제르다민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하지만 그는 최전방에서 싸운다며? 졸업해서 그냥 평범한 조에 들어갔다면 넌 아마 더 안전한 곳에서 싸울 수 있었을 거야.”라디올러스는 천천히 자신의 형제들을 둘러보며 씨익 웃었다.“내 거친 마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카네리안 밖에 없기도 하고...생각보다 최전방에서 싸우는 건...뭐랄까... 보람 있었어.”‘여기서 내가 잘하면 잘할 수록.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히 있을 수 있겠지. 한명이라도 덜 죽일 수 있겠지.’그녀는 싸움터에 있을 무렵 하던 생각을 떠올렸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럭저럭 버틸 만 했었다.공작은 어두운 얼굴로 중얼거렸다.“보람 있다니 라디... 이렇게 잔뜩 다쳐서는...”헬리오는 공작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해 보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내 눈을 곧바로 응시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수도의 군과 합류해서도 카네리안의 조직에 들어갈꺼야?”그 물음에 가족 모두가 그녀의 답을 기다리며 빤히 바라보았다. 라디올러스는 잠깐 생각해 보다가 대답했다.“아마.”휴리안이 다급하게 물었다.“너에게 저딴 태도를 취하는데 다시 그와 함께 싸운다고? 게다가 그는 다시 싸움이 일어난다면 분명 또 최전방에 설꺼야.”“그가 가장 실력이 좋으니까.”“라디. 네가 군 사령관도 아니고 애써 가장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네 몸 생각 해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에 들어가.”자신을 잔뜩 걱정하는 그의 말에 라디올러스는 행복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대답했다.“그가 무척이나 싫긴 하지만 나와 그가 팀을 짜면 분명 굉장해. 그리고... 카네리안 선배는...음...솔직히 잘 모르겠어.”휴리안이 ‘무슨 뜻이야?’라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자 라디는 설명했다.“아까 본 것처럼 그도 날 끔찍이도 짜증스러워 하고, ‘죽이고 싶다.’라는 말도 달고 살긴 하거든? 근데 참 이상해.”휴리안은 ‘죽이고 싶다.’라는 말에 미간을 구겼다. 그러나 별 말을 하진 않았다. 라디올러스는 무언가를 회상하는 것처럼 시선을 조금 위로 하며 덤덤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내가 이 눈을 다쳤을 때도 엄청 위험한 순간이었어. 거의 처음으로 우리 그룹이 모두 절체절명이었어. 모두들 자기 목숨 보전하기 힘들 때였고. 나는 도망가는 도중에 머리 쪽에 마법 탄환같은 걸 맞고 쓰러졌었어. 쓰러지면서 다리도 공격받아서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갑자기 시작된 그녀의 긴급했던 순간에 모두들 숨죽여서 라디의 말에 집중했다. 그녀는 작게 ‘운 없게도 그걸 눈쪽에 맞아서 지금 이렇게 시력이 떨어진건데...’라고 자신의 오른쪽 눈을 잠깐 문질렀다. 그러다 다시 본론에 들어가려는 듯 ‘아무튼’하고 말했다.“바닥에 넘어진 채로 ‘아 죽겠구나.’하고 멍하게 생각하고 있는 데 저 멀리서 카네리안이 보이는 거야. 선배도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그와 눈이 마주쳤는데 처음엔 놀라는 거 같더니 이내 헛웃음을 짓는 거야. 아 그때는 정말 ‘이 놈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진심이었군.’하는 생각이 들었었어.”딸이 전쟁에서 그렇게 죽을 뻔한 사연은 부인에게 너무 충격적인지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라디올러스는 다시 무덤덤하게 이야기를 계속했다.“그는 내게서 고개를 휙 돌리더니 자신이 가던 길 그대로 뛰어가버리더라고. 근데 솔직히 억울한 맘이 들기 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됐어. 애초에 나랑 카네리안 사이는 최악이기도 하고, 그때는 그도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까 정말 열받는단 얼굴로 이쪽으로 막 뛰어오는 거야.”그녀는 그때 그의 얼굴을 떠올리는지 작게 키득 댔다. 그러다가 웃음을 사그라트리며 슬픈 얼굴을 했다. 라디올러스는 잠시 시선을 떨어트리고 침을 삼켰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카네리안은 절름발이가 됐어.”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라디올러스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끝마쳤다.“나를 업고 뛰다가 포제타쪽 마법사들에게 들켜서 집중 공격을 받았거든.” 윌로우는 당황해하며 말했다.“하지만 카네리안이 다리를 저는지 전혀 몰랐는데?”라디올러스는 ‘그으게에에~’라고 숨을 내쉬며 설명을 시작했다.“선배는 언뜻 보면 대충 대충 살고 남들의 이목에 전혀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자존심이 세거든.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무릎에 마법 거는 거야.”부인이 라디의 잔혹한 전쟁 이야기에 훌쩍 훌쩍 울다가 중얼댔다.“하지만, 난 역시 카네리안 공은 싫은 느낌이구나. 널 괴롭히려고 마음먹고 행동하는 게 눈에 보여.”라디올러스는 고개를 끄떡거렸다.“나도 그 사람이 싫어. 무슨 생각인지, 프라마에서 처음 볼 때부터 나한테만 저러더라고. 누가 테젠 아니랄까봐 일일이 밉상이라니까?”그녀는 말을 마친 후 고개를 숙이고 물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다만... 미칠 듯이 밉지만 카네리안에겐 이상하게 잘 대들 수가 없어. 몇 번이나 나를 구해주러 오며 짓던 그 묘한 표정을 생각하면 말야.”그녀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휴리안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나긋나긋하게 말했다.“그렇구나 라디... 생각해 봐도 모르겠다면 이제 그에 대해 생각하는 건 그만 둬. 나와 좀 더 즐거운 시간이나 보내는 게 어때.”“즐거운 시간?”라디올러스가 서서히 웃음을 지으며 그를 올려다보자, 휴리안은 다정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는 뜻이었다. 공작부인이 그 모습을 보며, 분한 듯 외쳤다.“어머. 휴리안! 너 지금 라디를 선수 쳐서 빼내려고 하는 거니?”“어머니. 미인은 항상 발 빠른 자의 차지잖아요.”가족들은 휴리안의 그렇게 장난스럽게 키득거리는 얼굴을 너무나 오랜만에 보았기 때문에 아무도 차마 그를 막아서지 못했다. 공작이 겨우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너라.’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휴리안은 알겠다는 듯으로 끄덕거린 후에 라디를 에스코트해서 재빨리 밖으로 나가버렸다.“오빠! 마차를 타고 아예 밖으로 나가게? 어...근데 나 되게 집에서 입을 법한 복장인데...”그녀가 그에게 이끌러 걸음을 바삐 걸으며 창피한 듯 그렇게 중얼거리자 휴리안은 싱긋 그녀를 내려다 보며 말했다.“괜찮아 라디. 정말 예쁘니까.”“어이구... 못 당하겠다니까.”휴리안의 칭찬에 그녀가 부끄러운 듯 중얼거리자, 그는 꿈꾸는 것처럼 흥얼거렸다.“그래... 아마 네가 입을 만한 옷은 제대로 준비되어있지 않았을 거야. 일단 내일 입을 드레스부터 맞춰야겠지. 아... 처음부터 너를 위해 만들어진 옷을 입히지 못하는 게 아쉽네. 내일 바로 파티라니, 너무 빡빡한 일정이구나. 치수를 재고 나선, 카페에 가자 라디. 네가 좋아했던 초코 케이크를 파는 곳 말이야. 아, 너 슈크림도 좋아했었지? 슈크림을 잘 만드는 곳도 알아놨었는데...”휴리안이 본인은 느긋하게 말을 잇는 것 같아도, 상대는 끼어들 수 없는 화법을 구사했다. 라디올러스는 계속해서 듣다가 결국 웃음을 터트리며 살짝 핀잔을 주었다.“오빠! 치수를 쟀던 게 물거품이 되겠어. 얼마나 먹이려는 거야.”그러자 그는 아차 싶었는지 볼을 붉혔다. 그리고는 웅얼거리며 말했다.“네가 오면 가고 싶은 곳을 잔뜩 생각해 뒀거든...”라디올러스는 그 말에 베시시 웃으며 대답했다.“이제 쭉 같이 있으니까. 천천히 전부 다 가보면 되지.”그는 그녀의 웃음에 가슴 깊숙이 행복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금 그녀와 팔짱을 끼고있는 것, 그녀와 말을 나누고 있는 것, 그녀가 웃고 있는 것 하나하나가 그에게 농후한 만족감을 주었다.‘카네리안 정도에 라디가 마음 쓰게 만들 순 없어.’그는 방금 전 무례하기 짝이 없는 청년을 떠올리며 그렇게 생각했다.‘아니, 카네리안에게 신경쓰는 라디를 보고 싶지 않은 것 뿐인가?’휴리안은 조금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그는 곁에서 재잘거리며 웃는 라디올러스에게 맞장구를 치며 그녀를 자세하게 살폈다.15살이란 아이에서 숙녀로 가는 길목의 한가운데라서, 그녀의 외모는 11살 때 보았던 귀엽고 아이 같은 모습과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어른스러운 모습이 섞여있었다. 그는 예전과 달라진 부분에 집중해서 그녀를 살펴보았다. 그러자 묘하게 긴장해 버리는 자신을 깨달았다.‘이런, 휴리안. 레이디를 에스코트하는 일은 많이 해 봤잖아. 뭘 새삼스럽게 긴장하고 그러지?’그는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다. 라디올러스를 낯설게 느끼는 자신이 싫었다. 이런 불편한 기분은 사양하고 싶었다. 어서 다시금 그녀와 예전처럼 익숙해지고 싶었다.그렇지만 라디올러스가 기쁜 표정으로 자신을 올려다 볼 때마다, 그는 뻐근하게 등줄기부터 타고 올라오는 이질감에 점점 익숙해져 갔다.그리고는 끝내, 그것이 꽤 기분 좋다고까지 생각되었다.“라디.”“응?”이름을 불렀더니, 대답해 준다. 그것이 너무 기뻐서 휴리안은 활짝 웃었다. 내친김에 소망하는 바까지 말하기로 마음먹었다.“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치지 말아줘.”라디올러스는 작게 ‘응’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있던 것을 풀어 그녀의 손을 꼭 잡고는 한자 한자에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전했다.“가장 소중히 다루고 싶었던 네가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돼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응.”“내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네가 카네리안에게 함부로 대해지는 것이 화가 나.”“...응.”그녀는 그렇게 말하는 휴리안의 심정이 이해된다는 듯이 진지한 표정으로 일일이 대답했다. 휴리안이 입술을 살짝 물었다가 화를 참는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무엇보다도 제일 화가 나는 건, 내가 3년이나 네가 다치는 걸 곁에서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랑 카네리안이 네게 함부로 대하는 걸 일일이 막지 못했다는 거야.”자책하는 듯한 자신의 오빠를 보자 라디올러스는 쓴웃음을 지으며 달래는 말투를 했다.“오빠... 나, 난. 3년 동안 오빠가 생각 하는 것 만큼 그렇게 괴로웠던 건 아냐.”휴리안은 잠시 입을 다물고 그녀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뗐다.“라디, 네가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과 내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은 비슷하지 않을까?”“똑같겠지. 나도 오빠가 정말로 소중하니까.”라디올러스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다. 그러자 휴리안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다.“그렇다면 내가 너를 기다리면서 힘들었던 만큼, 분명히 너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그녀는 차마 아니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그와 똑같이 눈시울에 물기를 띄게 했다. 휴리안은 거의 애원하듯이 부탁했다.“라디, 이제는 내게 기회를 줘. 내가 너를 지킬 기회를, 너를 괴롭히는 것들을 막아낼 기회를...”라디올러스는 울음을 참느라 빨개진 얼굴로 활짝 웃으며 그의 애정에 대답했다.“오빠, 내게 기회를 달라고 할 것도 없어.”그는 그녀가 또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는 건가 싶어서 슬픈 표정으로 라디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잡고 있던 그의 손을 두 손으로 맞잡았다.“이렇게 멋진 오빠의 기사도를 마다할 바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그렇게 말하며 라디올러스는 씨익 웃었다.그제야 안심한 듯 휴리안은 그녀를 따라 웃어 보이며 라디를 마차로 에스코트했다. 그녀가 계단을 오르기 쉽도록 손을 잡아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자 상냥한 아가씨 어서 타세요... 아가씨가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다행이에요.”라디올러스는 황궁에 도착해 마차에서 내리자 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오빠, 나 안 이상해? 어떡해~ 이렇게 차려입는 거 너무 오랜만이야. 역시 노란색은 너무 튀는 거 같아... 어쩌지? 아...다시 갈아입을 수 없나? 검은색! 역시 그 검은색 드레스 입을 걸... 아 부끄러워.”정장차림의 휴리안이 연신 생글 생글 웃으며 부드럽게 그녀를 달랬다.“라디. 내가 본 레이디들 중에 네가 제일 예뻐 걱정마.”제르다민은 마차에서 내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녀에게 빈정댔다.“황궁 파티장에서 아까 그 수수한 검은색 드레스라고? 반항하냐.”라디올러스는 오늘 은은한 노란빛의 드레스를 입었다.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 처음부터 맞춤으로 지어진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어제 휴리안이 진지하게 골라준 드레스이었다. 화려하게 틀어올려 장식한 그녀의 분홍색 머리와 잘 어울려서 그녀는 아닌게 아니라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그것이 라디는 어색한 것 같았다. 3년간 라디올러스는 거의 교복과 군복밖에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녀는 미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키는 조금 작았지만 얼굴에 오밀조밀 눈코입의 조화가 보기 좋았고, 특히 눈이 예뻤다. 화려한 드레스나 머리장식에도 뒤지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라디올러스는 자꾸만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되물었다. 눈과 입을 동시에 크게 벌리며 약간 정신나간 여자가 신난 것 같은 표정이었다.“지금 나 이렇게 꺄~ 파티다~ 하는 여자 같지 않아?”그녀가 제르다민을 돌아보며 그렇게 묻자 제르다민은 덤덤히 말했다.“응. 지금은 딱 그런 여자네.”라디올러스는 순식간에 울상을 지으며 단호하게 마차에 다시 올라타려고 했다.“나 가서 옷 갈아입고 올게.”휴리안은 키득거리며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는 장난스럽게 애원했다.“레이디. 나만 여기에 두고 어디를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이러지 마세요 신사분. 지금 제가 파티광같은 모습이라잖아요!”“제르다민이 당신의 미모를 시기하는 거예요.”휴리안이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손을 그녀에 귓가에 대고, 보란듯이 제르다민을 손가락질 하며 쑥덕거렸다. 제르다민은 그 모습을 질린다는 눈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렸다.“휴리안 형님은 라디만 오면 약간 점잖음이 감소한다니까...”그때 프랑디아 형제들이 서있는 근처에 또 다른 화려한 마차가 한 대 섰다. 황궁의 하인이 마차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벌컥 문이 열리더니 갈색머리에 아직 주근깨가 다 사라지지 않은 남자 한명이 뛰어 내렸다. 보통 성인 남자의 체격이었는데, 어린아이처럼 ‘야호~!’라는 말까지 하며 신난 것 같은 모습이었다.라디올러스는 그를 발견하고 조금 반가운 표정으로 외쳤다.“어? 체비츠 선배?”그러나 체비츠라고 불린 남자 뒤로 카네리안이 따라 내리자 라디올러스는 단번에 인상을 콱 찡그렸다.체비츠와 카네리안도 라디올러스를 발견하고 히죽 웃으며 다가왔다. 체비츠는 장난꾸러기처럼 온 얼굴 가득 미소를 띄운 채 손을 흔들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와! 라디잖아? 라디!! 너무 예뻐서 넌 줄 못 알아 볼 뻔 했어!!!”카네리안도 팔짝 팔짝 뛰며 그녀에게로 가는 체비츠의 뒤를 느릿느릿 따라오며 그녀를 칭찬했다.“오, 그래 그래 예쁘네. 야 평소에도 이러고 다녀.”카네리안이 다가오자 프랑디아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표정을 굳혔다. 전에 보았던 카네리안에 대한 인상은 최악이었기 때문이다.라디올러스는 여전히 부루퉁한 표정으로 ‘어떻게 맨날 이러고 다녀...’라고 투덜거리며 자신의 선배들을 향해 한발 걸어나왔다. 체비츠는 마치 원래 알던 사람인 것처럼 프랑디아 형제들에게 밝게 인사했다. 반면 카네리안이 라디의 뒤에서 자신을 탐탁치 않게 바라보는 라디의 형제들은 아예 안 보이는 것처럼 굴었다.인사를 끝마친 체비츠가 다시 라디를 호들갑스럽게 칭찬했다.“이야 라디! 노란색 잘 어울리네. 딱 그거야 그거! 아주 예쁜 카나리아!”“와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선배. 선배도 정장차림 아주 잘 어울려요. 근데 왜 카나리아에요? 카나리아가 노란색이던가? 새 말하는 거 맞죠?”카네리안은 피식 웃으며 체비츠대신 대답했다.“노란색 맞아. 너는 귀족 아가씨면서 카나리아도 모르면 어떡해.”“모른다고 안 했어요. 그냥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라디는 툴툴대며 대답했다. 카네리안은 그녀를 관찰하듯이 내려다보며 질질 끄는 말투로 말했다.“아~ 근데 정말 딱 카나리아네. 광산에서 가스가 새는지 확인하느라 카나리아를 쓰는 거 알아? 위험 감지하느라 쓰는 거랑 노래하는 것까지 딱 카나리아야.”“네에 네에 그렇네요 그래요.”라디올러스는 성의없게 대답했지만 카네리안은 그다시 신경쓰지 않는 것처럼 씨익 웃으며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라디가 그가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싶어서 아무 말 없이 그 시선을 마주하니까, 카네리안은 느긋하게 중얼거렸다.“카네리안과 카나리아. 뭔가 어울리네.”라디올러스는 싫은 표정으로 즉답했다.“전혀! 완전 바보 같은데요.”거슬릴만도 한데 카네리안은 재밌는 것처럼 킬킬 웃기만 했다. 그러다 생각난 것처럼 손바닥을 마주치며 말했다.“잘됐네 라디. 바로 우리랑 가면 되겠다.”“으잉? 왜요?”라디올러스가 끔찍한 표정을 지으며 카네리안에게 묻자 카네리안은 ‘아, 일단 따라와.’라며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그러자 휴리안이 다시 라디를 잡은 카네리안의 손목을 잡았다. 휴리안은 미간을 조금 구기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제 동생에게 항상 너무 무례하신 것 같군요. 카네리안 공.”카네리안은 그제야 휴리안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말했다.“아, 휴리안 공...이시지요?”“게다가 왜 당신들을 따라가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주시지 않으면 라디는 보낼 수 없습니다.”휴리안이 그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쳐다보며 그렇게 말하자, 카네리안은 라디올러스를 바라보고는 히죽 웃으며 말했다.“이야~ 라디. 니네 오빠 기사도 넘치네? 원래 이렇게 하나하나 간섭해?”“간섭이 아니라 관심이거든요? 빨리 왜 가야하는지나 말해요 선배.”카네리안은 보란듯이 과장되게 라디의 손을 놓고선 휴리안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곤 여유있는 미소를 띄우고 설명했다.“저희 마법사 그룹은 따로 정해진 시간에 등장해야돼서 대기실에 모여서 다같이 홀에 들어설 거니까 말이죠.”휴리안이 말없이 그를 계속해서 무표정하게 내려 보고 있었다. 카네리안은 여유있는 미소에서 도발적인 눈으로 표정을 바꾸었다. 카네리안이 휴리안을 노려 보며 ‘이제 라디를 데려가도 될까요? 기사님.’이라고 그에게 천천히 물었다.휴리안을 비롯한 모든 라디의 형제들이 그를 못마땅하게 바라볼 뿐 아무말도 하지 않자, 카네리안은 그들을 비웃듯이 픽 웃으며 라디 쪽으로 빙글 돌아섰다. 그리곤 그들에게 들리게끔 중얼댔다.“아, 이거 이거 무서워서 정중하게 부탁해야겠군.”그리곤 예법에 맞게끔 절도있게 라디를 향해 조금 허리를 굽히고는 손을 내밀었다.“이제 저랑 가주시겠습니까? 레이디.”라디는 그의 태도에 중얼거렸다.“우리 오빠들한테까지 빈정대지 마세요.”체비츠는 하하하 웃으며 라디에게 말했다.“라디, 선배 성격에 이정도면 양호한거 알잖아. 어차피 다같이 가야하는 건 맞으니까 이제 슬슬 우리랑 가자.”라디올러스는 그 말에 머뭇대며 카네리안의 손을 잡았다. 카네리안은 언제 심기가 불편했냐는 듯이 키득 웃으며 라디와 팔짱을 꼈다. 라디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손을 흔들며 잠시 작별을 고했다.“오빠~ 카네리안 선배는 너무 신경쓰지 마. 원래 이래. 이따 홀에서 봐~ ”휴리안은 라디가 그 쪽을 볼때는 이해한다는 듯이 싱긋 웃음을 띤 채 손을 흔들어 주었지만 라디가 이내 고개를 돌리고 카네리안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걸어 나가자 손을 떨어트리곤 무표정하게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파티는 웅장하게 준비되어있었다. 프랑디아 가문이 등장하자 파티 홀의 아가씨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설렘으로 웅성거렸다. 그러나 평소처럼 예의바른 미소로 그녀들의 시선에 답할 여유도 없는지 휴리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약간 속이 상한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난 카네리안 공이 싫은 것 같아.”제르다민은 덤덤하게 그의 곁에서 걸음을 옮기며 대꾸했다.“그 사람을 좋아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신기한 거 아닙니까? 형님.”대충 이야기를 전해 들은 공작 부부도 합세해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부인이 파티장에서 표정을 관리하는 것도 잊고 말했다.“또 그렇게 무례하게 라디를 데려갔다고? 어휴, 정말 라디 상관만 아니었어도.... 아니, 마법사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조심스럽지는 않을 텐데.”공작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리며 대답했다.“그러게 말입니다. 게다가 라디는 카네리안 공과 또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 정말 싫은 소리 한번 하기 머뭇거려지는군요. 군대 안이 얼마나 수직관계인지 예상이 가니까 말이죠.”얼마동안은 그들 사이에서 카네리안에 대한 불평만 터져나왔다. 그들은 투덜거림은 메디엘과 마리안의 등장을 알리는 소리에 겨우 사그라들었다. 로열 남매는 오늘도 찬란했다. 이제 22살이 된 메디엘은 여전히 깊은 푸른 눈에 옅은 레몬 색 머리로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빛이 나는 듯 했지만, 머리스타일은 오른쪽에 가르마를 두어 예전보다 좀 더 어른스러워 보였다. 예전의 휴리안처럼 한쪽은 뒤로 넘긴 모습은 아니어도, 어쩐지 예전의 휴리안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했다.완연히 청년의 모습이 된 그가 아름다운 숙녀가 된 마리안을 에스코트해 등장했다. 그들은 뼛속부터 완벽한 황손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만큼 공식석상에서는 항상 여유있는 모습만을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로 문을 바라보았다.오늘은, 파티의 주인이 그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마침내 목소리가 좋은 하인이 엄숙한 모습으로 주인공들의 입장을 알렸다. 사람들은 제각각 작게 내던 소음을 없애고, 숨죽여 문을 응시했다. 문 양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잘 차려입은 하인이 동시에 문을 열자, 카네리안과 라디올러스가 보였다.카네리안이 라디올러스를 에스코트해 뚜벅뚜벅 홀로 걸어 들어왔다. 라디올러스는 긴장했는지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카네리안은 명백하게 재미없다는 표정이었다.휴리안은 저 멀리 등장한 그의 여동생에 순간 자신이 숨을 멈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이렇게 온 몸에 힘을 주고 있는 지 알 수 없어 하며, 그는 긴장하고 있던 어깨를 풀었다. 이미 먼저 봐둔 모습이었지만, 웅장한 입장 음악에 맞추어 걸음을 걷는 그녀의 자태는 자신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라디, 네가 분홍색 머리라 다행이다. 다른 사람이 그런 색의 머리였다면, 너처럼 어울리지 않았을 게 분명해.’그는 멍하니 속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녀와 팔짱을 끼고 있는 카네리안을 발견하고 그가 또 심하게 고까워졌다. 사람을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한 것이 별로 없었던 터라, 휴리안은 그런 감정이 거북해졌다.라디올러스는 긴장감에 불편한 구두를 신은 발에 집중하며 한발 한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색에 집중하는 시선을 느끼고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역시! 머리엔 아무런 장식도 하지 말걸... 안그래도 튀는데 말이지!’아무래도 후회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카네리안과 라디를 뒤이어 그들의 동료도 열을 맞춰 들어왔다. 홀의 중앙에 그들이 서자, 그들의 공로를 취하하는 긴 찬양사가 이어졌다. 카네리안은 대놓고 무척이나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라디올러스가 팔꿈치로 그를 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식을 진행하는 하인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의 박수가 이어졌고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되었다.파티 음악이 울리자마자 메디엘이 라디올러스에게 성큼 성큼 다가왔다. 그는 겉으로는 태연하고 완벽한 왕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발갛게 달아오른 홍조와 조금 떨리는 목소리는 숨기지 못했다.“우아하고 용감한 레이디. 저와 춤을 부탁드립니다.”라디올러스는 잠깐동안 넋을 잃고 그를 올려다 보았다. ‘정말 메디엘 왕자인가?’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메디엘과 지금 자신에게 춤을 신청하는 남자를 대조해 보았다.레몬빛 금발, 조금 쳐진 눈, 도발적인 눈썹.모두 같은데 그는 훌쩍 어른이 되어버렸다. 라디올러스는 감격스러움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조금 발을 구를 정도였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이런! 왕자님! 더 왕자님 같이 되셨네요!”쌩뚱맞은 그녀의 말에 메디엘은 예전과 꼭 같게 피식 웃고선, 핀잔을 주었다.“원래도 왕자였고. 지금도 왕자인 겁니다. 더 왕자‘같이 되었다’ 라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옛날과 변함없는 또박 또박 빈정거리는 말에 그녀는 빙긋 웃으며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더 멋있어졌다 이 말이죠.”메디엘은 입을 꾹 다물었다가 떼고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려 카네리안에게 말했다.“레이디를 모셔가겠습니다.”카네리안은 관심없다는 듯이 ‘여부가 있겠습니까?’라고 대충 말한 뒤 음식이 차려진 곳으로 가버렸다.그가 춤을 추기 위해 라디올러스를 인도하면서는 둘 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너무 오랜만에 만난 그에게 무슨말을 해야할지 잘 알 수 없어서 일단은 맞잡은 그의 손의 감촉에 집중했다. ‘정말로 왕자인건가?’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얼떨떨했다. 메디엘이 입을 열어 중얼거렸다.“라디 양은 더 능청맞아지셨네요.”“네? 무슨 소리세요?”그는 쑥쓰러운지 그녀를 살짝 곁눈질 하며 조금은 퉁명스럽게 말을 뱉었다.“음...제가 정말 예전보다는 멋있어 졌습니까?”라디올러스는 전혀 망설임 없이 즉답했다.“네. 무척이나요.”왕자는 다시 시선을 천천히 돌려 앞을 바라보며 조그맣게 말했다.“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쉽게 말하시다니.”“엥? 쉽게 말했다고요? 아. 좀 더 뜸 들여서 말했어야 하나요?”라디는 옮기던 걸음을 멈추었다. 무슨일인가 싶어 메디엘이 그녀를 돌아보니 라디올러스는 왕자의 발부터 머리까지 시선으로 샅샅히 훑은 후에 그와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는 감탄의 표시로 고개를 천천히 흔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녀가 진지한 얼굴로 읊조렸다.“...완전 멋있어요. 메디엘 왕자님.”왕자는 그런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기가막히다는 말투로 물었다.“지금 제 흥 맞춰주려고 노력해주신 건가요? 이게, ‘좀 더 뜸들인 찬사’?”“부족했습니까?”라디올러스가 키득대며 장난스럽게 말하자, 왕자는 다시 손이나 잡으라는 듯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라디는 그 손을 꼭 잡았다.메디엘은 그 손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그맣게 말했다.“정말 능청맞아지셨잖습니까. 저는... 그...”그가 살짝 시선을 올려 겨우 라디올러스와 눈을 마주쳤다. 그 상태로 아까보다도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저는... 그대가... ‘아름다워졌다’고... 그 말 하나 하기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말이죠...”라디올러스는 그의 그 수줍은 칭찬에 덜컥 부끄러워졌다. 그녀가 덩달아 빨개진 얼굴로 그를 빤히 바라보자, 메디엘은 찬란하게 웃었다. 그녀도 쑥스러워 하는 것을 보자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다. 그가 라디올러스에게 좀 더 다가가 속삭였다.“눈부시게 아름다워지셨군요 라디올러스 양.”라디올러스는 새삼스럽게 얼굴이 달아올라 아무말 못하고 그의 눈을 힐끔 마주쳤다. 그녀는 깨달았다. 메디엘은 어느 새 또 재규어가 되어있었다. 완전히 자라버린 레몬빛 재규어. 반항할 수 없는 포식자였다.재규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당황해 하는 그녀의 얼굴을 감상했다. 달콤한 목소리로 그녀를 유혹하듯이 한 번 더 속삭였다.“거봐요. 나는 분명 15살인 그대에게 반할 거라고 예언했었지.” “아, 당신과 이렇게 무도회에서 춤을 출 수 있기를 만나는 순간부터 고대해 왔어.”메디엘이 꿈을 꾸는 것 처럼 웃으며 중얼거렸다. 음악에 맞추어 천천히 한발씩 움직이며 라디올러스와 왕자는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왕자를 조심스레 올려다 보며 그는 마치 동화 속 삽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잔잔한 음악소리도, 그의 미소도 모두 꿈결 같았다.메디엘이 싱글벙글 웃다가 라디올러스를 내려다보았기 때문에 둘은 시선이 마주쳤다. 메디엘은 한동안 그 밝은 미소를 유지하다가 라디를 잡고 있는 손에 힘을 주며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다.“라디 양. 저는 당신과 헤어져 있는 게 참 힘들었었어요. 제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라디올러스는 그의 그 곧게 내려오는 시선을 피하지 않으며 조금 씁쓸한 표정을 했다. 약간은 괴로운 듯이 천천히 입을 뗐다.“그렇게 말해주시니 정말로 영광이고, 또 송구스럽네요... 하지만 저도 정말로 슬펐어요.”메디엘은 입을 다문 채로 덤덤히 그녀를 내려다 볼 뿐이었다. 라디올러스는 그의 눈길을 차마 피하지 못하고 작게 한 번 더 중얼거렸다.“...정말로 슬펐어요.”“당신의 슬픔의 크기를 가늠해 보려는 게 아니에요 라디올러스 양.”그가 고개를 바로 들어 시선을 멀리 향하며 말했다.“훌쩍 떠나버린 당신을 탓하려는 것도 아니에요.”“...”그녀는 그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그의 말에 집중했다. 여전히 메디엘은 라디올러스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복잡한 감정에 대해 말하려 하는 것 같았다. 또한, 라디올러스는 여전히 이런 주제는 조금 어려웠다.메디엘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미소지으며 라디를 다시 내려다 보았다. 메디엘은 음악소리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목소리로 조곤히 말했다.“그저 내가 당신을 그 정도로 그리워했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니 그대도 나와 떨어져 있는 동안 내가 그리웠다고, 보고 싶었다고 말해주시려거든 활짝 웃으며 말해줘.”왕자는 간절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다.“그렇게 곤란한 듯이 ‘나도 괴로웠다.’라고 말하지 말고, 꽃처럼 웃으며 ‘나도 보고 싶었다’ 라고 말해줘.”라디올러스는 그제야 이해했다는 듯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부끄러운 듯이 볼을 살짝 붉히며 그에게 핀잔을 주었다.“왕자님은 항상 너무 어렵게 말하시네요.”“라디 양이 너무 둔한 거예요. 여전히 말이지요.”불평이 섞인 듯한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는 활짝 웃었다. 그리고는 밝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왕자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그는 라디올러스의 그 미소를 찬찬히 살핀 후에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네, 만족스럽네요.”“통과입니까.”라디올러스는 킬킬대며 말했다. 그러자 왕자는 한숨을 쉬며 작게 덧붙였다.“아직도 엎드려 절 받기밖에 안 됩니까 저는.”“아니, 원하는 바를 간단하게 표시해 달라니까요 왕자님. 그렇게 복잡한 사인은 못 알아들어요.”“...원하는 바를 간단하게 표시하는 게 엎드려 절 받기라는 걸 언제쯤 알아차려 주실겁니까.”메디엘이 질린다는 듯한 표정과 말투로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라디올러스는 ‘아차! 그런 건가?’하고 민망한 표정을 했다. 그가 그냥 넘어가려는지 키득대고 웃자, 그녀는 냉큼 다른 주제를 찾았다.“아, 아 그건 그렇다 치고. 메디엘 왕자님 스타일이 묘하게 어른스러워 지셨네요.”“어른스러워졌다니요. 어른이 된 겁니다.”그가 씨익 웃으며 덤덤히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그를 관찰해 보았다.‘키도 옛날 보다 큰 거 같긴 한데... 어른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뭘까? 어디가 변했기에 다들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진 거지? 남자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뭔가 윤곽 같은 게 변하나?’생각해 봐도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녀는 중얼거렸다.“뭐지요... 머리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런가? 확실히 옆 가르마가 그 전 머리스타일 보다 어른스러워 보이긴 하네요.”그 말에 메디엘은 조금 움찔하며 즉답했다.“그, 그렇다고 옛날 휴리안 공 머리스타일을 따라하거나 그런 건 아니란걸 아시죠?”“...엥? 네?”라디가 느닷없는 그의 대답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자 메디엘은 실수했다는 듯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라디올러스는 한건 잡았다는 표정으로 짓궂게 웃기 시작했다. 그만하라는 뜻으로 메디엘이 잡고 있던 그녀의 손에 꾸욱 힘을 줬지만 라디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놀렸다.“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인기 있는 사람의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죠!”“무슨 소리냐고요 따라한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휴리안 공보다 인기 없다고 돌려 말하는 겁니까?”“어? 당연히 따라 한 쪽이 아무래도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아무렴, 인기 있는 쪽이 인기 없는 쪽을 따라하겠어요?”“안 따라했대도! 게, 게다가 따라했다손 치더라도, 제가 그래도 이 나라 왕자인데 레이디들한테 인기 얻고 싶어서 머리스타일을 바꿨겠습니까?!”사교 댄스의 한중간인 것을 의식했는지 소리를 크게 내진 않았지만 메디엘은 정말로 답답한것 같았다. 그가 얼굴이 빨갛게 돼서 외쳤다. 그의 그런 태도에 라디올러스는 오히려 조금 어리둥절해져서 멍청한 표정으로 되물었다.“예? 어...그럼 뭐 때문에 바꾸셨는데요.”그는 분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팩 돌렸다. 그러나 그는 무도회의 음악이 아직 끝나지 않아 그녀를 놓고 도망갈 수 없었다. 라디올러스는 그의 얼굴을 시선으로 끈질기게 몰아세우며 물었다.“뭔데요. 왜 휴리안 오빠를 따라하셨는데요.”“으...”“뭡니까. 뭡니까.”“....”한참을 시선을 돌린 채 애써 라디의 물음을 무시하던 메디엘은 결국 작게 웅얼거리는 소리로 대답했다.“...니까 잖아요..”“네?”잘 안들렸기 때문에 그녀가 되묻자, 그는 분하다는 얼굴로 그녀를 천천히 응시하며 다시 대답해 주었다.“당신의 ‘첫사랑이니까’ 잖아요.”“아...”라디올러스가 놀라서 발을 멈추어 버렸다. 다행이 약간 박자가 어긋나긴 했지만 음악도 끝나버렸다. 멀뚱히 서있는 라디올러스와 왕자 외의 다른 사람들은 방금 같이 춤을 춘 서로의 파트너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다.메디엘은 아직 상기된 얼굴로 평정을 가장한 목소리를 냈다.“인기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분명히 휴리안 공에게 자격지심이 있는 건 부정할 수 없게 되어버렸네요.”“...일단 저는... 음... 왕자님의 한결 같이 다정한 말씀, 감사합니다.”라디올러스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쑥스러움이 전염된 채로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메디엘도 머쓱하게 한박자 늦은 인사를 했다. 그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까지 말하게 되다니...’라며 한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렸다. 그리고는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새빨간 얼굴로 그녀를 스쳐지나가며 작게 말했다.“일단은 당신의 첫 댄스 상대가 나였던 것으로 만족할까요. 제가 다시 뻔뻔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 때까지 분하지만 미카엘 공의 말 상대라도 되어주시죠. 그 바보 같은 남자는 아무튼간 이상한테서 불쌍할 정도로 약하니까 말입니다.”그렇게 말한 메디엘은 꼴사나운 얼굴을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지 입가를 한 손으로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홀을 빠져나가버렸다. 갑자기 홀에 혼자 남겨진 라디올러스는 메디엘이 빠져나간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미카엘이 지금 여기에 있었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게 아는 척을 안 할 수가 있지?’어디쯤에 있는 걸까 생각하며 그녀는 두리번 거렸다. 붉은 빛이 나는 머리칼을 가지고 있던 옛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며 한 바퀴 빙글 돌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녀는 미카엘이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떠올려 보았다.‘미카엘은 은근히 머리카락이 억세서 머리를 짧게 쳐 내자, 고집 센 머리는 꼭 여기 저기 뻗쳐있었는데. 설마 파티장까지 그러고 오진 않았겠지? 그 옅은 색의 눈동자는 여전하겠지. 키는 좀 컸으려나? 군대에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근육도 많이 붙었을 거고... 설마 엄청 우락부락해진거 아냐?’라디올러스는 이제 곧 미카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점점 기대감이 부풀기 시작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소년을 찾아 한 번 더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 때 눈에 띄는 선명한 색이 보였다. 홀의 가장자리를 둘러있는 군중속에 삐죽 튀어나온 붉은기가 있는 갈색. 그녀는 그 머리카락의 주인을 재빨리 바라보았다. 키가 큰 청년 이었다. 머리는 남자치고는 조금 긴지, 남는 머리를 겨우 묶어서 그나마 파티를 신경 쓴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도 눈을 찌를락 말락한 앞머리는 그가 평소에는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었다.‘...잘생겼는데 아깝잖아 미카엘. 그래도 그 정도 길이의 머리도 어울리네.’그녀는 멍청히 그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앞머리는 잘라야지. 미카엘.’ 조금 현실감 없이 그와 눈을 마주치며 그렇게 생각했을 때였다. 묘한 표정으로 물끄러미 라디올러스의 얼굴을 바라보던 그가 몸을 휙 돌려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가려 했다.‘뭐지? 저 바보.’라디올러스는 당황해서 사람을 헤치고 그를 쫒아가려했다. 모든 것이 우아하고 느릿하게 흘러가는 듯한 황궁의 파티장에서 허둥지둥하는 그녀는 눈에 띄기 충분했다. 휴리안은 마시던 잔을 입에서 떼고는 생각했다.‘정말이지 한결 같이 바보 같은 남자잖니? 라디.’춤을 추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말을 나누고 있다가 뛰쳐나가는 라디올러스를 바라보고있는 상황이었다. 예쁘게 드레스를 차려입은 레이디가 구둣 소리를 탁탁 울리며 뛰어나가는 모습은 당연히 튀기 때문이다. 휴리안은 잠시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아, 잠시...’하고 비교적 홀의 중앙에 있던 살찌고 늙은 홀랜브즈 공작 부인에게 다가갔다.공작 부인이 휴리안을 눈치채고 돌아보자 그는 동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크게 말했다.“이런! 부인... 역시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뒤에서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레이디 분들은 다들 연약하셔서 항상 걱정입니다.”그의 목소리에 사람들은 라디올러스를 바라보고 있다가 다들 휴리안쪽을 바라보았다. 홀랜브즈 공작부인은 발그래해져서 더듬더듬 대답했다.“어, 어머나... 휴리안 공. 저를 걱정해주신 거예요? 다정하기도 하시지... 사실 아까부터 조금 어지럽더라고요.”휴리안은 섧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부축하고 말했다.“부인, 몸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대기실에 모셔드릴까요?”공작부인은 수줍게 끄덕거리곤 조금 비틀거리기까지 하며 휴리안에게 의지해 걸어나왔다. 사람들은 휴리안이 지나갈수 있도록 얼른 길을 비켜주었다. 그가 대기실에 들어간 후엔 물론 한동안 사람들은 그에 대한 칭찬으로 바빴다. 모두들 조금 걸음이 바빴던 라디올러스 정도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후였다.미카엘을 따라 홀을 빠져나온 라디올러스는 정원으로 향하는 복도쯤에서 그를 놓치고 말았다. 원래도 날쌘 미카엘이었다. 미카엘이 마음만 먹는 다면 그녀를 따돌리는 일쯤이야 식은 죽 먹기였기 때문에 라디올러스는 억지로 그를 찾아내는 일은 포기하고 그 쪽에서 모습을 들어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그녀가 외쳤다.“미~카엘~~”조금 어둑한 복도에 라디올러스의 목소리만 울렸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녀는 한번 더 외쳤다. 어쩐지 언젠가 외쳐본 적 있는 듯 한 말이었다.“미~카엘~ 노올자아~”예전에는 이렇게 외치자 조금 있다 미카엘이 헐레벌떡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용하기만 했다. 복도에는 덩그러니 라디올러스 혼자 뿐이었다. 그 후에 두세번 더 미카엘을 불렀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서러워져버렸다.“야! 미카엘! 장난쳐? 지금 몇 년 만인데 인사하나도 못해줘?”매섭게 화를 내다가 울컥해버린 그녀는 결국 조금 코맹맹이 소리를 냈다. 그래도 그녀가 찾던 청년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라디올러스는 화장이 번질까봐 쉽게 울지도 못하고 눈가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렇지만 닦을수록 서러움이 퍼져서 결국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미카엘! 못된 놈!”어두컴컴한 복도에 울리는 자신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처량맞아서 라디올러스는 씩씩 대며 한 번 더 외쳤다.“마음이 변하면 어쩌니 하면서 울던 게 누군데! 못돼처먹은 미카엘!!”“...그 땐 너도 울었었잖아 라디.”“꺄아아악!!”갑자기 뒤에서 대답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라디올러스는 너무 놀라서 다리힘이 풀리고 말았다. 미카엘은 풀썩 주저앉을 뻔한 그녀의 허리를 뒤에서 잡아주었다. 미카엘은 말없이 잠깐 그렇게 껴안고 있는 라디올러스를 내려다 보았다. 반면, 라디올러스는 뒤쪽에서 잡혀있는 입장이라 그를 보지도 못하고, 잠깐 동안은 그저 너무 심한 놀람의 여파로 멍하게 그에게 의지해 있었다.미카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다.“라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됐어?”“...뭐가? 이 못돼 처먹은 놈아.”라디올러스가 그를 의지하고 있는 불편한 자세 그대로 훌쩍거리며 그렇게 대답하자, 미카엘은 조금 헛웃으며 ‘못돼 처먹은 놈이라니..너무한데?’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그녀를 훌쩍 일으키며 다시 말했다.“...라디. 3년 동안 어떤 식으로 변했어? ...나를 잊어버리진 않았어? ...나와 친밀했던 기억은 이제 흐릿하지 않아?”이제 겨우 자신의 발로 몸을 지탱할 수 있게 된 그녀는 몸을 천천히 돌려 미카엘을 마주했다. 이렇게 마주 설 수 있게 되기 참 힘들었다. 라디올러스는 커버린 미카엘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 보았다. 살은 오히려 헤어질 때보다 조금 빠진 것 같았다. 우락부락한 모습을 생각해 보던 그녀는 날카로워진 그의 얼굴선이 안타까웠다.라디올러스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할 뿐, 별 대답이 없자 미카엘은 무덤덤하게 한 번 더 물었다.“...라디. 나 아직도 좋아해 주고 있어?”“...방금 네가 도망가서 싫어졌어.”그녀가 그의 마른 듯 한 볼을 살짝 건드리며 그렇게 말하자 미카엘은 피식 웃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렸다. 라디올러스는 당황해서 그의 볼 부근에 있던 손으로 그의 눈물을 닦았다.“미, 미카엘? 당연히 농담이지! 엄청 좋아해! 너 보려고 뛰쳐나온거 보면 몰라?”“아니... 그게 아니라...”그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히죽히죽 웃었다. 그는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지금까지는 네가 나를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그 말에 그녀는 멈추지 않는 그의 눈물을 바쁘게 닦으며 ‘멍청한 생각을...’이라고 투덜댔다. 미카엘은 자신의 눈가를 만지고 있던 그녀의 한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대고는 행복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다시 한 번 너를 만나니까... 그런 건 어찌돼도 상관없어... 라디. 나를 싫어해도 상관없어. 이제 여기에 있어... 내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곳에 있어...” 미카엘이 겨우 겨우 눈물을 추스르고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라디. 근데 너 머리색이 더 진한 분홍색이 된 것 같아.”“뜬금없네 뜬금없어.”라디올러스는 어이없다는 듯이 작게 웃으며 손을 그의 볼에서 떼어 놓았다. 그리고는 그의 곁에서 다시 홀로 돌아가기 위해 걸음을 옮기며 설명했다.“나도 잘 몰랐는데 정말 머리색이라는게, 햇빛을 안 받으면 색이 좀 짙어지더라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학교에 틀어박혀만 있었더니 안 그래도 바보같은 이 분홍색이 점점 더 바보 같아지더라.”“뭘 자꾸 바보래. 난 좋은데. 더 꽃잎 같아졌네.”그가 키득거리며 라디올러스의 앞머리 끄트머리를 살짝 건드렸다. 라디올러스는 쑥스러움을 숨기려는 듯이 화재를 미카엘 쪽으로 돌렸다.“아! 그러고 보니 말야. 머리 길렀네 미카엘.”“음... 기르려고 기른 건 아니고. 자르는 걸 자꾸 깜박해서.”“어쩐지 앞머리가 좀 길다 싶었어. 근데 꽁지머리는 귀여운 것 같아.”미카엘은 씨익 웃으며 자신의 앞머리를 조금 매만졌다. 그녀가 자신의 머리스타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지 약간 빨개진 모습이었다. 그가 아까보다 작아진 목소리로 대답했다.“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머리를 다 묶진 않아. 그냥 머리카락 위쪽만 묶어.”“응? 반 묶음? 어? 그것도 어울릴 것 같아.”“...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거슬려서 다 묶어도 훈련하다보면 어차피 반묶음처럼 되어있더라고.”라디올러스는 피식 웃으며 그의 어깨치를 손가락으로 튕기며 말했다.“미카엘... 너무 무심한거 아니니... 일단 앞머리는 좀 잘라. 눈 찌르겠다.”“네가 왔으니. 그래야지..”“그게 뭐야~ 나한테 지적당해야지만 다듬으려고 하면 어떡해. 모처럼 잘생겼는데 평소에도 신경 좀 써봐. 아가씨들이 엄청 달라붙을걸?”그녀는 키득대며 말하다가 ‘아!’하고 좋은 생각이 난 것처럼 말했다.“차라리 내가 잘라줄까? 나 머리 꽤 잘 잘라! 우리 그룹에선 내가 다 잘라줬어.”“응.”미카엘은 그녀의 제안에 전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의 태도에 라디가 오히려 머쓱해 하며 되물었다.“미카엘 내가 완전 망쳐놓으면 어떡해. 그렇게 생각없이 대답해도 되는거야?”“괜찮아. 네가 잘라줘. 어차피 다른 사람한텐 못 맡기니까.”“엥? 너도 원래 네가 잘랐어?”“남한테 칼이나 가위를 쥐어준다음 목덜미를 내어놓는 게 말이나 돼?”그가 덤덤히 그렇게 말하자 라디는 쓴웃음을 지으며 ‘여전하네 미카엘.’이라고 중얼거리고는 이어서 말했다.“근데 이제는 네가 이해가 돼. 그렇지... 그거 신경 쓰이지.”라디올러스가 끄덕거리며 동의를 표하자 미카엘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빤히 내려다 보았다. 그녀가 ‘응? 왜?’라며 멈춰선 이유를 묻자 그가 쉽게 말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다가 눈썹을 슬픈 듯이 찡그리곤 조용히 말했다.“...라디...있잖아... 전쟁같은건 왜 나간 거야... 위험하게...”“...”라디올러스는 잠깐 입을 다물고 그의 시선을 받아내다가 이내 대답하지 않겠다는 듯이 슬쩍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미카엘은 고개를 바닥으로 떨구고 서럽게 말했다.“네 몸엔 흉터하나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던 나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지...”라디올러스는 그의 그 외로워 보이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미카엘.”자신의 이름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라디올러스는 빙긋 웃으며 달래는 말투로 말햇다.“이야~ 미카엘. 우린 아직 멀었다니까. 역시 왕자님은 그래서 왕자님인가 봐.”“...메디엘 왕자?”그는 ‘왕자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인상을 조금 구겼다. 라디올러스는 다시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 팔짱을 끼고 그가 걸음을 옮기게 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했다.“나도 아까 너처럼 우리가 헤어져 있던 기간이 떠올라서 슬픈 기색을 냈더니 왕자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의 재회를 기뻐해 달라고.”“...”미카엘은 라디올러스의 말을 곱씹어보는 것 처럼 잠깐 입을 다물었다. 라디올러스는 그런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어했다.“나도 너와 떨어져서 무척 슬펐었지만, 사실 싸움도 무척 하기 싫었지만 말야... 뭐 어쩌겠어. 이미 다 저질러 버린 일인 걸.”“...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그저 묻어놓을 수도 없는 일이야. 마주하기 싫어도 열어보고 제대로 썩지 않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하지 않을까.”그의 일리 있는 말에 라디올러스는 힘없이 조그맣게 웃었다. 그와 끼고있는 팔짱에 힘을 주며 그녀는 약하게 말했다.“이미 너무 썩어버린 건 봐봤자 기분만 나쁘잖아. 그냥 묻어서 흙이랑 구분 안될 때까지 둬버려도 괜찮을지 몰라. 지금은 그냥 나를 반가워해줘. 나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미카엘은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이내 다물어 버렸다. 그리곤 씨익 웃어보이며 말했다.“뭐. 그래... 라디.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고 싶어. 네가 기뻐할 방식으로만 살고 싶어. 그러니까...”미카엘은 있는 힘껏 활짝 웃었다. 그리고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라디올러스는 그 미소를 마주보며 자신도 그렇게 웃었다. 그리고는 그의 말에 감사를 표하며 대답했다.“나도야 미카엘.”둘은 한번 그렇게 웃고나니까 계속해서 새어나오는 실없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함께 키득키득 웃으며 다시 홀에 들어서려고 하다가 문가에서 조금 곤란해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다.라디올러스를 발견하자 그 사람이 기뻐하며 그녀를 불러세웠다.“와! 라디! 널 찾고 있었어.”라디올러스는 의아해 하며 대답했다.“어? 제드 선배? 왜요?”제드는 귀찮다는 듯이 뒤통수를 만지작 대며 설명했다.“아~ 카네리안 선배가 또...”“웩!”라디올러스는 카네리안의 이름만 듣고서 바로 진심으로 구역질이 난다는 듯이 행동했다. 제드는 그녀의 그런 태도에 한층 더 안절 부절 못해하며 말했다.“아..저기 라디. 나도 물론 네가 힘들거 알지만...저기 그래도 그 사람을 말릴 사람은 너 밖에 없는 것 같아...”“선배! 그거 엄청난 착각인거 알아요? 그냥 귀찮아서 저한테 떠넘기는 거죠?!”“음...부인하지못하긴 하겠는데...”“거봐! 와~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제드 선배마저!! 진짜 너무하신거 아니에요?”라디올러스느 진저리를 치며 화를 냈다. 제드는 그러나 별로 굴하는 모습 없이 계속해서 말을 해나갔다.“음...근데 선배에게 너를 데려가면 어느정도 일이 마무리 지어진다는 건 너도 알잖아.”“그게! 딴사람한테 행패부리다가 그냥 저한테로 타겟이 넘어가서 둘이 싸우다 끝나는 거지 뭐가 마무리라는 거에요!”“근데 너도 저 꼴을 보면 그런 소리가 안나올걸?”제드가 그렇게 말하며 라디올러스의 손을 이끌려고 하자 미카엘이 매섭게 그의 손을 잡아챘다. 미카엘은 입은 웃고있었지만 눈으로는 먹잇감을 쫒는 것처럼 제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별로...라디가 하기 싫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제드는 그가 무례하게 쥐고 있는 자신의 손을 ‘아야...’하고 빼낼 뿐 별로 화내는 기색 없이 느릿하게 중얼거렸다.“아... 보아하니 이분이 미카엘 공이시군.”라디올러스는 미카엘의 거친 태도에 조금 당황해 하며 말했다.“오, 오.. 미카엘 편들어 줘서 고마워. 근데 너무 화내진 마. 우리쪽에서 카네리안 선배를 빼면 어차피 다 같은 피해자 모임이긴 하거든.”미카엘은 소년처럼 웃으며 라디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치자 그가 수줍은듯이 말했다.“어쨌든 기분 나빠.”“어... 고마워.”라디올러스는 일단 솔직하게 감사를 표했다. 그때 홀쪽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제드는 한숨을 푹 쉬었고, 라디올러스는 노골적으로 불안한 표정을 하며 한걸음 홀로 걸음을 내딛었다.사람들이 흘긋 흘긋 쳐다보는 시선의 한 가운데엔 테젠 공작가가 있었다. 의자에 앉아서 태연히 무언가를 먹고있는 카네리안의 주위로 테젠 식구들이 믿기지 않는 표정을 한 채 서 있었다. 가장 그의 가까이에 서있는 테젠 공작은 한 손을 다른 손으로 문지르며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코멜라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오....오빠! 아버지 손을 그렇게 쳐내는 게 어딨어? 오빠가 그러고도 장남이야?”카네리안은 그녀의 말이 안 들리는 것처럼 와인을 단번에 쭈욱 들이켰다. 그리고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그야. 더러운 손으로 만지려 드니까 그렇지. 게다가 한번도 이 집 장남이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그리고는 그가 경멸하는 눈빛으로 테젠 가족을 올려다보았다. 쭈욱 둘러본 다음 가뿐하게 의자에서 일어나 코멜라에게 매섭게 말했다.“어쨌든... 오랜만이네 코멜라. 생각도 잘 나지 않지만... 무지 떽떽거리는 여자가 됐구나.”공작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카네리안... 카네리안... 아, 아버지께 그런 태도는...”카네리안은 자신의 어머니 쪽을 휙 돌아보며 싱긋 웃었다. 그리고는 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제 이름 좀 부르지 말아주실래요.”다시 고개를 팩 돌려 자신의 형제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감정해 보는 것처럼 한명 한명의 얼굴을 바라 보더니 파르펠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흥미로운 것처럼 키득 웃으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아아. 네가 파르펠이니?”“네…”15살의 파르펠은 여전히 기가 조금 세보이긴 했지만 똑똑해 보이는 예쁜 소녀였다. 그녀는 경계하며 카네리안의 물음에 대답했다. 카네리안은 킬킬거리며 그녀를 애취급 하듯이 머리 위에 손을 얻고 말했다.“하하.. 넌 제법 똑똑한 것 같더군... 아. 그래 눈치가 빨라...‘그것’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한 적 있니?”말을 끝내감에 따라 카네리안은 무서운 표정으로 바꾸어 그녀를 노려보았다.파르펠은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멈칫거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카네리안은 여전히 그녀를 노려보긴 했지만 만족스럽다는 말투로 중얼거렸다.“와.. 정말 머리가 좋잖아?... 그래. 잘했어.”그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칭찬을 한 다음 그녀의 머리를 난폭하게 쓰다듬었다. 덕분에 황궁파티에 맞추어 정성스럽게 꾸민 그녀의 머리가 엉망으로 망가졌다. 파르펠은 겁에 질린 얼굴로 덜덜 떨었다.반면에 카네리안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저벅저벅 다시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로 걸어갔다. 앉기 직전에 파르펠의 머리를 쓰다듬었던 손의 장갑을 더럽다는 듯이 벗겨내 바닥에 던진 다음 다시 와인을 따라 풀썩 앉았다.테젠 공작이 화를 억누르는 모습으로 카네리안에게 말을 건넸다.“...카네리안. 황궁에서 이런 모습은 그만 보이자꾸나. 오늘은 집에 들어오너라.”카네리안은 공작의 말이 흥미로운 것 같았다.“흐음..집에요? 제 방이 아직 있긴 한가보죠?”공작 부인은 그가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자, 옳다구나 하고 그에게 부탁하듯이 말했다.“그래 카네리안. 네 방은 네가 떠난 날 이후로 그대로 남겨놓고 있었어. 널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그녀의 쩔쩔매는 말에 카네리안은 정말로 웃기다는 듯이 크게 웃음을 터트렸다. ‘하하하’하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멈추지 못해서 그가 겨우 겨우 헐떡거리며 말했다.“하하하 제가...제가 프라마에 갔던 나이가 하하하... 8살이었었는데요?”공작 부인은 그의 반응에 어쩔 줄 몰라하며 그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카네리안은 아직도 새어나오는 웃음에 킬킬거려했다.“제가 지금 23살인건 아시고 계신거죠? 8살 때 방을 아직도 그대로 남겨두었다니, 그걸 어떻게 쓰라는 거죠? 그 때처럼 블록 쌓기라도 할까요?”“카네리안... 그런 뜻이 아니란 걸 알잖니?”부인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애절하게 말하자, 카네리안은 웃음을 멈추고 매섭게 말했다.“어머니. 저는 당신을 14년 만에 보았습니다. 집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프라마에 있었던 시간이 거의 두배 더 길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를 그리워하셨다는 그 말이 하나도 믿기지 않아요. 가족이라서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렇지 않단다 얘야! 나는 정말로 널 보고 싶어했어!”그는 그녀의 외침을 피식 비웃었다.“보고 싶었다고 자신을 속이시는 건 아니고요?”그의 상처가 되는 말에 부인은 결국 눈물을 보였다. 공작이 낮은 목소리로 그를 나무랐다.“너 이 녀석! 남들 눈이 창피하지도 않느냐? 어머니께 이게 무슨 무례한 말이야!”카네리안은 공작이 화를 내건 말건 여유롭게 카나페를 입에 밀어 넣고는 우물거리며 중얼거렸다.“거보세요 다들 말로만 가족이니 어쩌니 하면서. 사실은 남들 눈이 제일 무서울 뿐이잖습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화를 내면서도....”그는 말을 하다 손가락 끝에 묻은 카나페 부스러기를 핥았다. 그리고는 느긋하게 다시 말을 이었다.“아무도 제가 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지는 묻지를 않네요. 사실 내심 누군가 그렇게 묻기를 조금은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그는 갑자기 쓸쓸한 표정을 짓고선 한손을 가슴께로 올렸다. 그리곤 작게 말했다.“역시 이건 가슴 아프네...”그의 급작스러운 약한 반응에 테젠가는 다들 약간의 당혹감과 죄책감이 이는 표정을 했다. 생각해 보면 확실히 자신들은 카네리안이 데면데면한 것을 억지로 숨기고 그를 대하려 했었기 때문이다.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사람을 가족으로 다시 대하려는게 어색하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려 급급했던 것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다.그 때 지금까지 계속 저 카네리안을 말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라디올러스가 뚜벅 뚜벅 걸어나와서 카네리안의 정수리를 손날로 때렸다. 그녀가 못봐주겠다는 듯이 말을 토했다.“가족들 괴롭히려고 연기하지 말아요. 선배.”“음, 역시 티나?”그가 장난스럽게 키득 키득 웃으며 라디올러스를 올려다 보았다. 그녀는 싫은 얼굴로 투덜대며 말했다.“선배. 왜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그러십니까. 황궁에서 소란을 만들지 말아주세요.”“또, 그렇게 뭐든 아는 듯이 말하는 거야 라디? 역시 재수없다니깐..?”그가 빙글 빙글 웃으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라디올러스는 무덤덤하게 받아쳤다.“5년 만에 졸업하고도 집에 돌아가지 않은 건 카네리안 선배 본인이었잖아요. 왜 남탓을 하려고 하고 그러세요.”카네리안는 어리광 부리듯이 투정을 부렸다.“그치만 나는 여린 구석이 있어서. 나름 시위를 한 거였단 말야.”그는 조금 기운없게 히죽 웃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족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중얼거렸다.“‘점점 안오게 되어 버린 편지가 서러웠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저는 이다지도 상처받았답니다. 나를 좀 달래줘요.’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매달려 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이지...”그는 여전히 울상을 짓고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만족스럽게 바라본 다음, 다시 라디올러스를 바라보고 말했다.“뭐, ‘연구는 2년 정도 더 걸리니?’같은 소리를 들으면 아무래도 맥이 빠져버린다고.”공작 부인은 그의 말에 어깨를 흠칫하며 눈물과 함께 숨을 삼켰다.라디올러스는 그의 말이 이번에는 아무래도 아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서 그의 눈을 자세히 살피며 말했다.“네에...그건 확실히 어린 마음에 상처였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배. 어쨌든 지금 이런 행동은 어른스럽지 못해요.”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말했다.“응, 나도 알아. 나도 이제 애도 아니고 벌써 그 옛날 일 따위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다지 그 때의 일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진 않아.”“그럼 왜 이렇게 까칠하신 건데요.”“야, 너는 나랑 몇 년을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까칠하다고 하냐.”“음... 그렇긴 하지만.”확실히 평소 카네리안의 행실로 볼때, 이정도의 일은 그냥 소소한 대화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잠깐 생각해 보는 것처럼 어물 어물 중얼거렸다. 그러자 카네리안은 그녀에게도 와인한잔을 따라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이미 저들한텐 밉다거나 그립다거나 하는 감정 따위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아. 그냥 나랑 무관계하게 느껴질 뿐이야.”라디올러스가 희미하게 미간을 찌푸리며 어색하게 와인잔을 받았다. 그는 배실배실 웃으며 그녀의 잔에 스스로 잔을 부딪혀 작게 ‘건배!’소리를 내었다. 그리고는 역겹다는 듯이 말을 내뱉었다.“그저, 한없이 남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게 이미 남아있지도 않은 유대를 들먹이며 가족 놀이를 하려는 게 너무 불쾌해.”그리고 나서 그는 와인을 단번에 쭈욱 들이켰다.그가 입가에 묻은 와인을 손등으로 문지르는 모습을 멍하니 보다가 라디올러스는 툭하고 말을 던졌다.“음... 한없이 남이라고 하기엔 선배랑 테젠 식구들은 너무 닮았는데요.”“크악! 진짜 싫다...”카네리안은 떨떠름하게 고개를 뒤로 돌려 멀뚱히 서있는 테젠 식구들을 바라보았다. 차마 날카롭게 날이 서있는 그에게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코멜라만이 씩씩 거리고 있다가 그의 뒷모습에 대고 외쳤다.“그래! 이 멍청아! 나라고 좋아서 오빠소리를 하는 줄 알아? 가족인걸 어떡해? 그렇게 정해져 있는걸! 너랑 얼마나 닮았는지 좀 봐봐! 흥! 정말이지 자기만 혼자 피해자인척 하긴. 자기가 결정해서 안 돌아온거면서...”카네리안은 펄펄 뛰며 화내는 코멜라의 모습에서 휙 고개를 돌리곤 ‘진짜 떽떽거리는 여자라는 말이 딱 어울려.’라고 중얼거린 다음 자신의 머리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곤 싫은 목소리로 투덜거렸다.“아~ 진짜 이 머리색만큼은 누가 봐도 테젠이네. 초콜릿 빛깔이라니 하나도 안어울리게 달콤하잖아?”“와 이렇게 선배 말에 동감한 적이 없었는데... 선배에게 되지도 않게 달콤한 색이라는 건 맞네요.”“너 내가 황궁이라서 너한테 손찌검 못할까봐 이렇게 막 말하는 거야?”“조금?”라디올러스가 살짝 짜증스럽게 대답하자 카네리안은 그녀를 흘끔 째려본 다음 다시 시선을 자신의 머리 끝으로 향했다. 그가 뭔가 생각해 보는 것처럼 신음을 냈다.“음... 아무래도 이 거지같은 색을 바꿔야겠어.”그러자 멀찍이서 이 트러블을 바라보고만 있던 제드가 중얼거렸다.“우와... 그 귀찮은 짓을 하시게요?”라디올러스는 시큰둥하게 카네리안을 바라보며 말했다.“뭐, 맘대로 하세요. 무슨 색으로 바꾸시게요?....아 알아 뭐하겠어.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싸우지 좀 마세요. 창피하니까.”“아, 잠깐 넌 가지 말아봐.”카네리안이 떠나려던 라디올러스를 불러세우곤 말했다.“무슨 색으로 바꿀까 생각해 봤는데. 금발은 너무 가볍고... 갈색은 너무 흔하잖아? 누구랑 불쾌하게 겹치는 건 싫으니까 잘 생각해 봤는데. 제일 안 겹치려면 역시 네 분홍색이 좋겠어.”그녀가 그의 말에 꽥하고 비명을 질렀다.“그건 제가 불쾌한데요?”“나도 마찬가진데. 싫은 인간과 여러명 겹치는 것 보단 한명이 겹치는 게 좋겠지.”카네리안이 무뚝뚝하게 말한 다음 라디올러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 그녀가 뒷걸음 칠 정도가 되니까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게 어깨를 잡은 다음 말했다.“게다가 샘플 색이 있어야 바꾸기가 쉽거든.”그리고 나서 그는 몸을 숙여 그녀와 이마를 맞댔다. 그러자 마치 물감이 퍼지는 것처럼 그녀 쪽에서부터 분홍색이 퍼져나와 그의 머리카락을 맞닿은 부분부터 물들였다.얼마 안 있어서 카네리안은 그녀와 같이 분홍색의 머리를 갖게 되었다. 그가 잘 물든 앞머리 끝 쪽을 건드리며 휘파람을 불었다. 마음에 든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가 밝게 말했다.“와! 난 마법컨트롤 하나는 끝내 준단 말야? 괜히 천재가 아냐. 게다가 이 색 나한테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옅은 분홍색의 머리로 그가 싱긋 웃어보였다. 분하게도 그 말처럼 꽤 잘 어울려 보였다. 날카로운 분위기가 흐려져서 좀 더 부드러운 인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신이 난 것 같은 카네리안과는 반대로 라디올러스는 자신의 머리를 부여잡고 얼른 그에게서 빠져나와 절규했다.“으악! 진짜 똑같잖아? 우웩 기분나빠!!!!”카네리안은 킬킬 웃으며 그녀의 몸부림에 재미있어 할 뿐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싫어 죽겠다는 듯이 중얼거렸다.“차, 차라리 내가 다른 색이 돼야겠어.. 그래! 진작 그럴걸!”라디올러스는 주변에 서있던 제드에게로 냉큼 다가가 간곡하게 부탁했다.“제드선배!! 제 머리색 좀 바꿔주세요! 카네리안 선배 색이 아니면 뭐든 괜찮아요!”그러자 제드가 민망해하며 말했다.“저기... 라디...저딴 대담한 짓을 하는 사람은 카네리안 선배밖에 없을꺼야. 내가 하면 아마 네 얼굴까지 다 물들걸...?”“으악...”라디올러스가 그의 설명에 울상을 지으며 카네리안을 다시 되돌아 보자 그가 콧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곁으로 다가와서 제드에게 물었다.“야, 제드. 내가 이런 머리색이 되니까 우리 완전 남매 같지 않냐?”그때였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라디올러스는 살며시 자신의 어깨를 당겨 자신을 누군가에게 기대게 하는 것을 느꼈다. 당황해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어? 휴리안 오빠?”휴리안이 굳은 얼굴로 분홍머리의 카네리안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그렇게 무표정하게 그를 가늠해 보다가, 이내 살짝 미소를 띄고는 온유하게 말했다.“아, 죄송하게 됬습니다. 카네리안 공. 라디에게는 오빠가 저 말고도 3명이나 있어서...”휴리안이 기분이 상했는지 웃음이 없어진 카네리안을 위협하듯이 노려보며 나긋 나긋하게 말했다.“당신을 끼워줄 여유가 없네요.” 카네리안은 잠시 휴리안을 관찰해 보는 것처럼 무표정하게 그를 훑어본 다음 피식 웃었다. 가벼운 말투로 카네리안이 말을 건넸다.“확실히... 여유가 없어 보이시긴하네요.”입가에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휴리안과 삐딱하게 비웃음을 짓고잇는 카네리안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흘렀다. 라디올러스는 화가난 것 같은 휴리안을 보고 안절부절 못해했다.“오, 오빠? 카네리안 선배는 그냥 무시해. 건드려봤자 오빠 기분만 상해.”휴리안은 그녀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선 말했다.“이런, 라디. 건드리다니? 무슨소리인지 모르겠구나. 그저...”휴리안이 고개를 돌려 다시 카네리안을 바라본 다음 미소를 흐리며 딱딱하게 말했다.“그 머리색은 별로 안 어울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카네리안 공.”“아, 그렇습니까?”카네리안은 키득 키득 웃으며 자신의 머리를 매만졌다. 그리곤 거만한 눈짓으로 느릿하게 말했다.“남의 머리색까지 이러쿵 저러쿵 신경을 써주시다니. 친절하기도 하시지.”“감사하실 줄 아는 분이시라 감탄했습니다.”휴리안은 지지않고 여유롭게 응수했다. 둘이 신경전을 벌이느라 서로 아무말 않고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휴리안의 곁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전전긍긍하던 라디올러스가 갑자기 다급하게 카네리안쪽으로 뛰쳐나갔다.“선배!”행동 못지않게 긴박하고 큰 목소리라 홀 안의 사람들이 모두 하던 행동을 멈추고 소리난 쪽을 바라보았다.그녀가 절박하게 카네리안의 한쪽 팔을 부여잡았다. 휴리안이 그 뜬금없는 모습에 어리둥절해져서 ‘라디?’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라디올러스는 믿기지 않는 듯한 목소리로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외쳤다.“선배...카네리안 선배!”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녀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집중했다. 비명을 듣고 그녀와 함께 홀에 등장했던 마법사 동료들이 재빨리 달려왔다. 다만 카네리안은 그다지 당황해 하는 모습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뭐야.”라디올러스가 멍하게 그와 시선을 마주치며 중얼거렸다.“준비되고 있습니다. 대형 마법이.”그녀의 뜻밖의 말에 다들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리곤 마치 물에 잉크가 한방울 떨어진것처럼 사람들에게 점점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하나 둘씩 수군거렸다.높은 목소리의 여자가 절망적으로 말했다.“뭐, 뭐야? 대형 마법이라고? 지금? 마,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알아.”곁에 있던 다른 여자가 빠르게 중얼댔다.“아냐... 아냐 아냐.. 저 사람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그 ‘카네리안 그룹’이라고... 게다가 라디올러스라면... 그 때 그 사람이잖아. 암살자의 마법을 예측했던...”높은 목소리의 여자는 그녀의 말에 울먹이는 신음소리를 냈다.머리가 희끗한 중년 신사는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포,포제타 인건가? 치사한 놈들 휴전협약을 제안한지 몇일이나 됐다고..! ”그의 부인으로 보이는 중년 부인은 그의 팔을 꼭 껴안으며 대꾸했다.“우리가 안심한 틈을 노렸나봐요...! 어쩌죠? 설마 지금 여길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겠죠?”황궁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카네리안은 별 표정변화없이 덤덤히 물었다.“타겟은 여기인가?”“아마도.”“역시 공격마법?”“아마도.”“어떤 유형의 공격인지는 알수 있어?”“아직 모르겠습니다.”“마법이 여기에 적용될 때 까지의 시간은 예측 가능해?”라디올러스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곤 약간 몽롱한 것처럼 대답했다.“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타겟이 황궁이기도하고, 제가 선배님께 알렸을 때가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한 직후이므로 아직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보고를 들은 카네리안은 재빨리 명령했다.“라디올러스, 보호를 위한 찬송을 불러.”“네.”휴리안은 갑자기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명령을 듣고 생각했다.‘찬송을 불러? 노래를 한다고?’지금 휴리안에게 라디올러스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낯선 사람이 된 그의 여동생은 카네리안의 지시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와 그의 형제들, 또 메디엘과 미카엘은 모두 현실감 없이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독하게 듣기 좋은 소리라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였다.맑고 예쁜 목소리였다. 언젠가 들어보았던 것 같은 멜로디의 노래를 그녀는 집중해서 불렀다. 마치 처음부터 이 파티를 위해 준비해 왔던 것처럼.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바탕으로 카네리안은 남은 동료들에게 말했다.“아직 무슨 공격인지 인지할 수 없었어. 최대한 견고한 보호막을 치는 게 최선이다. 우리는 라디가 만드는 기본적 보호막 외에 견고한 층을 하나 더 만들기로 하지.”항상 가벼운 표정으로 웃고 다니던 체비츠가 진지한 표정으로 재빨리 물었다.“황궁의 미리 쳐져있던 보호막을 이용할 순 없나요?”카네리안은 분주하게 주머니에서 분필같은 것을 꺼내다가 그 질문에 천장을 흘끔 쳐다보았다. 그가 다시 분필로 시선을 돌리며 비웃듯이 말했다.“저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그 말을 신호로 마법사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다. 다들 파티를 위해 정장을 차려입은 상태였지만 아랑곳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홀린 것처럼 주문을 중얼거리며 바닥에 무엇인가를 그려댔다. 한껏 불안감에 빠져 안절부절 못하던 다른 사람들은 그 본격적인 모습에 하나둘씩 정신을 차린 것처럼 소란을 피우며 홀을 빠져나가려 했다.시끄러워서 라디올러스의 목소리가 잘 안들릴 정도가 되자 제드가 신경질 적으로 외쳤다.“방해하지 마! 어차피 지금 도망치려고 한다고 해도 공격에서 빠져나가기엔 이미 늦었어!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제대로 방어벽을 칠 수 있길 기도나 해.”그의 외침에도 빠져나가려던 한두명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들 부들 떨며 조용히 마법사들을 바라보았다. 곱게만 자란 귀족들이 대다수라, 다들 이런 상황이 충격적인것 같았다.카네리안은 자신이 그리고 있던 마법진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상태로 차분하게 말했다.“다들, 아마 라디의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끝마쳐야 할 거야.”체비츠는 드레스 자락까지 걷어올리고 열심히 진을 그리고 있는 금발 여자를 향해 물었다.“야 메릴! 너 네 몫의 ‘성의’ 커버 가능해?”메릴이라고 불린 여자는 읊조리던 주문을 마저 끝낸 다음 한박자 늦게 재빨리 대답했다.“어, 네가 방해만 안하면.”물어본 체비츠도 이미 다른 주문을 중얼 중얼 외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그의 긴장감을 대변하는 듯이 굵은 땀방울이 주룩주룩 흐르고 있었다.찬송가의 1절을 다 부른 라디올러스가 2절을 부르려다가 급하게 외쳤다.“보호막 구현 95%정도! 하지만 마법 저쪽에선 이미 구현 끝났습니다! 직접 충돌형 마법으로 방금 쏘아올려졌습니다. 충돌까지 약 10초!”바닥에 엎드려 있던 마법사들이 놀란 듯이 고개를 들었다. 카네리안이 ‘젠장! 좀 남았는데.’하고 혀를 찬다음 라디올러스를 불렀다.“너도 이쪽으로 와서 제 2 보호막 구현 도와!”라디올러스는 카네리안이 던진 분필을 잡고 그쪽으로 달리며 말했다.“9...”그녀는 아직 덜 그려진 제드의 마법진을 발견하고 그의 곁에 주저 앉았다. 고대 문자로 보이는 무언가를 휘갈기면서 말햇다.“8..7...6,,,”외우고 있던 주문을 겨우 다 마친 제드가 카네리안을 향해 외쳤다.“선배! 제 몫의 ‘성의’의 완성은 불가능해 보입니다!”라디올러스는 흐르는 땀도 닦지 않고 손을 움직이며 중얼거렸다.“5”초조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레이디들은 이미 훌쩍 훌쩍 소리를 죽여 울기 시작했다. 과연 웅장하게 홀을 둘러싸고 있는 창들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포제타에서 만든 무엇인가가 충돌을 예고하며 다가오고 있었다.카네리안은 벌떡 일어나 곁에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을 짚고선 얼음이 들어있는 양동이를 거칠게 헤집었다. 그리곤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투덜거렸다.“이쪽 ‘성의’도 마찬가지야 젠장! 또 뚫어야 하잖아!”라디올러스는 자신도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로 향하며 외쳤다.“4!”카네리안은 양동이에서 얼음을 부수기 위한 송곳을 꺼냈다. ‘아이스픽이 준비돼 있어서 다행이야. 나이프는 더 아프다고.’ 라고 욕지거리를 섞어 빠르게 말했다. 그는 잠깐 한숨을 쉰 다음 왼손을 하얀 테이블보에 펼쳐놓았다. ‘3!’하고 라디올러스 외치며 테이블에 도착했다.카네리안이 아이스픽을 쥔 오른손을 번쩍 쳐든 다음 중얼거렸다.“지금, 미약한 인간이 원하는 바를 위한 ‘각오’를 보이나니 자애로운 신은 부디 ‘성의’로 인정하여 가엽게여기소서.”그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송곳으로 자신의 왼손을 관통시켰다. 하얀 테이블보가 붉은 피로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작게 ‘윽..’하고 신음을 낼 뿐이었다. 그가 ‘각오’를 보이자마자 홀에 있던 사람들은 산들바람같은 것이 귓가를 스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카네리안이 왼손과 테이블에 꽂힌 아이스픽을 놓고 오른손으로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아 짜증나... 어쨌든 오늘도 살았구만.’‘2!’라고 외친 소리가 카네리안의 말과 겹쳐져 튀어나왔다.다른 마법사들은 안심해서 모두 분필을 놓고 고개를 들었는데 라디올러스 만이 아직도 다급하게 말한 것이다.카네리안이 그녀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뭐야.. 이제 카운트 그만해도 돼.”그러나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라디올러스는 카네리안의 왼손에 꽂혀있던 아이스픽을 빼냈다. 갑작스런 고통에 카네리안이 신음했다. 그러나 라디올러스는 그런 그가 안 보이는 것처럼 빠르게 중얼거렸다.“지금, 미약한 인간이 원하는 바를 위한 ‘각오’를 보이나니 명예로운 신은 부디 ‘성의’로 인정하여 강하게 만들어주소서.”기도를 끝낸 그녀는 아까 카네리안이 그랬던 것처럼 테이블 위의 자신의 왼손을 송곳으로 관통시켰다. 모두들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특히 그녀와 친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디올러스는 아픔에 숨을 몰아쉬면서도 창을 확인 하며 중얼거렸다.“1,0...”‘0’이라고 센 바로 시각에 황궁의 홀은 눈을 못 뜰 정도로 강한 빛에 휩싸였다가 순식간에 다시 고요한 밤이 되었다.카네리안이 왼손에 철철 흐르는 핏방울을 늘어트리고 테이블에 왼손이 고정된 라디올러스에게 다가갔다. 그가 키득키득 웃으며 그녀가 신음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멀쩡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통통 치며 말했다.“하하하... 공격을 되돌려주기위해 너까지 각오를 보인거야?”라디올러스는 ‘아야...’하며 상처를 바라보다가 무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감히 황궁을 저격하다니. 용서할 수 없잖아요.”“우리가 공격을 받아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거야....”카네리안은 즐거운 듯이 말했다.“분명 저쪽 마법사들이랑 군인들이 엄청 죽어나갔을테지...”라디올러스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카네리안은 그런 라디가 별로 신경쓰이지 않는 것처럼 말했다.“착한 척은 다하면서 아무튼 제일 인정사정없는 건 바로 너라니까?”“착한 척한적 없어요. 처음부터 이쪽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은 모두 없앨 목적이었으니까요.”그렇게 말하는 라디올러스의 목소리는 제법 싸늘했다. 카네리안은 눈을 가늘게 뜨고 씨익 웃으며 감미롭게 말했다.“그래놓고서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위로해 줬으면... 할 테지. 가엾은 대형 살인마 같으니라고.”휴리안은 라디올러스에 대해 뭐든지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카네리안의 태도가 무척이나 거슬렸다.그러나 그것보다도, 라디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왼손에 상처를 내는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조차 힘이 들었다. 당장이라도 저들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화를 내고 싶은데, 누구에게 화를 내야할지도 잘 판단이 서질 않았다. 다만, 그렇게 하면 라디가 슬퍼할 것은 확실해 보였다.휴리안은 갑자기 서러움에 목이 메어왔다.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겨우겨우 침을 삼켰다.아니나 다를까 라디올러스는 자신을 걱정할 사람들의 마음이 신경쓰이는지 왼손이 고정된 채로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다는 미소를 보냈다. 휴리안은 겨우 겨우 자신도 미소로 답했다. 그제서야 그녀는 안심했는지 다시 고개를 돌렸다.라디올러스가 왼손에 꽂혀있는 아이스픽을 잔뜩 찡그린채 바라보며 신음소리를 섞어 말했다.“아, 이런... 카네리안 선배의 피가 묻은 송곳을 그대로 쓰다니...”카네리안은 눈살을 찡그리며 짜증스럽게 말했다.“야, 네가 갑자기 뽑아서 아파서 죽는 줄 알았거든?”그는 너덜너덜해진 왼손을 그녀의 눈앞에서 보란 듯이 흔들었다. 살짝 흔들었을 뿐인데 핏방울들이 사방팔방 투둑투둑 떨어졌다. 라디올러스는 그러거나 말거나 메스껍다는 듯이 물었다.“선배 설마 병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죠?”“병? 이 건강한 내가 무슨 병.”“성병 말이에요.”일순 카네리안과 그 주위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녀가 다쳤을 때부터 그 자리에서 못박힌 듯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던 메디엘 마저 잠깐 손으로 피곤한듯이 눈가를 꾸욱 눌렀다.주섬주섬 드레스자락을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던 메릴이 창백해져서 중얼거렸다.“과연... 걱정되겠다 라디...”제드도 진지한 표정으로 살짝 끄덕거렸다.카네리안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서서히 고개를 들어 라디올러스를 바라보았다. 사납고 싸늘한 웃음을 지은 채였다. 그가 가소롭다는 듯이 대답했다.“난 싸구려 창부는 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아, 그래요? 다행 다행.”라디올러스가 어깨를 으쓱해 보이려다가 왼손의 상처가 당기는지 ‘으..’하고 신음했다. 카네리안이 짜증을 팩 냈다.“야! 프라마에 다같이 갇혀 지내고 있었으면서 뭘 그딴 소리에 끄덕거리고 난리야.”체비츠가 생각도 못했다는 듯이 ‘아? 그런가?’하고 손바닥을 탁 쳤다. 카네리안은 라디올러스 옆에 있던 의자에 풀썩 앉았다. 그가 오른손으로 연분홍색이 된 자신의 머리칼을 쓸어넘겼다. 그리곤 씨익 웃으면서 중얼거렸다.“뭐... 프라마에 있던 때가 그렇다는 거고 나와서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창부를 살 필요가 없다고 라디올러스.”“뭐래...”그가 야한 목소리로 말하자 무안해진 라디올러스는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아직 송곳에 고정되어있어서 그녀는 도망도 치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였다.카네리안은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던 나이프 하나를 주워서 자신의 피에 적셨다. 그리고는 송곳에 고정되어 있는 라디올러스의 왼손 주변에 무엇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한동안은 그것에 집중하는 듯 하더니 다시 입을 열어 유혹하듯이 말했다.“왜냐하면 창부말고도 내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여자들은 널려있거든.”상처가 아파서 끙끙 앓던 라디올러스는 그 말에 크게 ‘풋!’하고 웃음을 터트렸다. 그녀가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킬킬거리며 말했다.“아하하하! 선배! 선배 지금 나 아픈거 잊어버리라고 농담하신거에요?”“장난하냐?”카네리안이 짜증스럽다는 듯이 라디올러스를 노려보았다. 옆에서 카네리안이 진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드가 조용히 라디올러스에게 말했다.“저기 라디...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야.”“켁! 뭐라고요?”제드는 한숨을 쉬더니 설명했다.“돌아오고나서 선배가 우리집에서 묵었잖아? 그러다가 뭐 먹으러 밖에 나갈라 치면 얼마나 난리법석인지 몰라.”“누가요? 설마 마을 처녀들이?”제드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라디올러스가 경악스럽게 외쳤다.“네에에? 왜요? 다들 미쳤나봐.”묵묵히 듣고 있던 카네리안이 작게 ‘진짜 죽고싶냐 라디올러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제드가 덤덤히 말을 이었다.“그야 마법사를 낳을 수만 있다면야 그때부터 팔자 피는 거니까.”“어...하, 하지만 마법사의 자식이 꼭 마법사인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일반인보다야 확률이 더 높은 것 같긴 하지만..”제드는 평소와 같이 온화한 말투로 느긋하게 말했다.“...그걸 감안하고서라도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지.”마법진을 다 그린 것인지 피가 묻은 나이프를 집어던지며 카네리안이 느긋하게 말했다.“게다가 나는 잘생겼으니까.”“허허...아무래도 난 마을처녀들이 단체로 정신이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카네리안이 냉랭하게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재빨리 다른 화제를 꺼냈다.“아, 아무튼 좋으셨겠네~ 두 분다~~ 아이고 얼마나 신났을까~?”카네리안은 그 말을 픽 비웃었다.“우리가 미쳤냐. 나중에 얼마나 귀찮아지려고 아무데서나 애를 만들고 다니게.”제드가 생각만 해도 질린다는 표정으로 말했다.“동감~”카네리안이 라디올러스의 손쪽으로 몸을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다.“더 이상 휘둘리는 것도 사절이고... 아이를 낳을 생각은 더더욱 없어.”너무 작은 그의 목소리에 라디올러스가 ‘뭐라고요?’라고 되묻자 그가 단번에 송곳을 뽑아냈다. 라디올러스가 격한 고통을 참지못하고 ‘으윽!’하는 신음을 작게 냈다. 카네리안은 그녀가 손을 마법진에서 떼지 못하게 고정하고 재빨리 주문을 제창했다. 꽤 한참이나 주문을 외우고 나서야 그녀의 손에서 피가 흐르던 것이 멈추었다. 그녀의 드레스색과 맞추어 연한 노란색이었던 장갑은 붉게 물들어 버렸지만 그 찢어진 구멍 사이로 보이던 상처는 벌써 빨갛게 새살이 올라있었다.카네리안이 숨을 몰아쉬며 투덜거렸다.“아 미친 역시 마력 더럽게 많이 잡아먹네.”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의 연분홍색이던 머리색이 다시 초콜릿 빛깔로 서서히 물들었다. 그리고 왼발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지 기우뚱 거리며 휘청해서, 카네리안은 탁자를 잡아 몸을 기대야 했다.그가 작게 욕지거리를 했다. 라디올러스는 머뭇머뭇거리며 손을 꼼지락 거리다가 그에게 깊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감사합니다. 선배...”카네리안은 그런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다른 마법사들에게 큰 목소리로 물었다.“야! 마력 남아있는 사람 있냐? 내 왼손의 구멍도 누가 좀 메워줘.” 제드가 비척 비척 일어나 카네리안의 왼손에 마법을 걸었다. 베딕이 일어나려는 것을 말리며 자신이 자원한 것이었다. 베딕은 덩치가 크고 과묵한 마법사로, 카네리안 그룹의 마지막 멤버이기도 하다. 베딕이 제드의 친절이 감사하다는 의미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연상답게 앞으로 나서긴 했지만 제드도 무리를 했는지 카네리안의 치료를 끝내자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러나 카네리안은 피가 멈춘 자신의 왼손을 바라보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야! 흉터 생겼잖아!”제드는 화를 내는 카네리안을 외면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근처에 있던 글라스에 와인을 콸콸 부으며 피곤하다는 듯이 대답했다.“저보고 지금‘각오’의 상처를 깔끔하게 아물게 하라는 건 무리에요.”“난 했잖아! 보라고 이 완벽한 마무리를!”카네리안이 자신이 치료한 라디올러스의 왼손을 거칠게 잡아, 제드에게 보란듯이 내밀었다. 과연, 그녀의 장갑은 피투성이에다 찢어진 형상이었지만, 구멍사이로 보건데 흉터 따윈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라디올러스는 카네리안이 손을 잡아채자 작게 ‘아야!’하고 비명을 냈다. 제드는 그 모습을 보곤 느릿느릿하게 말했다.“역시 대단하신 카네리안 선배. 정말 말끔하게 아물었네요.‘겉'만.”“...뭐어 아무래도‘각오'로 생긴 상처니까 말이지...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거란걸 알잖아.”“네에 지혈이 중요하니까요 지혈이.”제드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이 대충 대답한 다음 한 잔 더 포도주를 잔뜩 따라 라디올러스와 카네리안에게 건냈다. 보통 식사에 곁들어서 마실 때처럼 아른하게 따른 포도주가 아니었다. 경박해 보일만큼이나 잔을 꽉꽉 채워 넣었다. 이렇게 천박하게 술로 가득 채운 글라스를 비웃는 마법사들은 아무도 없었다. 순식간에 그들은 낯빛을 어둡게 하고 입을 다물었다. 조금은 엄숙해 보이기까지 했다. 바닥에 주저 앉아있던 메릴과 체비츠, 베딕은 천천히 일어나서 테이블 곁으로 걸어갔다.카네리안과 라디올러스는 군말 없이 제드가 건네는 잔을 받았다. 카네리안은 작게 혀를 찬 다음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직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멀뚱하게 서있는 귀족들이 잔뜩 있었다. 카네리안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황궁 마법사님들은 이제야 보호 마법을 펼치기 시작한 것 같군. 이제 죽을 위험은 없으니까 다들 꽁무니 빠지게 돌아가시지요?!”그는 말을 끝내자마자 포도주를 벌컥벌컥 들이켜 단숨에 잔을 비웠다. 귀족들은 처음엔 머뭇거리는 듯 하다가 마치 동시에 마법에 풀린것처럼 소란스럽게 앞다투어 홀을 빠져나갔다. 프랑디아 가문 사람들과 테젠 가문 사람들 그리고 메디엘, 미카엘만이 끝내 자리를 지켰다.그 많던 사람들이 한번에 빠져나가자 무도회장은 조금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는데, 마법사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테이블 근처에서 술을 따랐다. 카네리안이 하인들을 향해 외쳤다.“젠장 이런 약한 포도주 따위로 어떻게 취하라는 거야! 좀더 독한 술을 가져와! 황궁답게 비싼걸로 인심써서 말이야!”하인이 그 성난 외침에 놀란것처럼 부리나케 달려나가더니 쭈뼛거리며 주문대로 술을 잔뜩 가져왔다.라디올러스는 멍하게 유리잔을 입에 댔다. 넘칠정도로 차있던 포도주를 어느새 반정도는 마신 모습이었다. 휴리안이 그녀의 뒤로 다가와서 부드럽게 말했다.“라디... 대단히 용감한 모습이었어... 물론 조금 놀랍기도 했지만...”라디올러스는 그의 목소리에 살짝 미소를 띠우며 돌아보았다. 하지만 무리해서 미소를 짓고있다는 것이 역력한 얼굴이었다. 휴리안은 가슴이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표정을 굳힐 뻔했다. 그는 그녀가 마음쓰지 않도록 더욱 단단한 웃음을 지었다. 휴리안은 라디올러스에게 바짝 다가가자 잠깐 멈칫한 다음 그녀의 머리장식에 손을 대며 작게 속삭였다.“근데 라디. 역시 너는 머리색이 예뻐서 그런지 머리는 푼 모습이 더 나은 거 같아. 이거 풀어도 돼?”뜬금없는 부탁에 라디올러스는 당황해서‘응? 응.“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휴리안은 망설임 없이 라디올러스의 머리를 고정하고 있던 장식을 빼냈다. 틀어올려져 있던 연분홍색 머리카락이 흩어져서 그녀의 어깨와 등에 늘어졌다. 그때서야 라디올러스는 깨달았다. 카네리안이 걸어줬던 마법이 모두 풀린 지금 자신의 어깨와 등이 어떤 상태일지.‘큰일이다. 분명 보기 흉했겠지. 휴리안 오빠는 자상하기도 하지.’라디올러스는 부끄러워져서 잔에 남아있던 와인은 모두 들이켰다. 휴리안은 그녀의 행동에 숨을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다.“라디. 지금까지 열심히 애썼구나. 내가 부끄러워 질 정도로 말이야.”라디올러스는 왠지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가 겨우 겨우 더듬거리며 대답했다.“여, 열심히는 무슨 그냥 내가 미숙해서 그렇지...”쑥스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라디올러스는 허둥지둥 한 번 더 잔에 술을 채워넣기 시작했다. 이번엔 와인이 아니라 새로 가져온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독한 술들이었다. 그것들은 아주 작은 잔에 마시거나 주로 다른 음료에 살짝 타서 마시는 술이건만 그녀는 커다란 와인 잔에 아무렇지도 않게 채워 넣었다. 그 모습에 메디엘이 걱정스럽게 다가와 말렸다.“라, 라디 양! 이거 얼마나 독한 건줄 아세요?”라디올러스는 그의 말에 더욱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곤 작게 어물거렸다.“어, 어.. 그게...”자신도 라디올러스처럼 와인잔에 독한 술을 한바가지 퍼붓고 있던 카네리안이 그들을 비웃으며 끼어들었다.“말리지 말아주실래요? '관계자 외'분들.”그 거슬리는 말투에 미카엘까지 한발 걸어나왔다. 미카엘은 차분한 말투로 말했다.“카네리안 공께선 얼마나 관계 되었다고 그따위로 지껄이는 거지?”카네리안은 거의 독약이나 다름없이 섞인 독한 술들을 꿀꺽 꿀꺽 삼키다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푸핫 하는 소리를 냈다. 그가 낄낄 웃으며 빈정거렸다.“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내 말따윈 무시하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쟤 술 마시는 거 말려.”그는 다시 술잔을 입에 가져다 대며 중얼거렸다.“뭐, 아파서 죽는 꼴을 그렇게 보고 싶으시다면야...기생충 같은 것들이.”발끈해서 화를 내려고 하는 미카엘을 휴리안이 잡았다. 라디올러스가 당황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술잔을 내려놓자, 제드가 고개를 저으며 너는 얼른 그거나 마저 마시라는 제스쳐를 취했다. 제드가 사람들 앞에 서서 한숨을 쉬며 설명을 시작했다.“어...저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일단 카네리안 선배와 라디는 지금 술을 마시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빨리, 잔뜩 취하는 게 더 좋고요.”메디엘이 미간을 좁히며 물었다.“그게 무슨소리인지 좀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순 없을까요.”제드는 조금 곤란한 듯이 뒷머리를 쓰다듬다가 머뭇머뭇 입을 열었다.“다들 보셨겠지만 저 두사람은 ‘각오’를... 아... 좀 더 앞부터 설명해야 하나?음...저기..여러분, 마법이란 애초에‘기도’라는 건 아시나요?”홀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 몇 명은 끄덕거렸으나 아예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 듯 했다. 제드는 그냥 몽땅 설명하는 게 나아 보였는지 참을성있게 다시 입을 열었다.“마법이란 건 애초에‘기도’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게 열심히 비는 거죠. 그‘기도’가 효력이 있게 하는 천성적인 기운을 ‘마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옛날 사람들은 요령없이 정말로 원하는 바를 빌었어요. 비가 오게해달라고 노래를 하던가 제물을 바치던가 축제를 벌인다던가 하는거 있잖아요. 이건 뭐 특별한 요령은 없어도 되죠. 그냥 열심히 빌면 돼요.”미카엘이 짜증스럽게 투덜거렸다.“지금 그게 도대체 무슨상관이지?”제드는 아차 싶었는지 ‘어? 그러게요 갑자기 이게 왜...’ 하더니 ‘아 맞다.’라고 다시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 말을 시작했다.“아, 라디는 마력은 엄청 많은데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걸 돌파할 방법을 카네리안 선배가 찾은 거예요. 옛날 방법 그대로 노래를 시키는 거죠. 현재 마법사들이 쓰는 주문이나 마법진 같은 건 따지고 보면 다 제일 마법을 쉽게 쓰기 위한 요령, 꼼수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아, 아무튼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기본적으로 마법이란건 항상 소원을 빌기 위한 일정량의 ‘성의’가 필요하단 겁니다.”이렇게 제드가 설명을 계속하는 와중에도 라디올러스와 카네리안은 쉼없이 술을 들이켜고 있었다. 둘 다 이미 거나하게 취했는지 테이블에 겨우 몸을 의지한 채 믿음직스럽지 못한 손놀림으로 잔을 천천히 입에 가져갔다. 제드는 불안한지, 둘을 슬쩍 쳐다보고 다시 입을 열었다.“다만 원하는 시간 안에 충분한 양의‘성의’를 못 달성할 것 같으면 ‘각오’로 ‘성의’를 대신할 수 있는데요... ‘각오’라는 건 아까 선배나 라디가 한 것처럼 대부분 자해에요. 당연히 리스크가 클수록 대신할 수 있는‘성의’의 양도 커지는데, 특히 같은 정도의 상처일 지라도 관통상이 잘 먹혀요.”휴리안은 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그래서 손을 꿰뚫은 건가... ‘관통’이 효과가 좋아서...”제드는 동의의 표시로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물론 다른 부위로 ‘각오’를 표해도 좋지만 다리는 여차할 때 도망가기 힘드니까 보통 왼손을 뚫습니다. 아무튼 ‘각오’로 ‘성의’를 대신하는 것은 시스템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쌈박하게 대체될 수 있어요. 문제는...”제드는 다시 한번 힐끔 라디올러스와 카네리안을 바라보았다. 둘은 이제 현저하게 느려진 몸짓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제드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을 이었다.“문제는 ‘각오’를 통해 생긴 상처를 치료했을 때입니다. 기껏 절실한 척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해까지 하기에 마법을 성립해 주었는데 그 ‘각오’의 상처를 홀랑 다시 치료해 버린다는 것은 자연이 보기에 이치에 맞지 않게 생각되겠죠.”미카엘이 라디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중얼거렸다.“...그렇다면?”제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검지 손가락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리켰다.“'각오'의 상처를 치료해 버리면 육체로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했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여기로 리벤지가 가해집니다.” 제드의 설명은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메디엘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리벤지라면?... 머리쪽에요? 그게...그게 무슨 뜻이십니까?"제드는 긴장한 기색이 분명한 사람들의 얼굴은 새삼스레 한번 둘러보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음... '각오'의 상처를 무마시키고 나면 잠시 후에 마법사는 그 대가로 정신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징벌'입니다. 죽고 싶을정도로 괴롭기 때문에 우리는 '각오'를 남발할 수 없어요. 실제로 연달아서 '징벌'을 겪고나서 정신병을 겪는 마법사들도 꽤 되거든요. 뭐... 그래도 한 두번 정도로 영구적인 장애라던가 고통이 남지는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지...음...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그는 말을 끝마친 후에 다시 뒤를 힐끔 돌아보았다. 라디가 갈색의 술을 따르려다가 놓쳐서 병이 테이블 위에 쓰러졌지만, 이미 거의 다 마신 병이라 내용물이 쏟아지지는 않았다. 제드는 조금은 초조한 목소리로 '이제 슬슬 시작될 시간인데...'라고 중얼거렸다.휴리안이 믿겨지지 않는 얼굴로 라디를 바라보다가 물었다."그럼! 그럼 차라리 '각오'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징벌'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면 말입니다!"휴리안의 비통한 목소리에 제드는 담담히 고개를 저었다. 그가 시선을 떨어뜨리며 설명했다."그럴 순 없습니다. '각오'의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가끔 그 상처가 '성흔'으로 변해 버리거든요. '성흔'이 된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아주 개중엔 '징벌'이 너무 두려워 그냥 '성흔'의 리스크를 짊어지고 치료를 하지 않는 마법사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말입니다."미카엘이 약간 멍한 얼굴로 끼어들어 질문했다."그정도로 괴롭다고?... '징벌'은 어떤식의 타격인겁니까? 두통같은 건가? 술을 마시면 완화가 되는겁니까?"제드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메디엘은 제드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괴로워서 거의 탄식에 가까운 소리를 내었다. 제드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솔직히... 저도 겪어본 입장으로서 술로 머리를 멍하게 한다고 해서 그다지 '징벌'의 고통이 완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술을 잔뜩 마시면 '징벌'의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징벌'때 보았던 장면이 후에 잘 기억이 안난다는 정도의 메리트나... 내가 '징벌'에 괴로워 하며 내뱉는 말이 술로 어눌해져 남이 잘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 정도..? 인 것 같네요."제드는 이미 소리없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프랑디아 가문의 공작부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작게 한마디 덧붙였다."이 미미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잔뜩 취하는 것이 좋아요. 그 정도로 미미한 메리트 일지라도 매달리고 싶으니까요."미카엘은 무표정하게 설명을 듣다가 벌컥 큰소리를 냈다. 아마 초조함을 이기지 못한 것 같았다."그래서. '징벌'은 어떤 식으로 고통을 주는 거냐고!"제드는 그의 화난 것 같은 목소리에 이번에도 그다지 화내거나 짜증스러워하는 모습없이 느릿느릿 대답했다."아. 그건 빼놓고 대답을 안했군요. 아닙니다. '징벌'은 두통같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마법사의 오감을 구속해 극도로 리얼한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예전에 겪었던 죽도록 무서웠던 일을 몇번이고 반복할 때도 있고, 죽도록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를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여줄 때도 있고, 마주 하기 싫은 사실을 억지로 뇌속에 쳐 넣을 때도 있고, 각종 트라우마를 각색해서 보여줄 때도 있고.... 뭐 패턴은 여러가지에요. 공통점은 징벌을 겪는 마법사는 절대로 그게 징벌인지 깨달지 못한다는 거 정도일까요..."사람들이 무슨말을 해야할지 몰라서 조용해 졌는데 제드는 자신의 경험이 생각났는지 , 자신만의 생각에 빠진 것 같았다. 항상 어딘가 모르게 느긋해 보이는 제드의 표정이 눈에 띄게 무표정하게 변해갔다. 그가 무엇엔가 홀린 것처럼 초점없는 눈으로 중얼댔다."아...저는 주로 길거리에서 겨우 연명하던 시절 환상이 나오는데 그 거지 같은 '징벌'이라는 놈은 있지도 않은 스토리를 지어내서 말이지요... 몇일동안이나 먹을 걸 구하지 못해서 눈이 뒤집힐 것 같은 상황에 다시 잠자리로 돌아왔더니 뭔가 먹을 만한 것이 버려져 있는거에요. 비쩍 마른 고기같은 거긴 해도 가릴 상황이 아니었기에 당연히 '징벌'도중의 저는 허겁지겁 먹습니다. 근데 어느정도 배가 차고 정신을 차려 보면 제가 먹던게 바로 잠자리에서 절 기다리다 굶어죽은 제 남동생인거에요."자꾸만 홀을 메우는 끔찍한 이야기들에 코멜라는 눈을 질끈 감고 파르펠을 꽉 껴안았다. 제드는 빠른 속도로 말을 마치고 나서 '아하하하하하'하고 공허하게 웃어댔다. 정말로 약간 정신이 나간것같았다. 그가 급작스러운 폭소에 자신의 몸을 주체 하지 못하고 조금 비틀거렸다. 사람들은 갑자기 딴사람이 된 것처럼 변한 제드를 당황스런 표정으로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제드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터라 남들에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잠깐 침묵을 지키던 그는 다시한번 빠른 템포로 중얼거림을 시작했다."내가 그딴 짓을 할리가 없잖아! 애초에 남동생은 나때문에 죽은 것도 아닌데 말이지. 절대 내 탓이 아니었는데. 진짜 자꾸 보다보며 웃음만 나온다니까. 제크는 그냥 운이 없었던 거야. 불쌍한 아이였다고. 게다가 그때는 나도 배가 고파서 죽기 직전이었어. 그냥 빵 한입이었어. 내가 동냥받은 거였다고! 배고파서 죽기 직전의 9살 짜리 애가 그 싸구려 빵 조각 정도는 받자 마자 바로 먹어치우는게 당연하지 않아? 그날 제크가 죽은채로 발견된 건 그냥 우연의 장난이었어. 분명 내가 빵을 동냥 받기 전에 이미 죽어있었을 거야. 내가... 내가 나눠주지 않아서 그런게... 내가 나눠주지 않아서 그런게....내가... 내가 나눠 주지 않아서..."그가 퍼뜩 기계처럼 말을 내뱉던 입을 틀어막았다. 이제서야 정신이 든것 처럼 천처히 고개를 들어서 다시 주변의 사람들을의 얼굴을 살짝 바라보았다. 입을 틀어막은 제드의 눈은 이미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그가 눈물로 얼룩덜룩해진 목소리로 겨우 변명했다."아... 죄송합니다. 역겨운 모습을 보였네요... 저도 얼마전에 '징벌'을 당해서 그만... 음....술을 마시면 징벌도중에 저처럼 이렇게 개인사를 갑자기 줄줄 내뱉어도 상대는 잘 못알아 들으니까요...젠장 역시 저도 이렇게 오지랖 넓게 여기서 설명하고 앉아있지 말고 저기서 술이나 마시걸 그랬어요."그가 느릿한 목소리로 돌아와서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표정도 원래대로 태연하게 돌아와 있었다. 그가 쑥스럽다는 듯이 '어디가서 제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작게 말했다.그 때 라디올러스 옆에서 포도주를 마시던 메릴이 크게 휘청거려 쓰러질뻔한 라디를 붙잡으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아.... 시작된것 같아 제드"카네리안의 곁에 있던 베딕도 카네리안을 다급하게 부축했다. 카네리안이 놓친 잔은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들의 곁으로 달려갔다. 휴리안이 메릴에게서 라디올러스를 받아 그녀 대신 부축했다. 라디올러스는 마치 갑자기 잠에 든것처럼 눈을 감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머리카락 사이로 살짝 보이는 그녀의 표정은 악몽을 꾸는 것처럼 느껴졌다. 뭐라고 작게 중얼거리는 라디올러스의 목소리는 과연 제드의 말처럼 술로 뭉그러져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정신을 잃은 것 같은 모습은 카네리안도 마찬가지 였다. 파르펠은 베딕의 부축을 받는 카네리안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며 작게 말해보았다."...카네리안 오빠..."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을 때부터 항상 난폭하기만 했던 그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건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파르펠이 조심스레 들여다 본 그의 얼굴은 평소에 사나운 행실과는 정 반대로 너무나 슬픈 표정이었다. 카네리안이 작게 중얼거리는 말중에 파르펠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몇가지 없었다. 그가 결국 감은 눈에서 눈물을 툭툭 떨어트렸다. 카네리안은 서러운 목소리로 자꾸만 반복했다."페실리아..."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은 울림이라 가족중에선 카네리안과 가장 가깝게 서 있던 파르펠에게 밖에 들리지 않은 것 같았다. 여자 이름으로 보이는 '페실리아'에 파르펠이 놀란 얼굴로 퍼뜩 고개를 들자, 카네리아과 어깨동무를 하는 식으로 카네리안을 들쳐업고 있던 베딕과 눈이 마주쳤다.베딕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듯이 진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파르펠은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갈듯 말듯했지만 자신의 큰오빠가 왠지 가여워져서 끄덕거리고 말았다. "각오는 언제까지 지속 되는 거죠?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휴리안이 품안에 안겨서 신음하는 라디올러스를 보다못해 그렇게 물었다. 제드가 말없이 도리질을 하자, 그는 안타까운 얼굴로 라디의 머리를 좀더 조심스럽게 바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메릴이 라디올러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자기 맘대로 끝낼 수 있거나 하면 그건 '징벌'이라고 할 수 없지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벌을 받는 거에요."미카엘이 인상을 쓰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라디가 도대체 무슨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이런 걸 겪어야 하는 거지?..."마법사들은 모두 동시에 미카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모두들 입을 다물고 그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다. 메릴이 순간 풋 웃으며 어이없다는 듯이 농후한 목소리를 내었다."있잖아...어째서 모두 몰라주는 거야. 무슨 벌을 받을 만할 짓을 했냐니... 정말 웃기지도 않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이지 눈물이 날것 같다니까?"미카엘은 자신을 비웃는 듯한 그녀의 말투에 라디올러스에게 고정되어있던 눈을 살짝돌려 무심하게 메릴을 바라보았다.메릴은 방금보다 좀더 커진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다."무슨 잘못이냐고요? 당연히 자기의 역량을 넘어서는 짓을 해가면서 당신들을 지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어찌보면 '각오'란 섭리를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물론 라디와 선배가 대단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겨우 왼손을 뚫은 것 정도로 단번에 방어마법을 완성하고 그 대형마법을 되돌려 보냈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나는 라디가 이렇게 괴로워 하면서까지 우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을 바란적이 단 한번도 없어."미카엘이 다시 라디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그렇게 중얼거리자, 메릴이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미카엘의 뒷모습에 대로 신경질적으로 외쳤다."그러니까! 그딴 소리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라디는 당신에게 겨우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징벌을 받고있는게 아냐! 당신이 징벌을 겪어본적이나 있어? 얼마나 괴로운지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라디는 이번이 첫번째가 아니라고. 징벌이 어떤식의 고통을 주는 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망설임 없이 '각오'를 했어. 당신들을 위해!"메릴은 급하게 말하느라 숨이찼는지,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는 어느새 눈물이 차오른 눈을 질끈 감으며 고래고래 소리질렀다."그런 라디에게 왜 이런 짓까지 했느냐고 함부로 말하지마아!! 그냥 얌전히 고맙다고 그 애의 희생을 마음속 깊이 새기라고!"흥분해서 씩씩거리는 메릴를 가만히 보고있던 베딕이 천천히 그녀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선배. 선배도 좀 취하셨습니다. 진정하세요""나 별로 안마셨어!""...원래 조금 마셔도 취하시잖아요.""그리고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메릴의 신경질 상대는 미카엘에서 벗어나 베딕에게로 옮겨졌는지, 메릴은 본격적으로 불만을 그에게 쏟기 시작했다. 그렇게 베딕을 노려보던 메릴의 시선은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 때문에 다시 미카엘에게로 향했다.미카엘은 식은땀을 흘리는 라디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채로 덤덤히 말했다."나는 이런 건 정말로 원한적이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고마워하라는 건지 이해가 되질않아."그가 고개를 좀더 숙여서 라디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라디야 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거 아냐?"미카엘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슬퍼서, 메릴은 차마 독하게 쏘아붙이지 못하고 말없이 잔에 다른 술을 채워넣었다.휴리안에게 안긴채로 작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던 라디올러스가 결국 소리없이 울기 시작했다. 징벌을 받고 있는 마법사들은 몸을 아예 움직일 수 없는 것인지, 축 늘어진 채였기때문에 눈물은 닦이는 일 없이 조르륵 눈꼬리 부분을 타고 귓가로 떨어져갔다.미카엘은 멍하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눈물방울을 보다가 자신도 그와 똑 닮은 눈물 방울을 만들어 냈다. 그가 눈을 천천히 깜박일 때마다 고여있던 눈물은 크게 넘쳐서 볼을 타고 턱선을 따라 내려갔다. 그가 목소리만은 여전히 덤덤하게 냈다."라디는 모르고 있는게 분명해. 이런거 부탁한적 없어. 이렇게 애써서 힘들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시간내에 마법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자기만 안전하게 마법을 펴면되지....바보같이 무슨 빌어먹을 '각오'야..."미카엘은 이제서야 흐르는 눈물을 알아차린 것처럼 거칠게 두눈을 문질렀다. 목이 메이는 듯한 목소리로 비참하게 말을 이었다."공격을 받아 성이 무너져 내려도, 어떡해서든 너만은 지켜보이고... 수많은 적에 둘러쌓인다면, 천명이라도 베어넘겨서 너는 다치지 않게 할 자신이 있었어...너와 재회하기 직전까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 라디."그는 쉴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겨우 겨우 닦으며 인상을 썼다. 나름대로는 웃어볼려고 한 것 같은데, 아무리 보아도 울상이었다. 그가 허탈하게 내뱉었다."네가 나한테 이렇게 기회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엄할줄은 몰랐어... 나는 도대체 어떡해야 하는 걸까. 네가 있는 양지까지 걸어나갈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던게 엊그제 같은데 말야."미카엘은 작게 '이렇게 기다려 주지도 않고 자꾸 달아나 버리면 어떡해...'라고 말하며고개를 떨구었다."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역시 고맙다기 보단 슬퍼. 그것도 어쩔수 없다는 걸 알아줘."그가 느릿 느릿 말을 마치자 라디올러스와 카네리안이 마침내 '징벌'을 끝냈는지, 눈을 천천히 떴다.휴리안이 급하게 이름을 불러서 정신이 드는지 확인했다."라디! 괜찮니?"라디올러스는 파리한 안색이었고, 아직 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맥없이 '하하하...'하고 웃으며 살짝 끄덕거렸고, 자신의 두 발로 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휴리안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내려놓자, 메디엘이 옆에 붙어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부축했다. 메디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괜찮으세요? 라디 양. 내말 들려요?"라디올러스는 먼곳을 보는 것 같은 표정으로 한박자 늦게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녀가 아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박진하'라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어깨를 잡아주고 있던 메디엘 조차 알아듣지 못해서 '네?'하고 되물었다.라디올러스는 왕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대뜸 그를 검지로 가리켰다. 메디엘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라디올러스는 한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물로 젖은 뺨이 다 마르기도 전이었다."메디엘."후에 또 무슨 말이 이어질까 다들 귀를 기울였지만 달랑 그 말이 다였다. 메디엘이 왜그러냐고 물으려고 한 순간 그녀는 곧장 옆에있던 미카엘을 똑같이 검지로 가리키며 말했다."미카엘.""라디?..."마치 처음 말을 배우는 아기와 같은 모습에 다들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러나 라디는 계속해서 '휴리안', '엄마','아빠','제르다민'...하고 한명씩 이름을 되짚었다.한편, 동시에 징벌에서 벗어난 카네리안은 아직도 오열을 참기 힘든 것 같았다. 계속해서 등을 울리며 깊고 서러운 울음소리를 내었다. 가까스로 부축없이 서는데 성공한 카네리안은 중얼거렸다."으으윽... 젠장. 젠장. 젠장. 죽여버리겠어. 죽어줘야 겠어. 내가 어째서 이런 꼴이. 죽어줘. 부탁이니까.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그는 술때문에 어눌해진 말투로 그렇게 한 마디씩 내뱉으며 비틀비틀 라디올러스의 곁으로 걸어가려했다. 예전 라디올러스의 말대로 그는 왼발을 심하게 저는 모습이었다. 라디올러스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모두 한번씩 되내인 다음 다시 한번 '메디엘'하고 말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었다.제드가 '아차!'하고는 급하게 외쳤다."베딕! 선배 잡아!"순식간에 카네리안이 라디올러스에게 달려들었다. 라디올러스에게 손이 닿기도 전에 미카엘과 메디엘, 휴리안에게 제지당했지만, 그는 놀랄만큼이나 필사적으로 두팔을 뻗어 라디올러스의 목을 조르려했다.라디올러스는 그의 그 모습에 놀라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고, 비명을 숨가쁘게 질러댔다. 팔로 머리를 감싸고 굉장히 겁을 먹은것처럼 대성통곡을 했다. 그녀가 공포에 찬 목소리로 애원했다."살려줘!! 도와주세요! 제 목을 조르려고 해요!! 꺄아아아아아악! 오빠! 오빠!!"그녀는 옛기억이 되살아난듯 했다. 어쩌면 방금 '징벌'에서 또한번 보았을 지도 몰랐다. 공작 부인이 달려가 그녀를 껴안고 안심시켜주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제드가 난감한 것처럼 말했다."아, 카네리안 선배는 징벌 후에 꼭 이런식으로 후폭풍이 부는 걸 깜박했네."카네리안은 무엇엔가 홀린 것처럼 주저앉은 라디에게 손아귀를 뻗어댔고, 라디올러스는 계속해서 겁을 먹었다. 카네리안이 악을 쓰며 외쳤다."라디올러스!!! 제발 죽어버려!!"처음엔 카네리안의 이 행동도 분명 '각오'의 여파일 것이라 감안하고 다치지 않게 막아서던 미카엘이 슬슬 참기 힘든지 메디엘과 휴리안을 의식해 말했다."지금 제가 때려 눕히려고 하면 말릴 겁니까?"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메디엘이 카네리안의 뺨에 주먹을 용서없이 꽂아넣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카네리안이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메디엘이 태연한 표정으로 자신을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고있는 미카엘에게 대답했다."아니요." "나 왔어!"내가 모자를 벗어 메이드에게 넘기며 현관에 들어오는 것과 거의 동시에 미카엘이 2층 계단을 내려오며 외쳤다."와! 라디 빨리왔네!""나보다 훨씬 빨리 퇴근해서 놀고있었던 사람이 그런 소릴 하니 왠지 열받는다."내가 힘빠지는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리자 미카엘이 코앞까지 다가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이 말했다."너무한데?! 놀고 있었다니??""그럼 뭐하고 있었는데? 잔업했어?""물론 놀고 있었지. 애들이랑"그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어이가 없어서 '뭐야...'하고 픽 웃으니까 미카엘은 인사의 의미로 나를 껴안으며 다시 한번 말했다."집에 온걸 진심으로 축하해.""하하하 그게 뭐야. 남들이 보면 며칠 안들어 오다 온건줄 알겠네. 그냥 퇴근한거 뿐이잖아.""그냥 솔직한 나의 마음이야."미카엘이 키득거리며 나를 떼어놓았다. 나는 그와 집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근데 넌 어떻게 항상 이렇게 칼퇴하는 거야? 매번, 매~번 말이지.""응? 그냥 시간 되면 집에 오면 되지?""...음... 속편하고 좋네. 미카엘. 아주 오래살것어. 비록 주변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죽어나갈지라도 말이여."미카엘이 가련한 표정을 연기하며 말했다."네가 쓸데 없이 성실한거야. 나랑 애들이 보고 싶지도않아? 이렇게나 가정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니... 아 그래. 잡은 고기에겐 밥을 주지 않는다 이거야?"나는 허허 웃으며 중얼거렸다."....무슨 상황극이 하고 싶은거야 미카엘....아니, 알겠는데 그만둬."그는 내 반응이 재밌다는 듯이 소년처럼 킬킬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잠시 감상하다가 2층을 올려다 보았다. 근데 왜 애들이 인사도 안해주는 걸까?"근데 애들은? 엄마가 왔는데 얼굴도 안보여주다니. 벌써 사춘기인가.. 이제 금방 엄만 알거 없다고 틱틱대고 방문을 걸어잠그게 되는거야? 슬프다..."미카엘은 순진한 미소로 대꾸했다."라파엘 말하는 거야? 진짜 그럼 걘 나한테 맞아죽지."나는 하하 웃다가 문뜩 불안해져서 살짝 물었다."...나 없을때 진짜 때리는 거 아니지?"그가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해주었다."...넌 날 어느정도 양아치로 생각하는거야? ...용케 결혼은 해줬네.""너 정도 양아치가 딱 내 취향이라서 말이지."내가 능청스럽게 말하자 그가 씨익 웃으며 입술에 쪽 소리가 나게 뽀뽀를 했다. 나는 새삼스럽게 만족스러워졌다. 미카엘도 같은 마음이었을지 모르겠다. 그도 예쁘게 웃었다.미카엘이 느긋하게 계단 난간에 기댄다음 위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근데 얜 왜 진짜 안나와? 건방지게.""너랑 같이있던 거 아니었어? 가브리엘이랑 노느라 정신 팔렸나?"미카엘은 잘 모르겠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한 다음 입가에 손을 대고 위를 향해 외쳤다."야! 빨간머리! 엄마 왔는데 안나와보냐? 이 자식이 갈수록 건방져져서 큰일이네?"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문이 벌컥 열리고 8살 난 사내아이가 뛰쳐나왔다. 아이는 분한 듯이 외쳤다."아앗!!! 엄마! 언제왔어? 아 또야?! 아빠! 또 속인거지?"라파엘의 말에 내가 미덥지 못한 눈으로 미카엘을 지긋이 돌아보자 그는 '오해야? 내가 뭘?'하는 표정을 지었다. 라파엘은 뒤에서 오빠를 따라 아장 아장 걸어나오는 가브리엘을 발견하고 손을 잡아주러 가면서 외쳤다."아빠 물마시러 나간대며! 엄마 혼자서만 독차지 하려고 우리 속인거지?"미카엘은 '하하하' 웃고나서 산뜻하게 인정했다."응 맞아. 그리고 가브리엘 함부로 만지지마 더러운 사내놈아."미카엘이 자신의 3살짜리 딸인 가브리엘을 뺏으러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갔다.자기랑 꼭닮은 어린 아들에게 '더러운 사내놈'이라고 부르는게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그를 나무라며 라파엘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지금 나의 라파엘에게 더러운 사내놈이라고 했냐 이 역병같은 남자야?"라파엘은 미련없이 가브리엘의 손을 놓고선 활짝 웃으며 나를 향해 계단을 내려왔다. 미카엘과 똑같은 머리색의 라파엘은 생김새도 그와 무척이나 닮아있었다. 미카엘의 어린시절을 엿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다. 작은 미카엘이 즐겁게 외쳤다."와! 그럼 엄마는 내가 차지해야지!"그 말에 미카엘은 느긋한 목소리로 대꾸했다."언제쯤이면 학습할래? 너네 엄마는 항상 내꺼라는 걸."그는 딸을 한 팔로 가뿐하게 안아들고 순식간에 라파엘을 앞질러 계단을 내려왔다. 순한 가브리엘은 아빠에게 매달려 꺄르르 웃어댔다.그의 장단에 넘어가지 않기위해 내게 돌진하는 미카엘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는 솜씨좋게 내게 발을 걸어 내가 중심을 잃게 한 후 가브리엘을 들고 있지 않은 손으로 내 허리를 받쳤다. 도통 우는 법이 없는 가브리엘은 이제서야 느긋하게 내게 손을 흔들며 방긋 웃었다. 내 딸이지만 정말 귀엽다...아니, 내 딸이라 귀여운 건가? 이렇게 팔불출이면 미카엘에게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네.미카엘이 이겼다는 듯이 거만한 눈빛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려다보며 웃자, 라파엘이 잔뜩 인상을 쓰고 볼맨 소리로 말했다."...우리 아빠는 나이값을 못해."내가 다시 내 두 다리로 중심을 잡으며 동의했다."응 맞아... 미안 라파엘. 엄마의 죄가 크다."나는 내 허리에 집요하게 팔을 두르는 그의 손가락 마디를 뒤로 꺾어서 떼어내려 했다. 그러나 미카엘은 싱글싱글 웃으며 내 얼굴을 바라볼 뿐 꿈쩍도 하지 않았다.'어? 이거 분명히 아플텐데?'나는 당황해서 그의 눈치를 보며 살짝 더 손가락을 꺾었다. 그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를 지을뿐이었다.내가 의아하게 물었다."미카엘, 이거 안아파? 신기하다 엄청 유연한가봐."그는 보살같은 미소로 말했다."좋겠다. 네 남편은 이제 오른손으로 글씨 못쓰게 됐네."내가 꽥 소리를 지으며 얼른 손을 놓았다. 그는 헤실헤실 웃으며 중얼거렸다."와 손가락 끊어지는 줄 알았네. 누가 전쟁 영웅 아니랄까봐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구나.""왜, 왜 아프다고 말을 안해? 아니, 애초에 그냥 적당히 아프면 손을 놓으면 되잖아?!"그가 요염하게 웃으며 귓가에 입을 천천히 가져다 대곤 속삭였다."손가락 정도는 내줄 수 있지. 네가 나말고 젊은 남자한테 가려는 걸 막는 대가로 말이야."그 어이없는 말에 나는 이마로 '콩'하고 그의 입을 찧었다."헛소리 마"무심하게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조금 빨개지고 말았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 야했기 때문이다. 미카엘은 내 표정을 놓치지 않고 빙글 빙글 의미심장하게 웃어댔다.나는 부끄러워져서 그의 시선을 피했다. 화제를 돌리기 위해 얼른 그의 손을 떼어놓고는 라파엘을 안았다. 헤헤웃는 라파엘을 내려다보며 내가 물었다."오늘은 아빠랑 뭐하고 놀고 있었어?"라파엘은 천진난만하게 웃어보이며 말했다."오늘 아빠랑 같이 아이반네 정원에...""어머, 아이반네 놀러갔었어?"아이반은 케일의 아들이었다. 미카엘이 케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좀 의외였다. 게다가 라파엘도 아이반이랑 친한 것 같지 않았는데...라파엘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아니, 걔네 집 정원 분수에 있는 물고기 잡아왔어.""뭐!?!?!?!?!"너무 놀라서 기침이 터져나왔다."그런 짓을 하면 어떡해?! 남의 집 관상용 물고기를 왜 잡아와? 물고기 정도는 우리집에도 있잖아?!"처음엔 라파엘을 향해 나무라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미카엘이 잘못한거 같아서 그에게 외쳤다. 미카엘은 가브리엘을 어루다가 뾰롱퉁하게 대답했다."쟤 무릎좀 봐봐."'뭐? 무릎?'나는 얼른 라파엘의 바지를 조금 걷어올려 보았다. 양 무릎에 모두 붕대가 감겨있었다.미카엘이 투덜대며 설명했다."아이반 자식이 밀어서 그렇게 됐대잖아.""어머나! 괜찮니? 라파엘?"라파엘은 덤덤하게 대답했다."어. 아빠가 화내줬어. 그래서 괜찮아.""음...그건 다행이긴 한데...그래도 아이반네 물고기를 잡아오는 걸로 화풀이를 해선 안돼.""아빠가 괜찮댔는데..."내가 어서 이 일을 설명해 보라는 의미로 미카엘을 노려보았다. 그는 노골적으로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다. 가브리엘의 볼을 깨물며 가브리엘과 장난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아가씨 이 찹쌀떡좀 저한테 파세요. 양 볼에 두개나 달고있으시네요."가브리엘이 기분좋게 꺄꺄 웃으며 '줄게 아빠.'하고 신나했으므로 나는 쉽게 끼어들지 못하고 잠깐 기다려주었다. 그러나 미카엘은 내 인내심을 넘어설 때까지 가브리엘을 방패로 내 시선을 외면했다. 내가 결국 참지 못하고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다."미카엘. 내게 설명할 여유가 나지 않을 정도로 찹쌀떡이 먹고 싶다면, 지하감옥에 널 묶어놓고 입에 삼일 밤낮으로 찹쌀떡만 가득 물려줄게.""애들 앞에서 그런 플레이 언급은 너무 화끈한데. 네가 하고싶다면야 난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말야."그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얼른 가브리엘을 내려놓았다. 내가 발끈해서 외쳤다."너야 말로 애들앞에서 그딴 말좀 하지마! 아주 건달 건달 이런 상건달이 없어! 교육적으로 안 좋다고!""애들은 못알아들을 것 같은데... 게다가 애들앞에서 남편한테 건달이라고 하는 건 교육적으로 좋을까? 우아한 당신.""시끄러워. 어쨌든 빨리 변명이나 해 봐. 왜 그런짓을 하셨습니까. 미카엘씨."그가 한숨을 잠깐 쉬더니 툭 던지듯 불만스럽게 말했다."에이... 말하기 싫은데.""어허. 어서 말하지 못할까."그는 내 얼굴을 힐끔 본 다음 정말 말하기 싫은 듯 발로 바닥을 비비적 댔다. 한참 망설이더니 살짝 말했다."...아이반이 너보고 괴물이라고 했대잖아.""음. 내가 워낙 특이한 알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린 애가 그냥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뭘.""케일이 집에서 어떻게 말했길래 아들놈이 그딴 말을 했을까 싶어서 좀 열받았어.""겨우 그것 때문에 그런거야? 그래도 남의 집 관상어를 잡아오는건 문명인이 할짓이 아니지.""5대 일로 싸워서 라파엘 무릎을 다치게 한 것도 열받아. 물론 라파엘이 훨씬 덜 다친 것 같긴 하지만.""...5대 1이라고? 아이반 녀석 패거리를 몰고 왔어?""그리고 아이반이 라파엘한테 천박한 출신이라서 빨간머리냐고 한것도 열받았어.""가서 물고기만 잡아오지 말고 분수도 깨 놓고 오지 그랬어."미카엘은 활짝 웃으며 라파엘이 못듣게 내 귓가에 속삭였다."물론 라파엘이 안 볼때 그렇게 했지. 케일한테 한번만 더 아들교육 제대로 못시켰다는 소리 들리면 저 분수자리에 네놈 박제를 장식해 놓을거라고 제대로 타일렀어."나는 만족스럽게 '그래? 잘 했어.'라고 대답하다가 아차 싶었다. 이런, 나 어쩌다 이런거에 이렇게 익숙해져 가는 걸까.나와 미카엘이 딱 붙어서 귓속말을 하고 있자, 라파엘이 투덜거렸다."아빠! 엄마좀 놔 줘. 나도 좀 어리광 부리게."미카엘은 씨익 웃으며 아이에게로 가서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으름장을 놓는 말투로 말했다."부러우면 너도 나가서 분홍머리 여자 꼬셔와." 처음부터 체력이 거의 한계였던 카네리안은 메디엘에게 때려 눕혀진 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는지 거친 숨을 내쉬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줄줄 흘렀다.기절 직전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인 것은 다른 마법사들도 마찬가지라서 제드는 터벅터벅 걸어와서 털썩하고 카네리안의 옆에 앉았다.제드가 카네리안을 바라보며 느릿하게 중얼거렸다.“어휴 선배. 오늘은 사람도 많은데 이정도로 합시다. 힘들어 죽겠어요. 선배가 자극해서 라디가 자기도 모르게 마법이라도 쓰면 그 백업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잖아요. 뭐..지금상태론 잘 안 들리겠지만... 아무튼 얌전히 계셔주세요.”카네리안은 좀 얌전해 진 것 같았지만 라디올러스는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안고있는 공작 부인의 품에 파고들어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애원하고 있었다. 제르다민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제드에게 물었다.“라디가 자기도 모르게 마법을 쓸 때가 있다고요?”제드는 메릴에게 얼음을 받아 카네리안의 볼에 대주고 있다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대답해주었다.“아...뭐라고 해야 하나. 지금같이 징벌 후라던가... 정신 마법에 당해 혼란 상태인 경우는 어떤 마법사든지 자기도 모르게 주문을 말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카네리안 선배도 다른 귀족들을 내쫓아버린 거고요.”제드가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카네리안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요령없는 사람이라니까.’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얼음을 대주며 말을 이었다.“그래서 징벌 후엔 다들 모여 있는 게 기본 매뉴얼이에요. 특히... 여러분처럼 일반인들이 있을 때는...”제드는 한 숨을 푹 쉰 다음 사람들을 쳐다보며 덤덤히 말했다.“우리는 또 여러분을 지켜줘야 하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애초에 모두들 그냥 라디나 선배를 내버려 두고 가주셨으면 우리는 훨씬 편했겠는데요. 뭐..가족분들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되실 테니까요.”제르다민은 마치 자신들을 귀찮은 짐덩이라는 듯이 말하는 그의 태도가 매우 거슬렸지만,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실제로 오늘 자신은 기가 막힐 만큼 무력했기 때문이다.가쁜 숨이 겨우 정돈된 카네리안은 자신의 곁에 있는 제드를 이제서야 인지했는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제드를 빤히 바라보았다. 제드가 ‘네에 네에 왜 그러십니까 선배.’하고 느긋하게 말하자 카네리안은 말없이 다시 굵은 눈물을 흘렸다. 제드는 ‘어휴...’하고 귀찮은 듯이 숨을 내뱉었지만 주머니를 뒤적거려 얼른 손수건을 꺼냈다. 그가 카네리안의 눈물을 닦으려 손을 가까이에 대자, 카네리안은 제드의 손목을 잡았다.제드가 카네리안을 달래는 말투로 말했다.“아 그냥 이 불쌍해 보이는 눈물만 닦으려고 한 거예요... 분위기 있게 그냥 내버려 두고 싶으신 거예요?”이번에도 카네리안은 제드의 말 따위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그저 제드의 얼굴을 한동안 올려다 볼 뿐이었다. 제드가 느긋하게 그 시선을 받아주자, 카네리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페실리아가 보고 싶어.”그가 그렇게 서럽게 말하고 눈을 천천히 감자, 눈물이 방울 방울 떨어졌다. 새빨개진 눈두덩이로 카네리안이 흐느껴 울었다. 카네리안이 힘이 빠져 제드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자, 제드는 대충 손수건으로 그의 눈물을 닦고 나서 덤덤하게 말했다.“그럼 보러 가면 되잖아요 선배.”카네리안이 천천히 눈을 떠서 제드를 빤히 바라보았다. 제드는 뭐가 문제냐는 듯이 투덜거렸다.“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을 피우실 거예요. 페실리아 선배가 먼저 연구를 마치고 떠나신게 딱히 선배를 배신했다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선배가 너무 오랫동안 프라마에 있었던 거라고요. 네? 제 말 이해가요?”카네리안은 제드의 말이 들리는 건지 안들리는 건지 알 수 없는 미묘한 표정으로 계속 제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카네리안의 그런 표정을 본 제드는 투덜거리는 말투를 달래는 말투로 바꾸어 온화하게 말했다.“페실리아 선배 고향이... 어디더라, 아 베뮤지안 왕국 맞죠? 남쪽에 있는. 조만간 다같이 한번 가요. 페실리아 선배 보러.”카네리안은 쓴 웃음을 지으며 제드를 바라보았다. 이제 울음은 그친 것 같았다. 그가 한결 온순해진 목소리로 흐리게 말했다.“...그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페실리아...”메릴이 그들의 근처 있는 테이블에 기대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의아한 듯이 제드에게 물었다.“어? 제드, 페실리아 선배 고향이 베뮤지안이었어?”“네. 맞아요.”“이상하다.. 난 왜 포제타인줄 알고 있었지? 난 페실리아 선배가 포제타인이라서 카네리안 선배가 맨날 이 주정인줄 알았잖아? 비극적 사랑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제드는 전혀 아니라는 듯이 크게 고개를 저은 다음 말했다.“아냐 확실히 베뮤지안이야.”“넌 어떻게 아는데?”“왜냐면 페실리아 선배도 부유한 편이 아니라서 국가 지원 장학금을 받았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도 국가 지원을 받았었고요. 장학금 받으러 갈 때 맨날 마주쳤는데, 확실히 베뮤지안 왕국그룹에서 받았어요 페실리아 선배는.”제드가 그 시절 기억을 떠올리는 지 천장을 쳐다보며 그렇게 말하자, 메릴은 ‘허어... 그렇구나.’하고 쉽게 인정했다. 그리고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카네리안을 내려다보며 투덜댔다.“만날 수 있으면 냉큼 만나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주저하는거야? 징벌에 나올만큼 그리운 사람이면 빨리 만나러 가란 말이야. 남자들은 항상 그놈의 자존심이 문제라니까?”평소같았으면 얌전히 이야기를 듣고만 있을 카네리안이 아니었겠지만, 징벌 후에 약간 넋이 나간 상태로 진정된 그는 눈을 감고 그저 쥐죽은 듯 누워있을 뿐이었다.제드는 기운없이 마법사들을 향해 물었다.“여기 공간 이동 마법....은 물론 어림 반푼어치도 없겠지? 그럼... 부양 마법이라도 할 만한 마력 남아 있는 사람?”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자, 제드는 ‘알면서 물어봤어. 알면서.’라고 중얼거리며 카네리안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러자 베딕과 체비츠가 얼른 도우려고 다가갔다.이제까지 멀뚱히 바라보기만 하던 테젠 공작가의 차남, 테젠 사할이 머뭇거리며 그들에게 다가와서 말했다.“제, 제가 할게요. 여러분은 이미 많이 지치셨고... 카네리안 형님은 어차피 저희 집으로 가셔야 할테니까요.”체비츠는 빤히 사할을 바라보다가 빙긋 웃으며 활기차게 말했다.“아? 당신 선배의 남동생이시죠? 와, 닮았네 닮았어. 물론 그쪽 제안은 우리도 받아들이고 싶은데, 지금 귀찮다고 선배를 여러분에게 냉큼 넘기면 저희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아, 물론 여러분도 죽을지 모르고.”사할이 당황해 하며 “네?”라고 되묻자 체비츠는 눈을 찡긋하며 카네리안을 흘끔 쳐다보았다. 그리곤 킬킬 대며 말했다.“알잖아요? 아, 잘 모르실 수도 있나? 선배 성격이 얼마나 기똥찬지. 아하하하 저번엔 제가 전쟁중에 캠프에서 실수로 선배 로브를 밟았더니 선배가 뭐라고 그랬는줄 아세요? 아하하하 글쎄, ‘괜찮아. 그래. 이건 재활용 하면 되지. 네놈을 교수형 처할 때의 밧줄로 말이야.’ 라고 그러지 뭐에요? 하하하 어휴 무서워 무서워.”사할이 더욱 당황해서 우물 쭈물댔다.“어? 네?? 음... 저...아무리 그래도..”체비츠는 사할이 그러거나 말거나 다시 밝은 목소리로 지금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려고 했다. 그러자 제드가 피곤하다는 듯이 가로막으며 말했다.“그러니까. 체비츠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넘기면 나중이 더 피곤해 질 테니까 오늘은 이만 저희가 데려가겠다는 말입니다. 선배가 제정신 차리면 집에 들어가시라고 다시 한번 말해 볼께요.”제드가 너무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자, 소심한 사할은 뭐라 더 말을 붙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족의 곁으로 돌아갔다. 테젠 공작가는 자신들도 지칠대로 지쳤는지, 오늘은 이만 포기하기로 한 것 같았다. 어색하게 인사를 한 후 빠져나가 버렸다.베딕이 카네리안을 테이블 근처에 있던 의자에 앉히자, 제드는 한 시름 놓은 듯한 얼굴로 라디올러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다.“..자... 그럼 이제 라디가 문제인데...”휴리안이 온화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라디는 저희 집이 알아서 보살피겠습니다.”제드는 힘없이 웃으면서 대답했다.“아니 아니, 제가 너무 불분명하게 말했네요. 정확히 말하면 라디를 그쪽 집에다 두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위험하거든요. 보니까...”제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라디를 잠시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진저리 치며 말했다.“어휴, 아직도 남아있는 마력이 저렇게나 많네요. 지금 이 상태라면, 라디가 까딱해서 불만 내도 공작님네 저택은 한 번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거예요.”메디엘이 제드의 말에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네? 음...그럼... 아까는 왜 굳이 마력에 여유있는 라디양 대신 제드 공이 카네리안 공의 손을 치료하셨죠?”체비츠가 낄낄 대며 끼어들어서 대답했다.“우리는 죽기 직전 아니면 아무도 라디한테 힐링 마법 써달라고 안할걸요? 우린 모두 라디가 시험삼아서 쥐한테 힐링 마법을 썼더니 쥐가 거의 셰퍼드만해져서 물구나무 서기로 돌아다니게 된 걸 봤거든요.”메릴이 생각만 해도 소름끼친다는 듯이 자신의 팔뚝을 문지르며 진저리냈다.“꺅! 그때 얘기 하지마!! 그 쥐 처리하느라 토하는 줄 알았어. 하필이면 왜 물구나무 서기냐고... 그냥 개만해 진것만 해도 징그러운데.”메디엘이 어색하게 ‘아...그렇습니까...’하고 휴리안에게 물었다.“그럼 라디양은 그냥 저희 궁에서 쉬게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궁에는 황실 마법사분들도 계시니까요.”휴리안은 아주 희미한 미소로 메디엘을 쳐다 볼 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 제안도 탐탁치 못한 것이 분명했다.게다가 라디올러스는 공작 부인을 꼭 껴안고 떨어질 줄을 몰라했다. 그녀도 카네리안이 조용해 지자, 울음을 그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이 불안해 보였다.제드는 ‘흠...’하고 팔짱을 낀 채 라디올러스를 잠시 바라보다 좋은 생각이 난 것처럼 손뼉을 친 후 라디에게 다가갔다. 그가 몸을 숙여 바닥에 주저앉아 공작 부인에게 안겨있는 라디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라디. 내 말 들려?”라디올러스는 부인의 가슴팍에 묻고 있던 얼굴을 살짝 돌려 제드를 흘끔 쳐다보았지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제드는 참을성있게 다시 말을 걸었다.“라디. 내가 누구게?”라디는 아주 길게 침묵을 유지하다가 작게 중얼거렸다.“...제드."제드는 ‘와 다행이야. 많이 좋아졌네.’라고 한 다음 부드럽게 그녀에게 말했다.“라디. ‘히어로’를 불러줘야겠어.”라디는 제드의 말에도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이 멀뚱히 다른 곳을 응시할 뿐이었다. 제드는 다시 한번 부탁했다.“라디. 히어로 말이야. 너의 히어로.”“...”“지금 제대로 그를 불러내지 않으면 넌 오늘 너네 집에 못가. 너네 가족들이 위험해서 안 돼.”“...왜?...싫어...”제드의 마지막 말에 라디올러스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금방 안정을 잃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리려 했다. 제드가 당황해서 그녀를 달래려했다.“아, 아! 울지마 라디. 아냐, 아냐. 네가 히어로만 불러내면 그냥 집에 가도 돼.”“히어로?”“그래. 지금처럼 그냥 말만 하면 돼.”제드가 공작부인의 팔을 잡고 있는 라디올러스의 한쪽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서 떼어냈다. 본의 아니게 공작 부인에게도 접촉하게 돼서 그가 수줍게 ‘실례합니다.’라고 말했다.그는 라디올러스가 검지 손가락 하나만 빼놓고 주먹을 쥐게 한 다음 그녀의 손을 움켜잡고 바닥에 그녀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그리는 모션을 취했다. 손가락으로 대리석 바닥을 훑는 정도여서 아무런 자국이 남질 않았지만 언뜻보기에 그리 어려운 그림은 아닌 것 같았다. 십자가에 원을 두른 듯한 간단한 마크였다. 제드가 진을 다 그린 후에 그녀를 향해 말했다.“자, 라디. 이제 불러줘.”라디올러스는 잠깐 멍하게 자신의 손가락이 스치고 지나간 바닥을 보다가 중얼거렸다.“히어로.”아주 작게 울린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실내임에 불구하고 거센 바람이 일어났다. 갑자기 마주하게된 돌풍에 모두들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더니, 라디의 곁에는 늑대나 큰 개 정도 되는 크기의 검은 동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한가지 확실한 건 그건 늑대도, 큰 개도 아니라는 것 이었다. ‘히어로’라고 불린 그 동물은 몸집에 비해 너무 큰 뿔을 가지고 있었다.히어로가 반가움이 넘쳐흐르는지, 꼬리를 걷잡을 수 없이 파닥 거리며 라디에게 부대끼려 했다. 공작부인은 까무러칠 듯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도 라디를 보호하기 위해 꼭 껴안았다. 반면 라디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 동물을 손가락질 하며 다시 한번 중얼거릴 뿐이었다.“히어로.”그러자 그 동물은 기쁜듯이 라디의 손을 핥으며 말했다.“아하하 오랜만이잖아 주인님.”공작 부인은 ‘그것’ 그러니까, ‘히어로’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살짝 어지러워했다.공작이 얼른 공작부인이 라디와 함께 넘어지지 않게 지지했다. 공작 부인이 계속해서 라디와 자신의 사이를 떼어놓으려 하자, 히어로는 으르렁 대며 말했다.“이 쓰잘데기 없이 주인님에게 달라붙어있는 인간 암컷은 뭐야?”제드는 잠깐사이에 5년은 더 늙은 것 같았다. 그가 피곤하다는 듯이 관자놀이를 누르며 히어로에게 말했다.“히어로님, 히어로님의 주인님의 어머님...아 도대체 ‘님’소리를 몇 번해야하는 거야. 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거지.... 아무튼 그런 분이시니까 건들거나 먹으면 큰일날 걸?” 히어로는 자신의 앞에서 라디올러스를 끌어안고 덜덜 떨고 있는 여자가 그녀의 어머니라는 말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킁킁 거렸다. 그 순간 만큼은 유순한 양치기 개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그러나 검은 동물은 바로 커다란 송곳니를 드러내곤 사납게 으르렁대며 제드에게 외쳤다.“내게 거짓말을 했겠다?! 건방지게도! 이 암컷이 어딜 봐서 주인님의 어머니라는 거야! 전혀 피가 섞이지 않았구만!”히어로는 흥분하며 당장이라도 공작 부인을 물어버릴 것처럼 굴었다. 제드는 당황해 하며 설명했다.“아, 아니라고 히어로님! 저 분은 라디올러스의 양 어머니라 피가 섞이지 않은 것 뿐이야!”검은 동물은 그의 말을 픽 비웃었다.“허? 그게 뭐야. 피가 안섞였는데 왜 어머니야? 웃기지 마. 그냥 허울 좋게 늬들이 주인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 아냐?”히어로의 말에 당황한 제드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 쉽게 생각해 내지 못하고 어물거리자, 히어로는 위협적으로 공작 부인에게 한발 더 다가갔다. 부인을 부축하고 있던 공작이 팔을 벌려 더 이상 그것이 못 다가오게 막자 히어로는 신랄하게 중얼거렸다.“이 수컷은 또 뭐야? 아, 이번엔 주인님의 아버지라고 굴게?”히어로가 말을 끝마치게 무섭게 라디올러스가 그것의 콧잔등에 딱 소리가 나게 손가락을 튕겼다.갑자기 딱콩을 맞은 히어로가 귀를 축 늘어트리고 끼잉 소리를 냈다. 라디올러스가 무표정하게 그 모습을 내려다 보며 말했다.“...건방져...히어로.”히어로는 잠깐 풀이 죽은 듯하더니 이내, 꼬리를 격하게 흔들며 머리를 라디올러스의 발에 비비적 댔다.제드는 살았다는 듯이 외쳤다.“아, 아! 그래 히어로님! 라디에게 물어보면 되잖아. 잘봐, 라디, 이 분이 누구시지?”제드가 손가락으로 공작부인을 가리켰다. 라디올러스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드가 누구를 물어보는지 확인한 다음 멍하게 말했다.“...엄마.”제드는 보란듯이 히어로에게 말했다.“거봐! 봤지? 어머님 맞으시다고! 여기 계신분들은 모두 히어로님의 주인님의 가족 분들이시니까 제대로 지켜야해. 알았어?”히어로는 제드가 말하건 말건 신나게 라디올러스에게 부비대다가 기분이 나빠진 것처럼 제드를 돌아보았다.“...뭐래.”제드는 이마를 감싸 쥐고 비통하게 외쳤다.“왜! 뭐가 문젠데?”“네가 왜 나한테 명령질이야? 먹어치워줄까? 사실 갈색 피부의 남자 하나정도는 내 컬렉션에 있었으면 했어. 네 눈동자 색도 맘에 들고 말이야.”“아니요. 사양할게요. 당신의 취향이라는 소릴 들어봤자 하나도 기쁘지 않네요.”제드는 온순하게 도리질을 했다. 히어로는 라디올러스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 놓은 다음 가만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간간히 풍성한 털의 꼬리를 까딱이며 그녀를 관찰하던 히어로가 말했다.“주인님, ‘징벌’을 받았네? 가엽게도.”라디올러스는 그것의 말에 눈을 천천히 깜박인 다음 히어로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아까보단 많이 좋아진 움직임이었다. 아주 조금씩이긴 하지만, 징벌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라디올러스의 손길에 히어로는 기분이 좋은지 눈을 지긋이 감았다.제드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본 다음 그것을 어르는 말투로 넌지시 말했다.“그래, 주인님이 징벌 때문에 지금 좀 정신이 없단 말야. 히어로님이 제대로 주인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켜줘.”히어로는 심드렁하게 고개를 살짝 돌려 제드를 바라보고는 대답했다.“하지만 너 말이야, 알고 있지 않아? 나는 주인님에게 혼나는 걸 좋아한다고.”검은 동물이 하얀 송곳니를 들어내며 씨익 웃었다. 그것이 심술궂게 말했다.“그냥 저것들이 다치게 내버려 두고 주인님이 날 혼내게 만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히어로는 생각만 해도 황홀하단 것처럼 꼬리를 살랑 살랑 흔들었다. 그러나 제드는 걱정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대답했다.“아아, 히어로님의 그런 변태적 특성에 대해선 물론 잘 알고있지. 하지만...”그가 활짝 웃으며 말을 이었다.“당신이 본성을 이겨낼 만큼 라디올러스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히어로님은 머리가 좋으니까 주인님에게 영영 미움 받아 버릴만한 짓이 뭔지 정도는 구별 할 수 있겠지.”히어로는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다시 라디의 무릎에 머리를 푹 놓았다. 그 동물은 재미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건방져 제드. 주인님이 안 보는 틈에 먹어치워 줄 거야.”“날 먹으면 마음씨 착한 라디는 분명 엉엉 울어줄걸?”‘쳇’하고 혀를 차던 히어로가 라디의 피투성이가 된 왼손 장갑을 발견하고 환희에 차서 외쳤다.“야호! 이거 주인님 피잖아? 주인님! 나 이거 먹어도 돼?”라디는 천천히 히어로의 머리위에 있던 오른손을 들어 왼손 장갑을 벗었다. 피투성이가 된 장갑을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눈으로 잠시 쳐다보던 라디올러스는 선뜻 히어로의 눈앞에 그것을 내밀었다.히어로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물었다. 행복한 듯이 가르릉 소리를 내며 그것은 장갑을 두어번 씹은 다음 꿀꺽 삼켜버렸다.그 모습을 본 휴리안이 인상을 쓰며 혼잣말을 했다.“라디의 피를 먹었어?...”히어로는 뭔가 아쉬운지 쩝쩝 입맛을 다신 다음 바닥에 점점이 떨어져 있던 라디의 핏방울을 찾아 킁킁댔다. 검은 동물은 주인의 것으로 생각 되는 피방울은 붉은 혀로 핥아 남김없이 마셔버렸다.마침내 라디올러스가 왼손을 꿰뚫어 피투성이가 된 테이블에 도착하자, 히어로는 쾌재를 부르며 거의 춤을 추는 것처럼 팔짝 팔짝 뛰었다. 그것은 행복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꿈을 꾸는 것처럼 말했다.“잘 먹겠습니다.”히어로는 큰 입을 쩍 벌린 다음 놀랍게도 테이블 채로 깨물었다. 이빨은 테이블보를 뚫고 나무로 된 테이블에 박혔다. 귀한 나무를 엄선해 장인이 정성스럽게 만든 그 테이블은 결국 히어로의 턱힘을 이기지 못하고 으적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검은 동물은 게걸스럽게 테이블을 통째로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파티 홀은 한동안 히어로가 쩝쩝거리는 소리와 간간히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만 울렸다. 사람들은 그 괴기스러운 행동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미카엘이 무아지경으로 라디의 피를 탐닉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어쩐지... 내가 저 동물의 종류라면, 나도 저런 식으로 행동할 것 같아서 무섭다.”메디엘은 그의 목소리가 들렸는지 코웃음을 치며 빈정댔다.“다행이네요 ‘무섭다’라고 말해서. 근데 당신은 이미 그 직전이거든요? 남들 눈에는 당신이 저 히어로라는 것처럼 보이니까 조심 좀 하십시오.”마침내 식사를 끝마친 히어로가 만족스럽게 ‘푸하!’하고 일어났다. 그것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라디올러스의 곁으로 걸어가며 콧노래를 섞어 말했다.“으흠~ 오랜만에 맛본 것 같아! 아~ 저 거지같은 카네리안의 피만 안 섞여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기분이 좋아졌는지 히어로는 라디의 장갑이 벗겨진 왼손을 핥으며 말했다.“자, 가자 주인님. 주인님의 가족은 내가 지켜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집으로 가자구!”제드는 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와~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 난 당신만 믿을게 히어로님.”휴리안은 얼른 라디올러스의 곁으로 가서 라디올러스를 안아올렸다. 태도가 우호적으로 변한 것 같긴 했지만 여전히 히어로라는 동물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디의 피를 마셨어.’휴리안은 히어로가 라디올러스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따르고 있긴 하지만 그녀의 피를 마시는 동물따위를 신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히어로가 콧노래를 부르며 홀을 빠져나가려 하자 체비츠가 히어로를 불러 세웠다.“어? 히어로님~! 그냥 그렇게 나가게?”히어로가 무슨 문제 있느냐는 표정으로 그를 휙 돌아보았다.“왜? 그럼 어떻게 나가는데?”체비츠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히어로님의 그 모습을 일반인들이 보면 엄청 놀랄걸? 그냥 아무나 컬렉션 중 한명으로 변해서 나가주면 참 좋겠어~ 부탁해.”히어로는 ‘흥’하고 시덥잖다는 듯이 중얼거렸다.“아 진짜 귀찮게 하네.”검은 동물은 잠깐 생각해 보는 듯 멈춰섰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훌쩍 몸을 일으켜 두발로 서는 듯 하더니 이내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변해있었다. 흑발이고, 입가에 점이 인상적인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다. 옷은 무난한 셔츠와 바지 차림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곤 메릴은 질린다는 듯이 말했다.“으... 히어로님. 하필이면 그 남자야? 그리고...음...먹었었구나 그 남자도.”“응, 이 점이 꽤 맘에 들더라고.”히어로가 입가의 점을 만지작거리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가 싱긋 웃으며 제드에게 물었다.“주인님이 내 모습을 보면 화내주겠지?”제드는 아무래도 좋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이번에도 무척 짜증스러워 하겠지... 히어로님, 매번 라디가 죽인 적장의 모습이 될 건 없잖아?”히어로는 제드의 조심스러운 탄원을 못들은척 하며 가볍게 빙글 돌았다. 그것은 뒷짐을 지고 신난다는 듯이 콧노래를 부르며 프랑디아 가문 사람들에게서 앞장서서 저벅 저벅 걸어나갔다.히어로는 황홀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아아~ 주인님이 얼마나 화를 내려나?”인간으로 변한 그에게 꼬리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지만, 신나서 팔랑거리는 털이 풍성한 검은 꼬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히어로의 뒤를 따라 가족들이 한명씩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가장 뒤에서 미심쩍은 듯한 표정으로 라디를 끌어안고있던 휴리안도 마침내 결정한 듯 걸음을 뗐다. 그러나 그가 몇걸음 가기도 전에 메디엘이 ‘아참,’하고 천연덕스러운 목소리로 휴리안을 불러세웠다. 휴리안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왕자님은 평소와 같이 인상 좋은 미소를 띠고 나른하게 말했다.“라디양이 금방 괜찮아졌으면 좋겠네요.”“다정한 그 말씀. 라디가 괜찮아지면 꼭 전해드리겠습니다.”메디엘은 그러지 않아도 좋다는 듯이 손을 내저으며 매너 좋게 말했다.“아, 그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휴리안은 말없이 빙긋 웃었다. 그러나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오랫동안 휴리안과 마주해온 메디엘은 이제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무슨 꿍꿍인지 말해보시지?’라는 미소다 저것은.메디엘은 왕자님 다운 미소로 숨은 속내는 없다는 듯이 상냥하게 말했다.“제가 직접 그렇게 전하면 되니까요.”그는 처음 말을 시작했을 때의 순진한 미소를 연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꽤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한 웃음을 지었다.휴리안은 아무것도 눈치 못 챈 것처럼 옅은 미소를 지우지 않았다.‘선전포고라도 할 셈인가? 왕자?’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굳이 이 마음을 겉으로 표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왕자는 여유있게 작별 인사로 고개를 숙이고 나서 말했다.“안녕히 가십시오. 조만간 방문하겠다는 편지를 보내겠습니다.”미카엘도 왕자의 옆에 서서 무심하게 중얼거렸다.“와 오늘 별일이 다 있었는데, 조심히 가세요. 이제 자주 뵙겠네요.”그의 말에 휴리안은 이번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되물었다.“ 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모두 모일만한 큰 행사는 없지 않던가요.”미카엘은 성의 없이 대충 웃으며 대답했다.“아아, 그야 저는 왕자님처럼 예의바르게 방문을 알리는 편지를 보낼 것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뵐 테니까요.”휴리안이 입가만을 웃게 만든 후 하하 웃으며 대답했다.“하하하.. 그건 참 곤란하겠네요. 웬만하면 편지정도는 주시지요. 물론 바빠서 방문을 감히 거절하게 될 때도 가끔...아니 제법 생기겠지만 말입니다.”미카엘은 ‘헤에... 그렇습니까?’라고 중얼거리긴 했지만 표정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가 휴리안에게 씨익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공작가 후계자에게 하는 인사치고는 너무나 격이 없었지만 이미 휴리안도 그것을 신경쓰지 않은지 오래였다.미카엘은 변죽좋게 웃으며 작별을 고했다.“제가 워낙 천한 출신이잖아요. 우아하신 휴리안 공이 좀 참아주세요. 안녕히 가십시오.”미카엘이 이번엔 정말로 활짝 웃으며 덧붙여 말했다.“다음에 또 봐. 라디.”메디엘은 미카엘이 인사하는 것을 피식 웃으며 보다가 자신도 손을 흔들며 그녀만을 위한 인사를 했다.“그래요. 다음에 또 뵙죠 라디 양.”휴리안은 그 인사에는 따로 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몸을 돌렸다. 집으로 가기 위해 준비된 마차는 총 3대였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마차에 올라탔고, 마지막 마차는 라디올러스를 눕힐 수 있게 라디올러스와 휴리안만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았다.히어로는 라디가 갑자기 어떤 마법을 써도 빠르게 반응 할 수 있도록 가운데 열차의 마부석에 올라탔다. 히어로는 라디의 피를 맛본 것이 어지간히 기분 좋았는지 아직도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휴리안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의자에 눕히고 문을 닫자, 마차는 곧 출발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라디올러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라디올러스는 잠드는 일 없이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그녀는 먼 곳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생긋 웃었다. 그 작은 표정하나에도 휴리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안심했다.‘분명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내일이면 멀쩡해 지겠지.’그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로 그녀에게 답했다.라디올러스는 아직 몽롱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휴리안...”휴리안은 그녀가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어색해서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맞아 라디. ‘휴리안’이야.”라디올러스는 그 말에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듯이 활짝 웃으며 중얼거렸다.“응. 그래. 당신은 ‘휴리안’... 잊지 않고 있어.”휴리안은 그녀의 그 미소가 보기 좋아서 맞장구 쳐주었다.“응. 고마워 라디.”그녀는 자신의 대답이 맞았다는 것이 기뻐서 잠깐 눈을 감았다. 그녀의 징벌에는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다.그 중의 하나는 ‘잊는 이야기’이다. 그 징벌 속에서 그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아간다. 살아남기 위해 애쓴다.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친다.죽이고, 베고, 속이고.그렇게 온 신경을 그저 ‘사는 것’에만 쏟던 그녀는 어느 날 깨닫는 것이다.옛날에 그토록 동경했던 오빠의 이름을 까먹었다는 것을.자신의 옛날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상관 없지만, 그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라디올러스는 미칠 듯이 초조해 한다.누구였더라? 분명히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누구였지? 유일하게 내 생일을 챙겨주던 오빠가 있었는데. 내가 준 생일 선물을 첫번째 서랍에 애지중지 모아두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상하다. 절대 잊지 않기로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름이 뭐더라? 어떻게 생겼더라? 나를 어떤 목소리로 불렀더라?‘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그녀는 믿기지가 않아서 꿈속에서 엉엉 운다. 한참을 울다보면 이 지독한 악몽에서 깰 것도 같은데. 아무리 울어대도 그의 이름은 생각이 나질 않는다.그리고 겨우 이 이야기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징벌이 시작된다.징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괴로운 이야기를 몇 번이고 거치고 나서 이다. 이 패턴이 그녀가 주로 겪는 징벌의 흐름이다. 그럼에도 라디올러스는 첫 번째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정신이 들면 제일 먼저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한다.한 명, 한 명 손가락으로 꼽아가며 자신이 누군가를 잊지는 않았나 확인해야만 안심이 된다.따라서 방금 휴리안의 반응은 매우 흡족했다. ‘너는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라고 인정받은 기분이었다.라디올러스는 한결 편한 기분이 되어서 자신이 확인한 ‘휴리안’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오빠. 나 있지. 아까 기분 나쁜 꿈을 꿨어.”휴리안은 상냥하게 웃고 있다가 바로 쓴웃음을 지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전부 가짜야. 잊어버려 라디.”라디올러스는 그가 그렇게 단번에 부정해 주어서 더욱 기뻐졌다. 좀 더 제대로 확인 받았으면 해서 그녀는 나른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내가아... 겨우 싸움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서...엄청 기쁘게 집으로 가고 있었다?”휴리안은 차마 그녀가 말하는 것을 말리지 못하고 눈썹을 기울인 채로 얌전히 말을 들어주었다. 라디올러스는 슬픈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근데에 집 문을 딱 열기 직전에 쬐끄만...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나...그러니까아...다시 말하면...”그녀는 말을 하다가 괴로운지 눈물을 뚝뚝 떨어트렸다. 그럼에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른 다음 괴로운 이야기의 원흉을 말했다.“내 앞에...‘진짜 라디올러스’가 나타나."언뜻 듣자면 도저히 이해 못할 소리였지만, 휴리안은 일단 라디가 다시 울기 시작한 것만이 신경쓰였다. 그녀는 항상 웃었으면 했다. 그러나 그녀는 서글픈 얼굴로 슬픈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아낼 뿐이었다."그 애가... 이 몸을 내놓으라는 거야.... 겨우 찾았다면서...”휴리안은 급하게 품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마차 바닥에 한쪽 무릎을 붙이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은 처량하게 그를 올려다보았다. 휴리안은 라디올러스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깊이 생각했다.‘진짜 라디올러스? '어릴 때의 나'...라는 건 역시 싸움에 나가기 전의 순수했던 자신을 그리워 하는 걸까... 라디가 이렇게 괴로워 하다니...’그는 그녀가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는 동안에 자신은 집에서 편하게 지냈던 것이 생각나 죄악감이 일었다. 라디올러스는 그의 손길을 받으며 목이 메이는 목소리로 말했다.“그 애는 너무 기뻐했어. 당연히 내가 몸을 돌려줄 줄 알았나봐... 그 애가 ‘드디어 오빠를 만날 수 있겠어.’라고 좋아서 울었어... 나는... 나는 있지 오빠...”그녀가 죄책감 때문에 거의 오열하며 떨리는 손을 휴리안의 볼에 살짝 가져다 대었다. 라디올러스는 그에게 자신의 과오를 고백했다.“나는 그 말을 듣자 마자... 그 아이를 주저 없이 베어버렸어어... 오빠를 뺏기기 싫어서!...”휴리안은 그녀의 깊은 슬픔에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였다. 여동생을 달래주고 싶은데 어떡해야 하면 될지,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분간이 안 갔다. 그 와중에 ‘오빠를 뺏기기 싫었다’라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아주 조금 기뻤던 감정을 깨달아 구역질이 날 만큼 역겨운 자신의 모습에 속으로 욕지거리를 내뱉었다.라디올러스는 방금 겪었던 리얼한 환상에 다시 사로잡힌 듯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헛웃음을 지었다. 그녀가 기운 없이 설명했다.“오빠. 나는 가족들한테 그 애의 시체를 들킬까봐 정원 한켠에 시체를 묻기로 결정해. 허겁지겁 그걸 질질 끌고 와서 정신없이 땅을 판다?”휴리안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라디. 그건 전부 환상이야. 넌 그런 적 없어.”라디올러스는 걷잡을 수 없이 솟는 눈물을 겨우 삼키며 말을 이었다.“아니야 오빠... 나는 그렇게 엉망인 채로 땅을 파는 와중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느껴... 그건 진짜 내 진심일지도 몰라...”휴리안은 거칠게 고개를 저은 다음 그녀를 일으켜 부둥켜 안았다. 그가 말도 안돼는 소리 말라는 말투로 외쳤다.“라디! 네가 그 애를 죽이고 기쁠 이유가 뭐가 있어? 네가 본 모든 건 다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야! 그런 환상 따위에 일일이 슬퍼 할 것 없어.”라디올러스는 그의 품에서도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괴로움 때문에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이 말했다.“오빠! 나는 그곳에서 기쁜게 당연한거야...! 그 애를 내 손으로 죽여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그 애가 찾아올까봐 두려워 하지 않아도 되잖아...” 휴리안은 품안에서 죄책감 때문에 덜덜 떨고 있는 자신의 여동생을 세게 끌어안았다.그녀가 이런 문제로 괴로워 하지 않았으면 했다. 잘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라디올러스는 지금 자신의 ‘존재에 대한 타당성’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여기에 있어도 되는 것인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자신은 금방 이곳에서 물러나야 하는 존재가 아닌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휴리안은 어쩐지 그녀의 그런 마음이 이해가 갔다. 어린 그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곤 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양녀 신분이고, 게다가 어렸을 적 기억을 잃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녀의 지금 상황이 옛날 자신의 상황보다 훨씬 불안한 상황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자신의 어린시절이 얼마나 괴로웠던가.휴리안은 떳떳한 공작가의 핏줄이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가 길거리 창부라는 사실은 어린 그를 항상 괴롭혔다.정말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성에 내가 있어도 되는 걸까. 공작부인이 정통 후계자를 낳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나의 친엄마는 나를 낳은 대가로 무엇인가 보상을 받았으려나.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걸까. 여기서 쫓겨나면... 그녀를 찾아가도 될까?휴리안도 그 삭막한 성에서 혼자 자라오는 동안 자신의 ‘존재에 대한 타당성’을 찾기 위해 쉼 없이 노력했다. ‘훌륭한 아이’, ‘과연 공작의 후계자’ 소리를 듣기 위해 부단히 공부했다. 그 말이 여기에 있어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마음은 여전히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붕 떠 있는 것 같았지만, 어쨌거나 몸은 단단히 공작가 성에 묶여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기뻐서 만족했다. 만족할만 하다고 생각했다.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휴리안은 자신이 꼭 부여잡고 있는 여동생의, 자신과 닮은 아픔 때문에 괴롭게 웃었다. 그가 라디올러스의 뒷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를 달랬다.“라디. 더 이상 그 애가 찾아올까봐 두려워하지 마.”라디올러스는 잠깐 침묵했다가 침울하게 대답했다.“그럴 수 없지 오빠. 징벌 속이 아닌 현실에서는 그 애가 이제 여기 없다는 확신이 없는 걸.... 내가 죽여서 파묻지 않았으니까.”‘죽였다’느니 ‘파묻었다’느니 하는 험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여동생이 가여워서 휴리안은 한 번 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설사 그 애가 정말로 찾아온다 해도 상관없어.”“...아니야... 상관있어... 실제로 마주치면 난 정말로 그 애를 죽일지도 몰라...어쩌지... 너무 무서워. 죽이고 나서 정말 꿈에서 처럼 기쁠까봐...그것도 너무 겁이 나.”‘사랑스러운 라디.’사실은 그런 걱정을 하는 것부터가 그녀가 상냥하기 짝이 없다는 증거라고, 휴리안은 무심코 생각했다. 그가 온화하게 속삭였다.“그 애가 찾아와도 죽이지 마 라디.”그녀는 청천벽력인 말을 들은 것처럼 퍼뜩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휴리안은 그녀를 꽉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고개를 들자, 둘의 얼굴은 너무 가까워져 버렸다. 휴리안은 당황해서 몸을 좀 떨어뜨리려 했지만 라디올러스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그녀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다급하게 말했다.“여, 역시! 그 애가 찾아오면 얌전히 몸을 돌려줘야 되는 게 맞겠지? 원래 그 애 것이니까... 이 몸도.. 엄마 아빠도..오빠도...”라디올러스는 말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하고 그의 목에 절망적으로 매달렸다. 눈물을 겨우겨우 삼키면서 필사적으로 그에게 달라붙었다. 마치 이제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사람처럼.휴리안은 그녀의 그런 몸짓이 어쩐지 슬퍼서 얌전히 그녀에게 안겼다. 그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무슨 소리야 라디. 내가 언제 그 애 것이었다는 거야.”라디올러스가 슬픔에 물들어 빨개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산들산들 웃으며 말을 이었다.“지금 너한테 이렇게 안겨 있는데 말이야... 네 것이면 모를까.”라디올러스는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되는지 슬픈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다가 점점 눈을 크게 떴다.휴리안이 키득 웃으면서 옛날 일을 떠올리는 것처럼 말했다.“라디. 예전에 황궁에서 다 같이 티타임을 했던 거 기억나?”“응...”“그때 너는 너무 행복해서 전부 꿈일 것 같다고... 꿈에서 깨면 어쩌나 하고 고민했었잖아.”“...응. 맞아...생각나.”휴리안은 그 때보다 훌쩍 커버린 자신의 여동생을 바라보며 다정한 목소리를 내었다.“내가 말했었지. 네가 꿈에서 깨면... 그땐 내가 찾아가겠다고.”라디올러스는 그 추억이 생각났는지, 이제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비록 눈가는 아직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제법 행복해 보였다.휴리안은 다시 한번 손수건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다.“라디, 그깟 몸 따위 그 애가 달라고 하면 줘버려.”그가 달콤하게 귓가에 말을 녹여냈다.“그리고 나서 너는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줘. 어디에 있건, 어떤 모습이건간에 내가 금방 만나러 뛰어갈 테니까.”라디올러스는 그가 해주는 말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방금 자신의 오빠가 기껏 눈물을 닦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눈에서 눈물을 쏟아냈다.휴리안이 울보인 여동생을 껴안아 달래며 마침내 어린 시절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을 그녀에게 했다“라디.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난 널 오롯이 사랑해.”그녀가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며 그를 꼭 껴안았다. 괴로운 것처럼 가끔 ‘으윽’하고 신음을 냈지만, 그건 그저 행복해서 제어가 안 돼는 눈물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천사처럼 웃었다.우습게도, 휴리안은 자신 또한 그녀에게 그 말을 하는 순간 구원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온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그의 존재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만 같았다.라디올러스가 휴리안의 품을 좀더 깊게 파고듦과 동시에 마차가 크게 출렁거렸다. 라디를 안고 있는 휴리안이 중심을 잃고 마차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라디올러스는 몸을 완전히 휴리안에게 의지하고 있는 중이었기에, 휴리안은 그녀가 다치지 않도록 감싸안았다.마차의 바닥은 푹신해서 위험한 순간은 아니었다. 다만, 라디올러스는 휴리안이 침대 매트리스라도 된 것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그의 위에 올라타 있었다. 서로의 코 끝이 닿을락 말락할 정도로 아슬 아슬한 위치에서 라디올러스는 배시시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휴리안은 당황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렸다.“라디...”그는 속으로 ‘아. 얼른 라디에게 다치지 않았느냐고 묻고 일으켜 세워 줘야지.’하고 생각은 했지만, 왠지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라디올러스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게 마법을 건 것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변명을 했다.그녀가 울음 때문에 발그레해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라디는 엎드려서 고개를 계속 들고 있는 것이 힘든지, 점점 얼굴이 내려왔다. 휴리안은 정말로 마법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의 얼굴이 점점 내려오는 것을 멍하게 내버려 두었다. 때문에, 어느 순간 부터는 마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라디올러스의 입술이 휴리안의 얼굴에 닿았다. 가끔씩은 그의 입술에 닿을 때도 있었다.마침내 휴리안이 정신을 차렸는지, 깜짝 놀라서 라디의 양팔뚝을 잡아 자신에게서 조금 떼어 놓았다. 이성이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맞다고 경고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일단은 그녀를 잡았다. 하지만 그는 얼어붙은 듯이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이 격하게 뛰는 것에 반해, 머리는 마약이라도 한 것처럼 몽롱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휴리안은 생각을 정리해 보려했다.‘너 라디에게 이게 무슨 짓이야.’그가 새빨개진 얼굴로 눈앞의 라디올러스를 바라보았다. 라디올러스는 알콜의 여파인지, 징벌의 여파인지 아직도 맹하고, 발그레했다. 그는 순진한 여동생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이정도 위치에서 계속 바라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도 불쑥 치밀어 올랐다.‘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저질이야 난.’방금까지 그렇게나 소중히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휴리안은 거의 공황상태였다.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머리가 따라오지 않았다.방금, 라디가 본의 아니게 자신에게 입맞춤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려고 했다. 그리고 지금, 라디를 떼어놓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그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초조하게 라디올러스를 바라보자, 라디올러스는 눈을 가늘게 뜨고 크게 미소 지었다. 눈이 가늘어지자, 맺혀있던 눈물이 흘러나와 그의 얼굴에 몇 방울인가 떨어졌다. 라디올러스가 밝은 목소리로 조금 어눌하게 말했다.“오빠가 너무 좋아.”휴리안은 자신의 심장이 충격적일 만큼 그 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상했다. 분명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는데. 휴리안은 심장을 은근하게 옥죄는 그 느낌이 황홀해서 초조했던 마음을 조금씩 잊어갔다. 그저, 맹렬히 그녀에게 집중했다. 휴리안이 흐릿하게 대답했다.“...응. 나도.”라디올러스는 그의 대답에 표정을 천천히 바꾸었다. 그녀가 어른스러운 눈빛으로 휴리안을 내려다보며 상냥한 목소리를 내었다.“오빠를 사랑해.”휴리안은 거의 홀린 것처럼 대답했다.“아.... 그래. 나도.”그가 무엇인가 깨달은 것처럼 벅찬 목소리로 다시한번 ‘나도 널 사랑해.’라고 말하려고 했을 때였다. 라디올러스는 순진하게 웃어보였건만, 눈물이 투둑 투둑 떨어져 휴리안의 볼을 적셨다. 그녀가 잔잔하지만 명확하게 말했다.“걱정 마. 그렇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응?”그는 갑자기 달콤한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라디올러스는 자신을 멍하게 바라보는 휴리안을 달래듯이 말했다.“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응. 절대로 그런식의 사랑은 아니니까. 오빠는 걱정할 거 없어.”휴리안은 그녀의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녀에게 매달리듯이 중얼거렸다.“그게 무슨...? 라디....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어.”그녀는 고개를 조금 기울이며 방긋 웃었다. 그녀가 눈을 가늘게 만들때 마다 눈물이 몇방울씩 떨어져서, 휴리안은 슬퍼졌다. 아닌게 아니라, 그녀의 눈물이 그대로 그에게 떨어져, 그가 우는 것 같은 형상을 만들었다.라디올러스는 확신에 찬 것처럼 기쁘게 말했다.“나는 절대로 오빠를 사랑하지 않아. 오빠가 너무 좋으니까.”그녀가 우는 듯한 표정의 휴리안을 내려다 보며 자애롭게 중얼거렸다.“다행이야. 오빠의 마음까지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돼서.”휴리안은 뭔가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을 벌렸다가 이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다시 다물었다. 그가 눈 앞의 라디올러스를 별이 없는 밤하늘 같은 눈으로 잠시 바라보다가 생긋 웃었다. 그가 봄바람 처럼 말했다.“아아, 라디는 정말로 상냥하기도 하지. 하지만, 가끔은 오빠도 오빠 노릇 좀 하게 해줘.”라디올러스는 그의 말에 만족스럽게 웃었다. 휴리안은 그 미소에 망설임 없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그녀를 의자에 앉힌 후 그는 평소처럼 어른스러운 오빠가 되어, 그녀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몸에 힘이 없는 그녀는 마차가 흔들릴 때마다 휘청대서, 휴리안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그녀가 자신에게 몸을 기댈 수 있게 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집이라서, 아까처럼 의자에 눕히는 것보다 이 방법이 나아보였기 때문이다.잠깐 동안 휴리안이 멍하게 맞은편 빈 의자를 응시하고 있으려니까, 라디올러스는 꾸벅 꾸벅 졸기 시작했다. 술을 마셨고, 징벌을 받았고, 한참을 울었었다. 잠드는 게 당연할 것이다.휴리안은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눈을 만졌는데, 아직도 라디올러스가 흘린 눈물 때문에 조금 축축했다.그는 집에 도착해서 괜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자신도 도착하기 전에 얼굴을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손수건을 꺼낼 것도 없이 그냥 장갑으로 닦아도 되겠지 하고 손으로 눈을 문지르던 그는, 결국 손수건을 꺼내야 했다.‘왜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게 슬픈 기분인 걸까...’그가 왜 눈물이 나는지도 잘 몰라 당황해 하며 얼른 눈물을 훔쳤다. 눈물이 멈출 줄을 몰라했다.‘라디가 원하는 오빠가 되어줘야지. 라디가 제대로 힘 낼 수 있게.’그가 조심스럽게 잠든 라디를 바라보며 마음먹었다.‘일단은 오늘 운 것부터 들키지 말아야겠네.’그가 허탈하게 웃으며 손수건으로 눈을 꾸욱 눌렀다.먼저 정신이 깨버렸다. 라디올러스는 멍하게 생각했다.‘몇시지...’천천히 눈을 떴더니 생각보다도 방 안이 밝았다. 그녀는 눈이 부셔서 인상을 찡그렸다. 술을 마신 다음 겪는 특유의 두통이 엄습했다. 동시에, 어젯밤 ‘징벌’영상이 머릿속을 꽉 채웠다.“아아, 그만하자 그만해...”라디올러스는 도리질을 하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신경 쓰면 쓸수록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징벌 이후로의 일은 아주 드문 드문 생각났다.현재 잠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기에 라디올러스는 먼저 옷을 갈아입기로 마음먹었다. 느릿느릿 드레스 룸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그녀는 베시시 웃었다. 어젯밤 휴리안에게서 들었던 따뜻한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라디.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난 널 오롯이 사랑해.’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각오를 다지려는 듯 싱긋 웃어보며 중얼거렸다.“좋아. 힘내야지!”그녀가 기운차게 옷장 문을 열었다. 옷장 안에는 옷이 얌전히 걸려있을 것이다. 그것이 라디올러스가 갖고 있던 상식이기에, 무엇인가가 옷장에서 불쑥 튀어나오자 그녀는 놀라 비명을 지를 수 밖에 없었다.“꺄아아악!!”라디올러스는 질끈 눈을 감고 허공을 움켜잡으며 빠르게 외쳤다.“바라건대, 지금 내가 강함을 쥘 수 있기를!”그녀가 잡아챈 공기는 칼자루가 되더니 금방 긴 검신이 생겼다. 그녀가 정신없이 한손으로 침입자의 멱살을 쥐고, 칼날을 그의 목에 들이댔다.그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녀의 오빠들이 다급하게 방문을 열었다. 휴리안이 걱정스럽게 외쳤다.“무슨일이야! 괜찮니 라디?”그의 뒤에서 제르다민과 헬리오, 윌로우까지 긴장된 표정으로 여동생의 옷방을 들여다 보았다.라디올러스는 그들을 돌아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그저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가 자신의 눈앞의 침입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혼란스러움과 날카로움이 뒤섞인 목소리였다.“너는...분명 내가... 그래, 죽였었어. 확실이 죽였어. 몇 번이고... 징벌에서까지 몇 번이고 죽였었어.”라디올러스의 오빠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묵직하게 아픈것을 느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싸워온 모습을 엿본 것 같았다.그녀에게 멱살이 잡힌 남자는 흑발에 입가의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가 달콤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다.“맞아. 주인님이 확실히 죽였었지.”라디올러스는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쉽게 그의 목에서 칼을 치우지 못하고 가늠을 하는 눈으로 침입자를 관찰했다. 정말 적이 아닌 건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틀어쥔 옷감을 놓았다. 그녀가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말을 걸었다.“히어로?”“맞아! 히어로야. 아 주인님. 그 경멸스럽다는 표정 너무 좋다... 오싹해.”그가 황홀한 표정으로 방금까지 자신의 멱살을 잡고있던 라디올러스의 손을 잡고 볼을 비볐다. 그녀가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말을 뱉었다.“정말 하마터면 찌를뻔했잖아.”“엄청 화났을 텐데 일단 내 걱정 부터라니! 으윽 이것도 말도 못하게 좋긴 한데... 그냥 화 참지 말고 나한테 성질내도 돼”히어로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한쪽 발에 엉겨 붙었다. 라디올러스는 한숨을 쉰 다음 손으로 주먹을 만들어 히어로의 머리를 기운 없이 콩 때렸다. 히어로는 기분 좋게 신음했다.프랑디아 가문의 남자들은 이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졌다.낯선 남자가 잠옷만 입고 있는 자신의 여동생의 맨다리에 엉겨 붙어 애교를 부리고 있다. 휴리안은 그 남자의 얼굴을 구둣발로 차도 좋은가에 대해 살짝 고민했다.헬리오가 민망해 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가 더듬더듬 라디올러스에게 본의아니게 잠옷차림을 보게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으앗, 라디.. 저기, 미안 갑자기 들어와서...”그녀는 자신의 오빠들을 그제야 돌아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아냐~ 어, 내가 소리질러서 걱정되서 온거지? 미안. 어라? 제르다민 오빠까지? 횡재했네 횡재했어.”그녀가 능청맞게 그렇게 말하자, 제르다민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일어났으면 잠옷부터 갈아입을 일이지 왜 아직도 그 차림으로 그 주책을 떨고 있냐.”라디올러스는 아직도 엉겨붙어있는 히어로를 다리를 털어 떼어놓으려 하며 대답했다.“일어나자마자 잠옷부터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얘가 옷장에 숨어있었어. 어후 기절하는 줄 알았네.”히어로는 보란 듯이 그녀의 다리를 더욱 꽉 안았기 때문에 휴리안은 그의 얼굴을 구둣발로 짓밟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고 그들 쪽으로 한걸음 내딛었다.제르다민이 어이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허어, 넌 속도 없다. 그런 짓을 하는데 그... 히어로 인가 뭔가한테 화 안나?”그 말을 들은 히어로가 순간 딴사람처럼 위협적인 표정으로 바꾸곤 제르다민에게 으르렁댔다.“히어로 ‘님’ 이다. 같잖은 인간아.”짧은 말임에도 순간 방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한 어감이었다. 라디올러스만이 무덤덤하게 한번 더 히어로의 머리를 콩 하고 때렸다.“오빠들을 위협하지 마. 히어로.”그녀가 이번에는 고개를 돌려 제르다민을 바라보았다. 이해해 달라는 듯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오빠 미안해. 얘한텐 그냥 히어로님이라고 불러주면 좋겠어. 원래 임금님이어서 그래. 근데 반말은 해도 되나봐... 얘가 원래 워낙 이상해. 그리고...”그녀는 한 텀 숨을 삼키더니 히어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금은 성인 남자의 형상임에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그 모습에 오빠들은 다시 한 번 이상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다.그녀가 어깨를 으쓱하며 느릿느릿 말했다.“그리고 왜 화가 안 나냐고 물으면...음... 히어로도 일부러 나한테 이렇게 구는 거 아니니까...”히어로는 부비적 대던 것을 멈추고 쓰게 웃었다. 그가 중얼거렸다.“주인님, 너무 좋아.”라디올러스는 그를 슬쩍 내려다보며 말했다.“그래도 이제부턴 아침부터 그런 모습으로 옷장에 숨어 있지마. 화나고 말고를 떠나서 진짜 놀라서 찌르겠어.”제르다민이 한쪽 눈썹을 치켜뜨며 되물었다.“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서 화가 안난다고? 분홍아. 변태라서 그런 행동이 제어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 하고 내버려두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착하고 말고가 아니라고.”그녀는 반은 동의하는 표정으로 끄덕거리며 키득댔다. 그리고 다시한번 히어로의 머리를 토닥이며 안타까운 듯이 말했다.“당연히 마냥 변태면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쳐놓겠지. 하지만 히어로는 정말로 일부러 이러는 거 아냐. 히어로는 원래 참 착한 애야.”그녀가 히어로와 눈을 맞추며 괜찮겠냐는 듯이 물었다.“히어로, 오빠한테 네 얘기해도 돼?”“주인님은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나는 그저 당신의 종복인걸.”그가 지그시 눈을 감으며 그녀의 다리에 고개를 기댔다. 라디올러스는 쓴웃음을 짓고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히어로는 저주에 걸렸어. 그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나 학대를 받으면 견딜 수 없는 쾌감을 얻게 되어버렸어.”제르다민이 꺼림직하게 대답했다.“음...분홍아. 그건 저주가 아니라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마조히...”“아, 나도 그런 성도착증이 있다는 건 아는데, 얜 진짜 저주야. 원랜 안 그랬어. 멀쩡하게 대단한 임금님이었어. 그치?”라디올러스가 동의를 구하며 히어로를 내려다보았지만, 히어로는 아무런 대답없이 씨익 웃고 말 뿐이었다. 라디올러스는 다시 한 번 그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히어로의 남동생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준거란 말야. 히어로는 정말로 착한 형이었어.”휴리안이 히어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얼거렸다.“남동생?”라디올러스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응, 히어로의 남동생은 인간 여자를 사랑해서 인간으로 변하는 주술을 썼거든. 그것의 리스크를 히어로가 대신 받아 준거야. 덕분에 남동생은 행복하게 잘 살다 죽었어.”그녀의 남자형제들은 마냥 변질자로 생각했던 그 이상한 동물이 갖고 있는 뜻밖의 뒷이야기에 놀랐다. 그러나 그 비하인드 스토리 때문에 휴리안은 더욱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저주 때문이라고 하면... 저딴 행동을 하는 그에게 마음대로 화도 못내게 되는 건가.’저 동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 건지 그는 머리가 복잡했다.그녀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형제들에게 말했다.“뭐, 그렇게 된 거니까. 히어로의 행동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히어로도 어쩔 수가 없는 걸. 히어로도 한쪽 머리로는 제대로 된 사랑을 받고 싶어 해. 그래도 끝내는 미움 받을 만한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 거야. 정말이지 질 나쁜 저주야.”히어로는 천천히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서 한발짝 물러나 섰다. 그가 매혹적으로 웃으면서 말했다.“아...주인님이 너무 좋아. 이런 주인님이라.... 나는 마지막의 마지막에는 결국 유례없던 최악의 고통과 쾌락을 맛보겠지.” 휴리안이 미간에 살짝 주름을 잡으며 물었다.“무슨 말이지? 그리고 라디, 이....히어로님과 너와의 관계는 정확히 뭐야?”라디올러스는 대답을 하려다가 뒷머리를 만지작 거렸다. 그녀가 살짝 볼을 붉히며 말했다.“근데....나 옷좀 갈아입고...”그 말에 휴리안이 깜짝 놀란 것 처럼 뒤로 돌았다. 그가 형제들과 함께 서둘러 방을 나서며 대답했다.“어, 어! 물론이지. 라디, 옷 갈아입고 밥먹으러 내려와.”라디올러스는 쑥쓰러운 목소리로 ‘응~ 금방 갈게’라고 대답했다. 그리곤 자리에 못박힌 것처럼 서있는 히어로를 돌아보았다.“뭐해? 너도 나가.”히어로는 히죽 웃으며 말했다.“저는 물론 주인님이 옷 갈아입는 것을 도와드리..”라디올러스가 그의 한 손으로 그의 입을 틀어막고는 상냥하게 말했다.“나가.”“넹.”히어로는 무엇이라고 중얼중얼 거리면서도 반항 없이 방을 나섰다.라디올러스는 히어로를 데리고 있으면 기운이 배는 딸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었다.라디올러스가 목마름을 느끼며 식당으로 내려오자, 가족들이 모두 묘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어리둥절해져서 말했다.“응? 다들 왜?...”가족들의 얼굴을 둘러보던 그녀는 마침내 식탁에 떡하니 앉아있는 히어로를 발견하고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야, 히어로. 네가 왜 거기 앉아있어.”“왜? 아, 오랜만에 불려 왔는데 밥 한 끼 안주는 거야?.”“아니, 식사를 하는 건 상관없는데 거긴 제일 상석이잖아.”히어로는 그게 뭐? 라는 표정을 지었다. 라디올러스가 터벅터벅 걸어가서 그의 코를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히어로가 ‘꺄아’하고 즐거워했다. 라디올러스가 다른 자리에 그를 앉히고 자신은 그 옆에 앉았다.“거긴 아빠자리라고. 넌 얌전히 여기서 먹어.”“네에...에이, 난 임금님인데.”그는 조금 뾰롱퉁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아, 근데 주인님보다 상석에 앉을 순 없지.’라며 방긋 웃었다.음식이 나오자, 히어로는 능숙한 포크질로 즐겁게 식사를 했다. 음식을 반정도 먹었을 때, 휴리안이 라디올러스에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다.“라디, 그래서... 그와의 관계는?”그의 말을 듣고 가족 모두가 라디올러스에게 집중했다. 사실 모두 그것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 맞다.’하고 입가를 냅킨으로 닦았다. 조금 우물쭈물하며 그녀가 말했다.“어...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내가 주인님이고 히어로가 종복이야.”그 말만을 마치고 그녀는 시치미를 뗐다. 휴리안이 부드럽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그게 다 설명한 거야?”“어...뭐... 뭐,뭐가 더 듣고 싶은 건데?”‘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나보다’하고 휴리안은 생각했다.‘왜 숨기려고 하는 거지? 라디. 여기서 캐물어도 될 만한 내용일까.’혹시 그녀에게 상처가 될만한 말을 캐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휴리안은 잠깐 망설였다.그때 히어로가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주인님. 주인님의 가족들이 뭘 묻고 싶어 하는 지 사실은 알잖아.”그가 위험하게 웃으며 낮게 말했다.“나를 어떻게 종복으로 부리게 되었는지...부터 말하는게 좋지 않을까?”라디올러스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그, 그야... 너와는 계약을 해서 만났지.”제르다민이 히어로를 바라보며 물었다.“‘계약’이라고? 뭘 대가로 히어로...님이 너의 밑에서 일하는 거지?”라디올러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하하 웃으며 눈앞의 포크를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가벼운 목소리를 꾸며내어 설명했다.“아~ 히어로는 일종의 마귀인데, 마귀는 마법사가 계약을 통해서 부릴 수가 있어. 대가는 마귀마다 달라.”히어로가 옆에서 빙긋 빙긋 웃고 있다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주인님. 대가가 뭐였냐고 물은 거잖아. 왜 그건 대답 안 해?”라디올러스는 히어로를 흘끔 바라본 다음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히어로가 착해서 난 정말 별거 아닌 대가로 계약했어. 정말 다들 걱정할 거 없어.”헬리오가 꿀꺽 침을 삼킨 다음 긴장되는 목소리로 물었다.“...뭐였는데?... 넌 뭘 대가로 치렀어?”라디올러스는 뒷머리를 만지작 거리며 겸연쩍게 말했다.“아이... 진짜 별거 아닌데 이렇게 가족들이랑 밥먹으면서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래. 보통 계약자가 치루는 대가에 비하면 완전 거저로 계약했어.”히어로가 자랑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라디의 가족을 둘러보며 말했다.“그fja~ 주인님은 정말 운이 좋았지! 보통 마귀랑 계약할려면, 대가로 남은 수명의 반이나... 팔 한쌍이나... 또 뭘 받더라? 아, 목소리를 받아가는 놈도 있고....”히어로는 아직도 사례를 떠올려 보려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작부인이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소리쳤다.“세상에! 라디! 넌 도대체 뭘 대가로 준거야?!”가족들이 모두 얼굴이 창백해져서 그녀를 바라보자, 라디올러스는 벌떡 일어나 두 손을 휘저었다.“아냐! 절대 저런 걸 대가로 주지 않았어! 말했잖아! 난 거저였다고!”히어로는 여유 있는 포즈로 의자에 기대어 앉아, 그녀가 당황해 하는 것을 홍조를 띠고 바라보았다. 그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그렇게 거저인데 왜 가족들에게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주인님? 말하기 힘들면 내가 말해줄게. 나는 당신의 충실한 종복이니까.”“아아 히어로.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 낸 거야...”그녀가 원망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자 히어로는 쾌감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천장으로 향했다. 그가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다.“당연하잖아. 사랑하는 나의 주인님이 괴로워 할 것을 아니까.”그가 잠시 황홀경을 헤매다가 조금 빨라진 숨으로 다시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히어로는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주인님 말대로 난 거의 무료로 봉사해. 그저 내가 요구한 건, 그녀가 죽으면 그 시체를 먹어치우게 해달라는 거였어.”가족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라디올러스를 빤히 바라보았다. 도무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할 지 몰라서였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은 라디올러스 본인도 마찬가지라서, 그녀는 아랫입술을 씹으며 괜히 포크를 만지작거렸다.히어로는 아까보다 빨라진 말투로 끊임없이 말을 이었다.“ 주인님 말대로 정말 거저지? 남들은 수명이 반이나 깎이면서 마귀를 부리는데, 주인님은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첫눈에 난 느낌이 왔으니까. 주인님이 내게 분명 중요한 존재가 될 걸 알았으니까. 그런 계약을 했어.”그가 고통스러운 건지, 행복한 건지 모를 표정으로 무엇에 홀린 듯이 외쳤다.“아아! 얼마나 기분 좋을까! 사랑하는 당신의 시체를 삼키며 난 얼마나 괴로울까! 분명 굉장한 기분일거야!...”그가 연설을 하는 것처럼 격하게 말을 끝내고 나서 멍하게 자신의 앞에 놓인 접시를 바라보았다. 입이 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눈빛은 초점이 맞지 않는데, 입만이 계속해서 소리를 냈다.“계약으로 묶어놓은 대가니까, 난 당신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주인님의 시체를 씹어 삼켜야 할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겠지. 아아.. 그토록 충성했던 당신은 결국 형체도 남지 않고 엉망인 채로 조각나 내 뱃속에 들어있겠지.”라디올러스는 머리를 싸맸다. 분명 자신은 계약 당시에 남는 장사라고 쾌재를 불렀지만, 가족들 입장에선 분명 듣기 편한 말이 아니었다.'지금 이렇게 내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는 건 분명 히어로의 본의가 아냐. 진정해 라디올러스.'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 증거로, 저토록 눈빛이 슬프다.히어로가 이제는 깔깔 웃으며 신나게 말했다.“다들 축하해 주지 않고 뭐해? 마귀와의 계약이란 건 말야. 일단 실행하면, 어떤 마귀가 튀어나올지 몰라. 근데 튀어나온 마귀와는 무조건 계약을 해야만 하는 주술이라고. 다시말하자면 마귀가 뭘 대가로 원하든 일단 불렀으면 치러 줘야하는 거지. 생명을 달라고 하면 생명을 줘야하고, 눈을 달라고 하면 눈을 줘야해. 근데 난 이렇게 쉬운 대가를 달라고 했어. 이 얼마나 기쁜 일이야?”입을 다물고 혐오스러운 것을 보듯이 자신을 바라보는 휴리안에게 히어로가 비밀을 알려준다는 말투로 말을 걸었다.“그런데...궁금하지 않아? 그럼 왜 주인님은 이런 위험한 거래를 시도하게 된 걸까?”“...”휴리안은 괴롭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였다.히어로는 그의 반응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반응을 보고 괴로워 하는 라디올러스의 반응에 벅차올라하며 얼른 대답했다.“너희들... 정말 주인님은 죽기 직전이었다고. 알아? 건물 잔해에 깔려서 도망도 못치고,... 머리에서 피는 콸콸 나서 저 귀여운 머리색도 못 알아봤지 뭐야. 모 아니면 도 하는 심정으로 나를 불렀을 거야. 가여운 주인님. 여기엔 이렇게 주인님보다 힘도 세고 몸집더 큰 사내들이 잔뜩 있는데... 주인님이 그렇게 위기일발일 때도 얘네들은 집에서 호사스러운 파티나 다녔겠지.”결국 참지 못하고 라디올러스가 벌떡 일어나 그에게 외쳤다.“그 입 다물지 못해? 히어로!!”그녀의 사나운 질타에 히어로가 격한 쾌락을 참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몸을 숙였다. 마치 경련을 하는 것처럼 가끔씩 등줄기를 떠는 모습이었다.라디올러스는 소리를 지르자 마자 후회했다. 아차. 히어로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닐텐데...‘하지만, 역시 견디기 힘들어.’그녀가 풀이 죽어서 의자에 다시 털썩 앉으며 중얼거렸다.“미안 히어로. 난 아직도 널 좋아해. 걱정 마. 네 말 그대로 그때의 나에겐 넌 정말 영웅이었어. 지금도 나의 히어로이고 말야....”히어로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아직도 쾌락의 여파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가 비실비실 웃으면서 멍한 눈으로 말했다.“무슨 소리야 주인님. 주인님이 왜 미안해하지? 못된 종복에게 그깟 소리 좀 지른거 가지고...”그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기운 없이 의자에서 엉덩이를 좀 빼고 앉았다가 결국 처음 보았던 검은 동물의 형상으로 돌아갔다. 그것은 라디올러스의 시선을 피하며 구슬프게 말했다.“주인님... 여기에 너무 오래있었던 거 같아... 저쪽에도 일이 있으니까 말이야...”라디올러스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그래... 히어로는 대단한 임금님이니까 할 일이 잔뜩 있겠지.”히어로가 오만한 말투를 꾸며내며 말했다.“물론이지. 인간들이랑 놀아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그러나 그가 눈으로 몇 번이고 사죄했다.‘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그의 사랑하는 주인님에게 거듭 말했다. 저주에 묶여 입으로는 차마 꺼낼 수 없는 말이었다.라디올러스는 키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알아. 괜찮아.”뭘 안다는 걸까. 혹시 내 사죄하는 마음이 전해진 걸까?‘분명 나 좋을 대로의 생각이겠지.’히어로는 그럼에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녀가 좋아서 꼬리를 두어번 살랑거렸다.그녀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다.“잘가, 나의 히어로.”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람이 들이쳤고, 눈을 뜨니까 히어로가 있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라디올러스가 ‘어휴...’하고 힘없이 물 컵을 들어 물을 마셨다. 그리고는 휴리안을 향해 걱정 말라는 듯이 손을 팔락거리며 말했다.“오빠 너무 신경 쓰지 마~ 저 애는 그냥 날 화나게 하려고 되는 대로 말하는 거니까 말이야.”휴리안은 또 다시 자신이 그녀의 걱정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맥없이 웃었다. 속으로만 털어 놓고 싶은 말을 했다.‘하지만 그가 되는 대로 말한 것이 전부 사실인 걸 라디. 내가 너에게 기생해서 살고 있다는 것도, 네가 극한에 몰려 그와 계약을 했다는 것도 말이야.’그는 걷잡을 수 없이 우울해졌지만, 그녀가 신경 쓰지 않도록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연기하는 것이 신경이 쓰여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나이프 질을 했다. 그가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그녀에게 대답했다.“고생했구나 라디. 히어로라는 건 네가 붙인 이름이니?”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싶었는지,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응, 귀엽지? 진짜 적어도 손목정도는 내 줘야겠지? 하고 부른 마귀가 너무 인심을 후하게 줘서 어찌나 기뻤는지~ 난 히어로가 없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히어로는 정말 나의 히어로지!”라디올러스가 밝은 목소리로 말하자, 가족들은 형식상으로나마 따라 웃어주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넘기려는 것처럼 농담하듯이 말했다.“뭐~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우울한 표정 지을 것 하나 없어. 난 억세게 운 좋았던 거니까. 다만 내가 죽고 나면 좀 신경이 쓰이겠네...”그녀가 갑자기 침울한 목소리로 말을 끝내자, 가족들은 움찔 하며 그녀의 안색을 살폈다. 그러자 라디올러스는 보란 듯이 씨익 웃어보이며 너스레를 떨었다.“근데, 내가 제일 오래 살거니까 걱정 마. 하하하 내 시체가 히어로에게 먹히는 꼴을 보일 순 없지.”그녀의 농담은 잘 먹히지 않아서 식탁은 가족들의 어색한 웃음만 한가득 이었다. 보다 못한 제르다민이 ‘그러든가....’하고 조그맣게 대꾸했을 정도였다.생각보다 어두운 반응에 라디올러스는 당황했다. 그녀는 화제를 아예 돌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오빠들을 향해 물었다.“근데, 오빠들도 휴가 받았어?”시선을 아래로 떨어트리고 있던 헬리오도 이 바뀐 주제가 반가웠는지, 얼른 대답했다.“휴가냐고? 어? 라디, 휴가 받았어?”“으음 딱 휴가라고 뭐하긴 하지만 이건 아마 쉬라는 거겠지. 난 부대로 정식 배치 받을 때까지 한 달이나 놀아.”그 말에 다른 형제들은 ‘와~ 잘됐네.’하고 반응했지만 제르다민만이 툭 하고 말을 내뱉었다.“그렇게 죽을 둥 살 둥 싸우고 온 사람한테 한 달 만에 복귀하라는 건가?”그녀가 맥 빠진다는 표정을 지었다.“오빠 복귀하고 나서는 바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 난 제법 후하게 인심썼다고 생각했는데... 마법 부대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한 별로 할 것도 없을걸? 그냥.. 뭐... 연구나 백업 군대랑 합이나 맞춰보겠지.”그녀의 말은 꽤 일리 있어 보였지만 제르다민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인상을 쓸 뿐이었다. 그녀가 허허 웃다가 물었다.“아, 근데 오빠들의 배치는 어떻게 돼?”평소 같은 목소리였지만 휴리안은 그녀의 시선이 자신들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다.‘기분 탓인가?’괜히 자신까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기 때문에 휴리안은 그저 물끄러미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사이 윌로우가 질문에 심드렁하게 대답했다.“휴리안 형님이랑 제르다민 형님 모두 사령 본부 쪽에서 일하시고 헬리오 형님은 황궁 기사단 .”그 말에 라디올러스는 홍조까지 띠며 안심했다는 듯이 말했다.“와! 다행이네! 다들 그다지 위험한 부대는 아니네!”윌로우는 기가 차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야. 네 걱정이나 해. 네 걱정이나.”헬리오가 어깨를 으쓱하며 이상하다는 듯이 중얼댔다.“근데 난 기왕 군인이 될 거면 아예 본격적인 육군이 되고 싶었는데.... 흠 역시 폐하가 아버지를 생각하셔서 날 기사단에 넣어주셨나?”프랑디아 공작이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으로 부인했다.“‘황제폐하’인 그 분은 네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호의를 베푸실 분이 아닌데?...뭔가 따로 원하는 게 있으신 건지...왜 폐하답지 않게 제대로 말씀하시질 않는 걸까.”갑작스럽게 다들 오빠들의 군부대 배치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라디올러스는 초조해졌다.공작부인이 라디올러스를 딱한 듯이 바라보며 대답했다.“우리 라디가 그렇게 힘들게 싸워준 것을 아니까... 미안해서 그러신 게 아닐까요?”공작이 턱을 매만지며 꺼림칙한 것처럼 중얼댔다.“흐음... 미안해서라... 물론 나의 ‘벗’인 그 분은 그렇겠지만... ‘폐하’로서는... 흠...”라디올러스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아니, 이 얘기는 갑자기 왜 나온거야? 그래서! 다들 휴가인거야 아닌 거야?!”갑자기 그녀가 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제르다민은 툴툴거리며 대답했다.“전시에 어떤 철면피인 군인이 한가롭게 휴가를 즐기겠어. 멍청한 분홍 껌같은 녀석아.”라디올러스가 그 대답에 실망한 것처럼 ‘에이...’하고 등받이에 몸을 기대자 휴리안이 온화하게 웃으며 나지막이 말했다.“난 내일부터 휴가야.”“엥?”라디올러스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르다민도 어이가 없는지 쉽게 볼 수 없는 맹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당황해서 자신의 형에게 사실을 확인했다.“혀, 형님...휴가이시라고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언제 결정하신... 아, 분명 지금 정하셨겠죠.”휴리안은 무슨 문제 있냐는 듯이 태연하게 말했다.“아냐. 옛날부터 정했었어. 난 예전부터 꼭 한 번쯤은 전시에 한가롭게 휴가를 즐기는 철면피인 녀석이 되고 싶었어.”“휴리안 형님....죄, 죄송합니다.”제르다민이 진땀을 흘리며 왠지 모를 사과를 했다. 휴리안은 완벽한 미소를 지우지 않으며 계속해서 응수했다.“네가 말한 ‘분홍 껌’ 같은 여동생의 오빠답게 검은 껌이 되어 봐야지. 라디한테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겠어. 하하, 검은 껌 이라니까 누가 이미 엄청 밟은 거 같네...음, 어쨌든 라디를 선점할 필요성이 있어.”제르다민은 자신이 라디올러스를 비꼰 말을 휴리안이 자꾸만 인용하자, 더욱 몸둘 바 몰라했다. 라디올러스는 속으로 ‘여전히 브라더 콤플렉스잖아 제르다민.’ 이라고 마음껏 놀려댔다.휴리안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라디올러스에게 제의했다.“라디, 보니까. 분명 조만간 나처럼 염치없이 전시에 휴가를 쓰는 사람들이 두 명 정도 들이 닥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어서 이 오빠랑 놀아주렴.”그녀는 킬킬 웃으며 얼른 대답했다.“조옷치! 아이고 신나라, 뭐하면서 놀까. 저 할배같은 제르다민 오빠는 빼놓고 우리끼리만 노는 거야? 아이고 더 신나네.”제르다민은 무뚝뚝하게 ‘내가 미쳤냐. 휴리안 형님한테 얼마나 호되게 혼나려고 그 사이에 껴.’라고 중얼거렸고,휴리안은 소리를 가볍게 무시했다.“라디, 어디 가고 싶은 데 없니? 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어.”그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전 바다가고 싶어요.”식당의 입구 쪽에서 누군가 불쑥 대답을 한 것이다. 라디올러스는 놀라서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미카엘!”미카엘이 그녀의 가족들에게 일단 사과했다.“아... 설마 제가 식사 하시는 걸 방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꽤 늦은 시간까지 식사를 하시고 계셨네요.”라디올러스는 그의 예고없는 등장에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미카엘! 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그 답지 않게 꽤 진지하게 인사를 꾸벅 한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개를 올리고 나서는 금방 장난스럽게 웃으며 공작가 가문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라디에게 말을 걸었다.“라디, 놀러가자. 나 휴가 거든.”감정을 숨기는 데 능숙한 휴리안이지만 짜증을 숨기지 못하고 말했다.“벌써 휴가를 받아내셨을 줄이야...!”미카엘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뭐... 받고 말고 할게 있나요. 여태까지 휴가 써본적도 없는데. 갑자기 안 나오면 어련히 휴간줄 알겠죠.”미카엘이 라디올러스에게 고개를 돌리며 방긋 웃었다.“라디! 빨리 가버리자! 지금 따돌리고 온 거란 말이야.”“뭐? 지금 가자고? 어딜? 바다를?”라디올러스는 이 상황이 정신없으면서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그리고 우리집이 그래도 명색의 공작가 인데 다들 방문허락정도는 맡고 오라고!’휴리안이 무뚝뚝하게 ‘누구 맘대로 남의 여동생과 바다를 가니 마니 하고 계신겁니까.’하고 중얼거렸을 때였다.하녀 한명이 다급하게 식당으로 들어와서 더듬거리며 말했다.“주인님! 왕자님.. 그러니까, 메디엘 왕자님께서 오셨습니다.”안 그래도 미카엘의 난데없는 등장에 당혹스러워 하던 가족들은 왕자까지 집에 들이닥치자 황당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미카엘이 짜증스럽다는 듯이 '쳇 벌써 따라왔네.' 하고 혀를 찼다. 편지도 없이 아침부터 불쑥 찾아온 사람 답지 않게 메디엘은 머뭇거리며 식당으로 살짝 들어왔다.그가 자기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붉히며 공작에게 인사를 한 후 슬쩍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죄,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방문 편지를 하인에게 건네려고 했던 것 뿐인데...”그가 부끄러워서 부들 부들 떨면서 주머니에서 꺼낸 편지를 공작에게 건넸다. 메디엘은 차마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며 말했다.“편지와 동시에 도착하게 되다니... 어째서 이런 일이....”그의 모습을 여유 있게 바라보던 미카엘이 피식 웃으며 왕자를 놀렸다.“‘어째서’ 냐니요... 그야 저랑 갑자기 경쟁 붙어서 미친 듯이 말을 몰아 왔기 때문이잖아요... 게다가 그마저도 졌고요.”메디엘은 ‘젠장....’하고 민망함을 못 이겨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삐죽 나온 귀 끝이 새빨갰다. 어쩐지 그리운 듯한 모습이었다.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공작은 손님인 메디엘과 미카엘을 위해 따로 차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라디올러스는 아침을 먹자마자 갑작스럽게 티타임을 즐기게 되었다.메디엘은 자신이 이런 결례를 저지르게 된 것이 계속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응접실에 안내되어 들어서는 순간까지 중얼 중얼댔다.“아 제 생애 최악의 비매너가 미카엘 공에게 부추겨져서 저지른 것이라니... 분명 죽는 순간까지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되겠죠.”미카엘이 이제 그만하라는 듯이 짜증을 냈다.“아, 제 핑계 그만 대세요. 아주 최선을 다해 따라오시더구만 뭘 제가 부추긴 거라고...”“아냐. 그건 내가 아니었어. 잠깐 당신의 밉상에 홀려서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메디엘이 빨간 얼굴로 부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다. 미카엘이 이제 질렸다는 듯이 냉큼 가버렸기 때문이다.새로 차려진 다과상에 라디올러스가 앉을 수 있도록 미카엘이 의자를 빼 주었다. 라디올러스가 ‘와아’하며 그의 호의를 받았다.“미카엘이 아주 신사가 됐어~ 세상에나”미카엘이 키득 웃으면서 반박했다.“원래도 내키면 매너를 연기하는 거 정도는 잘했어. 잘 기억해 내봐 라디.”“그러니까 왜 평소엔 그 연기를 잘 안했냐고...”라디올러스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둘이서만 대화를 시작한 것이 보기 싫어서 메디엘도 얼른 자리를 빼기 위해 의자에 손을 댔다. 그런데 손만 댄 의자가 저절로 뒤로 물러났다. 왕자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 휴리안이 싱긋 웃으며 그를 위해 의자를 빼주고 있었다.그의 미소에 메디엘은 다시 왕자님 미소로 답하며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휴리안 공은 왜 또 굳이 응접실까지 오셨나요? 저희 신경써주실 것 없습니다. 그냥 라디 양‘만’ 잠깐 보러 온 거니까요.”휴리안은 몸에 배어 있는 듯이 자연스럽게 그의 옆 의자를 소리 없이 뺀 후 그 자리에 앉았다. 그는 태연히 웃으며 호의의 거절을 거절했다.“그러실 것 없습니다. 왕자님이 오셨는데 프랑디아 가문의 장남이 어떻게 다른 곳에서 놀고 있겠습니까.”라디만 빼놓고 다들 호쾌하고 사람 좋아 보이게 ‘하하하하’ 웃기 시작했다. 너무 어색하고 미묘한 기류라 라디올러스는 숨이 턱 막힐 것 같았다. 그런 그녀의 심정을 들여다 본 것처럼 베라가 막 우려낸 차를 들고 응접실에 들어왔다.“실례하겠습니다.”라디올러스는 공작가로 돌아오고 난 다음 밝은 곳에서 그녀를 본 것이 처음이었다. 베라는 3년 전보다 더욱 예뻐져서 요염한 매력이 한층 무르익어있었다. 라디올러스가 환호했다.“야호! 베라 잖아?! 베라는 역시 나의 천사! 어쩜 이렇게 내 맘을 잘 알지?”“그저 응접실에 차를 놓으러 온 것뿐이에요... 천사라니요...”베라는 변함없이 똑 부러지고 냉정하게 그녀의 찬사를 받아쳤다. 그녀는 담담히 메이드로서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자신의 얼굴을 잘 쳐다보지 않자, 라디올러스는 앞에 찻잔을 내려놓는 베라의 손을 턱 잡았다. 그제서야 베라는 무덤덤히 라디올러스의 눈을 바라보았다.라디올러스는 오랜만에 그녀를 본 것이 너무 신나서 한껏 텐션 업 된 상태였다.“천사 몰라? 천사? 엔에엔젤! 베라는 나의 엔젤이지. 어휴 못 본 새 더 예뻐졌네. 몸매 봐 휘유-!”가벼움으로 시작해서 경박하게 끝나는 그녀의 칭찬에 메디엘이 자연스럽게 핀잔을 주었다.“라디 양은 무슨 본인 댁 메이드한테 길거리 아저씨가 젊은 아가씨 희롱하는 것처럼 그러십니까.”베라는 라디올러스가 요란하게 휘파람을 불어대자 다시 그녀를 무시하고 덤덤히 설탕 항아리를 밀대에서 옮겼다. 그러나 라디올러스는 그녀가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고 일을 할 때는 부끄러울 때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산만하게 굴었다.“베라 베라! 요 매력이 서른한 개는 되어 보이는 베라! 정말 너무 예쁘네! 너처럼 예쁜 메이드가 또 있을까?”“아가씨, 손님을 모셔다 두고 메이드랑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매너에 어긋난 행동이십니다.”베라가 시선을 피하며 칼같이 말했다. 그녀의 말에 라디올러스는 고개를 갸웃 하며 메디엘과 미카엘에게 물었다.“지금 제가 베라한테 말 붙여서 화나셨어요? 둘 다?”메디엘은 베라가 따라준 차를 한모금 마시고 나서 느긋하게 말했다.“아뇨, 별로. 그냥 라디 양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미카엘도 어깨를 으쓱했다.“기본 적으로 네가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이랑 말하는 건 다 별로긴 한데. 뭐, 오늘은 오랜만에 네가 촐싹맞게 까부는 걸 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그들에게 허락을 받은 라디올러스는 보란 듯이 베라를 되돌아보며 말했다.“거봐, 베라. 다들 괜찮다잖아. 지금 까지 경황이 없어서~ 집에 온 후론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 보는 게 처음 인거 같은데~ 이쪽 좀 봐봐 베라~”라디올러스가 곁에서 서있는 베라의 에이프런을 잡아 흔들며 졸라대듯이 말하자, 베라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그녀에게 휙 돌아서서 외쳤다.“전! 이렇게 가까이서 아가씨를 보는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항상 차분한 베라가 이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기 때문에 라디올러스는 깜짝 놀라서 멍 하니 ‘어, 어...그, 그랬어?’하고 중얼댔다. 차를 나르러 온 메이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를 줄은 남자들도 예상 못했던 일이기에 다들 기가 죽은 것처럼 숨죽이고 그녀가 화를 내는 것을 바라보았다.베라는 맺힌게 많은지, 계속해서 큰소리를 냈다.“네! 그럼요! 아주 코앞에서 봤는데 왜 기억 못하실까요?! 아, 당연하겠네요! 정신을 잃고 계셨으니까!”라디올러스는 그제야 그녀가 왜 화가 났는지 깨달았다. 뛰어난 미모의 메이드가 금방 눈물이 글썽글썽해졌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아직 집에 오신지 5일도 안됐는데 그동안 정신을 잃고 계셨던 게 3일은 돼요!”베라의 눈가에 아슬아슬 매달려 있던 눈물 방울하나가 결국 툭하고 떨어졌다. 베라는 평소 우아한 몸가짐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잽싸고 거칠게 그 눈물을 닦아버리고는 분한 것처럼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어,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요? 정신 잃은 사람 옷 갈아입히는 거? 다른 집 메이드들은 아가씨가 공주님처럼 곱게 곱게만 살아서 하는 일도 별로 없던데...억울해 죽겠어...”베라는 결국 화를 끝까지 내지 못하고 훌쩍 훌쩍 울기 시작했다. 라디올러스가 일어나서 그녀를 토닥거렸다.“미안해 베라. 귀찮은 일 해줘서 고마워.”“다음부턴 그렇게 위험한 일은 하지 마시라고요...”분위기가 좀 풀리는 것 같자, 안심한 휴리안은 그제서야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댔다.“우리집 메이드는 하나같이 좋은 사람들이란 말이지...”베라는 한 번 벽이 무너지니까 걷잡을 수가 없었는지, 라디올러스에게 응석을 부리는 것처럼 말했다.“아가씨, 이제 싸움터 같은 건 안 나가시면 안돼요?”너무나 애처롭고 사랑스러운 눈물투성이 얼굴이라, 라디올러스는 마음이 찡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응’이라고 할 뻔했다.‘내가 남자였으면 분명 지금 키스했어!’라디올러스는 묘하게 남심을 이해할 것 같은 기분이 되었다. 그녀가 가까스로 이성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그건... 곤란하지 베라...”그 말에 베라는 다시 단숨에 울상이 되어서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트렸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련하고 덧없어서 라디올러스는 자해라도 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그 죄악감이란 실수로 새끼 강아지를 발로 찼을 때의 경우와 막상막하였다. 그녀는 어떡해서든 베라를 달래보려 했다.“베라아~ 울지마.. 예쁜 얼굴이 빨개 졌잖아...”멀뚱히 둘의 사랑 싸움을 지켜보던 남자들은 라디올러스의 여자를 다루는 능숙한 말투에 어쩐지 가슴이 서늘해졌다. 둘은 정말 연인 같았다.메이드는 라디올러스의 애절한 눈빛에서 살짝 시선을 돌리고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몰라요 정말...너무해... 너무한 아가씨에요.”라디올러스가 용서해 달라는 의미로 그녀를 껴안았다. 베라는 한결 얌전해지긴 했지만 눈물을 멈출 줄 몰라 하며 더듬거렸다.“아가씨이... 그냥... 그냥 전쟁에 안 나가실 방법은 없나요?”“베라...”라디올러스는 그럴 수는 없다는 의미로 나지막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잠시 말없이 훌쩍거리기만 하던 베라는 번뜩, 희망을 잡은 것처럼 라디올러스의 얼굴을 바라보며 외쳤다.“아! 그래요 아가씨! 결혼을 하세요!”“엥.”베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결혼을 하시면 전쟁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어째서? 음? 왜 그렇게 되지? 어...결혼 퇴직이라서?”“아뇨 아뇨 그보다는...”베라가 다시 절박하게 그녀를 품에 안으며 외쳤다.“빨리 애를 만들면! 설마 임산부를 전장에 내보내겠어요?”메디엘은 결국 차를 뿜었다.휴리안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떨어트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차가 출렁거리며 그의 손을 적셨다. 따른 지 얼마 안돼서 무척 뜨거운 차였음에 불구하고 휴리안은 온 몸의 감각을 잃은 것처럼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앗 뜨거!’라고 화들짝 놀랐다.“좋아, 난 콜.”미카엘은 가볍게 베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가 밝은 얼굴로 스트레칭 하듯이 한쪽어깨를 돌리며 말했다.“라디를 위해서라면 몇 밤 정도야 샐 수 있지. 힘내볼게.”휴리안이 인상을 쓰며 그의 저질스러운 농담을 질타했다.“제 여동생에게 그런 수준 낮은 농담하지 마십시오.”“농담? 농담 아닌데요. 솔직히 말해서 라디가 다시 전쟁에 안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휴리안은 그의 말에 무표정하게 대꾸했다.“그런 노력이라면 제가 할 테니까 미카엘 공은 신경써주실 거 없네요.”사래가 든 것을 겨우 가다듬은 메디엘이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얼굴로 능청맞게 끼어들었다.“젠틀하고 오라버님의 귀감이신 휴리안 공이 그...음... 임신휴가 전술 쪽으로 노력하시겠다는 건 아닐 테고...”휴리안은 얼굴이 빨개져서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무슨...! 왕자님까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메디엘은 나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아무래도 베라 양의 제안에 딱 어울리는 사람은 저 하나 뿐...”휴리안의 얼굴이 이번엔 화가 나서 불그스름했다.“왕자님정도 되시는 분이 이런 장단에 어울리시다니요! ...게다가 저는 굳이 왜 빼는...”“저질들.”라디올러스가 단호하게 말한 한마디가 모두의 입을 다물게 했다. 그녀의 눈은 남자라는 생물에 대한 막연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미카엘이 어린 소년처럼 순진하게 웃으며 말했다.“맞아. 난 저질이야.”메디엘은 억울하다는 말로 투덜댔다.“먼저 말을 꺼낸 건 저 베라 양인데 왜 제가 저질이죠?”“임신이니 뭐니 태연하게 잘도 말하시는군요.”라디올러스가 질린다는 눈으로 메디엘을 비웃었다.그는 재규어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귀가 점점 붉어졌다. 그가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다.“그게... 당신과 나의 아기라니... 좋잖아요...”휴리안이 다급하게 라디올러스와 눈을 마주치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를 냈다.“왜, 왜.. 왜 나까지? 라디, 난 가만히 있었어!”그녀는 다정한 미소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중얼거렸다.“내가 있는 앞에서 오빠까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에 휩쓸릴 정도면 세상 남자들도 알만하겠어. 자기들 끼리 있을 땐 얼마나 노골적으로 야한 얘기만 할까? 하하 저질들.”휴리안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라디올러스의 가시가 가득 들어있는 말에 미카엘과 메디엘도 초조해지기 시작했다.라디올러스가 베라를 껴안으며 말했다.“베라. 말하자면 남자 따윈 필요 없어, 여름. 인거야.”“무슨 소리에요 그건... 지금은 봄인걸요.”베라가 점점 멈춰가는 울음에 간간히 훌쩍거리며 라디올러스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라디올러스는 베라의 가슴팍에 얼굴을 비비적대며 설명했다.“베라가 제일 좋다는 뜻이야.”메디엘이 생각만 해도 오싹 하다는 듯이 외쳤다.“안 돼요 라디 양! 그런 쪽은 안돼요! 적어도 성적 취향에 있어서는 정도를 걷자고요 우리!”라디올러스는 왕자에게서 얼굴까지 돌리며 ‘뭐라는 거야...정말 다들 저질.’ 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메디엘은 한 번 더 충격을 받은 얼굴을 했다.베라는 자신의 아가씨가 자신에게 어리광 부리듯이 안겨오자, 처음에는 기쁜 듯 미소를 보였지만 이내 걱정스럽게 말했다.“하지만 아가씨... 저를 선택하시면 임신 휴가라는 선택지는 아예 없어지잖아요...”라디올러스는 키득 키득 웃으며 메이드를 안정시키려고 했다.“베라, 아직도 그 소리야? 그건 무리라고 봐. 난 겨우 15살이잖아.”미카엘이 투덜거렸다.“라디, 왜 베라는 우리랑 똑같은 소리해도 뭐라고 안 해? 편애다 편애야.”라디올러스는 단박에 ‘베라를 너랑 같은 취급하려 하다니 이런 모욕이 있나.’라며 고개를 설레설레 털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이 주제를 끝내려고 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메이드를 바라보았을 때, 베라가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자 놀랐다.베라는 다시 차분해 진 얼굴로 아가씨에게 말했다.“아가씨... 물론 조금 허황된 이야기처럼 되긴 했지만... 제 말은... 그 정도로 저는 아가씨가 전쟁에 참여하시는 게 싫다는 이야기예요.”“응...그래. 베라의 그 마음이 참 기뻐.”베라는 두손으로 라디올러스의 한 손을 꼭 잡고선 그 손을 내려다 보며 진지한 목소리를 냈다.“진심으로 저는 아가씨가 다른 아가씨들처럼 보통의 좋은 신사 분을 만나 결혼해서 온유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꿈은 그저, 아가씨와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결국 아가씨의 아기까지 돌보게 되는 거예요.”라디올러스는 베라가 얼마나 자신의 행복을 진지하게 빌어주고 있는지가 느껴져서 쉽게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빙긋 웃어보였다. 베라는 그녀의 그 얼굴에 쓴웃음을 지었다. 메이드는 진정이 되었는지 원래의 말투를 쓰기 시작했다.“물론 아가씨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투정부린다고 나아질 문제가 아니지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임신이라던가, 하는 것처럼 잘 찾아보면 빠져나갈 구석이 있지 않을까요?”라디올러스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분명 찾아보면 하나쯤은 싸우지 않아도 될 만한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지. 뭣하면 정말 결혼이라도 해버리면 좋을 거야.”그녀는 곧게 허리를 펴고 자신의 메이드를 지그시 바라보았다.“그렇지만 그렇게 도망칠 거였으면 애초에 카네리안과 팀을 짜지도 않았어. 그렇게 죽도록 싸우지도 않았어.”휴리안은 멍하게 라디올러스의 명확해 보이는 표정을 살폈다. ‘언제 저렇게 강해진 걸까.’ 그에 비해 예전보다 더 약해져 버린 것 같은 자신이 부끄러웠다.라디올러스가 빙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고마워 베라. 네가 참 좋아. 여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잔뜩 있어.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게 어쩔 때는 자랑스러울 정도야.”베라가 초조하게 대답했다.“하지만... 하지만! 아가씨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그레펠에는 좋은 군인들이 잔뜩 있습니다! 마법사도... 아가씨가 없다고 해서 부족해 지진 않을 거예요!”라디올러스는 힘없이 웃으며 그녀의 말을 부정했다.“아냐 베라. 네가 못 봐서 그래. 나는 말야... 정말로 재능 있는 대형 살인마야.” 베라가 그녀의 말에 표정을 굳혔다. 라디올러스는 당황해서 말을 덧붙혔다.“아니! 내 표현이 너무 별로였네! 카네리안 선배가 맨날 아무렇지도 않게 대형 살인마라고 불러서 익숙해져버렸어 하하 원래 전쟁 나갔다 온 군인들은 좀 험해지잖아?”베라가 인상을 쓰며 중얼거렸다.“그런 표현은 아가씨께 안 어울려요.”“하하 그래 그래. 미안해.”라디올러스는 머쓱하게 사과했다. 그녀가 헤헤 웃으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어쨌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분명 전쟁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야. 내가 군인으로서 싸우는 게 나쁜 일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뭐.. 그렇다고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이야.”베라는 그녀가 굳은 결심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또다시 말릴 순 없다고 생각했다. 잠시 아가씨의 얼굴을 바라보던 메이드는 곧 알겠다는 듯이 공손히 인사를 하고 물러갔다.라디올러스는 메이드의 단정한 걸음을 지켜보다 자리에 풀썩 앉았다. 그녀가 킬킬거리며 조그맣게 혼잣말을 했다.“우리 베라는 참 다정하기도 하지. 네 마음 호수니? 내가 노 저어 갈까?”미카엘이 마지막 모금이었는지, 찻잔을 거하게 꺾어 마시며 라디올러스에게 말했다.“네가 원한다면 결혼해서 우리 집으로 올 때 저 메이드 데려와도 돼.”“뭐라는 거야.”“저 메이드의 꿈이라잖아 우리 사이의 아이를 돌보는 게.”“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그런’ 우리 사이가 됐어.”라디올러스가 그의 말을 어이없다는 듯이 웃어넘겼다. 메디엘은 ‘그렇네요. 미카엘 공, 말조심 좀 하시죠? 세간에서 차 마시는 사이를 결혼할 사이라고 높여 말하는 건 범죄라고요.’ 라고 핀잔을 주었다.붉은 머리의 청년이 어깨에 힘을 쭉 빼고 느슨한 자세를 취했다. 그가 지루하다는 듯이 과자 하나를 집고선 말했다.“그치만 라디, 네가 없는 동안 정말 재미없어서 죽을 뻔했어. 또 그럴 바엔 정말 애라도 만들어서 기정사실로 만드...는건 네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 그냥 내 성에 가둬놓고 내가 모셔줄게. 매일 매일 네가 좋아하는 음식만 준비시키고 네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네 방을 가득 채워 줄게. 그 대신 나랑 계속 같이 있어주기만 하면 돼 어때?”라디올러스가 '성에 가둬놓는 건 안 불쌍하냐'라고 이성적인 딴지를 거는 것이 휴리안의 목소리에 묻혔다. 그녀의 큰 오빠는 가까스로 웃음을 짓긴 했지만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다.“어쩌고 자시고, 그딴 짓을 진심으로 벌일 생각이셨다면 저는 진심으로 지금 당신에게 결투신청을 하도록 하죠.”라디올러스가 어색하게 ‘하하하’웃으면서 미카엘이 대답할 수 없도록 과자를 잔뜩 집어 그의 입에 쑤셔 넣었다. 자신의 오빠를 향해 에둘러 말했다.“아하하 오빠, 미카엘의 말 뜻은...그냥 ‘그 동안 보고 싶었어’ 이거야. 하하하 미카엘도 참, 짓궂기도 하지.”미카엘이 겨우 겨우 입안에 있는 쿠키를 다 삼킨 다음 잔뜩 인상을 쓰고 서둘러 차를 다시 따랐다.“우와! 너무 달아! 너희 집이랑 황궁에 있는 쿠키는 정말 하나같이 너무 달다고!”그가 투덜 대자 메디엘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다른 쿠키를 하나 집어 조금 먹어보곤 대답했다.“? 글쎄요. 이 정도면 그냥 보통 아닌가요?”휴리안이 무덤덤한 표정으로 말했다.“라디가 좋아하니까....집에 있는 쿠키가 좀 단 편이긴 하죠.”미카엘은 뇌를 습격하는 단 맛이 참기 힘든 것처럼 뜨거운 차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래도 충격이 가시지 않는지 큰소리로 말했다.“여기! 독약 좀 가져다 줘! 쓴 걸로!”라디올러스는 농담인줄 알고 하하 웃으며 대꾸했다.“왜? 하하하 그걸로 입안을 헹굴려고?”미카엘이 좋지 못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자 라디올러스는 민망해져서 더듬거렸다.“어, 어...왜? 진심이었어? 그 정도야?”“너한테 받아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방금의 설탕은 정말 치사량이었어.”그의 표정이 정말 속이 좋지 못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라디올러스는 옆에 아직 놓여있던 밀대를 끌어와서 아까 베라가 건져낸 찻잎을 찾았다. 그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미카엘, 찻잎이라도 먹을래? 엄청 씁쓸할걸.”놀랍게도 미카엘은 순순히 자신의 컵받침에 그 찻잎을 덜었다. 그가 케잌을 위해 준비되어 있던 자그마한 포크로 잎을 조금씩 덜어 입안에 넣으며 안정을 되찾았다.“아, 좀 살 것같네.”미카엘이 평온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자, 메디엘이 질색해 했다.“당신이 이파리를 먹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니까 진짜 마약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만 두시죠? 무슨 홍차 잎을 먹고 그래요? 살다 살다 별 꼴을 다 보네.”미카엘은 그가 그러건 말건 상관없는 듯이 다시 한 번 잎을 떠서 입안에 옮겼다. 보란듯이 질겅 질겅 씹으면서 중얼댔다.“뒷골목 출신이라 자라오면서 이렇게 단걸 통 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말이죠. 천박해서 죄송하게 됐네요 왕자님.”태어날 때부터 왕자였고,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 따윈 없었던 메디엘은 미카엘이 이렇게 자신의 출생을 들먹일 때마다 왠지 모를 미안함이 들었다. 메디엘이 퉁명스럽게 말했다.“누가 당신 보고 천박하다고 그런겁니까? 당신이 홍차 잎까지 먹는 건 천박함을 뛰어넘은 문제라고요.”그러나 미카엘은 이미 그와 말을 나누는 것에서 흥미를 잃었는지, 딴청을 부리고 있었다. 메디엘은 이럴 줄 알았다는 얼굴로 '쳇'하고 차를 벌컥 벌컥 마셨다. 미카엘이 라디에게 불쑥 말을 걸었다.“그래서 라디. 휴가 때 뭐할 거라고?”라디올러스는 냅킨을 그에게 건네며 씨익 웃었다.“오랜만에 놀러나 가 볼까?”이파리를 모두 해치운 그는 라디올러스에게 냅킨을 건네받아 입가를 닦았다. 그가 냅킨을 입에 대고 잠깐 생각해 보는 얼굴을 한 다음, 얼른 입에서 그것을 떼고 말했다.“난 역시 바다! 바다 가보고 싶어.”라디올러스가 킬킬 거리며 대꾸했다.“너 아까부터 바다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 바다 좋아해?”“으음~ 바다에서 놀아본 적 없어서 그런가? 생각 나는게 바다 밖에 없어.”미카엘이 이어서 작은 목소리로 '바다는 시체 버릴 때 밖에 못 가봤지..'하고 아련하게 말하는 것은 모두 못들은 척 했다.메디엘이 몸을 느긋하게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바다라... 좋긴 하죠. 저도 가본지 오래 됐네요.”휴리안은 여행 계획을 생각해 보는 것처럼 손을 턱에 대고 중얼거렸다.“여기서 제일 가까운 바닷가 별장이... 흠... 거기도 마차로 가면 한참 걸릴 텐데...”라디올러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휴리안의 고민을 일축했다.“거리 고민하지 말고 제일 가고 싶은 데로 가자.”휴리안이 그게 무슨 뜻이냐는 듯이 희미하게 웃으며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마법사인 그녀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애들아 아빠 못 믿니? 아빠 베스트 드라이버야. 어디든 한방에 데려다 줄게요” “우리 아빠라기에 너는 지나치게 귀여운데.”미카엘이 키득키득 웃으며 라디올러스의 머리위에 손을 툭 올려놓았다. 라디올러스는 기쁜 듯이 웃으며 대답했다.“나를 우습게 보면 곤란해. 정말이야, 어디든 데려다 줄게.”라디올러스는 하인에게 부탁해 그레펠 제국의 전국 지도를 가져오게 했다. 그녀가 탁자를 치워 자리를 만든 다음 기세등등하게 말했다.“어차피 다들 휴가라고 말만 해놓고 오늘 내일 빠듯하게 놀기도 힘드시죠? 냉큼 다녀옵시다!”메디엘이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지금 바로 가는 겁니까? 괜찮겠어요?”미카엘은 신난 것처럼 지도를 살펴보며 혼잣말을 했다.“오늘 내일 놀기 힘들다니? 나는 여유야. 완전 여유.”그 말에 메디엘은 질린 것처럼 미카엘의 옆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이 나라 왕자로서, 군대의 머리쪽 위치인 당신이 이딴 식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걱정되네요. 조만간 조직 점검좀 해야겠습니다.”“맘대로 하세요 왕자님. 그래도 나를 자르긴 힘들걸요.”미카엘이 흔들흔들 대답했다. 메디엘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혀를 찼다.“당신 부하들이 불쌍해.”“왕자님 부하들을 얼마나 좋을까요.”“그러니까! 당신이라고요! 그 '부하'가! 따지자면, 당신이 내 부하입니다! 말 좀 들으십시오!”미카엘의 성의 없는 맞장구에 메디엘이 결국 미간을 꾸기며 화를 냈다. 미카엘은 또다시 성의 없게 ‘아차, 그랬나요? 죄송해요.’라고 왕자의 얼굴도 보지 않고 사과할 뿐이었다. 메디엘은 화를 참으려는 듯 심호흡을 하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미간을 폈다.라디올러스는 그들의 투닥거림이 재밌다는 듯이 웃으며 중얼거렸다.“언제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셨을까. 질투 나게.”왕자가 기가 막히 다는 듯이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라디 양. 지금 비꼰 겁니까?”“진심인데요.”미카엘은 메디엘의 표정이 어떻든 간에 킬킬 웃으며 호들갑스럽게 말했다.“아~ 그러게. 이렇게 왕자님의 총애를 자꾸 받아서 말이지... 큰일이야. 황궁에선 왕자님이 나 짝사랑 한다는 소문도 돌아. 어쩌지 라디? 나 그냥 눈 콱 감고 왕자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하나? 나 이러다 황궁으로 장가가는 거 아냐?”라디올러스가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어머~ 좋겠다. 지지배, 언제 왕자님을 꼬셨대? 팔자 폈네, 팔자 폈어.”둘이 요란하게 소란을 피우는 가운데, 만담을 지켜보고만 있던 휴리안이 온화하게 웃으며 나긋나긋이 말했다.“축하드립니다. 왕자님. 부디 황궁에서 오래 오래 사랑 지켜나가시길.”아주 작은 목소리로 ‘웬만하면 나오지 마시고요.’라고 덧붙이는 것까지 완벽한 빈정거림이었다.메디엘이 정말로 속이 안 좋아진 것처럼 창백한 인상이 되어 질색했다.“...휴리안 공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농담도 진짜 같잖습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제가 진짜 미카엘 공을 좋아하고 있는 건가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윽..... 말하고 나니까 더 소름끼치네요.”라디올러스도 자신의 큰오빠를 빤히 올려다 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오빠가 맘 먹고 헛소문을 퍼트리려고 하면 정말 식은 죽 먹기겠어.”휴리안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에게 시선을 맞추고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그래? 그럼 일단 천연덕스럽게 마담들에게 왕자님 결혼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봐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 왕자님의 어렵고 신중한 결정을 다들 축하하지 않고 뭐하냐고 부추기고 말이야.”신랄하고 꽤나 악독한 내용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마냥 온유하고 부드러웠다. 미카엘까지 웃던 얼굴을 조금 굳히고 ‘그건...하지 말아주시면 좋겠네요.’라고 중얼거릴 정도였다.라디올러스와 휴리안만이 장난스럽게 웃어댔다. 왕자가 ‘하나도 안웃겨요...'하고 투덜거리자, 한참을 웃던 그녀가 정신을 차린 것처럼 말했다.“아이코, 이렇게 장난만 치다 시간 다가겠네. 자, 그래서 가고 싶은 바다가 어디라고요?”세명의 청년은 그녀의 말에 동시에 시선을 다시 지도로 옮겼다. 그러나 다들 달리 정해 놓은 장소가 있는지 지도는 슬쩍 훑어보기만 하는 모습이었다. 휴리안도 지도를 멀찌감치에서 대충 보다가 중얼거렸다.“그야... 가고 싶은 바다라면 역시...”세명의 목소리가 겹쳐져서 나왔다.“세레나드 해변”라디올러스는 어리둥절해져서 물었다.“와? 뭐예요? 다들 미리 정해놨어요? 세레나드? 거기가 어디지?”메디엘은 느긋하게 웃으며 대답했다.“그야...거긴 귀족령이 아니라서 다들 따로 가보신적은 없겠지만... 역시 당신과 간다면 그 해변이죠...”“아, 거긴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된 해변인거군요? 근데... 저랑 간다면 세레나드 해변이라는 뜻은...”메디엘이 손쉽게 잡은 사냥감에게 장난을 치는 재규어처럼 웃었다.“그 해변은 바다색이 분홍빛깔이에요.”라디올러스는 눈을 크게 뜨고 솔직하게 감탄했다.“우와! 진짜 신기하다. 정말요? 아예 분홍색이란 말이에요? 바닷물이?”신기해하는 그녀의 반응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던 휴리안이 대답했다.“물도 분홍색이고 해변도 분홍색이래 라디. 해변은 분홍 조개껍질 때문에 그렇고, 그 지역은 원래가 분홍색 광물이 많이 나거든. 아, 분홍색 해초도 특산물이야. 바다색이 분홍색인건 물이 원체 맑으니까 그런 해초나 바위 색이 비쳐보여서 그래.”라디올러스는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중얼거렸다.“그렇구나! 예쁘겠다...”미카엘이 들뜬 목소리로 ‘그럼 가는 거야? 와 거긴 여기서 멀어서 나도 말로만 들었는데. 네덕에 가겠네.’라고 말하며 지도를 둘둘 말려고 하자 라디올러스가 그의 손을 막았다.“잠깐, 미카엘. 아직 지도 싸지 마.”“응? 아직 필요해?”그녀가 씨익 웃으며 지도를 다시 평평하게 깔았다.“미카엘 세레나드 해변이 어디야?”그녀의 물음에 미카엘이 얌전히 손가락으로 해변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하인에게 다 먹은 찻잔과 쿠키를 치워달라고 부탁하며 펜과 종이를 가져와 줄 수 있냐고 물었다. 하인은 지체 없이 그녀가 부탁한 것을 가져왔다.메디엘이 그녀가 뭘하려는 건지 궁금한 기색을 못 감추며 물었다.“라디 양? 뭘 하려는 건가요?”“문을 열려면 정확한 좌표가 필요하니까요.”라디올러스는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은 종이를 가늘게 접어 펜에 묶었다. 그리곤 펜의 끝을 잡아 지도의 세레나드 위치를 콕 찍었다. 그녀가 주문으로 보이는 말을 중얼거리며 손을 천천히 놓자, 펜은 아무도 붙잡은 사람이 없는 데도 뾰족한 펜촉으로 멀쩡하게 수직을 유지하며 서있었다. 한동안 그 신기한 모습을 유지하던 펜이 툭 하고 옆으로 쓰러졌다.미카엘이 흥미롭다는 듯이 ‘호...’하는 울림을 내자, 라디올러스는 키득 대며 쓰러진 펜을 집었다. 그녀가 조금은 자신 없는 얼굴로 조심스럽게 펜에 묶여있던 종이를 풀어내서 펼쳤다. 여러 번 접어놓은 터라 다 폈을 땐, 마치 아코디언처럼 주름이 져 있었다.“됐다!!!”라디올러스가 펼쳐진 종이를 들고 환호성을 질렀다. 무슨 일인가 하고 청년들이 그녀가 들고 있는 종이를 살펴보았다. 종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가 작게 주르륵 쓰여 있었다. 긴 수열이었다.그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종이를 내보이며 뽐내는 말투로 말했다.“보세요! 이건 세레나드 해변의 좌표에요. 이렇게 정확한 좌표를 얻었다면, 이제 문을 열 수 있답니다!”청년들이 ‘오오...’하며 칭찬의 박수를 보냈다. 미카엘은 박수를 치다가 좀 이상하다는 듯이 지적했다.“근데 아까는 베스트 드라이버니 어쩌니 했으면서 무슨 좌표 뽑아낸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라디.”라디올러스는 그의 말을 못들은 척 하며 응접실의 빈 공간으로 걸어갔다. 아까 받은 펜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리는 모습이었는데, 한참 그리다 말고 ‘근데 이거 지워 지는 펜이겠지?’하며 다시 손으로 그림을 문질러 보기도 했다.청년들은 뭐 도와줄 건 없나 해서 그녀의 옆에 주르륵 쪼그려 앉아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길지 않은 시간이 흐르자 굉장히 그럴듯한 마법진이 완성되었다.라디올러스가 ‘휴우!’하고 벌떡 일어났다.‘이제부터 마법이 시작되는 거겠지.’메디엘은 살짝 기대하며 마법진에서 몇 걸음 물러났다. 그 뿐만 아니라 휴리안이나 미카엘도 반짝이는 눈으로 라디올러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그녀가 무엇인가를 중얼거리자 마법진에서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다들 눈을 꼭 감아야 했다. 눈을 뜨자 응접실의 한 구석에 희미한 일그러짐 같은 것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균열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보면 문 처럼 보였다. 라디올러스가 자신만만하게 걸어가 그 균열을 열어젖혔다.응접실의 뻥 뚫린 구멍 너머로 하얀 설원이 펼쳐져 있었다. 순식간에 코끝이 아린 냉기가 응접실로 밀어닥쳤다. 난폭한 설풍 때문에 미카엘의 조금 긴듯한 앞머리가 불규칙하게 팔락거려서 그의 눈을 찔렀다. 미카엘이 밝은 목소리로 즐거운듯이 ‘하하하’ 웃었다. 라디올러스가 황급히 문을 다시 닫았다. 문고리를 차마 놓지 못하고 슬쩍 고개를 뒤로 돌려 청년들의 눈치를 보았다. 그녀의 머리도 바람에 엉망이 되어있었고 짧은 순간이었건만 차가운 바람에 볼이 빨개져 있었다. 그냥 창피해서 그렇게 된 것일지도 모르지만.“아, 길 잘못 들었다.”그녀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꾸며내서 목소리를 내었다.또 거절했다고.”아무 말 없이 아침 식사를 하다가 돌연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 별로 흥미가 없는 듯이 무덤덤한 목소리였지만 그의 아들은 들었던 수저를 다시 내려놓았다.진하는 옅게 쓴웃음을 지으며 유감스럽다는 목소리로 대답했다.“네... 제게 과분할 정도로 좋은 분이셨지만 인연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음식을 삼킨 후에 회장은 표정 없는 얼굴로 작게 콧방귀를 뀌었다.“‘과분할 정도’라고? 잘도 그렇게 말하는 구나.”진하는 그저 살며시 미소를 만들었다. 굳이 목소리로써 대답을 하진 않았다. 반듯한 자세의 아버지는 다시 천천히 젓가락을 반찬으로 옮기며 중얼거렸다.“결혼은 삼십대 중반을 넘기지 말거라. 회장직에 앉을 사람이 결혼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순 없다.”“네 아버지.”“이번에 네가 거절한 아가씨는 꽤 괜찮은 조건이었다. 배경도 좋았고, 인물도 괜찮았는데. 생각보다 눈이 꽤 높구나. 박진하.”여전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동안 수저질을 멈춘 채, 진하는 잔잔한 목소리로 정중하게 대답을 했다. 하지만 그는 어쩐지 진아가 있을 무렵처럼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수가 없었다.처음부터 회장은 사랑하고 싶은 아버지 상이 아니었다. 매일 매일 그의 냉정함과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는데 익숙해져가며 동거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그러다 진아가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놀랍게도 회장을 아버지로서 사랑했다. 그의 아버지 ‘역할’을 사랑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건 이미 확인 할 길이 없다. 아무튼 옆에서 보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하고 애정 부스러기를 얻으려 노력했다. 진하는 그런 그녀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도 어느 정도는 진아가 사랑 받기 위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하고 생각하게 되었다.여동생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이야.’라는 말에 ‘그렇군, 하긴 혼자 힘으로 회사를 이렇게 키워내시다니. 보통 분은 아니시지.’ 하고 조금쯤은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하지만 진아가 그렇게 죽어버렸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하는 원래대로 돌아갔다. 뭐든지 재미없다. 뭐든지 흥미 없다. 뭐든지 사랑할 수 없다.‘아, 이 아버지란 사람을 좀 봐. 정말로 역겨워.’산들 산들 웃는 낯으로 회장과 매일 아침 식사를 함께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를 마음껏 매도했다. 진아가 오기 전보다도 더 아버지가 싫어졌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출근하는 길에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더욱 혐오스러웠다.회장이 물을 한모금 마시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신체 건강하고 뭐 하나 모자람 없는 녀석이 왜 결혼을 하지 않아.”진하는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싱긋 웃어보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검게 중얼거리고 만다.‘건강하다니요? 저는 아직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자람이 없다니요. 모자란 것 투성이에요. 집에 진아가 없어요 아버지.’아아 짜증스럽게 말대답을 하고 싶다. 저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싶다. 진하는 가끔 불쑥 불쑥 찾아오는 이런 불쾌한 충동을 참아내야 했다. 저 사람에게는 진아가 죽은지 벌써 4년인것 같다.‘진아가 죽은 지 ’아직‘ 4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진하는 슬슬 억지로 웃는 것이 힘들어 졌다. 어서 차를 타고 혼자가 되어서 마음껏 무표정해 지고 싶다. 그는 그렇게 소박하게 소망했다.그러나 일단은 자신의 태도가 불만족스러워 보이는 저 아버지에게 뭔가 대답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정말 제가 눈이 높은가 봐요.”대충 그렇게 말하며 진하는 공손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그만 적당히 이 의미 없는 대화를 끝내고 싶었지만 회장은 아직 대화를 끝낼 마음이 없는지 자신의 아들을 분석하듯이 살펴보며 덤덤한 목소리로 물었다. 마치 사업을 위해 회의를 하는 듯한 말투였다.“그럼 어떤 아가씨가 좋은 거지? 네가 말하면 이번엔 최대한 네 요구에 맞춰 선 자리를 찾게 시키마.”“글쎄요...”진하는 생각해 보는 척을 했다. 그러다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녀의 이름을 입 밖에 냈다. 그녀의 이름은 아직도 생각보다 괴로웠다.“저는 진아 같은 여성이면 좋은데요.”항상 표정에 희노애락이 잘 들어나지 않는 아버지이건만, 회장은 진하의 말이 놀랍다는 듯이 눈을 살짝 크게 떴다가 피식 웃었다.“이제보니 정말 눈이 높구나 진하야.”진하는 회장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빤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회장은 기분이 좋아보이기까지 했다. 그가 다시 젓가락질을 하며 말했다.“진아 같은 아이가 한둘일 줄 알아? 녀석... 그래서 그렇게 번번이 아가씨들을 퇴짜 놓은 건가?”‘아버지가 진아를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진하는 멍하게 맞장구를 쳤다.“하하... 역시 좀 그런가요? 진아 정도 되는 사람은 역시 찾기 힘들겠죠.”아버지는 진하의 말을 아주 쉽게 긍정했다.“당연한 소릴. 그 애처럼 머리 좋고, 눈치 빠르고, 예쁜 아이는 없어. 과연 내 자식에 어울리는 아이였지. 명이 짧았던 것만 빼고 말이다.”“네...과연 아버지의 딸이었지요...”겉으로 진중하게 대답한 것과는 정 반대로, 진하는 속으로 폭소를 참아내야 했다.‘진아야! 들었니? 네 아버지가 너를 저렇게나 후하게 칭찬하는구나! 생전 티끌만큼의 관심도 아까워하시던 양반이 말이야!’진하는 어이가 없어서 정말 박장대소를 하고 싶어졌다. 진아가 살아있었을 때 해줬으면 좋았잖아. 진아랑 수천번도 넘게 같이 아침식사를 했었는데, 그 때 해줬으면 좋았잖아. 재수없는 인간. 진아가 저 말을 직접 들었다면 또 둘이서 있을 때 눈물을 글썽거려할 정도로 기뻐했겠지.‘가슴 아플 정도로 짝사랑이었어. 진아야 그딴 애정 따위, 아껴놓는 편이 너에게도 좋았을 텐데.’불쌍한 아이. 진하는 또 목으로 무엇인가를 넘기는 것이 거북해졌다.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이 배 안에 가득 부푸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지금, 자신의 배를 갈라보면 분명 검은색 젤리 같은 것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그렇게 확신했다.회장은 현재 진하의 상태를 모르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다시 원래대로의 표정으로 돌아가서, 무심한 목소리를 내었다.“다음 번 맞선때는 신중하게 상대를 준비해 보라고 지시할 테니, 이번엔 제대로 만나 보거라.”진하는 그릇에 가득 남은 밥을 아무렇지 않게 회장이 잘 볼 수 없는 위치로 글어 모으며 대답했다.“네.며칠 지나지 않아 정말로 맞선이 또 잡혔다.‘진아 같은 여자가 좋다고 했더니 정말로 비슷한 여자를 찾은 건가.’진하는 헛웃음을 지으며 상대방의 사진을 훑어보았다.묘하게 닮은 것 같기도 했다. 게다가 나이도 진아의 나이와 같았다. 진하는 오히려 기분이 나빠졌다.‘그 사람은 나를, 진아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진하는 급격하게 피곤함이 몰려와서 눈을 천천히 감았다. 그렇다고 바람을 맞힐 순 없겠지. 천천히 눈을 뜨니까 또 맞선 사진이 보였다. 내가 가지 않으면 이 진아랑 묘하게 닮은 여자는 혼자서 불안에 떨며 기다리게 되는 건가.진하는 혀를 찬 다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뭣보다, 맞선 사진이란 건 도통 본인이랑 안 닮았으니까....’심통 내지 말고 약속장소에 나타나는 것이 어른 된 도리겠지. 그는 차를 타러 터벅 터벅 걸어 나갔다.갈까 말까 고민을 하며 늦장을 부리다가 나간 것이었지만 그는 정확히 약속시간의 십분 전에 도착했다. 사실 고민을 할 시간도 애초에 약속에 늦지 않게 계산에 넣어 두었던 것이기 때문이다.둘이서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유명 한정식 집의 룸 자리로 잡아 놓은 모양이다. 진하는 좌식 의자에 기대어 멍하니 장식 되어 있는 꽃을 바라보았다. 아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아무런 느낌도 받고 싶지 않다. 그는 자꾸만 사고할 것을 강요하는 자신의 뇌와 자신의 상황이 번거로웠다.십분쯤 그렇게 멍하니 있으니까 정각에 미닫이 문이 열렸다.‘칼같은 여자네... 조금은 늦게 오셔도 좋은데.’진하는 옅은 미소를 준비하며 들어온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올려다 보았다.생각보다 미소가 잘 지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닮은 얼굴이었다. 사랑해 마지않던 여동생과. 눈물을 자아내는 그녀와.‘기분 나빠...’진하는 잠시 그렇게 생각했지만 바로 완벽한 미소를 얼굴에 썼다.맞선상대는 우아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박은아입니다.’라며 고개를 살풋 숙였다.같은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자, 은아는 역시 닮은 것은 얼굴 뿐인지 진아와는 영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은아는 신중하고 침착한 성격 같았다. 그에 비해 진아는 침착한 것은 대외용 모습 뿐이라 긴장이 풀리면 실수연발이었다. 은근히 덜렁거렸기 때문에 눈을 뗄 수 없었다.진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다.‘하나도 닮지 않았잖아.’무의식적으로 진아와 그녀의 차이점을 찾고 있었다. 하나 하나 다른 점을 찾을 수록 안심이 되었다.견디기 힘든 시간이 지나 드디어 디저트가 나왔다. 진하는 이것만 먹으면 맞선이 끝난다는 생각에 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다.디저트는 꽃같은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져서 나온 양갱이었다. 두 사람 앞에 소담하게 장식된 접시가 하나씩 나왔다. 접시에는 각자 다른 색으로 곱게 물든 작은 양갱이 3개 정도 있었다.‘이제 한동안 맞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지. 이거 피곤해서 원...’진하는 피곤했기 때문에 단것은 흔쾌히 먹을 마음이 들었다. 작은 포크로 분홍색 양갱 꽃을 반정도 나누어 입에 넣었다.그것은 고즈넉하고 은은한 한국적 멋을 보여주는 외관과 반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단 맛이었다. 남자치고 단 것을 꽤 좋아하는 편이었던 진하에게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달콤함이었다. 그러나 불행이도 그는 맞선자리에서 입안의 것을 다시 뱉는 짓따윈 할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기에 억지로 삼켰다.진하가 양갱의 그 테러적인 맛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기 위해 황당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녀는 벌써 양갱 하나는 후딱 해치운 상태로, 이미 다음 양갱을 입안에 넣고 있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는 얼른 입안의 것을 삼키고 홍조를 띄우며 말했다.“디저트도 맛있네요.”진하는 멍한 얼굴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짓는 것도 잊고 물었다.“달콤한 것을.... 좋아하시나 보군요.”어째서인지 은아는 조금 당황해하는 표정으로 더듬 더듬 대답했다.“아, 아... 네. 좋아해요, 단거.”그는 결국 그녀에게서 소중한 사람과의 공통점을 찾아버려서 슬퍼졌다. 진하의 하나밖에 없던 여동생도 달콤한 것이라면 사족을 못 썼다. 지독하게 단 음식도 태연하게 먹곤 했다.진하가 힘없이, 그러나 처음으로 꾸미지 않은 미소로 빙긋 웃으면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그래서 저희..... 다음엔 어디서 만날까요?” 기다리고 있다. 그들을.‘이상하게 늦네?’라디올러스는 아예 식당으로 내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원래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했었다. 그러나 약속시간을 크게 넘긴 지금까지도 아직 나타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언제나 뭔가에 구속 되지 않는 것처럼 구는 미카엘마저도 라디올러스의 약속에는 늦은 일이 없기에 그녀는 조금 불안해 졌다.“무슨 일이 있나... 걱정 되네... ”물론, 그 사람들이라면 주변사람들 걱정을 더 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된다. 이렇게 실없는 걱정을 하며 남편을 기다리는 게 평범한 아내의 소임이겠지. 아니, ‘남편들’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이미 평범한 아내와는 상당히 멀어졌다고 생각하지만.식당에서 기다리는 것이 성에 차지 않아서 그녀는 현관근처로 가기 위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 섰다. 그와 동시에 미카엘이 식당으로 들어 왔다. 여전히 그는 소리를 잘 내지 않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녀를 놀라게 하곤 했다. 라디올러스가 안도의 한숨을 섞어 인사했다.“미카엘! 아휴 엄청 걱정했잖아. 왜 이렇게 늦었어?”그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아아 미안, 오늘은 정말 하지 않고선 못 견딜 만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못 견딜 만한 일? 또 누구 괴롭히고 오거나 한건 아니지?”그녀는 제대로 그와 마주 보기 위해 의자에서 완전히 일어나 그 앞에 섰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며 팔뚝 근처에 난 자잘한 상처가 눈에 띄었다. 미카엘이 다쳐서 오다니. 이건 분명 심각한 일이다. 라디올러스는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 채고 다급하게 물었다.“미, 미카엘? 너 다쳤잖아! 괜찮아?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미카엘은 그녀의 걱정에 해맑게 웃으며 자신의 아내를 꼭 껴안았다. 라디올러스는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그가 왠지 평소와 같지 않은 것 같아서 등을 토닥였다. 미카엘은 한동안 아무런 대답 없이 눈을 감고 그녀의 토닥임을 받았다.그가 좀 진정 된 것 같자, 라디올러스가 다시 조곤 조곤한 목소리로 물었다.“미카엘? 무슨 일이야? 다른 사람들이 늦는 거랑도 관계가 있어?”그는 그녀의 머리를 좀 더 자신의 품에 묻었다. 그녀의 뒷 머리를 쓰다듬으며 평소와 같은 말투로 말했다. 하지만 묘하게 조금 말의 끝이 떨렸다.“라디, 언제 어느 때나 나를 사랑하겠다고 말했었지.”라디올러스는 얌전히 그의 손길을 받았다. 오늘도 미카엘은 휘청 휘청 불안한 것 같다. 그녀는 그의 물음에 담담하게 대답했다.“응. 난 항상 너를 사랑하지.”미카엘은 그녀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것처럼 웃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시간이 지나자 안타까운 듯한 쓴 웃음으로 변했다. 그가 목 메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하지만 왕자에게도, 휴리안에게도 똑같이 말해주었겠지. 설령 속마음은 좀 다를지 몰라도. 이미 결혼은 해 버렸으니까.”여태까지 모두들 피해왔던 질문이었다. 똑바로 바라보기 무서운 문제라 모두들 애써 헤집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법 만족스럽고 제법 행복한 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좀 마음에 걸리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익숙해 질 것이라 생각했다.라디올러스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지 몰라서 울컥 달려나가려는 불안감의 고삐를 잡으며 그를 올려다 보았다. 미카엘은 힘없이 씨익 웃었다.“너는 상냥하니까. 이미 결혼까지 다 해버린 마당에 굳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말 따윈 하지 않았을 거야. 그저 ‘사랑한다’고 말해줬겠지.”“...하지만 정말로 사랑.... 그게 아니면...그냥 아무 말 말았어야 하는 건가? 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미카엘.”“네가 사과할 건 없어. 괜히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달라붙은 우리들이 잘못이었을지 몰라. 어떻게 될지 어렴풋 예상이 가면서도... 널 놓치기가 싫어서 모른 척 한거지. 아, 하지만 그건 좀 견디기 힘들었어 라디.”그가 품안의 라디올러스를 떼어 놓아 얼굴을 마주 본 다음 말을 이었다.“불쌍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닐까 하는 그 불안감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라디올러스는 잡고 있던 고삐를 놓쳤다. 불안감은 미친 듯이 가슴을 헤집고 돌아다녔다. 심장 박동 또한 점점 빨라져서 머리를 쿵쿵 울렸다.미카엘은 서늘하게 미소지으면서 덧붙였다.“아,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전부 견디기 힘들었어. 네가 휴리안과 즐겁게 웃으며 산책하는 것도, 메디엘과 키득거리며 농담을 하는 것도... 그냥 휴리안과 메디엘의 존재가 내겐 고통이야.”“ 미카엘.”미카엘은 어리광을 부리는 것처럼 다시 라디올러스를 껴안았다. 그가 가벼운 목소리를 꾸며내서 말했다.“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라디. 용서해줘.”“미카엘...너, 너...너 설마.”“응. 너희 오빠는 생각보다 강하더라.”라디올러스는 순간 급격한 어지러움을 느꼈다. 위가 누군가에게 꽉 틀어잡힌 것 같았고, 손발이 차게 식었다. 미카엘이 그녀를 단단히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쓰러지진 않을 수 있었다.미카엘이 그녀의 어깨 부근에 얼굴을 묻고 고해성사하듯이 중얼거렸다.“라디. 언제 어느 때라도 날 사랑해 줘...”“미카엘...그러면 안 돼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제발 농담이라고 말해줘.”라디올러스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미카엘은 끝내 농담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감에 눈물을 방울 방울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감이 들지 않아서 표정은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았다.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듯한 표정이었다.미카엘이 그녀의 뺨에 자신의 뺨을 비비며 사랑스러운 것을 만지듯이 그녀의 머리를 빗었다. 그가 라디올러스를 달래려는 목소리를 내었다.“라디, 어차피 길던 짧던 누군가는 이렇게 끝낼 일이었다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불러냈을 때. 모두들 예상했다는 표정으로 망설임 없이 나오더라고.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말이야.”그녀는 거센 울음이 숨을 따라와 주지 않아서 괴로운 신음을 내었다. 미카엘은 잠시 떠올려보는 것처럼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말했다.“아, 하지만 아직도 한가지 화가 나는 게 있어. 휴리안은... 싸울 때는 제법 온 힘을 다해 날 이기려고 하는것 같더니 정작 마지막 순간엔 미련 없이 치명상을 입더라....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내가 이긴 거야 미카엘.’ 이라는 데...”“윽...오빠...”휴리안의 마지막이 상상이 되어서 라디올러스는 두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미카엘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쓴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다. 그는 아직도 꿈꾸는 것처럼 몽롱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휴리안이 조금 행복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후련하게 말했어. ‘라디는 평생 나를 그리워 하겠지. 나를 죽인 너는 끝내 마음놓고 사랑할 수 없을거야. 넌 이제 날 이길 방법이 없어.’라고.... 그게 정말일까, 라디?”라디올러스는 이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심하게 울고 있었다. 그녀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미카엘의 품에서 스르륵 미끄러져서 바닥에 주저 앉았다. 미카엘은 그런 그녀가 가엽다는 듯이 같이 쪼그려 앉아서 아내를 보듬었다.미카엘은 그녀를 위해 메디엘의 마지막도 말해줘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미카엘이 살짝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아, 이런 나라도....솔직히 메디엘 왕자를 찌르는 건 좀... 괴로웠어.”그녀는 메디엘의 이름에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꼭 쥐었다. 미카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서 고백했다.“그는 어이 없게도... 찌른 나를 동정하는 눈빛을 했어... 끝끝내 마음에 안드는 남자야. 정말 싫은 남자.....나를 불쌍히 여겼어.... 내가 죽였는데.”상냥한 사람이었다. 속으로 뭔가 고장난 것처럼 쉼 없이 되내이던 라디올러스는 이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 상태가 되었다. 아 괴롭다. 여기서 도망가고 싶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도망쳐 버리던 옛날의 나쁜 버릇이 나올 것만 같았다.미카엘은 멈출 줄 모르고 울어대는 라디올러스를 내려다 보며 결국 자신도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그가 볼에 가느다란 눈물 길을 내며 그녀에게 애원했다.“라디, 울지 말아줘. 이젠 내가 미워졌어?”그녀는 머릿속이 불쾌한 진흙 반죽이 된 것 같았다. 눈 앞의 남자에게 굉장한 분노가 솟음과 동시에 안쓰럽고 가여운 마음이 들었다. 여전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했고, 이젠 아무래도 좋은 것 같기도 했다. 감정에 멀미가 나서 토기가 오르는 것 같았다.언제나 ‘내가 이젠 싫어?’라는 말에 라디올러스는 즉답으로 ‘그럴 리가’하고 대답해 주었었다. 그러나 이번엔 아무런 대답이 없자 미카엘은 입을 다물고 눈물을 툭툭 쏟았다. 그가 힘없이 웃으며 다시 중얼거렸다.“이 정도로 최악이라 미안해 라디.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좋아.”그녀가 제어 할 수 없이 차오르는 눈물과 함께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가 순진하게 웃으며 부탁했다.“너에게라면 기꺼이 죽어줄게.....”그가 정말로 품속에서 작은 칼을 꺼내서 그녀의 손에 올려놓았다. 미카엘도 조금씩 울고 있었지만 그는 그 눈물이 보이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웃어보였다. 그가 달콤하게 속삭였다.“어쨌거나 드디어 단 둘이니까 말이야.”라디올러스는 그의 예쁜 미소에 통곡이 스며 나왔다. 그녀는 그가 준 단도를 꼭 쥐어보았지만 어찌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마저 쏟았다. 라디올러스는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자신이 그린 마법진을 살펴보았다. 그러다 의심쩍은 표정으로 테두리 부근의 글을 지웠다가 다른 말로 고쳐 썼다.“이, 이제 됐을 거에요! 갑시다!”그녀가 민망하다는 듯이 다시 벌떡 일어나서 새로 나타난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갈색 자갈이 가득한 사막이었다. 라디올러스는 말없이 문을 탁 닫았다.원하는 분홍빛 바다는 지독히도 찾기 힘들어서 라디는 그 이후로도 세 번이나 마법진을 고쳐썼다. 진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여서 메디엘이 그녀를 말리려고 할 정도 였다.“저기, 라, 라디양. 오늘은 그냥 요 앞의 호수나 가요. 생각해 보니까 거긴 사람도 너무 많을 거 같고 말이지요.”“시끄러워요. 가고 말겠어요.”“...저한테 입 닥치라고 한 겁니까? 지금?”메디엘이 애써 온유한 목소리를 만들어 되물었지만 라디올러스는 이미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때 응접실의 창문 유리에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꽤 큰 소리였기에 응접실에 있던 사람들은 동시에 소리의 근원지를 바라보았다.라디올러스는 창을 바라보자마가 질색이라는 듯이 꽥하는 비명을 질렀다. 다른 사람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무척이나 큰 독수리 같은 것이 창밖에 앉아 부리로 유리를 콕콕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다.휴리안이 눈을 찡그리며 중얼거렸다.“저희 성 근처에서 저런 큰 독수리는 본 적이 없는데요...”그 독수리는 마치 노크를 하는 것처럼 유리를 두어 번 더 두드린 다음 머리를 수그려 부리로 손쉽게 창을 밀어 올렸다. 능숙하게 공작성의 응접실로 독수리가 들어왔다. 창에서부터 라디가 주저앉아서 마법진을 체크하던 곳까지는 꽤나 거리가 있었음에도 라디올러스는 창백해져서 뒷걸음질을 쳤다.미카엘이 그녀가 무서워 하는 것을 보고 독수리를 향해 몇걸음 걸어가며 물었다.“새 정도야...죽여줄까 라디?”메디엘이 그를 무심하게 바라보며 지적했다.“라디양에게 새가 죽은 꼴을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내쫒으면 될 일을...”“내쫒으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게다가 저 창으로 다시 내보내는 게 더 귀찮기도 하고요.”둘이 또 쓸데 없는 말싸움을 시작했다. 그러나 라디올러스는 평소처럼 그 싸움을 중재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가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주, 죽이면 안돼요. 저건.... 빌어먹을...”가냘프게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거센소리가 섞여 나오자 휴리안이 헛기침을 했다. 휴리안이 살짝 나무라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을 때였다. 독수리가 재빠르고 망설임 없이 라디올러스의 바로 앞까지 날아와 착지 했다. 그녀가 눈을 꼭 감고 끄아악하고 신음했다. 그러나 남자들이 새를 막으려 오려고 하자 두 손을 좌우로 버둥거리며 필사적으로 독수리를 내버려 둘 것을 표시했다.라디올러스는 가엽게도 뒷걸음을 치다 벽을 만나 벽에 찰싹 달라붙어있는 상태였다. 독수리는 눈을 꼭 감고 있는 라디올러스를 빤히 바라보더니 부리를 열었다. 놀랍게도 맹금류 특유의 끼이 거리는 울음소리가 아닌 소리가 흘러나왔다.수신자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은?]무덤덤하고 별 특징 없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새가 말을 하는 것만 아니었다면 분명 기억에 남지 않을 만한 목소리였다.미카엘이 질린다는 듯이 투덜댔다.“사실 노크하고 들어올 때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라디올러스는 진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다.“라디올러스! 프랑디아 라디올러스!”독수리는 딱딱 끊어지게 좌우로 갸웃 하며 잠시 침묵을 유지했다. 뭔가 작업을 하며 버퍼링이 일어난 것 같기도 했다. 잠깐 시간이 지나자, 독수리가 다시 평범한 남자 목소리를 냈다.프랑디아 라디올러스, 수신자 본인 확인 완료 되었습니다. 회선을 설치하겠습니다.회선을 설치하겠다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잠깐 잡음이 섞이더니 독수리의 부리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야 이 멍청아.대뜸 독수리가 그녀를 향해 욕을 해댔다. 목소리가 카네리안과 너무 흡사해서 남자들은 더욱 화가 날 것 같았다. 라디올러스가 인상을 쓰며 독수리를 향해 발길질을 해댔다. 물론 무서웠기 때문에 허공에다 버둥거리는 꼴이긴 했지만 독수리는 날갯짓을 퍼득 해대며 몇걸음 뒷걸음질을 쳤다. 그녀가 화를 냈다.“회선을 독수리 같은 걸로 깔지 말라고요!!! 본인 확인 끝났으면 얼른 떨어져! 에이씨, 선배인거 진작 알았으면 그냥 내쫒는 건데. 꼭 혹시 다른 사람일까 싶어서 내가 맨날 이런다. 어후 바보...”지금 그게 문제냐. 너 뭐하고 있길래 마력을 그렇게 펑펑 써대고 있냐고. 또 전쟁난 줄 알았잖아 이 정신 나간 계집애야.“남이사 휴가철에 내 마력으로 뭘 하든, 신경 꺼주실래요?”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하며 슬슬 독수리를 피해 옆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밀대까지 가자, 밀대 위의 티스푼 같이 자질구레 한 것을 발견하고 독수리에게 하나씩 집어던졌다.“이제 별거 아닌 거 확인했으니까 얼른 회선 끊고 얘 내보내요! 아 진짜 맨날 트집만 잡긴!”독수리는 날아오는 티스푼과 각설탕을 슬쩍 슬쩍 피하며 짜증스럽다는 목소리로 말했다.진짜 또 공격 마법 터진 건줄 알았거든? 네 마법은 트집이라는 사소한 단어로 표현하기엔 트집에게 미안해. 너는 그냥 항상 테러야.“허, 됐어요. 누가 그냥 시비 걸려고 한 거 모를 줄 알....”라디올러스가 콧방귀를 뀌려고 할 때였다. 휴리안이 작게 그녀를 불러세웠다.“...라디, 또 뭔가 잔뜩 왔어”라디올러스는 ‘응?’하며 독수리로부터 고개를 돌렸더니, 온갖 동물들과 마주할 수 있었다. 그것들은 응접실의 바닥에서 태연하게 그녀를 올려다 보고 있었다. 그녀가 동물들과 눈이 마주치자 다람쥐, 토끼, 개, 고양이가 동시에 소리를 냈다.수신자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은, 라디올러스가 얼굴을 붉게 만들며 대답했다.“프랑디아 라디올러스.”프랑디아 라디올러스, 수신자 본인 확인 완료 되었습니다. 회선을 설치하겠습니다.순식간에 동물들이 동시에 왁자지껄 소리를 냈다. 고양이가 메릴의 목소리로 말했다.”무슨일이야? 라디! 괜찮아?”다람쥐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며 체비츠의 목소리를 냈다.”이야! 별일 없네! 하하하하하 라디! 너 또 무슨 실수 했어? 와~아 하하하하 나 자다가 너무 놀라서 깼잖아 크하하하 진짜 깜짝 놀랐네.”깜찍한 하얀 토끼는 안어울리게 성인 남자의 굵은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다. 분명 제드였다.그렇다면 얼룩무늬 개는 베딕일 것이다. 베딕은 조용히 중얼댔다.”.이상 없음 확인했습니다. 회선 해제하겠습니다.]”개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독수리가 고개를 젖히고 요란하게 웃어댔다.”거봐! 트집이라고? 하하하 지금 우리 팀원 전원이 놀라서 너한테 회선 신청한거야? 아하하하하 야, 라디올러스 씨. 입이 있으면 말씀좀 해보시죠?”라디올러스는 폭소하는 독수리를 외면한 채 작은 동물 친구들에게 얼굴이 빨개져서 사과했다.“시, 신경 쓰시게 해서 죄송합니다!”그녀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다람쥐와 토끼와 고양이를 모아두고 공작가의 아가씨가 정중하게 사과하는 그 모습은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소문을 만들 것 같다고 걱정이 될 만큼 기묘했다.미카엘이 나이프를 손끝으로 훑으며 짜증을 냈다.“아 갑자기 이게 웬 난리야? 왕자님과 휴리안 공만 해도 충분히 짜증이 아니라, 방해도 아니라...”미카엘이 말실수 인척 하며 대놓고 왕자와 휴리안에게 짜증스럽다느니 방해라느니 하는 말을 해댔다. 그러나 메디엘과 휴리안은 그다지 그를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둘은 멍하니 라디올러스가 동물과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저런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메디엘이 홍조를 띄우며 중얼댔다.“솔직히...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네요. 고양이나 토끼가 말하는 건...”휴리안이 고개를 끄덕거렸다.“아... 네.... 동물이랑 말을 하고 있다니 뭔가 동화책 삽화 같기도 하고...”둘은 서로의 핀트가 살짝 어긋나 있다는 것을 끝끝내 알아채지 못했다. 독수리가 거만한 자세로 라디가 그렸던 마법진 근처로 걸어갔다. 독수리가 그것을 보고 픽 비웃었다.”뻔하네. 어디론가 놀러가려고 하셨나 보죠? 다들 한가하신 것이 아주 보기 좋네요. 그럼요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어야죠.”라디올러스는 오만상을 찡그리며 독수리를 돌아보았다.“그만 빈정거리고 이왕 오셨으면 뭐가 잘못 됐는지나 알려주세요.”독수리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고 찬찬히 둘러보면서 말했다.”내가 뭣하러?”“아, 짜증 폭발이야. 그냥 강제 회선 종료할께요. 어차피 진짜 동물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말이에요.”라디올러스가 밀대에서 빵칼을 찾아 들었다. 그녀가 정말 싫다는 듯이 투덜댔다.“내가 끔찍해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이렇게 큰 새를 보내오다니. 정말 베베 꼬였어.”고양이가 산뜻한 발걸음으로 마법진에 향해 가면서 메릴의 목소리로 말햇다.”선배한테 뭘 바라니 라디. 내가 봐줄게.”고양이는 독수리의 옆에 요염하게 앉아서 라디의 작품을 빤히 바라보다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했다.”응? 별로 틀린 건 없어보이는 데? 하긴, 라디는 보통 이런 걸 틀리지는 않잖아? 그냥 운용이 미숙하다 뿐이지...음..근데 이번에는 저렇게 문도 제대로 만들었는데....뭐가 문제지?”메릴의 말에 다람쥐와 토끼도 깡총 깡총 뛰어와서 마법진을 살폈다. 토끼가 제드 특유의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그러네. 내 눈에도 틀린 건 없어 보이는 데…”체비츠의 다람쥐는 잠깐 진을 살펴보더니 정신 없이 마법진 둘레를 쪼르르 뛰어다니면서 외쳤다.”모르겠다”라디올러스는 옹기 종기 모여앉아 있는 동물들 옆에 같이 쭈그려 앉아 정말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 물론 독수리와는 최대한 멀리 떨어진 위치였다.“그쵸 그쵸? 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메디엘은 다시 한 번 귀여움에 눈뜬 것처럼 감탄하는 말투로 중얼거렸다.“와 장난 아니네요. 저 뒷모습은...아, 휴리안 공, 삽화 같다는 건 라디 양의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였군요? 라디올러스 양의 분홍색 머리도 한 몫 하네요. 귀엽다.. 초상화가를 부르고 싶어.”휴리안은 의아하다는 목소리로 되물었다.“?...네? 그럼 왕자님은 달리 뭐가 귀여웠던거죠?...설마 저 동물들이요?...마법으로 만든 거니까 라디에게 병같은 건 안 옮기겠죠?”메디엘은 조금 어두운 낯빛으로 씁쓸하게 말했다.“휴리안 공도 참 삭막하시단말이야.. 미카엘 공은 말할 것도 없고. 하아... 물들겠어. 이 회색 남자들.”미카엘은 뾰롱퉁하게 의자에 털썩 앉아서 투덜댔다.“걱정 마시죠 왕자님은 항상 노란 왕자님이시니까. 아, 재미없어. 라디가 저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뭐가 귀엽고 좋다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왕자는 발끈했다.“노란 왕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뭡니까 그게!”“아 예민하시긴. 알았어요 레몬 왕자님. 레몬색이네요 레몬색.”왕자가 뚱한 표정으로 바꾸어 어이없어했다.“...지금 색의 미묘함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여요? 레몬 왕자라니 완전 시큼한 사람 같잖아요.”“...하아...알았습니다. 연한 노랑이면 되겠습니까?”적반하장으로 미카엘이 귀찮은 것을 보는 듯이 메디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메디엘은 기가 막혀서 미카엘을 쳐다보았다.“아니.... 애초에 왜 굳이 제 왕자 호칭 앞에 색으로 타이틀을 붙이려고 하십니까. 부탁한 적 없다고요. 그딴 식으로 귀찮아 하니까 더 열 받잖아요.”메디엘이 뭐라고 한마디 더 붙이려고 할 때 카네리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야, 너 목적지가 어디였어.라디올러스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세레나드 해변이요.”허, 어이구. 분홍 해변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잘됐네. 거기라면 네 머리색이 보호색이네.독수리는 별거 아니었다는 듯이 날개를 쭉 펴고 기지개를 폈다.에이, 그럴줄 알았어.“뭔데요? 문제가 뭔지 아셨어요?”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머리 나쁘긴.“...뭐가요..”라디올러스는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했다.“그냥 뭐가 문젠지 못 알아 냈는데 허세 부리는 거죠?”너 남자한테 허세라는 말이 얼마나 뼈아픈 줄 아냐. 누가 대형 살인마 아니랄까봐 아주 촌철살인이네. 근데 허세 아니거든.“아~그럼 뭐가 문젠지 제대로 알려주세요 좀.”응접실에 있던 남자들은 카네리안의 ‘대형 살인마’ 소리에 발끈 했지만 라디올러스가 너무 자연스럽게 넘겨버려서 끼어들 타이밍을 못 잡고 말았다. 미카엘이 짜증스럽게 중얼댔다.“정말 들었던 대로 아주 제멋대로 구는군. 카네리안.”휴리안이 그의 작은 중얼거림을 듣고 싱긋 웃으며 미카엘을 돌아보았다.“혹시 당신 용병 길드에서 의뢰비 주면 처리해 줍니까?”“아아, 휴리안 공정도 되시는 분이 고객이시면 제가 직접 나서서 처리해 드리지요.”회색 남자들은 상상만으로도 신이 난 것 같았다. 레몬색 남자는 나른하게 혼잣말을 했다.“이젠 제가 왕자라는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굳이 실행하고 싶으시다면 제대로 안 들키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용의자로 참여한 재판에 참석하고 싶진 않으니까.”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지 알 리 없는 카네리안은 심술궂게 말했다.[좀 더 공손하게 ‘성의’를 보여 봐.]라디올러스가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독수리를 응시했다. 새를 바라본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는 그녀였지만 카네리안에 대한 짜증스러움이 콤플렉스를 이겨냈다.“그놈의 성의 성의! 선배도 맨날 성의 채울려고 분투하는 마법사면서 그 말을 굳이 여기에서도 들먹이고 싶습니까?”난 별로 고군분투 안해. 우수하니까. 난 성의에 대해 그닥 나쁜 기억 없으니까 걱정 말고 부탁하는 성의 좀 보여.“와....그 나이 먹고 신 놀이입니까.”[알기 싫으면 그냥 안 해도 돼. 아쉬운건 너 아니던가? 라디올러스.하얀 토끼가 독수리를 빤히 바라보더니 중얼거렸다.어휴 지겨워.라디올러스는 ‘으으...’하며 자기 치마를 좀 쥐어 보더니 화를 꾹 참는 것처럼 천천히 일어나 독수리를 향해 90도 인사를 했다.“선배님! 아둔한 후배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독수리는 부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비웃는 표정이 안될 텐데도 묘하게 카네리안의 독수리는 비웃는 듯 한 표정으로 보였다. 고양이가 힘없이 고개를 바닥에 붙이며 중얼거렸다.선배 성격 나쁜 건 알아줘야해...회선 동물도 라디가 무서워하는 거 뻔히 알면서 독수리가 뭐야 독수리가. 회선 동물이란 모름지기 남들 눈에 안 띄어야 하는 게 포인트인데.... 제드 선배 흰 토끼만큼 이상해.흰 토끼는 자신의 귀를 앞발로 정리 하면서 무덤덤하게 중얼댔다.나도 평소에는 참새를 쓴다고. 라디가 무서워하니까...그리고 토끼는 꽤 귀엽잖아...다람쥐가 킬킬대며 끼어들었다.둘 다 모르죠? 카네리안 선배, 저번엔 무려 라디에게 타조를 보낸 적도 있어요! 하하하하 라디 그 때 놀라서 거의 쓰러질 뻔 했었는데.고양이가 다람쥐의 말에 안색이 나빠져서 고개를 도리질 했다.우와....정말 성격 안좋아.독수리는 보란 듯이 더욱 짖궂게 말했다.맨날 기어오를 땐 언제고?그녀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크윽..’하며 자신의 자존심과 싸우는 소릴 냈다.“아둔한 후배여서 대 카네리안 님을 몰라 뵀었습니다! 관용의 선배님께서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죄송했었습니다!”독수리가 흥미롭다는 듯이 킬킬 대며 그 상황을 즐겼다. 휴리안은 여동생이 독수리에게 쩔쩔 매는 것이 기분이 나빠졌다. 그가 무표정하게 말했다.“라디, 난 굳이 네가 그렇게 머리를 숙여가면서 까지 여행을 가고 싶진 않아.”카네리안은 휴리안이 화를 낸 것 또한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독수리는 거만하게 부리를 치켜들며 말했다.뭐, 네가 주제를 안 것 같으니까 알려줘 볼까. 넌 주체 못하고 마력을 한 번에 들이 붓는 만큼 남들보다 섬세하게 진을 짜야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라디올러스는 독수리가 술술 말해주는 태도를 보이자 다시 웃음을 찾고 끄덕 끄덕하며 경청했다.근데 이것 좀 보라고 이 멍청한 분홍 여자야.독수리가 날개 끝으로 진의 한 부분을 지적했다.내가 너는 습기가 많은 장소를 갈 땐 이 부분에 상쇄 문구도 적어 놔야 한다고 했었지. 멍청아.독수리는 말끝마다 라디올러스를 멍청이라고 불렀다. 메디엘이 참지 못하고 미카엘에게 말했다.“아까 그 의뢰에 저도 참가 하겠습니다. 얼마 내면 되죠?”미카엘이 사냥꾼 같은 눈빛을 하고 독수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했다.“걱정 마세요. 오래간만에 무료 봉사하겠습니다.”하지만 라디올러스는 그저 지독하게 안풀리던 문제가 풀린 것이 기쁜 것 같았다. ‘아하!’하고 얼른 가서 독수리가 지적했던 상쇄 문구를 써 놓았다.“이러면 되죠? 선배?”흰 토끼도 이해했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아, 그렇구나. 역시 라디올러스 마스터. 깨알 같이 잘 아네요 선배.독수리가 대충 대답했다.그래 그 문구. 이 바보 같은 분홍..라디올러스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자 활짝 웃는 얼굴로 독수리의 말을 끊었다.“그만 깐죽거려주세요. 멍청한 새대가리야.”그녀가 해맑은 미소로 품속에서 아까 챙겨둔 빵칼을 꺼내 독수리에게 날렸다. 몸집이 아주 컸던 독수리라 표적에 맞긴 했지만 빵칼은 끝이 뭉툭해서 그다지 치명타가 되진 못했다.제드의 흰 토끼는 이번에도 별로 놀랍지 않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역시 라디. 호쾌하게 화내는 구나.]독수리는 분노에 찬 목소리를 냇다.라디올러스 이 건방진..“회선 동물을 타격해 봤자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게 참 유감이지만... 아무튼 좀 개운한 것 같기도 하고.. 미카엘! 이 징그러운 짐승 좀 처리해줘.”미카엘은 그녀의 부탁이 끝나기 무섭게 단번에 단도를 날렸다. 그의 작은 칼은 정확하게 독수리의 눈을 꿰뚫었다. 눈에 단도가 박힌채 잠깐 비틀거리는가 싶던 독수리는 순식간에 먼지같은 형상이 돼서 사라져 버렸다. 미카엘의 단도만이 대상을 잃고 허공에서 툭 하고 떨어졌다.미카엘이 상쾌하게 웃으며 외쳤다.“이런 부탁이라면 언제든지! 진작 좀 말하지... 근데 피도 안 나는 구나. 뭔가 좀 아쉬운 느낌.”라디올러스가 아직도 쌓인 게 다 안 풀린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그러게 말이야. 어후 맨날 새 모양만 해서... 새만 아니었으면 직접 내 주먹으로 후려 칠텐데. 거지같은 카네리안.”다람쥐가 짧은 손을 번쩍 들어 좌우로 열심히 흔들었다.[하하하하 카네리안 선배 강제 종료 되어버렸네! 어휴 나중에 얼마나 짜증을 내실려나. 하하하 나도 슬슬 가볼까~. 라디~휴가 다녀와선 집의 방어 마법 강화시켜 놓는 걸 추천할게~]라디올러스는 체비츠의 말에 낯빛이 어두워 져선 대답했다.“여, 역시 최대치로 강화시켜놔야겠죠... 카네리안 선배 ..뿐만 아니라 포제타를 대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겠네요.”토끼와 고양이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고양이가 앞발을 앞으로 내밀며 기지개를 쭉 폈다. 토끼가 제드의 목소리로 말했다.그래, 대비해야지. 잘 놀다 와라 라디.고양이까지 ‘잘 다녀와~’라는 인사를 끝마치자 동물들은 동시에 고개를 푹 떨어트렸다. 마치 장난감 로봇의 전원이 순간 나간 것 같은 모습이었다. 시선을 바닥에 내리 꽂은 채로 동물들이 평범한 남자의 목소리를 냈다.회선을 종료하겠습니다.그 말이 끝나자, 동물들의 형채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아아, 소란스러웠다. 소란스러웠어. 이제 세레나드에 가도록 하죠!”라디올러스가 별일 아니었다는 듯이 고개를 좌우로 스트레칭하며 새로 생긴 어렴풋한 문에 다가갔다.메디엘은 사실 피로도로만 따지면 이미 바다에서 2박 3일동안 놀다가 집으로 오는 마차에 있는 것 같았다. 라디올러스의 기분을 다운시키고 싶지 않아서 굳이 ‘세레나드에 이렇게 해서까지 가야했는가’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휴리안이나 미카엘도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일 것이다. 그냥 라디올러스랑 차를 마시는 것 정도로도 충분히 즐거웠을 텐데. 그녀는 항상 뭘 해줘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약간 바보스러울 정도로 전력투구이다. 뭐, 그 점이 사랑스러운 것이지만.메디엘은 문 앞에 서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라디올러스와 눈이 마주치자 빙긋 웃어보였다. 그러자 그녀는 바로 만족스럽게 활짝 웃었다. 분홍빛 해안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았다.저렇게 웃어준다면야.왕자는 군말 없이 그녀의 뒤에 다가섰다. 라디올러스가 척 보기에도 긴장된 손놀림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천천히 문고리를 비틀어 반투명의 문을 열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모두들 눈을 질끈 감아야 했다.그들이 천천히 눈을 뜨자, 눈앞에 꿈에나 나올 법한 광경이 펼쳐졌다. 핑크빛 바다, 핑크빛 모래사장. 그리고 핑크빛 머리카락의 소녀.라디올러스가 표정에서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며 재빨리 문을 통과해 모래를 밟고 서 있었다.“와아! 굉장하다... 장난 아니네. 진짜 다 분홍색이에요!”정말 바다로 통하는 문을 만든 것을 확인하자, 휴리안이 메이드에게 라디올러스의 모자와 양산을 가져와 달라고 말했다. 미카엘은 활짝 웃으면서 라디올러스를 따라 해변으로 발을 디뎠다.“와! 라디, 여기에서 널 보니까 분홍 머리카락이 왠지 당연한 것 같아.”“그래? 나 여기서 살아야 되나...”“그래. 나도 여기서 살지 뭐.”메디엘이 질린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그들 사이를 막으며 중얼거렸다.“미카엘 공. 본인이 당연히 라디 양과 같이 사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미카엘이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신랄하게 대답했다.“남이사.”메디엘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남이사?? 이건 내가 왕자인 걸 신경 안 쓰는 정도가 아니지 않아요? 길게 말할 필요조차 못 느끼겠다는 당신의 진심이 너무 묻어 나와서 배로 기분 나쁘네요.”미카엘이 짜증을 내는 메디엘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라디올러스에게 칭얼거렸다.“라디. 왕자님은 사춘기 여자애처럼 매사에 너무 섬세해서 같이 있으면 피곤해.”메디엘이 미카엘의 곁에서 라디올러스를 떼어놓으려고 하며 투덜댔다.“당신은 사춘기 남자애처럼... 그냥 싫어요.”메이드에게서 모자와 양산을 받아서 온 휴리안이 다시 자연스럽게 메디엘과 라디올러스 사이에 끼어들었다. 휴리안이 온화하게 웃으며 라디올러스에게 챙이 넓은 모자를 씌어주었다.“라디, 레이디가 모자도 없이 밖에 나오려고 하면 어떡해. 햇빛도 강한데.”“어, 오빠, 고마워. 근데 여긴 어차피 평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다들 옷차림이 엄청 자유로운데?”그녀의 말에 남자들이 해변을 다시 둘러보았다. 해변은 명소답게 사람들이 잔뜩 있었는데, 라디올러스의 말처럼 옷차림은 프리 그 자체였다. 아가씨들은 무릎정도까지 밖에 안 오는 얇은 원피스 하나만 입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였고, 청년들은 물놀이를 하기 위해 웃통을 벗어던진 사람도 많았다.휴리안과 메디엘은 조금 당황하는 눈치였다. 정장차림에 조끼까지 챙겨 입은 그들이 오히려 눈에 띌 정도였다. 휴리안은 반 나체의 혈기넘치는 평민 청년들 때문에 여동생이 놀랄까봐 걱정이 되었다.“라, 라디. 여긴 뭐랄까 분위기가 너랑 생각보다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휴리안이 자기도 모르게 라디의 팔을 살짝 끌고선 원래 문이 있던 자리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녀를 다시 안전하고 세속의 더러움과 단절된 공작성의 응접실로 데려다 놓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그러나 라디올러스는 ‘에이.’라고 단번에 부정의 감탄사를 중얼거리곤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강한 햇빛에 점점이 반짝이던 문이 사라져버렸다. 그녀가 아깝게 왜 그러냐는 듯이 말했다.“오빠, 뭐가 어때서 그래. 그냥 예쁘기만 하구만.”“그렇지만.. 여긴... 뭐랄까... 사람들이 너무 자유롭다고 해야 하나...”“하하하 오빠는 좀 자유로울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그녀가 키득키득 웃으며 자신의 큰오빠를 올려다보았다. 언제 어느 때나 흐트럼하나 없는 그는 지금도 더운 기색 하나 없이 정장차림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메디엘도 이 포근한 분홍색과 달리 거칠고 야생적으로 바다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어색한 것 같았다. 그가 조금 빨개진 얼굴로 중얼거렸다.“라, 라디 양. 휴리안 공의 말씀이 맞아요. 라디 양 같은 레이디는 저런 걸 보시면...”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카엘이 보란 듯이 셔츠를 벗었다. 메디엘이 당황해서 외쳤다.“미, 미카엘 공!!! 정말 당신은!!”휴리안도 화들짝 놀라서 라디를 자신에게 기대게 하고 눈을 가렸다. 미카엘이 낄낄 웃었다.“천박한 저는 바다에서 어떻게 옷을 안 젖게 하고 놀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라디올러스도 자신의 눈을 가린 휴리안의 손을 잡으며 키득댔다.“맞아 오빠. 그리고 더워 죽겠는데 오빠도 조끼정도는 벗어.”그녀의 말에 휴리안까지 얼굴이 빨개져서 작게 외쳤다.“라디! 남자에게 ‘벗으라’느니 그런 말 하는 거 아냐!”라디올러스는 오빠의 손을 치우면서 그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는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대답했다.“다 벗으라는 것도 아닌데 오빠도 참.”미카엘이 라디올러스를 향해 생각났다는 듯이 물었다.“어? 라디. 근데 문을 없애버렸으니까 집에 갈땐 또 그 복잡한 마법진을 그리고 그래야 돼?”“아니, 손바닥에 저장해 놨어. 그냥 주문만 외우면 되니까 훨씬 쉬울 거야.”그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반 나체의 미카엘에게 왼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그녀의 말처럼 왼손에는 아까 보았던 마법진이 작게 축소되어 그려져 있었다.라디올러스 본인은 멀쩡한데 휴리안과 메디엘만 평민들의 차림에 대해 유난인 것 같아서 그들은 조금 머쓱해졌다.‘라디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 설마 군대에서 남자들의 이런 차림에 익숙해 진건가?’휴리안은 곧바로 다른 잔걱정으로 넘어갔다. 여린 여동생에게 난폭하고 버릇없는 남자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을지 짜증스럽다.그가 상념에 잠겨있을 동안 오빠의 품에서 벗어난 라디올러스는 신고 있던 구두를 벗었다. 메디엘이 놀라서 외쳤다.“라, 라디 양! 또 뭐하는 거에요!?”메디엘이 너무 과도하게 놀라서 라디올러스도 같이 놀라버렸다. 그녀가 얼떨떨하게 되물었다.“네, 네? 그냥 바닷물에 발이라도 담가 볼까 하고요...”“그 말씀은...그럼 지금 신고 계시는 그 스타킹도 벗겠다고 하시는 거에요?”“아? 예... 젖으면 귀찮아 지잖아요? 솔직히 엄청 덥기도 하고...”휴리안이 말릴 새도 없이 그녀는 반 스타킹 정도 길이의 양말을 벗었다. 이 더운 날 그것도 햇빛 쨍쨍한 해변에서 이걸 신고 있으라는 것은 거의 고문이다. 그럼에도 라디가 외간 남자들 앞에서 맨 발이라는 것이 쇼크인 휴리안은 허둥지둥했다. 그가 얼른 모래해변에서 한쪽 무릎은 바닥에 붙이고 한쪽 무릎은 세운 채 그녀의 발을 세운 무릎에 올려놓고 양말을 신기려 했다.그러나 라디올러스는 얼굴이 빨개져서 한사코 발을 휴리안의 무릎위에 올려놓지 않으려 했다. 휴리안은 간절하게 느껴질 정도로 부탁했다.“라디! 스타킹을 벗는 건 안 돼. 다시 신어야 해. 이리와.”라디올러스는 더욱 발그래 해져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데 그녀의 분위기가 그냥 더워서 양말을 신기 싫은 것 같진 않았다. 휴리안이 ‘왜 그래?’하는 표정으로 말없이 묻자, 그녀가 더듬 더듬 대답했다.“어...저기, 오빠. 내가 오빠 무릎에 발을 올려 놓는 건 오빠도 곤란할걸?”“왜?”“나 더워서 속바지 안 입었거든.”휴리안은 그녀를 나무라는 건지, 그저 너무 놀라워서 믿겨지지 않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표정으로 새빨개진 채 벌떡 일어났다. 반면 메디엘은 주저앉을 것처럼 휘청했다.미카엘은 청명하게 킬킬 웃으며 ‘아, 맞아 오늘 아침부터 더웠지.’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라디올러스가 뾰롱퉁한 얼굴로 모자를 만지작 거리며 말했다.“발정도 보이는 걸로 뭘 이렇게 호들갑이지..?”그녀가 모래의 까실함을 느끼며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다가 군인이 행진하듯이 발을 들어보였다. 그녀가 무덤덤하게 중얼댔다.“다들 복사뼈 정도에 잠 못 들어 할 혈기는 아니잖아요?”휴리안이 당황해하며 더듬 더듬 외쳤다.“무, 무슨! 그게 무슨 말이야 라디! 무슨 의미로 잠에 못 든다고?”“뭐... 이런 저런 혈기? 듣자하니 사춘기 남자들의 상상력은 정말 대단하더만? 그 정도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제품혁신을 했다면 다들 아이폰 정도는 만들....아, 아무것도 아냐 오빠.”메디엘이 진땀을 닦으며 애써 평정을 가장한 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볼이 발그스름한 모습이었다.“라, 라디 양. 무척 뭐랄까... 남성에 대해 통달한 듯한 말을 하시는 군요. 그렇지만.. 그... 밤에 잠 못든다거나... 혈기라거나... 그런 말은...라디 양이 하시기에 너무 거칠지 않나요.”라디올러스는 왕자의 말에 겸연쩍게 부끄러워 했다.“아, 그런가요? 이 정도 단어선택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줄이야... 죄송해요 가늠이 안돼서 그만...”그녀는 차분히 자신의 언사를 사과했지만 휴리안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이 정도 단어 선택’이라고? 라디! 뭘 어디까지 아는거야?”“어디까지 아냐니...? 모르는 게 수치지 아는 건 부끄러워하는 게 아냐.”그녀가 품위있는 미소를 지으며 넌지시 말하자 그녀의 오빠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미덥지 못하단 표정으로 핵심을 찔렀다.“너... 괜히 멋진 말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휴리안은 여전히 어설픈 말재간으론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 그녀는 들켰다는 표정으로 히히히 웃고선 미카엘을 이용해 말을 돌렸다.“와~ 그나저나 미카엘 몸 많이 좋아졌네. 운동 열심히 했나봐?”미카엘이 그녀의 시선에 만족스러워 하며 대답했다.“난 운동같이 고급스러운 일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아닌거 알잖아 라디. 그냥 ‘일’을 하다 보니 뭐...”그녀는 그의 몸에 자잘하게 난 흉터를 살펴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음... 언제나 그렇듯이 무슨 ‘일’을 하는 지는 묻지 않을 게. 다치지만 마.”“다치다니? 네가 보고 있는 흉터는 전부 13살 전에 난 거라고. 난 쉽게 다치지 않아. 마지막으로 다친 지가 언제 인지 기억도...아, 기억나네.”라디올러스가 ‘뭐야 너.’하는 표정으로 어이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쳐다보자, 미카엘은 씨익 웃으면서 자신의 왼쪽 쇄골을 문질렀다.“어떤 여자애가 내게 무지 깊은 상처를 냈었지 뭐야.”라디올러스는 그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부끄러워 하며 한 걸음 뒷걸음질 쳤다.“아, 아~ 걔? 나도 알지. 걔가 그건 항상 미안해 하고 있다고 전해 달래.”“어? 너도 걔 알아? 와~ 우연이네. 나 걔 무지 좋아했는데 3년 동안이나 못 봤었어.”미카엘이 조금 슬픈 눈을 했다. 그가 정말로 그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라디올러스에게 부탁했다.“그 애를 안다면 말야, 네가 대신 전해 줄래? 미안해 할 거 없다고. 이 흉터는 내 보물이라고 말야. 그리고 내가 너무 보고 싶어 했다고 전해줘.”라디올러스는 순간 미카엘의 그 안타까운 표정에 심장이 꽉 옥죄는 기분이 들어서 다급하게 그의 손을 잡았다.“미카엘~ 그렇게 쓸쓸한 얼굴 하지 말아줘. 여기에 있잖아!”미카엘은 그녀의 달래는 목소리에 금방 싱글벙글한 표정이 되어서 고개를 끄덕였다.“맞아! 그러니까 이제 부턴 내 장단에 좀 맞춰줘야겠어. 공주님.”메디엘이 만면에 심기가 불편하다는 기색을 내며 미카엘에게 핀잔을 줬다.“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시다니 엄청 치사하시네요. 게다가 라디 양을 그렇게 공주님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다니... 이미 정해진 계급이니까 공주님으론 못 만들겠고, 제가 금방 왕비님으로는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말이죠. 제게 맡기실래요?”미카엘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뭐래.”메디엘이 겨우 두 글자에 발끈해 했다.“‘남이사’에 이어서 ‘뭐래’? 뭐래 라고요? 점점 대답이 짧아지잖아요?!”“뭐.”“뭐??!?!?!? 지금 글자수 맞춰서 제 화를 돋구는 겁니까? 3.2.1 구조로?”3,2,1 카운트 다음에 남는 것은 제로밖에 없기에 미카엘은 가볍게 메디엘을 무시했다. 메디엘은 원래의 페이스로 돌아오기 위해 또 심호흡을 해야했다. 그 사이 미카엘은 라디올러스의 손을 꼭 잡고서 천진난만하게 말했다.“이왕 벗어 재꼈으면 물에 들어가 줘야지! 그렇지? 라디.”“응, 바다까지 왔으니까! 발은 적셔야지!”둘은 아이처럼 웃으면서 바다를 향해 뛰었다. 휴리안과 메디엘은 둘의 야성적인 태도에 놀라서 얼른 뒤를 쫒았다. 미카엘의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라디올러슨는 약간 바다로 끌려 들어가다시피 했다.처음으로 담가본 바닷물은 눈으로 보았을 때만큼이나 차가웠다. 투명한 빛깔에 어울리는 청량감이었다. 라디올러스가 기쁨과 약간의 비명을 섞어 소리질렀다.“으와아! 차가워! 분홍색 물인데 차가우니까 좀 이상해!”미카엘이 키득키득 대며 라디올러스의 반응을 관람했다. 그도 차갑긴 했는지 라디올러스와 잡고 있던 손을 더욱 꽉 잡았다.휴리안과 메디엘은 그 모습이 정말이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따라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둘 다 바다로 따라 들어왔다. 둘의 바짓단이 사정없이 젖어 들어갔다. 심지어 둘은 질 좋은 구두를 신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다.그러나 휴리안은 그딴 게 무슨 대수냐는 태도로 미카엘과 라디올러스가 잡고 있던 손을 끊었다. 그가 여동생을 미카엘에게서 떨어트려 놓으며 온화하게 말했다.“미카엘 공도 참 짓궂기도 하시지... 제 연약하고 가녀린 여동생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시다니요. 라디가 감기라도 걸리면 전...”그가 ‘정말 안타깝게도 당신을 죽이는 수밖엔 없겠죠.’라고 입으로 채 못다한 말을 눈으로 전했다. 미카엘은 기꺼이 그의 경고를 수용해서 똑같이 눈으로 대답했다. ‘그러던가.’ 둘다 싱글 싱글 웃는 낯이 무서웠다.둘이 그렇게 기싸움을 하는 동안, 큰 파도에 메디엘은 신을 신고 바다에 들어온 것이 어색해서 조금 비틀거렸다. 세레나드의 바다는 겉보기에는 마냥 몽환적이고 평화로운 것에 비해 의외로 파도도 세고, 깊이도 깊었다.라디올러스가 왕자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며 말했다.“우억! 왕자님! 구두를 신고 들어오시면 어떡해요?”“당신의 오빠도 마찬가지랍니다.”메디엘이 투덜거리며 말했다. 그리곤 부축까진 필요 없다는 듯이 자신을 붙잡은 그녀의 손을 옮겨 평범한 팔짱으로 만들었다. 라디올러스는 당황해하며 일단 그와 다시 해변으로 나왔다.휴리안과 메디엘의 구두와 바지가 바닷물에 엉망이 되었다. 그녀가 어이없어하며 그들이 신을 벗는 것을 도우려 했다. 가죽이 물을 먹어 잘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디올러스가 먼저 모래사장에 앉은 메디엘의 한쪽 신에 손을 대자, 휴리안이 부드럽게 여동생을 불렀다.“라디, 외간남자의 옷을 벗기려 하다니. 그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네.”여전히 관습이나 매너에 꽉 막힌 그의 말이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오빠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라디올러스는 얌전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작가의 일원으로서, 마냥 제멋대로 구는 것은 안 될 말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번엔 좀 조신하게 있어볼까 하고 조용히 그들이 옷을 정리하는 것을 기다리려 했다. 그러자 휴리안이 빙긋 웃으며 그녀에게 손짓했다.“라디, 나 좀 도와줘.”“엥.”그가 평소답지 않게, 심지어 그녀에게 어리광을 피운다고까지 느껴질 정도의 태도로 말했다.“잘 안 벗겨져.”메디엘이 기가 막혀서 휴리안을 향해 말했다.“방금은 외간 남자의 옷을 벗기는 건 안될 말이라면서요...휴리안 공...”휴리안은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왕자를 바라보았다.“네. 저는 외간 남자가 아니잖아요?”라디올러스가 키득 키득 웃으며 오빠의 말에 동의했다.“하긴, 맞는 말이네.”그녀가 휴리안의 옆에 앉아서 그가 분투하고 있는 구두의 다른 한쪽 구두 끈을 풀었다. 그녀가 느긋하게 구두끈을 느슨하게 하며 중얼거렸다.“근데, 오빠. 오빠는 이렇게 숙녀분들이 많은 곳에서 맨발 드러내도 괜찮겠어?”휴리안이 한숨을 쉬며 풀죽은 목소리를 꾸며냈다.“휴... 어쩌겠어. 우리 아가씨는 내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으시고... 나한테도 별로 신경 안써주시는데. 이건 내 작은 반항이야.”그의 너스레에 라디올러스가 밝게 웃었다.“하하하 오빠, 오빠는 가끔씩 엄청 귀엽게 말하더라? 하하하 웃긴다.”“이게 귀여워? 아니... 내가 귀여워?”휴리안은 조금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녀의 웃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동생은 ‘물론이지?’하는 표정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오빠는 귀엽지~ 엄청 귀엽지~”라디올러스는 괴상한 장단으로 노래를 부르듯이 ‘귀여워’로 타령을 하며 그의 구두를 벗겼다. ‘와, 벗겼다. 양말도 벗겨줘?’ 라고 그녀가 물었다. 그러나 그 말엔 대답 않고, 휴리안은 순진하게 볼을 붉히며 대답했다.“이렇게 귀여운 내가 너를 또 귀엽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귀여움 제곱이네.”말도 안 되는 논리일뿐더러, 그다지 어른스럽지 않은 대화내용이었건만 그는 꽤 멋들어지게 웃었다. 소년처럼 얼굴을 불그스름하게 만들고 키득키득 웃는 휴리안의 얼굴을 넋 놓고 바라보다가 라디올러스는 흠칫 놀랐다.방금 또 심장이 불길하게 뛰었다.그녀는 고개를 가로로 휙휙 털었다. 라디올러스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추슬러야만 했다.‘안되지, 안 돼. 또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건 절대 안 될 말이야.’그 때의 그 우울한 상황을 또 겪고 싶은 마음은 1g도 없다. 그녀는 자신의 굳은 결심을 확인하고 그의 양말을 벗기는데 집중하는 척 했다. 라디올러스는 하하 웃으며 대답했다.“아유, 오빠도 참? 이게 무슨 부끄러운 소리래?”다른 사람들이 옷을 정돈하는 동안 하얀 거품이 이는 파도를 의미 없이 발로 휘저어 보던 미카엘이 기다림에 질렸다는 듯이 다가와서 라디올러스의 말에 동의했다.“맞아요. 이게 무슨 소리래? 그 귀여운 여동생한테 양말 벗기는 거나 시키고 있는 주제...가 아니라 시키고 있으시면서 말이에요.”그가 분명 의도한 말실수를 고치면서 쭈그리고 있는 라디의 등에 엎히는 시늉을 했다. 그가 지루한 것처럼 어리광을 부렸다.“라~디이~ 바다에선 어떻게 노는 거야? 빨리 같이 놀아.”“글쎄? 물에 들어가서 파도를 느끼며 둥둥 떠있는 거 아냐?”“??그게 뭐지? 그건 그냥 익사체 아냐?”그녀는 미카엘의 꽤 진지하게 의문인 듯 한 대답에 킬킬 웃었다. 마침내 휴리안은 찝찝하게 젖은 구두와 양말을 모두 벗고 젖은 바짓단도 걷어 올려서 말끔한 상태가 되었다. 라디올러스가 오빠가 걷어올린 한쪽 단에 맞춰서 다른쪽도 깔끔하게 걷어 올리며 중얼거렸다.“오, 좋아. 제법 예쁘게 접었어. 이 정도면 그냥 라이트한 댄디 스타일이라고. 오빠? 어때? 사춘기 이후에 밖에서 7부인 바지를 입는 건 거의 처음 아냐? 감상을 말해봐.”휴리안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그가 쭈그리고 앉듯이 자신의 무릎을 자신쪽으로 당기며 작게 중얼거렸다.“부, 부끄러운데....”생각보다도 여린 반응에 여동생이 놀리는 것처럼 웃었다.“하하하하 오빠 오늘 유난히 귀엽네. 아, 귀여움 제곱인 라디올러스가 말한 거니까 오빠는 귀여움 세제곱이야. 자신감을 가져, 귀여움 마스터 씨.”미카엘은 남매가 둘이서만 사이좋은 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등에 몸을 기대고 있는 상태였기에, 라디올러스를 뒤에서 껴안듯이 꽉 안으며 투덜댔다.“라디, 아까는 그게 무슨 부끄러운 소리냐고 핀잔줬던 주제에.”버릇없이 공작가 영애에게 스킨쉽을 해대는 미카엘을 보다 못해서, 메디엘이 겨우 벗어낸 구두를 던졌다.“당신은 미카엘 공 주제에.”으르렁 대는 재규어처럼 왕자가 사납게 말했다. 미카엘은 보지도 않고 날아오는 구두를 잡아챈 다음 태연하게 라디올러스에게 고자질을 했다.“라디, 이것봐. 왕자님이 너한테 지금 구두 던졌다?”메디엘이 온 몸으로 그 말을 부정하며 정정했다.“너! 가 아니라, 당신에게 던진 거예요!”라디올러스는 자리에서 읏차 하고 일어나며 왕자에게 다가가며 말했다.“하하 미카엘, 왕자님은 레이디에게 구두를 던지거나 하지 않아. .... 그리고 뭐... 좀 던지면 어때. 왕자님인데.”왕자는 큰 배신을 당한 듯 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라디올러스를 올려다보았다.“...안 던져요.”“농담이에요.”그녀는 키득대며 그의 발치에 쭈그려 앉았다. 메디엘은 혼자서 젖은 신발을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한쪽밖에 다 벗지 못한 상태였다. 그녀가 도와주려는 모양인지 그에게 손을 뻗자, 메디엘이 시선을 피하며 중얼댔다.“아, 괜찮습니다. 라디 양. 휴리안 공의 말씀처럼 레이디에게 옷 벗는걸 도와달라고 부탁드릴 순 없죠.”그는 좀 쑥스러운 모양인지 다리도 움츠러트리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음... 그래요?’하고선 대답은 했지만 손을 거두진 않고, 그의 바짓단을 잡았다. 메디엘이 빨개져서 말했다.“왜, 왜 그런 곳에 손을 대고 그러시는 거예요?!”“어? 네? 벗기지는 않을 거예요.”그의 예상치 못했던 반응에 라디올러스는 덩달아 놀라서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왕자는 더욱 빨개져서 말을 더듬었다.“다, 당연하죠!!! 그대가 해변가에서 제 바지를 벗겨서 어따 써먹겠어요?!?!”“네에?”둘의 대화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미카엘이 곁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 보며 심드렁하게 중얼댔다.“왜, 써먹을 일이 없어요? 왕자님. 그냥 왕자님 놀릴려고 바지 벗길 수도 있지.”휴리안이 이딴 저질스런 대화를 못들어주겠다는 듯이 자신의 여동생을 일으켰다. 라디올러스는 당황스러워 하며 오빠에게 변명했다.“오빠! 난 정말 왕자님의 바지를 벗기려 한게 아냐. 그냥 바짓단을 걷어주려고 한 거였어.”“...나도 알아 라디... 진정해.”그는 작게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토닥였다. 그리곤 덧붙여 중얼댔다.“그래도 내 여동생이 남의 발치에서 쭈그려 앉아있는 건 보기 딱하니까 그만두자꾸나.”“어... 그래도 오빠는 도와줬는데 왕자님만 안 도와주는 게 뭣해서 그랬어.”그녀가 안정을 되찾으며 그렇게 말하자, 미카엘이 쾌할하게 말하며 해답을 냈다.“나도 라디가 레몬 왕자님에게 봉사하는 건 보기 싫으니까! 내가 도와주지 뭐!”메디엘이 질색하면서 거절의 말을 했다.“아니! 제가 뭐, 양말도 못벗는 앱니까? 제가 혼자 하면 되는 데 왜들 이러시는 거죠?”그러나 미카엘은 이게 좋은 놀림거리라고 생각되는 모양이었다. 그가 다정한 표정으로 메디엘에게 다가가며 말했다.“왕자님 양말 젖으셨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울지말고요.”“진짜 참수형이 이렇게 정감가는 단어로 느껴진 적이 없었는데.”메디엘이 경멸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투덜댔다.라디올러스는 마치 고양이들끼리 싸우는 모습인듯한 그들을 보여 작게 하하 웃다가 슬슬 해변에서 좀 더 떨어진 모래사장으로 걸어올라갔다. 휴리안이 모래를 털며 일어나 그녀의 뒤를 따르며 물었다.“어? 라디. 어디가?”“어, 좀 자볼까 하고.”“응? 돌아간다고?”“아니? 벌써 돌아가는 건 너무 이르지 않아? 오빠.”그녀는 ‘으챠’하고 조금 애늙은이 같은 소릴 내며 모래 바닥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는 그대로 모래 바닥에 누워버렸다.휴리안이 와일드한 그녀의 드러누움에 놀라 얼른 조끼를 벗어 그녀의 머리 밑에 받쳐주었다. 그녀가 갑자기 바닥에 누워버리자, 메디엘과 미카엘도 놀라서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휴리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다.“라디, 어디 안 좋아? 어지러워?”라디올러스는 그게 무슨소리냐는 듯이 팔을 휘휘 내저으며 그의 걱정을 일축했다.“아아니? 그냥 졸려서 낮잠좀 잘까하고. 하하 오빠 드디어 조끼 벗는 구나. 지금까지 안 더웠어?”메디엘이 그제서야 안심이라는 표정으로 바꾸며 투덜댔다.“아, 아무데서나 그렇게 누우시면 어떡해요. 공작가 영애분이. 드레스 차림이시면서.”“헉! 맞다. 나 속바지 안 입었었지? 긴 치마니까 안보이겠지? 오빠, 안 보이지?”그녀가 새삼 부끄럽다는 얼굴로 그렇게 묻자 휴리안이 크게 당황해 했다.“뭐, 뭐가 안 보이냐는 거야 라디! 왕자님이랑 미카엘 공도 계신데!....아무튼 안보여...”그가 빨개져서 마지못해 한 대답을 듣고나서야 라디올러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그녀가 강한 햇빛이 눈부신지 모자로 얼굴을 가리자, 그녀의 오빠는 양산을 펼쳐 그녀에게 그림자를 만들어 주었다.미카엘이 그녀가 누운 옆자리에 털썩 앉아서 툭하고 말을 걸었다.“라디. 정말 자게? 이렇게 햇빛이 강하고 더운데.”“어엉~ 원래 휴가철에 아빠는 애들 기차게 바다에 데려다 놓고 하루종일 잠만 자는게 본업이야.”그녀는 정말 졸린듯 했다. 벌써 약간 늘어지는 말투였다.메디엘이 어이없다는 듯이 핀잔을 주었다.“우리를 정말 바다에 미친 어린 아이들인 것처럼 말하시네요.”미카엘이 왠일로 왕자의 말에 격한 동의를 표했다.“라디! 정말 우리가 물장구 치러 바다에 오자고 한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거지?”“엉?...바다에 물장구 치러오지 그럼?....”모자로 얼굴을 가린 그녀는 이미 눈을 감고 있을것이 뻔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정말 피곤해 보였기 때문에 미카엘은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듯이 항의했다.“자는 거 방해는 못하겠지만...음...근데 네가 자버리면 할 게 없는데.”“왕자님이랑 오빠랑 재밌게 놀고 있으면 되지..”“이분들이랑 놀으라고?”미카엘은 무표정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셋이서 하하하 웃으며 바다에서 서로 물방울을 튀기는 상상을 해 보았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미카엘 뿐만 아니라 왕자님이나 휴리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다들 무표정인채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안색이 어두워 졌다.미카엘이 작지만 강하게 유감인 말을 토했다.“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음....뭐 별거 아닌 목표라도 정한 다음에 놀면 재밌을 걸? 애기들 놀듯이.”“라디, 그러니까 말이지.. 네가 자꾸 까먹는 것 같은데 내 나이가 이제 스물 하나야. 공식적으론 스물이고.”그녀가 피식 웃었다.“애기네 애기야.”“야. 열 다섯 살 주제에.”“으하아암... 아무튼... 뭐 엄청 큰 모래성을 목표로 해보던지... 아니면 좀더 건설적으로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에 도전해봐.”메디엘이 이젠 포기한 말투로 한숨을 섞어 말했다.“맨손 물고기 잡기라...어디 사는 원시 부족인가요?”라디올러스는 한참동안 말이 없다가 작게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음...암튼 좀 있다 깨워주세요...”순식간에 장성한 청년 3명이 어색함을 숨길 수 없어하며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애초에 라디올러스라는 공유기가 없다면 아무런 접점이 없는 세명이었다.휴리안은 그의 여동생 잠들자마자 아무것에도 흥미 없다는 듯 평소의 옅은 미소를 띤 채 그녀의 옆에 털썩 앉았다.무릎을 세워 팔을 얹고서 바다를 바라보는 그 모습은 언뜻보면 아름다운 바다를 좋아해서 감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건 분명하게 아무 것에도 관심쓰기 싫다는 것이다.그 자로 잰듯한 아름다운 미소마저 섣불리 선을 넘어서 오지 않게끔 세워둔 견고한 담이었다.메디엘이나 미카엘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흥미를 보이지 않는 류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둘이 정확히 동시에 모래사장에서 몸을 일으키자, 메디엘은 기분나쁘다는 듯이 미카엘에게 말을 걸고 말았다.“뭐죠? 따라오지 마세요.”“하하 원래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 자의식 과잉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걱정 마세요.”미카엘이 자애로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메디엘도 온화한 왕자님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다.“정말이지 당신이 다른 귀족들 앞에서도 이런식으로 대할까봐 걱정스러워요. 화라도 입으면 어떡합니까.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황궁 감옥에 쳐 넣기로 하죠. 나다니지 못하게.”둘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절친한 친구처럼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지 않고선 하하 웃으며 바다로 걸어들어갔다.미카엘이 밝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아 뭐 기분 나쁘게 같은 물에 발을 담그게 됐네.”“...소재가 딸리는 지 점점 노골적으로 깐죽거리는 것 같으시네요.”“미역 말한 거에요. 저 미역. 저 기분 나쁘게 왕이라도 된 양 능글맞게 바다 밑을 활보하고 다니는 미역 말입니다.”“하하하하하 저 기분 나쁘게 발에 엉키는 미역에 비유를 하시다니.....창의적으로 욕을 하라니까 정말 찰지게 하시네요. 당신이야 말로 이 찝질하게 물에 떠다니는 이 톳정도의 존재이십니다.”둘은 또 호쾌하게 얼굴을 마주하고 껄껄 웃어댔다. 휴리안은 멍하게 그들을 구경하며 중얼거렸다.“정말 사이 좋네.”마법에 미숙해서 몇 번이고 이동 마법을 시도 하는 바람에 라디올러스는 컨디션이 조금 나빠졌다. 때문에 빠르게 잠에 빠져들었고, 눈을 감자마자 일어나게 된 것만 같이 푹 자버렸다. 주위가 웅성웅성하고 이상하게 어수선해서 그녀는 부스스 얼굴을 가리던 모자를 치웠다.“음...??? 무슨 일이야?”어느새 청년들은 그녀가 누워 있는 자리 양 옆에 쪼르르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미카엘이 별거 아니라는 듯 쾌활하게 말했다.“어? 라디 깼어? 와~ 오래 자네... 아무튼 아무 것도 아냐. 누가 바다에 빠졌었나봐.”휴리안이 멍하게 잠을 떨치려 하는 여동생의 앞머리를 정돈해 주면서 덧붙여 설명했다.“정확히 말하면, 누가 빠졌다가 방금 구조됐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라디올러스는 기지개를 쭈욱 피며 중얼거렸다.“아아~ 뭐야 그래? 정말 별거 아니...”그녀가 벌떡 윗몸을 일으켰다.“그게 왜 별게 아냐?!”메디엘이 어깨를 으쓱하며 동의했다.“그러게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역시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 오늘 라디올러스 양은 너무 이상해.메디엘은 다시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았다. 덧없는 표정.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파리한 안색. 게다가 그녀가 좋아하는 찐득한 초코케이크가 나왔는데도 마지못해 한입 입안에 덜어넣었을 뿐 다시 입에 대려하지 않았다."라디 양.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그가 나지막히, 그러나 주의깊은 눈으로 그렇게 묻자 분홍머리의 소녀는 시선만을 바꾸어 그를 바라보았다. 아, 이 작은 움직임 마저,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았다. 훌륭한 장인이 만든 인형이 살짝 움직였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하지만 그게 문제다. 라디 양이 인형 같다고? 라디 양은 인형이라기 보단, 그 인형을 가지고 노는 소녀도 아니고 그 인형을 뺏어 달아나는 소년쯤 되는 맛이 있어야 한다.메디엘은 아무리 자상하게 물어도 대답하지않는 그녀의 태도를 참지 못하고 이내 위협적인 목소리를 냈다."레이디. 이번에도 답하지 않으면 그냥 나와 있는 게 짜증스러워 그런 태도인 것으로 생각하겠어. 라디 양. 정말 아픈데가 없는 거야?"라디올러스는 결국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애처로운 한숨을 쉬었다."아아....정말 아픈게 아니에요. 왕자님. 무례해서...죄송해요."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아픈게 아니라 말한다면 정말 아픈건 아닌가 보다. 메디엘은 일단 그것에 안도하며 차를 한모금 마셨다. 휴우 하고 숨을 밀어쉰 다음 눈앞의 그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을 다시 시작했다. 그럼 또 무슨 문제인 걸까 이 사랑스러운 사람은."그럼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아뇨 딱히 고민도 없어요. 정말 괜찮다니까요?...오늘따라 답지않게 상냥한 컨셉을 잡으시네..."...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행동거지나 목소리 하나하나가 유난히 청초한 라디 양이었지만 그 촌철살인으로 딴지를 거는 모습은 평소와 같았다. 저렇게 나른한 목소리로 깐죽거리니까 더욱 전투의욕을 불러일으켰다.메디엘이 일단 반박하려던 말을 삼키고 조금 나른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 라디올러스는 긴장했다. 아, 나왔다. 재규어, 뭔가 심술을 부리고 싶은가봐.왕자가 깊은 바다색 눈동자로 그녀를 압도하며 씨익 웃었다."그대가 그렇게나 평소와 같다고 주장하시니 저는 믿을 수 밖에. 그렇다면 언제나와 같이 이 케이크를 맛있게 먹어주세요. 제가 안심할 수 있게."라디올러스는 그의 기세에 지고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 하하. 그럼요 그럼요. 와아 제가 좋아하는 거잖아요."라고 어색하게 웃으며 포크로 케이크를 푸욱 떴다.진한 초코가 잔뜩 묻어나는 케이크를 입안에 넣자, 강한 단맛이 뇌를 자극했다. 무척이나 좋아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다지 먹고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아아 숨쉬기 힘들다.라디올러스는 삼키기 힘들어 한참이나 입안을 우물거리다가 메디엘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가 예쁘게 웃으며 자신이 먹는 모습을 뚫어져라 보고있었다. 그의 얼굴에 대문짝만하게 써있었다. '먹고싶지 않으면 왜 먹고 싶지 않은지 말하면 되잖아. 자, 어서 말해.'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겨우 케이크 조각 하나정도야 그냥 먹어치울 수 있을 것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케이크에 포크를 한 번 더 가져다 대자 메디엘은 하아...하고 한숨을 쉬었다. '정말 고집 세다니까?'라는 뜻이 들어있었다.항상 오만한 태도의 메디엘이지만 그녀에겐 어쩔 수 없이 무르게 되는 지라 왕자는 그녀가 꾸역 꾸역 먹고있는 케이크 접시를 살짝 자신의 쪽으로 당겼다."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을 필요까진 없어요 라디 양."그의 한 수 접어준다는 듯한 다정한 음색에 라디올러스는 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왕자님이 이렇게 상냥하게 대해주시다니... 혹시 케이크에 독넣으셨나요? 전 방금 치사량 만큼 먹은거고요?"메디엘은 눈썹을 꿈틀거렸다. 상냥하게 대하면 그냥 보통 여자들 처럼 '감사합니다.'하고 웃어주면 좋을 것을. 그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빈정거렸다."아, 그러네요. 방금 딱 죽기 좋을 정도로 드셨으니까 이제 그만 드셔도 돼요. 미카엘 공에게도 먹여야 하니까 그만 드십시오."그는 라디올러스가 또다시 재기발랄하게 농담을 맞받아치기를 기다렸다. 라디올러스는 한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렸다. 뭐지? 죽는 시늉이라도 하려는 건가? 그는 소녀를 시니컬한 표정으로 내려다 보았다.그러나 라디올러스의 얼굴은 순식간에 정말 핏기가 하나도 없어졌다. 메디엘이 깜짝 놀라 외쳤다."뭐, 뭐지요? 전 진짜 독같은 거 안 넣었어요! 자,자객인가? 정말 독이 들어있던 겁니까!?"그가 다급하게 그녀의 곁으로 가 휘청거리는 그녀를 부축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서 식은땀이 났다. 오, 안 돼. 이럴수가, 이런 일이!메디엘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도움을 외치려 했다.그때 라디올러스가 가냘프게 메디엘에게 부탁했다."왕자님... 못 참겠어요.""거, 걱정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지금 당장 의원을!""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벗겨줘요.""네, 그러니까 바로 벗겨...네?!"메디엘이 화들짝 놀라 그녀의 얼굴을 홱 돌아봤다. 라디올러스는 힘없이 자신에게 몸을 의지해 안겨있었다. 그녀가 눈물이 그렁 그렁 맺힌 눈으로 숨을 몰아쉬며 애원했다."메디엘...왕자님...빨리 좀... "메디엘이 믿기지 않는 얼굴로 더듬거렸다."뭘요? 뭘 부탁하시는 거에요 라디 양.. 죄송한데 저... 지금 '벗겨달라'로 잘못들어서..."라디올러스는 움찔거리는 손을 들어 올려 메디엘의 가슴팍 셔츠를 잡아쥐곤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여전히 숨을 몰아 쉬는 모습이었다."그 말이..맞아요...이것 좀 벗겨..주세요."그녀가 벗겨달라며 손끝으로 가리킨 것은 아무리 봐도 자신의 드레스였다.메디엘은 단번에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다. 맙소사. 자기도 모르게 주변을 살폈다. 응접실이었다! 단 둘뿐이긴 하지만. 맙소사. 맙소사.메디엘이 곤혹스러운 눈빛으로 품안의 그녀를 내려다 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하지만... 응접실... 응접실에서... 그대에게 험한 짓을 할 수는..."라디올러스는 거의 울음을 터트리는 것 처럼 눈을 질끈 감고는 외쳤다."안돼요! 더 이상 못참겠어요. 토할 것 같단 말이에요."메디엘은 그녀의 '더 이상 못참겠어요.'에 자신도 눈을 질끈 감고 그녀를 꽉 안았다가 '토할 것 같아요'라고 이어지는 말에 바보같은 목소리로 '네?'하고 되 묻고 말았다.라디올러스가 헐떡거렸다."수, 숨을 못쉬겠어요...코르셋...코르셋..."메디엘은 멍하게 생각했다.'아, 그래. 결국 이런 흐름일 줄 알았어.'그러나 그녀가 정말 다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메디엘은 지체할 것 없이 일단 옷을 벗겨보기로 했다.위급상황인 것을 아는 데도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라, 라디올러스양 코, 코르셋 벗겨야 하니까....드레스도 벗깁니다?""빨리!"라디올러스는 이제 거의 화를 냈다. 메디엘은 볼이 빨개져선, 입을 꾹 다물었다. 최상급 수줍음의 표시였다.그러나, 여성의 의복을 벗겨본 경험이 없는 메디엘로서는,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다."어떻게 벗기라는 거에요!?""꺄악...차라리 찢어버려요...""으악, 찢으라고요? 아 찾았다. 이건가? 이게 단추인가?"깔끔한 겉모습을 위해 단추여밈을 숨겨놓은 것이 문제였다. 메디엘은 옷의 결 사이로 자그마한 단추들이 줄지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풀어나갔다. 등쪽의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갈 때 마다, 그녀의 등쪽 맨살이나, 속옷이 보여서 화끈거렸다.라디양이 숨을 못쉬겠다는데 야한 기분이 드는 자신이 천박하게 느껴져서 단추를 푸는 손에 집중해야했다.드레스의 상의를 풀어헤치자, 여성들이 드레스 속에 입는 속옷과 그 위의 꼭 옭매어져 있는 코르셋이 들어났다. 사실 라디올러스는 잘 입지 않지만 일반 부인들의 훅 파져 있는 드레스와 비교하면, 노출의 정도는 별거 아니었다. 그러나 대상이 라디 양이라는 것과, 여성의 속옷을 처음 본다는 사실이 메디엘은 계속해서 수줍게 하고 있었다.코르셋의 끈들은 정교하고 세세하게 묶여져 있어서 또다시 메디엘을 당황케 했다. 살짝 헤멨지만 그래도 무리없이 풀 수 있었다."풀린다, 거의 다 풀었어요....됐다!"겨우 끈들을 느슨하게 만들어, 그가 재빨리 코르셋의 틈을 벌렸다.라디올러스는 '후와!..'하고 숨을 크게 들이켜며 지친 것처럼 메디엘에게 기댔다."살았다...감사해요. 왕자님..."눈에 띄게 좋아진 표정에 메디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뭘요. 다행이네요 라디 양."한동안 그렇게 왕자에게 녹초가 된 몸을 맡기고 쉬던 라디올러스는 퍼뜩 상황을 둘러보았다.지금 왕자와 단 둘이 바닥에 주저앉아 거의 껴안기다시피 하고 있다. 옷을 풀어 헤친 채로!!!갑자기 머리에 확 열이 오른 라디올러스는 물위로 내쳐진 물고기처럼 파닥거리며 윗 옷을 여몄다. '으아아..!'하며 그녀가 새삼스레 부끄러워하자 메디엘도 헛기침을 하며 벌떡 일어나 벽을 보고 섰다. 그녀가 옷을 재정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다.그러나 좀 느슨해지긴 했지만 코르셋의 끈들은 여전히 견고하게 묶여있는 터라 벗어던지는 것도 힘들어서 결국 메디엘이 다시 도와줘야 했다.라디올러스는 "으아...부끄러워라! 남사스러워라!"를 연발했다. 왕자는 묵묵히 그녀의 코르셋을 벗기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중얼댔다."그만해요. 더 부끄러우니까."그제서야 라디올러스는 빨개진 귀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거렸다.겨우겨우 악마같은 코르셋에서 벗어난 라디올러스의 드레스는 물론 또 메디엘이 여며줘야 했다. 왜냐하면 등쪽에 자잘히 박힌 단추였으니까!메디엘은 왠지 이러고있으니까 그녀의 남편이라도 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살짝 앞으로 넘겨주며 말없이 단추를 잠갔다. 목덜미가 하얗고 가느다랗다. 여기에 입을 맞추면 그녀는 분명 깜짝놀라 아연실색한 얼굴로 날 바라보겠지.왕자는 망설이는 손을 잠깐 멈췄다가, 마지막 단추를 잠궜다.모두 잠궜다는 것을 그녀도 알텐데,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뒤돌아 볼 생각을 안하고 있었다. 분명 부끄러워서 자신을 어떻게 봐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태도 였다.메디엘은 그녀의 빨개진 귀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귀를 만져보았다. 자신의 귀도 아직 뜨거웠다. 그는 태연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쓰며 다시 의자에 앉았다.태연한 태도여야지 그녀가 덜 창피할 것이다."내 이럴 줄 알았어. 갑자기 무슨 코르셋을 하셨어요. 원래는 안하지 않았어요?"라디올러스는 그의 핀잔에 머뭇머뭇 뒤를 돌아서 의자에 앉았다. 가엽게도 여전히 새빨갰다. 그녀가 풀죽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오랜만에 화, 황궁에 가는 거니까....."메디엘의 그녀의 예상치 못했던 대답에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네? 황궁에 가는 거라서 코르셋을 입었다고요?"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메디엘은 잠깐 멍해졌다. 그가 상황을 정리해 보려는 듯 입을 열었다."그러니까 그 말은... 황궁에 가는 게 특별한 거라서 코르셋을 입어봤다는 말로 들리는 데요.""저번에 무도회에서 보니까 다들 예쁘고 날씬해서 다들 코르셋 정도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오랜만에 왕자님 보러 가는 거니까...음...한 번 해봤는 데 왕자님이 벗기시게 될 줄이야."그녀의 마지막말에 메디엘은 얼굴에 주먹이라도 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그리곤 하하하하 하고 단번에 기분이 좋아진 것처럼 웃었다.유쾌하다. 그녀가 숨쉬는 게 곤란할 정도로 허리를 조여매고 나를 만나러 왔다. 예뻐보이고 싶어서. 게다가 전혀 나쁘지 않았다. 잠시뿐이었지만 그녀의 남편이 된 기분이었다. 아아. 정말, 남편인 것 같았다. 그녀의.라디올러스는 그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비웃는 것으로 착각했는지 변명했다."그, 그래도 코르셋을 하니까 확실히 예뻐보이지 않았어요?""하하 라디 양. 무리해서 그런 것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코르셋 안 해도 충분히 예쁜 걸요.""아, 하지만... 너무 욕심부려서 꽉 조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메디엘은 식어버린 차를 모두 마신 후에 웃으며 응수했다."안하고 지금 처럼 밝은 모습이신게 더 좋대도...."라디올러스는 턱을 괴고 한숨을 푹 쉬며 후회했다."아, 휴리안 오빠가 조여주면서도 이건 너무 심한거 아니냐고 계속 물었었는데... 그때 그만 둘 걸."메디엘은 컵을 탁 소리가 나게 탁자에 내려 놓았다. 그가 서늘한 표정으로 되물었다."코르셋...휴리안 공이 조여주셨습니까."갑자기 박력넘치는 메디엘의 태도에 라디올러스는 고개를 주춤주춤 끄덕였다."그야... 남자 힘이 더 세잖아요. 베라는 영 힘이 없는 걸요.""아. 그래서 휴리안 공이.""네. 제 응석에 따라 있는 힘껏. 자신도 처음 조여 본다고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고 몇번이고 물었었는데. 역시 무리였네요. 이 정도 강도는."메디엘은 탁자에 고개를 힘없이 박아버렸다. 그가 예법이고 뭐고 탁자에 엎드린채로 한숨을 쉬었다.'아아 진짜 남편 노릇을 한 사람은 휴리안 공이었던 건가.'아침에 부인의 코르셋을 조여주는 자상한 남편이라... 젠장 휴리안 공... 팔 걷어가며 조여줬다 이거지? 코르셋 차림도 자연스럽게 보여가며...젠장 부럽다 오빠 역할.그가 '아아~ 맥 빠져...'하고 웅얼거리다가 퍼뜩 몸을 일으켰다.'아니지. 벗기는 거랑 입히는 건 다르지.'자신때문에 피곤해 졌나 싶어서 메디엘을 살펴보던 라디올러스는 갑자기 일어나 자신을 요염하게 바라보는 그에게 당황했다."왜, 왜그러세요 왕자님.""아니, 다음에 저 없는 새에 또 라디양이 코르셋때문에 쓰러지면 어쩌나 싶어서요.""그런거 치고 너무 신나 보이시는데요..."메디엘은 그녀의 말이 안들리는 것처럼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 끝을 희롱했다.눈에 띄게 기분좋아진 모습이었다. 그가 콧노래를 섞어 마음껏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다가 귓가에 속삭였다."라디양, 집으로 돌아가서 휴리안 공에게 오늘 있었던 코르셋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일러주세요. "그녀가 그정도만 말해도 머리좋은 휴리안공은 금방 알아차리시겠지. '벗긴 건 나라고.'메디엘이 천사처럼 후후 웃었다. 라디올러스가 떠난 이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미카엘은 습관처럼 그날의 이별을 떠올려보곤 했다.'떠나는 그 날 아침이라도, 그 애의 앞에서 가지말라고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며 자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휴일의 아침, 침대에서 눈뜨자 마자 드는 생각이 또 이것이라니. 그는 기분이 나빠졌다.그러나 좀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다. 요즘 들어선 매일같이 반복하는 자학의 굴레였다. 그는 한번 빠지면 도통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이 의미 없는 쳇바퀴를 돌려버리고 말았다.라디올러스가 떠난 지 반년, 아직도 그는 소녀의 부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른다.'내가 사람들 앞에서 엉엉 울며 칼로 목이라도 긋겠다고 하면, 그 애는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단은 입학을 보류하겠다고 했을지도 몰라. 아니, 무조건이지. 라디는 똑 부러진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무논리 억지에 약하니까.'그는 침대에서 일어날 생각을 않고 멍하니 베개에 파묻혀 소녀의 곤란해 하는 얼굴을 상상했다.신기할 정도로 기울어져서 울상이 되는 눈썹.파르르 떨리는 분홍색의 빽빽한 손눈썹.나를 달래고 싶어서 우왕좌왕 하는 눈동자.당황하면 쉼 없이 움찔대는 코.살짝 벌리고 있다는 것을 까먹은 입.미카엘이 픽 하고 자기도 모르게 웃었다. 그 작은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부산스러울 수 있지?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천천히 몸을 옆으로 뉘였다. 잠은 진작 깼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다.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이 없다.그저 라디올러스가 보고 싶었다.그녀가 당황해서 '미카엘, 제발 그러지 말아' 하는 소리가 듣고 싶다. 이렇게 멍청하게 그런 목소리를 상상하고 있지만 말고.그러나…..’다시 한번 기적처럼 그날이 와도, 그녀에게 그런 민폐를 끼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을 리 만무했다. 미카엘 치고는 놀랍도록 정상적이 사고의 흐름이었다.그래서 미카엘은 라디올러스를 보내주었다. 그가 태어나서 행한 일들 중에 가장 이타적인 일이었다.그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런 배려심 깊은 행동에 대한 대응 로직은 생각해 본 적 조차 없었다. 애초에 왜 그런 사려깊은 행동을 했는지 본인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미카엘은 인생 최대치 이타심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배탈이 나 버렸다.그는 앓고 있는 중인 것이다.덜컥 행해버린 '나보다도 그녀를 위한' 배려에,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깍여나갈지 예상치 못했다. 생각보다도 큰 슬픔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하루 하루를 버티는 중이다.그때, 아래층으로부터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느껴졌다.별안간 그는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다.미카엘이 가운을 여밀 생각도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가운이 겨우 그의 팔을 붙잡고 있는 형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무엇인가 홀린 것 처럼, 화난 것처럼 아랫 층으로 달려 내려갔다.미카엘이 군림하는 하르콘트 성에서 그의 허락없이 사용인이 본궁에 들어 올수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 라디올러스의 편지를 전달할 때 뿐.아니나 다를까 긴장한 표정의 집사가 은쟁반에 편지를 얹은 채 미카엘의 서재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 뒤에는 역력히 겁먹은 표정으로 집사의 뒤를 따르는 메이드 하나가 있었지만, 미카엘은 애초에 그녀따위 보이지도 않았을 지 모르겠다.반 나체인 채로 2층에서 들이닥치는 주인의 모습은 젊은 백작이라기 보단 오랫동안 굶은 사자정도와 닮았다.경력이 긴 집사는 편지를 얹은 쟁반을 3cm정도 출렁거리는 것으로 깜짝놀란것을 대체할 수 있었다. 뒤따라 온 메이드는 메이드들 중에서 담력이 가장 센 사람이라 그나마 '꺅!' 소리를 억지로 삼켜서 '합' 소리정도로 중화 시킬 수 있었다.예전같았으면 이 정도의 실수도 다리가 덜덜 떨릴정도로 무서웠겠지만, 요즘 젊은 주인은 세상만사에 지루한 감을 숨길수 없달까, 관심이 없다. 이 편지 빼고는.프라마는 속세를 떠난 신비주의의 극치 답게 서신왕래조차 한달에 한번으로 제한 되어있었다. 그가 편지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미카엘이 편지와 레터나이프를 낚아챈 뒤 돌아섰다. 볼일 끝났으니까 꺼지란 뜻이다. 집사와 메이드는 공손히 인사를 한 후 본궁을 나왔다. 이제 한 달 가량은 또 미카엘과 마주칠 일도, 시중드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 정도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일이 있을까, 고용인들은 편한 노동강도에 자기 목숨 값을 저울질을 하며 하르콘트가에 붙어있었다.미카엘은 그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후에도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조심스레 편지를 찢었다.’친애하는 미카엘에게’늘 그렇게 시작한다. 미카엘은 언제나 단정한 그녀의 글씨가 얄미워 보이기까지 했다.’미카엘, 아직도 화가 나 있는건 아니겠지?’'몇달째 물어보는거야. 화 안났다고.' 잔뜩 찡그린 미간으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겸연쩍게 미간을 풀었다. 크게 심호흡을 한 다음 정말로 화가 안 난 채로 그녀의 편지를 읽기로 결심했다.볕이 잘 드는 자리로 가서 찬찬히 읽어보자. 그렇게 마음먹으며 걸음을 옮기는 와중에도, 자꾸만 눈이 편지를 읽어버린다.그녀의 편지는 항상 밝다. 신기한 나무, 보람있는 수업, 조금 괴팍한 교수..미카엘은 그녀가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지만...아무래도 네가 없어도 행복하다는 말처럼 들려서 기분이 조금 가라앉는다.‘좋아 보여서 다행이야 라디. 거기서 울고 있다는 것 보다야 훨씬 좋지.’얼른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역시 자신의 유치한 감정이 짜증스럽다. 결국 참지 못하고 혼잣말로 내버리고 말았다.“나는 하나도 재미없어.”말하고 나니 더 화가 났다. 역시 배려해 주거나 멀리서 행복을 바래주는 것 같은 신사적 행동 따위와 자신은 어울리지 않았다. 떼를 쓰고 위협을 해서 어쨌거나 바라는 바를 이뤄냈어야 했다.그가 한층 어두워진 표정으로 편지지를 넘겼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편지 속 소녀는 더 눈치가 없어져서 혼자서 마음대로 재잘댔다.’미카엘! 학교의 어떤 정원은 동상이나 조각 대신 나무에 마법을 걸어서 나무 기둥이 사람처럼 자라게 해서 장식해 놨더라고. 나무를 심을 때 뿌리근처에 머리카락을 넣으면 그 머리카락의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자란대! 너무 신기하지않니?’미카엘이 심드렁하게 중얼거렸다.“기괴한데.”‘밤에 보면 샌님 같은…아, 그렇지 메디엘 왕자정도면 눈물이라도 찔끔 흘릴 형상 아닐까 밑둥이 사람 형상인 나무는.’그렇게 생각하며 다음 줄을 읽었다.[다음 편지엔 네 머리카락이라도 몇 가닥 넣어줘 미카엘.]예상치 못한 펀치라인에, 그는 눈이 동그래졌다. 잠깐 정지했다가 활짝 웃었다가 이내 살짝 입을 다물었다. 보고싶다 보고싶다 노래를 하는 편지를 보내면 마지못해 ‘나도 보고싶어’ 정도의 소극적인 표현만 하던 그녀였는데, 이 정도면 소녀도 그쪽 생활이 많이 외로운 모양이다. 친구랑 비슷하게 생긴 나무라도 키우려고 드는 걸 보면.라디올러스 성격에 저 정도 말이면 최대치 어리광으로 보여서, 미카엘은 고양이같이 기분이 이리저리 날라다녔다.그녀가 타지에서 외로워 보이는 것은 생각보다 슬펐다.미카엘은 그녀가 프라마에서 행복해 보이는 것을 질투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내비친 외로움을 웃음으로 가리려는 듯 이것저것 여러 우스갯소리를 이어나갔다’너랑 똑 닮은 나무가 자라나면 어쩐지 주변 나무들은 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뀔 거 같다. 하.하 다른 나무들 안 괴롭히게 내가 작은 포트에 옮겨 담아서 못 커지게 한 다음 내가 내내 같이 데리고 다녀 줄게]미카엘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통이라도 뽑아줄 생각이었다.’아, 물론 농담이야. 다음 편지 봉투에 빨간 머리카락이 수북이 담겨있으면 너무 끔찍할 거같은데…’미카엘 성격을 잘 아는 라디올러스는 얼른 추가로 말을 덧붙여 놓았다. 미카엘은 편지의 내용이 왜, 어떻게 보아서 ‘물론 농담’인지 항상 잘 구분하지 못하겠다.[미카엘, 내가 여태까지 편지에 써 놓았던 것들 다 별로 안신기해? 난 네 감상이 항상 듣고 싶었는데 넌 다 시큰둥한 거 같더라.’사실이 그랬기에 미카엘은 속이 찔렸다.’미카엘, 뭐라고 하나씩 감상을 남겨줘. 예를 들면 저 조각 나무에 대해서 ‘돈 많은 놈들이 그냥 조각을 세울것이지 이상한데서 아낀다’ 라고. 그래야 내가 다음번에 조각 나무를 봤을 때 ‘미카엘은 이상한데서 부자들에대해 적개심을 내더라’ 하고 널 떠올릴 거 아냐’그가 하하하 하고 소리 내서 크게 웃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상한 포인트라서 너무 웃기다. 저 미묘하게 사실적인 예시는 뭐람. 사실 라디올러스 본인인 들었던 생각인 거 같다. ‘이상한데서 돈을 아낀다’라는 건.미카엘은 다시한번 그녀의 엉뚱함에 거침없이 웃다가 이내 그의 이기심에 깊게 반성했다. 그녀가 이것저것 자신의 신변 얘기를 하는 건 저런 뜻도 있었던 거구나.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게 자기 주변 얘기, 그때 들었던 생각 같은 것을 알려줬던 거였어.미카엘은 서재로 돌아와 신중하게 편지지를 골랐다.멀리 떨어져 있는 그녀도, 결국 자신과 똑같이 이곳을 그리워하고 있다. 다만 자신이 그것을 제대로 몰라줬을 뿐이다. 그것에 대한 사죄를 하자.그렇게 마음을 먹고 연분홍빛 사랑스러운 편지지를 골라 책상에 앉았다.’네가 곁에 있을 때 보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라디. 널 더 쉽게 원망했다가, 깊게 그리워 했다가, 괜히 미워했다가 너 몰래 용서를 하곤 해.내 마음을 나조차도 모를 때가 요즘엔 많아서, 너에게 편지를 쓸 땐 편지지를 내 심장을 담갔다가 뺀 색으로 물들여서 보내야겠다 했었어.내 심장을 염료 빼는 통에 넣어두면, 검은색이 나올까 붉은색이 나올까 궁금했는데…. 오늘 건져보니 분홍색이었네.라디. 제일 예쁜 편지지로 골라 보낼 테니, 부디 많은 편지들 중에 내 편지를 가장 먼저 골라.’미카엘은 확신범의 미소로 편지지에 향수를 한방울 떨어트렸다. 깊게 숨을 쉬고는 이제껏 라디올러스가 보냈던 모든 신비한 이야기에 하나하나 정중하게 코멘트를 달았다.물론 마지막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웅큼 아낌없이 잘라 동봉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라디올러스의 편지는 그레펠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모두에게 꼬박꼬박 이어졌다. 한달에 한번씩이긴 했지만 그녀의 소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짐작컨대, 그녀는 매일 꽤 많은 양의 편지를 썼어야 했을 것이다.그럼에도 단 한번도 거르지 않고 4년 간 이어졌다.그러던 와중 전쟁이 일어났다.계속해서 위태로웠던 포제타국과 그레펠국의 국교는 포제타국의 선전포고로 완전히 끝났다. 작던 크던 국경의 어느 곳에선 늘 전투가 있었다. 모두가 그레펠의 압승을 생각했지만 전통적으로 마법 기술에 선도적이고, 마법사 비율이 높은 포제타는 강했다.특히 천재 마녀 카미린. 그녀가 이끄는 부대는 패배를 몰랐다. 압도적이고 잔혹하게 그레펠 왕국의 부대를 부숴 나갔다.아직은 부대의 크기나, 물자의 우세함에 힘입어 그레펠도 여유가 있었지만 이대로 가다간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레펠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드는 상황이었다.바로 이 무렵부터, 라디올러스의 편지가 점점 뜸해졌다.라디올러스가 처음으로 편지를 쓰지 않은 달에 휴리안은 그녀를 몹시 걱정했다. 집안 누구에게도 편지를 쓰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디엘 왕자와 미카엘에게도 확인을 해 보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지를 받지 못했다.그러나 다행히 그 다음 달에는 프랑디아 가족 전체의 이름으로 편지가 왔다.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 다만 졸업하는 학년이 되니, 5학년만에 졸업하는 것이 상당히 버거운 일이어서 앞으로는 더욱 편지가 뜸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휴리안에게도 라디올러스의 편지는 무료한 일상의 큰 낙이었으므로 대단히 실망했지만, 굳이 표정에 내지는 않았다. 그저 가족이름으로 온 그 편지를 자신이 보관해도 되겠냐고 넌지시 부모님께 물어봤을뿐이었다.두번째로 편지가 안 왔을 때, 메디엘 역시 조금 실망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라디올러스가 졸업 년도 이전에는 바쁘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럼에도 매달 한번도 빠짐없이 긴 편지를 보내주었지 않은가. 자신이 그런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실망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다만 그녀가 이번엔 얼마나 힘든 학교생활을 하고 있을지 자신으로선 알 수가 없기에, 그는 그저 자신의 편지가 그녀에게 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냈다.이번에는 그 다음 달도 편지가 오지 않았다. 두 번을 거르고서야 다음 편지를 받을 수 있었다.세번째로 소녀의 편지가 오지 않았을 때 미카엘은 두려웠다.그 이후로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답신이 오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미카엘은 버려졌다고 생각했다.그럼에도 편지를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자각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만약 버려졌다면, 아마 본인의 탓일 것이라고 어렴풋 짐작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라디올러스는 정말 일말의 여유도 없이 바쁜 생활이었으면 이번 달은 편지를 쓸수 없으나 걱정하지 말라고 짧은 쪽지를 보냈을 터였다.그러나 더이상 그런 마음 씀씀이를 써주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 라디올러스에게 본인이 더 이상 그 정도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슬프지만 그런 내색을 편지에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어쩌면 소녀가 정말 지옥처럼 바빴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가여울 일이다.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6개월 가량 편지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신은 없었다. 결국 미카엘은 화가 났고 약속했던 5년이 지났음에도 그녀는 아직도 그레펠에 돌아오지 않았다.그도 편지 쓰는 것을 멈췄다.그러나 그것은 정말 화가 나서라기보다, 라디올러스의 편지가 없으니 더 이상 하고싶은 말도, 말 할 만한 소재도 없던 탓이다.아니, 사실은 더 이상 ‘무슨 일 있는지 걱정이야. 괜찮으면 괜찮다는 동그라미라도 그려서 보내줘.’ 라고 써 보내는 것이 지치고.무엇보다 조금 무섭기 때문이었다.그렇게 라디올러스는 아무에게도 말도 없이 18살이 되었다.물론, 전쟁 이후에는 그레펠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많이 변했다.전쟁이 시작된 후, 미카엘은 지체할 것 없이 군인으로 지원했다. 모두의 예상처럼 그는 출중한 실력으로 특진을 거듭해 나가고 있었다.프랑디아 가문의 남자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훌륭한 표본으로서, 아직 어린 윌로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인으로 징집이 되었다. 하지만 헬리오를 제외하고는 수도군에 배치되어 아직 실전에 투입된 적은 없는 상태였다.가장 먼저 전쟁으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의외로 테젠 공작가의 장남 카네리안이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난 후 얼마간은 전혀 낌새도 보이지 않고, 국가의 부름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어느 날엔가 변덕스럽게 출전했다.그리고는 연일 파죽지세였다. 그는 프라마에 남아있던 그레펠 출신의 졸업생들을 모아 공격적으로 적을 처리해 나갔다. 여태까지 마법사는 마법을 쓰는 도중엔 거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 없었으므로 군인들의 뒤에서 백업하거나 아군에게 마법을 걸어 아군의 전투력을 높이는 형태로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 많았다.하지만 카네리안 무리는 달랐다. 마법사들이라고 믿기 힘들만큼 공격적이었다. 그 소수의 인원이 몇 백명을 죽여나가는 일도 수두룩 하다는 소문이 멀고 먼 그레펠의 수도까지 널리 퍼졌다.결국 카네리안 무리가 전쟁에 투입된지 반년 정도 만에 지루하게 오래 끌게 될 것이라 예상했던 북쪽 국경에서의 싸움이 그레펠의 대승으로 끝났다. 중요 요격지를 뺏겼음에도 포제타는 항복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다만 다른 수를 생각해보는 것처럼 한발 물러나는 양상을 보였다.그 정도의 성과도 요 근래는 통 없었기에 그레펠의 임금은 무척이나 기뻐했다. 때문에 보란듯이 축제를 하고 그들은 수도에 배치하기로 했다. 국왕은 카네리안 무리와 국경에서 힘쓰던 군인들을 수도로 불러들였다. 그들을 맞이할 행사를 화려하게 준비시켰다.그리고 그 화려한 행사가 지금 미카엘이 화가 난 채로 예복을 여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금 긴듯한 머리를 대충 꽁지머리로 묶어버리고 겉옷을 펄럭이며 둘렀다.‘카네리안인가 뭔가가 국경에서 대승을 이뤘는데 왜 내가 앞에서 꼬까옷을 입고 재롱을 부려야하지?’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고풍스럽게 장식된 군복의 단추를 여미다가 이내 다시 침대에 풀썩 누웠다.오늘은 행사 장소 직전의 집합장소로 출근해야 했는데 이미 아슬아슬한 시간이다. 가기 싫다.‘애초에 군인이 되려고 한건 명예를 얻기 위해서였고, 명예는 라디 때문에 얻으려 했던 건데…’그는 팔뚝 부근을 눈 위에 기운없이 올려두었다. 그럼 그냥 다 때려치워도 되는 거 아닌가. 라디올러스는 이제 없다. 나와 잘 지낼 생각도 없는 모양이고.미카엘은 이토록 무기력해진 자신이 싫었다. 다시 제멋대로 살고 거슬리는 것은 죄다 부수고 죽이며 살고 싶었다. 그때가 행복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적어도 슬프진 않았다.어쩌면 이 트레이드 오프는 실패했다. 소녀가 너무 소중해서 다른 건 죄다 포기했는데 소녀가 인생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은 염두에 두지 못했다.이전같이 어떻게 살수 있을까 심드렁하게 생각해보는 그때.아랫층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르콘트 성에서 사용인이 맘대로 본궁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라디올러스의 편지가 왔을 때 밖에 없다.“말도 안돼. 설마…”미카엘은 그 답지 않게 얼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그러나 격하게 심장이 뛰었다. 그 심장소리에 맞춰 발을 내딛었다. 1층 홀 까지가 꽤 멀게 느껴졌다.그는 스스로가 속절없이 설레는 것이 짜증스러웠다. 편지가 아니라면 얼마나 실망스러울지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사용인이 보이기도 전에 짐짓 화난 말투로 소리쳤다.“뭐야, 편지 때문에 들어온…..으악!!!!”미카엘이 진심으로 놀라서 펄쩍 뛰었다. 사람은 정말로 놀라면 제자리에서 펄쩍 뛰는 것이었다. 여태까지 미카엘은 뒤에서 사람을 칼로 찌르면 아파서 뛰는 것 인줄 알았다.홀에는 뜻밖에도 라디올러스의 편지보다 훨씬 반가운 것이 있었다.그의 눈앞에는 피투성이인 군복을 입은 라디올러스가 멍하게 장식용 과일을 하나씩 따먹고 있었다. 실로 태평한 표정이었다.“앗 미카엘?”라디올러스는 미카엘이 소란스럽게 놀라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며 바보같이 웃었다.그녀가 이곳을 떠난지 5년이 조금 넘은 날이었다. 미카엘은 계단의 난간을 순간 힘주어 꾹 잡았다. 믿을 수 없었다.“라디올러스? 라디라고?”분홍빛 머리카락의, 옛 친구와 닮았다. 그러나 미카엘은 훌쩍 커버린 라디올러스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되묻는 수밖에 없었다.“대답해. 너 라디올러스야?”묻는 목소리가 떨렸다.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는 머리와 다르게 심장이 쿵쿵 뛰었다. 라디올러스가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나타날리 없다. 그러나 다리가 터벅 터벅 그녀에게 걸어나갔다. 아직 대답은 듣지도 못했는데.“미카엘?”라디올러스가 다시한번 멍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어딘가 상태가 이상했다.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눈을 자꾸만 문질렀다. 하지만 그 조그마한 목소리마저 기억과 똑 닮았다.그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와락 안았다. 이것은 어쩔 수 없었다. 미카엘로서는 불가항력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어떻게 안지 않을 수 있는가.5년만에 본 그녀는 키가 훌쩍 자라서, 품에 안아보니 정수리가 쇄골 근처에 닿을락 말락했다.“라디! 너 맞냐고 몇번이나 물어?!”그가 가슴이 벅차서 결국 큰소리를 냈다. 소녀는 얼떨떨하게 되물었다.“나말고 그럼 누가 라디라는 거야?”그 말에 드디어 미카엘은 속 시원히 으악 하고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그녀를 더욱 꼭 껴안은 채 바보 같은 표정으로 “라디 잖아?!” 하고 와~ 와~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온몸으로 기뻐한지가 몇 년 만인지 몰랐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인 거 같기도 했다.그가 발까지 굴러가며 기뻐하는 동안 소녀도 또한 ‘우와 미카엘이다! 미카엘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러다 그가 너무 꽉 껴안는 바람에 그녀가 숨이 막히다고 항의했다.미카엘은 그제서야 그녀의 상태를 찬찬히 살폈다.여전히 커다란 눈, 자그맣지만 오똑한 코, 보기좋은 모양의 입.그 작았던 절름발이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는 안 갔지만 신기하게도 보자 마자 그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하지만, 그녀의 온 몸을 뒤덮는 피 냄새. 눈 앞의 자신이 안보이는 듯 자꾸만 찡그리는 눈.미카엘은 순간적으로 온몸의 털이 바짝 서는 것을 느꼈다.“라디, 너 다쳤어?”그렇게 말하며 재빨리 군복 밖으로 나온 맨살부터 이리저리 살폈다. 응? 방금 군복이라고 했나?미카엘이 퍼뜩 그녀와 다시 시선을 맞췄다. 왜 라디올러스가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일까. 프라마에서 얌전하고도 안전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야 했던 게 아닌가? 그래, 말마따나 지독히 바쁜 졸업년도를 보내며.소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절래 절래 저었다.“아니, 난 안다쳤어. 걱정마아.”그러나 말과는 달리 휘청거리더니 별안간 바닥에 주저앉으려고 했다.“라디!”미카엘은 얼른 그녀를 부축해서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마치 떼쓰는 아이처럼 고개를 절래 절래 저으며 바닥에 앉으려 했다.미카엘은 당혹스러웠다. 10살무렵에도 안 부리던 떼를 쓰고 있다. 피투성이인채로.“무슨일이야 라디. 정말 안다친거야? 근데 왜 일어서 있질 못해.”그가 그녀와 같이 바닥에 쭈그린 채로 눈을 맞춘 채 묻자, 그녀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오늘은 있지, 드디어 수도로 복귀하면 된다고 했는데. 행사에만 참여 하면 된다고 했는데… 빌어먹을 카네리안이 중간에 포제타 레지스탕스군을 발견했다고…”설마 설마 하며 애써 부인하려 했지만 역시 하얀 군복의 의미는 그것이었나. 미카엘은 심장이 가슴부터 발등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얀 군복은 마법사들의 군복이었다. 그리고 하필 오늘, 카네리안 그룹이 복귀하는 날 갑자기 등장한 그녀.미카엘은 대충의 상황이 짐작가기 시작했다. 편지가 뜸해질 무렵부터였을까? 그녀가 카네리안 그룹에서 전쟁을 치루기 시작한 것은.그는 손이 덜덜 떨릴정도로 화가 나기 시작했다. 왜 그녀가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게 된거지? 왜 나는 그런 큰일을 모르고 있었지? 요 1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혼란스러운 와중 그녀가 미카엘의 손을 툭 치며 부탁했다.“미카엘, 나 카네리안 환영 행사 장소에 좀 데려다 주면 안될까.”“뭐? 이상태로? 라디. 근데 너 진짜 안 아픈거 맞아? 너 눈은 왜 이렇게 자꾸 깜박이는거야. 잘 안 보이는 거 아냐?”그녀가 기력없이 말했다.“정말 괜찮아. 그냥 마법을 한계까지 써서 그래. 이건 그냥 좀 자면 나아.”미카엘이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말했다.“그럼 그냥 자.”그녀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으로 호소했다.“하지만! 난 오늘 행사에 참여해서 정식으로 수도군에 임명되고! 우리 집에 돌아가려고 이렇게 무리해서 빠져나온거라고!”“레지스탕스 전투에서 혼자 빠져나와버렸어? 잘했네.”그가 이해했다는 듯이 끄덕였다. 그러자 라디올러스가 발끈했다.“아니야! 혼자 안 빠져 나왔어! 전투는 우리의 대승이었는데, 카네리안 놈이 이 근처에 또 적군이 있는 거 같다고 자꾸 수도에 안가려고 하잖아!”미카엘은 ‘카네리안 놈’을 실제로 본적이 없지만 벌써 죽일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소녀가 분한 듯이 말을 이었다.“내가 이미 마력도 불충분하고, 임금님과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콧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 이대로면 정말 다음 전투로 가버릴 거 같아서 내가 먼저 가버린다고 하고 왔어.”'아 대충 그런 내막이었군'그러나 한가지 아직까지 미카엘을 들뜨게하는 의심이 있다.어째서 그레펠에 5년만에 도착하는 날,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이 나인걸까. 프랑디아 성도 아니고 왕성도 아니고 어째서 여기인걸까.그녀에게 그 결정이 어떤 의미라도 있는걸까 조금 두근거리고 괜히 사람이 들뜬다.미카엘은 가슴속이 간질거려서 결국 참지못하고 물었다.“근데 왜 하필 내 앞에 나타났어 라디. 이 넓은 수도에서. 왜 하필 나의 성에 먼저 도착했어.”미카엘이 슬쩍 웃어보이며 기대감에 덫을 놓았다. 소녀가 여전히 초점 안 맞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다가 대답했다.“카네리안네가 단체로 공간 이동 문으로 나타날 때 나만 거기에 맞춰서 등장 못하니까 미카엘 너네 부대에 끼워달라고 해서 근처에 있다가 합류 할려고.”실로 쌈박한 이유였고, 미카엘은 듣자 마자 으르렁 댔다.라디올러스는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서 당황해 하며 연신 ‘나만 먼저 와있어서 뻘줌하잖아…’ 하고그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그건 미카엘의 화를 더욱 부추겼다.‘어차피 라디올러스에게 뭔가 요령 좋은 대답은 기대하지도 않았어’라고 화를 죽이려다 미카엘은 문뜩 너무나 자연스럽게 5년 전같이 돌아가 있음을 느꼈다. 그녀가 있으니까 재미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재미있어질 것 같다.미카엘이 용서해줄 요량으로 한참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라디, 어쨌든 다시 보니까 난…”라디올러스는 홀의 장식기둥에 기대서 벌써 자고 있었다.미카엘은 황당해 하지 않았다. 그저 즉각 입을 다물고 로봇처럼 씩씩한 움직임으로 모포 같은 것을 찾다가, 걸려있던 외투로 그녀를 말아서 품에 안고는 마차에 올랐다. 화를 내는 거나 재회의 감동을 나누는 것이나 통할 것 같은 사람에게 해야 맞는 것이다.미카엘과 라디올러스는 환영 행사에 한참 늦어버렸다. 라디올러스의 계획과는 다르게 카네리안 그룹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들은 라디올러스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이런 중요한 행사에 아무 연락없이 당당하게 지각해버린 부대장은 뜻밖에 아무도 찾는 이가 없었다. 아무런 혼란없이 각 잡힌 오와 열로 행사의 정해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미카엘이 품에 코트로 쌓인 커다란 것을 소중하게 안아들고 느즈막이 저벅 저벅 걸어오자, 오히려 부대원들은 ‘아니, 오, 오셨습니까’하고 당황스러워 했다. 이런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이 더 놀랐다는 태도였다.미카엘은 그런 부대원들의 인사에 아는 척도 없이, 부대장의 자리도 그래도 지나쳐서 타박 타박 군화 소리를 울리며 환영식이 벌어지고 있는 광장 가운데까지 천천히 걸어들어갔다.단상 위에는 왕족들과 공작 가문의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미카엘이 사전의 계획과는 다르게 카네리안 그룹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자, 모두들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미카엘이 쳐다보았다.그때 가벼운 바람이 광장을 스치고 지나갔다. 미카엘의 품에 안겨 있던 사람은 검은 외투로 한차례 머리까지 꼬옥 여며진 상태였지만, 그 바람에 맞아 머리카락 몇 가닥을 외투 사이로 폴폴 흐트러트렸다.광장에 서있던 하얀 군복의 무리 중 가장 앞서서 서있던 사내가 그것을 보고 단번에 미카엘에게 사납게 소리쳤다.“이건 또 웬 놈이지? 왜 죽었는지 모르게 죽고싶지 않으면 라디올러스를 내 놔.”미카엘이 특유의 청량한 웃음을 지었다. 청년이 된 그는 더욱 시린 눈빛을 낼 줄 알았다. 그가 한없이 가벼운 목소리로 물었다.“너야? 카네리안이?”그녀를 두손으로 소중히 잡고 있다가 등을 받치던 손으로 순식간에 칼을 빼들었다. 그 바람에 그녀의 외투가 머리로부터 조금 흘러내려, 광장의 모두가 그녀를 볼 수 있게 되었다.메디엘 왕자와 휴리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뭔가 엄청 소란스러운 꿈을 꾼 것 같다.’한참 잔 것 같은데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아직 몸이 무거웠다. 라디올러스는 천천히 꿈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렇게나 정신없고 충격적인 꿈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잠에서 깨자 마자 서서히 내용이 잊혀져 간다.‘뭐였더라. 어른이 된 미카엘이랑 카네리안이 서로 죽일듯이 싸우는 꿈이었나?’소녀는 거기까지 생각해 내자 마자 풋 하고 웃음이 났다. 생각치도 못했던 최악의 상황이라, 스스로의 상상력에 박수를 보냈다. 어쩌면 깊은 무의식 속에서 제일 피하고 싶은 사태같은 것이려나.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이상하게 눈 뜨는 것이 어색했다. 이마 쪽에 이물감 있는 것이 붙어있었다. 아직 잠에 취한 채로 그것을 떼어내려 하다가 이내 그것이 반창고라는 것을 알았다.‘반창고?!’갑자기 정신이 들었다.천장이 어색한듯 익숙하다. 라디올러스는 무엇엔가 화들짝 놀란 것처럼 몸을 일으켰다. 푹신한 침대가 크게 출렁거렸다. 엄청나게 포근하다고 생각하며 손가락으로 이불을 꼭 잡았다. 그 떨리는 와중에도.그녀만을 위해 꾸며진 아름다운 방에 햇볕이 커튼을 뚫고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아직 자고있던 라디올러스를 위해 커튼을 쳐 놨을 것이다.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도착했는지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지만 그리 불안하지 않았다. 가끔 있었던 일과 같이 ‘전투에서 좀 무리했을 것이다’ 라고 가볍게 넘겨짚었다. 그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가슴이 본격적으로 미어졌다. 세상에, 꿈이 아니다. 드디어, 드디어 도착한 것이다.깨닫고 보니, 이미 얼굴 가득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바보같이 하하하 웃는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입밖으로 나왔다. 소녀는 얼른 이 방을 나가서 가족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장에라도 뛰쳐나갈 기세로 침대 밖으로 나왔다.‘어? 처음보는 잠옷입고 있네?’이불에서 나오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상태가 보였다. 여유 있는 핏의 귀여운 원피스형 잠옷을 입고 있었다. 밖으로 보이는 맨살엔 붕대며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라디올러스는 그 프랑디아 특제 과대포장조차 너무 그리워서 팔뚝의 붕대를 쓰다듬었다.‘잠옷으로 나왔다고 혼나진 않겠지?’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맨발로 바삐 문으로 걸음을 옮겼다.소녀가 고풍스런 성 답게 살짝 무거운 듯한 문고리를 잡았다. 그러나 문을 열기도 전에 두꺼운 문 너머로도 들리는 소란스러운 기색이 있었다. 여러명이서 서로 싸우는 소리 같았다.그녀는 순간 벌써 거의 잊혀져 버린 방금의 꿈을 떠올렸다.‘데자뷔인가?’조금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가족을 보고 싶은 욕구가 더 컸기에, 거침없이 문을 열었다.다투는 소리가 한층 강해졌다. 1층의 정문 홀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그녀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심각한 표정으로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사람들은 모두 정신이 없는지 아무도 그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덕분에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잔뜩 흥분한 은발의 청년이 카네리안에게 한대 칠 기세로 덤비고 있는 것을 휴리안과 헬리오가 겨우 겨우 잡고 있었다. 반면 그 사내. 저주 같은 카네리안. 그는 여유 만만인 표정으로 뭐라고 입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뒤에서 피부가 까무잡잡한 청년이 카네리안의 입을 손으로 거칠게 막고 있었지만 카네리안은 개의치 않아보였다.그 혼돈의 덩어리에서 한걸음 뒤에는 공작 부부가 못마땅한 얼굴로 카네리안을 노려보고 있었다.‘뭐야, 지금 무슨 상황이지?’라디올러슨는 이게 무슨 일인가 계단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생각해야했다. 지금 저 주먹을 날리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이 제르다민인건가? 자신이 원래 알고 있던 언제나 냉정하고 쌀쌀 맞은 둘째 오빠가 맞는지 확신이 안서서 물끄러미 그를 관찰했다.그도 군대에 입대했다고 들었다. 그래서인지 긴머리를 짧게 잘라버리고, 안경만을 쓰고 있었다. 체격도 많이 달라졌지만, 아무리 봐도 제르다민이다.그리고 여전히 아름다운 휴리안. 완벽한 공작가의 후계자로 장성한 그는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우아함을 가졌다. 앞머리를 모두 단정하게 뒤로 넘긴 그가 제르다민을 말리려는 제스쳐를 하면서도 험악한 눈동자로 카네리안을 노려보고 있었다.‘와 헬리오 오빠랑 윌로우 오빠는 이제 그냥 다 큰 청년이네.’소년티가 거의 나지 않는다. 하긴 그들도 벌써 23살,18살이다. 놀랍게도 공작부처는 예전과 거의 흡사했다. 다만 눈가에 살짝 잔주름이 생긴 정도였다. 그럼에도 소녀는 그녀가 놓친 시간들이 새삼 실감되었다.라디올러스는 코끝이 찡해졌다. 당장 가서 모두들 한번씩 안아보고 싶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란인지… 그녀가 초콜릿 빛 머리카락의 사내를 노려보았다.카네리안. 테젠 공작가의 장남이자 현재 그녀의 상사이다. 키가 훤칠하고 이지적으로 생긴 그는 누가 봐도 테젠 패밀리 그 자체이다. 다만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 한해 미남이다. 그는 소녀가 아는 한 늘 트러블 메이커였다.오늘도 분명 그가 문제일 것이다.라디올러스는 쉽게 단정지었다. 카네리안에 관해서는 이렇게 쉽게 판단해도 된다. 틀린 적은 없다.그는 늘 주변사람을 괴롭힌다. 요 1년 사이 타겟은 주로 라디올러스였으나 그 이전에는 제드였다.그 희생양 동기가 바로 지금 카네리안과 같이 있는 진한 피부색에 옅은 베이지색 머리카락을 가진 청년이다.집에 오자 마자 저 카네리안과 또 의미 없는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다. 그녀는 맥이 풀렸다.‘허, 희한하게 배가 고프네. 이 난리통에서.’라디올러스가 눈치없이 고파오는 배에 살짝 당황할 때쯤, 휴리안과 눈이 마주쳤다.그는 총이라도 맞은 것 같은 표정을 했다.“라디!”마치 비명처럼 소녀의 이름을 불렀다.실로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라 더 귓속을 파고드는 것 같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조금 현실성이 없었다. 그래서 작게 웅얼거렸다.“응 오빠.”그 작은 한마디에도 휴리안은 소년처럼 웃었다. 그가 뭘 하고 있었는 지 잊은 것처럼 소녀에게로 달려왔다.제르다민도 무엇에 화를 내고 있었는지 잊고서 소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라디올러스도 그녀를 안아올리는 휴리안의 어깨너머로 그런 둘째 오빠의 모습을 순간 볼 수 있었다.“라디, 좀 안아도 돼?”휴리안이 그녀를 꼭 안고 깊게 숨을 마시며 물었다.그녀가 그 모순된 물음에 키득거리며 대답대신 외쳤다.“세상에! 진짜 휴리안 오빠잖아?!”그 목소리에 휴리안이 더욱 그녀를 꼭 안으며 얼굴을 그녀의 머리칼에 묻었다. 휴리안의 작은 호흡이 잦게 느껴졌다. 그의 심장은 항상 온유한 그의 것이 아닌 것처럼 시끄럽게 쿵쿵 울렸다. 라디올러스는 그 심장 소리에 결국 조금 눈물이 났다.“울지마 라디.”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도 눈물로 울먹였다.둘이 겨우 떨어져서 얼굴을 마주보고 헤실 웃자, 헬리오가 달려들었다.“으아악 라디!! 지금 일어난 거구나!”이번엔 자신의 차례라는 듯 거칠게 그녀를 안았다. 그리곤 공작 부인, 공작, 윌로우. 정신없이 그녀를 안아보겠다고 서로 아우성이었다.모두가 좀 진정되었을 때쯤 제르다민이 어슬렁 다가왔다.“라디올러스. 우리에게 말도 안하고 엉뚱한 짓을 벌였더군. 그런 일을,”그가 ‘ 어떻게 감당하려고’를 말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소녀가 조용히 하라는 듯 보디블로 같은 포옹을 그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이다.제르다민은 ‘윽’ 소리를 내며 계단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그 답지 않게 조용히 포옹을 받아주었다.라디올러스는 제르다민에게는 괜히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의 셔츠에 얼굴을 비볐다. 제르다민은 무덤덤하게 말했다.“코는 풀지 마라.”"이제 재미 없는 신파극은 다 끝났나?"카네리안이 라디올러스의 마음을 상하게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었다.반면 제드는 감동적인 프랑디아 가문의 상봉장면에 같이 눈시울을 적시다가 화들짝 놀라서 카네리안을 나무랐다."왜 그렇게 시비를 못걸어서 안달아신 거에요? 조용히 하세요!"카네리안은 지지 않고 못되게 굴었다."자기들의 세계에 취해서 있는 꼬락서니가 꼴보기 싫어"제드는 기가막히다는 표정으로 옳은 소리를 냈다."그런게 싫으면, 굳이 오늘 여기에 오지 마셨어야죠. 괜히 라디 걱정되서 같이 와 놓은 거면서 맨날 저렇게 어깃장이야.""걱정되서 같이 오다니, 내가?"카네리안이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가 라디올러스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저게 과연 죽을 수나 있는 괴물인가."휴리안과 제르다민이 동시에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헬리오는 여동생의 마음이 상했을까 봐 그녀의 안색을 살폈다.라디올러스는 그러거나 말거나 삐친 머리를 고르게 정리하려고 뒤통수를 만지작댈 뿐이었다. 그녀가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하며 핀잔을 줬다.“선배 왜 온거에요. 아함. 아우. 또 졸리네.”쿨쩍하는 소리를 덧붙이며 태평하게 묻는 소리에 청년들의 싸우기 직전 긴장감 도는 분위기가 일순간 사라졌다.카네리안이 싸늘하게 대답했다.“하품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도 않아. 하품을 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열받으니까.”“예?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거라고요?”소녀가 못 알아먹는 척 멍청하게 되물었다. 그리곤 또 하품했다. 배도 고프고 졸렸다. 일부러 무안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졸린 기운을 몰아낼 수가 없었다.제드가 무엇이라고 웅얼거리며 라디올러스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곤 에엑?하고 카네리안에게 무엇이라 귓속말을 했다.카네리안은 당이 떨어지는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포장지를 까다가 잠자코 제드에게 귀를 빌려주었다.“흠.”카네리안은 귓속말을 들은 후에도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입안에 포장지를 제거한 사탕을 던져 넣었다. 포도맛이었다.그가 불만스럽게 제드에게 투덜댔다.“야, 그러니까 집에 버터스카치 캔디 좀 사놓으라니까. 드럽게 싸구려 맛이네.”“...아니, 애초에 그것도 선배 먹으라고 둔거 아닌데요.”카네리안은 어이없어 하는 제드를 손으로 툭 치고는 느릿 느릿하게 라디올러스에게 다가 갔다. 그가 안주머니에서 알록달록한 색으로 포장된 사탕을 하나 더 꺼내서 소녀에게 툭 던졌다.“일단 이거라도 먹고 있어봐 라디올러스.”그녀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받은 후 멍하게 자신의 두 손 안의 캔디를 바라보았다.자그마한 사탕이다.라디올러스가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천천히 그것을 까서 입안에 넣었다. 강하고 인위적인 오렌지 맛이 혈관을 따라 뇌와 위까지 흐르는 것 같았다.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무척 달다.카네리안이 이어서 주머니에서 깃펜을 꺼냈다. 프라마 학생들이 애용하는 잉크를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어디에나 잘 써지는 메가 히트 상품이었다.그가 자신의 왼쪽 소매를 걷어 올리고, 팔뚝에 무엇인가를 적기 시작했다. 제드와 라디올러스는 카네리안이 무엇을 하려는지 눈치 챘다.제드가 안심한 것처럼 한숨을 쉬고는 얼른 다가왔다.“하여튼, 도와주려고 온거면서 맨날 생 난리이시라니까.”제드는 자신도 깃펜을 꺼내 이번에는 라디에게 팔을 달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제드가 상냥한 말씨로 제안했다.“라디, 너는 내가 써줄게.”그녀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제드와 카네리안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아, 아 저기. 저 이제 괜찮은데요. 그렇게까지 안해주셔도.”카네리안이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표정하게 자신의 팔에 알 수 없는 문자들과 도형을 그리며 말했다.“라디올러스. 너 3일을 꼬박 자고 지금 일어난 거야.”“네? 제가 사흘이나 잤다고요?”놀라는 소녀에게 제드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덧붙였다.“근데도 아직 오분의 일도 마력이 회복되지 않았어. 너 마지막 전투에서 정말 무리했나 봐.”제드는 ‘이제 알겠지?’라는 표정으로 빙긋 웃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라디올러스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손을 줬다. 제드는 지체없이 그녀의 팔에도 카네리안이 그리고 있는 것과 비슷한 글자를 써내려갔다.상황을 지켜보던 휴리안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라디. 지금 저분들이 뭘 하시려는 것인지 너는 알고 있니?”라디올러스는 뭔가 부끄러운지 작게 웅얼거렸다.“카네리안 선배가 나한테 자기 마력을 나눠주려고...”마지막 문장을 채워넣은 제드가 자신이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얼른 고개를 들었다.“앗, 가족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라디올러스 양은 이상하게도 일반 치유 마법이 잘 안 먹혀서 보통 쉬면서 자연 회복을 해야해요. 그런데 마력을 너무 한계까지 쓰면 잘 회복이 안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발견한건데.”카네리안은 제드가 설명을 하거나 말거나 준비를 마친 뒤,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둘다 문자가 그려진 손이었다.제드는 자신들이 발견한 내용을 설명하는 차례가 되자 신이 난 목소리가 되었다.“’마중물’이라고 하죠? 펌프질을 할 때 일부러 물을 좀 채워 넣는 거요. 그거랑 비슷해요. 다른 마법사의 마력을 어느정도 채워 넣으면 그 마력이 회복하는데 다시 쓰여서 전체 회복속도가 훨씬 빨라지더라고요.”카네리안이 낮은 목소리로 기도문을 외웠다. 생각보다 눈앞에서 일어난 마법의 발동은 싱거워 보였다. 그저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의 사이로 바람이 살짝 불어와 소녀의 잠옷 자락이 조금 부풀었다 꺼졌을 뿐이다.제드는 그들이 벌써 서로 마력을 나누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설명을 이어 나갔다.“이 마중물 치료법은 대부분의 마법사의 마력회복에 효과가 있어요. 다만 라디의 경우에는…”카네리안이 살짝 휘청하며 머리를 한손으로 짚었다.제드가 ‘아차’하고 그를 부축하며 설명을 끝마쳤다.“라디 양의 전체 마력양이 너무 커서 의미 있게 마중물을 넣기 위해서는 카네리안 선배가 마력을 탈탈 털어 줘야 할 정도라서 문제인거죠. 카네리안 선배가 우리 중에서 제일 마력양이 많은데도 말이에요.”카네리안이 인상을 찌푸리며 제드의 부축을 거절했다. 그러나 방금 전 보다도 훨씬 기분이 나빠진 표정이었다.“이렇게 내 컨디션이 안 좋아질 정도면 그냥 저 녀석을 얼마간 더 재우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든다.”제드가 해맑게 응수했다.“선배는 집에서 제가 치료마법 쏴 드립니다. 치료 마법 맞고 푹 자면 완벽 회복까지 단 하루!”손가락으로 뿅뿅하고 그에게 탄환을 쏘는 재롱을 부렸다.라디올러스가 확연히 좋아진 혈색으로 같이 까불었다.“우와~ 제드 선배 최고! 너무 감사해요.”카네리안이 여전히 어지러워 하면서 이를 갈았다.“왜 내가 아니라 제드에게 고맙다고 하는 거지? 일부러 저러는 건가?”그녀가 뭐라고 대답하려했는지 입을 열었지만 일순간 너무 큰소리가 나서 소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라디올러스의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였다.모두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조용해졌다.휴리안이 퍼뜩 정신이 든 것처럼 얼른 메이드에게 라디올러스를 위한 점심을 차리라는 말을 전했다.‘윽’ 하며 카네리안이 살짝 허리를 굽혔다.그에게서도 일부러 크게 볼륨을 높인 듯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윗몸을 숙여 어떻게든 소리를 막아보려고 한 것 같았다.제드가 안쓰러워하는 표정으로 위로했다.“선배 부끄러워 하지마요. 원래 마력 많이 써버리면 배고파요.”카네리안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안 부끄러워했어.”그러나 뺨이 조금 붉었다.공작 부인이 카네리안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저… 카네리안 공, 제드 군? 괜찮으시다면 라디와 함께 식사를 드시고 가세요.”그녀 입장에서는 딸을 도와준 후 힘들어 하는 사람을 모르는 체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제드가 호의적인 표정으로 겸손하게 거절했다.“앗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라디랑 만나신 거잖아요? 가족들끼리 나눌 이야기도 많, 컥!”카네리안이 단호하게 제드의 목젖을 쳐서 그의 겸양을 저지했다. 그가 사납게 중얼댔다.“닥쳐, 여기서 마력을 빨려서 배고파서 뒤질 거 같은 건 난데 왜 네가 예의를 떨고 지랄이야.”제드가 목을 문지르며 황당해했다.“아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지금 이 눈물의 가족 상봉에 얼마나 더 눈치없이 껴야겠어요? 이정도 깽판 쳤으면 됐지.”“조용히 해 난 대접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어. 저 분홍머리를 지금 제 발로 서있게 해준 게 바로 나야. 공작 가문에서 식사 한끼정도야 기꺼이 내주겠지.”그가 갑자기 사뭇 차가운 목소리로 날을 세웠다.프랑디아 식구들은 카네리안이 지금 행한 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라디올러스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았다.소녀가 부쩍 어두워진 목소리를 내며 그에게 다가갔다.“우리 가족 앞에서 또 그런 걸로 화내지 마세요.”카네리안이 눈동자만을 굴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배 곪음 소리를 낸것 정도를 부끄러워하던 사내랑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차가운 눈동자였다.소녀는 그런 눈초리에 익숙한듯 카네리안의 손을 자신의 어깨에 둘렀다. 마치 부상자를 부축하는 것 같은 포즈로 식당으로 그를 안내했다.제드도 드디어 무엇인가를 눈치 챈 것처럼 ‘아.’하는 소리를 내며 반대편에서 그를 부축했다.프랑디아 가족은 그때 까지만 해도 라디올러스에게 마력을 제공한 일이 그정도로 힘든 일이었나 유추해볼 따름이었다.그러나 카네리안이 한발짝 걸음을 옮기자 마자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카네리안이 심하게 왼쪽 다리를 절었다.그 모습이 소녀가 부축하기에는 조금 무거워 보일정도로 절뚝거렸다. 보다 못한 휴리안이 얼른 대신 부축해주려했지만 카네리안이 사납게 거절했다. 그는 무척 자존심이 상해보였다. 그는 언제나 다소 천박한 말투와 난폭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누구보다도 귀족적이고 고고했다.그래서 라디올러스는 그가 패전국에서 잡혀온 왕자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예민하고 난폭하며 긍지 높지만 사실은 상처받은 것처럼 행동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제드가 무심한척 걱정스러운 말을 건넸다.“선배, 보완 마법이 풀릴 정도면 바로 집에 가시던가 제가 지금이라도 치료 마법을 거는 게 낫지 않을까요?”카네리안이 의외로 덤덤하게 대답했다.“치료 마법 ‘성의’ 모을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여기서 준다는데 얼른 밥부터 먹으면 되지. 그리고 이때 아니면 공작 가문의 요리사 밥을 또 언제 얻어먹어보겠어.”라디올러스가 핀잔을 줬다.“자기도 공작 가문이면서. 집에 가서 언제든지 집밥 먹으면 되잖아요.”제드가 한숨을 푹 쉬었다.“선배님은 댁에 들어가기 싫으시단다. 내가 볼 땐, 선배는 아직 사춘기야. 변성기도 안지났을걸?”카네리안이 신속하게 자신을 부축해 주던 제드의 손가락에 관절기를 넣었다. 으악 하고 제드가 무너지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라디올러스가 카네리안을 안다시피 부축해야했다.한편, 그들의 뒤를 따라 식당으로 걸음을 옮기던 윌로우가 귓속말로 헬리오에게 물었다.“치료 마법에 ’성의’가 뭐? 무슨 말들을 하는 거야?”헬리오는 남동생을 위해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그... 나도 다른 사람한테 얼마전에 설명들은거지만... 마법이란 건 근본적으로 ‘기도’래. 쉽게 말하면 마법이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게 열심히 빌어서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지. 그 기도가 효력이 있게 하는 천성적인 기운을 ‘마력’이라고 할 수 있어. 뭔가를 원한다면, 그 소원의 정도에 따라 마력을 써서 일정양의 ‘성의’를 보여야만 한대.”윌로우가 흥미롭게 들으며 또 물었다.“그 마법사들의 기도랑 우리도 평소에 하는 그 기도랑 똑같아? 그럼 마법진이나 주문 같은 건 왜 하는 거야?”“나도 듣고 놀랐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도 똑같은거래! 결국 뭔가 소원을 빌고 있는 거잖아? 마법진 같은건 ‘성의’를 좀더 효율적으로 채우기 위해 쓰는 수단일 뿐이래. 다만 일반인들은 마력이 없어서 그 기도들이 ‘성의’로 잘 인정되지 않는 건가봐. 그래도 일반인들도 가끔씩 신에게 ‘성의’를 보여서 마법을 부릴 때도 있어.”남동생이 깜짝 놀라며 반문했다.“진짜? 마법은 마법사만 부릴 수 있는게 아니었어?”헬리오가 식당 의자에 불편한 기색으로 앉는 카네리안을 흘끔 바라보며 좀 더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 줬다.“다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우제를 지냈더니 비가 왔다는 얘기나 어머니가 며칠밤을 새워 기도를 해서 기적적으로 아들의 병을 고친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너도 들어 봤을 거야.”윌로우가 얼떨떨하게 중얼거렸다.“엑, 그런게 다 마법이었다고?... 신기하네…”카네리안은 그 모든 설명들을 듣고 있었는지 무시하는 말투로 끼어들었다.“옛날엔 진짜 간절하게 ‘성의’를 보여 신을 감동시켰는지 뭔지 몰라도. 지금은 다 쇼야 동생.”윌로우가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악의를 느끼고 불쾌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카네리안은 아랑곳 하지않고 비꼬는 목소리로 이어서 설명했다.“마법사들만 들들 볶으면 그 알량한 ‘성의’정도야 금방 채워지는데 왜 자기네들이 절박하겠어? 언제나 ‘성의’를 보여야하는 건 우리들이야.”카네리안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는 라디올러스를 돌아보며 ‘그렇지? 라디올러스 양?’하고 의미심장하게 동의를 구했다.라디올러스는 질린다는 얼굴로 대답했다.“전 선배처럼 피해망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카네리안은 ‘아 그러셔?’하고 피식 비웃고는 말았다. 그들을 위해 전체로 가벼운 스프가 나왔기 때문일수도 있다.제드는 카네리안의 불온한 기색 때문인지 과장되게 ‘우와 진짜 맛있네요’를 연발했다. 라디올러스도 거기에 동조해 자랑스러운듯 재잘댔다.“그쵸! 제드 선배 우리집 음식 진짜 맛있지 않아요?”제드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카네리안도 배가 고픈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식사 만큼은 묵묵히 정갈한 매너로 해치워냈다.이어서 나온 메인요리도 훌륭했다. 음식을 먹으며 식당의 미묘하게 살벌한 분위기도 조금씩 녹았다. 프랑디아 식구들은 굳이 라디올러스와의 식사를 망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므로 다들 일부러 밝은 주제의 이야기들을 했다. 소녀는 그간의 소식들을 접하며 눈빛을 반짝 반짝 빛냈다.디저트로는 달걀 푸딩이 나왔다. 제드가 한입 먹고나서는 감탄해서 말했다.“라디! 너 진짜 이런 밥을 먹다가 전투식 먹느라 엄청 고생했겠다!”‘전투식’ 그 한마디에 프랑디아 가족들의 표정이 확연히 어두워졌다. 아직 프랑디아 가문은 라디올러스가 전쟁터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했다. 모든 정황상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역시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다.음식 칭찬을 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 제드는 머쓱해졌다. 그가 이게 무슨일인가 싶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다.이상한 것은, 라디올러스도 갑작스러운 분위기 전환에 당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정도로 가족들이 전투얘기에 민감할 줄 몰랐다는 태도였다.카네리안 혼자 태연하게 푸딩 한 스푼을 입안에 넣다가 ‘아 맞다.’ 하고 걸어두었던 자켓의 호주머니를 뒤적였다. 스푼을 여전히 입에 문 채였다.그리곤 여러장의 편지가 꾸깃꾸깃해진 채 나왔다.라디올러스는 그가 뭘 하나 싶어 흘끔 쳐다보았다가 순식간에 안색이 변했다. 그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선배…설마 그거 제 편지들이에요?”휴리안이 인상을 쓰며 맞은편의 카네리안이 하나씩 꺼내는 구겨진 편지들을 살폈다. 그는 스멀스멀 심장 부근에 뭔가 끈적이는 오물들이 쌓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정도로 불쾌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생전 처음 갖는 심한 적대감에, 그는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였다.카네리안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마지막 편지를 꺼내고, 한번 더 푸딩을 떠서 입안에 넣었다.제드에게 ‘와 푸딩 맛있네. 거봐 여기서 밥먹길 잘했지?’하고 말을 건네기 까지 했다. 물론 제드는 혼란스러워 하는 라디올러스의 표정을 보곤 상황의 심각성을 가늠해 보느라 대답하지 못했다.소녀가 화를 참느라 얼굴이 점점 빨개져갔다. 그녀가 최대한 안 흥분하려는 기색이 역력한 채로 물었다.“왜! 왜 제가 보냈던 편지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카네리안이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오히려 되물었다.“그러면 왜 안되는데?”소녀는 결국 소리를 질렀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 같은 표정이었다.“선배가 꼭 전달해 주기로 했잖아요!!! 제가, 제가 절 아는 사람들이 다 절 걱정할거라고 먼저 편지를 부쳐야 한다고 하니까! 선배가 편지들은 꼭 물자편이건 복귀부대 편이건 전해주겠다고 했잖아요!”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 시작한 프랑디아 가문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하나 둘 씩 자리에서 일어났다. 혹자는 너무 기가 막혀 아예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도 했다. 윌로우나 공작부인이 그랬다.제르다민이 다시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욕을 중얼거렸다. ‘말도 안되게 무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카네리안에게 물었다.“라디올러스의 편지를 일부러 전해주지 않은건가? 내가 이해한 게 맞아?”카네리안이 피식 웃으며 다시 푸딩을 한 스푼 떴다. 그가 느긋하게 대답했다.“하지만 ‘언제’ 주겠다고 약속한적은 없잖아 라디. 어쨌든 나는 전해 준거야. 조금 늦었지만 말이야.”이번엔 휴리안이 제르다민 보다 먼저 그에게 덤벼들었다.그리고 휴리안 보다는 라디올러스가 더 빨리 그에게 주먹을 날렸다. 생각보다 각이 잘 잡힌 묵직한 한방이었다.그러나 카네리안은 푸딩 스푼을 입에서 빼내면서도 가볍게 그녀의 주먹을 피했다. 그가 악의적으로 웃으면서 물었다.“왜 화를 내는 거지?”라디올러스가 악에 받쳐 소리질렀다.“그걸 몰라서 물어?! 그럼 우리 가족들은 일년 가까이 아무런 소식도 못 듣고 기다렸던 거잖아!”휴리안도 화가 나서 카네리안의 어깨를 거칠게 잡고 자신을 보게 했다.“카네리안, 이게 장난같아?”깊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자신이 어떤 심정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기다렸는지 카네리안을 잡아 먹어서라도 그 속을 보여주고 싶었다.카네리안은 휴리안을 노려보며 다른 것으로 화를 냈다.“내 몸에 감히 손대지 마.”그리곤 휴리안의 손에 강한 스파크를 튀게 했다. 주문조차 외우지 않은 마법이었지만 휴리안의 장갑이 까맣게 그을릴 정도로 위력이 있었다.손은 반사적으로 떨어졌지만 휴리안은 그 자리 그대로 서서 그를 노려보았다. 오히려 한 발 물러나 있던 제드가 깜짝 놀라서 휴리안의 손을 살폈다. 휴리안의 거부하는 손길에도 그의 장갑을 억지로 벗겨서 상처를 살펴보았다.결국 제드도 카네리안에게 화를 냈다.“일반인에게 화상을 입히다뇨! 정말 실망이에요 선배!”카네리안은 그마저도 심드렁한 반응이었다.“휴리안 공께서 먼저 내 몸에 손을 대셨단다 평화주의자 제드 군.”라디올러스가 카네리안의 뺨을 때리려 했다.카네리안은 소녀의 손을 가볍게 막아내곤 손목을 비틀어 잡았다. 그가 음산하게 물었다.“진심으로 내 뺨이라도 때리려 한거야 라디?”그녀가 죽일 듯 노려보며 대답했다.“감히 휴리안 오빠를 다치게 하다니. 정말 돌은 게 틀림 없군 카네리안.”카네리안은 입술 끝을 비틀어 올렸다.“이봐 라디. 정말 너의 양오빠를 그렇게나 소중히 여기고 있어?”“적어도 너보다는 수 만배 사랑하지.”카네리안은 훗하고 비웃고는 잡고 있던 손목을 잡아끌어 그녀를 자신과 더욱 가깝게 했다.제르다민이 ‘라디올러스에게 난폭하게 하지 마!’라고 둘을 떨어트려 놓으려 하자 소녀는 미쳐버린 카네리안이 또 공격적으로 변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녀가 다른 손으로 제르다민에게 괜찮다고 오지 말라는 표시를 했다.그 모습을 보고도 카네리안은 낄낄대며 비웃는 웃음을 냈다.“라디. 그렇게 가족이 끔찍이 좋아? 내가 이 편지 하나를 제 때 못보내서 가족을 걱정스럽게 한 것 만으로 이렇게 길길이 날뛰고 작은 화상 하나 만든 정도로 내 뺨을 못 때려서 분할 만큼?”“무슨 멍청한 말을 그렇게 줄줄이 읊고 난리냐고.”그녀는 잡힌 손이 점점 아파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를 갈며 그에게 화를 냈다.일순간 카네리안이 달콤하게 웃었다.“라디올러스, 이 편지에 무슨 의미 있는 것들을 쓰기나 했어?”소녀는 그가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 추리해 보며 대답했다.“무슨 말이야…?”그는 갑자기 화난 그녀를 달래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부드럽게 말했다.“기껏해야 별일 아니다. 위험하지 않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 아니었어?”“내가 그렇게 썼다 한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지?”카네리안은 한결 편안한 얼굴로 작은 한숨을 쉬었다.“나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거든. 서로 자기 만족을 위한 말들만 하고, 겉으로만 좋은 관계인척 하는 것 같아.”“그거야 말로 너나 그렇게 생각하는거고. 그만 하고 내 손이나 풀어.”카네리안은 소녀의 말 처럼 손을 풀어주는 대신 반대 손으로 얼굴을 살펴보는 것처럼 가져다 댔다.“가족들은 차라리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걸 원하지 않을까? 너 혼자 강한 척하면서 멀쩡한 양 연기하는 거 말고…예를 들면 전쟁에서 심하게 다쳐서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등에도 큰 상처를 입었었다. 죽을 뻔했다. 다시는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 말야.”라디올러스가 조용히 하라며 그의 말을 막기 위해 소리를 질렀지만, 카네리안은 끝내 하고싶은 얘기를 모두 뱉었다.공작부인이 쇼크로 입을 틀어막았다.공작은 그녀가 쓰러질까봐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도 역시 안색이 좋지 못했다.카네리안은 즐겁다는 듯이 모두를 돌아보며 중얼댔다.“너의 가족들이 너에겐 족쇄나 다름 없다는 걸 저들도 알아?”“그렇지 않아. 네가 도대체 뭔데 나나 우리 가족한테 그런 심한말들을 하지?”라디올러스가 여전히 강한 적대감으로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카네리안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가 순순히 손을 놓아주자 소녀도 더 이상 그에게 덤벼들지는 않았다.제드가 뚜벅 뚜벅 걸어 나와서 카네리안과 마주 섰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싶어 카네리안이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제드가 가볍게 손을 휘둘러 카네리안의 뺨을 때렸다.카네리안은 얌전히 그것을 받아들였다.온 힘을 다해 때리지 않았더라도 성인 남자가 휘둘러 때린 따귀는 꽤 큰소리를 냈다. 카네리안의 뺨은 금방 빨갛게 부었다.제드가 한숨을 푹 쉬며 조용히 말했다.“선배, 적당히 하고 가요. 사과하시고요.”따귀는 공작가를 대신해서 가한 사죄의 의미 같았다.카네리안은 그러나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다만 방금의 일은 모두 잊은 것처럼 가볍게 웃으며, 라디올러스에게만 작별 인사를 했다.“라디, 너 우리 부대 환영 무도회 있는 거 알지? 데뷔탕트일텐데 예쁘게 입고 와.”그리곤 한없이 산뜻하게 문밖으로 나서 버렸다.‘데뷔탕트라고? 별 이상한 건 신경 쓰고 앉아있네.’생각지도 않았던 데뷔탕트라 그녀는 멍하게 아프게 잡힌 손목을 문지르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벼락 같은 태도 전환이라 대꾸할 힘도 없다.‘데뷔탕트라.’그러고 보니 이번에 황실 무도회에 나가게 되버리면 자신의 데뷔탕트가 맞긴하다.전쟁중이 아니어도. 여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사내라고 생각했다. 카네리안이 떠난 후에야 프랑디아 가문의 사람들은 라디올러스와 침착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할 수 있었다.휴리안이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조용하게 물었다.“라디. 카네리안의 말이 정말이니? 정말 그렇게 다쳤어?”카네리안 그룹의 환영 행사에서 큰 소란이 있고 난 뒤, 그녀가 참전했다가 돌아 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멀쩡한 모습에 그나마 모두들 안심하고 있던 차였다. 휴리안은 카네리안에게 전해들은 끔찍한 부상 소식에 본인이 머리를 다친 것처럼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했다.라디올러스가 별거 아니라는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평소에 안 하던 손장난을 연신 꼬물대는 것이 누가 봐도 어색했다.“아니야. 그정도로 심한 거. 특히 등의 부상 같은 건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어서 옛날에 다 나았던 거야.”공작 부인이 다급하게 얼른 물었다.“그럼, 그럼 그 눈을 다쳤다는 건?”그녀가 자신의 눈 얘기가 나오자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 눈을 만졌다가 얼른 내려놓았다. 한층 자신 없는 목소리로 어물어물 대답했다.“아,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다쳤다가 시야각이 많이 좁아졌는데…시력이 잘 안 나오는 것도 마법을 걸면 그냥 예전이랑 똑같아요.”윌로우가 슬픈 목소리로 중얼댔다.“그럼 평소엔 잘 안보이긴 한다는 거네.”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프랑디아 공작이 화를 벌컥 냈다.“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쩌다 네가 졸업도 하기 전에 전쟁터에 나가게 된거야? 저 카네리안 자식은 또 뭐고! 저 놈이 평소에도 너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니?”갑자기 쏟아지는 무거운 주제의 질문 공세에 그녀는 음…하고 작은 한숨을 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전쟁에는 5학년 졸업이 간당간당 해져서 나가게 됐어요. 실습 과목 하나를 낙제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프라마 학칙 중에 모국에 전쟁이나 심각한 재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마법사로서 봉사하러 귀국한다는 명목으로 졸업을 앞당길 수 있다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카네리안이 그 학칙을 찾아와서 자신의 그룹에 합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의했어요.”제르다민이 화를 참는 목소리로 나무랐다.“졸업을 하기 위해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단 말야? 기다리는 사람들 마음도 모르고…”라디올러스는 예전과 달리 알기 쉽게 걱정해 주는 제르다민이 놀라워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곤 자신도 자신의 잘못을 아는듯 눈을 내리깔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모두들 얼마나 걱정할 지는 상상이 갔어. 그런데 난 프라마에서 혼자 지내는 나날들이 이제 한계였어. 그리고… 1년 더 억지로 참아봤자 졸업해서 그레펠에 가면, 어차피 징집 명령이 내려지리라고 생각했어.”프랑디아 가문 사람들은 순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예상이 아마 맞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슬픈 사실에 한동안 아무도 차마 소리를 낼 수 없었다.휴리안은 멍하게 슬프고 자책하게 되는 생각들을 억누르며 생각했다.‘여기서 라디가 전쟁에 말없이 나간 것을 탓해 봤자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지. 라디의 마음만 안좋을 뿐이야.’그래서 그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가장하여 그녀를 감쌌다.“그리고 라디는 우리에게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과 상태를 알리려고 했었어요. 그렇지? 다만 카네리안이 중간에 편지를 가로채서 그렇지.”그녀가 별안간 다시 열받은 것처럼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쥐었다.“앗 맞아! 어쩐지 가족들 편지는 못 받아주는데 내 편지만 전달해 주겠다고 할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헬리오가 속상한 목소리로 추임새를 넣었다.“아! 우리들 편지 하나도 못받았어? 너무 걱정되서 장문의 편지를 꼬박꼬박 보냈었는데.”그녀가 미안한 표정을 했다.“뭐?진짜?? 아아…하나도 못 받았어. 그 편지들 다 어디에 있으려나. 프라마에 쌓여 있는거라면 학교에서 나한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휴…이게 다 카네리안 때문이야. 어쨌든…다들 1년이나 본의아니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서 정말 죄송해요. 얼마나 걱정하셨을까.”공작 부인이 그녀를 다시 한번 껴안고 다독였다.“아니야 난 네가 어쨌든 여기에 돌아온 것만으로 족해 라디…”그러다가 돌연 그녀의 양 어깨를 잡고 자신을 똑바로 보게 하며 단호히 말했다.“그런데, 난 그 카네리안 공이 도무지 이해가 안돼. 왜 그렇게 너한테 못된 짓을 일삼지? 편지를 가로채다니! 나 원... 수도군에 배치되었으니 얼른 그의 부대에서 나오자. 부대를 옮기는 것 정도야 누구든 들어주실거야.”프랑디아 가족들은 모두들 라디올러스가 크게 고개를 끄덕일 줄 알았다. 그러나 의외로 그녀는 대답을 머뭇거렸다.“저… 저도 카네리안이 저에게 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못된 짓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편지를 가로채거나 아무렇지 않게 폭언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요. 그런데...”소녀는 카네리안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떠나버린 문을 물끄러미 보며 말했다.“그가 저를 진짜 미워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제르다민이 말도 안된다는 듯이 물었다.“그럼 뭔데? 왜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런 짓들을 해?”그녀가 또 무심결에 자신의 오른쪽 눈을 문질렀다. 소녀는 그날들을 떠올리며 중얼댔다.“처음엔 카네리안이 나 때문에 절름발이가 돼서 그런 건가 생각했어. 그 자존심 센 사람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날 이렇게 미워하나.”휴리안이 어두운 한밤처럼 조용히 물었다.“너 때문이라니?”그녀가 조금 망설이다가 별일 아닌 이야기인체 부상당했을 때의 전투를 입에 담았다.“왜, 그런 말이 있잖아? 꼭 두번째에서 망한다고. 첫 전투에서는 무척 긴장하고 몸을 사려서 오히려 아무 상처도 없이 무탈하게 끝났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우리가 크게 열세였어. 난 처음 겪는 어려운 상황에 긴장을 잔뜩하고 있었고.”갑자기 시작된 막내의 전쟁 후일담에 모두들 착잡한 심정으로 귀를 기울였다.“그건 내 실수였어. 내가 딴사람들 보다 훨씬 늦은 속도로 전진하고 있는 와중에 적의 병사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포탄에 맞아버렸거든.”공작 부인이 생각보다도 무서운 이야기에 두 손을 입에 가져다대었다. 소녀는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그 때 파편을 얼굴 쪽에 맞아서 시력이 떨어져 버린건데…아무튼 그때는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죽을 줄로만 알았어. 언덕에서 내가 폭발의 충격으로 날아가서 데굴데굴 굴러 떨어졌거든. 부상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윌로우가 상상되는 끔찍한 상황에 숨을 들이마시자, 헬리오가 그의 어깨를 툭 감쌌다. 그러나 그도 긴장된 얼굴이었다.식당에서 소녀만이 아무렇지 않은 멍한 얼굴로 이야기를 해나갔다.“핑핑 도는 시야로도 저 멀리서 우리 부대원들이 어떻게 해야하나 잠깐 고민하는 것이 보였어. 그런데 카네리안이 휙 뒤돌아버리는 거야. 난 당연히 날 버리고 가려는 건 줄 알았어. 우리는 마력이 거의 동난 상태였고, 내 뒤로 바짝 포제타군이 쫒고 있었으니까.”그녀가 미간을 구겼다. 그리곤 휴리안을 바라보며 대답을 원하는 것처럼 말했다.“그런데 별안간 미친듯이 나를 향해 뛰어와서 나를 업었어. 자기도 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언덕을 다시 올라가느라 속도가 무척 느렸지. 우리 부대원들이 위에서 아무리 엄호를 해줬어도 그 총알 비를 다 막는 것은 무리었어. 오빠. 그는 나 때문에 왼쪽 발이 거의 날아가버렸어. 그가 나 때문에 절름발이가 됐어.”휴리안은 고요하게 대답했다.“네 탓 아니야. 그건 그의 선택이야. 그냥 고마워 해야 할 문제야.”라디올러스가 큰 오빠의 달래는 말에 살풋 웃으면서도 새로운 의문을 표했다“그래도 그 사고로 나를 미워하게 됐다면 차라리 이해를 할텐데. 그는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자기 목숨을 내걸면서도 나를 보호해줬어. 나를 미친 사람같이 괴롭히고 죽여버리겠다고 악을 쓰다가도 괴로운 표정으로 몇번이나 구하러 뛰어와.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치료해주고 아픈 걸 참으라며 쿠키를 내어줘. 내가 싫으면 그냥 욕하고 내버려두면 될 일 아니야? 그는 참 이상해.”그녀가 마지막 푸딩을 입에 물고 턱을 괴었다.“아무튼…빚을 많이 져서 그의 부대를 나가는 건 양심에 좀 찔린다고 해야하나? 일단 카네리안은 유능해서 배울 것도 많고.”빙 둘러서 그녀는 그의 부대에서 이탈하는 것을 거절했다. 휴리안은 그녀를 구한 카네리안이 고마우면서도 괴로울만큼 싫어졌다. 카네리안은 이상한 남자였다.헬리오가 그녀의 긴 이야기를 듣고 맥이 풀린 목소리로 말했다.“흠…어쩐지…. 너를 싫어한다기엔 너무 길길이 날뛰면서 너를 뺏어오려하더라.”라디올러스는 빈 그릇에 숟가락을 올려두다가 놀란 표정을 했다.“응? 무슨 얘기야?”공작부인이 더 놀란 표정을 했다.“어머? 라디. 기억 안나니? 왜, 그 환영 축제에서 말이야.”혼란스러워하며 “예?”를 연발하고 있는 라디올러스에게 무거운 현실 펀치들이 날아들었다. 제르다민이 무심하게 중얼거렸다.“아 어쩐지. 그런 짓을 하고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카네리안이랑 얘길 한다 했어.”“잠깐, 무, 뭐야. 카네리안이 날 뺏어오려 했는데, 내가 카네리안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천천히 설명해줘!”허둥지둥하는 라디올러스에게 휴리안이 친절하게 설명해줬다.“카네리안이 그레펠로 이동하기 전에 무리하게 전투를 연이어서 진행하려 하자, 라디는 그걸 막기위해 단독으로 공간이동을 해서 먼저 하르콘트 백작 성에 도착했어. 이건 기억나?”그녀가 입을 조금 벌리며 잊고있던 사실을 깨달은 듯한 표정을 했다.“그러고 보니!”휴리안이 자연스럽고도 온화하게 물었다.“근데 왜 하필 미카엘 공에게 먼저 갔어?”그녀가 조각난 기억들을 주워담느라 혼란스러운 가운데 담담하게 대답했다.“먼저 그레펠에 도착하게 되면 마법사들이 공간이동으로 광장에 도착할 때 나만 어색하게 걸어나와야하니까 미카엘네 부대에 섞여있다가 뒤따라서 그 마법사 무리에 살짝 끼려고 했어.”휴리안이 만족스럽다는 듯이 청량하게 웃으며 ‘그렇구나’하고 설명을 이어나갔다.“그러나 네가 미카엘 공 앞에 나타났을 땐 마지막으로 쓴 공간이동 마법 때문에 마력이 매우 부족해져서 착란증세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후 기억을 잘 못하는 거고. 라디.”“앗 그렇구나. 미카엘을 본 기억은 없어.”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휴리안은 홍차를 한 모금 우아하게 삼킨 후 일상을 얘기하는 것처럼 조곤 조곤 설명했다.“미카엘 공은 그래도 너에게서 설명을 대충 들었는지, 늦었지만 정신을 잃은 널 안고 광장에 나타나셨어. 그 후가 문제였지. 카네리안이 그에게 안겨 있는 널 보자 마자 흥분해서 널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거든.”소녀는 자신이 그리워 하던 친구와 벌써 진한 포옹까지 했다는 사실이 신기한 것도 잠시, 카네리안과 미카엘이 만나서 난동을 부린 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조심스레 물었다.“그래서? 그래도 미카엘이 카네리안을 죽이진 않았구나? 오늘 나타난 걸 보니. 핫 설마, 카네리안이 미카엘을 마법으로 다치게 했나?”휴리안은 온유한 미소를 여전히 띄우고 있었지만 마시고 있던 홍차가 얼어버린게 아닐까 싶을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를 냈다.“아아, 맞아 라디. 네 생각대로 그 머리로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를 저열한, 아니 실수했군, 저급한 치들이 네가 다칠 수 있다는 것도 잊고 서로 검을 겨누더라고.”라디올러슨는 순간적으로 휴리안이 왜 ‘저열한’을 실수라고 하고 ‘저급한’으로 바꿔썼는지 의아했다. 둘 다 비슷한 뜻아닌가? 그렇게 살짝 현실도피를 하며 딴 생각을 했다.휴리안은 여전히 화난 것 같은 목소리로 그때의 상황을 묘사했다.“우리가 당장 칼을 내려 놓으라고 화를 냈지만 카네리안은 들어먹질 않더구나. 그의 입장에선 모르는 사람이 정신을 잃은 너를 안고 갑자기 나타났으니 걱정이 됐을수는 있지만, 너를 정성스럽게 싸매서 광장까지 데리고 온 군복입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리가 없는데. 그것만 봐도 상당히 생각이 짧으신 분이야.”라디올러스는 이제 확실히 휴리안이 카네리안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큰 오빠가 5년 사이 상당히 보통사람 같아졌다고 내심 안심하고 있었다.윌로우도 그때를 회상하며 묘사를 덧붙였다.“임금님이 둘 다 칼을 내려 놓으라고까지 하셨는데도 둘다 서로를 노려보며 움직이지 않았었지. 와 나는 둘 다 불경죄로 잡혀가는 것일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도 떨렸었어.”소녀가 덩달아 긴장되서 얼른 물었다.“뭐? 그, 그럼 어떻게 상황이 정리됐어?”제르다민이 감정없는 무정함으로 설명했다.“카네리안이 미카엘 공에게 걸어가서 뭐하는 놈이냐고 멱살이라도 잡으려는 찰나에.”“윽, 설마 미카엘의 멱살을 잡았어? 미카엘이 가만 안있었을텐데?”제르다민이 그녀의 궁금해서 못참겠다는 얼굴에도 무표정하게 대답했다.“아니, 못 잡았어. 네가 별안간 기침을 몇 번 하더니 바짝 다가온 카네리안의 가슴팍에 토했거든.”“…?”소녀가 이해가 안된 다는 듯이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켰다. 내가 토한 게 맞냐고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어보는 모양새였다.헬리오가 상냥하게 그녀를 위로했다.“걱정마 그 덕분에 카네리안이 전의를 잃고 칼을 집어넣었어. 미카엘 공은 기분 좋아져서 낄낄 웃으시고.”윌로우는 피식 웃으며 위로에 말을 더했다.“맞아, 나는 광장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평화의 토’라고 하는 것도 들었어.”공작부인조차 카네리안을 재평가 했다.“어머 그러고보니 그런 일도 있었는데 카네리안 공은 라디에게 그에 대해선 한 마디도 나무라지 않네? 생각보다 대인배같기도 하고…”라디올러스는 자신이 기억도 없는 새에 국왕과 많은 국민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토악질을 해댔다는 게 창피함을 넘어서 충격이었다. 그녀는 고장난 것 처럼 멀뚱하게 서서 ‘내가?’를 되풀이 할 뿐이었다.휴리안만이 그녀를 안쓰럽게 보며 머리를 토닥였다.“괜찮아 라디. 데뷔탕트를 준비하면 바빠져서 창피한 거 생각할 새도 없을거야.”라디올러슨는 이 잔학한 흑역사의 열람을 멈추기 위해 다시한번 방금의 만찬으로 ‘평화의 토’를 시전할 거 같은 상태가 되었다.“훨씬 일찍 도착할 수 있었는데. 누구 덕분에 완전히 늦어버렸군요.”덜컹거리는 마차에서 어린 아이처럼 창문에 딱 붙은 채, 미카엘이 중얼댔다.혼자가 아니었다.반대편 좌석에는 다리를 우아하게 꼰 채 미카엘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는 메디엘 왕자가 있었다. 곧 25살이 되는 그는 아름다운 조각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이목구비를 가진 청년이었다. 한치의 오점도 없는 태생부터의 고귀함은 그의 머리위에 있지도 않은 왕관을 보이게 할 정도였다.왕자가 미카엘과 있을 무렵에는 자꾸만 구기게 되는 미간을 펴보려고 손가락으로 꾹꾹 집으며 비난했다.“미카엘 공. 그만 빈정대세요.”“네? 아, 저요?”미카엘은 완전히 대충 대답했다. 심지어 돌아보지도 않고 여전히 창밖의 지나가는 나무를 심드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미카엘은 이제 23살이었다. 다소 사나워 보이는 눈초리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 같은 매력이 있는 남자였다. 그가 평소와 같은 베일 듯이 날카로운 분위기 대신 지루해 죽겠다는 티를 내며 투덜대자, 평소보다 훨씬 어려보여서 마치 소년같았다.메디엘이 대놓고 짜증스러운 말투를 내기 시작했다.“여기에 너말고 또 누가 있나요!”미카엘은 여전히 심통 맞은 표정으로 창밖을 보며 대꾸했다.“왕자님이 아끼는 토끼 인형한테 말거는 줄 알았죠.”완전히 맘대로 지어내는 이야기에 메디엘이 오히려 기운이 빠진 것처럼 중얼댔다.“여기서 내가 ‘저에게 무슨 아끼는 인형이 있다는 겁니까?’하면 어차피 네가 원하는 바일 뿐이죠.”미카엘이 그제야 느릿하게 왕자를 돌아보았다. 그가 픽 웃을을 지으며 대꾸했다.“왕자님은 여전히 자존심 과잉이시네. 제가 왕자님께 뭐 바라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게 참 귀엽기도 하셔라.”“제가 언젠가 당신을 참수하게 하면, 다른 건 몰라도 당신 머리는 꼭 쪼개 볼겁니다. 도대체 뭐가 들었나 이거만큼 궁금한게 없어요.”메디엘이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뜬금없이 다시 화를 내었다.“아니, 라디올러스 양이 점심 전에 오면 안된다고 했잖아요! 데뷔탕트 드레스를 위한 재봉사들이 방문할거라서요!”미카엘이 왕자와 제대로 마주 보고 앉을 수 있게 자세를 고쳐 털썩 앉았다. 그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워보였다.“제가 알아서 때 맞춰서 혼자 갈거라니까. 이 나라의 왕자정도 되시는 분이 이렇게 자립심이 없으셔야. 밤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같이 가주는 시종도 있겠군요.”왕자는 그런 1차원 적인 도발은 통달한 것처럼 무심하게 응했다.“그래놓고 전날 밤에 미리 가 있으려는 속셈을 모르겠습니까.”미카엘은 픽 웃으며 중얼댔다.“전날 밤은 미리 갔다 왔지.”메디엘이 드디어 폭발했다.“작작하세요. 이 무례한 자가! 네가 말하면 다 진짜 같다고!”그때 마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이 느껴졌다. 미카엘은 얼른 창밖을 흘끔 보았다. 아, 프랑디아 성에 다 왔군. 그렇게 판단하자 마자 아직 멈추지 않았음에도 마차문을 열고 뛰쳐 내려버렸다.덕분에 마부가 마부석에서 팔딱 뛸 정도로 놀랐다.메디엘은 열려선 안될 곳에서 열려버려서 한참 끼익 덜컹 대며 열렸다 닫혔다 하는 마차 문틈을 통해 뛰어가는 미카엘의 등을 보았다. 그가 덫에 걸렸다 몸부림쳐서 억지로 틈으로 도망치는 여우와 닮았다는 생각을…하면서 자기도 미카엘을 따라 뛰쳐 내렸다. 마부는 한번 더 크게 놀라 이번에는 ‘으아아!’하고 소리까지 내었다.메디엘은 미카엘을 보며 매번 예절과 전통 매너를 지키는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지는 것이 싫었다.나도 라디올러스에게 뛰어가고 싶다.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오늘은 그냥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미카엘 핑계를 대서.한편 라디올러스는 데뷔탕트 드레스를 고르는데 안목을 더할겸, 보고싶었던 여성 손님들을 잔뜩 불러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다.동갑 친구인 안나, 파르펠, 마리안 공주가 초청에 기꺼이 응해 프랑디아 성에 방문해 주었다. 공작부인도 함께 드레스를 골라주다가, 대충 정해지는 것 같자 자리를 피해준 상태였다.라디올러스의 친구들은 각자의 매력을 한껏 꽃피워서, 다들 아름다운 숙녀가 되었다. 특히 안나는 예전의 그 말라깽이 주근깨 소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청초하고 우아한 아가씨가 되어있었다. 그녀가 즐거운 듯이 작게 웃으며 고개를 살풋 기울이곤 말했다.“라디, 역시 너의 그 예쁜 머리빛깔과 하얀 데뷔탕트 드레스는 참 좋은 조화구나.”여전히 인형같이 완벽한 외모의 마리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예쁜 목소리로 동조했다.“네! 어쩜 다 잘 어울려서 정하기 너무 힘들어요. 중간에 한번 갈아입으면 안되나요?”이지적이고 당돌해보이는 강한 이목구비의 파르펠이 씩 웃으며 중얼거렸다.“너도 우리와 같이 사교 데뷔를 했으면 더 좋긴 했을 텐데.”지금은 사교 시즌의 한가운데를 조금 지나는 시기로, 다른 소녀들은 대부분 사교시즌의 초기에 데뷔탕트를 치룬 상태였다.라디올러스가 다들 호응이 좋았던 드레스를 마지막으로 입어보다가 대답했다.“그래도, 데뷔탕트로 공로 치하 왕실 무도회라니 꽤 호화롭지 뭐야.”마리안이 꿈꾸는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두손을 모았다.“맞아요! 너무 멋져요! 어린 여성의 몸으로 그런 대단한 일을 해내다니! 그 무도회는 라디 양만을 위한 데뷔탕트 무대로 꾸며져도 하나도 과하지 않은걸요.”라디올러스는 가봉사가 시침핀을 떼어내자 드디어 편하게 뒤돌아보면서 손을 내저었다.“말도 안돼요 공주님. 저 말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제 데뷔탕트를 챙겨주시는 게 감사할 따름이죠. 근데 이 드레스는 시침핀을 떼어내도 그냥 잘 맞네요. 역시 그냥 이걸로 할까 봐요.”안나가 못 말리겠다는 듯 쿡쿡 웃었다.“그래도 가봉을 해야지 더 예쁠거야 라디.”파르펠도 어깨를 으쓱했다.“라디 양. 귀찮아서 가봉 안 하려고 그거 고르는 건 아닌거죠? 예쁘긴 하지만요.”그때 그들이 있는 응접실 밖에서 노크소리와 목소리가 들렸다.“라디! 안에 있어? 들어가도 돼?”파르펠이 당황해서 대답했다.“누구시죠? 아직 드레스 가봉중인데요?”목소리는 지지않고 간결히 물었다.“벗고있어?”마리안이 너무 노골적인 물음에 충격받아서 떨리는 손을 입가에 올렸다.반면 안나는 그다지 놀라지 않은 얼굴로 생긋 웃으며 중얼거렸다.“여전하군요. 미카엘 공.”라디올러스도 그저 활짝 웃으며 바로 뛰쳐나가려는 듯 드레스자락을 두손으로 올려잡으며 대답했다.“아~니. 다 입고 있지!”그 말과 동시에 문이 벌컥 열리고 붉은 머리의 청년이 만면의 미소로 입장했다.“라디!”그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를 향해 폴짝 뛰어 안기는 라디올러스를 목격했다. 지체할 것 없이 그녀를 품에 와락 안았다. 그가 킬킬 대며 물었다.“와 라디! 너 라디 맞아? 너무 예쁜데? 신부야?”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에서 기쁨에 못 이겨 방방 뛰었다.“으아아아! 미카엘이잖아!! 진짜 미카엘이야? 너무 보고싶었어!”그녀가 환호할 만큼 환호하자 그를 품에서 떼어내서 얼굴을 마주했다 그리곤 다시 벅차는 기쁨을 못참고 다시한번 그를 안고 발을 동동 굴렀다.“으아 미카엘이야!!!”미카엘은 그녀의 환희에 맞춰서 같이 얼싸안고 발을 동동 굴러주었다. 그리곤 킥킥 웃으며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라디, 근데 넌 기억 못하는 것 같지만 난 이 기쁨의 포옹 사실 저번에 집에서 한번 하긴 했어.”소녀가 퍼뜩 그를 올려다보고 놀란 것처럼 중얼댔다.“앗 정말? 그럼.”그녀가 다시 그를 부둥켜 잡았다.“한번 더 하자! 하하하 와~!!! 미카엘이다~!!”날카로운 인상의 청년은 그 말에 그야말로 아이같이 꺄르르 웃음을 터트리며 장난에 맞장구를 쳐주었다.“미카엘 공과 재회의 포옹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불쑥 미카엘의 뒤로 거친 숨을 몰아 쉬며 메디엘이 나타났다. 전력으로 뛰어왔는지 자신의 격한 호흡을 감당하느라 문가에 손을 짚은 포즈였다.라디올러스의 눈이 또 확 커졌다. 그녀가 웃음을 멈추지 못하며 외쳤다.“세상에! 메디엘 왕자님!”의외로 미카엘은 어깨를 으쓱하고선 쉽게 라디올러스를 놓아주었다. 메디엘에게도 소녀와의 재회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이해하는 눈치였다.메디엘이 하얀 드레스 복장의 라디올러스와 눈이 마주쳤다. 그가 코가 빨개진 채 감격스러운 듯 중얼거렸다.“하필 또 이렇게 신부 같으셔서… 뭐 때문에 가슴이 이토록 뛰는지 분간할 수가 없네요.”라디올러스는 그가 무어라 더 감상을 말하기 전에 그를 확 덮쳐 안았다. 메디엘은 비스듬히 체중을 문가에 실어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가 앞뒤 안가리고 덤벼들자 넘어질 뻔했다. 그러나 그 아찔함 마저도 너무나 즐거워서 그는 크게 웃었다. 아직 라디올러스가 다리를 심하게 절던 11세 무렵, 황궁에서 걸음마 연습을 할 때가 생각났다. 그때는 그녀와 마주보고 안아보는 것이 이렇게 그립고 소중해 질지 몰랐다.앞으로는 얼마나 더 소중해지는 걸까. 메디엘은 그것이 좀 두려울 정도였다.그녀가 코맹맹이 소리로 메디엘을 품에 안은 채 중얼댔다.“이런! 왕자님! 더 왕자님 같이 되셨잖아요.”메디엘이 그녀와 같이 눈물 먹은 목소리로 대답했다.“이전에도 왕자였고 지금도 왕자입니다. 더 왕자같이 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소녀가 왕자를 한 번 더 힘주어 안았다가 얼굴을 마주보며 키득댔다.“더 멋있어졌다는 거죠. 아 얼마나 보고싶던지.”메디엘이 느긋하게 쳐진 눈을 반쯤 접으며 웃었다.“그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봐주시나요.”“그럼요!”라디올러스가 ‘으으’하고 참는 소리를 내더니 다시 메디엘을 팍 껴안았다.“으아아 메디엘 왕자님 이렇게 장성해버리고 말이에요. 다커버렸어. 진짜 메디엘 왕자님이야.”메디엘이 사랑스럽다는 듯 웃으며 그녀의 뒷통수를 한손으로 슬쩍 쓰다듬었다. 그리곤 중얼거렸다.“만나자마자 이해 못할 말들을 쏟아내시는군요. 저보다 한참 어리시면서 뭔가요 그 장로회 같은 말투는.”미카엘이 참을 만큼 참은 것처럼 라디올러스를 왕자로부터 쭈욱 뜯어냈다.그가 평화롭게 선언했다.“재회의 포옹이 한번으로 족하다는 건 왕자님 본인이 말씀하신 겁니다.”메디엘이 짜증을 냈다. 그러나 미카엘은 아예 안 들리는 것처럼 딴청을 부렸다.마리안이 상큼하게 중재했다.“자, 기다려 드릴만큼 기다려 드렸습니다. 두 신사분들, 저희도 있었답니다. 보이지도 않았겠지만 말이에요.”그 틈을 노려 안나와 파르펠도 두 사람에게 인사를 했다. 파르펠은 곧바로 본론을 말했다.“죄송하지만, 일정이 너무 미뤄지면 곤란합니다 왕자님. 라디올러스 양은 아직 드레스 가봉 도중이었습니다.”딱 부러지는 말투였다.메디엘은 본인이 숙녀들의 범접하지 못할 시간에 억지로 밀고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있었다. 자신의 비매너에 얼굴을 살짝 붉힌 채 사과했다.“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례를…”미카엘이 의자를 찍 끌고 오는 소리를 내는 바람에 왕자의 사과가 가로막혔다. 그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응, 가봉 계속 해.”메디엘이 기가 막힌 얼굴로 빈정거렸다.“제가 억지로 막을 걸 계산에 두고 이러는 거죠? 당신.”미카엘이 불만스러워했다.“안 막으시면 훨씬 더 좋은데, 막으면 계산 내니까 저는 해봐서 나쁠게 없죠.”둘이 투닥거렸다. 라디올러스가 놀랍다는 듯이 마리안에게 물었다.“저 둘이 평소에도 저렇게 친해요?”마리안은 눈을 귀엽게 데굴 굴리고 대답했다.“글쎄요? 두 분의 속은 모르겠지만…”안나와 파르펠이 동시에 미묘한 표정을 했다.마리안이 두 청년을 바라보며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괴었다. 그녀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다.“왕궁 내에서는 두 분이 연인 관계라는 게 정설처럼 되어서 저도 좀 곤란해요.”라디올러스가 자기도 모르게 손뼉을 마주했다.“와우. 그래도 응원한다.”메디엘이 미카엘을 억지로 잡고 응접실을 나가려다 벌컥 화를 냈다.“아니! 남자 둘이 같이 다니면 그냥 다 동성애인겁니까? 게다가! 그렇게 쉽게 응원이라뇨! 뭡니까 그 닫혔지만 열린사고는!”미카엘도 재회 이후로는 처음으로 정색을 했다. 라디올러스는 그가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덕분에 떠올릴 수 있었다. 아무래도 그런 사이는 아닌가 보다.그녀는 방금의 말실수는 없었던 것처럼 생긋 웃었다. 다른 주제로 얼른 넘어가기위해 데뷔탕트 드레스자락을 휘날리며 한바퀴 휙돌았다.“그럼 그냥 이걸로 오늘 가봉까지 다 받아버릴까요?”안나가 그녀의 상황 전환에 동조하며 ‘찬성!’이라고 호호 웃었다.파르펠은 두 청년을 힐끔 힐끔 뒤돌아보며 중얼댔다.“아니, 그냥 이걸로 넘어가 주시는거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정말 라디 양에게 무르네요.”마리안이 라디올러스의 옷자락을 다듬어주며 상냥하게 주문했다.“어쨌든 두 분다 슬슬 나가주셨으면 하긴 한답니다. 이 예쁜 드레스를 걸치고, 붉은빛으로 입술을 칠하고, 인생에 한번 밖에 없는 데뷔 무도회를 치룰 라디올러스 양을 보고 싶다면 말이예요.”두 청년은 물끄러미 하얀 드레스의 소녀를 바라보았다.미카엘과 메디엘은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었다. 새삼 밀어닥치는 그리움과 경애를 담아 가볍게 목례를 한 후 응접실을 빠져나갔다.마리안은 닫히는 문에서 고개를 돌리며 키득댔다.“그래요, 얌전히 도와주시는게 두분의 동성애설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전방에서 활약해준 마법사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무도회가 열렸다. 라디올러스의 사교 데뷔기도 했다. 그러나 그날 미카엘은 그다지 기쁘지 않았다.라디올러스가 데뷔탕트 드레스를 고르던 날, 그녀는 헤어지면서 밝게 물었다."미카엘, 너도 올거지? 그럼 나 창피하지 않게 너도 나한테 춤 신청 해줘야해?"소녀는 첫 사교무대에 인기가 너무 없는 레이디가 될 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그러나 미카엘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라디올러스가 황당하다는 듯 벌컥 화를 냈다."뭐야! 댄스신청 정도를 못해주겠다는 거야? 너무하잖아? 내 사교데뷔인데!"미카엘은 답지 않게 대답을 우물쭈물거렸다.그날 라디올러스는 그에게 있어 그야말로 여신같아 보였다. 순백의 귀여운 듯 세련된 드레스. 봄 꽃같은 머리칼을 틀어 올려 화려하게 장식한 헤어. 그리고 아름다운 눈동자. 그를 바라보는 눈동자.그녀가 어른이 되어서 사교계에 발을 내민다고 한다. 그 영광스러운 첫 무대에 자신이 껴도 되는 걸까?미카엘은 꺼림칙해져서 작게 대답했다."한....여섯 번째 춤 상대 정도라면 괜찮을 것도 같아."그 대답에 소녀는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짓다가 깨달은 것처럼 중얼댔다."앗!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미카엘? 그래서 나랑 초반에 춤추기는 좀 그런가?"미카엘은 싸늘하게 그녀를 쏘아봐 주었었다.그녀의 사고 흐름이 이해는 가면서도 무척 기분이 나빴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라디올러스는 그의 눈초리가 싫었는지 손으로 그의 눈을 가려버리곤 가버리라는 듯이 꾹 눌렀다."왜 자기가 화를 내는거야? 연인이 있는 것도 아니면 왜 댄스 신청을 안 해? 얼른 가버려.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그는 그녀가 오해를 하는 것이 싫어서 결국 속내를 털어놓았다."아니...내가 네 데뷔탕트에는 안 어울리는 사람같아서 그랬어. 너의 그런 중요한 순간에는 좀 더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이랄까."그녀가 눈알을 짓누르고 있어서 말을 하는 순간에는 소녀의 표정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천천히 손을 내리자, 안압이 세졌다가 풀리면서 보이는 순간적이 검은 점들이 보였다.그리고 그 뿌연 점들 사이로 눈썹을 기울인 슬퍼보이는 소녀가 있다.미카엘은 입을 다물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뒤돌았다.라디올러스는 그의 뒷모습에 대고 '바보야 그냥 신청해' '멍청아 도대체 뭐라는 거야' '오긴 할거지?' 라며 큰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다.미카엘은 굳이 대답하지 않았다.이렇게나 겁쟁이라니. 한심하다.’미카엘은 무도회의 홀에 멀뚱히 서서 스스로를 매도했다. 간만에 기분 좋은 핑계로 열린 왕실 무도회였기에 대성황인 상태였다. 수도의 귀족과 유명인은 다 모인 것 같았다. 그 속의 미카엘은 태생부터 너무 달랐다.좀 더 대단한, 좀 더 유명한 가문의 초대 손님들이 한 명씩 도착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줄 때마다 미카엘은 외로워졌다. 빛깔 좋고 태생 좋은 품종 견들 사이에 잘못 놓여진 배고픈 들개 같은 생각이 들었다. 잘못하다간 옆의 살찐 녀석을 물어 죽여버릴 것도 같다.귀족이 싫었다. 실제로 잘난 것 하나 없이 알 수도 없는 핏줄을 운운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들이 싫었다. 그렇게 자랑하던 핏물은, 목을 잘라서 아무리 자세히 봐도 거지의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그 때 약속된 시간이 되어, 대부분의 손님도 모두 도착하자 오늘의 주인공들이 입장했다. 웅장한 음악이 흐르고 제일 먼저 카네리안이 호명되어 홀의 중앙까지 당당히 걸어 나왔다.그렇게 반항아적인 모습을 보였으면서, 막상 무도회에는 품위 있는 예복을 입고 정갈하게 머리칼을 정리한 채 곧은 자세로 당당하게 뚜벅 뚜벅 걸었다.누가 봐도 명문가에서 태어나 고위층으로 살다가 화려한 장례식으로 인생을 마감할 귀족 그 자체였다.미카엘은 그런 카네리안을 군중 속에서 멍하니 보았다.그 때 깨달았다.그는 카네리안이 부러웠던 것이다.미카엘은 자신의 복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도 오늘 최상의 예복을 입고 있다. 머리칼도 시중인들이 정성껏 다듬어 흠이 없었다. 그러나 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패배감. 그는 두 손을 내려다 보았다.그는 이 안에 흐르는 피가 싫었다.발버둥쳐야 살 수 있는 인생이 싫었다. 비열하지 않으면 배를 곯는 매일이 싫었다. 누가 나보다 더 비참한지 비교해야지 안심하고 잠에 들 수 있는 마을이 싫었다.그러나 그렇게 살아남았다.살아남고야 말았다.너무 오랜 시간 천박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억지로 백작 작위를 뺏어 봐야, 값비싼 옷감을 둘러봐야 결국 냄새가 날 것이다.그도 그럴 것이, 저렇게 태생이 아름다운 이도 숨길 수 없는 향기가 나기 때문이다.미카엘은 다시한번 카네리안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았다.아무리 건달같이 굴어도 귀족 냄새가 난다. 아무리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어도 이 왕성과 완벽하게 융화된다.‘그래, 나도 저렇게 태어나고 싶었어.’미카엘은 처음으로 자신의 질투를 인정했다. 카네리안은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 그 자체였다.그도 라디올러스의 옆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공작가문이고 싶었다. 그도 라디올러스와 함께 싸우고, 도울 수 있는 마법사이고 싶었다. 그도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고 싶었다.미카엘도 사실 될 수 있으면 세상물정 모르고 자라고 싶었다.그러나 그러지 못했을 뿐이다.그는 홀 중앙의 카네리안과 가장자리의 자신의 차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가 눈을 감고 아름다운 선율에 귀를 기울이며, 라디올러스의 등장을 기다렸다. 아마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괴리감도 못 깨달았을지 모른다. 허나 이제는 전부 늦은 일이다.마법사들의 등장은 화려하게 계속 되고 있었다. 메릴이라고 소개 된 여성 멤버가 마지막으로 등장했지만 아직 라디올러스는 보이지 않았다.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순서인가 보다. 데뷔탕트가 겸해진 마법사 그룹의 여성 마법사라는 것은, 그레펠의 마법사 군단을 치켜세워주고 광고하기 더할 나위 없을 소재였을 것이다.등장음악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미카엘은 다른 멤버들이 있는 홀 중앙으로 걸어나오는 메릴을 슬쩍 보았다. 그녀는 금발의 글래머러스한 미녀였다. 화려한 붉은 드레스가 썩 잘 어울렸다. 아마 라디올러스도 저렇게 화려하고 당당하게 걸어나올것이다. 미카엘은 우울했지만 그래도 그 모습이 기대되었다.라디올러스이 차례가 되었다. 마지막 멤버 등장소식에 홀 안의 모두가 입구에 집중했다. 그녀가 프랑디아 가문의 막내딸이라는 것과 지금이 18세 데뷔탕트 무대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아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기대했다. 수줍은 소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날 것을.라디올러스는 하얀색 망토를 군화 소리에 맞춰 리듬감 있게 펄럭이며 등장했다.그녀는 하얀 제복 차림이었다.모두들 할말을 잃었다.오직 마법사군단이 대기실에서 이미 봤는지 키득거릴 뿐이었다.라디올러스의 머리스타일 만이 집에서 나올 때와 같이 화려하게 틀어올려져 있었다. 의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때문에 그들보다 조금 빠르게 등장했던 프랑디아 가문사람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휴리안이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아. 어쩐지 대기실까지 하녀들이 짐을 지고 가던 게 군복이었구나.”제르다민이 질렸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지으며 대답했다.“뭐 하나 평범하게 지나가는게 없네. 굳이 열심히 드레스 입고 도착한 다음 왜 갈아입은 거죠? 우리까지 깜짝 놀래키려고인가?”휴리안이 상냥한 표정으로 제르다민의 어깨를 치며 해답을 주었다.“라디가 군복으로 가겠다고 하면 네가 가만히 안 있었을거라는 건 예상이 가는구나.”“…”제르다민은 수긍했다.왕족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어서 사교데뷔를 선언해줘야 하는 왕비조차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메디엘은 군복에 깜짝 놀란 듯 하다가 이내 웃음소리가 안 나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메디엘은 이런 기습공격에 늘 약했다.소녀는 머뭇거리는 기색없이 밝은 표정으로 또각 또각 걸어와서 왕과 왕비에게 공손히 절을 했다.왕비는 겨우 목을 가다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사교데뷔를 선언했다.왕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소녀에게 물었다.“라디올러스 양, 왜 데뷔탕트 드레스를 입지 않았는지 물어도 될까.”라디올러스는 머뭇거림 없이 대답했다.“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복을 입는 것이 가장 특별한 데뷔탕트가 될 것 같아서입니다. 마침 하얗기도 하고요.”임금이 생각보다 간단한 대답에 피식 웃으며 되물었다.“라디올러스 양은 드레스도 잘 어울렸을 텐데?”소녀는 따라서 웃었다.“’마침 승전을 한 18세 여성 마법사’의 데뷔탕트는 하얀 드레스로는 감당이 안될 것 같았습니다.”휴거위드 왕은 그 말에 씩 웃으며 중얼거렸다.“그래도 그대의 첫 댄스도 기대했었는데 아쉽군.”아닌게 아니라 군복인 레이디에게 선뜻 춤을 신청하기는 부담이 있을 터였다. 임금은 무심코 그렇게 생각하고 뱉은 말이었다. 라디올러스는 그러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폐하, 그렇게 생각해주신다면 부디 청 하나를 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중한 목소리를 냈다.“들어보겠다.”소녀는 부탁을 말하는 것 만큼은 긴장이 되는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제게 ‘거부할 수 없는 춤 신청’ 권한을 한 번만 주실 수 있으십니까?”임금은 참지 못하고 킥킥 웃었다. 웃는 모양새가 메디엘과 꼭 닮아있었다. 왕좌 위의 그가 호쾌하게 허락했다.“아, 재밌군. 그래. 가능한 그렇게 하시게. 지금 그대의 첫 댄스 권유를 시작으로 무도회를 시작하지.”스스로의 예상보다도 라디올러스의 춤 권유는 큰 집중을 받게 되었다. 홀 안이 잠잠해진 가운데, 그녀가 한발 한발 내딛었다. 모두의 눈이 그녀가 가는 곳으로 향했다.그녀가 긴장감에 상기된 얼굴로 또박 또박 말했다.“저와 춤을 춰 주시겠어요?”미카엘은 그 ‘거부할 수 없는 춤 신청’에 아이처럼 웃었다.그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빠졌다.“기꺼이.”미카엘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자 무도회 음악이 시작됐다.기쁨과 부끄러움이 섞여 발갛게 달아오른 소녀가 그를 이끌고 홀로 나오며 작게 말했다.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모양이 거의 복화술이었다.“앗 내가 리드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는데, 미안. 춤 출 때는 다시 내가 여성 스텝이 될게.”미카엘은 그러나 상기된 얼굴로 슬쩍 중얼댔다.“난 댄스도 내가 여성 포지션으로 추어도 상관없어. 니가 남성 스텝을 안다고 하면 말이야.”소녀는 놀라서 되물었다.“뭐? 난 남자 쪽 춤을 알긴 하지만….언제는 그냥 춤추기도 싫다고 하더니 그런 모양 빠지는 일을 하겠다고? 왜 굳이?”청년은 그녀가 놀라는 것이 오히려 의아한 것 같았다.“왜 모양이 빠져? 네가 나를 최고인 것처럼 만들어 줬잖아.”라디올러스는 그의 말에 미소를 띄우긴 했지만 아직도 영문을 모르겠는 표정이었다.“그래도 굳이 왜 여성 스텝을 추지? 게다가 출 수 있어? 평범한 댄스도 꺼려했으면서…”미카엘은 발그레한 볼로 방긋 웃었다.“나도 잘 몰라. 그냥 지금 너는 동화 속 왕자님 같잖아? 그 김에 나는 그냥 너에게 내 스텝을 맞추고 싶어.”그는 말이 끝나자 마자 멋대로 여성의 스텝을 밟았다. 겉보기에는 싱글싱글 웃으며 소녀에게 손을 얹고 아름다운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라디올러스는 어어? 하고 자연스럽게 남성 포지션이 되었다. 결국 라디올러스는 픽 웃었다.“뭐야! 너 그렇게 멋있게 차려 입고 여자 춤을 췄다고 남들한테 놀림받아도 난 몰라.”“이게 왜 놀림 받을 일인지 잘 이해가 안돼.”청년은 몽롱한듯 위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나는 많은 남자들의 야유를 받을 수도 있긴 하지. 하지만 그건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 허세와 체면같이 쓰레기 같은 걸 포기 못할 사내놈들의 질투야.”라디올러스는 귓가에 속삭여지는 목소리가 괜히 야해서 그를 슬쩍 곁눈질했다.그는 눈이 마주치자, 요염했던 목소리는 모르는 척 순진하게 씩 웃었다. 그리곤 방금보다도 힘차고 신난 것처럼 발을 내딛었다.소녀가 킥킥대며 그의 의도에 맞추어 신난 아이처럼 댄스를 리드했다.“너네 부하들이 드레스도 입어보라고 놀려도 난 모른다!”“아 난 확실히 천사 같은 상사라서, 부하들이 놀려 대면 눈물이 나버릴 순 있겠어.”그가 쾌할하게 대답하자, 그녀는 생각보다 아무도 미카엘을 입에 함부로 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그래서 소녀는 사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른으로 인정받은 후 첫 댄스를, 좀 더 마음껏 즐기기로 했다. 복잡한 것은 모두 잊고, 미카엘과 맞잡은 손으로 음악에 맞추어 한 스텝 한 스텝 이어가는 이 순간을 만끽했다. 자기도 모르게 킥킥 웃음이 나왔다. 모두의 앞에서 이렇게 군복을 입고 남자 스텝을 밟는 것이 첫 춤이 될 줄은 몰랐다.미카엘은 드디어 장난꾸러기처럼 웃기 시작하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찰랑이는 귀걸이 너머로 샹들리에가 내는 빛이 노르스름하게 들어온다. 그녀가 뻗어주는 두 팔에 안겨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좋은 향기가 아찔하다. 두 장갑을 벗어버리고 맨 손으로 그녀를 만지고 싶다. 목덜미에 잔잔히 남아 흔들거리는, 틀어올려지지 못한 잔머리들을 쓰다듬고 싶다.그런 생각들에 집중하느라, 첫 음악이 끝났을 때에서야 자신이 여성 스텝을 실수 했는지 걱정이 되었다. 소녀가 너무 열중해서 춤을 춘 탓에 부채질을 하면서 ‘재밌었다’ 하는 것을 보면, 큰 실수는 안 한것 같았다.미카엘은 그녀와의 춤이 너무 꿈만 같아서 오히려 아쉬울 정도였다. 현실감 없이 끝나버려서 자꾸만 더 붙잡고 싶었다. 미카엘이 괜히 그녀의 손을 놓아주지 않고 느릿 느릿 물었다.“어떻게 남성 스텝을 그렇게 잘 알고 있어 라디?”라디올러스는 픽 웃으면서 곁눈질로 제드 선배를 보았다.“제드선배는 평민 출신이라 춤추는 법을 몰랐거든, 너무 걱정하길래 나랑 붙어서 같이 연습했어.”카네리안과 다른 마법사 남성진들은 하나같이 가르치는데 잼병이었기에 보다 못한 라디올러스가 제드를 구제한 것이었다. 다행이 그 특훈은 효과가 있었는지 제드는 긴장한 표정이긴했지만 무리없이 첫 춤을 마쳤다.라디올러스의 시선을 눈치챈 제드가 첫 춤 파트너와 인사를 한 후에 소녀를 향해 작게 엄지를 날렸다. 라디올러스는 답례로 본인도 엄지를 날려주며 미카엘에게 되물었다.“난 그렇다 치고 넌 어떻게 여성스텝을 알아?”미카엘은 소녀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며 대답했다.“난 숨어서 귀족들이 춤을 질릴 까지 추는 걸 기다리는게 일이었으니까. 이런건 천번쯤 보면 대충 알게 되더라.”“그 귀족이 결국 춤에 질려서 혼자 돌아가거나 대기실에 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그녀가 질린 것처럼 중얼대자 미카엘은 별일 아닌 듯 대답했다.“난 ‘아프게’ 추가 옵션이 붙지 않으면 깔끔하게 날려줘.”라디올러스는 그런 사나운 대화에 익숙한 편이어서 그저 짓궂은 농담을 주고받은 정도로 머릿속을 털어냈다. 주변을 보니 아직까지 손을 맞잡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 밖에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미카엘에게 ‘고마워’ 라고 작게 말했다. 도망치지 않고 남들의 구설수에 오를만한 댄스에 응해줘서 기뻤다는 뜻이었다.그 감사의 인사 후에 라디올러스는 산뜻하게 홀을 빠져나가려 했다. 아무래도 군복을 입은 자신에게 더 이상 아무도 댄스신청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미카엘은 다시 그녀를 잡기가 조금 머뭇거려졌다. 두번이나 연속으로 소녀와 춤을 추면 구설수의 수위가 얼마나 더 높아질까 가늠해 보는 찰나였다.씩씩하게 가장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라디올러스를 메디엘이 얼른 붙잡았다. 그가 여유롭게 웃으며 단언했다.“당신의 인상적인 ‘거부할 수 없는 춤 신청’은 잘 보았어요. 저 3무한 사내에게 쓰기는 좀 아까운 권한이더군요. 자 이제 저의 ‘거부할 수 없는 춤 신청’을 받으세요.”메디엘의 춤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레이디는 왕비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었을 것이다.라디올러스가 헤싯 웃으며 ‘왕자님 체면은 괜찮으시겠어요?’라고 물으려고 할 때였다.언제 다가왔는지 코멜라가 ‘아아.’하고 크게 아쉬운 듯한 한숨을 쉬었다. 그녀가 들으란 듯이 중얼거렸다.“너무 멋진 라디올러스 양과 이번기회가 아니면 춤을 출 수 없을 텐데…”뼛속까지 매너로 꽉 차있는 메디엘은 차마 곤란한 여성의 속보이는 부탁을 거절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속박하는 ‘왕자님 다움’이 시키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양보의 말을 완벽하게 뱉었다.“아차 제가 너무 낭만이 없었네요. 부디 레이디와 라디올러스 양의 댄스를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을 주세요.”코멜라의 속셈이 뭘지 메디엘도 대충 예상이 갔다. 그녀가 제르다민과 좋은 관계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자신이 댄스를 가로 챈 후, 제르다민이 죽고 못사는 형님인 휴리안에게 그녀를 건네 주려는 속셈일 것이다.알면서도 자동으로 양보하게 되는 자신의 매너가 저주같았다. 코멜라가 아니나 다를까 휴리안과 눈짓을 했다. 메디엘은 부글 부글 끓는 마음으로 라디올러스와 코멜라의 춤을 보았다. 그러나 두 여성의 춤은 생각보다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코멜라는 키가 크고 늘씬한 미녀였다. 라디올러스는 그녀의 도시적인 이미지에 맞추어 세련되게 에스코트를 하고, 춤을 췄다. 메디엘은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춤을 즐기고 있었다.왕실 무도회에서 여성 둘의 춤이라니, 모두의 시선을 모으기 충분했다. 주변사람들도 처음엔 별일이 다 있다는 마음으로 구경하다가 하나 둘씩 호감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그리고 그들의 춤이 끝나자 마자 박수를 보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작품 같은 댄스였다. 코멜라도 처음엔 눈총을 감수했지만 그녀와의 오랜만의 만남이 기쁘기도 했고, 무엇보다 재밌었다. 그녀는 그러나 초기의 목적을 잊지 않고 자연스럽게 휴리안에게 라디올러스를 인도했다.휴리안은 기쁜 마음으로 소녀를 맞이하려했다. 실로 가슴뛰는 순간이었다.그때 불쑥 앳된 목소리가 그들의 조우를 방해했다. 코멜라가 그러했듯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다.“아아, 너무해요 코멜라 양. 저보다 먼저 라디 양을 채가시다니요.”마리안 공주였다. 라디올러스의 친한 친구이자, 메디엘의 여동생인 그녀는 한없이 사랑스럽게, 하지만 거절할 수 없게 라디올러스에게 손을 건냈다.“라디 양. 오늘 너무 멋있어요. 전 반해버렸는 걸요. 오늘 그대랑 춤을 추지 못하면 잠을 이룰 수 없을 거에요.”휴리안은 상냥하게 웃으며 손짓으로 마리안에게 양보하겠다는 표시를 했다. 그러나 휴리안도 얼른 메디엘을 돌아보았다. 메디엘이 보란듯이 마리안에게 윙크를 보내고 있었다.마리안도 똑같은 사명을 띄고 온 것이 분명했다.동갑내기 소녀들의 춤이 시작되었다. 방금전과의 댄스와는 확연히 다른 매력이 있었다. 인형같이 아름다운 금발의 마리안과 분홍빛 머리의 소녀는 서로 키득대며 빠른 템포의 춤을 즐겼다.마리안은 막상 음악이 시작되자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다.“라디 양, 제가 떼를 써서 곤란한가요?”라디올러스는 전혀 아니라는 듯 오히려 놀란것처럼 대답했다.“아니요? 제가 괜히 군복같이 튀는 것을 입고 와서, 공주님께 폐 아닌가요.”마리안이 실수로 스텝을 잘 못 밟은 척 라디올러스의 품 깊이 들어와서 중얼거렸다.“무슨 말씀이신가요, 전 오늘만큼 공주님 같은 적이 없었어요”원래 공주면서. 라디올러스는 그녀의 너스레 때문에 키득키득 웃었다. 마리안도 한층 어려보이게 웃어댔다.그녀들 덕분에 모두가 행복해질 지경이었다.해맑게 웃으며 진심으로 댄스를 재밌어 하는 소녀들이 다른이의 눈에도 귀여웠다. 노부인들은 다과를 즐기며 아예 자리 잡고 라디올러스의 춤을 구경하기에 이르렀다. 어린 레이디들이 하나 둘 씩 자신도 군복의 예쁜 소녀와 춤출 수 있길 바라기 시작했다.메디엘과 휴리안은 때아닌 라디올러스의 폭발적인 인기에 저버렸다. 명문가 레이디 들은 다들 차례로 줄을 서서 볼을 물들이고 라디올러스에게 댄스신청을 해댔다. 사랑에 빠지기라도 한 것 같았다.라디올러스는 마리안 이후에 안나와 한번, 이름모를 적극적인 소녀들과 또 두어번. 귀여운 소녀들이랑만 잔뜩 춤을 춘 후 지쳐서 대기실로 도망가 버렸다.레이디들의 등쌀에, 왕자와 휴리안의 차례는 영영 오지 않은 채 무도회는 끝나버렸다.그녀는 데뷔탕트 한번으로 부인들의 사교계에 있어, 아이돌이 되어버렸다.화려한 임명식을 이후로, 카네리안을 포함한 마법사 집단은 수도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짧은 휴식이후, 처음으로 새 건물로 출근하는 날이었다. 라디올러스는 기대감과 설렘 따위 하나 없이 가벼운 머리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왕실 소속 복도를 질척 질척 걸었다.복도의 끝에서 갈색머리에 점점히 주근깨가 박힌 청년이 라디올러스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카네리안 마법사 그룹의 한명인 체비츠였다. 성인 남자치고 살짝 왜소한 그의 몸집과 언제나 까부는 듯한 행동은 늘 그를 어려보이게 했다.“우와 이게 누구야~ 요즘 사교계의 유명인사! 군복 입은 천사 레이디 라디올러스 아냐? 이거 영광이야~”라디올러스는 지친 얼굴로 대답했다.“어째서 나 같은 아웃사이더가 그런 이해하기 힘든 소문을 탔죠? 왜 이렇게 잘못된 붐이 부는 걸까요. 매일같이 너무 정중한 모임 초대장이 온다구요 체비츠 선배.”체비츠는 싱글싱글 웃으며 라디올러스와 보폭을 맞추며 걸었다.“사교계에 목숨 건 레이디들이 들으면 분명 군복 입은 천사가 제 복 겨운지는 모른다고 할텐데. 나랑 서먹서먹한 내 약혼녀조차도 네 얘기를 꼬치 꼬치 물을 정도라고.”소녀가 멍하니 말을 듣다가 화들짝 놀랐다.“네? 약혼녀요? 약혼 했었어요? 선배?”체비츠가 그건 별일아니라는 듯 가벼운 말투로 넘겼다.“으응~ 오자마자 약식으로 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코르툴라 가문은 몸져 누워계신 폰헬츠 삼촌 말고는 나 밖에 괜찮은 마법사가 없잖아.”“폰헬츠 삼촌 대신 약혼을 했다고요? 삼촌이 젊어요? 근데 아파요?”소녀가 다소 멍청히 되묻자 체비츠가 기가 막힌 듯 킬킬 웃었다.“아니! 무슨 소리야 라디 하하하 폰헬츠 삼촌은 그분이잖아. 너희 아버지랑 같이 연구하셨던…근데 원인불명의 사고로 목숨만 건지신 분. 어렸을 때 너랑 같은 집에 살았을 수도 있는데 매정하다 라디.”라디올러스는 머쓱하게 머리를 긁었다.“몰라요. 그때 기억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그분이랑 선배 결혼이 무슨 상관이라고요?”체비츠는 밝고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주었다.“그나마 다음 세대 마법사를 낳을 가능성 높은 게 나밖에 없으니까 다들 얼른 내가 결혼하길 바란단 뜻이지.”“엑 말도 안돼요. 사람을 뭘로 보고…”소녀가 고개를 휘휘 저으며 진저리를 치자 체비츠가 어깨를 으쓱하며 의아해했다.“뭐가 말이 안돼? 프라마 졸업생이면 다들 비슷한 처지로 압박 받을 걸? 혈통마는 비싸게 팔리는 법이야 라디. 네가 사교계의 깜짝 유명인사가 된 건, 네가 군복을 입고 사교데뷔를 한 소녀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 물론 그것도 특별하지만, 군복을 입고 데뷔한 마법사라서 더욱 너에게 빠져드는 거라구.”“으으 귀찮아. 이게 다 뭐람.”라디올러스가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들을 듣고 골치아파하자, 체비츠가 장난꾸러기 처럼 놀렸다.“네가 집안도 좋고 당차니까 티타임에 불러놓고, 즐겁게 즐기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어떡하면 우리가문이 너한테 성은을 입을까 궁리할거라니깐? 내말 믿어 라디.”그녀가 여전히 질색 팔색하는 표정을 하자 체비츠는 비밀스럽게 귓속말 했다.“반면에 감히 너랑 연을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은 아마 너랑 카네리안의 염문을 기대할거야.”“네?! 그건 또 무슨 기분나쁜 예언이에요?!”라디올러스가 이제는 여기가 왕궁 내라는 것도 잊고 팔짝 뛰었다. 체비츠는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싱글싱글 웃으며 단언했다.“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최고랑 최고가 만났을 때를 상상하게 되어있어. 최강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말이야. 엄청난 뉴스겠지.”라디올러스가 얼굴을 굳히며 ‘설마요.’하고 코너를 돌다가 거대한 사람과 부딪혔다. 마찬가지로 같은 마법사 부대원인 베딕이었다. 그는 과묵하고 일견 무서워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씀씀이가 좋았다. 그가 무심한 표정으로 작은 목소리를 내어 그들에게 주의를 주었다.“이 바로 앞이 우리가 쓸 사무실이랑 회의실 그리고 연구실이야. 그리고 먼저 도착한 카네리안 부대장은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다들 목소리 낮춰서 들어가.”라디올러스는 부딪힌 걸 사과하려다 얼른 ‘고맙습니다 베딕 선배.’ 하고 조용히 사무실을 들어섰다.카네리안이 찡그린 얼굴로 새로 도착한 이들을 스윽 돌아보았다. 그의 옆에서는 제드도 엉거주춤 서 있다가 얼른 기쁜 얼굴로 두 손을 흔들며 라디올러스에게 달려왔다.누가 봐도 욕받이가 한 명 더 온 것을 환영하는 눈치였다. 이제 그의 성질을 나눠서 받을 수 있다.라디올러스가 마음의 준비를 위해 속삭이듯 제드에게 물었다.“또 왜 저래요?”제드가 우는 목소리로 대답해주었다.“우리한테 배정된 전용 야외 훈련장이 없어.”라디올러스가 바로 이해했다는 듯이 ‘아하.’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썩은 자존심으로 가득 찬 사내가 그래서 저렇게 첫날부터 성질이 나셨다?카네리안은 속마음을 읽은 것처럼 라디올러스를 돌아보며 화냈다.“야, 보이냐? 영웅취급 해주는 척 하면서 배정해 준 공간이라는 게 겨우 이정도 수준인게?”원체 무던한 라디올러스는 그가 매번 날뛰는 것이 지겨웠다. ‘저 카네리안이랑 염문이라니 끔찍하다’라고 속으론 혀를 차며 심드렁하게 대답했다.“제일 새 건물인데요 뭐. 해도 잘들고.”귀라도 파면서 말할 태세였다. 카네리안은 더욱 흥분해서 반박했다.“뭐라고? 사교계의 분홍 천사정도 되는 녀석이 수준이 그게 뭐야?!”라디올러스는 황당함에 바로 대응 하지 못하고 ‘뭐야 그 논리는…’ 하고 중얼거리는 정도에 그쳤다.카네리안은 왕국 제일의 괴팍함을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소리쳤다.“우리를 그저 그런 마법사 취급하니까 잘난 훈련장 하나를 안주는 거잖아!”제드가 달래려는 목소리로 대답했다.“아니, 실내 훈련장은 있다니까요 선배.”“우리는 일반 마법사랑 다르잖아! 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직접 전투 훈련을 해야하는데 야외 훈련장 하나가 없다고?!”라디올러스가 이 의미 없는 고성이 지겨워서 본인의 책상을 고르며 태평하게 의견을 냈다.“일반 마법사랑 다르니까 행정직원들도 우리가 그런게 필요한지 몰랐겠죠. 지금이라도 그냥 훈련장이 필요하다고 신청서를 내요. 우리한테 짜증내지 말고.”소녀의 지적에 제드가 대신해서 곤란한 듯 대답했다.“아…그게, 우리 쪽에 가까운 훈련소는 이미 일반 병사들이 전용 훈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카네리안이 창밖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씩 웃으며 악당 같은 목소리를 냈다.“아, 라디 네 말이 맞아 우린 야외 운동장이 꼭 필요하니까 일단 신청서라도 내야지. 어차피 주변 훈련장은 모두 누가 쓰고 있으니까, 공용으로라도 쓰자고 건의 해야겠다.”라디올러스가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쉽게 대답했다.“아, 뭐 그러시던지요.”카네리안이 바로 쿵쿵 대며 거칠게 사무실을 나섰다.제드가 의심쩍은 얼굴로 카네리안이 쳐다보던 밖을 보다가 화들짝 놀라 라디올러스에게 알렸다.“라디! 우리랑 제일 가까운 훈련장이 1부대 소속이야! 미카엘 경의 부대라고!”라디올러스는 ‘1부대’ 말만 듣고 카네리안을 뒤쫓아 뛰어갔다. 출근 첫날부터 장례를 치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